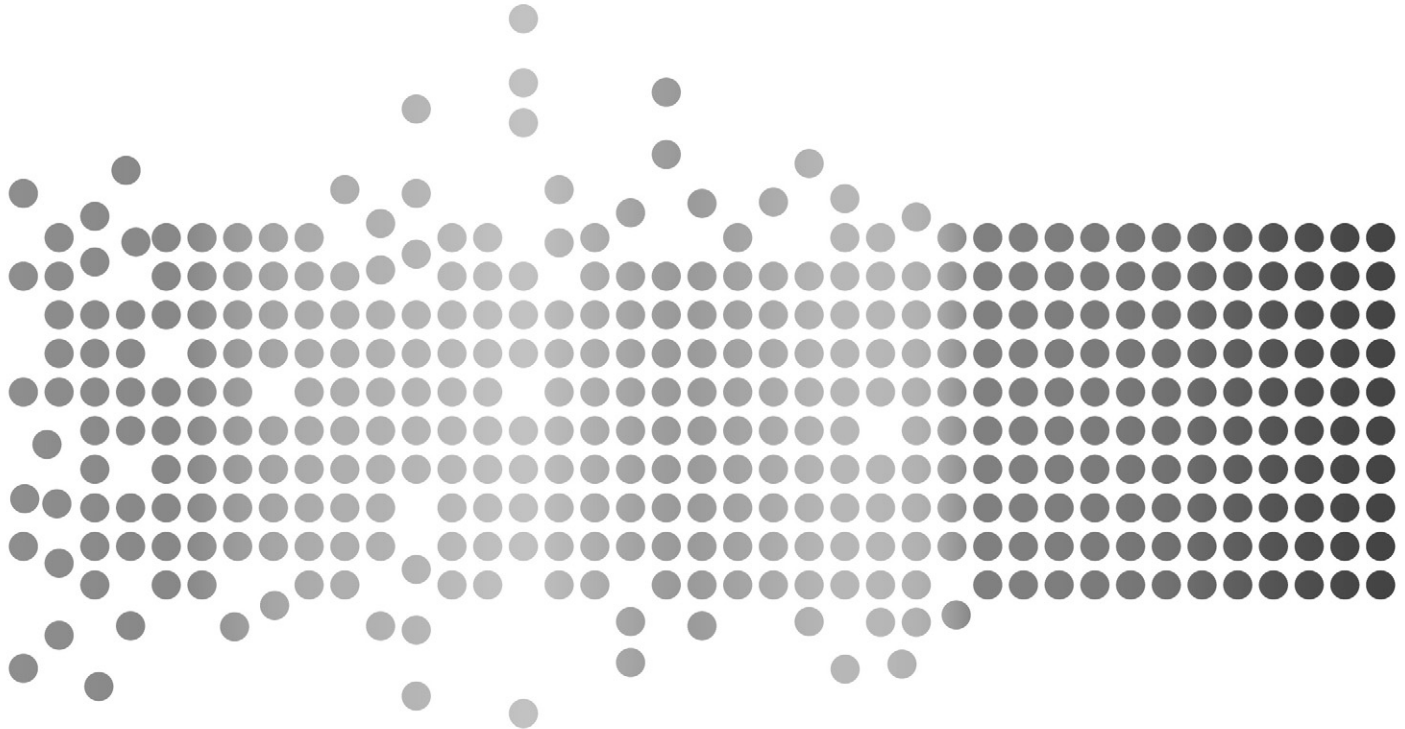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 오영희 · 이윤경 · 손창균 · 박보미 · 이수연 · 이지현  
권중돈 · 김수봉 · 이소정 · 이용식 · 이윤환 · 최성재 · 김소영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대행  
정 기 혜







## 머리말

2011년 현재 고령화율은 11.4%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5,656천명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2017년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7년 1월에 노인복지법 제5조에 매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법제화 이전에도 전국규모의 노인실태조사가 1994년, 1998년, 2004년에 실시되었으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법적 기반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이며, 2011년에 실시된 본 조사는 2009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를 기반으로한 두 번째 조사이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정책적 자료의 생산과 적절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동태(動態)자료)와 노인의 제특성 파악(정태(靜態)자료)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서, 종단적 조사와 횡단적 조사의 자료를 함께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종단적 조사로서 2008년에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한 종단조사결과와 산출과 횡단조사로서의 지속적으로 산출되어온 65세 이상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법 외에도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수정을 통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인생활의 변화추

이를 예측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오영희 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손창균 연구위원, 박보미 연구원, 이수연 연구원, 이지현 연구원, 김소영 전 연구원과 원외의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봉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자문위원, 현지조사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관계자와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본원 보건복지통계정보실 조사패널팀의 이연희 팀장 및 팀원 일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지도원 및 조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대행

정기혜

요약 .....	1
<b>제1편 서론</b> .....	1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	17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조사 검토 .....	23
제3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43
<b>제2편 노인(65세 이상)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b> .....	93
제1장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실태 .....	97
제2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125
제3장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	165
제4장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05
제5장 노인의 경제 상태 .....	233
제6장 노인의 보건의료 실태 .....	281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	319
제8장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	347
제9장 노인의 여가·사회활동 실태 및 욕구 .....	387
제10장 노인의 생활환경 .....	449
제11장 노인의 복지서비스 관련 인식 및 욕구 .....	483
<b>제3편 패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b> .....	547
제1장 패널의 일반특성 및 가족·사회적 관계 .....	551
제2장 패널의 경제상태 .....	571
제3장 패널의 건강 및 기능상태 .....	581
제4장 패널의 사회참여 실태 .....	593
제5장 패널의 생활환경 .....	599
제6장 패널의 가치관 및 복지서비스 관련 욕구 .....	605

<b>제4편 요약 및 시사점</b>	609
제1장 조사결과 요약	613
제2장 조사결과의 시사점 및 제언	637
<b>참고문헌</b>	647
<b>부 록</b>	655
부록 1. 2008년도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비교	656
부록 2. 부표: 일반특성별 분석표	678
부록 3. 부표: 시·도별 분석표	704
부록 4. 조사표	824
부록 5. 자문위원단 명단	864

〈표 1-2-1〉 우리나라 노인실태 조사(횡단적 조사)	35
〈표 1-2-2〉 우리나라 노인 실태조사(종단적 조사)	36
〈표 1-3-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20% 샘플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44
〈표 1-3-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전화조사 결과	44
〈표 1-3-3〉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관리 및 모니터링 전화조사 접촉 대상자 분포	49
〈표 1-3-4〉 모니터링 결과- 조사원 친절 및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	50
〈표 1-3-5〉 조사 실시 장소	51
〈표 1-3-6〉 설문문항의 난이도	51
〈표 1-3-7〉 퇴소 및 퇴원 여부	52
〈표 1-3-8〉 신뢰수준과 최대허용오차별 적정 표본크기( $p=0.5$ )	58
〈표 1-3-9〉 지역별 표본크기 배정방식의 비교	59
〈표 1-3-10〉 지역별 조사구 당 조사가구	60
〈표 1-3-11〉 지역별 조사구 당 조사가구의 배정 및 필요 조사구 수	61
〈표 1-3-12〉 2008년 표본현황	66
〈표 1-3-13〉 2010년 전화 접촉 현황	67
〈표 1-3-14〉 지역별 개인 가중값 통계량(2008년)	69
〈표 1-3-15〉 지역별 가구 가중값 통계량(2008년)	70
〈표 1-3-16〉 2011년 노인조사 완료 표본현황	72
〈표 1-3-17〉 2011년 노인조사 표본유지율 및 완료율	72
〈표 1-3-18〉 2011년 노인조사 횡단면 개인 가중값 통계	75
〈표 1-3-19〉 2011년 노인조사 횡단면 가구 가중값 통계	76
〈표 1-3-20〉 2011년 노인조사 종단면 개인 가중값 통계	78
〈표 1-3-21〉 2011년 노인조사 종단면 가구 가중값 통계	78
〈표 1-3-22〉 2011년 노인조사 완료 현황	80
〈표 1-3-23〉 2008년 노인실태 조사자의 2011년도 조사 현황	80
〈표 1-3-24〉 노인실태조사의 패널 유지율	80

〈표 Ⅰ-3-25〉 조사미완자 미완이유 분석(인포시트 기초) .....	81
〈표 Ⅰ-3-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대리응답 이유 (대리응답자에 한함) ..	81
〈표 Ⅰ-3-27〉 체크리스트 응답자의 사유 분포 .....	82
〈표 Ⅰ-3-28〉 사망한 대상자의 설문 응답자의 제특성 .....	83
〈표 Ⅰ-3-29〉 입원한 대상자 설문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및 입원노인의 특성 ...	84
〈표 Ⅰ-3-30〉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설문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및 입소관련 특성 ..	85
〈표 Ⅰ-3-31〉 사후관리를 위한 전화조사결과 총괄 .....	86
〈표 Ⅰ-3-32〉 2008년과 2011년 설문지 구성의 영역의 통합 및 순서 조정, 비중 조정 ..	87
〈표 Ⅰ-3-33〉 사전조사대상자 기본사항 .....	88
〈표 Ⅰ-3-34〉 2011년 노인실태조사 설문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90
〈표 Ⅱ-1-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	99
〈표 Ⅱ-1- 2〉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일반특성분포 .....	102
〈표 Ⅱ-1- 3〉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일반특성분포 .....	105
〈표 Ⅱ-1- 4〉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 .....	107
〈표 Ⅱ-1-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	109
〈표 Ⅱ-1-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 실태 .....	111
〈표 Ⅱ-1- 7〉 주거상태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소유 실태 .....	112
〈표 Ⅱ-1-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의 시가(자산) .....	113
〈표 Ⅱ-1-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	116
〈표 Ⅱ-1-10〉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	116
〈표 Ⅱ-1-11〉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	117
〈표 Ⅱ-1-1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	117
〈표 Ⅱ-1-1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	119
〈표 Ⅱ-1-1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	120
〈표 Ⅱ-1-15〉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	120
〈표 Ⅱ-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 거주형태 .....	122

〈표 II-2-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울)	128
〈표 II-2-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130
〈표 II-2-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132
〈표 II-2-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134
〈표 II-2-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136
〈표 II-2- 6〉 노인(65세 이상)의 왕래가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137
〈표 II-2-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139
〈표 II-2-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141
〈표 II-2-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144
〈표 II-2-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145
〈표 II-2-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실태 및 연령	147
〈표 II-2-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의 건강상태	147
〈표 II-2-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148
〈표 II-2-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왕래빈도	149
〈표 II-2-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연락빈도	150
〈표 II-2-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왕래빈도	151
〈표 II-2-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빈도	152
〈표 II-2-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154
〈표 II-2-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156
〈표 II-2-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159
〈표 II-2-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	161
〈표 II-3-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69
〈표 II-3-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70
〈표 II-3-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71
〈표 II-3-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72
〈표 II-3-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173

〈표 II-3-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174
〈표 II-3-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175
〈표 II-3-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79
〈표 II-3-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80
〈표 II-3-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81
〈표 II-3-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82
〈표 II-3-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183
〈표 II-3-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184
〈표 II-3-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185
〈표 II-3-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87
〈표 II-3-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88
〈표 II-3-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89
〈표 II-3-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90
〈표 II-3-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191
〈표 II-3-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192
〈표 II-3-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193
〈표 II-3-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96
〈표 II-3-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97
〈표 II-3-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98
〈표 II-3-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99
〈표 II-3-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200
〈표 II-3-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201
〈표 II-4-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206
〈표 II-4-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208
〈표 II-4-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 · 희망자녀	210



〈표 II-4-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	212
〈표 II-4-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	214
〈표 II-4-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216
〈표 II-4-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218
〈표 II-4-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	219
〈표 II-4-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	221
〈표 II-4-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222
〈표 II-4-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24
〈표 II-4-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26
〈표 II-4-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성생활 만족도	228
〈표 II-4-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성	229
〈표 II-5- 1〉 인구사회적 특성별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34
〈표 II-5-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236
〈표 II-5-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240
〈표 II-5- 4〉 가구 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	241
〈표 II-5-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비 주부담자	243
〈표 II-5-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용돈 주부담자	245
〈표 II-5-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본인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247
〈표 II-5-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수입, 소득항목별 구성(본인) 금액 및 비율	249
〈표 II-5-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부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251
〈표 II-5-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구성(부부) 금액 및 비율	253
〈표 II-5-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부 수입의 공적·민간지출 및 가계수입의 구성	255
〈표 II-5-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중 개인소득의 비중	257
〈표 II-5-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중 부부소득의 비중	258
〈표 II-5-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부동산 규모(본인)	261

〈표 II-5-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부동산 규모(부부)	263
〈표 II-5-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규모(본인)	265
〈표 II-5-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부부)	267
〈표 II-5-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본인)	269
〈표 II-5-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부부)	271
〈표 II-5-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사유	273
〈표 II-5-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275
〈표 II-5-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277
〈표 II-6-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소의 건강상태	282
〈표 II-6-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284
〈표 II-6-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만성질환 수	286
〈표 II-6- 4〉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만성질환의 본인인지 유병률 및 의사진단율	287
〈표 II-6-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의사 처방 복용 약의 복용실태	289
〈표 II-6-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2주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	291
〈표 II-6-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보건의료비	293
〈표 II-6-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률 및 이용횟수	295
〈표 II-6-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및 참여장소	297
〈표 II-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299
〈표 II-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 장소	300
〈표 II-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 이유	300
〈표 II-6-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에 대한 두려움	302
〈표 II-6-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우울증상	304
〈표 II-6-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306
〈표 II-6-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음주 정도	308
〈표 II-6-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영양관리 상태	310

〈표 II-6-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	312
〈표 II-6-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수행 장소 .....	313
〈표 II-6-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일 평균 수면시간 .....	314
〈표 II-7-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	320
〈표 II-7-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	322
〈표 II-7-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씹기능력 및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	324
〈표 II-7-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 .....	326
〈표 II-7-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하지 근력상태 .....	327
〈표 II-7-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 .....	329
〈표 II-7- 7〉 노인(65세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	330
〈표 II-7-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	332
〈표 II-7- 9〉 노인(65세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	333
〈표 II-7-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	335
〈표 II-7-11〉 노인(65세 이상)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	336
〈표 II-8-12〉 노인(65세 이상)의 MMSE-KC .....	338
〈표 II-7-13〉 노인(65세 이상)의 수발여부 및 수발자 .....	340
〈표 II-7-1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	342
〈표 II-7-1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1주일 평균 수발 제공시간 .....	344
〈표 II-8-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	349
〈표 II-8-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사직종 .....	351
〈표 II-8-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종사상의 지위 .....	353
〈표 II-8-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	355
〈표 II-8-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357
〈표 II-8-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	359
〈표 II-8-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361
〈표 II-8-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지속 여부 .....	363

〈표 II-8-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364
〈표 II-8-10〉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경제활동 의사	367
〈표 II-8-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368
〈표 II-8-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하고 싶은 일	371
〈표 II-8-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 근로 시간	372
〈표 II-8-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 소득수준	373
〈표 II-8-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 우선조건(1순위)	375
〈표 II-8-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활동(1순위)	376
〈표 II-8-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의 최장기 종사직종 여부	379
〈표 II-8-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의 종류	380
〈표 II-8-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의 종사상 지위	381
〈표 II-8-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의 종사기간	382
〈표 II-8-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 그만둔 이유	383
〈표 II-9-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TV 시청률 및 시청 시간	388
〈표 II-9-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횟수	390
〈표 II-9-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행 계획시 중요한 기준	392
〈표 II-9-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국내외 여행 방법	394
〈표 II-9-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397
〈표 II-9-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핸드폰 소유 여부	398
〈표 II-9-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402
〈표 II-9-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403
〈표 II-9-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404
〈표 II-9-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405
〈표 II-9-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을 및 교육 참여 빈도	407

〈표 II-9-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	408
〈표 II-9-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	409
〈표 II-9-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	410
〈표 II-9-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및 향후 참여 희망률 .....	412
〈표 II-9-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413
〈표 II-9-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하게 된 경로 .....	414
〈표 II-9-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	417
〈표 II-9-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	418
〈표 II-9-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간 .....	419
〈표 II-9-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	421
〈표 II-9-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	422
〈표 II-9-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이유 .....	424
〈표 II-9-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만족 정도 .....	425
〈표 II-9-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률 및 활동 종류 .....	427
〈표 II-9-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참여 영역 .....	429
〈표 II-9-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법 .....	431
〈표 II-9-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	432
〈표 II-9-2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434
〈표 II-9-3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435

〈표 II-9-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	437
〈표 II-9-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시 동반자	438
〈표 II-9-3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여가문화활동 장소	439
〈표 II-9-3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여가문화활동 장소	439
〈표 II-9-3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 만족 정도	440
〈표 II-9-3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 참여 여부	443
〈표 II-9-3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445
〈표 II-10-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450
〈표 II-10-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위치	451
〈표 II-10-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지도원 의견)	453
〈표 II-10- 4〉 노인의 지역·성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455
〈표 II-10- 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455
〈표 II-10- 6〉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456
〈표 II-10- 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456
〈표 II-10- 8〉 노인(65세 이상)의 연가구소득·기능제한상태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457
〈표 II-10- 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458
〈표 II-10-1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459
〈표 II-10-11〉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459
〈표 II-10-1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460
〈표 II-10-13〉 노인(65세 이상)의 연가구소득·기능제한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460
〈표 II-10-14〉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462
〈표 II-10-1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462
〈표 II-10-16〉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463
〈표 II-10-1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463

〈표 II-10-18〉 노인(65세 이상)의 연가구소득·기능제한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464
〈표 II-10-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465
〈표 II-10-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시 어려움 정도	467
〈표 II-10-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468
〈표 II-10-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영업 자동차 소유 여부	470
〈표 II-10-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471
〈표 II-10-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473
〈표 II-10-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학대경험	475
〈표 II-10-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학대 경험시 대응방법에 대한 태도	477
〈표 II-10-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479
〈표 II-11-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 실태	484
〈표 II-11-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 및 평균 근로시간	486
〈표 II-11-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 유형	487
〈표 II-11-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489
〈표 II-11- 5〉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491
〈표 II-11- 6〉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거주형태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491
〈표 II-11- 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492
〈표 II-11- 8〉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492
〈표 II-11-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욕구	494
〈표 II-11-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496
〈표 II-11-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498
〈표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농지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500
〈표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농지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502

〈표 II-1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실태 .....	504
〈표 II-1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이유 .....	505
〈표 II-1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만족 이유 .....	508
〈표 II-11-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	509
〈표 II-11-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미이용 이유 .....	510
〈표 II-11-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	514
〈표 II-11-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	515
〈표 II-11-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만족 이유 .....	516
〈표 II-11-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미이용 이유 .....	517
〈표 II-11-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율, 신청률 및 등급 .....	519
〈표 II-11-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정부사업 인지율 .....	521
〈표 II-11-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식당 이용실태 .....	523
〈표 II-11-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식당 이용 이유 .....	524
〈표 II-11-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유료맞춤식사서비스 이용의사	525
〈표 II-11-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지하철(수도권 전철, 도시철도)무료이용	529
〈표 II-11-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철도할인 .....	530
〈표 II-11-3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 .....	531
〈표 II-11-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	532
〈표 II-11-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	533
〈표 II-11-3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	535



〈표 II-11-3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536
〈표 II-11-35〉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536
〈표 II-11-36〉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537
〈표 II-11-37〉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537
〈표 II-11-3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1순위)	538
〈표 II-11-3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540
〈표 II-11-4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540
〈표 II-11-41〉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541
〈표 II-11-4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541
〈표 II-11-43〉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542
〈표 II-11-44〉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544
〈표 II-11-4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544
〈표 II-11-46〉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545
〈표 II-11-4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545
〈표 II-11-48〉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546
〈표 III-1-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552
〈표 III-1-2〉 패널의 주택소유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54
〈표 III-1-3〉 패널의 거주 주택의 시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55
〈표 III-1-4〉 패널의 거주 주택의 종류(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56
〈표 III-1-5〉 패널의 거주형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56
〈표 III-1-6〉 패널의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57
〈표 III-1-7〉 패널의 가족현황(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58
〈표 III-1-8〉 2008년과 2011년 응답자의 비동거자녀·비동거손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560
〈표 III-1-9〉 패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의 제특성(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61
〈표 III-1-10〉 패널의 비동거 부모·배우자의 부모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562

〈표 III-1-11〉 패널의 친인척(형제·자매포함) 및 친구·이웃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62
〈표 III-1-12〉 패널의 동거자녀·비동거자녀와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65
〈표 III-1-13〉 패널의 부모와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66
〈표 III-1-14〉 패널의 배우자와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67
〈표 III-2-1〉 패널의 소득항목별 소득이 있는 비율(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2
〈표 III-2-2〉 패널의 소득항목별 변화 양상(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2
〈표 III-2-3〉 패널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3
〈표 III-2-4〉 패널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4
〈표 III-2-5〉 패널의 주관적 생활수준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4
〈표 III-2-6〉 패널의 생활비 주 부담자(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5
〈표 III-2-7〉 패널의 생활비 주 부담자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5
〈표 III-2-8〉 패널의 개인(본인)소득 구성항목별 있는 비율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7
〈표 III-2-9〉 패널의 개인(본인)소득항목별 소유여부 변화 양상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7
〈표 III-2-10〉 패널의 개인(본인)의 소득현황 및 구성비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7
〈표 III-2-11〉 패널의 부채 현황(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78
〈표 III-3- 1〉 패널의 동년배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및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 수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2
〈표 III-3- 2〉 패널의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 수(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2
〈표 III-3- 3〉 패널의 낙상률·우울증상경험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3
〈표 III-3- 4〉 패널의 낙상률 및 우울증상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3

〈표 III-3- 5〉 패널의 흡연상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4
〈표 III-3- 6〉 패널의 음주상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4
〈표 III-3- 7〉 패널의 건강검진 수진율(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5
〈표 III-3- 8〉 패널의 시력, 청력, 저작능력 상태 및 보조기 사용률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6
〈표 III-3- 9〉 패널의 보조기 사용실태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6
〈표 III-3-10〉 패널의 신장 및 체중과 비만정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6
〈표 III-3-11〉 패널의 비만도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7
〈표 III-3-12〉 패널의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7
〈표 III-3-13〉 패널의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8
〈표 III-3-14〉 패널의 인지기능 저하자(MMSE-KC)(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8
〈표 III-3-15〉 패널의 간병 수발 여부 및 주수발자(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89
〈표 III-4- 1〉 패널의 경제활동 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93
〈표 III-4- 2〉 패널의 경제활동의 변화 양상(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94
〈표 III-4- 3〉 패널의 경제활동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94
〈표 III-4- 4〉 패널의 경제활동참여자의 만족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95
〈표 III-4- 5〉 패널의 경제활동 미참여자의 미참여 이유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95
〈표 III-4- 6〉 패널의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참여희망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596
〈표 III-4- 7〉 본인의 여가문화 만족정도(2008년도 및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596
〈표 III-5-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008년도 및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599
〈표 III-5- 2〉 패널의 외출시 불편한 점(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600
〈표 III-5- 3〉 패널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 여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601
〈표 III-5- 4〉 패널의 운전여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602
〈표 III-5- 5〉 패널의 학대경험 및 학대 유형(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	602

〈표 III-6- 1〉 패널의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605
〈표 III-6- 2〉 패널의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606
〈표 III-6- 3〉 패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지 및 참여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607
〈표 III-6- 4〉 패널의 노인보호관련 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608
〈표 III-6- 5〉 패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608

### 〈부표 목차〉

#### 부표: 일반특성별 분석표

〈부표 II-1- 1〉 노인(65세 이상)의 현취업상태 · 연가구소득(분위) · 기능제한 여부별 일반특성분포 .....	677
〈부표 II-7-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옷입기 ...	678
〈부표 II-7-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679
〈부표 II-7-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목욕하기	·680
〈부표 II-7-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식사하기	·681
〈부표 II-7-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누웠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	682
〈부표 II-7-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화장실출입과 대소변 처리 .....	683
〈부표 II-7-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대소변조절하기	·684
〈부표 II-7-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몸단장 ...	685
〈부표 II-7-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집안일 ...	686
〈부표 II-7-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식사준비	687
〈부표 II-7-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빨래 .....	688

〈부표 II-7-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약챙겨먹기	·689
〈부표 II-7-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금전관리	690
〈부표 II-7-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근거리 외출하기	·691
〈부표 II-7-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물건구매	·692
〈부표 II-7-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전화이용	693
〈부표 II-7-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교통수단 이용	694
〈부표 II-11-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695
〈부표 II-11-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696
〈부표 II-11-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2순위)	697
〈부표 II-11- 4〉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698
〈부표 II-11- 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698
〈부표 II-11- 6〉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699
〈부표 II-11- 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699
〈부표 II-11- 8〉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700
〈부표 II-11- 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700
〈부표 II-11-1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701
〈부표 II-11-11〉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701
〈부표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702
〈부표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702

#### 부표: 시·도별 분석표

〈부표 시·도별 I-3-3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대리응답 이유	·703
〈부표 시·도별 II-1-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역·성별 분포	·704
〈부표 시·도별 II-1-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령·결혼상태 분포	·704
〈부표 시·도별 II-1-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형태·교육수준 분포	·705
〈부표 시·도별 II-1-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705

〈부표 시·도별 II-1-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거주주택의 소유 실태	706
〈부표 시·도별 II-1- 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의 시가(자산) ...	706
〈부표 시·도별 II-1-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단독가구 거주 기간	707
〈부표 시·도별 II-1-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단독가구 거주 이유	707
〈부표 시·도별 II-1-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혼자녀와 동거 이유	708
〈부표 시·도별 II-1-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희망 거주형태 .....	708
〈부표 시·도별 II-1- a〉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취업상태·연가구소득 (분위)·기능제한여부 분포 .....	709
〈부표 시·도별 II-1- b〉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	709
〈부표 시·도별 II-1- c〉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원수·신규가족여부 분포	710
〈부표 시·도별 II-2-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율)	710
〈부표 시·도별 II-2-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711
〈부표 시·도별 II-2-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711
〈부표 시·도별 II-2-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접촉빈도	712
〈부표 시·도별 II-2-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712
〈부표 시·도별 II-2- 6〉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	713
〈부표 시·도별 II-2- a〉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까지의 소요시간 .....	713
〈부표 시·도별 II-2-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	714
〈부표 시·도별 II-2- 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	714
〈부표 시·도별 II-2-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	715
〈부표 시·도별 II-2-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	715

〈부표 시·도별 II-2-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실태 및 연령 .....	716
〈부표 시·도별 II-2-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의 건강상태 .....	717
〈부표 시·도별 II-2-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	718
〈부표 시·도별 II-2-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와의 왕래빈도 ...	719
〈부표 시·도별 II-2-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와의 연락빈도 ...	719
〈부표 시·도별 II-2-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 부모와의 왕래빈도 .....	720
〈부표 시·도별 II-2-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빈도 .....	720
〈부표 시·도별 II-2-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	721
〈부표 시·도별 II-2-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	721
〈부표 시·도별 II-2-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	722
〈부표 시·도별 II-2-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 .....	722
〈부표 시·도별 II-3-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	723
〈부표 시·도별 II-3-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	723
〈부표 시·도별 II-3-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	724
〈부표 시·도별 II-3-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	724
〈부표 시·도별 II-3-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	725
〈부표 시·도별 II-3-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	725
〈부표 시·도별 II-3-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	726

〈부표 시·도별 II-3-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	726
〈부표 시·도별 II-3-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	727
〈부표 시·도별 II-3-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	727
〈부표 시·도별 II-3-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	728
〈부표 시·도별 II-3-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	728
〈부표 시·도별 II-3-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	729
〈부표 시·도별 II-3-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	729
〈부표 시·도별 II-3-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730
〈부표 시·도별 II-3-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730
〈부표 시·도별 II-3-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731
〈부표 시·도별 II-3-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731
〈부표 시·도별 II-3-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732
〈부표 시·도별 II-3-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732
〈부표 시·도별 II-3-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	733
〈부표 시·도별 II-3-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	733
〈부표 시·도별 II-3-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	734



〈부표 시·도별 II-3-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	734
〈부표 시·도별 II-3-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	735
〈부표 시·도별 II-3-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	735
〈부표 시·도별 II-3-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	736
〈부표 시·도별 II-4-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736
〈부표 시·도별 II-4-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737
〈부표 시·도별 II-4-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	737
〈부표 시·도별 II-4-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 .....	738
〈부표 시·도별 II-4-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	738
〈부표 시·도별 II-4-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739
〈부표 시·도별 II-4-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교 현황 .....	739
〈부표 시·도별 II-4- 8〉 노인의 시·도별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 .....	740
〈부표 시·도별 II-4-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건강상태 만족도 .....	740
〈부표 시·도별 II-4-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상태 만족도 .....	741
〈부표 시·도별 II-4-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741
〈부표 시·도별 II-4-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742
〈부표 시·도별 II-4-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성생활 만족도 .....	742
〈부표 시·도별 II-4-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성	743
〈부표 시·도별 II-5-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743
〈부표 시·도별 II-5-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생활비 주부담자 .....	744

〈부표 시·도별 II-5-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용돈 주부담자 .....	744
〈부표 시·도별 II-5-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	745
〈부표 시·도별 II-5-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관적 생활수준 .....	745
〈부표 시·도별 II-6- 2〉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	746
〈부표 시·도별 II-6- 3〉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수 .....	746
〈부표 시·도별 II-6-10〉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낙상경험 .....	747
〈부표 시·도별 II-6-14〉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우울증상 .....	747
〈부표 시·도별 II-6-15〉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흡연상태 .....	748
〈부표 시·도별 II-6-16〉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음주상태 .....	748
〈부표 시·도별 II-6-21〉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건강검진 수진율 .....	749
〈부표 시·도별 II-7-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사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749
〈부표 시·도별 II-7-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750
〈부표 시·도별 II-7-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씹기능력 및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	750
〈부표 시·도별 II-7-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만도 수준 .....	751
〈부표 시·도별 II-7-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하지 근력상태 .....	751
〈부표 시·도별 II-7-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	752
〈부표 시·도별 II-7-7a〉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옷입기	752
〈부표 시·도별 II-7-7b〉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753
〈부표 시·도별 II-7-7c〉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목욕하기 .....	753
〈부표 시·도별 II-7-7d〉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식사하기 .....	754

〈부표 시·도별 II-7-7e〉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누웠다가 일어나 방법으로 나가기 .....	754
〈부표 시·도별 II-7-7f〉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화장실출입과 대소변 처리 .....	755
〈부표 시·도별 II-7-7g〉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대소변조절하기 .....	755
〈부표 시·도별 II-7-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	756
〈부표 시·도별 II-7-9a〉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몸단장 .....	756
〈부표 시·도별 II-7-9b〉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집안일 ..	757
〈부표 시·도별 II-7-9c〉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식사준비 .....	757
〈부표 시·도별 II-7-9d〉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빨래 ..	758
〈부표 시·도별 II-7-9e〉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약챙겨먹기 .....	758
〈부표 시·도별 II-7-9f〉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금전관리 .....	759
〈부표 시·도별 II-7-9g〉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근거리 외출하기 .....	759
〈부표 시·도별 II-7-9h〉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물건구매 .....	760
〈부표 시·도별 II-7-9i〉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전화이용 .....	760
〈부표 시·도별 II-7-9j〉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교통수단 이용 .....	761
〈부표 시·도별 II-7-10〉 노인(65세 이상)의 수단적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	761
〈부표 시·도별 II-7-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MMSE-KC .....	762

〈부표 시·도별 II-7-12〉 노인(65세 이상)의 수발여부 및 도움 제공자 .....	762
〈부표 시·도별 II-7-13〉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	763
〈부표 시·도별 II-7-1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1주일 평균 수발 제공시간 .....	763
〈부표 시·도별 II-8-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활동 실태 .....	764
〈부표 시·도별 II-8-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사직종 분류 .....	764
〈부표 시·도별 II-8-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종사상 지위 .....	765
〈부표 시·도별 II-8-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직종 종사기간 .....	765
〈부표 시·도별 II-8-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766
〈부표 시·도별 II-8-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	766
〈부표 시·도별 II-8-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767
〈부표 시·도별 II-8- 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활동 지속 여부 .....	767
〈부표 시·도별 II-8-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	768
〈부표 시·도별 II-8-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일하고 싶은 이유 .....	768
〈부표 시·도별 II-8-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하고 싶은 일 .....	769
〈부표 시·도별 II-8-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하는 근로 시간 .....	769
〈부표 시·도별 II-8-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하는 월소득 .....	770
〈부표 시·도별 II-8-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시 우선조건 1순위 .....	770
〈부표 시·도별 II-8-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활동 1순위 .....	771

〈부표 시·도별 II-8-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일의 최장기 종사직종 여부	771
〈부표 시·도별 II-8-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직종의 대분류	772
〈부표 시·도별 II-8-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 직종의 종사상 지위	772
〈부표 시·도별 II-8-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직종의 종사기간	773
〈부표 시·도별 II-8-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직종 그만둔 이유	773
〈부표 시·도별 II-9- 1〉 시·도별 지난 1년간 TV 시청률 및 시청 시간	774
〈부표 시·도별 II-9- 2〉 시·도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횟수	774
〈부표 시·도별 II-9- 3〉 시·도별 여행 계획시 중요한 기준	775
〈부표 시·도별 II-9- 4〉 시·도별 국내외 여행 방법	775
〈부표 시·도별 II-9- 5〉 시·도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776
〈부표 시·도별 II-9- 6〉 시·도별 핸드폰 소유 여부	776
〈부표 시·도별 II-9- 7〉 시·도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777
〈부표 시·도별 II-9- 8〉 시·도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777
〈부표 시·도별 II-9- 9〉 시·도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778
〈부표 시·도별 II-9-10〉 시·도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778
〈부표 시·도별 II-9-11〉 시·도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을 및 교육 참여 빈도	779
〈부표 시·도별 II-9-12〉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779
〈부표 시·도별 II-9-13〉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780
〈부표 시·도별 II-9-14〉 시·도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780
〈부표 시·도별 II-9-15〉 시·도별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및 향후 참여희망을	781
〈부표 시·도별 II-9-16〉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782
〈부표 시·도별 II-9-17〉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하게 된 경로	783
〈부표 시·도별 II-9-18〉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784
〈부표 시·도별 II-9-19〉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784
〈부표 시·도별 II-9-20〉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간	785

〈부표 시·도별 II-9-21〉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	785
〈부표 시·도별 II-9-22〉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	786
〈부표 시·도별 II-9-23〉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이유 .....	786
〈부표 시·도별 II-9-24〉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만족 정도 .....	787
〈부표 시·도별 II-9-25〉 시·도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률 및 활동 종류 .....	787
〈부표 시·도별 II-9-26〉 시·도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참여 영역 .....	788
〈부표 시·도별 II-9-27〉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법 .....	788
〈부표 시·도별 II-9-28〉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	789
〈부표 시·도별 II-9-29〉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790
〈부표 시·도별 II-9-31〉 시·도별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 .....	792
〈부표 시·도별 II-9-32〉 시·도별 여가문화활동시 동반자 .....	792
〈부표 시·도별 II-9-33〉 시·도별 여가문화활동 장소 .....	793
〈부표 시·도별 II-9-35〉 시·도별 여가문화활동 만족 정도 .....	794
〈부표 시·도별 II-9-37〉 시·도별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	794
〈부표 시·도별 II-10-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종류 .....	795
〈부표 시·도별 II-10-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위치 .....	795
〈부표 시·도별 II-10-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지도원 의견) .....	796
〈부표 시·도별 II-10-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	796
〈부표 시·도별 II-10-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797
〈부표 시·도별 II-10-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797
〈부표 시·도별 II-10-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	798
〈부표 시·도별 II-10~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시 어려움 정도 .....	798

〈부표 시·도별 II-10-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799
〈부표 시·도별 II-10-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영업 자동차 소유 여부	799
〈부표 시·도별 II-10-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	800
〈부표 시·도별 II-10-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	800
〈부표 시·도별 II-10-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학대경험 .....	801
〈부표 시·도별 II-10-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학대 경험시 대응방법에 대한 태도 .....	801
〈부표 시·도별 II-10-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율 .....	802
〈부표 시·도별 II-11-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 실태 .....	803
〈부표 시·도별 II-11-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 및 평균 근로시간 .....	803
〈부표 시·도별 II-11-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 유형 .....	804
〈부표 시·도별 II-11-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	804
〈부표 시·도별 II-11- 5〉 노인의 지역·성별 시도별 사업 미신청 이유 .....	805
〈부표 시·도별 II-11-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욕구 .....	805
〈부표 시·도별 II-11-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	806
〈부표 시·도별 II-11-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	806

〈부표 시·도별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농지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	807
〈부표 시·도별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농지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	807
〈부표 시·도별 II-11-14〉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실태 .....	808
〈부표 시·도별 II-11-15〉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 이유 .....	808
〈부표 시·도별 II-11-16〉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만족 이유 .....	809
〈부표 시·도별 II-11-17〉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	809
〈부표 시·도별 II-11-18〉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미이용 이유 .....	810
〈부표 시·도별 II-11-19〉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	810
〈부표 시·도별 II-11-20〉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이유 .....	811
〈부표 시·도별 II-11-21〉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만족 이유 .....	811
〈부표 시·도별 II-11- a〉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	812
〈부표 시·도별 II-11-22〉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미이용 이유 .....	812
〈부표 시·도별 II-11-23〉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율, 신청률 및 등급 .....	813
〈부표 시·도별 II-11- b〉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실태 .....	813
〈부표 시·도별 II-11- c〉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	814
〈부표 시·도별 II-11-24〉 노인의 시도별 정부사업 인지율 .....	814
〈부표 시·도별 II-11-25〉 노인의 시도별 경로식당 이용실태 .....	815
〈부표 시·도별 II-11-26〉 노인의 시도별 경로식당 이용 이유 .....	815
〈부표 시·도별 II-11-27〉 노인의 시도별 유료맞춤식사서비스 이용의사 .....	816
〈부표 시·도별 II-11-28〉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지하철 .....	816
〈부표 시·도별 II-11-29〉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철도 .....	817



〈부표 시·도별 II-11-30〉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	817
〈부표 시·도별 II-11-31〉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고궁, 능원, 국·공립공원	818
〈부표 시·도별 II-11-32〉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818
〈부표 시·도별 II-11-d〉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기타	819
〈부표 시·도별 II-11-33〉 노인의 시도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819
〈부표 시·도별 II-11-38〉 노인의 시도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1순위)	820
〈부표 시·도별 II-11-38a〉 노인의 시도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2순위)	820
〈부표 시·도별 II-11-39〉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821
〈부표 시·도별 II-11-39a〉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821
〈부표 시·도별 II-11-44〉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822
〈부표 시·도별 II-11-44a〉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822

## 〈그림 목차〉

[그림 I-2-1] 관찰방법에 따른 조사방법	31
[그림 I-3-1] 조사 설계·준비·실시도	47
[그림 I-3-2]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47
[그림 I-3-3] 개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69
[그림 I-3-4] 가구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2008년)	70
[그림 I-3-5] 노인표본의 조사완료 현황 비교	73
[그림 I-3-6] 2011년 개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76
[그림 I-3-7] 2011년 가구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77
[그림 I-3-8]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진행도	79



# 요약

## 1. 조사의 목적 및 조사개요

- 정책 개발에 필요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1년 8월 31일 ~ 2011년 11월 30일 기간 중 현장조사(2012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추가조사 실시)가 진행되었음.
  - 본조사의 목표는 종단적 조사로서 2008년에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종단 조사결과의 산출과 횡단조사로서의 지속적으로 산출되어온 65세 이상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는 것임.
  - 횡단조사의 경우는 시도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기존의 조사내용과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자문회의 및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음.
- 기존의 3,142개의 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총 11,542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 이는 횡단조사라는 관점에서의 조사완료율이 76.2%임.
  - 조사가 완료된 11,542명 중 65세 이상은 10,674명으로 2011년 기준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횡단 통계산출의 대상임.
  - 또한 2008년 조사가 실시된 패널(2008년 기준 60세 이상)총 15,142명중 10,003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 이는 2008년 기준 66.0%의 표본 유지율이며 2010년 전화조사에 기초한 패널유지에 기초할 때는 71.1%에 해당하는 것임.

- 3년 동안 2008년 조사자의 5.6%에 해당하는 902명이 사망하였고, 입원 및 장기요양입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탈한 노인이 251명으로 1.6%에 달하고 있음.

## II. 주요 조사결과

### 1.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및 사회관계 현황

- 노인의 대부분인 99.1%가 생존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3.77명, 95.4%는 손자녀를 두고 있고 생존손자녀수는 6.32명임.
  - 82.2%가 형제·자매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규모는 3.17명이며, 54.4%가 가까운 친인척이 있음.
  - 노인 본인의 부모는 5.0%가, 배우자의 부모는 7.4%가 생존하여 있음.
  -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다는 비율이 75.2%이며 평균 규모는 2.56명으로, 약 40%대의 노인이 매일 이들과 접촉하고 있음.
- 노인의 약 1/3 정도가 월 1회 정도의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 3회 정도의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주 1회 정도의 연락과 월 1회 정도의 접촉은 유지하고 있음.
- 비동거자녀의 경우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70.2%이며 제공률은 61.4%이며 도구적 도움의 경우는 수혜율이 46.1%이지만 제공률은 11.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93.0%이며 현물지원도 90.6%로 매우 높음.
  - 그러나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이보다 수준이 낮아 정기 현금지원이 0.9% 비정기 현금지원 23.7%, 현물지원이 58.5%에 머물고 있음.

## 2.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9.1%이며, 80세 이상 13.3%, 65~69세가 12.9%, 75~79세 11.3%, 60~64세 3.4%, 60세 미만 0.0%임.
- 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높아 55.0%이며, 국가적 차원이 30.6%, 자녀 14.2%, 기타 0.3%임.
-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45.7%이며, 다음은 가까이에 사는 것(15.7%), 정서적 유대관계(12.6%),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11.8%),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10.0%),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1.8%), 비슷한 가치관 (2.3%) 등의 순임.
- 희망하는 장례방법으로는 화장이 가장 선호되고 있어 60.2%의 응답률을 보임.
- 삶의 만족도는 만족률이 건강 34.0%, 경제상태 17.9%, 배우자와의 관계 68.3%, 자녀와의 관계 73.5%로 비교적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음.
  - 노인의 성생활 관련 만족률은 30.1%임.

## 3. 노인(65세 이상)의 경제상태

-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이었으며, 소비지출 중 주거관련비의 지출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총소득은 2161.8만원으로 월 180.2만이었으며,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사적 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재산소득 14.4% 등임.
  - 개인소득은 평균 연 850만원이며 사적이전소득이 39.8%, 공적이전소득이 32.5%를 차지
- 부동산 소유율은 58.5%로 평균 1억 3,760만원이며, 75.4%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그 규모는 1,624.5만원임.
- 노인의 20.0%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의 규모는 1,148.5만원임.

-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불과하며 46.6%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4. 노인(65세 이상)의 건강 및 기능상태

##### □ 건강상태

- 만성질환율은 88.5%이며, 고혈압이 가장 높은 유병률(54.8%)을 보임.
  -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노인도 68.3%에 달하고 있음.
- 노인의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음.
- 노인 중 56.1%가 최근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7만 4천원임.
- 노인의 21.0%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으며, 75.7%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 44.4%가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5.0%는 동년배에 비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

##### □ 건강행태

- 흡연율은 12.6%, 음주율은 33.8%, 건강검진율은 81.6%임.
- 운동실천율은 50.3%이지만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39.1%임.
- 30.6%가 영양관리상태에 문제를 갖고 있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45.2%임.

##### □ 기능상태

- 노인의 14.9%는 기능상의 제한(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중 1개 이상 제한)을 경험하고 있음.
  - MMSE-KC를 활용한 인지기능저하자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의 28.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음.
- 노인의 29.4%가 시력이 나빠지며, 20.5%가 청력이 나쁨.

- 이에 비하여 씹기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많아서 54.1%에 달하고 있음.
- 씹기의 경우 특히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52.9%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상태가 불편한 노인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23.9%가 하지 근력의 수행능력이 없음.
-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5.5%는 저체중이며, 41.4%는 정상, 25.1%는 과체중, 25.5%가 경도비만, 2.5%가 중증도 비만임.

## 5. 노인(65세 이상)의 사회참여 실태

- 노인이 90.7%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고 평생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은 일차산업임.
- 현재 노인의 34.0%가 현재 취업중이며 이들의 52.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47.0%가 자영업자임.
-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미취업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2.8%,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29.1%,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가 18.4%의 순임.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인 88.5%가 향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함.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12.9%는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으로 53.9%임.
- 41.6%가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은 사회공헌용 일자리 참여로 34.0%임.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32.1%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30.3%는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였고, 21.1%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구직노력을 하였음.
- 노인의 99.0%가 TV를 시청하였고, 평균 TV시청 시간은 3.8시간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극적인 여가 활용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응답자의 33.7%가 여행을 하였음.
-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2.8%에 불과하며, 일반핸드폰은 71.3%, 스마트폰은 0.4%로 전체노인의 2/3 이상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음.

-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에 현재 참여율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률은 14.7%임.
- 지난 1년간 72.2%의 노인이 여가문화활동을 하였으며,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에는 27.3%가 참여하였고, 가장 주된 여가문화활동으로는 화투·카드가 26.9%로 가장 많았음.
- 사회단체참여율은 친목단체가 37.4%인데 비하여 동호회(클럽)활동(3.8%)과 정치사회단체(0.7%)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인이 3.9%이며 9.9%만이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을 갖고 있음.
  -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47.0%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5.3%,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18.9%,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8.7% 등이 언급되었음.
-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4.4%, 만족한다 33.6%, 그저 그렇다 31.9%, 만족하지 않는다 22.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2% 등임.
- 선호하는 노후(여생)향유 방법으로는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9.6%, 편안하게 쉬면서 보내고 싶다 14.6% 등임.

## 6. 노인(65세 이상)의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74.2%이며 55.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26.3%, 다세대 11.5%, 연립주택 3.8%, 상가주택 2.4% 순임.
-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노인의 43.3%가 주택에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 화장실, 문턱과 같이 높낮이가 있는 부분과 화장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음.



- 주교통수단은 버스(48.9%), 지하철(19.3%), 자가용(18.4%)순이며,
  - 12.2%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8.4%는 과거에는 해보았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79.4%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음.
-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의 4.9%가 경험하였고, 노인학대 경험률은 12.7%임.
  - 학대 경험시 대응방법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가 40.7%, 참는다가 36.3%,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22.5%, 기타 0.6%순임.
-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 이들 중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1.2%임.
- 이는 노인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약 1.3%에 달하는 것임.
  -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건강이 32.6%, 경제적 어려움 30.8%, 외로움 10.2%, 부부자녀친구의 갈등 및 단절 15.6%,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 4.5%, 배우자, 가족, 친구의 사망 3.6%, 기타 2.8%임.

## 7. 노인(65세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68.8%가 인지하고 있으며, 4.1%가 현재 참여중이며 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6.8%에 달하고 있음.
  - 참여 경험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74.8%가 만족하고 있으며, 노인의 18.0%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향후 참여욕구를 가진 노인의 경우 77.8%가 공익형을, 10.2%가 복지형을, 5.9%가 인력파견형을, 4.7%가 교육형을, 1.4%가 시장형을 희망함.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경우 주택연금의 인지율이 52.4%로 농지연금 인지율인 41.0%보다 높음.
  - 활용할 농지가 없는 노인도 77.4%에 달하고 있어 농지연금은 적용범위가 좁음.
  - 주택연금의 경우 32.4%는 활용할 주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0.3%는 생

각해본 적이 없다, 31.4%는 주택은 있으나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활용의사는 매우 다양함.

□ 노인의 약 1/3인 34.2%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향후 이용수준은 높아질 것임.

○ 이용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친목도모로 89.7%로 압도적임.

○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미이용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로 34.6%임.

□ 노인복지관은 2010.12.31. 현재 259개가 있어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여 이용률은 8.8%에 불과함.

○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24.4%로 향후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2.5일이며 만족도가 82.8%로 매우 높음.

—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점이 가장 많아 38.8%이며 다음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로 22.4%, 비슷한 노인과의 만나는 것이 좋아서가 14.3%,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가 12.0%, 시설이 좋아서가 9.7%임.

—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은 미이용 이유로는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물리적 불편함을 언급한 비율이 31.0%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

○ 이용이유를 살펴보면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7.9%이며 다음이 친목도모로 16.9%, 식사서비스 12.8%, 건강관련서비스 5.4% 등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 인지도는 각각 41.8%와 41.3%이며, 이에 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인지도는 절반 정도 수준인 22.7%와 22.3%임.

○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18.1%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식사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 중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3%에 불과함.

○ 한편, 향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유료의 맞춤식사서비스를 이용한 의사를 가진 노인은 12.6%임.

- 경로우대 이용경험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70.8%, 철도할인은 35.1%,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16.7%,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40.2%,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입장은 25.2%임.
- 향후 이용희망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83.9%, 철도할인은 76.6%,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65.2%,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1.1%,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입장은 61.7%임.
- 노인의 현재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상황은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약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1.3%에 달하고 있고,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18.0%, 별다른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응답은 11.9%임.
-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소득보장으로 31.8%, 다음이 의료서비스 26.1%, 수발서비스 18.7%, 경제활동지원 9.4%, 여가생활지원서비스 9.0%, 노후주거지원 3.9%, 기타 1.1%임.
- 필요한 노인용품으로는 43.0%가 노인용 의약품, 25.6%가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11.3%가 노인건강용품을 언급하고 있음.
- 반면, 주거설비용품, 일상용품, 가사용품, 화장품 등을 언급한 비율은 5% 미만임.

## 8. 패널(2008년과 2010년 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10,003명)의 생활실태

- 패널의 2011년 현재 거주형태는 노인독거가구 18.6%, 노인부부가구 47.7%, 자녀동거가구 28.6%, 기타가구 5.0%이며, 3년간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한 비율은 17.2%임.
- 2008년과 2011년 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패널의 주택의 소유실태를 보면 자가 77.5%, 전세 5.4%, 월세 8.1%, 기타 8.9%임.
- 이는 2008년도에 비해 자가의 비율이 조금 줄고, 월세 및 기타의 비율이 늘어난 것임.
- 집안 내 안전사고 발생률도 1.2%에서 4.6%로 높아졌으며 교통사고 경험 역시 2011년 2.9%로 2008년도의 1.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2008년 9.6%, 2011년에는 12.7%임.
- 패널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2008년도 기준으로 버스 53.7%, 지하철 14.9%, 자가용 14.2% 순이었고,
  - 2011년도에는 버스 48.5%, 자가용 19.2%, 지하철 19.2% 순으로 나타나, 버스이용률이 약간 줄고 자가용과 지하철 이용률이 약간 상승하였음.
  -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08년도 기준 15.0%에서 2011년에는 13.5%로 약간 감소하였음.
-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1.3만원에서 187.3만원으로 23.8% 증가하였고, 소비성향이 64.0%에서 77.5%로 급증
- 개인소득의 구성비는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32.5%임.
  - 이는 2008년 소득에 비하여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것인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건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건강상태 인식률이 49.8%에서 2011년에는 33.9%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실제 객관적인 측정으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82.4%에서 87.8%로 약간 증가하였고, 낙상률이 14.8%에서 20.7%로 증가하였음.
- 건강행위와 관련해서는 비흡연율이 68.1%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61.4%로 감소하였고, 건강검진 수진율은 76.3%에서 82.1%로 증가하였음.
- 2008년도 63.3%가 시력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 58.2%가 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청력과 씹기능력의 경우 보조기를 사용한 비율이 2008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력과 저작기능 저하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BMI지수를 활용한 비만도를 살펴보면, 저체중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고 정상외 비중은 증가하였음.
  - 과체중의 비만도 감소하여 비만도에 있어서는 정상으로 저체중 또는 과체중/비만에서 정상의 비중이 높아졌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패널이 7.9%에서 7.2%로 조금 낮아졌는데,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 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임.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 비율 또한 2008년 19.3%에서 2011년 13.3%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졌음.
  - 이를 종합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중 한 개 이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기능제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21.1%에서 2011년에는 동 비율이 14.5%로 낮아졌음.
  -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중 수발을 받는 비율은 2008년 24.8%, 2011년 23.6%로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하였음.
    - － 주수발자는 2008년 응답자의 86.8%는 가족, 외부서비스는 9.2%로 나타났으나, 1차와 2차 응답한 사람을 비교하면, 가족의 의한 수발비율은 71.3%로 크게 감소하고, 외부서비스를 이용(11.4%)하거나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14.0%)은 증가하였음.
- 인지기능을 살펴보면, 인지기능 저하자가 22.3%에서 31.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의 인지기능의 저하는 상당부분 진행된 결과임.
- 2008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후 2011년 조사에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 27.0%이며
  -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54.8%이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하고 있지 않은 패널은 9.4%, 반면 2008년 조사시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8.8%임.
-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가 70~74세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많으며 2008년 51.0%, 2011년 59.1%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음
  - 노인을 65~69세라고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24.3%에서 2011년 12.9%로 낮아졌음.
- 노인일자리 사업 인지율이 2008년의 44.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67.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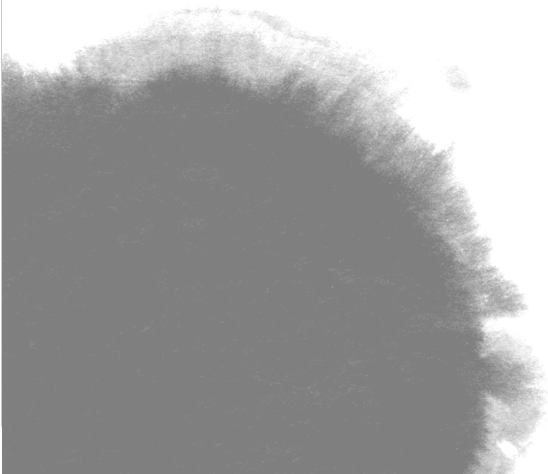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 참여자의 만족도가 75.2%로 높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인지도는 63.5%로 2008년의 29.9%보다 매우 높아졌음.  
이용률은 0.6%이며 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42.2%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노인이 본 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인지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인지율이 23.5%임.

### III. 제언 및 정책적 시사점

- 향후 조사의 발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음.
  - 노인실태조사의정체성 정립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 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안정적인 통계산출을 위한 조사주관 및 관리 기관의 지정
- 조사결과에 기초해볼 때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고려, 노인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 상위욕구를 포함하도록 정책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 소득보장, 보건의료, 사회참여 지원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수행이 요구됨을 제안하였음.

# 1편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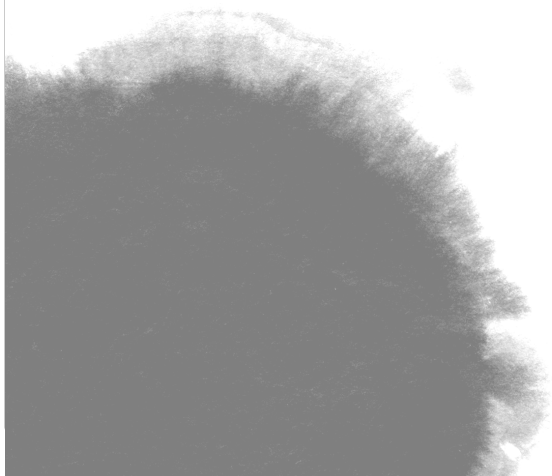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 0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2011년 현재 고령화율은 11.4%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5,656천명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2017년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1). 이에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7년 1월에 노인복지법 제5조에 매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된 바 있다. 법제화 이전에도 전국규모의 노인실태조사가 1994년, 1998년, 2004년에 실시되었으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법적 기반에 기초한 첫 번째 조사이며, 2011년에 실시된 본 조사는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노인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년간 노인의 학력, 가구형태, 경제상태 및 노후 가치관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의 학력은 크게 증가하여, 무학의 비율이 65.4%(1994년)에서 33.0%(2008년)으로 크게 감소하고, 중·고등 이상의 학력자가 10.8%(1994년)에서 29.0%(2008년)로 증가하였고, 노인독거가구 또한 13.6%(1994년)에서 19.7%(2008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6.8%에서 47.0%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는 급속히 감소하고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노인의 주요 가구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자산소득과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의 비율도 유지되고 있다. 노인의 노후 부양관련 가치관에서도 노후 거주형태, 수발형태, 생활비마련 등에서 자녀의존적 가치관에서 자립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다(이윤경 외, 2010).

이렇게 ‘노인’은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급변하고 있어 노인세대의 특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실태조사는 조사시점마다 전체 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가능한 횡단적 조사의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대응정책개발을 위해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현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연령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노화 과정에 대한 통계생산이 요구된다. 노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의 변화와 관련된 자료는 종단적 조사를 통해 일정규모의 패널의 건강 및 기능, 가구형태, 소득 등의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노인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대표성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적 조사를 통해 노인세대의 가구형태, 건강 및 기능, 사회참여, 가치관 등의 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2,567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15,146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의 통계뿐만 아니라 시·도통계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패널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2008년 노인실태조사의 대상은 패널의 마모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응답자를 패널로 구축하여 종단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일회씩 응답자의 주소 및 전화조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한국리서치, 2009, 2010).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의 자료를 함께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종단적 조사로서 2008년에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한 종단조사결과의 산출과 횡단조사로서의 지속적으로 산출되어온 65세 이상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본 조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 패널을 유지하되 가중치 조정을 통하여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횡단가중치와 종단 가중치 작업을 실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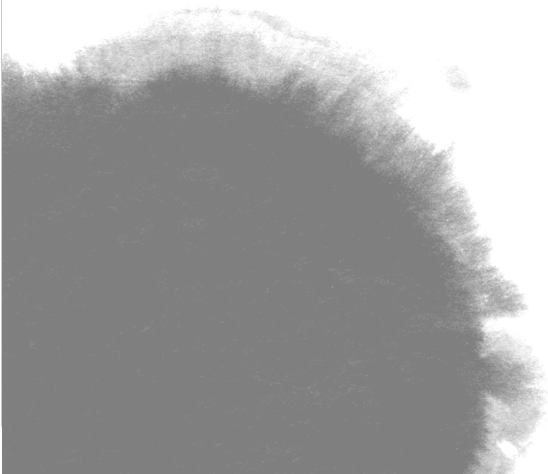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였다. 즉, 종단조사의 관점에서는 2008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15,146명에 대한 2차년도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며, 횡단조사의 관점에서는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조사 실시하고자 한다. 횡단면 조사는 측면에서는 2008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2,858개 조사구를 모두 조사하여 2011년 노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시·도 통계산출 또한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법 외에도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수정을 통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인생활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조사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후생활준비,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02

## 이론적 검토 및 실행조사 검토







##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조사 검토

사회 현상을 관찰하여 일반화하려면 그 현상의 핵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 관찰 절차는 사회현상을 한 개인이나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 상식적 판단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따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을 근거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이는 과학적 지식을 수립하고 이론이나 논리를 검증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절차를 사회조사라 부른다.

오늘날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과학적 지식으로 확립한 가장 핵심적 도구는 바로 사회조사라 할 수 있다. 사회조사를 통하여 사회과학이 확립되고 발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공통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고 평가되고 있다.

사회조사는 그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탐색적 조사(exploratory research), 기술적 조사(descriptive research) 및 설명적 조사(explanatory research)이다. 탐색적 조사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현상을 어렴풋이나마 탐색하려 하거나 그 현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준비나 계획을 세우려고 시행하는 조사로서 향후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초보적으로 탐색하는 조사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조사는 상당한 정도 알려져 있는 사회현상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관찰하여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현재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조사이다. 설명적 조사는 사회현상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거나 확인하려는 조사로서 탐색적 조사나 기술적 조사를 근거로 하거나 기존의 이론이나 직관 또는 선험적인 논리

적 추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여 그 가설을 검정하거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위 3가지 조사형태 중 기술적 조사에 해당된다. 실태조사나 기술적 조사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실태조사라는 명칭은 일상적이고 상식적 용어로 나타낸 것이라면 기술적 조사라는 명칭은 학술적 용어로 나타낸 것이다. 실태조사는 기술적 조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반드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어떤 분류 용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용어에 맞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거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가장 요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나 분류 용어를 만들기 때문에 실태조사 역시 이미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분류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도 많은 경우 인과적 추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실태조사는 노인과 노화(연령증가 또는 시간경과)에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상태를 관찰하는 조사로서 노인 개인, 가족, 소집단, 노인연령층의 신체적(생물학적), 심리적(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 여러 측면의 현 상태와 노화(연령증가)에 따라 노인 개인, 가족, 소집단, 노인연령층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등 여러 측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조사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여기서는 노인 실태조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노화(aging)의 두 가지 의미

노화(aging)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이고 다른 하나는 역연령(歷年齡)의 증가(chronological aging) 또는 시간 변화(age change)이다.

노화는 많은 경우 생물학적 노화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를 정확히 관찰하기는 어렵다. 생물학적 노화는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태아기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 동안 신체적 및 생리적으로 해로운 변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Hampton, 1991), 더 상세한 개념은 Strehler(1977)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Atchley, 2004; Hooyman & Kiyak, 2008).

첫째,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체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그 시기 및 진행 속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반면에 폐암과 같은 질병은 어느 특정 개인에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노화 현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생물학적 노화의 주원인은 신체 내적인 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면 신체적 변화가 생기게 되지만 이것은 신체 외적인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명의 종식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생물학적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능의 상실이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조건이 구비된 신체적 변화 과정이 곧 생물학적 노화이며 이와 같은 생물학적 노화는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내의 신체적 기관 또는 기능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역연령(달력으로 세는 연령)에 의하여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노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청력은 상당히 약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 간 및 개인 내에 있어서 생물학적 노화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생물학적 노화는 면밀한 생물의학적(bio-medical) 검사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조사에서 생물학적 노화를 조사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노화의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인간이 시간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리적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나 달력으로 계산한 시간 경과이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

인 나이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노화는 나이의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 증가라 할 수 있다. 연령 증가라는 의미의 노화는 가장 편리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증가의 노화를 측정하고 있다. 생물학적 노화는 연령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물학적 노화를 연령의 증가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개념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노화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이다. 노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생물학적 노화인지 아니면 연령증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사회조사 특히 노인 및 노화관련 조사에서 노화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인 실태조사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화는 연령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제2절 노인실태조사의 종류

노인 실태조사는 노인 개인이나 집단의 현재 상태와 노화(연령증가)와 관련된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 관찰하는 조사를 다른 말로는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research)라 하고, 노화와 관련된 변화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복 관찰하는 조사가 되므로 다른 말로는 종단적 조사 또는 종적 관찰 조사(longitudinal research)라 한다.

## 1. 노인 상태 조사

### 가. 노인생활 실태조사

노인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기 위한 조사로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1981년 이후 정부, 정부산하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민간 조사전문회사 등에서 가장 많이 해온 조사이다. 이 같은 조사는 주로 현재의 노인문제 발견이나 종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와 비교하여 변화나 차이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조사는 199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해 온 노인생활실태조사(및 노인욕구조사)이다.

### 나. 노인 기본연구 조사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서 현재 노인의 특성적 변수(인구학적 요인,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특정 사항에 대한 의식 등)를 관찰하여 가설을 설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려는 연구이다. 이 같은 연구는 대규모의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연구자(연구기관)의 재정적 사정에 따라 비교적 소규모의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다. 노인 욕구조사

정부, 공공기관, 공적 및 사적 복지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노인들의 문제점이나 욕구를 관찰하는 조사이다. 이 같은 조사는 주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정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의 일부(다양한 조사대상 중 노인을 한 대상으로 포함)로 시행하거나 지역사회 노인복지기관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행하거나 노인 문제나 욕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 전국적 표본조사로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겸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노인 욕구조사이다.

## 라. 노인복지 서비스(사업) 평가 조사

정부, 공적 및 사적 노인복지 기관에서 제공한 정책이나 서비스의 노력, 효과성, 효율성(비용편익 및 비용효과)을 평가하기 위해 행하는 조사이다. 이 같은 조사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변화된 상태를 관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시행되며, 조사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시행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개인이나 기관에 의뢰하여 행한다.

## 2. 노인 변화 조사

### 가. 노인 패널 조사(panel research)

노인 패널 조사는 동일한 노인(전수 또는 표본)을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관찰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반드시 같은 대상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코호트 조사(cohort research)와는 다르다. 이 같은 조사는 현재 노인의 다양한 측면의 특성이 노화(연령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관찰하는 조사인데 그 시차는 적게는 몇 분 또는 몇 시간(예: 10 분, 30분, 2시간, 3시간 등)에서 수년(1년, 2년, 3년, 5년, 10년 등)에 이를 정도로 조사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같은 조사대상에 대해 노인상태 조사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그것은 곧 노인 패널조사가 될 수 있다.

### 나. 노인 코호트 조사(cohort research)

노인 코호트 조사는 일정한 노인연령 조건(60세 이상, 65세 이상, 85세 이상, 100세 이상 또는 65~74세 등)에 해당되면 반드시 같은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관찰하는 조사이다. 많은 경우 패널조사와 코호트 조사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일부 학문분야의 경우(예: 의학)는 코호트 조사와

패널조사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코호트(cohort)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코호트는 연령 코호트(age cohort)로서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 5세 이내 또는 10세 이내 연령차 범위 내의 연령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령 코호트가 코호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되지만, 반드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같은 사회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입사동기(같은 시기에 고용된 사람), 같은 해 졸업생, 1~2년 이내의 퇴직자 등 반드시 연령에 한정하지 않는 경우도 코호트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Neuman, 2003). 같은 연령 조건만 만족하는 다른 노인에 대해 상태 조사를 일정 시차를 두고 시행한다면 이는 곧 노인 코호트 조사가 되는 것이다.

#### 다. 노인 경향분석 조사(trend analysis research)

경향분석 조사는 각각 다른 시기에 일정한 연령집단을 관찰하는 조사이다. 각각 다른 시기, 예를 들면 2000년, 2005년,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을 같은 내용으로 관찰하여 비교한다면 이는 경향조사(경향분석)가 되는 것이다.

199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4년 간격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노인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사결과를 비교한다면 경향분석 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경향분석 조사를 시간지체 조사(time lag research)라 하는 경우도 있다.

## 2. 노인 실태조사에서의 시간 차원

노인 실태조사에서 현재 상태의 관찰이든 변화의 관찰이든 관찰된 여러 요인(변수) 간의 관계를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노인 실태조사는 반드시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즉 노인 실태조사가 실용적 차원의 조사는 물론 이론적 차원의 조사까지 겸할 수 있다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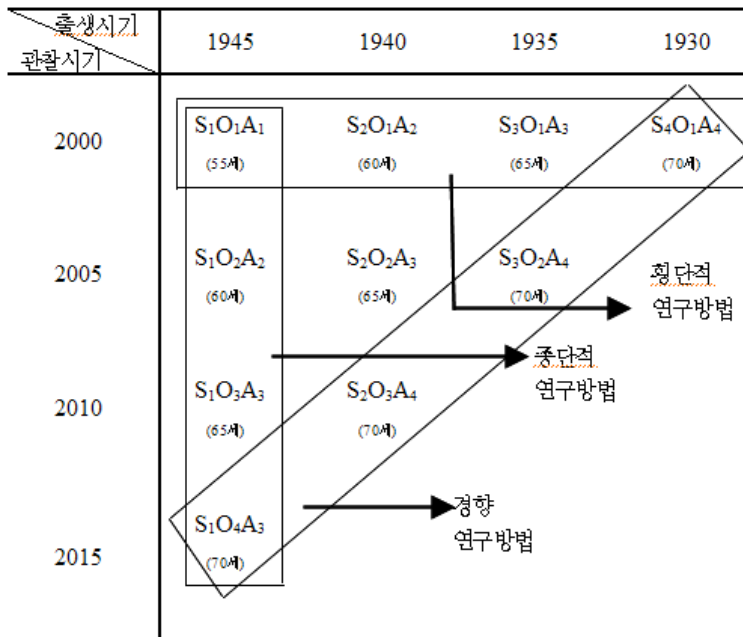
학 연구에 기여하는 조사가 될 수 있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실태조사는 실용적 가치는 물론 이론적 가치도 높여주게 될 것이고 조사의 실용적 차원은 이론적 차원의 보완을 통해 더욱 그 실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인 실태조사가 노년학을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실태조사의 시간적 차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을 통하여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고 그 규칙성이 가설이 되고 그 가설이 여러 다른 조건 속에서 관찰되어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서게 되어야 한다. 다른 사회과학도 비슷하지만 노년학은 경험적인 차원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발전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관찰 방법으로 노화(연령증가)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노년학은 노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과정인 노화를 보다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노년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노화(aging)를 연령 증가 또는 연령 변화(age change)로 보고 연령증가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여 변화가 발견되면 그것을 노화와 관련되는 현상 또는 노화의 결과로 간주하는 식으로 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령증가에 따른 어떤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횡단적 조사방법(cross-sectional research)과 다른 하나는 종단적 조사방법 또는 종적 조사방법(longitudinal research)이다.



[그림 1-2-1] 관찰방법에 따른 조사방법



주: S<sub>1,2,3,...</sub>: 표본(S 옆의 숫자가 같으면 같은 표본, 다르면 다른 표본임)

O<sub>1,2,3,...</sub>: 관찰 또는 측정(O 옆의 숫자가 1이면 한번 관찰, 2, 3, 이면 2번째, 3번째 관찰을 표시)

A<sub>1,2,3,...</sub>: 연령(A 옆의 숫자가 같으면 같은 연령, 다르면 다른 연령을 표시)

횡단적 조사방법은 한 시점(일반적으로 수일에서 수개월 사이)에서 각각 다른 연령집단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종단적 조사방법은 일정한 시차(경우에 따라 수초에서 수년)를 두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 관찰하는 방법이다. 횡단적 조사방법과 종단적 조사방법을 좀 더 상세히 그림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그림 1-2-1]에서 보듯이 1970년의 한 시점에서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은 55세, 1940년에 태어난 사람은 60세, 1935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 1930년에 태어난 사람은 70세가 된다. 2000년의 어느 시점(예를 들면 2000년 4월)에서 55세( A<sub>1</sub>), 60세( A<sub>2</sub>), 65세( A<sub>3</sub>), 70세( A<sub>4</sub>)된 각각 다른 연령층의 사람을 표본 ( S<sub>1</sub>, S<sub>2</sub>, S<sub>3</sub>, S<sub>4</sub>)으로 선정하여 그 사람들의 월간 수입을 조사( O<sub>1</sub>)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횡단적 조사방법이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은 2000년에 55세( A<sub>1</sub>),

2005년에 60세( $A_2$ ), 2010년에 65세( $A_3$ ), 2015년에 70세( $A_4$ )가 된다. 2000년에 1945년 출생의 55세 된 사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같은 표본( $S_1$ )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5년에 한 번씩 4번( $O_1, O_2, O_3, O_4$ )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들의 월간 수입을 조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종단적 조사방법이 된다. 또한 2000, 2005, 2010, 2015년의 네 번의 시기에 70세( $A_4$ )된 출생연도가 다른 집단들의 사람들(1945, 1940, 1935, 1930년 생)을 표본( $S_1, S_2, S_3, S_4$ )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월간 수입을 조사( $O_1, O_2, O_3, O_4$ )하게 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경향 조사방법(trend research 또는 trend study)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조사는 노년학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과 현상에 대한 같은 연령의 시대적 차이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횡단적 조사방법은 [그림 I-2-1]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시점(2000년)에서 연령 차이(age difference: 앞의 그림에서 55, 60, 65, 70세 연령집단간 차이)는 잘 포착할 수 있을지라도 개인 내에 있어서의 노화 과정(aging)인 연령증가 또는 연령변화(age change)를 포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조사 연구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횡단적 조사방법에서 나온 연령 차이를 노화(연령증가 또는 연령변화)로 유추해석하고 있다. 즉 한 시점에서 20, 30, 40, 50, 60세 집단의 차이를 한 개인이 20, 30, 40, 50, 60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차이로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횡단적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는 반드시 연령변화, 즉 노화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노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횡단적 조사방법의 결과를 마치 그것이 종단적 조사방법에 의해 나온 연령 변화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종단적 조사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관찰하여 조사하는 것이지만 무한정 계속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정해서(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등) 시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20년 이상이 넘는 장기간의 종단적 조사는 그리 많지 않다.

종단적 조사 방법은 앞의 [그림 I-2-1]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람의 연령이 55, 60, 65, 70세 되었을 때 어떤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한 결과이므로

로 개인적인 노화과정인 연령변화(age change) 또는 연령증가를 잘 포착할 수 있고 또한 개인 간의 노화 현상의 차이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노화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연구방법이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연구하게 되면 최초 표본의 숫자가 질병, 사망 등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약점이 많지만 쉬운 방법인 횡단적 연구방법(Baltes et al., 1977)으로 대체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연구방법에서 연령 차이와 연령 변화의 효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순수한 연령차이 또는 연령변화의 효과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효과(period effect)라는 것이다.

코호트(cohort)는 대부분의 경우 연령 코호트를 의미하게 되는데 “어떤 역사적인 기간에 태어나서 역사적인 사건을 비슷한 방법으로 경험한 연령집단”(Bengtson & Cutler, 1976)으로서 사회과학 조사연구에서는 5년 간격(Maddox & Wiley, 1976) 또는 10년 간격(Glenn, 1977)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호트는 그들 자체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사건의 경험과 독특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므로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의 [그림 I-2-1]에서는 표본  $S_1$ ,  $S_2$ ,  $S_3$ ,  $S_4$ 가 각각 다른 연령 집단이 된다. 특히, 횡단적 집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연령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코호트의 특성 때문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되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20대 연령층은 진보적이고 60대 연령층은 보수적이라는 차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가치관이 진보적인데서 보수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오늘날의 20대는 대체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운데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개성존중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20대가 보편적으로 진보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오늘날의 60대는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개성발휘의 기회가 적고 가족주의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인 가치관 지향적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적 연구에서의 연령변화도 코호트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한 코호트를 대상

으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Baltes et al., 1977).

기간효과는 어떤 현상의 관찰에 있어서 그 관찰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관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데(Maddox & Wiley, 1976), 앞의 그림에서 2000, 2005, 2010, 2015년 각각의 측정기간 직전 또는 기간 중에 생긴 사회적 운동, 정책 변화, 경제적 변화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급 진료일수가 365일로 확대되고 노인들이 55세 때(2000년)보다 60세 때(2005년)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면 이것은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어져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는 연령변화와 기간효과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영향을 정확히 분리·파악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노화에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연령 차이에 의한 것인지, 연령변화인 노화에 의한 것인지, 코호트 효과와 기간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평가해야 한다. 또한 노화에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고(조사설계 단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점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제3절 노인실태조사 현황

#### 1. 우리나라 노인 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시행해 온 노인 실태조사 중에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전국적 표본으로 시행되고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일반화의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조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6개 정도의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횡단적 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표본 조사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8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본정부(총무청 노인대책실)의 국제 비교연구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라 할 수 있다. 민간기관의 최초 노인실태조사가 1981년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라 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처음 행한 조사는 198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당시 인구보건연구원)의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생활실태조사라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포괄적 내용의 노인 실태조사는 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본정부의 국제비교연구에 참여한 4회의 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노인생활 실태조사 및 노인욕구조사 5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행한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1회가 있었고, 내용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실태 및 욕구조사가 1회 있었던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실태조사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표 1-2-1> 과 같다.

<표 1-2-1> 우리나라 노인실태 조사(횡단적 조사)

연도	연구자	연구기관	조사명	표본연령	표본 수
1981		한국갤럽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식구조 비교 조사)	60+	1,427
1985	임종권 외 4명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60+	3,704
1990		한국갤럽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이태리 6개국 노인의식구조 제2차 비교조사)	60+	1,200
1991		일본 총무청장관관방 노인대책실(한국갤럽 조사 협조)	노인생활과 의식 (제3회 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	60+	1,004
1994	이가옥 외 3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60+	2,058
1997		일본 총무 청 장 관 관 방 노인대책실(한국갤럽 협조)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 5개국비교조사)	60+	1,004
1998	정경희 외 5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65+	2,535
2001	선우덕 외 4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65+	5,058
2004	정경희 외 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65+	3,278
2008	한문식 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65+	15,146

〈표 I-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 실태조사는 199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3~4년 단위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법적 규정 없이) 전국표본의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7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3년에 한 번씩 노인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07년부터 노인 실태조사가 법정화되면서 2008년 노인실태조사를 향후 패널조사로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설계·시행하였고, 실시주체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었다. 이후 법적 기반에 기초한 두 번째 조사로서 2011년부터의 노인실태 조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2011년에 실시된 노인실태조사가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서는 처음이지만, 연령으로 중고령자 이상 또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의 종단적 실태조사는 5가지가 있다(〈표 I-2-2〉 참조).

〈표 I-2-2〉 우리나라 노인 실태조사(종단적 조사)

시작연도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 수행 시간 간격	최초 표본 수
199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구의 15세 이상	1년 단위	5,000가구 13,321명
2005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	2년 단위	5,110가구
2006	서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20세 이상	1년 단위	7,072가구
2006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5세 이상	2년 단위	10,254명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자가족패널조사	가구의 19~64세	1년 단위	9,068가구 9,997명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65세 이상	3년 단위	15,146명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패널조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조사는 1998년에 시작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라 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 단위 및 가구의 개인을 대상으로 노동활동 및 건강상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로서 2005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작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주로 소득과 건강관련 사항 위주로 제한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노후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다. 중고령자를 포함한 다른 하나의 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시작한 고령화연구패널인데 4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위주로 제한되어 있지만 상당히 상세한 내용의 조사이다. 노인을 조사 대상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패널조사의 하나는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인데 조사내용은 복지와 관련된 소득, 근로, 생활실태 및 의식을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중고령자 여자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패널로 2007년부터(2006년 예비조사 시행) 시작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자가족 패널이 있다. 이 패널은 가구 단위 조사로서 19~64세의 개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여자의 가족생활과 일 관련 생활 위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노인 실태조사 패널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이고 조사 내용은 노인생활과 복지욕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이다.

## 2. 외국의 노인 실태조사

선진 외국의 경우도 노년학 연구를 위해서 개인이나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횡단적 실태조사가 많이 시행되어 왔고 종단적 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1970년대까지는 노인과 노화에 관한 조사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조사는 개인이나 기관 단위의 학문적 목적의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며 종단적 조사는 아주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단순한 실태조사의 성격만 아니라 노년학 연구와 결부된 종단적 실태조사가 정부나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지원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노인관련 조사는 종단적 조사로 대체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조사는 종단적 조사로 설계되어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 초에 확인된 종단적 조사만 해도 70여개가 넘었고(Lehr, 2001), 미국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100개를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종단적 연구가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적 활용목적도 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온 종단적 연구의 처음 조사목적이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활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두 가지 목적을 다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느 목적이 더 큰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노화 관련 종단적 조사는 한 국가에서도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언급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인과 노화관련 종단적 연구는 20여개 이상이나 된다(Logie et al., 2004).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종단적 조사 일부만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노년학(gerontology)이 학문으로 정립된 전통과 다양한 사회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노화 관련 종단적 조사연구는 미국이 가장 수적으로 우세하다. 미국의 대표적 노화 관련 종단적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노화 관련 연구로 가장 오래된 연구 중의 하나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1958년부터 시작한 발티모어 노화 종단적 연구(BLSA: 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이라 할 수 있는데 20대에서 90대 연령의 1,200명을 대상으로 노화에 따른 변화가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1969년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58~63세의 11,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단적 은퇴 과정 연구(LRHS: Longitudinal Retirement History Survey)도 은퇴과정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대표적 노화 관련 종단적 조사연구로는 미국 국립 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에서 1984년에 시작한 종단적 노화연구(LSOA: Longitudinal Study of Aging)가 있다. 이 조사연구는 70세 이상 7,525명을 대상으로 1984-1991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하나 대표적 종단적



조사연구는 미시간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1992년부터 시작한 건강 및 은퇴연구(HRS: Health and Retirement Study)인데 50대 이상 22,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Logie, et al., 2004). 이 외에도 세대를 단위로 연구한 종단적 조사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는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 동안 계속한 세대의 종단적 조사연구(LSOG: 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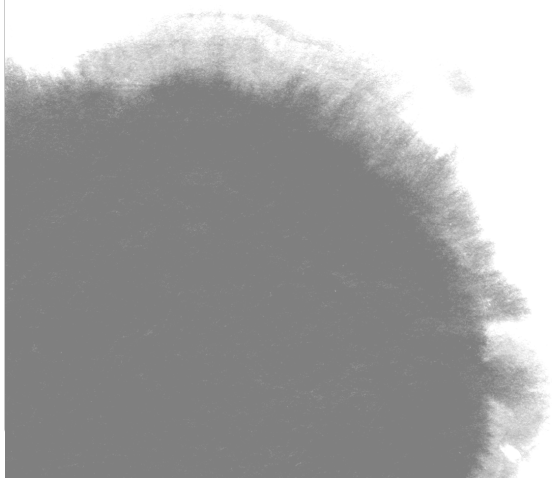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유럽의 대표적 종단적 연구로는 1965년에 시작되어 1984년에 끝난 독일의 본 종단적 노화연구(BLSA: Bon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와 1984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사회경제 패널조사(SOEP: Socio-Economic Panel)가 있다. 사회경제 패널조사는 베를린 소재의 독일 경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서 5,921가구의 16세 이상 12,245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유명한 독일의 노화관련 종단적 조사는 베를린 노화 연구(Berlin Aging Study)이다. 이 조사연구는 독일정부와 민간연구소의 공동 조사연구로 1990년에 70-100세의 노인 516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1990-1993년 3년간은 횡단적 조사로 이루어졌고,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는 종단적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보다는 비교적 늦게 영국에서도 종단적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2년에 시작된 맨체스터대학의 종단적 노화 연구 프로그램(North-East Age Research Longitudinal Programme of the University of Manchester)과 1991년에 시작된 영국 가계 패널 조사(EHPS: English Household Panel Survey)가 있다. 영국 가계패널 조사는 에섹스대학(University of Essex)에서 5,000 가구의 16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조사이다. 영국에서 1998년에 시작된 또 하나의 대표적 종단적 연구는 영국 종단적 노화연구(ELSA: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인데 50대 이상 12,1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1992년에 시작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종단적 노화연구(LASA: Longitudinal Aging Study Amsterdam), 호주에서 1992년에 시작된 호주 종단적 노화연구(ALSA: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1992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탈리아 종단적 노화 연구(ILSA: Itali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캐나다에서 2009년에 시작된 캐나다 종단적 노화 연구(CLSA: Canadi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2011년부터 중국 건강 및 은퇴 종단적 연구(CHRLS: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Study)를 북경대학 경제연구소에서 시작하였다.

## 03

##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제3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제1 절 조사방법

#### 1. 조사설계를 위한 준비

2008년 노인실태조사가 이루어진 15,146명에 대한 패널관리가 연 1회의 전화조사만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15,146명에 대한 소재파악과 면접조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통상적으로 패널조사는 매년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패널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조사 이후 3년 만에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고 각 년도 1회의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응답한 15,146명 중 약 20%를 임의 선정하여 추출된 3,000명에 대하여 생존여부, 본인확인,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주소에 본인거주 확인된 응답자가 71.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결번이지만 현장방문 시 일부는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완료율이 높지는 않지만 기존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자세한 전화조사 결과는 〈표 I-3-1〉과 같다.

〈표 I-3-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20% 샘플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구분	계	(명)
번호 없음	0.0	( 1)
기존 주소에 본인 거주 확인	71.6	(2,149)
연로하셔서 못 알아들음	0.4	( 11)
이사	3.4	( 103)
장기요양시설입소	0.4	( 11)
입원	0.2	( 6)
사망	3.7	( 110)
핸드폰, 집전화번호 모두 결번	8.3	( 248)
핸드폰, 집전화 모두 받지 않음	5.3	( 158)
조사거절	4.2	( 126)
전화, 주소 전혀 다른 사람	2.6	( 77)
합계	100.0	(3,000)

조사일정을 구체화하고 조사가 실시됨을 패널에게 안내하기 위한 전화조사가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인 15,1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화조사 주요 내용은 응답자의 생존여부 및 현재상태, 연락처, 주소, 향후(조사시점) 거주 계획이다. 전화조사 결과 기존주소에 본인 거주가 확인된 사람은 전체의 74.0%로 나타났으며, 이사·장기요양시설입소·입원이 3.7%, 사망 4.1%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I-3-2〉와 같다.

〈표 I-3-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전화조사 결과

	계	(명)
기존주소 본인 거주 확인	74.0	(11,209)
이사	2.5	( 379)
장기요양시설입소	0.6	( 84)
입원	0.6	( 93)
사망	4.1	( 622)
핸드폰, 집전화 모두 결번	6.8	( 1,027)
핸드폰, 집전화 모두 안받음	2.2	( 336)
조사거절	2.5	( 373)
전화, 주소 모두 다른 사람	3.4	( 522)
연로하셔서 못 알아들음	0.3	( 44)
방문조사 거절	1.3	( 194)
리스트에 정보 없음	0.0	( 7)
일시적 해외거주	0.0	( 2)
이웃을 통한 거주 간접 확인	1.7	( 252)
결측	0.0	( 2)
전체	100.0	(15,146)

노인실태조사가 법정 조사이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공포되어야 하는 정부승인통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실시되기에 앞서 표본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통계청으로부터 통계변경승인을 요청하여 2011년 8월 22일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승인번호 제11771호)을 받음으로써 조사의 행정적·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현지조사 준비

내실있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현장 면접조사를 위하여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 68명(조사원 64명, 예비조사원 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2011년 8월 29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원 교육내용은 조사에 임하는 자세, 조사 태도 등 조사원 소양 교육 부분과 현지조사 실시 요령, 설문내용에 대한 영역별 문항 소개, 연습 및 질의응답 시간 및 조사팀별 실습이다. 교육은 조사원과 조사과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패널팀과 설문지를 개발한 연구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3. 현지조사 실시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을 1개 팀으로 16개의 조사팀을 편성하여 2011년 8월 31일 ~ 2011년 11월 30일 기간 중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그림 I-3-1 참조). 조사과정에서 원활한 진행과 조사의 질 확보를 위하여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화되고 정확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원으로부터의 질의응답에 대한 지침을 수시로 전달하였으며, 각 팀별로 1개 조사구 조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각 팀별 지도원과의 회의를 통하여 현장조사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각 팀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임의의 1개 조사구의 설문지에 대한 검토 및 노인실태조사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점검을 나가기에 앞서 각 팀별로 조사표를 검토함으로써 점검시 강조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하였다.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연구진 및 조사관리팀 중심으로 16개 전체 조사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조사원들과 함께 조사에 투입되어 함께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노인실태조사 현장점검 시 점검하고자 하였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점검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에 임하는 조사원의 태도, 조사대상자와의 적절한 라포 형성 여부, 조사의 목적 설명, 본 조사의 성격 소개, 조사실시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내, 설문지에 있는 질문 항목별 표현의 정확한 전달(자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질문의도의 왜곡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 문항의 난이도 및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셋째,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넷째, 기타 특별 설문지 검토결과 도출된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자 하였으며, 답례품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과 질문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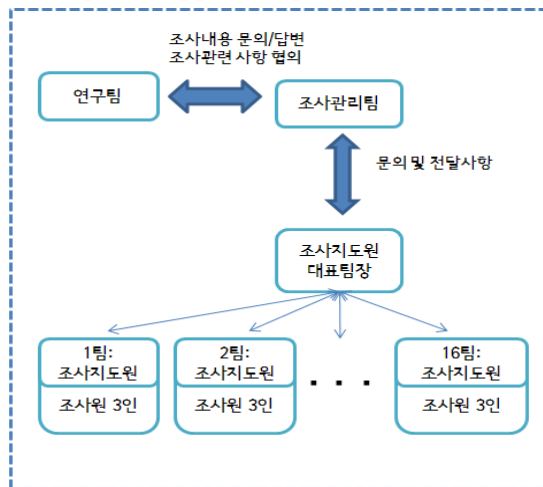
현장점검 실시 후 강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인포시트에 있는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말고 응답자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아야 한다. 셋째, 설문지를 보여주지 말고 구두로 질문해야 한다. 넷째, 응답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섯째, 유도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조사자가 추측하여 기록하지 말고 모든 질문을 응답자에게 하여 응답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일곱째, 응답자로부터 최대한 정확한 응답을 받도록 하고, 질문 항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여덟째, 척도의 경우는 꼭 항목 순서대로 질문하여야 한다. 아홉째, 응답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농담 등은 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열 번째,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라포 형성과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문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지침으로 전달하였다.



[그림 1-3-1] 조사 설계·준비·실시도



[그림 1-3-2]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본조사 동안 이사를 갔거나, 접촉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조사 기간중 이사를 갔거나, 접촉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300여명에 대하여 1월 11일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상태, 연락처, 거주지를 재파악 후, 조사대상자로 295명을 확정하여 2012년 1월 16~20일 기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1년도 65세 이상에 대한 전국 조사자료 및 시도별 조사자료 구축과 2008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차년도 조사라는 횡단조사와 종단조사의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1만명 이상의 조사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시도별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모든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65세 이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전 실시된 전화조사에 기초하여 2008년도 조사가 실시된 패널 중 조사가 가능한 규모는 타 패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7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어 1만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2008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 내의 기존 패널 외에도 2011년 기준 65세 가구원은 모두 조사하였으며, 2008년 조사 당시 추출된 조사구 내의 65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신규 가구에 대해서는 2008년 조사당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추출된 가구번호를 기준으로 표본가구(4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4가구를 선정하여 순서대로 대체하였고, 만일 추가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중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다음 번호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2008년 조사가 이루어진 15,146명에 대해서는 2008년도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인포시트를 조사원에게 제공하였다. 면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포시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08년 조사 이후 3년만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 유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접촉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장 방문시 사망, 입원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망·입원·장기요양자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었다(부록4 참조).

## 5. 사후관리

본 조사가 횡단면 조사와 더불어 종단적 조사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 이후에도 패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 기간 중 본조사 및 추가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대상 모두에 대하여 안부 전화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 대상자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응답한 11,542명으로 이중 91.2%에 해당하는 총 10,522명이 전화접촉에 성공하였다(표 I-3-3 참조).

전화접촉이 이루어진 대상자중 약 10%에 해당하는 1,036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모니터링 대상자인 1,036명의 선정은 2011년도 조사를 실시한 조사원 1명당 20명, 조사지도원 1명당 2명씩 책정하고 이러한 조건하에 임의추출하여 대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전화조사에 접촉하지 못한 1,020명을 제외하면 총 10,522명이 전화조사에 성공하여 접촉 성공률은 91.2%이다(표 1-3-3 참조). 패널관리용 전화조사만 한 대상자는 10,506명, 모니터링 추가 전화조사까지 응답한 대상자는 1,036명이다. 모니터링 용 설문지 주요 내용은 조사원의 친절도, 답례품(파스) 수령 여부 및 만족도, 조사의 난이도에 관한 것이다(부록4 참조).

〈표 1-3-3〉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관리 및 모니터링 전화조사 접촉 대상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계	(명)
패널관리 응답만 이루어진 대상자	90.2	(9,486)
모니터링 추가 질문도 이루어진 대상자	9.8	(1,036)
전체 <sup>1)</sup>	100.0	(10,522)

주: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11,542명 중 전화접촉실패 1,020명을 제외함.

## 가. 패널관리

패널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11,542명을 대상으로 현재 생존여부, 핸드폰 번호 확인, 집전화 번호 확인, 주소 확인, 2011년 조사 응답에 대한 감사 및 패널조사임을 안내하는 전화를 실시하였다.

전화접촉이 이루어진 총 10,522명 중 278명이 기본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결번(52.1%), 알아듣지 못함(17.3%), 사망(15.2%) 때문이다. 사망으로 전화조사를 미완한 경우, 사망원인을 살펴보았는데, 병사가 30명 (60.0%), 자연사 18명 (36.0%), 사고사 2명(4.0%)으로 나타났다.

추후 패널관리를 위하여 전화연락처(핸드폰, 집전화번호) 및 집주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이 변화가 없어, 핸드폰 번호의 경우 변경없다는 응답이 95.1%로 대부분이었으며, 집전화 변경없음이 97.8%, 주소 변경없음이 97.7%로 나타났다.

## 나. 모니터링 설문

한편 모니터링 대상자로 뽑힌 1,036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관련 문항을 질문하였다. 주요 내용은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여부 및 만족도, 조사장소, 응답시 어려운 정도 및 어려운 이유이다.

조사원의 친절도를 살펴보면, 친절했다는 응답이 95.9%로 가장 많았으며, 3점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친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3점만점에 평균점수 2.74점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0.4%, 불만족은 2.6%로 나타났다(표 I-3-4 참조).

〈표 I-3-4〉 모니터링 결과 조사원 친절 및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계	(명)	평균점수 (점) <sup>1)</sup>
친절하다	95.9	(839)	
보통이다	3.8	( 33)	(2.95점)
친절하지 않다	0.3	( 3)	
전체 <sup>2)</sup>	100.0	(822)	
만족한다	77.0	(633)	
보통이다	20.4	(168)	(2.74점)
만족하지 않는다	2.6	( 21)	
전체 <sup>3)</sup>	100.0	(875)	

주: 1) 친절하다(만족한다) 3점, 보통이다 2점, 친절하지 않다(만족하지 않는다) 1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2) 모니터링 응답대상자 1,036명 중 무응답 74명, 접촉불가 87명을 제외함.

3) 모니터링 응답대상자 1,036명 중 무응답 74명, 접촉불가 87명, 답례품 받은 것을 기억 못하는 53명을 제외함.

조사실시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집(거실)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본인 방) 33.7%, 경로당 및 마을회관 5.4% 순으로 나타났다(표 I-3-5 참조).

〈표 I-3-5〉 조사 실시 장소

(단위: %, 명)

구분	계	(명)
집(내)방	33.7	(293)
집 거실	54.3	(472)
이웃집	1.3	( 11)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5.4	( 47)
기타	5.4	( 47)
전체 <sup>1)</sup>	100.0	(870)

주: 1) 모니터링 응답대상자 1,036명 중 무응답 79명, 접촉불가 87명을 제외함

설문문항의 난이도 정도를 물어본 결과, 수월하였다는 응답이 56.0%, 보통 38.0%, 어려웠다 6.0%로 나타나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문항이 어려웠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설문 내용의 어려움, 응답하기 곤란함 등으로 나타났다(표 I-3-6 참조).

〈표 I-3-6〉 설문문항의 난이도

(단위: %, 명)

구분	계	(명)
수월하였다	56.0	(487)
보통이었다	38.0	(331)
어려웠다	6.0	( 52)
전체 <sup>1)</sup>	100.0	(870)
어려웠던 이유 <sup>2)</sup>		
설문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42.5	(20)
설문내용에 응답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었다	12.8	( 6)
조사 시간이 길었다	44.7	(21)
전체 <sup>2)</sup>	100.0	(870)

주: 1) 모니터링 응답대상자 1,036명 중 무응답 79명, 접촉불가 87명을 제외함

2) 어려웠다고 응답한 52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 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본조사 당시 장기요양시설입소, 입원 응답대상자에 대한 패널관리

조사 기간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 또는 병원 입소 및 무응답으로 인해 응답을 받지 못한 257명을 대상으로 한 퇴소 또는 퇴원 여부 및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루어졌다(표 I-3-7 참조). 연락처 확인 결과 핸드폰 번호 변경없음 74.8%, 집전화 변경없음 98.6%, 집주소 변경없음 96.4%로 나타났다.

퇴소 및 퇴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39.8%가 퇴소 및 퇴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5.9%는 아직 입소 및 입원 중이며, 14.3%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건강한 편이 13.2%, 보통 41.5%, 나쁨 45.3%로 나타났다.

사망한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자연사 4명(21.1%), 병사 13명(68.4%), 사고사 2명(10.5%)이다.

### 〈표 I-3-7〉 퇴소 및 퇴원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	(명)
예	39.8	(53)
아니오	45.9	(61)
사망	14.3	(19)
전체 <sup>1)</sup>	100.0	(133)
매우 건강하다	1.9	( 1)
건강한 편이다	11.3	( 6)
그저 그렇다	41.5	(22)
건강이 나쁜 편이다	34.0	(18)
건강이 매우 나쁘다	11.3	( 6)
전체 <sup>2)</sup>	100.0	(53)

주: 1) 응답대상자 257명 중 조사실패 65명, 결번 51명, 난청 2명, 예러 6명을 제외함

2) 퇴소한 응답자 53명을 대상으로 함

## 6. 자료처리 및 결과제시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조사지도원의 검토를 거쳐 설문항목의 누락이나 오류를 점검하여 보완하였다. 조사완료 후 조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설문지를 검토한 후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두달에 걸쳐 자료 확인작업이 이루어졌다. 확인작업의 주요 내용은 입력에러 확인, 아이디 오류 확인, 범주 에러 확인, 로직 에러 확인, 산식 에러 확인이다. 첫째, 입력확인은 기본적인 입력에러를 찾는 것으로써, 가구주 및 응답자 성명의 입력오류를 찾아내고, 인포시트와 입력내용의 일치여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이디 오류 확인은 아이디 입력 오류, 2011년도 데이터 내 아이디 중복 오류, 2008년도와 2011년도 아이디 매칭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본 조사가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셋째, 각 문항별 보기를 벗어나는 번호나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 무응답 및 비해당인 아닌 경우 나타나는 경우 등을 찾아 확인하는 범주 에러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넷째, 로직 에러 확인은 문항의 흐름 확인 및 앞뒤 응답의 일치 여부를 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문항이 지시한대로 잘 따라가서 응답했는지, 또는 앞 문항에서 말한 상태가 뒷 문항에서도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넷째, 산식 에러 확인은 문항 답변 중 산식을 통해 일치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총 자녀수는 비동거 자녀수와 동거 자녀수의 합이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토된 입력 자료는 연구진의 각자의 전공을 감안한 업무 분장에 따라 SPSS와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 조사결과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므로 백분율 및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 통계방법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조사구별 조사완료율의 차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계’의 수치가 ‘소계’의 합과 차이를 보이거나 각 행의 ‘계’의 수치가 각 행의 개별 수치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문항분석에 있어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은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하여 백분율이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역,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및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질문 항목에 따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시는 추가되었다. 또한 대리응답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본인응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대리응답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대리응답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대리 응답자의 포함 여부는 표에 주로 표기하였다.

본 노인실태조사가 2011년 65세 이상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와 더불어 2008년도 1차 조사가 이루어진 패널에 대한 2차 조사로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에 대한 제특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되, 패널유지 대상자에 대한 기본 분석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결과 제시에 있어 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65세 이상에 대한 분석은 ‘노인’으로 2008년도 조사대상자로 2011년도에도 조사가 실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패널’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내용에 대한 시·도 통계는 부록에 제시하여 정책입안자나 지역별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절 표본설계 개요

### 1. 2008년 표본설계

#### 가. 노인가구 모집단 정의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패널 추출 및 추정을 위해 모집단을 정의해야 한다. 모집단은 조사 목적에 의해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표본조사에 의해 표본을 직접 추출하게 되는 대상을 규정하는 조사모집단(sampled population)이 있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목표모집단 : 2008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 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② 조사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표본조사가 실시된 10% 표본조사구,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모집단 정보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고 노인 모집단을 분류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체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이므로 본 조사에 해당되는 노인만으로 모집단을 생성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에 대한 모집단 분석을 통해 본 조사에 이용되는 조사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표본설계에 반영하였다. 분석된 조사모집단을 통해 표본추출을 위해 추출틀(sampling frame)을 보완, 결정하였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시점에서 생성된 모집단의 변동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조사결과의 독립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보통조사구 내의 전체 노인이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조사의 목적상 모집단 자료는 표본설계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중 노인복지와 조사구내 노인의 평균연령, 남자비율, 배우자 없음 비율,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 비율 등을 감안한 조사구 특성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 조사구명부를 추출틀로 사용하였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추출틀은 인구주택 총조사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보통조사구 리스트이다.

## 나. 층화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의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

로 2차 층화하여 25개 층으로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25개 층별로 표본수를 배정할 경우 각 층별로 배정되는 표본의 수는 각 지역별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법과 노인인구수의 제곱근을 취하여 인구수의 제곱근의 비율대로 비례하여 층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다. 목표정도 및 표본크기 결정

##### 1) 표본크기 결정방안

##### 가) 적정표본크기 산출을 위한 근거

적정표본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사하고자 하는 주요 지표의 추정치의 정도 또는 최대허용오차와 신뢰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단일목적의 조사가 아닌 노인생활전반에 걸친 항목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목적의 조사이므로 특정지표를 선정하여 조사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특정 조사항목을 정하지 않고 이항분포의 일반적인 비율추정 시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도와 신뢰수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노인인구의 분포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와 집계와 공표가 16개 시도별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6개 시도별 집계결과가 정해진 신뢰수준에서 일정한 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표본크기를 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은 16개 시도별로 성별, 연령구간별 집계를 할 경우 3단 교차분석표의 각 셀별 표본크기 역시 정해진 신뢰수준에서 일정한 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표본이 배정되어야 한다.

## 나) 표본규모산식

모집단에서 필요표본크기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n = \frac{Z_{\alpha/2}^2 p(1-p)}{e^2}$$

여기서  $Z_{\alpha/2}$ 는  $(1-\alpha) \times 100\%$  신뢰수준에서의 신뢰계수(표준정규분포),  $e$ 는 최대허용오차,  $p$ 는 모비율이다.  $p$ 를 알 수 없으므로  $p(1-p)$ 의 최대값인 0.25를 가지는  $p=0.5$ 를 사용하였다.

## 다) 시도별 조사결과와 집계를 위한 적정표본크기

시도별 조사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적정표본크기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최대허용오차 4%를 전제로 산출하였다. 이 경우 각 시도별 필요한 적정표본크기는 평균 600명이며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적정표본크기는 9,600명이다. 7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의 표본을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집계할 경우 필요한 25개의 층이 구분되며 각 층별로 95%의 신뢰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최대허용오차를 4%의 정도로 유지한다면 적정 표본크기는 15,000명이다. 16개 시도별 최소표본은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를 5%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16개 시도의 최소 표본크기는 384명이다. 마찬가지로 25개 시도별, 동·읍·면부별 최소표본의 경우에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6%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25개 시도별, 동·읍·면부별 최소 표본크기는 267명이다.

## 라) 16개 시도별, 성별, 연령구간별 교차 집계를 위한 적정표본크기의 산정

조사결과를 16개 시도별, 남녀별, 연령구간별(5세 간격) 교차 집계할 경우 적정 표본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10%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각 셀별로 필요한 적정표본크기는 96명이다. 시도별 조사결과와 집계나 시도별, 성별, 연령구간별 교차집계를 위한 적정 표본크기는 15,000에서 15,360명 사이로 추정되며 본 조사에서는 총 표본의 크기를 15,000명으로 정하였다(표 I-3-8 참조).

〈표 I-3-8〉 신뢰수준과 최대허용오차별 적정 표본크기(p=0.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90%	95%	99%
10%	68	96	166
9%	64	119	205
8%	106	150	259
7%	138	196	338
6%	188	267	460
5%	271	384	663
4%	423	600	1,036
3%	752	1,067	1,842
2%	1,691	2,401	4,144
1%	6,765	9,604	16,577

#### 마) 최종결정 및 표본배정

25개 층에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5%를 만족하는 최소표본크기는 384명이다. 25개 층별 노인인구의 비례에 맞추어 15,000명의 표본을 25개 층별로 배정할 경우 최대 배정표본은 2,776명(서울)이고 최소 배정표본은 80명(제주 읍면부)이다. 노인인구 비례배정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목표정도인 5%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표본 384명에 미달하는 지역이 12개 지역이다(표 I-3-9 참조).

〈표 1-3-9〉 지역별 표본크기 배정방식의 비교

(단위: 명)

지역	노인수			비례배정			제공근배정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전국	7,256,119	4,970,138	2,285,981	15,000	10,275	4,725	14,998	9,684	5,314
서울	1,342,698	1,342,698	-	2,776	2,776	-	1,406	1,406	-
부산	553,030	553,030	-	1,143	1,143	-	903	903	-
대구	342,847	342,847	-	709	709	-	711	711	-
인천	306,299	306,299	-	633	633	-	672	672	-
광주	175,449	175,449	-	363	363	-	508	508	-
대전	173,782	173,782	-	359	359	-	506	506	-
울산	102,148	102,148	-	211	211	-	388	388	-
경기	1,267,728	946,210	321,518	2,621	1,956	665	1,869	1,181	688
강원	295,955	140,143	155,812	612	290	322	933	454	479
충북	268,815	111,481	157,334	555	230	325	886	405	481
충남	399,715	78,003	321,712	826	161	665	1,027	339	688
전북	385,869	176,031	209,838	798	364	434	1,065	509	556
전남	473,957	102,930	371,027	980	213	767	1,128	389	739
경북	562,505	166,285	396,220	1,163	344	819	1,259	495	764
경남	516,147	202,454	313,693	1,067	419	648	1,226	546	680
제주	89,175	50,348	38,827	184	104	80	511	272	239

25개 층별 노인인구의 제공근을 취하여 제공근 수치의 비율에 맞추어 15,000명의 표본을 25개 층별로 배정할 경우 최대 배정표본은 1,406명(서울)이고 최소 배정표본은 239명(제주 읍면부)이다(표 1-3-10 참조). 제공근 비례배정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목표허용오차인 5%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표본 384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충남 동부(380명), 제주 동부(272명), 제주 읍면부(239명) 등 3개 지역에 추가표본을 배정하였다. 추가로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분석에서도 60세 이상 노인표본 뿐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인 표본의 목표표본오차를 95% 신뢰수준에서 5% 이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주(55명), 대전(56명), 울산(195명)의 추가표본을 배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방식에 의한 지역별 표본배정의 결과를 비교하면 지역별 노인인구의 제공근의 비율에 맞추어 지역별 표본수를 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3-10〉 지역별 조사구 당 조사가구

(단위: 가구, 명)

지역	가구수			조사구당 가구수		조사구당 노인수	
	계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전국	5,122,214	3,558,133	1,564,081	16.63	29.83	23.23	43.59
서울	951,827	951,827	-	17.32	-	24.43	-
부산	401,579	401,579	-	19.98	-	27.52	-
대구	245,013	245,013	-	18.23	-	25.5	-
인천	220,819	220,819	-	15.57	-	21.6	-
광주	125,011	125,011	-	16.58	-	23.27	-
대전	122,892	122,892	-	15.34	-	21.69	-
울산	75,618	75,618	-	13.61	-	18.39	-
경기	892,381	674,737	217,644	15	21.3	21.04	31.47
강원	205,808	99,514	106,294	18.77	29.31	26.43	42.97
충북	184,372	79,139	105,233	15.82	30.05	22.29	44.93
충남	270,841	55,689	215,152	14.65	29.43	20.52	44
전북	268,090	125,151	142,939	18.18	37.22	25.57	54.65
전남	331,798	74,948	256,850	16.92	36.9	23.24	53.31
경북	391,260	120,068	271,192	15.84	32.8	21.94	47.92
경남	372,012	150,343	221,669	14.97	28.27	20.16	40.01
제주	62,893	35,785	27,108	16.68	31.02	23.46	44.42

## 2)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층화 2단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추출한다. 층화 2단 집락추출의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구에서 추출된 조사구이다. 표본조사구 및 섬, 특수지설 조사구를 제외한 최종 조사모집단 조사구는 266,388개이다. 층화 2단 집락추출의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노인 가구이다. 층화 2단 집락추출의 최종추출단위는 노인 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노인 가구 : 가구 구성원 중 만 60세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조사모집단 노인 가구는 5,122,214개이다.

### 3) 지역별 표본조사구 수의 배정

지역별 표본조사구의 수는 지역별로 배정된 응답자 표본크기와 1개 조사구에서 추출할 응답자수에 의해 정해진다. 1개 조사구에서 추출할 노인 가구는 모든 조사구에서 동일한 수의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과 조사구 내의 노인 가구 또는 노인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응답자수를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표 I-3-11 참조).

〈표 I-3-11〉 지역별 조사구 당 조사가구의 배정 및 필요 조사구 수

(단위: 개, 가구)

지역	모집단 조사구			모집단 가구수			표본가구수			표본조사구수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전국	266,388	213,951	52,437	5,122,214	3,558,133	1,564,081	15,600	10,152	5,448	3,142	2,461	681
서울	54,955	54,955	-	951,827	951,827	-	1,408	1,408	-	352	352	-
부산	20,099	20,099	-	401,579	401,579	-	904	904	-	226	226	-
대구	13,443	13,443	-	245,013	245,013	-	712	712	-	178	178	-
인천	14,182	14,182	-	220,819	220,819	-	672	672	-	168	168	-
광주	7,540	7,540	-	125,011	125,011	-	563	563	-	127	127	-
대전	8,012	8,012	-	122,892	122,892	-	562	562	-	126	126	-
울산	5,555	5,555	-	75,618	75,618	-	583	583	-	97	97	-
경기	55,193	44,977	10,216	892,381	674,737	217,644	1,868	1,180	688	381	295	86
강원	8,929	5,303	3,626	205,808	99,514	106,294	936	456	480	174	114	60
충북	8,503	5,001	3,502	184,372	79,139	105,233	884	404	480	161	101	60
충남	11,113	3,802	7,311	270,841	55,689	215,152	1,072	384	688	182	96	86
전북	10,725	6,885	3,840	268,090	125,151	142,939	1,060	508	552	196	127	69
전남	11,389	4,429	6,960	331,798	74,948	256,850	1,124	388	736	189	97	92
경북	15,847	7,579	8,268	391,260	120,068	271,192	1,256	496	760	219	124	95
경남	17,883	10,043	7,840	372,012	150,343	221,669	1,228	548	680	222	137	85
제주	3,020	2,146	874	62,893	35,785	27,108	768	384	384	144	96	48

노인 가구 또는 노인인구의 크기에 비례하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조사모집단의 조사구 내 노인 가구 및 노인인구의 크기가 동부, 읍면부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동부와 읍면부의 조사구내 노인 가구를 동일한 수만큼 조사하였다. 조사모집단의 조사구당 노인가구수 및 노인인구수의 크기가 시도와 상관없이 동부 또는 읍면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2008년 조사에서는 특별·광역시(울산을 제외한)와 도지역의 동부는 조사구당 4가구, 도지역의 읍면부는 8가구를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하고, 울산광역시는 조사구 당 6가구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 4) 조사구내 표본가구의 선정방법

첫째, 조사구 내의 가구 수를 조사가구 수로 나눈 수치를 계산한다.

둘째, 위에서 계산한 수치의 간격으로 조사구 가구리스트에서 가구를 추출한다.

셋째, 추출된 가구에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추출된 가구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사구 가구리스트에서 인접한 가구를 추출한다.

다섯째, 선정된 가구 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 5) 가중값 작성 및 추정

##### 가) 가중값 부여

각 표본단위들이 모집단 단위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조정하기 위해 가중값을 계산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조사구의 추출과정에서 25개 층으로 층화한 후에 각 층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그 조사구에서 가구를 추출했기 때문에 2단계 추출이다. 따라서 추출가중값은 2단계의 추출과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각 조사구 내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가중값을 가진다. 최종 가중값은 조사가 실시된 후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값을 부여하고 가장 최근의 층별, 성별, 연령별 60세 이상 노인수로 보정한다. 통계조사에서 가중값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표본설계특성에 따라 존재하는 불균등한 표본단위의 추출확률을 조정하고 둘째, 표본단위의 무응답을 보정하고 셋째, 모집단의 알려진 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보정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가중값은 크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계산하여 이용된다.



## 나) 개인 가중값의 계산

○ 층화 : 서울 및 광역시 7개, 도지역 동, 읍면 18개로 총 25개 층화

○ 추출 가중값 부여

$$- W_{hkj}^{sampling} = \frac{M_h N_{hk} A_{hkj}}{m_h n_{hk} a_{hkj}}$$

- $W_{hkj}$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노인의 가중값(노인번호가  $j$ ,  $j = 1, \dots, n_{hk}$ ,  $n_{hk}$ 는  $h$ 층의  $k$ 번째 표본응답 노인 수이고 조사구 별로 모두 다른 노인번호를 가짐)
- $M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k}$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모집단 가구 수
- $m_h$ 는  $h$ 층의 표본 조사구 수
- $n_{hk}$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표본응답 가구 수
- $A_{hkj}$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총 노인 수
- $a_{hkj}$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조사된 노인 수이다.

○ 사후보정 가중값

$$- W_{hli}^{post} = N_{hl} \cdot \frac{W_{hli}^{sampling}}{\sum_{i=1}^{n_{hl}} W_{hli}^{sampling}}$$

- $l$ 은 각 층에서 성별, 연령별로 10개로 분할한 셀 번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자(60~65세)는  $l=1$ 이고 여자(85세 이상)는  $l=10$ 이다.
- $W_{hli}^{post}$ 는  $h$ 층의  $l$ 번째 셀의  $i$ 번째 노인의 사후보정 가중값
- $N_{hl}$ 은  $h$ 층의  $l$ 번째 셀의 2008년 주민등록 노인 수
- $W_{hli}^{sampling}$ 는  $h$ 층의  $l$ 번째 셀의  $i$ 번째 노인의 추출 가중값이다.

## 다) 가구가중값의 계산

○ 층화 : 서울 및 광역시 7개, 도지역 동, 읍면 18개로 총 25개 층화

○ 추출 가중값 부여

$$- W_{hki}^{sampling} = \frac{M_h N_{hk}}{m_h n_{hk}}$$

- $W_{hki}$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i$ 번째 노인 가구의 가중값(노인가구 번호가  $i$ ,  $i = 1, \dots, n_{hk}$ ,  $n_{hk}$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표본응답 가구 수이고 조사구 별로 모두 다른 노인가구 번호를 가짐)
- $M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k}$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모집단 가구 수
- $m_h$ 는  $h$ 층의 표본 조사구 수
- $n_{hk}$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표본응답 가구 수

○ 사후보정 가중값

$$- W_{hqj}^{post} = N_{hq} \cdot \frac{W_{hqj}^{sampling}}{\sum_{j=1}^{n_{hq}} W_{hqj}^{sampling}}$$

- $q$ 는 각 층에서 1인가구( $q=1$ ), 비1인가구( $q=2$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W_{h1j}$ 는  $h$ 층의 1인 가구 중  $j$ 번째 가구 가중값이다.
- $N_{hq}$ 은  $h$ 층의  $q$ 번째 셀의 2005년 노인 가구 수
- $W_{hqj}^{sampling}$ 는  $h$ 층의  $q$ 번째 셀의  $j$ 번째 노인가구의 추출 가중값

## 라) 추정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첫째, 최종 가중값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통해 추정한다.

둘째, 조사단위를 고려하여 지역별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정한다.

셋째, 가중평균 추정량에 대한 분산추정량과 상대표준오차를 추정한다.

○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 및 분산추정량, 상대표준오차

$$\bar{y} = \frac{1}{N} \sum_{h=1}^{25} \sum_{k=1}^{m_h} \sum_{j=1}^{n_{hk}} W_{hkj} y_{hkj}$$

$$\widehat{var}(\bar{y}) = \frac{1}{N^2} \sum_{h=1}^{25} \frac{n_h}{n_h - 1} \sum_{k=1}^{m_h} \left[ W_{hkj} (\bar{y}_{hk} - \bar{y}) - \frac{1}{m_h} \sum_{k=1}^{m_h} W_{hkj} (\bar{y}_{hk} - \bar{y}) \right]^2$$

$$cv(\bar{y}) = \frac{\sqrt{\widehat{var}(\bar{y})}}{\bar{y}} \times 100$$

여기서  $y_{hkj}$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조사대상자의 특성값이고  $\bar{y}_{hk}$ 는  $h$ 층의  $k$ 번째 조사구내의 자료들의 평균이다.

## 2. 2011년 표본설계

### 가. 표본 개요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에 구축된 노인가구중 2009년과 2010년 부가조사를 통해 확인된 표본가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최종적으로 구축된 2010년 노인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됨으로 2008년 표본설계 체계를 유지하면서 2011년 시점의 노인 실태를 반영할수 있도록 한 패널유지가구에 대한 조사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 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구축된 노인 패널가구의 응답률과 패널 가구에 새롭게 진입한 노인들에 대한 신규 조사를 통해 2011년 기준의 노인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08년 노인실태조사로부터 구축된 표본 현황을 파악해보면, 조사구는 2,858개이며, 표본가구는 12,567가구, 노인표본수는 15,146명으로 파악되었다(표 I-3-12 참조).

〈표 I-3-12〉 2008년 표본현황

(단위: 개, 가구, 명)

지역	조사구			노인표본가구			노인표본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전국	2,858	2,210	648	12,567	7,942	4,625	15,146	10,624	4,522
서울	317	317	-	1,058	1,058	-	2,860	2,860	-
부산	196	196	-	764	764	-	1,147	1,147	-
대구	160	160	-	543	543	-	707	707	-
인천	161	161	-	513	513	-	664	664	-
광주	114	114	-	416	416	-	365	365	-
대전	112	112	-	427	427	-	364	364	-
울산	81	81	-	452	452	-	223	223	-
경기	377	286	91	1,551	949	602	2,783	2,100	683
강원	157	101	56	698	345	353	603	291	312
충북	157	95	62	771	343	428	544	230	314
충남	171	90	81	858	301	557	815	171	645
전북	168	103	65	890	382	508	770	374	396
전남	172	84	88	897	284	613	938	213	726
경북	193	107	86	1041	409	632	1,118	351	767
경남	187	115	72	1025	448	577	1,055	456	599
제주	135	88	47	663	308	355	189	108	81

2010년 파악된 노인표본은 총 14,874명으로 이들의 2010년도 전화접촉 현황은 〈표 I-3-13〉 과 같다. 총 14,874명의 전화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가조사의 조사 내용이 전체 조사된 노인은 8,677명, 부가조사중 진행이 중단된 경우 535명, 본인 확인은 되었으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56명, 노인들의 노환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1,585명, 응답을 거부한 경우 201명이었다. 또한 조사자체를 거부한 경우도 1,129명에 달하였다. 또한 연락처는 확인된 경우 187명, 부재중인 경우 496명이며 이외에도 일시 출타 및 부재(14명), 입원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127명) 등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다양하였다. 사망자도 206명에 달하였다. 한편, 전화번호 결번 1,265명, 전화번호 오류 및 틀림이 38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13〉 2010년 전화 접촉 현황

(단위: 명)

지역	부가 조사	부가 성공	부가조사 진행중	문항 중단	본인 확인	청력/인지장애 및 외병 통화불가	응답 거부	조사 거절	연락처 확인	부재	일시 부재
서울		780		47	9	112	14	111	12	30	0
부산		437		24	5	78	27	59	8	31	1
대구		384		26	2	63	11	46	8	21	0
인천		381		26	1	57	5	41	9	22	0
광주		337		15	2	45	3	36	1	15	1
대전		315		27	6	47	7	46	6	12	0
울산		296		24	1	51	5	36	10	23	0
경기		1,083		74	12	184	17	168	23	62	1
강원		527		30	2	85	14	58	18	30	1
충북		551		35	3	91	8	61	12	26	0
충남		637		31	3	121	15	82	9	28	1
전북		631		35	2	121	8	75	8	37	0
전남		692		32	5	123	10	82	15	40	1
경북		623		37	1	157	20	72	20	50	0
경남		558		45	0	158	27	86	19	41	2
제주		445		27	2	92	10	70	9	28	0
계		8,677		535	56	1,585	201	1,129	187	496	8

지역	일시 외출 /여행	입원	장기 요양	사망	결번	전화 번호 오류	전화 번호 틀림	이사 (주소/연락처 중 확인)	계
서울	0	3	5	20	137	2	25	1	1,308
부산	0	12	4	14	79	0	24	1	804
대구	0	2	1	7	50	3	16	0	640
인천	1	4	3	6	64	3	11	0	634
광주	1	4	2	7	41	3	9	0	522
대전	0	5	1	5	35	3	5	0	520
울산	0	2	1	10	45	1	10	0	515
경기	1	9	6	25	200	9	47	0	1,921
강원	1	8	2	12	68	2	21	0	879
충북	0	8	2	11	83	3	21	0	915
충남	0	6	2	20	74	7	26	1	1,063
전북	1	6	2	15	60	1	24	0	1,026
전남	1	11	1	17	72	3	28	2	1,135
경북	0	4	1	20	88	4	23	0	1,120
경남	0	6	0	8	102	2	37	1	1,092
제주	0	1	3	9	67	1	15	1	780
계	6	91	36	206	1,265	47	342	7	14,874

## 나. 가중값 분석

가중값은 불균등확률 추출에 의한 표본의 편향을 줄이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 완료표본을 기준으로 개인 가중값과 가구 가중값을 산정하여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표 I-3-14〉과 같이 개인가중값의 전체 평균은 469.4으로 표본 노인 1인이 2008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469.4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지역의 노인 1인은 평균 1,009.6명을 대표하며, 제주지역은 111.2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개인 가중값의 평균은 약 9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개인 가중값의 산포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가중값 분포에서 극단치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3-4 참조). 또한 지역별로 가중값의 제4오분위수 분포를 보면 제주, 울산, 충북, 전북의 순으로 4분위편차가 작았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는 4분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별로 가중값의 분포가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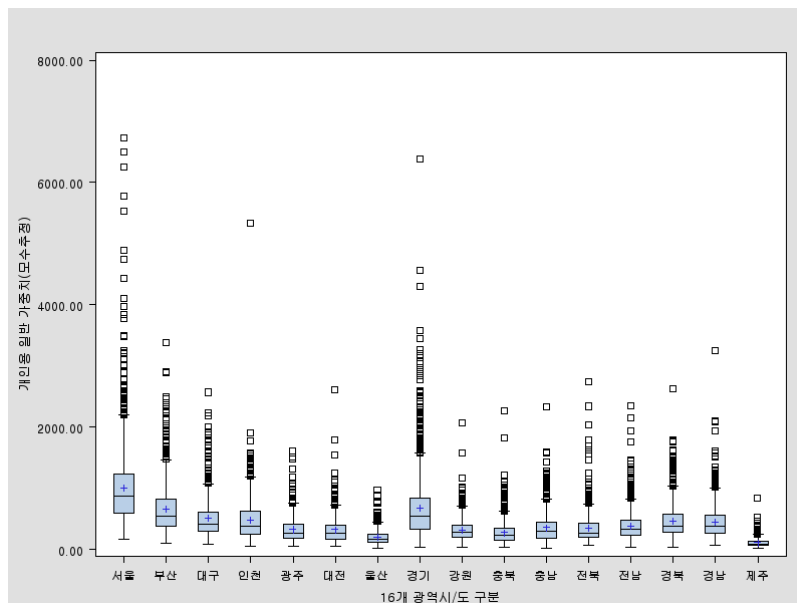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 가중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 가구 1가구가 평균 407.6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인가중값의 분포와 유사하게 4분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반면, 4분위 편차가 작은 지역은 울산, 충북, 전북 등이다(표 I-3-15 참조).

〈표 1-3-14〉 지역별 개인 가중값 통계량(2008년)

(단위: 명)

지역	조사완료 노인수	평균	표준오차	Q1	중앙값	Q3
전국	15,146	469.4	3.4	212.5	353.7	588.3
서울	1,330	1,009.6	18.3	597.2	864.4	1,239.1
부산	818	658.5	14.2	383.9	550.3	820.4
대구	654	507.4	13.1	293.4	411.3	608.2
인천	648	481.2	14.6	240.6	385.4	621.3
광주	527	325.1	9.2	175.4	269.8	411.0
대전	531	321.8	10.5	171.7	261.2	392.2
울산	527	198.4	5.6	116.3	168.1	253.2
경기	1,948	670.7	11.5	337.4	545.0	831.4
강원	891	317.5	6.3	190.4	280.4	398.3
충북	932	274.0	6.1	155.4	228.0	344.2
충남	1,080	354.4	7.4	188.3	300.3	445.8
전북	1,050	344.2	7.3	199.2	271.7	422.1
전남	1,154	381.7	7.1	232.0	329.6	472.5
경북	1,145	458.5	8.3	275.6	382.7	579.6
경남	1,113	445.0	8.5	257.7	378.5	558.6
제주	798	111.2	2.6	64.2	90.0	137.2

[그림 1-3-3] 개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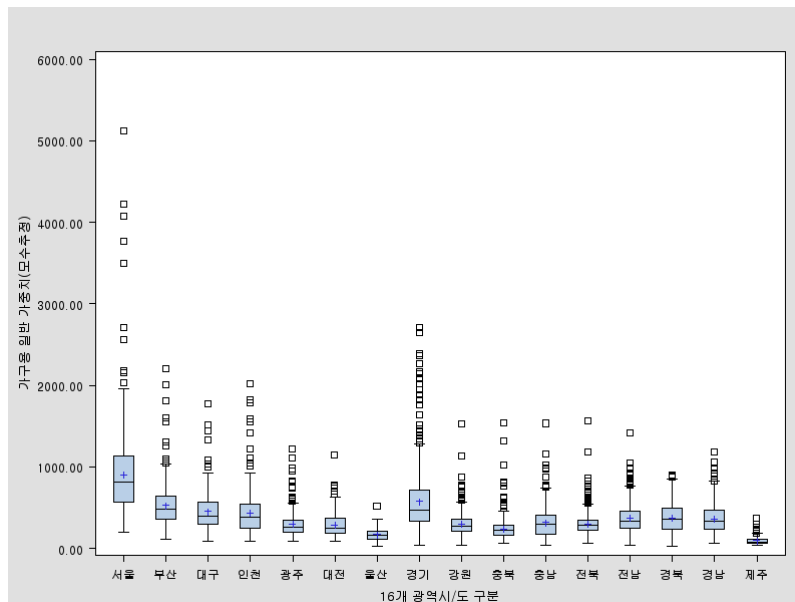


〈표 1-3-15〉 지역별 가구 가중값 통계량(2008년)

(단위: 가구)

지역	조사완료 가구수	평균	표준오차	Q1	중앙값	Q3
전국	12,567	407.6	2.8	214.5	330.6	504.2
서울	1,058	899.6	14.3	573.1	809.4	1,131.2
부산	764	525.6	8.3	357.4	479.6	635.2
대구	543	451.2	10.1	297.8	395	567.9
인천	513	430.4	12.1	247.9	383	540.8
광주	416	300.5	7.9	200.3	254.9	345.2
대전	427	287.8	7.3	184.1	251.5	369.1
울산	452	167.3	3.5	107.4	159.1	212.2
경기	1,551	575.4	9.7	328.1	464.1	714.3
강원	698	294.9	5.7	204.9	270.3	361.4
충북	771	239.1	4.7	162.6	219.2	281.2
충남	858	315.7	6.1	176.7	294.5	405.1
전북	890	301.2	4.3	223.2	281.7	350.9
전남	897	369.9	6.3	244.5	336.5	457.7
경북	1,041	375.9	5.5	240.3	356.8	495.9
경남	1,025	362.9	5.4	231.1	330	472.2
제주	663	94.9	1.8	63.6	80.5	114.2

[그림 1-3-4] 가구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2008년)





## 다. 2011년 표본현황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기본 방향은 2008년에 구축되어 2010년 최종 확인된 조사대상 노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패널을 구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2011년 노인실태를 반영하는 횡단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6개 특·광역시별로 지역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0년에 최종적으로 구축된 패널표본으로는 3년간의 패널 탈락 등으로 지역별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문제에 당면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시점에서 노인들의 장기요양 및 사망 등으로 실제 조사대상 노인수는 2010년에 파악한 노인규모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2008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가구 내 거주하고 있는 2011년 기준 65세 이상의 대상자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지역별 완료표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3-16〉 과 같이 총 11,542명이 조사완료되었고, 이 중 2008년 조사에 이어 2011년에 조사에 응답한 노인은 10,003명으로 2008년 15,146명의 약 66.0%에 해당되며, 이는 2년간의 패널유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패널로 유지된 원표본 유지율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신규로 진입한 노인은 1,539명으로 전체 완료 표본수의 13.3%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횡단면적인 완료율은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원표본패널과 2011년 신규로 진입한 노인을 포함하여 76.2%의 완료율을 나타냈다(표 I-3-17 참조).

〈표 1-3-16〉 2011년 노인조사 완료 표본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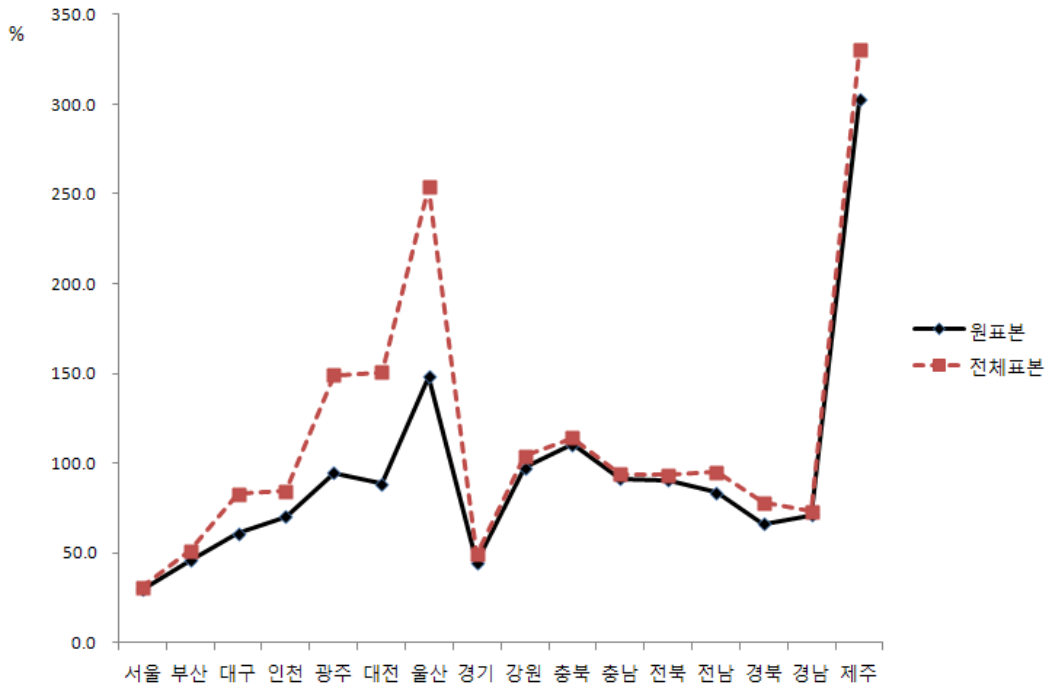
지역	'08기존 본조사	'11신규 본조사	'08기존 추가조사	계
전국	9,759	1,539	244	11,542
서울	843	31	12	886
부산	509	63	16	588
대구	422	154	9	585
인천	448	95	18	561
광주	345	198	1	544
대전	318	227	4	549
울산	305	235	26	566
경기	1,219	122	31	1,372
강원	578	39	9	626
충북	599	20	1	620
충남	736	20	8	764
전북	663	21	35	719
전남	762	108	22	892
경북	728	131	14	873
경남	727	23	23	773
제주	557	52	15	624

〈표 1-3-17〉 2011년 노인조사 표본유지율 및 완료율

(단위: 명)

지역	노인 개인 원표본			전체 완료율	
	2008년	2011년	유지율	2011년	완료율
전국	15,146	10,003	66.0	11,542	76.2
서울	2,860	855	29.9	886	31.0
부산	1,147	525	45.8	588	51.3
대구	707	431	61.0	585	82.7
인천	664	466	70.2	561	84.5
광주	365	346	94.8	544	149.0
대전	364	322	88.5	549	150.8
울산	223	331	148.4	566	253.8
경기	2,783	1,250	44.9	1,372	49.3
강원	603	587	97.3	626	103.8
충북	544	600	110.3	620	114.0
충남	815	744	91.3	764	93.7
전북	770	698	90.6	719	93.4
전남	938	784	83.6	892	95.1
경북	1,118	742	66.4	873	78.1
경남	1,055	750	71.1	773	73.3
제주	189	572	302.6	624	330.2

[그림 1-3-5] 노인표본의 조사완료 현황 비교



## 라. 2011년 표본의 가중값

### 1) 2011년 노인 개인 및 가구의 횡단면 가중값

2008년 개인 가중값을 기저로 2011년 표본의 가중값은 노인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횡단면 가중값과 종단면 가중값을 동시에 산정하였다.

먼저 횡단면 가중값은 2008년 기준의 최종 가중값을 이용하여 2011년 현재 지역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추계값을 성별에 따라 적용하여 전국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한편 2008년 조사완료 자료를 기저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가중치는 2008년 최종 개인과 가구 가중치를 활용하여 2011년에 조사에 참여한 개인과 2011년 신규로 진입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조정하여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횡단면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W_{gpc}^{(2011)} = W_{gp}^{(2008)} \times \frac{1}{p_h^{(2011)}} \times \frac{N_h^{(2011)}}{\hat{N}_{hgc}^{(2011)}}$$

여기서  $W_{gp}^{(2008)}$ 는 2008년 최종 개인 가중값이며,  $p_h^{(2011)}$ 은 2011년 지역별 노인 개인의 응답확률이고,  $N_h^{(2011)}$ 은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추계인구수이며,

$$\hat{N}_{hgc}^{(2011)} = \sum_h^L W_{hgc}^{(2011)} \text{로서 2011년 기준 조정된 가중값이다.}$$

이때, 2008년 이후 신규로 조사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저 가중값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 평균 가중값을 산정하여 개인별 가중값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분석용으로 최종 횡단면 가중값을 표준화한 표준 가중값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W_{spc}^{(2011)} = W_{gpc}^{(2011)} \times \frac{n}{\sum W_{gpc}^{(2011)}}$$

여기서  $n$ 은 2011년 조사완료된 노인 수를 나타낸다.

## 2) 2011년 노인 개인 및 가구의 종단면 가중값

이와 더불어 2011년 종단면 가중값은 2011년에 신규로 조사된 노인들의 가중값은 2008년에 조사되지 않은 노인들로서 기저 가중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하였고, 2008년과 2011년에 지속적으로 응답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2008년 대비 2011년의 지역별 응답률을 기저가중값에 곱한 후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추계값으로 사후 조정하였다.

$$W_{gpl}^{(2011)} = W_{gp}^{(2008)} \times \frac{1}{p_h^{(2011)}} \times \frac{N_h^{(2011)}}{\hat{N}_h^{(2011)}}$$

여기서  $W_p^{(2008)}$ 는 2008년 최종 개인 가중값이며,  $p_h^{(2011)}$ 은 2011년 지역별 노인 개인의 응답확률이고,  $N_h^{(2011)}$ 은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추계인구수이며,

$$\hat{N}_{hgl}^{(2011)} = \sum_h^L W_{hgl}^{(2011)} \text{로서 2011년 기준 조정된 가중값이다.}$$

한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분석용으로 최종 종단면 가중값을 표준화한 표준 가중값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W_{spl}^{(2011)} = W_{gpl}^{(2011)} \times \frac{n}{\sum W_{gpl}^{(2011)}}$$

여기서  $n$ 은 2011년 조사완료된 노인 수를 나타낸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횡단면 개인 및 가구 가중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I-3-18〉과 〈표 I-3-19〉와 같이 노인 개인은 평균 662.4명을 대표하며, 노인가구는 668.9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지역의 거주 노인은 평균 1,659.8명을 대표하며, 제주지역은 평균 150.9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경우 서울지역은 1가구가 평균 1,670가구를 대표하며 제주지역은 153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3-18〉 2011년 노인조사 횡단면 개인 가중값 통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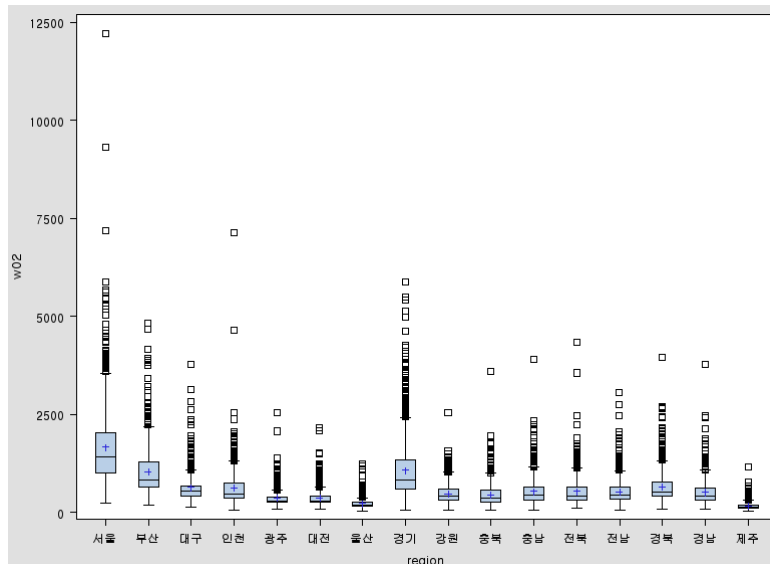
지역	조사완료 노인수	평균	표준 오차	Q1	중앙값	Q3	최소값	최대값
전국	11,542	662.4	5.9	281.2	471.9	802.6	33.0	12,204.4
서울	886	1,659.8	34.8	995.2	1401.7	2,023.2	237.7	12,204.4
부산	588	1,036.0	26.9	648.4	826.6	1,273.2	175.7	4,824.6
대구	585	634.8	16.9	413.5	538.6	676.5	131.4	3,773.4
인천	561	615.0	21.3	367.5	471.9	746.3	61.2	7,139.3
광주	544	358.6	10.1	254.0	276.5	376.9	86.3	2,538.2
대전	549	357.0	10.4	247.5	273.9	405.1	74.5	2,152.4
울산	566	221.9	5.9	157.0	175.5	246.9	33.0	1,231.8
경기	1,372	1,070.8	20.5	591.4	828.8	1,328.5	54.9	5,890.3
강원	626	468.5	10.5	298.9	416.9	590.5	45.1	2,542.2
충북	620	438.4	11.9	256.4	357.8	556.7	60.2	3,593.3
충남	764	532.2	13.3	306.0	439.3	647.4	49.8	3,899.8
전북	719	529.2	13.3	314.4	422.5	645.4	108.8	4,334.6
전남	892	512.7	10.8	339.8	426.4	632.2	44.6	3,052.4
경북	873	649.7	13.7	421.1	511.1	782.0	69.0	3,955.9
경남	773	508.6	12.0	306.7	422.4	616.4	80.1	3,780.0
제주	624	150.9	4.0	93.6	120.1	177.9	34.7	1,151.4

〈표 1-3-19〉 2011년 노인조사 횡단면 가구 가중값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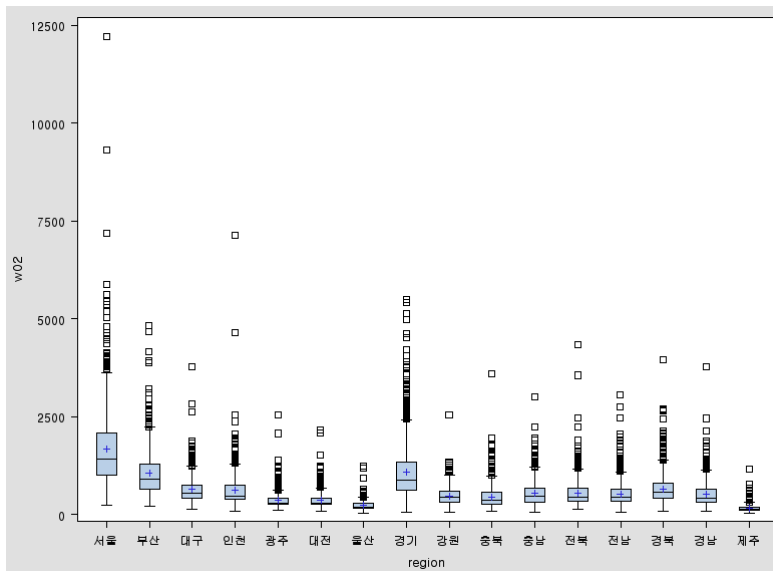
(단위: 가구)

지역	조사완료 가구수	평균	표준오차	Q1	중앙값	Q3	최소값	최대값
전국	9,866	668.9	6.3	291.7	485.6	820.5	33.0	12,204.4
서울	735	1,670.0	38.5	1,003.9	1,413.0	2,070.1	237.7	12,204.4
부산	554	1,056.7	26.4	648.4	891.0	1,284.8	203.4	4,824.6
대구	504	640.2	16.1	413.5	538.6	744.2	131.4	3,773.4
인천	464	626.2	24.1	385.9	476.2	748.8	78.3	7,139.3
광주	466	365.0	10.8	254.0	284.8	405.3	105.5	2,538.2
대전	472	362.9	10.7	247.5	273.9	423.7	74.5	2,152.4
울산	484	228.4	5.8	157.0	183.8	273.0	33.0	1,231.8
경기	1,126	1,077.9	22.2	608.0	872.0	1,335.8	54.9	5,491.2
강원	497	469.7	11.1	308.1	433.0	589.9	61.6	2,542.2
충북	519	448.6	13.3	258.8	366.9	557.2	66.7	3,593.3
충남	627	536.7	13.9	311.8	459.7	667.8	49.8	3,019.7
전북	617	550.6	14.8	332.2	443.3	670.4	131.4	4,334.6
전남	734	519.5	12.0	339.8	436.6	639.3	44.6	3,052.4
경북	805	654.6	13.4	421.1	569.5	804.2	69.0	3,955.9
경남	729	514.6	12.3	308.3	423.9	639.4	80.1	3,780.0
제주	533	153.3	4.3	96.5	129.8	183.5	34.7	1,151.4

[그림 1-3-6] 2011년 개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그림 1-3-7] 2011년 가구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한편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가구에 대한 종단면 가중값은 〈표 1-3-20〉과 〈표 1-3-21〉과 같이 2011년 개인 종단면 가중값을 기반으로 가구내 노인대상자의 수에 따라 개인가중값을 평균하여 사용하고, 만일 2011년 신규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종단면 기저 가중값이 0이므로 가구의 종단면 가중값 또한 0으로 계산되었다.

〈표 1-3-20〉 2011년 노인조사 종단면 개인 가중값 통계

(단위: 명)

지역	조사완료 노인수	평균	표준오차	Q1	중앙값	Q3	최소값	최대값
전국	11,542	675.5	6.5	242.9	497.7	886.2	0	12,410.1
서울	886	1,659.8	36.8	993.5	1,430.8	2,068.4	0	12,410.1
부산	588	1,036.0	32.0	567.4	891.3	1,369.0	0	5,187.9
대구	585	634.8	25.6	0	580.6	837.4	0	4,724.7
인천	561	615.0	27.0	235.6	497.4	852.9	0	8,221.8
광주	544	358.6	17.3	0	293.5	520.9	0	3,282.8
대전	549	357.0	18.8	0	257.1	574.9	0	3,185.3
울산	566	221.9	11.1	0	176.6	354.0	0	1,700.6
경기	1,372	1,070.8	23.4	496.5	881	1,411.1	0	6,256.6
강원	626	468.5	11.9	277.8	435.6	615.5	0	2,656.5
충북	620	438.4	12.5	244.8	366.9	561.2	0	3,711.8
충남	764	532.2	13.8	290.7	445.8	656.4	0	3,949.4
전북	719	529.2	14.0	304.2	429.7	658.8	0	4,396.6
전남	892	512.7	13.2	272.2	468.6	692.7	0	3,308.5
경북	873	649.7	17.8	328.2	562.7	876.7	0	4,576.6
경남	773	702.9	18.2	399.6	583.9	881.4	0	5,737.7
제주	624	150.9	4.6	88.6	127.8	189.9	0	1,224.7

〈표 1-3-21〉 2011년 노인조사 종단면 가구 가중값 통계

(단위: 가구)

지역	조사완료 가구수	평균	표준오차	Q1	중앙값	Q3	최소값	최대값
전국	9,866	679.7	6.9	274.8	507.4	866.5	0	12,410.1
서울	735	1,664.3	40.3	1,001.3	1,422.8	2,051.8	0	12,410.1
부산	554	1,057.4	30.1	588.7	898.8	1,352.3	0	5,187.9
대구	504	630.7	22.5	334.1	577	786.1	0	4,724.7
인천	464	617.0	29.9	269.6	483.9	815.1	0	8,221.8
광주	466	360.5	18.1	0	316.7	520.9	0	3,282.8
대전	472	358.2	18.8	0	285.4	561.9	0	3,185.3
울산	484	233.4	10.1	0	221.7	334.1	0	1,644.1
경기	1,126	1,068.7	25.0	524.7	857.1	1,366.3	0	5,832.7
강원	497	465.1	12.3	279.5	437.8	613.7	0	2,656.5
충북	519	447.7	14.0	254.6	369.2	561.9	0	3,711.8
충남	627	534.6	14.1	305.1	466.8	659.0	0	3,069.1
전북	617	549.2	15.4	317.7	443.8	675.4	0	4,396.6
전남	734	513.8	14.4	289.2	446.6	682.4	0	3,308.5
경북	805	652.4	16.3	379.6	562.7	800.3	0	4,576.6
경남	729	711.0	18.5	401.1	587.6	891.6	0	5,737.7
제주	533	151.8	4.6	92.0	128.4	183.7	0	1,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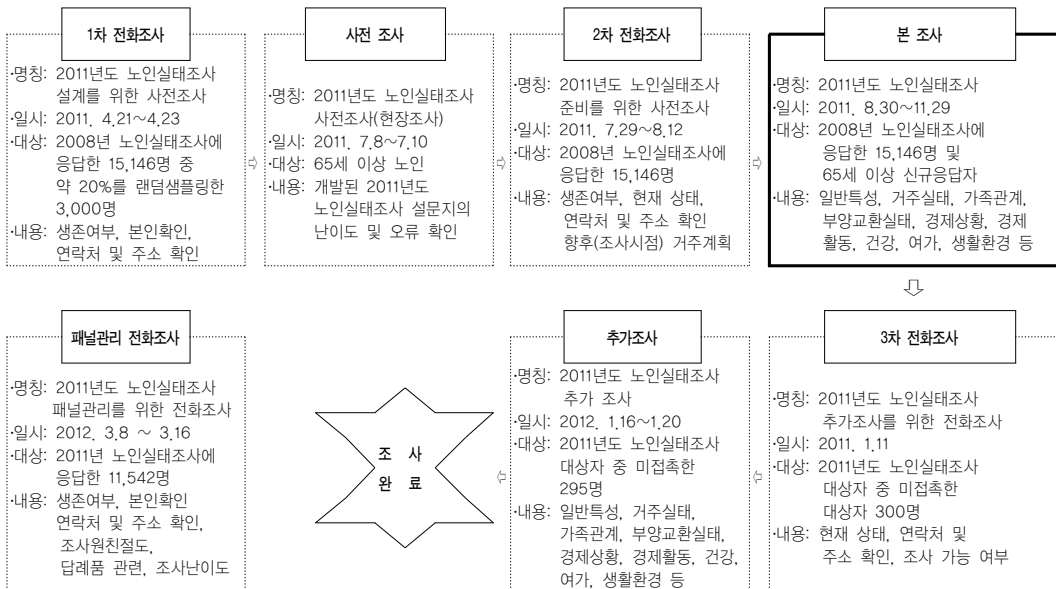
## 제3절 조사 결과

### 1. 개괄

앞서 기술된 조사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I-3-8]과 같으며,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표 I-3-22> 와 같다. 총 11,542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65세 이상은 10,674명으로 총 조사완료 노인의 95.3%이다. 시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1만명 이상의 65세 이상과 각 시도별 500명 이상의 조사가 완료되어 65세 이상에 대한 횡단 조사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횡단조사라는 관점에서는 조사완료율이 76.2%이다(표 I-3-17 참조). 총 조사소요시간은 평균 91.69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단면 조사로서의 1차년도 패널의 조사실태를 살펴보면 기준 1에 의하면 15,146명의 66%인 10,003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5.6%에 해당하는 902명이 사망하였고, 입원 및 장기요양입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탈한 노인이 236명으로 1.6%에 달하고 있다. 2010년 패널관리 기준으로는 14,061명의 71.1%인 10,003명이 조사되었다.

[그림 I-3-8]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진행도



〈표 1-3-22〉 2011년 노인조사 완료 현황

(단위: 명)

시도	총 조사 완료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
강원도	443	418
경기도	2,218	2,058
경남	593	543
경북	856	813
광주	295	281
대구	561	534
대전	296	285
부산	920	837
서울	2,220	1,939
울산	190	182
인천	521	495
전남	690	652
전북	574	533
제주	142	138
충남	614	594
충북	410	373
전국	11,542	10,674

〈표 1-3-23〉 2008년 노인실태 조사자의 2011년도 조사 현황

완료	전체		10,003(66.0)
	본조사시 조사완료		9,759명 (64.4)
	추가조사시 조사완료		244명 ( 1.6)
미완	체크리스트	전체	1,159명 ( 7.7)
		사망	902명( 5.6)
		입원	145명( 1.0)
		장기요양입소	91명( 0.6)
		무응답	21명( 0.1)
	조사미접촉(조사거부, 추적불가 등)		3,984명( 26.3)
총 대상자 수			15,146명(100.0)

〈표 1-3-24〉 노인실태조사의 패널 유지율

	기준 <sup>1)</sup>	기준 <sup>2)</sup>
1차 년도(2008년도)	15,146명	14,061명
2차 년도(2011년도)	10,003명	10,003명
패널 유지율	66.0%	71.1%

주: 1) 2008년 조사완료자수 기준

2) 2010년 패널관리시 연락처 또는 주소지가 확인된 대상자와 입원 및 장기요양중이었던 대상자 기준(사망자만 제외)

조사 미완자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표 I-3-25> 와 같다. 미완 이유를 살펴 보면, 조사거부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재중(16.7%), 장기출타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3-25> 조사미완자 미완이유 분석(인포시트 기초)

(단위: %, 명)

구분	계	(명)
늦은 귀가	10.6	(396)
장기출타	15.0	(561)
부재중(원인미파악)	16.7	(624)
일부문항미완	0.2	( 6)
조사거부	30.4	(1140)
이사(주소추적불가)	11.4	(429)
사망으로 인한 가구손실	0.1	( 5)
기타 추적불가사유	7.6	(285)
기타	8.0	(301)
전체 <sup>1)</sup>	100.0	(3,747)

주: 1) 인포시트 응답 대상자 3,766명 중 결측값 19명을 제외함.

본인응답 외에도 조사원이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집에 있기는 하지만 신체·정신적 이유로 본인응답이 어려운 경우 대리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중 대리응답 비율은 1.1%이다. 대리응답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대리응답을 받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9%가 정신심리상태의 불안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병상태 23.2%, 청각장애 12.1%, 노쇠 9.2%, 언어장애 3.6%, 기타 2.9% 순으로 나타났다(표 I-3-26 참조).

<표 I-3-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대리응답 이유 (대리응답자에 한함)

(단위: %, 명)

특성	외병상태	정신심리상 태의 불안정	청각장애	언어장애	노쇠	기타	계	(명) <sup>1)</sup>
전체	23.2	48.9	12.1	3.6	9.2	2.9	100.0	(125)

주: 1) 대리응답을 받은 125명만을 대상으로 함.

## 2. 사망, 장기요양시설입소, 입원자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조사시기 당시 사망, 장기요양시설입소, 입원 등의 이유로 접촉은 하였으나 본 설문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단한 몇 가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사망, 입원,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총 1,159명이며, 이 중 사망이 79.3%로 가장 많고, 입원 12.7%, 장기요양시설 입소 8.0%로 구성되어 있다(표 I-3-27 참조).

〈표 I-3-27〉 체크리스트 응답자의 사유 분포

(단위: %, 명)		
구분	계	(명)
사망	79.3	(902)
입원	12.7	(145)
장기요양시설 입소	8.0	( 91)
전체 <sup>1)</sup>	100.0	(1,138)

주: 1) 체크리스트 응답자 1,159 명 중 무응답 21명을 제외함

### 1) 사망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902명 중, 관련된 사항을 답해준 대상자는 배우자가 40.7%로 가장 많았고, 기타 36.1%, 자식 20.2% 순이었다. 사망자들의 사망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 30.6%, 2010년 32.2%, 2009년 32.0% 등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병사 55.7%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사 37.8%, 사고사 4.5%, 기타 1.0%, 자살 0.9% 순이다(표 I-3-28 참조).

〈표 I-3-28〉 사망한 대상자의 설문 응답자의 제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명)
설문 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sup>1)</sup>		
배우자	40.7	(362)
자식	20.2	(180)
손자아래	1.7	( 15)
부모	0.6	( 5)
형제자매	0.7	( 6)
기타	36.1	(321)
전체 <sup>1)</sup>	100.0	(888)
사망시기(년도)		
2008년 이전	5.1	( 46)
2009년	32.0	(284)
2010년	32.2	(286)
2011년	30.6	(272)
전체 <sup>2)</sup>	100.0	(888)
사망원인		
자연사	37.8	(329)
병사	55.7	(485)
사고사	4.5	( 39)
자살	0.9	( 8)
기타	1.0	( 9)
전체 <sup>3)</sup>	100.0	(889)

주: 1) 사망응답자 902명중 무응답 13명을 제외함.

2) 사망응답자 902명중 무응답 14명을 제외함.

3) 사망응답자 902명중 무응답 32명을 제외함.

## 2) 입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145명의 대리응답자를 살펴보면, 기타 44.8%, 배우자 29.7%, 자식 20.7% 순이었다. 입원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 66.7%, 2010년 23.9%, 2009년 7.2% 등으로 나타났다. 입원한 곳을 살펴보면, 병원 60.1%, 요양 병원 39.9%이다. 입원 이유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질환 12.6%, 기타 8.4%, 낙상 7.7%, 교통사고 5.6%, 기타사고 2.1%로 나타났다 (표 I-3-29 참조).

〈표 1-3-29〉 입원한 대상자 설문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및 입원노인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명)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29.7	(43)
자식	20.7	(30)
손자아래	2.8	( 4)
부모	0.0	( 0)
형제자매	2.1	( 3)
기타	44.8	(65)
전체	100.0	(145)
입원시기(년도)		
2008년 이전	2.1	( 3)
2009년	7.2	(10)
2010년	23.9	(33)
2011년	66.7	(92)
전체 <sup>1)</sup>	100.0	(138)
입원 장소		
요양병원	39.9	( 57)
병원	60.1	( 86)
전체 <sup>2)</sup>	100.0	(143)
입원이유		
만성질환	63.6	( 91)
일반질환	12.6	( 18)
낙상	7.7	( 11)
교통사고	5.6	( 8)
기타사고	2.1	( 3)
기타	8.4	(12)
전체 <sup>2)</sup>	100.0	(143)

주: 1) 입원한 145명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함. 2) 입원한 145명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함.

### 3) 장기요양시설 입소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된 91명 중, 관련된 사항을 답해준 대상자는 기타 51.1%, 자식 33.3%, 배우자 12.2%, 손자 및 증손자 3.3% 순이다.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응답자들의 입소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 31.8%, 2010년 26.1%, 2009년 39.8%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 32.7%, 2등급 36.7%, 3등급 22.4%, 등급외 8.2%로 나타났다. 입소시설의 위치는 기존(2008년 기준)과 같은 동일시도 70.0%, 다른 시도 30.0%이다(표 1-3-30 참조).

〈표 I-3-30〉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설문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및 입소관련 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명)
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12.2	(11)
자녀	33.3	(30)
손자 및 증손자	3.3	( 3)
기타	51.1	(46)
전체 <sup>1)</sup>	100.0	(90)
입소시기		
2008년 이전	2.3	( 2)
2009년	39.8	(35)
2010년	26.1	(23)
2011년	31.8	(28)
전체 <sup>2)</sup>	100.0	(88)
입소자의 등급		
1등급	32.7	(16)
2등급	36.7	(18)
3등급	22.4	(11)
등급외자	8.2	( 4)
전체 <sup>3)</sup>	100.0	(49)
입소시설 위치		
기존 거주지와 동일 시도	70.0	(49)
기존 거주지와 다른 시도	30.0	(21)
전체 <sup>4)</sup>	100.0	(70)

주: 1)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91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2)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91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함.

3)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91명 중 무응답 42명을 제외함

4)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91명 중 무응답 21명을 제외함

### 3. 사후관리 결과 총괄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가 이루어진 11,54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사후관리 결과를 정리하면 〈표 I-3-31〉과 같다. 11,542명 중 전화를 통하여 접촉이 가능했던 응답자는 89.7%인 10,315(사망 50명 포함)명이다. 또한 현장조사 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입원 및 장기요양시설입소자에 대하여 퇴원 및 퇴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 입원 및 입소 중인 사람이 61명, 퇴원 및 퇴소자가 53명이고, 이들 중 사망자가 19명이다. 124명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표 I-3-31〉 사후관리를 위한 전화조사결과 총괄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본조사)결과		2011년도 패널관리용 전화조사 결과		
설문완료	11,542명	전화연결 (10,351명)	생존	10,301명
			사망	50명
		전화연결 실패		1,191명
입원	145명	퇴원·퇴소		53명
장기요양 시설입소	91명	입원·입소		61명
무응답	21명	전화연결 실패		124명
사망	902명	사망		19명
		사망		902명

## 제4절 조사표 설계 및 주요 내용

### 1. 조사표 수정 보완의 기본방향

설문문항의 조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설문의 내용을 가능한 한 유지하되 응답자의 부담을 저하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설문 문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2008년도 이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책적 관심 및 노인의 삶에서 갖는 중요성과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하는 항목의 설문 내용 구체화 및 조사 항목을 강화(거주형태의 변화 단독가구 증대, 여가, 자원봉사활동 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와 자문,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한 후 설문지가 확정되었다. 2011년도 설문지 구성을 2008년도 설문지 구성과 비교하면 〈표 I-3-32〉와 같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비교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표 1-3-32〉 2008년과 2011년 설문지 구성의 영역의 통합 및 순서 조정, 비중 조정

	2008년	2011년	비고
1. 가구 조사표	A. 가구원 일반사항	I. 가구 일반사항	유지
	B. 주거형태	II. 가구 경제상태	유지
	C. 소득		유지
	D. 가계지출		
	E. 자산과 부채		삭제
2. 노인 개인 조사표	A.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III. 노인개인특성 A. 가구형태 및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내용 축소</li> <li>· 활용도가 낮은 손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지원 삭제- 주요 관계 및 접촉실태 파악과 자원의 교환으로 분리하여 구성</li> </ul>
	B.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D.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E.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F.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G.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 축소
	M. 건강행태	E. 건강행태	- 수정 보완
	N. 의료서비스 이용	-	- 단, 운동실태 파악 단순화 및 포괄성 증대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F.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 삭제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 유지
	H. 소득	I. 경제상태	- 응답자 부담이 적은 척도로 변경
	I. 생활비와 용돈		- 응답자 부담 저하를 위하여 소득 항목을 중범위로 통합
	J. 자산과 부채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 대부분 유지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 단, 최근 시작한 일 관련 항목 삭제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서비스	- 수정보완
	T.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 여가활동 구체화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 정책변화 반영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 수정보완
			- 치매선별검사 유지
			- 기억력 항목 삭제

## 2. 사전조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초기 설문지 작성 후,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 앞서,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11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는 65세 이상자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난이도, 문항 및 보기의 표현이나 수정되어야 할 점, 설문에 걸리는 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사전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26명이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60.0%)과 경기 지역(36.0%)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기타지역(강원도 4.0%)에서도 조사되었다. 사전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9.9세이며 남자 56.0%, 여자 44.0%로 남녀비율은 비슷했다. 학력은 고르게 분포한 편이나 전문대졸 이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조사에 걸린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40분까지 나타났으며, 조사에 걸린 평균시간은 105.4분으로 나타났다(표 I-3-33 참조).

〈표 I-3-33〉 사전조사대상자 기본사항

(단위: %, 명)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지역	
남자	56.0	서울	60.0
여자	44.0	경기	36.0
		기타	4.0
학력		연령	
무학	20.0	60대	44.0
초졸	20.0	70대	48.0
중졸	12.0	80대	4.0
고졸	16.0	평균연령(세)	69.9
전문대졸 이상	28.0		
평균소요시간(분)	105.4		
계	26명(100.0)	계	26명(100.0)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의견에 따라, 문항수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둘째, 질문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문항을 쉽게 수정하였다. 셋째, 문항 응답에 따른 질문흐름도 오류를 수정하였다. 넷째, 질문의 구체적 정의가 필요한 부분에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추가되어야 하는 보기들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가계 지출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있어 파악이 어려우며, 응답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일곱째, 전체 질문의 흐름이 어색하다는 의견에 따라, 답하기를 꺼려하는 인지기능 확인 부분을 설문지 뒤로 위치를 수정하였다. 여덟째, 사망, 장기요양, 장기병원입원자들에 대한 설문지(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아홉째, 기타 각 영역별·문항별로 세부적인 수정사항(표현, 맞춤법, 오류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 3. 최종 설문지의 구성

최종 확정된 설문지의 구성은 〈표 I-3-34〉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가구의 일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원의 일반사항과 가구형태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가구의 경제상태로 소비지출액 및 소득, 주택 상황을 통하여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기본적인 경제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는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자녀를 비롯한 비공식 관계의 현황과 부양의 교환 실태, 건강 상태 및 건강행태, 기능상태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소득, 자산, 부채 등의 경제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가치관 및 삶의 질, 생활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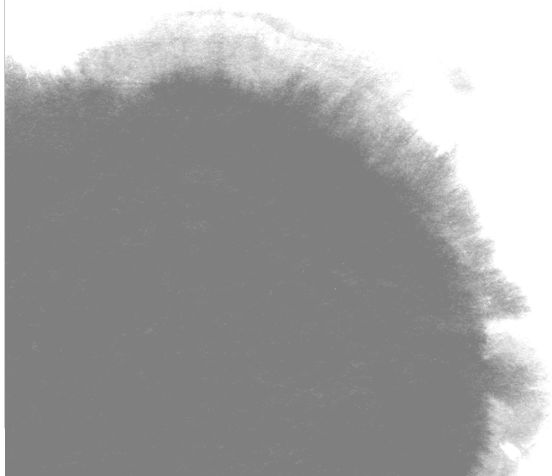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표 1-3-34〉 2011년 노인실태조사 설문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부문	영역	내용
가구 일반사항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수 조사완료 노인수(2008, 2011) 노인가구 형태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생년, 생월, 만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교육수준, 교육연수) 취업여부 노인과의 관계 노인조사 대상자 확인사항 조사원 확인 사항
가구 경제상태	II. 가구 경제상태	월평균 소비지출액 부담되는 생활비 연 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소득 주거임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시가
노인 개인 특성	A.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생존자녀 유무 및 명수 친외손자녀 유무 및 명수 자주 만나는 자녀와의 관계 및 소요시간 따로 사는 자녀중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자녀·비동거 자녀 전체·비동거 손자손녀 전체 별 연락 및 접촉 빈도 배우자의 건강 및 동반외출 빈도 독거 기간 및 이유 동거 이유 향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 및 연령, 건강상태, 연락 및 접촉빈도 생존 형제자매 유무 및 명수 친인척 친구 이웃 명수 및 접촉·연락빈도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동거자녀·비동거자녀·부모·배우자 별 정서적·도구적·간병·수발·병원 도움 주고받음 정도 동거자녀·비동거자녀·부모별 경제적 도움 주고받음 여부
	D. 건강상태	주관적·상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유무 및 의사진단여부, 총 수 복용하는 의사처방 약 수 의료기관 방문 횟수 월평균 보건의료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 이용경험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장소 낙상관련(치료, 장소, 이유, 후유증, 두려움) 우울

부문	영역	내용
	E. 건강행태	흡연 여부 및 정도 음주 여부 및 정도 영양관리상태 운동(운동여부, 횟수, 정도, 종류, 장소) 수면 시간 건강검진(여부, 받지 않는 이유)
	F. 신체기능	시력·청력·췌기 별 보조기 사용여부, 상태 몸무게와 키 근력 동작별 어려움
	G.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ADL/IADL 관별문항 17개 간병수발(여부, 도움주는 자, 정도)
	H. 경제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생활비와 용돈 부담자 각 소득별 본인 및 배우자 소득유무 및 액수 자산 및 부채별 본인 및 배우자 유무 및 액수 부채 이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I.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 여부 현재직업 직업종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종사기간, 종사이유, 그만둔 이유, 일자리 만족도, 일지속의향 최장기 종사직업 직업종류, 종사상 지위, 종사기간, 일을 그만둔 이유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향후 근로 희망 여부 및 이유 하고싶은 일의 종류 희망하는 근로시간 및 소득 일자리 우선 조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
	J. 여가 및 사회활동	TV 시청유무 및 정도 여행 유무 및 빈도, 여행시 가장 중요한 기준, 방법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정도 핸드폰 유무 및 종류 현재 및 향후 평생교육관련(종류, 빈도, 기관, 영역,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체활동·친목단체·정치사회단체 별 참여여부, 빈도, 경로, 향후 참여 의사 자원봉사활동(경험 유무, 빈도, 참여기간, 기관, 종류, 활동하는 이유, 만족도, 불만족 이유, 향후 의향, 향후 희망 종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지원) 여가문화활동(종류, 빈도, 장소, 대상자, 만족도) 희망하는 노후 여생 모습

부문	영역	내용
	K. 노인복지서비스	<p>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참여, 기간, 시간, 유형, 만족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 향후 의향 및 종류)</p> <p>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인지, 활용의사, 활용의사 없는 이유)</p> <p>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이용여부, 빈도, 이용이유, 만족도, 만족 이유, 만족하지 않는 이유, 이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이용희망여부)</p> <p>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지, 등급신청여부, 등급, 서비스 이용경험 및 종류, 만족도)</p> <p>정부사업인지도(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치매예방 및 인지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서비스)</p> <p>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이용여부, 이유, 의사)</p> <p>경로우대제도 별 이용경험, 만족도, 이용희망여부</p> <p>중요한 노인복지서비스</p> <p>현재 고민하는 사항</p> <p>현재 가장 필요한 노인용품</p> <p>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p>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p>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p> <p>노후생활비 마련방법</p> <p>노후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 및 대상자</p> <p>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한 것</p> <p>재산 처리 방식</p> <p>삶의 만족도(건강, 경제상태, 배우자, 자녀)</p> <p>성생활(만족도, 상담서비스 필요여부)</p> <p>학대경험 유무 및 가해자, 대처방법</p> <p>자살(생각여부, 이유, 실행 여부 및 횟수)</p> <p>장례방법</p> <p>종교 및 종교중요도</p>
	M. 생활환경	<p>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p> <p>안전사고 발생 여부</p> <p>범죄피해 경험 여부</p> <p>외출 교통수단</p> <p>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p> <p>운전 여부 및 어려움, 이유, 운전 그만둔 나이</p> <p>비영업 차 소유여부 및 시가</p> <p>교통사고 경험</p>
	N. 인지기능	MMSE-KC 26문항
	조사원 확인사항	주택 종류, 주거위치, 주거환경의 편리도
	대리응답	이유

## 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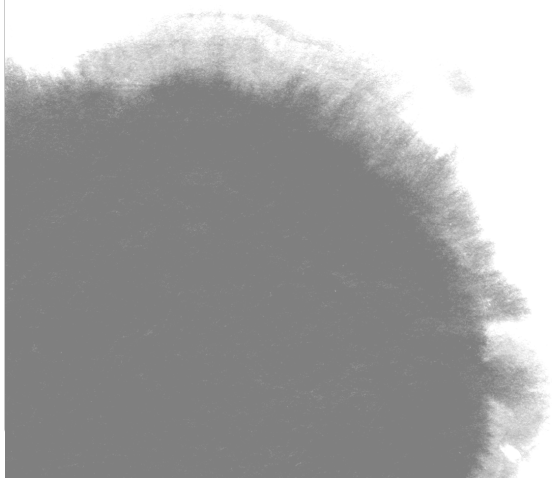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노인(65세 이상)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01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실태





## 제1장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실태

본 장에서는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거주 지역,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가구크기와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특성으로 교육수준, 현 취업상태, 연가구소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기능제한상태도 개괄하고자 한다. 배우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또한 함께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주거 및 거주실태를 통하여 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기본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욕구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1절 노인의 일반특성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65세 이상자는 총 10,674명이며, 이들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의 경우 동부 68.0%, 읍·면부 32.0%로 나타나, 노인의 약 2/3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19.3%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 18.2%, 부산 7.8%, 대구 5.0%, 인천 4.6%, 광주 2.6%, 대전 2.7%, 울산 1.7%, 경기 19.3%, 강원 3.9%, 충북 3.5%, 충남 5.6%, 전북 5.0%, 전남 6.1%, 경북 7.6%, 경남 5.1%, 제주 1.3%이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 43.1%, 여자 56.9%로 여자가 조금 더 많은데 이는 남자

에 비하여 여자의 평균수명이 긴데 기인하는 것이다. 연령분포는 65~69세가 29.8%, 70~74세 30.4%, 75~79세 22.6%, 80~84세 11.1%, 85세 이상 6.2%로 좀 더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80대 이상의 비율이 17.3%에 달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60대의 노인도 약 30%에 달하고 있어 노인 내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날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한편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7.4%,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32.6%이다.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19.6%, 노인부부가구 48.5%, 자녀동거가구 27.3%, 기타가구 4.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노인독거와 노인부부가 전체의 68.1%를 차지해, 홀로 혹은 부부끼리만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원수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면 1명(독거)의 경우 19.6%이며, 2명 53.1%, 3명 13.0%, 4명 이상이 14.3%이다. 한편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 본인 61.3%, 가구주의 배우자 26.6%로 나타나 노인의 87.9%가 가구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이 전체의 31.6%로 이중 10.9%는 무학(글자모름)이며, 나머지 20.7%는 무학(글자해독 가능)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은 35.4%, 중·고등학교 졸업 25.9%, 전문대학 이상은 6.9%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현재 취업중이라는 응답은 33.4%로 전체의 2/3가 미취업인 상태이다. 연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제1오분위가 약 763만원 이하, 제2오분위 764만원~1,193만원, 제3오분위 1,194~1,849만원, 제4오분위 1,850~3,170만원, 제5오분위 3,171만원 이상이다. 제1오분위 기준으로 월소득을 살펴보면 한달에 약 63.6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제2오분위는 64만원 이상 99만원 이하로, 전체의 40%의 가구소득이 월 1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제한없음이 85.1%, 제한있음이 14.9%로 나타나 전체의 약 15%가 기능제한(ADL과 IADL 중 1개라도 남의 도움을 받음)이 있다(표 II-1-1 참조)

〈표 II-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2011년		2008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sup>1)</sup>	100.0	( 10,674)	100.0	( 10,798)
지역				
동부	68.0	( 7,257)	65.7	( 7,094)
읍·면부	32.0	( 3,418)	34.3	( 3,704)
시도				
서울	18.2	( 1,939)	17.6	( 1,896)
부산	7.8	( 837)	7.2	( 775)
대구	5.0	( 534)	4.6	( 495)
인천	4.6	( 495)	4.3	( 460)
광주	2.6	( 281)	2.3	( 252)
대전	2.7	( 285)	2.4	( 254)
울산	1.7	( 182)	1.4	( 149)
경기	19.3	( 2,058)	18.1	( 1,959)
강원	3.9	( 418)	4.1	( 447)
충북	3.5	( 373)	3.8	( 410)
충남	5.6	( 594)	5.8	( 626)
전북	5.0	( 533)	5.4	( 580)
전남	6.1	( 652)	6.7	( 721)
경북	7.6	( 813)	7.9	( 857)
경남	5.1	( 543)	7.2	( 781)
제주	1.3	( 138)	1.3	( 137)
성				
남자	43.1	( 4,605)	40.2	( 4,341)
여자	56.9	( 6,069)	59.8	( 6,457)
연령				
65~69세	29.8	( 3,180)	38.0	( 4,103)
70~74세	30.4	( 3,240)	28.4	( 3,067)
75~79세	22.6	( 2,414)	17.6	( 1,900)
80~84세	11.1	( 1,183)	9.7	( 1,047)
85세 이상	6.2	( 658)	6.3	( 680)
(평균)	73.7	( 10,674)	72.9	( 10,7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7.4	( 7,199)	64.5	( 6,965)
배우자 없음	32.6	( 3,475)	35.5	( 3,8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9.6	( 2,094)	19.7	( 2,127)
노인부부	48.5	( 5,172)	47.1	( 5,086)
자녀동거	27.3	( 2,916)	27.6	( 2,980)
기타	4.6	( 492)	5.6	( 605)

특성	2011년		2008년	
	비율	명	비율	명
<b>가구원수</b>				
1명	19.6	( 2,094)	19.7	( 2,130)
2명	53.1	( 5,672)	51.7	( 5,583)
3명	13.0	( 1,383)	13.1	( 1,416)
4명	5.3	( 564)	5.7	( 621)
5명	4.9	( 521)	4.9	( 527)
6명 이상	4.1	( 440)	4.8	( 521)
<b>(평균)</b>				
<b>가구주와의 관계</b>				
가구주 본인	61.3	( 6,539)	60.7	( 6,553)
가구주의 배우자	26.6	( 2,835)	26.7	( 2,879)
가구주의 자녀	0.0	( 5)	0.1	( 10)
가구주 부모	11.9	( 1,275)	12.3	( 1,327)
가구주의 조부모	0.1	( 14)	0.1	( 12)
가구주의 형제자매	0.0	( 3)	0.2	( 17)
기타	0.0	( 3)	0.1	( 1) <sup>4)</sup>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10.9	( 1,169)	15.3	( 1,652)
무학(글자해독)	20.7	( 2,213)	17.8	( 1,922)
초등학교	35.4	( 3,782)	38.0	( 4,103)
중·고등학교	25.9	( 2,770)	22.3	( 2,408)
전문대학 이상	6.9	( 741)	6.6	( 713)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33.4	( 3,569)	30.0	( 3,239)
미취업	66.6	( 7,105)	70.0	( 7,559)
<b>연가구소득<sup>2)</sup></b>				
제1오분위	20.0	( 2,135)	19.9	( 3,013)
제2오분위	20.0	( 2,138)	20.1	( 3,042)
제3오분위	20.0	( 2,132)	20.0	( 3,033)
제4오분위	20.0	( 2,135)	20.0	( 3,029)
제5오분위	20.0	( 2,134)	20.0	( 3,029)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85.1	( 9,081)	71.6	( 7,731)
제한 있음 <sup>3)</sup>	14.9	( 1,593)	28.4	( 3,067)

주: 1) 2011년도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도는 10,798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 분위는 제1오분위 0만원~763만원 미만, 제2오분위 764만원~1,193만원 미만, 제3오분위 1,194만원~1,849만원 미만, 제4오분위 1,850만원~3,170만원 미만, 제5오분위 3,171만원 이상이며, 2008년도는 제1오분위 0만원~514.4만원 미만, 제2오분위 514.4만원~928.0만원 미만, 제3오분위 928만원~1,564.7만원 미만, 제4오분위 1,564.7만원~2,875.8만원 미만, 제5오분위 2,875.8만원 이상임.

3) ADL 7개 항목과 IADL 10개 항목중 한 개 이상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기능제한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ADL과 IADL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장에 제시되어 있음.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역별 일반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II-1-2 참조). 동부와 읍·면부 모두 공통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 반면 연령분포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어, 동부의 경우 65~69세 31.8%, 70~74세 30.0%로 65~74세의 분포가 높은 반면, 읍·면부는 70~74세 31.1%, 65~69세 25.6%, 75~79세 25.0%로, 동부보다 연령층이 약간 더 높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 모두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약 67%대이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동부는 노인부부가구 45.3%, 자녀동거 32.1%인 반면, 읍·면부는 노인부부가구 55.2%, 노인독거가구 23.9%로 나타나, 읍·면부가 동부보다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무학이 26.6%, 초등학교 졸업 33.5%, 중·고등학교 졸업 30.5%, 전문대 이상이 9.5%인 반면, 읍·면부는 무학 42.5%, 초등학교 39.6%, 중·고등학교 졸업 16.3%, 전문대 이상이 6.6%로 나타나, 동부가 읍·면부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비중이 높다. 현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동부의 취업률은 23.2%, 읍·면부는 55.2%로 읍·면부가 더 높다. 이는 읍·면부에 퇴직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차산업에 종사할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연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동부가 읍·면부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부의 경우 제5오분위가 24.2%로 가장 많은 반면, 읍·면부는 제1오분위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의 경우 제5오분위에 가까울수록 비율이 높고, 읍·면부는 제1오분위에 가까울수록 비율이 높다.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 모두 제한없음이 약 85%대로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성별 일반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 거주율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연령층 역시 비슷한 비율이나 여자노인의 80세 이상 비율이 19.8%로 남자노인의 13.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크다. 즉, 남자노인의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90.6%로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인 반면, 여자노인의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49.9%에 불과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남자노인과 여자노인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남자노인은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64.6%이고 독거비율은 6.6%인 반면, 여자노인은 노인부부가구비율 36.2%, 노인독거가구 비율 29.5%로 독거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53.9%인 반면 여자는 17.0%로 나타나 남자노인의 경우 여자노인보다 고학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명)

특성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지역 <sup>1)</sup>				
동부	-	-	68.7	67.4
읍·면부	-	-	31.3	32.6
성				
남자	43.6	42.1	-	-
여자	56.4	57.9	-	-
연령				
65~69세	31.8	25.6	33.0	27.3
70~74세	30.0	31.1	31.2	29.7
75~79세	21.5	25.0	21.9	23.2
80~84세	10.7	11.8	9.1	12.6
85세 이상	6.0	6.5	4.8	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7.5	67.3	90.6	49.9
배우자 없음	32.5	32.7	9.4	50.1
가구형태				
노인독거	17.6	23.9	6.5	29.5
노인부부	45.3	55.2	64.5	36.2
자녀동거	32.1	17.1	23.9	29.9
기타	5.0	3.8	5.0	4.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0	17.2	2.4	17.4
무학(글자해독)	18.6	25.3	10.1	28.8
초등학교	33.5	39.6	33.7	36.8
중·고등학교	30.5	16.3	41.2	14.4
전문대학 이상	9.5	1.6	12.7	2.6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2	55.2	42.3	26.7
미취업	76.8	44.8	57.7	7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6	25.1	11.8	26.2
제2오분위	18.1	24.1	20.1	20.0
제3오분위	18.7	22.7	23.3	17.4
제4오분위	21.4	17.1	22.5	18.1
제5오분위	24.2	11.1	22.2	1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85.2	84.8	88.6	82.4
제한 있음	14.8	15.2	11.4	17.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7,257)	(3,417)	(4,605)	(6,06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취업률은 42.3%, 여자노인의 취업률은 26.7%로 남자노인에게서 훨씬 더 높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남자노인의 제1오분위 비율은 11.8%, 제5오분위 비율은 22.2%인 반면, 여자노인은 제1오분위 비율이 26.2%, 제5오분위 비율이 18.3%로 여자노인의 저소득 비율이 높은 등 노년기 경제상황에서의 남녀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제한이 없다는 비율이 남자노인 88.6%, 여자 노인 82.4%이다.

한편 노인의 연령별 일반특성 분포를 살펴본 〈표 II-1-3〉에 의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동부 거주율이 읍·면부 거주율보다 높기는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읍·면부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읍·면부 거주율 27.5%, 85세 이상 33.7%). 연령별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65~69세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81.1%인 반면 85세 이상은 31.9%에 불과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으며(65~69세 54.5%, 85세 이상 22.1%),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10.5%, 80~84세 34.5%, 85세 이상 28.5%). 자녀동거율은 연령군과 U형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특히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자녀동거율이 45.4%로 급등한다. 즉, 60대에는 노인부부가구 위주였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인독거가구 혹은 자녀동거가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반비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69세 군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44.7%인 반면 85세 이상군에서는 13.7%에 불과하다. 또한 취업률을 살펴보면, 65~69세의 취업율은 45.2%인 것에 비하여 85세 이상에서는 7.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연가구소득분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 제5오분위의 비율이 25.9%로 높고 제1오분위의 비율이 10.7%로 제일 낮은 반면, 85세 이상은 제1오분위 비율이 32.6%, 제5오분위 비율이 25.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1오분위에 가까운 비율이 증가하고 제5오분위에 가까운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 제한없음 비율이 92.7%로 대부분인데 반해, 85세 이상은 제한없음이 52.7%에 불과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상태 제한비율

이 높아지는 등 80대에서 기능저하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 모두 동부 거주율이 약 68.0%이다. 결혼상태별 성분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58.0%, 여자가 42.0%로 균형적인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남자 12.4%, 여자 87.6%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대부분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65~69세 비율이 35.8%, 85세 비율이 2.9%인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65~69세 17.3%, 85세 이상 12.9%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연령이 더 높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비율이 71.8%로 가장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노인독거가구비율이 60.0%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무학이 19.9%인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55.9%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대부분이 여자이며, 여자의 학력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취업률은 39.1%,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취업률은 21.7%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취업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제1오분위 9.8%, 제5오분위 21.2%인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제1오분위가 41.2%, 제5오분위 17.4%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가구소득이 낮다.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기능제한없음 비율은 88.3%,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기능제한없음 비율은 78.4%로 약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1-3〉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명)

특성	연령					결혼상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지역							
동부	72.5	67.2	64.5	65.9	66.3	68.0	67.9
읍·면부	27.5	32.8	35.5	34.1	33.7	32.0	32.1
성							
남자	47.8	44.4	41.7	35.2	33.7	58.0	12.4
여자	52.2	55.6	58.3	64.8	66.3	42.0	87.6
연령							
65~69세	-	-	-	-	-	35.8	17.3
70~74세	-	-	-	-	-	32.9	25.1
75~79세	-	-	-	-	-	21.2	25.6
80~84세	-	-	-	-	-	7.2	19.1
85세 이상	-	-	-	-	-	2.9	12.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1.1	73.1	63.1	43.9	31.9	-	-
배우자 없음	18.9	26.9	36.9	56.1	68.1	-	-
가구형태							
노인독거	10.5	17.5	24.8	34.5	28.5	0.1	60.0
노인부부	54.5	53.3	48.6	33.1	22.1	71.8	0.1
자녀동거	28.5	24.7	23.5	29.2	45.4	23.2	35.8
기타	6.5	4.5	3.1	3.2	4.1	4.8	4.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8.9	13.5	20.3	28.0	5.0	23.2
무학(글자해독)	13.0	19.5	24.2	28.0	38.3	14.9	32.7
초등학교	38.2	37.7	35.8	29.9	20.1	38.6	28.9
중·고등학교	36.5	27.7	19.4	14.9	9.9	32.3	12.7
전문대학 이상	8.2	6.2	7.1	6.9	3.8	9.1	2.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2	38.4	26.5	17.1	7.0	39.1	21.7
미취업	54.8	61.6	73.5	82.9	93.0	60.9	78.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7	17.1	25.4	34.9	32.6	9.8	41.2
제2오분위	16.4	22.6	24.3	18.1	13.2	22.0	16.0
제3오분위	20.8	23.3	18.5	14.9	13.7	24.3	11.1
제4오분위	26.1	19.5	15.5	16.7	15.3	22.8	14.3
제5오분위	25.9	17.5	16.3	15.5	25.2	21.2	17.4
기능상태							
제한 없음	92.7	89.6	83.6	73.1	52.7	88.3	78.4
제한 있음	7.3	10.4	16.4	26.9	47.3	11.7	2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179)	(3,240)	(2,414)	(1,183)	( 658)	(7,199)	(3,475)

주: 1) 전제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가구형태별 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본 〈표 II-1-4〉에 의하면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동부의 거주율이 높기는 하지만,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동부 거주율이 79.9%로 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여자가 85.6%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이 여자임을 알 수 있으며, 자녀동거 가구에서도 여자의 비율이 62.3%로 약간 더 높다.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약 5:5에 가깝다. 가구형태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65~69세의 비율이 15.9%로 타 유형보다 낮게 나타났다(노인부부가구 33.5%, 자녀동거가구 31.1%, 기타가구 42.2%). 노인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85세 이상 비율은 8.9%, 10.2%로 노인부부가구의 2.8%, 기타가구의 5.5%보다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노인독거가구는 무학의 비율이 55.9%로 절반이 넘는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20.1%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부부가구의 교육수준이 타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25.6%, 노인부부가구 41.1%, 자녀동거가구 25.6%, 기타 32.4%이다. 가구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제1오분위 소득이 63.2%, 제5오분위가 0.7%로 타 유형에 비해 제1오분위의 비율이 높고 제5오분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제1오분위는 3.6%, 제5오분위 50.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기능상태의 제한있는 비율은 노인독거가구 17.0%, 노인부부가구 11.1%, 자녀동거가구 20.2%, 기타가구 15.7%이다.

〈표 11-1-4〉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 · 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명)

특성	가구형태				교육수준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무학 (해독못함)	무학 (글씨해독)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전문대 이상
지역									
동부	61.0	63.5	79.9	73.5	49.8	61.0	64.2	79.9	92.7
읍·면부	39.0	36.5	20.1	26.5	50.2	39.0	35.8	20.1	7.3
성									
남자	14.4	57.5	37.7	47.2	9.3	20.9	41.0	68.4	79.1
여자	85.6	42.5	62.3	52.8	90.7	79.1	59.0	31.6	20.9
연령									
65~69세	15.9	33.5	31.1	42.0	11.2	18.7	32.1	41.9	35.2
70~74세	27.1	33.4	27.4	29.7	24.6	28.6	32.2	32.4	27.3
75~79세	28.5	22.7	19.5	15.1	27.9	26.4	22.8	16.9	23.2
80~84세	19.5	7.6	11.8	7.7	20.5	15.0	9.4	6.4	10.9
85세 이상	8.9	2.8	10.2	5.5	15.7	11.4	3.5	2.3	3.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4	100.0	57.3	70.9	30.9	48.6	73.5	84.0	88.4
배우자 없음	99.6	0.0	42.7	29.1	69.1	51.4	26.5	16.0	11.6
가구형태									
노인독거	-	-	-	-	41.7	30.9	15.5	10.4	7.0
노인부부	-	-	-	-	21.3	35.7	54.5	56.8	67.5
자녀동거	-	-	-	-	32.3	29.6	25.5	27.4	21.6
기타	-	-	-	-	4.7	3.8	4.6	5.4	3.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3.3	4.8	12.9	11.2	-	-	-	-	-
무학(글자해독)	32.6	15.3	22.5	17.3	-	-	-	-	-
초등학교	27.9	39.9	33.1	35.2	-	-	-	-	-
중·고등학교	13.8	30.4	26.1	30.3	-	-	-	-	-
전문대학 이상	2.5	9.7	5.5	5.9	-	-	-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6	41.1	25.6	32.4	28.1	31.6	37.9	34.3	21.2
미취업	74.4	58.9	74.4	67.6	71.9	68.4	62.1	65.7	78.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3.2	12.8	3.6	8.1	41.9	30.5	16.8	10.5	5.9
제2오분위	21.0	27.4	6.0	22.0	19.6	22.9	23.7	16.6	6.5
제3오분위	9.7	28.2	11.2	29.5	12.0	17.0	23.9	21.6	15.5
제4오분위	5.4	20.9	28.5	22.0	14.1	15.6	19.0	25.8	25.8
제5오분위	0.7	10.7	50.7	18.3	12.4	14.0	16.7	25.5	46.2
기능상태									
제한 없음	83.0	88.9	79.8	84.3	67.9	81.0	86.7	91.0	94.2
제한 있음	17.0	11.1	20.2	15.7	32.1	19.0	13.3	9.0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94)	(5,177)	(2,913)	( 490)	(1,168)	(2,213)	(3,782)	(2,770)	( 74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교육수준별 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해독못함)의 경우 읍·면부 거주율이 50.2%로 동부와 비슷하나, 학력이 높은 노인층에서 동부 거주율이 높아, 무학(해독 못함)의 경우 49.8%인데 비하여 전문대 이상의 경우 92.7%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 성구성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 이상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 등, 학력이 높을수록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연령분포를 비교해보면, 무학(해독 못함)의 경우 65~69세 비율이 11.2%인 반면 전문대 이상에서는 65~69세 비율이 35.2%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65~69세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들의 결혼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별 가구형태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무학의 경우 30~40%대인데 비하여 전문대이상의 경우는 노인독거가구비율은 7.0%에 불과해, 학력이 높은 경우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높고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다수가 여자노인이고 이들의 독거비율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학력과  $\cap$ 형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고, 연가구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제1오분위 비율이 41.9%, 제5오분위 비율이 12.4%인 반면, 전문대 이상의 경우 제1오분위 5.9%, 제5오분위 46.2%로 나타나, 고학력 집단일수록 제5오분위에 가까운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제한이 있는 비율은 무학(해독못함)의 경우 32.1%, 전문대 이상은 5.8%로 고학력층에서 기능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표 II-1-5>에 의하면 건강하면 31.3%, 그저 그렇다 19.3%, 건강하지 않다 40.7%이다. 이는 노인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약간 높은 편인데, 이는 배우자의 연령구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건강하지 않은데 배우자도 건강하지 않은 경우 높은 관심이 요구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노인과 전혀 건강하지 않고 응답한 노인의 배우자의 경우 약 60% 정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1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	건강한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 (명)
전체 <sup>1)</sup>	1.7	31.3	19.3	40.7	7.0	100.0 (7,133)
지역						
동부	2.2	32.6	20.0	37.8	7.5	100.0 (4,840)
읍·면부	0.7	28.6	17.9	46.8	5.9	100.0 (2,292)
성						
남자	1.4	30.4	19.5	43.0	5.7	100.0 (4,122)
여자	2.2	32.5	19.1	37.5	8.8	100.0 (3,009)
연령						
65~69세	1.8	38.4	19.9	34.8	5.1	100.0 (2,554)
70~74세	2.3	31.5	19.7	40.0	6.5	100.0 (2,365)
75~79세	0.7	24.5	19.5	46.7	8.6	100.0 (1,501)
80~84세	2.1	20.7	16.4	50.5	10.3	100.0 ( 513)
85세 이상	0.5	17.5	13.0	52.5	16.5	100.0 ( 200)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1.1	16.7	11.1	61.1	100.0 ( 18)
노인부부	1.7	30.9	19.7	41.2	6.6	100.0 (5,118)
자녀동거	2.1	31.4	19.6	38.9	8.0	100.0 (1,651)
기타	1.2	38.0	12.4	43.2	5.2	100.0 ( 3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19.9	15.1	55.7	8.8	100.0 ( 690)
제2오분위	0.6	22.0	19.9	49.0	8.6	100.0 (1,578)
제3오분위	1.3	30.9	20.2	40.8	6.8	100.0 (1,727)
제4오분위	2.3	35.7	19.4	36.7	5.9	100.0 (1,630)
제5오분위	3.4	42.1	19.5	29.2	5.8	100.0 (1,50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11.6	49.1	10.7	20.1	8.5	100.0 ( 224)
건강한 편	2.3	46.5	16.9	30.3	4.1	100.0 (2,437)
그저 그렇다	1.2	24.1	30.1	39.5	5.1	100.0 (1,485)
건강하지 않은 편	0.7	21.2	16.6	52.7	8.8	100.0 (2,547)
전혀 건강하지 않음	1.1	21.0	16.4	43.2	18.3	100.0 ( 4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	32.7	19.4	39.5	6.6	100.0 (6,361)
제한 있음	1.2	19.8	18.9	50.2	10.0	100.0 ( 77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411명을 제외함. 무응답 없음.

이를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가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의 기능상태가 제한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가구형태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 제2절 주거실태

〈표 II-1-6〉을 통하여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실태를 살펴보면 자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세 8.3%, 전세 6.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의 자가율은 각각 71.4%, 80.2%로 읍·면부의 자가율이 조금 더 높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82.3%가 자가인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자가의 비율이 57.4%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49.6%로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의 80.9%, 80.8%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무학의 경우 60%대, 전문대학 이상은 83.8%), 연가구소득 역시 소득이 높은 경우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자가율 제1오분위 53.8%, 제5오분위 87.6%).

현재 집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로 아니라는 응답이 전체의 91.3%로 높았으나, 성별로는 남자가, 지역별로는 동부에서,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응답자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집 이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 실태

(단위: %, 명)

특성	주택 종류				현재 집 이외 소유여부		계 (명)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예	아니오	
전체 <sup>1)</sup>	74.2	6.7	8.4	10.7	8.7	91.3	100.0 (10,674)
지역							
동부	71.4	9.2	11.0	8.4	9.7	90.3	100.0 ( 7,256)
읍·면부	80.2	1.3	2.8	15.7	6.5	93.5	100.0 ( 3,418)
성							
남자	79.5	5.7	7.2	7.6	10.1	89.9	100.0 ( 4,604)
여자	70.2	7.4	9.2	13.1	7.6	92.4	100.0 ( 6,069)
연령							
65~69세	79.6	6.7	8.3	5.4	12.6	87.4	100.0 ( 3,180)
70~74세	76.6	6.7	7.6	9.0	9.2	90.8	100.0 ( 3,239)
75~79세	72.0	5.6	9.0	13.4	6.0	94.0	100.0 ( 2,413)
80~84세	64.5	8.5	9.0	18.0	4.1	95.9	100.0 ( 1,183)
85세 이상	61.9	7.5	8.8	21.8	5.5	94.5	100.0 ( 65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2.3	5.0	5.7	7.0	10.3	89.7	100.0 ( 7,199)
배우자 없음	57.4	10.3	13.8	18.5	5.4	94.6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49.6	10.0	15.2	25.1	4.7	95.3	100.0 ( 2,095)
노인부부	80.9	5.1	5.9	8.1	9.8	90.2	100.0 ( 5,172)
자녀동거	80.8	7.5	6.8	4.9	9.7	90.3	100.0 ( 2,916)
기타	68.9	4.5	14.8	11.8	7.9	92.1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4.6	5.6	9.7	20.2	2.7	97.3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69.6	8.3	8.7	13.4	5.0	95.0	100.0 ( 2,212)
초등학교	75.6	6.3	8.1	9.9	8.1	91.9	100.0 ( 3,782)
중·고등학교	77.5	6.7	8.6	7.3	11.5	88.5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83.8	5.9	5.5	4.7	21.9	78.1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80.9	4.9	5.3	8.9	9.1	90.9	100.0 ( 3,568)
미취업	70.9	7.6	9.9	11.6	8.5	91.5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8	10.0	13.8	22.4	3.1	96.9	100.0 ( 2,136)
제2오분위	70.9	5.4	11.6	12.2	6.3	93.7	100.0 ( 2,138)
제3오분위	76.4	5.7	8.4	9.5	6.3	93.7	100.0 ( 2,132)
제4오분위	82.3	4.7	6.0	7.0	10.3	89.7	100.0 ( 2,136)
제5오분위	87.6	7.8	2.0	2.6	17.4	82.6	100.0 ( 2,1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5.2	6.8	7.9	10.1	9.2	90.8	100.0 ( 9,082)
제한 있음	68.4	6.3	11.1	14.1	6.0	94.0	100.0 ( 1,593)
2008년도	77.7	7.8	6.1	8.4	-	-	100.0 (10,789)

주: 1) 전제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주택 소유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표 II-1-7>에 의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의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8.7%인 927명이다. 주거상태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소유 실태를 비교해보면 전세거주자의 경우 현재 전세로 생활을 하고있기는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주택이 있는 비율이 19.8%로 가장 높다. 또한 자가거주자의 8.0%는 거주 주택 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즉 자가거주자의 8.0%는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1-7> 주거상태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소유 실태

(단위: %, 명)

주거상태 거주이외의 주택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sup>1)</sup>
있다	8.0	19.8	3.1	10.6	8.7
없다	92.0	80.2	96.9	89.4	9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7,922)	( 716)	( 892)	( 1,145)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자가인 경우 집의 시가와, 기타 보증금과 월세 등을 살펴보면, 자가 및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는 평균 약 2억 1,308.5만원이며, 전세보증금은 8,911.6만원, 월세 보증금은 868.0만원, 월세는 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8 참조).

거주 또는 소유형태로 집을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 동부는 평균 약 2억 8,282.7만원인데 반해 읍·면부는 7,834.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2억 2,772.1만원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 7,014.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는 1억 2,260.8만원, 자녀동거가구 2억 6,884.2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의 시가가 높게 나타나,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자가 시가가 약 9,079.9만원인데 비하여 전문대학 이상자의 경우 5억 5,077.9만원이다. 연가구조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의 시가가 높게 나타나서, 제1오분위의 경우 9,979.7만원이지만, 제5오분위의 경우 4억 337.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의 시가(자산)

(단위: 만원)

특성	자가 시가 <sup>1)</sup>	전세보증금 <sup>2)</sup>	보증금		월세	
			월세 <sup>3)</sup>	기타 <sup>4)</sup>	월세 <sup>5)</sup>	기타 <sup>6)</sup>
전체	21,308.48	8911.6	868.0	23.1	2.5	0.0
지역						
동부	28,282.72	9268.4	932.7	24.3	4.7	0.0
읍·면부	7,834.36	3719.7	325.4	13.5	0.0	0.0
성						
남자	22,787.16	10904.8	795.1	18.3	0.4	0.0
여자	20,046.50	7736.9	911.3	25.9	3.5	0.0
연령						
65~69세	23,195.40	11644.1	929.6	42.9	0.0	0.0
70~74세	21,124.60	9032.6	996.9	16.6	0.0	0.0
75~79세	18,598.31	6924.8	689.4	13.4	0.0	0.0
80~84세	20,576.79	6179.1	623.6	12.9	14.0	0.1
85세 이상	23,482.28	7553.1	1158.3	16.5	0.0	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772.06	10730.5	996.5	33.0	0.3	0.0
배우자 없음	17,014.01	7066.7	757.5	14.6	4.3	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2,260.81	4309.6	546.5	12.7	3.7	0.0
노인부부	20,394.91	8410.5	893.0	37.9	0.3	0.0
자녀동거	26,884.18	14154.0	1166.0	18.6	5.7	0.0
기타	22,390.00	6323.9	1352.7	19.1	0.0	0.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079.88	4815.9	616.6	11.6	0.0	0.0
무학(글자해독)	13,242.97	4821.2	728.7	15.3	6.5	0.0
초등학교	16,953.66	9768.4	826.0	36.0	2.2	0.0
중·고등학교	27,145.90	11573.8	1038.4	19.2	0.6	0.1
전문대학 이상	55,077.89	16044.2	1527.5	18.1	0.0	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79.68	3684.5	470.0	32.0	4.1	0.0
제2오분위	11,749.72	4644.5	649.5	12.5	0.5	0.0
제3오분위	16,365.00	9206.7	1000.5	16.3	0.0	0.1
제4오분위	21,086.58	9397.6	1306.3	29.5	0.0	0.0
제5오분위	40,337.13	18195.4	3050.3	32.4	14.6	0.1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862.5	9615.3	880.4	25.3	2.1	0.0
제한 있음	17834.9	4668.1	817.7	14.1	4.1	0.0

주: 1)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자가주택에 살고 있거나 기타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고 응답한 8,211명 중 무응답 73명을 제외함.

2)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전세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716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3)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월세에 살고 있는 892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함.

4)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기타에 살고 있는 1,144명 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함.

5)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월세에 살고 있는 892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6)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기타에 살고 있는 1,144명 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함.

### 제3절 거주실태

노인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단독으로 생활한 기간이 평균 13년 정도이며 30년 이상 단독거주한 경우도 7.4%에 달하고 있다.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읍·면부에서 노인끼리 생활하고 있는 경우 단독가구 기간이 길어 평균 15년이다. 이는 자녀가 교육 및 취업·결혼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인노인의 경우 단독거주 기간이 약간 더 길어 13.7년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거주 기간이 길어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20.5년으로 약 65세경부터 단독가구 생활을 해왔음을 볼 수 있다.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약 1/4이 독거 생활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0년이 30.9%이다.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0~20년이라는 응답이 40.9%이며 30년 이상의 비율이 6.2%로 노인독거가구의 10.4%에 비하여 낮다. 이는 대체적으로 자녀가 결혼한 후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혼자 사는 과정을 거치는 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II-1-8 참조).

노인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결혼이 가장 많아 31.7%이다. 다음은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가 15.0%,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가 14.7%, 기존 거주지에 계속 생활하고 싶어서가 10.9%이다. 노인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이유를 자발적인 것과 상황에 의한 비자발적인 단독가구 형성으로 나누어보면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등의 자발적인 이유가 39.7%이며 자녀의 결혼,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등이 60.3%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단독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자발적인 단독가구 형성에서 자발적인 단독가구로 변해하고 있으나 아직 현세대 노인의 경우 비자발적인 환경적 요인과 자녀 쪽의 선호로 인해 할 수 없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도 더 많은 상황이다.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의 경우 자녀의 결혼때문이라는 응답이 35.2%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25.8%보다 높다. 자녀가 별거를 희망해서라는 응답 또한 10.0%로 읍·면부의 4.1%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라는 응답은 읍·면부가 20.7%로 동부의 11.2%보다 높다. 또한 기존 거주지에 거주하고 싶어서가 읍·면부 노인의 경우 19.0%로 동부의 6.1%보다 약 13%포인트 높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녀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노인은 본인이 청장년기를 보낸 거주지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의 단독가구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여자 노인에 비하여 높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8.6%로 여자노인의 4.3%보다 높다. 또한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2.4%로 여자노인의 4.2%보다 낮다. 이는 남자 노인에 비하여 여자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독립성이 없어서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령군별로는 자녀의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과 자녀가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은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나 기존 거주지에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후기노인에게서 높아지는 경향이 높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이 36.6%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19.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기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8.3%로 배우자가 있는 7.9%보다 높아 결혼상태에 따라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이유가 상이하다. 즉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의 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생활하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거형태를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별로 단독거주 이유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단독가구로 생활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기능상태의 제한여부에 따른 단독거주 이유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건강하므로, 개인(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서라는 자발적 이유의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반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노인의 기능상태가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II-1-9~표 II-1-12 참조).

〈표 II-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기간	계 (명)
전체 <sup>1)</sup>	19.1	17.1	38.0	18.4	7.4	13.23	100.0 (7,159)
지역							
동부	22.5	19.0	37.8	13.9	6.9	12.14	100.0 (4,480)
읍·면부	13.4	13.9	38.4	26.0	8.3	15.03	100.0 (2,678)
성							
남자	19.8	17.7	39.0	17.6	5.9	12.64	100.0 (3,220)
여자	18.6	16.5	37.2	19.0	8.7	13.71	100.0 (3,940)
연령							
65~69세	26.4	23.7	35.9	10.5	3.5	10.10	100.0 (2,042)
70~74세	18.6	17.6	43.6	15.6	4.6	12.36	100.0 (2,271)
75~79세	14.9	12.1	38.5	24.3	10.2	15.24	100.0 (1,750)
80~84세	14.5	11.9	33.0	28.5	12.1	16.47	100.0 ( 779)
85세 이상	10.4	10.7	21.4	31.4	26.1	20.46	100.0 ( 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6.2	16.7	30.9	15.8	10.4	13.00	100.0 (2,058)
노인부부	16.2	17.2	40.9	19.4	6.2	13.35	100.0 (5,10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1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II-1-10〉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경제적 능력	6.3	6.0	6.6	8.6	4.3
건강	7.0	7.5	6.1	6.8	7.1
개인(부부)생활 향유	15.0	16.1	13.1	14.5	15.4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0.9	6.1	19.0	7.3	13.9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0.5	0.7	0.3	0.3	0.7
자녀의 결혼	31.7	35.2	25.8	33.8	30.0
자녀의 별거 희망	7.8	10.0	4.1	7.5	8.0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14.7	11.2	20.7	17.1	12.8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3	3.8	2.6	2.4	4.2
자녀가 모두 딸이어서	0.6	0.7	0.5	0.4	0.8
자녀가 없어서	1.7	2.2	1.0	1.1	2.3
기타	0.5	0.7	0.2	0.4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208)	(4,511)	(2,699)	(3,245)	(3,96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329명,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2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II-1-11〉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연령					결혼상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경제적 능력	6.3	8.1	6.3	5.1	4.8	4.4	7.4	3.4
건강	7.0	8.0	7.5	5.8	6.4	4.4	5.9	9.7
개인부부생활 향유	15.0	14.4	15.0	15.0	16.6	13.9	14.0	17.2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0.9	6.0	9.6	14.7	16.0	18.6	7.9	18.3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0.5	0.8	0.7	0.2	0.3	0.0	0.6	0.4
자녀의 결혼	31.7	32.4	33.9	30.3	29.1	24.9	36.6	19.5
자녀의 별거 희망	7.8	5.9	8.3	9.0	7.9	8.5	7.3	8.9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14.7	19.5	13.8	13.6	8.8	11.4	17.2	8.7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3	2.1	2.8	3.8	5.3	8.2	2.0	6.6
자녀가 모두 떨어져서	0.6	0.5	0.6	0.4	1.1	1.3	0.3	1.3
자녀가 없어서	1.7	1.5	1.3	1.8	2.9	3.8	0.5	4.8
기타	0.5	0.8	0.3	0.3	0.8	0.6	0.2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208)	(2,059)	(2,292)	(1,748)	(794)	(317)	(5,148)	(2,06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329명,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2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II-1-1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기능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전문대학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있음
경제적 능력	6.3	1.6	3.8	6.2	7.7	14.3	6.6	3.6
건강	7.0	5.1	6.8	6.9	8.0	7.0	7.5	3.2
개인부부생활 향유	15.0	14.4	16.0	13.8	15.2	18.1	15.2	12.9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0.9	22.5	15.1	11.0	5.6	1.5	10.5	13.6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0.5	0.3	0.2	0.6	0.9	0.4	0.5	0.8
자녀의 결혼	31.7	21.2	28.2	33.3	36.1	32.2	31.8	31.1
자녀의 별거 희망	7.8	8.4	8.8	7.6	8.0	4.4	7.5	9.7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14.7	13.6	13.2	15.4	14.1	19.6	14.9	13.7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3	8.9	4.7	2.7	1.6	1.1	2.8	7.2
자녀가 자녀가 모두 떨어져서	0.6	1.0	0.5	0.7	0.5	0.2	0.6	0.9
자녀가 없어서	1.7	2.6	2.4	1.3	1.7	0.9	1.6	2.6
기타	0.5	0.5	0.4	0.5	0.5	0.4	0.5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208)	(730)	(1,460)	(2,636)	(1,833)	(546)	(6,332)	(87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329명,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2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28.4%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21.7%,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20.9%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12.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 이유가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기혼자녀의 동거부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규범적 이유에서 기혼자녀와 동거이유가 다원화하여, 기존의 규범적 이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도구적인 도움이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혼자녀 동거부터, 노인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의존적인 존재로서 자녀와 동거하는 것 등으로 동거라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그 이유는 다양화 된 것이다.

이러한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기혼자녀의 동거부양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35.1%로 동부거주 노인의 26.2%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읍·면부 지역 노인에게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경제적 부양의 이유가 여자노인에 비하여 높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과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아 규범적 이유와 경제적인 의존성이 여자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자녀동거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노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간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동거 시 가족 내 노인의 위상이 다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하는 규범적 이유가 높아 노인 사이에서도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65~69세 연령군의 경우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0%에 불과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동일한 이유를 든 경우가 48.1%로 약 3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기노인에게서는 자녀세



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거가 많다. 즉 65~69세 연령군의 경우 자녀에게 가사 지원·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36.3%이며,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21.2%로 규범적 이유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전기노인의 경우 부양을 받는 자녀동거가 아니라 자녀에게 도구적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동거가 다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85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규범적인 이유가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률이 낮고 자녀에게 도구적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하는 응답이 높다. 즉 최근 세대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서 부양을 받기 위한 부양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 별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발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8.5%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4.0%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표 II-1-13~표 II-1-15 참조).

〈표 II-1-1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8.4	26.2	35.1	22.7	30.7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3.9	3.3	5.9	3.1	4.3
가사노동 부담	1.8	1.8	1.9	1.3	2.1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7.4	7.1	8.2	9.2	6.7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7	23.4	16.2	24.8	20.3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2.5	1.9	4.5	3.1	2.3
경제적 능력 부족	20.9	22.2	17.0	16.3	22.8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2.8	13.5	10.6	18.3	10.5
기타	0.6	0.7	0.5	1.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56)	(1,181)	( 376)	( 459)	(1,09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비해당 8,986명, 무응답 2명을 제외함.

〈표 II-1-1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연령					결혼상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8.4	19.0	22.5	30.2	28.4	48.1	21.6	33.6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3.9	2.3	1.8	4.8	4.6	7.6	2.1	5.2
가사노동 부담	1.8	0.6	2.0	2.3	1.9	2.5	1.3	2.3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7.4	3.9	5.1	8.0	10.7	11.4	8.1	6.8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7	36.3	30.1	17.4	11.9	5.1	28.6	16.4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2.5	1.6	2.8	1.4	4.6	2.5	3.4	1.7
경제적 능력 부족	20.9	12.5	20.0	23.4	28.7	20.7	15.1	25.5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2.8	21.2	15.2	12.5	9.2	2.1	18.6	8.3
기타	0.6	2.6	0.5	0.0	0.0	0.0	1.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56)	( 311)	( 395)	( 351)	( 261)	( 237)	( 676)	( 87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비해당 8,986명, 무응답 2명을 제외함.

〈표 II-1-15〉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기능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전문대학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있음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8.4	30.2	36.5	28.1	17.6	17.3	26.6	34.2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3.9	4.3	5.9	2.1	3.9	1.9	3.4	5.7
가사노동 부담	1.8	2.7	2.4	1.9	0.7	0.0	1.3	3.5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7.4	8.9	7.3	8.1	5.9	3.8	4.0	18.5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7	11.2	16.4	22.9	33.6	36.5	24.9	11.1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2.5	2.7	1.2	2.3	3.3	7.7	2.6	1.9
경제적 능력 부족	20.9	31.8	21.3	19.3	16.3	9.6	21.6	18.8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2.8	8.1	8.8	14.5	17.3	23.1	14.8	6.3
기타	0.6	0.0	0.2	0.8	1.6	0.0	0.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56)	( 258)	( 422)	( 519)	( 307)	( 52)	(1,189)	( 3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비해당 8,986명, 무응답 2명을 제외함.

노인이 앞으로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74.2%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겠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하다. 그 다음이 노인시설 입소로 5.1%인데 이는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로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외에 그룹홈 생활 0.9%,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가 0.8% 등으로 매우 소수이다 (표 II-1-16 참조).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경우 자녀동거를 희망한 노인이 22.5%로 남자노인의 13.0%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실제 거주형태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져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43.2%가 자녀동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인 경우 자녀동거 선호도가 높다. 더불어 연령이 높은 경우나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시설 입소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조사결과 나타난 특징이다.

한편, 현재의 가구형태별로 비교해보면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48.8%에 달하고 있다.

〈표 II-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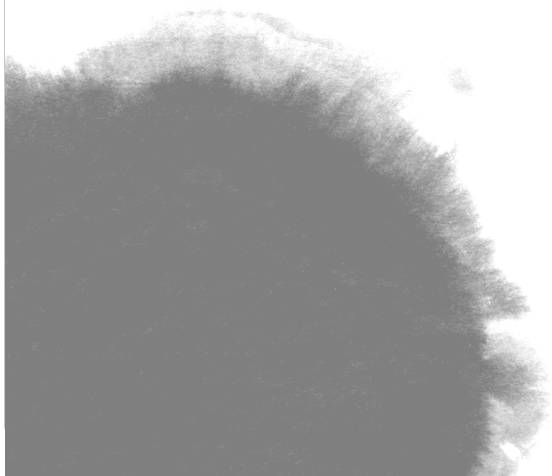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일반주택· 아파트	자녀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	그룹홈	일반주택· 아파트 +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74.2	18.4	0.8	0.9	0.5	5.1	0.1	100.0 (10,535)
지역								
동부	72.5	18.9	1.1	1.1	0.7	5.5	0.2	100.0 ( 7,143)
읍·면부	77.7	17.2	0.2	0.5	0.1	4.2	0.0	100.0 ( 3,392)
성								
남자	80.1	13.0	0.8	0.6	0.5	4.8	0.2	100.0 ( 4,546)
여자	69.7	22.5	0.8	1.2	0.5	5.3	0.1	100.0 ( 5,988)
연령								
65~69세	80.5	12.3	1.0	1.0	0.6	4.5	0.1	100.0 ( 3,145)
70~74세	75.3	17.0	0.7	1.1	0.7	5.0	0.2	100.0 ( 3,226)
75~79세	75.2	18.1	0.8	0.6	0.2	5.0	0.0	100.0 ( 2,387)
80~84세	65.1	25.9	0.9	1.1	0.3	6.7	0.0	100.0 ( 1,160)
85세 이상	49.2	43.2	0.2	0.8	0.5	5.7	0.5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1.6	12.8	0.7	0.7	0.4	3.6	0.1	100.0 ( 7,116)
배우자 없음	58.6	29.9	1.2	1.4	0.6	8.2	0.1	100.0 (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77.5	8.5	1.2	1.6	0.7	10.4	0.0	100.0 ( 2,084)
노인부부	88.8	5.9	0.7	0.6	0.3	3.6	0.1	100.0 ( 5,118)
자녀동거	45.1	48.8	0.8	1.1	0.8	3.5	0.1	100.0 ( 2,847)
기타	76.0	13.7	0.2	0.8	0.4	7.8	1.0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2.2	27.5	1.0	1.2	0.5	7.5	0.0	100.0 ( 1,144)
무학(글자해독)	68.3	24.1	0.6	0.7	0.5	5.6	0.2	100.0 ( 2,179)
초등학교	76.7	17.2	0.6	0.6	0.4	4.5	0.1	100.0 ( 3,740)
중·고등학교	78.7	13.4	1.2	1.5	0.5	4.6	0.2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80.8	11.4	1.2	0.8	0.8	4.9	0.0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80.7	13.5	0.5	0.9	0.4	3.8	0.3	100.0 ( 3,563)
미취업	70.8	20.9	1.0	0.9	0.5	5.8	0.1	100.0 ( 6,9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8.1	9.8	1.8	1.0	0.3	9.0	0.0	100.0 ( 2,108)
제2오분위	81.7	9.6	0.7	1.1	0.4	6.2	0.1	100.0 ( 2,117)
제3오분위	80.8	14.0	0.4	0.6	0.7	3.3	0.2	100.0 ( 2,100)
제4오분위	72.0	22.5	0.4	0.7	0.4	3.8	0.0	100.0 ( 2,112)
제5오분위	58.2	36.0	0.8	1.2	0.5	3.1	0.1	100.0 ( 2,095)
가능상태								
제한 없음	76.5	16.4	0.9	0.9	0.5	4.7	0.1	100.0 ( 9,068)
제한 있음	59.5	30.4	0.7	1.0	0.5	7.8	0.2	100.0 ( 1,46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9명을 제외함.

## 02

##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제2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도움의 교환, 다양한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작동하며 노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 현황을 일차적인 비공식(informal) 관계인 가족과 이차적 비공식 관계인 친구와 이웃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노인의 자녀 및 친지 유무와 규모

노인의 가족 현황을 가용성(availability)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표 II-2-1>에 의하면 노인의 대부분인 99.1%가 생존자녀가 있으며 95.4%는 손자녀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형제·자매로 82.2%가 생존 형제·자매를 갖고 있다. 반면 친인척의 경우 약 절반인 54.4%의 노인만이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경우는 노인의 5.0%가 배우자의 부모는 7.4%가 생존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노인이 비속가족이 있지만 존속가족은 소수만이 갖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연령을 생각해 볼 때 피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 증대의 결과로 인하여 생존 부모가 있는 노인이 일정 규모가 되고 있고, 이는 노인가구의 다세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차적 비공식 집단인 친구·이웃의 경우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다는 비율이 75.2%이다. 즉 노인의 약 3/4가 중요한 2차적 비공식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가용성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생존자녀가 있는 비율은 8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은 97.5%이며 독거노인의 경우 타 가구에 비하여 생존자녀가 있는 비율이 낮아 96.8%이다. 이러한 현황을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제1오분위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생존자녀가 있는 비율이 96.7%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낮다. 이를 독거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의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다는 점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독거노인의 경우 생존자녀가 없는 비율이 다른 노인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생존손자녀의 경우도 생존자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자녀에 비하여 손자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존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고,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손자녀 출산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경우는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동부 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있는 비율이 높다. 또한 여자 노인에 비하여 남자 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의 생존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60대의 노인의 경우 부모 생존율인 13% 내외이지만 70대에서는 5%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60대의 세대구성과 70대 이후 노인의 세대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생존 부모가 있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에서 부모 생존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인 위상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경향성이 있고, 전기노인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것과 결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데, 특히 80대가 되면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가용성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 또한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제특성별 경향성은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도 유사하여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친인척이 있



는 비율이 높다.

친한 친구이웃의 경우는 지역별,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낮아진다. 친구·이웃의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에 비하여 생물학적 노화에 의한 사망 등의 영향을 적게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노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가구형태별로는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생존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의 경우는 독거노인이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친한 친구이웃의 경우는 노인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 즉 노인 혼자 생활하거나 배우자와만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 동거 노인에 비하여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이웃이 단독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취업중인 경우나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경우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높아 노인의 활동성이 친구이웃 관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1-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율)

(단위: %)

특성	생존자녀	생존 손자녀	생존 부모	생존 배우자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이웃
전체 <sup>1)</sup>	99.1	95.4	5.0	7.4	82.2	54.4	75.2
지역							
동부	98.9	94.2	5.5	8.4	82.4	54.3	75.3
읍·면부	99.5	97.7	4.0	5.0	81.6	54.4	75.1
성							
남자	99.3	94.3	6.2	9.7	81.4	55.9	74.9
여자	98.8	96.1	4.1	4.0	82.7	53.2	75.4
연령							
65~69세	99.1	91.3	12.5	13.9	91.6	60.1	82.0
70~74세	99.4	96.8	3.2	5.0	86.0	57.8	76.6
75~79세	98.9	97.4	1.2	3.1	80.5	50.6	72.5
80~84세	99.1	96.9	0.3	0.8	66.3	45.4	67.8
85세 이상	97.5	97.4	0.0	0.0	52.0	39.8	59.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9.7	96.1	6.2	7.3	84.7	56.8	75.7
배우자 없음	97.6	93.7	2.5	0.0	76.8	49.4	74.2
가구형태							
노인독거	96.8	92.6	1.8	0.0	78.1	49.3	78.2
노인부부	99.7	97.3	4.5	5.9	84.7	56.6	76.0
자녀동거	99.9	94.2	3.9	8.1	79.8	53.4	71.2
기타	97.5	93.1	30.3	25.9	86.8	58.0	77.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9	97.2	2.5	2.2	73.7	42.7	66.9
무학(글자해독)	98.7	96.1	2.3	3.7	78.2	49.5	70.8
초등학교	99.3	96.4	3.5	5.2	83.5	55.7	75.7
중·고등학교	98.9	93.5	8.0	10.5	85.5	59.4	79.0
전문대학 이상	99.6	91.7	13.3	13.6	88.1	61.2	84.7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7	95.2	6.5	8.2	86.0	59.0	79.6
미취업	98.7	95.4	4.2	6.7	80.3	52.0	73.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6.7	93.1	2.0	3.8	76.8	47.1	72.1
제2오분위	99.5	96.3	3.5	3.8	81.1	52.6	73.0
제3오분위	99.6	97.0	5.2	5.9	83.2	53.3	75.2
제4오분위	99.8	96.0	5.6	9.7	85.5	59.3	79.1
제5오분위	99.7	94.2	8.7	11.5	84.2	59.5	7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9.1	95.0	5.5	7.9	83.8	56.6	78.5
제한 있음	98.7	97.4	2.1	2.6	72.6	41.4	56.7
2008년도	98.2	95.4	3.9	4.5	80.2	56.2	72.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비공식적 자원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규모를 살펴보면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의 경우 평균자녀수가 3.77명이며, 동거자녀수는 0.31명, 생존손자녀수는 6.32명, 동거손자녀수는 0.25명이다. 부모의 경우 생존 부모의 수가 0.14명이다.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규모는 3.17명이다. 가까운 친인척수는 1.34명이며,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규모는 2.56명으로 나타났다(표 II-2-2 참조).

이러한 가용 가능한 비공식적 자원의 규모를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II-2-1〉에서 살펴본 가용성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강조되어야 할 특성들이 발견된다. 생존자녀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이 4.33명으로 동부 노인의 3.50명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다. 또한 생존 손자녀도 동부의 5.61명에 비하여 7.81명으로 그 규모가 크다. 즉 자녀 및 손자녀의 규모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큰데 이는 노인세대의 생식가족 규모에 있어 지역별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동거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는 동부가 읍·면부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다.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 자녀 및 손자녀의 규모가 큰 반면, 부모의 경우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그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남자노인의 경우 특히 배우자의 부모의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수, 친한 친구·이웃수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평균 규모가 크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후기노인에게서 생존자녀나 손자녀의 규모가 큰 반면 부모나 생존 형제·자매, 친한 친인척수, 친한 친구·이웃수의 규모는 작은 경향을 보인다. 즉 자녀출산은 출산력의 변화로 인하여 전기노인으로 올수록 그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전기노인의 경우는 후기노인에 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존 자녀와 손자녀가 많은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존 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수, 친한 친구·이웃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에게 있어서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가장 커 2.67명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 및 손자녀의 규모는 작지만, 부모, 형제·자매, 친한 친인척수, 친한 친구·이웃수의 수는 많은 경향을 보여 관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득수준의 경우도 동일하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경우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뿐만 아니라 친구·이웃의 수도 1.61명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2.72명에 비하여 적다. 반면 생존 자녀나 손자녀의 수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상태의 제한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11-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단위: 명)

특성	생존자녀	동거자녀	생존 손자녀	동거 손자녀	생존(배우자)부모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
전체 <sup>1)</sup>	3.77	0.31	6.32	0.25	0.14	3.17	1.34	2.56
지역								
동부	3.50	0.37	5.61	0.29	0.16	3.22	1.36	2.55
읍·면부	4.33	0.19	7.81	0.16	0.11	3.07	1.32	2.57
성								
남자	3.58	0.29	5.63	0.19	0.17	3.20	1.49	2.78
여자	3.91	0.33	6.84	0.29	0.10	3.16	1.24	2.39
연령								
65~69세	3.14	0.36	4.34	0.19	0.29	3.61	1.61	2.94
70~74세	3.71	0.27	6.12	0.24	0.08	3.29	1.43	2.62
75~79세	4.18	0.26	7.37	0.25	0.04	2.85	1.16	2.51
80~84세	4.42	0.31	8.30	0.32	0.01	2.46	0.96	2.00
85세 이상	4.44	0.46	9.45	0.42	0.00	2.09	1.00	1.6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71	0.27	6.01	0.19	0.14	3.28	1.46	2.69
배우자 없음	3.90	0.39	6.97	0.36	0.00	2.92	1.11	2.29
가구형태								
노인독거	3.86	0.00	6.99	0.00	0.00	2.95	1.08	2.38
노인부부	3.73	0.00	6.42	0.00	0.11	3.29	1.44	2.67
자녀동거	3.84	1.11	5.82	0.76	0.14	3.07	1.31	2.44
기타	3.35	0.16	5.38	0.77	0.65	3.42	1.68	2.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38	0.34	8.39	0.31	0.07	2.79	0.90	1.95
무학(글자해독)	4.18	0.32	7.47	0.30	0.06	2.84	1.11	2.15
초등학교	3.82	0.30	6.36	0.24	0.09	3.19	1.35	2.44
중·고등학교	3.30	0.32	4.98	0.22	0.20	3.43	1.58	2.97
전문대학 이상	3.05	0.25	4.38	0.10	0.31	3.60	1.84	3.80

특성	생존자녀	동거자녀	생존 손자녀	동거 손자녀	생존(배우 자)부모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이웃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6	0.24	6.38	0.17	0.16	3.30	1.55	2.89
미취업	3.72	0.34	6.29	0.29	0.13	3.11	1.24	2.39
연가소득								
제1오분위	3.87	0.05	7.04	0.05	0.08	2.86	1.00	2.13
제2오분위	3.92	0.09	6.75	0.06	0.08	3.12	1.29	2.37
제3오분위	3.74	0.16	6.22	0.09	0.12	3.25	1.36	2.43
제4오분위	3.73	0.42	6.00	0.29	0.16	3.34	1.49	2.80
제5오분위	3.58	0.83	5.60	0.74	0.23	3.27	1.59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71	0.30	6.12	0.23	0.15	3.25	1.40	2.72
제한 있음	4.10	0.39	7.45	0.35	0.06	2.68	0.99	1.61
2008년도	4.0	0.3	6.8	-	-	2.8	2.3	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표 II-2-3〉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상태를 살펴보면 년 1,2회가 24.2%, 월 1회 정도가 22.3%로 가장 응답률이 높다. 거의 매일 동반 외출을 한다는 응답은 4.2%, 일주일에 2,3회가 9.2%, 주 1회 정도가 13.4%로 주 1회 이상의 동반 외출을 하는 경우가 26.8%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약 1/4이다. 전혀 동반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2.5%에 달하고 있다.

부부동반 외출은 상대적으로 동부에서 활발하여 최소 주 1회 동반 외출을 하는 비율이 30.5%로 읍·면부의 19.1%에 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다. 성별, 가구형태 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경우 동반 외출 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이 높으면 부부동반 빈도가 높아 경제적 여력이 부부동반 외출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빈도가 낮아 신체적 여력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본인의 특성 외에도 배우자의 건강상태도 영향을 미쳐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상대적으로 빈번한 동반 외출을 하고 있어 최소 주1회 이상의 외출을 하는 비율이 5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저 그렇다의 26.8%,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의 13.7%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전혀 동반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1/3에 달하고 있다.

〈표 11-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주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 1,2회	년 1,2회	없음	계 (명)
전체 <sup>1)</sup>	4.2	9.2	13.4	22.3	14.2	24.2	12.5	100.0 (7,114)
지역								
동부	4.8	10.3	15.4	21.5	12.6	24.5	10.8	100.0 (4,826)
읍·면부	3.0	6.9	9.2	23.8	17.7	23.5	16.0	100.0 (2,288)
성								
남자	3.9	9.9	13.8	22.8	14.7	23.7	11.2	100.0 (4,114)
여자	4.6	8.2	12.9	21.5	13.7	24.8	14.3	100.0 (3,001)
연령								
65~69세	3.8	11.0	15.1	24.7	14.8	21.9	8.6	100.0 (2,550)
70~74세	4.7	8.1	12.8	21.7	14.8	25.4	12.6	100.0 (2,358)
75~79세	4.3	9.3	12.7	20.4	13.7	25.3	14.4	100.0 (1,498)
80~84세	4.3	6.1	9.4	20.2	13.1	27.4	19.6	100.0 ( 511)
85세 이상	2.6	8.2	14.3	17.3	7.1	20.9	29.6	100.0 ( 196)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0.0	14.3	0.0	0.0	35.7	50.0	100.0 ( 14)
노인부부	3.9	9.7	12.9	22.8	14.8	23.3	12.7	100.0 (5,111)
자녀동거	4.9	7.6	14.9	20.3	11.9	27.6	12.8	100.0 (1,643)
기타	5.5	10.1	14.2	24.6	18.2	20.2	7.2	100.0 ( 34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	4.7	9.5	21.0	13.8	29.3	18.5	100.0 ( 686)
제2오분위	2.3	6.7	8.8	21.4	19.2	28.2	13.4	100.0 (1,576)
제3오분위	3.7	8.2	15.0	24.2	13.0	24.2	11.8	100.0 (1,722)
제4오분위	4.8	10.4	13.1	22.7	13.4	22.9	12.8	100.0 (1,623)
제5오분위	6.7	13.9	18.5	20.8	11.6	19.1	9.3	100.0 (1,5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	9.7	13.9	22.8	14.5	24.1	10.8	100.0 (6,344)
제한 있음	4.2	5.3	9.4	17.7	12.5	24.4	26.6	100.0 ( 770)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9.8	26.8	21.1	20.3	8.9	8.9	4.1	100.0 ( 123)
건강한 편	5.2	12.4	15.4	25.9	12.3	19.5	9.3	100.0 (2,221)
그저 그렇다	3.8	8.3	14.7	21.6	15.8	26.6	9.2	100.0 (1,375)
건강하지 않은 편	3.6	7.4	12.1	21.0	15.9	26.6	13.4	100.0 (2,898)
전혀 건강하지 않음	3.0	4.2	6.5	14.9	10.1	28.0	33.3	100.0 ( 49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429명을 제외함. 무응답 없음.

### 제3절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노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성인이라는 점에서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하는 부모라는 관점에서 동등한 성인과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부모세대는 계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관계의 변화와 특수성을 경험하게 된다.

#### 1.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노인의 다수인 96.6%가 비동거 자녀가 있는데, 이들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가 9.4%이며,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14.6%, 일주일에 1회가 24.3%로 노인의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1번 이상은 자녀와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1.8%가 한 달에 1회 정도 만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응답률이 높다(표 II-2-4 참조). 한편 연락빈도의 경우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인 34.1%이다(표 II-2-5 참조). 연락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정도가 25.6%,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23.9%이다. 즉 83.6%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한 달에 1회라는 응답은 12.4%이다. 또한 분기별 1회 정도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경우는 1.6%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의 약 1/3 정도가 월 1회 정도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 3회 정도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1회 정도의 연락과 월1회 정도의 왕래는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비교해보면 지역별 연락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왕래빈도에 있어서는 동부의 경우 약 1/4정도가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는 동 비율이 18.1%로 낮은 편이다. 즉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의 거주 거리가 빈번한 왕래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연령군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노인의 결혼상태와 가구형태에 따른 왕래 및 연락 빈도에는 차이가 있다.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나 연락빈도는 노인단독가구에 비하여 약간 낮은데, 이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동거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동거 자녀들이 느끼는 의무감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노인이 배우자가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왕래와 연락빈도가 높은 편이다. 더불어 비동거 자녀수가 많을수록 왕래와 연락빈도가 높은 편으로 자녀의 가용성이 왕래와 연락빈도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비동거자녀와의 왕래와 연락빈도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왕래와 연락빈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의 가족 내 위상이 높고, 자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여 자녀 세대 또한 생활의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왕래 빈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연락은 빈번하지 않지만 방문을 통한 왕래는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전화 등을 통한 통화가 용이하지 않고 실제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문이 더 선호되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9.4	14.6	24.3	31.8	14.7	4.2	1.0	100.0 (10,153)
지역								
동부	10.7	16.2	24.1	29.8	13.2	4.7	1.3	100.0 ( 6,820)
읍·면부	6.7	11.4	24.7	35.9	17.9	3.2	0.3	100.0 ( 3,333)
성								
남자	9.7	14.9	24.4	31.7	14.2	3.9	1.1	100.0 ( 4,409)
여자	9.1	14.4	24.2	31.8	15.1	4.4	1.0	100.0 ( 5,742)
연령								
65~69세	10.3	14.4	23.3	31.0	15.9	4.1	1.1	100.0 ( 3,008)
70~74세	9.1	14.8	24.0	32.3	14.7	3.8	1.2	100.0 ( 3,150)
75~79세	8.4	13.9	27.5	31.5	13.5	4.1	1.0	100.0 ( 2,308)
80~84세	9.1	16.2	23.7	31.5	15.0	3.8	0.6	100.0 ( 1,108)
85세 이상	10.0	15.0	19.1	34.3	12.9	7.9	0.9	100.0 ( 581)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0	15.2	24.9	32.0	13.8	3.4	0.7	100.0 ( 6,998)
배우자 없음	8.0	13.4	22.9	31.4	16.8	5.9	1.7	100.0 ( 3,153)
가구형태								
노인독거	8.5	14.5	23.1	31.5	15.8	5.2	1.3	100.0 ( 1,943)
노인부부	10.4	16.0	25.8	30.9	12.9	3.2	0.7	100.0 ( 5,081)
자녀동거	7.8	12.3	22.4	33.9	16.9	5.5	1.3	100.0 ( 2,670)
기타	10.9	13.5	23.5	29.6	17.8	3.9	0.9	100.0 ( 460)
별거자녀수								
1명	4.8	7.2	13.9	28.0	20.5	20.4	5.3	100.0 ( 794)
2명	11.0	12.1	22.0	31.0	17.6	5.1	1.3	100.0 ( 1,886)
3명	8.3	16.1	24.6	33.9	12.7	3.4	1.0	100.0 ( 2,622)
4명	9.8	16.8	26.5	31.2	13.7	1.6	0.4	100.0 ( 2,307)
5명	9.9	15.5	27.3	32.2	13.3	1.6	0.1	100.0 ( 1,456)
6명 이상	10.8	15.5	26.5	31.7	13.9	1.6	0.0	100.0 ( 1,08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8	13.3	20.8	33.5	19.0	6.2	0.5	100.0 ( 1,092)
무학(글자해독)	7.8	12.5	23.8	33.1	17.8	4.1	0.9	100.0 ( 2,088)
초등학교	9.0	14.2	26.3	31.9	14.2	3.1	1.3	100.0 ( 3,632)
중·고등학교	11.6	15.7	23.6	31.1	12.8	4.3	0.8	100.0 ( 2,627)
전문대학 이상	11.5	21.6	23.1	26.9	9.0	6.6	1.3	100.0 ( 713)
현 취업상태								
취업중	8.7	13.8	24.2	34.6	15.3	2.9	0.5	100.0 ( 3,492)
미취업	9.7	15.1	24.3	30.3	14.4	4.9	1.3	100.0 ( 6,66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	11.2	21.6	34.2	18.5	6.8	1.4	100.0 ( 1,968)
제2오분위	7.3	13.1	25.4	33.4	15.6	4.0	1.4	100.0 ( 2,074)
제3오분위	11.3	15.8	25.4	29.9	13.6	2.8	1.2	100.0 ( 2,052)
제4오분위	10.4	17.4	25.2	30.4	12.7	3.3	0.7	100.0 ( 2,062)
제5오분위	11.7	15.5	23.7	31.0	13.3	4.4	0.4	100.0 ( 1,997)
가능상태								
제한 없음	9.1	14.6	24.6	32.0	14.5	4.1	1.0	100.0 ( 8,755)
제한 있음	11.2	14.9	22.4	30.1	15.9	4.9	0.6	100.0 ( 1,397)
2008년도	9.8	13.5	20.7	30.6	16.6	7.7	1.1	100.0 (10,30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포함

〈표 11-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23.9	34.1	25.6	12.4	2.5	0.9	0.7	100.0 (10,153)
지역								
동부	24.8	33.4	24.5	12.6	3.0	1.0	0.8	100.0 ( 6,818)
읍·면부	22.2	35.6	27.7	11.9	1.4	0.7	0.5	100.0 ( 3,333)
성								
남자	23.4	33.3	26.4	13.0	2.4	0.9	0.7	100.0 ( 4,411)
여자	24.4	34.8	24.9	11.9	2.5	0.9	0.7	100.0 ( 5,741)
연령								
65~69세	27.0	34.1	25.0	11.2	1.4	0.8	0.6	100.0 ( 3,009)
70~74세	21.8	35.8	25.7	12.7	2.7	0.6	0.6	100.0 ( 3,150)
75~79세	23.5	33.6	26.5	12.0	2.8	0.8	0.8	100.0 ( 2,307)
80~84세	23.4	34.5	23.2	14.9	2.8	1.0	0.2	100.0 ( 1,107)
85세 이상	22.4	26.0	28.3	13.6	4.8	2.6	2.2	100.0 ( 58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0	35.2	25.6	11.3	1.9	0.6	0.4	100.0 ( 6,999)
배우자 없음	21.5	31.6	25.4	14.9	3.8	1.5	1.4	100.0 ( 3,154)
가구형태								
노인독거	24.0	32.9	25.2	12.9	2.7	1.0	1.2	100.0 ( 1,941)
노인부부	25.5	36.5	25.0	10.5	1.6	0.6	0.3	100.0 ( 5,080)
자녀동거	20.9	30.7	27.2	15.1	4.0	1.3	0.7	100.0 ( 2,671)
기타	24.1	32.6	23.3	16.1	1.7	0.2	2.0	100.0 ( 460)
별거자녀수								
1명	12.4	19.9	28.5	24.5	7.4	4.5	2.7	100.0 ( 792)
2명	22.1	32.8	24.1	15.9	3.3	1.0	0.7	100.0 ( 1,886)
3명	25.1	35.6	26.0	10.1	1.8	0.6	0.7	100.0 ( 2,623)
4명	24.4	38.4	24.9	10.1	1.7	0.4	0.1	100.0 ( 2,306)
5명	27.9	34.9	24.8	9.7	2.1	0.3	0.4	100.0 ( 1,457)
6명 이상	26.6	33.1	27.0	10.9	1.3	0.5	0.6	100.0 ( 1,08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8	33.2	26.7	16.1	3.9	1.7	1.5	100.0 ( 1,093)
무학(글자해독)	21.7	32.0	27.6	13.9	3.1	1.1	0.7	100.0 ( 2,087)
초등학교	23.3	36.1	25.8	11.6	2.1	0.4	0.6	100.0 ( 3,633)
중·고등학교	27.6	33.3	23.9	11.6	2.0	1.0	0.6	100.0 ( 2,627)
전문대학 이상	30.9	34.4	22.3	9.3	2.0	0.7	0.6	100.0 ( 713)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6	35.0	27.3	11.6	1.6	0.4	0.5	100.0 ( 3,492)
미취업	24.1	33.6	24.6	12.8	2.9	1.1	0.8	100.0 ( 6,661)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5	30.4	26.9	17.0	4.3	1.3	1.5	100.0 ( 1,968)
제2오분위	20.3	34.5	28.8	12.7	1.6	1.2	0.9	100.0 ( 2,074)
제3오분위	25.0	37.5	23.6	10.9	2.3	0.2	0.4	100.0 ( 2,052)
제4오분위	26.7	35.5	24.7	10.2	2.0	0.4	0.4	100.0 ( 2,061)
제5오분위	29.0	32.5	23.6	11.3	2.2	1.1	0.3	100.0 ( 1,9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0	34.7	25.6	12.2	2.2	0.8	0.5	100.0 ( 8,755)
제한 있음	23.3	30.6	25.5	13.3	4.2	1.1	1.9	100.0 ( 1,398)
2008년도	22.6	28.0	26.7	17.6	3.0	1.6	0.6	100.0 (10,34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포함

## 2. 접촉이 가장 빈번한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비동거 자녀 중 방문, 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하여 노인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자녀는 장남 또는 장녀이며, 노인의 집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약 20%가 걸어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24.1%가 자동차로 30분 내에 거주하고 있다.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가 20.5%로 63.7%가 적어도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고 있어 거주 거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볼 수 있다(표 II-2-6 참조).

〈표 II-2-6〉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단위: %, 명)

특성	비율 (명)	특성	비율 (명)
형제·자매 순위 <sup>1)</sup>		거주거리 <sup>2)</sup>	
장남	33.4 ( 3,377)	걸어서 10분 이내	7.7 ( 784)
차남	14.8 ( 1,498)	걸어서 10분~30분 이내	11.4 ( 1,153)
삼남 이상	6.7 ( 684)	자동차로 30분 이내	24.1 ( 2,444)
장녀	27.8 ( 2,810)	자동차로 30분 ~1시간 이내	20.5 ( 2,073)
차녀	10.6 ( 1,080)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18.1 ( 1,834)
삼녀 이상	6.7 ( 680)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8.0 ( 814)
		자동차로 3시간 이상	8.6 ( 875)
		해외거주 <sup>3)</sup>	1.4 ( 145)
계	100.0 (10,129)	계	100.0 (10,12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60명, 무응답 55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62명, 무응답 61명을 제외함.

3) 기타포함.

접촉이 많은 자녀와는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율이 7.8%, 일주일에 2,3회가 7.9%, 일주일에 1회가 20.1%, 한 달에 1회가 32.9%, 분기 1,2회가 22.2%, 년 1,2회가 7.9%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II-2-7 참조). 또한 연락빈도의 경우는 각각 14.8%, 24.8%, 32.1%, 21.9%, 4.0%, 1.3%로 왕래 빈도에 비하여 그 빈도가 높고 일주일에 1회 정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표 II-2-8 참조). 즉 일반적으로 노인의 입장에서는 자녀로부터의 연락이 주 2,3회가 이루어지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주 1회 정도를 연락하는 유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왕래 및 연락빈도를 노인과 자녀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노인의 특성별 차이는 비동거 자녀 전체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자녀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왕래 빈도에 있어서 자녀와의 거주거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48.9% 즉 절반 정도가 거의 매일 왕래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걸어서 10분~30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19.8%, 자동차로 30분 이내인 경우는 6.1%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락 빈도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약화되지만 거주거리가 멀수록 연락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동일하다.

한편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와의 왕래와 연락빈도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 특성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왕래빈도의 경우는 아들인 경우 딸에 비하여 빈도가 높은 편인 반면, 연락빈도는 딸의 경우에 빈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왕래빈도의 경우 장남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경우가 37.6%인데 비하여 장녀의 경우는 32.4%이다. 반면 연락빈도의 경우 장남인 경우 69.6%인데 비하여 장녀인 경우는 72.4%로 장남에 비하여 약간 높다. 이는 노인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아직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하여 부계 중심의 왕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반면, 연락의 경우 비교적 개인의 관심정도에 따라 연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활발히 하는 경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11-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7.8	7.9	20.1	32.9	22.2	7.9	1.1	100.0 (10,153)
지역								
동부	9.0	9.2	21.1	32.4	18.9	7.8	1.5	100.0 ( 6,819)
읍·면부	5.3	5.2	18.1	33.8	28.9	8.3	0.4	100.0 ( 3,333)
성								
남자	8.1	8.0	21.2	32.4	22.1	7.0	1.2	100.0 ( 4,411)
여자	7.6	7.8	19.3	33.2	22.3	8.7	1.1	100.0 ( 5,741)
연령								
65~69세	8.7	7.7	21.9	30.2	22.9	7.3	1.3	100.0 ( 3,010)
70~74세	7.8	7.9	20.1	32.6	22.9	7.2	1.4	100.0 ( 3,149)
75~79세	7.1	6.4	19.4	36.8	20.8	8.5	1.0	100.0 ( 2,308)
80~84세	7.0	9.3	19.3	33.1	21.8	8.8	0.6	100.0 ( 1,108)
85세 이상	7.2	11.6	15.5	32.1	21.4	11.4	0.9	100.0 ( 58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5	7.6	21.3	33.1	21.9	6.7	0.9	100.0 ( 7,000)
배우자 없음	6.3	8.4	17.4	32.4	22.9	10.8	1.7	100.0 ( 3,153)
가구형태								
노인독거	6.6	8.9	19.3	32.5	21.0	10.2	1.3	100.0 ( 1,942)
노인부부	9.1	7.5	22.3	32.3	21.8	6.0	1.0	100.0 ( 5,080)
자녀동거	6.0	7.8	16.4	34.6	24.1	9.8	1.4	100.0 ( 2,671)
기타	8.9	8.0	21.9	30.2	20.8	9.3	0.9	100.0 ( 461)
형제·자매 순위								
장남	8.6	7.2	21.8	31.5	23.7	6.7	0.6	100.0 ( 3,377)
차남	7.8	8.4	19.5	35.4	21.2	6.8	0.9	100.0 ( 1,496)
삼남 이상	7.5	6.6	26.6	37.6	17.3	4.4	0.0	100.0 ( 683)
장녀	6.8	7.6	18.0	31.6	23.3	10.9	1.8	100.0 ( 2,810)
차녀	6.9	10.5	18.6	34.0	21.9	7.6	0.5	100.0 ( 1,080)
삼녀 이상	10.6	8.8	18.6	34.2	18.6	8.8	0.3	100.0 ( 678)
거주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48.9	21.8	18.5	7.2	3.1	0.5	0.0	100.0 ( 783)
걸어서 10분~30분 이내	19.8	22.0	31.1	22.8	3.9	0.3	0.0	100.0 ( 1,153)
자동차로 30분 이내	6.1	9.5	33.6	38.4	10.7	1.7	0.0	100.0 ( 2,443)
자동차로 30분 ~1시간 이내	1.3	3.9	21.3	46.0	22.9	4.5	0.1	100.0 ( 2,073)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0.3	2.9	11.2	42.3	33.4	9.7	0.2	100.0 ( 1,834)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0.4	0.2	6.1	28.0	47.5	17.3	0.5	100.0 ( 815)
자동차로 3시간 이상	0.1	0.6	2.3	13.4	49.3	33.4	0.9	100.0 ( 874)
해외거주 <sup>2)</sup>	0.7	0.0	0.7	3.5	12.5	34.7	47.9	100.0 ( 146)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5.2	8.1	16.2	31.5	27.0	11.4	0.5	100.0 ( 1,092)
무학(글자해독)	6.5	6.8	17.3	34.3	25.2	8.8	1.1	100.0 ( 2,087)
초등학교	7.8	6.8	20.9	34.1	22.0	7.0	1.3	100.0 ( 3,634)
중·고등학교	9.3	9.8	21.4	31.6	19.8	7.2	0.9	100.0 ( 2,627)
전문대학 이상	10.2	9.0	25.5	29.5	16.3	7.3	2.2	100.0 ( 713)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7.1	7.0	20.5	33.6	24.3	6.9	0.5	100.0 ( 3,491)
미취업	8.2	8.3	20.0	32.5	21.1	8.5	1.4	100.0 ( 6,662)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5.0	7.3	15.7	32.8	25.4	12.2	1.7	100.0 ( 1,968)
제2오분위	6.3	6.7	21.0	33.2	24.2	7.4	1.3	100.0 ( 2,075)
제3오분위	9.5	7.7	22.3	31.9	20.6	6.8	1.2	100.0 ( 2,051)
제4오분위	8.5	8.5	22.5	31.4	21.8	6.5	0.7	100.0 ( 2,061)
제5오분위	9.8	9.2	19.0	35.1	19.1	7.0	0.9	100.0 ( 1,999)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7.5	7.6	20.5	33.3	22.1	7.7	1.2	100.0 ( 8,756)
제한 있음	9.7	9.5	17.8	30.4	22.8	9.2	0.6	100.0 ( 1,397)
<b>2008년도</b>	<b>7.6</b>	<b>11.4</b>	<b>18.6</b>	<b>31.0</b>	<b>18.9</b>	<b>9.8</b>	<b>2.8</b>	<b>100.0 (10,412)</b>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표 11-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14.8	24.8	32.1	21.9	4.0	1.3	1.2	100.0 (10,153)
지역								
동부	16.3	26.0	29.9	20.8	4.4	1.4	1.3	100.0 ( 6,819)
읍·면부	11.8	22.6	36.5	24.2	3.1	1.1	0.8	100.0 ( 3,332)
성								
남자	14.7	25.3	30.9	22.9	3.9	1.2	1.1	100.0 ( 4,411)
여자	14.9	24.5	33.0	21.2	4.0	1.3	1.1	100.0 ( 5,743)
연령								
65~69세	17.5	27.3	32.5	18.6	2.5	0.9	0.8	100.0 ( 3,008)
70~74세	12.9	26.3	31.9	22.7	3.9	1.2	1.1	100.0 ( 3,150)
75~79세	14.2	22.7	33.0	22.7	5.0	1.2	1.3	100.0 ( 2,308)
80~84세	14.0	22.7	30.8	25.4	5.1	1.4	0.8	100.0 ( 1,108)
85세 이상	15.5	17.2	29.5	25.2	5.7	4.0	2.9	100.0 ( 58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6	26.0	32.6	20.9	3.3	0.8	0.8	100.0 ( 6,999)
배우자 없음	13.0	22.4	30.9	24.2	5.4	2.3	1.9	100.0 ( 3,154)
가구형태								
노인독거	14.6	23.8	32.2	21.3	4.7	1.6	1.8	100.0 ( 1,941)
노인부부	15.6	26.2	32.9	20.6	3.0	0.8	0.8	100.0 ( 5,081)
자녀동거	13.3	22.6	31.0	24.7	5.3	2.0	1.1	100.0 ( 2,672)
기타	15.0	27.6	28.0	22.0	4.1	0.7	2.6	100.0 ( 460)
형제·자매 순위								
장남	13.4	23.3	32.9	23.8	4.0	1.2	1.3	100.0 ( 3,376)
차남	13.9	22.5	35.1	21.0	5.1	1.6	0.7	100.0 ( 1,495)
삼남 이상	15.6	21.5	33.6	23.4	4.4	0.9	0.7	100.0 ( 685)
장녀	16.4	26.3	29.7	22.1	3.4	1.6	0.6	100.0 ( 2,809)
차녀	14.6	29.4	32.6	17.9	3.9	0.6	1.1	100.0 ( 1,080)
삼녀 이상	16.9	29.1	30.1	19.5	3.2	1.0	0.1	100.0 ( 681)
거주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28.6	29.1	23.9	12.0	2.7	0.4	3.3	100.0 ( 783)
걸어서 10분~30분 이내	27.0	33.3	27.5	8.8	1.8	0.6	1.0	100.0 ( 1,154)
자동차로 30분 이내	16.0	27.9	34.9	16.7	2.8	0.9	0.6	100.0 ( 2,444)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9.9	25.7	33.7	25.2	3.7	0.9	1.0	100.0 ( 2,074)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9.3	21.5	31.8	29.4	5.8	1.7	0.4	100.0 ( 1,833)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10.4	19.7	33.8	28.0	5.0	2.6	0.5	100.0 ( 814)
자동차로 3시간 이상	9.4	14.6	33.6	34.4	5.6	2.2	0.2	100.0 ( 875)
해외거주 <sup>2)</sup>	20.8	9.7	34.0	20.1	11.8	3.5	0.0	100.0 ( 146)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9.2	19.3	33.7	28.1	5.7	2.2	1.7	100.0 ( 1,092)
무학(글자해독)	12.8	22.1	32.0	24.8	4.9	2.0	1.4	100.0 ( 2,086)
초등학교	14.1	25.7	33.6	21.5	3.4	0.7	1.1	100.0 ( 3,634)
중·고등학교	17.4	27.9	29.6	19.5	3.5	1.2	0.9	100.0 ( 2,626)
전문대학 이상	23.2	26.1	31.1	15.1	3.1	0.8	0.6	100.0 ( 714)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13.6	25.3	33.9	22.8	2.7	0.8	0.9	100.0 ( 3,491)
미취업	15.4	24.6	31.1	21.5	4.6	1.5	1.3	100.0 ( 6,661)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10.7	19.6	32.3	27.0	6.2	1.9	2.3	100.0 ( 1,967)
제2오분위	13.5	24.3	31.0	24.7	3.3	1.6	1.5	100.0 ( 2,075)
제3오분위	15.3	25.6	34.7	19.3	3.6	0.7	0.8	100.0 ( 2,052)
제4오분위	15.9	27.3	32.3	19.9	3.3	0.7	0.7	100.0 ( 2,060)
제5오분위	18.5	27.3	30.1	18.7	3.5	1.5	0.5	100.0 ( 1,996)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14.7	24.9	32.8	21.8	3.6	1.2	1.0	100.0 ( 8,755)
제한 있음	15.5	24.5	27.3	22.5	6.4	1.7	2.2	100.0 ( 1,397)
<b>2008년도</b>	16.0	24.5	29.5	21.7	4.4	2.1	1.8	100.0 (10,41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제4절 손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노인의 대부분이 손자녀를 두고 있지만 손자녀와의 왕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자녀방문 시 동행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손자녀와의 왕래나 연락빈도는 자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 거의 매일 왕래하는 노인은 4.0%에 불과하여 일주일에 2,3회가 3.5%, 일주일에 1회가 7.2%로 주단위의 왕래를 하고 있는 노인은 14.7%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의 절반 정도가 자녀와 주단위의 왕래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분기에 1,2회로 32.5%이며, 다음이 년 1,2회로 31.4%로 나타나, 명절이나 조부모의 생일 정도에만 손자녀가 노인과 대면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II-2-9 참조). 또한 연락빈도의 경우도 거의 매일이 2.8%, 일주일에 2,3회가 4.5%, 일주일에 1회가 7.6%로 14.9%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



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왕래빈도의 경우와 유사한 수치이다(표 II-2-10 참조). 자녀의 경우는 절반 정도가 주 단위 왕래를, 80%대가 주 단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등 왕래에 비하여 연락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왕래나 연락의 빈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자녀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왕래는 어려워도 빈번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손자녀의 경우는 방문이나 전화 등과 같은 접촉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싶은 욕구와 필요성이 빈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자녀와의 왕래나 연락실태에서 보인 경향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지역별 연락빈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왕래빈도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노인이 조금 더 빈번한 왕래를 하고 있지만, 손자녀의 경우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에게서 손자녀와의 왕래나 연락빈도가 모두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가 연락빈도보다는 왕래 빈도에서 더 큰 현상은 자녀의 경우와 동일하다.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17.3%가 최소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16.1%가 최소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각각 9.6%와 12.6%로 모두 도시지역 노인에 비하여 낮다.

한편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왕래나 연락빈도에 있어서 여자노인보다 조금 더 활발한데 이는 자녀의 경우 남녀 노인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남자노인의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 손자녀와 왕래하는 비율은 17.1%, 연락의 경우는 16.9%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각각 12.9%와 13.5%로 4%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4.0	3.5	7.2	18.6	32.5	31.4	2.7	100.0 (9,876)
지역								
동부	5.0	4.6	7.7	19.1	31.2	29.1	3.2	100.0 (6,580)
읍·면부	1.9	1.5	6.2	17.6	34.9	36.0	1.9	100.0 (3,296)
성								
남자	5.0	3.8	8.3	20.5	32.1	27.9	2.5	100.0 (4,218)
여자	3.2	3.3	6.4	17.3	32.7	34.1	2.9	100.0 (5,658)
연령								
65~69세	5.9	5.2	9.5	21.6	30.7	24.9	2.1	100.0 (2,798)
70~74세	4.6	3.5	7.1	19.9	33.2	29.4	2.3	100.0 (3,086)
75~79세	2.2	3.0	5.9	16.4	34.5	34.5	3.6	100.0 (2,293)
80~84세	1.4	1.4	5.2	14.6	33.2	40.9	3.2	100.0 (1,110)
85세 이상	2.9	2.2	6.0	14.3	27.4	44.0	3.2	100.0 ( 58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	3.9	8.1	19.9	32.6	28.5	2.1	100.0 (6,763)
배우자 없음	1.8	2.8	5.2	15.9	32.1	37.9	4.2	100.0 (3,113)
가구형태								
노인독거	1.7	3.2	4.6	14.1	32.1	39.8	4.5	100.0 (1,909)
노인부부	5.1	3.7	8.1	20.0	33.4	27.5	2.2	100.0 (4,961)
자녀동거	3.4	3.5	7.5	19.8	31.1	32.0	2.6	100.0 (2,575)
기타	3.5	3.3	7.4	16.5	31.2	36.0	2.1	100.0 ( 43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	2.6	4.4	12.2	33.7	43.1	2.5	100.0 (1,100)
무학(글자해독)	3.1	2.8	5.1	17.7	32.0	35.3	4.0	100.0 (2,065)
초등학교	3.4	2.4	8.3	16.9	34.5	32.0	2.5	100.0 (3,552)
중·고등학교	6.0	5.5	7.9	22.4	30.8	25.0	2.4	100.0 (2,501)
전문대학 이상	6.1	6.1	9.8	27.6	27.2	21.2	2.0	100.0 ( 65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	3.3	7.6	19.8	34.6	29.1	1.7	100.0 (3,363)
미취업	4.0	3.7	7.0	18.0	31.3	32.6	3.3	100.0 (6,51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	2.7	4.2	15.0	30.4	40.9	5.1	100.0 (1,936)
제2오분위	2.5	2.9	6.3	16.1	36.5	32.9	2.9	100.0 (2,031)
제3오분위	4.2	2.6	9.8	18.4	31.8	30.3	2.8	100.0 (2,019)
제4오분위	5.4	4.5	7.7	20.5	32.2	28.1	1.7	100.0 (1,996)
제5오분위	6.2	5.2	8.1	23.3	31.1	24.9	1.1	100.0 (1,8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	3.6	7.3	19.4	32.5	30.4	2.7	100.0 (8,477)
제한 있음	3.5	3.2	6.4	14.2	31.9	37.7	3.0	100.0 (1,397)
2008년도	3.5	3.2	7.6	18.3	22.9	38.2	6.3	100.0 (10,20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641명, 무응답 28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표 11-2-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2.8	4.5	7.6	18.1	21.6	25.6	19.7	100.0 (9,875)
지역								
동부	3.1	5.1	7.9	18.3	21.5	24.3	19.7	100.0 (6,577)
읍·면부	2.3	3.3	7.0	17.9	21.6	28.2	19.7	100.0 (3,296)
성								
남자	3.4	5.2	8.3	18.8	19.9	24.6	19.9	100.0 (4,218)
여자	2.4	4.0	7.1	17.7	22.8	26.4	19.6	100.0 (5,658)
연령								
65~69세	4.9	6.1	10.1	18.2	20.9	20.7	19.2	100.0 (2,799)
70~74세	2.7	4.6	7.2	18.6	22.1	25.5	19.3	100.0 (3,085)
75~79세	1.7	3.6	6.4	18.4	21.3	29.6	19.1	100.0 (2,293)
80~84세	1.2	3.2	6.2	18.8	21.5	29.3	19.8	100.0 (1,110)
85세 이상	1.5	2.7	5.4	13.6	22.8	27.3	26.7	100.0 ( 58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	5.1	8.5	19.3	21.4	24.2	18.2	100.0 (6,761)
배우자 없음	1.7	3.3	5.7	15.7	21.9	28.7	23.0	100.0 (3,113)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3.2	4.6	15.3	21.6	30.3	23.1	100.0 (1,910)
노인부부	3.3	4.9	8.7	20.2	22.0	24.6	16.4	100.0 (4,961)
자녀동거	2.8	5.0	7.6	16.7	20.9	23.8	23.2	100.0 (2,576)
기타	2.3	3.5	7.9	16.0	20.4	27.8	22.0	100.0 ( 43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7	3.5	4.2	15.1	23.5	25.9	27.1	100.0 (1,100)
무학(글자해독)	2.2	3.3	6.7	16.4	20.6	27.3	23.5	100.0 (2,066)
초등학교	2.5	4.2	7.4	17.9	21.9	28.3	17.8	100.0 (3,551)
중·고등학교	4.4	5.4	8.8	20.4	20.9	21.4	18.6	100.0 (2,500)
전문대학 이상	4.0	7.8	12.9	21.5	21.9	21.8	10.2	100.0 ( 657)
현 취업상태								
취업중	3.0	4.3	7.9	19.8	21.7	25.6	17.8	100.0 (3,362)
미취업	2.7	4.6	7.5	17.3	21.5	25.6	20.7	100.0 (6,513)
연가구조소득								
제1오분위	1.6	3.4	4.8	15.0	21.7	27.8	25.7	100.0 (1,936)
제2오분위	1.3	3.5	6.0	17.9	21.0	29.7	20.5	100.0 (2,030)
제3오분위	3.6	4.4	7.6	20.7	19.8	24.9	19.0	100.0 (2,018)
제4오분위	4.3	5.0	8.9	16.9	22.9	24.1	18.0	100.0 (1,997)
제5오분위	3.5	6.3	10.9	20.2	22.4	21.4	15.3	100.0 (1,8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9	4.6	7.7	18.6	21.9	25.5	18.8	100.0 (8,478)
제한 있음	2.4	4.0	7.0	15.6	19.5	26.0	25.5	100.0 (1,398)
2008년도	4.3	5.3	10.3	22.7	16.8	22.5	18.1	100.0 (10,2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641명, 무응답 28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제5절 부모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노인의 5%만이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생존 부모의 대다수는 어머니이다. 이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생존해 계신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본인 부모는 평균연령이 89.5세이며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아버지는 89.1세 어머니는 87.7세로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약간 낮은 편이다(표 II-2-11 참조). 또한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의 아버지의 경우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7.9%, 본인의 어머니의 경우 43.7%로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나은 편이다. 배우자의 부모도 아버지는 47.9%, 배우자의 어머니는 36.8%로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상태의 차이는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큰데, 이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표 II-2-12와 표II-2-13 참조).

〈표 II-2-14〉을 통하여 부모와의 왕래 실태를 살펴보면 14.3%만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비동거 자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손자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년 1,2회 왕래한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빈도이다. 연락빈도의 경우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34.9%로 왕래빈도에 비하여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 또한 자녀와의 연락빈도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이다(표 II-2-15 참조) 그러나 손자녀에 비해서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높다. 이는 부모와의 교류는 노인 자신과 부모의 노화에 따라 직접적인 방문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전화를 통한 교류는 공통의 관심사와 유사한 감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모 세대와의 왕래가 손자녀와의 왕래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본인 부모와의 왕래 및 접촉에 비하여 빈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본인 부모의 경우와 유사하다(표 II-2-15와 표 II-2-16 참조).

〈표 11-2-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실태 및 연령

(단위: %, 명, 세)

		부모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두분 모두 사망	계 <sup>1)</sup> (명)	연령	
							부 (세)	모 (세)
2011	본인의 부모	0.3	0.3	4.5	95.0	100.0 (10,544)	89.54	89.45
	배우자의 부모	0.3	0.4	6.6	92.7	100.0 (7,101)	89.06	87.73
2008	본인의 부모	0.1	0.3	3.5	96.1	100.0 (10,708)	-	-
	배우자의 부모	0.3	0.3	3.9	95.6	100.0 (10,603)	-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2-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본인의 아버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sup>1)</sup>	2.1	45.8	33.3	18.8	100.0 (48)
지역					
동부	2.8	50.0	27.8	19.4	100.0 (36)
읍·면부	0.0	35.7	50.0	14.3	100.0 (14)
성					
남자	0.0	55.6	30.6	13.9	100.0 (36)
여자	7.7	15.4	38.5	38.5	100.0 (13)
연령					
65~69세	2.4	43.9	36.6	17.1	100.0 (41)
70~74세	0.0	66.7	16.7	16.7	100.0 ( 6) <sup>3)</sup>
75~79세	0.0	0.0	0.0	100.0	100.0 ( 1) <sup>3)</sup>
2008년도	7.5	56.1	23.1	13.3	100.0 (45)
본인의 어머니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sup>2)</sup>	1.5	42.2	31.9	24.3	100.0 (498)
지역					
동부	0.8	44.7	30.1	24.4	100.0 (369)
읍·면부	3.1	35.2	37.5	24.2	100.0 (128)
성					
남자	1.5	40.8	30.5	27.1	100.0 (262)
여자	1.3	44.1	33.5	21.2	100.0 (236)
연령					
65~69세	0.8	42.1	30.7	26.4	100.0 (375)
70~74세	4.3	43.0	32.3	20.4	100.0 ( 93)
75~79세	0.0	40.0	48.0	12.0	100.0 ( 25)
80~84세	0.0	50.0	50.0	0.0	100.0 ( 4) <sup>3)</sup>
2008년도	1.2	39.3	35.9	23.6	100.0 (39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4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49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1-2-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배우자의 아버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sup>1)</sup>	2.1	45.8	33.3	18.8	100.0 (48)
지역					
동부	2.6	42.1	36.8	18.4	100.0 (38)
읍·면부	0.0	58.3	33.3	8.3	100.0 (12)
성					
남자	2.6	33.3	46.2	17.9	100.0 (37)
여자	0.0	83.3	8.3	8.3	100.0 (12)
연령					
65~69세	0.0	44.4	41.7	13.9	100.0 (36)
70~74세	0.0	50.0	33.3	16.7	100.0 (12)
75~79세	50.0	50.0	0.0	0.0	100.0 ( 2 ) <sup>3)</sup>
2008년도	11.6	34.7	35.6	18.1	100.0 (58)
배우자의 어머니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sup>2)</sup>	0.3	36.5	40.2	23.0	100.0 (491)
지역					
동부	0.3	36.1	40.1	23.6	100.0 (382)
읍·면부	0.9	37.6	40.4	21.1	100.0 (109)
성					
남자	0.3	35.0	43.2	21.5	100.0 (377)
여자	0.9	40.9	30.4	27.8	100.0 (115)
연령					
65~69세	0.3	37.6	44.8	17.3	100.0 (335)
70~74세	0.0	37.4	34.6	28.0	100.0 (107)
75~79세	0.0	26.7	17.8	55.6	100.0 ( 45)
80~84세	0.0	33.3	66.7	0.0	100.0 ( 3 ) <sup>3)</sup>
2008년도	2.8	36.8	36.5	24.0	100.0 (4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49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2-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5.0	4.0	5.3	27.0	16.4	34.4	7.9	100.0 (378)
지역								
동부	4.1	3.1	5.8	29.7	16.0	32.4	8.9	100.0 (293)
읍·면부	8.2	7.1	2.4	17.6	18.8	41.2	4.7	100.0 ( 85)
성								
남자	5.7	4.5	6.4	33.8	17.2	22.9	9.6	100.0 (157)
여자	4.5	3.6	4.5	22.1	15.8	42.8	6.8	100.0 (222)
연령								
65~69세	4.8	4.1	5.5	30.6	17.5	29.2	8.2	100.0 (291)
70~74세	6.8	5.1	1.7	20.3	10.2	49.2	6.8	100.0 ( 59)
75~79세	0.0	0.0	12.0	4.0	16.0	64.0	4.0	100.0 ( 25)
80~84세	33.3	0.0	0.0	0.0	33.3	0.0	33.3	100.0 ( 3) <sup>3)</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	3.2	4.5	28.5	17.5	32.7	8.7	100.0 (309)
배우자 없음	5.9	5.9	7.4	20.6	11.8	44.1	4.4	100.0 ( 6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7	0.0	18.2	9.1	13.6	27.3	9.1	100.0 ( 22)
무학(글자해독)	0.0	5.6	2.8	22.2	22.2	41.7	5.6	100.0 ( 36)
초등학교	4.2	2.1	4.2	13.7	16.8	50.5	8.4	100.0 ( 95)
중·고등학교	6.1	4.1	3.4	27.0	18.9	29.1	11.5	100.0 (148)
전문대학 이상	0.0	5.4	8.1	52.7	9.5	24.3	0.0	100.0 ( 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5.7	4.5	3.2	30.6	14.6	33.8	7.6	100.0 (157)
미취업	4.5	3.2	6.8	24.5	17.7	35.0	8.2	100.0 (2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1	2.6	2.6	28.2	12.8	25.6	23.1	100.0 ( 39)
제2오분위	11.5	5.8	3.8	9.6	13.5	46.2	9.6	100.0 ( 52)
제3오분위	5.9	0.0	8.8	20.6	13.2	47.1	4.4	100.0 ( 68)
제4오분위	5.5	3.3	2.2	30.8	7.7	41.8	8.8	100.0 ( 91)
제5오분위	2.4	5.5	6.3	34.6	27.6	20.5	3.1	100.0 (12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4	4.0	4.8	28.0	16.9	33.6	7.3	100.0 (354)
제한 있음	0.0	0.0	8.7	17.4	8.7	47.8	17.4	100.0 ( 23)
2008년도	4.7	4.6	8.4	20.3	20.3	34.8	7.0	100.0 (30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386명 중 무응답 8명 제외한 37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2-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7.1	9.3	18.5	29.1	13.2	8.5	14.3	100.0 (378)
지역								
동부	7.8	9.5	17.7	29.3	12.9	7.8	15.0	100.0 (294)
읍·면부	4.7	8.2	22.4	28.2	14.1	10.6	11.8	100.0 ( 85)
성								
남자	4.5	11.0	20.0	25.8	17.4	7.7	13.5	100.0 (155)
여자	9.0	8.1	17.6	31.5	9.9	9.0	14.9	100.0 (222)
연령								
65~69세	7.9	9.6	22.0	28.5	12.0	6.2	13.7	100.0 (291)
70~74세	5.1	6.8	10.2	28.8	20.3	11.9	16.9	100.0 ( 59)
75~79세	0.0	11.5	3.8	34.6	11.5	23.1	15.4	100.0 ( 26)
80~84세	33.3	33.3	0.0	0.0	0.0	33.3	0.0	100.0 ( 3) <sup>3)</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7	9.7	19.7	28.7	12.6	8.1	13.5	100.0 (310)
배우자 없음	4.5	7.5	13.4	31.3	16.4	10.4	16.4	100.0 ( 6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7	13.6	9.1	18.2	18.2	13.6	4.5	100.0 ( 22)
무학(글자해독)	2.7	2.7	13.5	48.6	16.2	2.7	13.5	100.0 ( 37)
초등학교	5.2	8.2	19.6	20.6	17.5	13.4	15.5	100.0 ( 97)
중·고등학교	8.8	10.2	15.6	25.9	14.3	10.2	15.0	100.0 (147)
전문대학 이상	4.0	10.7	28.0	40.0	2.7	0.0	14.7	100.0 ( 7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	10.7	22.0	27.0	10.7	12.6	13.2	100.0 (159)
미취업	10.0	8.2	15.9	30.0	15.0	5.9	15.0	100.0 (2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	2.5	22.5	12.5	25.0	17.5	15.0	100.0 ( 40)
제2오분위	9.4	7.5	13.2	20.8	22.6	13.2	13.2	100.0 ( 53)
제3오분위	1.4	15.9	11.6	33.3	14.5	2.9	20.3	100.0 ( 69)
제4오분위	5.4	3.2	25.8	30.1	6.5	9.7	19.4	100.0 ( 93)
제5오분위	11.2	13.6	18.4	33.6	8.8	6.4	8.0	100.0 (12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9	9.6	18.3	28.7	12.4	9.0	14.1	100.0 (355)
제한 있음	0.0	4.3	26.1	30.4	21.7	4.3	13.0	100.0 ( 23)
2008년도	5.0	9.2	13.2	27.8	14.0	21.1	9.7	100.0 (30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386명 중 무응답 8명 제외한 37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2-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1.8	2.2	5.5	17.1	21.5	43.2	8.8	100.0 (456)
지역								
동부	1.7	1.7	5.2	16.9	22.4	43.4	8.8	100.0 (362)
읍·면부	3.2	3.2	6.5	18.3	18.3	41.9	8.6	100.0 ( 93)
성								
남자	1.3	1.0	3.7	17.0	21.7	46.0	9.4	100.0 (383)
여자	4.1	8.2	15.1	17.8	20.5	28.8	5.5	100.0 ( 73)
연령								
65~69세	1.9	2.6	5.8	19.2	21.8	42.6	6.1	100.0 (312)
70~74세	0.0	1.1	5.3	9.5	28.4	46.3	9.5	100.0 ( 95)
75~79세	4.3	2.2	4.3	17.4	4.3	41.3	26.1	100.0 ( 46)
80~84세	0.0	0.0	0.0	33.3	33.3	33.3	0.0	100.0 ( 3) <sup>3)</sup>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50.0	0.0	50.0	0.0	0.0	100.0 ( 2) <sup>3)</sup>
무학(글자해독)	6.1	3.0	3.0	9.1	24.2	36.4	18.2	100.0 ( 33)
초등학교	1.8	1.8	9.2	14.7	16.5	41.3	14.7	100.0 (109)
중·고등학교	1.8	2.6	4.4	14.5	20.6	50.0	6.1	100.0 (228)
전문대학 이상	0.0	0.0	3.6	30.1	30.1	31.3	4.8	100.0 ( 83)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	1.0	5.1	14.9	24.1	45.6	5.6	100.0 (195)
미취업	0.8	3.1	5.7	18.7	19.5	41.2	11.1	100.0 (26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7.4	7.4	7.4	11.1	11.1	55.6	100.0 ( 27)
제2오분위	3.7	3.7	9.3	11.1	14.8	48.1	9.3	100.0 ( 54)
제3오분위	3.8	1.3	3.8	20.5	25.6	38.5	6.4	100.0 ( 78)
제4오분위	1.4	3.5	8.5	19.1	19.1	46.1	2.1	100.0 (141)
제5오분위	1.3	0.0	2.5	17.1	25.3	46.2	7.6	100.0 (15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	2.0	5.2	17.3	21.6	43.0	8.9	100.0 (440)
제한 있음	0.0	0.0	12.5	12.5	18.8	50.0	6.3	100.0 ( 16)
2008년도	3.1	3.7	6.9	18.5	16.1	44.1	7.6	100.0 (39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의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460명 중 무응답 4명 제외한 4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2-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2.2	5.7	11.0	32.5	11.8	15.4	21.5	100.0 (456)
지역								
동부	2.2	5.8	9.7	34.3	11.0	16.6	20.4	100.0 (362)
읍·면부	2.1	5.3	16.0	25.5	14.9	10.6	25.5	100.0 ( 94)
성								
남자	2.1	5.2	11.2	32.1	11.7	17.8	19.8	100.0 (383)
여자	2.8	8.3	8.3	34.7	12.5	2.8	30.6	100.0 ( 72)
연령								
65~69세	2.6	5.8	12.2	35.4	10.3	14.1	19.6	100.0 (311)
70~74세	0.0	4.3	10.8	24.7	18.3	18.3	23.7	100.0 ( 93)
75~79세	4.3	8.5	4.3	27.7	10.6	14.9	29.8	100.0 ( 47)
80~84세	0.0	0.0	0.0	66.7	0.0	33.3	0.0	100.0 ( 3) <sup>3)</sup>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100.0	0.0	0.0	0.0	0.0	0.0	100.0 ( 2) <sup>3)</sup>
무학(글자해독)	6.3	3.1	0.0	28.1	15.6	9.4	37.5	100.0 ( 32)
초등학교	0.9	8.2	7.3	25.5	10.9	17.3	30.0	100.0 (110)
중·고등학교	3.5	5.7	12.2	33.2	13.5	18.3	13.5	100.0 (229)
전문대학 이상	0.0	3.6	15.7	42.2	7.2	6.0	25.3	100.0 ( 83)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	4.1	9.3	32.0	10.8	19.1	22.2	100.0 (194)
미취업	1.9	6.9	12.3	33.0	12.6	12.3	21.1	100.0 (26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3.8	0.0	53.8	3.8	7.7	30.8	100.0 ( 26)
제2오분위	0.0	1.9	7.5	22.6	15.1	20.8	32.1	100.0 ( 53)
제3오분위	6.5	3.9	10.4	39.0	14.3	7.8	18.2	100.0 ( 77)
제4오분위	1.4	10.7	15.0	27.1	7.1	26.4	12.1	100.0 (140)
제5오분위	1.9	3.8	10.1	34.2	15.2	8.9	25.9	100.0 (15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	5.9	10.7	32.5	11.1	15.5	22.0	100.0 (440)
제한 있음	0.0	0.0	20.0	33.3	33.3	6.7	6.7	100.0 ( 15)
2008년도	5.0	9.2	13.2	27.8	14.0	21.1	9.7	100.0 (39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의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460명 중 무응답 4명 제외한 4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제6절 형제자매·친척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친인척이 없는 노인은 없지만 친하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왕래 또한 직계와의 교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8과 표 II-2-19 참조). 대면 접촉의 경우는 년 1,2회가 대표적인 빈도로 약 40%대의 노인이 형제자매·친척과 년 1,2회 왕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락의 경우는 한 달에 1회 정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의 15% 정도가 전혀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과 만나지 않고 있으며, 11.2%가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82%의 노인이 형제자매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왕래하고 있지 않을 경우 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류 실태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왕래가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17.6%인데 비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24.5%로 7%포인트 높다. 그러나 연락빈도의 경우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동부의 15.1%와 읍·면부의 17.3%로 왕래 빈도에 비하여 지역 간 차이가 적은 편이다. 물리적 거리 및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족문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의 형제자매·친척과의 대면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의 경우는 지역별 특성과 상반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대면 접촉의 경우는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남자노인이 19.2%, 여자노인이 20.2%이며, 전혀 왕래가 없는 비율은 오히려 여자노인이 16.5%로 남자노인의 12.6%보다 높다. 그러나 연락의 경우는 주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남자노인이 13.6%로 여자노인의 17.5%에 비하여 낮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대화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왕래나 연락이 없는 비율이 높아지고 왕래 및 연락빈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과 형제자매·친인척의 기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왕래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비율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 형제자매·친인척과 전혀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매우 취약함을 볼 수 있다. 가까운 친인척이 많을수록 왕래나 연락빈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왕래나 연락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 무학 노인의 경우 18.8%가 월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11.8%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반면 전혀 왕래가 없다는 응답이 23.2%이며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18.7%이다. 이에 비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노인의 경우 월 1회 이상 왕래 비율이 24.6%, 주 1회 이상 연락 비율이 18.8%이며, 전혀 왕래가 없는 비율이 7.1%, 전혀 연락이 없는 비율이 5.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또한 취업의 경우 취업하고 있는 노인이, 기능상태의 경우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이 형제자매·친인척과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3.6	2.3	3.2	10.7	22.8	42.5	14.8	100.0 (10,505)
지역								
동부	1.8	1.8	2.8	11.2	23.5	43.3	15.6	100.0 ( 7,117)
읍·면부	7.5	3.4	4.0	9.7	21.5	40.6	13.3	100.0 ( 3,388)
성								
남자	3.6	2.3	3.0	10.3	26.1	42.0	12.6	100.0 ( 4,532)
여자	3.6	2.3	3.3	11.0	20.4	42.8	16.5	100.0 ( 5,973)
연령								
65~69세	3.3	2.6	3.5	13.6	28.6	39.0	9.4	100.0 ( 3,139)
70~74세	3.8	2.3	3.7	11.4	24.2	42.1	12.5	100.0 ( 3,220)
75~79세	3.7	2.3	2.5	9.5	19.8	45.0	17.2	100.0 ( 2,379)
80~84세	4.1	2.1	2.8	6.5	16.0	46.5	22.2	100.0 ( 1,159)
85세 이상	3.4	1.8	2.6	4.9	11.1	44.4	31.8	100.0 ( 6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3	2.4	3.3	11.3	26.2	42.2	11.3	100.0 ( 7,098)
배우자 없음	4.3	2.2	2.9	9.5	15.8	43.0	22.3	100.0 ( 3,405)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b>가구형태</b>								
노인독거	5.0	3.1	3.3	9.4	14.7	40.9	23.5	100.0 ( 2,077)
노인부부	3.3	2.5	3.7	10.8	26.2	42.4	11.1	100.0 ( 5,108)
자녀동거	3.1	1.3	2.6	11.3	22.8	43.2	15.7	100.0 ( 2,832)
기타	4.7	2.9	1.4	11.5	22.2	45.5	11.7	100.0 ( 486)
<b>가까운 친인척수</b>								
0명	2.6	1.3	1.9	6.8	17.8	42.2	27.4	100.0 ( 4,748)
1명	4.2	3.1	4.1	13.1	24.9	44.2	6.3	100.0 ( 2,066)
2명	4.6	2.7	3.7	13.7	28.1	44.0	3.2	100.0 ( 1,834)
3명	3.8	3.5	3.8	15.0	28.9	40.6	4.3	100.0 ( 834)
4명	7.4	5.4	7.7	13.4	25.9	36.9	3.4	100.0 ( 352)
5명	4.9	2.3	5.5	18.7	31.4	34.9	2.3	100.0 ( 347)
6명 이상	4.3	2.5	4.0	13.9	25.6	45.7	4.0	100.0 ( 324)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5.9	2.2	3.5	7.2	14.3	43.7	23.2	100.0 ( 1,140)
무학(글자해독)	4.0	3.1	3.0	8.2	17.7	43.6	20.5	100.0 ( 2,179)
초등학교	3.8	2.1	2.7	10.9	22.9	44.5	13.1	100.0 ( 3,728)
중·고등학교	2.7	2.1	3.5	12.6	28.0	39.9	11.2	100.0 ( 2,725)
전문대학 이상	1.9	2.5	4.4	15.8	32.2	36.2	7.1	100.0 ( 733)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6.2	3.4	3.6	11.2	25.8	39.4	10.4	100.0 ( 3,554)
미취업	2.4	1.8	3.0	10.4	21.3	44.0	17.1	100.0 ( 6,951)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4.5	2.9	2.7	7.9	16.4	43.4	22.3	100.0 ( 2,102)
제2오분위	3.7	2.3	3.5	8.0	20.2	45.2	17.0	100.0 ( 2,115)
제3오분위	3.6	2.8	3.1	10.6	23.5	43.8	12.5	100.0 ( 2,098)
제4오분위	3.3	2.2	3.2	11.7	27.2	39.1	13.3	100.0 ( 2,104)
제5오분위	3.1	1.4	3.5	15.2	26.9	40.9	9.0	100.0 ( 2,086)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3.7	2.4	3.2	11.4	24.1	42.1	13.1	100.0 ( 9,039)
제한 있음	3.1	2.1	3.2	6.1	15.2	44.7	25.6	100.0 ( 1,464)
<b>2008년도</b>	<b>4.0</b>	<b>2.9</b>	<b>3.7</b>	<b>11.8</b>	<b>16.1</b>	<b>50.5</b>	<b>10.9</b>	<b>100.0 ( 9,398)</b>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11명, 무응답 28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표 11-2-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2.1	4.4	9.3	29.9	24.5	18.5	11.2	100.0 (10,512)
지역								
동부	1.9	4.2	9.0	30.0	24.6	18.4	11.9	100.0 ( 7,123)
읍·면부	2.4	4.9	10.0	29.8	24.2	18.8	9.9	100.0 ( 3,390)
성								
남자	1.6	4.3	7.7	31.0	26.2	18.4	10.8	100.0 ( 4,535)
여자	2.4	4.5	10.6	29.1	23.2	18.6	11.6	100.0 ( 5,979)
연령								
65~69세	2.3	5.9	11.7	34.9	23.9	14.0	7.3	100.0 ( 3,140)
70~74세	2.2	4.2	9.2	32.2	25.2	17.8	9.2	100.0 ( 3,219)
75~79세	1.6	3.9	8.1	28.3	26.0	19.7	12.4	100.0 ( 2,385)
80~84세	2.2	3.2	7.8	20.4	23.3	26.9	16.2	100.0 ( 1,160)
85세 이상	1.3	2.3	5.4	16.9	20.5	25.9	27.8	100.0 ( 6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9	4.8	9.6	32.3	25.2	17.6	8.6	100.0 ( 7,103)
배우자 없음	2.5	3.7	8.9	24.9	23.0	20.5	16.6	100.0 ( 3,412)
가구형태								
노인독거	2.8	3.8	9.8	24.1	22.9	18.6	17.9	100.0 ( 2,082)
노인부부	1.7	4.8	9.1	32.9	24.9	18.2	8.4	100.0 ( 5,112)
자녀동거	2.1	4.0	9.6	29.0	24.5	18.9	12.0	100.0 ( 2,834)
기타	2.1	5.8	8.0	29.2	27.4	19.5	8.0	100.0 ( 486)
가까운 친인척수								
0명	1.3	2.6	5.7	21.2	23.1	24.4	21.6	100.0 ( 4,757)
1명	3.0	5.1	11.7	33.1	28.3	15.6	3.1	100.0 ( 2,066)
2명	1.6	5.5	13.5	39.0	25.3	12.8	2.2	100.0 ( 1,831)
3명	2.8	4.7	14.5	37.9	24.7	13.9	1.6	100.0 ( 834)
4명	4.8	13.1	8.8	34.5	22.8	12.0	4.0	100.0 ( 351)
5명	4.0	8.0	10.1	45.1	23.6	6.6	2.6	100.0 ( 348)
6명 이상	2.8	6.8	9.6	44.7	17.7	14.9	3.4	100.0 ( 32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	2.9	7.3	22.6	22.4	24.6	18.7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2.5	3.5	8.5	25.2	25.1	20.6	14.5	100.0 ( 2,179)
초등학교	1.6	4.7	10.4	30.2	24.7	18.7	9.7	100.0 ( 3,730)
중·고등학교	2.2	4.7	9.5	33.4	24.9	16.1	9.2	100.0 ( 2,727)
전문대학 이상	3.3	6.8	8.7	41.1	23.4	11.4	5.2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	5.4	10.7	32.8	24.6	16.7	7.2	100.0 ( 3,553)
미취업	1.8	3.9	8.6	28.4	24.4	19.5	13.3	100.0 ( 6,961)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3.8	7.7	23.1	24.4	21.3	17.9	100.0 ( 2,105)
제2오분위	1.5	3.9	8.0	26.3	25.7	21.4	13.3	100.0 ( 2,112)
제3오분위	1.7	4.6	9.9	32.6	24.1	18.2	9.0	100.0 ( 2,100)
제4오분위	2.0	4.6	11.0	33.3	23.3	17.0	8.8	100.0 ( 2,106)
제5오분위	3.3	5.3	10.1	34.3	25.0	14.9	7.1	100.0 ( 2,091)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	4.7	9.6	31.4	24.8	17.7	9.7	100.0 ( 9,047)
제한 있음	1.1	2.5	7.8	21.0	22.7	24.0	20.9	100.0 ( 1,467)
2008년도	4.2	4.5	9.5	26.8	20.0	28.2	6.6	100.0 ( 9,3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11명, 무응답 20명을 제외한.

2) 기타 포함

## 제7절 친구·이웃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비친족으로 노인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친구·이웃의 경우 약 40% 대의 노인이 매일 이들과 왕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약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는 비동거자녀에 비하여 왕래빈도는 활발한 반면 연락빈도는 낮은 것으로, 대면 접촉에 있어 친구·이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구·이웃과 전혀 왕래가 없다는 응답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약 5%정도가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연락이 전혀 없는 노인도 약 14%로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2-20〉와 〈표 II-2-21〉을 보면 친구·이웃과의 교류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63.0%가 거의 매일 친구·이웃을 만나고 있는데 비하여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34.0%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혀 왕래가 없다는 응답도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는 1.4%인 반면 동부는 6.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면 접촉에 있어서의 지역별 차이에 비하여 연락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즉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든 응답률은 동부 노인이 13.6%이며 읍·면부 노인이 17.4%이고,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동부가 14.1%, 읍·면부가 12.6%이다.

한편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경우 거의 매일 만난다는 응답률이 48.6%로 절반 정

도인데 비하여 남자노인은 36.4%로 12.2%포인트가 낮다. 연락빈도의 경우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여자노인이 16.5%로 남자노인의 12.6%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률 또한 15.1%로 남자노인의 11.7%보다 높다. 즉 여자노인의 경우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에 있어 편차가 크다. 한편 연령군별로는 연령에 따라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에 있어 크지는 않지만  $\cap$ 형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전기노인은 상대적으로 후기노인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여 이웃과 매일 왕래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왕래가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후기노인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락빈도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층에서 연락빈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65~69세 연령군의 경우 17.1%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적어도 한 달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86.3%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85세 이상의 경우는 동 비율이 56.8%에 불과하며 29.8%가 전혀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다.

결혼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왕래빈도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하여 약간 활발한 편이지만 연락빈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교류에 있어서는 교류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이웃과 왕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락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적극적으로 유대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형태의 경우도 유사하여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거의 매일 친구·이웃과 만나는 경우가 54.6%이지만 노인부부가구는 42.6%, 자녀동거가구는 36.7%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노인부부의 경우 11.2%로 가장 낮다.

가까운 친구·이웃수가 많을수록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높고 거의 왕래나 연락이 없는 비율이 낮다. 즉 친한 친구·이웃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왕래나 연락빈도가 높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의 측면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웃·친구와의 왕래빈도가 낮는데, 이러한 왕래에 보통 이웃과의 왕래빈도의 영향이 크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이웃보다는 더 광의의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웃 보다는 친구와의 교류는 전화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이웃수가 많기 때문에(표 II-2-2 참조), 친구·이웃과 연락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또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기능 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왕래나 연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1.9%만이 전혀 왕래가 없고 9.4%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데 비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경우 동비율이 각각 6.2%와 15.8%로 높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전혀 왕래가 없는 비율이 13.0%, 연락이 없는 경우가 29.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3.4%와 11.0%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II-2-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43.3	19.4	13.6	13.2	3.2	2.5	4.7	100.0 (10,521)
지역								
동부	34.0	20.4	15.4	16.8	3.9	3.2	6.3	100.0 ( 7,133)
읍·면부	63.0	17.3	9.8	5.8	1.6	1.2	1.4	100.0 ( 3,389)
성								
남자	36.4	18.4	14.3	17.7	4.5	3.5	5.2	100.0 ( 4,534)
여자	48.6	20.2	13.1	9.8	2.1	1.8	4.3	100.0 ( 5,986)
연령								
65~69세	39.1	19.4	14.4	17.5	4.1	2.4	3.1	100.0 ( 3,147)
70~74세	43.2	20.6	13.6	13.2	2.6	2.7	4.1	100.0 ( 3,216)
75~79세	48.1	18.0	13.4	9.7	3.4	2.5	4.9	100.0 ( 2,389)
80~84세	45.5	20.5	11.7	11.7	1.9	2.4	6.3	100.0 ( 1,158)
85세 이상	42.8	17.1	13.7	8.3	2.8	2.8	12.5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0.2	19.5	14.2	15.1	3.7	2.7	4.7	100.0 ( 7,103)
배우자 없음	49.9	19.4	12.4	9.3	2.0	2.2	4.9	100.0 (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54.6	19.2	11.6	7.7	1.8	2.1	2.9	100.0 ( 2,086)
노인부부	42.6	18.3	14.6	14.5	3.1	2.6	4.3	100.0 ( 5,107)
자녀동거	36.7	21.6	13.4	14.9	4.2	2.6	6.6	100.0 ( 2,845)
기타	41.3	19.8	12.6	14.3	3.7	2.7	5.6	100.0 ( 484)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sup>2)</sup>	계 (명)
<b>가까운 친구이웃수</b>								
0명	35.8	17.4	12.0	10.0	3.5	3.7	17.6	100.0 ( 2,523)
1명	44.6	18.0	13.3	15.0	3.6	4.1	1.5	100.0 ( 1,654)
2명	41.7	20.8	15.5	15.1	3.9	2.3	0.7	100.0 ( 2,229)
3명	43.4	23.1	16.2	13.1	2.1	1.7	0.4	100.0 ( 1,546)
4명	51.3	16.3	13.9	14.4	2.7	1.0	0.4	100.0 ( 707)
5명	49.5	22.8	10.7	13.4	2.5	1.0	0.1	100.0 ( 921)
6명 이상	52.7	17.2	12.2	13.7	2.3	1.5	0.4	100.0 ( 945)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59.4	16.9	10.6	5.6	1.2	1.3	5.1	100.0 ( 1,144)
무학(글자해독)	52.0	17.9	11.9	9.1	2.1	1.7	5.4	100.0 ( 2,179)
초등학교	45.1	20.6	13.6	11.5	2.6	2.5	4.2	100.0 ( 3,737)
중·고등학교	32.6	19.4	15.3	18.7	5.0	3.7	5.4	100.0 ( 2,727)
전문대학 이상	23.8	22.3	17.0	26.3	5.3	2.7	2.5	100.0 ( 734)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54.1	15.8	11.7	11.9	2.5	2.2	1.9	100.0 ( 3,561)
미취업	37.8	21.3	14.6	13.9	3.5	2.7	6.2	100.0 ( 6,959)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52.6	18.7	12.8	7.6	2.2	1.9	4.2	100.0 ( 2,105)
제2오분위	45.2	20.0	13.4	10.7	2.7	1.9	6.1	100.0 ( 2,114)
제3오분위	44.3	16.4	14.7	14.2	2.7	3.5	4.2	100.0 ( 2,097)
제4오분위	39.4	21.7	13.4	16.1	3.5	2.4	3.6	100.0 ( 2,112)
제5오분위	35.0	20.4	13.7	17.7	4.7	3.0	5.5	100.0 ( 2,093)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44.7	19.8	13.6	13.5	2.9	2.2	3.4	100.0 ( 9,056)
제한 있음	35.0	17.2	13.6	11.8	4.8	4.6	13.0	100.0 ( 1,466)
2008년도	38.3	23.9	16.2	15.2	3.5	2.1	0.8	100.0 ( 7,83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4명, 무응답 19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표 11-2-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14.8	17.9	22.1	23.0	5.0	3.5	13.6	100.0 (10,521)
지역								
동부	13.6	18.4	22.3	23.3	4.9	3.4	14.1	100.0 ( 7,135)
읍·면부	17.4	16.8	21.7	22.4	5.4	3.7	12.6	100.0 ( 3,388)
성								
남자	12.6	16.8	22.4	26.7	6.0	3.9	11.7	100.0 ( 4,536)
여자	16.5	18.7	21.9	20.3	4.3	3.2	15.1	100.0 ( 5,985)
연령								
65~69세	17.1	20.8	25.3	23.1	4.2	2.2	7.3	100.0 ( 3,145)
70~74세	14.3	18.5	24.2	22.5	5.3	3.2	12.0	100.0 ( 3,220)
75~79세	15.3	15.8	19.2	23.9	5.0	4.0	16.8	100.0 ( 2,387)
80~84세	11.9	16.1	18.0	22.9	6.1	5.1	19.9	100.0 ( 1,158)
85세 이상	9.5	11.0	14.4	21.9	6.4	7.0	29.8	100.0 ( 6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0	18.0	23.3	24.4	5.4	3.4	11.5	100.0 ( 7,104)
배우자 없음	16.4	17.7	19.7	20.2	4.3	3.8	17.9	100.0 (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17.7	19.2	19.7	19.8	4.1	4.1	15.5	100.0 ( 2,084)
노인부부	14.7	18.2	23.5	23.3	5.6	3.5	11.2	100.0 ( 5,107)
자녀동거	13.0	17.0	21.1	24.5	4.8	3.0	16.5	100.0 ( 2,847)
기타	14.0	13.8	24.2	25.2	4.3	4.3	14.0	100.0 ( 484)
가까운 친구이웃수								
0명	5.8	10.1	13.4	21.5	6.6	7.3	35.4	100.0 ( 2,524)
1명	17.4	14.6	26.6	24.5	5.2	3.9	7.7	100.0 ( 1,652)
2명	15.5	19.2	25.4	25.3	5.4	2.2	6.9	100.0 ( 2,226)
3명	16.2	22.4	26.6	22.4	4.5	1.9	6.1	100.0 ( 1,546)
4명	18.4	23.5	20.9	23.5	4.0	1.7	8.1	100.0 ( 707)
5명	17.6	23.8	23.8	22.3	4.0	1.3	7.3	100.0 ( 922)
6명 이상	24.9	24.0	21.9	20.5	2.5	2.0	4.1	100.0 ( 94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0	10.3	19.0	20.7	4.6	5.2	25.2	100.0 ( 1,145)
무학(글자해독)	14.6	16.1	21.1	21.3	4.9	4.1	17.9	100.0 ( 2,179)
초등학교	15.1	19.4	21.4	23.7	5.1	3.2	12.0	100.0 ( 3,736)
중·고등학교	14.9	18.9	23.7	24.0	5.3	3.2	9.9	100.0 ( 2,729)
전문대학 이상	12.7	23.6	28.1	24.5	4.8	1.9	4.5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0	17.9	24.0	23.0	4.5	3.1	9.4	100.0 ( 3,561)
미취업	13.2	17.9	21.1	23.0	5.3	3.7	15.8	100.0 ( 6,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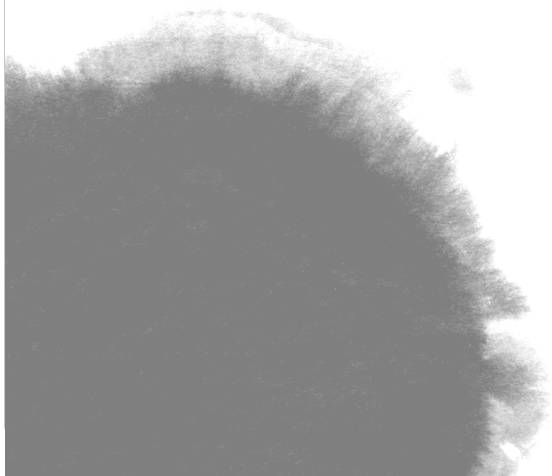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3	16.2	18.8	19.6	5.4	3.9	20.8	100.0 ( 2,105)
제2오분위	13.9	18.1	20.2	23.9	6.0	4.0	13.9	100.0 ( 2,116)
제3오분위	14.2	17.7	24.5	23.6	4.9	3.7	11.4	100.0 ( 2,098)
제4오분위	15.5	18.6	24.4	24.1	4.1	2.9	10.4	100.0 ( 2,109)
제5오분위	15.1	18.9	22.6	24.0	4.8	3.0	11.5	100.0 ( 2,09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8	19.0	23.0	23.3	4.8	3.1	11.0	100.0 ( 9,058)
제한 있음	8.7	11.1	17.0	21.0	6.2	6.0	29.9	100.0 ( 1,464)
2008년도	33.4	27.7	20.4	13.4	1.8	1.3	2.1	100.0 ( 7,82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4명, 무응답 19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03

## 노인의 부양교향악대





## 제3장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은 노후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환은 그 내용이 다양하며 크게 정서적 지원, 가사노동이나 수발지원과 같은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이러한 제 측면의 지원의 제공과 수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었다.

### 제1 절 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

〈표 II-3-1〉 ~ 〈표 II-3-6〉에 의하면 64.8%의 노인이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서적 도움을 동거자녀에게 주었다는 응답 또한 59.8%이다.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은 비율이 5%포인트 높지만 대체적으로 50~60% 정도의 노인이 정서적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식사준비·세탁 등 도구적 도움의 경우도 59.2%가 받고 있으며 61.7%가 주고 있다. 간병·수발·병원 동반 등의 경우는 수혜율이 62.3%인 반면 제공률은 27.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과 자녀간의 비교적 활발한 도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발의 경우는 부모의 노화나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공보다는 도움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경제적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정서적 도움이나 도구적 도움과는 달리

노인이 주기보다는 받는 방향의 교환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이 활발하여 각각 74.6%와 76.6%의 노인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비정기 현금지원을 한 경우는 27.0%, 현물지원을 한 경우는 45.4%이다. 또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40.8%가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반면 노인의 4.6%만이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동거자녀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기 보다는 노인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다는 점에서 동거실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II-3-7 참조).

이러한 동거자녀와의 제 측면의 교환실태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동부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녀와 좀 더 활발한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수발과 관련된 도움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 높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연령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만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동부 거주 노인에게서 높다. 반면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는 동거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높다. 특히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동부노인이 43.7%로 읍·면부 노인의 29.3%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경제적 도움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동부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에게서 제공률이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정서적 및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이 여자노인은 69.3%인데 비하여 남자노인은 57.7%이며 도구적 도움은 63.9%로 남자노인의 51.6%보다, 수발의 경우도 68.2%로 남자노인의 53.1%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동거자녀에 대한 도움 제공률에 있어서도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제공률이 높다. 특히 도구적 도움의 제공에 있어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의 34%에 비하여 두 배가 넘는 수준인 79.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여자노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해 온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경제적인 부양에 있어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정기적인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지원 모든 측면에 있어 수혜율이 높은 반면 제공률은



모두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여자노인이 청장년기 시기에 경제적으로 배우자에 의존적이어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삶의 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금지원에 있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경우 수혜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의 경제적 독자성이 많이 제한되어 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연령군별로는 모든 도움의 수혜율이 고연령층에서 높은 반면, 제공률은 크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도구적 도움을 받는 노인의 비율과 수발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후기노인에게서 월등히 높아, 노인의 신체적인 노화가 동거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65~69세 연령의 노인의 경우는 도움을 받는 노인보다 제공한다는 비율이 높아 동거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도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이 발견된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하여 다양한 도움을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도구적 도움이나 수발 도움에 있어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제공률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정서적 도움의 경우에는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활발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적 부양의 제공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정기 및 비정기 현금 지원이나 현물지원 모두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수혜율이 조금 더 높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월등히 높다. 즉, 정기 현금지원율은 6.0%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2.7%보다 높고, 비정기 현금지원율은 32.4%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19.5%에 비하여 13%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물지원율은 52.1%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36.2%보다 16%포인트 높다.

동거자녀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딸인 경우 아들에 비하여 정서적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부양의 경우는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실태를 보면 자녀의 특성별 차이는 매우 적다. 단, 현물지원의 경우는 아들보다는 딸인 경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동거자녀의 결혼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의 경우 미혼자

녀는 기혼딸과 기혼 아들의 중간 정도의 지원을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인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기혼자녀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구적 지원의 경우 가사노동관련 지원과 수발관련 지원 모두 미혼의 자녀가 도움을 받는 수준은 기혼자녀보다 낮지만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기혼자녀보다 높다. 한편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금지원은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 기혼자녀보다 높다. 그러나 현물지원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미혼자녀가 기혼자녀보다 낮으나 제공률은 기혼자녀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미혼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도구적 도움과 선물 등의 현물지원을 기혼자녀에 비하여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의 경우, 가장 부담이 큰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아들이 딸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은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부양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률은 낮고 도움을 준다는 응답률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글자를 모르는 무학 노인은 제공률이 14.1%이지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44.0%로 3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노인의 인적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동거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소득의 경우 교육수준보다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지만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노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한편, 노인이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정서적 지원 수혜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동거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영향을 미쳐, 62.8%와 46.7%로 약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체적인 제한이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도구적 도움과 수발 도움 모두에 있어서 제공률은 낮고 수혜율은 높다. 경제적인 부양의 경우도 제공률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공률에 비해서는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 수혜율이 높다. 그

러나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더 높아 노인의 기능상태가 제한될 경우 동거자녀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1.9	52.9	26.5	8.7	100.0 (2,902)
지역					
동부	12.2	51.9	26.9	9.0	100.0 (2,320)
읍·면부	10.7	57.0	24.6	7.7	100.0 ( 582)
성					
남자	8.5	49.2	32.5	9.8	100.0 (1,122)
여자	14.0	55.3	22.6	8.1	100.0 (1,781)
연령					
65~69세	8.6	55.1	26.8	9.5	100.0 ( 940)
70~74세	11.6	53.5	28.8	6.1	100.0 ( 803)
75~79세	14.5	49.9	25.8	9.8	100.0 ( 559)
80~84세	11.6	50.2	24.3	14.0	100.0 ( 329)
85세 이상	18.8	53.3	22.4	5.5	100.0 ( 2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9	52.4	29.7	9.1	100.0 (1,688)
배우자 없음	16.0	53.7	22.0	8.3	100.0 (1,214)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14.6	54.8	22.5	8.2	100.0 ( 966)
기혼차남 이하	14.2	50.8	29.5	5.4	100.0 ( 295)
기혼딸	14.8	63.6	17.8	3.8	100.0 ( 236)
미혼자녀	8.8	50.1	31.1	10.0	100.0 (1,301)
기타	17.4	65.2	13.0	4.3	100.0 ( 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1	52.2	24.5	8.2	100.0 ( 364)
무학(글자해독)	14.5	52.5	23.9	9.1	100.0 ( 636)
초등학교	10.6	53.7	27.5	8.3	100.0 ( 957)
중·고등학교	11.3	54.7	27.7	6.4	100.0 ( 781)
전문대학 이상	5.5	43.0	29.1	22.4	100.0 ( 165)
현 취업상태					
취업중	9.0	56.5	25.8	8.7	100.0 ( 756)
미취업	12.9	51.7	26.7	8.8	100.0 (2,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3	36.5	37.5	9.6	100.0 ( 104)
제2오분위	10.5	43.1	30.4	16.0	100.0 ( 181)
제3오분위	10.6	51.0	26.3	12.2	100.0 ( 312)
제4오분위	10.1	55.0	26.8	8.1	100.0 ( 824)
제5오분위	13.0	54.6	25.0	7.4	100.0 (1,4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7	54.1	27.0	8.2	100.0 (2,373)
제한 있음	16.8	47.8	24.2	11.2	100.0 ( 529)
2008년도	16.3	64.0	17.0	2.7	100.0 (3,06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표 11-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9.0	50.8	31.3	9.0	100.0 (2,902)
지역					
동부	9.5	49.2	32.3	9.0	100.0 (2,319)
읍·면부	7.0	56.9	27.1	8.9	100.0 ( 582)
성					
남자	7.9	48.3	34.8	9.1	100.0 (1,121)
여자	9.7	52.4	29.0	8.9	100.0 (1,780)
연령					
65~69세	9.0	55.2	27.4	8.3	100.0 ( 940)
70~74세	10.7	51.5	31.9	5.9	100.0 ( 802)
75~79세	10.5	49.1	30.4	10.0	100.0 ( 560)
80~84세	3.6	50.5	30.7	15.2	100.0 ( 329)
85세 이상	7.4	37.1	44.5	11.0	100.0 ( 2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8	51.7	31.5	7.9	100.0 (1,689)
배우자 없음	9.2	49.4	31.0	10.4	100.0 (1,214)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8.2	47.6	34.7	9.5	100.0 ( 966)
기혼차남 이하	9.1	46.3	34.8	9.8	100.0 ( 296)
기혼딸	10.6	63.1	21.6	4.7	100.0 ( 236)
미혼자녀	9.4	52.4	29.9	8.3	100.0 (1,302)
기타	4.5	54.5	40.9	0.0	100.0 ( 2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9	46.8	30.0	13.2	100.0 ( 363)
무학(글자해독)	6.9	50.0	33.2	9.9	100.0 ( 636)
초등학교	8.2	50.6	33.1	8.2	100.0 ( 956)
중·고등학교	10.9	52.3	30.3	6.5	100.0 ( 782)
전문대학 이상	11.0	56.1	20.7	12.2	100.0 ( 16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2	52.3	29.1	8.3	100.0 ( 755)
미취업	8.6	50.2	32.0	9.2	100.0 (2,14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5	39.4	38.5	9.6	100.0 ( 104)
제2오분위	8.8	52.5	22.7	16.0	100.0 ( 181)
제3오분위	10.0	51.1	30.2	8.7	100.0 ( 311)
제4오분위	8.6	49.8	33.8	7.8	100.0 ( 823)
제5오분위	8.8	51.8	30.6	8.8	100.0 (1,4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9.4	53.4	29.4	7.9	100.0 (2,373)
제한 있음	7.4	39.3	39.5	13.8	100.0 ( 529)
2008년도	13.9	63.2	18.8	4.1	100.0 (3,0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표 11-3-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6.3	42.9	29.6	11.2	100.0 (2,902)
지역					
동부	14.7	42.5	31.4	11.4	100.0 (2,319)
읍·면부	22.5	44.4	22.6	10.5	100.0 ( 583)
성					
남자	13.6	38.0	36.1	12.3	100.0 (1,122)
여자	17.9	46.0	25.5	10.6	100.0 (1,781)
연령					
65~69세	6.4	40.0	38.9	14.8	100.0 ( 941)
70~74세	11.2	42.1	36.4	10.3	100.0 ( 803)
75~79세	19.9	46.2	23.5	10.4	100.0 ( 558)
80~84세	26.7	48.5	15.2	9.7	100.0 ( 330)
85세 이상	45.2	41.5	7.7	5.5	100.0 ( 2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2	39.5	37.2	14.0	100.0 (1,688)
배우자 없음	26.0	47.6	19.0	7.3	100.0 (1,214)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27.3	50.1	15.0	7.6	100.0 ( 966)
기혼차남 이하	29.5	48.1	16.6	5.8	100.0 ( 295)
기혼딸	16.5	61.6	21.1	0.8	100.0 ( 237)
미혼자녀	4.8	34.0	44.2	17.1	100.0 (1,302)
기타	18.2	40.9	31.8	9.1	100.0 ( 2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5.7	50.0	16.6	7.7	100.0 ( 362)
무학(글자해독)	23.2	44.1	21.8	10.8	100.0 ( 637)
초등학교	16.4	40.7	33.6	9.3	100.0 ( 956)
중·고등학교	8.6	40.9	37.5	13.0	100.0 ( 782)
전문대학 이상	3.7	45.1	28.0	23.2	100.0 ( 16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1	42.5	33.7	13.8	100.0 ( 756)
미취업	18.4	43.0	28.2	10.3	100.0 (2,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4	46.2	23.1	15.4	100.0 ( 104)
제2오분위	6.6	34.1	36.8	22.5	100.0 ( 182)
제3오분위	16.1	40.2	28.3	15.4	100.0 ( 311)
제4오분위	12.6	41.1	34.7	11.5	100.0 ( 824)
제5오분위	19.6	45.3	26.7	8.5	100.0 (1,4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9	43.0	33.1	12.0	100.0 (2,372)
제한 있음	35.9	42.5	13.8	7.8	100.0 ( 529)
2008년도	25.3	47.0	19.7	8.0	100.0 (3,06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표 11-3-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21.0	40.7	25.1	13.3	100.0 (2,902)
지역					
동부	21.7	40.4	25.3	12.7	100.0 (2,321)
읍·면부	18.2	42.0	24.2	15.6	100.0 ( 583)
성					
남자	7.4	26.6	43.3	22.7	100.0 (1,121)
여자	29.5	49.6	13.6	7.2	100.0 (1,782)
연령					
65~69세	26.9	37.3	24.4	11.4	100.0 ( 939)
70~74세	22.8	43.7	23.0	10.6	100.0 ( 804)
75~79세	18.8	46.3	23.4	11.4	100.0 ( 559)
80~84세	14.6	41.6	26.4	17.3	100.0 ( 329)
85세 이상	7.0	31.0	35.1	26.9	100.0 ( 27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9.2	34.5	31.1	15.2	100.0 (1,688)
배우자 없음	23.4	49.3	16.7	10.6	100.0 (1,216)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16.1	45.5	23.2	15.1	100.0 ( 966)
기혼차남 이하	15.5	41.9	24.7	17.9	100.0 ( 296)
기혼딸	17.7	43.0	25.3	13.9	100.0 ( 237)
미혼자녀	26.6	37.4	25.8	10.1	100.0 (1,301)
기타	8.7	21.7	39.1	30.4	100.0 ( 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3.1	43.8	19.8	13.2	100.0 ( 363)
무학(글자해독)	24.6	43.3	19.9	12.1	100.0 ( 637)
초등학교	20.3	42.3	23.4	14.0	100.0 ( 957)
중·고등학교	18.3	35.5	33.1	13.0	100.0 ( 782)
전문대학 이상	18.8	38.2	28.5	14.5	100.0 ( 16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0	40.0	29.1	12.9	100.0 ( 757)
미취업	22.0	40.9	23.7	13.4	100.0 (2,14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4	52.4	24.3	4.9	100.0 ( 103)
제2오분위	23.8	48.6	14.4	13.3	100.0 ( 181)
제3오분위	22.3	42.7	23.2	11.8	100.0 ( 314)
제4오분위	24.9	38.1	25.4	11.7	100.0 ( 824)
제5오분위	18.4	39.9	26.7	15.0	100.0 (1,4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6	42.0	23.5	10.9	100.0 (2,374)
제한 있음	9.1	35.1	31.9	24.0	100.0 ( 530)
2008년도	22.8	41.1	23.6	12.5	100.0 (3,0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표 11-3-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4.9	47.4	24.9	12.8	100.0 (2,902)
지역					
동부	13.8	46.6	26.4	13.1	100.0 (2,320)
읍·면부	19.2	50.8	18.5	11.5	100.0 ( 583)
성					
남자	11.4	41.7	30.6	16.3	100.0 (1,122)
여자	17.1	51.1	21.3	10.6	100.0 (1,782)
연령					
65~69세	7.8	40.6	33.7	17.9	100.0 ( 940)
70~74세	11.9	50.2	25.1	12.7	100.0 ( 804)
75~79세	16.1	49.7	23.3	10.9	100.0 ( 559)
80~84세	22.8	53.8	16.7	6.7	100.0 ( 329)
85세 이상	35.7	50.4	7.0	7.0	100.0 ( 2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9	44.2	30.5	16.5	100.0 (1,689)
배우자 없음	23.2	52.0	17.0	7.7	100.0 (1,215)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20.1	48.6	19.9	11.5	100.0 ( 966)
기혼차남 이하	27.0	46.3	19.6	7.1	100.0 ( 296)
기혼딸	17.3	62.9	11.4	8.4	100.0 ( 237)
미혼자녀	7.8	45.3	31.4	15.4	100.0 (1,301)
기타	4.5	54.5	27.3	13.6	100.0 ( 2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3.7	51.5	16.3	8.5	100.0 ( 363)
무학(글자해독)	19.3	49.1	23.0	8.6	100.0 ( 638)
초등학교	15.0	51.7	23.0	10.4	100.0 ( 956)
중·고등학교	9.3	41.0	31.8	17.9	100.0 ( 781)
전문대학 이상	4.2	38.8	29.1	27.9	100.0 ( 165)
현 취업상태					
취업중	8.1	47.6	28.5	15.9	100.0 ( 757)
미취업	17.3	47.4	23.6	11.7	100.0 (2,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7	46.6	27.2	15.5	100.0 ( 103)
제2오분위	9.3	40.1	30.8	19.8	100.0 ( 182)
제3오분위	16.9	43.9	26.1	13.1	100.0 ( 314)
제4오분위	12.0	53.5	24.8	9.7	100.0 ( 824)
제5오분위	17.1	45.7	23.8	13.4	100.0 (1,4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7	46.8	27.9	14.6	100.0 (2,374)
제한 있음	33.3	50.5	11.2	5.1	100.0 ( 529)
2008년도	25.2	53.1	15.0	6.7	100.0 (3,0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표 11-3-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6.0	21.9	34.8	37.4	100.0 (2,902)
지역					
동부	6.1	21.2	35.5	37.2	100.0 (2,319)
읍·면부	5.5	24.5	31.7	38.3	100.0 ( 583)
성					
남자	3.9	18.0	36.9	41.1	100.0 (1,121)
여자	7.2	24.3	33.4	35.1	100.0 (1,780)
연령					
65~69세	6.9	26.0	33.3	33.8	100.0 ( 939)
70~74세	5.5	21.8	35.9	36.8	100.0 ( 802)
75~79세	7.0	21.3	34.5	37.3	100.0 ( 560)
80~84세	6.1	18.5	31.6	43.8	100.0 ( 329)
85세 이상	2.2	12.9	40.8	44.1	100.0 ( 2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7	20.7	34.9	38.7	100.0 (1,689)
배우자 없음	6.3	23.5	34.5	35.6	100.0 (1,213)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4.2	18.6	37.5	39.6	100.0 ( 966)
기혼차남 이하	3.4	13.9	34.9	47.8	100.0 ( 295)
기혼딸	5.1	28.0	35.6	31.4	100.0 ( 236)
미혼자녀	7.5	25.3	32.6	34.6	100.0 (1,302)
기타	8.7	13.0	39.1	39.1	100.0 ( 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	18.2	32.5	43.8	100.0 ( 363)
무학(글자해독)	5.3	23.4	35.8	35.4	100.0 ( 636)
초등학교	5.0	22.2	35.9	36.9	100.0 ( 957)
중·고등학교	6.3	21.6	36.1	36.1	100.0 ( 782)
전문대학 이상	14.0	23.2	22.6	40.2	100.0 ( 164)
현 취업상태					
취업중	6.8	22.8	34.0	36.4	100.0 ( 755)
미취업	5.7	21.5	35.0	37.7	100.0 (2,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7	26.9	28.8	35.6	100.0 ( 104)
제2오분위	11.5	27.5	24.2	36.8	100.0 ( 182)
제3오분위	7.4	26.3	34.6	31.7	100.0 ( 312)
제4오분위	5.0	25.0	33.0	37.0	100.0 ( 824)
제5오분위	5.4	18.1	37.5	39.0	100.0 (1,4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6.7	23.8	34.3	35.1	100.0 (2,373)
제한 있음	2.6	13.2	36.6	47.5	100.0 ( 530)
2008년도	12.6	43.4	28.9	15.0	100.0 (3,0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표 11-3-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sup>1)</sup>	40.8	74.6	76.6	4.6	27.0	45.4
지역						
동부	43.7	74.9	77.0	4.9	26.6	44.7
읍·면부	29.3	73.5	74.7	3.2	28.2	48.6
성						
남자	36.0	70.9	74.6	5.8	30.6	47.0
여자	43.8	77.0	77.8	3.9	24.7	44.4
연령						
65~69세	42.7	72.0	74.5	6.8	31.2	52.9
70~74세	44.1	75.7	74.4	3.9	28.2	51.9
75~79세	39.7	76.9	76.8	2.5	23.9	40.1
80~84세	33.2	69.2	75.3	5.2	25.9	35.4
85세 이상	35.7	82.4	90.7	2.6	16.2	22.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0	72.0	74.6	6.0	32.4	52.1
배우자 없음	43.3	78.2	79.3	2.7	19.5	36.2
동거자녀의 특성						
기혼장남	38.5	80.4	81.3	3.8	24.8	40.6
기혼차남 이하	41.6	79.1	80.7	3.1	24.7	39.0
기혼딸	40.7	81.4	88.1	1.3	30.9	39.0
미혼자녀	43.5	68.6	70.6	6.0	28.7	51.4
기타	43.5	82.6	86.4	0.0	43.5	68.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7.0	76.6	78.2	1.4	14.1	30.4
무학(글자해독)	40.1	76.0	77.7	2.2	21.2	38.6
초등학교	41.9	77.2	78.5	3.9	27.8	47.7
중·고등학교	44.6	73.0	74.6	7.5	32.9	51.5
전문대학 이상	27.9	57.6	66.1	12.0	44.0	62.7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0	69.0	70.8	5.8	34.7	56.1
미취업	44.3	76.6	78.6	4.2	24.2	4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1	47.1	44.8	3.7	27.5	36.4
제2오분위	28.2	47.5	46.4	9.3	34.8	51.4
제3오분위	31.2	66.6	69.6	6.4	29.0	47.1
제4오분위	42.6	74.1	76.6	5.1	22.9	45.6
제5오분위	44.6	81.8	83.9	3.4	27.9	44.9
기능상태						
제한 없음	41.9	73.3	75.8	5.3	29.9	50.0
제한 있음	35.9	80.5	79.8	1.5	13.5	24.6
2008년도	38.5	60.1	9.8	22.2	52.8	32.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함.

## 제2절 비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

노인의 70%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의 제공률은 61.4%로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다. 이러한 정서적 도움의 교환은 동거자녀의 경우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으로 동거 자녀에 비하여 비동거 자녀는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도구적 도움의 경우는 수혜율이 46.1%이지만 제공률은 11.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거자녀의 59.2%와 61.7%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다. 노인에게 대한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도움의 제공은 동거하는 경우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비동거 자녀도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적다. 그러나 노인이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동거 자녀인 경우 특정한 목적 하에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수발의 경우 수혜율이 49.2%이며 제공률이 7.7%인데 이 또한 가사노동과 관련된 도구적 도움의 경우와 유사하다(표 II-3-8~표 II-3-13).

한편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93.0%이며 현물지원도 90.6%로 매우 높다.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 동 비율이 40.8%, 74.6%, 76.6%인 것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또한 비동거자녀가 대부분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는 동거와 비동거자녀 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약 20%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방문 시 또는 명절 등에 현금 또는 현물로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실태를 보면 정기 현금지원이 0.9%, 비정기 현금지원 23.7%, 현물지원이 58.5%로 동거자녀의 4.6%, 27.0%, 45.4%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동거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기 현금지원은 큰 차이가 없고, 현물지원은 비동거자녀에게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지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표 II-3-14).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거자녀의 경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된다. 지역별로는 동거자녀의 경우와 유사하게 읍·면부 거주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활발한 교환을 하고 있는데, 가사 관련 도움이나 수발 도움의 제공률은 지역 간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동부 노인이 38.7%가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5%포인트 정도 높지만 비정기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의 수혜율은 읍·면부 노인이 높다. 또한 경제적 도움의 제공률에 있어서도 지원의 내용별 차이가 있어,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그 수준이 매우 낮고, 비정기 현금지원은 동부 노인이, 현물지원은 읍·면부 노인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지원의 경우 동부 노인은 제공률이 50.8%인 반면 읍·면부 노인인 74.3%이다. 이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농산물 등을 비동거 자녀에게 보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동거자녀의 경우는 함께 생활하고 있어 농산물 등이 공유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동거자녀의 경우와 유사하게 여자 노인이 다양한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도 동거자녀와 유사하게 후기노인의 경우 수혜율은 높고 제공률은 낮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정서적 도움의 수혜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후기노인에게서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아 85세 이상군의 경우 63.7%로 65~69세 군의 73.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후기노인에게서 높은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는 비동거하는 경우 노인의 연령이 높으면 대화를 통하여 상담과 고민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은 동거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의 특징별로는 별거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움을 주거나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가사관련 도구적 도움이나 수발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인 도움의 교환과 관련해서도 수혜율은 현금 및 현물 모두 비동거 자녀수가 많을수록 수혜율이 높다. 그러나 제공실태를 보면 현금의 경우는 비동거 자녀수가 적을수록 제공률이 높고 현물 서비스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현금지원의 경우 자녀가 많으면 자녀 양육과 결

혼 등에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여 가용할 현금이 없거나,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현금 지원을 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 모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현물지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농산물 등과 같이 크지 않은 것을 비동거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비동거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고, 제공하는 비율은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단 정서적 도움의 수혜율에는 교육수준별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가사 관련 도구적 도움의 제공은  $\cap$ 형의 관계를 갖는 예외는 있다. 경제적 부양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는 비율이 글자를 모르는 노인의 경우 38.7%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동 비율이 28.9%로 차이가 크다. 반면 현금지원의 제공은 글자를 모르는 노인의 경우 정기적 지원이 0.5%,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14.0%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는 각각 3.8%와 46.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정서적 부양의 수혜와 제공 모두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활발하며 가사 관련 도구적 도움의 수혜도 활발하다. 그러나 가사 관련 도움의 제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수발도움의 제공은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적 부양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는 비율이 미취업 노인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의 경우 비취업 노인에 비하여 비록 크지는 않지만 수혜율이 높다. 반면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금 및 현물지원 모두 미취업 노인보다 높은 제공률을 보이며 특히 현물지원의 경우 77.7%와 48.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정서적 지원의 교환이 활발한 경향성이 있으나 가사 관련 도구적 도움과 수발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의 경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수혜율이 높고 현금지원을 하는 제공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현물제공에 있어서는 소득수준별로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인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다양한 부양의 교환이 활발하지 않지만 가사 관련 지원이나 수발 지원을 받는 비율은 높은데, 이는 노인의 기능상태 저하에 따른 의존성 증대에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11-3-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1.4	58.8	22.3	7.6	100.0 (10,164)
지역					
동부	12.3	56.3	23.0	8.5	100.0 ( 6,833)
읍·면부	9.5	64.0	20.8	5.8	100.0 ( 3,333)
성					
남자	9.8	56.4	25.4	8.4	100.0 ( 4,419)
여자	12.5	60.6	19.9	7.0	100.0 ( 5,747)
연령					
65~69세	10.0	63.6	20.2	6.2	100.0 ( 3,010)
70~74세	12.7	57.8	22.7	6.8	100.0 ( 3,147)
75~79세	11.3	57.0	22.3	9.4	100.0 ( 2,317)
80~84세	11.2	55.7	24.2	8.9	100.0 ( 1,112)
85세 이상	11.7	52.0	27.1	9.2	100.0 (   579)
가구형태					
노인독거	14.1	58.3	18.5	9.2	100.0 ( 1,955)
노인부부	11.4	60.3	21.4	6.8	100.0 ( 5,089)
자녀동거	9.8	55.5	27.1	7.6	100.0 ( 2,660)
기타	8.0	62.7	20.0	9.3	100.0 (   461)
별거자녀수					
1명	10.9	48.3	27.6	13.2	100.0 (   797)
2명	10.9	56.2	25.4	7.6	100.0 ( 1,892)
3명	10.6	58.8	22.6	7.9	100.0 ( 2,624)
4명	12.9	59.8	20.3	7.0	100.0 ( 2,308)
5명	10.6	63.7	19.5	6.2	100.0 ( 1,460)
6명 이상	12.0	62.4	19.9	5.7	100.0 ( 1,08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2	58.9	21.1	8.8	100.0 ( 1,097)
무학(글자해독)	12.1	56.2	23.6	8.2	100.0 ( 2,087)
초등학교	10.9	59.8	22.5	6.8	100.0 ( 3,636)
중·고등학교	11.0	60.8	20.5	7.7	100.0 ( 2,628)
전문대학 이상	13.0	54.0	25.6	7.4	100.0 (   718)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	63.1	21.6	5.4	100.0 ( 3,490)
미취업	12.1	56.5	22.6	8.7	100.0 ( 6,6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1	58.6	20.9	10.4	100.0 ( 1,983)
제2오분위	11.5	59.3	20.9	8.3	100.0 ( 2,077)
제3오분위	12.3	59.8	20.5	7.4	100.0 ( 2,062)
제4오분위	11.6	61.0	22.8	4.6	100.0 ( 2,055)
제5오분위	11.3	55.1	26.4	7.2	100.0 ( 1,99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2	59.7	22.2	6.9	100.0 ( 8,765)
제한 있음	12.4	53.0	22.9	11.7	100.0 ( 1,399)
2008년도	13.2	63.4	17.3	6.2	100.0 (10,4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표 11-3-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7.8	53.6	29.1	9.5	100.0 (10,164)
지역					
동부	8.4	51.6	30.0	9.9	100.0 ( 6,833)
읍·면부	6.7	57.5	27.2	8.6	100.0 ( 3,333)
성					
남자	7.4	52.5	30.2	10.0	100.0 ( 4,419)
여자	8.2	54.4	28.2	9.2	100.0 ( 5,748)
연령					
65~69세	7.3	60.9	24.2	7.6	100.0 ( 3,011)
70~74세	9.0	54.7	29.0	7.4	100.0 ( 3,146)
75~79세	8.1	50.2	29.9	11.8	100.0 ( 2,318)
80~84세	6.7	46.3	33.5	13.5	100.0 ( 1,113)
85세 이상	6.0	36.6	43.1	14.3	100.0 ( 580)
가구형태					
노인독거	8.2	49.6	30.1	12.1	100.0 ( 1,956)
노인부부	8.9	56.0	26.5	8.5	100.0 ( 5,089)
자녀동거	6.0	51.0	34.0	9.0	100.0 ( 2,659)
기타	5.0	58.4	24.5	12.1	100.0 ( 461)
별거자녀수					
1명	8.3	45.2	31.2	15.3	100.0 ( 796)
2명	7.7	53.2	31.4	7.6	100.0 ( 1,892)
3명	8.0	53.8	28.6	9.6	100.0 ( 2,623)
4명	8.4	54.9	27.5	9.2	100.0 ( 2,308)
5명	6.6	56.7	27.4	9.3	100.0 ( 1,462)
6명 이상	7.7	52.9	30.4	9.1	100.0 ( 1,08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5	45.7	31.2	15.7	100.0 ( 1,097)
무학(글자해독)	7.3	51.3	31.1	10.3	100.0 ( 2,087)
초등학교	7.2	55.0	29.2	8.5	100.0 ( 3,637)
중·고등학교	8.6	57.1	26.3	8.0	100.0 ( 2,628)
전문대학 이상	10.3	51.6	29.8	8.2	100.0 ( 717)
현 취업상태					
취업중	7.7	59.2	26.2	6.9	100.0 ( 3,490)
미취업	7.9	50.6	30.6	10.9	100.0 ( 6,6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	48.3	31.4	14.0	100.0 ( 1,983)
제2오분위	6.9	53.1	29.4	10.5	100.0 ( 2,076)
제3오분위	8.6	55.4	27.2	8.8	100.0 ( 2,060)
제4오분위	8.9	58.0	27.4	5.7	100.0 ( 2,055)
제5오분위	8.3	52.9	30.1	8.6	100.0 ( 1,9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8.1	55.2	28.3	8.5	100.0 ( 8,767)
제한 있음	6.6	43.4	34.1	15.9	100.0 ( 1,400)
2008년도	11.4	59.2	22.2	7.2	100.0 (10,4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표 II-3-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5.6	40.5	38.1	15.8	100.0 (10,164)
지역					
동부	5.2	36.6	39.7	18.5	100.0 ( 6,833)
읍·면부	6.5	48.5	34.9	10.2	100.0 ( 3,333)
성					
남자	5.5	40.2	38.5	15.8	100.0 ( 4,418)
여자	5.7	40.7	37.8	15.8	100.0 ( 5,746)
연령					
65~69세	4.0	38.0	40.4	17.6	100.0 ( 3,010)
70~74세	4.8	40.8	39.7	14.6	100.0 ( 3,146)
75~79세	6.5	41.2	37.0	15.4	100.0 ( 2,318)
80~84세	8.5	43.3	33.7	14.5	100.0 ( 1,112)
85세 이상	9.0	43.7	31.3	16.1	100.0 ( 579)
가구형태					
노인독거	8.8	44.8	31.0	15.4	100.0 ( 1,955)
노인부부	5.9	43.3	37.9	12.9	100.0 ( 5,089)
자녀동거	3.1	31.8	43.7	21.4	100.0 ( 2,659)
기타	3.3	41.2	39.0	16.5	100.0 ( 461)
별거자녀수					
1명	3.6	21.7	40.4	34.3	100.0 ( 798)
2명	3.5	32.7	43.7	20.2	100.0 ( 1,892)
3명	5.1	38.9	40.1	15.9	100.0 ( 2,624)
4명	6.0	45.1	36.3	12.7	100.0 ( 2,308)
5명	7.1	49.6	33.4	9.9	100.0 ( 1,462)
6명 이상	9.1	50.0	32.5	8.4	100.0 ( 1,08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1	45.3	33.2	14.3	100.0 ( 1,096)
무학(글자해독)	6.9	43.2	34.3	15.6	100.0 ( 2,088)
초등학교	5.0	41.8	39.8	13.4	100.0 ( 3,637)
중·고등학교	5.5	36.9	39.5	18.1	100.0 ( 2,628)
전문대학 이상	2.8	31.7	43.5	22.0	100.0 ( 717)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	43.7	38.7	12.6	100.0 ( 3,490)
미취업	5.9	38.8	37.8	17.4	100.0 ( 6,6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5	41.9	33.7	17.9	100.0 ( 1,984)
제2오분위	7.1	43.9	36.6	12.4	100.0 ( 2,077)
제3오분위	5.7	44.4	35.3	14.6	100.0 ( 2,061)
제4오분위	5.9	39.6	41.1	13.3	100.0 ( 2,056)
제5오분위	2.6	32.3	44.1	21.0	100.0 ( 1,9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	40.4	38.8	15.8	100.0 ( 8,766)
제한 있음	9.2	41.1	34.1	15.6	100.0 ( 1,400)
2008년도	58	34.7	33.8	25.7	100.0 (10,41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표 II-3-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3	10.0	38.8	49.9	100.0 (10,164)
지역					
동부	1.5	10.1	39.5	48.9	100.0 ( 6,833)
읍·면부	0.8	9.9	37.3	52.0	100.0 ( 3,334)
성					
남자	0.8	6.3	37.6	55.4	100.0 ( 4,418)
여자	1.7	12.9	39.7	45.7	100.0 ( 5,747)
연령					
65~69세	2.3	14.3	40.0	43.4	100.0 ( 3,011)
70~74세	1.3	10.7	41.1	46.9	100.0 ( 3,147)
75~79세	0.7	6.8	37.3	55.2	100.0 ( 2,318)
80~84세	0.4	7.1	34.4	58.1	100.0 ( 1,112)
85세 이상	0.3	2.8	33.7	63.2	100.0 ( 579)
가구형태					
노인독거	0.8	8.8	37.1	53.4	100.0 ( 1,956)
노인부부	1.6	10.6	39.7	48.2	100.0 ( 5,089)
자녀동거	1.2	9.7	38.3	50.7	100.0 ( 2,659)
기타	0.9	11.3	38.4	49.5	100.0 ( 461)
별거자녀수					
1명	1.6	7.4	34.1	56.8	100.0 ( 797)
2명	1.9	11.2	41.9	45.0	100.0 ( 1,892)
3명	1.1	10.9	39.7	48.3	100.0 ( 2,623)
4명	0.8	10.1	39.1	50.0	100.0 ( 2,309)
5명	1.7	9.7	37.1	51.5	100.0 ( 1,461)
6명 이상	0.9	8.4	35.9	54.8	100.0 ( 1,08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7	7.2	33.4	58.7	100.0 ( 1,097)
무학(글자해독)	1.2	9.3	37.8	51.7	100.0 ( 2,086)
초등학교	1.7	11.5	40.3	46.4	100.0 ( 3,638)
중·고등학교	0.9	10.5	39.9	48.7	100.0 ( 2,628)
전문대학 이상	1.8	7.0	38.0	53.2	100.0 ( 71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	10.5	39.2	49.1	100.0 ( 3,490)
미취업	1.3	9.8	38.5	50.3	100.0 ( 6,6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	7.6	35.7	55.6	100.0 ( 1,984)
제2오분위	0.6	11.0	39.2	49.2	100.0 ( 2,077)
제3오분위	1.4	10.6	39.6	48.4	100.0 ( 2,060)
제4오분위	1.7	11.5	40.3	46.6	100.0 ( 2,057)
제5오분위	1.9	9.3	38.9	49.9	100.0 ( 1,9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	10.8	40.0	47.8	100.0 ( 8,766)
제한 있음	0.5	5.1	31.2	63.1	100.0 ( 1,399)
2008년도	2.5	17.6	43.2	36.7	100.0 (10,4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표 11-3-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7.4	41.8	32.1	18.7	100.0 (10,164)
지역					
동부	6.7	39.5	33.1	20.8	100.0 ( 6,833)
읍·면부	8.9	46.7	30.0	14.3	100.0 ( 3,333)
성					
남자	6.3	39.1	33.9	20.6	100.0 ( 4,418)
여자	8.2	43.9	30.7	17.2	100.0 ( 5,747)
연령					
65~69세	4.3	36.5	36.3	22.9	100.0 ( 3,010)
70~74세	7.3	41.4	33.3	18.0	100.0 ( 3,147)
75~79세	9.6	44.4	28.9	17.0	100.0 ( 2,318)
80~84세	8.6	50.2	27.0	14.1	100.0 ( 1,111)
85세 이상	12.9	45.5	25.7	15.9	100.0 ( 580)
가구형태					
노인독거	10.4	48.6	24.0	16.9	100.0 ( 1,955)
노인부부	7.7	42.8	31.7	17.8	100.0 ( 5,089)
자녀동거	4.9	35.9	38.0	21.2	100.0 ( 2,660)
기타	5.2	37.1	36.0	21.7	100.0 ( 461)
별거자녀수					
1명	3.8	25.0	40.3	30.9	100.0 ( 796)
2명	4.6	35.4	33.9	26.2	100.0 ( 1,892)
3명	5.6	38.7	35.7	19.9	100.0 ( 2,624)
4명	9.1	46.6	29.2	15.0	100.0 ( 2,308)
5명	10.1	48.9	28.5	12.5	100.0 ( 1,461)
6명 이상	12.0	53.4	24.9	9.7	100.0 ( 1,08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2	45.9	27.5	15.4	100.0 ( 1,097)
무학(글자해독)	8.3	45.7	29.3	16.7	100.0 ( 2,087)
초등학교	7.3	44.0	32.1	16.6	100.0 ( 3,637)
중·고등학교	6.0	38.2	35.2	20.5	100.0 ( 2,629)
전문대학 이상	4.2	26.9	35.7	33.2	100.0 ( 717)
현 취업상태					
취업중	6.0	40.9	33.8	19.3	100.0 ( 3,490)
미취업	8.1	42.3	31.2	18.3	100.0 ( 6,6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0	45.4	27.0	19.5	100.0 ( 1,983)
제2오분위	8.5	47.0	29.0	15.5	100.0 ( 2,077)
제3오분위	7.9	43.1	31.2	17.8	100.0 ( 2,061)
제4오분위	8.2	39.8	35.1	17.0	100.0 ( 2,057)
제5오분위	4.3	33.5	38.2	24.0	100.0 ( 1,9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6.4	41.2	32.9	19.6	100.0 ( 8,766)
제한 있음	13.9	46.1	27.0	12.9	100.0 ( 1,399)
2008년도	5.8	34.7	33.8	25.7	100.0 (10,41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표 II-3-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0.7	7.0	37.7	54.6	100.0 (10,164)
지역					
동부	0.8	7.2	38.1	53.9	100.0 ( 6,833)
읍·면부	0.6	6.5	36.9	56.0	100.0 ( 3,333)
성					
남자	0.6	6.0	36.8	56.6	100.0 ( 4,419)
여자	0.8	7.8	38.4	53.0	100.0 ( 5,746)
연령					
65~69세	0.8	9.3	38.4	51.5	100.0 ( 3,009)
70~74세	0.9	7.3	40.8	51.0	100.0 ( 3,146)
75~79세	0.6	5.9	35.2	58.3	100.0 ( 2,318)
80~84세	0.1	4.8	35.9	59.2	100.0 ( 1,111)
85세 이상	0.2	2.2	31.4	66.2	100.0 ( 580)
가구형태					
노인독거	0.7	5.1	35.9	58.3	100.0 ( 1,955)
노인부부	0.7	7.8	38.2	53.3	100.0 ( 5,089)
자녀동거	0.5	6.5	38.4	54.6	100.0 ( 2,660)
기타	1.3	9.5	35.7	53.5	100.0 ( 462)
별거자녀수					
1명	0.3	6.3	35.1	58.4	100.0 ( 796)
2명	0.7	7.4	36.8	55.2	100.0 ( 1,891)
3명	0.8	6.6	39.4	53.2	100.0 ( 2,623)
4명	0.6	7.9	39.0	52.5	100.0 ( 2,307)
5명	0.9	6.8	36.7	55.7	100.0 ( 1,462)
6명 이상	0.6	6.2	36.0	57.2	100.0 ( 1,08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4.5	30.9	64.2	100.0 ( 1,097)
무학(글자해독)	0.7	6.1	35.8	57.3	100.0 ( 2,087)
초등학교	0.6	7.8	40.4	51.2	100.0 ( 3,637)
중·고등학교	0.7	8.0	39.2	52.1	100.0 ( 2,628)
전문대학 이상	1.3	5.7	34.6	58.4	100.0 ( 717)
현 취업상태					
취업중	0.8	7.5	38.6	53.2	100.0 ( 3,489)
미취업	0.6	6.8	37.3	55.3	100.0 ( 6,67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5	5.0	33.1	61.4	100.0 ( 1,983)
제2오분위	0.4	6.9	39.8	52.9	100.0 ( 2,077)
제3오분위	0.6	8.5	38.9	51.9	100.0 ( 2,061)
제4오분위	1.2	8.4	39.7	50.8	100.0 ( 2,055)
제5오분위	0.8	6.1	36.9	56.3	100.0 ( 1,9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0.8	7.5	39.2	52.6	100.0 ( 8,765)
제한 있음	0.3	4.3	28.6	66.9	100.0 ( 1,400)
2008년도	2.7	16.3	44.6	36.4	100.0 (10,4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표 11-3-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sup>1)</sup>	37.0	93.0	90.6	0.9	23.7	58.5
지역						
동부	38.7	91.7	88.8	1.1	25.2	50.8
읍·면부	33.5	95.7	94.3	0.7	20.6	74.3
성						
남자	32.9	92.4	90.7	1.1	28.6	60.3
여자	40.1	93.5	90.5	0.8	19.9	57.1
연령						
65~69세	28.7	92.3	90.7	1.4	28.4	67.4
70~74세	37.9	93.1	90.4	1.1	24.5	62.8
75~79세	42.6	94.0	90.4	0.5	22.2	54.3
80~84세	44.0	93.0	90.8	0.4	16.6	44.5
85세 이상	39.0	92.8	91.6	0.2	14.5	32.5
가구형태						
노인독거	50.6	91.4	90.2	0.5	15.9	47.4
노인부부	38.4	94.3	92.7	1.4	28.3	67.6
자녀동거	23.8	91.7	87.0	0.6	21.1	49.7
기타	39.3	93.5	90.5	0.0	21.0	55.8
별거자녀수						
1명	24.2	81.8	79.6	1.1	27.5	46.7
2명	27.5	89.9	87.4	1.0	26.4	57.5
3명	34.6	93.3	90.3	1.9	26.1	58.8
4명	41.2	95.7	93.2	0.3	22.6	60.3
5명	43.5	95.4	93.6	0.5	20.7	60.6
6명 이상	50.7	97.1	95.6	0.5	16.9	6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8.7	94.3	92.0	0.5	14.0	50.5
무학(글자해독)	37.2	92.9	90.8	0.1	16.9	53.9
초등학교	37.3	93.9	90.7	0.8	21.5	61.3
중·고등학교	38.0	92.6	90.5	1.1	30.1	60.4
전문대학 이상	28.9	88.1	87.9	3.8	46.2	62.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8	94.8	93.0	0.9	26.6	77.7
미취업	42.8	92.0	89.3	1.0	22.2	48.4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4	91.9	89.3	0.1	11.7	44.8
제2오분위	48.0	94.5	92.8	0.3	17.5	59.9
제3오분위	38.4	93.7	90.9	1.0	23.8	64.0
제4오분위	29.4	94.2	90.9	1.0	28.6	62.4
제5오분위	23.5	90.6	89.1	2.3	37.0	60.9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6	93.1	90.9	1.0	25.2	61.9
제한 있음	39.3	92.4	88.6	0.6	14.3	37.0
2008년도	25.2	76.4	15.5	2.2	25.9	7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5명을 제외함.

### 제3절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실태

노인 중 부모세대가 생존해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세대관계라는 측면에서 노인이 부모세대와 어떠한 부양을 어떻게 교환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표 II-3-15~표 II-3-21 참조). 생존해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23.3%, 제공률은 37.5%로 자녀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으며, 수혜율에 비하여 제공률이 높아 정서적 지원은 아래세대에서 윗세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구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소수이고 노인이 부모에게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특성별로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의 수혜율 및 제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단 도구적 도움의 수혜율은 동부에서 조금 높고, 정기적인 현금지원도 동부 노인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대체적으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율과 제공률을 보이나 예외적으로 정기 현금지원은 남자노인에게서 제공률이 높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좀 더 활발한 부양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특성별 분명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1-3-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3.2	20.1	39.2	37.6	100.0 (941)
지역					
동부	3.9	18.8	37.5	39.8	100.0 (714)
읍·면부	0.9	24.5	44.1	30.6	100.0 (229)
성					
남자	3.6	18.1	38.6	39.7	100.0 (590)
여자	2.5	23.2	40.1	34.2	100.0 (354)
연령					
65~69세	3.2	22.3	39.0	35.5	100.0 (654)
70~74세	3.8	15.8	37.3	43.1	100.0 (209)
75~79세	1.4	13.9	43.1	41.7	100.0 ( 72)
80~84세	0.0	0.0	62.5	37.5	100.0 ( 8) <sup>2)</sup>
가구형태					
노인독거	2.5	22.5	40.0	35.0	100.0 ( 40)
노인부부	1.1	18.5	38.7	41.7	100.0 (460)
자녀동거	3.4	18.4	40.2	38.0	100.0 (234)
기타	7.6	25.1	38.4	28.9	100.0 (211)
생존부모					
부모의 건강상태					
생존부모 모두 건강	3.3	27.7	33.2	35.9	100.0 (368)
생존부모 일부 건강	0.0	19.4	72.2	8.3	100.0 ( 36)
생존부모 모두 비건강	2.9	14.1	42.1	40.9	100.0 (5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10.8	73.0	16.2	100.0 ( 37)
무학(글자해독)	1.2	26.7	29.1	43.0	100.0 ( 86)
초등학교	1.5	18.8	37.2	42.5	100.0 (261)
중·고등학교	4.5	19.6	37.6	38.4	100.0 (404)
전문대학 이상	4.5	22.4	43.6	29.5	100.0 (15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	20.4	37.6	38.6	100.0 (417)
미취업	3.0	19.7	40.4	36.8	100.0 (52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7.6	39.4	51.5	100.0 ( 66)
제2오분위	0.8	17.3	46.5	35.4	100.0 (127)
제3오분위	0.0	20.3	38.1	41.6	100.0 (197)
제4오분위	3.1	13.1	43.2	40.6	100.0 (229)
제5오분위	6.2	28.8	34.1	31.0	100.0 (32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	20.4	39.1	37.3	100.0 (896)
제한 있음	2.1	14.6	39.6	43.8	100.0 ( 48)
2008년도	2.1	34.4	39.0	24.4	100.0 (8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II-3-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6.5	31.0	35.3	27.3	100.0 (941)
지역					
동부	7.3	27.7	34.5	30.5	100.0 (715)
읍·면부	3.9	41.5	37.6	17.0	100.0 (229)
성					
남자	6.4	28.1	35.4	30.0	100.0 (590)
여자	6.5	35.9	35.0	22.6	100.0 (354)
연령					
65~69세	7.2	32.4	35.9	24.5	100.0 (654)
70~74세	6.6	28.4	29.9	35.1	100.0 (211)
75~79세	0.0	25.4	45.1	29.6	100.0 ( 71)
80~84세	0.0	33.3	33.3	33.3	100.0 ( 9) <sup>2)</sup>
가구형태					
노인독거	2.5	45.0	27.5	25.0	100.0 ( 40)
노인부부	2.6	27.2	38.3	31.8	100.0 (459)
자녀동거	7.3	27.5	36.1	29.2	100.0 (233)
기타	14.8	40.5	29.0	15.7	100.0 (210)
생존부모					
부모의 건강상태					
생존부모 모두 건강	9.5	28.8	33.7	28.0	100.0 (368)
생존부모 일부 건강	0.0	41.7	52.8	5.6	100.0 ( 36)
생존부모 모두 비건강	4.6	31.2	35.9	28.3	100.0 (5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36.1	58.3	5.6	100.0 ( 36)
무학(글자해독)	4.7	37.2	27.9	30.2	100.0 ( 86)
초등학교	4.6	33.7	30.7	31.0	100.0 (261)
중·고등학교	8.2	27.2	38.6	26.0	100.0 (404)
전문대학 이상	7.6	31.8	33.1	27.4	100.0 (157)
현 취업상태					
취업중	5.8	40.9	29.3	24.0	100.0 (416)
미취업	7.0	23.3	39.8	29.8	100.0 (52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28.8	25.8	43.9	100.0 ( 66)
제2오분위	0.8	31.3	39.8	28.1	100.0 (128)
제3오분위	3.1	44.9	28.1	24.0	100.0 (196)
제4오분위	5.7	24.3	45.7	24.3	100.0 (230)
제5오분위	12.1	27.9	32.5	27.6	100.0 (323)
기능상태					
제한 없음	6.8	31.1	34.7	27.4	100.0 (895)
제한 있음	0.0	31.3	43.8	25.0	100.0 ( 48)
2008년도	7.3	49.1	26.4	17.3	100.0 (8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3-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0.2	5.9	25.0	68.9	100.0 (941)
지역					
동부	0.3	6.7	22.2	70.8	100.0 (712)
읍·면부	0.4	3.5	33.5	62.6	100.0 (230)
성					
남자	0.3	5.3	25.5	68.9	100.0 (588)
여자	0.0	6.8	24.1	69.0	100.0 (352)
연령					
65~69세	0.2	7.0	26.9	66.0	100.0 (655)
70~74세	0.5	4.8	22.6	72.1	100.0 (208)
75~79세	0.0	0.0	14.1	85.9	100.0 ( 71)
80~84세	0.0	0.0	37.5	62.5	100.0 ( 8) <sup>2)</sup>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9.8	26.8	63.4	100.0 ( 41)
노인부부	0.0	0.7	23.0	76.4	100.0 (457)
자녀동거	0.0	1.3	21.8	76.9	100.0 (234)
기타	0.9	21.8	32.7	44.5	100.0 (211)
생존부모					
부모의 건강상태					
생존부모 모두 건강	0.3	10.8	27.6	61.2	100.0 (369)
생존부모 일부 건강	2.8	5.6	52.8	38.9	100.0 ( 36)
생존부모 모두 비건강	0.2	1.5	21.6	76.7	100.0 (5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7	29.7	67.6	100.0 ( 37)
무학(글자해독)	1.2	10.5	17.4	70.9	100.0 ( 86)
초등학교	0.4	6.2	25.4	68.1	100.0 (260)
중·고등학교	0.2	5.0	24.0	70.8	100.0 (404)
전문대학 이상	0.0	6.5	29.2	64.3	100.0 (15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2	5.0	29.4	65.3	100.0 (418)
미취업	0.4	6.7	21.5	71.4	100.0 (525)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0.0	7.6	15.2	77.3	100.0 ( 66)
제2오분위	0.8	3.1	31.8	64.3	100.0 (129)
제3오분위	0.5	5.6	28.9	65.0	100.0 (197)
제4오분위	0.0	4.3	21.3	74.3	100.0 (230)
제5오분위	0.3	8.4	24.3	67.0	100.0 (3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0.2	6.2	25.4	68.2	100.0 (894)
제한 있음	2.1	2.1	16.7	79.2	100.0 ( 48)
2008년도	1.2	8.4	41.5	48.9	100.0 (8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3-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8.2	23.9	23.0	45.0	100.0 (941)
지역					
동부	9.6	20.5	22.8	47.1	100.0 (711)
읍·면부	3.5	34.3	23.9	38.3	100.0 (230)
성					
남자	4.1	21.0	24.9	50.0	100.0 (590)
여자	15.1	28.7	19.6	36.6	100.0 (352)
연령					
65~69세	7.6	24.6	24.4	43.4	100.0 (655)
70~74세	12.1	25.6	19.8	42.5	100.0 (207)
75~79세	1.4	11.3	18.3	69.0	100.0 ( 71)
80~84세	0.0	37.5	25.0	37.5	100.0 ( 8) <sup>2)</sup>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41.5	17.1	41.5	100.0 ( 41)
노인부부	2.2	15.3	27.9	54.7	100.0 (459)
자녀동거	6.0	11.6	25.3	57.1	100.0 (233)
기타	25.2	52.9	11.0	11.0	100.0 (210)
생존부모					
부모의 건강상태					
생존부모 모두 건강	7.9	27.9	21.4	42.8	100.0 (369)
생존부모 일부 건강	2.8	13.9	50.0	33.3	100.0 ( 36)
생존부모 모두 비건강	8.8	20.7	22.8	47.7	100.0 (52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9	47.2	19.4	19.4	100.0 ( 36)
무학(글자해독)	9.4	27.1	22.4	41.2	100.0 ( 85)
초등학교	8.5	30.4	19.6	41.5	100.0 (260)
중·고등학교	8.6	19.8	22.7	48.9	100.0 (405)
전문대학 이상	4.5	16.8	31.0	47.7	100.0 (155)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	29.3	22.1	42.3	100.0 (416)
미취업	9.5	19.6	23.8	47.0	100.0 (5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19.7	12.1	66.7	100.0 ( 66)
제2오분위	3.1	29.7	24.2	43.0	100.0 (128)
제3오분위	8.2	39.8	15.3	36.7	100.0 (196)
제4오분위	10.9	17.8	28.3	43.0	100.0 (230)
제5오분위	9.4	17.2	25.6	47.8	100.0 (3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8.4	24.7	23.0	43.9	100.0 (893)
제한 있음	2.1	6.4	25.5	66.0	100.0 ( 47)
2008년도	8.9	22.2	34.7	34.2	100.0 (8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3-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0.2	3.3	25.7	70.8	100.0 (941)
지역					
동부	0.3	3.0	24.2	72.6	100.0 (711)
읍·면부	0.0	4.3	30.4	65.2	100.0 (230)
성					
남자	0.3	3.2	24.6	71.8	100.0 (589)
여자	0.0	3.4	27.4	69.2	100.0 (351)
연령					
65~69세	0.2	4.3	27.3	68.2	100.0 (655)
70~74세	0.5	1.0	25.1	73.4	100.0 (207)
75~79세	0.0	1.4	11.1	87.5	100.0 ( 72)
80~84세	0.0	0.0	37.5	62.5	100.0 ( 8) <sup>2)</sup>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5.0	30.0	65.0	100.0 ( 40)
노인부부	0.0	1.5	24.0	74.5	100.0 (458)
자녀동거	0.4	0.4	20.6	78.5	100.0 (233)
기타	0.5	10.0	33.8	55.7	100.0 (210)
생존부모					
부모의 건강상태					
생존부모 모두 건강	0.3	4.9	29.5	65.3	100.0 (369)
생존부모 일부 건강	0.0	5.7	57.1	37.1	100.0 ( 35)
생존부모 모두 비건강	0.2	1.1	21.0	77.6	100.0 (5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8	30.6	66.7	100.0 ( 36)
무학(글자해독)	0.0	8.2	23.5	68.2	100.0 ( 85)
초등학교	0.4	6.1	24.5	69.0	100.0 (261)
중·고등학교	0.2	1.7	24.9	73.1	100.0 (405)
전문대학 이상	0.0	0.0	29.4	70.6	100.0 (153)
현 취업상태					
취업중	0.2	4.3	24.5	70.9	100.0 (416)
미취업	0.2	2.5	26.5	70.9	100.0 (5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3.0	22.4	74.6	100.0 ( 67)
제2오분위	0.8	3.9	28.1	67.2	100.0 (128)
제3오분위	0.0	4.1	29.4	66.5	100.0 (197)
제4오분위	0.0	4.4	20.1	75.5	100.0 (229)
제5오분위	0.3	2.2	26.8	70.7	100.0 (3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0.2	3.2	26.1	70.4	100.0 (893)
제한 있음	0.0	2.1	17.0	80.9	100.0 ( 47)
2008년도	1.4	8.6	41.8	48.2	100.0 (8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3-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2.3	31.0	24.6	32.2	100.0 (941)
지역					
동부	12.8	28.2	23.7	35.3	100.0 (712)
읍·면부	10.4	39.6	27.4	22.6	100.0 (230)
성					
남자	11.4	28.3	24.9	35.4	100.0 (590)
여자	13.9	35.4	24.1	26.6	100.0 (353)
연령					
65~69세	12.1	32.8	27.3	27.8	100.0 (655)
70~74세	16.3	30.8	14.9	38.0	100.0 (208)
75~79세	1.4	18.1	25.0	55.6	100.0 ( 72)
80~84세	12.5	0.0	50.0	37.5	100.0 ( 8) <sup>2)</sup>
가구형태					
노인독거	7.5	37.5	27.5	27.5	100.0 ( 40)
노인부부	3.1	23.9	32.8	40.3	100.0 (457)
자녀동거	9.4	23.6	24.5	42.5	100.0 (233)
기타	36.2	53.3	6.2	4.3	100.0 (210)
생존부모					
부모의 건강상태					
생존부모 모두 건강	12.7	32.2	23.8	31.2	100.0 (369)
생존부모 일부 건강	2.8	25.0	58.3	13.9	100.0 ( 36)
생존부모 모두 비건강	12.6	29.8	23.5	34.0	100.0 (5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0.6	30.6	25.0	13.9	100.0 ( 36)
무학(글자해독)	11.8	43.5	18.8	25.9	100.0 ( 85)
초등학교	8.4	31.4	25.7	34.5	100.0 (261)
중·고등학교	14.9	28.0	23.3	33.9	100.0 (404)
전문대학 이상	7.8	31.2	29.9	31.2	100.0 (15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3	36.1	23.8	28.8	100.0 (416)
미취업	13.0	27.1	25.2	34.7	100.0 (5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19.4	34.3	43.3	100.0 ( 67)
제2오분위	10.9	30.5	24.2	34.4	100.0 (128)
제3오분위	14.7	37.6	20.8	26.9	100.0 (197)
제4오분위	10.9	31.4	27.5	30.1	100.0 (229)
제5오분위	14.3	29.0	23.1	33.6	100.0 (3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9	31.9	24.7	30.5	100.0 (893)
제한 있음	0.0	12.8	23.4	63.8	100.0 ( 47)
2008년도	10.7	28.1	29.3	31.9	100.0 (8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3-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sup>1)</sup>	0.3	4.9	6.9	10.9	65.0	74.9
지역						
동부	0.4	5.0	6.6	11.8	64.9	72.2
읍·면부	0.0	4.8	7.9	8.3	65.2	83.4
성						
남자	0.3	4.3	6.8	12.1	67.5	71.6
여자	0.3	5.8	7.0	8.6	60.7	80.5
연령						
65~69세	0.3	5.1	7.6	11.6	67.4	77.0
70~74세	0.5	5.9	7.4	9.8	64.2	70.7
75~79세	0.0	0.0	0.0	7.4	46.4	67.6
80~84세	0.0	0.0	0.0	0.0	50.0	62.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0	5.0	6.7	11.2	66.0	74.3
배우자 없음	3.2	4.3	9.6	8.5	57.0	80.6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2.5	15.0	15.0	52.5	84.6
노인부부	0.0	4.0	7.3	12.4	65.3	73.4
자녀동거	0.4	6.6	6.6	6.0	64.7	69.0
기타	1.0	5.2	4.8	11.9	67.6	82.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8	0.0	0.0	52.8	88.9
무학(글자해독)	1.2	4.7	10.5	9.4	59.3	79.1
초등학교	0.8	3.9	5.5	5.4	61.1	74.8
중·고등학교	0.0	4.0	5.8	11.3	67.5	74.8
전문대학 이상	0.0	9.1	11.7	21.9	71.4	69.7
현 취업상태						
취업중	0.0	3.6	8.8	12.3	71.1	80.0
미취업	0.6	5.8	5.4	9.8	60.2	7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7.6	18.2	10.6	37.9	50.0
제2오분위	0.8	4.2	5.9	4.9	63.1	77.9
제3오분위	0.0	3.0	4.6	10.7	64.5	79.7
제4오분위	0.4	0.4	3.5	11.8	68.1	78.6
제5오분위	0.3	9.1	9.1	12.8	69.6	73.1
기능상태						
제한 없음	0.1	5.0	7.1	11.4	65.4	75.3
제한 있음	4.4	2.3	2.2	2.2	57.8	66.7
2008년도	7.6	69.1	26.3	9.1	79.9	19.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4명을 제외함.

## 제4절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실태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는 다른 부양의 교환 유형을 보일 것이다. 상호간의 부양을 전제로 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지원은 80%대, 도구적 도움은 70%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환실태를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특성이 분명하여 동부 노인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 정서 및 도구적 도움의 수혜율과 제공률이 모두 높다. 성별 차이 또한 크다.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남자 노인에게서 높지만 제공률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가사 관련 지원의 경우 남녀 차이가 매우 크다. 즉 수혜율이 남자노인의 경우 93.2%로 대다수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 즉 남편으로부터 가사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49.2%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제공하는 비율은 남자노인이 51.5%이고 여자노인이 92.8%이어서 가사노동을 상당 부분 여자노인이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발의 경우도 그 차이는 가사노동에 비하여 적기는 하지만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수혜율이 높고 제공률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령군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그러나 가사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후기노인에게서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하여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 부부간의 정서적 및 도구적 도움의 제공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 관련 도움의 제공과 수발의 제공 및 수혜에 있어 그 비율의 차이가 크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수혜율과 제공률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수발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노인의 취업상태별 교환에 있어서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취업중인 경우가 비취업 노인에 비하여 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노인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88.8%이며 제공률은 89.6%로 비취업 노인의 수혜율과 제공률인 84.5%와 약 5%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기능상태는 배우자와의 부양교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적 교환은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제공

률이 86.6% 수혜율이 87.6%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83%와 77.2%보다 높다. 가사 관련 지원은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수혜율이 높고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제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수발지원의 경우도 그러한 경향성은 동일한데 기능제한 여부에 따른 차이가 훨씬 커,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수혜율이 68.5%와 제공률이 73.9%이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82.9%와 45.6%이다. 또한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커서, 주관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정서적 및 도구적 도움의 수혜 및 제공률이 낮다.

〈표 11-3-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9.8	66.4	10.5	3.3	100.0 (7,112)
지역					
동부	21.3	63.3	11.6	3.8	100.0 (4,824)
읍·면부	16.7	72.9	8.2	2.1	100.0 (2,287)
성					
남자	21.0	68.0	8.6	2.4	100.0 (4,107)
여자	18.3	64.2	13.1	4.5	100.0 (3,005)
연령					
65~69세	20.0	67.3	9.5	3.1	100.0 (2,552)
70~74세	19.6	65.3	11.5	3.6	100.0 (2,347)
75~79세	20.7	67.1	9.7	2.5	100.0 (1,499)
80~84세	18.3	65.6	12.5	3.7	100.0 ( 514)
85세 이상	17.0	63.5	12.5	7.0	100.0 ( 200)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41.2	47.1	11.8	100.0 ( 17)
노인부부	20.5	67.2	9.5	2.8	100.0 (5,104)
자녀동거	19.2	62.1	13.6	5.1	100.0 (1,644)
기타	14.7	75.8	8.1	1.4	100.0 ( 347)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7.9	41.9	16.1	4.0	100.0 ( 124)
건강한편	20.4	70.3	8.4	0.9	100.0 (2,227)
그저 그렇다	19.9	67.4	10.2	2.6	100.0 (1,368)
건강하지 않은편	19.6	67.1	9.8	3.5	100.0 (2,887)
전혀 건강하지 않음	14.6	46.7	23.8	14.8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2	64.8	11.9	8.0	100.0 ( 361)
무학(글자해독)	14.5	68.9	12.4	4.2	100.0 (1,064)
초등학교	18.8	66.8	11.2	3.2	100.0 (2,745)
중·고등학교	22.3	65.9	9.0	2.8	100.0 (2,296)
전문대학 이상	26.8	63.0	9.1	1.1	100.0 ( 64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5	71.3	9.1	2.1	100.0 (2,809)
미취업	21.3	63.2	11.4	4.1	100.0 (4,3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7	71.1	8.2	5.9	100.0 ( 693)
제2오분위	19.8	66.4	10.9	2.8	100.0 (1,562)
제3오분위	18.6	68.0	10.9	2.4	100.0 (1,727)
제4오분위	17.6	68.8	10.4	3.2	100.0 (1,623)
제5오분위	26.0	59.7	10.7	3.7	100.0 (1,5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6	67.0	10.4	3.0	100.0 (6,340)
제한 있음	21.5	61.5	11.3	5.7	100.0 ( 771)
2008년도	30.6	62.1	61	1.2	100.0 (6,95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표 11-3-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9.4	67.2	10.8	2.6	100.0 (7,111)
지역					
동부	20.8	63.8	12.3	3.1	100.0 (4,824)
읍·면부	16.2	74.4	7.7	1.7	100.0 (2,287)
성					
남자	19.3	68.4	10.2	2.1	100.0 (4,106)
여자	19.5	65.5	11.7	3.3	100.0 (3,004)
연령					
65~69세	20.3	67.7	10.0	2.0	100.0 (2,552)
70~74세	19.5	66.2	11.7	2.7	100.0 (2,347)
75~79세	19.4	68.0	10.0	2.5	100.0 (1,498)
80~84세	17.0	69.2	10.5	3.3	100.0 ( 513)
85세 이상	11.4	61.2	17.9	9.5	100.0 ( 201)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64.7	17.6	17.6	100.0 ( 17)
노인부부	20.0	67.9	9.9	2.1	100.0 (5,103)
자녀동거	18.4	63.2	14.1	4.3	100.0 (1,644)
기타	14.7	75.7	8.1	1.4	100.0 ( 346)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9.8	35.0	19.5	5.7	100.0 ( 123)
건강한편	18.9	71.4	8.7	0.9	100.0 (2,226)
그저 그렇다	18.6	66.6	12.8	2.0	100.0 (1,367)
건강하지 않은편	19.4	68.0	9.5	3.1	100.0 (2,885)
전혀 건강하지 않음	18.5	53.0	20.7	7.7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6	66.4	10.6	7.5	100.0 ( 360)
무학(글자해독)	14.7	70.0	11.9	3.4	100.0 (1,064)
초등학교	18.1	67.6	11.8	2.6	100.0 (2,745)
중·고등학교	22.2	66.7	9.2	2.0	100.0 (2,295)
전문대학 이상	24.8	63.0	10.8	1.4	100.0 ( 64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6	72.0	9.0	1.4	100.0 (2,810)
미취업	20.5	64.0	12.0	3.4	100.0 (4,3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6	71.9	10.2	4.3	100.0 ( 693)
제2오분위	19.1	67.6	10.7	2.6	100.0 (1,562)
제3오분위	18.2	68.9	11.0	1.9	100.0 (1,727)
제4오분위	18.0	68.3	10.8	2.9	100.0 (1,624)
제5오분위	25.0	61.3	11.1	2.6	100.0 (1,5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7	67.9	10.3	2.0	100.0 (6,340)
제한 있음	16.2	61.0	15.2	7.6	100.0 ( 772)
2008년도	30.0	63.0	5.9	1.1	100.0 (6,95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1명 제외함.

〈표 11-3-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35.0	39.6	16.0	9.4	100.0 (7,112)
지역					
동부	36.4	38.0	15.6	10.0	100.0 (4,824)
읍·면부	32.0	43.1	17.0	7.9	100.0 (2,286)
성					
남자	53.6	39.6	4.5	2.3	100.0 (4,107)
여자	9.5	39.7	31.8	19.0	100.0 (3,006)
연령					
65~69세	33.0	42.6	16.8	7.6	100.0 (2,552)
70~74세	34.2	39.6	16.4	9.8	100.0 (2,347)
75~79세	37.7	36.2	15.3	10.8	100.0 (1,499)
80~84세	37.5	39.9	10.9	11.7	100.0 ( 514)
85세 이상	43.0	27.5	20.5	9.0	100.0 ( 200)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8.8	6.3	75.0	100.0 ( 16)
노인부부	34.3	41.5	15.5	8.6	100.0 (5,104)
자녀동거	37.3	33.6	17.8	11.3	100.0 (1,645)
기타	34.8	41.1	16.4	7.8	100.0 ( 348)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48.8	26.8	17.1	7.3	100.0 ( 123)
건강한편	36.5	41.7	16.0	5.7	100.0 (2,226)
그저 그렇다	38.1	41.6	14.7	5.6	100.0 (1,368)
건강하지 않은편	34.9	41.4	15.6	8.1	100.0 (2,887)
전혀 건강하지 않음	16.9	17.1	22.4	43.6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3	36.9	25.6	22.2	100.0 ( 360)
무학(글자해독)	26.2	38.0	21.3	14.5	100.0 (1,065)
초등학교	31.3	41.7	18.0	9.0	100.0 (2,744)
중·고등학교	43.6	38.3	11.8	6.4	100.0 (2,295)
전문대학 이상	45.5	40.1	8.5	5.9	100.0 ( 64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0	42.3	14.4	7.3	100.0 (2,810)
미취업	34.3	37.9	17.1	10.7	100.0 (4,3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9	42.3	12.8	12.0	100.0 ( 693)
제2오분위	33.6	39.8	17.2	9.4	100.0 (1,562)
제3오분위	33.5	42.0	15.8	8.7	100.0 (1,727)
제4오분위	32.3	42.4	16.4	8.9	100.0 (1,622)
제5오분위	41.9	32.6	16.1	9.4	100.0 (1,5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5	40.5	16.5	9.5	100.0 (6,340)
제한 있음	47.5	32.4	11.9	8.2	100.0 ( 771)
2008년도	35.5	43.6	13.0	7.9	100.0 (6,95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표 11-3-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26.6	42.4	22.3	8.7	100.0 (7,112)
지역					
동부	27.3	40.6	24.0	8.1	100.0 (4,825)
읍·면부	25.1	46.1	18.7	10.1	100.0 (2,287)
성					
남자	8.3	43.2	34.9	13.6	100.0 (4,107)
여자	51.5	41.3	5.1	2.1	100.0 (3,005)
연령					
65~69세	28.0	42.9	22.6	6.5	100.0 (2,552)
70~74세	27.4	43.3	21.4	7.9	100.0 (2,347)
75~79세	25.8	41.9	20.4	11.9	100.0 (1,499)
80~84세	22.2	43.0	23.2	11.7	100.0 ( 514)
85세 이상	16.5	28.0	40.0	15.5	100.0 ( 200)
가구형태					
노인독거	62.5	0.0	0.0	37.5	100.0 ( 16)
노인부부	27.7	43.6	20.3	8.4	100.0 (5,103)
자녀동거	23.2	37.7	29.4	9.7	100.0 (1,645)
기타	24.0	49.7	19.1	7.2	100.0 ( 346)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45.2	36.3	10.5	8.1	100.0 ( 124)
건강한편	24.5	41.4	25.4	8.7	100.0 (2,227)
그저 그렇다	25.5	40.1	25.1	9.4	100.0 (1,367)
건강하지 않은편	23.4	46.5	21.2	8.9	100.0 (2,886)
전혀 건강하지 않음	52.4	31.9	9.6	6.1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3	37.4	13.9	7.5	100.0 ( 361)
무학(글자해독)	35.8	40.0	16.7	7.4	100.0 (1,064)
초등학교	27.2	44.4	19.4	9.1	100.0 (2,744)
중·고등학교	20.8	43.1	26.9	9.2	100.0 (2,297)
전문대학 이상	21.4	38.4	31.9	8.4	100.0 ( 646)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8	44.7	23.1	8.4	100.0 (2,810)
미취업	28.4	40.9	21.8	9.0	100.0 (4,3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4	43.2	19.9	10.4	100.0 ( 692)
제2오분위	28.5	43.7	19.4	8.4	100.0 (1,563)
제3오분위	27.1	44.9	19.8	8.2	100.0 (1,726)
제4오분위	24.9	42.8	23.4	8.8	100.0 (1,622)
제5오분위	25.8	37.5	28.0	8.8	100.0 (1,5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1	43.7	21.9	6.3	100.0 (6,340)
제한 있음	14.4	31.7	25.3	28.6	100.0 ( 772)
2008년도	32.5	44.3	15.5	7.7	100.0 (6,95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표 11-3-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않은편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9.8	50.3	19.4	10.5	100.0 (7,112)
지역					
동부	20.1	48.3	19.9	11.8	100.0 (4,825)
읍·면부	19.2	54.5	18.4	7.9	100.0 (2,287)
성					
남자	22.9	51.3	17.5	8.3	100.0 (4,108)
여자	15.6	48.9	22.0	13.5	100.0 (3,005)
연령					
65~69세	17.1	52.2	21.4	9.3	100.0 (2,552)
70~74세	20.7	49.4	19.3	10.6	100.0 (2,347)
75~79세	22.2	49.6	16.1	12.1	100.0 (1,500)
80~84세	19.3	50.1	18.9	11.7	100.0 ( 513)
85세 이상	26.9	40.3	22.4	10.4	100.0 ( 201)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1.8	17.6	70.6	100.0 ( 17)
노인부부	19.9	52.0	18.3	9.8	100.0 (5,104)
자녀동거	20.1	45.0	22.6	12.3	100.0 (1,644)
기타	17.3	52.4	20.5	9.8	100.0 ( 347)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0.6	37.1	24.2	8.1	100.0 ( 124)
건강한편	17.8	52.2	23.0	7.0	100.0 (2,226)
그저 그렇다	21.4	55.2	14.6	8.8	100.0 (1,366)
건강하지 않은편	20.9	51.9	18.4	8.9	100.0 (2,887)
전혀 건강하지 않음	15.7	22.4	21.1	40.9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3	48.5	17.7	17.5	100.0 ( 361)
무학(글자해독)	19.6	48.4	22.9	9.0	100.0 (1,064)
초등학교	18.9	53.4	16.9	10.8	100.0 (2,745)
중·고등학교	21.2	49.1	19.3	10.4	100.0 (2,296)
전문대학 이상	20.8	45.1	25.7	8.4	100.0 ( 64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7	53.3	20.4	9.6	100.0 (2,811)
미취업	21.8	48.3	18.8	11.1	100.0 (4,3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9	52.7	16.6	12.7	100.0 ( 692)
제2오분위	19.2	55.0	16.3	9.5	100.0 (1,562)
제3오분위	21.1	51.7	17.9	9.3	100.0 (1,728)
제4오분위	18.7	51.8	20.1	9.4	100.0 (1,623)
제5오분위	21.0	40.9	25.0	13.1	100.0 (1,5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1	51.4	20.6	10.9	100.0 (6,340)
제한 있음	41.9	41.0	9.7	7.4	100.0 ( 771)
2008년도	32.3	51.2	10.2	6.3	100.0 (6,95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표 11-3-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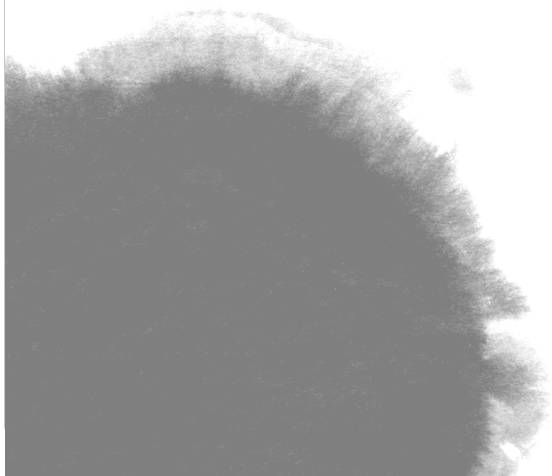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18.7	52.2	20.2	8.9	100.0 (7,112)
지역					
동부	19.4	50.0	20.9	9.8	100.0 (4,824)
읍·면부	17.4	56.9	18.6	7.1	100.0 (2,286)
성					
남자	13.1	53.8	22.9	10.3	100.0 (4,107)
여자	26.5	50.0	16.4	7.1	100.0 (3,005)
연령					
65~69세	17.0	54.2	21.2	7.6	100.0 (2,552)
70~74세	20.2	51.4	19.2	9.2	100.0 (2,347)
75~79세	20.0	50.5	19.3	10.1	100.0 (1,499)
80~84세	18.1	53.5	18.7	9.7	100.0 ( 514)
85세 이상	15.9	43.8	28.9	11.4	100.0 ( 201)
가구형태					
노인독거	62.5	0.0	6.3	31.3	100.0 ( 16)
노인부부	19.5	53.1	19.1	8.3	100.0 (5,104)
자녀동거	17.0	48.4	23.9	10.7	100.0 (1,644)
기타	13.2	58.6	19.0	9.2	100.0 ( 348)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24.4	35.0	26.8	13.8	100.0 ( 123)
건강한편	11.0	49.8	28.3	10.9	100.0 (2,227)
그저 그렇다	16.5	54.5	19.3	9.6	100.0 (1,368)
건강하지 않은편	19.7	56.9	16.2	7.2	100.0 (2,886)
전혀 건강하지 않음	51.9	33.2	7.5	7.3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4.1	49.0	16.3	10.5	100.0 ( 361)
무학(글자해독)	22.9	49.5	19.1	8.5	100.0 (1,064)
초등학교	19.0	54.1	18.1	8.8	100.0 (2,746)
중·고등학교	16.1	53.8	21.2	8.9	100.0 (2,295)
전문대학 이상	17.1	44.2	29.3	9.5	100.0 ( 64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3	57.7	18.3	6.8	100.0 (2,810)
미취업	19.7	48.6	21.4	10.4	100.0 (4,3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3	55.3	19.0	8.4	100.0 ( 693)
제2오분위	19.4	55.3	17.3	7.9	100.0 (1,563)
제3오분위	20.5	54.0	17.4	8.1	100.0 (1,727)
제4오분위	16.1	54.2	20.3	9.4	100.0 (1,623)
제5오분위	19.3	43.1	26.7	10.9	100.0 (1,5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5	54.4	19.4	6.6	100.0 (6,341)
제한 있음	12.1	33.5	26.5	28.0	100.0 ( 771)
2008년도	31.4	52.6	10.6	5.4	100.0 (6,95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 04

##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제4장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이 노후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노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는 노인의 노인 연령기준, 자녀와의 동거, 재산처리 방식, 노후 생활비마련 방법, 재산처리방식, 삶의 만족도 등을 통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9.1%이다. 다음이 80세 이상 13.3%, 65~69세가 12.9%, 75~79세 11.3%의 순이다. 6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이며, 60~64세는 3.4%로 소수이다. 즉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70대 이상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80대 이상의 노인에게서 80세 이상을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II-4-1 참조).

〈표 II-4-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특성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전체 <sup>1)</sup>	0.0	3.4	12.9	59.1	11.3	13.3	100.0 (10,534)
지역							
동부	0.0	3.2	12.0	59.1	12.1	13.5	100.0 ( 7,141)
읍·면부	0.0	4.0	14.7	59.0	9.5	12.9	100.0 ( 3,392)
성							
남자	0.0	1.5	12.2	58.3	13.6	14.4	100.0 ( 4,547)
여자	0.0	4.9	13.4	59.6	9.5	12.5	100.0 ( 5,989)
연령							
65~69세	0.0	3.0	15.3	59.5	11.9	10.4	100.0 ( 3,149)
70~74세	0.0	3.2	12.8	60.4	10.4	13.1	100.0 ( 3,225)
75~79세	0.0	4.6	12.1	59.1	11.1	13.1	100.0 ( 2,389)
80~84세	0.0	2.7	9.7	57.5	12.6	17.5	100.0 ( 1,159)
85세 이상	0.0	3.6	10.5	52.7	11.0	22.3	100.0 ( 6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0	2.6	13.1	59.6	11.7	13.0	100.0 ( 7,118)
배우자 없음	0.0	5.3	12.4	58.0	10.4	13.9	100.0 ( 3,416)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4.9	12.4	56.8	11.1	14.7	100.0 ( 2,082)
노인부부	0.0	2.3	13.3	59.3	12.3	12.8	100.0 ( 5,120)
자녀동거	0.0	4.7	13.0	59.6	9.9	12.8	100.0 ( 2,845)
기타	0.0	1.8	9.9	63.7	9.4	15.2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5.1	11.9	60.8	9.0	13.2	100.0 ( 1,142)
무학(글자해독)	0.0	6.1	12.5	57.2	10.0	14.1	100.0 ( 2,180)
초등학교	0.0	3.0	14.9	59.1	10.5	12.5	100.0 ( 3,742)
중·고등학교	0.0	1.9	11.9	59.8	13.5	12.9	100.0 ( 2,736)
전문대학 이상	0.0	0.5	9.3	58.9	14.4	16.9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0.0	3.5	14.0	58.1	11.0	13.4	100.0 ( 3,566)
미취업	0.0	3.4	12.3	59.5	11.4	13.3	100.0 ( 6,96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5.1	13.0	57.8	9.8	14.3	100.0 ( 2,108)
제2오분위	0.0	3.3	13.9	59.4	10.8	12.5	100.0 ( 2,120)
제3오분위	0.0	2.7	14.2	58.2	11.0	14.0	100.0 ( 2,099)
제4오분위	0.0	2.7	11.3	61.9	11.2	12.9	100.0 ( 2,114)
제5오분위	0.0	3.4	12.0	58.0	13.7	12.9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0.0	3.4	12.7	59.0	11.6	13.3	100.0 ( 9,067)
제한 있음	0.0	3.8	14.2	59.8	8.9	13.2	100.0 ( 1,465)
2008년도	0.4	7.2	24.1	50.0	10.3	8.0	100.0 (10,72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함.



## 2. 노후 생활비 마련

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높아 55.0%이며, 국가적 차원이 30.6%, 자녀 14.2%, 기타 0.3%로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표 II-4-2 참조).

지역별로는 비교해보면 동부에서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3%로 읍·면부의 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는 본인스스로가 63.5%로 여자의 48.5%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라는 응답이 18.2%로 남자노인의 8.8%에 비하여 약 10%포인트가 높다. 이는 이들 노인세대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생활을 하면서 여자노인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자신의 경제적 의존성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경우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즉 65~69세의 본 응답률이 65.2%인데 비하여 85세 이상의 경우는 38.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녀와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후기노인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자녀(21.8%)와 국가적 차원(36.0%)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각각 10.5%와 28.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에게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본인스스로 라는 응답이 62.4%로 매우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즉,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69.5%에 달하고 있는 반면 글자를 모르는 무학 노인의 경우는 40.7%에 불과하다. 반면 자녀들이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반대의 경향을 보여 글자를 모르는 무학 노인은 23.9%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학력

자의 경우는 4.8%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소득분위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본인스스로라는 응답이 67.6%로 미취업 노인의 48.5%보다 높아 취업노인의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능 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40.5% 대 29.0%) 제한이 없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높아(57.7% 대 38.2%) 노후의 경제적 자립성에 대한 의지와 기능적 독립성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1-4-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55.0	14.2	30.6	0.3	100.0 (10,529)
지역					
동부	53.5	13.8	32.3	0.4	100.0 ( 7,136)
읍·면부	58.0	15.0	26.9	0.1	100.0 ( 3,392)
성					
남자	63.5	8.8	27.4	0.4	100.0 ( 4,541)
여자	48.5	18.2	33.0	0.2	100.0 ( 5,988)
연령					
65~69세	65.2	8.1	26.0	0.7	100.0 ( 3,149)
70~74세	57.2	12.3	30.3	0.2	100.0 ( 3,224)
75~79세	49.8	16.2	33.9	0.1	100.0 ( 2,387)
80~84세	40.3	23.9	35.7	0.1	100.0 ( 1,155)
85세 이상	38.5	28.5	33.0	0.0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1	10.5	28.0	0.4	100.0 ( 7,113)
배우자 없음	42.1	21.8	36.0	0.0	100.0 ( 3,415)
가구형태					
노인독거	44.0	18.2	37.8	0.0	100.0 ( 2,086)
노인부부	62.4	10.2	27.1	0.3	100.0 ( 5,115)
자녀동거	49.1	18.8	31.6	0.6	100.0 ( 2,841)
기타	58.3	11.5	30.2	0.0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0.7	23.9	35.3	0.1	100.0 ( 1,142)
무학(글자해독)	47.4	20.6	32.0	0.0	100.0 ( 2,178)
초등학교	56.5	14.1	29.2	0.2	100.0 ( 3,740)
중·고등학교	61.0	7.6	31.0	0.5	100.0 ( 2,733)
전문대학 이상	69.5	4.8	24.8	1.0	100.0 ( 735)

특성	본인 스스로	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67.6	9.0	23.0	0.3	100.0 ( 3,561)
미취업	48.5	16.8	34.5	0.3	100.0 ( 6,9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2	17.3	39.5	0.0	100.0 ( 2,111)
제2오분위	51.8	15.5	32.7	0.0	100.0 ( 2,115)
제3오분위	58.2	11.1	30.5	0.2	100.0 ( 2,099)
제4오분위	61.1	13.2	25.2	0.5	100.0 ( 2,110)
제5오분위	60.6	13.7	25.0	0.6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57.7	13.0	29.0	0.3	100.0 ( 9,064)
제한 있음	38.2	21.3	40.5	0.0	100.0 ( 1,466)
2008년도	53.0	11.8	34.9	0.4	100.0 (10,71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 제2절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 1. 자녀동거에 대한 태도

노후의 자녀동거 부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7.6%만이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약 1/4에 불과하다(표 II-4-3 참조).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함께 동거해야 하는 자녀로는 장남(57.6%), 형편이 되는 자녀(14.1%), 마음이 맞는 자녀(13.5%), 아들(11.5%), 딸(2.4%), 장녀(0.8%) 순으로, 노후 자녀와 함께 동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많은 수가 장남과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이러한 태도를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동거하는 경우 장남에 대한 선호가 읍·면부 거주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높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와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남자 23.7%와 여자 30.7%), 전기노인에게서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약하여 65~69세 연령군에서 19.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이러한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40.4%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25.6%에 비하여 약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표 11-4-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 · 희망자녀

(단위: %, 명)

특성	자녀동거 희망률 <sup>1)</sup>	노후 동거 희망 자녀 <sup>2)</sup>							계 (명)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기타	
전체	27.6	57.6	11.5	0.8	2.4	14.1	13.5	0.1	100.0 (2,908)
지역									
동부	27.5	54.4	10.6	0.9	3.1	15.0	15.9	0.2	100.0 (1,964)
읍·면부	27.9	64.2	13.3	0.7	1.1	12.3	8.4	0.0	100.0 ( 944)
성									
남자	23.7	56.6	11.2	0.5	1.8	15.1	15.0	0.0	100.0 (1,075)
여자	30.7	58.2	11.7	1.1	2.8	13.5	12.6	0.2	100.0 (1,832)
연령									
65~69세	19.6	59.3	9.7	1.0	3.4	15.3	11.4	0.0	100.0 ( 616)
70~74세	25.9	60.0	11.0	0.4	2.0	9.8	16.3	0.4	100.0 ( 833)
75~79세	30.1	54.8	11.2	0.8	1.3	17.5	14.4	0.0	100.0 ( 715)
80~84세	35.9	54.9	14.5	1.4	2.2	14.7	12.3	0.0	100.0 ( 415)
85세 이상	53.6	57.5	12.8	0.6	4.3	15.0	9.8	0.0	100.0 ( 32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8	59.0	10.5	0.6	2.3	13.3	14.3	0.0	100.0 (1,621)
배우자 없음	37.7	55.8	12.7	1.2	2.6	15.2	12.4	0.2	100.0 (1,286)
가구형태									
노인독거	21.7	51.1	11.3	1.8	3.1	15.7	16.4	0.7	100.0 ( 452)
노인부부	18.6	59.3	8.3	0.5	2.2	12.6	17.0	0.0	100.0 ( 949)
자녀동거	49.4	59.0	13.7	0.9	2.4	14.0	10.0	0.0	100.0 (1,403)
기타	21.6	49.5	12.4	0.0	1.9	21.0	15.2	0.0	100.0 ( 10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6.7	62.5	13.5	1.4	1.7	13.7	7.2	0.0	100.0 ( 416)
무학(글자해독)	33.4	61.5	11.5	0.8	1.8	10.3	14.0	0.0	100.0 ( 728)
초등학교	27.1	56.9	12.7	0.6	1.8	15.0	12.8	0.3	100.0 (1,011)
중·고등학교	22.4	54.2	8.3	0.7	1.6	16.7	18.5	0.0	100.0 ( 612)
전문대학 이상	18.8	42.3	11.7	0.7	16.1	16.8	12.4	0.0	100.0 ( 1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9	67.0	11.3	0.6	0.9	11.2	9.0	0.0	100.0 ( 849)
미취업	29.6	53.7	11.6	0.9	3.0	15.3	15.3	0.1	100.0 (2,05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0	55.1	12.0	1.6	2.3	15.4	13.6	0.0	100.0 ( 441)
제2오분위	22.5	57.3	10.3	0.4	1.3	14.2	15.9	0.6	100.0 ( 478)
제3오분위	23.9	55.2	11.8	1.6	2.0	14.1	15.3	0.0	100.0 ( 502)
제4오분위	29.3	61.2	12.5	0.5	2.4	13.1	10.4	0.0	100.0 ( 618)
제5오분위	41.5	57.8	11.2	0.5	3.3	14.0	13.2	0.0	100.0 ( 869)
가능상태									
제한 없음	25.6	58.0	10.8	0.9	2.6	13.7	14.0	0.0	100.0 (2,316)
제한 있음	40.4	55.7	14.4	0.7	1.5	15.7	11.5	0.5	100.0 ( 592)
2008년도	32.5	59.2	14.0	0.6	2.1	24.2	- <sup>3)</sup>	- <sup>3)</sup>	100.0 (10,72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2) 동거희망자 2,914명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함.  
 3) 해당 보기가 없었음.

## 2. 자녀와의 좋은 관계 유지에 중요한 것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45.7%에 달하고 있다. 다음은 가까이 사는 것(15.7%), 정서적 유대관계(12.6%),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11.8%),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10.0%),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1.8%), 비슷한 가치관(2.3%) 등의 순이다(표 II-4-4 참조).

이러한 응답은 노인의 제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동부거주 노인에게서는 정서적 유대관계(동부 14.6% 대 읍·면부 8.5%)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동거(읍·면부 14.4% 대 동부 10.6%)와 빈번한 연락·방문(읍·면부 53.2% 대 동부 42.1%)이라는 응답률이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빈번한 연락·방문(남자 47.8% 대 여자 44.1%)과 정서적 유대(남자 14.4%대 여자 11.3%)라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자녀동거(여자 13.8% 대 남자 9.3%)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다. 또한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후기노인에게서 자녀동거라는 응답률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7.2%인데 이는 65~69세 군의 7.1%보다 약 20%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기노인에게서는 빈번한 연락·방문과 정서적 유대라는 응답이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가까이 사는 것(배우자가 있는 노인 16.9% 대 배우자가 없는 노인 13.3%), 빈번한 연락·방문(배우자가 있는 노인 47.1% 대 배우자가 없는 노인 42.8%), 정서적 유대관계(배우자가 있는 노인 13.5% 대 배우자가 없는 노인 10.9%)를 많이 언급하는 등 관계성 유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동거(배우자가 없는 노인 17.7% 대 배우자가 있는 노인 9.0%)를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실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자녀동거를 중요시 하여 23.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일수록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와의 동거라는 응답은 낮은 반면 정서적 유대관계라는 응답률은 높아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와의 동거와 정서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양의 교환을 중요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취업 노인에 비해서 취업노인은 빈번한 연락·방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를 강조하고 있다.

〈표 11-4-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

(단위: %, 명)

특성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	가까이에 사는 것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	빈번한 연락· 방문	정서적 유대관계	비슷한 가치관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1.8	15.7	10.0	1.8	45.7	12.6	2.3	0.0	100.0 (10,533)
지역									
동부	10.6	16.2	11.5	2.0	42.1	14.6	3.0	0.0	100.0 ( 7,141)
읍·면부	14.4	14.6	7.0	1.2	53.2	8.5	1.0	0.0	100.0 ( 3,393)
성									
남자	9.3	15.5	9.3	1.3	47.8	14.4	2.4	0.0	100.0 ( 4,544)
여자	13.8	15.9	10.5	2.1	44.1	11.3	2.2	0.1	100.0 ( 5,987)
연령									
65~69세	7.1	16.5	9.7	2.2	47.0	14.4	3.1	0.0	100.0 ( 3,150)
70~74세	11.3	15.4	9.9	1.8	46.8	12.4	2.4	0.0	100.0 ( 3,225)
75~79세	12.8	15.5	11.0	1.0	46.4	11.5	1.8	0.0	100.0 ( 2,384)
80~84세	16.0	15.8	10.4	2.0	42.7	11.2	1.9	0.0	100.0 ( 1,159)
85세 이상	27.2	13.8	7.7	2.3	35.7	12.1	0.8	0.5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0	16.9	9.4	1.5	47.1	13.5	2.7	0.0	100.0 ( 7,118)
배우자 없음	17.7	13.3	11.3	2.3	42.8	10.9	1.6	0.1	100.0 ( 3,415)
가구형태									
노인독거	8.8	14.8	12.1	1.2	51.8	9.6	1.5	0.0	100.0 ( 2,085)
노인부부	6.8	16.8	8.7	1.5	50.0	13.7	2.5	0.0	100.0 ( 5,120)
자녀동거	23.8	14.2	10.3	2.7	32.8	13.4	2.8	0.0	100.0 ( 2,842)
기타	8.4	17.0	12.5	0.8	49.1	10.1	1.6	0.4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0.4	15.7	10.1	1.3	44.4	7.5	0.3	0.2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15.1	15.4	10.4	2.2	46.1	9.6	1.1	0.0	100.0 ( 2,183)
초등학교	11.9	15.4	10.5	2.0	46.8	11.7	1.7	0.0	100.0 ( 3,741)
중·고등학교	7.1	17.3	9.6	1.4	45.6	15.7	3.4	0.0	100.0 ( 2,735)
전문대학 이상	6.3	12.5	7.6	1.5	40.7	23.0	8.3	0.0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5	15.3	8.1	1.2	51.3	11.7	1.8	0.0	100.0 ( 3,566)
미취업	12.5	15.9	11.0	2.1	42.8	13.1	2.6	0.1	100.0 ( 6,968)

특성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	가까이에 사는 것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	빈번한 연락· 방문	정서적 유대관계	비슷한 가치관	기타	계 (명)
연가소득									
제1오분위	8.1	15.1	12.0	1.4	52.2	9.7	1.3	0.2	100.0 ( 2,109)
제2오분위	8.4	15.8	12.0	1.4	49.2	11.5	1.7	0.0	100.0 ( 2,121)
제3오분위	9.8	17.2	9.7	1.1	48.3	11.3	2.6	0.0	100.0 ( 2,099)
제4오분위	14.0	13.5	9.6	2.5	44.4	13.7	2.3	0.0	100.0 ( 2,115)
제5오분위	18.8	17.0	6.8	2.5	34.1	17.1	3.7	0.0	100.0 ( 2,09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3	15.9	10.0	1.7	46.9	12.8	2.5	0.0	100.0 ( 9,071)
제한 있음	21.0	14.8	10.0	2.5	38.2	11.9	1.4	0.2	100.0 ( 1,464)
2008년도	19.9	11.2	10.5	1.0	44.1	12.7	0.5	- 2)	100.0 (10,71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11명을 제외함.

2) 해당 보기가 없었음.

### 3.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

재산 처리 방식에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50.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남에게 더 많이(16.0%),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9.1%), 자신(배우자)를 위해(9.0%), 장남에게만(7.3%), 효도한 자녀에게(3.8%), 사회환원/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2.6%), 딸 제외 아들에게만 골고루(1.2%)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II-4-5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로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교육수준에 있어서 무학(글자모름) (20.8%), 무학(글자해독)(18.0%), 초등학교(16.2%), 중·고등학교(14.3%), 전문대학 이상(6.8%)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남에게 더 많이 재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4-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특성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게 더 많이	장남에게 만	딸제외 아들에게 만 골고루	호도한 자녀에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자녀 에게	사회환원/ 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	자신(배 우자)를 위해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50.8	16.0	7.3	1.2	3.8	9.1	2.6	9.0	0.2	100.0 (10,532)
지역										
동부	51.7	13.3	6.4	0.6	4.1	10.7	2.9	10.1	0.2	100.0 ( 7,139)
읍·면부	48.9	21.7	9.4	2.4	3.2	5.6	2.1	6.8	0.1	100.0 ( 3,390)
성										
남자	52.4	14.6	6.8	1.3	3.2	8.1	3.1	10.3	0.3	100.0 ( 4,544)
여자	49.7	17.0	7.8	1.1	4.3	9.8	2.3	8.1	0.1	100.0 ( 5,987)
연령										
65~69세	54.5	13.7	6.7	0.9	3.4	8.3	2.6	9.7	0.3	100.0 ( 3,147)
70~74세	50.0	16.4	7.5	1.2	4.0	9.0	2.7	9.1	0.2	100.0 ( 3,225)
75~79세	48.0	17.2	7.3	1.6	3.7	9.7	2.7	9.7	0.1	100.0 ( 2,388)
80~84세	48.8	17.1	7.3	0.9	4.2	10.7	3.0	7.9	0.1	100.0 ( 1,158)
85세 이상	50.8	18.6	9.6	1.5	5.0	8.0	1.5	5.0	0.0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1.8	16.2	6.6	1.2	3.5	8.8	2.5	9.2	0.2	100.0 ( 7,113)
배우자 없음	48.8	15.5	8.9	1.1	4.4	9.7	2.8	8.6	0.2	100.0 ( 3,417)
가구형태										
노인독거	49.6	13.6	8.4	1.3	3.8	9.4	3.9	9.7	0.2	100.0 ( 2,085)
노인부부	52.9	16.1	6.2	1.3	3.2	8.1	2.8	9.3	0.1	100.0 ( 5,118)
자녀동거	48.2	17.4	8.6	0.9	4.7	10.6	1.5	7.8	0.3	100.0 ( 2,842)
기타	49.2	16.3	6.8	0.6	5.1	9.7	2.0	10.3	0.0	100.0 ( 48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9.0	20.8	9.4	2.1	2.7	5.8	1.1	9.0	0.2	100.0 ( 1,142)
무학(글자해독)	47.0	18.0	9.7	1.8	4.3	8.2	2.0	8.9	0.1	100.0 ( 2,183)
초등학교	53.3	16.2	6.8	0.9	3.2	9.2	2.4	7.8	0.1	100.0 ( 3,740)
중·고등학교	50.4	14.3	6.5	0.7	4.8	9.5	2.7	10.8	0.1	100.0 ( 2,734)
전문대학 이상	53.8	6.8	3.0	1.0	3.5	14.3	7.9	9.0	0.8	100.0 ( 7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7	17.9	7.9	2.1	2.7	7.6	2.6	8.3	0.1	100.0 ( 3,562)
미취업	50.9	14.9	7.0	0.7	4.4	9.8	2.6	9.4	0.2	100.0 ( 6,96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9	13.5	8.1	1.3	4.2	8.9	3.0	9.8	0.2	100.0 ( 2,109)
제2오분위	49.6	16.4	8.1	1.3	3.4	8.4	3.0	9.7	0.1	100.0 ( 2,119)
제3오분위	51.3	16.5	6.8	1.5	3.2	8.4	2.5	9.6	0.1	100.0 ( 2,096)
제4오분위	50.9	17.6	7.2	1.0	3.3	9.1	2.5	8.4	0.0	100.0 ( 2,110)
제5오분위	51.5	15.8	6.5	0.8	5.0	10.6	2.0	7.6	0.3	100.0 ( 2,09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7	15.8	7.1	1.2	3.7	9.5	2.7	9.2	0.2	100.0 ( 9,064)
제한 있음	51.9	17.1	8.9	1.0	4.5	6.6	2.0	8.1	0.1	100.0 ( 1,465)
2008년도 <sup>2)</sup>	51.1	15.9	5.4	1.6	3.8	7.5	1.0	0.9	-	100.0 (10,68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12명을 제외함.

2) 2008년도 설문문항에는 '상속할 재산이 없음'이라는 보기가 없었음



### 제3절 장례 및 종교

#### 1. 희망하는 장례방법

노인 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으로는 화장이 가장 선호되고 있어 60.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매장으로 25.6%이다. 또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도 13.1%로 아직 본인의 죽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도 일정 규모가 되고 있다. 시신기증의사를 밝힌 노인은 1.0%에 불과하다(표 II-4-6 참조).

제특성별로 선호하는 장례방법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66.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직 본인의 장례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은 비율은 읍·면부에서 높아 도시지역 노인에 비하여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로 선호 장례방법을 비교해보면, 화장을 선택한 비율이 남자가 58.3%, 여자가 61.7%로 여자가 남자보다 화장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은 경우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연령이 높은 층에서 매장에 대한 비율이 높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방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낮은 경우 본인의 장례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4-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특성	화장	매장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시신기증	계 (명)
전체 <sup>1)</sup>	60.2	25.6	13.1	1.0	100.0 (10,540)
지역					
동부	66.8	20.2	11.8	1.2	100.0 ( 7,147)
읍·면부	46.5	37.1	15.9	0.5	100.0 ( 3,392)
성					
남자	58.3	27.5	13.3	0.9	100.0 ( 4,547)
여자	61.7	24.2	13.0	1.1	100.0 ( 5,992)
연령					
65~69세	64.9	18.6	15.1	1.4	100.0 ( 3,150)
70~74세	61.6	24.6	12.5	1.4	100.0 ( 3,228)
75~79세	56.4	29.9	13.1	0.5	100.0 ( 2,388)
80~84세	58.6	29.4	11.7	0.3	100.0 ( 1,159)
85세 이상	47.4	42.8	9.6	0.2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9.9	24.8	14.3	1.0	100.0 ( 7,119)
배우자 없음	60.9	27.3	10.8	1.0	100.0 (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60.9	26.8	11.0	1.3	100.0 ( 2,087)
노인부부	58.4	26.1	14.6	1.0	100.0 ( 5,119)
자녀동거	62.6	24.4	12.2	0.8	100.0 ( 2,847)
기타	63.3	22.7	12.5	1.4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6.3	28.3	15.3	0.0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57.0	29.5	12.9	0.6	100.0 ( 2,182)
초등학교	59.2	27.1	13.0	0.7	100.0 ( 3,743)
중·고등학교	65.3	20.7	12.4	1.6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62.7	20.5	14.1	2.6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54.1	30.4	14.6	1.0	100.0 ( 3,566)
미취업	63.4	23.2	12.4	1.0	100.0 ( 6,9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2	26.0	11.9	0.9	100.0 ( 2,112)
제2오분위	60.7	24.8	13.6	0.9	100.0 ( 2,120)
제3오분위	60.5	26.3	12.2	1.0	100.0 ( 2,098)
제4오분위	59.6	25.7	13.7	0.9	100.0 ( 2,115)
제5오분위	59.2	25.3	14.3	1.2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60.7	25.0	13.2	1.0	100.0 ( 9,074)
제한 있음	57.4	29.3	12.6	0.8	100.0 ( 1,466)
2008년도	45.6	32.3	22.1	- <sup>2)</sup>	100.0 (10,72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2) 2008년 조사에는 '시신기증'이라는 보기가 제시되지 않았음.

## 2. 종교

노인의 종교를 살펴본 <표 II-4-7>에 의하면 불교가 31.3%, 개신교(기독교)가 21.8%, 천주교가 9.7%, 유교 1.8%, 원불교 0.2%, 기타 0.6%의 순이다. 종교가 없다는 노인도 34.7%에 달하고 있다. 즉 노인의 종교는 매우 다양하다. 노인의 종교는 지역별 차이가 커서 동부 노인의 경우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가 각각 24.1%와 12.2%로 읍·면부의 16.7%와 4.4%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읍·면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노인이 40.0%에 달하고 있으며 불교신자는 35.2%로 동부의 29.4%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에게서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 남자노인이 46.5%이며, 여자노인이 25.8%이다. 이는 노년기에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활발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유교를 제외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믿는다는 응답률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게서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불교를 믿는 비율이 높은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에게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비율이 높아, 중·고등학교 학력의 노인은 12.9%, 전문대 이상은 16.1%로 평균인 9.7%보다 높다.

이러한 종교가 노인의 삶에서 갖는 중요도를 살펴본 <표 II-4-8>에 의하면 노인의 65.3%가 종교를 갖고 있고 이중 종교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21.6%, 중요하다는 응답이 49.6%이며, 그저 그렇다가 26.4%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2.2%,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2%로 소수이다. 즉 노인의 약 2/3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70% 정도는 본인의 삶에 있어 종교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의 종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읍·면부에 비하여 동부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등 종교 활동 참여율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성을 갖는 의미 있는 활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4-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단위: %, 명)

특성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없음	계 (명)
전체 <sup>1)</sup>	31.3	21.8	9.7	1.8	0.2	0.6	34.7	100.0 (10,545)
지역								
동부	29.4	24.1	12.2	1.3	0.2	0.5	32.3	100.0 ( 7,150)
읍·면부	35.2	16.7	4.4	3.0	0.2	0.5	40.0	100.0 ( 3,394)
성								
남자	24.6	17.0	8.3	3.2	0.2	0.3	46.5	100.0 ( 4,548)
여자	36.3	25.3	10.7	0.9	0.2	0.7	25.8	100.0 ( 5,996)
연령								
65~69세	32.0	20.6	10.5	1.5	0.2	0.4	34.7	100.0 ( 3,149)
70~74세	33.1	20.8	9.3	2.4	0.2	0.5	33.7	100.0 ( 3,228)
75~79세	30.0	22.6	8.6	1.9	0.2	0.5	36.2	100.0 ( 2,390)
80~84세	28.6	25.5	10.2	1.7	0.3	0.7	32.9	100.0 ( 1,163)
85세 이상	27.5	22.1	10.4	0.8	0.0	0.7	38.4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6	19.9	8.9	2.5	0.2	0.4	37.6	100.0 ( 7,121)
배우자 없음	32.7	25.5	11.1	0.6	0.3	0.9	28.8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32.4	25.4	10.3	0.8	0.3	1.1	29.7	100.0 ( 2,087)
노인부부	31.4	19.4	8.4	2.8	0.2	0.4	37.5	100.0 ( 5,121)
자녀동거	31.0	23.2	11.3	0.9	0.1	0.5	33.0	100.0 ( 2,850)
기타	26.7	22.2	10.5	2.3	0.0	0.4	38.0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5.4	17.3	5.2	0.3	0.1	0.8	40.8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33.3	22.8	7.9	1.2	0.1	0.9	33.8	100.0 ( 2,185)
초등학교	34.6	20.0	8.4	2.2	0.2	0.5	34.0	100.0 ( 3,744)
중·고등학교	27.0	21.8	12.9	2.7	0.2	0.3	35.1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7.8	33.9	16.1	1.5	0.3	0.3	30.1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1	17.7	5.4	3.1	0.2	0.4	39.2	100.0 ( 3,567)
미취업	29.8	23.8	11.8	1.2	0.2	0.6	32.4	100.0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5	23.9	8.7	1.1	0.2	1.0	35.6	100.0 ( 2,113)
제2오분위	33.8	20.5	8.7	3.0	0.2	0.8	33.1	100.0 ( 2,120)
제3오분위	33.1	19.5	7.8	2.3	0.1	0.2	37.0	100.0 ( 2,101)
제4오분위	30.1	22.2	9.1	1.9	0.2	0.3	36.2	100.0 ( 2,115)
제5오분위	29.8	22.7	14.1	0.9	0.2	0.4	31.9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6	21.4	9.7	1.9	0.2	0.5	34.7	100.0 ( 9,075)
제한 있음	29.3	23.9	9.4	1.4	0.2	0.7	35.1	100.0 ( 1,47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표 11-4-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 <sup>1)</sup>	종교의 중요도 <sup>2)</sup>					계 (명)
		매우 중요	중요한 편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sup>1)</sup>	65.3	21.6	49.6	26.4	2.2	0.2	100.0 (6,865)
지역							
동부	67.7	25.5	47.2	24.9	2.2	0.2	100.0 (4,832)
읍·면부	60.0	12.5	55.2	30.1	2.0	0.1	100.0 (2,032)
성							
남자	53.5	18.1	47.5	31.5	2.7	0.2	100.0 (2,431)
여자	74.2	23.6	50.8	23.7	1.9	0.1	100.0 (4,435)
연령							
65~69세	65.3	22.2	48.4	26.5	2.6	0.2	100.0 (2,054)
70~74세	66.3	20.5	49.2	28.2	1.8	0.3	100.0 (2,135)
75~79세	63.8	21.3	50.4	25.7	2.5	0.1	100.0 (1,521)
80~84세	67.0	25.1	50.5	22.3	2.1	0.0	100.0 ( 776)
85세 이상	61.6	18.7	53.3	27.2	0.8	0.0	100.0 ( 3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2.4	20.9	48.5	28.1	2.4	0.2	100.0 (4,434)
배우자 없음	71.2	23.0	51.7	23.5	1.7	0.2	100.0 (2,430)
가구형태							
노인독거	70.3	23.3	52.0	22.9	1.6	0.2	100.0 (1,465)
노인부부	62.6	19.9	49.4	28.3	2.2	0.2	100.0 (3,196)
자녀동거	66.9	22.2	48.8	26.1	2.7	0.2	100.0 (1,901)
기타	62.0	27.8	45.0	25.5	1.7	0.0	100.0 ( 30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9.1	13.7	55.9	28.2	2.1	0.1	100.0 ( 673)
무학(글자해독)	66.2	19.2	51.7	26.7	2.2	0.2	100.0 (1,445)
초등학교	66.0	20.0	49.4	28.0	2.4	0.1	100.0 (2,461)
중·고등학교	64.9	25.6	47.7	24.7	1.7	0.2	100.0 (1,774)
전문대학 이상	69.9	32.6	42.9	21.8	2.5	0.2	100.0 ( 513)
현 취업상태							
취업중	60.8	15.7	51.2	30.5	2.5	0.1	100.0 (2,164)
미취업	67.6	24.4	48.9	24.5	2.0	0.2	100.0 (4,7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4	21.5	53.4	22.8	1.8	0.4	100.0 (1,359)
제2오분위	66.9	18.8	49.0	30.1	1.9	0.1	100.0 (1,414)
제3오분위	63.0	20.7	49.3	26.6	3.2	0.2	100.0 (1,321)
제4오분위	63.8	23.1	50.0	25.2	1.7	0.0	100.0 (1,347)
제5오분위	68.1	24.1	46.5	27.1	2.3	0.1	100.0 (1,422)
기능상태							
제한 없음	65.3	21.9	49.2	26.6	2.2	0.2	100.0 (5,912)
제한 있음	64.9	20.1	52.4	25.5	1.8	0.2	100.0 ( 95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종교를 가지고 있는 6,881명 중 무응답 16명을 제외함.

## 제4절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4.0%,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17.9%, 배우자와의 관계는 68.3%, 자녀와의 관계는 73.5%로 비교적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34.0%로 응답자의 약 1/3이며, 그저 그렇다가 21.3%,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8%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다(표 II-4-9 참조). 이러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제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각각 42.9%와 48.6%이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35.8%와 51.5%로 약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75세 이상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 또한 결혼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 미취업노인,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글자를 모르는 무학 노인이 19.9%, 글자를 해독하는 무학노인이 25.0%, 초등학교 30.3%, 중·고등학교 45.0%, 전문대학 이상 60.5%로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건강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분위별로도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건강상태의 만족도가 높다.

〈표 11-4-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체 <sup>1)</sup>	3.0	31.0	21.3	36.1	8.7	100.0 (10,541)
지역						
동부	3.5	31.6	22.0	34.1	8.8	100.0 ( 7,146)
읍·면부	1.9	29.8	19.7	40.3	8.3	100.0 ( 3,394)
성						
남자	5.3	40.6	18.4	28.4	7.4	100.0 ( 4,546)
여자	1.2	23.8	23.5	41.9	9.6	100.0 ( 5,994)
연령						
65~69세	4.5	38.2	21.6	29.4	6.3	100.0 ( 3,150)
70~74세	2.7	30.9	21.7	36.9	7.8	100.0 ( 3,227)
75~79세	1.9	25.2	21.0	41.6	10.3	100.0 ( 2,390)
80~84세	2.4	25.3	19.0	40.4	12.9	100.0 ( 1,160)
85세 이상	2.1	28.3	23.0	35.8	10.7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	33.9	20.8	34.0	7.8	100.0 ( 7,120)
배우자 없음	1.8	24.9	22.4	40.4	10.5	100.0 (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1.6	24.2	21.6	42.1	10.4	100.0 ( 2,087)
노인부부	3.0	33.6	21.2	34.2	8.0	100.0 ( 5,120)
자녀동거	4.1	30.9	21.7	34.4	9.0	100.0 ( 2,847)
기타	2.0	33.4	18.9	39.3	6.4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	18.9	20.2	47.5	12.3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1.1	23.9	22.0	42.4	10.6	100.0 ( 2,183)
초등학교	2.0	28.3	22.5	38.9	8.3	100.0 ( 3,744)
중·고등학교	4.7	40.3	20.3	27.5	7.2	100.0 ( 2,738)
전문대학 이상	10.1	50.4	18.3	16.9	4.4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	41.1	20.8	29.8	4.0	100.0 ( 3,566)
미취업	2.3	25.8	21.6	39.3	11.0	100.0 ( 6,9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	21.5	19.4	44.7	12.6	100.0 ( 2,111)
제2오분위	1.9	25.5	19.6	43.7	9.3	100.0 ( 2,120)
제3오분위	2.1	31.0	24.1	34.1	8.6	100.0 ( 2,100)
제4오분위	2.9	36.2	23.5	30.2	7.3	100.0 ( 2,114)
제5오분위	6.3	40.9	19.9	27.5	5.4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	34.4	22.7	34.3	5.2	100.0 ( 9,072)
제한 있음	0.4	10.2	12.3	47.1	29.9	100.0 ( 1,4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 2.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표 II-4-10〉에 의하면 그저 그렇다 37.2%, 만족하지 않음 35.8%, 전혀 만족하지 않음 9.1%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경제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7.9%로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경제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높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6.5%로 매우 높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 상태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글자를 모르는 무학노인의 불만족도는 59.0%이며, 글자 해독이 가능한 무학노인은 53.8%인 반면 초등학교 학력자는 45.4%, 중·고등학교 학력자는 38.5%, 전문대학 이상은 18.3%로 교육 수준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소득수준별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표 II-4-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체 <sup>1)</sup>	1.0	16.9	37.2	35.8	9.1	100.0 (10,539)
지역						
동부	1.3	16.8	35.6	36.2	10.1	100.0 ( 7,147)
읍·면부	0.2	17.0	40.8	35.1	7.0	100.0 ( 3,392)
성						
남자	1.4	20.0	37.9	32.4	8.2	100.0 ( 4,549)
여자	0.6	14.5	36.8	38.4	9.7	100.0 ( 5,991)
연령						
65~69세	1.2	17.9	41.0	32.9	7.0	100.0 ( 3,150)
70~74세	0.8	17.3	36.1	36.9	8.8	100.0 ( 3,226)
75~79세	0.8	15.9	35.1	38.2	10.0	100.0 ( 2,389)
80~84세	0.8	16.0	34.7	35.7	12.8	100.0 ( 1,159)
85세 이상	1.1	15.0	37.2	36.4	10.3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	19.0	39.2	33.2	7.4	100.0 ( 7,120)
배우자 없음	0.4	12.5	33.2	41.2	12.7	100.0 ( 3,419)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가구형태						
노인독거	0.4	11.2	31.9	43.3	13.2	100.0 ( 2,086)
노인부부	1.3	20.1	39.0	32.8	6.7	100.0 ( 5,120)
자녀동거	0.8	15.5	38.6	35.3	9.8	100.0 ( 2,847)
기타	0.2	15.8	33.2	38.3	12.5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9.7	31.2	43.2	15.8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0.2	13.1	32.9	41.6	12.2	100.0 ( 2,183)
초등학교	0.6	14.5	39.6	37.2	8.2	100.0 ( 3,741)
중·고등학교	1.4	20.8	39.4	31.6	6.9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4.9	37.5	39.4	16.1	2.2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7	18.6	41.2	33.4	6.1	100.0 ( 3,566)
미취업	1.1	16.0	35.2	37.1	10.6	100.0 ( 6,97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2	7.1	25.5	49.3	18.0	100.0 ( 2,113)
제2오분위	0.0	10.1	33.3	45.9	10.6	100.0 ( 2,120)
제3오분위	0.5	15.9	42.4	33.7	7.5	100.0 ( 2,099)
제4오분위	0.9	21.7	43.8	27.3	6.3	100.0 ( 2,115)
제5오분위	3.2	29.9	41.3	22.7	2.9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	18.0	37.9	35.1	8.0	100.0 ( 9,074)
제한 있음	0.3	10.4	33.2	40.1	16.0	100.0 ( 1,466)
2008년도	1.9	22.8	33.4	29.7	12.1	100.0 (10,75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함.

### 3.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가 6.9%, 만족한다는 응답이 61.4%로 68.3%의 노인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표 II-4-11 참조). 제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아 여자노인이 57.8%인데 비하여 남자노인은 75.9%에 달하고 있다.

〈표 II-4-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체 <sup>1)</sup>	6.9	61.4	24.5	6.2	1.0	100.0 (7,115)
지역						
동부	7.5	60.2	24.4	6.6	1.2	100.0 (4,830)
읍·면부	5.6	63.8	24.6	5.5	0.5	100.0 (2,286)
성						
남자	7.5	68.4	20.0	3.7	0.4	100.0 (4,118)
여자	6.0	51.8	30.6	9.7	1.8	100.0 (2,997)
연령						
65~69세	7.3	62.2	23.7	5.9	0.8	100.0 (2,548)
70~74세	7.8	60.8	24.2	6.0	1.1	100.0 (2,356)
75~79세	5.5	60.7	25.5	7.5	0.8	100.0 (1,500)
80~84세	5.7	60.7	27.0	5.1	1.6	100.0 ( 511)
85세 이상	3.5	64.3	24.1	6.5	1.5	100.0 ( 199)
가구형태						
노인독거 <sup>2)</sup>	0.0	57.1	14.3	28.6	0.0	100.0 ( 7) <sup>3)</sup>
노인부부	7.1	61.6	24.4	6.1	0.8	100.0 (5,116)
자녀동거	6.7	60.2	24.8	6.5	1.8	100.0 (1,645)
기타	4.9	63.6	25.1	6.1	0.3	100.0 ( 34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6	41.6	35.8	15.6	1.4	100.0 ( 358)
무학(글자해독)	5.8	55.6	28.8	8.3	1.5	100.0 (1,066)
초등학교	6.4	59.7	27.1	6.0	0.8	100.0 (2,745)
중·고등학교	7.7	66.2	20.4	4.7	0.9	100.0 (2,298)
전문대학 이상	8.3	71.6	14.9	4.2	0.9	100.0 ( 649)
현 취업상태						
취업중	6.2	65.4	21.9	5.8	0.8	100.0 (2,810)
미취업	7.3	58.8	26.2	6.6	1.1	100.0 (4,3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	61.3	25.6	7.4	1.7	100.0 ( 687)
제2오분위	6.4	54.4	29.6	8.6	1.0	100.0 (1,569)
제3오분위	6.8	62.3	24.6	5.9	0.4	100.0 (1,724)
제4오분위	6.9	64.6	21.8	5.7	1.0	100.0 (1,625)
제5오분위	8.7	64.2	21.5	4.2	1.3	100.0 (1,510)
기능상태						
제한 없음	6.9	61.5	24.4	6.1	1.0	100.0 (6,347)
제한 있음	6.8	60.3	25.3	7.2	0.5	100.0 ( 7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배우자가 있는 7,122명 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함.

2) 배우자가 있으나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체응답자의 6.5%가 매우 만족한다, 67.0%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가 20.0%, 만족하지 않는다가 5.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2%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표 II-4-12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만족도가 높아 긍정적인 답변이 77.6%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64.7%보다 약 13%포인트 정도가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글자를 전혀 모르는 무학노인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1.0%, 글자해독이 가능한 무학노인이 69.5%, 초등학교 학력의 노인은 76.0%, 중·고등학교 학력 노인은 76.5%, 전문대학 이상은 80.5%로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별로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현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고 기능 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즉 취업중인 노인은 77.1%가, 미취업 노인은 71.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은 74.8%, 제한이 있는 노인은 64.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4-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체 <sup>1)</sup>	6.5	67.0	20.0	5.3	1.2	100.0 (10,345)
지역						
동부	6.7	64.8	21.4	5.6	1.6	100.0 ( 6,989)
읍·면부	6.0	71.7	17.0	4.8	0.5	100.0 ( 3,357)
성						
남자	6.6	67.9	19.2	4.8	1.4	100.0 ( 4,492)
여자	6.3	66.3	20.6	5.7	1.1	100.0 ( 5,853)
연령						
65~69세	6.9	71.4	16.7	3.7	1.3	100.0 ( 3,096)
70~74세	6.4	67.1	20.7	4.8	1.0	100.0 ( 3,185)
75~79세	5.6	65.2	20.8	6.9	1.5	100.0 ( 2,343)
80~84세	6.0	62.2	23.5	7.0	1.3	100.0 ( 1,129)
85세 이상	8.1	60.7	23.9	6.6	0.7	100.0 (   59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6	71.0	17.6	3.9	1.0	100.0 ( 7,081)
배우자 없음	6.2	58.5	25.1	8.5	1.7	100.0 ( 3,263)
가구형태						
노인독거	5.9	59.1	24.2	8.7	2.1	100.0 ( 1,955)
노인부부	7.1	72.1	16.4	3.5	0.8	100.0 ( 5,083)
자녀동거	6.0	63.9	23.1	6.0	1.0	100.0 ( 2,841)
기타	4.5	63.7	22.4	5.8	3.7	100.0 (   46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	55.5	26.9	9.9	2.2	100.0 ( 1,119)
무학(글자해독)	5.6	63.9	22.5	6.9	1.1	100.0 ( 2,126)
초등학교	6.3	69.7	18.3	4.5	1.1	100.0 ( 3,690)
중·고등학교	6.9	69.6	18.3	4.0	1.2	100.0 ( 2,682)
전문대학 이상	10.0	70.5	16.5	2.3	0.7	100.0 (   729)
현 취업상태						
취업중	5.9	71.2	16.9	5.1	0.9	100.0 ( 3,539)
미취업	6.7	64.8	21.6	5.4	1.4	100.0 ( 6,8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	55.9	27.3	9.9	2.9	100.0 ( 1,986)
제2오분위	5.3	66.5	21.1	6.0	1.1	100.0 ( 2,080)
제3오분위	6.9	71.0	16.3	4.6	1.2	100.0 ( 2,085)
제4오분위	7.3	70.4	17.7	3.8	0.8	100.0 ( 2,108)
제5오분위	8.6	70.7	18.0	2.5	0.2	100.0 ( 2,086)
기능상태						
제한 없음	6.4	68.4	19.1	4.8	1.2	100.0 ( 8,915)
제한 있음	6.4	58.3	25.3	8.5	1.5	100.0 ( 1,42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자녀가 있는 10,360명을 대상으로 무응답 15명을 제외함.

## 제5절 성생활 만족도 및 성상담 서비스 욕구

### 1. 성생활 만족도

전체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43.6%가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한다가 1.3%, 만족하고 있다가 28.8%로 30.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가 17.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9.2%로 26.3%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표 II-4-13 참조). 단 본 질문은 성생활의 파트너가 있는가, 실제 성생활 파트너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파트너 유무와 상관없이 노인의 삶에 있어서 성생활이라는 자체의 만족도에 관하여 조사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만족도를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먼저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차이가 크다.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만족도가 높아 긍정적인 답변이 33.5%로 여자노인의 27.5%에 비하여 8%포인트가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은 전기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아 65~69세의 경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34.6%인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23.3%로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만족도는 33.3%인데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23.4%로 약 10%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기능상태의 제한은 성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4-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성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체 <sup>1)</sup>	1.3	28.8	43.6	17.1	9.2	100.0 (10,427)
지역						
동부	1.4	27.7	44.0	17.1	9.7	100.0 ( 7,057)
읍·면부	1.2	31.0	42.6	17.1	8.1	100.0 ( 3,371)
성						
남자	1.5	32.0	37.8	21.8	6.8	100.0 ( 4,513)
여자	1.2	26.3	47.9	13.5	11.1	100.0 ( 5,913)
연령						
65~69세	1.6	33.0	41.3	17.6	6.5	100.0 ( 3,131)
70~74세	1.0	29.3	43.8	17.6	8.3	100.0 ( 3,195)
75~79세	1.1	26.8	43.8	17.9	10.5	100.0 ( 2,363)
80~84세	1.4	23.6	46.6	16.2	12.3	100.0 ( 1,142)
85세 이상	2.2	21.1	47.9	11.1	17.8	100.0 ( 59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	31.9	42.5	18.2	6.1	100.0 ( 7,085)
배우자 없음	1.2	22.2	45.9	14.9	15.9	100.0 ( 3,3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0	23.5	45.0	15.4	15.1	100.0 ( 2,052)
노인부부	1.3	32.3	42.6	18.3	5.5	100.0 ( 5,101)
자녀동거	1.6	25.1	45.0	16.9	11.4	100.0 ( 2,790)
기타	1.2	34.6	39.6	13.9	10.6	100.0 ( 48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8	23.5	46.5	14.9	14.3	100.0 ( 1,113)
무학(글자해독)	1.1	24.6	47.4	15.1	11.8	100.0 ( 2,153)
초등학교	1.2	28.3	45.0	16.5	9.0	100.0 ( 3,716)
중·고등학교	1.7	32.8	38.6	20.2	6.7	100.0 ( 2,714)
전문대학 이상	1.6	36.8	38.9	18.5	4.2	100.0 ( 73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	32.3	41.9	18.5	6.0	100.0 ( 3,548)
미취업	1.4	26.9	44.4	16.4	10.9	100.0 ( 6,87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	25.4	46.5	14.5	12.5	100.0 ( 2,080)
제2오분위	0.8	26.6	42.7	19.8	10.1	100.0 ( 2,098)
제3오분위	1.2	27.9	46.6	17.2	7.1	100.0 ( 2,088)
제4오분위	1.7	30.4	41.7	18.0	8.1	100.0 ( 2,086)
제5오분위	1.9	33.5	40.3	16.0	8.3	100.0 ( 2,07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	30.1	43.7	16.8	8.0	100.0 ( 8,989)
제한 있음	0.6	20.7	42.8	19.1	16.8	100.0 ( 1,438)
2008년도 <sup>2)</sup>	2.8	36.0	46.6	10.7	4.0	100.0 ( 2,65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17명을 제외함.

2) 2008년도 조사에서는 본 질문항목에 응답하겠다고 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2.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성

성생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0.4%, 그런편 5.1%, 그저 그렇다 11.3%, 그렇지 않은 편 38.9%, 전혀 그렇지 않다 44.3%로 5.5%의 노인만이 성생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노인의 성생활 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14 참조). 비록 필요성 인식의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여자인 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전기노인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높아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성생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편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0.4	5.1	11.3	38.9	44.3	100.0 (10,484)
지역						
동부	0.5	5.1	11.5	38.4	44.6	100.0 ( 7,106)
읍·면부	0.2	5.1	10.9	40.1	43.7	100.0 ( 3,378)
성						
남자	0.6	7.4	12.2	42.0	37.8	100.0 ( 4,540)
여자	0.3	3.3	10.6	36.6	49.3	100.0 ( 5,943)
연령						
65~69세	0.5	5.6	11.9	42.3	39.5	100.0 ( 3,141)
70~74세	0.4	5.7	10.8	39.9	43.2	100.0 ( 3,216)
75~79세	0.3	4.9	11.3	38.4	45.1	100.0 ( 2,375)
80~84세	0.2	3.7	11.1	33.4	51.6	100.0 ( 1,152)
85세 이상	0.2	2.2	10.8	29.0	57.9	100.0 ( 60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5	6.0	11.6	41.6	40.3	100.0 ( 7,113)
배우자 없음	0.2	3.2	10.5	33.2	52.8	100.0 ( 3,372)
가구형태						
노인독거	0.2	3.2	10.7	34.8	51.2	100.0 ( 2,062)
노인부부	0.4	6.0	11.1	43.4	39.2	100.0 ( 5,115)
자녀동거	0.5	4.7	12.1	34.2	48.4	100.0 ( 2,824)
기타	0.4	6.0	10.9	37.5	45.2	100.0 (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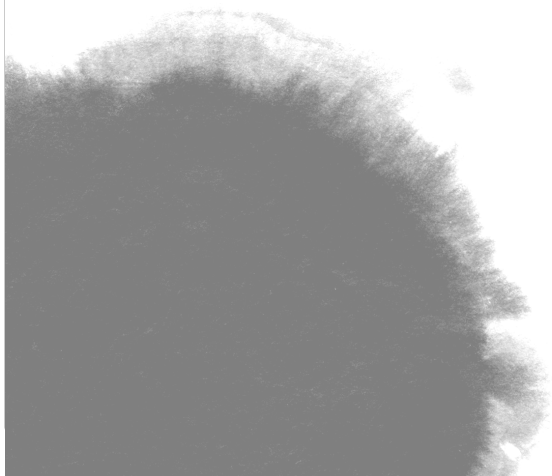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편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2.9	10.8	32.7	53.0	100.0 ( 1,126)
무학(글자해독)	0.2	3.8	11.6	34.7	49.7	100.0 ( 2,163)
초등학교	0.5	5.0	10.5	41.4	42.6	100.0 ( 3,734)
중·고등학교	0.4	6.2	12.2	40.7	40.5	100.0 ( 2,729)
전문대학 이상	0.3	8.9	11.5	41.7	37.7	100.0 ( 733)
현 취업상태						
취업중	0.4	5.6	12.4	40.5	41.1	100.0 ( 3,560)
미취업	0.3	4.8	10.7	38.1	46.0	100.0 ( 6,92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5	3.5	10.0	38.2	47.8	100.0 ( 2,088)
제2오분위	0.2	4.6	10.6	40.9	43.8	100.0 ( 2,109)
제3오분위	0.3	6.5	13.0	39.8	40.3	100.0 ( 2,094)
제4오분위	0.4	4.3	12.2	40.5	42.6	100.0 ( 2,106)
제5오분위	0.5	6.6	10.6	35.3	47.0	100.0 ( 2,086)
기능상태						
제한 없음	0.4	5.2	11.3	40.0	43.1	100.0 ( 9,034)
제한 있음	0.1	4.4	11.0	32.5	51.9	100.0 ( 1,45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60명을 제외함.



## 05

## 노인의 경제 상태





## 제5장 노인의 경제 상태

노인의 경제상황은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소득, 자산 및 부채, 지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의 경우 가구, 개인, 부부단위라는 다양한 차원별로 파악하여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가구내 노인의 경제적 독자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득의 규모 뿐만 아니라 구성에도 초점을 둔 분석을 실시하였고<sup>1)</sup>,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도 파악하였다.

### 제1절 가구소득 및 지출

#### 1. 가구소비지출

2010년 기준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155.6만원, 농촌지역인 읍면부는 110.9만원으로 도시지역이 약 40만원 정도 더 지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소비지출이 약 20만원 정도 많으며, 연령별로는 60대 후반의 노인의 소비지출이 157.9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80대 후반으로 150.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지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126.6만원, 128.5만원이다.

한편,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인 경우 151.5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0.0만원으로 배우자 있는 노인이 31.5만원 더 지출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자

1) 본 장의 소득, 부채 등의 평균값은 무응답을 평균으로 대체한 후 분석하였음.

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230.3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63.4만원으로 가장 적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24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 고등학교 160.7만원, 초등학교 131.4만원, 무학(글자해독) 118.2만원, 무학(글자모름) 107.8만원 순이다.

현재 취업상태에 따른 소비지출은 미취업 145.0만원, 취업중 133.8만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보면 상위 제5오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01.8만원으로 제1오분위 53.9만원 보다 약 6배 정도 높으며, 제4오분위는 162만원, 제3오분위 110.6만원, 제2오분위 78.2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있다(표 II-5-1 참조).

〈표 II-5-1〉 인구사회적 특성별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단위: 만원, 명)

특성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대상자 수
전체 <sup>1)</sup>	141.3	(10,659)
지역		
동부	155.6	( 7,246)
읍·면부	110.9	( 3,413)
성		
남자	152.5	( 4,600)
여자	132.8	( 6,059)
연령		
65~69세	157.9	( 3,180)
70~74세	138.7	( 3,238)
75~79세	126.6	( 2,411)
80~84세	128.5	( 1,176)
85세 이상	150.6	( 65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1.5	( 7,194)
배우자 없음	120.0	( 3,465)
가구형태		
노인독거	63.4	( 2,094)
노인부부	122.7	( 5,171)
자녀동거	230.0	( 2,903)
기타	145.0	( 491)

특성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대상자 수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7.8	( 1,166)
무학(글자해독)	118.2	( 2,210)
초등학교	131.4	( 3,777)
중·고등학교	160.7	( 2,768)
전문대학 이상	241.5	( 7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133.8	( 3,566)
미취업	145.0	( 7,0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9	( 2,127)
제2오분위	78.2	( 2,138)
제3오분위	110.6	( 2,131)
제4오분위	162.0	( 2,134)
제5오분위	301.8	( 2,12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2.0	( 9,074)
제한 있음	137.3	( 1,58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15명을 제외함.

한편, 소비지출 중 노인가구가 느끼는 생활비부담 항목을 살펴본 〈표 II-5-2〉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의 43.0%가 주거관련비의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다음은 보건의료비 24.7%, 식비 12.0%, 경조사비 8.3%의 순이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동부의 경우 식비의 부담이라는 응답이 14.9%로 읍면부의 6.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식비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읍면부는 경조사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9.5%로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비 부담 항목을 살펴보면, 60대 노인의 경우 식비와 경조사비의 부담정도가 각각 13.4%, 12.6%로 다른 연령층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식비와 주거관련비의 부담이 각각 13.5%, 46.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비 27.0%, 경조사비 10.3%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교육비(10.0%)와 주거관련비(49.6%)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동거율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형태별 특징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주거관련비에 대한 부담이

56.4%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비(29.7%)와 경조사비(11.3%)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식비(15.4%)와 교육비(20.5%)의 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특징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식비, 경조사비, 교양오락·통신 등의 기타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비, 주거관련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은 주거관련비와 경조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미취업중인 노인은 식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제1오분위, 제2오분위인 경우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의 노인은 식비, 교육비,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을 받지 않는 노인의 경우 주거관련비와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비(33.8%)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 명)

특성	식비	교육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계 (명)
전체	12.0	6.5	43.0	24.7	8.3	5.5	100.0 (10,674)
지역							
동부	14.9	7.4	40.5	23.7	7.8	5.7	100.0 ( 7,257)
읍·면부	6.0	4.5	48.3	26.8	9.5	5.0	100.0 ( 3,418)
성							
남자	13.8	4.7	40.4	23.7	10.7	6.6	100.0 ( 4,604)
여자	10.7	7.8	44.9	25.4	6.5	4.7	100.0 ( 6,069)
연령							
65~69세	13.4	4.2	40.7	21.7	12.6	7.4	100.0 ( 3,180)
70~74세	11.0	6.5	43.1	25.2	9.2	4.9	100.0 ( 3,239)
75~79세	11.4	7.4	43.2	28.9	4.9	4.3	100.0 ( 2,413)
80~84세	11.5	8.9	46.2	24.7	4.6	4.2	100.0 ( 1,183)
85세 이상	13.5	9.7	46.8	21.1	2.6	6.2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4	4.8	39.8	27.0	10.3	5.7	100.0 ( 7,199)
배우자 없음	11.2	10.0	49.6	19.9	4.3	5.0	100.0 ( 3,474)

특성	식비	교육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계 (명)
<b>가구형태</b>							
노인독거	9.6	0.6	56.4	25.5	4.8	3.1	100.0 ( 2,093)
노인부부	10.7	0.3	42.8	29.7	11.3	5.0	100.0 ( 5,171)
자녀동거	15.4	20.5	34.1	15.9	6.3	7.9	100.0 ( 2,915)
기타	16.3	13.3	40.2	20.0	3.7	6.5	100.0 ( 492)
<b>교육수준<sup>1)</sup></b>							
무학(글자모름)	12.2	8.0	47.5	23.8	4.5	3.9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9.7	7.5	48.0	25.7	5.2	3.9	100.0 ( 2,214)
초등학교	10.7	6.5	44.1	25.9	7.8	5.2	100.0 ( 3,782)
중·고등학교	14.3	5.7	37.5	24.3	12.3	5.8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17.1	4.1	35.6	18.3	11.4	13.7	100.0 ( 739)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8.1	4.2	46.4	22.2	12.9	6.2	100.0 ( 3,570)
미취업	14.0	7.6	41.2	25.9	6.0	5.2	100.0 ( 7,105)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10.9	1.4	54.5	27.4	3.7	2.0	100.0 ( 2,136)
제2오분위	11.2	1.0	47.5	30.6	7.0	2.8	100.0 ( 2,138)
제3오분위	10.5	1.5	44.5	30.7	8.5	4.2	100.0 ( 2,132)
제4오분위	12.2	6.4	41.0	21.4	11.9	7.1	100.0 ( 2,135)
제5오분위	15.4	22.2	27.3	13.3	10.4	11.5	100.0 ( 2,135)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11.9	6.3	44.1	23.1	9.0	5.7	100.0 ( 9,081)
제한 있음	12.9	7.5	36.8	33.8	4.4	4.6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2. 가구소득

### 가. 소득원 실태

가구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득원별로 소득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본 〈표 II-5-3〉에 의하면 노인의 96.1%는 사적이전소득을 87.4%는 공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전소득에서 발생하는 가구소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이 36.5%, 근로소득은 39.0%, 사업소득은 3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원별 실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이 읍·면부에 비하여 높으며(44.5%대 27.3%), 사업소득은 읍·면부에서 높다(17.1% 대

58.5%).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고, 연령군별로는 전기노인에게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다.

한편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상태인 경우 재산소득이 있는 비율이 43.0%로 무배우노인의 22.9%보다 월등히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인 경우 77.6%가 근로소득을 갖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재산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아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19.9%에 불과하지만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동 비율이 64.2%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다. 또한 취업노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다.

#### 나. 소득 수준 및 구성비

작년 한 해(2010)의 조사대상 가구의 총소득은 2,161.8만원으로 월 180.2만원이었으며, 소득구성 특징을 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5-4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규모와 구성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동지역의 연소득이 2,396.4만(월 199.7만)원으로 읍·면지역의 연소득 1,663.7만(월 138.6만)원보다 월 평균 61.1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소득구성을 비교해보면, 동지역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각각 28.5%, 1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은 사업소득이 25.9%로 나타나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소득이 여자보다 연 316만원(월 26.4만원) 많으며, 구성비의 특징으로는 남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각각 16.1%, 10.3%로 높은 반면 여자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연령층에서 자녀동거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령별 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으나,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60대 후반의 노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소득구성을 보면 60대와 80대 후반은 근로소득 비중이 각각 29.9%, 25.0%로 높은 반면, 75~84세 노인은 상대적으로 사적·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은 독거가구의 경우 연 840.6만원(월 7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연 3762.7만원(월 313.7만원)으로 가장 높다. 한편 소득구성을 보면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56.0%로 가장 높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각각 45.0%,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도 이전소득이 각각 28.7%, 28.8%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노인의 연소득은 3,949.7만원(월 329.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무학(글자해독)의 경우 연 1,700만원 내외(월 140만원 내외)로 고학력자의 1/2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구성의 특징은 고학력인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문대학 이상 각각 36.1%, 16.3%), 무학인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의 중요 재원이 연금 등의 공적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연가구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연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등의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11-5-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단위: %, 명)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명)
전체	39.0	30.4	36.5	96.1	87.4	18.1	(10,674)
지역							
동부	44.5	17.1	37.7	95.1	85.7	9.2	( 7,256)
읍·면부	27.3	58.5	33.9	98.2	91.0	36.9	( 3,417)
성							
남자	41.0	34.1	42.3	95.9	86.7	20.3	( 4,606)
여자	37.4	27.5	32.1	96.2	88.0	16.4	( 6,069)
연령							
65~69세	48.6	37.1	40.5	95.0	85.6	19.9	( 3,180)
70~74세	41.3	31.8	39.3	96.5	86.8	19.8	( 3,239)
75~79세	31.4	26.4	34.3	96.2	87.9	17.1	( 2,414)
80~84세	24.3	22.1	27.3	97.0	92.1	13.5	( 1,184)
85세 이상	35.3	20.3	27.7	96.8	89.5	12.2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3	35.4	43.0	97.4	86.2	21.2	( 7,200)
배우자 없음	38.4	19.9	22.9	93.3	89.9	11.6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15.9	14.8	23.7	93.8	89.6	12.5	( 2,095)
노인부부	26.3	36.3	44.2	98.1	85.4	23.3	( 5,177)
자녀동거	77.6	30.9	31.9	94.3	88.2	12.7	( 2,914)
기타	41.3	31.5	36.7	94.5	93.9	19.1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5.6	30.5	19.9	96.1	94.3	19.8	( 1,169)
무학(글자해독)	38.0	30.9	25.5	95.6	90.7	19.2	( 2,213)
초등학교	38.9	34.9	36.0	96.4	87.0	21.2	( 3,783)
중·고등학교	43.1	26.8	45.4	96.1	83.7	14.2	( 2,771)
전문대학 이상	32.7	18.9	64.2	95.4	82.6	10.7	( 739)
현 취업상태							
취업중	46.6	69.3	35.9	97.5	85.0	37.4	( 3,569)
미취업	35.1	10.8	36.8	95.3	88.6	8.4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3	15.3	20.1	93.7	92.6	13.8	( 2,135)
제2오분위	23.7	31.3	30.3	96.6	89.8	22.9	( 2,138)
제3오분위	38.0	36.1	39.1	96.6	86.4	23.6	( 2,132)
제4오분위	50.1	35.7	39.6	97.5	84.2	16.9	( 2,135)
제5오분위	68.7	33.4	53.2	95.9	84.1	13.2	( 2,13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5-4〉 가구 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총년수입
전체 <sup>1)</sup>	774.3	390.2	215.9	339.6	409.9	31.8	2,161.8
지역							
동부	972.7	318.4	265.4	354.6	457.8	27.4	2,396.4
읍·면부	353.1	542.8	111.0	307.5	308.2	41.1	1,663.7
성							
남자	792.9	412.0	283.8	335.7	483.1	34.4	2,341.9
여자	760.2	373.7	164.5	342.5	354.4	29.9	2,025.2
연령							
65~69세	993.7	507.9	246.5	281.9	450.4	37.7	2,518.1
70~74세	727.3	376.8	232.7	345.4	397.4	28.3	2,107.9
75~79세	581.3	277.7	185.9	387.1	420.9	24.9	1,877.6
80~84세	586.1	344.9	151.6	384.4	365.3	41.9	1,874.2
85세 이상	992.4	382.3	211.4	334.5	316.2	28.1	2,265.0
가구형태							
노인독거	83.1	64.2	87.5	347.2	237.2	21.5	840.6
노인부부	228.7	360.1	274.4	386.3	510.9	37.3	1,797.7
자녀동거	2,253.0	687.8	206.5	238.4	346.1	30.9	3,762.7
기타	688.5	331.3	204.3	415.6	462.3	23.5	2,125.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46.2	330.9	51.5	269.3	240.6	29.2	1,567.8
무학(글자해독)	686.6	351.4	89.8	304.7	281.7	23.0	1,737.4
초등학교	724.3	371.4	182.2	333.5	330.1	27.6	1,969.1
중·고등학교	978.9	369.4	313.5	379.7	460.3	34.9	2,536.8
전문대학 이상	728.7	774.7	659.6	435.2	1,279.3	72.3	3,94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3.3	32.7	28.5	253.0	206.8	9.3	563.6
제2오분위	88.9	123.0	82.0	367.4	281.6	19.1	962.0
제3오분위	326.2	247.8	149.0	409.5	328.6	29.0	1,490.0
제4오분위	805.6	480.1	217.7	360.4	514.9	45.4	2,424.1
제5오분위	2,618.9	1,068.2	602.9	307.6	717.8	56.4	5,371.9
〈구성비〉							
전체	23.5	14.4	8.7	26.5	25.2	1.7	100.0
지역							
동부	28.5	8.9	10.1	25.7	25.4	1.4	100.0
읍·면부	13.1	25.9	5.6	28.3	24.7	2.4	100.0
성							
남자	23.9	16.1	10.3	22.8	25.2	1.8	100.0
여자	23.3	13.1	7.4	29.4	25.2	1.6	100.0
연령							
65~69세	29.9	18.3	9.1	18.2	22.7	1.7	100.0
70~74세	23.9	14.5	9.5	26.0	24.4	1.7	100.0
75~79세	18.3	11.7	8.2	32.8	27.4	1.6	100.0
80~84세	15.3	11.1	7.2	34.9	29.3	2.1	100.0
85세 이상	25.0	10.4	6.5	31.6	25.0	1.4	100.0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총년수입
가구형태							
노인독거	7.6	6.3	6.8	45.0	32.7	1.7	100.0
노인부부	11.7	17.2	11.5	28.7	28.8	2.1	100.0
자녀동거	56.0	15.5	4.9	9.7	12.8	1.1	100.0
기타	23.2	12.9	8.8	24.8	28.5	1.8	100.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6	13.6	3.1	31.6	27.2	1.8	100.0
무학(글자해독)	23.4	14.6	5.5	29.4	25.4	1.6	100.0
초등학교	23.1	16.2	8.6	26.8	23.5	1.8	100.0
중·고등학교	26.6	13.1	11.5	23.7	23.5	1.5	100.0
전문대학 이상	16.0	10.5	16.3	18.9	36.1	2.4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5.3	5.0	44.6	37.9	1.7	100.0
제2오분위	9.1	12.4	8.4	38.6	29.6	2.0	100.0
제3오분위	21.4	16.7	9.9	27.8	22.2	2.0	100.0
제4오분위	32.9	19.7	9.0	15.3	21.4	1.8	100.0
제5오분위	48.9	17.9	11.0	6.3	14.7	1.1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를 대상으로 함

## 제2절 생활비 및 용돈 주부담자

### 1. 생활비 주부담자

조사대상 노인들의 생활비 주부담자를 보면, (손)자녀 및 배우자(이하 (손)자녀)가 39.5%로 가장 많고, 본인 스스로(이하 본인) 34.7%, 배우자 17.5%, 정부 및 사회단체 7.7%(이하 정부)로 나타났다(표 II-5-5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는 ‘(손)자녀 및 그 배우자’가 42.5%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의 경우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40.2%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손)자녀 및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에 의존하는 비율이 61.4%로 가장 높다. 가구형태별 특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손)자녀 47.4%, 본인 34.0%, 정부 17.2%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손)자녀 64.1%로 가장 높은 반면, 정부는 3.3%로 가장 낮다. 한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42.2%, 배우자 28.4%로 부부가 상호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손)자녀와 정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취업중인 경우 63.7%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나 미취업인 경우에는 (손)자녀 51.3%, 정부 10.8%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인 제1분위와 제2오분위의 노인은 (손)자녀의 부담이 각각 48.6%, 38.2%로 가장 높으며, 중류층인 제3분위와 제4분위의 경우 노인 본인 스스로 부담비율이 각각 39.3%, 41.0%로 가장 높다. 그러나 상류층인 제5오분위의 노인은 (손)자녀의 생활비 부담률이 46.9%로 가장 높으며, 본인 34.2%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은 본인 38.5%, (손)자녀 36.1%로 나타났으며,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손)자녀 58.7%로 가장 많으며, 정부, 배우자, 본인의 부담비율이 13.5%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1-5-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비 주부담자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34.7	17.5	39.5	7.7	0.6	100.0 (10,674)
지역						
동부	32.2	16.1	42.5	8.6	0.7	100.0 ( 7,257)
읍·면부	40.2	20.6	33.2	5.7	0.2	100.0 ( 3,418)
성						
남자	57.6	8.2	27.5	6.2	0.5	100.0 ( 4,605)
여자	17.4	24.6	48.6	8.8	0.6	100.0 ( 6,070)
연령						
65~69세	46.5	25.3	22.6	5.1	0.4	100.0 ( 3,180)
70~74세	38.0	20.0	35.7	6.0	0.4	100.0 ( 3,239)
75~79세	27.3	13.6	48.8	9.5	0.8	100.0 ( 2,414)
80~84세	22.1	5.9	57.7	13.5	0.8	100.0 ( 1,181)
85세 이상	12.0	2.9	73.5	11.0	0.6	100.0 ( 65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6	25.8	29.0	5.1	0.4	100.0 ( 7,200)
배우자 없음	24.6	0.4	61.4	12.9	0.8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34.0	0.5	47.4	17.2	0.9	100.0 ( 2,094)
노인부부	42.2	28.4	23.4	5.6	0.5	100.0 ( 5,173)
자녀동거	22.4	10.2	64.1	3.3	0.1	100.0 ( 2,917)
기타	33.5	19.3	30.1	14.8	2.2	100.0 ( 492)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sup>2)</sup>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15.5	10.5	59.8	13.8	0.3	100.0 ( 1,170)
무학(글자해독)	24.0	16.2	49.1	10.4	0.3	100.0 ( 2,213)
초등학교	32.6	20.9	39.6	6.6	0.4	100.0 ( 3,783)
중·고등학교	47.4	17.2	29.0	5.6	0.8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60.8	16.8	17.7	3.1	1.6	100.0 ( 740)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63.7	19.0	16.0	1.3	0.1	100.0 ( 3,568)
미취업	20.2	16.8	51.3	10.8	0.8	100.0 ( 7,105)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25.4	6.0	48.6	18.5	1.5	100.0 ( 2,135)
제2오분위	33.8	17.0	38.2	10.7	0.3	100.0 ( 2,139)
제3오분위	39.3	24.9	29.5	6.0	0.3	100.0 ( 2,132)
제4오분위	41.0	21.8	34.3	2.5	0.4	100.0 ( 2,135)
제5오분위	34.2	18.0	46.9	0.7	0.3	100.0 ( 2,135)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38.5	18.2	36.1	6.6	0.5	100.0 ( 9,082)
제한 있음	13.4	13.6	58.7	13.7	0.6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기타의 경우 설문문항 보기 중 (5) 자녀 이외 함께사는 형제자매, 친척 친지, (6) 자녀이외 따로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8) 기타 를 합쳤음.

## 2. 용돈 주부담자

용돈 주부담자를 보면 (손)자녀 34.2%, 본인 스스로 31.6%, 정부 및 사회단체 27.6%, 배우자 6.2% 순으로, 생활비 부담과는 달리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6 참조). 지역별로는 모두 (손)자녀 및 그 배우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동부 33.8%, 읍·면부 35.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부의 경우 본인 스스로 33.2%, 읍·면부의 경우 정부 및 사회단체 30.7%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본인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48.5%, 여자는 (손)자녀 39.6%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큰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손)자녀 및 정부에 의존하는 부담이 많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손)자녀,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 정부 44.8%,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손)자녀 39.7%로 가장 많으며, 노인부와 기타가구는 본인스스로의 비율이 각각 34.7%, 34.5%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본인 및 배우자의 비율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율이 높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으며, 미취업의 경우에는 (손)자녀 36.9%, 정부 3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인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각각 52.5%, 35.3%로 가장 높았으며, 제3오분위는 (손)자녀 36.6%,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는 본인 스스로의 비중이 각각 39.9%, 44.5%로 가장 높다. 기능 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는 경우 본인 34.1%, (손)자녀 33.2%, 정부 25.9% 순이었으며, 제한이 있는 경우 (손)자녀 39.5%, 정부 37.0%, 본인 16.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1-5-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용돈 주부담자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31.6	6.2	34.2	27.6	0.5	100.0 (10,674)
지역						
동부	33.2	6.5	33.8	26.1	0.5	100.0 ( 7,257)
읍·면부	28.2	5.5	35.1	30.7	0.4	100.0 ( 3,418)
성						
남자	48.5	1.9	26.9	22.2	0.5	100.0 ( 4,605)
여자	18.8	9.5	39.6	31.7	0.5	100.0 ( 6,069)
연령						
65~69세	43.5	9.6	29.5	16.9	0.5	100.0 ( 3,181)
70~74세	33.5	6.1	34.1	26.2	0.2	100.0 ( 3,240)
75~79세	24.9	5.1	36.9	32.6	0.6	100.0 ( 2,414)
80~84세	18.3	2.2	36.8	41.6	1.0	100.0 ( 1,183)
85세 이상	13.4	1.7	42.6	41.9	0.5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6	9.1	32.8	22.2	0.3	100.0 ( 7,200)
배우자 없음	23.3	0.1	37.0	38.7	0.9	100.0 ( 3,474)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sup>2)</sup>	계 (명)
<b>가구형태</b>						
노인독거	23.4	0.0	30.6	44.8	1.1	100.0 ( 2,095)
노인부부	34.7	8.8	32.6	23.5	0.4	100.0 ( 5,172)
자녀동거	31.5	6.0	39.7	22.7	0.1	100.0 ( 2,917)
기타	34.5	5.9	32.3	26.0	1.2	100.0 ( 492)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16.5	3.3	36.3	43.9	0.1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20.3	4.4	36.2	38.4	0.5	100.0 ( 2,214)
초등학교	28.4	7.1	36.2	27.7	0.6	100.0 ( 3,783)
중·고등학교	43.8	7.1	31.6	16.9	0.5	100.0 ( 2,771)
전문대학 이상	59.3	8.2	23.2	8.5	0.7	100.0 ( 740)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48.9	5.0	28.7	17.4	0.0	100.0 ( 3,569)
미취업	22.9	6.8	36.9	32.7	0.8	100.0 ( 7,105)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15.7	0.8	29.8	52.5	1.0	100.0 ( 2,137)
제2오분위	25.1	4.3	34.9	35.3	0.5	100.0 ( 2,138)
제3오분위	32.7	6.4	36.6	23.9	0.4	100.0 ( 2,132)
제4오분위	39.9	10.1	36.1	13.7	0.2	100.0 ( 2,135)
제5오분위	44.5	9.4	33.4	12.5	0.1	100.0 ( 2,135)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34.1	6.3	33.2	25.9	0.3	100.0 ( 9,082)
제한 있음	16.9	5.4	39.5	37.0	1.2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기타의 경우 설문문항 보기 중 (5) 자녀 이외 함께사는 형제자매, 친척 친지, (6) 자녀이외 따로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8) 기타 를 합쳤음.

### 제3절 개인소득과 자산 및 부채

#### 1. 수입

##### 가. 본인의 수입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가구의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수입을 조사하였다. 수입은 소득과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기타 수입은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이 포함된다.



〈표 11-5-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본인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단위: %)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 수입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타 급여	기초 노령 연금	기초 보장			
전체 <sup>1)</sup>	13.6	16.8	27.5	95.3	25.3	8.9	63.9	6.1	0.7	10.7	(10,674)
지역											
동부	14.4	8.5	28.2	94.1	23.9	8.8	60.4	6.9	0.9	5.5	( 7,256)
읍·면부	11.8	34.5	26.1	97.9	28.3	9.1	71.2	4.3	0.3	21.9	( 3,418)
성											
남자	17.5	29.0	37.9	94.8	41.9	14.6	56.5	4.1	1.0	17.7	( 4,604)
여자	10.6	7.6	19.7	95.7	12.7	4.5	69.5	7.6	0.6	5.5	( 6,069)
연령											
65~69세	20.4	22.4	30.5	94.3	39.5	6.3	46.0	4.4	1.0	10.5	( 3,179)
70~74세	15.4	18.4	29.7	95.7	28.9	3.9	66.6	5.0	0.6	12.3	( 3,240)
75~79세	9.7	14.4	26.5	95.5	16.1	10.0	71.7	7.2	0.6	10.9	( 2,414)
80~84세	4.3	10.4	20.9	96.5	7.8	22.9	77.9	9.0	0.7	8.8	( 1,183)
85세 이상	2.7	3.3	18.4	96.0	3.8	17.1	82.4	10.6	0.3	6.8	( 65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2	14.5	23.1	93.7	19.6	9.1	79.9	15.4	0.6	11.6	( 2,094)
노인부부	14.2	21.0	31.8	97.6	28.3	9.2	56.9	3.7	0.9	12.7	( 5,173)
자녀동거	12.2	11.0	22.8	93.0	23.8	8.6	65.8	2.6	0.7	6.4	( 2,915)
기타	12.2	17.9	29.3	92.3	26.5	6.9	57.3	12.2	0.6	11.6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0	11.5	14.5	95.7	9.3	7.9	87.8	12.3	0.2	9.5	( 1,169)
무학(글자해독)	12.4	13.2	17.2	95.0	15.5	8.3	79.6	8.3	0.2	10.8	( 2,213)
초등학교	13.5	19.5	25.8	95.8	23.5	9.6	66.1	5.3	0.4	12.8	( 3,781)
중·고등학교	16.3	19.7	36.7	95.0	35.9	8.8	48.4	4.1	1.3	10.0	( 2,770)
전문대학 이상	12.8	12.1	54.0	95.0	48.8	9.1	25.0	1.5	3.1	4.9	( 73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1	11.1	16.5	93.6	12.0	10.4	88.2	16.4	0.1	10.8	( 2,135)
제2오분위	13.8	18.4	22.3	96.4	21.2	9.7	79.1	8.8	0.6	13.1	( 2,138)
제3오분위	16.6	21.2	29.8	95.8	27.0	9.5	62.5	3.8	0.8	13.8	( 2,132)
제4오분위	14.4	19.9	28.5	96.6	31.9	7.6	48.5	0.9	1.2	9.4	( 2,134)
제5오분위	12.0	13.5	40.7	94.3	34.3	7.2	40.9	0.5	0.9	6.5	( 2,13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본인의 소득원별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13.6%, 사업소득 16.8%, 재산소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가는 공적연금은 25.3%, 기타공적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기타수입 0.7%, 기타소득 10.7%로 나타났다. 즉 노인 개인의 소득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적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이다. 또한 노인 4명 중 1명은 공적연금소득을 갖고 있다는 점도 파악되었다(표 II-5-7 참조).

본인의 연간 총수입은 849.6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52.9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사적이전소득 207.4만원, 사업소득 154.0만원, 재산소득 131.4만원 순이고, 기타수입은 3.7만원으로 가장 낮다.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 39.8%, 공적이전소득 32.5%, 사업소득 9.5%, 재산소득 9.0%, 근로소득 7.4%, 기타소득 1.4%, 기타수입 0.3% 순이다(표 II-5-8 참조).

지역별 특징을 보면, 동부의 경우 재산소득이 10.7%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는 사업소득이 18.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농어업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구성비가 23.7%로 여자의 52.1%보다 28.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 재산,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 사업, 재산소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공적이전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다.

가구형태별 본인 소득구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45.7%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45%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근로소득(10.2%), 사업소득(12.2%)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대이상의 경우 재산소득의 비중(20.0%)이 높다.

〈표 11-5-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수입, 소득항목별 구성(본인) 금액 및 비율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수입	기타소득	총수입
전체 <sup>1)</sup>	86.5	154.0	131.4	207.4	252.9	3.7	13.6	849.6
지역								
동부	101.8	104.0	163.4	213.6	282.2	5.0	9.1	879.2
읍·면부	54.2	260.1	63.5	194.3	190.5	1.1	23.2	786.9
성								
남자	150.6	299.2	232.1	168.6	390.4	6.0	24.1	1271.1
여자	37.9	43.8	55.0	236.9	148.5	2.0	5.7	529.9
연령								
65~69세	173.2	274.9	151.3	156.7	270.7	4.3	15.3	1046.4
70~74세	85.8	149.2	142.0	205.0	232.2	3.3	14.1	831.7
75~79세	32.6	86.0	125.1	240.9	266.8	3.2	13.5	768.0
80~84세	10.9	51.4	75.9	269.4	255.9	2.3	11.3	677.1
85세 이상	4.9	27.0	106.4	230.7	211.6	7.7	8.1	596.5
가구형태								
노인독신	55.8	63.1	84.5	327.6	226.6	1.2	10.3	769.2
노인부부	97.7	207.1	160.7	194.5	287.9	4.4	16.3	968.7
자녀동거	93.1	120.8	115.1	142.0	214.6	4.6	11.5	701.8
기타	60.2	179.1	119.8	219.4	222.7	2.4	12.7	816.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1	42.6	19.9	211.7	160.5	0.6	10.2	479.6
무학(글자해독)	49.3	76.4	40.2	208.1	166.1	0.5	11.3	551.9
초등학교	69.8	150.5	94.4	200.0	180.3	1.2	16.3	712.4
중·고등학교	147.2	239.5	211.8	209.6	277.4	5.5	13.8	1104.8
전문대학 이상	139.2	259.6	468.1	228.5	936.7	25.1	12.3	206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6	23.3	21.6	209.5	168.6	0.2	6.9	453.8
제2오분위	44.9	71.6	55.0	225.1	166.7	1.4	9.9	574.6
제3오분위	110.4	145.3	92.1	234.1	192.5	2.7	15.2	792.2
제4오분위	123.0	249.0	132.4	205.3	301.8	8.7	15.4	1035.7
제5오분위	130.9	280.8	356.2	163.2	434.8	5.7	20.9	1392.4
〈구성비〉								
전체 <sup>2)</sup>	7.4	9.5	9.0	39.8	32.5	0.3	1.4	100.0
지역								
동부	8.3	5.3	10.7	40.3	33.9	0.4	1.2	100.0
읍·면부	5.5	18.5	5.6	38.8	29.6	0.1	1.8	100.0
성								
남자	10.3	17.0	12.7	23.7	33.9	0.4	2.0	100.0
여자	5.2	3.8	6.3	52.1	31.5	0.2	0.9	100.0
연령								
65~69세	12.7	13.8	9.8	33.3	28.8	0.4	1.3	100.0
70~74세	8.0	10.3	10.3	38.6	31.1	0.2	1.5	100.0
75~79세	4.3	7.3	8.5	44.4	33.8	0.2	1.4	100.0
80~84세	1.6	5.0	6.6	46.6	38.8	0.3	1.1	100.0
85세 이상	0.8	1.6	5.7	48.6	41.4	0.3	1.6	100.0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수입	기타소득	총수입
가구형태								
노인독신	6.7	6.3	6.9	45.7	32.9	0.2	1.3	100.0
노인부부	7.8	12.2	10.3	39.4	28.5	0.3	1.5	100.0
자녀동거	7.3	6.9	8.1	36.9	39.1	0.3	1.4	100.0
기타	6.5	10.7	11.2	36.0	34.1	0.3	1.2	100.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	5.0	3.0	46.2	39.8	0.1	1.2	100.0
무학(글자해독)	6.2	6.8	4.8	44.5	36.0	0.1	1.5	100.0
초등학교	6.9	10.9	8.0	42.5	29.9	0.1	1.7	100.0
중·고등학교	10.2	12.2	13.6	33.8	28.6	0.4	1.1	100.0
전문대학 이상	7.0	7.5	20.0	24.7	38.6	1.4	0.7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	4.4	4.5	46.3	38.6	0.0	1.5	100.0
제2오분위	6.2	8.8	7.3	43.9	32.2	0.2	1.4	100.0
제3오분위	10.2	12.0	9.3	39.3	27.3	0.3	1.6	100.0
제4오분위	8.9	13.3	8.9	36.4	30.8	0.6	1.1	100.0
제5오분위	7.0	9.1	15.2	33.4	33.7	0.4	1.3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 10,674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 나. 부부 수입

부부 수입을 통하여 가족구성의 핵심 부부단위의 경제 상황과 투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수입은 무배우인 경우는 본인 수입과 동일하며 유배우인 경우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을 합산한 결과이다. 이러한 부부소득의 소득원별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20.9%, 사업소득 26.2%, 재산소득 35.3%, 사적이전소득 95.8%, 공적연금 36.2%, 기타공적연금 13.6%, 기초노령연금 65.0%, 기초보장 6.2%, 기타수입 1.1%, 기타소득 15.9%로 나타났다(표 II-5-9 참조).

〈표 11-5-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부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 수입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타 급여	기초 노령 연금	기초 보장			
전체 <sup>1)</sup>	20.9	26.2	35.3	95.8	36.2	13.6	65.0	6.2	1.1	15.9	(10,673)
지역											
동부	22.3	13.2	36.4	94.8	33.9	13.3	61.5	7.0	1.4	7.2	( 7,256)
읍·면부	18.0	53.8	33.0	98.0	40.9	14.2	72.4	4.4	0.5	34.4	( 3,417)
성											
남자	26.8	32.3	41.5	95.8	45.7	15.6	56.6	4.2	1.3	18.6	( 4,604)
여자	16.5	21.6	30.7	95.8	29.0	12.1	71.4	7.7	1.0	13.9	( 6,069)
연령											
65~69세	30.9	35.7	39.9	95.0	56.6	8.9	49.7	4.5	1.7	17.5	( 3,179)
70~74세	24.8	29.3	38.7	96.3	40.8	8.3	66.9	5.1	1.0	18.3	( 3,240)
75~79세	14.5	21.9	33.6	95.9	23.6	17.9	71.7	7.3	0.9	15.5	( 2,414)
80~84세	6.3	13.4	25.5	96.6	10.9	29.2	77.9	9.1	0.9	10.7	( 1,183)
85세 이상	3.6	4.4	20.8	96.0	5.9	18.7	82.4	10.6	0.3	7.6	( 65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6	14.9	23.4	93.7	20.1	9.9	80.1	15.4	0.6	11.8	( 2,095)
노인부부	25.1	36.3	44.1	98.1	44.9	16.2	58.5	3.9	1.5	21.7	( 5,172)
자녀동거	17.8	16.0	28.4	93.7	31.7	12.1	66.9	2.6	0.9	8.5	( 2,916)
기타	22.6	29.5	35.0	93.3	39.2	10.4	58.7	12.8	0.6	16.7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8	20.8	18.5	95.8	15.7	13.0	88.2	12.3	0.3	15.4	( 1,168)
무학(글자해독)	18.7	24.5	23.6	95.4	24.5	14.5	81.1	8.4	0.3	17.6	( 2,213)
초등학교	21.6	31.6	35.1	96.1	36.8	15.7	67.9	5.5	0.6	20.1	( 3,781)
중·고등학교	25.2	25.0	44.6	95.9	47.2	10.9	49.0	4.1	1.7	12.0	( 2,770)
전문대학 이상	19.6	16.8	63.5	95.4	59.1	11.1	25.6	1.5	5.5	5.0	( 74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3	14.9	19.6	93.6	15.2	12.9	88.9	16.5	0.2	13.4	( 2,135)
제2오분위	21.4	30.3	30.2	96.5	30.8	16.5	80.3	9.0	0.8	21.6	( 2,138)
제3오분위	29.3	34.3	38.9	96.6	40.1	15.9	64.4	4.0	1.2	21.4	( 2,131)
제4오분위	23.4	30.3	38.9	97.2	47.2	11.5	49.8	1.1	1.5	14.4	( 2,134)
제5오분위	17.2	21.4	49.2	95.3	47.8	11.1	41.7	0.5	2.0	8.7	( 2,13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본인과 배우자를 동시에 고려한 부부의 연간 총수입은 1,375.3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 394.2만원, 사적이전소득 331.1만원, 사업소득 261.9만원, 재산소득 205.2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수입은 9.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부 수입의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 32.9%, 공적이전소득 32.7%, 사업소득 12.7%, 재산소득 10.0%, 근로소득 9.8%, 기타소득 1.5%, 기타수입 0.4%이었다(표 II-5-10 참조).

지역별 특징을 보면, 동부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34.5%, 사적이전소득 33.6%, 재산소득 11.8%, 근로소득 11.2% 순이며, 읍·면부는 사적이전소득 31.6%, 공적이전소득 28.9%, 사업소득이 24.4%, 근로소득 6.7%로 순으로 나타나 동부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이, 읍·면부는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여자의 경우에는 사적, 공적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 사업, 재산소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공적이전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가구형태별 부부의 소득구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45.4%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40%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중이 1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13.4%로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대이상의 경우 재산소득(17.9%)과 공적이전소득(40.2%), 기타수입(1.9%)로 나타났다.

〈표 11-5-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구성(부부) 금액 및 비율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수입	기타소득	총수입
전체 <sup>1)</sup>	154.3	261.9	205.2	331.1	394.2	9.2	19.4	1375.3
지역								
동부	182.4	194.3	254.3	344.9	440.6	12.5	12.2	1441.3
읍·면부	94.6	405.5	100.8	301.8	295.6	2.2	34.8	1235.3
성								
남자	236.0	343.8	274.3	327.4	466.9	8.2	25.4	1681.9
여자	92.2	199.8	152.8	333.9	339.1	10.0	14.9	1142.7
연령								
65~69세	297.6	458.0	242.4	274.1	436.1	12.3	22.2	1742.8
70~74세	164.9	276.6	225.0	340.5	384.8	5.2	21.0	1417.9
75~79세	58.7	144.6	182.5	381.2	412.1	5.2	17.8	1202.2
80~84세	16.0	63.1	137.6	375.6	343.7	21.1	16.6	973.7
85세 이상	8.6	29.8	132.1	296.3	263.3	7.7	9.1	746.8
가구형태								
노인독신	57.9	64.1	87.1	346.3	236.4	10.1	10.7	812.6
노인부부	192.1	358.7	273.8	386.2	510.5	10.9	26.2	1758.5
자녀동거	157.3	225.8	173.9	220.0	310.8	6.7	14.0	1108.4
기타	149.5	299.9	171.6	345.3	338.1	2.4	17.6	1324.2
교육수준								1375.3
무학(글자모름)	56.9	91.1	39.6	261.3	224.5	1.4	14.5	689.3
무학(글자해독)	89.3	156.1	70.0	291.4	255.1	1.2	18.9	882.0
초등학교	135.5	266.9	171.7	326.8	317.5	2.2	24.0	1244.6
중·고등학교	251.7	315.1	308.5	372.9	447.4	14.9	17.6	1728.1
전문대학 이상	233.7	622.9	654.9	425.6	1271.1	59.8	12.4	328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7	30.5	27.4	252.1	204.4	0.3	8.7	551.1
제2오분위	74.1	117.7	81.7	364.1	267.2	1.9	16.6	923.3
제3오분위	222.6	230.9	147.3	402.3	311.9	4.1	23.1	1342.2
제4오분위	230.1	385.8	213.6	346.8	499.3	20.4	22.9	1718.9
제5오분위	217.1	544.9	556.1	290.2	688.5	19.4	25.9	2342.2
<구성비>								
전체 <sup>2)</sup>	9.8	12.7	10.0	32.9	32.7	0.4	1.5	100.0
지역								
동부	11.2	7.2	11.8	33.6	34.5	0.5	1.2	100.0
읍·면부	6.7	24.4	6.1	31.6	28.9	0.1	2.3	100.0
성								
남자	13.4	16.2	11.7	26.6	30.0	0.4	1.7	100.0
여자	7.0	10.0	8.6	37.8	34.8	0.3	1.4	100.0
연령								
65~69세	16.4	19.3	11.2	22.6	28.5	0.5	1.5	100.0
70~74세	11.2	13.8	10.9	31.4	30.8	0.3	1.7	100.0
75~79세	5.3	9.3	9.4	39.2	35.1	0.2	1.5	100.0
80~84세	1.9	5.2	7.7	43.9	39.4	0.7	1.2	100.0
85세 이상	1.0	1.7	5.9	47.7	41.9	0.3	1.6	100.0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수입	기타소득	총수입
가구형태								
노인독신	6.7	6.3	6.8	45.4	33.1	0.4	1.3	100.0
노인부부	11.0	17.2	11.6	29.0	29.2	0.4	1.7	100.0
자녀동거	9.7	8.9	9.3	31.6	38.7	0.4	1.4	100.0
기타	10.7	14.8	10.0	30.0	32.8	0.3	1.4	100.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6	8.2	3.4	41.8	39.3	0.1	1.6	100.0
무학(글자해독)	7.9	11.0	5.9	37.8	35.5	0.1	1.8	100.0
초등학교	9.6	15.2	9.9	33.0	30.3	0.2	1.8	100.0
중·고등학교	13.4	13.5	13.9	28.5	29.0	0.6	1.1	100.0
전문대학 이상	8.9	9.6	17.9	21.0	40.2	1.9	0.6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	5.0	4.9	45.2	38.4	0.1	1.6	100.0
제2오분위	7.7	12.1	8.5	39.5	30.3	0.2	1.8	100.0
제3오분위	15.5	16.0	10.3	30.7	25.6	0.3	1.7	100.0
제4오분위	11.9	17.5	10.0	25.1	33.5	0.8	1.2	100.0
제5오분위	8.9	12.9	16.2	24.3	35.8	0.5	1.4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한편, 부부 수입의 공적이전지출과 기타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II-5-11〉과 같다. 우선,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5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31.9%, 기타공적급여 8.0%, 기초생활급여 5.0% 순이었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구성비를 보면, 동부의 경우 공적연금 비중이 높은 반면 읍·면부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부에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미흡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공적연금은 전기노인에게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는 후기노인에게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공적연금은 노인부부가구 4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독거와 자녀동거가구에서 각각 67.6%, 61.4%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급여는 노인독거와 기타가구가 12.0%, 1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타수입을 보면 개인연금 53.9%, 주택·농지연금 23.6%, 퇴직연금 22.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개인연금 비중이 56.1%로 읍·면부보다 높으며, 읍·면부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31.5%, 주택·농지연금 28.9%로 높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개인연금, 여자의 경우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의 경우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고, 주택·농지연금은 후기노인의 경우에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76.6%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비중이 각각 59.8%, 47.8%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고, 퇴직연금은 학력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부 수입의 공적이전지출 및 기타수입의 구성

(단위: %)

특성	공적이전소득 <sup>1)</sup>					기타수입 <sup>2)</sup>			
	공적 연금	기타 공적급여	기초 노령연금	기초 생활급여	소계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주택· 농지연금	소계
전체	31.9	8.0	55.1	5.0	100.0	53.9	22.5	23.6	100.0
지역									
동부	32.4	8.0	53.8	5.8	100.0	56.1	21.1	22.8	100.0
읍·면부	30.9	8.2	57.5	3.3	100.0	39.6	31.5	28.9	100.0
성									
남자	41.8	9.8	45.1	3.3	100.0	55.6	22.5	22.0	100.0
여자	24.6	6.7	62.5	6.1	100.0	52.2	22.6	25.2	100.0
연령									
65~69세	54.5	4.9	36.9	3.6	100.0	62.5	22.9	14.6	100.0
70~74세	34.6	4.5	57.0	4.0	100.0	59.3	20.6	20.1	100.0
75~79세	19.5	10.9	63.7	5.9	100.0	54.9	22.9	22.2	100.0
80~84세	8.3	18.4	66.1	7.2	100.0	0.0	10.6	89.4	100.0
85세 이상	4.7	9.5	77.6	8.2	100.0	12.1	87.9	0.0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5.7	4.7	67.6	12.0	100.0	19.1	4.3	76.6	100.0
노인부부	40.3	9.7	46.9	3.1	100.0	59.8	27.3	12.9	100.0
자녀동거	28.5	8.0	61.4	2.1	100.0	47.8	19.1	33.1	100.0
기타	37.3	5.8	46.9	10.0	100.0	100.0	0.0	0.0	100.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1	5.8	74.9	9.2	100.0	81.6	18.4	0.0	100.0
무학(글자해독)	17.2	8.1	68.1	6.5	100.0	50.1	10.6	39.3	100.0
초등학교	30.1	9.5	56.1	4.4	100.0	56.0	16.4	27.6	100.0
중·고등학교	48.4	7.0	41.1	3.4	100.0	53.5	16.8	29.7	100.0
전문대학 이상	67.7	7.9	23.1	1.3	100.0	51.9	35.0	13.1	100.0

특성	공적이전소득 <sup>1)</sup>				기타수입 <sup>2)</sup>				
	공적 연금	기타 공적급여	기초 노령연금	기초 생활급여	소계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주택· 농지연금	소계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	4.7	73.2	12.2	100.0	32.6	0.0	67.4	100.0
제2오분위	21.7	8.0	63.1	7.2	100.0	77.8	14.0	8.2	100.0
제3오분위	34.0	10.8	52.1	3.2	100.0	74.4	10.4	15.2	100.0
제4오분위	46.0	9.0	44.3	0.8	100.0	32.3	21.7	45.9	100.0
제5오분위	51.2	8.1	40.3	0.5	100.0	50.6	35.4	14.0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중 공적이전소득 수입이 있는 9,29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중 기타수입이 있는 121명을 대상으로 함

한편 총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표Ⅱ-5-12〉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소득 20%이하로 나타났다. 평균비중은 53.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50.4%에 비하여 읍·면부가 59.5%로 평균 비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로도 남자 62.0%, 여자 46.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7.3%이고, 가구소득의 20%이하인 경우는 14.1%인 반면, 여성은 가구소득 80~100%가 30.7%, 가구소득 20%이하가 38.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군별로는 Ⅱ형 관계를 보이고 있어 80~84세 연령군에서 평균 비중이 60.0%로 가장 높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가 92.4%였으며, 노인부부가구는 고르게 나타났고, 자녀동거가구는 가구소득의 20%이하가 62.2%로 나타나 가구형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거가구는 개인이 스스로의 소득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구소득 20% 이하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제1오분위의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라는 응답이 전체의 66.2%로 2/3이 이상이 스스로의 가구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5오분위의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20%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5오분위의 경우에는 노인 스스로의 소득 외에도 다른 자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노인, 독거노인, 후기노인, 저소득노인의 경우 가구소득내에서 본인 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11-5-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중 개인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전체 <sup>1)</sup>	27.9	13.0	15.6	10.1	33.5	100.0 (10,663)	53.3
지역							
동부	30.8	13.0	16.8	9.1	30.3	100.0 ( 7,246)	50.4
읍·면부	21.7	12.9	13.0	12.1	40.3	100.0 ( 3,417)	59.5
성							
남자	14.1	11.1	19.2	18.4	37.3	100.0 ( 4,604)	62.0
여자	38.3	14.5	12.8	3.8	30.7	100.0 ( 6,060)	46.7
연령							
65~69세	29.6	15.4	14.7	9.7	30.5	100.0 ( 3,178)	50.3
70~74세	27.6	13.3	15.8	12.0	31.3	100.0 ( 3,237)	52.7
75~79세	23.7	13.4	17.4	10.3	35.3	100.0 ( 2,410)	55.8
80~84세	26.3	8.0	14.0	8.0	43.7	100.0 ( 1,182)	60.0
85세 이상	38.8	7.6	14.7	4.6	34.3	100.0 ( 654)	49.7
가구형태							
노인독거 <sup>2)</sup>	1.2	1.3	3.0	2.0	92.4	100.0 ( 2,085)	95.6
노인부부	18.9	14.4	24.4	16.5	25.9	100.0 ( 5,172)	53.5
자녀동거	62.2	18.3	8.6	3.8	7.1	100.0 ( 2,915)	23.8
기타	32.2	16.7	16.1	14.3	20.8	100.0 ( 491)	4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0.4	11.9	9.6	5.2	42.9	100.0 ( 1,166)	57.1
무학(글자해독)	31.3	13.3	13.1	6.8	35.4	100.0 ( 2,210)	52.8
초등학교	29.5	14.3	17.3	10.8	28.2	100.0 ( 3,778)	49.8
중·고등학교	24.2	12.7	17.8	12.4	32.8	100.0 ( 2,768)	54.5
전문대학 이상	19.2	8.0	14.9	15.0	43.0	100.0 ( 740)	62.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	7.5	15.0	9.5	66.2	100.0 ( 2,127)	82.2
제2오분위	10.3	15.9	27.9	15.6	30.4	100.0 ( 2,136)	60.1
제3오분위	24.0	15.5	17.1	12.9	30.5	100.0 ( 2,132)	53.2
제4오분위	42.0	13.1	10.0	8.1	26.9	100.0 ( 2,135)	43.4
제5오분위	61.2	12.9	7.9	4.2	13.8	100.0 ( 2,135)	27.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측값은 제외함.

2) 소득원 작년 한해(2010. 1. 1. ~ 2010. 12. 31)를 기준으로 했으며, 가구형태는 2011. 8월 현재를 기준으로 함/

총가구소득에서 부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표II-5-13>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7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소득 20%이하(12.6%)로 나타났다.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80.2%이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76.3%, 읍·면부가 88.4%로 12.1%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부부소득이 가구소득의 20%이하인 경우는 7.1%인 반면, 여성은 가구소득 20%이하가 16.8%이다. 평균은 각각 84.7%와 76.8%로 남녀간의 차이가 개인단위보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부부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가 각 98.1%, 98.2%로 대부분이며, 자녀동거가구는 가구소득 20%가 43.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중 부부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연가구소득별로는 낮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의 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 자녀동거의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읍면부, 남성, 낮은 연령층, 독거 혹은 부부가구, 저소득의 경우 부부소득이 가구소득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중 부부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전체 <sup>1)</sup>	12.6	7.1	4.6	2.5	73.1	100.0 (10,663)	80.2
지역							
동부	15.0	8.7	5.5	2.7	68.0	100.0 ( 7,248)	76.3
읍·면부	7.4	3.7	2.8	2.0	84.1	100.0 ( 3,415)	88.4
성							
남자	7.1	7.0	5.7	3.1	77.1	100.0 ( 4,598)	84.7
여자	16.8	7.2	3.8	2.0	70.2	100.0 ( 6,064)	76.8
연령							
65~69세	8.5	8.7	7.2	3.7	71.9	100.0 ( 3,177)	81.2
70~74세	10.3	7.1	4.1	2.3	76.1	100.0 ( 3,235)	82.6
75~79세	11.9	6.6	3.1	2.2	76.2	100.0 ( 2,413)	82.1
80~84세	18.8	4.5	3.0	0.9	72.8	100.0 ( 1,183)	77.7
85세 이상	34.9	6.7	3.5	1.4	53.6	100.0 ( 657)	60.9

특성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b>가구형태</b>							
노인독거 <sup>2)</sup>	0.4	0.5	0.5	0.5	98.1	100.0 ( 2,090)	98.8
노인부부	0.3	0.3	0.7	0.5	98.2	100.0 ( 5,167)	99.0
자녀동거	43.7	23.5	13.3	5.8	13.6	100.0 ( 2,913)	34.9
기타	9.3	9.6	12.2	12.6	56.3	100.0 ( 492)	72.3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21.1	6.4	2.5	2.9	67.0	100.0 ( 1,165)	73.6
무학(글자해독)	17.9	6.8	3.8	1.8	69.6	100.0 ( 2,213)	76.2
초등학교	11.2	7.8	4.3	1.9	74.9	100.0 ( 3,781)	81.4
중·고등학교	8.9	7.5	6.7	3.1	73.8	100.0 ( 2,766)	82.2
전문대학 이상	4.3	4.5	4.6	4.6	82.0	100.0 ( 738)	89.0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0.0	1.4	1.0	0.7	96.9	100.0 ( 2,129)	98.2
제2오분위	1.3	1.3	2.1	2.5	92.8	100.0 ( 2,137)	96.1
제3오분위	4.3	4.5	2.8	3.0	85.5	100.0 ( 2,132)	90.4
제4오분위	17.6	11.6	6.3	2.2	62.3	100.0 ( 2,131)	71.7
제5오분위	39.7	17.0	11.1	4.1	28.1	100.0 ( 2,135)	44.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측값을 제외함.

2) 배우자가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있음.

## 2. 자산현황

### 가. 부동산

#### 1) 본인의 부동산

조사대상 응답노인의 58.5%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약 1억 3,760만원이다(표 II-5-14 참조). 지역별로는 보유 유무의 차이는 없으나,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동부는 1억 4,553만원으로 읍·면부 1억 2,077만원보다 2,5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우선 남자의 경우 83.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불과 39.9%가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모 또는 남자는 2억 3,862만원나 여자는 불과 6천만원으로 남자의 1/4수준에 지나지 않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 후반 62.3%, 70대 후반 58.0%, 80대 후반은 41.0%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율이 낮고, 보유부동산의 가격 또한 전술한 연령대에서 각각 1억 6,247만원, 1억 2,672만원, 8,934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의 부동산 보유율이 72.4%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 가구는 48.6%로 가장 낮다. 보유부동산 가격은 노인부부가구 1억 5,95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에는 9,161만원에 불과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나 보유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학(글자모름)의 보유율은 44.1%로 가장 낮고, 보유 부동산 가격 또한 3,803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은 77.8%로 가장 높고, 가격 또한 3억 6,873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10배 이상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동산 보유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보유율이 비교적 높지만, 보유 가격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오분위의 부동산 보유율은 61.8%, 보유가격 5,083만원인 반면, 제5오분위의 보유율은 54.0%, 보유가격 2억 6,974만원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11-5-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부동산 규모(본인)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동산규모
전체 <sup>1)</sup>	41.5	58.5	100.0	(10,674)	13,760.1
지역					
동부	41.5	58.5	100.0	( 7,257)	14,553.3
읍·면부	41.4	58.6	100.0	( 3,418)	12,077.3
성					
남자	17.0	83.0	100.0	( 4,605)	23,864.4
여자	60.1	39.9	100.0	( 6,069)	6,088.4
연령					
65~69세	37.7	62.3	100.0	( 3,179)	16,247.9
70~74세	39.6	60.4	100.0	( 3,240)	14,265.1
75~79세	42.0	58.0	100.0	( 2,414)	12,671.6
80~84세	45.9	54.1	100.0	( 1,182)	10,592.6
85세 이상	59.0	41.0	100.0	( 658)	8,933.5
가구형태					
노인독거	27.6	72.4	100.0	( 2,095)	9,160.7
노인부부	41.5	58.5	100.0	( 5,172)	15,949.7
자녀동거	51.4	48.6	100.0	( 2,916)	13,199.7
기타	41.8	58.2	100.0	( 491)	13,588.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9	44.1	100.0	( 1,169)	3,803.1
무학(글자해독)	51.5	48.5	100.0	( 2,213)	5,782.7
초등학교	43.5	56.5	100.0	( 3,782)	11,367.7
중·고등학교	29.8	70.2	100.0	( 2,770)	21,410.5
전문대학 이상	22.2	77.8	100.0	( 740)	36,873.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8.2	61.8	100.0	( 2,136)	5,082.9
제2오분위	40.9	59.1	100.0	( 2,139)	7,929.0
제3오분위	40.1	59.9	100.0	( 2,132)	12,756.8
제4오분위	42.1	57.9	100.0	( 2,134)	16,085.0
제5오분위	46.0	54.0	100.0	( 2,134)	26,973.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측값을 제외함.

## 2) 부부의 부동산

조사대상 노인 부부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18.6%,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75.0%, 부부 모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6.4%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2억 1,742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표 II-5-15 참조). 지역별로는 보유 유무의 차이는 없으나,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동부는 2억 3,217만원으로 읍·면부 1억 8,612만원보다 4,5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0.2%가 보유부동산이 없으며, 여자는 25.0%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부동산 가격은 남자는 2억 6,807만원이나 여자는 1억 7,899만원으로 남자 보다 9천만원 정도 낮다. 연령별로는 후기노인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80대 후반 54.0%, 70대 후반 22.3%, 60대 후반은 7.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무보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부동산의 가격은 60대 후반 2억 7,458억원, 70대 후반 1억 9,371억원, 80대 후반 1억 1,114억원으로 낮은 연령대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

가구형태별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은 자녀동거 가구 34.0%로 가장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6.7%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노인부부가구의 부동산 가격이 2억 7,789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독거의 경우 9,152만원으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나 보유가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학(글자모름)의 부동산 무보유율은 39.7%로 가장 높으며, 보유부동산 가격 또한 6,560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부동산 무보유율은 6.9%로 가장 낮고, 보유부동산 가격 또한 5억 6,503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약 9배 정도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동산 무보유율은 제1오분위 저소득층 26.9%, 제5오분위 25.5%로 비교적 높으며, 보유가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제1오분위의 보유부동산 가격 6,695만원, 제3오분위 2억 81만원, 제5오분위 4억 2,908만원을 보이고 있다.



〈표 11-5-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부동산 규모(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보유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sup>1)</sup>	18.6	75.0	6.4	100.0	(10,674)	21,742.2
지역						
동부	18.7	74.9	6.4	100.0	( 7,256)	23,216.7
읍·면부	18.5	75.1	6.5	100.0	( 3,418)	18,611.5
성						
남자	10.2	81.5	8.3	100.0	( 4,604)	26,807.3
여자	25.0	70.0	4.9	100.0	( 6,069)	17,899.3
연령						
65~69세	7.6	83.1	9.3	100.0	( 3,180)	27,457.9
70~74세	13.6	78.9	7.5	100.0	( 3,239)	23,125.7
75~79세	22.3	73.1	4.6	100.0	( 2,414)	19,371.0
80~84세	34.9	63.4	1.7	100.0	( 1,182)	13,341.5
85세 이상	54.0	44.0	2.0	100.0	( 659)	11,113.5
가구형태						
노인독거	27.5	72.5	0.0	100.0	( 2,094)	9,152.4
노인부부	6.7	82.6	10.7	100.0	( 5,172)	27,788.6
자녀동거	34.0	62.0	4.0	100.0	( 2,916)	20,344.9
기타	15.2	82.1	2.6	100.0	( 492)	19,961.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9.7	58.9	1.5	100.0	( 1,169)	6,560.2
무학(글자해독)	28.0	68.2	3.8	100.0	( 2,213)	10,986.5
초등학교	15.2	79.0	5.8	100.0	( 3,782)	20,692.9
중·고등학교	10.2	81.4	8.4	100.0	( 2,770)	28,881.4
전문대학 이상	6.9	75.8	17.3	100.0	( 740)	56,502.9
연가소득						
제1오분위	26.9	70.5	2.5	100.0	( 2,135)	6,694.5
제2오분위	12.6	82.9	4.4	100.0	( 2,138)	13,256.2
제3오분위	11.4	81.7	6.9	100.0	( 2,132)	20,080.6
제4오분위	16.8	75.7	7.5	100.0	( 2,135)	25,794.2
제5오분위	25.5	63.9	10.6	100.0	( 2,134)	42,908.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나. 금융자산

### 1) 본인의 금융자산

조사응답자 본인의 금융자산 유무와 규모를 살펴본 〈표 II-5-16〉에 의하면, 우선 전체의 75.4%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62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82.5%로 동부보다 10.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규모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약 900만원 많은 1,913만원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8.7%로 여성보다 높다.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규모면에서는 70대의 금융자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70대 초반 1,828만원, 70대 후반 1,717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노인부부가구 78.8%로 가장 높으며, 규모 또한 1,912만원으로 가장 많다. 노인독거의 경우 보유율은 78.2%로 비교적 높으나, 그 규모는 약 938만원으로 제일 낮다.

교육수준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규모 또한 학력수준이 높으면 보유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이상의 경우 6,446만원으로 무학(글자 모름) 402만원의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 특징은 제1오분위의 보유율이 7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금액 또한 455만원으로 가장 낮다. 한편 제5오분위의 금융자산보유율은 78.1%로 가장 높으며 규모는 4,137만원으로 가장 높아 제1오분위의 9배 수준에 이른다.

〈표 11-5-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규모 (본인)

(단위: %, 명, 만원)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전체 <sup>1)</sup>	24.6	75.4	100.0	(10,674)	1,624.5
지역					
동부	27.9	72.1	100.0	( 7,256)	1,913.1
읍·면부	17.5	82.5	100.0	( 3,418)	1,016.2
성					
남자	21.3	78.7	100.0	( 4,605)	2,338.0
여자	27.1	72.9	100.0	( 6,069)	1,086.5
연령					
65~69세	37.7	62.3	100.0	( 3,179)	1,632.7
70~74세	39.6	60.4	100.0	( 3,240)	1,828.4
75~79세	42.0	58.0	100.0	( 2,414)	1,716.5
80~84세	45.9	54.1	100.0	( 1,182)	1,156.2
85세 이상	59.0	41.0	100.0	( 658)	1,090.5
가구형태					
노인독거	21.8	78.2	100.0	( 2,094)	937.8
노인부부	21.2	78.8	100.0	( 5,173)	1,911.6
자녀동거	31.3	68.7	100.0	( 2,916)	1,648.0
기타	31.6	68.4	100.0	( 491)	1,397.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6.5	73.5	100.0	( 1,169)	401.5
무학(글자해독)	28.7	71.3	100.0	( 2,213)	1,070.0
초등학교	24.2	75.8	100.0	( 3,782)	1,233.8
중·고등학교	23.0	77.0	100.0	( 2,770)	1,881.6
전문대학 이상	16.6	83.4	100.0	( 740)	6,446.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5	70.5	100.0	( 2,136)	455.0
제2오분위	22.0	78.0	100.0	( 2,139)	829.1
제3오분위	25.6	74.4	100.0	( 2,131)	1,259.0
제4오분위	23.9	76.1	100.0	( 2,135)	1,471.7
제5오분위	21.9	78.1	100.0	( 2,134)	4,137.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2) 부부의 금융자산

조사대상 가구 노인부부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체의 17.8%,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보유한 경우 41.9%, 부부 모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40.3%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2,554만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표 II-5-17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의 금융자산 무보유율이 21.2%로 읍·면부보다 10.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금융자산 규모는 동부가 2,910만원으로 읍·면부 1,800만원 보다 약 1,100만원 많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4.9%가 보유금융자산이 없으며, 여자는 20.0%가 없고, 보유금액은 남자는 3,125만원이나 여자는 2,121만원으로 남자 보다 1천만원 정도 적다. 연령별로는 후기노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80대 후반 26.4%, 70대 후반 17.6%, 60대 후반은 15.7%로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보유금융자산 금액은 70대 초반 2,898만원, 70대 후반 2,790만원으로 높으며, 80대 후반 1,456만원으로 가장 낮다.

가구형태별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율을 비교해보면 자녀동거 가구 26.2%로 가장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10.7%로 가장 낮다. 한편 보유 금융자산 규모는 노인부부가구 3,422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934만원으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율이나 보유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글자모름)의 금융자산 보유율은 79.0%로 가장 낮으며, 보유금액 또한 563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보유율은 88.4%로 가장 높고, 보유금액 또한 8604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약 15배 이상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율은 제1오분위 저소득층이 74.6%로 가장 낮다. 보유 금액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서 제1오분위의 보유금액은 807만원, 제3오분위 2,083만원, 제5오분위 6,10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5-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보유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sup>1)</sup>	17.8	41.9	40.3	100.0 (10,674)	2,554.3
지역					
동부	21.2	40.3	38.5	100.0 ( 7,257)	2,909.5
읍·면부	10.6	45.2	44.2	100.0 ( 3,417)	1,800.0
성					
남자	14.9	31.1	54.0	100.0 ( 4,605)	3,124.9
여자	20.0	50.1	29.9	100.0 ( 6,070)	2,121.3
연령					
65~69세	15.7	34.3	50.0	100.0 ( 3,180)	2,613.0
70~74세	16.5	39.4	44.2	100.0 ( 3,240)	2,897.5
75~79세	17.6	45.7	36.7	100.0 ( 2,414)	2,790.4
80~84세	22.8	52.7	24.4	100.0 ( 1,183)	1,585.3
85세 이상	26.4	57.6	16.0	100.0 ( 658)	1,456.2
가구형태					
노인독거	21.8	78.0	0.1	100.0 ( 2,094)	934.1
노인부부	10.7	27.3	62.0	100.0 ( 5,172)	3,421.9
자녀동거	26.2	42.7	31.2	100.0 ( 2,916)	2,230.0
기타	25.5	37.1	37.5	100.0 ( 491)	2,237.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1.0	61.6	17.4	100.0 ( 1,169)	563.3
무학(글자해독)	22.3	50.4	27.3	100.0 ( 2,213)	1,626.0
초등학교	16.4	40.3	43.3	100.0 ( 3,783)	2,158.0
중·고등학교	16.4	32.6	51.0	100.0 ( 2,769)	3,059.5
전문대학 이상	11.6	28.5	59.9	100.0 ( 741)	8,604.2
연가소득					
제1오분위	25.4	59.8	14.8	100.0 ( 2,135)	807.0
제2오분위	13.8	41.9	44.2	100.0 ( 2,139)	1,373.6
제3오분위	16.6	35.6	47.8	100.0 ( 2,132)	2,082.8
제4오분위	16.4	36.7	46.9	100.0 ( 2,135)	2,405.5
제5오분위	16.8	35.4	47.8	100.0 ( 2,134)	6,105.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3. 부채

#### 1) 본인의 부채

조사응답자 본인의 부채 유무와 규모를 살펴본 〈표 II-5-18〉에 의하면, 우선 전체의 20.0%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14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부채 보유율이 22.0%로 읍·면부보다 6.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약 900만원 많은 1,438만원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부채 보유율이 30.6%로 높으며, 규모 면에서도 1,803만원으로 여자의 약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 보유율이 높으며, 부채 수준 또한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60대 후반 1,652만원, 70대 초반 1,178만원, 70대 후반 910만원, 80대 초반 586.6만원, 80대 후반 498만원이다.

가구형태별 부채 보유율을 보면, 노인독거 가구의 부채비율이 15.8%로 가장 낮으며, 그 외의 가구들은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1,56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독거 가구는 734만원으로 가장 적다.

교육수준별 부채 보유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규모 또한 학력수준이 높으면 보유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이상의 경우 3,120만원으로 무학(글자해독) 390만원의 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부채보유율이 1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금액 또한 397만원으로 가장 낮다. 한편 제5오분위의 금융자산보유율은 26.0%로 가장 높으며 규모는 2,597만원으로 가장 높아 제1오분위의 6배를 상회하고 있다.

〈표 11-5-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본인)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전체	(명)	부채규모
전체 <sup>1)</sup>	80.0	20.0	100.0	(10,674)	1,148.5
지역					
동부	78.0	22.0	100.0	( 7,257)	1,438.1
읍·면부	84.3	15.7	100.0	( 3,417)	534.2
성					
남자	69.4	30.6	100.0	( 4,605)	1,802.6
여자	88.2	11.8	100.0	( 6,069)	652.7
연령					
65~69세	73.8	26.2	100.0	( 3,180)	1,651.6
70~74세	77.6	22.4	100.0	( 3,240)	1,177.5
75~79세	84.1	15.9	100.0	( 2,414)	909.7
80~84세	88.3	11.7	100.0	( 1,183)	568.6
85세 이상	92.2	7.8	100.0	( 658)	498.3
가구형태					
노인독거	84.2	15.8	100.0	( 2,094)	733.6
노인부부	79.4	20.6	100.0	( 5,172)	1,093.4
자녀동거	78.6	21.4	100.0	( 2,916)	1,568.2
기타	77.2	22.8	100.0	( 491)	1,004.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2.4	7.6	100.0	( 1,169)	410.2
무학(글자해독)	87.5	12.5	100.0	( 2,213)	389.7
초등학교	81.0	19.0	100.0	( 3,782)	914.8
중·고등학교	70.1	29.9	100.0	( 2,770)	1,862.0
전문대학 이상	70.3	29.7	100.0	( 740)	3,12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8.3	11.7	100.0	( 2,136)	396.6
제2오분위	82.5	17.5	100.0	( 2,138)	565.4
제3오분위	79.4	20.6	100.0	( 2,131)	847.1
제4오분위	76.0	24.0	100.0	( 2,134)	1,332.9
제5오분위	74.0	26.0	100.0	( 2,134)	2,59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2) 부부의 부채

조사대상자의 부부의 부채 유무와 규모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구는 71.6%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 1인만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27.1%, 부부 모두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는 1.3%이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부채수준은 1,723만원으로 나타났다(표 II-5-19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의 부채 보유율이 31.3%로 읍·면부의 22.1% 보다 9.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동부가 2,173만원으로 읍·면부 766만원 보다 약 1,400만원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부채 보유율이 32.5%로 높았으며, 규모 면에서도 2,123만원으로 여자보다 70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 보유율이 높으며, 부채 수준은 연령층이 낮은 60대 후반 2,548만원으로 가장 많고, 70대 초반 1,742만원, 70대 후반 1,356만원 순이었으며, 80대 초반과 80대 후반은 약 740만원으로 가장 낮다.

가구형태별 부채 보유율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부채비율이 15.8%로 가장 낮으며, 그 외의 가구는 30%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규모는 자녀동거가구가 2,213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노인독거가구는 73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별 부부의 부채 보유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 전문대 32.9%, 중·고등학교 35.2%수준이었으며 무학(글자모름) 12.1%, 무학(글자해독) 19.5%수준이었으며, 부채규모는 학력수준 높은 전문대이상의 경우 4,254만원으로 가장 많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부채보유율이 14.2%로 가장 낮고, 제5오분위가 32.8%로 가장 높다. 그러나 부채보유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제5오분위 3,806만원으로 제1오분위 530만원의 7배를 상회하고 있다.



〈표 11-5-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채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sup>1)</sup>	71.6	27.1	1.3	100.0	(10,674)	1,722.5
지역						
동부	68.7	29.6	1.7	100.0	( 7,257)	2,173.0
읍·면부	77.9	21.7	0.4	100.0	( 3,417)	765.8
성						
남자	65.9	32.5	1.7	100.0	( 4,605)	2,122.7
여자	76.0	23.0	1.1	100.0	( 6,070)	1,418.8
연령						
65~69세	61.6	36.1	2.3	100.0	( 3,180)	2,547.8
70~74세	67.7	31.0	1.3	100.0	( 3,239)	1,742.3
75~79세	78.4	20.7	0.9	100.0	( 2,414)	1,356.4
80~84세	84.7	15.2	0.1	100.0	( 1,183)	743.2
85세 이상	90.9	9.0	0.2	100.0	( 659)	740.2
가구형태						
노인독거	84.2	15.8	0.0	100.0	( 2,094)	732.8
노인부부	67.4	30.9	1.7	100.0	( 5,177)	1,883.3
자녀동거	70.6	27.6	1.7	100.0	( 2,913)	2,212.6
기타	68.7	31.3	0.0	100.0	( 491)	1,338.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7.9	12.1	0.1	100.0	( 1,169)	609.6
무학(글자해독)	80.0	19.5	0.5	100.0	( 2,213)	804.5
초등학교	69.8	29.1	1.1	100.0	( 3,782)	1,458.5
중·고등학교	62.8	35.2	2.0	100.0	( 2,769)	2,609.3
전문대학 이상	63.2	32.9	3.9	100.0	( 741)	4,25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5.8	13.5	0.7	100.0	( 2,135)	529.8
제2오분위	73.2	26.7	0.1	100.0	( 2,138)	815.8
제3오분위	69.6	29.5	0.9	100.0	( 2,132)	1,389.7
제4오분위	65.3	33.0	1.7	100.0	( 2,135)	2,072.8
제5오분위	64.1	32.8	3.1	100.0	( 2,135)	3,806.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4. 부채사유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3,021명의 부채사유를 보면 생활비 마련 12.6%, 사업자금 마련 16.5%, 주택마련 17.5%, 의료비마련 6.2%, 교육비마련 1.4%, 기타사유 59.2%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의 11.9%는 2개 이상의 사유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I-5-20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 부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사유가 18.2%로 읍·면부에 비해 다소 높으며, 읍·면부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 37.4%, 의료비 마련 8.5%로 동부보다 높게 나타나 농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부채(19.3%), 주택마련(18.6%)을 위한 부채비율이 여자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일수록 생활비마련이나 의료비마련을 위한 부채비율이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사업자금이나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마련(18.1%)을 위한 부채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택마련(17.8%), 생활비마련(17.3%)을 위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의 경우 생활비마련 18.4%, 주택마련 1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마련 19.0%, 기타가구의 경우에는 생활비마련 20.8%, 사업자금 20.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자금, 의료비마련을 위한 부채비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주택마련이 18.4%, 21.9%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부채비율이 34.3%로 가장 높으며, 미취업인 경우 주택마련 17.9%, 생활비마련 13.5%, 의료비마련 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으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활비, 주택마련 및 의료비마련을 위한 부채비율이 높으며, 중산층인 제3분위, 제4오분위의 경우 사업자금을 위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 생활비마련, 의료비마련을 위한 부채비율이 많고,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금이나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사유<sup>1)</sup>

(단위: %, 명)

특성	생활비 마련	사업자금	주택마련	의료비 마련	교육비 마련	기타	대상자수
전체 <sup>2)</sup>	12.6	16.5	17.5	6.2	1.4	59.2	(3,021)
지역							
동부	12.4	9.5	18.2	5.4	1.3	67.0	(2,264)
읍·면부	13.2	37.4	15.6	8.5	1.7	35.8	( 757)
성							
남자	12.7	19.3	18.6	5.6	1.6	57.5	(1,563)
여자	12.6	13.5	16.4	6.8	1.2	61.0	(1,458)
연령							
65~69세	10.7	20.0	19.9	5.1	1.6	57.9	(1,216)
70~74세	12.9	17.1	16.4	6.8	1.0	58.8	(1,049)
75~79세	13.7	11.4	17.1	5.2	2.5	62.6	( 519)
80~84세	18.5	8.4	10.2	9.6	0.0	60.1	( 178)
85세 이상	20.0	5.0	13.6	16.9	0.0	57.6	( 6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5	18.1	17.5	5.7	1.5	59.6	(2,465)
배우자 없음	17.3	9.5	17.8	8.5	0.9	57.0	( 555)
가구형태							
노인독거	18.4	8.5	15.7	10.3	0.9	57.1	( 331)
노인부부	9.8	18.8	16.9	5.2	1.2	60.5	(1,688)
자녀동거	14.2	14.4	19.0	6.9	1.8	57.8	( 855)
기타	20.8	20.1	17.5	3.9	1.9	53.9	( 15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6.1	12.0	13.4	6.3	1.4	50.0	( 142)
무학(글자해독)	20.2	16.7	18.6	8.4	1.8	46.3	( 441)
초등학교	11.9	18.0	18.4	6.4	1.7	56.9	(1,133)
중·고등학교	9.3	16.5	15.5	5.7	1.3	65.6	(1,030)
전문대학 이상	8.4	12.4	21.9	3.3	0.4	69.7	( 2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1	34.3	16.9	4.5	2.0	45.3	(1,131)
미취업	13.5	5.8	17.9	7.2	1.0	67.5	(1,89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7	9.5	20.8	11.6	2.3	42.9	( 303)
제2오분위	17.0	15.0	19.7	8.6	1.2	50.9	( 572)
제3오분위	14.4	17.5	14.4	7.4	1.9	57.1	( 645)
제4오분위	7.9	21.4	15.1	5.7	1.2	59.9	( 735)
제5오분위	4.6	14.9	19.6	1.6	0.9	72.8	( 7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6	16.9	18.0	4.9	1.5	59.7	(2,689)
제한 있음	21.1	13.3	13.9	16.6	0.9	54.8	( 332)

주: 1) 각 항목별 '예'라고 답한 비율임.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부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 제4절 장애인 등록률 및 기초생활보호 수급현황

조사대상 노인의 13.6%가 등록장애인이며, 읍·면부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14.7%로 동부의 13.1%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21 참조). 성별로는 남자의 등록장애율이 16.6%로 여자보다 5.2%포인트 높다. 연령별로는 70대 후반의 등록장애율이 14.6%로 가장 높으며,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9.1%로 가장 낮다.

결혼상태별 등록장애인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4.7%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별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5.5%, 노인독거가구 12.6%, 자녀동거가구 11.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8.1%로 가장 낮고, 무학(글자모름) 10.9%, 그 외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4% 내외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의 경우 등록장애인 비율이 15.4%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10.1%보다 5.3%포인트 높다. 가구소득 분위별로는 제1, 2, 3오분위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15%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4, 5오분위는 10%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도 제한이 있는 경우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27.5%로 제한이 없는 경우 11.2%보다 16.3%포인트 높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2%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의료급여만 적용되는 노인은 1.0%, 그 외 일반노인은 9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7.1%로 읍·면부 4.3%보다 2.7%포인트 높다. 성별로는 남자(4.3%)보다는 여자(7.6%)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고연령일수록 기초생활대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기초대상자 비율이 11.7%로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신가구 15.2%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별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무학(글자모름) 12.0%, 무학(글자해독) 8.5%, 초등학교 5.4%, 전문대이상 1.5%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도 미취업노인의 기초수급대상 비율이 8.7%로 많으며, 가구소득 분위별 기초수급대상자 비율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제1오분위 16.2%, 제2오분위 9.2%, 제3오분위 4.1% 순이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이 10.6%로 제한이 없는 경우 5.5%보다 5.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11-5-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단위: %, 명)

특성	등록장애인 <sup>1)</sup>		기초생활보호대상 <sup>2)</sup>			계 (명)
	예	아니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만	그 외	
전체	13.6	86.4	6.2	1.0	92.9	100.0 (10,674)
지역						
동부	13.1	86.9	7.1	0.9	92.2	100.0 ( 7,256)
읍·면부	14.7	85.3	4.3	1.1	94.6	100.0 ( 3,418)
성						
남자	16.6	83.4	4.3	0.8	94.9	100.0 ( 4,605)
여자	11.4	88.6	7.6	1.1	91.3	100.0 ( 6,069)
연령						
65~69세	14.1	85.9	4.7	0.7	94.6	100.0 ( 3,180)
70~74세	14.0	86.0	5.0	1.0	94.0	100.0 ( 3,240)
75~79세	14.6	85.4	7.4	1.0	91.6	100.0 ( 2,414)
80~84세	11.9	88.1	9.0	1.3	89.7	100.0 ( 1,183)
85세 이상	9.1	90.9	10.0	1.5	88.5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7	85.3	3.5	0.6	95.8	100.0 ( 7,199)
배우자 없음	11.5	88.5	11.7	1.7	86.6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12.6	87.3	15.2	1.9	82.9	100.0 ( 2,094)
노인부부	15.5	84.5	3.9	0.6	95.4	100.0 ( 5,173)
자녀동거	11.7	88.3	2.6	0.8	96.6	100.0 ( 2,916)
기타	10.0	90.0	13.1	1.0	85.9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9	89.1	12.0	1.7	86.2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14.6	85.4	8.5	1.4	90.1	100.0 ( 2,214)
초등학교	14.8	85.2	5.4	0.8	93.9	100.0 ( 3,782)
중·고등학교	14.0	86.0	4.3	0.8	95.0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8.1	91.9	1.5	0.1	98.4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1	89.9	1.2	0.7	98.1	100.0 ( 3,569)
미취업	15.4	84.6	8.7	1.1	90.2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4	84.6	16.2	2.4	81.4	100.0 ( 2,135)
제2오분위	16.9	83.1	9.2	0.8	90.0	100.0 ( 2,139)
제3오분위	14.6	85.4	4.1	0.6	95.3	100.0 ( 2,131)
제4오분위	10.2	89.8	0.9	0.6	98.4	100.0 ( 2,135)
제5오분위	10.9	89.1	0.3	0.4	99.3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2	88.8	5.5	0.8	93.8	100.0 ( 9,081)
제한 있음	27.5	72.5	10.6	2.0	87.4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110명을 제외한 10,564명을 대상으로 함.

## 제5절 주관적인 생활수준

노인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6.0%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6.6%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5-22 참조). 약 절반 정도인 47.4%의 노인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47.3%가 낮다고 생각한 반면 6.5%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읍·면부는 45.2%가 낮은 것으로 5.0%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생활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령별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연령이 높은 85세 이상 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높다고 생각하는 층은 6.9%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4.1%보다 약간 높다. 낮다는 부정적 응답에서는 결혼상태별 차이가 매우 커 배우자가 있는 경우 41.2%, 배우자가 없는 경우 58.0%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경우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5.3%로 가장 높은 반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관적 생활수준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들이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수준이 높고 높은 제5오분위의 경우 19.9%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제1오분위의 74.9%는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능상태별 생활수준을 보면, 제한이 있는 경우 56.9%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제한 없는 경우에는 44.9%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11-5-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 명)

특성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계 (명)
전체 <sup>1)</sup>	10.5	36.1	47.4	5.8	0.2	100.0 (10,542)
지역						
동부	11.4	35.9	46.2	6.2	0.3	100.0 ( 7,148)
읍·면부	8.6	36.6	49.8	4.9	0.1	100.0 ( 3,394)
성						
남자	8.7	33.1	50.7	7.1	0.4	100.0 ( 4,546)
여자	11.8	38.4	44.9	4.7	0.1	100.0 ( 5,995)
연령						
65~69세	7.6	32.8	53.5	6.0	0.1	100.0 ( 3,150)
70~74세	9.3	38.2	46.7	5.6	0.1	100.0 ( 3,227)
75~79세	12.8	37.0	44.7	5.0	0.5	100.0 ( 2,390)
80~84세	14.1	38.8	41.9	4.9	0.2	100.0 ( 1,161)
85세 이상	15.8	33.9	40.0	9.6	0.7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5	33.7	51.9	6.6	0.3	100.0 ( 7,121)
배우자 없음	16.8	41.2	37.9	4.0	0.1	100.0 ( 3,422)
가구형태						
노인독거	20.9	44.4	32.4	2.2	0.1	100.0 ( 2,086)
노인부부	7.0	34.6	51.1	6.9	0.4	100.0 ( 5,120)
자녀동거	8.1	32.9	52.4	6.5	0.1	100.0 ( 2,847)
기타	17.2	34.9	43.3	4.5	0.0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8	42.6	34.9	2.8	0.0	100.0 ( 1,144)
무학(글자해독)	15.6	42.9	38.3	3.1	0.1	100.0 ( 2,183)
초등학교	8.5	37.2	50.3	4.0	0.0	100.0 ( 3,742)
중·고등학교	7.2	31.0	54.5	7.1	0.2	100.0 ( 2,738)
전문대학 이상	3.5	19.6	52.7	22.0	2.2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6.6	35.5	52.7	5.2	0.1	100.0 ( 3,565)
미취업	12.5	36.5	44.7	6.1	0.3	100.0 ( 6,9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9	49.0	23.6	1.5	0.0	100.0 ( 2,112)
제2오분위	12.6	46.1	40.0	1.3	0.0	100.0 ( 2,120)
제3오분위	6.5	36.6	54.5	2.3	0.1	100.0 ( 2,100)
제4오분위	4.9	31.1	59.0	4.9	0.1	100.0 ( 2,114)
제5오분위	2.4	17.7	60.0	18.9	1.0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2	35.7	48.8	6.0	0.3	100.0 ( 9,075)
제한 있음	18.3	38.6	38.5	4.5	0.1	100.0 ( 1,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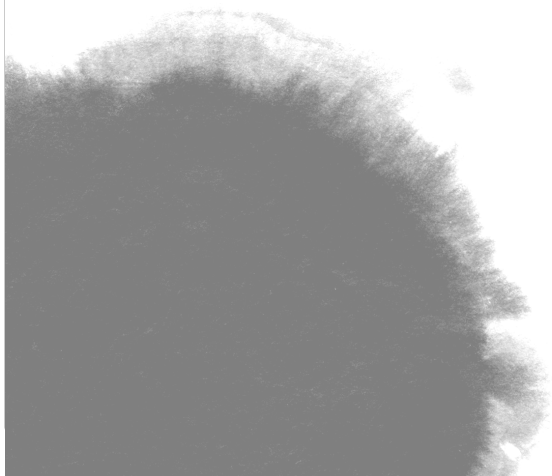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함.





## 06

## 노인의 보건의료 실태





## 제6장 노인의 보건의료 실태

노인의 삶에서 건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노후생활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질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건강행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상태 영역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처방약 복용,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 의료비, 방문보건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낙상, 우울증상 등을 포함하였다.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영양관리, 운동, 수면시간, 건강검진을 포함하였다.

281

### 제1 절 노인의 건강상태

#### 1. 주관적 건강상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의 분포를 보면 44.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II-6-1 참조).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도 6.8%나 되었다.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노인의 2.5%에 불과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읍면부가 46.6%로 동부(43.2%)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성(50.8%)이 남성(35.9%)보다 평소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가 더 높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80~84세 연령군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아 51.7%에 달하고

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무배우자(49.6%)가 유배우자(41.8%)에 비해 부정적으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부정적 주관적 건강인식이 독신가구에서 50.4%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저학력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같은 무학 내에서도 글자모름의 경우 58.0%, 글자해독의 경우 51.8%로 문맹자의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더 높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자(49.9%)가 취업자(33.5%)에 비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일수록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제1오분위의 53.7%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능상태별 분포에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 부정적 건강인식률은 기능제한 자의 경우 76.7%, 제한 없는 자의 경우 39.1%이다.

〈표 II-6-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소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sup>1)</sup>	2.5	31.7	21.5	37.6	6.8	100.0	(10,540)
지역							
동부	3.0	32.3	21.5	36.3	6.9	100.0	( 7,146)
읍·면부	1.4	30.4	21.6	40.1	6.5	100.0	( 3,394)
성							
남자	4.1	39.9	20.2	30.0	5.9	100.0	( 4,545)
여자	1.3	25.5	22.5	43.3	7.5	100.0	( 5,994)
연령							
65~69세	3.7	39.7	20.9	31.0	4.7	100.0	( 3,147)
70~74세	2.6	31.3	21.7	38.4	6.0	100.0	( 3,228)
75~79세	1.5	25.8	21.8	43.1	7.7	100.0	( 2,390)
80~84세	1.5	25.2	21.6	40.5	11.2	100.0	( 1,161)
85세 이상	1.2	27.6	22.0	39.6	9.7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	34.2	20.8	35.7	6.1	100.0	( 7,120)
배우자 없음	1.1	26.4	22.9	41.5	8.1	100.0	(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0.9	26.6	22.2	42.8	7.6	100.0	( 2,084)
노인부부	2.5	34.0	21.1	36.0	6.5	100.0	( 5,125)
자녀동거	3.5	31.0	21.8	36.8	6.9	100.0	( 2,845)
기타	2.7	33.9	21.2	35.8	6.3	100.0	( 487)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1.4	20.6	20.0	48.8	9.2	100.0 ( 1,144)
무학(글자해독)	0.8	25.3	22.1	44.0	7.8	100.0 ( 2,181)
초등학교	1.7	29.0	23.3	39.3	6.6	100.0 ( 3,743)
중·고등학교	3.7	39.5	20.9	29.8	6.1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8.4	52.4	15.1	20.6	3.5	100.0 ( 734)
<b>현취업상태</b>						
취업중	3.0	42.4	21.2	30.8	2.7	100.0 ( 3,566)
미취업	2.2	26.2	21.7	41.0	8.9	100.0 ( 6,974)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0.8	22.7	22.8	45.2	8.5	100.0 ( 2,111)
제2오분위	1.5	26.2	21.1	43.0	8.1	100.0 ( 2,120)
제3오분위	1.8	31.7	22.5	37.3	6.7	100.0 ( 2,100)
제4오분위	1.9	37.9	20.9	33.1	6.2	100.0 ( 2,114)
제5오분위	6.3	40.0	20.3	29.1	4.3	100.0 ( 2,095)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2.8	35.1	22.9	35.7	3.4	100.0 ( 9,071)
제한 있음	0.3	10.3	12.7	49.0	27.7	100.0 ( 1,469)
2008년도	1.8	22.5	14.7	46.5	14.4	100.0 (10,76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의 분포는 〈표 II-6-2〉에서 보듯이 건강하다는 응답이 39.1%, 그저 그렇다가 25.8%,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자가 35.0%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자가 동부 거주자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다.

부정적 건강인식은 성별로는 여성(40.6%)이 남성(27.8%)에 비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80~84세 연령군이 40.7%로 가장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38.8%)가 유배우자(33.4%)에 비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39.6%가 자신의 건강이 동년배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저학력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48.6%로 가장 높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가 취업중인 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여 제1오분위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율이 43.3%이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정적 인식을

이 높다. 부정적 건강상태 인식률이 기능제한이 있는 자는 65.3%, 기능제한이 없는 자는 30.2%이다.

〈표 11-6-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sup>1)</sup>	3.4	35.7	25.8	29.7	5.3	100.0	(10,540)
지역							
동부	4.0	36.7	26.2	28.0	5.1	100.0	( 7,146)
읍·면부	2.2	33.5	25.0	33.4	5.8	100.0	( 3,394)
성							
남자	5.6	42.7	23.9	23.3	4.5	100.0	( 4,545)
여자	1.8	30.4	27.3	34.6	6.0	100.0	( 5,995)
연령							
65~69세	5.0	41.3	23.3	26.6	3.8	100.0	( 3,148)
70~74세	3.2	34.5	27.1	30.1	5.0	100.0	( 3,228)
75~79세	1.9	31.3	27.8	32.8	6.2	100.0	( 2,390)
80~84세	3.7	30.1	25.5	33.0	7.7	100.0	( 1,161)
85세 이상	1.9	40.6	24.8	25.4	7.3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2	37.3	25.2	28.4	5.0	100.0	( 7,120)
배우자 없음	1.9	32.2	27.1	32.6	6.2	100.0	(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1.8	31.5	27.0	33.7	5.9	100.0	( 2,084)
노인부부	3.9	36.4	26.4	28.2	5.1	100.0	( 5,125)
자녀동거	4.1	37.0	24.4	29.1	5.6	100.0	( 2,845)
기타	2.2	38.4	23.2	32.2	3.9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	24.3	25.9	40.9	7.7	100.0	( 1,144)
무학(글자해독)	1.4	30.8	26.5	35.5	5.9	100.0	( 2,181)
초등학교	2.6	33.3	27.5	30.8	5.8	100.0	( 3,743)
중·고등학교	4.9	43.6	24.5	22.7	4.2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1.7	50.7	19.9	15.7	2.0	100.0	( 734)
현취업상태							
취업중	4.3	45.3	24.5	23.6	2.4	100.0	( 3,566)
미취업	3.0	30.8	26.5	32.9	6.9	100.0	( 6,9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	27.2	27.6	36.7	6.6	100.0	( 2,111)
제2오분위	2.5	30.2	27.0	33.6	6.8	100.0	( 2,120)
제3오분위	2.9	35.6	26.9	29.3	5.4	100.0	( 2,100)
제4오분위	3.1	41.3	23.4	27.5	4.7	100.0	( 2,114)
제5오분위	6.8	44.3	24.3	21.4	3.3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9	39.2	26.7	27.5	2.7	100.0	( 9,071)
제한 있음	0.5	14.1	20.1	43.6	21.7	100.0	( 1,469)
2008년도	2.2	24.0	18.6	42.9	12.4	100.0	(10,75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 2. 만성질환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2.5개이다(표 II-6-3).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도 68.3%나 되었으며, 3개 이상 지닌 경우도 44.3%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만성질환 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93.7%로 남성의 81.8%보다 높다. 복합이환율도 여성이 77.6%로 남성의 56.1%보다 크게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75~84세 연령군보다 낮은 유병률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유병률이 93.5%로 유배우자의 86.1%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93.8%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는 87.0%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유병률이 95.3%로 가장 높으며, 복합이환율도 80.6%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자의 유병률이 91.1%로 취업자의 83.6%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 제1오분위 군의 유병률이 91.8%로 가장 높으며, 복합이환율도 76.4%로 가장 높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기능제한 노인의 96.3%가 만성질환이 있는데 비해 제한이 없는 노인의 유병률은 87.3%이다. 기능제한을 지닌 노인의 복합이환율은 85.5%이다.

〈표 II-6-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만성질환 수

(단위: %, 명, 개)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전체 <sup>1)</sup>	11.5	20.3	24.0	44.3	100.0	(10,544)	2.5
지역							
동부	11.6	19.9	23.6	45.0	100.0	( 7,150)	2.6
읍·면부	11.2	21.0	24.8	43.0	100.0	( 3,394)	2.4
성							
남자	18.2	25.7	24.5	31.6	100.0	( 4,548)	2.0
여자	6.3	16.1	23.6	54.0	100.0	( 5,996)	2.9
연령							
65~69세	16.5	23.0	24.4	36.1	100.0	( 3,150)	2.1
70~74세	11.3	19.1	23.6	46.1	100.0	( 3,228)	2.6
75~79세	7.6	17.9	23.5	50.9	100.0	( 2,390)	2.8
80~84세	6.5	20.8	24.1	48.7	100.0	( 1,162)	2.8
85세 이상	10.8	20.0	25.7	43.5	100.0	( 615)	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9	22.3	23.9	39.9	100.0	( 7,121)	2.3
배우자 없음	6.5	16.0	24.1	53.5	100.0	( 3,423)	2.9
가구형태							
노인독거	6.2	15.2	23.6	55.0	100.0	( 2,086)	3.0
노인부부	13.0	22.2	24.9	39.9	100.0	( 5,125)	2.3
자녀동거	12.2	20.0	23.0	44.8	100.0	( 2,847)	2.6
기타	13.4	23.2	21.4	42.0	100.0	( 487)	2.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7	14.7	25.2	55.4	100.0	( 1,146)	3.0
무학(글자해독)	7.2	17.4	21.8	53.7	100.0	( 2,184)	2.9
초등학교	11.2	19.8	24.7	44.3	100.0	( 3,743)	2.5
중·고등학교	15.6	24.0	23.9	36.5	100.0	( 2,737)	2.2
전문대학 이상	20.7	26.1	24.8	28.5	100.0	( 734)	1.9
현취업상태							
취업중	16.4	24.4	25.5	33.7	100.0	( 3,566)	2.1
미취업	8.9	18.1	23.2	49.8	100.0	( 6,978)	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	15.4	23.1	53.3	100.0	( 2,113)	2.9
제2오분위	9.8	19.2	24.2	46.8	100.0	( 2,120)	2.6
제3오분위	12.0	19.3	24.1	44.6	100.0	( 2,101)	2.5
제4오분위	11.4	23.7	25.7	39.2	100.0	( 2,115)	2.3
제5오분위	15.9	23.7	22.7	37.7	100.0	( 2,095)	2.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7	21.8	24.7	40.8	100.0	( 9,073)	2.4
제한 있음	3.7	10.9	19.5	66.0	100.0	( 1,471)	3.5
2008년도	18.7	25.4	25.2	30.7	100.0	(10,798)	1.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다고 보고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유병률이 54.8%로 가장 높다(표 II-6-4 참조). 이어서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40.4%), 당뇨병(20.5%), 요통 및 좌골신경통(19.9%), 골다공증(17.4%), 고지혈증(13.9%),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11.4%), 위·십이지장 궤양(11.1%), 백내장(10.9%) 등의 순서를 보인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고혈압이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나, 여성이 59.6%로 남성의 48.6%보다 유병률이 높다.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인 관절염의 유병률도 여성이 55.5%로 남성의 20.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외에 당뇨병, 요통 및 좌골신경통, 골다공증, 고지혈증,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위·십이지장 궤양, 백내장 등의 경우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뇌졸중, 만성기관지염 및 폐기종, 천식, 녹내장, 악성신생물, 간염, 간경변, 만성신부전증, 피부병 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표 II-6-4〉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만성질환의 본인인지 유병률 및 의사진단율

(단위: %)

특성	전체 <sup>1)</sup>		남자		여자	
	유병률	의사진단	유병률	의사진단	유병률	의사진단
고혈압	54.8	99.8	48.6	99.9	59.6	99.7
뇌졸중	7.3	99.1	8.9	98.8	6.2	99.4
고지혈증	13.9	99.4	10.9	99.4	16.3	99.4
협심증 심근경색증	11.4	99.4	11.2	100.0	11.6	98.9
당뇨병	20.5	99.2	19.1	99.7	21.5	98.8
갑상선 질환	2.5	99.6	0.8	100.0	3.9	99.5
골관절염 류머티즘관절염	40.4	92.5	20.5	88.8	55.5	93.6
골다공증	17.4	97.1	3.9	94.0	27.7	97.4
요통 좌골신경통	19.9	88.0	11.8	85.8	26.1	88.8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2.1	97.2	3.1	98.1	1.4	95.7
천식	4.5	93.2	5.1	90.4	3.9	95.9
폐결핵 결핵	0.5	98.5	0.5	100.0	0.5	97.4
백내장	10.9	96.8	7.9	96.6	13.1	96.9
녹내장	1.6	99.6	1.9	99.8	1.5	99.4
만성중이염	0.8	91.8	0.5	79.9	1.0	95.8
악성신생물(암)	3.5	98.0	4.8	97.8	2.5	98.2
위·십이지장궤양위염	11.1	96.6	8.9	98.2	12.7	95.8
간염	0.7	86.5	1.0	92.4	0.5	76.9
간경변	0.3	100.0	0.4	100.0	0.2	100.0
만성신부전증	1.2	98.9	1.4	97.7	1.1	100.0
전립선비대증	-	-	17.9	91.7	-	-
요실금	5.1	41.8	0.3	61.6	8.8	41.4
빈혈	3.4	74.9	1.8	76.1	4.7	74.5
피부병	2.8	92.8	3.3	90.8	2.5	94.7
우울증	3.8	79.9	2.0	83.7	5.2	78.7
골절 탈골 및 사고휴유증	4.2	94.4	3.0	96.8	5.0	93.3

주: 1) 본인응답자 전체 10,544명, 이 중 남자 4,548명, 여자 5,9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무응답 없음.

### 3. 의료이용

노인 중 처방약을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4.0%이다(표 II-6-5 참조).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2.0개이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88.7%)이 남성(77.7%)에 비해 처방약 복용률이 더 높다. 3개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도 여성은 38.7%로 남성의 24.6%보다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80~84세 연령군의 처방약 복용률이 90.3%로 가장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인 경우 처방약 복용률이 88.4%로 유배우의 81.9%보다 높은 편이다. 처방약을 3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도 무배우는 37.5%로 유배우의 30.3%보다 높다. 가구형태별 분포를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복용률이 89.0%로 노인부부(83.0%), 자녀동거(82.8%)에 비해 높다. 노인독거가구의 복용 처방약의 종류는 2.3개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처방약 복용률은 저학력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90.7%로 가장 높은 복용률을 보였으며, 전문대학 이상인 자는 77.7%로 가장 낮은 복용률을 보인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87.2%)가 취업자(77.6%)에 비해 높은 복용률을 보인다. 가구소득별 분포를 보면 소득이 낮은 자일수록 처방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제1오분위의 86.8%가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며, 3가지 이상의 종류를 복용하는 경우도 38.8%에 달한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 비해 처방약 복용률이 더 높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92.2%가 처방약을 복용한데 비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82.6%가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표 11-6-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의사 처방 복용 약의 복용실태

(단위: %, 명, 개)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전체 <sup>1)</sup>	16.0	24.4	27.0	32.6	100.0 (10,544)	2.0
지역						
동부	16.1	24.2	26.5	33.2	100.0 ( 7,150)	2.0
읍·면부	15.9	24.8	27.9	31.5	100.0 ( 3,394)	2.0
성						
남자	22.3	28.1	25.1	24.6	100.0 ( 4,548)	1.7
여자	11.3	21.6	28.4	38.7	100.0 ( 5,996)	2.2
연령						
65~69세	22.3	24.7	26.6	26.4	100.0 ( 3,150)	1.7
70~74세	14.9	24.8	26.9	33.4	100.0 ( 3,228)	2.1
75~79세	11.9	21.9	27.7	38.5	100.0 ( 2,390)	2.2
80~84세	9.7	27.5	27.0	35.9	100.0 ( 1,162)	2.2
85세 이상	17.8	24.6	26.0	31.6	100.0 ( 615)	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1	25.9	25.7	30.3	100.0 ( 7,121)	1.9
배우자 없음	11.6	21.3	29.6	37.5	100.0 ( 3,423)	2.2
가구형태						
노인독거	11.0	21.3	28.0	39.8	100.0 ( 2,086)	2.3
노인부부	17.0	25.7	26.8	30.5	100.0 ( 5,125)	1.9
자녀동거	17.2	24.2	26.5	32.1	100.0 ( 2,847)	2.0
기타	20.3	25.2	26.6	27.9	100.0 ( 487)	1.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3	22.2	30.7	37.8	100.0 ( 1,146)	2.3
무학(글자해독)	12.5	23.0	26.2	38.2	100.0 ( 2,184)	2.2
초등학교	16.3	23.1	27.2	33.4	100.0 ( 3,743)	2.0
중·고등학교	19.6	27.1	25.6	27.7	100.0 ( 2,737)	1.9
전문대학 이상	22.3	28.4	26.9	22.5	100.0 ( 734)	1.7
현취업상태						
취업중	22.4	28.0	26.1	23.5	100.0 ( 3,566)	1.7
미취업	12.8	22.6	27.4	37.3	100.0 ( 6,978)	2.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2	21.7	26.3	38.8	100.0 ( 2,113)	2.2
제2오분위	14.4	23.4	28.0	34.3	100.0 ( 2,120)	2.1
제3오분위	16.2	23.5	26.5	33.8	100.0 ( 2,101)	2.0
제4오분위	16.6	25.2	29.1	29.1	100.0 ( 2,115)	1.9
제5오분위	19.7	28.2	25.0	27.1	100.0 ( 2,095)	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4	25.8	27.2	29.6	100.0 ( 9,073)	1.9
제한 있음	7.8	15.9	25.2	51.2	100.0 ( 1,471)	2.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전체노인 중 56.1%가 최근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표 II-6-6 참조). 평균 방문횟수는 1.3회이었으며, 3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4.8%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보면 여성이 61.7%로 남성의 이용률(48.6%)보다 높다. 평균방문횟수가 여성은 1.6회, 남성은 1.0회이다. 3회 이상 방문한 비율도 여성이 18.4%로 남성의 10.1%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75~79세 군의 이용률이 60.8%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80~84세 군이 57.8%로 높다. 상대적으로 85세 이상의 이용률은 50.3%로 가장 낮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무배우자의 이용률이 60.1%로 유배우자의 54.1%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이용률이 62.8%, 평균 이용횟수는 1.6회로 가장 높다. 3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9.3%나 되었다. 자녀동거인 경우 이용률이 52.7%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용률은 무학(글자모름)이 60.5%로 가장 높고, 취업상태별로 보면 미취업자의 이용률이 58.3%로 취업자의 51.7%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제1오분위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률이 60.0%로 가장 높으며, 지난 2주간 의료기관을 3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6.7%에 달한다.

기능상태에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률도 차이를 보인다. 기능제한이 있는 군의 이용률이 58.9%로 기능제한이 없는 군의 55.6%에 비해 높다.

〈표 11-6-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2주간 의료기관<sup>1)</sup> 방문 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 (회)
전체 <sup>2)</sup>	43.9	29.5	11.8	14.8	100.0 (10,544)	1.3
지역						
동부	44.8	29.2	11.7	14.4	100.0 ( 7,150)	1.3
읍·면부	42.1	30.3	11.9	15.8	100.0 ( 3,394)	1.4
성						
남자	51.4	29.6	9.0	10.1	100.0 ( 4,548)	1.0
여자	38.3	29.5	13.8	18.4	100.0 ( 5,996)	1.6
연령						
65~69세	48.1	28.9	10.0	13.0	100.0 ( 3,150)	1.2
70~74세	42.8	29.9	11.9	15.4	100.0 ( 3,228)	1.4
75~79세	39.2	31.0	12.5	17.3	100.0 ( 2,390)	1.5
80~84세	42.2	29.7	12.9	15.2	100.0 ( 1,162)	1.4
85세 이상	49.7	24.8	14.7	10.8	100.0 ( 615)	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5.9	29.8	11.0	13.4	100.0 ( 7,121)	1.2
배우자 없음	39.9	29.1	13.2	17.8	100.0 ( 3,423)	1.5
가구형태						
노인독거	37.2	30.5	13.1	19.3	100.0 ( 2,086)	1.6
노인부부	44.8	31.0	10.9	13.3	100.0 ( 5,125)	1.2
자녀동거	47.3	26.2	12.5	14.1	100.0 ( 2,847)	1.3
기타	43.3	29.6	10.8	16.3	100.0 ( 487)	1.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9.5	28.1	13.8	18.7	100.0 ( 1,146)	1.6
무학(글자해독)	40.3	27.4	13.2	19.0	100.0 ( 2,184)	1.6
초등학교	41.4	30.7	12.3	15.5	100.0 ( 3,743)	1.4
중·고등학교	49.0	30.5	9.8	10.8	100.0 ( 2,737)	1.1
전문대학 이상	55.2	28.6	8.6	7.6	100.0 ( 734)	0.8
현취업상태						
취업중	48.3	28.7	10.7	12.4	100.0 ( 3,566)	1.2
미취업	41.7	30.0	12.3	16.0	100.0 ( 6,978)	1.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0	29.8	13.5	16.7	100.0 ( 2,113)	1.4
제2오분위	41.6	29.3	13.1	16.0	100.0 ( 2,120)	1.4
제3오분위	41.2	33.1	11.1	14.6	100.0 ( 2,101)	1.4
제4오분위	43.8	31.2	11.1	13.9	100.0 ( 2,115)	1.3
제5오분위	52.9	24.2	10.0	12.9	100.0 ( 2,095)	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44.4	29.7	11.6	14.4	100.0 ( 9,073)	1.3
제한 있음	41.1	28.8	12.9	17.2	100.0 ( 1,471)	1.6

주: 1) 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을 의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표 II-6-7〉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노인의 86.5%가 본인부담 보건의료비를 지출하였다. 월평균 지출액은 7만 4천(±17만 3천)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7만 5천원으로 읍면부(7만 3천원)에 거주하는 자보다 자기부담 의료비의 평균 지출액이 많다. 성별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률은 여성은 89.6%로 남성의 82.5%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70~74세 연령군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률이 88.4%이 가장 높다. 지출액은 65~69세 연령군의 월평균 본인부담 의료비가 8만 2천원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군은 5만 천원으로 가장 적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지출액이 더 많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본인부담 보건의료비 지출률이 87.9%로 가장 높다.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노인부부가구가 8만원으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본인부담 지출률이 무학(글자해독)과 초등학교에서 각각 87.5%, 87.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평균 지출비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대학 이상 군이 9만 2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률이 87.0%로 취업자의 85.6%보다 조금 더 높다. 지출액도 각각 8만 천원, 6만 2천원으로 더 많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제4오분위 88.6%, 제5오분위수 군의 지출률이 88.1%로 가장 높으며, 최저 제1오분위수 군의 지출률이 82.4%로 가장 낮다. 지출액은 제5오분위가 9만 천원으로 가장 많다.

기능상태별로는 본인부담 보건의료비 지출률이 기능제한이 있는 자의 87.2%, 기능제한이 없는 자의 86.4%로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출액은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11만 4천원이고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6만 8천원이다.

〈표 11-6-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1~2 만원	3~4 만원	5~8만 원	9만원 이상	계	(명)	평균 (만원)
전체 <sup>1)</sup>	13.5	27.2	18.5	19.0	21.8	100.0	(10,543)	7.4
지역								
동부	13.0	27.6	18.2	18.4	22.8	100.0	( 7,149)	7.5
읍·면부	14.4	26.4	19.0	20.3	19.8	100.0	( 3,394)	7.3
성								
남자	17.5	28.6	16.6	15.6	21.6	100.0	( 4,548)	7.7
여자	10.4	26.2	19.9	21.6	22	100.0	( 5,995)	7.2
연령								
65~69세	15.1	29.6	18.2	16	21.1	100.0	( 3,150)	8.2
70~74세	11.6	26.2	19	20.7	22.6	100.0	( 3,228)	7.5
75~79세	12.7	24.8	17.2	20.5	24.9	100.0	( 2,389)	7.6
80~84세	13.3	27.7	19.9	20.2	18.8	100.0	( 1,162)	6.3
85세 이상	18.2	29.3	19.7	17.5	15.3	100.0	( 615)	5.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3	27.4	17.9	18.6	22.8	100.0	( 7,120)	7.8
배우자 없음	13.8	26.8	19.8	19.9	19.8	100.0	( 3,423)	6.6
가구형태								
노인독거	15.9	25.5	19.5	19.6	19.6	100.0	( 2,086)	6.3
노인부부	12.8	27.1	18.4	19	22.8	100.0	( 5,124)	8.0
자녀동거	12.1	28.3	18.1	19	22.6	100.0	( 2,847)	7.7
기타	19.1	30.5	16.9	17	16.6	100.0	( 487)	5.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3	29.7	20.3	19.9	15.8	100.0	( 1,145)	5.6
무학(글자해독)	12.5	25.3	19.6	20.2	22.3	100.0	( 2,183)	6.6
초등학교	12.6	26	18.6	21.2	21.7	100.0	( 3,743)	7.4
중·고등학교	14	29.9	16.3	16.3	23.4	100.0	( 2,737)	8.4
전문대학 이상	17.5	25.5	19.9	12.6	24.5	100.0	( 734)	9.2
현취업상태								
취업중	14.4	30.8	19.5	17.5	17.8	100.0	( 3,566)	6.2
미취업	13	25.4	18	19.8	23.9	100.0	( 6,976)	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6	28.2	17.7	20.9	15.6	100.0	( 2,112)	4.7
제2오분위	13.1	25.6	18.5	22.3	20.6	100.0	( 2,120)	6.4
제3오분위	13.4	25.5	19.1	18.4	23.7	100.0	( 2,100)	8.7
제4오분위	11.4	26.9	19.4	17.9	24.5	100.0	( 2,115)	8.4
제5오분위	11.9	30	17.8	15.6	24.7	100.0	( 2,095)	9.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6	28.5	18.9	18.8	20.3	100.0	( 9,073)	6.8
제한 있음	12.8	19.6	16.0	20.6	31.2	100.0	( 1,470)	1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지난 1년간 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은 7.8%이며, 이용자의 연간 서비스 이용횟수는 6.6회이다(표 II-6-8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이용률이 9.8%로 동부(6.8%)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성의 서비스 이용률이 9.6%로 남성의 5.4%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중 65~69세 연령군의 이용률이 3.6%로 가장 낮았고, 85세 이상 연령군의 이용률이 14.4%로 가장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서비스 이용률이 13.1%로 무배우자의 5.2%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에 따른 이용률을 보면 노인독거가구가 15.7%로 가장 높으며, 이는 노인부부가구 또는 자녀동거가구의 5.6%에 비해 약 3배 높은 이용률이다.

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이 15.6%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는 1.6%로 매우 낮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포를 보면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제1오분위의 이용률이 16.0%로 가장 높다.

기능상태별로도 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다. 기능제한이 있는 군의 14.2%가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기능제한이 없는 군의 6.8%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용수준이다. 연간 평균 이용횟수는 기능제한이 있는 군의 경우 7.1회로 기능제한이 없는 군의 6.5회보다 많다.



〈표 11-6-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률 및 이용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률 <sup>1)</sup>	서비스 이용횟수					평균 (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전체 <sup>1)</sup>	7.8	17.9	18.8	63.3	100.0	( 819)	6.6
지역							
동부	6.8	17.1	14.9	68.0	100.0	( 486)	6.9
읍·면부	9.8	19.1	24.5	56.5	100.0	( 333)	6.3
성							
남자	5.4	19.4	22.4	58.3	100.0	( 245)	6.4
여자	9.6	17.3	17.3	65.5	100.0	( 574)	6.7
연령							
65~69세	3.6	21.4	19.2	59.4	100.0	( 113)	5.1
70~74세	6.6	18.2	22.1	59.8	100.0	( 213)	6.1
75~79세	11.4	18.4	19.0	62.6	100.0	( 271)	7.2
80~84세	11.5	15.7	13.2	71.1	100.0	( 134)	7.6
85세 이상	14.4	14.7	18.2	67.1	100.0	( 89)	6.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2	20.0	19.6	60.4	100.0	( 371)	5.9
배우자 없음	13.1	16.2	18.2	65.7	100.0	( 448)	7.3
가구형태							
노인독거	15.7	16.9	15.4	67.8	100.0	( 327)	7.7
노인부부	5.6	20.4	18.9	60.7	100.0	( 284)	5.9
자녀동거	5.6	14.8	25.5	59.7	100.0	( 157)	6.2
기타	10.4	20.6	19.6	59.9	100.0	( 51)	5.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6	18.7	22.3	59.0	100.0	( 178)	7.6
무학(글자해독)	10.8	17.6	15.5	66.9	100.0	( 234)	6.4
초등학교	7.4	19.1	18.6	62.3	100.0	( 277)	6.5
중·고등학교	4.3	11.6	21.0	67.5	100.0	( 119)	6.2
전문대학 이상	1.6	46.8	14.8	38.4	100.0	( 12)	4.8
현취업상태							
취업중	5.4	22.2	24.2	53.6	100.0	( 194)	6.0
미취업	9.0	16.6	17.1	66.3	100.0	( 626)	6.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0	18.9	14.2	66.9	100.0	( 337)	7.4
제2오분위	9.5	14.5	21.1	64.4	100.0	( 201)	6.9
제3오분위	5.9	16.4	20.3	63.3	100.0	( 123)	6.0
제4오분위	4.5	22.2	20.7	57.2	100.0	( 94)	5.3
제5오분위	3.1	19.7	30.2	50.1	100.0	( 65)	5.3
기능상태							
제한 없음	6.8	17.2	18.7	64.0	100.0	( 612)	6.5
제한 있음	14.2	19.9	19.0	61.2	100.0	( 207)	7.1

주: 1) 이용률은 본인응답자 중 서비스 이용횟수는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19명을 대상으로 함.

지난 1년간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12.6%이다(표 II-6-9 참조). 프로그램 참여 장소별로는 보건소(보건지소)가 59.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로당(20.7%), 노인복지관(13.2%), 병원(3.8%)의 순서를 보인다. 시군구청, 종교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거주지역별로 프로그램 참여율을 보면 읍면부 거주자가 17.6%로 동부의 10.2%에 비해 높다. 장소별로는 보건(지)소가 읍면부인 경우 70.6%, 동부의 경우 50.7%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율이 14.1%로 남성의 10.5%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80~84세 연령군의 참여율이 16.1%로 가장 높으며, 65~69세 연령군의 참여율은 8.9%에 불과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14.4%, 유배우자의 11.7%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무배우자가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참여율이 15.2%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글자해독)의 참여율(15.7%)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대학 이상 군의 참여율(5.4%)이 가장 낮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건(지)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의 경우 시군구청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자의 참여율이 취업자의 참여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구소득별 참여율은 제2오분위가 14.3%로 가장 높고, 제4오분위가 10.2%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자의 참여율이 기능제한이 없는 자에 비해 더 높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는 9.8%이며,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13.0%이다.

〈표 11-6-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및 참여장소

(단위: %, 명)

특성	참여율	프로그램 참여 장소							계 (명)
		보건(지)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병원	시군구청	종교시설	기타	
전체 <sup>1)</sup>	12.6	59.7	20.7	13.2	3.8	0.7	0.2	1.8	100.0 ( 1,323)
지역									
동부	10.2	50.7	20.0	20.3	5.3	2.3	1.1	0.4	100.0 ( 727)
읍·면부	17.6	70.6	21.5	4.6	1.9	1.1	0.3	0.0	100.0 ( 596)
성									
남자	10.5	59.3	22.6	11.0	4.4	1.2	0.0	1.6	100.0 ( 478)
여자	14.1	59.9	19.6	14.5	3.5	0.5	0.3	1.9	100.0 ( 846)
연령									
65~69세	8.9	65.0	14.4	12.0	6.4	0.0	0.0	2.2	100.0 ( 281)
70~74세	13.3	60.8	18.8	14.2	2.2	1.4	0.5	2.1	100.0 ( 428)
75~79세	15.1	55.9	24.6	14.7	2.6	0.4	0.0	1.9	100.0 ( 360)
80~84세	16.1	52.7	26.4	11.7	6.8	1.2	0.3	0.8	100.0 ( 187)
85세 이상	10.8	69.6	21.7	7.8	0.9	0.0	0.0	0.0	100.0 ( 6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7	60.2	21.3	12.3	3.4	1.0	0.0	1.9	100.0 ( 830)
배우자 없음	14.4	58.8	19.6	14.8	4.4	0.2	0.6	1.6	100.0 ( 494)
가구형태									
노인독거	15.2	62.3	16.5	15.5	3.5	0.1	0.7	1.4	100.0 ( 317)
노인부부	12.4	63.5	17.7	11.5	3.5	1.4	0.0	2.4	100.0 ( 636)
자녀동거	12.1	50.1	30.2	13.8	4.8	0.2	0.0	0.9	100.0 ( 343)
기타	5.7	60.0	17.8	19.9	0.0	0.0	2.3	0.0	100.0 ( 2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6	71.5	20.1	7.4	0.2	0.0	0.4	0.4	100.0 ( 167)
무학(글자해독)	15.7	61.4	24.1	11.0	1.3	0.2	0.0	2.1	100.0 ( 343)
초등학교	12.5	58.5	20.0	12.8	4.8	1.3	0.5	2.2	100.0 ( 469)
중·고등학교	11.1	55.5	19.0	17.8	5.7	0.4	0.0	1.7	100.0 ( 304)
전문대학 이상	5.4	41.2	14.7	27.4	13.0	3.8	0.0	0.0	100.0 ( 40)
현취업상태									
취업중	14.8	62.5	22.6	10.1	2.4	0.8	0.4	1.3	100.0 ( 526)
미취업	11.4	57.8	19.4	15.3	4.7	0.7	0.1	2.0	100.0 ( 7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4	67.0	16.4	12.1	2.9	0.1	0.7	0.7	100.0 ( 283)
제2오분위	14.3	63.6	16.9	12.7	1.4	1.0	0.0	4.5	100.0 ( 304)
제3오분위	12.5	62.9	21.2	11.3	3.4	0.5	0.0	0.6	100.0 ( 263)
제4오분위	10.2	53.8	22.7	14.7	5.7	1.9	0.0	1.3	100.0 ( 215)
제5오분위	12.3	48.6	27.5	15.7	6.3	0.5	0.3	1.2	100.0 ( 25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0	59.0	20.5	13.7	4.0	1.9	0.8	0.2	100.0 ( 1,179)
제한 있음	9.8	65.2	22.4	9.1	1.9	0.9	0.5	0.0	100.0 ( 144)

주: 1) 참여율은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장소는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23명을 대상으로 함.

#### 4. 낙상

〈표 II-6-10〉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21.0%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다. 이중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72.4%이고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현재 47.4%가 앓고 있다. 지역별로는 낙상률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나, 병원이용률이 동부가 읍면부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높으며, 낙상 후유증 경험률은 더 낮다. 성별로는 여성의 낙상률이 25.9%로 남성의 14.6%보다 높으며, 후유증도 여성의 54.0%가 경험하여 남성의 31.9%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의료이용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무배우자의 낙상률이 26.5%로 유배우자의 18.3%보다 높다. 가구형태별 낙상률은 노인독거가구가 26.8%로 가장 높으나, 노인부부가구는 17.9%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낙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의 낙상률이 28.0%로 가장 높다. 낙상에 따른 병원이용률도 무학(글자모름)이 가장 낮으며, 후유증의 비율도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의 낙상률이 23.3%로 취업자의 16.4%보다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낙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 높은 낙상률을 보인다. 의료이용률과 후유증도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II-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단위: %, 명)

특성	낙상률 <sup>1)</sup>	낙상 치료 및 후유증 <sup>2)</sup>	
		병원 이용률	낙상후유증 경험률
전체	21.0	72.4	47.4
지역			
동부	21.0	73.0	46.1
읍·면부	20.9	71.3	50.0
성			
남자	14.6	68.1	31.9
여자	25.9	74.2	54.0
연령			
65~69세	16.7	74.3	47.1
70~74세	20.2	70.3	45.3
75~79세	25.1	72.1	47.4
80~84세	23.8	77.3	54.0
85세 이상	26.1	67.2	45.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3	72.0	44.1
배우자 없음	26.5	73.0	52.1
가구형태			
노인독거	26.8	72.0	52.9
노인부부	17.9	71.3	44.2
자녀동거	22.5	74.9	47.3
기타	19.6	68.1	46.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8.0	69.6	53.0
무학(글자해독)	26.0	75.1	49.5
초등학교	21.1	73.1	50.4
중·고등학교	16.0	70.1	38.3
전문대학 이상	13.3	70.0	32.2
현취업상태			
취업중	16.4	72.2	46.0
미취업	23.3	72.4	47.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5	71.3	51.6
제2오분위	20.3	67.2	47.5
제3오분위	20.7	71.7	46.3
제4오분위	20.2	78.1	46.5
제5오분위	17.3	74.2	42.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4	72.0	45.9
제한 있음	33.6	74.1	52.5
2008년도	17.2	-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본인응답자 중 낙상경험이 있는 2,4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1명을 제외함.

〈표 II-6-11〉에 의하면 낙상을 경험한 장소는 도로 또는 공원 등 실외가 56.0%로 가장 많았고, 계단(12.1%), 화장실/욕실(9.0%), 방(6.9%), 거실/마루(6.7%), 상가 등 외부 시설물(4.9%), 부엌(1.2%) 등의 순서를 보인다. 낙상 이유는 바닥이 미끄러워서가 29.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24.1%), 다리를 접질러서(16.1%), 갑자기 어지러워서(11.1%),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8.2%),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5.7%), 경사가 급해서(3.4%), 조명이 어두워서(0.8%)의 순서를 보인다(표 II-6-12 참조).

〈표 II-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 장소

(단위: %, 명)		
구분	비율 <sup>1)</sup>	(명)
화장실/욕실	9.0	(141)
방	6.9	(108)
부엌	1.2	( 19)
거실/마루	6.7	(106)
계단	12.1	(190)
도로 또는 공원 등 실외	56.0	(881)
상가 등 외부 시설물	4.9	( 78)
기타	3.2	( 50)
계	100.0	(157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낙상경험이 있는 응답자 1,603명을 대상으로 함.

〈표 II-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sup>1)</sup>	(명)
바닥이 미끄러워서	29.8	(477)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5.7	( 91)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	8.2	(131)
경사가 급해서	3.4	( 55)
조명이 어두워서	0.8	( 12)
다리를 접질러서	16.1	(258)
갑자기 어지러워서	11.1	(178)
다리에 힘이 풀려서	24.1	(386)
기타	0.9	( 14)
계	100.0	(160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낙상경험이 있는 응답자 1,603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의 75.7%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6-13 참조).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2.4%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자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 여성의 41.7%가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남성은 20.1%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90.6%가 낙상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51.9%나 되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무배우자의 88.3%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 반면 유배우자는 69.7%이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독거노인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다(87.5%). 독거노인의 43.5%는 낙상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일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91.0%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두려움을 많이 보고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 호소율이 제1오분위의 경우 86.3%인데 비해 제5분위의 경우는 66.4%로 큰 차이를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93.3%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여,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72.9%보다 두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

〈표 II-6-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단위: %, 명)

특성	많이 두려워함	약간 두려워함	전혀 두려워하지않음	계	(명)
전체 <sup>1)</sup>	32.4	43.3	24.3	100.0	(10,527)
지역					
동부	30.6	43.3	26.1	100.0	( 7,136)
읍·면부	36.1	43.4	20.5	100.0	( 3,392)
성					
남자	20.1	40.1	39.9	100.0	( 4,540)
여자	41.7	45.8	12.5	100.0	( 5,987)
연령					
65~69세	22.1	42.5	35.4	100.0	( 3,143)
70~74세	29.8	45.5	24.7	100.0	( 3,225)
75~79세	36.6	44.8	18.6	100.0	( 2,385)
80~84세	48.4	38.9	12.7	100.0	( 1,160)
85세 이상	51.9	38.7	9.4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4	43.3	30.3	100.0	( 7,108)
배우자 없음	44.9	43.4	11.8	100.0	(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43.5	44.0	12.5	100.0	( 2,085)
노인부부	27.1	43.9	29.0	100.0	( 5,120)
자녀동거	34.9	41.2	23.9	100.0	( 2,836)
기타	25.7	47.2	27.2	100.0	( 48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6	44.4	9.0	100.0	( 1,144)
무학(글자해독)	41.7	44.3	14.0	100.0	( 2,178)
초등학교	33.0	45.0	22.0	100.0	( 3,738)
중·고등학교	22.4	41.6	36.0	100.0	( 2,735)
전문대학 이상	16.8	36.6	46.6	100.0	( 733)
현취업상태					
취업중	22.8	44.7	32.5	100.0	( 3,562)
미취업	37.3	42.7	20.1	100.0	( 6,96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2.6	43.7	13.7	100.0	( 2,112)
제2오분위	33.9	45.3	20.7	100.0	( 2,116)
제3오분위	30.2	43.7	26.1	100.0	( 2,095)
제4오분위	29.2	43.4	27.4	100.0	( 2,112)
제5오분위	26.0	40.4	33.6	100.0	( 2,09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1	44.8	27.1	100.0	( 9,061)
제한 있음	58.9	34.4	6.7	100.0	( 1,467)
2008년도	16.5	54.9	28.5	100.0	(10,7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7명을 제외함.



## 5. 우울증상

우울증 척도를 통하여 0~15점으로 측정한 결과 8점~15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울증으로 정의했을 때, 노인의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었다(표 II-6-14).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축약형(15문항)의 평균 점수는 4.9점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지역 거주자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30.1%로 동부 지역 거주자의 28.7%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성(33.6%)이 남성(23.3%)에 비해 우울증상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울증상률이 65~69세 연령군에서 19.1%인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3.0%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우울증상률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우울증상률이 41.2%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의 우울증상률은 23.7%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 우울증상의 분포를 보면 저학력일수록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48.4%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는 9.6%로 우울증상률이 가장 낮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자의 34.0%가 우울증상을 보여 취업자의 19.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소득 최저 제1오분위수 군의 우울증상률은 47.1%로 가장 높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이 더 많았다. 기능제한이 있는 자의 57.4%가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이 있는데 비해 기능제한이 없는 자는 24.6%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우울증상

(단위: %, 점, 명)

특성	유병률 <sup>2)</sup>	우울정도(평균점수)	계 (명)
전체 <sup>1)</sup>	29.2	4.9	100.0 (10,540)
지역			
동부	28.7	4.9	100.0 ( 6,742)
읍·면부	30.1	5.1	100.0 ( 4,157)
성			
남자	23.3	4.2	100.0 ( 4,547)
여자	33.6	5.5	100.0 ( 5,993)
연령			
65~69세	19.1	3.8	100.0 ( 3,150)
70~74세	27.7	4.8	100.0 ( 3,228)
75~79세	35.7	5.7	100.0 ( 2,389)
80~84세	39.9	6.2	100.0 ( 1,160)
85세 이상	43.0	6.5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2	4.4	100.0 ( 7,120)
배우자 없음	39.6	6.1	100.0 (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41.2	6.3	100.0 ( 2,086)
노인부부	23.7	4.3	100.0 ( 5,125)
자녀동거	29.8	5.0	100.0 ( 2,843)
기타	32.2	5.6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8.4	7.1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38.0	6.1	100.0 ( 2,183)
초등학교	27.9	4.8	100.0 ( 3,743)
중·고등학교	21.1	3.9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9.6	2.5	100.0 ( 734)
현취업상태			
취업중	19.7	3.8	100.0 ( 3,566)
미취업	34.0	5.5	100.0 ( 6,9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1	7.0	100.0 ( 2,112)
제2오분위	35.0	5.7	100.0 ( 2,120)
제3오분위	24.7	4.5	100.0 ( 2,100)
제4오분위	21.7	4.1	100.0 ( 2,114)
제5오분위	17.2	3.4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6	4.4	100.0 ( 9,325)
제한 있음	57.4	8.3	100.0 ( 1,574)
2008년도	30.8	5.3	100.0 (10,64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2) 우울증 척도에서 0~15점 중 8점~15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울증으로 봄.

## 제2절 건강행태

### 1. 흡연상태

〈표 II-6-15〉에 의하면 노인의 12.6%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과거흡연자는 25.9%, 비흡연자는 61.5%이다. 지역별로는 흡연율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24.7%가 현재 흡연자인데 비해 여성은 3.4%만이 현재 흡연자이다.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남성이 20.7%, 여성은 92.5%이다. 연령별 흡연율 분포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비흡연율이 65.0%로 가장 높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의 흡연율이 14.7%로 무배우자의 8.0%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흡연율이 8.9%로 가장 낮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현재흡연율과 과거흡연율이 각각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흡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무학(글자모름)이 80.2%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포에서는 취업자의 현재흡연율이 15.8%로 미취업자의 10.9%보다 높다. 가구소득별 흡연율을 보면 최저소득군인 경우 비흡연율이 가장 높다. 현재 흡연율은 제5오분위에서 가장 낮으며, 제4오분위에서 가장 높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현재 흡연율이 12.9%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10.3%보다 높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중 흡연을 하지 않는 비율은 67.6%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60.5%보다 높다.

〈표 II-6-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단위: %, 명)

특성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계	(명)
전체 <sup>1)</sup>	12.6	25.9	61.5	100.0	(10,544)
지역					
동부	12.2	26.2	61.5	100.0	( 7,150)
읍·면부	13.2	25.3	61.5	100.0	( 3,394)
성					
남자	24.7	54.7	20.7	100.0	( 4,548)
여자	3.4	4.2	92.5	100.0	( 5,996)
연령					
65~69세	15.3	25.8	58.9	100.0	( 3,150)
70~74세	12.0	26.1	61.9	100.0	( 3,228)
75~79세	12.3	25.7	62.0	100.0	( 2,390)
80~84세	8.7	26.8	64.5	100.0	( 1,162)
85세 이상	9.6	25.5	65.0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7	33.2	52.0	100.0	( 7,121)
배우자 없음	8.0	10.8	81.2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8.9	11.5	79.6	100.0	( 2,086)
노인부부	14.6	32.1	53.4	100.0	( 5,125)
자녀동거	11.5	24.9	63.7	100.0	( 2,847)
기타	13.6	29.4	57.0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7	12.0	80.2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9.3	16.4	74.4	100.0	( 2,184)
초등학교	11.7	24.3	64.0	100.0	( 3,743)
중·고등학교	17.8	37.3	44.9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4.7	42.1	43.2	100.0	( 734)
현취업상태					
취업중	15.8	30.2	54.0	100.0	( 3,566)
미취업	10.9	23.8	65.3	100.0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8	16.2	70.9	100.0	( 2,113)
제2오분위	12.4	26.2	61.4	100.0	( 2,120)
제3오분위	12.3	29.9	57.8	100.0	( 2,101)
제4오분위	13.5	29.0	57.5	100.0	( 2,115)
제5오분위	11.6	28.5	59.9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9	26.6	60.5	100.0	( 9,073)
제한 있음	10.3	22.2	67.6	100.0	( 1,471)
2008년도	13.6	18.8	67.6	100.0	(10,7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 2. 음주상태

현재 음주자는 노인의 33.8%이며, 이중 적정음주자(1주일에 7잔 이하)는 20.4%, 과음주자는 13.4%이다(표 II-6-16 참조). 지역별로는 과음주율이 읍·면부 지역이 15.6%로 동부 지역의 12.4%에 비해 높다. 성별 음주율은 남성이 53.6%로 여성(18.8%)에 비해 높다. 남성의 24.8%는 적정음주자, 28.8%는 과음주자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과음주율도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음주율이 39.0%로 무배우자의 23.0%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음주율이 23.8%로 가장 낮았다. 과음주율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7.9%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일수록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음주율도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각각 20.0%, 19.9%로 가장 높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자의 음주율이 43.7%로 미취업자의 28.8%보다 높다. 가구소득별 음주율은 고소득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제5오분위의 음주율이 39.8%로 가장 높으며, 과음주율은 제4오분위에서 18.1%로 가장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군이 상대적으로 과음주율이 높다. 과음주율 또한 기능제한이 없는 군이 14.7%로 기능제한이 있는 군의 5.7%보다 높다.

〈표 II-6-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음주 정도

(단위: %, 명)

특성	비음주	적정음주 <sup>2)</sup>	과음주 <sup>3)</sup>	계	(명)
전체 <sup>1)</sup>	66.2	20.4	13.4	100.0	(10,543)
지역					
동부	66.2	21.4	12.4	100.0	( 7,150)
읍·면부	66.1	18.4	15.6	100.0	( 3,394)
성					
남자	46.4	24.8	28.8	100.0	( 4,547)
여자	81.2	17.1	1.7	100.0	( 5,996)
연령					
65~69세	57.5	24.1	18.4	100.0	( 3,149)
70~74세	64.5	21.7	13.8	100.0	( 3,228)
75~79세	71.5	17.2	11.3	100.0	( 2,390)
80~84세	75.8	16.8	7.4	100.0	( 1,162)
85세 이상	80.6	13.9	5.5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0	21.7	17.3	100.0	( 7,120)
배우자 없음	77.0	17.7	5.3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76.2	17.3	6.6	100.0	( 2,086)
노인부부	62.2	19.9	17.9	100.0	( 5,124)
자녀동거	67.0	23.1	9.9	100.0	( 2,847)
기타	61.0	23.7	15.3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6.6	17.9	5.5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73.4	19.3	7.3	100.0	( 2,184)
초등학교	68.4	18.4	13.3	100.0	( 3,743)
중·고등학교	55.7	24.2	20.0	100.0	( 2,736)
전문대학 이상	56.1	23.9	19.9	100.0	( 734)
현취업상태					
취업중	56.3	23.0	20.7	100.0	( 3,565)
미취업	71.2	19.1	9.7	100.0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3.2	18.2	8.6	100.0	( 2,113)
제2오분위	68.1	19.7	12.2	100.0	( 2,120)
제3오분위	67.5	17.5	15.1	100.0	( 2,101)
제4오분위	61.9	20.0	18.1	100.0	( 2,114)
제5오분위	60.2	26.7	13.1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63.8	21.6	14.7	100.0	( 9,073)
제한 있음	80.9	13.4	5.7	100.0	( 1,4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임.

3) 과음주는 일주일에 7잔을 초과한 경우임.

### 3. 영양상태

〈표 II-6-17〉에 의하면 노인의 30.5%가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거주자가 읍·면부 지역거주자에 비해 영양관리에 문제가 더 많다. 성별로는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여성이 36.6%로 남성의 22.5%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영양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9.5%가 영양관리에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51.6%가 영양관리상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유배우자의 20.4%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61.2%가 영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노인부부가구는 19.4%로 영양관리상태의 문제가 있는 비율이 가장 낮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일수록 영양상태의 위험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48.1%가 영양위험이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의 35.1%가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자(21.6%)보다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영양관리의 문제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영양관리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능제한이 있는 자의 51.8%, 기능제한이 없는 자의 27.1%가 영양상태의 위험이 높다.

〈표 II-6-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영양관리 상태

(단위: %, 명, 점)

특성	양호 (0-2점)	영양관리주의요구 (3-5점)	영양관리개선필요 (6점이상)	계	(명)	평균 (점)
전체 <sup>1)</sup>	69.5	28.7	1.9	100.0	(10,544)	1.9
지역						
동부	68.3	29.5	2.2	100.0	( 7,150)	1.9
읍·면부	71.9	26.9	1.2	100.0	( 3,394)	1.8
성						
남자	77.5	21.3	1.2	100.0	( 4,548)	1.6
여자	63.4	34.3	2.4	100.0	( 5,996)	2.1
연령						
65~69세	78.3	20.4	1.3	100.0	( 3,150)	1.5
70~74세	70.8	27.3	1.9	100.0	( 3,228)	1.8
75~79세	63.9	33.6	2.4	100.0	( 2,390)	2.1
80~84세	58.1	39.5	2.5	100.0	( 1,162)	2.4
85세 이상	60.5	38.2	1.3	100.0	( 615)	2.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9.6	19.7	0.7	100.0	( 7,121)	1.5
배우자 없음	48.4	47.3	4.3	100.0	( 3,423)	2.7
가구형태						
노인독거	38.8	55.4	5.9	100.0	( 2,086)	3.0
노인부부	80.6	18.6	0.8	100.0	( 5,125)	1.5
자녀동거	72.3	26.8	0.9	100.0	( 2,847)	1.7
기타	67.1	30.6	2.3	100.0	( 487)	1.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1.9	44.7	3.4	100.0	( 1,146)	2.5
무학(글자해독)	61.2	35.9	2.9	100.0	( 2,184)	2.2
초등학교	72.8	25.7	1.6	100.0	( 3,743)	1.8
중·고등학교	74.4	24.4	1.2	100.0	( 2,737)	1.7
전문대학 이상	86.5	13.3	0.3	100.0	( 734)	1.2
현취업상태						
취업중	78.4	20.7	0.9	100.0	( 3,566)	1.6
미취업	64.9	32.7	2.4	100.0	( 6,978)	2.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9	48.6	5.5	100.0	( 2,113)	2.8
제2오분위	68.1	29.8	2.2	100.0	( 2,120)	2.0
제3오분위	73.1	26.1	0.9	100.0	( 2,101)	1.8
제4오분위	77.0	22.7	0.3	100.0	( 2,115)	1.6
제5오분위	83.5	16.0	0.5	100.0	( 2,095)	1.3
기능상태						
제한 없음	72.9	25.7	1.3	100.0	( 9,073)	1.8
제한 있음	48.2	46.6	5.2	100.0	( 1,471)	2.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 4. 운동실천

노인의 50.3%가 현재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39.1%이다(표 II-6-18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 지역거주자의 36.7%가 운동을 하고 있어 동부 지역거주자의 56.8%보다 낮은 실천율을 보인다. 성별 운동실천율에서는 여성(44.5%)이 남성(58.0%)에 비해 낮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운동실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권장운동량도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22.3%로 가장 낮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운동실천율이 45.1%로 유배우자의 52.9%보다 낮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실천율이 46.6%로 낮은 편이며, 노인부부가구는 53.1%로 가장 높은 실천율을 보인다. 권장수준 운동량도 노인독거가구가 33.7%로 가장 낮은 데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42.3%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 운동실천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 모름)의 경우 운동실천율은 33.5%로 가장 낮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자의 운동실천율이 42.2%로 미취업자의 54.5%보다 높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43.9%만이 운동을 하는데 비해 제5오분위는 61.5%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운동실천율이 낮았다. 권장수준 운동량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18.5%로 제한 없는 자의 42.4%보다 낮았다.

주로 운동하는 장소로는 공원, 공원의 운동시설, 학교운동장, 약수터, 공터, 산이 4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집근처가 35.1%로 많다. 사설 운동시설(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을 이용하는 노인은 4.0%에 불과하다(표 II-6-19 참조).

〈표 II-6-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단위: %, 명)

특성	운동실천율 <sup>1)</sup>	운동정도			계 (명)
		비활동	권장수준 미달	권장수준 <sup>2)</sup>	
전체 <sup>2)</sup>	50.3	49.7	11.3	39.1	100.0 (10,544)
지역					
동부	56.8	43.2	11.9	44.9	100.0 ( 7,148)
읍·면부	36.7	63.3	10.0	26.8	100.0 ( 3,394)
성					
남자	58.0	42.0	10.1	47.8	100.0 ( 4,548)
여자	44.5	55.5	12.1	32.4	100.0 ( 5,996)
연령					
65~69세	56.0	44.0	11.3	44.7	100.0 ( 3,150)
70~74세	54.3	45.7	11.5	42.7	100.0 ( 3,228)
75~79세	47.3	52.7	11.8	35.5	100.0 ( 2,390)
80~84세	39.5	60.5	9.7	29.9	100.0 ( 1,162)
85세 이상	33.0	67.1	10.7	22.3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2.9	47.1	10.5	42.4	100.0 ( 7,121)
배우자 없음	45.1	55.0	12.9	32.1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46.6	53.4	12.9	33.7	100.0 ( 2,086)
노인부부	53.1	46.9	10.8	42.3	100.0 ( 5,125)
자녀동거	48.8	51.2	11.0	37.8	100.0 ( 2,847)
기타	46.3	53.7	11.1	35.3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3.5	66.5	11.0	22.5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38.3	61.7	12.0	26.2	100.0 ( 2,184)
초등학교	48.7	51.4	10.3	38.4	100.0 ( 3,743)
중·고등학교	62.2	37.8	12.0	50.2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76.7	23.3	11.8	64.9	100.0 ( 734)
현취업상태					
취업중	42.2	57.8	10.5	31.7	100.0 ( 3,566)
미취업	54.5	45.5	11.7	42.8	100.0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9	56.1	12.6	31.3	100.0 ( 2,113)
제2오분위	45.5	54.5	11.4	34.1	100.0 ( 2,120)
제3오분위	49.5	50.5	10.5	39.1	100.0 ( 2,101)
제4오분위	51.3	48.7	9.6	41.6	100.0 ( 2,115)
제5오분위	61.5	38.5	12.2	49.3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4.0	46.1	11.6	42.4	100.0 ( 9,072)
제한 있음	27.9	72.1	9.4	18.5	100.0 ( 1,47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표 II-6-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수행 장소

(단위: %, 명)

구분	비율 <sup>1)</sup>	(명)
공원, 공원의 운동시설, 학교운동장, 약수터, 공터, 산	49.3	(2,611)
시설 운동시설(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	4.0	( 214)
각종 복지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2.6	( 137)
경로당	1.1	( 60)
보건(지)소	0.1	( 5)
공설 운동시설(주민센터, 구립체육센터 등)	3.1	( 165)
민간 비영리시설(YMCA, YWCA, 교회 등)	0.3	( 16)
집근처	35.1	(1,862)
기타	1.0	( 54)
집	3.3	( 174)
계	100.0	(5,2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운동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5,299명을 대상으로 함.

## 5. 수면시간

노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45.2%이다(표 II-6-20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거주자의 적정수면율이 44.2%로 읍면부 지역거주자의 47.3%에 비해 낮다.

성별로는 적정수면율이 여성이 42.7%로 남성의 48.5%에 비해 낮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수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적정수면율이 65~69세 연령군에서는 48.7%이었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1.2%이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무배우자의 적정수면율이 유배우자에 비해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적정수면율이 40.6%로 가장 낮으며, 노인부부가구는 48.6%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저학력일수록 적정수면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40.3%의 가장 낮은 적정수면율을 보인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자의 적정수면율이 43.3%로 취업자의 48.9%에 비해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적정수면율이 저소득 가구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 최저 제1오분위수의 적정수면율은 42.6%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적정수면율이 제한이 없는 자에 비해 낮다. 기능제한을 지닌 노인의 경우 적정수면율이 41.7%,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45.8%이다.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해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17.1%로 제한이 없는 자의 8.7%보다 높다.

〈표 11-6-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일 평균 수면시간

(단위: %, 명, 시간)

특성	6시간 이하	6시간 초과 8시간 이하 <sup>2)</sup>	8시간 초과	계 (명)	평균 (시간)
전체 <sup>1)</sup>	44.9	45.2	9.9	100.0 (10,544)	6.7
지역					
동부	46.4	44.2	9.4	100.0 ( 7,150)	6.7
읍·면부	41.9	47.3	10.8	100.0 ( 3,394)	6.8
성					
남자	39.0	48.5	12.5	100.0 ( 4,548)	7.0
여자	49.5	42.7	7.8	100.0 ( 5,996)	6.6
연령					
65~69세	43.1	48.7	8.3	100.0 ( 3,150)	6.8
70~74세	46.3	44.8	8.9	100.0 ( 3,228)	6.7
75~79세	46.3	43.2	10.5	100.0 ( 2,390)	6.7
80~84세	45.4	43.2	11.4	100.0 ( 1,162)	6.8
85세 이상	41.0	41.2	17.9	100.0 ( 615)	7.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2.6	47.2	10.2	100.0 ( 7,121)	6.8
배우자 없음	49.9	41.1	9.0	100.0 ( 3,423)	6.6
가구형태					
노인독거	51.9	40.6	7.6	100.0 ( 2,086)	6.5
노인부부	40.9	48.6	10.5	100.0 ( 5,125)	6.9
자녀동거	46.5	42.8	10.7	100.0 ( 2,847)	6.7
기타	48.8	43.8	7.4	100.0 ( 487)	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8	40.3	12.9	100.0 ( 1,146)	6.7
무학(글자해독)	45.3	44.0	10.7	100.0 ( 2,184)	6.7
초등학교	44.7	45.6	9.7	100.0 ( 3,743)	6.7
중·고등학교	44.0	46.5	9.5	100.0 ( 2,737)	6.8
전문대학 이상	45.1	50.0	5.0	100.0 ( 734)	6.7
현취업상태					
취업중	42.3	48.9	8.8	100.0 ( 3,566)	6.8
미취업	46.3	43.3	10.4	100.0 ( 6,978)	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2	42.6	9.2	100.0 ( 2,113)	6.6
제2오분위	44.2	45.0	10.8	100.0 ( 2,120)	6.8
제3오분위	43.9	46.4	9.8	100.0 ( 2,101)	6.8
제4오분위	45.1	44.5	10.4	100.0 ( 2,115)	6.8
제5오분위	43.3	47.7	9.0	100.0 ( 2,095)	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5.5	45.8	8.7	100.0 ( 9,073)	6.7
제한 있음	41.2	41.7	17.1	100.0 ( 1,471)	7.0
2008년도	45.7	40.5	13.8	100.0 (10,798)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정상수면은 6~8시간을 의미하며, 비정상 수면은 기타 수면 시간을 의미함.

## 6. 건강검진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1.6%이다(표 II-6-21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가 80.0%로 읍면부의 85.7%보다 낮다. 성별로는 여성의 수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65~69세 수진율이 87.1%인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57.2%에 불과하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수진율이 75.1%로 유배우자(84.8%)보다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수진율이 77.3%로 가장 낮는데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85.9%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일수록 수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수진율이 72.1%이다. 취업상태별로는 수진율이 미취업자가 78.3%로 취업자의 88.2%에 비해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최저 제1오분위수의 경우 수진율이 77.0%로 가장 낮으며, 제3오분위 군의 경우 85.5%로 가장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자가 제한이 없는 자에 비해 수진율이 낮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65.3%,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의 84.6%의 수진율을 보인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중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1.3%로 가장 많고, 이어서 거동이 불편해서가 13.0%,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서가 11.2%, 과거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10.8%의 순서를 보인다.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비율은 동부지역, 남성, 85세 이상 연령군, 무배우자, 독거노인, 전문대 이상, 취업자, 가구소득 최상위 군,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11-6-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검진 수진율 및 미수진 이유

(단위: %, 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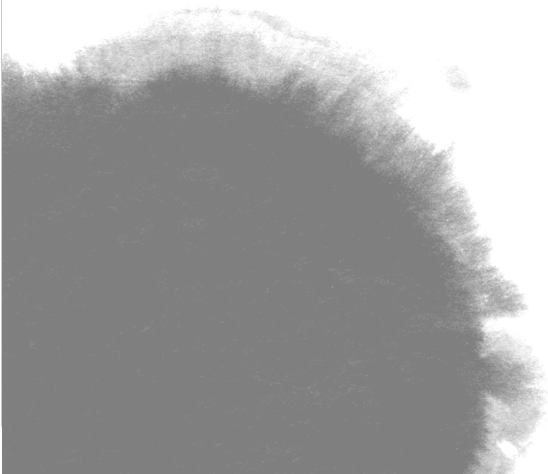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특성	수진율 <sup>1)</sup>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 <sup>2)</sup>								
		거동 불편	시간 없음	돈이 없음	검진결과 두려움	검진결과 불신	과거 검진결과 이상없음	필요 못느낌	기타	계 (명)
전체	81.6	13.0	5.8	1.9	11.2	3.7	10.8	51.3	2.5	100.0 ( 1,912)
지역										
동부	80.0	11.0	5.6	2.2	11.5	3.5	10.9	53.1	2.2	100.0 ( 1,426)
읍·면부	85.7	18.8	6.5	0.8	10.5	4.1	10.4	45.7	3.2	100.0 ( 485)
성										
남자	83.4	11.7	6.5	1.1	10.5	4.7	11.5	52.4	1.6	100.0 ( 739)
여자	80.3	13.8	5.4	2.4	11.7	3.0	10.4	50.5	3.0	100.0 ( 1,173)
연령										
65~69세	87.1	7.4	13.4	1.6	11.9	4.4	10.0	47.6	3.7	100.0 ( 404)
70~74세	85.8	9.8	7.6	2.6	17.7	4.1	11.6	45.5	1.1	100.0 ( 455)
75~79세	79.9	15.0	3.5	2.4	9.9	4.0	12.0	51.3	1.9	100.0 ( 476)
80~84세	72.0	19.5	1.5	1.6	5.9	3.5	7.4	58.0	2.7	100.0 ( 316)
85세 이상	57.2	15.5	0.4	0.4	7.6	1.3	12.4	58.6	3.7	100.0 ( 26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4.8	11.5	8.0	1.9	11.5	4.4	11.8	48.8	2.0	100.0 ( 1,065)
배우자 없음	75.1	14.8	3.1	1.8	10.8	2.8	9.5	54.3	3.0	100.0 ( 847)
가구형태										
노인독거	77.3	17.3	3.0	1.1	10.3	2.6	8.0	54.4	3.4	100.0 ( 471)
노인부부	85.9	11.2	7.7	1.8	11.9	4.3	12.2	48.6	2.3	100.0 ( 714)
자녀동거	77.4	11.4	6.0	2.8	10.0	4.3	10.9	52.5	2.2	100.0 ( 636)
기타	80.7	15.4	4.4	0.0	19.0	0.0	13.8	46.6	0.8	100.0 ( 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2.1	17.5	3.3	2.0	9.5	2.3	9.9	52.3	3.2	100.0 ( 317)
무학(글자해독)	78.5	12.7	3.8	2.5	10.6	2.1	10.1	56.8	1.4	100.0 ( 467)
초등학교	83.2	13.8	7.4	2.5	11.4	4.0	11.3	45.9	3.8	100.0 ( 618)
중·고등학교	84.5	10.8	7.8	0.2	12.8	5.7	11.3	49.9	1.6	100.0 ( 417)
전문대학 이상	87.2	3.6	5.5	1.2	11.9	4.9	11.1	61.7	0.0	100.0 ( 94)
현취업상태										
취업중	88.2	2.6	14.3	1.8	9.9	5.4	12.7	51.6	1.8	100.0 ( 419)
미취업	78.3	15.9	3.5	1.9	11.6	3.2	10.2	51.1	2.6	100.0 ( 1,4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7.0	17.6	2.1	2.3	11.1	3.5	7.4	53.6	2.5	100.0 ( 485)
제2오분위	80.4	14.5	8.9	3.0	11.8	1.4	12.7	42.8	4.8	100.0 ( 411)
제3오분위	85.5	12.2	6.1	1.5	12.0	5.9	10.8	50.7	0.8	100.0 ( 301)
제4오분위	83.3	8.0	6.1	1.1	11.3	4.5	12.6	54.2	2.2	100.0 ( 343)
제5오분위	82.0	10.3	6.8	1.1	9.9	3.7	11.3	55.4	1.5	100.0 ( 372)
기능상태										
제한 없음	84.6	4.8	7.2	2.0	12.6	3.9	12.5	54.5	2.6	100.0 ( 1,402)
제한 있음	65.3	35.4	2.0	1.6	7.5	3.0	6.1	42.4	2.2	100.0 ( 510)
2008년도	80.1	11.1	7.3	12.4	7.0	3.0	16.1	42.5	0.7	100.0 (2,737)

주: 1) 수진율은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는 건강검진 미수검자인 1,913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 07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상태







##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화에 따라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기능의 저하는 노인의 생활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능저하에 따른 수발이 필요할 시 적절한 수발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장에서는 노인의 기능상태 저하는 어떠한 수준이며, 기능저하에 따른 적절한 수발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기능은 시력, 청력, 씹기, 근력,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 제1 절 신체적 기능상태

#### 1. 시력과 청력, 씹기 능력

시력과 청력, 씹기 능력의 저하는 기능상태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수행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들 기능상태의 저하를 보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보조기 사용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신문, 책, TV 등의 매체를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사회와의 관계 맺음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을 갖게 된다. 노인의 70.5%는 시력이 좋은 상태이며, 29.4%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에 대한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58.6%이다(표 II-7-1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 시력 상태와 보조기 사용 상태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시력상태는 유사하며 보조기 사용은 동부 지역이 높고, 성별로는 남자의 보조기 사용률이 높으며, 여자의 경우 시력상태가 남자에 비해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

령이 높을수록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낮으며, 시력상태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시력 상태는 좋으며, 보조기 사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경우 있는 사람에 비해 보조기 사용률이 높으며, 시력상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시력상태와 보조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 노인의 경우 시력상태는 남자에 비해서 나쁘지만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며, 이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기능상태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노인, 고연령, 저학력 노인의 경우 시력상태가 나쁘지만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표 11-7-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률	시력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전체 <sup>1)</sup>	58.6	3.5	67.0	27.1	2.3	100.0 (10,674)
지역						
동부	61.3	4.1	66.3	27.1	2.5	100.0 ( 7,257)
읍·면부	53.1	2.4	68.6	27.1	1.9	100.0 ( 3,418)
성						
남자	65.2	4.7	71.4	21.6	2.4	100.0 ( 4,605)
여자	53.7	2.7	63.7	31.3	2.3	100.0 ( 6,069)
연령						
65~69세	60.2	4.8	72.6	20.6	2.0	100.0 ( 3,180)
70~74세	60.8	3.3	68.3	26.8	1.6	100.0 ( 3,240)
75~79세	57.1	2.8	65.2	29.4	2.6	100.0 ( 2,413)
80~84세	54.5	3.2	60.8	33.2	2.7	100.0 ( 1,183)
85세 이상	53.3	2.0	51.8	40.7	5.5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4	4.1	68.9	24.9	2.1	100.0 ( 7,200)
배우자 없음	52.9	2.4	63.1	31.7	2.7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54.3	1.8	65.1	30.3	2.8	100.0 ( 2,094)
노인부부	61.3	4.3	69.8	23.7	2.1	100.0 ( 5,172)
자녀동거	56.3	3.6	63.7	30.2	2.5	100.0 ( 2,916)
기타	63.4	1.6	65.9	30.8	1.6	100.0 ( 492)

특성	보조기 사용률	시력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0.3	1.4	54.5	39.7	4.4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52.7	2.2	59.8	35.3	2.8	100.0 ( 2,213)
초등학교	59.6	3.6	70.1	24.7	1.6	100.0 ( 3,782)
중·고등학교	65.5	4.7	71.9	21.0	2.5	100.0 ( 2,769)
전문대학 이상	74.7	6.5	74.7	17.9	0.9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7.2	3.5	73.3	21.8	1.3	100.0 ( 3,569)
미취업	59.4	3.5	63.9	29.8	2.8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2	1.9	60.3	34.0	3.8	100.0 ( 2,135)
제2오분위	59.5	3.0	67.9	27.3	1.8	100.0 ( 2,138)
제3오분위	61.4	2.9	70.1	24.4	2.6	100.0 ( 2,131)
제4오분위	56.0	4.9	70.3	23.6	1.3	100.0 ( 2,135)
제5오분위	62.2	5.0	66.7	26.2	2.1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60.3	3.7	69.9	25.0	1.3	100.0 ( 9,081)
제한 있음	49.3	2.4	50.5	39.1	8.1	100.0 ( 1,593)
2208년도	62.8	60.0	33.4	33.4	3.0	100.0 (10,79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노인의 청력 저하는 시력과 함께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으며, 또한 청력의 저하로 인하여 가족, 외부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제한을 갖고 올 수 있다. 노년기의 청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상태와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유지와 안전을 위한 노년기의 중요한 기능상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노인의 청력 상태는 시력에 비해서는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로 낮게 나타났다. 매우 좋다가 4.2%, 좋은 편이다가 75.2%로 대체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보조기(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3.9%로 낮게 나타났다(표 II-7-2 참조).

제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를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의 보조기 사용률은 동부지역에 비해 약 0.8%포인트 높으며 청력 상태는 읍·면부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보조기 사용률이 5.1%로 여자의 2.9%에 비해서 높으며, 남자가 청력상태가 다소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 이후에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증가하며, 기능상태도 80대부터 많이 나빠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0대 이후 청력상태가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

율은 약 35%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청력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별 청력 및 보조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제1오분위의 저소득층에서 청력이 나쁜 비율이 높은 반면 보조기 사용률은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소득이 낮은 제1~제2오분위 노인의 경우,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에 비해 청력이 나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청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현재 보청기의 비용이 노인들이 구매하기에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11-7-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률	청력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전체 <sup>1)</sup>	3.9	4.2	75.2	18.7	1.8	100.0 (10,674)
지역						
동부	3.6	4.7	75.8	17.6	1.9	100.0 ( 7,257)
읍·면부	4.4	3.2	74.1	21.0	1.7	100.0 ( 3,418)
성						
남자	5.1	4.9	73.1	20.1	1.9	100.0 ( 4,605)
여자	2.9	3.7	76.9	17.6	1.8	100.0 ( 6,069)
연령						
65~69세	2.1	5.5	83.7	10.5	0.3	100.0 ( 3,180)
70~74세	3.1	4.7	79.1	15.3	0.9	100.0 ( 3,239)
75~79세	4.5	2.9	73.0	22.0	2.2	100.0 ( 2,414)
80~84세	6.4	2.9	61.2	32.2	3.6	100.0 ( 1,183)
85세 이상	9.3	3.3	48.3	38.9	9.4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7	4.2	77.8	16.5	1.5	100.0 ( 7,199)
배우자 없음	4.2	4.2	69.9	23.3	2.6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4.2	4.1	71.4	22.4	2.2	100.0 ( 2,095)
노인부부	3.6	3.9	78.5	16.4	1.2	100.0 ( 5,172)
자녀동거	4.3	4.9	72.0	20.2	2.9	100.0 ( 2,916)
기타	2.8	4.5	76.4	17.9	1.2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9	1.5	64.8	29.5	4.3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3.7	2.9	73.8	21.2	2.0	100.0 ( 2,213)
초등학교	4.2	3.7	76.7	18.2	1.4	100.0 ( 3,782)
중·고등학교	3.7	6.5	76.8	15.1	1.5	100.0 ( 2,769)
전문대학 이상	3.1	6.6	82.3	9.9	1.2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	5.0	78.8	15.1	1.0	100.0 ( 3,569)
미취업	3.9	3.9	73.4	20.5	2.3	100.0 ( 7,105)

특성	보조기 사용률	청력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	2.8	69.2	25.7	2.3	100.0 ( 2,135)
제2오분위	4.9	3.0	75.7	19.6	1.7	100.0 ( 2,138)
제3오분위	3.3	3.9	77.4	16.8	1.9	100.0 ( 2,131)
제4오분위	3.1	5.1	76.8	16.7	1.4	100.0 ( 2,134)
제5오분위	4.0	6.4	77.1	14.6	2.0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	4.5	78.1	16.4	1.1	100.0 ( 9,081)
제한 있음	6.7	2.9	59.0	31.8	6.3	100.0 ( 1,593)
2008년도	3.8	6.8	72.5	18.5	2.3	100.0 (10,79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씹기 능력은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도록 하는 식사와 관련되는 기능상태로 노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시력, 청력에 비해 씹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7%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7.4%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씹기 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특히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52.9%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상태가 불편한 노인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7-3 참조).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보조기 사용률이 높으나, 그에 비해 씹기 상태가 나쁜 비율이 높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성별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자가 보조기 사용률이 높으나 상태에 있어서는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씹기 기능상태는 75세 이후부터 기능이 악화되는 비율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비율 또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특성별로도 씹기 상태와 보조기 착용률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력과 청력에 비해 씹기 기능은 우선적으로 나빠지고 보조기를 사용하여도 기능의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기의 시력이나 청력, 씹기 기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또는 건강과 관련성을 갖고 있는 기능상태에 있어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시력이나 청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씹기 기능으로 인한 불편함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씹기의 경우 보조기를 활용할지라도 기능상태의 증진이 크게 호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이 밝혀졌다.

〈표 11-7-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씹기능력 및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률	씹기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전체 <sup>1)</sup>	52.9	1.8	44.1	46.7	7.4	100.0 (10,674)
지역						
동부	49.6	1.8	45.7	44.9	7.5	100.0 ( 7,256)
읍·면부	59.9	1.6	40.6	50.6	7.2	100.0 ( 3,417)
성						
남자	49.3	2.3	48.0	42.4	7.3	100.0 ( 4,605)
여자	55.7	1.4	41.1	50.0	7.5	100.0 ( 6,070)
연령						
65~69세	38.5	2.6	54.0	39.0	4.4	100.0 ( 3,179)
70~74세	49.6	1.4	47.9	44.5	6.2	100.0 ( 3,239)
75~79세	64.3	1.6	37.9	52.2	8.3	100.0 ( 2,414)
80~84세	68.6	1.9	31.4	55.1	11.7	100.0 ( 1,183)
85세 이상	68.7	0.6	22.6	59.9	16.8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4	1.9	48.8	42.8	6.5	100.0 ( 7,200)
배우자 없음	60.1	1.5	34.3	54.9	9.3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61.7	1.3	33.5	56.5	8.6	100.0 ( 2,094)
노인부부	50.3	1.9	48.8	43.6	5.7	100.0 ( 5,173)
자녀동거	51.7	2.2	43.1	46.1	8.6	100.0 ( 2,916)
기타	49.4	0.4	44.3	42.3	13.0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1.3	0.9	25.9	59.6	13.6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62.1	1.3	35.8	54.0	8.9	100.0 ( 2,213)
초등학교	54.5	1.6	44.6	46.9	6.9	100.0 ( 3,782)
중·고등학교	44.2	2.2	52.3	39.9	5.6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36.6	4.2	64.1	29.4	2.3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2.3	2.0	48.8	44.6	4.6	100.0 ( 3,569)
미취업	53.2	1.7	41.7	47.8	8.8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2	0.9	30.3	58.4	10.4	100.0 ( 2,135)
제2오분위	56.8	1.2	39.5	50.4	9.0	100.0 ( 2,139)
제3오분위	52.9	1.1	45.1	47.8	6.0	100.0 ( 2,132)
제4오분위	49.8	2.0	50.7	40.8	6.6	100.0 ( 2,135)
제5오분위	43.9	3.7	54.8	36.4	5.1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51.4	1.9	47.1	45.4	5.5	100.0 ( 9,081)
제한 있음	61.4	1.1	26.6	54.2	18.2	100.0 ( 1,593)
2008년도	53.3	2.8	40.2	54.0	3.0	100.0 (10,79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 2. 비만지수(BMI)

〈표 II-7-4〉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비만지수(BMI)를 살펴보았다. BMI지수는 질병관리본부 기준을 활용하였다.  $BMI = \text{체중} / (\text{신장 m})^2$ 으로 저체중 18.5미만, 정상 18.5이상~23미만, 과체중 23이상~25미만, 경도비만 25이상~30미만, 중증도비만 30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몸무게 평균은 58kg, 키는 평균 157.5cm로 나타났다. 키와 몸무게를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5.5%는 저체중이며, 41.4%는 정상, 25.1%는 과체중, 25.5%가 경도비만, 2.5%가 중증도 비만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과체중 이상의 비만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서 저체중에 비율이 높으며, 동부는 과체중 이상의 비율이 읍·면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저체중의 비중이 높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경도비만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저체중의 비중이 높아지며, 85세 이상에서는 저체중의 비중이 15.1%로 높게 나타났으며, 65~69세에서는 과체중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에서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저체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저체중의 비중이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7-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

(단위: kg, cm, %, 명)

특성	평균		BMI (몸무게) <sup>3)</sup>					계 <sup>4)</sup> (명)
	몸무게(kg) <sup>1)</sup>	키(cm) <sup>2)</sup>	저체중	정상	과체중	경도비만	중증도비만	
전체	58.0	157.5	5.5	41.4	25.1	25.5	2.5	100.0 (10,608)
지역								
동부	58.8	158.1	5.0	39.5	26.0	26.7	2.8	100.0 ( 7,213)
읍·면부	56.3	156.2	6.6	45.3	23.1	23.0	2.0	100.0 ( 3,395)
성								
남자	62.5	165.2	6.5	44.8	27.4	20.2	1.1	100.0 ( 4,591)
여자	54.6	151.6	4.8	38.7	23.3	29.6	3.6	100.0 ( 6,017)
연령								
65~69세	60.9	159.7	3.1	34.7	30.0	30.0	2.3	100.0 ( 3,178)
70~74세	59.1	158.4	4.1	41.1	25.0	26.7	3.1	100.0 ( 3,227)
75~79세	56.7	156.4	6.3	43.5	23.1	24.3	2.8	100.0 ( 2,398)
80~84세	53.8	154.1	9.2	49.2	19.9	20.2	1.5	100.0 ( 1,169)
85세 이상	50.7	152.8	15.1	53.3	18.1	11.8	1.6	100.0 ( 63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9.8	160.1	4.9	41.1	26.9	24.9	2.2	100.0 ( 7,182)
배우자 없음	54.2	152.2	6.8	42.0	21.2	26.8	3.2	100.0 ( 3,426)
가구형태								
노인독거	54.3	152.4	6.5	42.4	21.3	27.1	2.7	100.0 ( 2,062)
노인부부	59.7	160.0	4.7	42.8	25.8	24.5	2.1	100.0 ( 5,161)
자녀동거	57.6	156.6	6.3	38.5	26.4	25.6	3.1	100.0 ( 2,898)
기타	58.9	158.5	5.1	39.0	26.1	27.5	2.3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2.4	150.3	6.8	45.1	21.0	24.3	2.8	100.0 ( 1,141)
무학(글자해독)	54.9	153.1	5.8	42.4	21.7	26.8	3.3	100.0 ( 2,195)
초등학교	57.8	157.3	6.0	40.1	24.2	26.7	2.9	100.0 ( 3,772)
중·고등학교	61.5	162.3	4.9	40.9	28.3	24.4	1.5	100.0 ( 2,759)
전문대학 이상	63.9	165.3	2.3	40.4	33.9	22.0	1.5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9.0	159.0	4.6	42.7	25.7	25.1	2.0	100.0 ( 3,562)
미취업	57.5	156.8	6.0	40.7	24.8	25.7	2.8	100.0 ( 7,04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4	153.7	7.1	45.5	21.9	23.1	2.4	100.0 ( 2,101)
제2오분위	57.9	157.4	6.5	41.4	21.9	27.1	3.1	100.0 ( 2,132)
제3오분위	58.8	158.4	4.7	42.6	24.5	25.8	2.3	100.0 ( 2,120)
제4오분위	59.5	158.9	3.9	39.6	27.2	27.2	2.1	100.0 ( 2,130)
제5오분위	59.5	159.1	5.3	37.8	29.8	24.4	2.7	100.0 ( 2,124)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5	158.0	4.7	40.8	26.6	25.9	4.2	100.0 ( 9,048)
제한 있음	55.0	154.7	10.3	44.5	17.8	23.2	2.2	100.0 ( 1,56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10,60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10,6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키 또는 몸무게에서 무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10,58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66명을 제외함.



### 3. 근력

노인의 하지 근력에 대한 평가는 의자에 손을 짚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5회 반복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하지 근력상태를 평가한 결과 이를 수행한 비율은 76.1%이며, 수행하지 못한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표 II-7-5 참조). 제특성별로는 동부지역의 노인의 근력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자에 비해 남자의 하지 근력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노인의 경우 84.5%가 하지근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령별로는 75세부터 하지 근력의 수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85세 이후에 더욱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하지 근력의 저하가 뚜렷이 보인다.

〈표 II-7-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하지 근력상태

(단위: %, 명)

특성	수행함	수행하지 못함	계 (명)
전체 <sup>1)</sup>	76.1	23.9	100.0 (10,668)
지역			
동부	77.7	22.3	100.0 ( 7,254)
읍·면부	72.7	27.3	100.0 ( 3,414)
성			
남자	84.5	15.5	100.0 ( 4,605)
여자	69.7	30.3	100.0 ( 6,063)
연령			
65~69세	87.3	12.7	100.0 ( 3,180)
70~74세	81.4	18.6	100.0 ( 3,239)
75~79세	70.3	29.7	100.0 ( 2,409)
80~84세	61.3	38.7	100.0 ( 1,182)
85세 이상	43.4	56.6	100.0 ( 65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0.8	19.2	100.0 ( 7,196)
배우자 없음	66.2	33.8	100.0 ( 3,472)
가구형태			
노인독거	67.2	32.8	100.0 ( 2,093)
노인부부	80.6	19.4	100.0 ( 5,172)
자녀동거	73.6	26.4	100.0 ( 2,913)
기타	80.6	19.4	100.0 ( 490)

특성	수행함	수행하지 못함	계 (명)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8.0	42.0	100.0 ( 1,166)
무학(글자해독)	66.8	33.2	100.0 ( 2,213)
초등학교	77.1	22.9	100.0 ( 3,780)
중·고등학교	85.6	14.4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1.5	8.5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87.3	12.7	100.0 ( 3,568)
미취업	70.4	29.6	100.0 ( 7,100)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66.8	33.2	100.0 ( 2,134)
제2오분위	74.3	25.7	100.0 ( 2,137)
제3오분위	77.3	22.7	100.0 ( 2,130)
제4오분위	80.7	19.3	100.0 ( 2,133)
제5오분위	81.3	18.7	100.0 ( 2,132)
기능상태			
제한 없음	83.3	16.7	100.0 ( 9,078)
제한 있음	34.7	65.3	100.0 ( 1,59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6명을 제외함.

신체 근력상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뛰기, 운동장 걷기,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을 구부리거나 쭉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기, 머리 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 닿기, 8Kg 물건 옮기기의 6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로 전혀 어렵지 않다(4점)에서 전혀 할 수 없다(1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근력상태가 양호한 것이다.

운동장 뛰기는 평균 2.2점으로 대략 매우 어렵다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는 3.2점으로 약간 어렵다의 수준, 운동장 걷기 3.4점, 물건 옮기기 3.5점, 머리 위 물건 닿기는 3.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어깨와 팔 관절과 근력을 활용해야 하는 머리 위 물건 닿기가 가장 근력상태가 양호한 반면, 전신의 근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장 뛰기의 경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7-6 참조).

노인의 체특성별 신체 근력상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에 비해서 전체 영역에서 근력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 근력상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sup>1)</sup>

(단위: 점, 명)

특성	운동장 뛰기	운동장 걸기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 쭈그러 앉기	머리 위 물건 달기	8Kg물건 옮기기	대상자수
전체 <sup>2)</sup>	2.2	3.4	3.2	3.2	3.8	3.5	(10,669)
지역							
동부	2.3	3.4	3.3	3.3	3.8	3.5	( 7,253)
읍·면부	2.2	3.3	3.2	3.2	3.8	3.5	( 3,416)
성							
남자	2.6	3.6	3.5	3.5	3.8	3.7	( 4,605)
여자	2.0	3.3	3.0	3.0	3.7	3.3	( 6,064)
연령							
65~69세	2.6	3.7	3.5	3.5	3.9	3.7	( 3,179)
70~74세	2.3	3.5	3.4	3.3	3.8	3.6	( 3,240)
75~79세	2.0	3.3	3.1	3.1	3.7	3.4	( 2,413)
80~84세	1.8	3.0	2.8	2.9	3.6	3.2	( 1,180)
85세 이상	1.6	2.7	2.5	2.7	3.4	2.8	( 65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3.5	3.4	3.4	3.8	3.6	( 7,197)
배우자 없음	1.9	3.2	2.9	3.0	3.6	3.3	( 3,472)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3.2	3.0	3.0	3.7	3.3	( 2,092)
노인부부	2.4	3.5	3.4	3.4	3.8	3.6	( 5,171)
자녀동거	2.1	3.3	3.2	3.2	3.7	3.4	( 2,914)
기타	2.3	3.5	3.3	3.4	3.8	3.6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8	3.0	2.8	2.8	3.6	3.2	( 1,168)
무학(글자해독)	1.9	3.2	3.0	3.0	3.6	3.3	( 2,210)
초등학교	2.2	3.4	3.3	3.3	3.8	3.5	( 3,781)
중·고등학교	2.6	3.6	3.5	3.5	3.8	3.7	( 2,769)
전문대학 이상	2.8	3.8	3.7	3.7	3.9	3.8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	3.6	3.5	3.5	3.9	3.8	( 3,567)
미취업	2.1	3.3	3.1	3.1	3.7	3.4	( 7,1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3.2	3.0	3.0	3.7	3.3	( 2,133)
제2오분위	2.1	3.3	3.2	3.2	3.7	3.5	( 2,138)
제3오분위	2.3	3.4	3.3	3.3	3.8	3.6	( 2,132)
제4오분위	2.3	3.5	3.4	3.3	3.8	3.6	( 2,133)
제5오분위	2.5	3.5	3.4	3.4	3.8	3.6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	2.5	2.2	2.4	3.1	2.5	( 9,079)
제한 있음	2.4	3.6	3.4	3.4	3.9	3.7	( 1,590)

주: 1) 평균점수는 전혀 할 수 없다=1, 매우 어렵다=2, 약간 어렵다=3, 전혀 어렵지 않다=4로 계산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6명을 제외함.

## 제2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 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7개 항목 중 완전자립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식사하기로 나타났다(표 II-7-7 참조). 응답자의 98.6%가 완전자립상태이며, 가장 낮은 항목은 목욕하기로 94.6%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별로 필요로 하는 신체적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데, 가장 자립비율이 낮은 목욕하기의 경우 목욕을 위한 이동과 전신을 닦아야 하는 가장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식사하기는 수저를 움직이고 음식물을 넘기는 기능상태를 요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행위에 비해 행위의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사하기가 자립적이지 못할 경우 그 이외의 행위들에서 자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식사하기 다음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은 일어나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옷입기, 대소변조절하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로 나타났다. 대소변조절하기의 경우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 중 요실금 상태가 많아서 이들 기능의 제한이 나타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목욕하기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7〉 노인(65세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sup>1)</sup> (명)	2008년 완전자립율
옷입기	97.5	2.1	0.4	100.0 (10,674)	95.5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96.5	2.8	0.7	100.0 (10,674)	95.4
목욕하기	94.6	4.0	1.3	100.0 (10,673) <sup>2)</sup>	91.0
식사하기	98.6	1.0	0.4	100.0 (10,674)	97.2
일어나 방밖으로 나가기	98.3	1.2	0.4	100.0 (10,674)	97.3
화장실이용하기	98.1	1.4	0.6	100.0 (10,674)	97.3
대소변조절하기	96.8	2.6	0.6	100.0 (10,674)	95.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일상생활수행능력 기능상태를 종합적 판단하기 위해 부분도움 이상일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여 7개 항목 중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92.8%는 7개 항목에 전혀 도움이 필요없는 완전 자립 상태로 나타났다. 1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1%, 2개~3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2.0%이며, 4개 이상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2.0%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2% 가량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4개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4개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할 때는 목욕하기, 대소변조절하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옷입기에서 제한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인별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별 기능저하가 나타나는 순서는 다를 수 있다(표 II-7-8 참조).

일상생활수행능력의 7개 항목을 완전자립 1점, 부분도움 2점, 완전도움 3점으로 하여 총점수를 계산할 경우 최소 7점에서 최대 21점이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7.2점이다. 이를 이용하여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정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는 높아져 기능이 악화됨을 볼 수 있다. 특히 80세 이후 기능악화가 시작되며, 85세 이후 더욱 크게 악화된다.

〈표 11-7-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도 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계 (명)	평균 점수 <sup>2)</sup>
전체 <sup>1)</sup>	92.8	3.1	1.3	0.7	0.5	0.3	0.5	0.7	100.0 (10,674)	7.2
지역										
동부	92.5	3.1	1.4	0.8	0.4	0.3	0.6	0.8	100.0 ( 7,255)	7.3
읍·면부	93.4	3.2	1.2	0.4	0.7	0.2	0.4	0.6	100.0 ( 3,417)	7.2
성										
남자	93.5	2.0	1.2	0.9	0.7	0.2	0.7	0.7	100.0 ( 4,603)	7.2
여자	92.3	4.0	1.5	0.5	0.4	0.4	0.3	0.8	100.0 ( 6,069)	7.2
연령										
65~69세	95.8	1.4	0.4	0.5	0.5	0.2	0.6	0.6	100.0 ( 3,179)	7.2
70~74세	95.1	2.8	0.8	0.2	0.2	0.1	0.2	0.6	100.0 ( 3,240)	7.1
75~79세	92.6	3.2	1.1	1.0	0.8	0.3	0.5	0.5	100.0 ( 2,413)	7.2
80~84세	87.9	5.3	3.1	0.8	0.7	0.6	0.8	0.8	100.0 ( 1,182)	7.4
85세 이상	75.9	8.8	6.5	2.1	0.8	1.4	1.2	3.3	100.0 ( 658)	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3.8	2.3	0.9	0.8	0.6	0.2	0.7	0.8	100.0 ( 7,198)	7.2
배우자 없음	90.8	4.8	2.3	0.4	0.4	0.4	0.2	0.7	100.0 ( 3,474)	7.2
가구형태										
노인독거	93.4	4.6	1.1	0.2	0.2	0.0	0.1	0.4	100.0 ( 2,094)	7.1
노인부부	94.0	2.3	0.9	0.7	0.6	0.3	0.7	0.5	100.0 ( 5,171)	7.2
자녀동거	90.1	3.5	2.4	1.0	0.7	0.5	0.3	1.4	100.0 ( 2,915)	7.4
기타	94.3	2.9	0.8	0.2	0.2	0.4	0.6	0.6	100.0 ( 490)	7.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8.7	5.7	2.7	0.5	0.8	0.6	0.3	0.8	100.0 ( 1,169)	7.3
무학(글자해독)	91.2	4.3	2.0	0.7	0.4	0.4	0.3	0.8	100.0 ( 2,213)	7.2
초등학교	92.8	3.1	1.0	0.8	0.6	0.3	0.4	1.0	100.0 ( 3,780)	7.3
중·고등학교	95.0	1.6	0.9	0.5	0.4	0.2	0.9	0.5	100.0 ( 2,770)	7.2
전문대학 이상	96.5	1.2	0.5	0.5	0.4	0.0	0.8	0.0	100.0 ( 741)	7.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9	1.0	0.1	0.0	0.0	0.0	0.0	0.0	100.0 ( 3,569)	7.0
미취업	89.7	4.2	2.0	1.0	0.8	0.5	0.7	1.1	100.0 ( 7,103)	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1.9	4.1	1.3	0.7	0.3	0.2	0.8	0.6	100.0 ( 2,135)	7.2
제2오분위	93.5	2.7	1.1	0.7	0.8	0.2	0.4	0.7	100.0 ( 2,138)	7.2
제3오분위	92.6	3.7	1.4	0.5	0.3	0.4	0.3	0.7	100.0 ( 2,130)	7.2
제4오분위	93.4	2.5	1.3	1.1	0.4	0.4	0.6	0.3	100.0 ( 2,135)	7.2
제5오분위	92.5	2.7	1.6	0.4	0.7	0.2	0.3	1.4	100.0 ( 2,134)	7.3
2008년	88.6	5.1	2.0	1.0	0.9	0.5	0.7	1.3	100.0 (10,798)	-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점수는 완전자립=1, 부분도움=2, 완전도움=3을 부여하여 7개 항목을 합하여 계산함.

##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함께 생활에서 꼭 필요한 활동들로서 혼자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 중 완전자립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집안일 하기와 교통수단이용하기로 각각 응답자의 91.1%와 91.2%가 완전자립으로 나타나 타 항목에 비해서 자립율이 가장 낮다. 그 다음으로는 식사준비, 빨래이며 전화이용,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몸단장, 약 챙겨먹기 등의 순이다. 즉, 약 챙겨먹기의 난이도가 가장 쉬우며, 집안일과 교통수단이용이 가장 어려운 행위임을 알 수 있다(표 II-7-9 참조).

〈표 II-7-9〉 노인(65세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sup>1)</sup> (명)	2008년 완전자립율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몸단장	96.0	3.2		0.9	100.0 (10,674)	96.1
집안일	91.1	6.5		2.4	100.0 (10,674)	87.5
식사 준비	92.1	5.4		2.5	100.0 (10,673) <sup>2)</sup>	87.8
빨래	92.3	5.2		2.6	100.0 (10,674)	84.8
약 챙겨먹기	97.3	2.0		0.7	100.0 (10,674)	94.7
금전 관리	93.5	4.8		1.7	100.0 (10,672)	82.4
근거리 외출	95.1	3.5		1.5	100.0 (10,674)	93.0
물건 구매	95.6	2.6	1.3	0.6	100.0 (10,671)	87.4
전화 이용	94.5	3.9	1.2	0.3	100.0 (10,674)	86.3
교통수단 이용	91.2	5.2	3.2	0.4	100.0 (10,672)	85.7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10개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항목 중 전 항목이 완전자립인 비율은 86.2%로 나타났다. 1~2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4.9%, 3~4개는 2.9%, 5~6개는 2.6%, 7~8개는 1.2%이며, 9~10개는 2.3%로 나타났다(표 II-7-10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 노인이 읍·면부에 비해 완전 자립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완전자립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노인이 후기노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75세 이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어, 75~79세에서는 84.4%가 완전자립이며, 80~84세에서는 74.8%로 더욱 급격히 감소, 85세 이상에서는 53.7%로 저하된다. 즉, 85세 이후의 노인의 절반은 스스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의 특성별로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상태를 종합해보면 노인의 85.1%는 기능제한이 전혀 없지만 7.7%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7.2%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제한까지 경험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상태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특히 연령군별로 기능상태의 제한상태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80세 이상의 경우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ADL)까지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80~84세 연령군이 12.1%, 85세 이상의 경우는 23.8%에 달하고 있다. 또한 8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약 1/4인 23.4%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등, 후기노인에 기능상태저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무배우 노인에게 있어 기능제한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자녀동거가 노인의 기능저하에 따른 선택이며, 자녀가 노인의 신체적 수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능상태 저하자의 비율이 높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제한만을 경험하는 비율이 20.8%,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제한까지 경험하고 있는 비율은 11.3%에 달하고 있다.



〈표 11-7-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계 (명)	평균 점수 <sup>2)</sup>
전체 <sup>1)</sup>	86.2	4.9	2.9	2.6	1.2	2.3	100.0 (10,674)	0.4
지역								
동부	86.4	4.4	2.9	2.6	1.2	2.6	100.0 ( 7,253)	0.4
읍·면부	85.8	5.9	3.0	2.4	1.2	1.7	100.0 ( 3,414)	0.4
성								
남자	88.8	2.7	2.2	2.8	1.3	2.2	100.0 ( 4,603)	0.4
여자	84.2	6.6	3.4	2.4	1.1	2.3	100.0 ( 6,065)	0.5
연령								
65~69세	93.5	1.8	1.5	1.2	0.7	1.4	100.0 ( 3,180)	0.2
70~74세	91.1	4.3	1.6	1.4	0.7	1.0	100.0 ( 3,238)	0.2
75~79세	84.4	5.8	3.2	3.7	1.1	1.9	100.0 ( 2,410)	0.5
80~84세	74.8	9.6	4.8	4.4	2.1	4.3	100.0 ( 1,182)	0.8
85세 이상	53.7	11.6	12.2	7.3	4.7	10.5	100.0 ( 656)	1.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9.0	3.3	2.1	2.4	1.1	2.1	100.0 ( 7,197)	0.4
배우자 없음	80.3	8.3	4.6	2.9	1.3	2.6	100.0 ( 3,471)	0.6
가구형태								
노인독거	84.8	8.2	3.5	2.0	0.5	1.0	100.0 ( 2,092)	0.4
노인부부	89.7	3.1	2.0	2.2	1.0	2.0	100.0 ( 5,170)	0.4
자녀동거	81.1	5.7	4.0	3.6	1.9	3.7	100.0 ( 2,916)	0.6
기타	85.3	5.7	3.1	2.9	1.2	1.8	100.0 ( 489)	0.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9.2	16.4	4.4	3.3	3.1	3.7	100.0 ( 1,167)	0.8
무학(글자해독)	82.4	6.1	4.3	3.9	0.9	2.4	100.0 ( 2,212)	0.5
초등학교	88.2	3.1	2.9	2.4	1.2	2.2	100.0 ( 3,782)	0.4
중·고등학교	91.4	2.4	1.8	1.8	0.7	2.0	100.0 ( 2,766)	0.3
전문대학 이상	94.6	1.6	0.5	1.5	0.5	1.2	100.0 ( 740)	0.2
현 취업상태								
취업중	96.0	3.0	0.5	0.4	0.0	0.1	100.0 ( 3,568)	0.1
미취업	81.3	5.8	4.1	3.7	1.7	3.4	100.0 ( 7,098)	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8	7.9	3.7	2.1	1.0	2.5	100.0 ( 2,132)	0.5
제2오분위	85.7	5.4	2.8	3.1	1.0	2.0	100.0 ( 2,137)	0.4
제3오분위	88.1	3.7	1.9	2.9	1.2	2.2	100.0 ( 2,130)	0.4
제4오분위	86.9	4.2	3.4	2.4	1.3	1.8	100.0 ( 2,135)	0.4
제5오분위	87.4	3.3	2.8	2.3	1.3	2.9	100.0 ( 2,133)	0.4
2008년	73.0	10.8	5.4	4.1	3.0	3.7	100.0 (10,798)	-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IADL 10개 항목 중 제한이 있는 수의 평균값

〈표 11-7-11〉 노인(65세 이상)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명)

특성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경험	계 (명)
전체 <sup>1)</sup>	85.1	7.7	7.2	100.0 (10,666)
지역				
동부	85.3	7.3	7.5	100.0 ( 7,252)
읍·면부	84.8	8.6	6.6	100.0 ( 3,413)
성				
남자	88.7	4.8	6.5	100.0 ( 4,600)
여자	82.4	9.9	7.7	100.0 ( 6,064)
연령				
65~69세	92.7	3.1	4.2	100.0 ( 3,179)
70~74세	89.7	5.4	5.0	100.0 ( 3,238)
75~79세	83.6	9.1	7.3	100.0 ( 2,408)
80~84세	73.0	14.9	12.1	100.0 ( 1,183)
85세 이상	52.8	23.4	23.8	100.0 ( 65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8.4	5.4	6.2	100.0 ( 7,194)
배우자 없음	78.4	12.4	9.1	100.0 ( 3,470)
가구형태				
노인독거	83.0	10.4	6.6	100.0 ( 2,091)
노인부부	89.0	5.0	6.0	100.0 ( 5,169)
자녀동거	79.9	10.2	9.9	100.0 ( 2,915)
기타	84.7	9.4	5.9	100.0 ( 49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7.9	20.8	11.3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81.0	10.1	8.9	100.0 ( 2,212)
초등학교	86.7	6.1	7.2	100.0 ( 3,779)
중·고등학교	91.0	3.9	5.1	100.0 ( 2,766)
전문대학 이상	94.1	2.3	3.6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5.3	3.6	1.1	100.0 ( 3,569)
미취업	80.0	9.8	10.3	100.0 ( 7,0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1.8	10.2	8.0	100.0 ( 2,130)
제2오분위	84.8	8.7	6.5	100.0 ( 2,136)
제3오분위	86.9	5.7	7.5	100.0 ( 2,130)
제4오분위	85.8	7.6	6.6	100.0 ( 2,134)
제5오분위	86.3	6.3	7.4	100.0 ( 2,13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9명을 제외함.

### 3. 인지기능

노인의 인지기능 검진을 위해 평가척도인 MMSE-KC<sup>2)</sup>를 활용하였다. 노인의 성, 연령, 학력수준을 고려하여 MMSE-KC를 활용한 인지기능저하자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의 28.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24.2로 나타났다(표 II-8-12 참조). 이러한 MMSE-KC의 결과를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의 평균 점수는 24.7점이며, 인지기능저하자는 24.6%이며, 읍·면부는 평균 23.0점이며, 인지저하자 비율은 37.1%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25.7점, 인지저하자 비율은 25.4%이고, 여자는 23.0점이고 인지기능저하자는 30.9%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MMSE-KC의 평균점수는 낮아지며, 인지기능저하자의 비율 또한 높아졌다. 65~69세에서의 평균점수는 26.0점이며, 인지저하자 비율은 15.5%로 나타났다. 반면 70~74세는 25.0%, 75~79세는 35.9%이며, 80~84세는 41.6%, 85세 이상은 67.1%로 연령증가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인지기능저하자의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높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 자녀동거가구가 부부가구에 비해서 인지기능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부부가구의 연령이 노인독거구나 자녀동거가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저하자의 비율은 낮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정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전혀 제한이 없는 경우 노인의 24.0%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난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58.6%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다. 이 둘 간의 상관성은 높으나,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장애가 없을지라도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비율 또한 상당부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2) MMSE-KC 결과 판정기준

학력	0~3년		4~6년		7년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60-69세	20.9	18.5	24.0	22.5	25.6	25.3
70-74세	19.7	16.7	23.3	22.0	25.5	24.9
75-79세	19.7	15.1	22.3	21.6	25.4	23.9
80-90세	17.3	13.5	21.2	20.4	24.8	22.9

〈표 11-8-12〉 노인(65세 이상)의 MMSE-KC

(단위: 점, %, 명)

특성	평균점수	인지저하자비율	대상자수
전체 <sup>1)</sup>	24.2	28.5	( 8,851)
지역			
동부	24.7	24.6	( 6,113)
읍·면부	23.0	37.1	( 2,738)
성			
남자	25.7	25.4	( 3,913)
여자	23.0	30.9	( 4,938)
연령			
65~69세	26.0	15.5	( 2,763)
70~74세	24.7	25.0	( 2,730)
75~79세	23.4	35.9	( 1,965)
80~84세	21.9	41.6	( 897)
85세 이상	18.6	67.1	( 4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1	23.2	( 6,049)
배우자 없음	22.1	39.9	( 2,802)
가구형태			
노인독거	22.4	38.3	( 1,693)
노인부부	25.1	22.3	( 4,356)
자녀동거	23.7	32.6	( 2,401)
기타	24.3	29.7	( 40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8.6	70.0	( 887)
무학(글자해독)	22.0	38.8	( 1,745)
초등학교	24.5	18.0	( 3,079)
중·고등학교	26.4	24.0	( 2,448)
전문대학 이상	27.7	11.8	( 69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4.8	24.6	( 2,990)
미취업	23.9	30.5	( 5,8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6	41.3	( 590)
제2오분위	23.1	28.6	( 2,215)
제3오분위	24.4	27.3	( 2,711)
제4오분위	25.1	24.0	( 1,333)
제5오분위	25.2	21.9	( 2,0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8	24.0	( 7,694)
제한 있음	20.1	58.6	( 1,157)
2008년도	23.1	25.5	(10,18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1,694명을 제외함.

#### 4. 수발실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 중 1개 이상 부분도움 이상의 도움을 받는 자 중 가족 등에 의해서 수발을 받는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이들 중 23.7%는 수발을 받고 있지 않다. 수발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원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11.4%,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13.1%이다. 수발을 받는 자 중 외부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4.5%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부분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II-7-13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 수발여부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가 수발비율이 높았으며 동부는 가족과 외부서비스에 의한 보호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는 가족원에 의한 수발비율이 동부에 비해 약 4.1%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수발을 받는 비율이 87.4%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원, 가족원과 외부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수발을 받는 비율이 70.9%이며, 가족원에 의한 수발비율은 68.6%이며,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15.4%로 남자의 4.6%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5세 이후 수발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서비스와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후에서는 외부서비스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수발비율이 높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4.1%,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7.6%로 약 41.7%가 외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약 22.0%, 자녀동거가구는 19.6%가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외부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아 실비 또는 무료로 외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11-7-13〉 노인(65세 이상)의 수발여부 및 수발자

(단위: %, 명)

특성	수발율	수발자				
		가족원	외부 서비스	가족 +외부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76.3	72.1	11.4	13.1	3.4	100.0 (1,215)
지역						
동부	78.2	70.8	11.5	13.7	3.9	100.0 ( 837)
읍·면부	72.4	74.9	11.4	11.6	2.1	100.0 ( 378)
성						
남자	87.4	77.9	4.6	15.4	2.2	100.0 ( 456)
여자	70.9	68.6	15.4	11.9	4.1	100.0 ( 758)
연령						
65~69세	77.9	68.7	8.9	20.1	2.2	100.0 ( 179)
70~74세	67.0	81.7	8.5	7.6	2.2	100.0 ( 224)
75~79세	75.1	72.9	11.0	12.4	3.7	100.0 ( 299)
80~84세	74.5	66.7	16.0	11.4	5.9	100.0 ( 237)
85세 이상	88.4	69.9	11.6	15.6	2.9	100.0 ( 27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2.3	76.2	6.4	15.8	1.7	100.0 ( 692)
배우자 없음	69.5	66.7	18.0	9.8	5.5	100.0 ( 523)
가구형태						
노인독거	62.2	47.5	34.1	7.6	10.7	100.0 ( 223)
노인부부	80.8	76.2	6.0	16.0	1.7	100.0 ( 463)
자녀동거	80.3	79.8	6.2	13.4	0.6	100.0 ( 471)
기타	77.9	68.3	10.0	10.0	11.7	100.0 ( 60)
교육수준 <sup>1)</sup>						
무학(글자모름)	65.9	73.0	12.5	11.3	3.2	100.0 ( 248)
무학(글자해독)	79.3	73.6	14.4	9.6	2.4	100.0 ( 333)
초등학교	76.6	67.9	11.7	16.3	4.1	100.0 ( 386)
중·고등학교	84.1	75.4	4.7	16.6	3.3	100.0 ( 211)
전문대학 이상	90.7	74.4	12.8	7.7	5.1	100.0 ( 39)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2	93.2	5.4	0.0	1.4	100.0 ( 74)
미취업	80.2	70.7	11.8	14.0	3.5	100.0 (1,14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0.3	55.8	23.6	15.6	5.1	100.0 ( 43)
제2오분위	74.5	72.8	11.9	12.3	2.9	100.0 ( 30)
제3오분위	80.1	75.2	8.4	14.6	1.7	100.0 ( 33)
제4오분위	77.2	80.2	8.2	8.2	3.4	100.0 ( 19)
제5오분위	81.8	78.7	2.9	14.6	3.8	100.0 ( 3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부분도움 혹은 완전도움 1개 이상 받은 응답자 1,59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발자는 그 중에서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 수발자와 피수발자(노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비율이 53.0%로 과반수를 넘으며, 장남 8.2%, 장남의 배우자가 12.3%, 차남 이하가 6.7%, 차남 이하의 배우자가 3.8%, 딸 10.3%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장남의 배우자(큰 며느리)와 딸의 수발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7-14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로 수발실태를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는 배우자와 딸에 의한 수발비율이 읍·면부에 비해 높으며, 읍·면부는 배우자가 높지만, 동부에 비해 장남, 차남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배우자에 의한 수발 비율이 81.8%로 매우 높으며, 여자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은 33.0%인 반면, 장남, 장남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의 배우자, 딸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장남 배우자와 딸에 의한 수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수발은 감소하고, 자녀에 의한 수발이 증가하며, 특히 장남과 장남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수발은 감소하고, 자녀에 의한 수발이 높고 특히 장남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1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배우자	차남이하	차남이하 배우자	딸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53.0	8.2	12.3	6.7	3.8	10.3	5.7	100.0 (1,037)
지역								
동부	53.7	6.5	12.1	5.8	3.8	11.3	6.9	100.0 ( 710)
읍·면부	51.7	11.9	12.8	8.6	3.7	8.3	3.1	100.0 ( 327)
성								
남자	81.8	2.8	7.1	1.7	1.7	1.7	3.3	100.0 ( 424)
여자	33.0	11.9	16.0	10.1	5.2	16.3	7.4	100.0 ( 612)
연령								
65~69세	86.2	2.5	0.6	1.3	1.3	6.9	1.3	100.0 ( 159)
70~74세	73.0	5.0	8.5	5.0	0.5	5.0	3.0	100.0 ( 200)
75~79세	61.2	6.3	7.8	7.1	3.5	9.8	4.3	100.0 ( 255)
80~84세	31.0	13.4	17.6	9.1	5.3	13.9	9.6	100.0 ( 187)
85세 이상	22.5	12.7	24.2	9.3	7.6	14.8	8.9	100.0 ( 23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6.4	1.7	3.8	1.4	1.6	3.3	1.7	100.0 ( 634)
배우자 없음	-	18.4	25.9	14.9	7.2	21.1	11.9	100.0 ( 402)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5.3	11.3	21.8	6.5	39.5	5.6	100.0 ( 124)
노인부부	95.5	0.5	0.2	1.2	0.2	2.4	0.0	100.0 ( 425)
자녀동거	26.9	14.4	24.4	8.4	6.8	15.7	3.4	100.0 ( 439)
기타	54.2	0.0	12.5	2.1	0.0	8.3	22.9	100.0 ( 4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8	15.5	20.3	14.5	7.2	16.4	6.3	100.0 ( 207)
무학(글자해독)	41.2	10.1	17.3	5.8	4.3	13.0	8.3	100.0 ( 277)
초등학교	65.8	4.0	6.8	6.8	3.7	8.0	4.9	100.0 ( 325)
중·고등학교	80.3	4.7	6.2	0.5	0.0	5.2	3.1	100.0 ( 193)
전문대학 이상	81.3	6.3	9.4	0.0	0.0	0.0	3.1	100.0 ( 32)
현 취업상태								
취업중	76.5	8.8	5.9	4.4	0.0	0.0	4.4	100.0 ( 68)
미취업	51.4	8.1	12.9	6.8	4.0	11.0	5.8	100.0 ( 9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9.7	8.6	6.1	11.7	3.0	13.2	7.6	100.0 ( 197)
제2오분위	71.5	5.8	2.4	7.2	0.5	8.7	3.9	100.0 ( 207)
제3오분위	62.1	7.4	6.9	6.9	2.0	10.3	4.4	100.0 ( 203)
제4오분위	50.5	10.6	20.2	3.4	3.4	8.7	3.4	100.0 ( 208)
제5오분위	32.3	9.0	25.1	4.5	9.4	10.8	9.0	100.0 ( 22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가족에게서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1,217명 중 무응답을 제외함.



가족에 의해 수발을 받을 경우 1주일 평균 수발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20.3시간 수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시간은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있지만, 1주일에 10시간 미만의 비율이 36.7%로 가장 높으며, 10~19시간이 22.2%, 20~29시간이 19.4%, 30~39시간이 7.5%, 40~49시간이 3.3%, 50시간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가족에 의한 1주일동안의 평균 수발시간은 동부지역이 22.9시간으로 읍·면부의 14.6시간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수발을 받는 시간은 25시간으로 8시간 가량 길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65~69세의 수발시간이 길게 나타나며, 70세 이후에는 거의 유사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서 수발시간이 약 8.5시간 길게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독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의 수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수발자와 동거하는 형태일 경우 수발자가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수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자노인의 경우 여자노인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발시간은 다소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11-7-1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1주일 평균 수발 제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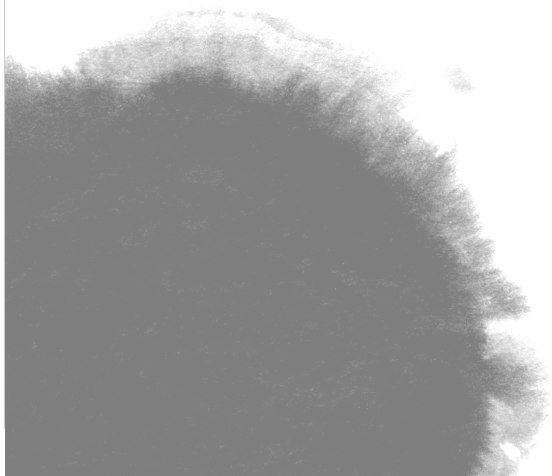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단위: %, 명, 시간)

특성	10시간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시간이상	계 (명)	평균시간
전체 <sup>1)</sup>	36.7	22.2	19.4	7.5	3.3	2.1	8.9	100.0 (1,030)	20.3
지역									
동부	32.5	21.6	20.7	7.7	3.5	2.3	11.8	100.0 ( 705)	22.9
읍·면부	45.8	23.4	16.6	7.1	3.4	1.8	1.8	100.0 ( 325)	14.6
성									
남자	23.4	23.4	25.3	8.7	4.5	3.1	11.6	100.0 ( 423)	25.0
여자	46.0	21.3	15.3	6.6	2.8	1.5	6.6	100.0 ( 607)	17.0
연령									
65~69세	26.6	15.8	29.7	6.3	1.9	0.6	19.0	100.0 ( 158)	27.1
70~74세	45.0	21.5	13.5	7.5	6.0	2.5	4.0	100.0 ( 200)	17.0
75~79세	35.0	24.8	19.7	7.1	3.9	2.8	6.7	100.0 ( 254)	19.7
80~84세	40.3	23.1	14.5	7.0	4.3	2.7	8.1	100.0 ( 186)	19.8
85세 이상	35.3	23.3	21.1	9.1	1.7	1.7	7.8	100.0 ( 232)	19.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0	23.1	20.4	8.4	4.3	2.1	11.7	100.0 ( 631)	23.6
배우자 없음	47.4	20.6	17.8	6.0	2.3	2.3	3.8	100.0 ( 399)	15.1
가구형태									
노인독거	82.4	9.6	4.8	1.6	0.0	0.0	1.6	100.0 ( 124)	6.2
노인부부	30.1	21.6	20.1	9.7	4.7	3.1	10.7	100.0 ( 422)	23.6
자녀동거	31.9	25.6	21.7	7.1	3.2	2.1	9.4	100.0 ( 436)	21.3
기타	27.7	27.7	31.9	6.4	0.0	0.0	6.4	100.0 ( 47)	18.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1.0	20.2	18.8	5.3	3.4	1.0	0.5	100.0 ( 208)	12.7
무학(글자해독)	42.0	22.6	17.5	9.5	2.6	1.8	4.0	100.0 ( 274)	16.9
초등학교	26.7	23.6	22.1	6.7	3.7	2.8	14.4	100.0 ( 326)	25.1
중·고등학교	30.9	20.4	21.5	8.4	4.2	1.0	13.6	100.0 ( 191)	24.6
전문대학 이상	36.4	27.3	0.0	6.1	6.1	12.1	12.1	100.0 ( 33)	2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67.6	12.7	16.9	1.4	0.0	1.4	0.0	100.0 ( 71)	8.9
미취업	34.3	22.9	19.6	7.9	3.7	2.3	9.3	100.0 ( 961)	21.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3	16.6	11.1	5.0	3.0	2.0	9.0	100.0 ( 199)	16.7
제2오분위	39.0	22.9	19.0	7.8	3.4	2.4	5.4	100.0 ( 205)	18.7
제3오분위	27.1	21.2	27.1	8.4	4.4	1.5	10.3	100.0 ( 203)	23.0
제4오분위	28.5	29.0	18.8	7.7	3.4	3.9	8.7	100.0 ( 207)	22.6
제5오분위	35.9	21.2	21.7	8.3	3.2	0.5	9.2	100.0 ( 217)	20.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가족에게서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 08

##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 제8장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후의 경제활동은 사회참여를 통한 능력발휘라는 기능과 소득창출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 늦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게 있어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의 경제활동 유무와 직종 및 종사상의 지위, 일하는 이유와 향후 지속 여부 등과 같은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향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욕구와 의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노인의 다수가 일생동안 경제활동을 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노후의 삶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장기 종사 직업에 관한 내용 또한 파악하고 있다.

### 제1 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노인의 34.0%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56.7%는 과거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9.3%만이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I-8-1 참조).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실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55.5%에 달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의 노인들 가운데 다수는 (63.7%) 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남자의 43.0%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2%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5~69세의 연령군의 46.4%가 현재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39.8%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21.9%에 불과해 배우자가 있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배우자 유무와 마찬가지로 가구형태별 분석 결과에서도 노인부부가구가 기타 형태의 가구에 비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41.8%가 현재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25.6%,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26.1%에 불과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보다 낮은 노인층에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학(글자해독 가능) 노인의 32.2%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노인의 21.8%만이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소득창출수단으로서의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순노동의 기회가 많다는 현실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이해된다.

가구소득수준의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검토해 보면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저소득 가구와 제5오분위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각각 22.3%와 28.1%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가구소득 제3오분위의 경우 43.5%가 현재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제2오분위와 제4오분위 가구의 현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각각 37%와 39%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 극단의 계층보다 중간층에서 노년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역U자형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표 II-8-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특성	하고 있다	한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체 <sup>1)</sup>	34.0	56.7	9.3	100.0 (10,544)
지역				
동부	23.8	63.7	12.5	100.0 ( 7,150)
읍·면부	55.5	42.1	2.4	100.0 ( 3,395)
성				
남자	43.0	56.6	0.4	100.0 ( 4,548)
여자	27.2	56.8	16.0	100.0 ( 5,997)
연령				
65~69세	46.4	45.6	8.0	100.0 ( 3,149)
70~74세	38.3	53.4	8.3	100.0 ( 3,228)
75~79세	26.9	63.6	9.5	100.0 ( 2,390)
80~84세	17.0	69.7	13.3	100.0 ( 1,162)
85세 이상	7.3	80.2	12.5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8	51.7	8.5	100.0 ( 7,121)
배우자 없음	21.9	67.1	11.0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25.6	64.5	9.8	100.0 ( 2,087)
노인부부	41.8	50.4	7.8	100.0 ( 5,120)
자녀동거	26.1	62.0	11.8	100.0 ( 2,850)
기타	34.0	59.0	7.0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8.6	66.6	4.8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32.2	59.6	8.2	100.0 ( 2,185)
초등학교	38.4	50.9	10.7	100.0 ( 3,743)
중·고등학교	34.9	53.8	11.3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21.8	73.6	4.6	100.0 ( 73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3	69.6	8.1	100.0 ( 2,112)
제2오분위	37.0	55.8	7.2	100.0 ( 2,120)
제3오분위	43.5	49.5	7.1	100.0 ( 2,101)
제4오분위	39.0	50.0	10.9	100.0 ( 2,114)
제5오분위	28.1	58.8	13.1	100.0 ( 2,0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37.7	53.8	8.5	100.0 ( 9,073)
제한 있음	10.9	74.7	14.3	100.0 ( 1,471)
2008년도	30.0	52.2	17.8	100.0 (10,7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58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종사직종 등 제특성을 분석한 결과인 〈표 II-8-2〉를 보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가운데 절대 다수(52.9%)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임을 보여준다. 그 밖에 단순노무직의 비율 역시 26.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 가운데 절대 다수는 농림어업 분야와 단순노무 분야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으며 두 가지 직종을 합하면 노년기 경제활동의 총 79%를 설명한다. 이러한 분포는 특히 지역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동부 중심의 도시지역 경제활동 참여 노인 가운데 43.4%가 단순노무직,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 경제활동 참여 노인 가운데 81.7%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54.5%로 나타났으며(남자 51.6%), 연령이 높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보았을 때 전기노인과 85세 이상의 최고령 집단에서 관리자, 전문직, 기능직 종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85세 이상의 최고령층 가운데 34.8%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40.7%), 배우자가 있는 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력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2%로 학력집단 중 가장 높다. 반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31.3%가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과 종사직종간에 체계적인 연관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 및 전문가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8-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사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 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계 (명)
전체 <sup>1)</sup>	1.0	2.0	0.3	4.3	7.4	52.9	3.2	2.8	26.1	100.0 (3,583)
지역										
동부	2.0	4.0	0.5	6.2	12.2	20.9	5.6	5.1	43.4	100.0 (1,701)
읍·면부	0.1	0.3	0.1	2.7	3.1	81.7	0.9	0.7	10.5	100.0 (1,884)
성										
남자	1.7	3.3	0.4	3.5	5.9	51.6	4.2	4.9	24.5	100.0 (1,957)
여자	0.1	0.6	0.2	5.3	9.2	54.5	1.8	0.3	28.0	100.0 (1,630)
연령										
65~69세	1.4	2.4	0.3	6.2	9.0	44.4	4.8	5.2	26.4	100.0 (1,462)
70~74세	0.7	2.4	0.2	3.1	6.3	56.3	2.5	1.5	26.9	100.0 (1,234)
75~79세	0.6	0.5	0.3	2.8	5.3	64.2	1.4	0.5	24.4	100.0 ( 643)
80~84세	0.5	1.5	0.5	3.0	9.6	60.4	0.0	1.5	22.8	100.0 ( 197)
85세 이상	2.2	4.3	0.0	6.5	4.3	43.5	4.3	0.0	34.8	100.0 ( 4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	2.5	0.3	3.8	6.9	56.6	3.2	3.5	22.2	100.0 (2,834)
배우자 없음	0.5	0.3	0.0	6.5	9.5	39.1	2.9	0.4	40.7	100.0 ( 751)
가구형태										
노인독거	0.2	0.4	0.0	7.5	9.6	41.0	2.8	0.4	38.2	100.0 ( 534)
노인부부	1.1	2.1	0.4	3.8	6.4	60.0	2.7	3.2	20.3	100.0 (2,141)
자녀동거	1.3	3.0	0.3	3.9	9.1	39.7	5.0	3.5	34.2	100.0 ( 745)
기타	0.0	2.4	0.0	3.0	6.1	58.2	1.8	2.4	26.1	100.0 ( 16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0.0	3.4	4.3	62.8	0.3	0.0	29.3	100.0 ( 328)
무학(글자해독)	0.1	0.1	0.3	2.8	6.1	59.0	2.0	0.7	28.7	100.0 ( 703)
초등학교	0.1	0.3	0.1	3.5	7.6	62.1	2.5	1.9	21.8	100.0 (1,439)
중·고등학교	0.9	1.8	0.3	7.0	9.8	36.6	5.7	6.6	31.2	100.0 ( 955)
전문대학 이상	14.4	31.3	1.9	5.0	3.8	18.8	5.6	3.1	16.3	100.0 ( 1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1.5	0.0	1.9	5.5	51.7	0.2	0.2	38.9	100.0 ( 470)
제2오분위	0.0	0.4	0.0	2.7	6.1	62.5	2.0	0.6	25.6	100.0 ( 784)
제3오분위	0.3	1.9	0.2	4.1	6.1	59.3	2.8	2.1	23.2	100.0 ( 913)
제4오분위	0.4	1.7	0.7	6.4	8.4	47.8	3.9	5.9	24.8	100.0 ( 826)
제5오분위	4.9	5.4	0.2	6.1	11.4	38.5	6.3	4.4	22.9	100.0 ( 590)
기능상태										
제한 없음	0.0	0.0	0.0	0.6	5.0	67.1	0.6	0.0	26.7	100.0 (3,421)
제한 있음	1.0	2.1	0.3	4.5	7.5	52.3	3.2	3.0	26.1	100.0 ( 161)
2008년도	2.0	1.2	0.5	2.7	5.7	60.5	1.6	1.3	23.4	100.0 (3,22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종사상 지위의 경우 전체 노인의 47.0%가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무급가족종사자(19.5%), 일용근로자(10.2%), 임시근로자(8.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8-3 참조). 특히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59.1%인 반면 동부 중심의 도시지역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3.5%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상용근로자(5.8%), 임시근로자(16.1%) 등 근로자의 비율이 읍·면부에 비해 높은 반면 폐휴지 줍기(동부 6.8%, 읍·면부 0.6%), 일용근로자(동부 13.7%, 읍·면부 7.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다소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으나 동부에 거주하느냐 또는 읍·면부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남자 64.4%, 여자 25.9%) 반면 여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40.9%로서 남자의 1.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급가족종사(23.3%), 임시근로자(9.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폐휴지(7.9%), 일용근로자(19.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사하게 노인독거가구에서 폐휴지(6.0%), 일용근로(20.5%)의 비율이 타 가구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용근로(4.8%), 임시근로자(11.4%)의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종사상 지위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폐휴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8-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특성	폐휴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3.5	47.0	1.3	19.5	3.3	8.5	10.2	6.7	100.0 (3,583)
지역									
동부	6.8	33.5	2.1	10.2	5.8	16.1	13.7	11.8	100.0 (1,699)
읍·면부	0.6	59.1	0.5	27.9	1.1	1.5	7.2	2.1	100.0 (1,883)
성									
남자	2.5	64.4	1.9	1.7	5.4	11.4	7.3	5.5	100.0 (1,956)
여자	4.9	25.9	0.6	40.9	0.9	4.9	13.8	8.2	100.0 (1,627)
연령									
65~69세	2.0	44.5	2.5	18.5	4.8	13.1	10.0	4.7	100.0 (1,462)
70~74세	3.6	45.7	0.6	20.9	3.6	7.0	11.7	6.8	100.0 (1,236)
75~79세	4.4	51.6	0.2	20.5	0.3	3.4	8.6	11.0	100.0 ( 643)
80~84세	9.1	56.9	0.0	17.3	1.0	1.0	8.1	6.6	100.0 ( 197)
85세 이상	17.8	48.9	0.0	11.1	0.0	4.4	11.1	6.7	100.0 ( 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47.0	1.6	23.3	3.7	9.1	7.8	5.1	100.0 (2,834)
배우자 없음	7.9	46.7	0.3	5.1	1.7	6.0	19.6	12.8	100.0 ( 750)
가구형태									
노인독거	6.0	53.8	0.4	1.1	1.1	5.3	20.5	11.8	100.0 ( 533)
노인부부	2.1	47.8	1.2	25.2	3.5	8.3	7.8	4.2	100.0 (2,138)
자녀동거	5.8	39.1	2.0	16.2	4.8	11.4	10.9	9.8	100.0 ( 745)
기타	4.2	48.8	1.8	20.5	1.8	8.4	5.4	9.0	100.0 ( 1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9	38.2	0.0	29.1	1.2	0.6	17.1	4.9	100.0 ( 327)
무학(글자해독)	6.0	39.0	0.0	28.3	0.9	4.1	13.2	8.5	100.0 ( 703)
초등학교	2.6	49.5	0.3	24.0	1.5	5.8	9.4	6.9	100.0 (1,439)
중·고등학교	1.6	53.8	1.9	6.1	7.1	16.5	7.4	5.5	100.0 ( 955)
전문대학 이상	3.1	35.6	13.8	0.6	11.9	19.4	8.1	7.5	100.0 ( 1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2	45.4	1.7	11.3	0.0	1.5	16.1	13.8	100.0 ( 471)
제2오분위	3.8	48.4	0.0	23.1	1.4	2.9	11.2	9.2	100.0 ( 785)
제3오분위	2.1	47.5	0.1	22.7	2.4	10.0	10.5	4.7	100.0 ( 913)
제4오분위	1.8	50.4	0.1	19.2	5.9	11.6	6.9	4.0	100.0 ( 825)
제5오분위	2.7	40.3	5.9	16.9	6.3	14.7	8.5	4.6	100.0 ( 590)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	47.2	1.3	19.0	3.5	8.7	10.2	6.6	100.0 (3,422)
제한 있음	4.9	41.4	0.0	29.6	0.0	3.7	12.3	8.0	100.0 ( 162)
2008년도 <sup>2)</sup>	-	58.0	0.7	20.4	5.6	5.1	10.2	-	100.0 ( 16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선택지에 폐휴지와 기타가 없었음.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현 직종 종사기간을 분석해 보면, 24.7%는 5년 미만의 짧은 근로경력을 갖고 있는 반면 50.1%는 30년 이상의 장기 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생애 최장기 종사 직종이 계속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구한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 경력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표 II-8-4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에서 41.7%가 5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부 지역의 경우 73.1%가 30년 이상의 장기 근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69세의 전기노인의 경우 5년 미만의 짧은 근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26.3%) 이는 최장기 종사직 종으로부터의 이직이 비교적 전기노인에게서 더욱 용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가 없을수록 단기근속의 비율이 높았으며(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34.8%가 5년미만 근로)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2.4%가 30년 이상의 장기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특성은 가구특성과 연결되어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현직에 3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독거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에서 5년 이하 단기 종사자 비율이 각각 31.9%와 3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및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에서 5년 이하의 단기 근로 비율이 각각 37.1%와 31.1%로 높게 나타나며 학력 수준이 낮은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모두 50%이상이 30년 이상 장기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퇴직연령이 없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5년 이하의 단기종사의 경우 제1오분위의 저소득층(32.6%)과 제5오분위의 고소득층(29%)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반면 30년 이상 장기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제1오분위 48%, 제5오분위 39.9%). 반면 제3오분위의 중간소득층의 경우 5년 이하의 단기종사 비율이 19.3%로 가장 낮고 30년 이상의 장기종사 비율이 57.1%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들의 현직 종사기간 특성이 양 극단 계층과 중간계층이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1-8-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체 <sup>1)</sup>	24.7	8.9	8.3	8.0	50.1	100.0 (3,575)
지역						
동부	41.7	12.8	10.7	10.1	24.6	100.0 (1,694)
읍·면부	9.3	5.5	6.2	6.0	73.1	100.0 (1,878)
성						
남자	24.2	10.0	8.8	8.3	48.7	100.0 (1,953)
여자	25.3	7.8	7.8	7.5	51.7	100.0 (1,624)
연령						
65~69세	26.3	11.1	9.9	10.2	42.5	100.0 (1,458)
70~74세	24.5	8.0	7.9	6.9	52.7	100.0 (1,233)
75~79세	22.5	6.2	5.9	6.6	58.8	100.0 ( 641)
80~84세	22.2	7.1	7.1	4.5	59.1	100.0 ( 198)
85세 이상	22.7	11.4	6.8	2.3	56.8	100.0 ( 4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0	9.4	8.2	8.0	52.4	100.0 (2,828)
배우자 없음	34.8	7.4	8.6	7.8	41.5	100.0 ( 747)
가구형태						
노인독거	31.9	7.7	8.8	7.7	43.9	100.0 ( 533)
노인부부	19.8	9.1	7.9	8.4	54.9	100.0 (2,143)
자녀동거	34.4	10.3	9.4	7.1	38.8	100.0 ( 746)
기타	21.6	4.9	6.8	7.4	59.3	100.0 ( 16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9	8.6	4.3	4.3	59.9	100.0 ( 327)
무학(글자해독)	22.5	5.4	6.4	5.7	59.9	100.0 ( 701)
초등학교	20.5	6.8	7.6	8.7	56.5	100.0 (1,433)
중·고등학교	31.1	13.4	12.3	9.5	33.7	100.0 ( 955)
전문대학 이상	37.1	18.2	8.2	9.4	27.0	100.0 ( 15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6	8.1	7.0	4.3	48.0	100.0 ( 469)
제2오분위	23.9	6.9	5.9	6.8	56.6	100.0 ( 783)
제3오분위	19.3	8.7	8.3	6.6	57.1	100.0 ( 911)
제4오분위	23.8	9.4	11.4	10.7	44.7	100.0 ( 823)
제5오분위	29.0	12.2	8.1	10.7	39.9	100.0 ( 5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8	8.7	8.3	8.2	49.9	100.0 (3,416)
제한 있음	21.9	13.8	8.1	3.1	53.1	100.0 ( 160)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3,5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8명을 제외함.

다음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역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 전체의 79.4%를 차지해 가장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6.8%의 노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5.6%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4.4%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등의 목적으로 응답했다(표 II-8-5 참조).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의 비율은 동부 지역에 비해 읍·면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83.4%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동부지역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74.9%이다. 그러나 동부지역 노인이 읍·면부지역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의 목표를 생계보다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동부 9.2%, 읍·면부 4.6%) 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인식 정도에 있어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목적의 경제활동 응답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에게서 생계 목적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 후기노인에게서는 용돈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비교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81.2%가 생계비 목적으로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72.5%로 응답률이 낮다. 반면 용돈이라는 응답률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4%,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12.2%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높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초등학교 졸업 등 저학력층에서 생계비 목적의 경제활동 응답 비율이 높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생계비 목적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48.4%에 불과했다. 오히려 고학력자의 경우 능력발휘(18.5%), 경력활용(10.8%) 등 커리어 관리의 측면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분포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저소득층에서 생계비 목적의 경제활동 수행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용돈(10.1%), 건강유지(9.2%), 경력활용(4.4%) 등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1-8-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 마련	용돈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79.4	6.8	5.6	0.2	4.4	1.3	1.6	0.9	100.0 (3,568)
지역									
동부	74.9	9.2	5.6	0.2	4.3	2.1	1.8	1.8	100.0 (1,686)
읍·면부	83.4	4.6	5.5	0.1	4.4	0.5	1.3	0.1	100.0 (1,882)
성									
남자	82.1	4.2	5.7	0.2	3.3	1.6	1.8	1.1	100.0 (1,948)
여자	76.0	10.0	5.4	0.2	5.6	0.9	1.2	0.7	100.0 (1,621)
연령									
65~69세	83.2	5.2	4.2	0.1	2.9	1.8	1.4	1.0	100.0 (1,461)
70~74세	80.3	6.9	5.1	0.1	3.8	0.9	1.8	1.1	100.0 (1,226)
75~79세	74.5	8.5	8.3	0.2	6.4	0.5	1.3	0.5	100.0 ( 639)
80~84세	66.5	10.2	9.1	1.0	9.6	2.0	1.5	0.0	100.0 ( 197)
85세 이상	54.5	20.5	9.1	0.0	11.4	0.0	4.5	0.0	100.0 ( 4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1.2	5.4	5.5	0.1	3.9	1.4	1.5	1.1	100.0 (2,819)
배우자 없음	72.5	12.2	6.0	0.4	6.1	0.8	1.7	0.3	100.0 ( 748)
가구형태									
노인독거	79.7	6.4	5.6	0.4	5.5	0.9	1.3	0.2	100.0 ( 532)
노인부부	81.2	5.0	5.3	0.1	4.1	1.4	1.6	1.2	100.0 (2,129)
자녀동거	72.5	12.4	6.1	0.1	5.1	1.2	1.9	0.7	100.0 ( 741)
기타	86.1	5.4	7.2	0.0	0.6	0.6	0.0	0.0	100.0 ( 1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6.5	10.5	4.3	0.3	6.2	0.0	2.2	0.0	100.0 ( 323)
무학(글자해독)	81.3	7.9	4.3	0.0	4.7	0.6	0.9	0.4	100.0 ( 699)
초등학교	81.5	7.2	5.0	0.3	4.5	0.3	0.9	0.3	100.0 (1,435)
중·고등학교	80.9	4.4	7.7	0.1	3.6	0.7	1.4	1.2	100.0 ( 955)
전문대학 이상	48.4	5.1	5.1	0.0	3.2	18.5	10.8	8.9	100.0 ( 15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0.0	7.0	3.8	0.0	6.0	1.9	1.1	0.2	100.0 ( 469)
제2오분위	83.3	8.7	3.1	0.1	3.7	0.0	0.9	0.1	100.0 ( 779)
제3오분위	83.0	4.9	4.5	0.3	3.5	1.2	1.4	1.1	100.0 ( 913)
제4오분위	80.0	4.5	7.6	0.1	4.8	1.1	0.7	1.2	100.0 ( 820)
제5오분위	67.1	10.1	9.2	0.2	4.8	2.6	4.4	1.7	100.0 ( 586)
기능상태									
제한 없음	79.9	6.6	5.5	0.2	4.0	1.3	1.6	0.9	100.0 (3,407)
제한 있음	66.9	10.4	6.1	0.0	12.3	1.2	0.6	2.5	100.0 ( 163)
2008년도	85.9	3.7	5.9	0.5	3.7	- <sup>2)</sup>	- <sup>2)</sup>	0.3	100.0 (3,239)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3,5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2) 2008년도에 해당 보기가 없었음.

한편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9.4%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42.3%는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경제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8-6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 지역에 비해 현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더욱 높다. 읍·면부지역의 경우 24.5%가 만족하지 않는 편으로 응답해 현 경제활동의 욕구 충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남자의 경우 58.7%가 만족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43.4%가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연령군에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0.4%, 만족의 비율이 44.6%로 현재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타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52.4%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현 경제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30.6%로 가장 높으며 만족의 응답률도 42%로 72.6%가 현 경제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학력과 경제활동 특성이 긴밀히 연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제5오분위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현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률이 높은 반면 제1오분위의 저소득층의 경우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응답이 32.8%,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중단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18.4%로 나타나 일을 하고 싶지만 주·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9.1%는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표 II-8-7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일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높은 경향성을 보여 동부는 각각 27.3%와 30.3%인데 비하여



읍·면부는 35.3%와 41.8%이다. 또한 동부지역의 경우 읍·면부지역에 비해 일을 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동부 20.4%, 읍·면부 11.1%).

한편,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다. 한편,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일한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높다. 또한 기능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7.3%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29.5%보다 약 18%포인트 높다. 이는 당연한 응답경향이지만, 기능상 제한이 없어도 29.5%의 노인이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11-8-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sup>1)</sup>	9.4	42.3	27.4	17.7	3.1	100.0 (3,567)
지역						
동부	10.4	46.2	26.8	13.5	3.1	100.0 (1,687)
읍·면부	8.6	38.9	28.0	21.5	3.0	100.0 (1,881)
성						
남자	11.0	47.7	24.5	14.5	2.3	100.0 (1,949)
여자	7.5	35.9	31.0	21.7	3.9	100.0 (1,618)
연령						
65~69세	10.4	44.6	26.1	16.2	2.7	100.0 (1,461)
70~74세	8.9	41.4	29.0	18.3	2.4	100.0 (1,226)
75~79세	7.8	40.7	27.9	19.4	4.2	100.0 ( 639)
80~84세	12.6	35.4	24.7	22.2	5.1	100.0 ( 198)
85세 이상	2.2	51.1	28.9	11.1	6.7	100.0 ( 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4	43.0	26.6	17.9	3.0	100.0 (2,821)
배우자 없음	9.5	39.7	30.3	17.1	3.3	100.0 ( 748)
가구형태						
노인독거	9.4	38.5	31.7	16.9	3.6	100.0 ( 533)
노인부부	9.2	42.7	27.6	18.0	2.4	100.0 (2,129)
자녀동거	10.6	44.1	25.5	16.4	3.4	100.0 ( 742)
기타	7.8	41.6	19.3	23.5	7.8	100.0 ( 166)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6.5	31.2	30.9	26.9	4.6	100.0 ( 324)
무학(글자해독)	6.6	35.8	31.5	21.7	4.4	100.0 ( 699)
초등학교	9.2	43.2	28.1	17.7	1.9	100.0 (1,433)
중·고등학교	9.4	49.8	23.6	13.8	3.4	100.0 ( 954)
전문대학 이상	30.6	42.0	19.1	6.4	1.9	100.0 ( 157)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8.5	34.0	29.7	23.5	4.3	100.0 ( 468)
제2오분위	6.7	36.7	29.7	22.7	4.2	100.0 ( 780)
제3오분위	8.4	42.9	28.1	17.7	2.7	100.0 ( 913)
제4오분위	8.9	47.1	26.9	15.3	1.8	100.0 ( 822)
제5오분위	16.2	49.1	22.0	10.1	2.7	100.0 ( 587)
<b>근로이유</b>						
생계비 마련	8.4	40.2	28.3	19.9	3.2	100.0 (2,832)
용돈 마련	7.9	49.2	25.2	16.5	1.2	100.0 ( 242)
건강 유지	13.6	66.7	14.6	2.5	2.5	100.0 ( 198)
기타	15.4	42.8	30.2	8.1	3.5	100.0 ( 285)
<b>2008년도</b>	<b>3.9</b>	<b>20.9</b>	<b>37.4</b>	<b>34.4</b>	<b>3.3</b>	<b>100.0 (3,230)</b>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3,5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표 11-8-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sup>2)</sup>

(단위: %, 명)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계 (명)
전체 <sup>1)</sup>	5.3	29.1	32.8	5.7	1.9	4.3	18.4	1.7	0.7	0.0	0.1	100.0 (6,939)
지역												
동부	5.9	27.3	30.3	6.6	1.8	5.1	20.4	1.7	0.7	0.0	0.1	100.0 (5,433)
읍·면부	3.1	35.3	41.8	2.5	2.5	1.5	11.1	1.7	0.5	0.0	0.0	100.0 (1,505)
성												
남자	6.1	30.2	31.3	1.2	1.8	0.2	26.4	1.5	1.2	0.0	0.2	100.0 (2,590)
여자	4.9	28.4	33.7	8.5	2.0	6.7	13.6	1.9	0.3	0.0	0.0	100.0 (4,350)
연령												
65~69세	5.5	23.9	31.5	9.2	1.7	3.7	21.1	1.7	1.3	0.0	0.3	100.0 (1,679)
70~74세	5.0	27.0	34.1	6.7	2.4	3.8	17.9	2.2	0.7	0.1	0.0	100.0 (1,987)
75~79세	5.6	30.1	36.7	3.6	1.8	4.5	15.8	1.3	0.6	0.1	0.0	100.0 (1,744)
80~84세	5.0	34.7	28.5	3.2	1.0	6.5	19.0	1.9	0.2	0.0	0.0	100.0 ( 959)
85세 이상	5.1	38.5	27.8	2.8	2.8	3.2	18.6	1.2	0.0	0.0	0.0	100.0 ( 56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7	28.2	31.0	6.7	1.6	4.0	19.4	1.6	0.9	0.0	0.0	100.0 (4,274)
배우자 없음	3.0	30.5	35.7	4.1	2.5	4.8	16.8	2.0	0.4	0.1	0.2	100.0 (2,666)
가구형태												
노인독거	3.0	31.2	37.9	1.2	2.7	4.5	17.0	2.3	0.3	0.0	0.0	100.0 (1,550)
노인부부	7.4	30.4	30.7	5.3	1.4	3.6	18.4	1.8	0.9	0.0	0.0	100.0 (2,974)
자녀동거	4.6	24.9	32.3	9.6	2.2	5.4	18.9	1.1	0.7	0.0	0.2	100.0 (2,094)
기타	1.6	33.0	30.8	5.9	1.2	1.9	21.8	2.8	0.6	0.3	0.0	100.0 ( 32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	33.3	43.2	2.3	2.1	2.2	13.3	2.0	0.4	0.0	0.0	100.0 ( 815)
무학(글자해독)	1.8	28.4	41.2	5.6	2.1	3.5	15.2	2.0	0.1	0.1	0.0	100.0 (1,477)
초등학교	3.7	27.9	34.8	6.6	1.9	6.2	17.0	1.6	0.3	0.0	0.0	100.0 (2,298)
중·고등학교	7.7	28.0	25.3	7.1	2.1	4.2	22.9	1.4	1.0	0.1	0.3	100.0 (1,772)
전문대학 이상	19.3	32.6	11.7	3.3	0.5	1.7	25.3	2.6	3.0	0.0	0.0	100.0 ( 5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	27.9	40.1	2.2	1.6	3.7	19.8	2.8	0.7	0.0	0.1	100.0 (1,637)
제2오분위	1.7	27.1	41.0	4.5	2.2	3.5	17.7	1.9	0.5	0.0	0.0	100.0 (1,333)
제3오분위	3.5	30.7	33.8	6.2	1.9	3.1	19.0	0.9	0.7	0.1	0.1	100.0 (1,184)
제4오분위	5.3	33.1	28.8	7.7	1.8	4.9	15.2	2.1	0.9	0.0	0.2	100.0 (1,286)
제5오분위	14.5	27.3	20.4	8.7	2.1	5.9	19.5	0.9	0.7	0.1	0.0	100.0 (1,499)
기능상태												
제한 없음	5.7	29.1	29.5	6.6	2.1	4.0	20.2	1.9	0.8	0.0	0.1	100.0 (5,632)
제한 있음	3.4	29.0	47.3	1.8	1.1	5.4	10.6	1.1	0.2	0.1	0.0	100.0 (1,305)
2008년도	3.3	8.7	47.8	6.0	1.5	5.3	24.3	0.9	0.9	0.6	0.7	100.0 (7,51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6,9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2명을 제외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2)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3)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4)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5)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6)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7)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8) 일자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9) 내가 원하는 임금(보수)을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10)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지 몰라서, (11) 기타

## 제2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의 88.5%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향을 갖고 있었으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9.6%에 불과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표 II-8-8 참조).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의지는 지역별로 두드러진 편차는 없었으며 성별로 보았을 때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 보았을 때 전기노인이 후기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 지속의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졸업(91.6%), 전문대졸 이상(94.9%)의 고학력자에게서 현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 의지가 높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일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되어 고학력자들이 일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학력분포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소득층인 제5오분위에서 현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의사가 높게 나타났다(91.8%).

한편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12.9%만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희망률이 높다. 즉 정년이 없고 노인이 일할 기회가 많은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욕구 대비 미취업율이 높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전기노인에게서 향후 경제활동 참가 희망률이 높다. 65~69세 군의 경우 21.3%가 향후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표 II-8-9 참조).

〈표 11-8-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지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계속 일할 생각임	다른일로 바꾸고 싶음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계 (명)
전체 <sup>1)</sup>	88.5	1.9	9.6	100.0 (3,568)
지역				
동부	88.7	3.2	8.1	100.0 (1,687)
읍·면부	88.2	0.8	11.0	100.0 (1,881)
성				
남자	91.4	2.1	6.6	100.0 (1,949)
여자	84.9	1.9	13.2	100.0 (1,619)
연령				
65~69세	91.6	2.3	6.1	100.0 (1,463)
70~74세	88.5	2.0	9.6	100.0 (1,224)
75~79세	82.8	1.7	15.5	100.0 ( 639)
80~84세	82.7	0.0	17.3	100.0 ( 196)
85세 이상	93.3	0.0	6.7	100.0 ( 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8.7	1.9	9.4	100.0 (2,820)
배우자 없음	87.8	2.0	10.2	100.0 ( 747)
가구형태				
노인독거	86.7	2.4	10.9	100.0 ( 533)
노인부부	88.7	1.5	9.8	100.0 (2,128)
자녀동거	89.1	3.0	8.0	100.0 ( 741)
기타	88.6	1.2	10.2	100.0 ( 1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3.0	1.9	15.2	100.0 ( 323)
무학(글자해독)	85.6	1.7	12.7	100.0 ( 699)
초등학교	88.4	1.6	10.0	100.0 (1,433)
중·고등학교	91.6	2.4	6.0	100.0 ( 954)
전문대학 이상	94.9	3.2	1.9	100.0 ( 15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3.8	3.2	13.0	100.0 ( 468)
제2오분위	86.4	1.5	12.1	100.0 ( 779)
제3오분위	89.8	1.5	8.7	100.0 ( 913)
제4오분위	89.3	1.9	8.8	100.0 ( 821)
제5오분위	91.8	1.9	6.3	100.0 ( 586)
기능상태				
제한 없음	88.8	2.0	9.2	100.0 (3,406)
제한 있음	82.6	0.6	16.8	100.0 ( 161)
2008년도	88.8	1.3	9.9	100.0 (3,23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표 11-8-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sup>1)</sup>	12.9	87.1	100.0 (6,946)
지역			
동부	14.8	85.2	100.0 (5,440)
읍·면부	6.2	93.8	100.0 (1,505)
성			
남자	18.7	81.3	100.0 (2,592)
여자	9.5	90.5	100.0 (4,354)
연령			
65~69세	21.3	78.7	100.0 (1,682)
70~74세	15.4	84.6	100.0 (1,991)
75~79세	10.1	89.9	100.0 (1,743)
80~84세	4.9	95.1	100.0 ( 961)
85세 이상	1.8	98.2	100.0 ( 56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8	85.2	100.0 (4,278)
배우자 없음	10.0	90.0	100.0 (2,667)
가구형태			
노인독거	10.3	89.7	100.0 (1,550)
노인부부	13.2	86.8	100.0 (2,977)
자녀동거	14.1	85.9	100.0 (2,096)
기타	16.2	83.8	100.0 ( 32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7	92.3	100.0 ( 815)
무학(글자해독)	10.6	89.4	100.0 (1,480)
초등학교	11.9	88.1	100.0 (2,303)
중·고등학교	17.0	83.0	100.0 (1,775)
전문대학 이상	18.3	81.7	100.0 ( 57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9	87.1	100.0 (1,638)
제2오분위	11.8	88.2	100.0 (1,334)
제3오분위	15.2	84.8	100.0 (1,183)
제4오분위	11.8	88.2	100.0 (1,290)
제5오분위	13.2	86.8	100.0 (1,50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7	85.3	100.0 (5,643)
제한 있음	5.2	94.8	100.0 (1,303)
2008년도	32.2	67.8	100.0 (7,5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앞선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노인들의 현재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의사와의 일치율을 살펴본 〈표 II-8-10〉에 의하면 노인의 29.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있다. 또한 3.9%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에는 할 의향이 있는 반면, 8.6%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할 의사가 있고, 57.7%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의 약 60% 정도는 전혀 일을 할 의사가 없는 반면, 약 30%의 노인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도 현재 경제활동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12.5%가 욕구와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향후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이 3.9%인데 이는 비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으로 보여진다. 반면 8.6%는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으로 대부분이 취업욕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지며 일자리 개발과 기회제공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는 집단이다.

이러한 현황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동부 거주 노인에게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읍·면부의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하지 않는 비율이 66.2%로 남자노인의 46.5%에 비하여 약 20%포인트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85세 이상의 경우 91.0%에 달하고 있다. 반면 65~69세 연령군의 경우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충족 취업욕구를 갖고 있는 비율이 11.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80세 이상에서 급감한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70.4%로 높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무배우 상태인 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36.9%로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하지 않는 비율은 교육수준  
이나 가구소득의 경우 그 수준과 U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  
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 노인에게서 미충족 취업욕구가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 약 1/3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향후  
도 계속 일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반면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84.4%는  
현재와 향후 모두 경제활동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기능의 제한을 경험  
하는 노인의 9.1%가 일을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이다.



〈표 II-8-10〉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경제활동 의사

(단위: %, 명)

특성	현재 경제활동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있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할 의향 없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할 의사 있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할 의사가 없음	계 (명)
전체 <sup>1)</sup>	29.9	3.9	8.6	57.7	100.0 (10,421)
지역					
동부	20.7	2.6	11.4	65.3	100.0 ( 7,055)
읍·면부	49.1	6.5	2.7	41.7	100.0 ( 3,366)
성					
남자	39.1	3.6	10.7	46.5	100.0 ( 4,505)
여자	22.8	4.0	7.0	66.2	100.0 ( 5,916)
연령					
65~69세	42.3	3.8	11.5	42.4	100.0 ( 3,104)
70~74세	33.8	4.4	9.5	52.3	100.0 ( 3,191)
75~79세	22.0	4.6	7.4	65.9	100.0 ( 2,367)
80~84세	14.0	2.8	4.0	79.1	100.0 ( 1,146)
85세 이상	6.9	0.5	1.6	91.0	100.0 ( 61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1	4.4	9.0	51.5	100.0 ( 7,027)
배우자 없음	19.1	2.7	7.8	70.4	100.0 ( 3,393)
가구형태					
노인독거	22.1	3.4	7.7	66.8	100.0 ( 2,070)
노인부부	36.9	4.7	7.7	50.8	100.0 ( 5,051)
자녀동거	23.2	2.8	10.4	63.6	100.0 ( 2,819)
기타	29.3	3.8	10.7	56.3	100.0 ( 47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3.2	4.9	5.4	66.4	100.0 ( 1,120)
무학(글자해독)	27.3	4.5	7.2	60.9	100.0 ( 2,160)
초등학교	33.9	4.4	7.3	54.4	100.0 ( 3,707)
중·고등학교	31.9	2.9	11.1	54.1	100.0 ( 2,702)
전문대학 이상	20.1	1.1	14.4	64.4	100.0 ( 73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4	3.6	10.0	68.0	100.0 ( 2,088)
제2오분위	31.6	5.0	7.4	56.0	100.0 ( 2,096)
제3오분위	39.0	4.3	8.6	48.0	100.0 ( 2,073)
제4오분위	34.5	4.1	7.3	54.0	100.0 ( 2,087)
제5오분위	25.8	2.3	9.5	62.3	100.0 ( 2,0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3	4.2	9.2	53.3	100.0 ( 8,964)
제한 있음	9.1	1.9	4.6	84.4	100.0 ( 1,45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0명을 제외함.

한편,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3.9%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이 용돈이 필요해서로 20.0%,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7.7%,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9%,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가 1.9%로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함을 볼 수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를 해보면 도시지역과 남자노인에게서 건강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으며, 8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은 층(전문대학 이상)에서 월등히 높아 29.8%에 달하고 있다(표 II-8-11 참조).

〈표 II-8-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 (명)
전체 <sup>1)</sup>	53.9	20.0	10.6	1.9	5.9	7.7	100.0 (900)
지역							
동부	53.7	18.9	11.1	2.0	6.3	8.1	100.0 (805)
읍·면부	56.4	29.8	6.4	1.1	2.1	4.3	100.0 ( 94)
성							
남자	54.8	13.4	12.0	0.6	9.3	9.9	100.0 (485)
여자	52.6	27.9	8.9	3.1	2.2	5.3	100.0 (416)
연령							
65~69세	55.6	16.7	11.4	1.7	7.5	7.2	100.0 (360)
70~74세	56.4	20.8	8.5	3.6	3.9	6.8	100.0 (307)
75~79세	50.6	22.2	11.9	0.0	7.4	8.0	100.0 (176)
80~84세	40.4	34.0	8.5	0.0	2.1	14.9	100.0 ( 47)
85세 이상	27.3	18.2	36.4	0.0	0.0	18.2	100.0 ( 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2.7	19.4	11.2	1.6	7.4	7.7	100.0 (634)
배우자 없음	56.8	21.8	9.0	2.6	2.3	7.5	100.0 (266)
가구형태							
노인독거	69.4	17.5	6.3	1.3	0.6	5.0	100.0 (160)
노인부부	51.7	18.8	12.5	1.5	8.9	6.6	100.0 (393)
자녀동거	44.1	24.1	11.9	3.1	5.8	11.2	100.0 (295)
기타	78.4	15.7	0.0	0.0	0.0	5.9	100.0 ( 51)

특성	생계비를 미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귌 수 있으므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60.7	29.5	3.3	1.6	0.0	4.9	100.0 ( 61)
무학(글자해독)	62.4	24.2	7.0	2.5	0.0	3.8	100.0 (157)
초등학교	58.2	21.1	12.7	1.1	2.9	4.0	100.0 (275)
중·고등학교	54.1	17.2	9.2	2.0	5.0	12.5	100.0 (303)
전문대학 이상	24.0	14.4	18.3	2.9	29.8	10.6	100.0 (104)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74.4	11.4	3.3	1.9	5.2	3.8	100.0 (211)
제2오분위	59.2	24.2	5.1	0.6	1.9	8.9	100.0 (157)
제3오분위	57.5	23.2	9.9	1.7	3.3	4.4	100.0 (181)
제4오분위	41.2	20.3	16.3	1.3	5.9	15.0	100.0 (153)
제5오분위	34.3	23.2	18.7	3.5	12.1	8.1	100.0 (198)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53.0	20.2	10.7	2.0	6.4	7.7	100.0 (832)
제한 있음	64.7	19.1	8.8	0.0	0.0	7.4	100.0 ( 68)
2008년도	45.3	22.9	16.4	4.1	9.4	1.9	100.0 (2,435)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경제활동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희망하는 일은 이전 종사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 41.6%,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가 34.0%, 취미생활을 통한 부수입 창출을 위한 여가형 직종이 12.2%, 새로운 직종에 취업이 10.5%, 창업 0.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창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다양한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표 II-8-12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부 거주 노인은 새로운 직종에 대한 선호(11.1%)와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희망율(34.5%)이 읍·면부 거주 노인의 5.3%와 29.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성별로는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아 각각 7.2%와 13.2%이다. 반면 여자노인에게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희망률이 높아 39.3%인데 이는 남자 노인의 29.5%에 비하여 약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취미생활을 통한 부수입 창출을 희망한 비율도 여자노인이 16.1%로 남자노인의 8.7%의 두 배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사직종 희망률은 낮고 취미생활을 통한 부수입 창출이라는 응답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독거노인에게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희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표II-8-13〉을 기준으로 하여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노인은 7.1%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주 2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기대하는 임금수준은 중요하다. 20~50만원이 39.9%이며 50~100만원이 38.8%인 등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는 노인은 매우 소수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 거주 노인, 여자노인, 독거노인, 무학노인에게서 20만원 이하를 기대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표II-8-14 참조).

〈표 11-8-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특성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에 취업	창업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참여	취미생활을 통한 부수입 (여가형 직종)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41.6	10.5	0.9	34.0	12.2	0.8	100.0 (900)
지역							
동부	40.9	11.1	1.0	34.5	11.8	0.7	100.0 (805)
읍·면부	47.9	5.3	0.0	29.8	16.0	1.1	100.0 ( 94)
성							
남자	46.9	13.2	0.6	29.5	8.7	1.0	100.0 (484)
여자	35.7	7.2	1.2	39.3	16.1	0.5	100.0 (415)
연령							
65~69세	43.9	13.7	0.8	27.7	12.8	1.1	100.0 (358)
70~74세	46.6	7.2	1.0	32.9	11.4	1.0	100.0 (307)
75~79세	32.4	11.9	0.0	46.0	9.7	0.0	100.0 (176)
80~84세	29.8	4.3	0.0	46.8	19.1	0.0	100.0 ( 47)
85세 이상	30.0	0.0	20.0	20.0	30.0	0.0	100.0 ( 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2.5	12.8	0.6	32.4	10.7	0.9	100.0 (633)
배우자 없음	39.5	4.9	1.5	38.0	15.8	0.4	100.0 (266)
가구형태							
노인독거	33.8	3.8	0.0	46.9	15.6	0.0	100.0 (160)
노인부부	45.4	6.4	1.0	34.2	11.5	1.5	100.0 (392)
자녀동거	43.1	13.9	1.4	28.8	12.9	0.0	100.0 (295)
기타	30.2	41.5	0.0	22.6	3.8	1.9	100.0 ( 5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6	12.9	3.2	33.9	27.4	0.0	100.0 ( 62)
무학(글자해독)	42.3	7.7	1.3	33.3	13.5	1.9	100.0 (156)
초등학교	37.6	11.7	0.4	36.9	12.4	1.1	100.0 (274)
중·고등학교	47.0	9.3	0.3	33.1	9.9	0.3	100.0 (302)
전문대학 이상	46.2	14.2	1.9	30.2	7.5	0.0	100.0 (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8.7	8.0	0.5	41.0	10.4	1.4	100.0 (212)
제2오분위	38.2	8.3	0.0	40.8	12.1	0.6	100.0 (157)
제3오분위	47.5	8.4	0.0	30.7	13.4	0.0	100.0 (179)
제4오분위	44.1	11.2	2.6	29.6	11.2	1.3	100.0 (152)
제5오분위	41.4	15.7	1.5	27.3	14.1	0.0	100.0 (1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3	10.7	0.5	33.3	11.5	0.7	100.0 (833)
제한 있음	20.9	7.5	6.0	43.3	20.9	1.5	100.0 ( 67)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8-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 근로 시간

(단위: %, 명)

특성	20시간 이하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30시간 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계 (명)
전체 <sup>1)</sup>	49.9	23.4	19.6	7.1	100.0 (900)
지역					
동부	49.0	24.1	20.2	6.7	100.0 (806)
읍·면부	57.4	18.1	13.8	10.6	100.0 ( 94)
성					
남자	37.4	20.4	32.1	10.1	100.0 (486)
여자	64.6	27.0	4.8	3.6	100.0 (415)
연령					
65~69세	37.9	24.0	28.4	9.7	100.0 (359)
70~74세	54.4	21.5	17.9	6.2	100.0 (307)
75~79세	61.9	25.6	8.5	4.0	100.0 (176)
80~84세	66.0	27.7	2.1	4.3	100.0 ( 47)
85세 이상	60.0	0.0	40.0	0.0	100.0 ( 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6.9	23.2	22.1	7.7	100.0 (633)
배우자 없음	57.3	23.6	13.5	5.6	100.0 (267)
가구형태					
노인독거	62.5	20.0	12.5	5.0	100.0 (160)
노인부부	51.3	22.7	17.1	8.9	100.0 (392)
자녀동거	41.9	26.0	26.7	5.4	100.0 (296)
기타	48.1	25.0	19.2	7.7	100.0 ( 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3.5	20.6	11.1	4.8	100.0 ( 63)
무학(글자해독)	56.7	24.8	12.7	5.7	100.0 (157)
초등학교	52.2	23.7	15.3	8.8	100.0 (274)
중·고등학교	44.0	21.9	24.8	9.3	100.0 (302)
전문대학 이상	43.3	26.9	29.8	0.0	100.0 (1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3.2	16.0	13.2	7.5	100.0 (212)
제2오분위	61.4	22.2	13.3	3.2	100.0 (158)
제3오분위	39.2	29.3	21.0	10.5	100.0 (181)
제4오분위	49.0	20.9	19.6	10.5	100.0 (153)
제5오분위	37.4	28.8	29.8	4.0	100.0 (1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9.0	24.4	19.9	6.7	100.0 (831)
제한 있음	62.7	10.4	14.9	11.9	100.0 ( 67)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11-8-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 소득수준

(단위: %, 명)

특성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계 (명)
전체 <sup>1)</sup>	9.8	39.9	38.8	10.9	0.6	100.0 (897)
지역						
동부	9.2	39.0	39.7	11.5	0.6	100.0 (803)
읍·면부	15.1	47.3	31.2	6.5	0.0	100.0 ( 93)
성						
남자	4.5	24.6	50.8	19.0	1.0	100.0 (484)
여자	16.0	57.6	24.7	1.7	0.0	100.0 (413)
연령						
65~69세	4.7	29.7	43.6	21.1	0.8	100.0 (360)
70~74세	11.8	41.5	42.2	3.9	0.7	100.0 (306)
75~79세	11.9	54.5	30.1	3.4	0.0	100.0 (176)
80~84세	29.5	50.0	18.2	2.3	0.0	100.0 ( 44)
85세 이상	9.1	54.5	18.2	18.2	0.0	100.0 ( 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9	35.8	43.1	12.5	0.8	100.0 (634)
배우자 없음	14.8	49.6	28.4	7.2	0.0	100.0 (264)
가구형태						
노인독거	15.1	54.1	27.0	3.8	0.0	100.0 (159)
노인부부	8.9	36.2	42.1	11.7	1.0	100.0 (392)
자녀동거	8.2	35.3	42.8	13.7	0.0	100.0 (292)
기타	7.7	51.9	26.9	11.5	1.9	100.0 ( 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3	68.3	14.3	3.2	0.0	100.0 ( 63)
무학(글자해독)	19.2	45.5	26.3	9.0	0.0	100.0 (156)
초등학교	9.5	41.0	45.8	3.7	0.0	100.0 (273)
중·고등학교	6.3	34.3	42.9	15.5	1.0	100.0 (303)
전문대학 이상	3.9	26.5	43.1	24.5	2.0	100.0 (1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7	51.4	26.4	9.4	0.0	100.0 (212)
제2오분위	15.3	43.3	36.9	3.2	1.3	100.0 (157)
제3오분위	5.0	34.4	52.2	7.8	0.6	100.0 (180)
제4오분위	9.2	37.3	39.9	12.4	1.3	100.0 (153)
제5오분위	7.1	32.1	40.3	20.4	0.0	100.0 (1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9.3	39.7	39.4	11.0	0.6	100.0 (829)
제한 있음	16.2	42.6	30.9	10.3	0.0	100.0 ( 68)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이들이 구직시 우선시 하는 조건에 대한 질문에 25.3%가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노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자신의 위상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은 남자노인, 후기노인층,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높다. 또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20.1%이고,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가 15.6%,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는 응답이 10.1%, 최소한의 임금수준이 맞아야 한다가 8.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8-15 참조).

〈표 II-8-16〉에 의하면 일자리를 희망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32.1%에 달하고 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 중 12.9%만이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실제 구체적인 구직노력을 하는 노인은 약 2/3에 불과한 것이다. 구직 노력방법으로는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한다가 가장 많아 30.3%이며 다음이 개인적 인맥을 통해 알아보았다는 응답으로 21.1%이며, 노인복지관 등 복지관을 통해 구직했다는 응답도 7.8%이다. 그 외의 방법은 매우 소수이다. 구체적인 구직 노력은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8-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 우선조건(1순위)<sup>2)</sup>

(단위: %, 명)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명)
전체 <sup>1)</sup>	1.3	25.3	8.4	10.0	7.4	15.6	9.5	20.1	0.4	0.9	0.3	0.8	100.0 (900)
지역													
동부	1.5	25.1	9.0	10.3	7.1	14.9	9.7	19.8	0.5	0.9	0.4	0.9	100.0 (804)
읍·면부	0.0	26.9	3.2	7.5	9.7	21.5	7.5	22.6	0.0	1.1	0.0	0.0	100.0 ( 93)
성													
남자	0.2	27.7	10.3	7.4	11.2	13.0	12.4	14.0	0.6	1.7	0.6	0.8	100.0 (484)
여자	2.7	22.4	6.0	13.0	2.9	18.6	6.3	26.7	0.2	0.2	0.0	1.0	100.0 (415)
연령													
65~69세	0.3	23.7	10.6	14.8	8.7	14.5	11.7	13.7	0.0	1.7	0.3	0.0	100.0 (358)
70~74세	1.6	28.2	6.2	9.4	5.8	14.9	7.5	23.1	1.3	0.6	0.0	1.3	100.0 (308)
75~79세	3.4	24.0	8.6	4.0	8.0	17.1	10.3	22.9	0.0	0.0	1.1	0.6	100.0 (175)
80~84세	0.0	26.1	8.7	4.3	2.2	19.6	4.3	30.4	0.0	0.0	0.0	4.3	100.0 ( 46)
85세 이상	0.0	0.0	0.0	0.0	20.0	30.0	0.0	50.0	0.0	0.0	0.0	0.0	100.0 ( 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8	23.9	8.1	10.3	8.4	15.5	11.5	18.8	0.6	1.3	0.5	0.5	100.0 (633)
배우자 없음	2.6	28.2	9.4	9.4	4.9	15.8	4.9	22.9	0.0	0.4	0.0	1.5	100.0 (266)
가구형태													
노인독거	2.5	33.3	3.8	7.5	3.8	21.4	5.0	22.0	0.0	0.0	0.0	0.6	100.0 (159)
노인부부	0.3	24.5	7.1	11.0	8.2	17.9	13.0	15.3	1.0	0.5	0.5	0.8	100.0 (392)
자녀동거	2.4	24.0	11.8	10.5	8.8	9.5	7.1	22.6	0.0	2.4	0.0	1.0	100.0 (296)
기타	0.0	13.5	13.5	7.7	3.8	15.4	11.5	32.7	0.0	0.0	1.9	0.0	100.0 ( 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7	17.7	12.9	0.0	3.2	17.7	9.7	27.4	0.0	1.6	0.0	0.0	100.0 ( 62)
무학(글자해독)	2.5	35.7	7.0	5.7	3.2	19.7	4.5	21.7	0.0	0.0	0.0	0.0	100.0 (157)
초등학교	0.7	23.6	8.4	12.0	3.6	19.6	7.6	21.5	0.0	2.2	0.0	0.7	100.0 (275)
중·고등학교	0.0	26.2	7.6	10.6	11.3	11.3	13.3	17.3	0.7	0.3	1.0	0.3	100.0 (301)
전문대학 이상	0.0	15.4	9.6	14.4	16.3	10.6	10.6	16.3	1.9	1.0	0.0	3.8	100.0 (1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	25.5	3.8	5.2	6.6	18.9	12.7	23.6	0.5	0.0	0.0	0.9	100.0 (212)
제2오분위	0.6	29.5	8.3	9.0	4.5	19.9	9.6	17.3	0.0	0.6	0.0	0.6	100.0 (156)
제3오분위	1.1	29.1	5.6	7.3	6.1	17.9	10.6	21.2	0.0	0.6	0.6	0.0	100.0 (179)
제4오분위	2.0	14.8	18.8	12.1	10.1	14.8	8.1	15.4	1.3	0.7	1.3	0.7	100.0 (149)
제5오분위	0.0	26.9	8.1	16.8	9.6	7.1	6.1	20.3	0.0	3.0	0.0	2.0	100.0 (19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	25.5	7.8	10.7	7.3	15.4	10.1	19.3	0.5	1.1	0.4	1.0	100.0 (833)
제한 있음	3.0	22.4	16.4	1.5	9.0	17.9	3.0	26.9	0.0	0.0	0.0	0.0	100.0 ( 67)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없음, (2)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3)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4)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5)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6)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7)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8)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9)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10) 직장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11)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12)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표 11-8-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활동(1순위)

(단위: %, 명)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32.1	7.8	30.3	1.6	1.7	1.1	0.8	0.3	1.2	21.1	1.6	100.0 (895)
지역												
동부	30.2	8.5	30.7	1.7	1.7	1.1	0.9	0.4	1.1	21.4	1.7	100.0 (802)
읍·면부	48.4	2.2	26.9	0.0	1.1	1.1	0.0	0.0	2.2	18.3	0.0	100.0 ( 93)
성												
남자	26.4	7.6	26.4	2.7	2.1	1.9	0.8	0.4	1.7	26.7	2.7	100.0 (484)
여자	38.7	8.0	34.8	0.2	1.0	0.5	0.5	0.0	1.0	14.8	0.2	100.0 (411)
연령												
65~69세	29.3	5.1	23.1	0.3	2.5	2.3	0.8	0.6	2.3	32.4	0.8	100.0 (355)
70~74세	32.4	9.5	33.7	2.9	1.3	0.3	0.7	0.0	0.7	15.4	2.6	100.0 (306)
75~79세	31.3	11.4	44.9	0.0	0.0	0.6	0.0	0.6	0.0	11.4	0.0	100.0 (176)
80~84세	51.1	8.5	14.9	2.1	2.1	0.0	2.1	0.0	0.0	12.8	6.4	100.0 ( 47)
85세 이상	55.6	0.0	0.0	22.2	0.0	0.0	0.0	0.0	11.1	11.1	0.0	100.0 ( 9) <sup>3)</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5	8.7	28.8	2.1	1.7	1.4	0.8	0.3	1.4	21.3	2.2	100.0 (629)
배우자 없음	35.7	5.6	33.8	0.4	1.1	0.4	0.8	0.4	0.8	20.7	0.4	100.0 (266)
가구형태												
노인독거	30.6	6.9	39.6	0.6	0.6	0.6	0.6	0.0	0.0	20.8	0.0	100.0 (159)
노인부부	31.9	9.3	31.6	1.3	1.3	2.3	0.5	0.0	1.5	19.0	0.8	100.0 (389)
자녀동거	32.5	7.1	24.7	2.4	0.7	0.0	0.7	0.7	2.0	24.7	3.7	100.0 (295)
기타	36.0	4.0	26.0	0.0	12.0	0.0	4.0	0.0	0.0	18.0	0.0	100.0 ( 5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0.8	6.3	25.4	0.0	1.6	0.0	3.2	0.0	0.0	12.7	0.0	100.0 ( 63)
무학(글자해독)	37.3	2.5	39.9	0.0	0.6	0.0	0.0	0.0	0.6	16.5	1.3	100.0 (158)
초등학교	26.4	8.1	41.0	0.4	3.7	0.0	0.0	0.7	0.7	19.0	0.0	100.0 (273)
중·고등학교	26.4	11.4	21.7	3.7	1.0	3.0	0.3	0.3	3.0	25.4	3.0	100.0 (299)
전문대학 이상	42.9	6.7	14.3	1.9	0.0	1.0	2.9	0.0	0.0	26.7	3.8	100.0 (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7	5.7	38.2	0.9	1.4	3.3	0.0	0.0	0.5	17.9	0.5	100.0 (212)
제2오분위	35.4	10.8	36.1	0.0	0.0	0.6	0.6	0.0	1.3	14.6	0.6	100.0 (158)
제3오분위	25.0	10.2	34.1	1.7	2.8	0.6	0.6	0.6	2.3	22.2	0.0	100.0 (176)
제4오분위	33.8	7.3	16.6	0.7	4.0	0.0	0.7	0.0	0.7	32.5	4.0	100.0 (151)
제5오분위	35.4	7.1	24.7	3.5	0.0	0.0	2.0	0.5	2.0	20.7	3.0	100.0 (1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3	7.7	29.8	1.7	1.7	1.2	0.8	0.4	1.4	21.7	1.7	100.0 (828)
제한 있음	41.8	9.0	35.8	0.0	0.0	0.0	0.0	0.0	0.0	13.4	0.0	100.0 ( 67)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없음, (2) 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 의뢰, (3)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의뢰, (4)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의뢰,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의뢰, (6) 시니어클럽 의뢰, (7) 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의뢰, (8) 지자체(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인천시노인취업정보센터) 의뢰, (9) 사실 직업 안내소 의뢰, (10) 개인적 인맥을 통해, (11)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제3절 최장기 종사 직업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가운데 다수는 현업이 생애 최장기 종사직종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I-8-17 참조). 즉,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67.8%는 현업이 최장기 종사직종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최장기 종사직종과 다른 새로운 직종인 사람들의 비율은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지역이 읍·면부 지역에 비해 현재 일이 최장기 종사직종이 아닌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9.3%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현업이 최장기 종사직종인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남자노인의 경우 이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장기 종사직종일 가능성이 높지만 85세 이상의 최고령층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일이 최장기 종사직종이 아닌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현재의 일이 최장기 종사직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퇴직연령이 없는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들의 최장기 종사직종을 분석해 보면 전체의 3.4%는 관리직에 종사했으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3.8%, 사무종사자 4.8%, 서비스 종사자 6.2%, 판매종사자 1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8.1%, 기능직 종사자가 9.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2%, 단순노무종사자 17.3% 등으로 나타나 최장기 종사직종에 있어서도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읍·면부지역의 경우 75.7%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였으며 동부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 직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43.6%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로서 남자의 32.1%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최장기 종사직종이 농림어업숙련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8-18 참조).

한편 노인의 최장기 종사직종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분석해 보면 자영업자가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밖에 상용근로자 21.5%, 무급가족종사자 21.3%, 일용근로자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부지역의 경우 동부지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46.4%로 가장 높고 동부지역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다(29.1%). 남자의 경우 자영업자(44.8%)와 상용근로자(33.9%)의 비율이 높으며

여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39.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노인의 최장기 종사직종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이 낮은 초졸 이하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교 졸업 및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표 II-8-19 참조).

최장기종사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살펴보면 6.5%는 5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종사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다. 동부지역에 비해 읍·면부 지역에서 장기종사의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최장기종사직종에서 종사한 기간이 30년 이상의 장기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수준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표 II-8-20 참조).

노인 가운데 최장기 종사직종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본 〈표 II-8-21〉에 의하면 정년퇴직이 13.8%, 정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의 비율이 4.3%, 직장의 파산/폐업/휴업의 비율이 6.6% 등 다수가 직장차원에서 기인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최장기 종사직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9.5%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둔 것으로 응답해 단일 응답으로는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 남자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 거주 노인,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정년퇴직으로 최장기 직업을 그만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27.7%가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정년퇴직을 하였다는 비율이 높아 65~69세군의 경우 16.6%이다.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은 동비율이 9.3%인데, 이는 일부 이들이 종사한 직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년퇴직을 언급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노인의 경우는 정년퇴직이 49.3%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정년퇴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높다. 또한 후기노인의 경우 이러한 응답률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층,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응답률이 높다. 글을 모르는 무학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63.8%에 달하고 있다.

〈표 11-8-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의 최장기 종사직종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sup>1)</sup>	67.8	32.2	100.0 (3,583)
지역			
동부	50.7	49.3	100.0 (1,699)
읍·면부	83.2	16.8	100.0 (1,884)
성			
남자	63.5	36.5	100.0 (1,955)
여자	72.9	27.1	100.0 (1,628)
연령			
65~69세	66.8	33.2	100.0 (1,463)
70~74세	67.1	32.9	100.0 (1,236)
75~79세	70.6	29.4	100.0 ( 643)
80~84세	71.6	28.4	100.0 ( 197)
85세 이상	60.0	40.0	100.0 ( 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9.2	30.8	100.0 (2,834)
배우자 없음	62.4	37.6	100.0 ( 750)
가구형태			
노인독거	64.4	35.6	100.0 ( 534)
노인부부	70.8	29.2	100.0 (2,139)
자녀동거	60.0	40.0	100.0 ( 745)
기타	73.5	26.5	100.0 ( 1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9.5	30.5	100.0 ( 328)
무학(글자해독)	73.4	26.6	100.0 ( 703)
초등학교	74.5	25.5	100.0 (1,438)
중·고등학교	56.4	43.6	100.0 ( 955)
전문대학 이상	45.6	54.4	100.0 ( 1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0.5	39.5	100.0 ( 471)
제2오분위	71.8	28.2	100.0 ( 784)
제3오분위	73.2	26.8	100.0 ( 913)
제4오분위	66.9	33.1	100.0 ( 825)
제5오분위	61.0	39.0	100.0 ( 590)
기능상태			
제한 없음	67.9	32.1	100.0 (3,422)
제한 있음	64.6	35.4	100.0 ( 16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8-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의 종류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군인	계 (명)
전체 <sup>1)</sup>	3.4	3.8	4.8	6.2	11.9	38.1	9.5	4.2	17.3	0.7	100.0 ( 9,557)
지역											
동부	4.8	5.3	6.4	7.9	16.0	18.3	12.6	5.6	22.2	1.0	100.0 ( 6,250)
읍·면부	0.7	0.9	1.7	3.0	4.2	75.7	3.8	1.5	8.2	0.2	100.0 ( 3,307)
성											
남자	6.8	6.4	7.6	3.6	8.5	32.1	15.1	7.2	11.4	1.5	100.0 ( 4,525)
여자	0.4	1.5	2.2	8.5	15.1	43.6	4.6	1.5	22.7	0.0	100.0 ( 5,034)
연령											
65~69세	3.0	3.6	6.5	7.8	11.7	29.0	11.7	6.5	19.8	0.5	100.0 ( 2,898)
70~74세	3.2	3.8	4.0	6.2	12.9	35.7	10.8	4.1	18.9	0.3	100.0 ( 2,957)
75~79세	4.3	4.1	3.3	5.0	11.0	45.1	7.7	2.5	15.5	1.5	100.0 ( 2,160)
80~84세	3.7	3.8	5.1	4.5	12.7	48.6	5.7	1.8	13.3	1.0	100.0 ( 1,008)
85세 이상	1.9	3.7	5.4	5.2	10.2	53.6	5.2	3.9	10.2	0.6	100.0 ( 53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2	4.9	6.0	5.1	11.1	37.0	11.4	5.2	14.0	1.0	100.0 ( 6,510)
배우자 없음	1.5	1.4	2.1	8.5	13.7	40.7	5.5	2.0	24.4	0.1	100.0 ( 3,048)
가구형태											
노인독거	2.1	1.6	1.9	7.2	12.9	43.3	5.5	1.9	23.4	0.1	100.0 ( 1,879)
노인부부	4.6	5.0	5.4	5.2	10.7	40.4	10.6	5.0	12.2	1.0	100.0 ( 4,713)
자녀동거	2.3	3.4	5.7	6.8	14.1	30.8	10.6	4.1	21.5	0.7	100.0 ( 2,511)
기타	1.3	2.7	5.3	8.2	10.0	35.0	9.5	4.9	22.3	0.9	100.0 ( 4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1	0.1	0.0	3.6	7.3	64.3	2.4	0.6	21.7	0.0	100.0 ( 1,089)
무학(글자해독)	0.8	0.1	0.4	6.1	10.4	51.2	5.5	1.9	23.4	0.0	100.0 ( 2,004)
초등학교	0.4	0.4	1.3	6.8	13.9	42.2	11.1	3.9	19.7	0.3	100.0 ( 3,342)
중·고등학교	5.6	4.0	11.5	7.4	14.0	20.0	15.7	8.6	11.9	1.4	100.0 ( 2,426)
전문대학 이상	22.5	35.4	17.8	2.9	7.5	3.7	3.7	2.2	0.9	3.4	100.0 ( 6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	1.8	2.0	5.6	11.2	46.5	6.0	2.5	23.2	0.1	100.0 ( 1,938)
제2오분위	2.2	1.4	2.7	5.4	10.4	43.9	10.6	3.2	19.8	0.3	100.0 ( 1,966)
제3오분위	2.5	2.5	4.9	5.8	12.5	39.9	10.8	5.5	15.2	0.3	100.0 ( 1,949)
제4오분위	4.7	4.9	5.8	6.5	12.0	34.8	9.6	5.5	14.8	1.3	100.0 ( 1,881)
제5오분위	6.6	8.6	8.7	7.5	13.6	24.7	10.8	4.2	13.5	1.8	100.0 ( 1,8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	4.1	5.1	6.1	12.2	36.6	9.8	4.4	17.4	0.7	100.0 ( 8,306)
제한 있음	2.4	1.8	2.6	6.5	10.2	48.6	7.5	2.9	16.9	0.6	100.0 ( 1,35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9,566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표 II-8-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폐휴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0.4	34.9	3.5	21.3	21.5	5.3	12.6	0.4	100.0 (9,566)
지역									
동부	0.7	28.9	4.6	13.7	29.1	7.0	15.5	0.6	100.0 (6,255)
읍·면부	0.1	46.4	1.3	35.9	7.1	2.1	7.1	0.1	100.0 (3,311)
성									
남자	0.0	44.8	5.5	1.3	33.9	3.8	10.5	0.2	100.0 (4,531)
여자	0.8	26.0	1.6	39.3	10.3	6.7	14.5	0.6	100.0 (5,036)
연령									
65~69세	0.3	32.9	4.8	15.7	26.0	6.3	13.5	0.4	100.0 (2,897)
70~74세	0.7	34.0	2.9	20.5	22.0	6.0	13.5	0.4	100.0 (2,962)
75~79세	0.5	37.1	2.7	23.9	18.7	4.5	12.2	0.4	100.0 (2,163)
80~84세	0.3	37.0	3.4	28.5	16.9	3.6	9.6	0.7	100.0 (1,007)
85세 이상	0.2	37.7	2.6	32.5	13.9	2.8	10.2	0.0	100.0 ( 53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3	35.0	4.0	19.2	26.1	4.9	10.4	0.3	100.0 (6,518)
배우자 없음	0.8	34.8	2.4	26.0	11.7	6.2	17.4	0.8	100.0 (3,047)
가구형태									
노인독거	0.9	36.5	2.3	24.9	10.7	5.6	18.1	1.0	100.0 (1,880)
노인부부	0.2	36.3	3.7	21.2	24.9	4.1	9.4	0.2	100.0 (4,720)
자녀동거	0.7	30.8	3.7	19.8	23.5	7.2	14.0	0.4	100.0 (2,513)
기타	0.0	37.0	4.2	16.3	19.8	6.8	15.4	0.4	100.0 ( 454)
교육수준									
무 학 ( 글 자 모 름)	0.6	30.0	0.3	43.8	2.8	3.2	19.1	0.3	100.0 (1,090)
무 학 ( 글 자 해 독)	0.7	33.7	1.2	33.3	8.1	5.3	17.3	0.4	100.0 (2,005)
초등학교	0.5	40.4	2.1	22.7	14.2	6.4	13.2	0.5	100.0 (3,344)
중·고등학교	0.2	37.2	6.0	5.4	36.8	5.8	8.3	0.3	100.0 (2,428)
전문대학 이상	0.1	12.1	12.6	1.1	70.6	1.6	1.3	0.6	100.0 ( 7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9	34.1	2.9	26.9	11.2	5.2	18.4	0.4	100.0 (1,941)
제2오분위	0.4	37.1	2.4	22.9	17.7	5.1	13.6	0.7	100.0 (1,966)
제3오분위	0.5	38.6	2.8	21.5	19.1	5.3	11.8	0.3	100.0 (1,952)
제4오분위	0.4	36.8	3.8	18.3	24.7	5.9	9.7	0.4	100.0 (1,884)
제5오분위	0.1	27.5	5.6	16.7	35.7	5.2	9.1	0.2	100.0 (1,823)
기능상태									
제한 없음	0.5	35.1	3.5	20.0	22.6	5.3	12.6	0.4	100.0 (8,304)
제한 있음	0.2	33.8	3.2	30.2	13.8	5.8	12.5	0.4	100.0 (1,25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9,566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8-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3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체 <sup>1)</sup>	6.5	10.4	19.9	20.1	43.1	100.0 ( 9,556)
지역						
동부	9.2	13.7	25.6	24.1	27.4	100.0 ( 6,251)
읍·면부	1.5	4.2	9.1	12.4	72.7	100.0 ( 3,305)
성						
남자	1.5	6.3	20.7	26.2	45.2	100.0 ( 4,525)
여자	11.1	14.1	19.1	14.6	41.1	100.0 ( 5,031)
연령						
65~69세	7.6	13.5	23.6	21.5	33.8	100.0 ( 2,893)
70~74세	6.9	9.8	20.2	21.1	42.0	100.0 ( 2,960)
75~79세	5.3	9.1	17.8	18.4	49.4	100.0 ( 2,160)
80~84세	6.3	7.3	16.6	18.6	51.2	100.0 ( 1,006)
85세 이상	4.7	7.6	13.2	16.9	57.5	100.0 ( 53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3	9.5	20.1	21.3	43.8	100.0 ( 6,512)
배우자 없음	9.3	12.3	19.4	17.4	41.5	100.0 ( 3,045)
가구형태						
노인독거	8.6	9.7	18.2	18.0	45.5	100.0 ( 1,877)
노인부부	4.6	8.8	17.9	21.9	46.7	100.0 ( 4,715)
자녀동거	8.2	13.7	24.8	18.4	34.8	100.0 ( 2,511)
기타	8.6	11.1	20.4	19.7	40.3	100.0 ( 4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8	6.9	12.9	14.6	60.8	100.0 ( 1,088)
무학(글자해독)	5.7	9.7	18.1	16.3	50.1	100.0 ( 2,001)
초등학교	7.2	11.2	19.7	18.3	43.6	100.0 ( 3,337)
중·고등학교	7.3	11.7	25.6	25.1	30.3	100.0 ( 2,428)
전문대학 이상	6.1	9.4	17.0	30.6	36.9	100.0 ( 7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	10.6	17.7	17.4	47.7	100.0 ( 1,940)
제2오분위	6.0	10.0	21.2	19.8	43.1	100.0 ( 1,966)
제3오분위	6.2	9.5	19.5	19.4	45.4	100.0 ( 1,950)
제4오분위	7.0	11.3	20.2	20.7	40.8	100.0 ( 1,881)
제5오분위	7.1	10.8	20.9	23.3	37.9	100.0 ( 1,822)
기능상태						
제한 없음	6.6	10.4	20.1	20.6	42.3	100.0 (8,298)
제한 있음	6.0	10.3	18.4	16.9	48.3	100.0 (1,25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9,566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표 II-8-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종사직업 그만둔 이유<sup>2)</sup>

(단위: %, 명)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명)
전체 <sup>1)</sup>	13.8	4.3	0.6	6.6	8.1	6.0	3.6	1.1	39.5	8.0	1.3	1.7	3.0	1.1	1.4	100.0 (7,092)
지역																
동부	16.0	5.1	0.7	7.5	9.4	5.7	3.0	1.3	33.6	8.8	1.2	1.9	3.3	1.1	1.2	100.0 (5,368)
읍·면부	6.9	1.5	0.2	4.1	4.1	7.0	5.3	0.6	57.8	5.4	1.6	0.9	1.9	0.9	1.8	100.0 (1,724)
성																
남자	27.7	6.7	0.6	7.6	7.6	5.3	3.1	0.6	29.2	1.7	1.2	1.4	4.7	1.6	1.0	100.0 (3,271)
여자	1.9	2.2	0.6	5.9	8.5	6.6	4.0	1.5	48.3	13.3	1.5	1.9	1.5	0.7	1.6	100.0 (3,820)
연령																
65~69세	16.6	6.4	1.0	7.4	10.6	6.6	3.3	1.7	29.1	9.2	1.2	1.0	3.5	1.1	1.2	100.0 (1,908)
70~74세	14.3	4.3	0.4	7.4	9.1	5.6	4.1	0.9	37.6	8.2	1.3	1.6	2.6	1.4	1.2	100.0 (2,119)
75~79세	12.5	3.4	0.6	6.0	7.0	6.3	3.1	1.1	44.8	6.8	1.2	2.2	2.6	0.8	1.7	100.0 (1,695)
80~84세	11.4	2.4	0.2	6.0	5.2	5.5	2.9	0.3	47.4	8.4	2.1	2.0	3.3	1.2	1.6	100.0 ( 860)
85세 이상	9.3	2.0	0.2	3.9	3.5	5.7	5.1	0.6	55.5	5.5	1.4	2.2	3.1	0.6	1.4	100.0 ( 5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9.6	5.4	0.7	7.2	9.0	5.2	3.2	1.0	32.6	6.5	1.5	1.6	3.9	1.3	1.3	100.0 (4,535)
배우자 없음	3.4	2.3	0.5	5.6	6.6	7.4	4.2	1.3	51.8	10.5	1.1	1.7	1.3	0.7	1.6	100.0 (2,555)
가구형태																
노인독거	3.9	2.4	0.5	5.0	5.5	8.2	4.6	1.5	53.7	8.4	1.6	1.3	1.3	0.9	1.2	100.0 (1,518)
노인부부	20.6	4.7	0.5	6.7	9.5	5.1	3.8	0.8	32.7	6.4	1.8	1.8	3.3	1.1	1.3	100.0 (3,185)
자녀동거	11.0	5.0	0.8	7.6	8.0	5.1	2.6	1.4	39.6	10.0	0.8	2.0	3.2	1.3	1.7	100.0 (2,057)
기타	9.9	3.9	0.6	8.1	7.8	10.2	2.4	0.9	39.3	8.4	0.0	0.3	6.0	0.9	1.2	100.0 ( 3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7	1.2	0.2	3.5	3.2	7.6	4.8	1.2	63.8	8.4	0.6	1.1	1.9	0.6	1.4	100.0 ( 857)
무학(글자해독)	2.7	2.8	0.3	5.8	5.6	7.3	3.6	1.3	55.7	8.7	0.7	1.2	1.9	0.9	1.7	100.0 (1,477)
초등학교	8.3	2.7	1.1	7.9	10.2	6.2	4.6	1.3	42.8	7.3	1.4	1.9	1.9	1.1	1.4	100.0 (2,254)
중·고등학교	23.3	7.2	0.6	8.3	10.0	5.3	2.8	1.1	23.0	7.9	2.0	1.9	4.1	1.2	1.4	100.0 (1,883)
전문대학 이상	49.3	9.0	0.3	3.4	7.9	2.2	0.8	0.0	5.8	8.0	1.6	2.2	7.4	1.6	0.5	100.0 ( 62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9	2.3	0.7	5.6	6.2	7.7	4.6	1.2	55.5	5.7	0.5	0.6	1.2	0.9	1.4	100.0 (1,639)
제2오분위	9.7	4.0	0.6	8.3	8.5	5.2	4.9	0.9	44.0	6.9	1.3	0.8	2.6	0.9	1.5	100.0 (1,401)
제3오분위	14.0	4.5	0.3	7.0	11.9	5.9	3.8	1.3	34.9	7.8	1.1	1.2	4.5	0.7	1.3	100.0 (1,279)
제4오분위	18.7	3.8	0.6	7.7	6.1	5.2	3.0	0.8	33.2	10.3	2.7	2.0	3.0	1.5	1.1	100.0 (1,318)
제5오분위	21.9	7.1	0.7	4.9	8.4	5.7	1.4	1.4	26.9	9.5	1.3	3.8	4.0	1.4	1.6	100.0 (1,4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2	4.5	0.7	7.0	8.5	6.0	3.7	1.1	35.9	8.4	1.5	1.7	3.2	1.1	1.4	100.0 (5,943)
제한 있음	6.2	3.0	0.3	4.6	6.4	6.0	2.8	1.0	58.0	5.4	0.7	1.6	1.6	1.2	1.4	100.0 (1,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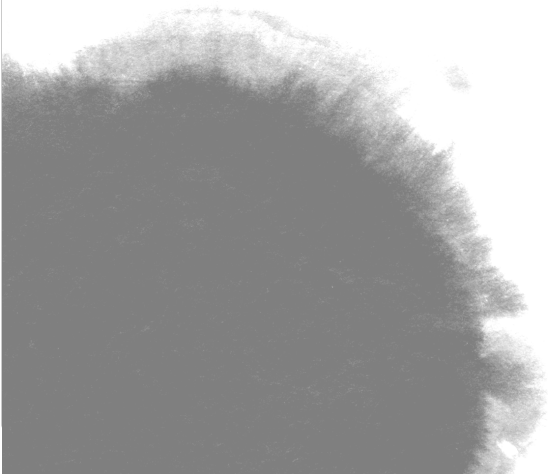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최장기 종사직업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8명을 제외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정년퇴직, (2)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3) 계약이 끝나서, (4)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5) 영업을 잘 되지 않아서, (6) 근로여건 및 환경이 나빠서, (7) 소득(보수)이 적어서, (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9)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11) 여가를 즐기려고, (12) 생활의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14)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15) 기타



# 09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 제9장 노인의 여가·사회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여가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TV시청 및 여행 빈도를 살펴보고, 정보화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인터넷 및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한 노후생활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및 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TV시청·여행·컴퓨터(인터넷)·평생교육·운동 이외의 여가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여가문화활동에 만족하는지, 본인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분석하였다. 본 장의 노인 여가활동실태는 본인응답이 가능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387

### 제1 절 여가활동 및 사회단체 참여실태

#### 1. 여가활동

##### 가. TV 시청

〈표 II-9-1〉에서 지난 1개월간 TV시청 여부와 TV시청 시간을 파악하였다. 우선 TV시청률을 보면 본인응답자 중 99.0%가 TV를 시청하고, 노인 일반특성별로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나 85세 이상의 고연령층(97.9%)과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96.9%) 시청률이 조금 낮은 수준이다.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하루 평균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3~4시간이 39.3%로 가장 높으며, 1~2시간이 30.8%, 5~6시간이 20.4%, 7시간 이상 9.4%등의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 정도가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TV를 시

청하며, 평균 3.82시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TV를 더 많은 시간 시청하며, 성별로는 여자노인과 남자노인의 시청시간이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TV를 더 많이 시청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하여 5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자,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5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대체로 더 높은 편이다.

〈표 II-9-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TV 시청률 및 시청 시간

(단위: %, 명, 시간)

특성	TV시청률 <sup>1)</sup>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sup>2)</sup>					평균 (시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명)	
전체	99.0	30.8	39.3	20.4	9.4	100.0 (10,436)	3.82
지역							
동부	99.1	29.2	38.3	21.7	10.9	100.0 ( 7,080)	3.97
읍·면부	98.9	34.3	41.5	17.8	6.3	100.0 ( 3,355)	3.50
성							
남자	99.1	32.1	38.7	19.6	9.7	100.0 ( 4,506)	3.80
여자	99.0	29.8	39.8	21.0	9.3	100.0 ( 5,930)	3.83
연령							
65~69세	99.1	34.0	38.7	19.7	7.5	100.0 ( 3,118)	3.62
70~74세	99.5	31.0	40.9	18.9	9.2	100.0 ( 3,210)	3.79
75~79세	99.0	27.7	40.2	21.6	10.5	100.0 ( 2,364)	3.95
80~84세	98.2	29.3	37.2	22.2	11.4	100.0 ( 1,141)	3.98
85세 이상	97.9	28.6	34.4	24.1	13.0	100.0 ( 602)	4.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9.1	31.9	40.2	19.2	8.7	100.0 ( 7,054)	3.73
배우자 없음	98.8	28.5	37.5	23.0	11.0	100.0 ( 3,381)	3.99
가구형태							
노인독거	98.9	27.9	37.2	23.5	11.4	100.0 ( 2,063)	4.03
노인부부	99.1	32.7	40.5	18.1	8.7	100.0 ( 5,070)	3.69
자녀동거	98.9	28.4	39.6	22.1	9.9	100.0 ( 2,819)	3.93
기타	99.2	37.1	34.0	21.9	7.0	100.0 ( 484)	3.5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3	33.7	36.4	20.7	9.2	100.0 ( 1,125)	3.69
무학(글자해독)	99.1	28.8	39.6	21.1	10.5	100.0 ( 2,164)	3.95
초등학교	99.1	30.7	39.0	20.6	9.7	100.0 ( 3,709)	3.84
중·고등학교	99.2	29.7	39.8	21.1	9.5	100.0 ( 2,708)	3.86
전문대학 이상	99.2	37.2	43.0	14.4	5.4	100.0 ( 728)	3.34

특성	TV시청률 <sup>1)</sup>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sup>2)</sup>					평균 (시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3	39.9	41.4	14.1	4.6	100.0 ( 3,542)	3.24
미취업	98.9	26.2	38.2	23.7	11.9	100.0 ( 6,893)	4.1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6	30.1	36.1	22.2	11.6	100.0 ( 2,082)	3.96
제2오분위	98.9	30.5	39.2	20.4	10.0	100.0 ( 2,097)	3.85
제3오분위	99.2	32.1	39.5	18.9	9.5	100.0 ( 2,080)	3.80
제4오분위	99.1	31.0	40.6	20.0	8.4	100.0 ( 2,096)	3.74
제5오분위	99.3	30.5	41.3	20.6	7.7	100.0 ( 2,081)	3.74
기능상태							
제한 없음	99.4	31.7	40.3	20.1	7.9	100.0 ( 9,011)	3.70
제한 있음	96.9	25.2	33.2	22.7	18.9	100.0 ( 1,424)	4.5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10,442명이 분석대상이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나. 여행

〈표 II-9-2〉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여행 유무와 여행을 한 경우 여행횟수를 분석하였다. 본인응답자 중 33.7%가 여행을 하였고,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1회가 51.8%로 가장 많고, 2회 26.1%, 3회 8.6%, 4회 이상 13.5%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 지난 1년간 여행률을 비교하면, 읍·면부지역이 42.3%로 동부지역의 29.6%보다 12.7%포인트 더 높고, 성별로는 남자노인(35.8%)이 여자노인(32.0%)보다 약간 더 높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39.2%로 가장 높고 70~74세 37.4%, 75~79세 30.2%, 80~84세 24.4%, 85세 이상 17.1%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행은 감소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36.5%)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27.8%)에 비하여 더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37.7%)의 여행률이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30.7%), 노인독거가구(29.3%), 기타가구(27.1%) 등의 순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54.9%)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36.9%), 초등학교(33.4%), 무학(각각 27.3%, 25.2%) 등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행률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행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취업자(42.4%)가 미취업자(29.2%)보다 여행경험률이 13.2%포인트 더 높으며,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37.0%)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13.3%)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표 II-9-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횟수

(단위: %, 명)

특성	여행 경험률 <sup>1)</sup>	국내외 여행 횟수 <sup>2)</sup>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명)
전체	33.7	51.8	26.1	8.6	13.5	100.0 (3,545)
지역						
동부	29.6	47.4	26.7	9.8	16.1	100.0 (2,114)
읍·면부	42.3	58.4	25.3	6.8	9.6	100.0 (1,431)
성						
남자	35.8	47.0	27.7	9.6	15.8	100.0 (1,631)
여자	32.0	56.0	24.8	7.7	11.5	100.0 (1,915)
연령						
65~69세	39.2	49.5	23.6	10.1	16.8	100.0 (1,232)
70~74세	37.4	51.0	27.8	8.5	12.8	100.0 (1,207)
75~79세	30.2	52.7	28.4	7.2	11.7	100.0 ( 719)
80~84세	24.4	64.3	21.6	6.0	8.1	100.0 ( 283)
85세 이상	17.1	49.1	33.0	9.4	8.5	100.0 ( 1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6.5	49.2	26.6	9.2	15.0	100.0 (2,596)
배우자 없음	27.8	58.9	24.8	7.1	9.2	100.0 ( 950)
가구형태						
노인독거	29.3	59.7	24.8	7.0	8.5	100.0 ( 609)
노인부부	37.7	49.0	26.7	9.2	15.2	100.0 (1,930)
자녀동거	30.7	52.5	24.8	8.6	14.2	100.0 ( 873)
기타	27.1	51.5	32.6	7.6	8.3	100.0 ( 13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5.2	71.4	23.0	3.5	2.1	100.0 ( 287)
무학(글자해독)	27.3	60.3	25.4	7.2	7.1	100.0 ( 594)
초등학교	33.4	54.2	25.6	7.8	12.4	100.0 (1,250)
중·고등학교	36.9	45.2	27.7	9.4	17.6	100.0 (1,010)
전문대학 이상	54.9	34.7	27.2	14.6	23.5	100.0 ( 4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4	53.9	26.9	9.7	9.5	100.0 (1,509)
미취업	29.2	50.3	25.5	7.8	16.4	100.0 (2,0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8	61.1	24.7	6.6	7.6	100.0 ( 542)
제2오분위	28.6	57.8	26.2	6.3	9.7	100.0 ( 606)
제3오분위	33.7	52.7	28.1	8.1	11.2	100.0 ( 708)
제4오분위	37.7	50.0	27.2	8.6	14.2	100.0 ( 798)
제5오분위	42.6	43.1	24.4	11.9	20.7	100.0 ( 891)
기능상태						
제한 없음	37.0	51.0	26.3	8.8	13.9	100.0 (3,351)
제한 있음	13.3	66.0	23.2	5.2	5.7	100.0 ( 19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여행경험이 있는 3,5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지난 1년간 여행경험이 있는 경우 여행 빈도를 살펴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2회 이상 반복 여행자의 비율이 더 높고,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이 2회 이상 반복 여행자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회 이상 반복 여행자의 비율이 더 높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2회 이상 반복 여행자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표 II-9-3〉에서는 지난 1년간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전체응답자 중 볼거리의 다양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연환경의 수려함 26.1%, 비용의 적절성 14.1%, 지명도 8.9%, 교통의 편의성 5.0%, 주변시설의 편리성 2.8%, 전문가의 의견·언론보도 등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동부지역의 경우 볼거리의 다양성(38.0%), 자연환경의 수려함(24.5%), 비용의 적절성(18.1%) 등의 순인데 반하여, 읍·면부지역의 경우 볼거리의 다양성(46.2%), 자연환경의 수려함 (28.5%), 지명도(9.5%) 등의 순으로 동부지역의 경우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이 읍·면부지역(8.2%)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성별 및 결혼상태별로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여자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비용의 적절성, 볼거리의 다양성, 교통편의성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고, 남자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는 자연환경의 수려함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실정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의 적절성이나 자연환경의 수려함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명도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더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볼거리의 다양성, 자연환경의 수려함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비용의 적절성이나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의 경우 볼거리의 다양성, 자연환경의 수려함, 지명도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미취업노인의 경우 비용의 적절성이나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체적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 볼거리의 다양성, 자연환경의 수려함, 지명도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제한이 있는 경우 비용의 적절성이나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다.

〈표 II-9-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행 계획시 중요한 기준

(단위: %, 명)

특성	비용 적절성	볼거리 다양성	자연환경 수려함	교통 편의성	주변시설 편리성	지명도	전문가 언론보도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4.1	41.3	26.1	5.0	2.8	8.9	1.5	0.3	100.0 (3,547)
지역									
동부	18.1	38.0	24.5	5.4	3.5	8.5	1.7	0.3	100.0 (2,115)
읍·면부	8.2	46.2	28.5	4.3	1.7	9.5	1.3	0.2	100.0 (1,431)
성									
남자	13.8	41.0	27.4	3.7	3.1	8.8	2.0	0.2	100.0 (1,631)
여자	14.3	41.6	25.0	6.1	2.6	9.0	1.1	0.3	100.0 (1,917)
연령									
65~69세	16.4	39.6	27.1	3.2	3.1	8.4	2.1	0.0	100.0 (1,232)
70~74세	13.5	42.5	26.5	4.6	2.2	8.9	1.5	0.2	100.0 (1,207)
75~79세	14.4	42.4	25.3	5.5	2.1	8.7	0.7	0.8	100.0 ( 722)
80~84세	8.8	39.1	22.9	12.7	4.9	9.9	1.4	0.4	100.0 ( 284)
85세 이상	6.8	44.7	23.3	4.9	5.8	13.6	1.0	0.0	100.0 ( 10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0	40.8	26.9	4.6	2.9	9.1	1.7	0.2	100.0 (2,598)
배우자 없음	14.4	42.8	24.1	6.1	2.6	8.2	1.2	0.5	100.0 ( 949)
가구형태									
노인독거	13.1	43.5	25.8	5.7	2.5	8.0	1.0	0.3	100.0 ( 609)
노인부부	13.2	41.5	27.3	4.1	2.8	9.4	1.4	0.2	100.0 (1,933)
자녀동거	16.7	39.9	22.2	6.8	3.1	8.6	2.3	0.5	100.0 ( 874)
기타	13.6	37.1	37.1	3.0	2.3	6.8	0.0	0.0	100.0 ( 13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0	41.8	24.0	3.8	3.5	9.8	2.1	0.0	100.0 ( 287)
무학(글자해독)	11.2	47.0	24.4	6.7	1.8	7.5	1.0	0.3	100.0 ( 598)
초등학교	13.9	40.2	27.5	6.2	2.1	9.2	0.6	0.2	100.0 (1,251)
중·고등학교	15.5	39.6	29.0	2.7	2.4	8.8	1.6	0.5	100.0 (1,011)
전문대학 이상	14.9	39.7	18.6	5.7	7.2	9.4	4.5	0.0	100.0 ( 40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2	42.5	28.1	3.5	2.1	9.3	2.0	0.2	100.0 (1,511)
미취업	15.5	40.4	24.6	6.1	3.3	8.5	1.2	0.3	100.0 (2,036)

특성	비용 적절성	볼거리 다양성	자연환경 수려함	교통 편의성	주변시설 편리성	지명도	전문가 언론보도	기타	계 (명)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2	40.0	23.0	5.4	2.0	7.4	1.9	0.2	100.0 ( 540)
제2오분위	13.5	45.5	25.4	4.3	1.5	8.6	0.8	0.5	100.0 ( 607)
제3오분위	12.5	40.1	29.3	4.5	1.8	10.1	1.1	0.4	100.0 ( 710)
제4오분위	14.8	41.4	27.7	5.1	2.5	7.4	1.1	0.0	100.0 ( 798)
제5오분위	11.5	40.0	24.7	5.5	5.2	10.3	2.5	0.3	100.0 ( 89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7	41.6	26.3	4.7	2.9	9.1	1.4	0.3	100.0 (3,352)
제한 있음	21.3	36.0	22.3	11.2	1.5	4.6	3.0	0.0	100.0 ( 19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여행 경험이 있는 3,5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9-4〉에서는 지난 1년간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여행 하신다면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겠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라는 비율이 6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별여행 31.0%,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개별 여행이 4.7%,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 3.2%, 기타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53.0%, 개별여행이 36.9%인데 반하여, 읍·면부지역의 경우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72.8%, 개별여행이 22.3%로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전체의 2/3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는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63.4%)이, 남자의 경우는 개별여행(32.9%)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84세 이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별여행 또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개별여행이나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각각 65.4%와 60.5%로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별여행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높다.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별로는 여행방법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별여행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의 경우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취업노인의 경우 개별여행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한편, 신체적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경우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한이 없는 경우 개별여행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표 11-9-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국내외 여행 방법

(단위: %, 명)

특성	개별 여행	소속 단체 회원들과 여행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개별 여행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31.0	61.0	4.7	3.2	0.1	100.0 (3,545)
지역						
동부	36.9	53.0	5.9	4.1	0.1	100.0 (2,115)
읍·면부	22.3	72.8	2.9	2.0	0.1	100.0 (1,430)
성						
남자	32.9	58.2	5.5	3.3	0.1	100.0 (1,630)
여자	29.4	63.4	4.0	3.1	0.1	100.0 (1,915)
연령						
65~69세	32.8	55.0	7.8	4.3	0.2	100.0 (1,233)
70~74세	28.7	64.0	3.6	3.5	0.2	100.0 (1,207)
75~79세	29.3	65.3	2.8	2.5	0.1	100.0 ( 720)
80~84세	29.9	68.3	1.4	0.4	0.0	100.0 ( 284)
85세 이상	51.9	47.1	1.0	0.0	0.0	100.0 ( 10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4	59.8	5.3	3.4	0.2	100.0 (2,595)
배우자 없음	29.9	64.5	3.0	2.6	0.0	100.0 ( 949)
가구형태						
노인독거	28.6	65.4	3.4	2.6	0.0	100.0 ( 609)
노인부부	30.7	60.5	4.9	3.7	0.2	100.0 (1,931)
자녀동거	32.6	59.3	5.3	2.7	0.1	100.0 ( 874)
기타	36.4	59.8	2.3	1.5	0.0	100.0 ( 13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0.2	77.0	2.1	0.7	0.0	100.0 ( 287)
무학(글자해독)	22.7	70.6	4.0	2.7	0.0	100.0 ( 596)
초등학교	28.3	66.1	3.4	2.1	0.2	100.0 (1,248)
중·고등학교	37.4	52.5	5.1	4.8	0.2	100.0 (1,010)
전문대학 이상	43.4	40.9	9.9	5.5	0.2	100.0 ( 403)

특성	개별 여행	소속 단체 회원들과 여행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개별 여행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기타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4	68.3	4.3	1.8	0.2	100.0 (1,509)
미취업	35.2	55.6	4.9	4.3	0.0	100.0 (2,0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5	73.4	2.8	1.3	0.0	100.0 ( 542)
제2오분위	22.2	71.5	2.8	3.5	0.0	100.0 ( 604)
제3오분위	31.2	61.4	4.2	2.8	0.4	100.0 ( 709)
제4오분위	33.0	58.3	4.6	4.0	0.1	100.0 ( 798)
제5오분위	40.2	48.5	7.4	3.8	0.0	100.0 ( 892)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2	60.6	4.8	3.3	0.1	100.0 (3,349)
제한 있음	28.1	67.3	2.6	2.0	0.0	100.0 ( 19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여행 경험에 있는 3,5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2. 정보화 사용 실태

〈표 II-9-5〉를 통하여 컴퓨터·인터넷 사용 실태를 보면,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노인의 12.8%이고, 이들 중 컴퓨터 및 인터넷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1.5%이고,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 5.0%,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6.3% 등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노인의 비율은 6.5%에 불과하다.

컴퓨터 및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16.6%로 읍·면부지역의 5.0%보다 높으며, 남자노인은 21.5%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6.2%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을 보면 65~69세 연령군은 21.1%, 70~74세 12.2%, 75~79세 8.7%, 80~84세 5.3%, 85세 이상은 4.0%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16.6%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5.0%보다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사용률은 15.5%, 자녀동거가구 13.5%, 기타가구 12.8% 등이며, 노인독거가구는 5.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매우 증가하며, 특히 초등학교 이하는 4.0% 이하인데 반하여, 중·고등학교 25.2%, 전문대 이상은 64.8%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다. 한편, 취업상태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며, 신체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14.3%인데 비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는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I-9-6〉에서 핸드폰 소유 실태를 보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0.4%이고, 일반 핸드폰 소유는 71.3%로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다. 핸드폰 소유율은 동부지역이 74.4%로 읍·면부지역의 66.1%보다 높으며, 남자노인은 82.2%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63.8%로 18.4%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 핸드폰 소유율을 보면 65~69세 연령군은 86.0%, 70~74세 76.5%, 75~79세 연령군 66.6%, 80~84세 연령군 52.9%, 85세 이상은 28.6% 등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핸드폰 소유율이 높은 수준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핸드폰 소유율은 75.7%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63.3%보다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 노인의 소유율이 76.4%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노인의 소유율이 66.4%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핸드폰 소유율도 증가하며, 취업노인과 신체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핸드폰 소유율도 더 높다.

결과적으로 동부지역, 남자,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인터넷 사용 뿐 아니라 핸드폰의 사용도 증가하여 정보화 수준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능숙하게 사용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가능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어려움	전혀 사용 불가능	계 (명)
전체 <sup>1)</sup>	1.5	5.0	6.3	87.2	100.0 (10,498)
지역					
동부	2.1	6.8	7.7	83.5	100.0 ( 7,109)
읍·면부	0.3	1.3	3.4	94.9	100.0 ( 3,389)
성					
남자	3.1	8.5	9.9	78.5	100.0 ( 4,518)
여자	0.3	2.3	3.6	93.7	100.0 ( 5,980)
연령					
65~69세	2.9	8.5	9.7	79.0	100.0 ( 3,124)
70~74세	1.0	4.8	6.4	87.8	100.0 ( 3,214)
75~79세	1.3	3.3	4.1	91.3	100.0 ( 2,389)
80~84세	0.3	2.0	3.0	94.7	100.0 ( 1,160)
85세 이상	0.3	1.1	2.6	95.9	100.0 ( 6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0	6.7	7.9	83.4	100.0 ( 7,079)
배우자 없음	0.4	1.6	3.0	95.0	100.0 ( 3,418)
가구형태					
노인독거	0.5	1.7	2.9	94.9	100.0 ( 2,084)
노인부부	2.1	6.4	7.0	84.5	100.0 ( 5,088)
자녀동거	1.3	4.8	7.4	86.5	100.0 ( 2,837)
기타	1.0	5.7	6.1	87.1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1	0.0	0.2	99.7	100.0 ( 1,136)
무학(글자해독)	0.3	0.2	1.0	98.4	100.0 ( 2,181)
초등학교	0.0	1.4	2.6	96.0	100.0 ( 3,733)
중·고등학교	2.1	8.5	14.6	74.9	100.0 ( 2,714)
전문대학 이상	12.5	32.7	19.6	35.1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	3.8	5.5	89.0	100.0 ( 3,533)
미취업	1.4	5.6	6.7	86.2	100.0 ( 6,96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5	1.4	2.1	96.0	100.0 ( 2,109)
제2오분위	0.4	1.8	3.6	94.3	100.0 ( 2,111)
제3오분위	0.7	4.7	5.7	88.8	100.0 ( 2,096)
제4오분위	1.7	6.4	8.0	84.0	100.0 ( 2,089)
제5오분위	4.3	10.8	12.1	72.8	100.0 ( 2,09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	5.5	7.1	85.7	100.0 ( 9,034)
제한 있음	0.1	1.8	1.6	96.5	100.0 ( 1,46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7명을 제외함.

〈표 11-9-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핸드폰 소유 여부

(단위: %, 명)

특성	스마트폰 소유	일반 핸드폰 소유	갖고 있지 않음	계 (명)
전체 <sup>1)</sup>	0.4	71.3	28.3	100.0 (10,544)
지역				
동부	0.4	74.0	25.6	100.0 ( 7,149)
읍·면부	0.3	65.8	33.9	100.0 ( 3,394)
성				
남자	0.7	81.5	17.8	100.0 ( 4,549)
여자	0.1	63.7	36.2	100.0 ( 5,995)
연령				
65~69세	0.6	85.4	14.0	100.0 ( 3,150)
70~74세	0.4	76.1	23.5	100.0 ( 3,227)
75~79세	0.3	66.3	33.3	100.0 ( 2,390)
80~84세	0.0	52.9	47.1	100.0 ( 1,162)
85세 이상	0.0	28.6	71.4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4	75.3	24.2	100.0 ( 7,121)
배우자 없음	0.3	63.0	36.7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0.4	67.3	32.3	100.0 ( 2,086)
노인부부	0.4	76.0	23.6	100.0 ( 5,120)
자녀동거	0.3	66.1	33.6	100.0 ( 2,849)
기타	0.4	70.2	29.4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44.5	55.5	100.0 ( 1,145)
무학(글자해독)	0.1	61.2	38.7	100.0 ( 2,183)
초등학교	0.1	71.9	28.0	100.0 ( 3,743)
중·고등학교	0.5	85.7	13.7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2.3	87.3	10.3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0.3	76.6	23.1	100.0 ( 3,566)
미취업	0.4	68.7	30.9	100.0 ( 6,9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2	61.6	38.2	100.0 ( 2,113)
제2오분위	0.1	68.2	31.7	100.0 ( 2,120)
제3오분위	0.2	74.4	25.4	100.0 ( 2,100)
제4오분위	0.2	76.9	22.9	100.0 ( 2,116)
제5오분위	1.1	75.7	23.1	100.0 ( 2,0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0.4	75.4	24.2	100.0 ( 9,073)
제한 있음	0.2	46.2	53.6	100.0 ( 1,47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 3. 평생교육프로그램

#### 가.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표 II-9-7〉에서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6.7%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동부지역(7.7%)이 읍·면부지역(4.6%) 보다 더 높으며, 여자노인(7.6%)의 경우 남자노인(5.5%)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현재 평생교육 참여율이 증가한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노인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노인부부가구 노인의 순이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미취업 노인,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현재 교육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한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교육에 참여하는지 살펴보면, 주 2~3회가 45.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주 1회 36.8%, 주 4회 이상 13.8%, 월 1회 2.1% 등의 순이다. 주 2~3회 또는 주 4회 이상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높으며, 남자노인의 경우 여자노인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2회 이상 교육 참여율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노인은 주 1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동거 노인은 주 4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또한 미취업 노인 및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주 4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다.

〈표 II-9-8〉을 통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45.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로 17.9%, 종교기관 15.7%,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또는 사설학원 5.0%,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2.9%,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여자회관 3.0%, 대한노인회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사설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이 상대적으로 읍·면부지역에 비하여 높으

며, 읍·면부지역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문화예술회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연령별로는 65~69세의 경우 사·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의 비율이 26.3%로 타연령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며, 80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사·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노인은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노인부부가구는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자녀동거가구 노인은 노인복지관 또는 사·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취업중인 노인은 대한노인회 또는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미취업노인은 노인복지관, 종교기관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관, 사·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노인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이 43.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일반교양 교육이 20.6%,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이 20.1%, 정보화교육 12.8%, 기타 3.2% 등의 순이다(표 II-9-9 참조).

지역별로 동부지역은 일반교양, 정보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읍·면부지역은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한다.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74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정보화 교육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일반교양 교육 또는 정보화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는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에, 노인부부가구는 일반교양 교육 또는 정보화 교육에, 자녀동거가구는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에 각각 상대적으로 더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인 경우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에, 취업중인 노인은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에 각각 상대적으로 더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이, 제한이 없는 경우는 일반교양 교육 또는 정보화 교육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표 II-9-10〉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33.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3%, 건강이 안 좋아서 20.1%, 시간이 없어서 17.3%,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8%,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2.0% 등의 순으로 노인 스스로 평생교육에 참여 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약간 더 높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약간 더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건강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율이 더 높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또는 노인독거가구 노인은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각각 더 높다.

취업노인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38.7%로 매우 높고, 미취업 노인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35.6%로 가장 많다. 한편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건강이 안 좋아서가 50.6%로 절반 이상이고, 제한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35.0%이다.

〈표 11-9-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 참여 빈도 <sup>2)</sup>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sup>1)</sup>	6.7	13.8	45.0	36.8	2.0	2.1	0.3	100.0 (705)
지역								
동부	7.7	15.0	46.7	35.9	0.9	1.5	0.0	100.0 (548)
읍·면부	4.6	9.6	39.1	39.7	5.1	5.1	1.3	100.0 (156)
성								
남자	5.5	15.8	48.2	28.7	2.4	4.5	0.4	100.0 (247)
여자	7.6	12.7	43.5	41.1	1.5	0.9	0.2	100.0 (457)
연령								
65~69세	7.1	13.5	57.8	23.3	2.2	2.7	0.4	100.0 (223)
70~74세	7.7	9.7	50.8	37.1	0.8	1.2	0.4	100.0 (248)
75~79세	7.0	21.6	28.1	46.7	3.0	0.6	0.0	100.0 (167)
80~84세	4.5	9.6	25.0	53.8	3.8	7.7	0.0	100.0 ( 52)
85세 이상	2.3	7.7	15.4	61.5	0.0	15.4	0.0	100.0 ( 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5	15.3	49.7	31.0	1.9	1.9	0.2	100.0 (465)
배우자 없음	7.0	10.8	36.3	47.9	2.1	2.5	0.4	100.0 (240)
가구형태								
노인독거	7.0	10.2	30.6	53.1	2.0	3.4	0.7	100.0 (147)
노인부부	6.9	14.5	47.9	33.9	1.4	2.0	0.3	100.0 (351)
자녀동거	6.1	16.8	48.6	31.2	3.5	0.0	0.0	100.0 (173)
기타	6.8	6.1	60.6	24.2	0.0	9.1	0.0	100.0 ( 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	3.8	42.3	46.2	3.8	3.8	0.0	100.0 ( 26)
무학(글자해독)	5.8	9.5	44.4	39.7	2.4	2.4	1.6	100.0 (126)
초등학교	6.1	14.5	35.1	48.7	0.9	0.4	0.4	100.0 (228)
중·고등학교	7.9	14.9	54.9	24.2	3.3	2.8	0.0	100.0 (215)
전문대학 이상	14.9	16.5	47.7	31.2	0.0	4.6	0.0	100.0 (109)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	6.3	43.8	41.9	4.4	2.5	1.3	100.0 (160)
미취업	7.8	16.0	45.4	35.3	1.1	2.2	0.0	100.0 (54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	9.2	37.8	45.4	0.8	5.9	0.8	100.0 (119)
제2오분위	5.3	10.5	39.5	46.5	2.6	0.9	0.0	100.0 (114)
제3오분위	6.2	12.3	46.9	39.2	0.0	1.5	0.0	100.0 (130)
제4오분위	6.3	14.2	45.5	33.6	2.2	3.7	0.7	100.0 (134)
제5오분위	9.9	18.9	50.5	27.2	2.9	0.5	0.0	100.0 (2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7.4	14.3	44.6	36.7	1.8	2.4	0.3	100.0 (671)
제한 있음	2.2	3.0	57.6	36.4	3.0	0.0	0.0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고 응답한 7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11-9-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교) 부설	시·군·구/ 동·읍·면	문화예술 회관 등	사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45.8	2.3	15.7	2.9	17.9	3.0	5.0	7.4	100.0 (705)
지역									
동부	45.2	1.3	15.8	3.6	18.2	2.6	5.1	8.2	100.0 (549)
읍·면부	48.4	5.8	14.8	0.6	16.8	4.5	4.5	4.5	100.0 (155)
성									
남자	44.0	4.4	8.9	6.0	16.1	5.6	7.7	7.3	100.0 (248)
여자	46.7	1.3	19.2	1.3	18.8	1.5	3.7	7.4	100.0 (458)
연령									
65~69세	43.8	1.3	6.3	2.2	26.3	4.5	5.4	10.3	100.0 (224)
70~74세	49.4	1.6	17.4	4.9	15.4	2.0	4.5	4.9	100.0 (247)
75~79세	42.5	3.0	20.4	1.2	12.6	3.6	7.2	9.6	100.0 (167)
80~84세	49.0	3.9	27.5	3.9	11.8	0.0	0.0	3.9	100.0 ( 51)
85세 이상	50.0	14.3	28.6	0.0	7.1	0.0	0.0	0.0	100.0 ( 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9	2.4	12.5	3.4	19.6	3.9	5.8	7.5	100.0 (465)
배우자 없음	47.7	2.1	21.8	2.1	14.6	1.3	3.3	7.1	100.0 (239)
가구형태									
노인독거	43.9	2.7	23.0	1.4	15.5	1.4	3.4	8.8	100.0 (148)
노인부부	46.7	2.8	10.5	4.6	18.8	3.7	5.7	7.2	100.0 (351)
자녀동거	47.4	1.2	20.8	1.7	19.1	1.2	3.5	5.2	100.0 (173)
기타	36.4	3.0	9.1	0.0	12.1	9.1	15.2	15.1	100.0 ( 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4.0	4.0	24.0	0.0	12.0	4.0	4.0	8.0	100.0 ( 25)
무학(글자해독)	50.4	3.9	18.1	0.0	15.0	3.1	3.9	5.5	100.0 (127)
초등학교	46.3	1.3	17.9	1.3	15.3	2.2	5.2	10.5	100.0 (229)
중·고등학교	49.3	2.8	14.4	1.9	17.7	3.3	3.7	7.0	100.0 (215)
전문대학 이상	32.4	1.8	8.1	11.7	27.9	4.5	9.0	4.5	100.0 (1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3	6.7	12.9	8.0	16.6	4.3	5.5	3.7	100.0 (163)
미취업	46.8	0.9	16.6	1.5	18.2	2.6	4.8	8.7	100.0 (543)
연구주소득									
제1오분위	45.4	2.5	20.2	0.8	16.8	0.8	3.4	10.1	100.0 (119)
제2오분위	46.9	3.5	27.4	0.9	10.6	0.0	1.8	8.8	100.0 (113)
제3오분위	53.4	3.8	7.6	9.2	16.0	3.1	3.1	3.8	100.0 (131)
제4오분위	46.3	2.2	10.4	1.5	17.9	2.2	9.7	9.7	100.0 (134)
제5오분위	41.3	0.5	15.0	2.4	23.3	6.3	5.3	5.8	100.0 (2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3	2.4	15.2	3.1	18.2	2.7	5.2	7.0	100.0 (672)
제한 있음	36.4	0.0	27.3	0.0	12.1	9.1	0.0	15.2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고 응답한 7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로당이 포함됨.

〈표 11-9-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20.1	43.3	20.6	12.8	3.2	100.0 (705)
지역						
동부	20.2	42.4	21.1	13.3	2.9	100.0 (549)
읍·면부	19.7	46.5	18.5	10.8	4.5	100.0 (157)
성						
남자	10.5	35.1	29.4	21.4	3.6	100.0 (248)
여자	25.4	47.9	15.8	8.1	2.8	100.0 (457)
연령						
65~69세	19.2	38.4	23.7	14.7	4.0	100.0 (224)
70~74세	20.2	43.1	18.1	15.7	2.8	100.0 (248)
75~79세	21.0	48.5	20.4	8.4	1.8	100.0 (167)
80~84세	19.6	51.0	17.6	7.8	3.9	100.0 ( 51)
85세 이상	20.0	40.0	26.7	0.0	13.3	100.0 ( 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2	40.1	22.3	16.1	3.2	100.0 (466)
배우자 없음	23.8	49.4	17.2	6.7	2.9	100.0 (239)
가구형태						
노인독거	26.0	47.9	17.8	4.1	4.1	100.0 (146)
노인부부	18.8	37.3	23.1	17.4	3.5	100.0 (351)
자녀동거	20.3	51.2	16.3	9.9	2.3	100.0 (172)
기타	6.1	48.5	27.3	18.2	0.0	100.0 ( 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4.0	48.0	24.0	0.0	4.0	100.0 ( 25)
무학(글자해독)	26.2	37.3	28.6	4.0	4.0	100.0 (126)
초등학교	26.8	57.0	9.6	3.9	2.6	100.0 (228)
중·고등학교	18.7	40.2	15.9	23.8	1.4	100.0 (214)
전문대학 이상	0.9	27.5	43.1	22.9	5.5	100.0 (10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8	48.4	20.5	11.8	2.5	100.0 (161)
미취업	21.2	41.8	20.6	13.1	3.3	100.0 (54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7	44.5	21.0	2.5	4.2	100.0 (119)
제2오분위	30.7	37.7	17.5	12.3	1.8	100.0 (114)
제3오분위	10.8	41.5	18.5	26.2	3.1	100.0 (130)
제4오분위	20.7	43.7	23.7	8.9	3.0	100.0 (135)
제5오분위	15.5	46.4	21.3	13.0	3.9	100.0 (2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2	43.4	21.0	13.1	3.3	100.0 (671)
제한 있음	36.4	42.4	12.1	6.1	3.0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고 응답한 7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원봉사자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표 II-9-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필요성 못느껴	참가 비용 부담	심리적 부담감	교육 장소 멀어서	교육 장소 몰라서	적당한 프로그램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7.3	20.1	33.4	20.3	2.8	2.0	1.4	0.6	1.9	0.1	100.0 (9,825)
지역											
동부	16.2	20.2	33.9	20.0	3.4	2.3	0.9	0.7	2.3	0.2	100.0 (6,593)
읍·면부	19.7	19.9	32.5	20.8	1.5	1.5	2.4	0.6	1.2	0.1	100.0 (3,233)
성											
남자	20.4	15.7	33.1	21.7	2.5	1.8	1.0	0.7	2.8	0.0	100.0 (4,294)
여자	14.9	23.5	33.6	19.2	3.0	2.2	1.7	0.6	1.2	0.2	100.0 (5,531)
연령											
65~69세	28.6	13.5	31.0	17.7	2.9	2.2	0.9	0.5	2.6	0.2	100.0 (2,925)
70~74세	19.0	18.4	32.7	19.3	3.5	2.3	1.7	1.1	1.8	0.2	100.0 (2,974)
75~79세	10.7	25.3	35.1	21.3	2.4	1.5	1.5	0.5	1.8	0.0	100.0 (2,221)
80~84세	4.8	27.2	36.3	23.9	2.2	2.6	1.7	0.3	1.1	0.0	100.0 (1,108)
85세 이상	1.8	28.3	37.3	27.5	1.2	1.0	1.5	0.3	1.0	0.0	100.0 ( 6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0	18.1	33.3	19.2	2.3	2.0	1.1	0.6	2.3	0.1	100.0 (6,648)
배우자 없음	9.7	24.2	33.7	22.5	3.7	2.0	2.0	0.8	1.2	0.2	100.0 (3,178)
가구형태											
노인독거	9.1	25.6	31.9	22.2	4.3	2.1	2.3	1.0	1.3	0.2	100.0 (1,937)
노인부부	20.0	18.2	34.1	19.5	2.1	2.1	1.3	0.5	2.2	0.1	100.0 (4,762)
자녀동거	18.4	20.1	32.7	20.6	2.6	2.0	1.0	0.7	1.9	0.1	100.0 (2,673)
기타	18.5	17.1	36.7	18.5	4.2	1.8	1.1	0.4	1.8	0.0	100.0 ( 45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5	26.1	34.0	25.6	1.8	2.3	1.4	0.6	0.6	0.0	100.0 (1,118)
무학(글자해독)	12.3	24.8	35.0	19.1	3.6	1.7	1.7	1.2	0.6	0.0	100.0 (2,053)
초등학교	18.6	20.1	34.1	19.4	2.8	1.9	1.5	0.4	1.1	0.2	100.0 (3,512)
중·고등학교	24.0	15.5	31.4	19.6	2.4	2.0	1.2	0.7	2.9	0.2	100.0 (2,521)
전문대학 이상	17.5	12.1	31.4	22.7	3.2	3.1	0.6	0.3	9.2	0.0	100.0 ( 622)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7	6.9	29.3	18.5	2.0	1.3	1.5	0.5	1.3	0.0	100.0 (3,402)
미취업	6.0	27.1	35.6	21.3	3.2	2.4	1.3	0.7	2.2	0.2	100.0 (6,42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27.2	34.6	20.8	5.3	2.6	1.8	0.8	1.6	0.1	100.0 (1,993)
제2오분위	12.6	22.7	34.3	21.4	3.0	1.9	1.2	0.9	1.6	0.2	100.0 (2,003)
제3오분위	19.9	19.8	32.9	18.8	2.6	2.1	1.9	0.3	1.5	0.2	100.0 (1,966)
제4오분위	24.9	13.8	34.6	19.0	1.6	1.9	1.2	0.7	2.3	0.0	100.0 (1,976)
제5오분위	24.2	16.6	30.6	21.5	1.3	1.6	0.8	0.6	2.6	0.2	100.0 (1,8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8	14.9	35.0	20.9	2.9	2.1	1.5	0.6	2.1	0.2	100.0 (8,389)
제한 있음	3.1	50.6	23.8	16.5	2.2	1.4	0.8	0.9	0.7	0.0	100.0 (1,43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83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4명을 제외함.

## 나.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I-9-11〉을 통하여 전체노인의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률을 보면, 응답자의 14.7%가 평생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85.3%는 희망하지 않고 있다. 동부지역,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취업 및 신체적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다. 한편, 향후 희망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빈도는 주 2~3회가 53.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주 1회 30.3%, 주 4회 이상 12.7%, 월 1회 2.1% 등의 순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선호하는 실시기관과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기관으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47.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로 27.6%, 종교기관 8.4%, 시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또는 사설학원 4.4%,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3.3%, 대한노인회 2.6%,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여자회관 2.5%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려는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9-12 참조).

한편 향후 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이 39.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이 19.9%, 일반교양 교육이 18.1%, 정보화교육 17.6%, 기타 5.2% 등의 순으로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비슷한 양상이다(표 II-9-13 참조).

〈표 II-9-14〉에서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보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40.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5%, 건강이 안 좋아서 17.2%, 시간이 없어서 8.3%,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5%,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2.0% 등의 순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편이다.



〈표 11-9-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률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참여 희망률	향후 평생 교육 참여 빈도 <sup>2)</sup>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sup>1)</sup>	14.7	12.7	53.2	30.3	1.4	2.1	0.4	100.0 (1,544)
지역								
동부	16.8	13.0	54.1	29.6	1.0	1.8	0.5	100.0 (1,204)
읍·면부	10.1	11.7	49.9	32.6	2.6	3.2	0.0	100.0 ( 341)
성								
남자	13.7	14.4	55.0	26.0	1.8	2.7	0.2	100.0 ( 626)
여자	15.3	11.5	51.8	33.2	1.2	1.7	0.5	100.0 ( 920)
연령								
65~69세	20.4	12.1	60.2	23.2	1.7	2.8	0.0	100.0 ( 643)
70~74세	16.7	10.2	55.3	32.3	0.9	1.3	0.0	100.0 ( 539)
75~79세	11.0	19.2	37.0	39.6	1.5	0.8	1.9	100.0 ( 265)
80~84세	6.9	12.5	40.0	40.0	2.5	3.8	1.3	100.0 ( 80)
85세 이상	2.9	10.5	36.8	42.1	0.0	10.5	0.0	100.0 ( 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5	12.3	55.8	28.1	1.3	2.1	0.4	100.0 (1,105)
배우자 없음	12.9	13.9	46.4	35.5	1.8	2.0	0.5	100.0 ( 440)
가구형태								
노인독거	13.8	14.9	43.1	37.2	2.1	2.1	0.7	100.0 ( 288)
노인부부	14.9	10.9	55.8	29.8	1.1	1.8	0.5	100.0 ( 761)
자녀동거	14.7	15.0	54.4	27.4	1.7	1.4	0.0	100.0 ( 419)
기타	15.6	9.2	57.9	25.0	0.0	7.9	0.0	100.0 ( 7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	12.5	34.4	50.0	3.1	0.0	0.0	100.0 ( 64)
무학(글자해독)	11.8	13.6	47.7	32.9	2.7	3.1	0.0	100.0 ( 258)
초등학교	12.2	12.3	52.0	33.6	0.2	1.3	0.7	100.0 ( 456)
중·고등학교	19.9	11.7	60.3	23.8	2.2	2.0	0.0	100.0 ( 546)
전문대학 이상	30.1	15.3	49.5	30.6	0.0	3.2	1.4	100.0 ( 22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3.8	11.0	52.0	32.1	2.0	2.2	0.6	100.0 ( 492)
미취업	15.1	13.6	53.7	29.4	1.0	2.0	0.3	100.0 (1,052)
연가소득								
제1오분위	10.5	9.0	50.2	35.7	1.4	2.7	0.9	100.0 ( 221)
제2오분위	12.4	12.9	48.3	36.1	1.9	0.8	0.0	100.0 ( 263)
제3오분위	14.8	11.9	55.8	30.0	0.0	2.3	0.0	100.0 ( 310)
제4오분위	15.5	11.9	56.5	26.1	1.5	3.0	0.9	100.0 ( 329)
제5오분위	20.1	15.9	53.2	27.1	1.9	1.7	0.2	100.0 ( 4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9	12.8	52.6	30.4	1.5	2.2	0.4	100.0 (1,440)
제한 있음	7.2	10.5	60.0	28.6	1.0	0.0	0.0	100.0 ( 10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11-9-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교) 부설	시·군·구/ 동·읍·면	문화예술 회관 등	시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47.3	2.6	8.4	3.3	27.6	2.5	4.4	3.9	100.0 (1,544)
지역									
동부	45.6	2.2	9.0	3.7	28.3	2.6	4.1	4.5	100.0 (1,202)
읍·면부	53.7	3.8	6.2	1.8	25.4	2.1	5.6	1.5	100.0 ( 339)
성									
남자	44.2	3.4	5.1	5.9	29.1	3.4	4.8	4.2	100.0 ( 625)
여자	49.5	2.1	10.6	1.5	26.6	2.0	4.1	3.7	100.0 ( 918)
연령									
65~69세	45.3	2.0	4.4	3.3	33.6	3.1	4.4	4.0	100.0 ( 643)
70~74세	49.4	3.3	8.9	4.6	25.2	1.9	4.1	2.6	100.0 ( 540)
75~79세	45.4	2.7	12.6	1.1	21.8	2.7	6.5	7.3	100.0 ( 262)
80~84세	55.7	2.5	19.0	2.5	19.0	0.0	0.0	1.3	100.0 ( 79)
85세 이상	52.9	5.9	23.5	0.0	17.6	0.0	0.0	0.0	100.0 ( 1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7.4	2.4	6.1	4.1	28.5	2.9	4.9	3.7	100.0 (1,105)
배우자 없음	47.3	3.0	14.2	1.4	25.3	1.6	3.2	4.1	100.0 ( 438)
가구형태									
노인독거	43.8	1.7	14.2	2.1	27.4	1.4	4.5	4.8	100.0 ( 288)
노인부부	49.7	2.5	4.7	3.5	29.5	1.7	5.0	3.4	100.0 ( 763)
자녀동거	48.0	3.6	11.3	3.1	24.0	3.8	2.8	3.4	100.0 ( 417)
기타	35.5	1.3	6.6	6.6	30.3	6.6	6.6	6.6	100.0 ( 7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1.9	0.0	7.9	0.0	27.0	1.6	0.0	1.6	100.0 ( 63)
무학(글자해독)	58.0	3.9	12.1	0.8	17.9	1.2	3.1	3.1	100.0 ( 257)
초등학교	46.4	3.5	10.3	1.1	28.4	1.3	3.7	5.3	100.0 ( 457)
중·고등학교	48.5	2.6	6.0	3.3	28.0	3.5	4.0	4.0	100.0 ( 546)
전문대학 이상	30.0	0.0	5.9	11.8	36.4	4.5	9.1	2.3	100.0 ( 2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5	3.4	5.7	4.1	28.4	2.2	3.9	1.8	100.0 ( 493)
미취업	45.8	2.2	9.6	3.0	27.2	2.6	4.8	4.8	100.0 (1,0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2	0.9	12.2	0.5	21.2	1.4	5.4	5.4	100.0 ( 222)
제2오분위	50.4	3.1	12.2	0.4	29.0	0.0	1.1	3.8	100.0 ( 262)
제3오분위	48.4	3.5	5.5	6.5	27.7	1.9	3.5	2.9	100.0 ( 310)
제4오분위	53.4	2.4	4.3	2.1	28.0	0.9	4.0	4.9	100.0 ( 328)
제5오분위	37.1	2.6	9.3	5.0	29.5	6.2	6.9	3.3	100.0 ( 420)
가능상태									
제한 없음	46.9	2.8	8.3	3.3	27.7	2.5	4.7	3.8	100.0 (1,440)
제한 있음	52.9	1.0	9.6	2.9	26.0	2.9	0.0	4.8	100.0 ( 10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로당이 포함됨

〈표 11-9-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19.9	39.2	18.1	17.6	5.2	100.0 (1,544)
지역						
동부	20.0	39.2	17.6	17.5	5.7	100.0 (1,203)
읍·면부	19.6	38.9	19.9	18.1	3.5	100.0 ( 342)
성						
남자	13.9	34.9	18.4	27.2	5.4	100.0 ( 624)
여자	23.9	42.0	18.0	11.1	5.0	100.0 ( 919)
연령						
65~69세	19.9	38.2	18.7	19.6	3.6	100.0 ( 642)
70~74세	19.6	36.8	17.0	18.1	8.5	100.0 ( 541)
75~79세	21.3	44.1	18.6	12.5	3.4	100.0 ( 263)
80~84세	16.5	49.4	17.7	13.9	2.5	100.0 ( 79)
85세 이상	29.4	29.4	23.5	17.6	0.0	100.0 ( 1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5	39.0	17.1	19.9	5.5	100.0 (1,105)
배우자 없음	23.7	39.4	20.7	11.8	4.3	100.0 ( 439)
가구형태						
노인독거	23.7	38.3	21.6	11.8	4.4	100.0 ( 287)
노인부부	19.2	38.2	16.9	20.9	4.9	100.0 ( 762)
자녀동거	20.3	41.6	16.5	15.3	6.2	100.0 ( 418)
기타	11.7	37.7	24.7	19.5	6.5	100.0 ( 7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9.0	35.5	30.6	1.6	3.2	100.0 ( 62)
무학(글자해독)	22.5	37.2	23.6	9.7	7.0	100.0 ( 258)
초등학교	27.6	41.4	10.9	16.4	3.7	100.0 ( 457)
중·고등학교	15.6	39.3	15.0	25.7	4.4	100.0 ( 545)
전문대학 이상	9.0	37.4	30.6	14.0	9.0	100.0 ( 22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3	39.9	15.7	22.0	4.1	100.0 ( 491)
미취업	20.6	38.8	19.3	15.6	5.7	100.0 (1,0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2	42.5	19.0	10.0	6.3	100.0 ( 221)
제2오분위	28.4	33.3	15.2	18.6	4.5	100.0 ( 264)
제3오분위	18.3	37.0	17.7	21.2	5.8	100.0 ( 311)
제4오분위	18.8	40.1	19.1	18.2	3.6	100.0 ( 329)
제5오분위	15.5	41.4	19.3	18.1	5.7	100.0 ( 4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2	38.9	18.4	17.1	5.4	100.0 (1,439)
제한 있음	17.1	42.9	13.3	24.8	1.9	100.0 ( 10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원봉사자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표 II-9-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필요성 못느껴	참가 비용 부담	심리적 부담감	교육 장소 멀어서	교육 장소 몰라서	적당한 프로그램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8.3	17.2	40.9	25.5	2.5	2.0	1.6	0.3	1.7	0.1	100.0 (8,972)
지역											
동부	7.6	17.6	40.9	25.4	3.0	2.2	0.8	0.2	2.1	0.1	100.0 (5,927)
읍·면부	9.5	16.5	40.9	25.6	1.5	1.6	3.0	0.4	1.0	0.0	100.0 (3,046)
성											
남자	9.5	13.8	41.4	26.7	1.9	2.1	1.2	0.2	3.1	0.0	100.0 (3,915)
여자	7.3	19.9	40.5	24.5	2.9	1.9	1.8	0.3	0.6	0.1	100.0 (5,057)
연령											
65~69세	14.3	12.1	41.2	23.2	2.2	2.0	1.6	0.4	2.9	0.1	100.0 (2,503)
70~74세	8.5	15.1	41.5	25.8	3.2	2.2	1.6	0.1	1.8	0.1	100.0 (2,677)
75~79세	6.0	20.7	40.8	24.9	2.6	1.9	1.6	0.3	1.1	0.1	100.0 (2,119)
80~84세	2.1	23.0	41.0	27.2	2.0	2.0	1.9	0.2	0.7	0.0	100.0 (1,076)
85세 이상	0.5	26.0	37.8	32.2	0.8	0.8	1.0	0.3	0.5	0.0	100.0 ( 5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0	15.5	41.6	24.9	2.1	2.0	1.3	0.3	2.2	0.1	100.0 (6,002)
배우자 없음	4.8	20.7	39.7	26.6	3.2	1.9	2.0	0.3	0.8	0.1	100.0 (2,969)
가구형태											
노인독거	4.7	22.1	38.0	26.0	3.5	2.0	2.5	0.4	0.7	0.0	100.0 (1,793)
노인부부	9.5	15.4	42.0	25.3	2.0	1.7	1.5	0.3	2.1	0.1	100.0 (4,351)
자녀동거	8.7	17.3	40.6	25.7	2.4	2.4	0.8	0.2	1.9	0.1	100.0 (2,418)
기타	8.5	14.8	43.9	23.1	3.9	2.4	1.9	0.0	1.5	0.0	100.0 ( 41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19.8	40.4	29.5	2.0	1.9	1.8	0.3	0.3	0.0	100.0 (1,080)
무학(글자해독)	5.8	21.9	41.4	23.2	3.2	1.9	1.9	0.4	0.2	0.0	100.0 (1,918)
초등학교	9.1	17.1	41.3	24.5	2.7	2.1	1.7	0.3	1.0	0.2	100.0 (3,280)
중·고등학교	11.4	13.5	41.1	25.6	2.2	1.6	1.3	0.2	3.1	0.0	100.0 (2,184)
전문대학 이상	7.6	11.2	37.6	30.6	1.2	2.7	0.0	0.0	9.0	0.0	100.0 ( 51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9.1	6.6	41.7	25.4	2.0	1.5	2.0	0.2	1.6	0.0	100.0 (3,069)
미취업	2.7	22.8	40.5	25.5	2.8	2.2	1.4	0.3	1.8	0.1	100.0 (5,9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	22.6	40.0	24.9	4.3	2.4	1.5	0.3	1.5	0.0	100.0 (1,890)
제2오분위	4.8	18.9	41.4	27.1	2.7	1.8	1.9	0.3	1.0	0.1	100.0 (1,849)
제3오분위	10.2	16.6	39.8	25.5	2.3	2.1	2.1	0.4	1.0	0.0	100.0 (1,788)
제4오분위	14.3	11.6	42.7	23.8	1.9	1.8	1.2	0.2	2.2	0.2	100.0 (1,781)
제5오분위	10.2	16.0	40.7	25.9	1.0	1.8	1.0	0.2	3.1	0.1	100.0 (1,6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	12.7	42.7	26.5	2.5	2.1	1.6	0.3	2.0	0.1	100.0 (7,614)
제한 있음	1.1	42.9	31.3	19.4	2.3	1.2	1.2	0.3	0.4	0.0	100.0 (1,359)
2008년	8.3	17.2	40.9	25.5	2.5	2.0	1.6	0.3	1.7	0.1	100.0 (8,97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8,9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5명을 제외함.

#### 4. 사회단체활동

〈표 II-9-15〉에서 사회단체종류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친목단체활동에는 전체 응답자의 37.4%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호회(클럽)활동에 3.8%, 정치사회단체 0.7% 등으로 친목단체를 제외한 단체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종류별 활동 참여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더 활발하며,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노인 및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더 높다.

한편 사회단체종류별 향후 참여 의향에서도 친목단체활동에는 37.5%, 동호회(클럽)활동 4.3%, 정치사회단체활동 0.8%가 참여를 원하고 있어, 현재 단체활동 참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의 제특성별로도 동부지역이,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노인 및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단체활동 참여 의향이 더 높은 수준이다.

〈표 II-9-16〉을 통하여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단체종류별 활동참여 빈도를 보면, 동호회(클럽)활동은 월 1회가 26.4%로 가장 많고, 주 1회는 18.5%, 주 2~3회가 17.0%, 주 4회 이상 17.0%, 월 1회 미만인 12.7%, 2주 1회 8.4% 등이다. 주 1회 이상 참여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 간에는 비슷한 수준이고,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하여 더 높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친목단체활동은 월 1회가 57.7%이고, 월 1회 미만 22.2%, 2주 1회는 9.6%, 주 1회 5.6%, 주 4회 이상 2.5%, 주 2~3회가 2.4% 등으로 절반 이상이 월 1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참여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더 높고,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하여 더 높은 편이고, 연령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정치사회단체는 월 1회 미만이 61.4%로 가장 많고, 월 1회가 27.1% 등이다. 월 1회 이상 참여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더 높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편이며, 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II-9-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및 향후 참여 희망률

(단위: %, 명)

특성	현재 참여율 <sup>1)</sup>			향후 참여 희망률 <sup>2)</sup>			대상지수
	동호회 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동호회 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전체	3.8	37.4	0.7	4.3	37.5	0.8	(10,544)
지역							
동부	4.0	38.3	0.7	4.6	38.5	0.9	( 7,150)
읍·면부	3.2	35.5	0.5	3.5	35.4	0.6	( 3,394)
성							
남자	6.7	47.2	1.2	7.4	46.9	1.5	( 4,548)
여자	1.5	30.0	0.3	1.9	30.3	0.3	( 5,997)
연령							
65~69세	5.5	51.9	0.7	6.9	52.6	1.1	( 3,150)
70~74세	3.9	41.2	0.6	4.1	41.1	0.7	( 3,227)
75~79세	3.1	29.0	0.6	3.1	28.9	0.6	( 2,389)
80~84세	1.8	19.4	1.1	1.9	19.6	1.1	( 1,162)
85세 이상	0.5	9.1	0.3	0.5	8.3	0.2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0	44.9	0.8	5.7	44.8	1.0	( 7,120)
배우자 없음	1.1	21.7	0.3	1.4	22.3	0.4	( 3,424)
가구형태							
노인독거	1.2	21.4	0.3	1.3	21.9	0.3	( 2,087)
노인부부	5.0	44.9	0.8	5.3	44.7	1.0	( 5,120)
자녀동거	3.7	34.9	0.7	4.8	35.1	0.9	( 2,850)
기타	2.0	42.0	0.2	2.7	42.2	0.2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3	13.5	0.0	0.3	14.0	0.0	( 1,146)
무학(글자해독)	0.6	23.0	0.2	1.1	23.8	0.2	( 2,184)
초등학교	2.2	37.8	0.3	2.5	37.8	0.4	( 3,743)
중·고등학교	7.2	51.0	1.2	8.3	50.7	1.7	( 2,737)
전문대학 이상	13.6	64.7	2.6	14.1	63.3	2.6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	45.6	0.6	4.0	45.7	0.7	( 3,566)
미취업	3.8	33.2	0.7	4.4	33.3	0.9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	19.2	0.2	1.5	19.6	0.3	( 2,112)
제2오분위	2.2	31.3	0.6	2.5	31.3	0.8	( 2,121)
제3오분위	3.3	41.1	0.4	3.5	41.0	0.6	( 2,101)
제4오분위	4.4	46.0	1.0	5.0	46.2	1.0	( 2,115)
제5오분위	7.4	49.6	1.1	8.9	49.5	1.5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	41.3	0.7	4.9	41.3	0.9	( 9,074)
제한 있음	0.2	13.5	0.1	0.5	13.7	0.3	( 1,47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동호회 21명, 친목단체 7명, 정치사회단체 44명)를 제외함.

〈표 II-9-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b>동호회 클럽</b>							
전체 <sup>1)</sup>	17.0	17.0	18.5	8.4	26.4	12.7	100.0 ( 396)
지역							
동부	15.7	19.2	17.8	9.1	26.8	11.5	100.0 ( 287)
읍·면부	20.2	11.9	20.2	7.3	24.8	15.6	100.0 ( 109)
성							
남자	18.4	17.4	15.1	10.2	25.6	13.4	100.0 ( 305)
여자	12.1	16.5	29.7	3.3	28.6	9.9	100.0 ( 91)
연령							
65~74세	12.7	24.3	18.5	12.7	20.2	11.6	100.0 ( 173)
75~84세	24.8	16.0	20.0	2.4	29.6	7.2	100.0 ( 125)
75~79세	10.5	3.9	19.7	9.2	31.6	25.0	100.0 ( 76)
80~84세	28.6	9.5	4.8	9.5	33.3	14.3	100.0 ( 21)
85세 이상	0.0	25.0	0.0	25.0	50.0	0.0	100.0 ( 4) <sup>4)</sup>
<b>친목단체</b>							
전체 <sup>2)</sup>	2.5	2.4	5.6	9.6	57.7	22.2	100.0 (3,932)
지역							
동부	2.8	2.7	6.9	10.7	61.5	15.4	100.0 (2,731)
읍·면부	1.8	1.7	2.7	7.0	49.0	37.8	100.0 (1,201)
성							
남자	2.1	2.8	6.3	8.6	53.6	26.6	100.0 (2,141)
여자	3.0	1.9	4.7	10.8	62.6	17.0	100.0 (1,791)
연령							
65~69세	2.3	2.9	6.9	10.8	58.8	18.2	100.0 (1,635)
70~74세	2.4	1.6	4.9	9.1	57.7	24.3	100.0 (1,323)
75~79세	2.5	2.2	4.6	8.5	55.0	27.3	100.0 ( 693)
80~84세	5.3	2.7	2.7	8.4	57.5	23.5	100.0 ( 226)
85세 이상	3.5	5.3	7.0	5.3	56.1	22.8	100.0 ( 57)
<b>정치사회단체</b>							
전체 <sup>3)</sup>	4.3	4.3	2.9	0.0	27.1	61.4	100.0 ( 70)
지역							
동부	1.9	5.7	3.8	0.0	34.0	54.7	100.0 ( 53)
읍·면부	11.8	0.0	0.0	0.0	5.9	82.4	100.0 ( 17)
성							
남자	3.6	5.5	1.8	0.0	27.3	61.8	100.0 ( 55)
여자	6.7	0.0	6.7	0.0	26.7	60.0	100.0 ( 15)
연령							
65~69세	0.0	9.1	9.1	0.0	4.5	77.3	100.0 ( 22)
70~74세	15.8	0.0	0.0	0.0	21.1	63.2	100.0 ( 19)
75~79세	0.0	0.0	0.0	0.0	33.3	66.7	100.0 ( 15)
80~84세	0.0	0.0	0.0	0.0	69.2	30.8	100.0 ( 13)
85세 이상	0.0	0.0	0.0	0.0	100.0	0.0	100.0 ( 2) <sup>4)</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동호회(클럽)에 가입한 3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친목단체에 가입한 3,9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1명을 제외함.

3)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한 7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이러한 3종류의 단체활동 참여 빈도를 정리하면, 동호회(클럽) 활동의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52.5%인데 반하여, 친목단체는 월 1회가 57.7%이며, 정치사회단체는 월 1회 미만이 61.4% 등으로 동호회(클럽)활동은 참여율은 낮으나 가장 빈번하게 활동을 하며, 친목단체는 참여율은 높으나 주로 월 1회 활동 참여를 하는 경향이다.

〈표 II-9-17〉는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단체종류별 참여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동호회(클럽)활동은 스스로가 69.7%로 가장 많고, 주변인의 권유 30.0%, 대중매체 및 홍보 0.3% 등으로 전체의 2/3 이상이 스스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동호회(클럽) 활동의 참여 경로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스스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더 높고,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 노인의 경우 스스로 참여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정치사회단체활동은 스스로가 50.3%이고, 주변인의 권유가 46.5%로 비슷한 수준이다. 스스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지역, 여자, 배우자 없는 경우, 미취업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표 II-9-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하게 된 경로

(단위: %, 명)

특성	동호회 클럽 <sup>1)</sup>					정치사회단체 <sup>2)</sup>				
	스스로	주변인 권유	대중 매체	기타	계 (명)	스스로	주변인 권유	대중 매체	기타	계 (명)
전체	69.7	30.0	0.3	0.0	100.0 (396)	50.3	46.5	0.6	2.6	100.0 (70)
지역										
동부	66.3	33.3	0.3	0.0	100.0 (288)	55.8	40.4	0.0	3.8	100.0 (52)
읍·면부	78.2	20.9	0.9	0.0	100.0 (110)	29.4	70.6	0.0	0.0	100.0 (17)
성										
남자	72.5	27.5	0.0	0.0	100.0 (306)	47.3	49.1	0.0	3.6	100.0 (55)
여자	60.4	38.5	1.1	0.0	100.0 ( 91)	64.3	35.7	0.0	0.0	100.0 (14)
연령										
65~69세	75.1	24.9	0.0	0.0	100.0 (173)	54.5	45.5	0.0	0.0	100.0 (22)
70~74세	69.6	29.6	0.8	0.0	100.0 (125)	50.0	50.0	0.0	0.0	100.0 (18)
75~79세	60.8	39.2	0.0	0.0	100.0 ( 74)	46.7	40.0	0.0	13.3	100.0 (15)
80~84세	66.7	33.3	0.0	0.0	100.0 ( 21)	61.5	38.5	0.0	0.0	100.0 (13)
85세 이상	33.3	66.7	0.0	0.0	100.0 ( 3) <sup>3)</sup>	0.0	100.0	0.0	0.0	100.0 ( 2) <sup>3)</sup>



특성	동호회 클럽 <sup>1)</sup>					정치사회단체 <sup>2)</sup>				
	스스로	주변인 권유	대중 매체	기타	계 (명)	스스로	주변인 권유	대중 매체	기타	계 (명)
<b>결혼상태</b>										
배우자 있음	69.8	29.9	0.3	0.0	100.0 (358)	44.8	51.7	0.0	3.4	100.0 (58)
배우자 없음	66.7	30.8	2.6	0.0	100.0 ( 39)	81.8	18.2	0.0	0.0	100.0 (11)
<b>가구형태</b>										
노인독거	83.3	16.7	0.0	0.0	100.0 ( 24)	71.4	28.6	0.0	0.0	100.0 ( 7)
노인부부	76.3	23.7	0.0	0.0	100.0 (257)	56.1	43.9	0.0	0.0	100.0 (41)
자녀동거	50.5	48.6	1.0	0.0	100.0 (105)	30.0	60.0	0.0	10.0	100.0 (20)
기타	70.0	30.0	0.0	0.0	100.0 ( 10)	100.0	0.0	0.0	0.0	100.0 ( 1) <sup>3)</sup>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33.3	66.7	0.0	0.0	100.0 ( 3) <sup>3)</sup>	0.0	0.0	0.0	0.0	100.0 ( 0)
무학(글자해독)	50.0	50.0	0.0	0.0	100.0 ( 14)	25.0	75.0	0.0	0.0	100.0 ( 4) <sup>3)</sup>
초등학교	59.3	40.7	0.0	0.0	100.0 ( 81)	69.2	30.8	0.0	0.0	100.0 (13)
중·고등학교	74.7	24.7	0.5	0.0	100.0 (198)	48.5	45.5	0.0	6.1	100.0 (33)
전문대학 이 상	73.0	27.0	0.0	0.0	100.0 (100)	42.1	57.9	0.0	0.0	100.0 (19)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66.7	33.3	0.0	0.0	100.0 (132)	40.9	59.1	0.0	0.0	100.0 (22)
미취업	71.5	28.1	0.4	0.0	100.0 (263)	55.3	40.4	0.0	4.3	100.0 (47)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75.8	24.2	0.0	0.0	100.0 ( 33)	50.0	50.0	0.0	0.0	100.0 ( 4)
제2오분위	62.2	37.8	0.0	0.0	100.0 ( 45)	30.8	69.2	0.0	0.0	100.0 (13)
제3오분위	77.1	22.9	0.0	0.0	100.0 ( 70)	62.5	37.5	0.0	0.0	100.0 ( 8)
제4오분위	72.0	28.0	0.0	0.0	100.0 ( 93)	68.2	31.8	0.0	0.0	100.0 (22)
제5오분위	66.2	33.1	0.6	0.0	100.0 (154)	40.9	50.0	0.0	9.1	100.0 (22)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69.5	30.3	0.3	0.0	100.0 (393)	50.7	46.3	0.0	3.0	100.0 (67)
제한 있음	100.0	0.0	0.0	0.0	100.0 ( 3) <sup>3)</sup>	50.0	50.0	0.0	0.0	100.0 ( 2)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동호회클럽에 참석하는 3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정치사회단체에 참석하는 7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제2절 자원봉사활동

### 1. 현재 자원봉사활동

〈표 II-9-18〉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 실태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인은 3.9%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과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9.2%, 나머지 86.9%는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4.6%)이 읍·면부지역(2.3%)보다 더 많으며, 여자노인(2.9%)보다는 남자노인(5.2%)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조금 더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경향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지 살펴보면, 주 1회가 24.3%로 가장 많고, 월 1회 23.5%, 주 2~3회 18.3%, 월 1회 미만 15.0%, 주 4회 이상 12.2%, 2주 1회 6.8% 등의 순이다(표 II-9-19 참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빈도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지역,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자가 더 높았고, 성 및 결혼상태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기간을 보면, 5년 미만이 36.5%로 가장 많고, 10~19년 23.8%, 5~9년 20.3%, 20~29년 11.5%, 30년 이상 8.0% 등의 순으로 전체의 1/3정도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비율을 비교하면, 여자노인의 활동기간이 남자노인보다 조금 더 길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9-20 참조).

〈표 11-9-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이 없음	계 (명)
전체 <sup>1)</sup>	3.9	9.2	86.9	100.0 (10,544)
지역				
동부	4.6	10.3	85.1	100.0 ( 7,150)
읍·면부	2.3	7.0	90.7	100.0 ( 3,394)
성				
남자	5.2	10.2	84.6	100.0 ( 4,548)
여자	2.9	8.5	88.6	100.0 ( 5,996)
연령				
65~69세	6.0	11.9	82.1	100.0 ( 3,150)
70~74세	3.0	9.2	87.8	100.0 ( 3,227)
75~79세	3.9	7.8	88.3	100.0 ( 2,389)
80~84세	2.2	6.2	91.6	100.0 ( 1,163)
85세 이상	0.2	7.2	92.7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6	10.2	85.2	100.0 ( 7,121)
배우자 없음	2.3	7.3	90.4	100.0 ( 3,424)
가구형태				
노인독거	2.4	6.8	90.8	100.0 ( 2,087)
노인부부	4.7	9.9	85.4	100.0 ( 5,120)
자녀동거	3.1	9.8	87.2	100.0 ( 2,849)
기타	5.1	9.4	85.5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3	2.7	96.9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1.3	5.1	93.6	100.0 ( 2,184)
초등학교	3.3	8.0	88.7	100.0 ( 3,743)
중·고등학교	6.2	14.3	79.5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1.2	19.2	69.7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	8.6	87.5	100.0 ( 3,567)
미취업	3.9	9.6	86.6	100.0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	6.2	91.1	100.0 ( 2,112)
제2오분위	2.6	7.7	89.7	100.0 ( 2,120)
제3오분위	3.9	9.5	86.7	100.0 ( 2,101)
제4오분위	5.0	10.3	84.7	100.0 ( 2,114)
제5오분위	5.1	12.5	82.4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4	9.7	85.9	100.0 ( 9,073)
제한 있음	0.5	6.1	93.3	100.0 ( 1,470)
2008년도 <sup>2)</sup>	10.2		89.8	100.0 (10,78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현재 하고 있음과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을 구분하지 않았음.

〈표 11-9-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sup>1)</sup>	12.2	18.3	24.3	6.8	23.5	15.0	100.0 (407)
지역							
동부	12.4	20.0	26.7	6.4	22.7	11.8	100.0 (330)
읍·면부	11.4	11.4	13.9	8.9	26.6	27.8	100.0 ( 79)
성							
남자	11.4	20.8	23.7	6.8	22.0	15.3	100.0 (236)
여자	13.4	15.1	25.0	7.0	25.0	14.5	100.0 (172)
연령							
65~69세	7.4	19.6	25.4	5.3	25.4	16.9	100.0 (189)
70~74세	16.7	14.6	27.1	7.3	21.9	12.5	100.0 ( 96)
75~79세	16.0	18.1	21.3	8.5	20.2	16.0	100.0 ( 94)
80~84세	16.0	28.0	12.0	8.0	28.0	8.0	100.0 ( 25)
85세 이상	0.0	0.0	100.0	0.0	0.0	0.0	100.0 ( 1)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6	19.5	23.7	6.1	24.6	14.6	100.0 (329)
배우자 없음	15.6	13.0	26.0	10.4	19.5	15.6	100.0 ( 77)
가구형태							
노인독거	9.8	17.6	29.4	7.8	19.6	15.7	100.0 ( 51)
노인부부	10.3	20.7	21.5	6.6	23.6	17.4	100.0 (242)
자녀동거	13.6	14.8	35.2	4.5	25.0	6.8	100.0 ( 88)
기타	28.0	8.0	4.0	12.0	28.0	20.0	100.0 (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50.0	50.0	0.0	0.0	0.0	100.0 ( 2) <sup>2)</sup>
무학(글자해독)	25.0	7.1	17.9	7.1	17.9	25.0	100.0 ( 28)
초등학교	8.2	13.1	16.4	9.0	33.6	19.7	100.0 (122)
중·고등학교	15.3	20.6	25.3	7.1	17.6	14.1	100.0 (170)
전문대학 이상	7.4	23.5	34.6	2.5	24.7	7.4	100.0 ( 8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2	14.6	20.4	8.8	24.8	21.2	100.0 (137)
미취업	13.1	20.5	26.1	5.6	22.8	11.9	100.0 (2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5	38.6	21.1	1.8	22.8	5.3	100.0 ( 57)
제2오분위	7.1	14.3	8.9	10.7	32.1	26.8	100.0 ( 56)
제3오분위	16.3	13.8	20.0	10.0	17.5	22.5	100.0 ( 80)
제4오분위	13.1	14.0	32.7	6.5	23.4	10.3	100.0 (107)
제5오분위	12.1	16.8	28.0	5.6	24.3	13.1	100.0 (1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5	18.3	24.3	6.8	23.1	15.0	100.0 (399)
제한 있음	0.0	12.5	25.0	12.5	50.0	0.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9-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계 (명)
전체 <sup>1)</sup>	36.5	20.3	23.8	11.5	8.0	100.0 (402)
지역						
동부	36.7	19.1	24.7	11.7	7.7	100.0 (324)
읍·면부	35.4	24.1	20.3	11.4	8.9	100.0 ( 79)
성						
남자	38.6	19.7	20.6	12.4	8.6	100.0 (233)
여자	33.7	21.3	27.8	10.1	7.1	100.0 (169)
연령						
65~69세	35.8	19.3	23.0	15.0	7.0	100.0 (187)
70~74세	43.3	19.6	21.6	9.3	6.2	100.0 ( 97)
75~79세	34.8	26.1	18.5	7.6	13.0	100.0 ( 92)
80~84세	24.0	8.0	60.0	4.0	4.0	100.0 ( 25)
85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 1)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4	20.0	23.1	13.5	8.0	100.0 (325)
배우자 없음	39.7	21.8	26.9	3.8	7.7	100.0 ( 78)
가구형태						
노인독거	30.8	26.9	26.9	3.8	11.5	100.0 ( 52)
노인부부	35.8	20.8	20.8	15.4	7.1	100.0 (243)
자녀동거	39.8	15.9	28.4	5.7	10.2	100.0 ( 88)
기타	47.6	14.3	28.6	9.5	0.0	100.0 ( 2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6.7	0.0	33.3	0.0	0.0	100.0 ( 3) <sup>2)</sup>
무학(글자해독)	46.4	25.0	25.0	3.6	0.0	100.0 ( 28)
초등학교	38.2	28.5	22.8	4.9	5.7	100.0 (123)
중·고등학교	35.9	12.0	22.8	16.2	13.2	100.0 (167)
전문대학 이상	31.3	23.8	26.3	16.3	2.5	100.0 ( 8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7	25.5	17.5	8.0	10.2	100.0 (137)
미취업	35.5	17.7	26.8	13.2	6.8	100.0 (26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8	21.1	19.3	21.1	1.8	100.0 ( 57)
제2오분위	34.5	23.6	25.5	9.1	7.3	100.0 ( 55)
제3오분위	37.2	23.1	24.4	3.8	11.5	100.0 ( 78)
제4오분위	42.9	15.2	21.0	12.4	8.6	100.0 (105)
제5오분위	29.9	21.5	28.0	12.1	8.4	100.0 (1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0	20.6	24.1	11.2	8.1	100.0 (394)
제한 있음	62.5	0.0	12.5	25.0	0.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II-9-21〉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어떤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종교기관이 3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복지기관으로 16.4%, 지자체 16.3%, 경로당 12.8%, 민간단체 11.8%, 개인적으로 10.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종교기관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읍·면부지역은 지자체를 통하여 활동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자노인은 종교기관을 통한 활동이 41.9%인데 반하여, 남자노인은 지자체(23.3%), 종교기관(22.5%)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지자체를 통한 활동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경로당이나 복지기관을 통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어떤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가 49.6%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분야(환경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21.9%, 교통질서분야(안전 지킴이, 기초 질서 캠페인 등) 6.0%, 보건의료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6.0%, 문화체육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5.3%, 교육활동분야(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3.6%, 공공기관분야(행정 보조, 주민자치활동지원 등) 2.7%, 소비자 보호분야(피해 소비자 상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1.4%, 재난·재해 구호 분야(예방활동 및 복구 지원 등) 0.4% 등의 순으로 전체의 절반정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I-9-22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활동이, 읍·면부지역은 환경보호분야의 활동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자노인은 74.4%가 사회복지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남자노인은 사회복지 31.2%, 환경보호 27.4%, 교통질서 9.8%, 문화체육 8.1% 등으로 성별간 활동 분야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호분야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복지분야의 활동이 많은데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특성	개인적으로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0.2	30.7	12.8	16.4	16.3	11.8	1.7	100.0 (407)
지역								
동부	9.5	33.8	12.5	18.0	14.0	10.4	1.8	100.0 (328)
읍·면부	12.5	17.5	15.0	10.0	26.3	17.5	1.3	100.0 ( 80)
성								
남자	8.5	22.5	12.7	16.5	23.3	13.6	3.0	100.0 (236)
여자	12.2	41.9	12.8	16.3	7.0	9.9	0.0	100.0 (172)
연령								
65~69세	11.6	40.0	4.7	14.2	13.7	12.6	3.2	100.0 (190)
70~74세	7.1	28.6	21.4	8.2	19.4	15.3	0.0	100.0 ( 98)
75~79세	11.8	18.3	23.7	29.0	11.8	5.4	0.0	100.0 ( 93)
80~84세	3.7	14.8	3.7	22.2	37.0	14.8	3.7	100.0 ( 27)
85세 이상	-	-	-	-	100.0	-	-	100.0 ( 1)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0	30.7	10.6	15.8	18.8	11.9	2.1	100.0 (329)
배우자 없음	10.4	31.2	22.1	19.5	5.2	11.7	0.0	100.0 ( 77)
가구형태								
노인독거	15.4	34.6	15.4	15.4	5.8	13.5	0.0	100.0 ( 52)
노인부부	11.9	31.7	8.6	17.3	16.9	12.3	1.2	100.0 (243)
자녀동거	5.6	28.1	21.3	12.4	21.3	6.7	4.5	100.0 ( 89)
기타	0.0	24.0	16.0	24.0	16.0	20.0	0.0	100.0 (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33.3	0.0	66.7	0.0	0.0	0.0	100.0 ( 3) <sup>2)</sup>
무학(글자해독)	7.1	25.0	28.6	28.6	3.6	7.1	0.0	100.0 ( 28)
초등학교	10.6	26.0	15.4	13.8	17.1	13.0	4.1	100.0 (123)
중·고등학교	11.2	36.5	12.9	12.4	14.1	12.4	0.6	100.0 (170)
전문대학 이상	8.4	27.7	3.6	22.9	24.1	12.0	1.2	100.0 ( 8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9	16.1	13.9	13.9	26.3	15.3	3.6	100.0 (137)
미취업	9.7	38.3	12.3	17.8	11.2	10.0	0.7	100.0 (269)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15.8	42.1	10.5	12.3	15.8	3.5	0.0	100.0 ( 57)
제2오분위	5.5	20.0	16.4	23.6	14.5	20.0	0.0	100.0 ( 55)
제3오분위	9.9	28.4	13.6	12.3	21.0	13.6	1.2	100.0 ( 81)
제4오분위	13.2	40.6	6.6	15.1	12.3	8.5	3.8	100.0 (106)
제5오분위	7.4	22.2	18.5	19.4	17.6	13.9	0.9	100.0 (10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8	31.2	12.8	16.8	15.6	12.1	1.8	100.0 (398)
제한 있음	25.0	12.5	12.5	0.0	50.0	0.0	0.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9-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사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질서	환경 보호	보건 의료	공공 기관	재난 구조	교육 활동	소비자 보호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49.6	5.3	6.0	21.9	6.0	2.7	0.4	3.6	1.4	3.0	100.0 (407)
지역											
동부	51.1	4.3	6.1	19.8	7.3	3.0	0.3	4.0	1.8	2.4	100.0 (329)
읍·면부	43.6	9.0	6.4	30.8	1.3	1.3	1.3	2.6	0.0	3.8	100.0 ( 78)
성											
남자	31.2	8.1	9.8	27.4	6.4	4.7	0.9	5.6	2.1	3.8	100.0 (234)
여자	74.4	1.2	1.2	14.5	5.8	0.0	0.0	1.2	0.6	1.2	100.0 (172)
연령											
65~69세	56.6	7.4	4.8	16.9	5.8	2.1	0.5	2.6	0.5	2.6	100.0 (189)
70~74세	52.1	1.0	5.2	28.1	2.1	2.1	0.0	3.1	1.0	5.2	100.0 ( 96)
75~79세	40.9	5.4	9.7	22.6	9.7	1.1	0.0	6.5	3.2	1.1	100.0 ( 93)
80~84세	26.9	7.7	3.8	34.6	11.5	15.4	0.0	0.0	0.0	0.0	100.0 ( 26)
85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 1) <sup>3)</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8	5.8	6.7	24.2	5.5	3.3	0.6	4.2	1.8	3.0	100.0 (330)
배우자 없음	69.2	2.6	3.8	11.5	9.0	0.0	0.0	1.3	0.0	2.6	100.0 ( 78)
가구형태											
노인독거	68.6	3.9	2.0	11.8	7.8	0.0	0.0	2.0	0.0	3.9	100.0 ( 51)
노인부부	51.0	2.9	6.2	22.6	5.3	2.5	0.8	4.1	0.8	3.7	100.0 (243)
자녀동거	34.1	5.7	8.0	28.4	9.1	5.7	0.0	4.5	3.4	1.1	100.0 ( 88)
기타	54.2	29.2	4.2	12.5	0.0	0.0	0.0	0.0	0.0	0.0	100.0 ( 2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4) <sup>3)</sup>
무학(글자해독)	75.0	0.0	0.0	21.4	0.0	0.0	0.0	0.0	0.0	3.6	100.0 ( 28)
초등학교	57.7	5.7	7.3	22.0	1.6	0.0	0.0	0.0	3.3	2.4	100.0 (123)
중·고등학교	45.6	7.1	7.7	23.1	6.5	4.7	0.6	2.4	1.2	1.2	100.0 (169)
전문대학 이상	36.1	2.4	2.4	20.5	14.5	3.6	1.2	12.0	0.0	7.2	100.0 ( 83)
현 취업상태											
취업중	44.9	9.4	10.1	22.5	1.4	1.4	0.7	3.6	3.6	2.2	100.0 (138)
미취업	52.2	3.4	3.7	21.6	8.6	3.4	0.4	3.7	0.0	3.0	100.0 (2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8.4	3.5	7.0	15.8	3.5	0.0	0.0	0.0	0.0	1.8	100.0 ( 57)
제2오분위	47.4	1.8	1.8	29.8	1.8	8.8	0.0	1.8	5.3	1.8	100.0 ( 57)
제3오분위	50.6	7.4	7.4	19.8	7.4	1.2	0.0	0.0	3.7	2.5	100.0 ( 81)
제4오분위	55.7	2.8	6.6	21.7	4.7	0.0	0.9	5.7	0.0	1.9	100.0 (106)
제5오분위	32.4	9.3	5.6	23.1	10.2	5.6	0.9	7.4	0.0	5.6	100.0 (10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0	5.3	5.3	21.8	6.3	2.8	0.5	3.8	1.5	3.0	100.0 (400)
제한 있음	22.2	0.0	44.4	33.3	0.0	0.0	0.0	0.0	0.0	0.0	100.0 ( 9)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국제관계 및 시민단체 활동 분야는 보기에는 있었으나 국제관계는 응답자가 전혀 없고, 시민단체는 1명만 응답하였으므로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나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즐거움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24.3%,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2.5%,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2.1% 등의 순이다.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에 비하여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회환원(25.0%)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고, 읍·면부지역은 나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즐거움을 위해서라는 응답(73.4%)이 조금 더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회환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표 II-9-23 참조).

〈표 II-9-24〉에 기초하여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에 만족하는지를 보면, 매우 그렇다 45.0%, 그런 편이다 51.2%, 그저 그렇다 3.2% 등으로 96.2%는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제특성별로는 비슷한 경향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단 2명뿐이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에 부담이 되어서, 활동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표 11-9-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신의 성취	사회 환원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시간 보내기	기타 <sup>2)</sup>	계 (명)
전체 <sup>1)</sup>	70.9	24.3	2.1	2.5	0.2	100.0 (407)
지역						
동부	70.1	25.0	1.8	3.0	0.0	100.0 (328)
읍·면부	73.4	21.5	3.8	0.0	1.3	100.0 ( 79)
성						
남자	60.9	32.3	3.0	3.8	0.0	100.0 (235)
여자	84.3	13.4	0.6	1.2	0.6	100.0 (172)
연령						
65~69세	71.2	23.6	2.1	2.6	0.5	100.0 (191)
70~74세	67.0	28.9	3.1	1.0	0.0	100.0 ( 97)
75~79세	73.1	20.4	2.2	4.3	0.0	100.0 ( 93)
80~84세	76.9	23.1	0.0	0.0	0.0	100.0 ( 26)
85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 1) <sup>3)</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8.8	25.8	2.4	3.0	0.0	100.0 (330)
배우자 없음	79.5	17.9	0.0	1.3	1.3	100.0 ( 78)
가구형태						
노인독거	75.0	21.2	0.0	1.9	1.9	100.0 ( 52)
노인부부	66.1	26.9	3.3	3.7	0.0	100.0 (242)
자녀동거	81.8	18.2	0.0	0.0	0.0	100.0 ( 88)
기타	72.0	28.0	0.0	0.0	0.0	100.0 (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0.0	0.0	0.0	0.0	0.0	100.0 ( 3) <sup>3)</sup>
무학(글자해독)	75.0	25.0	0.0	0.0	0.0	100.0 ( 28)
초등학교	78.9	13.0	3.3	4.1	0.8	100.0 (123)
중·고등학교	70.8	24.0	2.3	2.9	0.0	100.0 (171)
전문대학 이상	56.1	42.7	1.2	0.0	0.0	100.0 ( 82)
현 취업상태						
취업중	70.3	25.4	2.9	1.4	0.0	100.0 (138)
미취업	70.7	23.7	1.9	3.3	0.4	100.0 (27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9	39.7	0.0	1.7	1.7	100.0 ( 58)
제2오분위	72.7	10.9	7.3	9.1	0.0	100.0 ( 55)
제3오분위	76.3	20.0	0.0	3.8	0.0	100.0 ( 80)
제4오분위	70.8	25.5	2.8	0.9	0.0	100.0 (106)
제5오분위	72.9	25.2	1.9	0.0	0.0	100.0 (1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0.4	24.9	2.0	2.5	0.3	100.0 (398)
제한 있음	100.0	0.0	0.0	0.0	0.0	100.0 ( 8)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새로운 기술 습득이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제외하고 제시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9-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만족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45.0	51.2	3.2	0.0	0.5	100.0 (407)
지역						
동부	48.9	47.4	3.4	0.0	0.3	100.0 (327)
읍·면부	28.8	66.3	3.8	0.0	1.3	100.0 ( 80)
성						
남자	48.7	47.4	3.4	0.0	0.4	100.0 (234)
여자	40.1	55.8	3.5	0.0	0.6	100.0 (172)
연령						
65~69세	46.8	49.5	3.2	0.0	0.5	100.0 (190)
70~74세	43.3	52.6	3.1	0.0	1.0	100.0 ( 97)
75~79세	34.8	60.9	4.3	0.0	0.0	100.0 ( 92)
80~84세	76.0	20.0	4.0	0.0	0.0	100.0 ( 25)
85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 1)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8.0	48.0	3.3	0.0	0.6	100.0 (329)
배우자 없음	32.5	63.6	3.9	0.0	0.0	100.0 ( 77)
가구형태						
노인독거	33.3	60.8	5.9	0.0	0.0	100.0 ( 51)
노인부부	49.4	46.5	3.3	0.0	0.8	100.0 (241)
자녀동거	39.8	58.0	2.3	0.0	0.0	100.0 ( 88)
기타	45.8	54.2	0.0	0.0	0.0	100.0 ( 2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0.0	50.0	0.0	0.0	0.0	100.0 ( 4) <sup>2)</sup>
무학(글자해독)	28.6	67.9	3.6	0.0	0.0	100.0 ( 28)
초등학교	39.0	54.5	5.7	0.0	0.8	100.0 (123)
중·고등학교	42.9	54.7	1.8	0.0	0.6	100.0 (170)
전문대학 이상	62.2	32.9	4.9	0.0	0.0	100.0 ( 82)
현 취업상태						
취업중	44.5	53.3	0.7	0.0	1.5	100.0 (137)
미취업	45.4	49.8	4.8	0.0	0.0	100.0 (26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4	40.4	5.3	0.0	0.0	100.0 ( 57)
제2오분위	37.0	48.1	11.1	0.0	3.7	100.0 ( 54)
제3오분위	49.4	49.4	1.2	0.0	0.0	100.0 ( 81)
제4오분위	35.8	63.2	0.9	0.0	0.0	100.0 (106)
제5오분위	49.5	48.6	1.9	0.0	0.0	100.0 (1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45.6	50.4	3.5	0.0	0.5	100.0 (399)
제한 있음	12.5	87.5	0.0	0.0	0.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2.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노인들이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향을 <표 II-9-25>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의 9.9%는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90.1%는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12.2%)이 읍·면부지역(5.2%)보다는, 여자노인(7.5%)보다는 남자노인(13.1%)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6.5%)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11.6%)이, 취업노인(11.7%) 및 신체적 기능이 제한이 없는(11.2%) 경우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원하는 활동 종류는 단순노동형 자원봉사가 45.8%이고, 전문기술 활용형 자원봉사가 14.1%이며, 나머지 40.1% 활동종류에 무관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대한 비율을 노인특성 별로 비교하면, 동부지역은 단순노동형(44.3%), 활동종류 무관(41.0%)인데 반하여 읍·면부지역은 단순노동형(53.1%), 활동종류 무관(36.0%)로 단순노동형을 더 원하고 있고, 여자노인은 단순노동형이 57.6%로 가장 많고, 남자노인은 활동종류에 무관하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아 성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순노동형을 원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문기술 활용형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단순노동형이 60.4%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활동종류에 무관하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기술 활용형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다.

〈표 11-9-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률 및 활동 종류

(단위: %, 명)

특성	향후 참여희망률 <sup>1)</sup>	향후 참여 자원봉사활동 종류 <sup>2)</sup>			계 (명)
		단순노동형	전문기술 활용형	활동종류 무관	
전체	9.9	45.8	14.1	40.1	100.0 (1,042)
지역					
동부	12.2	44.3	14.7	41.0	100.0 ( 866)
읍·면부	5.2	53.1	10.9	36.0	100.0 ( 175)
성					
남자	13.1	36.9	20.0	43.1	100.0 ( 594)
여자	7.5	57.6	6.3	36.2	100.0 ( 448)
연령					
65~69세	18.1	47.1	11.8	41.1	100.0 ( 569)
70~74세	9.5	46.4	15.2	38.4	100.0 ( 302)
75~79세	5.7	41.6	19.7	38.7	100.0 ( 137)
80~84세	2.7	35.5	19.4	45.2	100.0 ( 31)
85세 이상	0.3	33.3	0.0	66.7	100.0 ( 3)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6	41.9	15.5	42.6	100.0 ( 821)
배우자 없음	6.5	60.4	8.6	31.1	100.0 ( 222)
가구형태					
노인독거	6.1	61.9	10.3	27.8	100.0 ( 126)
노인부부	10.6	42.0	18.4	39.6	100.0 ( 543)
자녀동거	11.2	44.5	7.9	47.6	100.0 ( 317)
기타	11.5	54.5	14.5	30.9	100.0 ( 5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	29.4	5.9	64.7	100.0 ( 17)
무학(글자해독)	3.8	69.9	2.4	27.7	100.0 ( 83)
초등학교	7.8	55.8	6.5	37.7	100.0 ( 292)
중·고등학교	17.2	43.6	10.6	45.7	100.0 ( 470)
전문대학 이상	24.4	25.1	41.3	33.5	100.0 ( 17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7	45.4	14.2	40.4	100.0 ( 416)
미취업	9.0	46.1	14.0	39.9	100.0 ( 62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49.2	15.3	35.6	100.0 ( 118)
제2오분위	6.9	62.3	6.8	30.8	100.0 ( 146)
제3오분위	9.4	50.3	18.8	31.0	100.0 ( 197)
제4오분위	11.5	43.8	12.0	44.2	100.0 ( 242)
제5오분위	16.2	36.2	15.6	48.2	100.0 ( 34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2	45.2	14.5	40.3	100.0 (1,010)
제한 있음	2.2	65.6	0.0	34.4	100.0 ( 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2)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1,04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II-9-26〉에서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살펴보았다. 선호하는 분야로는,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가 48.6%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분야(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14.5%, 교통질서분야(안전 지킴이, 기초 질서 캠페인 등) 11.4%, 교육활동분야(강의, 방과후교실, 도서관 지원 등) 6.4%, 보건의료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5.4%, 문화체육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4.7%, 공공기관분야(행정 보조, 주민자치활동지원 등) 3.9%, 재난·재해 구호 분야(예방활동 및 복구 지원 등) 1.6%, 소비자 보호분야(피해 소비자 상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1.4% 등의 순으로 전체의 절반정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자원봉사활동 분야와 비슷한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보건의료, 교육활동, 교통질서 분야에서, 읍·면부지역은 환경보호분야의 활동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자노인은 66.4%가 사회복지분야의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반면, 남자노인은 사회복지 35.3%, 환경보호 17.6%, 교통질서 14.5%, 문화체육 6.9% 등으로 활동 분야에는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 적을수록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호분야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보호, 보건의료, 공공기관, 교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사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질서	환경 보호	보건 의료	국제 관계	공공 기관	재난 구조	교육 활동	시민 단체	소비 자 보호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48.6	4.7	11.4	14.5	5.4	0.7	3.9	1.6	6.4	0.1	1.4	1.4	100.0 (1,042)
지역													
동부	48.8	4.5	11.8	12.1	6.5	0.8	4.0	1.5	7.3	0.1	1.6	1.0	100.0 ( 867)
읍·면부	47.5	5.6	9.6	25.4	0.6	0.6	3.4	1.7	2.3	0.0	0.6	2.8	100.0 ( 177)
성													
남자	35.3	6.9	14.5	17.6	3.7	1.3	6.7	2.5	8.1	0.0	1.0	2.4	100.0 ( 595)
여자	66.4	1.8	7.4	10.1	7.6	0.0	0.2	0.2	4.3	0.2	1.8	0.0	100.0 ( 447)
연령													
65~69세	54.5	5.4	10.0	10.9	6.0	0.0	4.7	1.9	3.9	0.0	1.1	1.6	100.0 ( 569)
70~74세	43.9	2.6	14.5	19.1	2.6	2.6	2.0	2.0	7.3	0.3	1.7	1.3	100.0 ( 303)
75~79세	37.7	3.6	12.3	17.4	7.2	0.0	3.6	0.0	15.2	0.0	2.2	0.7	100.0 ( 138)
80~84세	28.1	12.5	3.1	21.9	15.6	0.0	12.5	0.0	6.3	0.0	0.0	0.0	100.0 ( 32)
85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2)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6	5.5	11.6	16.4	5.1	0.9	4.6	1.8	6.5	0.1	1.7	1.2	100.0 ( 819)
배우자 없음	64.0	1.4	10.8	7.2	6.8	0.5	1.4	0.5	5.9	0.0	0.0	1.8	100.0 ( 222)
가구형태													
노인독거	63.5	2.4	7.1	9.5	4.8	0.8	1.6	0.8	7.1	0.0	0.0	2.4	100.0 ( 126)
노인부부	45.8	5.0	11.5	16.5	5.7	0.7	4.3	2.2	6.3	0.0	0.9	1.1	100.0 ( 541)
자녀동거	45.7	3.5	13.6	12.9	6.0	0.9	4.4	1.3	7.3	0.3	2.5	1.6	100.0 ( 317)
기타	60.0	12.7	9.1	16.4	0.0	0.0	1.8	0.0	0.0	0.0	0.0	0.0	100.0 ( 5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2.4	0.0	5.9	5.9	0.0	0.0	0.0	0.0	5.9	0.0	0.0	0.0	100.0 ( 17)
무학(글자해독)	67.1	1.2	13.4	13.4	3.7	0.0	0.0	0.0	0.0	0.0	0.0	1.2	100.0 ( 82)
초등학교	51.0	2.7	17.8	16.8	2.7	0.0	2.4	1.0	1.7	0.3	1.4	2.1	100.0 ( 292)
중·고등학교	48.3	5.5	10.8	16.1	5.3	0.2	4.2	2.8	5.1	0.0	0.8	0.8	100.0 ( 472)
전문대학 이상	33.5	7.3	2.2	7.8	11.2	3.9	7.3	0.6	20.1	0.0	3.9	2.2	100.0 ( 179)
현 취업상태													
취업중	46.6	4.8	13.5	17.8	3.1	0.0	2.2	3.4	4.8	0.0	1.7	2.2	100.0 ( 416)
미취업	49.8	4.6	10.0	12.3	6.8	1.3	4.9	0.5	7.5	0.2	1.1	1.0	100.0 ( 6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0	2.6	14.5	12.8	9.4	0.0	2.6	0.0	4.3	0.0	0.0	0.9	100.0 ( 117)
제2오분위	52.1	2.8	12.5	21.5	0.0	0.0	4.2	0.7	5.6	0.0	0.7	0.0	100.0 ( 144)
제3오분위	49.0	4.1	14.3	15.8	5.1	0.5	3.1	1.5	5.1	0.0	1.5	0.0	100.0 ( 196)
제4오분위	55.0	4.1	6.6	12.8	5.4	0.0	2.5	3.3	5.8	0.0	0.8	3.7	100.0 ( 242)
제5오분위	41.2	7.1	11.8	12.4	6.5	2.1	5.6	1.2	9.1	0.3	2.1	0.9	100.0 ( 34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8.2	4.6	11.1	14.5	5.6	0.8	4.1	1.6	6.6	0.1	1.4	1.4	100.0 (1,012)
제한 있음	59.4	6.3	21.9	12.5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1,04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II-9-27〉은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25.3%,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18.9%,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체계적인 관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등) 8.7% 등의 순이다.

동부지역 및 남자노인은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응답이, 읍·면부지역 및 여자노인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각각 더 높다.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확대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라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확대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확대(체계적인 관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등)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표 II-9-28〉에 제시하였다. 교통비와 식비 제공이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14.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마일리지 적립 등) 11.7%,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6.3% 등의 순이다.

동부지역 노인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마일리지 적립 등),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읍·면부지역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하여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마일리지 적립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연령별로는 경향성은 없으나 84세 이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마일리지 적립 등)이라는 응답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9-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법

(단위: %, 명)

특성	자원봉사 활동 홍보	장소 정보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확대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47.0	25.3	18.9	8.7	0.1	100.0 (10,348)
지역						
동부	44.1	24.8	21.6	9.4	0.1	100.0 ( 7,040)
읍·면부	53.1	26.3	13.1	7.3	0.2	100.0 ( 3,309)
성						
남자	44.3	24.4	22.1	9.0	0.1	100.0 ( 4,494)
여자	49.1	25.9	16.3	8.5	0.1	100.0 ( 5,854)
연령						
65~69세	45.1	24.5	20.8	9.5	0.1	100.0 ( 3,132)
70~74세	45.7	26.1	18.4	9.8	0.1	100.0 ( 3,178)
75~79세	47.1	24.8	19.3	8.7	0.0	100.0 ( 2,331)
80~84세	52.8	24.8	16.3	6.1	0.1	100.0 ( 1,118)
85세 이상	53.2	28.1	14.5	3.7	0.5	100.0 ( 58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5.9	24.8	20.4	8.7	0.1	100.0 ( 7,028)
배우자 없음	49.4	26.2	15.5	8.8	0.2	100.0 ( 3,321)
가구형태						
노인독거	50.8	25.0	14.8	9.4	0.0	100.0 ( 2,024)
노인부부	46.6	24.7	20.2	8.4	0.1	100.0 ( 5,048)
자녀동거	46.1	26.2	18.6	8.9	0.3	100.0 ( 2,801)
기타	40.9	27.5	22.6	9.0	0.0	100.0 ( 47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4.9	26.2	11.5	7.1	0.3	100.0 ( 1,077)
무학(글자해독)	53.1	24.7	15.2	6.9	0.1	100.0 ( 2,128)
초등학교	46.0	27.6	17.6	8.7	0.1	100.0 ( 3,694)
중·고등학교	43.4	24.2	22.3	10.0	0.0	100.0 ( 2,718)
전문대학 이상	36.5	18.0	33.9	11.6	0.0	100.0 ( 732)
현 취업상태						
취업중	47.9	25.8	18.0	8.3	0.1	100.0 ( 3,518)
미취업	46.6	25.0	19.3	9.0	0.1	100.0 ( 6,8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7	22.5	14.6	9.1	0.1	100.0 ( 2,025)
제2오분위	48.2	26.1	17.4	8.2	0.0	100.0 ( 2,082)
제3오분위	45.7	27.0	18.3	9.0	0.0	100.0 ( 2,073)
제4오분위	45.6	24.7	20.3	9.4	0.0	100.0 ( 2,092)
제5오분위	42.0	26.1	23.6	7.9	0.3	100.0 ( 2,077)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2	25.3	19.4	8.9	0.1	100.0 ( 8,935)
제한 있음	51.9	25.0	15.4	7.7	0.1	100.0 ( 1,41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6명을 제외함.

〈표 11-9-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단위: %, 명)

특성	교통비와 식비 제공	교육	사고 대비 보험 가입	포상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67.9	14.2	6.3	11.7	0.0	100.0 (903)
지역						
동부	65.6	14.9	6.8	12.7	0.0	100.0 (663)
읍·면부	74.2	12.5	4.6	8.8	0.0	100.0 (240)
성						
남자	61.5	17.4	6.2	14.9	0.0	100.0 (403)
여자	72.8	11.8	6.2	9.2	0.0	100.0 (500)
연령						
65~69세	65.8	11.1	6.7	16.4	0.0	100.0 (298)
70~74세	70.5	14.4	6.7	8.3	0.0	100.0 (312)
75~79세	70.0	16.3	5.4	8.4	0.0	100.0 (203)
80~84세	56.5	21.7	4.3	17.4	0.0	100.0 ( 69)
85세 이상	72.7	13.6	9.1	4.5	0.0	100.0 ( 2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9	16.9	6.9	14.4	0.0	100.0 (611)
배우자 없음	80.8	8.6	4.8	5.8	0.0	100.0 (291)
가구형태						
노인독거	82.1	7.4	4.7	5.8	0.0	100.0 (190)
노인부부	61.4	16.6	5.9	16.1	0.0	100.0 (422)
자녀동거	69.4	12.9	8.9	8.9	0.0	100.0 (248)
기타	60.5	27.9	2.3	9.3	0.0	100.0 ( 4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8.2	10.3	3.8	7.7	0.0	100.0 ( 78)
무학(글자해독)	82.3	8.2	4.8	4.8	0.0	100.0 (147)
초등학교	69.3	12.4	6.5	11.8	0.0	100.0 (323)
중·고등학교	63.4	16.5	8.4	11.7	0.0	100.0 (273)
전문대학 이상	40.5	28.6	3.6	27.4	0.0	100.0 ( 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77.1	7.5	4.8	10.6	0.0	100.0 (292)
미취업	63.5	17.3	6.9	12.3	0.0	100.0 (61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9.1	4.4	1.6	4.9	0.0	100.0 (183)
제2오분위	66.7	14.6	7.0	11.7	0.0	100.0 (171)
제3오분위	59.7	16.7	8.1	15.6	0.0	100.0 (186)
제4오분위	72.6	16.2	3.0	8.1	0.0	100.0 (197)
제5오분위	49.1	19.4	12.1	19.4	0.0	100.0 (1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67.8	13.2	6.5	12.5	0.0	100.0 (794)
제한 있음	68.8	21.1	4.6	5.5	0.0	100.0 (10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9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제3절 여가문화활동 및 향후 노후생활

#### 1. TV시청·여행·운동 이외 여가문화활동

〈표 II-9-29〉에서는 지난 1년간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하였는가와 그 주된 활동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전체노인 중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은 27.3%이고, 읍·면부지역(29.4%)이 동부지역(26.2%) 보다 더 높았으며, 남자노인(29.7%)이 여자노인(25.4%) 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 29.3%, 70~74세 연령군 27.9%, 75~79세 연령군 27.1%, 80~84세 연령군 25.1%, 85세 이상 18.0% 등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이 더 높다.

한편 TV시청·여행·운동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 경우, 그 주된 여가문화활동으로는 화투·카드가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등산으로 10.5%, 화초가꾸기 10.4%, 책읽기 9.9%,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2%, 바둑·장기·체스 7.4%, 산책 7.0%, 낚시 2.3%, 서예 2.1%, 춤추기 1.9%, 음악듣기 1.5%, 윗놀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노인은 화투·카드가 17.1%, 책읽기 12.7%, 등산 12.6%, 화초가꾸기 11.3%, 노래부르기/노래교실 9.0% 순인데 반하여, 읍·면부지역 노인은 화투·카드가 45.3%로 매우 높고, 화초가꾸기 8.6%, 바둑·장기·체스 7.5%, 등산 6.5%, 노래부르기/노래교실 6.5% 등의 순으로 지역 간 여가문화활동 종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노인은 등산이 17.6%로 가장 많고, 바둑·장기·체스 15.6%, 화투·카드가 14.4%, 책읽기 10.7%, 산책 8.1% 등의 순이고, 여자노인은 화투·카드가 38.0%, 화초가꾸기 14.1%, 노래부르기/노래교실 12.2%, 책읽기 9.1%, 산책 6.1% 등의 순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화투·카드, 책읽기는 증가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활동량이 많은 등산, 낚시, 노래부르기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다(표 II-9-30 참조).

〈표 11-9-2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sup>1)</sup>	27.3	26.2	29.4	29.7	25.4
주된 여가활동 <sup>2)</sup>					
책읽기	9.9	12.7	4.5	10.7	9.1
글쓰기	0.6	0.7	0.3	0.6	0.6
산책	7.0	8.8	3.8	8.1	6.1
등산	10.5	12.6	6.5	17.6	4.1
낚시	2.3	2.6	1.6	4.7	0.1
스포츠 관람	0.2	0.3	0.0	0.4	0.0
컴퓨터 및 인터넷	0.5	0.6	0.1	0.8	0.2
게임	0.1	0.1	0.1	0.2	0.0
바둑, 장기, 체스	7.4	7.4	7.5	15.6	0.2
화투, 카드	26.9	17.1	45.3	14.4	38.0
웃놀이	1.2	0.5	2.5	0.1	2.1
문학행사와 참여	0.0	0.1	0.0	0.1	0.0
연극(뮤지컬)공연 관람	0.1	0.1	0.0	0.1	0.1
영화보기/영화감상	0.4	0.6	0.0	0.4	0.4
전통문화재 감상	0.1	0.1	0.1	0.1	0.1
문예창작/독서토론	0.1	0.2	0.1	0.3	0.0
그림그리기/조각/도예	0.4	0.5	0.1	0.5	0.2
악기연주	0.9	1.3	0.2	1.6	0.3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2	9.0	6.5	3.6	12.2
음악듣기	1.5	1.8	1.2	2.2	0.9
전통예술(사물놀이 등) 배우기	0.3	0.4	0.1	0.4	0.3
춤추기	1.9	2.1	1.4	2.0	1.8
무용(발레, 방송댄스 등) 배우기	0.4	0.5	0.4	0.1	0.7
사진찍기	0.5	0.7	0.0	1.0	0.0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0.7	1.0	0.2	0.2	1.1
서예	2.1	2.0	2.1	3.7	0.6
다도/요리하기	0.2	0.2	0.1	0.0	0.4
화초가꾸기	10.4	11.3	8.6	6.1	14.1
기타	5.3	4.7	6.5	4.2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72)	(1,872)	( 998)	(1,352)	(1,52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3명을 제외함.

〈표 11-9-3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단위: %, 명)

구분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sup>1)</sup>	27.3	29.3	27.9	27.1	25.1	18.0
주된 여가활동 <sup>2)</sup>						
책읽기	9.9	7.6	10.1	10.7	12.3	16.2
글쓰기	0.6	0.4	0.1	1.4	0.7	0.0
산책	7.0	8.2	5.2	7.4	7.5	9.0
등산	10.5	17.0	10.2	6.2	4.5	0.0
낚시	2.3	3.4	2.3	1.5	0.3	0.9
스포츠 관람	0.2	0.3	0.0	0.0	1.0	0.0
컴퓨터 및 인터넷	0.5	1.0	0.4	0.2	0.0	0.0
게임	0.1	0.0	0.2	0.2	0.0	0.0
바둑, 장기, 체스	7.4	6.4	9.4	8.7	4.1	2.7
화투, 카드	26.9	16.9	27.8	32.1	37.7	44.1
웃놀이	1.2	0.4	1.0	2.3	1.7	1.8
문화행사와 참여	0.0	0.0	0.0	0.0	0.0	0.0
연극(뮤지컬)공연 관람	0.1	0.2	0.0	0.0	0.0	0.0
영화보기/영화감상	0.4	0.7	0.4	0.3	0.0	0.0
전통문화재 감상	0.1	0.1	0.0	0.2	0.0	0.0
문예창작/독서토론	0.1	0.1	0.3	0.0	0.0	0.0
그림그리기/조각/도예	0.4	0.7	0.3	0.2	0.0	0.0
악기연주	0.9	1.3	1.2	0.2	0.7	0.0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2	9.4	9.6	6.2	5.8	3.6
음악듣기	1.5	1.7	1.4	1.7	1.4	0.0
전통예술(사물놀이 등) 배우기	0.3	0.2	0.2	0.5	0.3	1.8
춤추기	1.9	2.3	1.3	2.2	2.1	0.0
무용(발레, 방송댄스 등) 배우기	0.4	0.8	0.2	0.5	0.0	0.0
사진찍기	0.5	1.3	0.0	0.2	0.0	0.0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0.7	0.4	0.6	1.4	0.7	0.0
서예	2.1	1.6	1.8	2.8	2.4	2.7
다도/요리하기	0.2	0.4	0.1	0.0	0.0	0.0
화초가꾸기	10.4	12.5	10.6	7.6	9.6	10.8
기타	5.3	4.7	5.0	5.7	7.2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72)	(919)	(900)	(647)	(292)	(11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3명을 제외함.

TV시청·여행·운동 이외 여가문화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참여 빈도를 보면, 주 4회 이상이 39.4%로 가장 많고, 주 2~3회 32.5%, 주 1회 16.0%, 2주 1회 4.5%, 월 1회 4.8%, 월 1회 미만 2.8% 등으로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87.9%이다. 주 1회 이상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읍·면부지역 노인, 여자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제한 노인의 참여빈도가 더 많다(표 II-9-31 참조).

한편, 〈표 II-9-32〉에서 TV시청·여행·운동 이외 여가문화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살펴보면, 친구가 50.7%로 가장 많고, 혼자서 35.7%, 배우자 7.4%, 동호회 회원 5.0%, 가족 0.8% 등의 순이다. 이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지역은 친구와 같이 한다는 응답이 65.2%로 매우 높고, 동부지역 노인은 혼자서 한다(41.1%)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여자노인은 친구와 같이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남자 노인은 동호회 회원, 배우자, 혼자서 라는 응답이 여자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동호회 회원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친구(59.4%)의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한다(10.3%)는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자서 참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의 비율이 매우 증가한다.

〈표 II-9-33〉을 통하여 TV시청·여행·운동 이외 여가문화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장소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집이 3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로당 27.3%, 근린공원·산·바다 등 18.5%, 노인복지관 7.3%의 순이다. 동부지역은 집 37.2%, 근린공원·산·바다 등 23.1%, 경로당 14.8%, 노인복지관 8.7% 등의 순인데 반하여, 읍·면부지역은 경로당이 50.8%로 매우 높고, 집 26.4%, 근린공원·산·바다 등 10.0%, 노인복지관 4.5% 등의 순이다. 남자노인은 근린공원·산·바다 등(28.3%)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노인은 집(37.1%)과 경로당(35.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근린공원·산·바다 등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집과 경로당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표 II-9-34 참조).

〈표 11-9-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39.4	32.5	16.0	4.5	4.8	2.8	100.0 (2,874)
지역							
동부	40.6	29.9	16.0	5.3	5.7	2.5	100.0 (1,875)
읍·면부	37.3	37.3	15.8	2.9	3.3	3.4	100.0 ( 999)
성							
남자	35.0	31.4	15.4	6.4	8.0	3.8	100.0 (1,353)
여자	43.3	33.4	16.5	2.8	2.1	1.9	100.0 (1,523)
연령							
65~69세	27.7	35.5	18.2	7.5	6.9	4.1	100.0 ( 923)
70~74세	41.9	31.2	16.2	2.9	5.3	2.5	100.0 ( 902)
75~79세	42.7	34.5	13.6	4.2	2.8	2.0	100.0 ( 648)
80~84세	50.3	26.7	14.7	2.4	3.4	2.4	100.0 ( 292)
85세 이상	68.2	20.9	10.9	0.0	0.0	0.0	100.0 ( 1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6.0	33.2	16.5	5.2	5.9	3.3	100.0 (2,036)
배우자 없음	47.9	30.8	14.8	2.7	2.3	1.6	100.0 ( 838)
가구형태							
노인독거	48.3	30.9	13.7	3.6	2.2	1.3	100.0 ( 553)
노인부부	37.0	32.7	16.7	5.1	5.2	3.3	100.0 (1,524)
자녀동거	38.7	32.9	16.5	3.3	5.5	3.0	100.0 ( 695)
기타	33.0	35.0	13.6	7.8	8.7	1.9	100.0 ( 10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8.7	35.2	11.7	1.7	1.3	1.3	100.0 ( 230)
무학(글자해독)	45.6	32.7	15.3	1.6	3.2	1.6	100.0 ( 504)
초등학교	37.5	33.6	17.5	4.0	4.8	2.6	100.0 ( 978)
중·고등학교	35.0	30.8	16.0	7.0	6.8	4.4	100.0 ( 814)
전문대학 이상	39.9	31.0	15.2	6.0	5.5	2.3	100.0 ( 348)
현 취업상태							
취업중	30.2	33.7	18.1	5.3	8.8	3.8	100.0 ( 996)
미취업	44.3	31.8	14.9	4.0	2.7	2.2	100.0 (1,8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7	38.1	10.8	2.2	2.4	1.8	100.0 ( 501)
제2오분위	39.9	31.4	15.1	5.7	4.5	3.3	100.0 ( 509)
제3오분위	36.8	30.4	19.6	5.1	5.1	3.0	100.0 ( 570)
제4오분위	40.5	31.1	15.8	4.1	4.8	3.7	100.0 ( 627)
제5오분위	36.6	32.1	17.5	5.0	6.6	2.3	100.0 ( 6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38.6	32.9	16.0	4.6	5.1	2.9	100.0 (2,650)
제한 있음	50.0	26.8	16.1	3.6	2.2	1.3	100.0 ( 22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5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9-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시 동반자

(단위: %, 명)

특성	혼자서	배우자	가족 (배우자 외)	친구	동호회 회원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35.7	7.4	0.8	50.7	5.0	0.4	100.0 (2,873)
지역							
동부	41.1	9.1	1.1	43.1	5.2	0.5	100.0 (1,872)
읍·면부	25.7	4.2	0.3	65.2	4.6	0.0	100.0 ( 998)
성							
남자	37.5	9.0	0.4	45.2	7.3	0.7	100.0 (1,351)
여자	34.1	6.0	1.2	55.6	3.0	0.1	100.0 (1,522)
연령							
65~69세	36.8	9.9	1.1	43.8	7.5	1.0	100.0 ( 923)
70~74세	35.0	6.5	0.7	52.7	5.1	0.0	100.0 ( 901)
75~79세	32.9	7.6	0.0	56.0	3.6	0.0	100.0 ( 648)
80~84세	39.6	3.4	1.0	53.9	2.0	0.0	100.0 ( 293)
85세 이상	38.7	2.7	4.5	52.3	0.0	1.8	100.0 ( 1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1	10.3	0.8	47.2	6.2	0.3	100.0 (2,035)
배우자 없음	37.2	0.2	0.7	59.4	1.9	0.5	100.0 ( 838)
가구형태							
노인독거	37.6	0.2	0.0	59.9	2.0	0.4	100.0 ( 553)
노인부부	34.9	10.9	0.5	47.6	6.2	0.0	100.0 (1,523)
자녀동거	36.5	4.8	2.2	50.0	5.3	1.3	100.0 ( 691)
기타	34.0	11.7	1.0	51.5	1.9	0.0	100.0 ( 10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8.0	1.7	1.3	68.5	0.4	0.0	100.0 ( 232)
무학(글자해독)	31.2	3.0	0.4	64.8	0.6	0.0	100.0 ( 503)
초등학교	29.7	6.6	0.9	57.8	4.8	0.2	100.0 ( 977)
중·고등학교	42.2	9.8	0.6	38.9	8.1	0.4	100.0 ( 813)
전문대학 이상	49.1	14.1	0.9	26.4	7.8	1.7	100.0 ( 348)
현 취업상태							
취업중	30.1	4.4	0.7	60.3	4.1	0.3	100.0 ( 996)
미취업	38.7	8.9	0.9	45.6	5.4	0.4	100.0 (1,8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9	1.8	0.6	62.4	3.4	0.0	100.0 ( 501)
제2오분위	34.4	3.5	0.2	59.1	2.8	0.0	100.0 ( 509)
제3오분위	38.0	9.3	0.9	46.9	4.6	0.4	100.0 ( 571)
제4오분위	38.3	9.4	0.6	47.3	3.8	0.5	100.0 ( 626)
제5오분위	35.3	11.0	1.5	42.1	9.2	0.9	100.0 ( 6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0	7.4	0.8	51.3	5.3	0.3	100.0 (2,647)
제한 있음	44.0	7.6	1.3	44.4	1.8	0.9	100.0 ( 22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11-9-3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여가문화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집	33.4	37.2	26.4	29.3	37.1
경로당	27.3	14.8	50.8	18.6	35.2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7.3	8.7	4.5	6.9	7.6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노인교실	0.4	0.4	0.5	0.4	0.5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2.1	2.9	0.6	1.3	2.8
대학부설 평생교육관·사회문화교실	0.1	0.1	0.1	0.1	0.1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자치센터	1.4	1.7	1.1	0.7	2.2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	0.5	0.4	0.8	0.4	0.7
도서관, 박물관	0.2	0.3	0.0	0.3	0.1
시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학원	1.0	1.2	0.5	1.0	0.9
근린공원, 산, 바다 등 <sup>2)</sup>	18.5	23.1	10.0	28.3	9.9
동호회 사무실 등	1.0	1.3	0.5	1.9	0.3
기타	6.7	8.0	4.2	10.8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75)	(1,874)	( 998)	(1,353)	(1,52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주된 여가활동이 낚시이면서 활동장소가 기타인 경우는 근린공원, 산, 바다 등의 응답항목에 포함함.

〈표 11-9-3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여가문화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집	33.4	32.0	33.3	33.0	35.2	42.3
경로당	27.3	16.1	27.5	35.9	38.6	38.7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7.3	6.6	8.9	7.2	6.5	1.8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노인교실	0.4	0.1	0.8	0.3	0.3	0.9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2.1	2.2	1.9	2.5	1.4	2.7
대학부설 평생교육관·사회문화교실	0.1	0.3	0.0	0.0	0.0	0.0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자치센터	1.4	2.3	2.0	0.5	0.3	0.0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	0.5	1.2	0.4	0.2	0.0	0.0
도서관, 박물관	0.2	0.1	0.2	0.3	0.3	0.0
시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학원	1.0	1.8	0.8	0.5	0.3	0.0
근린공원, 산, 바다 등 <sup>2)</sup>	18.5	26.3	17.0	14.0	10.9	12.6
동호회 사무실 등	1.0	1.6	0.8	1.1	0.3	0.0
기타	6.7	9.3	6.4	4.6	5.8	0.9
계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75)	(924)	(901)	(649)	(293)	(11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주된 여가활동이 낚시이면서 활동장소가 기타인 경우는 근린공원, 산, 바다 등의 응답항목에 포함함.

## 2.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노후생활 방법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면, 매우 만족한다 4.4%, 만족한다 33.6%, 그저 그렇다 31.9%, 만족하지 않는다 22.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2% 등으로 38.0%는 긍정적이고, 30.0%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만족도가 3등분되어 있다(표 II-9-35 참조).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비슷한 수준이고, 남자노인은 41.9%, 여자노인은 35.1%로 남자노인이 더 긍정적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II-9-3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 만족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체 <sup>1)</sup>	4.4	33.6	31.9	22.8	7.2	100.0 (10,523)
지역						
동부	4.6	33.4	32.2	22.3	7.5	100.0 ( 7,131)
읍·면부	4.0	34.2	31.3	23.9	6.6	100.0 ( 3,392)
성						
남자	4.7	37.2	30.1	21.9	6.1	100.0 ( 4,538)
여자	4.2	30.9	33.2	23.5	8.1	100.0 ( 5,985)
연령						
65~69세	5.0	34.7	31.7	22.2	6.5	100.0 ( 3,145)
70~74세	4.7	35.1	30.1	23.1	7.0	100.0 ( 3,221)
75~79세	3.3	33.1	33.1	22.8	7.7	100.0 ( 2,383)
80~84세	4.5	30.2	33.9	23.3	8.1	100.0 ( 1,159)
85세 이상	3.7	29.2	34.0	23.8	9.3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6	35.7	30.7	22.3	6.7	100.0 ( 7,110)
배우자 없음	4.0	29.4	34.4	23.9	8.3	100.0 ( 3,413)
가구형태						
노인독거	4.8	29.4	34.3	23.5	8.0	100.0 ( 2,080)
노인부부	4.7	37.0	30.0	22.1	6.2	100.0 ( 5,114)
자녀동거	4.0	31.3	33.2	23.7	7.8	100.0 ( 2,841)
기타	2.7	30.1	33.0	22.3	11.9	100.0 ( 487)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5	25.3	35.0	27.5	9.7	100.0 ( 1,141)
무학(글자해독)	3.6	29.5	34.1	24.2	8.6	100.0 ( 2,177)
초등학교	3.9	31.5	33.6	24.1	6.9	100.0 ( 3,737)
중·고등학교	4.8	39.0	29.0	21.0	6.1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0.7	49.8	23.0	11.6	4.9	100.0 ( 73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	34.3	32.3	23.3	5.7	100.0 ( 3,559)
미취업	4.5	33.3	31.7	22.5	8.0	100.0 ( 6,96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28.5	34.2	25.7	8.7	100.0 ( 2,108)
제2오분위	4.0	29.5	32.1	26.9	7.6	100.0 ( 2,118)
제3오분위	3.8	34.8	30.9	22.4	8.1	100.0 ( 2,092)
제4오분위	4.6	34.5	34.4	20.3	6.1	100.0 ( 2,110)
제5오분위	6.7	41.0	27.8	18.8	5.7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8	36.0	32.0	21.1	6.0	100.0 ( 9,056)
제한 있음	1.8	19.0	31.4	33.1	14.8	100.0 ( 1,467)
2008년 <sup>2)</sup>	5.4	37.8	41.7	11.5	3.7	100.0 ( 9,88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1명을 제외함.

2) 65세 이상 본인응답자 9,8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8명을 제외함(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본 〈표 II-9-36〉에 의하면 TV 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와 같은 여가문화활동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27.2%이지만 이러한 여가문화활동까지 포함할 경우 72.2%의 노인이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약 1/4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적인 여가문화활동율과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와 같은 여가문화활동 외의 여가문화활동율에 있어 제특성별 경향성은 동일하나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다. 즉 종합적인 여가문화활동율은 동부 노인이 약간 높지만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와 같은 여가문화활동외의 여가문화활동은 읍·면부 노인에게서 약간 높다. 이는 〈표 II-9-29〉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투, 카드놀이 같은 여가활동율이 읍·면부에서 더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적인 여가문화활동율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남녀 간의 차이와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 즉 여자노인의 종합적 여가문화활동율이 68.0%로 남자노

인의 77.8%에 비해 약 10%포인트 낮다. 또한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율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80세 이상에서 활동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무배우 노인에게서 활동율이 낮은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노인에게서 활동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동율이 높은 정비례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이 여가문화활동참여율도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한편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 신체적 제한이 다양한 여가활동참여도 제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1-9-3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여가문화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특성	일부 여가문화활동 <sup>1)</sup>	종합적 여가문화활동 <sup>2)</sup>	(명)
전체	27.2	72.2	(10,545)
지역			
동부	26.2	73.0	( 7,150)
읍·면부	29.4	70.7	( 3,395)
성			
남자	29.7	77.8	( 4,548)
여자	25.4	68.0	( 5,996)
연령			
65~69세	29.2	78.5	( 3,149)
70~74세	27.9	76.1	( 3,228)
75~79세	27.1	70.0	( 2,389)
80~84세	25.1	61.3	( 1,162)
85세 이상	18.0	48.9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6	75.0	( 7,121)
배우자 없음	24.5	66.4	( 3,424)
가구형태			
노인독거	26.5	69.8	( 2,086)
노인부부	29.8	75.6	( 5,120)
자녀동거	24.3	68.8	( 2,850)
기타	20.9	67.4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0.2	55.1	( 1,146)
무학(글자해독)	23.0	63.1	( 2,184)
초등학교	26.1	71.4	( 3,743)
중·고등학교	29.6	81.6	( 2,737)
전문대학 이상	47.4	95.2	( 734)
현취업상태			
취업중	28.0	73.9	( 3,567)
미취업	26.9	71.4	( 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8	65.0	( 2,113)
제2오분위	24.0	68.6	( 2,121)
제3오분위	27.1	71.7	( 2,101)
제4오분위	29.6	74.1	( 2,115)
제5오분위	31.6	81.8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9.2	76.9	( 9,074)
제한 있음	15.3	43.6	( 1,471)

주: 1) 본인응답자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운동 실천, 여행,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평생교육 참여, 여가문화활동 참여 중 한가지라도 참여하는 경우에 전반적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재분석하였음. (TV시청 제외)

〈표 II-9-37〉에서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노후(여생)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9.6%, 편안히 쉬면서 보내고 싶다 14.6%,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 5.8%,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1%,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2.5%,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1% 등의 순이다.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지역 및 여자 노인은 건강유지와 종교활동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읍·면부지역 및 남자 노인은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편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 또는 편안히 쉬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 또는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창출과 취미활동의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11-9-3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단위: %, 명)

특성	취미 활동	자아 개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소득 창출	건강 유지	편히 쉬다	계 (명)
전체 <sup>1)</sup>	4.1	1.1	2.5	5.8	19.6	52.3	14.6	100.0 (10,536)
지역								
동부	4.7	1.4	3.2	7.2	15.4	53.6	14.3	100.0 ( 7,143)
읍·면부	2.9	0.5	0.9	2.8	28.2	49.6	15.1	100.0 ( 3,393)
성								
남자	4.4	1.4	2.6	3.2	27.5	48.8	12.1	100.0 ( 4,543)
여자	3.9	0.9	2.4	7.8	13.6	55.0	16.4	100.0 ( 5,992)
연령								
65~69세	6.2	1.6	3.8	6.2	28.9	43.5	9.9	100.0 ( 3,149)
70~74세	4.3	1.2	2.3	5.3	21.7	51.4	13.9	100.0 ( 3,225)
75~79세	2.9	0.8	2.1	5.9	14.9	58.3	15.1	100.0 ( 2,389)
80~84세	2.2	0.3	1.6	6.6	6.8	62.0	20.4	100.0 ( 1,159)
85세 이상	1.1	0.7	0.5	4.4	2.9	61.1	29.3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8	1.3	2.9	5.1	23.0	50.3	12.6	100.0 ( 7,118)
배우자 없음	2.8	0.7	1.8	7.1	12.4	56.6	18.7	100.0 (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2.3	0.5	1.5	7.0	13.6	57.4	17.7	100.0 ( 2,082)
노인부부	5.3	1.2	2.5	4.9	23.2	50.8	12.1	100.0 ( 5,122)
자녀동거	3.7	1.6	2.9	6.4	17.0	51.7	16.7	100.0 ( 2,841)
기타	2.7	0.2	4.3	5.9	21.3	51.2	14.3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2	0.4	0.7	1.8	14.9	57.5	24.5	100.0 ( 1,141)
무학(글자해독)	2.4	0.6	1.4	5.1	16.8	55.6	18.1	100.0 ( 2,183)
초등학교	3.9	0.5	1.7	5.6	22.0	52.0	14.3	100.0 ( 3,740)
중·고등학교	4.9	1.0	4.3	8.1	22.4	49.4	9.9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3.6	7.1	5.9	6.7	12.1	47.5	7.1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0	0.8	2.0	3.3	47.1	32.2	10.6	100.0 ( 3,564)
미취업	4.2	1.3	2.8	7.0	5.5	62.6	16.6	100.0 ( 6,9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0.4	1.1	5.6	13.5	59.2	18.7	100.0 ( 2,111)
제2오분위	2.2	0.2	1.7	5.6	19.7	56.3	14.3	100.0 ( 2,120)
제3오분위	4.2	1.2	2.0	4.4	24.7	49.5	13.8	100.0 ( 2,099)
제4오분위	5.0	1.6	3.0	7.0	22.6	48.2	12.7	100.0 ( 2,111)
제5오분위	7.7	2.3	4.7	6.2	17.3	48.4	13.3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	1.2	2.8	6.1	21.6	50.8	12.8	100.0 ( 9,070)
제한 있음	0.8	0.7	0.5	3.9	7.1	61.8	25.2	100.0 ( 1,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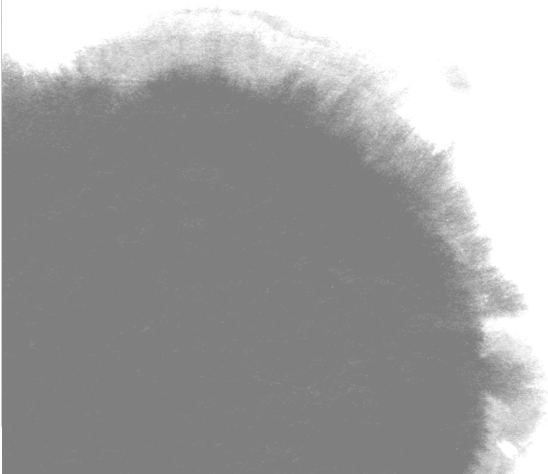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 10

## 노인의 생활환경





## 제10장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생활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주택 및 교통 등과 관련된 사항과 안전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활환경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 절 주거실태

#### 1. 거주환경

응답자의 거주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의 55.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26.3%, 다세대 11.5%, 연립주택 3.8%, 상가주택 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약 절반 정도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대표적인 주거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I-10-1 참조).

이러한 거주실태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각각 38.8%와 36.6%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비슷하며, 읍·면부와 비교해볼 때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 반면 읍·면부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91.4%로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이 62.9%로 높고 아파트는 18.5%로 전체 26.3%보다도 낮지만,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34.0%로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단독주택의 거주율이 낮아지는 경향(무학(글자모름)72.9%, 전문대학 이상 24.9%)과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무학(글자모름) 12.8%, 전문대학 이상 61.9%). 연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의 거주

율이 낮아지고(제1오분위 64.9%, 제5오분위 40.7%), 아파트 거주율이 높아졌다(제1오분위 16.5%, 제5오분위 42.3%). 이렇게 노인의 거주형태는 교육수준과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등과 관련성이 높다.

〈표 II-10-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상가주택	오피스텔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55.7	26.3	3.8	11.5	2.4	0.0	0.2	100.0 (10,673)
지역								
동부	38.8	36.6	4.8	16.3	3.1	0.1	0.3	100.0 ( 7,256)
읍·면부	91.4	4.4	1.6	1.3	1.0	0.0	0.1	100.0 ( 3,416)
성								
남자	54.3	26.9	3.8	11.8	2.9	0.0	0.3	100.0 ( 4,605)
여자	56.7	25.9	3.8	11.3	2.1	0.0	0.2	100.0 ( 6,068)
연령								
65~69세	52.0	27.1	4.2	12.7	3.5	0.0	0.4	100.0 ( 3,179)
70~74세	56.4	24.6	3.8	12.8	2.2	0.0	0.1	100.0 ( 3,239)
75~79세	58.1	25.6	4.0	9.9	2.0	0.1	0.3	100.0 ( 2,413)
80~84세	57.2	29.6	2.7	8.9	1.6	0.0	0.0	100.0 ( 1,182)
85세 이상	58.1	28.1	2.6	10.0	0.9	0.0	0.3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5.6	26.8	3.6	11.0	2.8	0.0	0.2	100.0 ( 7,199)
배우자 없음	55.8	25.3	4.1	12.6	1.7	0.1	0.4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62.9	18.5	3.6	12.4	1.7	0.2	0.7	100.0 ( 2,094)
노인부부	59.0	25.5	3.2	9.3	2.9	0.0	0.2	100.0 ( 5,171)
자녀동거	44.5	34.0	5.4	14.2	1.7	0.0	0.1	100.0 ( 2,915)
기타	56.2	23.0	1.6	14.9	4.3	0.0	0.0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2.9	12.8	3.9	9.6	0.8	0.0	0.2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62.9	19.1	3.4	12.9	1.5	0.0	0.1	100.0 ( 2,213)
초등학교	60.1	21.7	4.1	11.8	2.2	0.0	0.1	100.0 ( 3,782)
중·고등학교	44.8	34.7	4.0	12.1	3.8	0.0	0.6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24.9	61.9	2.4	6.6	3.6	0.4	0.1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73.8	11.5	3.3	7.4	3.6	0.0	0.4	100.0 ( 3,567)
미취업	46.6	33.8	4.0	13.6	1.8	0.1	0.2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9	16.5	4.4	12.3	1.1	0.1	0.7	100.0 ( 2,134)
제2오분위	61.3	21.2	3.2	12.9	1.4	0.0	0.0	100.0 ( 2,137)
제3오분위	60.2	23.0	3.4	11.4	1.8	0.0	0.2	100.0 ( 2,132)
제4오분위	51.3	28.7	4.4	11.5	3.9	0.0	0.2	100.0 ( 2,134)
제5오분위	40.7	42.3	3.5	9.5	3.8	0.0	0.1	100.0 ( 2,135)
가능상태								
제한 없음	55.4	26.2	3.8	11.7	2.6	0.0	0.3	100.0 ( 9,081)
제한 있음	57.0	26.9	4.0	10.6	1.4	0.0	0.1	100.0 ( 1,592)
2008년도	60.5	24.8	5.8	5.6	2.5	-	0.8	100.0 (10,79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주거위치를 살펴본 〈표 II-10-2〉에 의하면 전체의 97.4%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지하 2.1%, 지하 0.4%, 옥탑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 위치에 있어 노인의 제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가구형태 및 연가구소득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지상이라는 응답이 94.8%로 전체의 97.4%보다 낮고, 기타 지하 및 반지하가 5.1%로 평균인 2.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상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제1오분위 95.7%, 제5오분위 98.1%).

〈표 II-10-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위치

(단위: %, 명)

특성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계 (명)
전체 <sup>1)</sup>	0.4	2.1	97.4	0.1	100.0 (10,673)
지역					
동부	0.6	3.1	96.3	0.1	100.0 ( 7,257)
읍·면부	0.1	0.2	99.8	0.0	100.0 ( 3,416)
성					
남자	0.3	1.7	97.9	0.0	100.0 ( 4,605)
여자	0.5	2.4	97.0	0.1	100.0 ( 6,068)
연령					
65~69세	0.6	2.4	97.0	0.0	100.0 ( 3,179)
70~74세	0.3	2.0	97.6	0.1	100.0 ( 3,239)
75~79세	0.4	2.0	97.4	0.2	100.0 ( 2,414)
80~84세	0.2	2.1	97.7	0.0	100.0 ( 1,183)
85세 이상	0.5	2.1	97.4	0.0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3	1.5	98.2	0.0	100.0 ( 7,198)
배우자 없음	0.6	3.5	95.8	0.1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0.8	4.3	94.8	0.2	100.0 ( 2,094)
노인부부	0.3	1.2	98.5	0.0	100.0 ( 5,171)
자녀동거	0.2	2.0	97.7	0.1	100.0 ( 2,915)
기타	0.8	3.5	95.7	0.0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3	3.3	96.4	0.0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0.6	2.6	96.7	0.1	100.0 ( 2,213)
초등학교	0.3	1.6	98.1	0.1	100.0 ( 3,781)
중·고등학교	0.4	2.3	97.2	0.1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0.3	1.2	98.5	0.0	100.0 ( 740)

특성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0.5	1.5	97.8	0.1	100.0 ( 3,568)
미취업	0.3	2.4	97.2	0.0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3.6	95.7	0.1	100.0 ( 2,135)
제2오분위	0.3	2.3	97.3	0.1	100.0 ( 2,138)
제3오분위	0.4	2.2	97.4	0.0	100.0 ( 2,131)
제4오분위	0.3	1.1	98.5	0.0	100.0 ( 2,134)
제5오분위	0.3	1.5	98.1	0.1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0.4	2.1	97.4	0.1	100.0 ( 9,081)
제한 있음	0.2	2.5	97.3	0.0	100.0 ( 1,59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 2. 주거 편리성

노인의 주거 편리성을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의 판단과 노인 자신의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은 계속 생활하고 있어 본인의 주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원이 본 주거의 생활편리도를 살펴해보았을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78.5%이고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18.8%로 나타났다(표 II-10-3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연령별,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연가구소득별, 기능상태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동부는 15.2%인 반면, 읍·면부는 26.4%로 전체의 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높으나(65~69세 14.9%, 85세 이상 22.9%)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65~69세 2.1%, 85세 이상 4.9%).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노인독거가구는 29.5%로 높은 반면 기타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는 전체(18.8%)보다 낮은 비율(각각 16.9%, 14.2%)을 보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판단을 내린 비율이 낮으며 (무학(글자모름) 32.4%, 전문대학 이상

8.5%),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무학(글자모름) 1.7%, 전문대학 이상 6.1%).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낮고(제1오분위 31.4%, 제5오분위 10.3%),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이 높다(제1오분위 1.9%, 제5오분위 4.5%). 기능제한상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17.8%인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24.6%로 나타나, 오히려 기능제한자의 경우 더 불편한 구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지도원 의견)

(단위: %, 명)

특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전체 <sup>1)</sup>	18.8	78.5	2.7	100.0 (10,671)
지역				
동부	15.2	81.6	3.2	100.0 ( 7,257)
읍·면부	26.4	72.0	1.6	100.0 ( 3,417)
성				
남자	15.8	81.5	2.7	100.0 ( 4,605)
여자	21.0	76.3	2.7	100.0 ( 6,069)
연령				
65~69세	14.9	83.0	2.1	100.0 ( 3,179)
70~74세	17.1	80.1	2.7	100.0 ( 3,240)
75~79세	23.2	74.6	2.2	100.0 ( 2,414)
80~84세	22.2	73.8	4.0	100.0 ( 1,183)
85세 이상	22.9	72.2	4.9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1	81.1	2.8	100.0 ( 7,199)
배우자 없음	24.4	73.2	2.4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29.5	69.2	1.4	100.0 ( 2,095)
노인부부	16.9	80.2	2.8	100.0 ( 5,170)
자녀동거	14.2	82.5	3.4	100.0 ( 2,916)
기타	19.9	77.2	2.8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2.4	65.9	1.7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26.5	72.1	1.4	100.0 ( 2,213)
초등학교	17.6	79.9	2.5	100.0 ( 3,782)
중·고등학교	11.1	85.4	3.5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8.5	85.4	6.1	100.0 ( 741)

특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8	76.8	1.4	100.0 ( 3,569)
미취업	17.3	79.4	3.4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4	66.7	1.9	100.0 ( 2,135)
제2오분위	23.6	74.3	2.2	100.0 ( 2,139)
제3오분위	16.0	81.5	2.5	100.0 ( 2,131)
제4오분위	12.6	85.1	2.4	100.0 ( 2,135)
제5오분위	10.3	85.2	4.5	100.0 ( 2,134)
가능상태				
제한 없음	17.8	79.7	2.5	100.0 ( 9,081)
제한 있음	24.6	71.8	3.6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한편, 노인 응답자에게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을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56.7%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15.2%), 화장실(10.9%), 문턱(4.6%)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낮이가 있는 부분과 화장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가구형태별, 취업상태별,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는 노인의 특성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동부의 경우는 계단(18.2%), 읍·면부의 경우 화장실(17.1%)로 나타나 주거환경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에서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으며 (65~69세61.9%, 85세 이상 48.9%), 65~74세는 대체로 계단이라는 응답이 높으나, 75세 이상부터는 화장실이라는 응답의 비율도 높아져,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고(제1오분위 44.9%, 제5오분위 67.1%),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는 불편한 곳으로 화장실이 1순위로 뽑힌 반면(각각 18.6%, 15.0%), 제3오분위서부터는 화장실이라는 응답은 줄어들고 계단이 높아져, 거주환경의 차이를 가늠케 한다(표 II-10-4~표 II-10-8 참조).



〈표 II-10-4〉 노인의 지역·성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56.7	58.0	54.0	64.7	50.7
현관	1.2	1.1	1.4	1.0	1.3
복도	0.1	0.1	0.1	0.1	0.2
계단	15.2	18.2	8.9	12.5	17.3
부엌 및 식당	3.3	3.1	3.6	1.9	4.3
화장실	10.9	8.0	17.1	9.5	12.0
욕실	2.1	2.1	2.1	2.1	2.2
침실	0.7	0.8	0.6	0.6	0.8
거실	0.9	1.0	0.9	0.8	1.0
베란다	0.7	0.9	0.3	0.4	1.0
조명	1.0	1.0	1.2	1.2	0.9
문턱	4.6	3.0	7.9	3.1	5.7
환기	1.6	1.8	1.2	1.3	1.9
기타	0.8	0.8	0.8	0.9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7,148)	( 3,394)	( 4,547)	( 5,99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0-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56.7	61.9	57.3	53.8	51.3	48.9
현관	1.2	1.0	1.1	1.3	1.1	2.4
복도	0.1	0.2	0.2	0.2	0.0	0.0
계단	15.2	14.0	15.2	15.6	16.3	18.2
부엌 및 식당	3.3	3.1	3.5	3.0	2.9	3.9
화장실	10.9	8.2	9.9	13.0	16.0	12.8
욕실	2.1	2.3	2.2	2.1	1.6	2.1
침실	0.7	0.8	0.7	0.7	0.8	0.3
거실	0.9	1.1	1.1	0.8	0.5	0.7
베란다	0.7	0.8	0.8	0.8	0.5	0.5
조명	1.0	1.0	1.0	1.2	1.5	0.3
문턱	4.6	2.9	4.6	5.2	6.0	8.0
환기	1.6	1.9	1.5	1.8	0.9	1.3
기타	0.8	0.9	0.9	0.6	0.7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3,149)	( 3,227)	( 2,390)	( 1,159)	( 6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0-6〉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 · 가구형태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56.7	60.4	49.1	46.1	60.4	58.2	54.8
현관	1.2	1.2	1.3	1.3	1.2	1.3	0.8
복도	0.1	0.1	0.1	0.0	0.0	0.3	0.8
계단	15.2	14.6	16.5	13.6	13.4	19.8	14.8
부엌 및 식당	3.3	3.0	3.8	4.6	3.2	2.3	3.5
화장실	10.9	9.4	14.2	17.7	10.0	7.4	11.9
욕실	2.1	2.1	2.3	2.7	2.2	1.7	1.0
침실	0.7	0.6	1.0	1.0	0.6	0.7	0.8
거실	0.9	0.9	1.0	0.7	0.6	1.6	1.8
베란다	0.7	0.7	0.8	0.8	0.5	0.7	2.7
조명	1.0	0.9	1.3	1.8	1.1	0.5	0.6
문턱	4.6	3.9	6.0	6.7	4.2	3.6	4.7
환기	1.6	1.6	1.8	1.9	1.8	1.3	1.0
기타	0.8	0.8	0.8	1.0	0.8	0.6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7,119)	( 3,420)	( 2,087)	( 5,120)	( 2,848)	( 48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0-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 · 취업상태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해독불가)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이상	취업	미취업
없음	56.7	42.3	46.9	57.6	64.2	75.9	57.2	56.5
현관	1.2	1.4	1.3	1.5	0.7	1.0	1.3	1.2
복도	0.1	0.7	0.0	0.0	0.2	0.0	0.2	0.1
계단	15.2	14.4	17.0	15.5	15.5	8.9	12.2	16.8
부엌 및 식당	3.3	4.6	4.2	3.4	1.9	2.7	3.2	3.3
화장실	10.9	20.6	14.4	10.0	7.2	3.8	13.2	9.8
욕실	2.1	2.7	2.0	2.1	2.3	0.7	2.1	2.1
침실	0.7	0.8	0.9	0.7	0.7	0.4	0.9	0.6
거실	0.9	0.6	0.8	1.3	0.9	0.4	1.1	0.8
베란다	0.7	0.2	1.1	0.8	0.7	0.1	0.7	0.7
조명	1.0	0.7	1.0	0.9	1.2	1.4	1.2	0.9
문턱	4.6	8.9	7.1	4.3	2.0	1.1	4.3	4.7
환기	1.6	1.0	2.4	1.4	1.5	2.3	1.6	1.7
기타	0.8	1.0	0.9	0.5	0.9	1.4	1.0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1,143)	( 2,182)	( 3,744)	( 2,738)	( 734)	( 3,566)	( 6,97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0-8〉 노인(65세 이상)의 연가구소득 · 기능제한상태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연가구소득					기능제한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없음	있음
없음	56.7	44.9	50.4	57.1	64.2	67.1	59.4	40.1
현관	1.2	1.7	1.7	0.6	1.0	1.0	1.1	2.0
복도	0.1	0.0	0.2	0.0	0.4	0.0	0.2	0.0
계단	15.2	13.7	14.8	15.3	16.1	16.3	14.1	22.1
부엌 및 식당	3.3	3.7	3.4	4.6	2.6	2.0	3.2	3.9
화장실	10.9	18.6	15.0	10.1	6.1	4.7	10.2	15.1
욕실	2.1	2.9	2.4	2.5	1.6	1.2	2.0	2.8
침실	0.7	0.8	0.7	1.0	0.5	0.7	0.6	1.3
거실	0.9	0.6	0.9	1.1	1.1	1.0	1.0	0.5
베란다	0.7	0.8	0.6	0.8	0.9	0.6	0.8	0.3
조명	1.0	1.8	1.0	1.0	0.7	0.7	1.0	1.5
문턱	4.6	7.5	6.0	3.2	3.2	2.8	3.9	8.6
환기	1.6	1.8	1.9	2.3	0.9	1.3	1.8	0.8
기타	0.8	1.2	0.9	0.6	0.7	0.6	0.7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2,112)	( 2,120)	( 2,099)	( 2,115)	( 2,096)	( 9,073)	( 1,4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 제2절 외출 및 교통수단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스(48.9%), 지하철(19.3%), 자가용(18.4%)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버스(42.2%), 지하철(28.1%) 순이며, 읍·면부는 버스(63.1%), 자가용(20.9%)로 나타나, 동부의 경우 버스 다음으로 지하철 이용률이 높으며 읍·면부는 버스 이용률이 동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에게 있어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이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읍·면부에서는 버스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표 II-10-9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버스라는 응답이 각각 38.4%, 56.9%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 자가용 이용률이 23.0%, 여자노인은 14.8%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버스의 응답률이 낮고(65~69세 47.6%, 85세 이상 34.0%) 자가용 응답률이 높은(65~69세 21.5%, 85세 이상 35.2%)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

을수록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자가용이라는 응답이 10.2%인데 반해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는 약 20%에 가까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이러한 자녀로부터의 이동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버스 응답률이 낮고(무학(글자해독 불가) 63.3%, 전문대이상 24.5%), 지하철이나 자가용이라는 응답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동부 거주 노인의 교육수준이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높다는 점과 함께 생각해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자가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버스라는 응답률이 낮고(제1오분위 61.0%, 제5오분위 35.7%) 자가용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제1오분위 8.5%, 제5오분위 31.1%) (표 II-10-9~표 II-10-13 참조).

〈표 II-10-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2008년도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0.5	0.6	0.3	0.4	0.6	3.4
버스	48.9	42.2	63.1	38.4	56.9	51.1
지하철	19.3	28.1	0.9	21.5	17.7	14.1
택시	6.7	7.6	4.7	5.1	7.9	5.5
자가용	18.4	17.2	20.9	23.0	14.8	11.6
자전거	2.0	2.2	1.6	4.0	0.5	2.2
오토바이	3.1	1.2	7.2	6.1	0.8	2.8
전동휠체어	0.4	0.4	0.3	0.4	0.3	0.4
경운기	0.2	0.0	0.5	0.3	0.0	0.2
기타	0.6	0.6	0.6	0.7	0.5	8.5 <sup>2)</sup>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3)	( 7,148)	( 3,395)	( 4,549)	( 5,994)	(10,7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2) 결어다난다고 응답함 경우임.

〈표 II-10-1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0.5	0.2	0.3	0.5	0.9	1.6
버스	48.9	47.6	50.9	53.2	46.0	34.0
지하철	19.3	21.3	22.3	16.0	17.4	9.9
택시	6.7	3.5	4.3	8.9	12.2	16.4
자가용	18.4	21.5	14.7	14.9	18.3	35.2
자전거	2.0	2.1	2.3	1.9	1.9	1.0
오토바이	3.1	2.8	4.1	3.2	2.1	0.7
전동휠체어	0.4	0.3	0.3	0.5	0.3	0.7
경운기	0.2	0.1	0.1	0.3	0.1	0.0
기타	0.6	0.6	0.6	0.6	0.8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3)	( 3,150)	( 3,229)	( 2,389)	( 1,163)	( 6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II-10-11〉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0.5	0.3	0.9	0.6	0.2	0.7	1.0
버스	48.9	46.1	54.7	59.9	47.5	43.7	47.2
지하철	19.3	19.8	18.3	18.0	18.6	21.6	19.2
택시	6.7	5.6	8.8	8.3	5.8	6.8	7.0
자가용	18.4	20.1	14.8	10.2	19.2	22.5	20.7
자전거	2.0	2.7	0.6	0.7	2.8	1.8	0.6
오토바이	3.1	4.1	1.1	1.4	4.4	2.0	2.9
전동휠체어	0.4	0.3	0.5	0.4	0.4	0.3	0.2
경운기	0.2	0.2	0.0	0.0	0.2	0.1	0.8
기타	0.6	0.7	0.4	0.4	0.8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3)	( 7,121)	( 3,423)	( 2,084)	( 5,119)	( 2,848)	( 48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II-10-1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해독불가)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이상	취업	미취업
없음	0.5	1.0	0.7	0.5	0.1	0.0	0.3	0.5
버스	48.9	63.3	56.5	53.2	37.5	24.5	54.5	46.1
지하철	19.3	7.6	14.8	17.1	26.2	37.2	12.1	23.0
택시	6.7	9.2	8.6	6.4	5.0	4.4	2.9	8.6
자가용	18.4	16.5	14.2	15.0	23.8	30.5	19.2	17.9
자전거	2.0	0.7	1.1	2.3	3.1	1.5	2.9	1.6
오토바이	3.1	1.0	3.0	4.2	3.2	0.5	7.0	1.1
전동휠체어	0.4	0.3	0.4	0.2	0.5	0.5	0.1	0.5
경운기	0.2	0.0	0.2	0.3	0.0	0.0	0.4	0.0
기타	0.6	0.3	0.5	0.8	0.5	0.8	0.5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3)	( 1,147)	( 2,183)	( 3,744)	( 2,738)	( 734)	( 3,564)	( 6,97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II-10-13〉 노인(65세 이상)의 연가구소득·기능제한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연가구소득					기능제한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없음	있음
없음	0.5	0.8	0.2	0.7	0.3	0.3	0.3	1.7
버스	48.9	61.0	56.2	48.4	43.3	35.7	51.6	32.1
지하철	19.3	16.6	16.2	19.7	20.0	24.2	20.9	9.4
택시	6.7	8.3	7.3	5.3	7.1	5.3	4.6	19.4
자가용	18.4	8.5	11.6	17.8	23.0	31.1	16.2	32.0
자전거	2.0	1.4	3.1	2.0	2.0	1.7	2.3	0.5
오토바이	3.1	2.0	4.1	4.6	3.3	1.4	3.4	1.1
전동휠체어	0.4	0.4	0.8	0.3	0.2	0.1	0.1	1.9
경운기	0.2	0.0	0.1	0.3	0.3	0.1	0.2	0.1
기타	0.6	0.8	0.5	1.0	0.4	0.2	0.4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3)	( 2,111)	( 2,120)	( 2,099)	( 2,114)	( 2,095)	( 9,074)	( 1,4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한편, 노인의 41.0%가 외출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26.9%),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동부의 경우 계단이나 경사오르내리기가 30.8%인 반면 읍·면부는 같은 항목에 대해 18.8%만이 응답했으며, 읍·면부의 15.7%가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동부의 2.2%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주요 교통수단과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에는 지하철 등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단이나 경사오르내리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반면 읍·면부는 대중교통수단의 배차간격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30.2%로 남자노인의 55.2%보다 훨씬 낮다. 즉, 남자노인의 44.8%만이 이동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69.8% 정도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에서 33.5%를 응답해 남자의 18.3%와 크게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률이 줄어들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으며(65~69세 55.1%, 85세 이상 20.5%), 항목별로 살펴보면, 85세 이상의 경우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라는 응답이 40.7%로 절반 이상이 응답해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26.4%에 불과해, 타가구의 약 40%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 이들이 외출시 불편함을 더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제1오분위 26.2%, 제5오분위 55.4%) 소득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기능제한별로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외출시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16.7%로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의 44.9%와 큰 차이를 보여, 기능제한을 갖고 있는 노인이 외출시 많은 불편함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0-14~표 II-10-18 참조).

〈표 II-10-14〉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불편함이 없음	41.0	43.2	36.3	55.2	30.2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2.3	9.7	17.7	6.1	17.0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30.8	18.8	18.3	33.5
고르지 못한 인도	2.4	2.6	1.9	2.1	2.6
짧은 횡단보도 신호	1.1	1.5	0.3	1.1	1.0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4	1.9	0.4	0.9	1.9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2	1.3	0.9	1.5	0.9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2.8	2.7	3.0	4.0	2.0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	3.0	2.6	3.6	2.7	3.2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들	1.2	1.1	1.3	1.5	0.9
교통수단이 부족함	6.6	2.2	15.7	6.4	6.7
기타	0.2	0.2	0.1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8)	( 7,146)	( 3,392)	( 4,550)	( 5,99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표 II-10-1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불편함이 없음	41.0	55.1	42.3	33.1	26.1	20.5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2.3	6.9	12.2	15.7	18.2	16.3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20.5	25.2	30.4	34.9	40.7
고르지 못한 인도	2.4	2.0	2.0	2.4	3.9	3.4
짧은 횡단보도 신호	1.1	0.8	1.5	0.9	1.1	1.0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4	1.1	1.7	1.3	1.5	2.3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2	1.2	1.1	1.4	0.9	0.8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2.8	2.7	2.3	3.1	3.6	3.6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	3.0	2.5	3.5	3.1	2.6	2.3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들	1.2	0.9	1.0	1.4	1.4	2.3
교통수단이 부족함	6.6	5.9	7.1	7.0	5.9	6.8
기타	0.2	0.3	0.2	0.1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8)	( 3,150)	( 3,225)	( 2,388)	( 1,158)	( 6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표 II-10-16〉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불편함이 없음	41.0	47.2	28.1	26.4	46.1	42.2	43.2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2.3	9.4	18.3	21.1	10.0	10.5	8.6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23.4	34.3	32.4	23.5	28.6	30.5
고르지 못한 인도	2.4	2.2	2.9	3.2	2.1	2.4	2.7
짧은 횡단보도 신호	1.1	1.2	0.8	0.7	1.3	1.0	1.4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4	1.1	2.2	1.3	0.9	2.5	1.9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2	1.2	1.1	1.1	1.2	1.0	1.9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2.8	3.1	2.3	2.4	3.0	2.8	2.7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	3.0	2.9	3.2	3.3	2.9	3.2	1.2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들	1.2	1.3	1.0	0.7	1.3	1.3	1.2
교통수단이 부족함	6.6	6.9	5.8	7.3	7.6	4.5	4.5
기타	0.2	0.2	0.2	0.2	0.2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8)	( 7,117)	( 3,421)	( 2,087)	( 5,117)	( 2,847)	( 48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표 II-10-1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해독 불가)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이상	취업	미취업
불편함이 없음	41.0	17.9	26.8	40.9	54.5	69.3	49.5	36.6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2.3	24.6	18.3	12.0	5.4	2.6	9.7	13.6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31.6	32.8	27.3	22.5	16.8	16.9	32.1
고르지 못한 인도	2.4	2.9	2.4	2.5	2.0	2.3	1.7	2.8
짧은 횡단보도 신호	1.1	0.9	0.8	1.2	1.2	1.0	0.6	1.3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4	2.9	1.5	1.1	1.4	0.8	1.1	1.6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2	1.2	0.9	1.1	1.6	0.5	1.3	1.1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2.8	1.8	3.0	2.6	3.4	2.6	3.5	2.5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	3.0	4.2	3.8	3.0	2.1	1.4	3.5	2.7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들	1.2	1.0	1.5	1.2	1.2	0.5	0.7	1.4
교통수단이 부족함	6.6	10.8	8.1	7.0	4.1	2.2	11.4	4.1
기타	0.2	0.1	0.1	0.1	0.4	0.0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8)	( 1,143)	( 2,183)	( 3,739)	( 2,738)	( 733)	( 3,567)	( 6,9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표 II-10-18〉 노인(65세 이상)의 연가구소득·기능제한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연가구소득					기능제한	
		제1오분 위	제2오분 위	제3오분 위	제4오분 위	제5오분 위	없음	있음
불편함이 없음	41.0	26.2	33.1	43.5	46.8	55.4	44.9	16.7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2.3	22.1	15.1	9.6	8.6	6.1	11.8	15.2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30.6	29.9	26.9	24.4	22.8	24.6	41.6
고르지 못한 인도	2.4	2.7	2.2	2.3	2.8	1.9	2.0	4.8
짧은 횡단보도 신호	1.1	0.9	1.0	1.6	1.2	0.6	1.1	1.0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4	0.9	1.1	1.2	1.6	2.5	1.4	1.7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2	0.9	1.5	1.2	1.2	1.0	1.1	1.6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2.8	2.6	2.7	3.0	2.9	3.0	2.9	2.3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	3.0	3.7	3.0	3.0	2.4	2.6	3.0	2.5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듦	1.2	1.0	1.8	1.0	1.1	1.0	0.5	5.4
교통수단이 부족함	6.6	8.2	8.5	6.4	6.7	3.1	6.5	7.1
기타	0.2	0.1	0.0	0.1	0.3	0.1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8)	( 2,112)	( 2,119)	( 2,099)	( 2,116)	( 2,094)	( 9,073)	( 1,46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3. 운전 및 교통사고

노인의 운전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12.2%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8.4%는 과거에는 해보았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79.4%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실태에는 특성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평생 한적 없다는 의견이 56.6%인 반면, 여자는 96.6%로 대부분이 운전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67.7%, 85세 이상 93.3%).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17.2%로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8%에 불과하고, 평생 한적 없다는 응답도 95.2%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평생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4.4%로 높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운전을 하고 있거나, 해봤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평생 한적 없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평생 운전을 한 적 없다-무학(글자모름) 99.8%, 전문대이상 33.5%).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생 운전을 해본적 없다는 응답이 낮아, 교육수준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제1오분위 93.4%, 제5오분위 66.0%).

운전을 그만둔 나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57.7세로 나타났으며, 동부의 경우 58.2세로 읍·면부의 53.8세보다 약 5세 정도 더 늦게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57.4세, 여자노인이 60.2세로 여자가 더 늦게 운전을 그만두었으며, 연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늦은 나이에 운전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오분위 54.6세, 제5오분위 59.2세)(표 II-10-19 참조).

〈표 II-10-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단위: %, 세, 명)

특성	현재 하고있음	한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있지 않음	그만둔나이(세) <sup>2)</sup>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전체 <sup>1)</sup>	12.2	8.4	57.7	79.4	100.0 (10,544)
지역					
동부	12.8	11.0	58.2	76.3	100.0 (7,150)
읍·면부	11.1	3.0	53.8	85.9	100.0 (3,394)
성					
남자	26.3	17.1	57.4	56.6	100.0 (4,548)
여자	1.6	1.8	60.2	96.6	100.0 (5,996)
연령					
65~69세	22.4	9.8	56.4	67.7	100.0 (3,149)
70~74세	11.9	8.9	57.2	79.2	100.0 (3,227)
75~79세	6.9	8.1	60.3	85.0	100.0 (2,389)
80~84세	2.3	5.1	58.2	92.6	100.0 (1,162)
85세 이상	1.1	5.5	58.6	93.3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2	11.0	58.1	71.8	100.0 (7,120)
배우자 없음	1.8	3.0	55.0	95.2	100.0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2.0	3.5	54.6	94.4	100.0 (2,086)
노인부부	16.7	10.8	57.9	72.6	100.0 (5,120)
자녀동거	10.9	8.2	58.4	80.8	100.0 (2,850)
기타	17.0	4.9	56.5	78.0	100.0 ( 487)

특성	현재 하고있음	한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있지 않음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그만둔나이(세) <sup>2)</sup>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1	0.1	74.0	99.8	100.0 (1,146)
무학(글자해독)	1.9	2.5	47.8	95.6	100.0 (2,184)
초등학교	6.9	5.6	55.5	87.5	100.0 (3,743)
중·고등학교	25.0	15.9	58.6	59.2	100.0 (2,737)
전문대학 이상	41.4	25.1	61.0	33.5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9.3	5.7	52.3	75.0	100.0 (3,566)
미취업	8.6	9.7	59.3	81.6	100.0 (6,97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	4.2	54.6	93.4	100.0 (2,113)
제2오분위	6.1	7.5	55.0	86.4	100.0 (2,121)
제3오분위	12.6	9.8	58.1	77.7	100.0 (2,100)
제4오분위	17.3	9.4	59.1	73.3	100.0 (2,115)
제5오분위	22.9	11.1	59.2	66.0	100.0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0	8.6	57.6	77.4	100.0 (9,073)
제한 있음	1.4	7.2	58.8	91.4	100.0 (1,471)
2008년도 <sup>3)</sup>	15.7	5.2	57.3	79.2	100.0 (10,7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운전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있지 않다고 응답한 88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3) 2008년도 설문내용 중 ‘과거 운전 경험 여부’와 ‘현재 운전여부’를 리코딩하여 재분석함.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의 21.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12.7%, 그렇지 않다 65.9%로 나타나, 고령운전자의 1/5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기능상태별로 차이가 특징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운전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동부 19.1%, 읍·면부 26.7%),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0.6%인 반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표 II-10~20 참조).

〈표 11-10~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0.8	20.5	12.7	36.3	29.6	100.0 (1,288)
지역						
동부	0.9	18.2	13.4	36.5	31.0	100.0 ( 912)
읍·면부	0.8	25.9	11.0	36.1	26.2	100.0 ( 374)
성						
남자	0.8	20.7	11.9	36.1	30.5	100.0 (1,196)
여자	1.1	18.3	22.6	39.8	18.3	100.0 ( 93)
연령						
65~69세	0.7	16.6	11.3	38.0	33.3	100.0 ( 705)
70~74세	0.3	23.8	12.0	37.1	26.9	100.0 ( 383)
75~79세	2.4	28.1	18.0	29.3	22.2	100.0 ( 167)
80~84세	0.0	23.1	26.9	26.9	23.1	100.0 ( 26)
85세 이상	0.0	42.9	14.3	28.6	14.3	100.0 ( 7)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8	20.6	12.8	36.4	29.4	100.0 (1,226)
배우자 없음	1.6	17.2	10.9	35.9	34.4	100.0 ( 64)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23.3	9.3	34.9	32.6	100.0 ( 43)
노인부부	1.1	22.4	13.3	37.1	26.2	100.0 ( 852)
자녀동거	0.3	18.0	10.9	36.3	34.4	100.0 ( 311)
기타	0.0	8.4	15.7	30.1	45.8	100.0 ( 8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100.0	0.0	0.0	0.0	100.0 ( 1) <sup>2)</sup>
무학(글자해독)	2.4	16.7	23.8	47.6	9.5	100.0 ( 42)
초등학교	1.6	26.5	12.8	30.4	28.8	100.0 ( 257)
중·고등학교	0.6	20.2	12.0	35.1	32.1	100.0 ( 683)
전문대학 이상	0.3	16.4	12.8	42.4	28.0	100.0 ( 3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4	22.4	9.6	36.4	31.0	100.0 ( 686)
미취업	1.2	18.3	16.3	36.2	28.1	100.0 ( 6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	17.6	15.7	31.4	31.4	100.0 ( 51)
제2오분위	1.6	31.0	15.5	39.5	12.4	100.0 ( 129)
제3오분위	0.8	23.5	12.9	33.7	29.2	100.0 ( 264)
제4오분위	1.4	20.5	11.5	33.6	33.1	100.0 ( 366)
제5오분위	0.0	16.3	12.6	39.5	31.6	100.0 ( 478)
기능상태						
제한 없음	0.7	19.9	12.8	36.7	29.9	100.0 (1,267)
제한 있음	9.5	57.1	4.8	14.3	14.3	100.0 ( 21)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운전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한 〈표 II-10-21〉에 의하면, 야간운전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어, 52.4%의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시야확보(25.3%), 빗길운전(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야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21.0%, 80~84세 57.1%).

〈표 II-10-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시야확보	표지판이 잘 안보임	신호속도 가 빠름	야간운전	빗길운전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25.3	4.5	4.7	52.4	12.0	1.1	100.0 (278)
지역							
동부	22.3	2.2	5.6	56.4	12.3	1.1	100.0 (179)
읍·면부	31.0	9.0	3.0	45.0	11.0	1.0	100.0 (100)
성							
남자	25.6	4.7	3.9	52.7	12.0	1.2	100.0 (258)
여자	21.7	4.3	13.0	43.5	13.0	4.3	100.0 ( 23)
연령							
65~69세	21.0	3.2	3.2	51.6	19.4	1.6	100.0 (124)
70~74세	25.8	6.5	4.3	59.1	3.2	1.1	100.0 ( 93)
75~79세	29.6	5.6	9.3	42.6	11.1	1.9	100.0 ( 54)
80~84세	57.1	0.0	14.3	28.6	0.0	0.0	100.0 ( 7) <sup>2)</sup>
85세 이상	33.3	0.0	0.0	66.7	0.0	0.0	100.0 ( 3)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8	4.2	3.8	53.8	11.7	0.8	100.0 (264)
배우자 없음	13.3	13.3	20.0	26.7	20.0	6.7	100.0 ( 15)
가구형태							
노인독거	20.0	10.0	10.0	30.0	20.0	10.0	100.0 ( 10)
노인부부	26.2	5.0	4.5	52.5	10.9	1.0	100.0 (202)
자녀동거	23.3	1.7	5.0	55.0	15.0	0.0	100.0 ( 60)
기타	28.6	0.0	0.0	57.1	14.3	0.0	100.0 ( 7) <sup>2)</sup>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0.0	0.0	100.0	0.0	100.0 ( 1) <sup>2)</sup>
무학(글자해독)	22.2	0.0	33.3	44.4	0.0	0.0	100.0 ( 9) <sup>2)</sup>
초등학교	25.0	7.9	1.3	44.7	21.1	0.0	100.0 ( 76)
중·고등학교	30.1	4.2	4.2	51.7	7.7	2.1	100.0 (143)
전문대학 이상	13.7	2.0	5.9	66.7	11.8	0.0	100.0 ( 5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9	3.8	6.3	51.6	13.8	0.6	100.0 (159)
미취업	27.1	5.1	2.5	54.2	9.3	1.7	100.0 (118)

특성	시야확보	표지판이 잘 안보임	신호속도 가 빠름	야간운전	빗길운전	기타	계 (명)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0	20.0	0.0	30.0	0.0	20.0	100.0 ( 10)
제2오분위	24.4	8.9	8.9	46.7	11.1	0.0	100.0 ( 45)
제3오분위	27.7	3.1	0.0	56.9	10.8	1.5	100.0 ( 65)
제4오분위	29.6	3.7	7.4	46.9	11.1	1.2	100.0 ( 81)
제5오분위	17.7	1.3	3.8	59.5	17.7	0.0	100.0 ( 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9	4.9	4.6	51.7	12.5	0.4	100.0 (263)
제한 있음	18.8	0.0	6.3	62.5	0.0	12.5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운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27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비영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의 69.4%가 차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8.5%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12.1%가 다른 동거가구원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차를 소유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며(동부 66.8%, 읍·면부 74.8%),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64.2%, 여자 73.4%). 연령이 높을수록 차가 없는 비율은 높고, 타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차가 없다는 응답이 97.6%로 무소유율이 매우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39.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차 소유율이 높다(제1오분위 4.9%, 제5오분위 71.2%)(표 II-10-22 참조). 또한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차소유율이 낮다 (제한 없음 31.6%, 제한 있음 24.8%)

차를 소유한 경우 차를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평균 753.5만원으로 나왔으며, 동부의 경우 766.2만원 읍·면부의 경우 718.5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80~84세군과 자녀동거가구, 전문대학 이상군에서 특히 판매가가 높다.

〈표 II-10-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영업 자동차 소유 여부

(단위: %, 만원, 명)

특성	차가 없다	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 소유	다른 동거가구원 차 소유	계 (명)	예상하는 차 판매가 <sup>2)</sup>
전체 <sup>1)</sup>	69.4	18.5	12.1	100.0 (10,544)	753.5
지역					
동부	66.8	19.5	13.7	100.0 ( 7,150)	766.2
읍·면부	74.8	16.3	8.8	100.0 ( 3,394)	718.5
성					
남자	64.2	27.7	8.1	100.0 ( 4,548)	734.9
여자	73.4	11.5	15.1	100.0 ( 5,996)	772.6
연령					
65~69세	57.4	32.8	9.8	100.0 ( 3,149)	752.8
70~74세	71.3	18.1	10.7	100.0 ( 3,227)	676.2
75~79세	77.9	10.5	11.6	100.0 ( 2,389)	771.2
80~84세	80.0	5.3	14.7	100.0 ( 1,162)	945.6
85세 이상	68.3	3.3	28.5	100.0 ( 615)	864.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5.7	25.8	8.5	100.0 ( 7,120)	735.0
배우자 없음	77.1	3.3	19.6	100.0 ( 3,423)	813.1
가구형태					
노인독거	97.6	2.3	0.1	100.0 ( 2,086)	740.1
노인부부	74.6	25.2	0.2	100.0 ( 5,120)	693.1
자녀동거	39.7	17.4	42.9	100.0 ( 2,850)	818.8
기타	68.6	22.6	8.8	100.0 ( 487)	551.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1.0	3.1	15.9	100.0 ( 1,146)	694.5
무학(글자해독)	77.9	6.3	15.8	100.0 ( 2,184)	724.6
초등학교	73.9	13.8	12.3	100.0 ( 3,743)	664.3
중·고등학교	59.5	31.5	9.1	100.0 ( 2,737)	738.9
전문대학 이상	40.5	54.4	5.2	100.0 ( 734)	1,045.9
현 취업상태					
취업중	69.5	22.9	7.6	100.0 ( 3,566)	660.6
미취업	69.4	16.2	14.4	100.0 ( 6,979)	801.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5.2	3.4	1.5	100.0 ( 2,113)	961.0
제2오분위	88.1	10.2	1.7	100.0 ( 2,121)	500.6
제3오분위	77.2	19.3	3.5	100.0 ( 2,100)	463.7
제4오분위	57.6	27.0	15.4	100.0 ( 2,115)	608.4
제5오분위	28.7	32.6	38.6	100.0 ( 2,095)	965.3
기능상태					
제한 없음	68.5	20.4	11.2	100.0 ( 9,073)	756.0
제한 있음	75.2	6.9	17.9	100.0 ( 1,471)	73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3,2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2명을 제외함.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과 관련하여 노인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관련 경험이 없었다(표 II-10-23 참조). 즉, 97.2%가 교통사고 경험이 없고, 2.8%만이 교통사고 관련 경험을 갖고 있어, 교통사고 낸 경험 0.8%, 교통사고 당한 경험 1.7%,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험 0.3%이다.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경험률은 연령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65~69세 3.4%, 85세 이상 1.1%). 또한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교통사고 무경험률이 99.0%로 매우 높은데,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운전 경험이나 외출경험 등이 낮은 편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10-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단위: %, 명)

특성	교통사고 경험없음	교통사고 낸 경험	교통사고 당한 경험	교통사고 낸 경험, 당한 경험	계 (명)
전체 <sup>1)</sup>	97.2	0.8	1.7	0.3	100.0 (10,544)
지역					
동부	96.8	0.9	1.9	0.3	100.0 ( 7,150)
읍·면부	97.9	0.6	1.3	0.1	100.0 ( 3,394)
성					
남자	95.6	1.7	2.1	0.6	100.0 ( 4,548)
여자	98.4	0.2	1.5	0.0	100.0 ( 5,996)
연령					
65~69세	96.6	1.0	1.7	0.7	100.0 ( 3,149)
70~74세	96.6	1.3	2.0	0.1	100.0 ( 3,227)
75~79세	97.6	0.5	1.8	0.0	100.0 ( 2,389)
80~84세	98.8	0.3	0.9	0.0	100.0 ( 1,162)
85세 이상	98.9	0.0	1.1	0.0	100.0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6.5	1.1	2.1	0.4	100.0 ( 7,120)
배우자 없음	98.6	0.3	1.1	0.0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99.0	0.0	0.9	0.0	100.0 ( 2,087)
노인부부	96.6	0.9	2.1	0.4	100.0 ( 5,121)
자녀동거	96.8	1.3	1.8	0.2	100.0 ( 2,849)
기타	97.7	1.0	1.2	0.0	100.0 ( 487)

특성	교통사고 경험없음	교통사고 낸 경험	교통사고 당한 경험	교통사고 낸 경험, 당한 경험	계 (명)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4	0.3	1.1	0.1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98.0	0.1	1.7	0.1	100.0 ( 2,184)
초등학교	97.6	0.6	1.5	0.4	100.0 ( 3,743)
중·고등학교	95.8	1.7	2.3	0.2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96.2	1.6	1.6	0.5	100.0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96.7	1.1	1.9	0.4	100.0 ( 3,566)
미취업	97.4	0.7	1.7	0.2	100.0 ( 6,97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2	0.2	1.3	0.3	100.0 ( 2,113)
제2오분위	98.0	0.3	1.5	0.3	100.0 ( 2,121)
제3오분위	96.7	1.0	2.0	0.4	100.0 ( 2,100)
제4오분위	96.9	1.0	1.8	0.2	100.0 ( 2,115)
제5오분위	95.9	1.8	2.1	0.2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7.0	0.8	1.8	0.3	100.0 ( 9,073)
제한 있음	98.2	0.7	1.1	0.0	100.0 ( 1,4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 제3절 안전실태

#### 1. 안전사고 및 범죄 경험률

〈표 II-10-24〉를 통하여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4.9%가 지난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사고 경험률에 있어 제특성별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별,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연가구소득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안전사고 경험률이 높고(동부 4.2%, 읍·면부 6.3%), 남자(4.3%)보다는 여자(5.3%)에게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4.6%)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5.6%)에게서, 미취업자(4.4%)보다는 취업자(5.8%)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5세 이상의 안전사고 경험률이 가장 낮았으나(3.6%) 그 외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65~69세 4.3%, 80~84세 5.8%). 가구형

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안전사고 경험률이 6.5%로 자녀동거가구 3.8%보다 높은 편이며, 부부가구는 4.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은 낮게 나타났으며(무학(글자모름) 6.7%, 전문대학교 이상 4.5%),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이 낮다(제1오분위 5.5%, 제5오분위 3.2%).

다음으로 지난 1년간 범죄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1.2%, 폭력 및 강력범죄 0.1%, 사기성 물건구매 1.2%, 보이스피싱 0.3%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 사기성 물건구매경험률은 0.6%, 여자는 1.6%로 여자인에게서 높으며, 연령별로는 70~74세의 경우 재산범죄 경험률이 1.5%로 나타나 타 연령층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자의 경우 재산범죄 경험률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이 더 재산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I-10-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sup>1)</sup>	범죄피해 <sup>2)</sup>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
전체	4.9	1.2	0.1	1.2	0.3
지역					
동부	4.2	1.3	0.1	1.2	0.3
읍·면부	6.3	1.0	0.1	1.1	0.3
성					
남자	4.3	1.1	0.1	0.6	0.3
여자	5.3	1.2	0.1	1.6	0.3
연령					
65~69세	4.3	1.2	0.2	0.7	0.2
70~74세	4.8	1.5	0.0	1.5	0.6
75~79세	5.6	1.0	0.0	1.3	0.3
80~84세	5.8	0.9	0.1	1.5	0.2
85세 이상	3.6	0.3	0.0	0.7	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6	1.3	0.1	1.0	0.4
배우자 없음	5.6	1.1	0.1	1.5	0.1

특성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sup>1)</sup>	범죄피해 <sup>2)</sup>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
가구형태					
노인독거	6.5	1.2	0.0	1.5	0.1
노인부부	4.8	1.4	0.1	1.0	0.5
자녀동거	3.8	0.8	0.0	1.4	0.1
기타	4.9	1.0	0.0	0.4	0.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7	0.3	0.0	1.8	0.0
무학(글자해독)	5.6	1.4	0.0	1.2	0.3
초등학교	5.1	1.3	0.1	1.4	0.5
중·고등학교	3.4	0.9	0.1	0.7	0.2
전문대학 이상	4.5	2.6	0.0	0.7	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5.8	1.6	0.1	1.0	0.3
미취업	4.4	1.0	0.0	1.3	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0.9	0.0	0.5	0.1
제2오분위	5.6	1.2	0.1	1.3	0.3
제3오분위	5.4	1.7	0.1	1.9	0.5
제4오분위	4.7	1.2	0.1	1.0	0.5
제5오분위	3.2	0.8	0.0	1.2	0.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	1.3	0.1	1.2	0.3
제한 있음	6.4	0.7	0.1	1.2	0.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2. 학대경험 및 대응

### 가. 학대경험

학대유형을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II-10-25 참조).

노인의 학대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높지 않지만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신체적 학대) 0.5%,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함(정서적 학대) 9.4%,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경제적 학대) 1.5%,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방임) 1.4%,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방임) 2.5%이다. 이러한 유형별 학대 경험에 기초하여 노인의 학대경험률을 계산해보면 노인의 12.7%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에게 있어서 13.8%, 읍·면부는 10.2%이다. 동부 노인의 학대경험이 읍·면부노인에 비하여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학대경험률이 13.4%로 남자노인의 11.7%보다 약간 높다. 연령군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경험률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으며,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경험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자원이 적을수록 학대경험률이 높다. 특히 방임의 경우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표 11-10-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학대경험

(단위: %, 명)

특성	학대 경험률	학대 유형별 경험률 <sup>1)</sup>					대상자수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 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12.7	0.5	9.4	1.5	1.4	2.5	(10,540)
지역							
동부	13.8	0.6	10.1	1.6	1.6	2.8	( 7,147)
읍·면부	10.2	0.3	8.0	1.1	0.9	1.7	( 3,393)
성							
남자	11.7	0.3	8.5	1.6	1.0	2.0	( 4,547)
여자	13.4	0.6	10.1	1.4	1.7	2.8	( 5,994)
연령							
65~69세	13.0	0.5	9.8	1.8	0.8	2.2	( 3,150)
70~74세	12.7	0.3	10.1	1.3	1.1	2.1	( 3,228)
75~79세	12.8	0.6	9.2	1.1	1.9	2.7	( 2,389)
80~84세	12.1	0.6	7.9	1.8	2.3	3.4	( 1,160)
85세 이상	11.1	0.5	7.2	1.1	2.0	2.9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5	0.5	9.1	1.3	0.6	1.6	( 7,120)
배우자 없음	15.2	0.5	10.0	1.9	3.0	4.4	(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15.8	0.6	9.4	1.8	3.9	5.6	( 2,085)
노인부부	11.1	0.5	8.6	1.3	0.6	1.7	( 5,120)
자녀동거	13.2	0.5	11.1	1.6	0.9	1.3	( 2,846)
기타	12.9	0.0	8.2	1.2	1.4	3.9	( 488)

특성	학대 경험률	학대 유형별 경험률 <sup>1)</sup>					대상자수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5	0.3	12.2	0.3	3.0	4.8	( 1,144)
무학(글자해독)	13.4	1.0	9.2	1.4	1.7	3.8	( 2,182)
초등학교	11.1	0.4	8.6	1.4	0.9	1.7	( 3,743)
중·고등학교	13.7	0.4	10.1	2.2	1.4	1.8	( 2,737)
전문대학 이상	8.6	0.0	7.1	0.8	0.4	1.4	( 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9	0.4	9.2	1.7	0.8	1.6	( 3,566)
미취업	13.0	0.5	9.5	1.3	1.7	2.9	( 6,975)
가구소득제5오분위							
제1오분위	17.0	0.6	9.2	1.6	3.8	6.7	( 2,112)
제2오분위	13.3	0.6	9.9	1.8	1.1	2.7	( 2,120)
제3오분위	11.9	0.8	9.6	1.2	1.0	1.8	( 2,100)
제4오분위	11.1	0.4	9.2	1.4	0.2	0.7	( 2,114)
제5오분위	10.2	0.1	9.0	1.3	0.7	0.5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6	0.5	9.1	1.5	1.0	2.2	( 9,074)
제한 있음	12.2	0.5	11.1	1.2	3.5	4.2	( 1,467)
2008년도	10.2	0.7	7.8	1.3	1.7	2.9	(10,7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 나. 노인학대 경험시 대응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 40.7%, 참는다 36.3%,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하겠다 22.5%, 기타 0.6%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노인이 학대 경험시 대응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는 다양성이 있다(표 II-10-26 참조). 이를 노인의 체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동부거주 노인(43.5%), 남자노인(49.1%), 배우자가 있는 노인(44.2%), 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41.6%)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은 층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아 65~69세 군에서 46.6%인 반면 85세 이상 군에서는 28.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높다.

〈표 II-10-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학대 경험시 대응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전문기관, 경찰, 주민센터등에 신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	참는다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40.7	22.5	36.3	0.6	100.0 (10,532)
지역					
동부	43.5	21.8	34.1	0.6	100.0 ( 7,144)
읍·면부	34.6	23.9	40.9	0.5	100.0 ( 3,389)
성					
남자	49.1	19.7	30.2	1.0	100.0 ( 4,544)
여자	34.2	24.5	41.0	0.3	100.0 ( 5,986)
연령					
65~69세	46.6	23.5	29.1	0.7	100.0 ( 3,147)
70~74세	41.2	21.6	36.5	0.7	100.0 ( 3,226)
75~79세	37.7	23.9	37.9	0.5	100.0 ( 2,388)
80~84세	35.6	18.9	45.2	0.3	100.0 ( 1,158)
85세 이상	28.1	22.3	49.4	0.2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2	22.2	32.9	0.7	100.0 ( 7,116)
배우자 없음	33.2	23.0	43.4	0.3	100.0 ( 3,415)
가구형태					
노인독거	34.9	21.3	43.5	0.3	100.0 ( 2,083)
노인부부	43.8	22.2	33.5	0.5	100.0 ( 5,117)
자녀동거	39.1	23.9	36.2	0.8	100.0 ( 2,846)
기타	40.9	22.0	35.9	1.2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8.5	22.0	49.2	0.3	100.0 ( 1,140)
무학(글자해독)	34.1	24.0	41.6	0.2	100.0 ( 2,180)
초등학교	40.0	22.6	37.2	0.3	100.0 ( 3,742)
중·고등학교	49.0	20.9	28.9	1.2	100.0 ( 2,735)
전문대학 이상	51.2	23.8	23.4	1.6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1	21.5	36.4	0.9	100.0 ( 3,564)
미취업	40.4	22.9	36.2	0.4	100.0 ( 6,969)
가구소득제5오분위					
제1오분위	36.7	19.3	43.7	0.3	100.0 ( 2,105)
제2오분위	37.9	20.9	41.0	0.2	100.0 ( 2,121)
제3오분위	43.3	22.3	33.7	0.6	100.0 ( 2,099)
제4오분위	42.6	24.0	32.6	0.8	100.0 ( 2,114)
제5오분위	42.8	25.6	30.5	1.1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1.6	22.3	35.5	0.6	100.0 ( 9,069)
제한 있음	34.8	23.4	41.3	0.4	100.0 ( 1,46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2명을 제외함.

## 제4절 자살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1.2%이다. 즉 노인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약 1.3%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건강이 32.6%, 경제적 어려움 30.8%, 외로움 10.2%, 배우자·가족·친구의 사망 3.6%, 부부·자녀·친구의 갈등 및 단절 15.6%,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 4.5%, 기타 2.8%이다(표 II-10-27 참조).

자살을 생각해본 노인은 읍·면부보다 동부(각각 9.1%와 12.2%),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각각 9.9%와 12.2%),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9.9%와 13.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인 15.1%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자살을 생각해보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0%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9.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표 II-10-27 참조). 자살을 생각할 이유의 경우 동부 거주노인, 남자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독거노인에게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도 이러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0-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단위: %, 명)

특성	자살 생각률 <sup>1)</sup>	자살 시도율 <sup>2)</sup>	자살생각 이유 <sup>2)</sup>								계 (명)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 (배우자 가족,친구)	부부 친구 및 단절	자녀 갈등	배우자 가족 건강	기타	
전체	11.2	11.2	32.6	30.8	10.2	3.6	15.6	4.5	2.8	100.0 (1,181)	
지역											
동부	12.2	11.9	31.5	32.5	11.3	3.2	14.2	4.2	3.0	100.0 ( 873)	
읍·면부	9.1	9.4	35.7	26.0	7.1	4.5	19.1	5.2	2.2	100.0 ( 308)	
성											
남자	9.9	12.7	34.6	34.1	10.2	2.0	13.5	2.5	3.1	100.0 ( 451)	
여자	12.2	10.4	31.5	28.8	10.2	4.7	16.9	5.4	2.4	100.0 ( 728)	
연령											
65~69세	11.1	14.8	32.8	31.6	7.1	3.4	16.2	5.1	3.7	100.0 ( 351)	
70~74세	12.1	9.0	34.4	27.8	7.7	2.3	20.2	4.3	3.3	100.0 ( 392)	
75~79세	11.5	11.0	27.0	36.9	16.1	4.0	10.6	4.7	0.7	100.0 ( 274)	
80~84세	10.3	11.0	39.7	23.3	12.9	6.0	11.2	4.3	2.6	100.0 ( 116)	
85세 이상	7.3	6.7	31.1	33.3	13.3	6.7	13.3	2.2	0.0	100.0 ( 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9	10.3	38.5	29.0	7.1	0.7	16.2	5.1	3.3	100.0 ( 703)	
배우자 없음	13.9	12.7	23.8	33.5	14.6	7.7	14.6	3.3	2.3	100.0 ( 478)	
가구형태											
노인독거	15.1	11.8	21.8	35.8	16.8	8.8	12.3	1.9	2.5	100.0 ( 316)	
노인부부	9.2	10.6	39.8	29.0	7.0	1.0	15.5	5.1	2.5	100.0 ( 472)	
자녀동거	11.5	11.3	34.0	29.2	8.8	2.4	17.0	5.2	3.3	100.0 ( 329)	
기타	13.5	12.3	25.0	28.1	7.8	1.6	25.1	9.4	3.1	100.0 ( 6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2.3	9.4	24.8	35.5	11.3	4.3	19.9	3.5	0.7	100.0 ( 141)	
무학(글자해독)	13.7	14.0	29.4	36.5	13.0	2.7	13.7	3.0	1.7	100.0 ( 299)	
초등학교	10.0	10.5	36.5	26.9	8.5	4.5	19.2	3.5	0.8	100.0 ( 375)	
중·고등학교	10.8	11.1	37.0	30.3	6.4	3.4	11.4	6.4	5.1	100.0 ( 297)	
전문대학 이상	9.4	8.7	22.5	19.7	21.1	4.2	12.7	8.5	11.3	100.0 ( 71)	
현 취업상태											
취업중	7.9	11.0	26.6	28.7	12.1	4.6	19.1	5.7	3.2	100.0 ( 282)	
미취업	12.9	11.3	34.4	31.5	9.6	3.2	14.5	4.0	2.7	100.0 ( 8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3	12.8	26.7	37.8	13.7	6.7	11.6	2.0	1.5	100.0 ( 344)	
제2오분위	11.7	10.0	28.4	36.8	10.0	3.6	15.6	3.6	2.0	100.0 ( 250)	
제3오분위	10.8	11.5	42.5	27.6	3.9	1.8	14.5	3.9	5.7	100.0 ( 228)	
제4오분위	10.1	12.7	36.7	21.9	9.3	0.5	23.3	5.6	2.8	100.0 ( 215)	
제5오분위	7.0	7.5	30.8	21.9	13.7	3.4	16.4	10.3	3.4	100.0 ( 146)	
기능상태											
제한 없음	9.9	11.7	24.5	34.8	10.1	3.9	17.8	5.3	3.5	100.0 ( 902)	
제한 있음	19.0	10.1	58.4	17.8	10.7	2.8	8.2	1.8	0.4	100.0 (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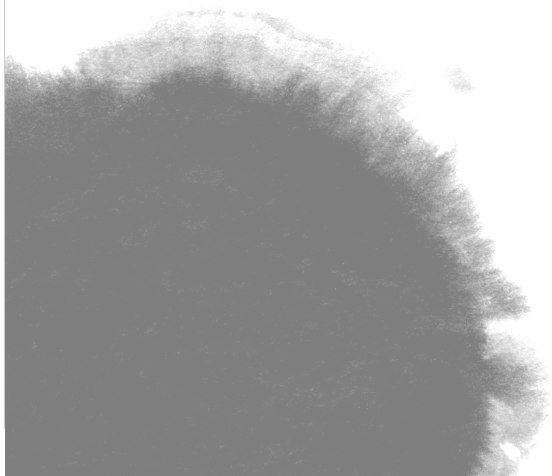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7명을 제외함.

2) 자살생각을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11

## 노인의 복지서비스 관련 인식 및 욕구





# 제11장 노인의 복지서비스 관련 인식 및 욕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노인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현황 및 향후 이용 욕구 등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현황과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노인일자리 사업

### 1. 인지도 및 참여실태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68.8%가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 중 81.2%는 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9%는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으며,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은 6.8%이며, 노인일자리 인지자의 4.1%만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표 II-11-1). 이를 전체 노인으로 환산하여 보면 2.8%가 현재 참여중인 규모이며, 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7.5%에 달하고 있다.

〈표 II-1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 실태

(단위: %, 명)

특성	인지율 <sup>1)</sup>	참여실태 <sup>2)</sup>				
		현재 참여중	참여 경험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계 (명)
전체	68.8	4.1	6.8	7.8	81.2	100.0 (7,250)
지역						
동부	69.8	4.5	6.6	9.7	79.2	100.0 (4,990)
읍·면부	66.5	3.1	7.3	3.9	85.7	100.0 (2,258)
성						
남자	75.9	3.7	6.4	7.7	82.2	100.0 (3,452)
여자	63.3	4.5	7.2	8.0	80.3	100.0 (3,796)
연령						
65~69세	74.4	2.7	3.6	8.2	85.4	100.0 (2,342)
70~74세	74.3	5.1	8.4	9.6	76.8	100.0 (2,397)
75~79세	66.6	5.4	9.5	6.7	78.5	100.0 (1,592)
80~84세	57.6	3.0	6.9	4.8	85.4	100.0 ( 670)
85세 이상	40.5	1.2	5.2	3.6	90.0	100.0 ( 24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9	3.4	6.4	7.0	83.1	100.0 (5,190)
배우자 없음	60.2	5.7	7.9	10.0	76.4	100.0 (2,059)
가구형태						
노인독거	63.1	5.8	8.3	10.2	75.7	100.0 (1,318)
노인부부	74.0	3.2	6.8	6.9	83.1	100.0 (3,789)
자녀동거	62.8	4.6	5.7	8.4	81.3	100.0 (1,788)
기타	72.9	4.2	7.9	7.0	80.9	100.0 ( 35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3	4.4	8.5	6.6	80.4	100.0 ( 634)
무학(글자해독)	62.6	5.3	8.4	9.5	76.9	100.0 (1,365)
초등학교	70.3	4.3	7.1	8.4	80.2	100.0 (2,631)
중·고등학교	75.3	3.2	6.0	7.0	83.8	100.0 (2,059)
전문대학 이상	76.0	3.2	3.4	5.5	87.8	100.0 ( 559)
현 취업상태						
취업중	76.3	10.9	5.3	5.0	78.8	100.0 (2,721)
미취업	64.9	0.0	7.8	9.6	82.7	100.0 (4,5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2	5.7	10.8	9.9	73.6	100.0 (1,355)
제2오분위	71.2	5.9	8.7	9.6	75.8	100.0 (1,510)
제3오분위	70.7	3.5	6.5	8.4	81.5	100.0 (1,482)
제4오분위	70.5	3.0	3.9	5.1	88.0	100.0 (1,493)
제5오분위	67.3	2.3	4.4	6.4	86.9	100.0 (1,408)
가능상태						
제한 없음	71.9	4.3	6.9	8.0	80.8	100.0 (6,527)
제한 있음	49.1	2.1	6.4	6.5	85.1	100.0 ( 72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2)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2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참여실태는 노인의 제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69.8%로 읍·면부의 66.5%에 비하여 약간 높고, 인지자 중 신청자의 비율 또한 20.8%로 읍·면부의 14.3%보다 높다. 또한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 노인의 인지도가 높고(63.3%와 75.9%),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60.2%와 72.9%).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낮은 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은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자의 참여 현황 및 만족도

〈표 II-11-2〉와 〈표 II-11-3〉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 즉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 그들의 일자리 참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일자리 참여 총 기간은 7개월 이하가 52.6%인데 이는 현재 일자리 사업이 연 7개월 까지를 참여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일자리 사업 참여 총 기간을 파악한 것이므로 8~14개월이 27.7%, 15~21개월 이하가 9.3%, 22개월 이상이 10.4%로 나타났다. 평균 참여기간은 11개월이며,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참여한 사업은 공익형이 대다수여서 82.2%이며, 다음이 복지형으로 7.3%이며, 인력파견형이 6.8%이다. 교육형은 2.7%, 시장형은 1.0%로 소수이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참여기간 및 평균 근로시간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인지율이나 참여여부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간과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참여유형에 있어서는 몇몇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 공익형의 비중이 높아 86.8%로 도시지역의 80.2%보다 약 6.6%포인트 높다. 남자의 경우 또한 공익형이 86.0%로 여자노인의 79.0%에 비하여 7%포인트 높다. 반면 복지형은 여자노인이 10.2%로 남자노인의 4.0%에 비하여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연령군별로 참여일자리 유형을 살펴보

면 65~69세 군에서 공익형의 비중이 낮은 대신 인력파견형과 복지형의 비중이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각각 11.3%과 10.0%이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교육형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에게서 복지형의 비중이 높다.

〈표 11-1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개월, 명)

특성	참여기간				계 (명)	(평균)	평균 주당 근로시간
	7개월 이하	8~14 개월 이하	15~21개 월 이하	22개월 이상			
전체 <sup>1)</sup>	52.6	27.7	9.3	10.4	100.0 (791)	11.2	12.7
지역							
동부	52.2	27.7	9.2	11.0	100.0 (557)	11.3	13.2
읍·면부	53.6	27.7	9.8	8.9	100.0 (234)	11.0	11.7
성							
남자	51.4	28.6	10.3	9.7	100.0 (350)	11.3	14.0
여자	53.5	27.0	8.4	11.1	100.0 (441)	11.2	11.7
연령							
65~69세	53.0	25.5	8.7	12.8	100.0 (149)	11.6	12.0
70~74세	55.2	29.8	6.7	8.3	100.0 (326)	10.3	13.6
75~79세	48.5	28.5	11.1	11.9	100.0 (235)	12.2	12.1
80~84세	55.4	20.0	12.3	12.3	100.0 ( 65)	11.9	11.8
85세 이상	50.0	25.0	25.0	0.0	100.0 ( 16)	9.5	1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3.6	28.8	8.4	9.2	100.0 (514)	10.9	13.3
배우자 없음	50.9	25.3	11.2	12.6	100.0 (278)	11.8	11.7
가구형태							
노인독거	47.8	26.1	12.0	14.1	100.0 (185)	12.6	11.2
노인부부	55.6	27.7	8.4	8.4	100.0 (380)	10.9	13.8
자녀동거	49.2	31.1	9.3	10.4	100.0 (183)	10.7	12.3
기타	59.5	19.0	7.1	14.3	100.0 ( 43)	10.4	11.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6	21.0	16.0	7.4	100.0 ( 82)	10.6	12.3
무학(글자해독)	52.7	28.8	5.4	13.0	100.0 (185)	11.6	12.0
초등학교	56.0	24.5	11.4	8.1	100.0 (299)	10.8	11.6
중·고등학교	48.9	35.8	5.8	9.5	100.0 (190)	10.8	14.7
전문대학 이상	38.9	19.4	13.9	27.8	100.0 ( 36)	16.2	16.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0	32.0	12.3	10.7	100.0 (440)	12.3	11.9
미취업	62.3	22.0	5.4	10.3	100.0 (351)	9.9	13.8



특성	참여기간				계 (명)	(평균)	평균 주당 근로시간
	7개월 이하	8~14 개월 이하	15~21개 월 이하	22개월 이상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9	25.3	12.0	13.8	100.0 (224)	12.5	11.5
제2오분위	55.0	29.3	9.9	5.9	100.0 (222)	10.2	11.8
제3오분위	57.3	28.0	6.7	8.0	100.0 (150)	10.4	16.3
제4오분위	44.6	32.7	9.9	12.9	100.0 (101)	11.9	11.8
제5오분위	56.4	24.5	4.3	14.9	100.0 ( 95)	10.9	13.2
기능상태							
제한 없음	52.6	28.0	8.7	10.7	100.0 (729)	10.6	12.7
제한 있음	54.1	23.0	16.4	6.6	100.0 ( 62)	11.3	1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11-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 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계 (명)
전체 <sup>1)</sup>	82.2	2.7	7.3	1.0	6.8	100.0 (792)
지역						
동부	80.2	2.7	7.4	1.4	8.3	100.0 (556)
읍·면부	86.8	2.6	7.3	0.0	3.4	100.0 (234)
성						
남자	86.0	4.0	4.0	0.9	5.1	100.0 (350)
여자	79.0	1.6	10.2	1.1	8.2	100.0 (441)
연령						
65~69세	73.3	5.3	10.0	0.0	11.3	100.0 (150)
70~74세	78.0	3.4	7.9	2.4	8.3	100.0 (327)
75~79세	91.5	1.3	4.3	0.0	3.0	100.0 (234)
80~84세	92.3	0.0	4.6	0.0	3.1	100.0 ( 65)
85세 이상	62.5	0.0	31.3	0.0	6.3	100.0 ( 1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2.8	3.3	7.4	0.6	5.8	100.0 (513)
배우자 없음	80.7	1.4	7.5	1.8	8.6	100.0 (278)
가구형태						
노인독거	82.8	1.1	5.9	2.7	7.5	100.0 (186)
노인부부	80.8	2.9	8.1	0.8	7.3	100.0 (381)
자녀동거	84.8	2.7	6.0	0.0	6.5	100.0 (184)
기타	76.7	9.3	14.0	0.0	0.0	100.0 ( 4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6.4	0.0	6.2	0.0	7.4	100.0 ( 80)
무학(글자해독)	86.0	0.5	5.4	2.2	5.9	100.0 (185)
초등학교	84.2	0.7	9.4	0.3	5.4	100.0 (298)
중·고등학교	79.6	4.2	6.3	0.0	9.9	100.0 (191)
전문대학 이상	47.2	30.6	8.3	8.3	5.6	100.0 ( 36)

특성	공약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83.9	3.6	6.1	1.8	4.5	100.0 (440)
미취업	79.8	1.7	9.1	0.0	9.4	100.0 (35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9.1	1.3	10.2	0.0	9.3	100.0 (224)
제2오분위	89.6	1.4	5.0	1.8	2.3	100.0 (221)
제3오분위	80.0	1.3	8.7	0.7	9.3	100.0 (150)
제4오분위	83.3	7.8	4.9	0.0	3.9	100.0 (101)
제5오분위	72.6	6.3	7.4	3.2	10.5	100.0 ( 95)
가능상태						
제한 없음	82.2	2.6	7.4	1.1	6.7	100.0 (728)
제한 있음	81.0	3.2	7.9	0.0	7.9	100.0 ( 6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경험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매우 만족한다가 12.9%, 만족하는 편이 61.9%로 74.8%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저 그렇다가 15.5%, 만족하지 않는 편이 9.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0.6%로 불만을 표시한 노인은 9.7%이다(표 II-11-4 참조). 이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거주노인보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만족도가 약간 높아 동비율이 73.6%와 77.5%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만족도가 높아 70.3%와 78.3%로 8%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대체적으로 75~84세군의 만족도가 높고 자녀동거 노인에 비하여 단독가구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창출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II-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sup>1)</sup>	12.9	61.9	15.5	9.1	0.6	100.0 (792)
지역						
동부	12.9	60.7	15.8	10.1	0.5	100.0 (556)
읍·면부	12.7	64.8	14.8	6.8	0.8	100.0 (235)
성						
남자	12.9	57.4	16.0	12.6	1.1	100.0 (350)
여자	13.1	65.2	14.9	6.5	0.2	100.0 (442)
연령						
65~69세	8.7	69.3	16.7	5.3	0.0	100.0 (150)
70~74세	11.9	56.0	18.7	12.5	0.9	100.0 (326)
75~79세	15.3	65.7	11.9	6.4	0.8	100.0 (236)
80~84세	20.0	56.9	10.8	12.3	0.0	100.0 ( 65)
85세 이상	12.5	75.0	6.3	6.3	0.0	100.0 ( 1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4	60.1	15.8	9.9	0.8	100.0 (514)
배우자 없음	12.1	65.0	15.0	7.5	0.4	100.0 (27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5	64.5	12.9	7.5	0.5	100.0 (186)
노인부부	12.6	62.9	15.0	8.7	0.8	100.0 (380)
자녀동거	10.9	61.4	15.8	11.4	0.5	100.0 (184)
기타	18.6	44.2	27.9	9.3	0.0	100.0 ( 4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	69.5	12.2	8.5	0.0	100.0 ( 81)
무학(글자해독)	15.1	63.4	15.1	5.9	0.5	100.0 (185)
초등학교	10.7	65.9	16.1	6.7	0.7	100.0 (299)
중·고등학교	13.7	53.2	16.3	15.8	1.1	100.0 (190)
전문대학 이상	25.0	50.0	16.7	8.3	0.0	100.0 (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0	61.7	13.2	9.8	0.5	100.0 (440)
미취업	10.3	62.1	18.2	8.5	0.9	100.0 (35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5	64.7	11.2	11.2	0.4	100.0 (224)
제2오분위	14.8	64.6	12.6	7.2	0.9	100.0 (223)
제3오분위	9.9	59.6	20.5	8.6	1.3	100.0 (151)
제4오분위	17.6	55.9	21.6	4.9	0.0	100.0 (101)
제5오분위	9.6	57.4	18.1	13.8	1.1	100.0 ( 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4	61.8	15.5	8.9	0.4	100.0 (728)
제한 있음	6.5	64.5	14.5	11.3	3.2	100.0 ( 62)
2008년도	12.0	53.5	21.2	10.6	2.8	100.0 (35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5명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 3. 노인일자리 미참여자의 미참여 이유

노인일자리에 전혀 참여 경험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9.6%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로 25.7%이며, 다음은 선정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로 14.7%로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를 계층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조금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조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여자노인에게서 33.2%로 남자노인의 17.5%의 약 2배에 달하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자의 경우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7.0%로 여자노인의 32.7%보다 높아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연령군별로는 후기노인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고 전기노인에게서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높다. 거주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라는 응답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다(표 II-11-5~표 II-11-8 참조).

〈표 II-11-5〉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2008년도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선정조건 미부합	14.7	14.9	14.1	16.1	13.4	23.2
참여필요성 느끼지 못함	39.6	39.2	40.3	47.0	32.7	29.1
참여방법 모름	2.5	2.9	1.8	2.0	3.1	8.5
건강이 좋지 않아서	25.7	26.8	23.3	17.5	33.2	25.7
거리가 너무 멀어서	0.7	0.2	1.9	0.9	0.6	1.1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9	2.0	1.6	2.7	1.2	5.5
보수가 너무 적어서	4.2	4.4	3.7	5.6	2.9	1.4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2.6	2.5	2.9	1.3	3.9	3.0
시간이 없어서	6.3	5.1	8.7	6.0	6.6	1.4
기회가 없어서	1.7	1.8	1.5	1.1	2.3	=
기타	0.1	0.1	0.2	0.1	0.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816)	(3,893)	(1,923)	(2,792)	(3,023)	(4,02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없는 5,8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72명을 제외함.

〈표 II-11-6〉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거주형태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연령					거주형태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 이상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선정조건 미부합	14.7	15.6	15.0	12.6	14.5	15.2	13.5	16.7	11.6	11.1
참여필요성 느끼지 못함	39.6	45.4	38.5	34.0	37.6	32.1	28.7	44.1	37.1	41.3
참여방법 모름	2.5	2.3	2.2	3.3	3.5	0.9	3.5	2.2	2.5	3.0
건강이 좋지 않아서	25.7	16.1	24.6	36.7	32.9	41.1	39.7	20.8	27.5	21.8
거리가 너무 멀어서	0.7	0.6	0.7	1.1	0.5	0.4	1.2	0.7	0.2	1.1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9	1.9	2.4	1.5	1.8	0.0	0.9	2.2	1.8	3.0
보수가 너무 적어서	4.2	6.1	4.0	2.9	1.9	0.9	3.6	3.5	5.6	5.9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2.6	2.4	2.5	2.7	2.8	4.9	2.3	1.7	4.6	4.1
시간이 없어서	6.3	7.8	7.9	3.7	3.0	3.6	3.2	6.7	7.5	7.0
기회가 없어서	1.7	1.6	2.3	1.3	1.4	0.9	3.0	1.4	1.4	1.8
기타	0.1	0.2	0.0	0.2	0.0	0.0	0.3	0.0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816)	(1,975)	(1,821)	(1,230)	( 566)	( 224)	( 991)	(3,112)	(1,437)	( 2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없는 5,8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72명을 제외함.

〈표 II-11-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선정조건 미부합	14.7	11.4	10.7	14.6	17.8	15.9
참여필요성 느끼지 못함	39.6	26.1	28.1	36.6	46.1	68.2
참여방법 모름	2.5	5.6	2.7	3.0	1.8	0.2
건강이 좋지 않아서	25.7	39.0	39.2	27.7	16.3	7.0
거리가 너무 멀어서	0.7	0.8	1.4	0.9	0.2	0.0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9	0.6	1.5	1.5	2.8	2.3
보수가 너무 적어서	4.2	2.8	3.5	4.0	5.5	2.7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2.6	5.2	3.1	2.5	2.1	1.7
시간이 없어서	6.3	5.8	7.6	7.1	6.2	1.9
기회가 없어서	1.7	2.4	2.2	2.0	1.3	0.2
기타	0.1	0.4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816)	( 502)	(1,044)	(2,078)	(1,705)	( 48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없는 5,8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72명을 제외함.

〈표 II-11-8〉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소득수준					기능상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선정조건 미부합	14.7	14.6	11.7	15.6	16.1	14.8	11.5	15.0
참여필요성 느끼지 못함	39.6	20.0	32.6	40.0	47.0	53.5	19.8	41.9
참여방법 모름	2.5	5.0	3.2	2.3	2.2	0.7	2.3	2.6
건강이 좋지 않아서	25.7	46.1	34.3	22.7	17.2	13.3	57.2	22.0
거리가 너무 멀어서	0.7	1.6	1.4	0.6	0.2	0.1	1.0	0.7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9	1.3	2.8	2.1	1.6	1.7	1.6	1.9
보수가 너무 적어서	4.2	3.4	4.3	5.1	4.0	4.0	1.0	4.5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2.6	1.9	2.4	2.8	2.5	3.2	2.5	2.7
시간이 없어서	6.3	2.7	5.8	6.9	7.3	8.2	2.3	6.8
기회가 없어서	1.7	3.2	1.4	1.8	1.8	0.6	0.8	1.8
기타	0.1	0.1	0.2	0.2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816)	( 987)	(1,111)	(1,195)	(1,310)	(1,214)	(5,205)	( 61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없는 5,8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72명을 제외함.

####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욕구

향후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를 질문한 결과 노인의 18.0%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욕구를 가진 노인의 욕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II-11-9 참조). 향후 참여욕구를 가진 노인의 경우 77.8%가 공익형, 10.2%가 복지형, 5.9%가 인력과견형, 4.7%가 교육형, 1.4%가 시장형을 희망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자에 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이다.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에게 있어서 향후 참여욕구율이 높아 희망률이 20.9%인 반면 읍·면부는 12.0%에 불과하다. 동부 노인의 희망 일자리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교육형과 복지형 희망자의 비중이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높다.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희망률이 19.7%로 여자노인의 16.8%에 비해 약간 높은데 이는 실제 참여수준에서도 남자가 높은 것과 동일한 경향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참여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복지형에 대한 선호가 조금 강하다. 결혼상태와 가구형태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복지형과 교육형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욕구가 더 큰 경향성이 있으며 복지형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고,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의 경우 교육형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이는 참여경험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욕구가 높으며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참여욕구가 높다(표 II-11-9 참조).

〈표 II-1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욕구

(단위: %, 명)

특성	향후 참여욕구 <sup>1)</sup>	희망 일자리사업 유형 <sup>2)</sup>					계 (명)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전체	18.0	77.8	4.7	10.2	1.4	5.9	100.0 (1,895)
지역							
동부	20.9	75.8	5.0	10.9	1.7	6.5	100.0 (1,489)
읍·면부	12.0	85.2	3.5	7.7	0.0	3.7	100.0 ( 405)
성							
남자	19.7	76.1	6.7	9.1	1.9	6.2	100.0 ( 892)
여자	16.8	79.2	2.9	11.3	0.9	5.8	100.0 (1,004)
연령							
65~69세	21.4	70.7	4.5	12.6	2.1	10.1	100.0 ( 673)
70~74세	22.2	79.4	4.5	10.9	1.7	3.6	100.0 ( 717)
75~79세	16.6	85.0	4.8	6.6	0.0	3.6	100.0 ( 394)
80~84세	8.1	83.0	9.6	3.2	0.0	4.3	100.0 ( 94)
85세 이상	3.1	88.9	0.0	11.1	0.0	0.0	100.0 ( 1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3	76.5	6.1	10.0	1.7	5.7	100.0 (1,296)
배우자 없음	17.6	80.3	1.8	10.7	0.8	6.3	100.0 ( 6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9.2	82.0	1.8	9.8	1.3	5.3	100.0 ( 400)
노인부부	17.3	78.9	4.8	9.4	1.0	5.9	100.0 ( 882)
자녀동거	18.0	70.9	7.0	12.9	2.5	6.6	100.0 ( 512)
기타	20.9	85.3	3.9	5.9	0.0	4.9	100.0 ( 10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5	86.8	0.0	8.6	0.0	4.6	100.0 ( 152)
무학(글자해독)	18.2	83.5	1.0	7.6	2.8	5.1	100.0 ( 394)
초등학교	18.3	82.1	0.9	10.3	1.3	5.4	100.0 ( 687)
중·고등학교	20.3	73.5	6.5	11.6	0.2	8.3	100.0 ( 554)
전문대학 이상	14.9	38.0	39.8	13.9	5.6	2.8	100.0 ( 108)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8	78.4	3.3	11.7	1.5	5.1	100.0 ( 811)
미취업	15.6	77.2	5.7	9.1	1.4	6.5	100.0 (1,08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0	79.2	3.2	8.4	0.2	9.0	100.0 ( 442)
제2오분위	21.8	84.8	2.8	7.6	1.9	2.8	100.0 ( 462)
제3오분위	19.0	81.0	1.8	10.9	0.3	6.1	100.0 ( 395)
제4오분위	13.2	76.5	8.3	9.0	3.2	2.9	100.0 ( 277)
제5오분위	15.2	62.6	10.1	17.3	1.9	8.2	100.0 ( 3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7	77.0	5.0	10.5	1.5	6.0	100.0 (1,779)
제한 있음	7.9	88.8	0.0	6.0	0.0	5.2	100.0 ( 1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향후 참여욕구가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 제2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 1. 주택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소득은 없으나 주택이나 농지를 갖고 있는 노인이 이를 활용하여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주택연금은 2007년에,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되었다. 주택연금의 경우 인지율이 52.4%로 농지연금 인지율인 41.0%보다 높는데, 이는 주택을 가진 노인이 농지 소유 노인보다 많고 제도 도입 시점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활용의사는 매우 다양하다. 32.4%는 활용할 주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0.3%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31.4%는 주택은 있으나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활용중인 경우는 0.2%로 아주 소수이며 향후 활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7%로 적극적인 활용의사를 가진 노인은 약 6%에 불과하다(표 II-11-10).

이렇게 낮은 활용의사를 갖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보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이유이며, 다음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이다. 다음으로는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제도를 믿을 수 없어서나 잘 몰라서 또는 자녀의 반대 등은 소수이다.

이러한 주택연금 관련 인지도와 활용의사는 노인의 제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의 인지율이 56.4%로 읍·면부의 44.0%보다 높다. 그러한 활용할 주택이 없다는 응답이 34.0%로 읍·면부의 29.0%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인지도가 69.7%로 여자노인의 39.3%에 비하여 약 30%포인트가 높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활용할 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의 비중과 향후 활용할 의사를 가진 비율이 여자노인보다 높다.

〈표 II-11-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단위: %, 명)

특성	인지율 <sup>1)</sup>	활용의사 <sup>2)</sup>					계 (명)
		활용중	향후 의사 있음	활용의사 없음	생각한적 없음	활용할 주택 없음	
전체	52.4	0.2	5.7	31.4	30.3	32.4	100.0 (10,521)
지역							
동부	56.4	0.4	6.8	29.9	28.9	34.0	100.0 ( 7,131)
읍·면부	44.0	0.0	3.3	34.6	33.0	29.0	100.0 ( 3,390)
성							
남자	69.7	0.2	7.3	38.2	31.4	22.8	100.0 ( 4,536)
여자	39.3	0.3	4.4	26.2	29.4	39.7	100.0 ( 5,985)
연령							
65~69세	65.9	0.2	8.3	37.0	32.7	21.8	100.0 ( 3,144)
70~74세	57.1	0.0	5.6	34.8	32.4	27.2	100.0 ( 3,223)
75~79세	45.8	0.2	4.6	28.7	30.3	36.1	100.0 ( 2,388)
80~84세	32.6	1.1	2.6	21.4	23.4	51.4	100.0 ( 1,153)
85세 이상	21.5	0.0	2.0	14.7	19.4	63.9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2.2	0.3	7.3	37.7	33.9	20.9	100.0 ( 7,104)
배우자 없음	32.0	0.2	2.4	18.5	22.6	56.3	100.0 ( 3,418)
가구형태							
노인독거	34.1	0.6	2.6	21.4	25.2	50.2	100.0 ( 2,085)
노인부부	61.6	0.2	7.3	38.6	34.7	19.2	100.0 ( 5,106)
자녀동거	48.7	0.1	4.6	26.2	26.1	42.9	100.0 ( 2,843)
기타	56.1	0.0	7.8	29.9	29.5	32.8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6	0.0	1.8	18.3	25.7	54.2	100.0 ( 1,142)
무학(글자해독)	32.2	0.1	3.4	24.5	28.3	43.7	100.0 ( 2,180)
초등학교	52.9	0.1	5.0	32.8	32.7	29.5	100.0 ( 3,736)
중·고등학교	73.1	0.6	8.4	37.2	30.5	23.3	100.0 ( 2,730)
전문대학 이상	88.6	0.4	11.7	43.9	30.2	13.8	100.0 ( 733)
현 취업상태							
취업중	57.9	0.2	5.6	37.9	33.1	23.2	100.0 ( 3,559)
미취업	49.6	0.3	5.7	28.1	28.8	37.1	100.0 ( 6,96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9	0.0	2.1	20.9	26.6	50.3	100.0 ( 2,106)
제2오분위	50.1	0.0	6.8	29.7	34.4	29.2	100.0 ( 2,112)
제3오분위	57.4	0.3	5.5	37.1	31.2	25.8	100.0 ( 2,097)
제4오분위	60.8	0.6	7.4	35.8	30.8	25.3	100.0 ( 2,111)
제5오분위	61.8	0.2	6.5	33.6	28.2	31.4	100.0 ( 2,09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6.1	0.2	6.0	33.0	30.7	30.0	100.0 ( 9,055)
제한 있음	29.7	0.3	3.5	21.6	27.5	47.0	100.0 ( 1,46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3명을 제외함.

한편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 65~69세 연령군의 인지율은 65.9%인데 비하여 85세 이상의 경우는 21.5%에 불과하다. 반면 활용할 주택이 없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65~69세 연령군은 21.8%인데 비하여 85세 이상의 경우는 63.9%에 달하고 있다. 즉 후기노인으로 갈수록 활용할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실제 활용할 의사를 가진 비율 또한 전기노인에게서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약 2배의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활용할 주택이 있는 비율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높다. 더불어 향후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사도 높아 7.3%가 활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도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인지율이 가장 높아 61.6%이며 활용할 주택을 가진 비율 또한 가장 높고 향후 활용의사도 높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활용할 주택을 소유한 비율과 향후 활용할 의사도 높다. 그러나 활용할 의사가 없는 비율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인지율이 높고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향후 활용의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가구소득분위별로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인지율이 높고 활용할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높고 활용할 의사 또한 약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한편 기능상태별로도 제한이 없는 노인이 인지율이 높고 활용할 주택을 보유한 비율과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에 있어서도 특성별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에게서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남자노인의 31.9%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남자노인에게서는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1%로 여자노인의 13.2%보다 높아 남자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여자노인보다 높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연령군별로는 자녀상속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한편 제도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전기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11-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녀상속	자녀반대	제도 잘모름	제도 불신	크게 도움 안됨	소득충분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37.2	1.9	3.5	4.0	35.6	17.4	0.4	100.0 (3,295)
지역								
동부	31.5	2.0	3.6	4.8	36.7	20.9	0.5	100.0 (2,125)
읍·면부	47.7	1.6	3.2	2.6	33.6	10.9	0.3	100.0 (1,170)
성								
남자	31.9	1.2	2.5	4.2	38.6	21.1	0.4	100.0 (1,731)
여자	43.1	2.6	4.5	3.9	32.3	13.2	0.4	100.0 (1,565)
연령								
65~69세	30.7	1.6	3.4	5.2	39.2	19.8	0.2	100.0 (1,159)
70~74세	39.7	2.0	3.0	3.7	33.5	17.5	0.6	100.0 (1,116)
75~79세	42.8	1.8	4.3	3.7	34.3	12.8	0.4	100.0 ( 682)
80~84세	38.8	3.7	2.4	2.9	35.1	17.1	0.0	100.0 ( 245)
85세 이상	45.6	0.0	6.7	1.1	27.8	18.9	0.0	100.0 ( 9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9	1.5	2.8	4.0	37.0	19.5	0.3	100.0 (2,667)
배우자 없음	47.1	3.5	6.1	4.3	29.9	8.3	0.8	100.0 ( 6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5.0	3.2	5.9	3.8	33.3	7.7	1.1	100.0 ( 444)
노인부부	34.8	1.3	2.2	3.9	38.0	19.5	0.3	100.0 (1,964)
자녀동거	40.3	2.6	5.1	4.7	29.5	17.5	0.3	100.0 ( 742)
기타	30.6	2.8	4.2	3.5	41.7	17.4	0.0	100.0 ( 14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1.4	2.9	9.1	1.0	30.8	3.4	1.4	100.0 ( 208)
무학(글자해독)	48.4	2.1	6.2	4.3	34.5	4.5	0.0	100.0 ( 533)
초등학교	41.1	2.3	3.3	4.7	36.6	11.7	0.4	100.0 (1,222)
중·고등학교	30.7	1.3	0.9	4.1	36.2	26.5	0.4	100.0 (1,012)
전문대학 이상	15.6	0.9	4.4	3.1	35.2	40.5	0.3	100.0 ( 32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5	1.2	3.3	4.6	33.8	15.5	0.1	100.0 (1,346)
미취업	34.3	2.4	3.5	3.7	36.8	18.6	0.6	100.0 (1,94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2.4	1.8	6.7	3.0	42.2	3.0	0.9	100.0 ( 436)
제2오분위	42.7	2.4	3.4	3.2	43.8	4.5	0.2	100.0 ( 626)
제3오분위	42.1	1.9	2.6	4.8	37.1	11.6	0.0	100.0 ( 777)
제4오분위	33.6	1.2	2.3	4.0	35.5	22.9	0.5	100.0 ( 754)
제5오분위	27.7	2.1	3.8	4.7	22.8	38.3	0.6	100.0 ( 70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7	1.8	3.1	4.2	35.7	18.2	0.3	100.0 (2,978)
제한 있음	42.7	1.9	7.0	3.2	34.5	9.5	1.3	100.0 ( 3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주택이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는 큰 도움이 안되므로와 소득이 충분하니까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는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는 이유는 낮은 반면 자녀에게 상속해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 상속이 활용의사가 없는 큰 이유인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 남은 주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기 보다는 상속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속해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급격히 낮아지고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높다.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활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0.5%이며 이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35.2%의 응답과 함께 생각해 보면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약 3/4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소득이 주택을 활용하여 소득을 마련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미취업 노인에 비하여 취업중인 노인에게서 상속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고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조금 낮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자녀상속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소득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낮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연령군별 추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 2. 농지연금

농지연금의 인지율은 41.0%이며 활용할 농지가 없는 노인도 77.4%에 달하고 있다. 활용할 주택이 없는 노인이 32.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실적으로 농지연금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노인의 규모 자체가 주택연금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노인의 0.1%만이 활용중이며 향후 활용할 의사를 가진 노인도 1.4%에 불과하다. 활용할 의사가 없다는 노인도 11.1%로 농지가 있는 노인의 약 1/4은 분명한 제도 활용 의사가 없는 것이다.

〈표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농지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단위: %, 명)

특성	인지율 <sup>1)</sup>	활용의사 <sup>2)</sup>					계 (명)
		활용중	향후 의사 있음	활용의사 없음	생각한적 없음	활용할 농지 없음	
전체	41.0	0.1	1.4	11.1	10.1	77.4	100.0 (10,529)
지역							
동부	41.4	0.0	0.7	4.3	4.9	90.1	100.0 ( 7,142)
읍·면부	40.4	0.2	2.8	25.6	20.9	50.5	100.0 ( 3,385)
성							
남자	58.8	0.1	2.3	14.6	10.6	72.5	100.0 ( 4,542)
여자	27.6	0.1	0.7	8.5	9.7	81.0	100.0 ( 5,987)
연령							
65~69세	54.0	0.1	2.2	12.5	11.2	74.1	100.0 ( 3,145)
70~74세	43.2	0.2	1.2	13.3	11.3	74.0	100.0 ( 3,221)
75~79세	35.2	0.0	1.3	10.3	9.1	79.2	100.0 ( 2,388)
80~84세	25.2	0.0	0.6	7.2	8.0	84.2	100.0 ( 1,158)
85세 이상	15.8	0.0	0.3	3.1	5.2	91.4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가 있는 노인	50.0	0.1	1.9	14.3	12.0	71.7	100.0 ( 7,109)
배우자 없음	22.4	0.0	0.3	4.5	6.0	89.2	100.0 (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25.1	0.0	0.3	5.8	7.0	86.8	100.0 ( 2,086)
노인부부	50.5	0.0	2.2	16.0	13.1	68.7	100.0 ( 5,113)
자녀동거	35.0	0.2	0.7	6.2	6.6	86.3	100.0 ( 2,842)
기타	45.1	0.0	1.6	11.3	11.3	75.8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4	0.0	0.5	9.1	10.1	80.3	100.0 ( 1,142)
무학(글자해독)	23.3	0.0	1.2	10.0	9.6	79.1	100.0 ( 2,180)
초등학교	40.7	0.1	1.5	13.3	13.1	72.1	100.0 ( 3,737)
중·고등학교	58.9	0.1	1.6	11.2	7.8	79.4	100.0 ( 2,734)
전문대학 이상	75.2	0.3	1.9	6.4	4.8	86.7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6	0.2	3.0	24.0	18.8	54.0	100.0 ( 3,561)
미취업	36.7	0.0	0.6	4.5	5.6	89.3	100.0 ( 6,9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1	0.0	0.7	7.4	8.1	83.8	100.0 ( 2,111)
제2오분위	39.7	0.1	1.7	11.7	11.9	74.7	100.0 ( 2,119)
제3오분위	44.5	0.0	2.1	15.6	11.9	70.4	100.0 ( 2,096)
제4오분위	48.3	0.1	1.3	12.6	11.6	74.5	100.0 ( 2,109)
제5오분위	47.6	0.1	1.2	8.4	6.9	83.4	100.0 (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4.2	0.1	1.5	11.7	10.3	76.4	100.0 ( 9,063)
제한 있음	21.3	0.0	0.5	7.5	8.5	83.5	100.0 ( 1,46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율 자체는 지역별 차이가 적지만 활용할 농지를 가진 비율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동부 노인의 10% 정도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의 약 절반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갖고는 있지만 이들 중 절반은 활용의사가 없으며 약 절반 정도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에게서 인지율이 높는데 이는 주택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남자노인이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남자노인의 경우 활용할 농지가 있는 비율이 여자노인보다 높는데, 이는 주택의 경우도 동일했다. 이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낮아지며 농지 소유율이 낮아지는데 이 또한 주택연금과 동일한 현상이다. 활용할 의사를 가진 비율 또한 그 수준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연령이 낮은 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유사한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가진 60~70대 노인의 약 절반 정도는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인지율이 높으며 농지 소유율도 높는데 이는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에게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동거 노인에게서 활용의사가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지만 활용의사는 그리 높지 않으며 소득수준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취업중인 경우 인지율과 농지 소유율이 높고 이는 기능제한의 경우도 제한이 없는 노인이 인지율과 농지 소유율이 높다. 이 또한 주택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이다. 농지가 있지만 활용할 의사에 있어서는 취업상태나 기능상태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표 II-11-12 참조).

농지가 있지만 농지연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를 살펴본 〈표 II-11-13〉에 의하면 활용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상속이 46.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연금의 37.2%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이유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9.0%, 소득이 충분해서로 16.5%인데, 이는 주택연금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농지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녀상속	자녀반대	제도 잘모름	제도 불신	크게 도움 안됨	소득충분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46.9	1.3	3.2	2.8	29.0	16.5	0.3	100.0 (1,170)
지역								
동부	36.8	1.6	3.0	4.3	25.7	28.0	0.7	100.0 ( 304)
읍·면부	50.5	1.2	3.3	2.3	30.1	12.5	0.1	100.0 ( 866)
성								
남자	40.8	0.5	2.3	3.0	33.4	19.6	0.5	100.0 ( 662)
여자	55.0	2.2	4.5	2.6	23.2	12.4	0.2	100.0 ( 509)
연령								
65~69세	40.4	0.8	2.3	4.3	34.5	17.8	0.0	100.0 ( 394)
70~74세	48.9	1.2	2.6	2.1	27.2	17.1	0.9	100.0 ( 427)
75~79세	52.2	2.0	5.3	2.4	24.3	13.8	0.0	100.0 ( 247)
80~84세	51.2	2.4	4.8	1.2	25.0	15.5	0.0	100.0 ( 84)
85세 이상	47.4	0.0	5.3	0.0	31.6	15.8	0.0	100.0 ( 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5.6	1.1	3.0	3.2	28.7	18.0	0.4	100.0 (1,016)
배우자 없음	55.5	2.6	5.8	0.0	29.7	6.5	0.0	100.0 ( 155)
가구형태								
노인독거	55.8	3.3	5.0	0.0	28.3	7.4	0.0	100.0 ( 120)
노인부부	47.1	1.0	2.3	3.1	29.7	16.4	0.5	100.0 ( 819)
자녀동거	42.9	1.7	2.9	2.9	28.0	21.7	0.0	100.0 ( 175)
기타	38.9	0.0	13.0	3.7	22.2	22.2	0.0	100.0 ( 5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0.2	4.9	4.9	0.0	25.2	4.9	0.0	100.0 ( 103)
무학(글자해독)	63.5	1.4	6.8	1.8	23.3	3.2	0.0	100.0 ( 219)
초등학교	46.3	1.0	2.6	4.0	30.9	14.3	0.8	100.0 ( 495)
중·고등학교	33.1	0.7	1.3	2.3	31.5	31.1	0.0	100.0 ( 305)
전문대학 이상	38.3	0.0	2.1	2.1	25.5	31.9	0.0	100.0 ( 4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2	1.1	3.4	2.9	28.7	14.4	0.4	100.0 ( 856)
미취업	40.5	1.9	2.8	2.5	29.4	22.5	0.3	100.0 ( 3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7	1.9	5.1	0.6	38.5	5.1	0.0	100.0 ( 156)
제2오분위	49.8	2.4	3.2	2.8	37.7	4.0	0.0	100.0 ( 247)
제3오분위	50.5	1.2	4.0	4.6	25.7	14.1	0.0	100.0 ( 327)
제4오분위	44.9	0.7	2.2	3.0	25.5	22.1	1.5	100.0 ( 267)
제5오분위	37.5	0.0	1.7	1.7	19.3	39.8	0.0	100.0 ( 176)
가능상태								
제한 없음	47.1	1.0	2.9	2.7	28.5	17.3	0.4	100.0 (1,062)
제한 있음	45.0	3.7	6.4	3.7	33.0	8.3	0.0	100.0 ( 10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농지가 있지만 농지연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이러한 미활용 이유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동부보다는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 또한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나이가 많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독거노인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취업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자녀상속을 농지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제3오분위 이하에서 이러한 이유를 언급하는 비율이 높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와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경우 동부 거주 노인, 남자노인, 전기노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높다.

### 제3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1. 경로당 이용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여가시설 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경로당으로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경로당이 60,737개가 설치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1). 따라서 거의 모든 노인이 경로당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제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약 1/3인 34.2%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향후 이용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3.8일로 나타났다(표 II-11-14).

이러한 이용실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자의 이용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친목도모 89.7%로 압도적이다. 다음이 식사서비스 이용과 여가프로그램 이용이다. 이는 경로당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가 10.5%,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63.5%로 74.0%, 즉 이용자의 3/4이 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다(표 II-11-15 참조).

〈표 II-1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이용률 <sup>1)</sup>	향후(계속) 이용률 <sup>2)</sup> 희망률	1주간 평균 이용주 일수 <sup>3)</sup>	이용만족도 <sup>4)</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않음	
전체	34.2	47.8	3.8	10.5	63.5	22.6	3.1	0.4	100.0 (3,601)
지역									
동부	19.8	35.6	3.8	13.1	60.2	23.2	3.0	0.5	100.0 (1,413)
읍·면부	64.5	73.5	3.8	8.8	65.6	22.2	3.1	0.3	100.0 (2,188)
성									
남자	29.8	44.5	3.6	9.2	61.9	24.3	3.9	0.6	100.0 (1,356)
여자	37.4	50.3	4.0	11.2	64.4	21.6	2.6	0.2	100.0 (2,244)
연령									
65~69세	21.1	45.3	3.4	10.8	62.0	22.5	3.6	1.1	100.0 ( 666)
70~74세	36.1	50.0	3.6	9.8	65.2	21.1	3.7	0.2	100.0 (1,165)
75~79세	42.1	49.1	4.0	11.0	62.7	23.7	2.5	0.1	100.0 (1,007)
80~84세	44.2	48.3	4.1	10.5	63.9	21.6	3.3	0.6	100.0 ( 513)
85세 이상	40.6	43.5	4.5	10.4	61.2	27.2	1.2	0.0	100.0 ( 25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2	46.0	3.6	9.5	63.3	23.1	3.7	0.5	100.0 (2,221)
배우자 없음	40.3	51.5	4.1	12.0	63.8	21.9	2.1	0.1	100.0 (1,380)
가구형태									
노인독거	42.7	54.0	4.1	12.0	65.1	20.5	2.2	0.1	100.0 ( 891)
노인부부	34.1	47.6	3.6	10.4	62.6	23.2	3.6	0.3	100.0 (1,748)
자녀동거	29.3	44.9	3.9	10.1	62.5	23.6	3.0	0.7	100.0 ( 833)
기타	26.3	39.8	3.3	4.7	71.1	21.9	2.3	0.0	100.0 ( 12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1.0	59.4	4.2	9.9	65.1	21.7	3.2	0.0	100.0 ( 585)
무학(글자해독)	46.0	57.0	3.9	10.6	63.2	23.6	2.4	0.2	100.0 (1,004)
초등학교	37.1	50.9	3.7	11.7	63.2	21.8	3.0	0.4	100.0 (1,388)
중·고등학교	20.5	38.3	3.6	8.2	63.6	22.7	4.6	0.9	100.0 ( 560)
전문대학 이상	8.8	22.5	2.7	7.8	57.8	32.8	1.6	0.0	100.0 ( 6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7.0	63.2	3.6	10.1	63.5	23.0	3.1	0.2	100.0 (1,675)
미취업	27.6	39.9	4.0	10.8	63.5	22.2	3.1	0.4	100.0 (1,9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9	54.8	4.0	11.6	63.2	22.4	2.6	0.2	100.0 ( 929)
제2오분위	38.6	49.3	3.7	9.9	62.0	24.1	3.9	0.1	100.0 ( 819)
제3오분위	34.5	49.7	3.8	10.1	65.9	21.1	2.2	0.7	100.0 ( 725)
제4오분위	30.0	46.7	3.7	9.2	65.4	22.4	2.4	0.6	100.0 ( 633)
제5오분위	23.6	38.5	3.8	11.3	60.3	22.9	5.1	0.4	100.0 ( 494)
가능상태									
제한 없음	34.9	49.3	3.8	10.8	63.7	22.3	2.9	0.4	100.0 (3,171)
제한 있음	29.3	38.5	3.8	8.4	62.1	24.9	4.7	0.0	100.0 ( 43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3)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3,60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4)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3,60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II-1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이유

(단위: %, 명)

특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 참여	건강 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치매 보호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3.6	0.7	0.7	1.2	3.7	89.7	0.2	100.0 (3,601)
지역								
동부	4.5	1.5	1.3	1.6	5.5	85.4	0.2	100.0 (1,411)
읍·면부	3.0	0.3	0.4	1.0	2.6	92.5	0.3	100.0 (2,190)
성								
남자	2.8	0.7	0.4	1.3	2.2	92.3	0.2	100.0 (1,356)
여자	4.0	0.8	0.9	1.2	4.7	88.1	0.2	100.0 (2,244)
연령								
65~69세	3.6	1.1	1.1	1.1	2.7	90.2	0.3	100.0 ( 666)
70~74세	3.5	0.9	0.3	1.1	2.8	91.3	0.1	100.0 (1,166)
75~79세	3.3	0.7	1.1	1.6	3.5	89.3	0.6	100.0 (1,007)
80~84세	3.9	0.4	0.6	1.6	5.3	88.3	0.0	100.0 ( 513)
85세 이상	4.0	0.0	1.2	0.0	8.5	85.9	0.4	100.0 ( 2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	0.8	0.8	1.5	2.7	91.2	0.2	100.0 (2,222)
배우자 없음	4.9	0.7	0.7	0.8	5.4	87.3	0.3	100.0 (1,380)
가구형태								
노인독거	4.3	0.4	0.7	0.7	5.5	88.2	0.2	100.0 ( 890)
노인부부	2.7	0.7	0.9	1.2	2.5	91.6	0.3	100.0 (1,748)
자녀동거	4.3	0.8	0.5	2.0	4.3	88.0	0.0	100.0 ( 833)
기타	5.5	2.3	0.0	0.0	3.9	86.7	1.6	100.0 ( 12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1	0.2	0.7	0.7	5.1	89.9	0.3	100.0 ( 585)
무학(글자해독)	2.5	0.3	0.8	1.1	4.7	90.5	0.1	100.0 (1,003)
초등학교	4.5	0.6	0.9	1.4	2.8	89.5	0.1	100.0 (1,387)
중·고등학교	3.4	2.5	0.2	1.2	2.3	89.7	0.7	100.0 ( 561)
전문대학 이상	4.8	0.0	1.6	1.6	9.5	82.5	0.0	100.0 ( 63)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	0.7	1.1	1.1	2.0	92.2	0.2	100.0 (1,675)
미취업	4.3	0.8	0.5	1.4	5.2	87.6	0.3	100.0 (1,9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	0.2	0.5	0.4	5.1	90.4	0.2	100.0 ( 928)
제2오분위	3.3	0.4	1.8	1.7	2.9	89.7	0.1	100.0 ( 819)
제3오분위	3.0	1.0	0.4	1.2	2.5	91.4	0.4	100.0 ( 724)
제4오분위	3.5	1.3	0.0	1.1	4.4	89.6	0.2	100.0 ( 633)
제5오분위	5.7	1.4	0.6	2.0	3.4	86.5	0.4	100.0 ( 4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	0.8	0.8	1.2	3.5	89.6	0.2	100.0 (3,169)
제한 있음	0.7	0.2	0.2	1.2	5.6	91.4	0.7	100.0 ( 430)

주: 1)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3,601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 이유로는 비슷한 노인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가 74.3%인데, 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가 친목도모라는 점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 다음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물리적 접근성으로 각각 응답률이 9.0%이다(표 II-11-16). 반면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도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아 64.0%이다. 다음이 시설이 열악하여서가 14.4%, 교통이 불편해서가 9.6%, 프로그램이 미비해서가 8.8%, 경제적 부담 등이 3.2%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로당이 사교의 공간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도 불만족하는 경우도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시설, 프로그램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유는 비율이 매우 낮다. 단, 불만족하는 이유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비록 불만족하는 노인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불만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II-11-17).

한편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미이용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로 이 역시 불만이유와 동일하게 이용노인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이 시간이 없어서와 몸이 불편해서, 이용하기에는 연령이 낮아서 등이 언급되고 있다(표 II-11-18).

이러한 이용실태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이용률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커 도시지역이 19.8%에 불과한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은 64.5%에 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 또한 73.5%와 35.6%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경로당의 의미가 도시지역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행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주 3.8일을 이용하고 있다. 성별로는 차이가 있어 여자노인의 이용률은 남자노인의 29.8%보다 높은 37.4%이다. 향후 이용희망률도 44.5%와 50.3%로 여자노인이 높다. 연령군별로도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보다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이용률 및 이용 시 이용일수가 반비례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수준과 이용률 및 이용일수도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다. 한편, 취업중인 경우는 오히려 미취업 노인보다 이용을 많

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일수는 미취업 노인에게서 높다. 기능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보다는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제특성별 경향성은 향후 이용희망률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한편 경로당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만족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별 차이는 적은 편인데,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독거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고, 소득이 아주 낮은 층에서,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특히 만족도가 높다. 이용이유의 경우 또한 친목도모가 대부분으로 특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노인의 그 이유로는 비슷한 노인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압도적인데,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농어촌노인, 여자노인, 후기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독거노인, 무학노인, 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동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그 외의 이유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동부거주자와 남자노인, 60대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자녀동거노인,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는 그렇지 않는 노인에 비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하는 노인의 경우 그 이유로는 이용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있는데, 특히 여자노인과 전기노인에게서 그러한 응답률이 높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불만은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와 남자노인, 자녀동거 노인에게서 특히 높다.

한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미이용 이유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이용하는 노인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높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응답을 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직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률이 높다. 또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전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65~69세 연령층에서는 41.1%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나 22.6%가 시간이 부족하고, 22.0%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경로당이 전기노인의 활기찬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프로그램	거리편의	비슷한 노인 만남	적은 경제적 부담	의미 있는 시간	계 (명)
전체 <sup>1)</sup>	4.3	1.8	9.0	74.3	1.5	9.0	100.0 (2,656)
지역							
동부	5.0	2.4	8.1	71.6	1.8	11.0	100.0 (1,035)
읍·면부	3.9	1.4	9.6	76.1	1.4	7.6	100.0 (1,621)
성							
남자	5.5	1.3	9.7	71.1	1.8	10.6	100.0 ( 965)
여자	3.7	2.1	8.6	76.2	1.5	8.0	100.0 (1,691)
연령							
65~69세	6.2	1.7	10.4	67.6	1.9	12.2	100.0 ( 482)
70~74세	4.9	2.2	10.7	70.8	2.3	9.2	100.0 ( 872)
75~79세	3.2	1.6	7.7	78.1	1.1	8.2	100.0 ( 740)
80~84세	3.1	1.6	7.1	81.2	0.5	6.5	100.0 ( 382)
85세 이상	3.4	1.7	7.8	79.3	1.1	6.7	100.0 ( 1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	1.7	10.5	71.7	1.3	9.8	100.0 (1,612)
배우자 없음	3.5	1.9	6.7	78.3	2.0	7.6	100.0 (1,044)
가구형태							
노인독거	4.1	2.0	4.8	78.4	2.9	7.7	100.0 ( 685)
노인부부	5.4	1.6	10.6	72.9	0.9	8.7	100.0 (1,270)
자녀동거	3.1	1.8	10.7	72.3	1.5	10.6	100.0 ( 606)
기타	0.0	3.1	8.3	75.0	2.1	11.5	100.0 ( 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7	1.1	9.6	80.4	2.5	3.7	100.0 ( 438)
무학(글자해독)	3.4	1.1	7.4	78.2	1.4	8.5	100.0 ( 740)
초등학교	4.8	2.5	10.2	72.5	1.4	8.6	100.0 (1,035)
중·고등학교	6.7	1.7	9.2	66.6	1.2	14.5	100.0 ( 401)
전문대학 이상	2.4	2.4	0.0	61.9	4.8	28.6	100.0 ( 42)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	1.7	9.4	73.6	1.5	9.6	100.0 (1,229)
미취업	4.5	1.9	8.8	74.9	1.5	8.4	100.0 (1,4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1.0	6.2	78.6	3.0	5.8	100.0 ( 695)
제2오분위	4.9	2.4	10.8	74.2	1.0	6.7	100.0 ( 586)
제3오분위	3.4	2.2	11.4	71.0	0.9	11.1	100.0 ( 551)
제4오분위	3.4	1.9	7.9	74.1	1.5	11.3	100.0 ( 471)
제5오분위	4.0	2.0	9.6	71.5	0.6	12.4	100.0 ( 35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	2.0	9.3	73.2	1.7	9.7	100.0 (2,354)
제한 있음	5.9	0.7	7.2	82.6	0.7	3.0	100.0 ( 304)

주: 1)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2,663명 중 무응답자 7명을 제외함.

〈표 II-11-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열화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않음	경제적 부담 및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4.4	8.8	9.6	64.0	3.2	100.0 (123)
지역						
동부	10.0	12.0	8.0	64.0	6.0	100.0 ( 50)
읍·면부	17.3	6.7	10.7	64.0	1.3	100.0 ( 75)
성						
남자	21.3	6.6	8.2	63.9	0.0	100.0 ( 61)
여자	8.1	9.7	11.3	66.1	4.8	100.0 ( 62)
연령						
65~69세	16.7	6.7	13.3	63.3	0.0	100.0 ( 30)
70~74세	13.6	9.1	4.5	70.5	2.3	100.0 ( 44)
75~79세	8.0	16.0	16.0	56.0	4.0	100.0 ( 25)
80~84세	23.8	0.0	4.8	66.7	4.8	100.0 ( 21)
85세 이상	0.0	0.0	0.0	66.7	33.3	100.0 ( 3)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3	8.7	7.6	66.3	1.1	100.0 ( 92)
배우자 없음	9.7	9.7	12.9	61.3	6.5	100.0 ( 31)
가구형태						
노인독거	4.8	14.3	14.3	61.9	4.8	100.0 ( 21)
노인부부	13.2	8.8	4.4	72.1	1.5	100.0 ( 68)
자녀동거	22.6	6.5	16.1	48.4	6.5	100.0 ( 31)
기타	0.0	0.0	0.0	100.0	0.0	100.0 ( 3) <sup>2)</sup>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1	5.6	16.7	66.7	0.0	100.0 ( 18)
무학(글자해독)	24.0	8.0	8.0	52.0	8.0	100.0 ( 25)
초등학교	14.9	10.6	6.4	68.1	0.0	100.0 ( 47)
중·고등학교	9.4	9.4	9.4	68.8	3.1	100.0 ( 32)
전문대학 이상	0.0	0.0	0.0	100.0	0.0	100.0 ( 1) <sup>2)</sup>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1	3.5	7.0	68.4	0.0	100.0 ( 57)
미취업	9.0	13.4	11.9	61.2	4.5	100.0 ( 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0	8.0	16.0	60.0	8.0	100.0 ( 25)
제2오분위	28.1	0.0	3.1	68.8	0.0	100.0 ( 32)
제3오분위	0.0	25.0	0.0	75.0	0.0	100.0 ( 20)
제4오분위	5.3	10.5	26.3	57.9	0.0	100.0 ( 19)
제5오분위	21.4	7.1	7.1	60.7	3.6	100.0 ( 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7	5.9	9.8	66.7	2.0	100.0 (102)
제한 있음	10.0	20.0	5.0	60.0	5.0	100.0 ( 20)

주: 1)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2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II-11-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미비	프로그램 없음	거리 불편	이용노 인과 관계 없음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몸 불편	연령 기준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9	2.7	3.2	34.6	3.5	17.6	16.6	19.5	0.5	100.0 (6,927)
지역										
동부	1.6	2.9	2.4	35.6	4.2	17.1	15.2	20.5	0.5	100.0 (5,724)
읍·면부	3.3	1.6	6.8	29.6	0.8	19.8	23.1	14.5	0.5	100.0 (1,203)
성										
남자	2.7	2.6	1.6	35.7	2.0	17.2	14.2	23.5	0.6	100.0 (3,180)
여자	1.3	2.7	4.5	33.6	4.9	17.9	18.6	16.0	0.4	100.0 (3,749)
연령										
65~69세	1.5	1.6	0.8	22.0	2.0	22.6	8.3	41.1	0.2	100.0 (2,479)
70~74세	2.2	3.5	3.0	37.6	3.7	20.0	15.0	14.4	0.5	100.0 (2,058)
75~79세	2.2	3.2	5.3	46.5	5.2	13.2	21.4	2.3	0.7	100.0 (1,379)
80~84세	2.5	2.6	7.1	45.4	5.4	7.7	27.5	0.3	1.4	100.0 ( 647)
85세 이상	0.8	3.3	5.8	38.5	3.0	3.8	44.8	0.0	0.0	100.0 ( 36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	2.8	2.0	33.4	2.1	19.2	14.6	23.2	0.5	100.0 (4,886)
배우자 없음	1.4	2.3	6.0	37.4	6.8	13.7	21.3	10.4	0.5	100.0 (2,040)
가구형태										
노인독거	1.5	2.2	6.3	38.4	8.3	12.6	20.4	10.0	0.4	100.0 (1,193)
노인부부	2.3	3.2	1.9	35.3	1.8	19.0	14.8	21.3	0.5	100.0 (3,365)
자녀동거	1.7	2.4	3.3	31.6	3.4	18.6	17.7	20.7	0.5	100.0 (2,008)
기타	0.6	0.8	3.6	32.5	5.3	15.6	14.2	25.4	1.1	100.0 ( 36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	0.9	7.0	30.4	6.8	13.2	35.8	4.1	0.4	100.0 ( 559)
무학(글자해독)	2.1	2.1	4.3	32.9	7.3	15.4	24.3	10.8	0.7	100.0 (1,179)
초등학교	2.6	2.3	3.8	34.7	3.5	19.6	15.8	17.1	0.6	100.0 (2,353)
중·고등학교	1.3	3.1	1.8	33.6	1.7	18.5	11.5	28.0	0.4	100.0 (2,171)
전문대학 이상	1.2	5.0	0.0	43.6	0.5	14.9	6.5	28.1	0.3	100.0 ( 66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9	1.2	3.1	22.0	2.9	41.3	3.6	23.6	0.6	100.0 (1,886)
미취업	1.9	3.2	3.2	39.3	3.8	8.7	21.5	17.9	0.5	100.0 (5,04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1.4	6.2	35.3	10.6	9.0	25.7	9.1	0.8	100.0 (1,182)
제2오분위	2.7	2.0	1.8	41.2	2.8	14.5	21.8	13.0	0.2	100.0 (1,299)
제3오분위	2.9	3.2	3.1	34.9	2.6	19.7	14.3	18.8	0.7	100.0 (1,373)
제4오분위	0.7	2.6	2.6	30.6	2.1	22.7	13.5	24.8	0.3	100.0 (1,481)
제5오분위	1.6	3.7	2.6	32.0	1.3	19.9	10.4	28.0	0.4	100.0 (1,59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	2.9	3.0	36.6	3.7	19.8	9.3	22.2	0.5	100.0 (5,890)
제한 있음	1.2	1.3	4.3	23.0	2.9	5.2	58.1	3.8	0.3	100.0 (1,037)

주: 1)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6,943명 중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 2.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및 욕구

노인복지관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259개가 있어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8.8%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24.4%로 향후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2.5일이며 만족도가 82.8%로 매우 높다(표 II-11-19 참조). 또한 이용자의 이용이유를 살펴보면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7.9%이며 다음이 친목도모로 16.9%, 식사서비스 12.8%, 건강관련서비스 5.4% 등이다. 경로당 이용 이유가 친목도모에 집중되었던 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점이다(표 II-11-20 참조).

한편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점이 가장 많아 38.8%이며 다음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22.4%, 비슷한 노인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14.3%,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12.0%, 시설이 좋아서 9.7%의 순이다(표 II-11-21 참조). 반면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소수이며 절반 정도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다(부표 II-11-1 참조).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은 미이용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물리적 불편함을 언급한 비율이 31.0%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경우 3.2%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수가 적어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용 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18.7%인데 이는 경로당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다(표 II-11-22 참조).

이러한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보다 동부에서 이용률이 높으며 이용자의 이용일수도 2.8일과 1.9일로 차이가 크다.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도 도시지역이 28.4%로 농어촌지역의 16.0%보다 월등히 높는데, 이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이용률은 여자노인이 약간 높지만 이용자의 이용일수는 남자가 여자노인보다 약간 높고, 향후 이용희망률도 남자 노인이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70~74세군이 가장 활발하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이용희망률은

65~69세 연령군에서 더 높다. 또한 이용일수는 80~84세 군에서 2.8일로 가장 높은 등 구체적인 이용행태에 있어서는 연령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이용률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지만 희망률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도 현재는 독거노인의 이용률이 더 높지만 향후 이용 희망률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보다 조금 낮아, 현재의 이용행태와 향후 이용형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고 이용일수도 많으며 향후 이용희망률도 높아 교육수준과 노인복지관 이용은 정비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분명한 경향성은 없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우 현재 이용률은 높지만 향후 이용 희망률은 오히려 약간 낮다. 또한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이용률이 높고 이는 향후 이용형태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 수준이 높고 특성별 그리 큰 차이는 없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전기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친목도모라는 응답은 읍·면부 거주 노인, 남자 노인, 후기노인에게서 높은 편이다. 식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도시노인에게서와 후기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독거노인에게서 월등히 높다. 더불어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도 식사서비스 이용이라는 응답이 33.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에게 있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서비스가 매우 큰 유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식사서비스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다.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노인의 만족 이유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읍·면부가 동부보다 높으며, 시설이 좋아서라거나 비슷한 노인을 만날 수 있어서라는 이유는 동부에서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0%로 여자노인의 19.6%보다 높고, 시설이 좋아서라는 응답도 남자노인에게서 높다. 반면 여자노인들은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어 응답률이 44.1%인데

이는 남자 노인의 30.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한편 연령군별로는 후기노인으로 갈수록 비슷한 노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비율이 높고, 전기노인일수록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는 응답률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높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다.

교육수준별과 가구소득별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교육수준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취업중인 노인,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높다. 또한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도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하여 기능상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높다.

한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다수 노인의 미이용 이유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다양한 차이가 발견된다.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에서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55.9%로 매우 높은데, 이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에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25.9%와 34.9%),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28.4%와 36.5%)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높는데, 이 또한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젊어서라는 응답 자체는 경로당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기노인에게서 그러한 응답이 높다는 점에서 공적인 여가복지시설이 이러한 후기노인과 차별화되는 전기노인의 여가활동 관련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65~69세 연령군에서 매우 높다.

〈표 II-11-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이용률 <sup>1)</sup>	향후(계속) 이용률 <sup>2)</sup> 희망률	1주간 평균 이용수 <sup>3)</sup>	이용만족도 <sup>4)</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않음	
전체	8.8	24.4	2.5	18.9	63.9	14.4	2.3	0.5	100.0 (927)
지역									
동부	9.9	28.4	2.8	20.2	61.6	15.2	2.5	0.4	100.0 (711)
읍·면부	6.4	16.0	1.9	14.7	71.4	11.5	1.4	0.9	100.0 (216)
성									
남자	8.1	25.3	2.7	18.5	61.6	16.1	2.5	1.4	100.0 (367)
여자	9.3	23.7	2.4	19.2	65.5	13.3	2.0	0.0	100.0 (560)
연령									
65~69세	7.5	34.7	2.3	15.0	67.5	15.8	1.7	0.0	100.0 (235)
70~74세	10.6	26.5	2.6	21.5	61.5	14.1	1.8	1.2	100.0 (341)
75~79세	8.8	16.6	2.6	21.3	62.1	13.3	3.3	0.0	100.0 (211)
80~84세	9.5	14.8	2.8	17.3	66.4	14.5	0.9	0.9	100.0 (110)
85세 이상	5.0	8.5	2.3	12.9	64.5	16.1	6.5	0.0	100.0 ( 3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2	25.7	2.6	21.4	62.8	13.5	1.9	0.3	100.0 (585)
배우자 없음	10.0	21.5	2.4	14.6	65.8	15.8	2.9	0.9	100.0 (3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0.5	23.1	2.4	17.7	64.1	14.1	2.7	1.4	100.0 (220)
노인부부	8.3	24.8	2.5	19.2	61.7	16.4	2.3	0.2	100.0 (426)
자녀동거	8.3	24.4	2.8	21.2	64.4	12.7	1.7	0.0	100.0 (237)
기타	8.8	25.0	2.3	9.3	81.4	7.0	0.0	2.3	100.0 ( 4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	12.8	2.6	11.3	75.8	8.1	4.8	0.0	100.0 ( 63)
무학(글자해독)	8.2	19.5	2.4	20.6	60.6	16.7	1.7	0.6	100.0 (178)
초등학교	8.6	25.0	2.4	15.9	68.5	13.7	1.6	0.3	100.0 (322)
중·고등학교	10.3	30.8	2.7	22.3	62.8	13.5	1.4	0.0	100.0 (283)
전문대학 이상	11.0	30.2	2.8	21.3	48.8	20.0	6.3	3.8	100.0 ( 81)
현 취업상태									
취업중	6.6	25.1	2.1	16.2	66.8	15.3	0.9	0.9	100.0 (235)
미취업	9.9	24.0	2.7	19.9	63.0	14.1	2.6	0.4	100.0 (69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	21.1	2.6	14.9	69.1	14.4	1.5	0.0	100.0 (194)
제2오분위	8.7	21.1	2.4	15.8	65.8	16.3	1.1	1.1	100.0 (184)
제3오분위	9.2	27.0	2.5	17.1	59.1	18.7	3.6	1.6	100.0 (193)
제4오분위	7.2	27.0	2.4	18.5	66.2	12.6	2.6	0.0	100.0 (152)
제5오분위	9.7	25.6	2.7	27.9	61.2	9.5	1.5	0.0	100.0 (203)
가능상태									
제한 없음	9.4	26.0	2.5	19.7	64.0	14.1	2.0	0.2	100.0 (850)
제한 있음	5.2	14.2	2.7	10.4	63.6	16.9	5.2	3.9	100.0 ( 7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함.  
 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27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4)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27명 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표 II-11-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직업·봉사 자원봉사 참여	일자리 사업 참여	건강 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모임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57.9	2.7	1.8	5.4	12.8	16.9	2.5	100.0 (926)
지역								
동부	57.5	3.2	2.3	5.8	14.2	14.8	2.3	100.0 (710)
읍·면부	59.5	0.9	0.5	4.2	7.9	23.7	3.3	100.0 (215)
성								
남자	50.7	3.8	1.9	2.7	13.4	26.7	0.8	100.0 (367)
여자	62.7	2.0	1.6	7.2	12.5	10.4	3.6	100.0 (558)
연령								
65~69세	68.1	2.1	1.7	4.7	10.2	9.8	3.4	100.0 (235)
70~74세	66.6	1.8	1.8	3.5	9.1	15.2	2.1	100.0 (341)
75~79세	47.1	6.7	2.9	8.1	13.3	19.5	2.4	100.0 (210)
80~84세	36.7	0.9	0.0	9.2	21.1	30.3	1.8	100.0 (109)
85세 이상	32.3	0.0	0.0	0.0	38.7	22.6	6.5	100.0 ( 3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2.1	3.1	1.4	5.0	8.9	18.4	1.2	100.0 (583)
배우자 없음	50.7	2.0	2.3	6.4	19.2	14.6	4.7	100.0 (343)
가구형태								
노인독거	43.7	3.2	2.7	6.8	23.0	16.7	4.1	100.0 (222)
노인부부	63.1	3.3	0.9	5.2	8.2	18.1	1.2	100.0 (425)
자녀동거	66.4	1.3	1.7	4.2	10.5	13.0	2.9	100.0 (238)
기타	29.5	2.3	6.8	9.1	18.2	27.3	6.8	100.0 ( 4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3.3	3.2	0.0	12.7	22.2	19.0	9.5	100.0 ( 63)
무학(글자해독)	50.3	2.2	0.6	8.4	22.3	12.3	3.9	100.0 (179)
초등학교	59.2	1.6	1.3	5.0	9.4	21.6	1.9	100.0 (319)
중·고등학교	66.2	2.1	2.8	3.5	10.9	13.0	1.4	100.0 (284)
전문대학 이상	59.3	9.9	2.5	2.5	4.9	21.0	0.0	100.0 ( 8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4	1.7	5.9	3.8	11.0	19.9	4.2	100.0 (236)
미취업	59.5	3.0	0.4	5.9	13.3	15.9	1.9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0	2.6	1.5	8.7	25.1	16.4	5.6	100.0 (195)
제2오분위	47.8	2.7	3.3	6.5	14.7	21.2	3.8	100.0 (184)
제3오분위	63.2	2.1	0.5	3.6	9.8	19.7	1.0	100.0 (193)
제4오분위	70.4	2.0	4.6	4.6	6.6	11.2	0.7	100.0 (152)
제5오분위	69.8	4.0	0.0	3.5	6.4	15.3	1.0	100.0 (2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60.6	2.9	1.8	4.9	11.0	16.2	2.5	100.0 (851)
제한 있음	26.7	0.0	1.3	12.0	33.3	24.0	2.7	100.0 ( 75)

주: 1)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927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II-11-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프로그램	거리교통편리	비슷한 노인 만남	적은 경제적 부담	의미 있는 시간	계 (명)
전체 <sup>1)</sup>	9.7	38.8	2.8	14.3	12.0	22.4	100.0 (761)
지역							
동부	10.5	36.4	2.9	15.2	12.3	22.6	100.0 (579)
읍·면부	7.2	46.4	2.2	11.6	11.0	21.5	100.0 (181)
성							
남자	11.9	30.0	1.0	19.1	10.9	27.0	100.0 (293)
여자	8.3	44.1	3.8	11.5	12.6	19.6	100.0 (469)
연령							
65~69세	6.8	46.8	2.1	11.1	7.9	25.3	100.0 (190)
70~74세	7.8	43.8	2.8	13.2	11.4	21.0	100.0 (281)
75~79세	12.1	27.6	2.9	16.1	13.8	27.6	100.0 (174)
80~84세	18.0	33.7	3.4	18.0	14.6	12.4	100.0 ( 89)
85세 이상	4.2	20.8	4.2	29.2	25.0	16.7	100.0 ( 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6	40.0	1.4	14.7	8.6	25.7	100.0 (490)
배우자 없음	10.0	36.3	5.2	13.7	18.1	16.7	100.0 (270)
가구형태							
노인독거	11.9	26.7	6.3	13.6	22.7	18.8	100.0 (176)
노인부부	9.6	45.8	2.0	11.7	7.0	23.9	100.0 (343)
자녀동거	9.9	42.4	1.0	16.7	8.9	21.2	100.0 (203)
기타	2.5	12.5	2.5	30.0	20.0	32.5	100.0 ( 4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3.1	26.9	3.8	9.6	23.1	13.5	100.0 ( 52)
무학(글자해독)	6.4	40.7	2.9	15.7	14.3	20.0	100.0 (140)
초등학교	7.8	38.7	3.3	19.3	11.5	19.3	100.0 (269)
중·고등학교	9.2	41.7	2.1	10.4	10.0	26.7	100.0 (240)
전문대학 이상	17.9	33.9	0.0	7.1	5.4	35.7	100.0 ( 56)
현 취업상태							
취업중	7.3	35.8	2.1	15.0	10.4	29.5	100.0 (193)
미취업	10.5	39.6	3.2	14.2	12.5	20.0	100.0 (57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0	25.6	5.6	14.4	27.5	16.9	100.0 (160)
제2오분위	12.0	34.0	4.0	19.3	14.7	16.0	100.0 (150)
제3오분위	5.4	51.0	1.4	12.9	8.8	20.4	100.0 (147)
제4오분위	9.5	39.7	2.4	9.5	4.0	34.9	100.0 (126)
제5오분위	11.0	43.1	1.1	14.4	4.4	26.0	100.0 (181)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	40.1	3.0	14.1	9.8	23.6	100.0 (704)
제한 있음	14.3	21.4	0.0	17.9	39.3	7.1	100.0 ( 56)

주: 1)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 무응답자 8명을 제외함.

〈표 II-11-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 과 많지 않음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몸 불편	연령 기준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2	3.1	31.0	18.7	4.0	16.5	15.5	9.4	0.6	100.0 (9,598)
지역										
동부	0.9	4.0	18.7	23.4	5.3	18.3	16.6	12.4	0.6	100.0 (6,423)
읍·면부	2.1	1.3	55.9	9.3	1.5	13.0	13.2	3.3	0.5	100.0 (3,176)
성										
남자	1.4	3.7	25.9	21.2	2.8	18.5	12.5	13.4	0.5	100.0 (4,176)
여자	1.2	2.7	34.9	16.7	4.9	15.0	17.7	6.3	0.6	100.0 (5,424)
연령										
65~69세	1.0	3.2	19.8	14.6	3.2	24.9	8.6	24.4	0.2	100.0 (2,911)
70~74세	1.2	3.2	32.9	20.6	4.3	17.7	13.2	6.1	0.8	100.0 (2,879)
75~79세	1.2	3.5	37.4	21.6	4.7	11.8	18.4	0.6	0.6	100.0 (2,176)
80~84세	1.8	2.6	40.6	19.7	4.8	6.9	23.0	0.1	0.8	100.0 (1,049)
85세 이상	1.9	2.4	35.7	17.4	1.9	4.0	36.6	0.0	0.2	100.0 ( 58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	3.4	28.4	19.3	2.8	18.8	13.5	11.9	0.5	100.0 (6,526)
배우자 없음	1.3	2.4	36.5	17.3	6.3	11.8	19.7	4.1	0.6	100.0 (3,073)
가구형태										
노인독거	1.7	2.1	38.6	17.0	7.1	10.3	18.8	4.1	0.4	100.0 (1,863)
노인부부	1.1	3.9	31.4	19.4	2.6	17.7	13.3	10.0	0.6	100.0 (4,688)
자녀동거	1.3	2.6	25.7	18.4	4.1	18.8	17.4	11.1	0.7	100.0 (2,602)
기타	1.1	2.2	25.4	19.8	4.9	17.3	13.0	15.7	0.4	100.0 ( 44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	0.7	45.4	12.2	6.6	8.3	23.8	1.0	0.6	100.0 (1,078)
무학(글자해독)	1.4	1.8	40.4	13.5	5.4	12.6	20.2	4.3	0.7	100.0 (2,000)
초등학교	1.4	3.0	34.1	18.3	4.5	18.0	13.7	6.5	0.6	100.0 (3,411)
중·고등학교	1.0	4.0	19.0	21.5	1.8	21.4	12.4	18.5	0.4	100.0 (2,451)
전문대학 이상	1.7	8.6	7.2	37.4	0.6	16.4	7.8	19.6	0.6	100.0 ( 65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	1.7	39.6	10.1	2.3	31.3	3.6	9.1	0.6	100.0 (3,326)
미취업	1.1	3.9	26.4	23.3	4.9	8.7	21.7	9.6	0.5	100.0 (6,272)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1.7	2.2	40.6	14.8	8.0	6.5	21.8	3.6	0.6	100.0 (1,915)
제2오분위	1.1	3.1	35.4	20.3	4.2	12.6	17.6	5.3	0.5	100.0 (1,933)
제3오분위	1.4	2.6	32.2	18.2	2.8	19.0	14.0	9.4	0.6	100.0 (1,905)
제4오분위	0.8	3.2	25.5	18.3	2.9	23.5	12.8	12.5	0.5	100.0 (1,955)
제5오분위	1.4	4.6	21.1	22.0	2.0	21.0	11.1	16.4	0.5	100.0 (1,8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	3.4	31.6	20.2	3.9	18.6	9.8	10.7	0.6	100.0 (8,209)
제한 있음	1.1	1.6	27.4	10.0	4.2	4.4	48.9	1.9	0.4	100.0 (1,388)

주: 1)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9,617명 중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 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행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62.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4.2%가 등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23 참조). 또한 신청자중 4.8%가 1등급, 16.1%가 2등급, 3등급 이 62.3%, 등급외가 16.9%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율은 동부와 남자노인, 전기노인에게서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또한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인지율이 81.7%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4.2%가 등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84.6%가 실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노인중 2.2%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중 91.9%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고, 35.4%는 방문목욕을 23.4%는 방문 간호를, 26.7%는 보장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급여중 방문요양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부표 시·도별 II-11-b).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한 노인의 80.2%가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10.5%, 만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3%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성별 큰 차이는 없지만 도시보다는 읍·면부에서, 전기노인에게서 높은 편이다(부표 II-11-2).



〈표 II-11-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율, 신청률 및 등급

(단위: %, 명)

특성	인지율 <sup>1)</sup>	등급 신청률 <sup>2)</sup>	등급 <sup>3)</sup>				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전체 <sup>1)</sup>	62.8	4.2	4.8	16.1	62.3	16.9	100.0 (273)
지역							
동부	64.5	4.2	5.8	15.7	60.7	17.8	100.0 (191)
읍·면부	59.1	4.1	2.4	17.1	67.1	13.4	100.0 ( 82)
성							
남자	68.2	3.2	6.1	18.4	64.3	11.2	100.0 ( 98)
여자	58.6	5.2	4.0	14.9	61.5	19.5	100.0 (174)
연령							
65~69세	69.9	2.4	1.9	17.3	63.5	17.3	100.0 ( 52)
70~74세	64.0	2.1	9.3	16.3	58.1	16.3	100.0 ( 43)
75~79세	61.2	5.3	6.8	13.5	64.9	14.9	100.0 ( 74)
80~84세	52.6	8.3	6.0	14.0	66.0	14.0	100.0 ( 50)
85세 이상	45.1	19.5	1.9	18.5	61.1	18.5	100.0 ( 5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7.2	3.4	4.4	16.5	64.6	14.6	100.0 (158)
배우자 없음	53.5	6.5	5.3	14.9	60.5	19.3	100.0 (114)
가구형태							
노인독거	55.6	5.7	8.1	9.7	54.8	27.5	100.0 ( 62)
노인부부	67.6	3.0	2.9	19.2	68.3	9.6	100.0 (104)
자녀동거	58.9	5.5	5.6	18.0	57.3	19.1	100.0 ( 89)
기타	65.6	5.0	0.0	12.5	87.5	0.0	100.0 ( 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4.8	8.8	7.1	14.3	59.5	19.0	100.0 ( 42)
무학(글자해독)	54.6	5.4	6.3	14.3	60.3	19.0	100.0 ( 63)
초등학교	62.4	4.3	5.2	17.5	61.9	15.5	100.0 ( 97)
중·고등학교	72.2	3.0	1.7	16.7	65.0	16.7	100.0 ( 60)
전문대학 이상	81.7	1.7	0.0	10.0	80.0	10.0	100.0 ( 10)
현 취업상태							
취업중	64.3	0.3	0.0	14.3	85.7	0.0	100.0 ( 7) <sup>4)</sup>
미취업	62.0	6.3	4.9	16.2	62.0	16.9	100.0 (26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4	6.2	7.5	6.0	62.7	23.9	100.0 ( 67)
제2오분위	62.9	5.1	3.0	21.2	72.7	3.0	100.0 ( 66)
제3오분위	65.6	3.3	4.3	28.3	52.2	15.2	100.0 ( 46)
제4오분위	65.7	3.0	4.9	2.4	61.0	31.7	100.0 ( 41)
제5오분위	66.3	3.8	3.9	21.6	60.8	13.7	100.0 ( 51)
기능상태							
제한 없음	64.0	0.5	0.0	3.7	51.9	44.4	100.0 (245)
제한 있음	55.4	30.6	5.3	17.6	63.7	13.5	100.0 ( 2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자 6,6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 279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4. 다양한 노인보호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표 II-11-24〉와 같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 인지도가 높아 각각 41.8%와 41.3%이다. 이에 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인지도는 절반 정도 수준인 22.7%와 22.3%이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또한 18.1%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의 사업기간과 포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인돌봄서비스와 치매조기검진서비스는 지방정부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을 대상으로한 홍보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약 40% 정도의 노인이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현재 전국에 24개 밖에 기관이 없고 확대를 경험하는 노인에 대한 상담이 주가 되고 있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치료관리비 지원은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었다는 점도 낮은 인지도의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인지도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읍·면부에 비해서는 동부에서,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다. 또한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표 II-11-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정부사업 인지율

(단위: %, 명)

특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계 (명)
전체 <sup>1)</sup>	41.8	22.7	41.3	22.3	18.1	100.0 (10,531)
지역						
동부	43.2	25.9	44.5	25.7	21.1	100.0 ( 7,140)
읍·면부	38.8	15.8	34.7	15.1	11.6	100.0 ( 3,392)
성						
남자	44.3	28.1	44.9	25.3	22.2	100.0 ( 4,546)
여자	39.8	18.6	38.6	20.0	15.0	100.0 ( 5,985)
연령						
65~69세	48.1	28.9	47.5	26.5	22.3	100.0 ( 3,150)
70~74세	42.8	23.1	43.2	23.1	19.3	100.0 ( 3,228)
75~79세	40.6	20.1	39.4	20.9	15.5	100.0 ( 2,385)
80~84세	32.7	16.4	31.9	16.2	12.2	100.0 ( 1,155)
85세 이상	25.8	10.3	25.4	13.5	11.1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5.2	26.2	44.8	25.0	21.1	100.0 ( 7,119)
배우자 없음	34.7	15.4	34.1	16.6	11.8	100.0 ( 3,412)
가구형태						
노인독거	37.2	16.2	34.9	16.6	11.1	100.0 ( 2,084)
노인부부	44.9	25.2	44.1	24.0	20.1	100.0 ( 5,119)
자녀동거	39.0	22.4	42.1	23.6	19.8	100.0 ( 2,843)
기타	44.9	25.9	35.2	21.4	17.2	100.0 ( 48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8.0	8.0	22.9	8.7	5.7	100.0 ( 1,140)
무학(글자해독)	34.8	14.3	30.5	14.7	11.3	100.0 ( 2,181)
초등학교	41.0	20.1	41.5	20.8	16.0	100.0 ( 3,740)
중·고등학교	49.5	32.9	51.6	29.9	25.6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59.5	45.6	63.4	45.0	40.1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9	22.7	42.3	21.2	16.9	100.0 ( 3,565)
미취업	41.2	22.6	40.9	22.9	18.7	100.0 ( 6,96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1	15.9	32.6	15.4	11.0	100.0 ( 2,108)
제2오분위	39.3	17.9	39.0	18.4	14.5	100.0 ( 2,120)
제3오분위	45.6	23.5	43.5	22.4	18.7	100.0 ( 2,099)
제4오분위	43.4	27.0	43.0	24.0	18.4	100.0 ( 2,114)
제5오분위	45.5	29.1	48.6	31.4	27.8	100.0 ( 2,091)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3	24.3	43.7	23.8	19.5	100.0 ( 9,067)
제한 있음	32.6	12.4	26.9	13.1	9.5	100.0 ( 1,46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3명을 제외함.

## 5.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서비스

노인 중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경로식당 이용률에 있어 제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단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독거노인에게서 경로식당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표 II-11-25 참조). 이들 노인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62.9%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가장 응답률이 높고 다음이 저렴해서로 20.3%, 식사준비가 귀찮아서가 14.0%의 순이다.

이러한 경로식당 이용이유를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식사준비가 귀찮아서라는 응답은 도시노인과 여자노인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기노인과 독거노인에게서 30%내외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라는 관계적인 측면의 이유는 낮은 반면 식사준비가 귀찮거나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많다(표 II-11-26).

〈표 II-11-27〉에 의하면 향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유료의 맞춤형식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가진 노인은 12.6%인데 희망률의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현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노인은 7.0%이며, 이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노인은 80.3%이다.

유료의 맞춤형식사서비스 이용희망률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거주 노인, 전기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단독거주 노인에게서 높다. 또한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희망률이 높다. 예를 들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25.8%의 이용희망률을 보이고 있지만, 무학(글자모름) 노인의 경우는 단지 6.6%만이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표 II-11-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식당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매일	주 3~4회	주 1~2회	2주 1회	미이용	계 (명)
전체 <sup>1)</sup>	1.1	1.7	2.5	1.1	93.7	100.0 (10,544)
지역						
동부	1.4	1.8	2.7	1.3	92.9	100.0 ( 7,149)
읍·면부	0.4	1.5	2.0	0.7	95.3	100.0 ( 3,394)
성						
남자	0.9	1.8	2.3	1.1	93.9	100.0 ( 4,548)
여자	1.2	1.6	2.7	1.1	93.5	100.0 ( 5,996)
연령						
65~69세	0.3	1.2	1.6	0.5	96.4	100.0 ( 3,149)
70~74세	1.3	1.8	3.4	1.5	92.0	100.0 ( 3,228)
75~79세	0.9	2.3	2.2	1.4	93.2	100.0 ( 2,389)
80~84세	2.7	2.1	2.7	1.3	91.3	100.0 ( 1,163)
85세 이상	2.4	0.3	2.6	0.6	94.0	100.0 ( 61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7	1.6	2.2	1.1	94.3	100.0 ( 7,121)
배우자 없음	1.9	1.7	3.1	1.1	92.2	100.0 ( 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2.3	2.1	2.9	1.0	91.8	100.0 ( 2,087)
노인부부	0.6	1.5	2.2	1.1	94.6	100.0 ( 5,120)
자녀동거	1.1	1.8	2.7	0.8	93.6	100.0 ( 2,850)
기타	1.8	1.2	2.5	2.7	91.8	100.0 (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	1.0	2.3	0.4	94.6	100.0 ( 1,146)
무학(글자해독)	1.4	1.5	3.0	1.6	92.5	100.0 ( 2,183)
초등학교	0.7	1.9	2.3	1.0	94.1	100.0 ( 3,742)
중·고등학교	1.0	1.7	2.6	1.1	93.6	100.0 ( 2,737)
전문대학 이상	1.6	1.9	1.9	1.0	93.6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0.4	1.3	1.7	0.9	95.7	100.0 ( 3,567)
미취업	1.5	1.8	2.9	1.2	92.6	100.0 ( 6,97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1.8	2.3	1.1	92.9	100.0 ( 2,113)
제2오분위	1.1	1.8	2.3	1.3	93.5	100.0 ( 2,120)
제3오분위	1.0	1.5	2.7	1.1	93.6	100.0 ( 2,101)
제4오분위	0.3	1.9	2.5	0.9	94.4	100.0 ( 2,116)
제5오분위	1.1	1.4	2.6	1.0	93.8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	1.8	2.6	1.1	93.5	100.0 ( 9,074)
제한 있음	1.4	1.0	1.9	1.1	94.6	100.0 ( 1,47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표 II-11-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식당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식사준비 귀찮음	친구들과 함께 식사	저렴해서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4.0	62.9	20.3	2.9	100.0 (665)
지역					
동부	15.2	61.1	20.9	2.8	100.0 (506)
읍·면부	10.1	68.6	18.2	3.1	100.0 (159)
성					
남자	8.6	66.9	21.2	3.2	100.0 (278)
여자	18.1	59.7	19.6	2.6	100.0 (387)
연령					
65~69세	14.9	71.9	12.3	0.9	100.0 (114)
70~74세	11.9	56.5	28.9	2.8	100.0 (253)
75~79세	10.5	67.9	16.0	5.6	100.0 (162)
80~84세	20.0	61.0	18.0	1.0	100.0 (100)
85세 이상	27.8	61.1	11.1	0.0	100.0 ( 3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3	68.9	19.3	3.5	100.0 (399)
배우자 없음	22.9	53.4	21.8	1.9	100.0 (266)
가구형태					
노인독거	32.4	44.7	21.8	1.2	100.0 (170)
노인부부	8.3	66.8	21.3	3.6	100.0 (277)
자녀동거	8.5	67.8	21.5	2.3	100.0 (177)
기타	0.0	90.2	2.4	7.3	100.0 ( 4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4	54.1	29.5	0.0	100.0 ( 61)
무학(글자해독)	22.6	58.5	12.8	6.1	100.0 (164)
초등학교	10.0	66.7	21.0	2.3	100.0 (219)
중·고등학교	12.0	61.1	25.1	1.7	100.0 (175)
전문대학 이상	8.5	76.6	12.8	2.1	100.0 ( 47)
현 취업상태					
취업중	7.1	68.2	21.4	3.2	100.0 (154)
미취업	16.2	61.1	20.0	2.7	100.0 (51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0	42.0	24.7	1.3	100.0 (150)
제2오분위	17.3	60.4	18.7	3.6	100.0 (139)
제3오분위	3.7	65.2	25.9	5.2	100.0 (135)
제4오분위	8.0	70.8	19.5	1.8	100.0 (113)
제5오분위	5.5	80.5	11.7	2.3	100.0 (1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2	63.8	20.5	2.6	100.0 (585)
제한 있음	21.3	55.0	18.8	5.0	100.0 ( 80)

주: 1) 경로식당을 이용한 적이 있는 670명 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표 II-11-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유료맞춤식사서비스 이용의사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sup>1)</sup>	2.1	10.5	7.0	32.4	47.9	100.0 (10,539)
지역						
동부	2.4	11.6	7.4	29.4	49.2	100.0 ( 7,147)
읍·면부	1.7	8.2	6.1	38.8	45.2	100.0 ( 3,391)
성						
남자	2.4	11.7	6.9	30.9	48.1	100.0 ( 4,547)
여자	2.0	9.6	7.1	33.5	47.8	100.0 ( 5,991)
연령						
65~69세	2.4	11.5	6.7	30.1	49.3	100.0 ( 3,149)
70~74세	1.8	11.3	6.6	33.7	46.7	100.0 ( 3,227)
75~79세	2.3	9.4	7.6	32.1	48.6	100.0 ( 2,389)
80~84세	2.6	8.7	7.5	34.7	46.5	100.0 ( 1,161)
85세 이상	1.1	9.3	7.7	34.0	47.9	100.0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3	11.0	6.9	31.9	47.9	100.0 ( 7,120)
배우자 없음	1.7	9.5	7.2	33.5	48.1	100.0 ( 3,421)
가구형태						
노인독거	2.3	11.0	7.1	33.3	46.3	100.0 ( 2,087)
노인부부	2.3	11.4	6.6	33.1	46.6	100.0 ( 5,118)
자녀동거	1.9	8.5	7.9	30.7	50.9	100.0 ( 2,846)
기타	1.4	9.8	5.9	31.8	51.0	100.0 ( 4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9	5.7	5.1	36.0	52.3	100.0 ( 1,143)
무학(글자해독)	1.1	8.9	7.5	34.5	47.9	100.0 ( 2,182)
초등학교	1.6	9.8	7.1	34.9	46.6	100.0 ( 3,743)
중·고등학교	3.0	12.5	7.7	28.2	48.6	100.0 ( 2,738)
전문대학 이상	6.8	19.0	5.6	23.1	45.4	100.0 (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	9.6	7.0	34.6	47.4	100.0 ( 3,565)
미취업	2.5	11.0	7.0	31.3	48.2	100.0 ( 6,97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9	9.3	6.5	35.0	48.2	100.0 ( 2,112)
제2오분위	1.0	9.2	6.2	36.7	46.8	100.0 ( 2,120)
제3오분위	2.1	10.2	6.5	31.3	49.9	100.0 ( 2,100)
제4오분위	2.8	11.3	8.4	31.8	45.7	100.0 ( 2,115)
제5오분위	3.9	12.6	7.4	27.0	49.1	100.0 ( 2,0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	10.9	7.0	32.8	47.3	100.0 ( 9,073)
제한 있음	2.5	8.1	7.3	30.0	52.1	100.0 ( 1,4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계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 6.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경로우대제도의 이용경험,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을 살펴보면 <표 II-11-28> ~<II-11-32> 와 같다. 이용경험률의 경우 지하철 무료이용은 70.8%, 철도할인은 35.1%,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16.7%,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40.2%,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 입장은 25.2%이다. 즉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우대제도이며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이 가장 이용 빈도가 낮은 경로우대제도이다. 이러한 경로우대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두 90%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83.9%, 철도할인은 76.6%,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65.2%,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1.1%,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 입장은 61.7%로 나타났다. 즉 각종 경로우대제도에 대하여 현재 이용률에 비하여 훨씬 높은 향후 이용희망률을 보이고 있어, 지하철 이용희망률은 80%대이고, 철도 및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0%이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실제 이용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개 경로우대 서비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용경험률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하철은 동부 노인의 경우 80.0%로 읍·면부의 51.3%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철도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적고,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의 경우 오히려 읍·면부 노인의 이용률이 높다. 즉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지역별 이용률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향후 이용희망률은 도시노인이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 읍·면부 노인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지하철과 철도의 이용률이 높고,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향후 이용 희망률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이 모든 교통수단관련 경로우대 이용의사가 여자노인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연소노인에게서 지하철 이용률이 높고, 철도와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이용에 있어서는 U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향후 이용 희망률에 있어서는 모든 교통관련 경로우대제도 이용희망률이 연령이 적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전기노인일수록 후기노인보다 이동할 기회가 많고 권리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각종 교통관련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과 희망률이 낮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에게서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이들 노인이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적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고 자연히 향후에 대해서도 이용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희망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종 교통수단의 경로우대에 대한 높은 이용경험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지하철 이용률이 93.2%로 글자를 모르는 무학노인의 46.8%의 약 2배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용 희망률 또한 95.5%와 64.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철도,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외부활동이 이루어져 이동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그 정도는 약한 편이다.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미취업노인이 모든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낮은 이용희망률을 보이지만, 현재 이용률에 있어서는 교통수단별로 상이하다. 즉 지하철의 경우는 취업노인에 비하여 미취업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동의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취업상태별 차이가 없고, 항공기 및 여객선에 있어서는 취업자가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경우 각종 교통수단의 이용률도 낮고 향후 이용희망률도 낮아서 기능의 제한에 따른 외출의 제한도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II-11-28~표 II-11-30 참조).

한편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로우대의 이용실태 및 이용희망률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무료이용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이용에 있어 모두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로는 실제 이용률에 있어서는 동부보다 읍·면부노인이 높지만 이용희망률은 그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동부 노인에게 있어 더 높다. 또한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실제 이용경험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높다. 연령군별로는 이용률은 Ⅱ형을 보이지만 향후 이용희망

률은 전기노인에게서 높아 65~69세 군의 경우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무료이용 희망률이 82.4%이며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이용은 73.1%인데 반하여 85세 이상 군에서는 각각 38.8%과 32.4%에 불과하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실제 이용률과 희망률 모두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실제 이용률과 희망률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높으며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이 여가관련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높다(표 II-11-31~표 II-11-32 참조).

〈표 II-11-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지하철(수도권 전철, 도시철도)무료이용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대상자수 <sup>1)</sup>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체	70.8	49.6	44.6	5.7	83.9	(10,405)
지역						
동부	80.0	53.2	41.4	5.5	88.2	( 7,060)
읍·면부	51.3	37.8	55.5	6.7	74.8	( 3,345)
성						
남자	76.0	51.3	43.8	4.9	87.8	( 4,482)
여자	66.8	48.0	45.4	6.6	80.9	( 5,923)
연령						
65~69세	71.5	53.4	40.7	5.9	92.1	( 3,014)
70~74세	74.8	48.5	46.1	5.4	88.2	( 3,224)
75~79세	70.8	48.2	45.5	6.3	80.2	( 2,389)
80~84세	66.3	49.0	45.5	5.6	74.4	( 1,162)
85세 이상	55.0	40.8	53.6	5.6	53.4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7	50.3	44.4	5.3	87.7	( 7,013)
배우자 없음	64.7	47.9	45.3	6.9	76.1	( 3,391)
가구형태						
노인독거	64.0	48.5	44.8	6.7	77.3	( 2,066)
노인부부	72.1	48.5	46.1	5.4	86.5	( 5,048)
자녀동거	73.4	51.8	42.1	6.1	83.6	( 2,812)
기타	70.7	49.6	43.8	4.5	87.1	( 47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8	44.8	48.0	7.1	64.0	( 1,140)
무학(글자해독)	63.0	45.6	47.2	7.2	77.8	( 2,160)
초등학교	70.4	48.3	46.0	5.7	85.6	( 3,691)
중·고등학교	81.7	52.1	42.9	5.0	91.8	( 2,690)
전문대학 이상	93.2	58.2	37.2	4.6	95.5	( 7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65.1	46.3	48.1	5.6	86.7	( 3,485)
미취업	73.7	51.0	43.1	5.9	82.5	( 6,919)
연구구소득						
제1오분위	62.3	49.7	45.8	4.6	76.0	( 2,104)
제2오분위	67.6	48.4	45.8	5.8	82.9	( 2,099)
제3오분위	71.3	45.4	48.3	6.3	85.9	( 2,082)
제4오분위	73.2	49.5	44.2	6.3	87.4	( 2,054)
제5오분위	79.9	54.2	39.9	5.8	87.5	( 2,0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3.7	49.7	44.6	5.8	87.5	( 8,944)
제한 있음	52.9	48.9	45.0	6.1	61.6	( 1,460)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408명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이 있는 7,365명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표 II-11-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  
철도할인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대상자수 <sup>1)</sup>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체	35.1	34.9	58.7	6.5	76.6	(10,404)
지역						
동부	35.6	37.8	55.0	7.2	79.1	( 7,059)
읍·면부	33.9	28.3	66.8	4.9	71.4	( 3,344)
성						
남자	40.1	37.4	56.2	6.4	81.9	( 4,481)
여자	31.3	32.4	61.0	6.6	72.5	( 5,923)
연령						
65~69세	31.8	35.9	57.0	7.1	87.2	( 3,014)
70~74세	38.2	33.8	59.4	6.7	81.1	( 3,223)
75~79세	37.8	35.1	58.6	6.3	72.4	( 2,389)
80~84세	32.8	40.5	54.5	5.0	61.7	( 1,162)
85세 이상	28.8	22.6	71.8	5.6	44.5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8.1	35.7	58.0	6.4	81.6	( 7,013)
배우자 없음	28.8	32.6	60.6	6.8	66.3	( 3,392)
가구형태						
노인독거	30.1	36.4	58.1	5.5	67.3	( 2,067)
노인부부	40.2	35.0	58.6	6.4	80.8	( 5,049)
자녀동거	30.6	33.6	58.6	7.8	75.4	( 2,812)
기타	28.3	32.6	63.0	4.4	79.3	( 47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1.6	33.7	59.3	6.9	57.5	( 1,140)
무학(글자해독)	28.6	28.7	64.8	6.5	68.9	( 2,161)
초등학교	36.2	33.7	59.3	7.0	78.0	( 3,690)
중·고등학교	39.8	36.7	57.4	6.0	85.0	( 2,690)
전문대학 이상	52.4	44.9	49.1	6.1	90.9	( 7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35.0	32.2	61.8	6.0	81.6	( 3,485)
미취업	35.1	36.2	57.1	6.8	74.0	( 6,9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4	37.3	56.3	6.4	64.5	( 2,105)
제2오분위	36.2	34.6	57.8	7.6	75.3	( 2,098)
제3오분위	37.1	32.1	62.9	5.0	81.4	( 2,082)
제4오분위	34.5	33.4	59.0	7.6	80.5	( 2,054)
제5오분위	37.2	37.2	57.0	5.9	81.4	( 2,0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7.0	35.3	58.6	6.1	80.2	( 8,944)
제한 있음	23.6	31.1	59.0	9.9	54.1	( 1,460)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408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이 있는 3,650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표 II-11-3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대상지수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체	16.7	26.6	66.5	7.0	65.2	(10,402)
지역						
동부	15.1	28.9	63.1	8.0	66.8	( 7,058)
읍·면부	20.2	23.0	71.7	5.3	61.8	( 3,344)
성						
남자	17.1	26.6	66.3	7.2	71.0	( 4,479)
여자	16.4	26.6	66.6	6.8	60.8	( 5,923)
연령						
65~69세	13.9	30.3	62.1	7.6	77.5	( 3,014)
70~74세	18.9	28.1	64.8	7.1	69.4	( 3,222)
75~79세	19.0	23.7	71.2	5.1	59.7	( 2,390)
80~84세	14.8	26.6	62.4	11.0	48.7	( 1,162)
85세 이상	14.0	12.8	81.4	5.8	34.3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9	26.4	66.8	6.8	70.6	( 7,011)
배우자 없음	14.2	26.9	65.6	7.5	53.9	( 3,391)
가구형태						
노인독거	14.6	29.1	64.2	6.6	54.6	( 2,066)
노인부부	18.7	25.5	67.2	7.3	69.6	( 5,049)
자녀동거	15.6	28.4	65.0	6.6	64.3	( 2,810)
기타	11.3	17.0	77.4	5.7	69.5	( 47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4	26.2	67.7	6.2	45.3	( 1,140)
무학(글자해독)	14.4	26.5	66.1	7.3	55.8	( 2,160)
초등학교	16.8	23.4	71.2	5.3	64.9	( 3,691)
중·고등학교	17.9	25.6	64.6	9.8	75.6	( 2,688)
전문대학 이상	27.2	38.9	55.6	5.6	86.5	( 7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9	24.6	69.9	5.5	71.9	( 3,485)
미취업	15.6	27.8	64.4	7.9	61.8	( 6,917)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12.9	25.5	69.0	5.5	52.0	( 2,105)
제2오분위	14.2	23.4	66.9	9.7	62.2	( 2,096)
제3오분위	19.0	19.2	75.0	5.8	69.8	( 2,081)
제4오분위	16.8	30.6	60.4	9.0	68.9	( 2,054)
제5오분위	20.6	33.0	61.4	5.6	73.2	( 2,0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7	26.5	66.6	6.9	68.4	( 8,944)
제한 있음	10.7	26.9	65.4	7.7	45.3	( 1,459)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408명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 1,7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무응답 없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표 II-11-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대상자수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체	40.2	36.8	55.6	7.6	71.1	(10,404)
지역						
동부	38.3	40.0	51.9	8.1	71.9	( 7,059)
읍·면부	44.2	31.0	62.4	6.6	69.2	( 3,344)
성						
남자	44.5	37.6	56.5	6.0	77.0	( 4,481)
여자	36.9	36.2	54.8	9.0	66.6	( 5,923)
연령						
65~69세	34.7	36.3	54.4	9.4	82.4	( 3,014)
70~74세	44.5	36.4	56.0	7.6	75.5	( 3,223)
75~79세	44.3	37.3	57.2	5.5	66.1	( 2,390)
80~84세	38.8	42.3	51.0	6.7	56.1	( 1,162)
85세 이상	31.6	28.4	61.3	10.3	38.8	(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2	37.9	55.2	6.9	76.0	( 7,013)
배우자 없음	34.0	34.0	56.7	9.3	60.8	( 3,392)
가구형태						
노인독거	35.7	35.3	56.3	8.4	62.1	( 2,066)
노인부부	45.0	37.7	55.8	6.5	76.1	( 5,049)
자녀동거	35.9	37.3	53.2	9.5	68.5	( 2,812)
기타	35.0	28.7	64.7	6.6	71.6	( 47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0.6	36.6	54.2	9.2	51.4	( 1,140)
무학(글자해독)	34.7	33.7	57.8	8.6	63.7	( 2,160)
초등학교	39.4	35.1	57.2	7.7	71.2	( 3,690)
중·고등학교	44.8	37.0	55.5	7.5	80.5	( 2,690)
전문대학 이상	58.9	47.9	48.4	3.8	87.7	( 7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6	35.1	58.0	6.9	77.8	( 3,484)
미취업	38.5	37.9	54.2	7.9	67.7	( 6,9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3	34.9	57.6	7.5	59.9	( 2,104)
제2오분위	39.0	37.2	54.1	8.7	68.4	( 2,099)
제3오분위	42.8	33.4	59.1	7.4	75.9	( 2,082)
제4오분위	39.9	35.1	57.0	7.8	74.4	( 2,054)
제5오분위	47.1	42.4	51.0	6.6	76.9	( 2,066)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2	36.6	56.2	7.1	74.8	( 8,944)
제한 있음	27.9	38.6	50.1	11.3	48.0	( 1,461)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408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 4,183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표 II-11-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대상자수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체	25.2	39.5	54.6	6.0	61.7	(10,404)
지역						
동부	23.6	44.7	49.2	6.2	63.3	( 7,060)
읍·면부	28.6	30.4	64.0	5.7	58.1	( 3,344)
성						
남자	28.6	40.9	54.0	5.1	68.4	( 4,481)
여자	22.7	38.1	55.0	6.9	56.6	( 5,923)
연령						
65~69세	23.0	38.8	53.2	7.9	73.1	( 3,014)
70~74세	27.3	39.0	55.5	5.4	64.8	( 3,223)
75~79세	27.6	39.1	55.9	5.0	56.5	( 2,390)
80~84세	24.2	46.4	48.6	5.0	49.0	( 1,162)
85세 이상	17.9	31.5	62.2	6.3	32.4	( 61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7.8	41.3	53.0	5.6	66.5	( 7,013)
배우자 없음	19.8	34.0	59.0	7.0	51.6	( 3,392)
가구형태						
노인독거	21.7	35.0	58.3	6.7	52.5	( 2,066)
노인부부	29.3	41.4	53.7	4.9	66.2	( 5,049)
자녀동거	21.1	39.2	52.2	8.6	60.0	( 2,812)
기타	21.6	32.7	64.4	2.9	63.5	( 47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8.3	36.5	57.2	6.3	43.9	( 1,139)
무학(글자해독)	19.2	34.5	58.7	6.8	52.6	( 2,161)
초등학교	23.6	35.9	58.4	5.6	60.2	( 3,690)
중·고등학교	29.3	41.8	51.2	7.0	72.4	( 2,690)
전문대학 이상	47.4	50.6	46.2	3.2	83.8	( 7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0	35.9	58.9	5.2	66.9	( 3,485)
미취업	23.8	41.6	51.9	6.5	59.0	( 6,919)
연구구소속						
제1오분위	19.4	35.0	58.1	6.9	50.9	( 2,105)
제2오분위	23.2	40.7	53.1	6.2	58.9	( 2,098)
제3오분위	27.8	37.6	56.8	5.5	65.6	( 2,081)
제4오분위	24.0	37.9	55.4	6.7	63.5	( 2,054)
제5오분위	31.9	44.2	50.8	5.0	69.6	( 2,0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6.9	39.3	55.1	5.6	64.8	( 8,944)
제한 있음	14.9	41.1	48.4	10.5	42.5	( 1,460)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408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 2,625명 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 7. 관심사와 정책적 우선순위

노인의 현재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1.3%에 달하고 있다.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18.0%이다. 별다른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응답은 11.9%이다.

이러한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경제적 고민이, 읍·면부 노인은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악화를 좀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악화를 좀 더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연령이 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및 기능 악화를 염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65~69세 군에서는 자녀의 결혼이라는 응답이 4.3%로 나타나, 아직 결혼을 시키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 노인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별다른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13.7%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8.2%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유사한 경향으로, 노인부부의 경우 동 비율이 14.7%로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에게서 별다른 걱정거리나 고민이 없다는 응답이 높으며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를 언급하는 비율이 낮다. 가구소득별로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낮은 경향을 갖고 있다.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미취업 노인에 비하여 걱정거리나 고민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대신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악화를 우려하는 비율은 낮다. 이러한 경향은 기능상태에 따른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기능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걱정거리나 고민이 없다는 응답이 높지만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악화를 우려하는 비율은 낮다(표 II-11-33~표 II-11-37 참조).

한편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표 II-11-38〉에 의하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소득보장으로 31.8%, 다음이 의료서비스 26.1%, 수발서비스 18.7%, 경제활동지원 9.4%, 여가생활지원서비스



9.0%, 노후주거지원 3.9%, 기타 1.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은 소득과 건강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이다. 2순위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35.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수발서비스로 20.4%, 경제활동 지원이 10.3%, 소득보장이 10.2%이다(부표 II-11-3).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읍·면부에서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응답률이 높고 동부에서는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연령이 높은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인에게서 수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 또한 여자인의 연령이 높고 여자가 수발의 주체였던 경험 때문에 자신이 수발이 필요할 때 누가 수발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군별로는 전기노인에게서는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에 후기노인은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소득보장보다 수발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 커 수발서비스가 1위, 의료서비스가 2위로 나타났다.

〈표 II-11-3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11.9	11.4	12.9	16.2	8.6
배우자와의 관계	1.3	1.3	1.3	1.5	1.2
자녀와의 관계	4.5	4.4	4.8	3.7	5.2
친구와의 관계	0.2	0.2	0.2	0.3	0.1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	51.3	49.5	55.2	47.0	54.6
경제적 어려움	18.0	19.8	14.2	18.9	17.4
주거문제	1.0	1.2	0.6	0.9	1.2
소외 및 고독감	2.6	2.6	2.8	2.5	2.8
무료함	1.8	2.2	1.0	2.6	1.2
기타	1.6	1.8	1.1	1.7	1.5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	1.6	1.5	1.7	1.7	1.5
자녀의 건강 및 기능 악화	0.7	0.7	0.7	0.5	0.9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0.7	0.6	0.8	0.3	0.9
자녀결혼	2.7	2.8	2.7	2.2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7,144)	( 3,395)	( 4,548)	( 5,99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1-3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11.9	15.5	11.2	9.8	9.4	10.0
배우자와의 관계	1.3	1.5	1.6	0.9	1.3	0.7
자녀와의 관계	4.5	5.7	5.1	3.6	3.0	2.1
친구와의 관계	0.2	0.2	0.3	0.1	0.2	0.0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	51.3	42.9	50.6	58.3	57.4	59.5
경제적 어려움	18.0	20.8	18.9	15.6	15.8	12.7
주거문제	1.0	0.8	1.0	1.3	0.9	1.5
소외 및 고독감	2.6	2.2	2.2	2.5	4.2	4.6
무료함	1.8	1.6	1.3	2.0	2.6	3.3
기타	1.6	2.4	1.4	1.1	1.0	0.8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	1.6	1.2	1.9	1.5	1.5	2.0
자녀의 건강 및 기능 악화	0.7	0.3	0.7	1.0	1.1	1.1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0.7	0.6	0.7	0.8	0.4	0.3
자녀결혼	2.7	4.3	2.9	1.5	1.1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3,148)	( 3,230)	( 2,388)	( 1,161)	( 61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1-35〉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11.9	13.7	8.2	8.1	14.7	10.1	9.9
배우자와의 관계	1.3	1.9	0.1	0.1	2.0	1.0	0.6
자녀와의 관계	4.5	4.5	4.7	3.6	2.9	7.8	6.4
친구와의 관계	0.2	0.1	0.3	0.2	0.2	0.2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	51.3	51.2	51.5	53.0	54.5	46.7	38.0
경제적 어려움	18.0	17.5	19.1	20.6	16.9	16.8	26.1
주거문제	1.0	0.8	1.6	1.5	0.7	1.1	2.5
소외 및 고독감	2.6	1.0	6.1	8.4	0.9	1.4	2.7
무료함	1.8	1.9	1.6	1.3	1.6	2.1	3.7
기타	1.6	1.6	1.4	0.9	1.0	2.4	5.7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	1.6	2.3	0.1	0.0	2.7	0.8	1.4
자녀의 건강 및 기능 악화	0.7	0.5	1.2	0.5	0.2	1.8	0.8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0.7	0.6	0.8	0.7	0.4	0.9	0.6
자녀결혼	2.7	2.5	3.2	1.0	1.3	6.7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7,120)	( 3,418)	( 2,086)	( 5,119)	( 2,845)	( 48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1-36〉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전문대학 이상	취업중	미취업
없음	11.9	7.9	9.3	9.4	15.1	26.8	16.8	9.4
배우자와의 관계	1.3	0.6	1.1	1.4	1.8	0.8	1.5	1.2
자녀와의 관계	4.5	5.1	3.9	5.1	4.6	2.3	5.6	4.0
친구와의 관계	0.2	0.0	0.1	0.1	0.2	0.7	0.2	0.2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	51.3	54.3	55.0	53.1	46.7	44.1	43.4	55.4
경제적 어려움	18.0	18.8	18.6	18.3	19.0	10.2	19.5	17.3
주거문제	1.0	1.5	1.1	0.9	1.1	0.7	1.3	0.9
소외 및 고독감	2.6	3.7	2.8	2.5	2.2	2.9	2.7	2.6
무료함	1.8	0.9	1.1	1.9	2.4	2.7	0.6	2.4
기타	1.6	0.8	1.1	1.3	2.4	2.6	1.6	1.6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	1.6	1.5	1.3	1.5	1.6	3.1	1.9	1.4
자녀의 건강 및 기능 악화	0.7	0.6	1.2	0.5	0.4	1.2	0.8	0.7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0.7	1.1	1.0	0.5	0.4	0.4	0.9	0.5
자녀결혼	2.7	3.3	2.2	3.5	2.1	1.4	3.3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1,144)	( 2,180)	( 3,742)	( 2,737)	( 734)	( 3,567)	( 6,97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II-11-37〉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가구소득					기능상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없음	11.9	7.1	7.5	11.7	15.3	17.9	13.1	4.3
배우자와의 관계	1.3	0.8	1.3	1.4	1.3	1.8	1.4	0.8
자녀와의 관계	4.5	3.2	4.0	3.7	5.4	6.4	4.9	2.4
친구와의 관계	0.2	0.1	0.1	0.3	0.2	0.1	0.2	0.3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	51.3	51.4	55.5	54.1	47.8	47.8	48.7	67.8
경제적 어려움	18.0	27.0	21.2	16.9	14.8	10.0	18.5	15.2
주거문제	1.0	1.1	1.0	1.2	1.0	0.9	1.1	0.9
소외 및 고독감	2.6	4.9	2.6	1.9	2.0	1.9	2.6	2.7
무료함	1.8	1.1	1.4	1.7	2.1	2.9	1.8	2.0
기타	1.6	0.7	1.0	1.3	2.8	2.1	1.7	1.0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	1.6	0.9	1.4	2.5	1.9	1.2	1.8	0.3
자녀의 건강 및 기능 악화	0.7	0.5	0.7	0.7	0.9	0.9	0.7	0.6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0.7	0.7	0.6	0.7	0.4	0.9	0.7	0.1
자녀결혼	2.7	0.7	1.7	2.0	4.0	5.3	2.9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0)	( 2,114)	( 2,121)	( 2,098)	( 2,115)	( 2,094)	( 9,072)	( 1,46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수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독거노인에게서 소득보장과 수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다른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 특히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게서는 경제활동 지원 및 여가생활지원 서비스 등 활기찬 사회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수준은 낮고 여가생활지원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와 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서 의료서비스 및 수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II-11-3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1순위)

(단위: %, 명)

특성	소득보장	수발서비스	여가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경제활동지원	노후주거지원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31.8	18.7	9.0	26.1	9.4	3.9	1.1	100.0 (10,485)
지역								
동부	31.6	17.4	10.1	25.1	10.7	3.9	1.3	100.0 ( 7,122)
읍·면부	32.3	21.5	6.7	28.3	6.8	3.7	0.6	100.0 ( 3,363)
성								
남자	33.7	14.2	9.9	25.4	11.9	3.5	1.5	100.0 ( 4,527)
여자	30.4	22.1	8.3	26.7	7.6	4.1	0.8	100.0 ( 5,958)
연령								
65~69세	34.2	12.3	10.9	24.0	13.6	3.8	1.2	100.0 ( 3,140)
70~74세	33.8	15.7	8.5	27.4	10.5	3.0	1.1	100.0 ( 3,210)
75~79세	30.7	21.0	8.4	26.5	7.2	5.2	1.1	100.0 ( 2,376)
80~84세	27.3	29.6	6.9	27.4	4.0	3.8	1.0	100.0 ( 1,150)
85세 이상	21.8	38.1	7.8	27.1	1.5	3.3	0.5	100.0 ( 60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3	16.9	9.8	26.6	10.9	3.3	1.3	100.0 ( 7,084)
배우자 없음	32.8	22.5	7.3	25.2	6.4	5.1	0.8	100.0 ( 3,400)
가구형태								
노인독거	33.9	21.7	6.7	24.4	6.5	5.8	0.8	100.0 ( 2,076)
노인부부	31.6	17.4	9.8	26.8	10.4	3.0	1.0	100.0 ( 5,091)
자녀동거	29.7	19.2	9.6	26.7	9.3	4.0	1.5	100.0 ( 2,834)
기타	37.9	15.3	6.8	22.6	13.5	3.5	0.8	100.0 ( 483)

특성	소득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생활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활동 지원	노후주거 지원	기타	계 (명)
<b>교육수준</b>								
무학(글자모름)	30.2	26.6	3.6	28.9	5.6	4.7	0.4	100.0 ( 1,131)
무학(글자해독)	31.7	21.5	6.4	27.8	7.7	4.2	0.7	100.0 ( 2,167)
초등학교	34.0	18.5	9.3	25.1	8.8	3.5	0.9	100.0 ( 3,725)
중·고등학교	32.2	13.8	10.7	25.7	12.4	3.8	1.4	100.0 ( 2,722)
전문대학 이상	21.9	17.3	16.9	24.1	12.7	3.7	3.5	100.0 ( 736)
<b>현 취업상태</b>								
취업중	37.1	12.8	7.4	24.4	13.7	3.5	1.1	100.0 ( 3,544)
미취업	29.1	21.7	9.8	27.0	7.2	4.0	1.1	100.0 ( 6,941)
<b>연가구소득</b>								
제1오분위	37.3	20.7	5.0	25.3	6.3	4.9	0.4	100.0 ( 2,100)
제2오분위	35.7	19.1	6.0	26.1	9.6	3.1	0.4	100.0 ( 2,108)
제3오분위	31.4	17.1	9.9	25.9	11.4	3.3	1.0	100.0 ( 2,088)
제4오분위	31.3	17.7	10.2	25.3	9.0	5.1	1.2	100.0 ( 2,102)
제5오분위	23.1	18.8	13.9	28.0	10.9	2.7	2.5	100.0 ( 2,086)
<b>기능상태</b>								
제한 없음	32.3	16.5	9.9	25.7	10.4	4.0	1.2	100.0 ( 9,028)
제한 있음	28.9	32.4	3.6	28.2	3.2	3.2	0.5	100.0 ( 1,45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순위를 정할 수 없어 '0'으로 응답한 사람과 무응답자 43명을 제외함.

한편 필요한 노인용품으로는 43.0%가 노인용 의약품, 25.6%가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11.3%가 노인건강용품을 언급하고 있다. 주거설비용품, 일상용품, 가사용품, 화장품 등을 언급한 비율은 5% 미만이다(표 II-11-38~표II-11-43 참조). 2순위의 경우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 제일 응답률이 높고 다음이 의약품과 건강용품이어서 노인용품관련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II-11-4~부표 II-11-8 참조).

제특성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읍·면부 거주 노인이 노인용 의약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층에서 노인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노인용 의약품과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노인 건강용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독거노인은 노인용 의약품과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낮고 건강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그 정도는 약하지만 가구

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노인이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에 관심이 높다.

〈표 II-11-3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6.3	6.4	6.1	8.6	4.5
노인용 의약품	43.0	41.4	46.3	40.6	44.8
노화방지 화장품	2.4	2.5	2.2	0.8	3.6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25.6	27.0	22.8	25.7	25.5
노인 건강 용품	11.3	11.4	10.9	14.3	9.0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4.7	4.2	5.8	3.9	5.3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2.9	2.8	3.1	1.8	3.8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3.8	4.3	2.8	4.3	3.4
기타	0.1	0.1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0)	( 7,124)	( 3,385)	( 4,533)	( 5,97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4명을 제외함.

〈표 II-11-4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6.3	8.0	6.1	5.4	4.4	5.4
노인용 의약품	43.0	39.3	42.9	44.7	47.9	47.0
노화방지 화장품	2.4	4.3	2.0	1.6	0.7	0.8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25.6	24.1	24.6	27.1	28.5	27.1
노인 건강 용품	11.3	12.8	11.9	10.3	8.6	8.9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4.7	3.5	4.7	5.4	5.4	6.7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2.9	3.5	3.3	2.7	1.2	1.6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3.8	4.5	4.4	2.6	3.3	2.3
기타	0.1	0.0	0.2	0.2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0)	( 3,143)	( 3,215)	( 2,385)	( 1,157)	( 60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4명을 제외함.

〈표 II-11-41〉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6.3	7.4	3.9	4.2	7.6	5.6	4.9
노인용 의약품	43.0	41.2	46.8	45.4	41.1	45.2	39.8
노화방지 화장품	2.4	2.7	1.8	1.7	2.7	2.6	0.8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25.6	24.2	28.5	30.1	24.5	24.8	22.8
노인 건강 용품	11.3	13.1	7.4	7.6	13.1	10.0	15.6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4.7	4.4	5.4	5.1	4.7	4.1	7.0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2.9	2.8	3.1	3.0	2.5	3.5	3.5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3.8	4.1	3.0	2.9	3.8	4.2	5.5
기타	0.1	0.1	0.1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0)	( 7,099)	( 3,411)	( 2,082)	( 5,108)	( 2,837)	( 48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4명을 제외함.

〈표 II-11-4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취업중	미취업
없음	6.3	4.2	4.0	4.8	8.9	14.0	7.6	5.6
노인용 의약품	43.0	50.4	47.6	44.9	36.6	31.5	41.4	43.8
노화방지 화장품	2.4	1.2	1.8	2.4	3.2	2.7	2.6	2.2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25.6	25.3	26.0	25.7	26.1	22.8	25.3	25.7
노인 건강 용품	11.3	7.0	8.7	11.0	13.6	18.1	11.4	11.2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4.7	6.4	6.4	4.2	3.5	3.7	4.3	4.9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2.9	2.3	2.6	3.1	2.8	4.4	2.8	2.9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3.8	3.0	2.7	3.8	5.3	2.9	4.4	3.5
기타	0.1	0.1	0.0	0.2	0.0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0)	( 1,138)	( 2,177)	( 3,733)	( 2,729)	( 731)	( 3,559)	( 6,95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4명을 제외함.

〈표 II-11-43〉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가구소득					기능상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없음	6.3	4.6	4.9	5.2	8.1	8.7	6.7	3.5
노인용 의약품	43.0	45.6	47.8	43.3	39.6	38.6	41.6	51.5
노화방지 화장품	2.4	1.7	1.2	2.6	2.9	3.5	2.6	0.8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25.6	31.1	24.3	24.9	22.2	25.4	26.3	21.1
노인 건강 용품	11.3	6.2	10.2	13.1	15.4	11.5	11.2	11.6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4.7	5.4	5.2	4.6	4.8	3.5	4.3	7.5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2.9	2.5	2.9	2.6	2.8	3.8	3.2	1.3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3.8	2.9	3.4	3.7	3.7	5.1	4.0	2.7
기타	0.1	0.0	0.0	0.0	0.3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0)	( 2,108)	( 2,117)	( 2,094)	( 2,109)	( 2,083)	( 9,049)	( 1,46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4명을 제외함.

또한 서비스와 관련한 노인의 관심을 살펴보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압도적이어서 56.7%에 달하고 있다. 다음은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로 11.5%, 금융·자산관리서비스 6.8%이다. 나머지는 모두 5%미만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표 II-11-44~표 II-11-48). 제2순위의 경우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건강관리서비스, 일상생활도우미 서비스 등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어 건강관리 서비스 다음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다(부표 II-11-9~부표 II-11-13 참조).

이를 계층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에서는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읍·면부 노인보다 높아 각각 8.1%와 4.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여자노인은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남자 노인은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령군별로는 전기노인에게서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후기노인에게서는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즉 용품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른 선호가 분명한 것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사한 맥락에서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금융·자산관리서비스와 문화여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는 금융·자산관리서비스가 12.7%로 글자를 모르는 무학노인의 3.4%보다 월등히 높으며, 문화여가서비스도 6.6%로 글자를 모르는 무학노인의 1.1%에 비하여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욕구 뿐만 아니라 상위욕구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에게서는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미취업 노인은 일상활동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월등히 높아 23.5%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는 노인의 제특성과 무관하게 압도적인 노인의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1-44〉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4.4	4.3	4.7	5.2	3.8
건강관리 서비스	56.7	56.0	58.1	56.0	57.2
문화여가 서비스	2.9	3.2	2.4	3.6	2.4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6.8	8.1	4.1	9.3	4.9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2.1	2.4	1.4	2.2	2.0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1.5	11.0	12.6	8.4	13.9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7.7	6.9	9.4	7.5	7.9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4.5	4.1	5.3	3.5	5.3
정보컨텐츠서비스	1.4	1.8	0.5	1.7	1.2
영농지원서비스	1.0	1.0	0.9	1.7	0.4
미용서비스	0.8	0.8	0.6	0.5	1.0
기타	0.2	0.3	0.0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8)	( 7,133)	( 3,385)	( 4,537)	( 5,98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6명을 제외함.

〈표 II-11-4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4.4	5.1	3.4	5.1	4.6	3.3
건강관리 서비스	56.7	57.0	59.5	56.5	54.3	45.2
문화여가 서비스	2.9	4.2	2.7	2.4	1.9	1.5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6.8	10.8	6.4	4.9	3.3	3.0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2.1	1.3	1.9	1.6	2.9	7.9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1.5	6.8	9.7	14.0	17.8	24.0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7.7	5.8	7.8	8.3	9.7	10.3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4.5	4.3	4.7	4.9	4.2	4.1
정보컨텐츠서비스	1.4	1.8	1.6	1.3	0.3	0.5
영농지원서비스	1.0	1.5	1.2	0.5	0.2	0.0
미용서비스	0.8	0.8	1.0	0.5	0.8	0.3
기타	0.2	0.4	0.1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8)	( 3,147)	( 3,218)	( 2,388)	( 1,156)	( 60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6명을 제외함.

〈표 II-11-46〉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4.4	4.8	3.6	3.6	5.1	4.2	3.1
건강관리 서비스	56.7	57.4	55.2	53.7	57.7	57.7	52.0
문화여가 서비스	2.9	3.4	1.9	1.8	3.3	2.9	3.5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6.8	8.1	4.2	4.3	7.2	7.3	10.9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2.1	1.6	3.0	2.2	1.8	2.4	3.1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1.5	9.8	15.2	17.4	9.8	9.8	14.0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7.7	7.5	8.1	7.6	7.6	8.1	7.0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4.5	3.6	6.4	7.4	3.8	3.7	4.5
정보컨텐츠서비스	1.4	1.7	0.7	0.3	1.8	1.6	0.4
영농지원서비스	1.0	1.3	0.4	0.4	1.2	1.2	0.0
미용서비스	0.8	0.6	1.0	1.2	0.5	0.7	1.4
기타	0.2	0.2	0.1	0.2	0.1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8)	( 7,104)	( 3,412)	( 2,081)	( 5,108)	( 2,839)	( 48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6명을 제외함.

〈표 II-11-4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취업중	미취업
없음	4.4	4.3	4.2	3.8	5.1	6.3	5.7	3.8
건강관리 서비스	56.7	53.4	55.5	60.1	57.3	45.2	57.5	56.2
문화여가 서비스	2.9	1.1	2.0	2.3	4.2	6.6	2.6	3.1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6.8	3.4	4.3	5.8	10.2	12.7	8.6	5.9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2.1	1.7	3.4	1.4	2.0	2.5	1.5	2.4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1.5	17.6	14.0	11.0	7.7	11.5	7.2	13.7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7.7	9.7	8.7	8.5	5.6	5.5	8.1	7.5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4.5	6.7	5.9	3.9	3.8	2.6	5.1	4.2
정보컨텐츠서비스	1.4	0.5	0.6	1.3	1.8	4.0	1.4	1.4
영농지원서비스	1.0	0.4	0.3	0.9	1.6	2.0	1.5	0.7
미용서비스	0.8	1.2	0.9	0.8	0.5	0.3	0.7	0.8
기타	0.2	0.1	0.2	0.2	0.0	1.0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8)	( 1,139)	( 2,178)	( 3,738)	( 2,731)	( 732)	( 3,564)	( 6,95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6명을 제외함.

〈표 II-11-48〉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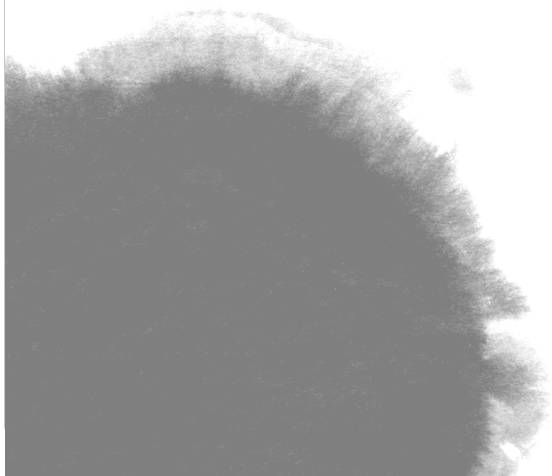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가구소득					기능상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없음	4.4	4.3	3.2	3.4	5.1	6.2	4.8	2.1
건강관리 서비스	56.7	52.9	58.4	59.3	56.3	56.3	57.3	52.8
문화여가 서비스	2.9	0.9	1.5	3.5	3.7	4.9	3.3	0.6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6.8	4.5	5.8	6.7	6.8	10.4	7.3	3.8
장요환경 및 장례서비스	2.1	2.7	2.3	1.2	2.3	1.8	1.9	3.4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1.5	17.6	11.6	11.4	9.9	7.1	9.6	23.5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7.7	7.8	10.2	6.2	8.0	6.3	7.7	7.5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4.5	7.3	4.4	4.3	3.9	2.7	4.5	4.7
정보컨텐츠서비스	1.4	0.3	0.5	2.2	1.9	2.2	1.5	0.5
영농지원서비스	1.0	0.6	0.8	1.1	1.3	1.2	1.1	0.5
미용서비스	0.8	1.1	1.2	0.4	0.6	0.5	0.8	0.5
기타	0.2	0.0	0.1	0.2	0.1	0.3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18)	( 2,108)	( 2,120)	( 2,094)	( 2,111)	( 2,088)	( 9,057)	( 1,46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6명을 제외함.

##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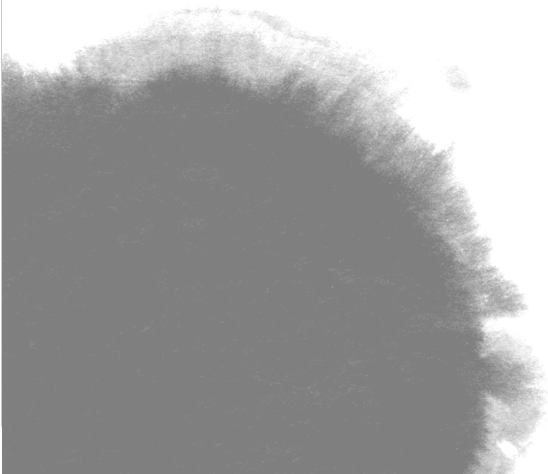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 태국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01

## 태국의 일반특성 및 가족사회적 관계







## 제1장 패널의 일반특성 및 가족·사회적 관계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2,567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15,146명을 1차년도 패널로 하여 향후 패널조사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일회씩 응답자의 주소 및 전화조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2011년 조사는 패널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3년 만에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는 2차년도 조사인 것이다.

본 패널의 경우 실태조사가 3년 만에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패널에 비하여 조사기간이 길다. 한국노동패널, 복지패널이나 의료패널은 매년, 국민노후보장패널이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년 단위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패널이나 의료패널처럼 매년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면접조사 사이에 안부전화, 선물발송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패널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 노인패널은 패널을 적절히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패널과는 달리 응답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망으로 인한 패널 유실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2011년도 조사는 제1편에서 정리된 것처럼 1차년도 패널의 71.1%의 패널유지율을 보였고, 〈표 III-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8년도 조사대상자 전체와 2011년에 조사가 실시된 대상자간에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2008년도 조사와 2011년도 조사 즉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패널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게 조사된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부록1 참조) 패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의 전체 응답자 15,146명 중 2008년에 이어 2011년 연속 조사가 된 패널은 10,003명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후엔 2008년 9,827명, 2011년 10,678명이 된

다. 이들 패널을 기초로 하여 패널 전체의 2008년과 2011년의 생활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sup>3)</sup>. 또한 개인단위의 변화를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있는 항목의 경우는 개인단위의 변화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 명)

구분	패널 1차년도(2008년) 응답자 전체	패널 1차년도(2008)과 2차년도(2011) 계속 응답자
지역		
동부	68.6	66.7
읍·면부	31.4	33.4
시군구		
서울	18.9	18.6
부산	7.6	7.6
대구	4.7	4.6
인천	4.4	4.9
광주	2.4	2.3
대전	2.4	2.2
울산	1.5	1.4
경기	18.4	17.4
강원	4.0	3.9
충북	3.6	3.7
충남	5.4	5.6
전북	5.1	5.2
전남	6.2	6.4
경북	7.4	7.6
경남	7.0	7.4
제주	1.2	1.4
성		
남자	42.6	41.0
여자	57.4	59.0
연령		
60~64세	28.7	26.8
65~69세	27.1	28.7
70~74세	20.3	22.9
75~79세	12.6	12.9
80~84세	6.9	5.8
85세 이상	4.5	3.0
(평균연령)	(69.8세)	(69.5세)

3) 분석시 각 문항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구분	패널 1차년도(2008년) 응답자 전체	패널 1차년도(2008)과 2차년도(2011) 계속 응답자
결혼상태		
유배우	69.9	71.5
무배우	30.0	28.5
가구형태		
노인독거	16.6	16.5
노인부부	47.3	49.3
자녀동거	29.9	28.5
기타	6.1	5.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8	11.0
무학(글자해독)	14.5	14.9
초등학교	37.7	39.9
중·고등학교	28.2	27.3
전문대학 이상	7.7	6.8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5	36.8
미취업	65.5	63.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2	78.9
제한 있음	76.8	21.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60.0	59.3
가구주의 배우자	30.2	32.5
가구주의 자녀	0.1	0.1
가구주 부모	9.4	7.9
가구주의 조부모	0.1	0.0
가구주의 형제자매	0.2	0.1
기타	0.0	-
가구원수		
1명	16.6	16.5
2명	51.8	53.8
3명	15.6	14.9
4명	7.0	6.4
5명	4.7	4.1
6명 이상	4.4	4.3
계	100.0	100.0
(명)	(15,146)	(9,827)

구분	패널 1차년도(2008년) 응답자 전체	패널 1차년도(2008년)과 2차년도(2011) 계속 응답자
배우자 건강상태		
매우 건강	5.3	4.6
건강한편	44.7	44.1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편	39.9	40.9
전혀 건강하지 않음	10.1	10.4
계	100.0	100.0
(명)	(10,511) <sup>1)</sup>	( 6,648) <sup>1)</sup>

주: 1) 본인응답자중 유배우 상태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제1절 주거 및 거주 실태

### 1. 주택 소유실태

2008년과 2011년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패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자가 77.5%, 전세 5.4%, 월세 8.1%, 기타 8.9%이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자가의 비율이 조금 줄고, 월세 및 기타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표 III-1-2 참조). 이를 패널 개인을 단위로 하여 3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가에서 전세, 월세 및 기타로 바뀐 경우 전체의 6.5%이며, 전세 월세 및 기타에서 자가로의 변화가 4.2%이다.

〈표 III-1-2〉 패널의 주택소유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3)</sup>
		자가 <sup>3)</sup>	전세	월세	기타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자가	73.4	1.0	0.9	4.6	80.0	77.5
	전세	1.7	3.6	1.1	0.6	6.9	5.4
	월세	0.5	0.5	5.2	0.3	6.4	8.1
	기타	2.0	0.2	0.9	3.5	6.7	8.9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3) 전세/월세 및 기타에 거주중이더라도 거주지 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자가로 분류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패널의 경우, 주택의 시가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22,139.9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는 15,812.3만원이었다. 2011년 기준으로 자가 시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에 5천만원 미만인 23.2%, 5천만원~1억이 20.4%, 1억~2억 미만 23.1%, 2억~3억 미만이 12.5%, 3억~5억 미만이 11.6%, 5억~8억 미만이 6.7%, 8억 이상이 2.5%이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패널의 주택의 시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자가 시가		
5천만원 미만	30.2	23.2
5천만원~1억 미만	26.0	20.4
1억~2억 미만	18.6	23.1
2억~3억 미만	8.8	12.5
3억~5억 미만	10.0	11.6
5억~8억 미만	5.2	6.7
8억 이상	1.2	2.5
(자가시가 평균액)	(15,812.3)	(22,139.9)
계	100.0	100.0

## 2. 주택종류

2011년의 패널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54.8%, 아파트 26.5%, 다세대주택 12.0%로 나타나 2008년도의 단독주택 57.3%, 아파트 24.6%, 연립주택 7.6%에 비하여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비율은 비슷하지만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패널의 거주 주택의 종류(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타 <sup>1)</sup>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단독주택	49.9	1.4	0.1	3.5	1.2	57.3	54.8
	아파트	0.7	23.2	0.3	0.8	0.1	24.6	26.5
	연립주택	0.4	1.0	2.8	3.6	0.1	7.6	3.9
	다세대	2.3	0.4	0.6	3.5	0.2	6.8	12.0
	기타 <sup>1)</sup>	1.8	0.4	0.0	0.4	1.1	3.7	2.8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 3. 거주형태

2008년과 2011년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패널의 2011년도 현재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18.6%, 노인부부가구 47.7%, 자녀동거가구 28.6%, 기타가구 5.0%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표 III-1-5 참조). 이러한 거주형태를 패널 개개인의 거주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한 패널은 17.2%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 독거생활을 하였고 2011년에도 독거인 경우는 14.6%, 노인부부가구 42.6%, 자녀동거가구 22.6%, 기타가구 2.8%였으나, 2011년도에 노인독거가구가 된 패널은 전체의 4.1%이다. 2008년도와 2011년도 계속 노인부부가구인 경우는 전체의 42.6%이며, 2008년도에 노인부부가구였으나 2011년도에 노인독거가구가 된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표 III-1-5〉 패널의 거주형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노인독거	14.6	0.2	1.0	0.2	16.5	18.6
	노인부부	2.6	42.6	3.6	0.6	49.3	47.7
	자녀동거	1.0	3.8	22.6	1.3	28.5	28.6
	기타	0.5	1.3	1.1	2.8	5.7	5.0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2008년도에도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던 패널과 그 이후에 새롭게 기혼자녀와 동거하기 시작한 패널을 구분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비교해보면, 계속 동거가구의 경우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은 반면, 신규 동거 패널은 18.0%에 불과해 차이를 보였다. 신규 동거 패널의 기혼자녀와의 동거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28.8%이며, 이는 계속 동거 패널의 9.8%와 차이를 보인다.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도움 제공이라는 응답은 계속 동거 패널의 경우 21.1%, 신규 동거 패널의 경우 23.0%로 비슷한 수준이며, 경제적 능력 부족이라는 응답은 계속 동거 패널 22.6%, 신규 동거 패널 11.4%로 차이를 보인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패널의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계속 동거 패널	신규 동거 패널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32.0	18.0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3.6	4.0
가사노동 부담	1.4	2.9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7.0	9.0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1	23.0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1.8	2.9
경제적 능력 부족	22.6	11.4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9.8	28.8
기타	0.8	0.0
계	100.0	100.0

## 제2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현황

패널의 가족 현황을 2011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존자녀가 있는 비율이 99.1%이며 생존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자녀수는 3.7명이다. 이는 2008년도의 3.8명에 비하여 약간 축소된 것이다. 또한 생존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94.1%로 2008년 당시의 92.3%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손자녀수도 6.3명에서 6.4명이 되었다. 반면 부모

생존율은 6.6%로 2008년도에 비하여 2.1%포인트 낮다. 반면 배우자 부모의 생존율은 8.5%로 부모 생존율보다 높으며 2008년도의 8.3%보다 0.2%포인트 높다. 또한 형제·자매 생존율은 83.2%로 2008년도에 비하여 약 2%포인트 낮으며, 생존 형제자매수는 3.3명이다.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이며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경우 그 수는 평균 2.5명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4.8%포인트 감소하였고 그 수도 4명에서 감소하여 패널의 노화의 진전에 따라 친인척의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친구·이웃의 경우는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다는 비율이 76.7%로 2008년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가까운 친구·이웃의 수는 5.2명에서 3.5명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III-1-7 참조).

〈표 III-1-7〉 패널의 가족현황(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생존자녀율	98.2	99.1
생존자녀 수 <sup>1)</sup>	3.8	3.7
생존 손자녀율	92.3	94.1
총손자녀 수 <sup>2)</sup>	6.3	6.4
부모 생존율 <sup>3)</sup>	8.7	6.6
배우자 부모 생존율 <sup>3)</sup>	8.3	8.5
형제·자매 생존율	85.1	83.2
생존 형제·자매수 <sup>4)</sup>	3.7	3.3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비율	60.0	55.2
가까운 친인척수 <sup>5)</sup>	4.0	2.5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76.9	76.7
가까운 친구·이웃수 <sup>6)</sup>	5.2	3.5
계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중 생존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중 생존 손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중 부모님 모두 혹은 아버님만, 어머님만 살아 계신다고 응답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4) 본인응답자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5) 본인응답자중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6) 본인응답자중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 2. 가족 및 친구·이웃과의 교류 실태

노인패널의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3회 왕래하는 비율이 39.0%로 2008년도의 35.0%보다 약간 높으며, 거의 매일 왕래하거나 반대로 왕래가 분기별 1회도 안 되는 경우는 낮다. 연락빈도의 경우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표 III-1-8 참조).

비동거 손자녀의 경우는 분기별 1,2회라는 응답률이 32.2%로 2008년도의 22.4%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진 반면 년 1,2회나 전혀 왕래가 없다는 응답은 감소하였다. 연락빈도의 경우 또한 분기별 1, 2회 이하로 왕래하는 비율이 66.7%로 2008년도의 54.3%보다 높아, 손자녀와의 교류가 2008년도에 비하여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 노인 자신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율이 93.4%로 2008년의 91.3%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생존 부모의 연령 또한 88.6세로 2008년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년의 시간 경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생존해있는 부모의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본인 부는 49.5%, 본인 모 54.8%, 배우자의 부 58.2%, 배우자의 모 63.3%인데 이는 2008년의 39.8%, 57.1%, 53.4%, 57.9%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노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존 부모와의 교류실태를 보면 본인 부모나 배우자 부모 모두 왕래나 연락빈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본인 부모의 경우 16.6% 배우자 부모의 경우 8.4%이며 이는 2008년의 20.1%와 14.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락빈도의 경우도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본인 부모 35.9%, 배우자 부모 21.1%로 2008년의 42.2%와 33.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빈도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표 III-1-9 참조).

친인척과의 교류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왕래가 아예 없는 비율이 14.2%이며 연락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0.7%인데 이는 2008년에는 각각 8.7%와 4.9%였던 것에 비하여 매우 높아진 수치이다(표 III-1-10 참조). 또한 〈표 III-1-11〉에 의하면, 친구·이웃과의 교류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 거의 매일 왕래한

다는 비율은 약간 높은데, 이는 노인의 노화에 따라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이웃과 대면접촉하는 기회가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1-8〉 2008년과 2011년 응답자의 비동거자녀·비동거손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단위: %)

구분	비동거자녀 <sup>1)</sup>		비동거손자녀 <sup>2)</sup>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b>왕래빈도</b>				
거의 매일	11.1	9.6	4.6	4.2
일주일 2,3회	14.0	15.1	3.8	4.1
일주일 1회	21.0	23.9	9.2	7.3
한달 1회	30.4	31.8	19.9	18.9
분기 1,2회	16.4	14.5	22.4	32.2
년 1,2회	6.2	4.2	34.6	30.5
왕래 없음	0.9	1.0	5.4	2.6
<b>연락빈도</b>				
거의 매일	25.8	24.8	5.4	3.2
일주일 2,3회	28.5	33.8	5.6	4.6
일주일 1회	26.2	25.3	11.6	7.8
한달 1회	15.2	12.1	23.0	17.6
분기 1,2회	2.6	2.5	15.7	21.1
년 1,2회	1.2	0.8	20.5	25.3
연락 없음	0.5	0.7	18.1	20.3
<b>계</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주: 1)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2) 비동거손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표 III-1-9〉 패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의 제특성(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부모 <sup>1)2)</sup>		배우자의 부모 <sup>3)</sup>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본인 부모				
부모 모두 생존	0.8	0.4	0.6	0.5
아버지만 생존	0.3	0.4	0.6	0.7
어머니만 생존	7.6	5.8	7.1	7.3
두분 모두 사망	91.3	93.4	91.0	91.5
부모 연령				
본인 부	87.0	88.6	85.7	89.0
본인 모	86.8	88.6	85.9	87.5
본인 부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6	0.5	7.8	1.0
건강한 편이다	58.6	50.1	38.8	40.7
건강이 나쁘다	26.6	37.7	34.2	39.5
건강이 매우 나쁘다	13.2	11.8	19.2	18.7
본인 모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5	1.1	3.3	0.2
건강한 편이다	40.4	44.1	38.8	36.5
건강이 나쁘다	35.7	33.9	35.7	39.8
건강이 매우 나쁘다	21.4	20.9	22.2	23.5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각 대상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중 유배우 상태이거나 사별상태인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I-1-10〉 패널의 비동거 부모·배우자의 부모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부모 <sup>1)</sup>		배우자의 부모 <sup>2)</sup>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왕래빈도				
거의 매일	7.6	4.8	3.5	1.7
일주일 2,3회	4.0	4.5	4.2	2.0
일주일 1회	8.5	7.3	7.2	4.7
한달 1회	26.6	24.3	20.5	18.7
분기 1,2회	18.2	22.4	21.8	21.5
년 1,2회	30.5	30.4	36.8	42.2
왕래 없음	4.5	6.4	5.9	9.3
연락빈도				
거의 매일	10.3	7.7	3.9	2.1
일주일 2,3회	10.6	8.3	11.2	6.3
일주일 1회	21.3	19.9	18.3	12.7
한달 1회	34.7	33.1	33.5	32.4
분기 1,2회	13.1	11.3	14.2	13.3
년 1,2회	6.4	8.7	12.5	13.5
연락 없음	3.5	11.0	6.4	19.8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중 비동거 부모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중 비동거 배우자부모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I-1-11〉 패널의 친인척(형제·자매포함) 및 친구·이웃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친인척(형제·자매포함) <sup>1)</sup>		친구·이웃 <sup>2)</sup>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왕래빈도				
거의 매일	3.9	3.8	35.9	42.1
일주일 2,3회	3.2	2.4	24.3	19.7
일주일 1회	3.9	3.5	17.0	14.1
한달 1회	12.8	11.6	16.2	13.8
분기 1,2회	18.6	22.9	4.2	3.1
년 1,2회	49.0	41.6	2.0	2.7
왕래 없음	8.7	14.2	0.4	4.5
연락빈도				
거의 매일	4.3	2.1	32.1	14.8
일주일 2,3회	5.0	4.8	28.3	18.3
일주일 1회	10.4	9.7	21.1	22.6
한달 1회	29.1	30.5	14.5	23.1
분기 1,2회	19.8	24.0	1.7	5.0
년 1,2회	26.4	18.2	0.9	3.4
연락 없음	4.9	10.7	1.4	12.8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중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이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중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 제3절 가족과의 부양의 교환

노인패널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과의 다양한 교환실태를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경제적 부양의 경우는 2008년과 2011년의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 1.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표 III-1-12〉에 의하면 패널의 64.1%는 동거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2008년의 81.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서적 지원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비율은 59.8%로 수혜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2008년도의 83.1%보다 낮다.

한편 도구적 도움의 경우는 패널의 57.9%가 도움을 받고 있고 62.6%는 제공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수혜율보다 제공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들의 2008년도 조사결과는 64.8%와 71.4%였다. 또한 패널이 간병·수발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58.7%이고 제공한 경우는 27.5%인데 이 또한 2008년의 73.4%와 62.7%보다 낮은 수치이다.

한편 비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패널의 70.0%가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은 61.3%이다. 이는 2008년도의 78.7%와 75.4%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사관련 도구적 도움의 경우 수혜율이 45.1%로 2008년의 39.8%보다 높는데 다른 도움의 교환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제공률이 12.1%로 2008년도의 23.6%에 비하여 낮다.

간병·수발 등의 도움의 경우 수혜율이 47.6%로 2008년의 47.1%와 유사한 수준이며 제공률은 8.0%로 2008년의 22.3%보다 급감하였다. 대체적으로 비동거자녀와의 도구적 도움의 수혜율은 약간 상승한 반면 제공률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생존해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비율은 크지 않다. 그러나 생존해있는 부모가 있는 노인패널의 경우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25.6%, 제공률은 39.9%, 가사관련 지원 수혜율은 7.9% 제공률은 32.5%, 간병·수발 등의 지원은 3.2% 제공률 43.5%이다. 이를 2008년과 비교해보면 각각 41.3%, 62.9%, 12.3%, 38.8%, 9.9%, 47.0%로 자녀와의 교환실태와 마찬가지로 약간 낮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II-1-13 참조).

## 3.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

배우자의 경우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86.1%로 2008년의 93.7%보다 낮아졌으며 제공률은 86.4%로 이 또한 2008년의 94.6%보다 낮다. 가사관련 지원의 수혜율은 74.5%이며 제공률은 69.7%로 2008년의 79.2%와 81.3%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병·수발 등의 지원은 수혜율과 제공률이 각각 69.2%와 70.1%인데 이 또한 2008년도의 83.8%와 87.3%보다 낮은 수준이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2〉 패널의 동거자녀·비동거자녀와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동거자녀 <sup>1)</sup>		비동거자녀 <sup>2)</sup>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정서적 지원 (고민상담)				
수혜				
매우 그렇다	16.0	12.4	14.5	11.6
그런 편이다	65.2	51.7	64.2	5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3	27.6	16.2	22.7
전혀 그렇지 않다	2.6	8.3	5.1	7.3
제공				
매우 그렇다	16.3	9.7	13.6	8.2
그런 편이다	66.8	50.1	61.8	5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3	31.8	19.2	29.4
전혀 그렇지 않다	1.6	8.5	5.4	9.3
도구적 지원 (청소·식사준비·세탁)				
수혜				
매우 그렇다	18.1	15.0	5.4	5.3
그런 편이다	46.7	42.9	34.4	3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7	29.3	34.9	38.8
전혀 그렇지 않다	9.5	12.7	25.4	16.1
제공				
매우 그렇다	29.1	22.7	3.4	1.5
그런 편이다	42.3	39.9	20.2	1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9	24.9	42.4	39.1
전혀 그렇지 않다	7.7	12.5	34.0	48.8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수혜				
매우 그렇다	19.0	13.9	9.5	7.1
그런 편이다	54.4	44.8	37.6	4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9	25.7	29.1	32.7
전혀 그렇지 않다	8.7	15.5	23.8	19.7
제공				
매우 그렇다	15.6	6.4	3.4	0.9
그런 편이다	47.1	21.1	18.9	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1	33.5	43.7	37.9
전혀 그렇지 않다	12.3	39.0	34.0	54.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중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I-1-13〉 패널의 부모와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sup>1)</sup>	2차년도(2011) <sup>1)</sup>
정서적 지원 (고민상담)		
수혜		
매우 그렇다	4.4	2.9
그런 편이다	36.9	2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7	38.9
전혀 그렇지 않다	17.0	35.5
제공		
매우 그렇다	9.8	6.8
그런 편이다	53.1	3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9	33.4
전혀 그렇지 않다	11.2	26.7
도구적 지원 (청소·식사준비·세탁)		
수혜		
매우 그렇다	1.0	0.3
그런 편이다	11.3	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6	28.4
전혀 그렇지 않다	47.0	63.7
제공		
매우 그렇다	9.4	8.6
그런 편이다	29.4	23.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2	26.7
전혀 그렇지 않다	29.1	40.8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수혜		
매우 그렇다	1.5	0.2
그런 편이다	8.4	3.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1	29.6
전혀 그렇지 않다	47.0	67.2
제공		
매우 그렇다	14.7	12.5
그런 편이다	32.3	3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0	27.7
전혀 그렇지 않다	26.1	28.8
계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중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I-1-14〉 패널의 배우자와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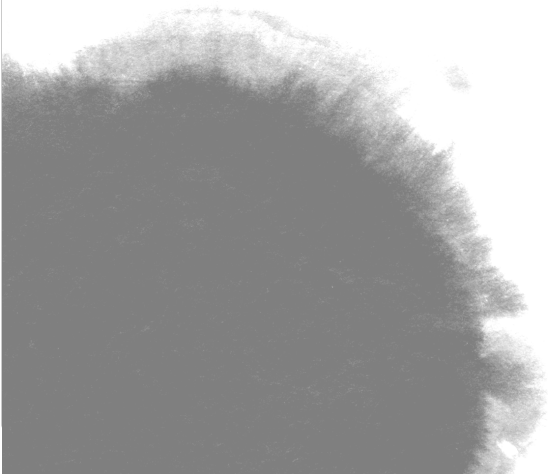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2008) <sup>1)</sup>	2차년도(2011) <sup>1)</sup>
정서적 지원 (고민상담)		
수혜		
매우 그렇다	33.0	20.2
그런 편이다	60.7	65.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	10.6
전혀 그렇지 않다	1.1	3.3
제공		
매우 그렇다	33.0	19.5
그런 편이다	61.6	6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	11.0
전혀 그렇지 않다	0.6	2.6
도구적 지원 (청소·식사준비·세탁)		
수혜		
매우 그렇다	34.5	34.7
그런 편이다	44.7	3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4	15.9
전혀 그렇지 않다	7.4	9.6
제공		
매우 그렇다	36.3	27.3
그런 편이다	45.0	4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1	22.1
전혀 그렇지 않다	4.7	8.3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수혜		
매우 그렇다	31.3	19.7
그런 편이다	52.5	4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1	19.9
전혀 그렇지 않다	6.1	11.0
제공		
매우 그렇다	34.1	18.8
그런 편이다	53.2	5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8.8	20.5
전혀 그렇지 않다	3.9	9.4
계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중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 02

## 태국의 경제상태





## 제2장 패널의 경제상태

### 제1 절 가구소득 및 지출실태

패널의 소득항목별 특징을 보면,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응답가구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는 62.8%이었으며, 재산소득은 26.9%, 사적이전소득은 85.2%, 공적이전소득은 91.5%, 기타소득은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2차년도에는 재산소득, 사적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 등의 임대증가로 인한 재산소득 가구의 증가(26.9%→36.5%) 및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적이전소득 가구(85.2%→95.7%), 기타소득 가구(7.2%→18.0%)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가구는 62.6%로 1차년도와 유사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86.7%로 1차년도 대비 4.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참고).

한편 패널의 가구소득항목별 변화양상을 보면, 우선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조사가구의 52.4%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소득활동에 참가한 가구는 10.5%로 나타났으나 소득활동을 중단한 가구도 10.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26.9%는 소득활동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 가구의 변화 양상을 보면, 17.1%가 지속적으로 금융, 부동산 등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재산소득 가구는 19.4%, 탈락된 가구는 9.8%, 재산소득이 없는 가구는 53.7%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은 83.0%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 19.4%, 탈락 9.8%로 나타났으며, 2.0%는 연속해서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은 81.1%가 연속해서 받고 있으며, 신규 진입 5.6%, 탈락 10.4%, 연속 없는 가구는 2.9%로에 이른다. 끝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연속 가구는 2.7%, 신규 15.4%, 탈락 4.2%였으며, 연속해서 없는 경우 77.7%로 높았다(표 III-2-2 참고).

〈표 III-2-1〉 패널의 소득항목별 소득이 있는 비율(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11년)
근로소득	62.8 <sup>1)</sup>	62.6 <sup>2)</sup> (40.5)
사업소득		(31.9)
재산소득	26.9 <sup>3)</sup>	36.5
사적이전소득	85.2	95.7
공적이전소득	91.5	86.7
기타소득	7.2	18.0
계 <sup>1)</sup>	100.0	100.0

주: 1) 2008년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항목이 없었으므로 근로소득사업 항목을 사용함

2) 201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 항목이 없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계산함.

〈표 III-2-2〉 패널의 소득항목별 변화 양상(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유→유	유→무	무→유	무→무	계
근로사업소득 <sup>1)</sup>	52.4	10.2	10.5	26.9	100.0
재산소득 <sup>2)</sup>	17.1	9.8	19.4	53.7	100.0
사적이전소득	83.0	2.2	12.8	2.0	100.0
공적이전소득	81.1	10.4	5.6	2.9	100.0
기타소득	2.7	4.2	15.4	77.7	100.0

주: 1) 201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 항목이 없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계산함.

2) 2008년도에는 재산소득 항목이 없었으므로, 금융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로 계산함.

가구소득의 규모와 구성비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가계상태변화 추이를 본 〈표 III-2-3〉에 의하면,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1.3만원에서 187.3만원으로 23.8% 증가하여 연평균 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은 소득증가분 보다 다소 높은 48.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성향이 64.0%에서 77.5%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4)</sup>.

4) 2008년 조사에서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11년에는 소비지출만을 조사하였다. 소비성향은 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표시함.

한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항목별 구성 현황을 보면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항목별 구성 변화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2008년 48.0%에서 2011년 40.3%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소득 또한 26.8%에서 25.1%로 1.7%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소득은 3.4%에서 8.6%, 공적이전소득은 20.6%에서 24.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2-3〉 패널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원, %)

구분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11년)	
	평균액수	구성비	평균액수	구성비
근로·사업소득	95.7	48.0	104.8	40.3
재산소득	6.2	3.4	18.5	8.6
사적이전소득	23.6	26.8	27.1	25.1
공적이전소득	22.9	20.6	34.2	24.3
기타소득	2.8	1.2	2.7	1.7
총소득	151.3	100.0	187.3	100.0
소비지출	96.8 (112.1) <sup>1)</sup>	-	145.1	-
소비성향(%)	64.0 (74.1) <sup>1)</sup>	-	77.5	-

주:1) ( )는 비소비지출을 포함하는 경우임.

## 제2절 주관적 경제상태 및 생활비 부담자

패널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2011년 기준 그저 그렇다가 48.1%이며,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포함하여 만족을 표한 패널이 6.1%이다. 반면 2008년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가 33.6%이며, 높은 편이다가 24.8%이고 매우 높다가 1.8%이다. 이러한 차이는 설문문의 내용이 바뀌어 높고 낮음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만족여부라는 주관적인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III-2-4 참고).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판단의 변화양상을 패널 개인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2008년도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우는 16.4%이며, 부정적으로 변화한 경우는 37.0%, 같은 경우는 46.6%이다(표 III-2-5 참조).

〈표 III-2-4〉 패널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sup>1)</sup>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11년)
매우 낮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0	10.0
낮은 편이다(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8.8	35.7
그저 그렇다(그저 그렇다)	33.6	48.1
높은 편이다(만족하는 편이다)	24.8	5.8
매우 높다(매우 만족한다)	1.8	0.3
계 <sup>2)</sup>	100.0	100.0

주: 1) 보기는 2011년 문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괄호 안에 2008년 보기를 작성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표 III-2-5〉 패널의 주관적 생활수준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부정	그저 그렇다	긍정	(100.0)	(100.0)
2008년도 <sup>1)</sup>	부정 <sup>3)</sup>	25.3	13.9	0.6	39.8	45.8
	그저 그렇다	13.8	17.8	1.9	33.6	48.1
	긍정	6.8	16.4	3.5	26.5	6.1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3) 긍정은 2008년의 경우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합한 것이며, 2011년의 경우는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는 합한 것임. 또한 부정은 2008년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합한 것이며, 2011년의 경우는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합한 것임

한편, 생활비의 주 부담자를 살펴본 〈표 III-2-6〉에 의하면 본인스스로라는 응답이 36.5%이며 다음이 따로 사는 (손)자녀로부터의 도움으로 21.3%, 배우자 18.5%, 동거 (손)자녀가 16.0%이다. 즉 패널 또는 패널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는 경우가 55.0%인데, 이는 2008년의 59.8%에 비하여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생활비 주 부담자의 변화양상을 패널 개인단위로 비교해본 〈표 III-2-7〉에 의하면 2008년도 2011년도 모두 독자형이 46.0%, 2008년도 독자형이었으나 2011년도 사



적·공적 의존형으로 바뀐 경우가 14.0%이다. 2008년 2011년 모두 사적의존형인 경우는 24.6%이며, 사적의존형에서 독자형으로 바뀐 경우가 7.6%. 공적의존형으로 바뀐 경우가 1.0%로 나타났다. 공적의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1%이며, 공적의존형에서 독자형으로 변한 경우가 1.5%. 사적의존형으로 변한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표 III-2-6〉 패널의 생활비 주 부담자(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11년)
본인 스스로	41.3	36.5
배우자	18.5	18.5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11.7	16.0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1.3	21.3
자녀이외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0.0	0.1
자녀이외 따로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0.3	0.2
정부 및 사회단체	6.8	7.1
기타	0.1	0.2
계	100.0	100.0

〈표 III-2-7〉 패널의 생활비 주 부담자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독자형	사적 의존형	공적 의존형	(100.0)	(100.0)
2008년도 <sup>1)</sup>	독자형 <sup>3)</sup>	46.0	12.0	2.0	59.9	55.1
	사적 의존형	7.6	24.6	1.0	33.3	37.8
	공적 의존형	1.5	1.2	4.1	6.8	7.1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3) 독자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 부담자인 경우, 사적 의존형은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친척/친지 등 가족이 주 부담자인 경우, 공적의존형은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이 주 부담자인 경우임.

### 제3절 개인소득과 자산 및 부채

계속응답 개인(본인)의 소득 항목별 구성차이를 보면, 1차년도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82.1%로 가장 많고, 사적이전소득 76.8%, 사업소득 21.2%, 재산소득 16.3%, 근로소득 13.6% 순이었다. 한편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개인의 비율이 각각 0.9% pt, 10.2% pt, 18.9% pt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소득, 공적소득의 비율은 각각 3.1% pt, 5.2% pt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수입 보유비율은 0.8%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8 참조).

한편 계속응답 개인(본인) 소득항목별 변화양상을 보면, 개인(본인)의 6.4%는 1, 2차년도 모두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차년도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은 8.3%, 근로활동을 중단한 경우는 7.3%로 나타났으며, 패널의 78.0%는 1, 2차년도 모두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1, 2차년도 모두 있는 경우 13.3%, 1차년도에는 있었으나 2차년도에 중단한 경우 7.9%, 신규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패널은 4.9%였으며, 74.4%는 1, 2차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였다.

재산소득 변화양상을 보면, 1, 2차년도 모두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본인)은 9.6%이었으며, 1차년도에는 재산소득이 있었으나 2차년도에 없는 개인은 6.6%, 신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17.9%로 높았으며, 1, 2차년도 모두 재산소득이 없는 개인은 65.9%로 나타났다.

1, 2차년도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개인은 74.4%, 2차년도에 사적이전소득이 없어진 개인은 2.4%에 불과하며, 신규로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6%로 높게 나타났으며, 2.6%는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의 변화양상을 보면, 1, 2차 모두 있는 경우 67.8%, 모두 없는 경우 8.9%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 개인(본인)의 24.3%는 2차년도 공적이전소득이 없어졌으며, 9.0%는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참조).

한편 개인소득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32.5%이다. 이는 2008년 소득에 비하여 공적 이전소득

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것인데 이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2-10 참조).

〈표 III-2-8〉 패널의 개인(본인)소득 구성항목별 있는 비율(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11년)
근로소득	13.6	14.7
사업소득	21.2	18.1
재산소득	16.3	27.5
사적이전소득	76.8	95.7
공적이전소득	82.1	76.9
기타수입	0.8	0.8
계	100.0	100.0

〈표 III-2-9〉 패널의 개인(본인)소득항목별 소유여부 변화 양상(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유→유	유→무	무→유	무→무	계
근로소득	6.4	7.3	8.3	78.0	100.0
사업소득	13.3	7.9	4.9	74.0	100.0
재산소득	9.6	6.6	17.9	65.9	100.0
사적이전소득	74.4	2.4	20.6	2.6	100.0
공적이전소득	67.8	24.3	9.0	8.9	100.0
기타수입	0.1	0.6	0.7	98.6	100.0

〈표 III-2-10〉 패널의 개인(본인)의 소득현황 및 구성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만원, %)

구분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11년)	
	평균액수	구성비	평균액수	구성비
근로소득	117.7	18.0	86.5	7.4
사업소득	272	41.5	154	9.5
금융소득	34.9	5.3	131.4	9.0
사적이전소득	213.4	32.6	207.4	39.8
공적이전소득	16.6	1.6	252.9	32.5
기타수입	0.2	0.0	3.7	0.3
기타소득	3.0	0.5	13.6	1.4

한편 패널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본 <표 III-2-11>에 의하면 부동산이 60.2%, 금융자산이 75.4%이다. 또한 부채가 있는 비율은 20.0%이다. 이러한 수준은 2008년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진 것인데, 2008년도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소득과 자산과 관련해서는 축소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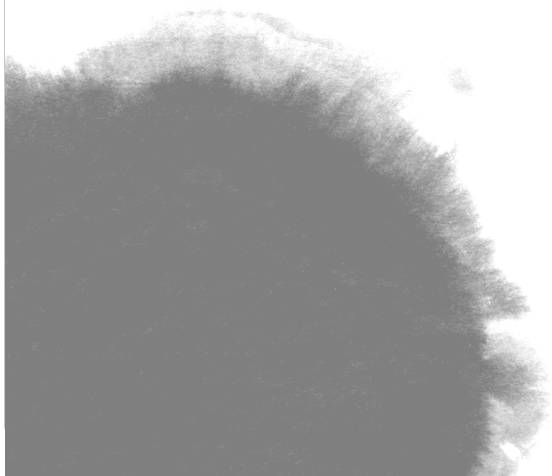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표 III-2-11> 패널의 부채 현황(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2008년) <sup>1)</sup>		2차년도(2011년) <sup>1)</sup>	
	소유율	금액	소유율	금액
부동산	43.2	17,072	60.2	23,472
금융자산	26.6	2,617	75.4	2,158
부채	15.0	2,546	20.0	5,785

## 03

## 태아의 건강 및 기능상태





## 제3장 패널의 건강 및 기능상태

### 제1 절 건강상태

#### 1.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2008년과 2011년의 인식도를 비교해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08년에는 49.8%이었으나, 2011년에는 33.9%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인식률은 2008년의 30.8%에 비하여 2011년은 이 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40.7%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III-3-1 참조).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만 갖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3년 전과 동일하게 평가한 경우는 38.7%이다. 3년 전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인식을 더 좋게 평가한 경우는 40.1%, 더 나쁘게 평가한 경우는 21.3%이다.

〈표 III-3-1〉 패널의 동년배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및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 수(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 년도 <sup>2)</sup>	2011 년도 <sup>2)</sup>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 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않다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매우 건강하다	0.5	1.9	0.5	0.1	0.0	2.9	3.7
	건강한 편이다	2.2	15.4	6.7	3.6	0.4	27.9	37.0
	보통이다	0.4	7.7	5.7	4.7	0.7	19.4	25.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0.4	10.6	10.9	15.4	2.7	40.6	28.5
	매우 건강하지 않다	0.1	1.1	1.8	4.9	1.7	9.2	5.4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 2. 객관적인 건강상태: 만성질환, 낙상 및 우울증상

패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만성질환, 낙상 및 우울증상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가 〈표 III-3-2〉 ~ 〈표 III-3-4〉에 제시되어 있다. 만성유병률과 만성질환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87.9%로 2008년에 82.4%보다 높다.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인 복합이환율도 2008년에 57%이었으나 2011년에 66.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패널의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 수(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없음	7.0	5.1	2.7	2.8	17.6	12.2
	1개	3.0	7.8	7.1	7.9	25.4	21.6
	2개	1.4	5.2	7.4	11.1	25.3	23.5
	3개 이상	0.8	3.3	6.3	21.3	31.7	42.8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만 갖고 분석한 만성질환 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수에 있어 3년 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43.5%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에 만성질환 수가 증가한 노인은 36.7%,



감소한 노인은 20%이다.

패널의 낙상률은 2011년도에는 20.7%로 2008년도의 14.8%에 비하여 약 5.9% 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2008년과 2011년의 우울증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우울증 유병률이 24.9%이었으나, 2011년에는 27.9%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II-3-3〉 패널의 낙상률·우울증상경험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구분	(단위: %)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낙상 경험률	14.8	20.7
우울증상 경험률	24.9	27.9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만 갖고 분석한 낙상률의 변화는 〈표 III-3-4〉와 같다. 2008년과 2011년 사이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은 69.3%이었다. 2008년에 낙상 경험이 없던 자가 3년 후 낙상을 경험한 경우는 15.9%이었다. 2008년에 낙상을 경험한 노인이 2011년에도 낙상을 경험한 경우는 5.0%이었다.

〈표 III-3-4〉 패널의 낙상률 및 우울증상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구분	유→유	유→무	무→유	무→무	계
낙상경험	5.0	9.9	15.9	69.3	100.0
우울증상	13.2	12.0	14.8	60.0	100.0

## 제2절 건강행태

### 1. 흡연 및 음주

패널의 2008년도와 2011년도의 흡연상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이 2008년도에는 18.2%, 2011년도에는 25.5%이다. 과거흡연율은 각각 68.1%, 61.4%로 3년 새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비흡연율은 2011년도에 13.2%로 2008년의

13.8%에 비하여 낮아졌다. 이를 흡연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비흡연으로 돌아선 노인이 전체의 3.7%이며, 비흡연자였던 노인이 비흡연을 유지한 경우는 57.5%이었으며, 비흡연에서 현재흡연은 1.5%이다(표 III-3-5 참조).

〈표 III-3-5〉 패널의 흡연상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비흡연	57.5	1.5	7.6	13.8	13.2
	현재흡연	0.8	10.6	3.0	18.2	25.5
	과거흡연	2.9	1.0	15.1	68.1	61.4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한편, 2008년과 2011년도 패널의 음주상태를 비교해보면, 두 조사 간에 비음주, 과음주, 적정음주의 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III-3-6 참조).

〈표 III-3-6〉 패널의 음주상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비음주	과음주	적정음주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비음주	54.5	8.2	1.2	64.6	64.9
	과음주	8.4	9.2	4.0	21.5	21.1
	적정음주	2.4	3.2	8.8	14.0	14.0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만 갖고 분석한 음주상태의 변화에 대한 결과, 음주상태에 있어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72.5%이었다. 2008년에 비음주 상태이었으나 3년 사이에 음주를 시작한 경우는 9.4%이었으며, 이 중 8.2%는 과음주 상태이었다. 음주를 하던 패널이 금주하게 된 경우는 10.8%이었다.

### 3. 건강검진

〈표 III-3-7〉에 의하면 패널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2008년도의 76.3%에서 2011년도에 82.1%로 증가하였다. 이를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만

갖고 분석한 건강검진 수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은 노인은 65.6%이다. 두 해 사이에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8%이었다. 검진을 받지 않았었으나 2011년도를 기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는 16%이었다. 과거에 검진을 받았던 노인 중 최근 검진을 받지 않은 노인은 10.4%이다.

〈표 III-3-7〉 패널의 건강검진 수진율(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검진	비검진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검진	65.6	10.4	76.3	82.1
	비검진	16.0	8.0	23.7	17.9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 제3절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2008년과 2011년 조사를 실시한 노인의 기능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력보조기를 사용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63.3%가 시력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 58.2%가 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과 저작능력의 경우 보조기를 사용한 비율이 2008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력과 저작기능 저하의 결과로 볼 수 있다(표 III-3-8 참조).

이를 패널 개인단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력 보조기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43.1%이며, 미사용하다가 사용하게 된 경우가 15.0%이다. 청력 보조기의 경우 지속적 사용자는 1.5%이며, 신규 사용자는 2.2%이고, 94.7%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능력 보조구의 경우 지속적 사용자는 37.7%이며, 신규 사용자는 13.5%이며, 미사용자는 38.6%이다(표 III-3-9 참조).

〈표 III-3-8〉 패널의 시력, 청력, 저작능력 상태 및 보조기 사용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시력 보조기(안경)사용률	63.3	58.2
청력 보조기(보청기)사용률	3.1	3.8
저작능력 보조기(틀니)사용률	48.1	51.0
계	100.0	100.0
(명)	(9,827)	(10,678)

〈표 III-3-9〉 패널의 보조기 사용실태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사용→ 사용	사용→ 미사용	미사용→ 사용	미사용→ 미사용	계
시력 보조기(안경)	43.1	20.7	15.0	21.2	100.0
청력 보조기(보청기)	1.5	1.5	2.2	94.7	100.0
저작능력 보조기(틀니)	37.7	10.2	13.5	38.6	100.0

신장과 체중은 2008년 패널 전체의 평균 신장은 158.2cm이며,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의 경우 158.0과 158.9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은 2008년도 59.6kg이었으나 2011년 63.9kg으로 약 4.3kg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한 BMI지수를 활용한 비만도를 살펴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계속 응답자의 경우 저체중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고 정상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과체중의 비만도 감소하여 비만도에 있어서는 저체중 또는 과체중/비만에서 정상의 비중이 높아져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0 참조).

2008년도와 2011년도 계속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패널은 전체의 26.1%이며, 정상체중에서 저체중으로 바뀐 패널은 2.7%, 정상에서 과체중 및 비만으로 옮겨간 패널은 6.9%이다(표 III-3-11 참조).

〈표 III-3-10〉 패널의 신장 및 체중과 비만정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cm, kg,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신장평균	158.0	158.9
체중평균	59.6	63.9

〈표 III-3-11〉 패널의 비만도의 변화(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2011년도 <sup>1)</sup>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저체중	정상	과체중	경도 비만	중증도 비만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저체중	1.9	2.0	0.1	0.1	0.0	6.2	5.4
	정상	2.7	26.1	5.4	1.5	0.0	35.0	40.9
	과체중	0.4	9.7	12.0	4.5	0.1	25.6	25.1
	경도비만	0.2	3.3	7.9	17.3	0.9	28.9	25.5
	중증도비만	0.0	0.1	0.2	2.0	1.4	4.3	3.2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패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패널이 2008년의 7.9%에서 2011년에는 조금 낮아진 7.2%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 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와 2차 계속 패널의 경우 비교적 건강한 노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3-12 참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 비율 또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2008년 19.3%에서 2011년 13.3%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를 종합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한 개 이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기능제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21.1%에서 2011년에는 동 비율이 14.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2〉 패널의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ADL 1개 이상 제한자	7.9	7.2
IADL 1개 이상 제한자	19.3	13.3
ADL+IADL 1개 이상 제한자	21.1	14.5
계	100.0	100.0

이러한 패널의 기능상태 변화를 정리하면 2008년과 2011년 모두 기능제한이 없는 패널은 전체의 72.7%이며, 2008년에는 기능제한이 없었으나 2011년도에 IADL만 제한이 있는 사람은 3.9%, ADL도 제한이 있는 패널은 2.7%이다(표 III-3-13 참조).

〈표 III-3-13〉 패널의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2011년도 <sup>1)</sup>			(단위: %)	
		기능 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2008년도 <sup>2)</sup>	2011년도 <sup>2)</sup>
					(100.0)	(100.0)
2008 년도 <sup>1)</sup>	기능 제한 없음	72.7	3.9	2.7	85.5	79.3
	IADL만 제한	8.8	2.3	1.8	7.3	12.9
	ADL만 제한	1.5	0.2	0.1	1.1	1.8
	IADL ADL 모두 제한	2.6	1.0	2.5	6.0	6.1

주: 1)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셀의 합은 100.0%임.

2)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로 종단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음.

노인의 인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11년 계속 응답을 한 자의 경우 2008년 22.3%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31.1%가 인지기능저하자로 나타났다. 즉, 지난 3년간 인지기능의 저하가 상당부분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MSE-KC의 평균점수는 2008년 24.2점에서 2011년 23.7로 나타났다(표 III-3-14 참조).

〈표 III-3-14〉 패널의 인지기능 저하자(MMSE-KC)(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인지기능저하자 비율	22.3	31.1
MMSE-KC 평균점수	24.2	23.7

〈표 III-3-15〉에 의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 중 수발을 받는 비율은 2008년 24.8%, 2011년 23.6%로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또한 앞서 기능상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능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제외되어 수발을 또한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주수발자는 2008년 패널의 87.2%는 가족, 외부서비스는 8.1%로 나타났으나, 1차와 2차 응답한 사람을 비교하면, 가족에 의한 수발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외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1차 조사가 있었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3년간 노인 수발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15〉 패널의 간병 수발 여부 및 주수발자(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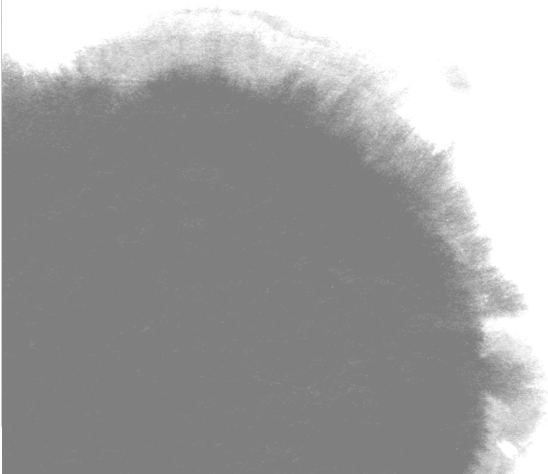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구분	(단위: %)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수발비율	24.8	23.6
수발자		
가족	86.8	71.3
외부서비스	9.2	11.4
가족+외부	-	14.0
기타	4.0	3.3
계	100.0	100.0





## 04

## 대중의 사회참여 현황





## 제4장 패널의 사회참여 실태

### 제1 절 경제활동

패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2008년의 36.8%에서 35.9%로 약간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의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다(표 III-4-1 참조).

〈표 III-4-1〉 패널의 경제활동 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구분	(단위: %, 만원)	
	1차년도(2008) <sup>1)</sup>	2차년도(2011) <sup>1)</sup>
경제활동 참가율	36.8	35.9
경제활동 참가자의 직종 분포		
관리자	2.0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	2.3
사무종사자	1.0	0.3
서비스종사자	3.9	5.4
판매종사자	6.0	7.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4.7	49.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5	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2	3.3
단순노무종사자	25.4	26.0
계	100.0	100.0

주: 1)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 III-4-2〉 패널의 경제활동의 변화 양상(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유→유	유→무	무→유	무→무	계
경제활동	27.0	9.4	8.8	54.8	100.0

패널의 경제활동현황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후 2011년 조사에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전체 패널 27.0%이며, 2008년과 2011년 2번의 조사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54.8%이다. 한편 2008년도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하고 있지 않은 패널은 9.4%이다. 반면 2008년 조사시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8.8%이다(표 III-4-2 참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패널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9.9%이며 다음이 용돈 마련으로 6.3%, 건강유지가 5.2%이다. 2011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하여 능력 및 경력 활용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어 3.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응답 양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표 III-4-3 참조).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패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7.1%인데 이는 2008년의 37.7%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가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39.7%에서 53.0%로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4-4 참조).

〈표 III-4-3〉 패널의 경제활동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생계비 마련	87.8	79.9
용돈 마련	3.0	6.3
건강유지	5.3	5.2
친교 사교	0.6	0.2
시간보내기	2.9	4.0
능력 및 경력 활용	-	3.7
기타	0.4	0.8
계	100.0	100.0

〈표 III-4-4〉 패널의 경제활동참여자의 만족도(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매우 만족한다	3.2	9.7
만족하는 편이다	36.5	43.3
그저 그렇다	37.7	27.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8.8	17.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7	2.7
계	100.0	100.0

조사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패널의 미참여 이유를 살펴본 〈표 III-4-5〉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일을 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매우 높아 45.4%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이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이다. 반면 2011년 조사에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제일 높은 응답율(32.9%)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율이 28.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참여희망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비 마련이라는 이유가 압도적이다(표 III-4-6 참조).

〈표 III-4-5〉 패널의 경제활동 미참여자의 미참여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sup>1)</sup>	2차년도(2011) <sup>2)</sup>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3.5	5.4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9.0	28.8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45.4	32.9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7.7	6.3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1.3	2.0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5.7	4.1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23.3	17.7
일자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1.2	1.8
내가 원하는 임금(보수)을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1.5	0.8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지 몰라서	0.8	0.0
기타	0.6	0.2
계	100.0	100.0

〈표 III-4-6〉 패널의 경제활동 참여희망자의 참여희망 이유(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47.3	55.2
용돈이 필요해서	21.9	19.7
건강유지를 위해서	15.5	9.9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3.9	1.8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	5.6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9.7	7.9
기타	1.7	-
계	100.0	100.0

## 제2절 여가문화활동

패널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의 긍정적인 태도가 2008년도에는 45.2%였으나, 2011년도에는 38.3%로 6.9%포인트 감소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부정적인 태도는 2008년 14.6%에서 2011년 30.3%로 15.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여가문화활동의 긍정적인 태도의 감소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 기대가 증가하였거나 실제적으로 여가시간을 더 소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부정적인 태도의 큰 증가는 ‘그저 그렇다’의 응답 감소 등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III-4-7 참조).

〈표 III-4-7〉 본인의 여가문화 만족정도(2008년도 및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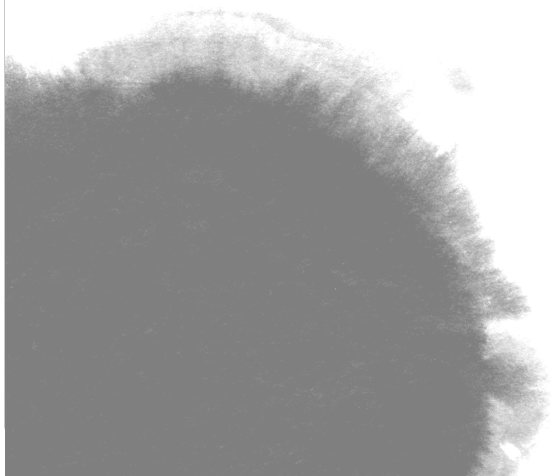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sup>1)</sup>	2008년도	2011년도
매우 만족한다	5.4	4.5
만족한다	39.8	33.8
그저 그렇다	40.2	31.4
만족하지 않는다	11.1	22.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5	7.5
계	100.0	100.0

주: 1) 2008년 조사는 현재의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이고, 2011년 조사는 현재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로 질문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음.

# 05

## 태국의 생활환경







## 제5장 태널의 생활환경

### 제1 절 생활현황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버스 53.7%, 지하철 14.9%, 자가용 14.2% 순이었다. 반면 2011년도에는 버스 48.5%, 자가용 19.2%, 지하철 19.2% 순으로 나타나, 버스이용률이 약간 줄고 자가용과 지하철 이용률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표 III-5-1 참조).

〈표 III-5-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008년도 및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구분	(단위: %)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없음	-	0.5
버스	53.7	48.5
지하철	14.9	19.2
택시	3.9	6.3
자가용	14.2	19.2
자전거	2.1	1.9
오토바이	3.1	3.0
전동휠체어	0.4	0.4
경운기	0.2	0.2
기타	-	0.7
걸어다님	7.5	-
계	100.0	100.0

외출 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2008년도 기준 42.8%, 2008년도 연속응답자 기준 43.6%, 2011년도 연속응답자 기준 42.2%로 나타나 비슷하지만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편함으로는 2008년 전체 기준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7.4%,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6.6%,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3.2% 순이었다. 2008년도 연속응답자 기준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7.0%,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3.1% 순이었으며, 2011년도 연속응답자 기준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6%,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1.6%,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멈 2.9% 순으로 나타나,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2 참조).

〈표 III-5-2〉 패널의 외출시 불편한 점(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불편함이 없음	43.6	42.2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17.0	11.6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6.9	26.6
고르지 못한 인도	2.4	2.3
짧은 횡단보도 신호	1.0	1.1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1.5	1.5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1.2	1.1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3.1	2.7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멈	2.3	2.9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듦	1.0	1.2
교통수단이 부족함	-	6.6
기타	-	0.2
계	100.0	100.0

집안 내 안전사고 발생여부에 대해 2008년도 1.2%이고 2011년 연속응답자 4.6%로 나타나, 2011년에 들어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험 역시 2011년 2.9%로 2008년도의 1.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2011년도의 경우 0.9%는 교통사고를 낸 경험을 하였으며, 1.7%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 0.2%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참조).

〈표 III-5-3〉 패널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 여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집안 내 안전사고 발생여부	1.2	4.6
교통사고 경험 여부	1.1	2.9
교통사고 낸	-	0.9
교통사고 당함	-	1.7
교통사고 내거나 당함	-	0.2
교통사고 없음	98.9	97.1
계	100.0	100.0

운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8년도 기준 15.0%, 2011년도 기준 13.5%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과거에 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08년도 기준 5.6%이며, 2011년도에는 1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은 줄었으나, 과거에 하다가 현재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 중에 평생 운전을 한 적 없다는 2008년도 94.4%에서 2011년도에는 90.0%로 낮아져, 평생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패널의 운전여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현재하고 있음	15.0	13.5
현재 안함	85.0	86.5
과거 한적 있으나 현재는 안함 <sup>1)</sup>	5.6	10.0
평생 한적 없음 <sup>1)</sup>	94.4	90.0
운전을 그만 둔 나이 <sup>2)</sup>	56.2	57.4
계	100.0	100.0

주: 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운전여부를 파악함.

2) 본인응답자 중 운전을 그만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 제2절 노인의 학대경험 및 학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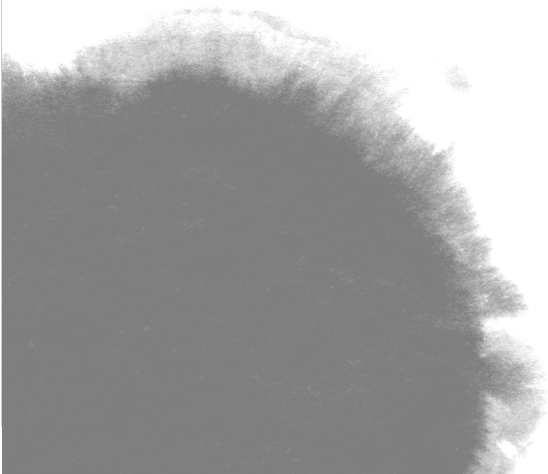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패널의 학대경험과 유형을 살펴본 〈표 III-5-5〉에 의하면 응답자 중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2008년 9.6%, 2011년에는 12.7%이다. 학대 유형별 학대 경험률을 비교해보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아 2011년 기준 9.7%이며 2008년에는 7.3%였다. 다음은 재정적 방임인데 2008년과 2011년 모두 2.4%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1.6%, 간병수발 등의 방임이 1.4%인데 이는 2008년의 1.4%와 1.2%에 비하여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표 III-5-5〉 패널의 학대경험 및 학대 유형(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1차년도(2008)	2차년도(2011)
학대경험률	9.6	12.7
학대유형별 경험률		
신체적학대	0.5	0.5
정서적학대	7.3	9.7
경제적학대	1.4	1.6
방임(간병수발)	1.2	1.4
방임(재정)	2.4	2.4
계	100.0	100.0

## 06

**태아의 가치관 및 복지서비스 관련 욕구**



## 제6장 패널의 가치관 및 복지서비스 관련 욕구

### 제1 절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 1.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008년과 2011년 계속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가 70~74세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많으며 2008년 51.0%, 2011년 59.4%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을 65~69세라고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24.3%에서 2011년 13.3%로 낮아졌고, 75~79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9.9%에서 11.3%, 80세~84세는 6.8%에서 12.1%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6-1 참조).

〈표 III-6-1〉 패널의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구분	(단위: %)	
	2008년도	2011년도
60세미만	0.3	0.0
60~64세	7.2	3.5
65~69세	24.3	12.9
70~74세	51.0	59.1
75~79세	9.9	11.3
80세 이상	7.3	13.3
계	100.0	100.0

## 2. 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2008년과 2011년 모두 본인스스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에는 본인스스로 57.5%, 자녀 9.3%, 국가적차원 32.9%, 2011년도 56.0% 자녀 13.5%, 국가적차원 30.3%로 국가적차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고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있어서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 증가 하였다(표 III-6-2 참조)

〈표 III-6-2〉 패널의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본인스스로	57.5	56.0
자녀	9.3	13.5
국가적차원	32.9	30.3
기타	0.3	0.3
계	100.0	100.0

## 제2절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패널의 인지도 및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패널의 67.6%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의 44.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며 참여율 또한 10.0%로 증가하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75.2%로 높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이다. 2008년도의 미참여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보다는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를 조금 더 많이 언급하였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인지도는 63.5%로 2008년의 29.9%보다 매우 높아졌다. 이용률은 0.6%이며 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42.2%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인



이 본 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계속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다.(표 III-6-4 참조).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3.5%의 패널이 인식하고 있다.

〈표 III-6-3〉 패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지 및 참여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sup>5)</sup>
인지도 <sup>1)</sup>	44.3	67.6
참여율 <sup>2)</sup>	6.7	10.0
참여자의 만족도 <sup>3)</sup>		
매우 만족	10.9	13.1
만족하는 편	55.5	62.1
그저 그렇다	18.8	15.2
만족하지 않는 편	11.7	9.3
전혀 만족하지 않음	3.2	0.3
미참여자의 미참여 이유 <sup>4)</sup>		
선정조건 미부합	24.3	15.6
참여필요성 느끼지 못함	33.2	39.8
참여방법 모름	8.8	2.5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1	24.1
거리가 너무 멀어서	1.1	0.7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5.8	1.9
보수가 너무 적어서	1.5	4.6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2.9	2.3
시간이 없어서	1.3	6.5
기회가 없어서	-	1.8
기타	0.9	0.1
계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중인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참여 포함)하지 않은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5) 2008년에는 참여 여부만 조사하였으며, 2011년에는 참여의 경우도 현재 참여, 참여경험 있음, 신청하였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던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신청하였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던 경우는 미참여 이유를 조사하지 않았음.

〈표 III-6-4〉 패널의 노인보호관련 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실태(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29.9	63.5
이용률	1.1	85.6 <sup>1)</sup> 0.6 <sup>2)</sup>
만족도 <sup>3)</sup>		
매우 만족한다	15.3	14.3
만족하는 편이다	48.8	66.8
그저 그렇다	18.0	10.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6.5	8.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0.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5.6	42.2
노인보호전문기관	52.4	23.5
계	100.0	100.0

주: 1) 인지자 중 등급신청자 288명 85.6%

인지자 전체 중 0.6%

〈표 III-6-5〉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패널의 68.1%가 노후소득보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들고 있다. 반면 2011년에는 노후소득보장이 31.7%로 응답률이 낮아지고, 의료서비스 지원이 25.8%, 노인장기요양 등 수발서비스가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과 2011년의 선택지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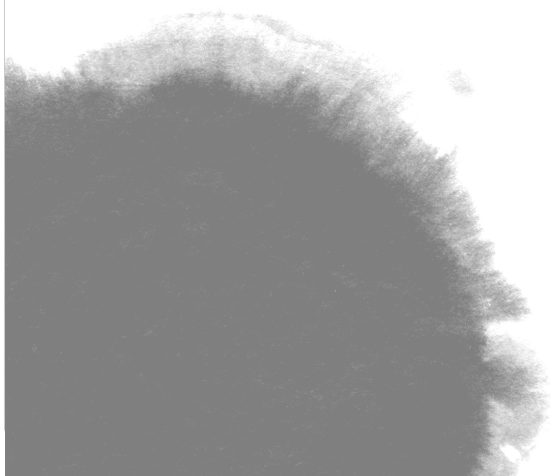
〈표 III-6-5〉 패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1차년도와 2차년도 계속 응답자)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없음	-	0.2
노후소득보장	68.1	31.7
노후장기요양 등 수발서비스	0.4	18.1
노후여가생활 지원서비스	2.3	9.3
의료서비스 지원	-	25.8
노후경제활동 기회 제공	11.7	10.1
노후주거지원	1.5	3.7
자원봉사기회 제공	-	0.2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 기회 제공	0.4	1.0
기타	-	0.0
계	100.0	100.0

# 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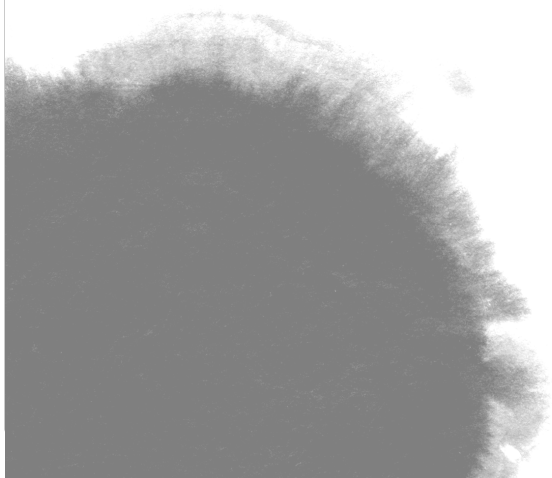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 01

## 조서결과 요약





# 제1장 조사결과 요약

##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방법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에 필요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 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어오던 노인 실태조사가 2007년 1월에 노인복지법에 매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반에 기초한 첫 번째 조사가 2008년도에 이루어졌고 조사를 설계하면서 그 이전 조사와는 달리 종단적 조사로 조사의 정체성을 규정한 바 있다(계명대학교·보건복지부, 2009). 그러나 그후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유일한 횡단면조사로서의 노인실태조사의 특성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종단적 조사와 횡단적 조사의 자료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였다. 즉 종단적 조사로서 2008년에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종단조사결과와 산출과 횡단조사로서 지속적으로 산출되어온 65세 이상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을 조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실시된 본 조사는 기존의 조사내용과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자문회의 및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여 기존의 3,142개의 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11,54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대부분이 본인응답이었고 대리응답은 1.1%이다. 조사완료자중 10,674명이 65세 이상으로 종단조사결

과 분석 대상자이며, 시도별 500명 이상이 조사가 완료되어 시·도 통계 산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8년 조사가 실시된 패널(2008년 기준 60세 이상)총 15,142명중 10,003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2008년 기준 66.0%의 표본 유지율이며 2010년 전화조사에 기초한 패널유지에 기초할 때는 71.1%에 해당하는 것이다. 3년 동안 2008년 조사자의 5.6%에 해당하는 902명이 사망하였고, 입원 및 장기요양입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탈한 노인이 251명으로 1.6%에 달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를 중심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노인의 약 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중 80대 이상이 17.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의 평균연령은 73.7세로 파악되었다. 즉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후기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60대의 노인도 약 30%에 달하고 있는 등 노인 내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노인의 일반특성 중 특히 노인의 교육수준과 거주형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31.6%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1994년의 65.4%, 2004년의 40.1%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다. 한편 중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도 25.9%이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도 6.9%에 달하는 등 1994년의 2.7%와 8.1%, 2004년의 5.6%와 19.4%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노인의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큰 변화가 발견되었다. 전체 노인 중 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노인 단독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6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에서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은 동부지역이 62.9%인데 비하여 읍·면부는 79.1%로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와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다.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한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다. 단독가구 이유로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등의 자발적인 이유가 39.7%이며, 자녀의 결혼,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이 60.3%이다.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주요 이유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28.4%,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21.7%,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20.9%의 순이다.

## 2.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현황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노인의 대부분인 99.1%가 생존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3.77명, 95.4%는 손자녀를 두고 있고 생존손자녀수는 6.32명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형제·자매로 82.2%가 형제·자매가 있으며 평균 형제·자매수는 3.17명이다.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는 54.4%로 약 절반 정도의 노인만이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평균 가까운 친인척수는 1.34명이다. 한편, 부모의 경우는 본인 부모는 5.0%가, 배우자의 부모는 7.4%가 생존한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친구·이웃의 경우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다는 비율이 75.2%이며 평균 규모는 2.5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가족 및 사회관계의 작동 실태를 왕래 및 연락빈도를 통하여 살펴보면, 노인의 약 1/3 정도가 비동거 자녀와 월 1회 정도의 왕래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1회 정도의 연락과 월1회 정도의 왕래는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대부분이 손자녀를 두고 있지만 손자녀와의 왕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자녀 방문 시 동행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손자녀와의 왕래나 연락빈도는 자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14.3%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비동거 자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

준이며 손자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년 1,2회 왕래한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빈도이다. 친인척이 없는 노인은 없지만 친하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접촉 또한 직계와의 교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이웃의 경우 약 40%대의 노인이 매일 이들과 왕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약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는 비동거자녀에 비하여 접촉빈도는 활발한 반면 연락빈도는 낮은 것으로, 대면 접촉에 있어 친구·이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구·이웃과 전혀 왕래가 없다는 응답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약 5%정도가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연락이 전혀 없는 노인도 약 14%로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친구·이웃과의 왕래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63.0%가 거의 매일 친구·이웃을 만나고 있는데 비하여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34.0%에 불과하다. 또한 동부 거주 노인의 6.3%는 전혀 친구·이웃과의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 교환은 사회적 자원의 또 다른 기능이다. 동거 및 비동거자녀, 부모, 배우자와의 각종 부양의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동거자녀의 경우 정서적 부양 수혜율이 64.8%이며 제공률은 59.8%이다.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은 비율이 5%포인트 높지만 대체적으로 50~60% 정도의 노인이 정서적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경우도 수혜율이 59.2%이며 제공률은 61.7%이고, 간병·수발·병원 동반 등의 경우는 수혜율이 62.3%인 반면 제공률은 27.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과 자녀간의 비교적 활발한 도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발의 경우 부모의 노화나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공보다는 도움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경제적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정서적 도움이나 도구적 도움과는 달리 노인이 주기보다는 받는 방향의 교환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이 활발하여 각각 74.6%와 76.6%의 노인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비정기 현금지원을 한 경우는 27.0%, 현물지원을 한 경우는 45.4%이다. 또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40.8%가 동거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면 노인의 4.6%만이 동거자녀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기 보다는 노인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다는 점에서 동거실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동거자녀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70.2%이며 제공률은 61.4%로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다. 이러한 정서적 도움의 교환은 동거자녀의 경우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으로 비동거자녀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도구적 도움의 경우는 수혜율이 46.1%이지만 제공률은 11.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거자녀의 59.2%와 61.7%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다. 노인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도움의 제공은 동거하는 경우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비동거 자녀도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적지만, 노인이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비동거 자녀인 경우 특정한 목적 하에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 제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수발의 경우 수혜율이 49.2%이며 제공률이 7.7%인데 이 또한 가사노동과 관련된 도움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93.0%이며 현물지원도 90.6%로 매우 높다.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 동비율이 40.8%, 74.6%, 76.6%인 것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또한 비동거 자녀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는 동거와 비동거 자녀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약 20% 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방문시 또는 명절 등에 현금 또는 현물로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실태를 보면 정기 현금지원이 0.9% 비정기 현금지원 23.7%, 현물지원이 58.5%로 동거자녀의 4.6%, 27.0%, 45.4%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동거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기 현금지원은 큰 차이가 없고, 현물지원은 비동거자녀에게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지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생존해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23.3%, 제공률은 37.5%로 자녀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으며, 수혜율에 비하여 제공률이 높아 정서적 지원은 아래세대에서 윗세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구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소수이고 노인이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은 80%대의, 도구적 도움은 70%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9.1%이다. 다음이 80세 이상 13.3%, 65~69세가 12.9%, 78~79세 11.3%의 순이다. 6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이며, 60~64세는 3.4%로 소수이다. 즉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높아 55.0%이며, 국가적 차원이 30.6%, 자녀 14.2%, 기타 0.3%로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의 자녀동거 부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7.6%만이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약 1/4에 불과하다.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45.7%에 달하고 있다. 다음은 가까이에 사는 것(15.7%), 정서적 유대관계(12.6%),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11.8%),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10.0%),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1.8%), 비슷한 가치관(2.3%) 등의 순이다.

재산 처리 방식에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50.8%), 장남에게 더 많이(16.0%), 경제적사정이 나쁜 자녀에게(9.1%), 자신(배우자)를 위해(9.0%), 장남에게

만(7.3%), 효도한 자녀에게(3.8%), 사회환원/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2.6%), 딸 제외 이들에게만 골고루(1.2%)의 순으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으로는 화장이 가장 선호되고 있어 60.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매장으로 25.6%이다. 또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도 13.1%로 아직 본인의 죽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도 일정 규모가 되고 있다. 시신기증의사를 밝힌 노인은 1.0%에 불과하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4.0%,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17.9%, 배우자와의 관계는 68.3%, 자녀와의 관계는 73.5%로 비교적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노인의 성생활 관련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43.6%가 성생활 만족에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한다가 1.3%, 만족하고 있다가 28.8%로 30.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가 17.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9.2%로 26.3%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성생활관련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성생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0.4%, 그런편 5.1%, 그저 그렇다 11.3%, 그렇지 않은 편 38.9%, 전혀 그렇지 않다 44.3%로 5.5%의 노인만이 성생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노인의 성생활 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노인(65세 이상)의 경제상태

노인의 경제상태는 소비, 소득, 자산 및 부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으로 노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주거관련비 지출(43.0%)이며, 다음이 보건의료비(24.7%), 식비(12.0%)의 순서이다.

노인의 평균 가구소득은 2,161.8만원으로 월 180.2만원이었으며, 소득구성 특징을 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노인들의 생활비 주부담자는 (손)자녀 및 배우자(이하 (손)자녀)가 39.5%로 가장 많고, 본인 스스로(이하 본인) 34.7%, 배우자 17.5%, 정부 및 사회단체 7.7%(이하 정부)이다. 또한 용돈의 경우 또한 (손)자녀 34.2%, 본인 스스로 31.6%, 정부 및 사회단체 27.6%, 배우자 6.2% 순으로, 생활비 부담과는 달리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지만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8%에 불과하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13.6%, 사업소득 16.8%, 재산소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소득인 공적연금 25.3%, 기타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등이다.

노인개인소득은 연간 849.6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 39.8%, 공적이전소득 32.5%, 사업소득 9.5%, 재산소득 9.0%, 근로소득 7.4%, 기타소득 1.4%, 기타수입 0.3%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1994년의 2.9%, 2004년의 14.4%에 비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소유율은 58.5%로 평균 1억 3,760만원이며, 75.4%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는 1,624.5만원이다. 한편 노인의 20.0%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의 규모는 1,148.5만원이다.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불과하며 46.6%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5. 노인(65세 이상)의 건강 및 기능상태

### 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노인의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낙상, 우울증, 주관적인 건강 등의 다양한 측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다고 보고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54.8%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관절염, 당뇨병, 요통 및 좌골신경통,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었으며,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도 68.3%나 되었다.

노인의 21.0%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이 중 72.4%는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노인의 47.4%는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낙상을 경험한 장소는 도로 또는 공원 등 실외가 56.0%로 가장 많았고, 노인의 75.7%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8점 이상인 경우)을 지니고 있으며, 우울정도(평균점수)는 15점 만점에 4.9점이다. 노인의 특성별로는 여성(33.6%)이 남성(23.3%)에 비해 우울증상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65~69세 연령군에서 19.1%인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3.0%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가구소득이 최저 20%인 집단에서는 동 비율이 47.1%로 가장 높다.

이러한 건강관련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주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노인의 44.4%가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5.0%는 동년배에 비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방약을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84.0%로 다수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2.0개이다. 또한 노인 중 56.1%가 최근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노인의 86.5%가 본인부담 보건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7만 4천원이다.

또한 지난 1년간 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은 7.8%이며, 이용자의 연간 서비스 이용횟수는 6.6회이다.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12.6%이며, 프로그램 참여 장소별로는 보건소(보건지소)가 59.7%로 가장 많다.

다양한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흡연상태의 경우 노인의 12.6%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과거흡연자는 25.9%, 비흡연자는 61.5%이다. 현재 음주자가 노인의 33.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적정음주자(1주일에 7잔 이하)는 20.4%, 과음주자는 13.4%이다. 노인의 30.6%가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의 50.3%가 현재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39.1%이다. 노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적정수면

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45.2%이다.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1.6%이다. 이러한 건강행태 중 영양관리상태, 운동실천율, 적정수면율, 건강검진 수진율 등에 있어 여자, 고령, 저학력, 저소득,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강행위를 종합해보면 읍·면·구(2004년 34.1%, 2008년 32.2%)는 큰 변화가 없고, 읍·면·구(2004년 17.6%, 2008년 13.6%)는 소폭 감소한 것이며, 건강검진율과 운동실천율은 2004년의 52.0%와 39.6%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한 것이다.

#### 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29.4%가 시력이 나빠지며, 20.5%가 청력이 나빠다. 이에 비하여 씹기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많아서 54.1%에 달하고 있다. 씹기의 경우 특히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52.9%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상태가 불편한 노인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몸무게와 키를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5.5%는 저체중이며, 41.4%는 정상, 25.1%는 과체중, 25.5%가 경도비만, 2.5%가 중증도 비만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과체중 이상의 비만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23.9%가 하지 근력의 수행능력이 없고, 7.2%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7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으며, 13.8%가 10개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모두 제한이 없는 노인이 85.1%이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만 제한이 있는 노인이 7.7%, 일상생활수행능력(ADL)도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7.2%이다. 이들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 중 76.3%가 수발을 받고 있는데, 수발율에 있어 남녀차이가 매우 커 남자노인은 87.4%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70.9%에 불과하다.

수발자로는 사람은 가족원이 72.1%로 가장 높으며,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11.4%,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13.1%이다. 즉 수발을 받는



노인 중 외부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4.5%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부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서비스 의존율은 독거노인에게서 높아 41.7%에 달하고 있다.

MMSE-KC를 활용한 인지기능저하자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의 28.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다.

## 6.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대부분인 90.7%가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평생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은 일차산업이다. 또한 현재 노인의 34.0%가 취업중이며 이들의 52.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일을 하는 주요 이유는 생계비 마련으로 79.4%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미취업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2.8%,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29.1%,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가 18.4%의 순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인 88.5%가 향후도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의 12.9%는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으로 53.9%이다. 또한 이들은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41.6%) 다음은 사회 공헌용 일자리 참여로 34.0%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32.1%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30.3%는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였고, 21.1%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구직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현재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의사와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노인의 29.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며, 3.9%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에는 일할 의향이 없는 반면, 8.6%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할 의사가 있고, 57.7%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즉, 약 30%의 노인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도 현재 경제활동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일자리 개발과 기회제공에 있어 경제활동을 희망

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8.6%의 노인에게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비중은 도시지역, 남자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7. 노인(65세 이상)의 여가·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여가·사회참여 활동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노인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인 여가활동은 TV로 노인의 99.0%가 TV를 시청하였고, 평균 TV시청 시간은 3.8시간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극적인 여가 활용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응답자의 33.7%가 여행을 하였고, 1회가 51.8%, 2회 26.1% 등으로 여행을 선호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 중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2.8%에 불과하여 정보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핸드폰 소유실태는 일반핸드폰은 71.3%, 스마트폰은 0.4%로 전체노인의 2/3이상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에 현재 참여율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률은 14.7%이다.

지난 1년간 이러한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27.3%이며, 가장 주된 활동으로는 화투·카드가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등산 10.5%, 화초가꾸기 10.4%, 책읽기 9.9%,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2%, 바둑·장기·체스 7.4%, 산책 7.0% 등의 순이다.

이러한 여가문화활동 현황을 종합하면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와 같은 여가문화활동도 포함한 여가문화활동까지 포함할 경우 72.2%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 4.4%, 만족한다 33.6%, 그저 그렇다 31.9%, 만족하지 않는다 22.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2% 등으로 38.0%는 긍정적이고, 30.0%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회단체참여의 경우, 참여율이 친목단체활동 37.4%인데 비하여 동호회(클럽)활동(3.8%)과 정치사회단체(0.7%)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인이 3.9%에 불과하며 9.9%만이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

여 의향을 갖고 있다. 노인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5.3%,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18.9%,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8.7% 등의 순이다.

본인의 노후(여생) 향유 방법으로는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9.6%, 편안하게 쉬면서 보내고 싶다 14.6%,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 5.8%,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1%, 자원 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2.5%,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1% 등의 순이었다. 즉 노후건강유지와 소득창출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 8. 노인(65세 이상)의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74.2%이며 55.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26.3%, 다세대 11.5%, 연립주택 3.8%, 상가주택 2.4% 순이다. 즉 노인의 약 절반 정도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대표적인 주거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노인의 43.3%가 주택에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 문턱과 같이 높낮이가 있는 부분과 화장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스(48.9%), 지하철(19.3%), 자가용(18.4%)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게 있어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이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읍·면부에서는 버스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또한 노인의 12.2%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8.4%는 과거에는 해보았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79.4%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다.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의 4.9%가 경험하였고, 노인학대 경험률은 12.7%이다. 학대 경험실태를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신체적 학대) 0.5%,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감

정이 상함(정서적 학대) 9.4%,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경제적 학대) 1.5%,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방임) 1.4%,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방임) 2.5%이다.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가 40.7%, 참는다가 36.3%,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22.5%, 기타 0.6%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노인이 학대 경험 시 대응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는 다양성이 있다.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1.2%이다. 즉 노인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약 1.3%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건강이 32.6%, 경제적 어려움 30.8%, 부부자녀친구의 갈등 및 단절 15.6%, 외로움 10.2%, 배우자, 가족, 친구의 사망이 3.6%,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 4.5%, 기타 2.8%이다.

## 9. 노인(65세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 가.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68.8%가 인지하고 있으며, 4.1%가 현재 참여중이며 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6.8%에 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경험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74.8%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노인의 18.0%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욕구를 가진 노인의 욕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참여욕구를 가진 노인의 경우 77.8%가 공익형을, 10.2%가 복지형을, 5.9%가 인력파견형을, 4.7%가 교육형, 1.4%가 시장형을 희망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자에 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이다.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경우 주택연금의 인지도가 52.4%로 농지연금 인지도인 41.0%보다 높는데, 이는 주택을 가진 노인이 농지 소유 노인보다 많고 제도 도입 시점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활용할 농지가 없는 노인도 77.4%에 달하고 있어 농지연금은 적용범위가 좁다. 주택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활용의사는 매우 다양하여, 32.4%는 활용할 주택이 없다고 응답하였

으며 30.3%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31.4%는 주택은 있으나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 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전국에 60,73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약 1/3인 34.2%가 이용하고 있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향후 이용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3.8일로 나타났다. 이용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친목도모로 89.7%로 압도적이다. 다음이 식사서비스 이용과 여가프로그램 이유이다. 이는 경로당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미이용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로 이 역시 불만이유와 동일하게 이용노인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이 시간이 없어서와 몸이 불편해서, 이용하기에는 연령이 낮아서 등이 언급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2010년 현재 259개가 있어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8.8%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24.4%로 향후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2.5일이며 만족도가 82.8%로 매우 높다. 또한 이용자의 이용이유를 살펴보면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7.9%이며 다음이 친목도모로 16.9%, 식사서비스 12.8%, 건강관련서비스 5.4% 등이다. 경로당 이용 이유가 친목도모에 집중되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점이다.

한편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점이 가장 많아 38.8%이며 다음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22.4%, 비슷한 노인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14.3%,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12.0%, 시설이 좋아서 9.7%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은 미이용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물리적 불편함을 언급한 비율이 31.0%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경우 3.2%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수가 적어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용 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18.7%인데 이는 경로당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다.

#### 다.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 인지도가 높아 각각 41.8%와 41.3%이다. 이에 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인지도는 절반 정도 수준인 22.7%와 22.3%이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또한 18.1%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의 사업기간과 포괄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사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 중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한편 향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유료의 맞춤형식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가진 노인은 12.6%인데 희망률의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현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노인은 7.0%이며, 이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노인은 80.3%이다.

#### 라.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 이용경험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70.8%, 철도할인은 35.1%,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16.7%,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40.2%,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입장은 25.2%이다. 즉 지하철 무료이용이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우대제도이며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이 가장 이용 빈도가 낮은 경로우대제도이다. 이러한 경로우대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두 90%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83.9%, 철도할인은 76.6%,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65.2%,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1.1%,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 입장은 61.7%로 나타났다. 즉 각종 경로우대제도에 대하여 현재 이용률에 비하여 훨씬 높은 향후 이용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희망률은 80%대이고, 철도 및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0% 이상의 희망률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60%대로 실제 이용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개 경로우대 서비스 중 가장 낮은 희망률을 보이고 있다.

## **마. 관심사 및 서비스 욕구**

노인의 현재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악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1.3%에 달하고 있다.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18.0%이다. 별다른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응답은 11.9%이다.

한편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소득보장으로 31.8%, 다음이 의료서비스 26.1%, 수발서비스 18.7%, 경제활동지원 9.4%, 여가생활지원서비스 9.0%, 노후주거지원 3.9%, 기타 1.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은 소득과 건강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이다. 또한 필요한 노인용품으로는 43.0%가 노인용 의약품, 25.6%가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11.3%가 노인건강용품을 언급하고 있다. 주거설비용품, 일상용품, 가사용품, 화장품 등을 언급한 비율은 5%미만이다.

## **10. 패널의 생활실태**

### **가. 생활실태**

2008년과 2011년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패널의 2011년도 현재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18.6%, 노인부부가구 47.7%, 자녀동거가구 28.6%, 기타가구 5.0%이다. 3년간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한 패널은 17.2%이다.

한편, 패널의 주택의 소유실태를 보면 자가 77.5%, 전세 5.4%, 월세 8.1%, 기타 8.9%이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자가의 비율이 조금 줄고, 월세 및 기타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집안 내 안전사고 발생률도 1.2%에서 4.6%로 높아졌으며 교통사고 경험 역시 2011년 2.9%로 2008년도의 1.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학대경험과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2008년 9.6%, 2011년에는 12.7%이다. 학대 유형별 학대경험률을 비교해보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아 2011년 기준 9.7%이며 2008년에는 7.3%였다. 다음은 재정적 방임인데 2008년과 2011년 모두 2.4%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1.6%, 간병수발 등의 방임이 1.4%인데 이는 2008년의 1.4%와 1.2%에 비하여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패널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버스 53.7%, 지하철 14.9%, 자가용 14.2% 순이었다. 반면 2011년도에는 버스 48.5%, 자가용 19.2%, 지하철 19.2% 순으로 나타나, 버스이용률이 약간 줄고 자가용과 지하철 이용률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8년도 기준 15.0%, 2011년도 기준 13.5%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과거에 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08년도 기준 5.6%이며, 2011년도에는 1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은 줄었으나, 과거에 하다가 현재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나. 경제상태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1.3만원에서 187.3만원으로 23.8% 증가하여 연평균 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은 소득증가분 보다 다소 높은 48.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성향이 64.0%에서 77.5%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의 소득항목별 특징을 보면,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응답가구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는 62.8%이었으며, 재산소득은 26.9%, 사적이전소득은 85.2%, 공적이전소득은 91.5%, 기타소득은 7.2%였다. 그러나 2011년 2차년도에는 재산소득, 사적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



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 등의 임대 증가로 인한 재산소득 가구의 증가(26.9%→36.5%) 및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적이전소득 가구(85.2%→95.7%), 기타소득 가구(7.2%→18.0%)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가구는 62.6%로 1차년도와 유사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86.7%로 1차년도 대비 4.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주 부담자의 변화양상을 패널 개인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2008년도 2011년도 모두 독자형이 46.0%, 2008년도 독자형이었으나 2011년도 사적·공적 의존형으로 바뀐 경우가 14.0%이다. 2008년 2011년 모두 사적의존형인 경우는 24.6%이며, 사적의존형에서 독자형으로 바뀐 경우가 7.6%. 공적의존형으로 바뀐 경우가 1.0%로 나타났다. 공적의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1%이며, 공적의존형에서 독자형으로 변한 경우가 1.5%. 사적의존형으로 변한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소득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32.5%이다. 이는 2008년 소득에 비하여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것인데 이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건강 및 기능상태

건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건강상태 인식률이 49.8%에서 2011년에는 33.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제 객관적인 측정으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82.4%에서 2011년에는 87.8%로 증가하였고, 낙상률이 14.8%에서 20.7%로 증가하였다. 건강행위와 관련해서는 비흡연율이 68.1%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61.4%로 감소하였고, 건강검진 수진율은 76.3%에서 82.1%로 증가하였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력보조기를 사용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63.3%가 시력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 58.2%가 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과 저작능력의 경우 보조기를 사용한 비율이 2008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청력과 저작기능 저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한 BMI지수를 활용한 비만도를 살펴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계속 응답자의 경우 저체중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고 정상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과체중의 비만도 감소하여 비만도에 있어서는 저체중 또는 과체중/비만에서 정상으로의 비중이 높아져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패널이 7.9%에서 7.2%로 조금 낮아졌는데,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 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와 2차 계속 응답자의 경우 비교적 건강한 노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 비율 또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2008년 19.3%에서 2011년 13.3%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를 종합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한 개 이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기능제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21.1%에서 2011년에는 동 비율이 14.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 저하자가 22.3%에서 31.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의 인지기능의 저하가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 중 수발을 받는 비율은 2008년 24.8%, 2011년 23.6%로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또한 앞서 기능상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능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제외되어 수발을 또한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주수발자는 2008년 응답자의 86.8%는 가족, 외부서비스는 9.2%로 나타났으나, 1차와 2차 응답한 사람을 비교하면, 가족의 의한 수발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외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1차 조사가 있었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3년간 노인 수발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라. 사회참여 현황

패널의 경제활동율을 살펴보면 2008년의 36.8%에서 35.9%로 약간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의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다. 패널의 경제활동현황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후 2011년 조사에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전체 패널 27.0%이며, 2008년과 2011년 2번의 조사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54.8%이다. 한편 2008년도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하고 있지 않은 패널은 9.4%이다. 반면 2008년 조사시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8.8%이다.

한편, 패널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의 긍정적인 태도가 2008년도에는 45.2%였으나, 2011년도에는 38.3%로 6.9%포인트 감소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부정적인 태도는 2008년 14.6%에서 2011년 30.3%로 15.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여가문화활동의 긍정적인 태도의 감소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 기대가 증가하였거나 실제적으로 여가시간을 더 소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부정적인 태도의 큰 증가는 ‘그저 그렇다’의 응답 감소 등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가치관 및 서비스 욕구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가 70~74세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많으며 2008년 51.0%, 2011년 59.1%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을 65~69세라고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24.3%에서 2011년 12.9%로 낮아졌고, 75~79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9.9%에서 11.3%, 80세 이상은 7.3%에서 13.3%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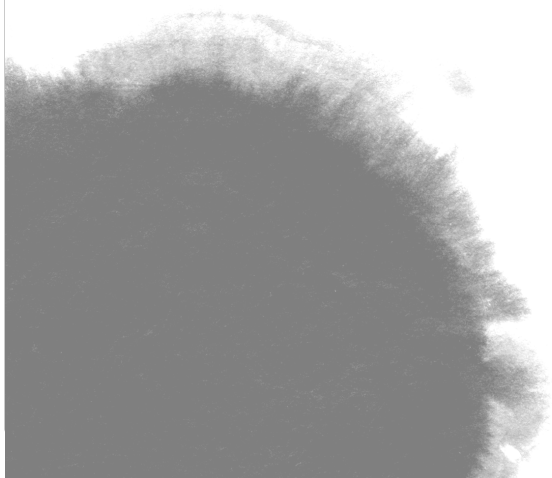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패널의 인지도 및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패널의 67.6%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의 44.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며 참여율 또한 10.0%로 증가하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75.2%로 높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이

다. 2008년도의 미참여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보다는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를 조금 더 많이 언급하였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인지도는 63.5%로 2008년의 29.9%보다 매우 높  
아졌다. 이용률은 0.6%이며 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42.2%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인  
이 본 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계속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다. 노  
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3.5%의 패널이 인식하고 있다.

## 02

## 도시경관의 시시점 및 제언





## 제2장 조사결과와 시사점 및 제언

### 제1 절 조사의 향후 발전방향

#### 1. 노인실태조사의 정체성 정립

노인실태조사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사의 정체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노인실태조사의 정체성은 불명확해졌다. 즉, 그전까지의 노인실태조사는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횡단조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었다. 반면 2008년 조사는 종단조사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적절한 패널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9년과 2010년에 패널관리가 전화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즉, 통상적인 패널조사가 주기적인 패널관리와 매년 또는 격년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소극적인 패널유지가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른 패널조사에 비하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패널유지율이 높지 못한 중요 이유이다. 또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파악할 수 있는 횡단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1년에 실시된 노인실태조사는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로서의 기능을 모두 구현하고자 하였다.

노인실태조사를 3년 주기의 횡단 통계를 종단면 통계로 전환함으로써 조사 주기의 장기화(3년)로 인해 표본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노인 표본의 성격상 요양소 입소 및 사망자의 다수 발생으로 패널 탈락률이 현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또한 국내 다수의 패널조사의 경우 횡단통계 작성의 목적 보다는 종단면적

분석에 부합하도록 표본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표본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 관리, 비용 등의 사유로 대규모 패널을 유지할 경우 표본 탈락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횡단면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조사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의 노인인구를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여 표본 노인의 연령대가 상승하여 실제 노령 인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노인실태조사는 3년 주기의 횡단 조사로의 전환을 통하여 횡단적 실태분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규모의 패널을 유지하면서 3년마다 전국노인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횡단적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종단적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패널조사를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규모 패널가구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그로부터 얻는 이점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패널 관리비용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패널가구의 응답성향을 고려할 때 패널의 충성도에 따라 적정 규모의 패널 유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패널가구는 5,000~8,000가구를 유지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별도의 패널조사를 기획·수행하는 경우 향후 조사가 실시 되기 전에 패널의 규모에 대한 합의와 적절한 패널관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의 경우 패널로 구축된 가구는 차수 또는 웨이브가 지속될수록 패널가구의 탈락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패널관리는 필수적이다. 2009년과 2010년과 같이 년 1회의 전화조사만으로는 적절한 패널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패널유지율 저하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패널이 사망률이 높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지금과 같이 3년 주기로 조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많은 패널이 매년 1회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한편 시·도 통계의 산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2008년부터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시·도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시·도통계산출을 위해서는 조

5) 한국복지패널: 7000가구, 한국 노동패널: 5000가구 등으로 횡단면적 통계 보다는 종단연구를 위해 가구 규모를 제한하고 있음.



사지역이 전국적으로 넓게 산포될 수밖에 없어 조사수행상의 어려움과 예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동부와 읍·면부의 특성 비교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확보될 수 있다. 시·도별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국공통적인 내용 외에도 시·도별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노인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목적을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학문적 목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조사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조사에 비해 표본 규모가 큰 대규모 조사가 되는 만큼 그 목적이 정책의 계획이나 개선에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학문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용적 및 학문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 관련 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노인 실태조사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문적 목적은 가능하면 노년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는 외국과의 공동 또는 비교연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활용은 물론 학문적 활용을 위해 선진외국의 비슷한 조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로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계하는 위치에서 노인복지 정책과 학문적 연구를 비교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외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적절한 국가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가능하면 공통적 조사내용이 많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과보고서의 중요사항 또는 요약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별도의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조사 질문지와 코딩북의 영문번역 작업 등도 필요할 것이다.

### 3. 안정적인 통계산출을 위한 조사 주관 및 관리 기관의 지정

안정적인 통계 현재까지는 조사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확정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조사 설계, 시행 및 자료 관리 등의 일관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서 조사주관을 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기관에도 공평하게 조사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조사의 주관기관의 일관성에 비해 그 실익은 거의 없다. 특히 종단적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주관기관이 매번 변경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주관기관을 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 기본방향

본 조사결과에 기초해볼 때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노인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고려

조사결과 노인의 특성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노인단독가구의 증대, 공적연금의 확대 및 공적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증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노인의 내면적인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60대는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70대에 진입하여야만 노인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건강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80대에 접어

들면서 급격한 저하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은 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곧 노년기에 접어들 예비노인인 베이비 부머들은 대부분 단독가구를 희망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사고의 변화와 생활기반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에 대한 구분과 특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증대하고 있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의 특성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노인세대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나. 노인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대응전략 마련

노인은 더 이상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본 조사결과 지역별 차이와 성별 차이, 연령군별 차이, 교육수준별 차이 등이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 거주노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매우 높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의 경우 이웃 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활용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또한 성별 차이가 매우 크다.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독거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따라서 노후소득과 관련해서도 의존적인 생활과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노년기에도 그들이 수행해온 가사노동과 보호로 대표되는 무보수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9). 이러한 현황은 여자노인의 열악한 사회적 위상과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가구내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더불어 이들의 무보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여자노인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저하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적절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육수준은 단순한 교육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크기와도 정비례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만으로는 이들이 활동적인 노년기를 향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한이 많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윤소영 외, 2009).

더불어 노인의 거주형태만으로 대상자 선정이나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노인들은 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기 위해서만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동거하는 경우부터 자녀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도 자발적인 단독가구형성과 비자발적인 단독가구 형성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형태만으로 노인의 독자성과 의존성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거주형태보다는 거주유형의 원인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야만 정책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정책적 관심사의 확대

기본욕구 충족에서 상위욕구 충족으로 정책범위 확대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과 ‘질병’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제도의 정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년기의 ‘고독’이나 ‘무위’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의 상위욕구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의 충족과 이어지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의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2. 정책방안

### 가. 소득보장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 노인의 소득수준 자체는 높아지지 않아서 빈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아, 만족한다는 비율은 17.9%에 불과하다. 한편 노인의 다수가 주거비용과 보건의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노후소득의 근간이 되는 공적 연금제도의 개편 등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범위와 액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도적 수정보완적 조치와 더불어 노인의 지출과 관련된 지원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정경희 외, 2009).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이 한 방안일 것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와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이삼식 외, 2010).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6.8%인데 비하여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8.0%로 욕구 대비 참여노인의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 나. 보건의료정책

노년기는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등 여러 건강문제로 인해 건강상태가 열악한 시기이다. 노인의 44.4%가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8.5%로 각종 신체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가 84.0%에 이르고, 지난 2주간 의료이용률이 56.1%이 되며, 86.5%가 지난 한 달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바 있다.

이러한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실태는 노년기 만성질환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닌 복합이환율이 6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개별 질환에 대한 관리적 접근 외에도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지닌 노인은 신체적 쇠약, 정신적 기능저하, 입원 및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여러 약의 복용으로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복약지도 및 관리가 요구된다. 나아가 추가적인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강상태의 악화 및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이 7.8%로 매우 낮은 것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현재 노인의 건강행태는 일차예방적인 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노인의 12.6%가 현재 흡연자이며, 33.8%가 현재 음주자, 30.5%가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있으며, 노인의 50.3%가 현재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루 평균 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45.2%이며,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1.6%이다. 건강생활습관이 미흡함은 노년기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12.6%로 매우 낮아 노년기 건강증진사업의 개발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 지난 3년간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상담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건강서비스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중 취약계층인 여자, 고연령, 독거노인, 저학력, 저소득, 기능제한이 있는 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노인보건의료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 다.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가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응답노인의 대부분이 하루 약 4시간 정도의 TV를 시청하는 것에 반하여 약 30%는 이렇다할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된 여가문화활동이 화투·카드나 몇 개의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 약 1/3정도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여가문화를 활성화하며, 1인 1여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여가문화활동 시설의 활용 등이다.

더불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노년기 여가시간의 의미있는 활용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존중감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을 통해 성공적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 참여율(6.7%)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참여 희망률(14.7%)은 증가하는 등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령통합적 접근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뿐 아니라 지역내 대학 및 여가문화시설 간 유기적 연계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한정란, 2008).

또한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도 필수적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율(3.9%)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9.9%)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즐거움을 위해서(70.9%)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24.3%)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고, 대부분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96.2%)고 조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수행분야에서는 사

회복지분야(48.6%)와 환경보호분야(14.5%)에 편중된 경향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결사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이금룡, 2009).



## 참고 문헌

- 국민연금공단(200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 권중돈 외(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실제**. 보건복지부.
- 권중돈 외(2007). **내손안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보건복지부.
- 권중돈·엄태영·이은주·김기수(2010). **노인복지관의 여가메트릭스 모형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김정석(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회.
- 김태준·홍영란·김선자·박응희·정혜령·한정란(2007).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
- 김형수(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pp. 159-172.
- 박명화·하정철·신임희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인생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인생 100세 시대 대응 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한국복지패널**. 서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정경희·오영희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정경희·변재관·이윤경(200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정경희·이윤경(2004). **경로당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승흠·이윤환(2007). **노인보건학**. 계축문화사.

윤소영·윤주·박수정·오세숙·조아미·지현진(2009). **생애주시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금룡(2005).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pp. 143-159.

이금룡(2009). **노인자원봉사 실천론**. 학지사.

이삼식 외(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정경희·이윤경 외(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정경희·강은정 외(2009).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정경희·염지혜 외(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1991). **노인생활과 의식(제3회 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 일본 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한국갤럽조사 협조).

일본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1997).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제4회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 5개국비교조사)**. 일본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한국갤럽협조).

- 임종권 외(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임춘식·김근홍·김문석·이근홍·이인수(2005). **서울특별시 경로당 운영실태 및 발전 방안**. 서울복지재단.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석재은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손창균·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오영희 외(2010).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윤지은(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이소정(2007).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최현수 외(2009).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조애자·오영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조애자·오영희 외(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신영석(2011). **건강한 100세를 위한 부문별 대응정책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인파·곽동일·신동균 외(1997).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pp. 103-112.
- 정정숙·김주연·김지애·주점숙·한은혜(2009). **고령시대를 대비한 문화정책 개발 연구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맹제·김기웅·김명희 외(2008). **치매 노인 유병을 조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경혜(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pp. 46-58.

한국갤럽(1981).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식구조 비교 조사)**. 한국갤럽.

한국갤럽(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이태리 6개국 노인의식구조 제2차 비교조사)**. 한국갤럽.

한국노동연구원(1998).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06).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리서치(2010). **2009년 노인실태조사 패널관리 및 부가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2010). **201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패널관리 및 부가조사(2010년)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노인 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자가족 패널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문식 외(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정란(2008). **노인교육의 이해**. 학지사.

허준수 유수현(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pp. 7-35.

Atchley (2004). *Social Forces and Aging* (10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Bae JN, Cho MJ (2004).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its short form among elderly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57: 297-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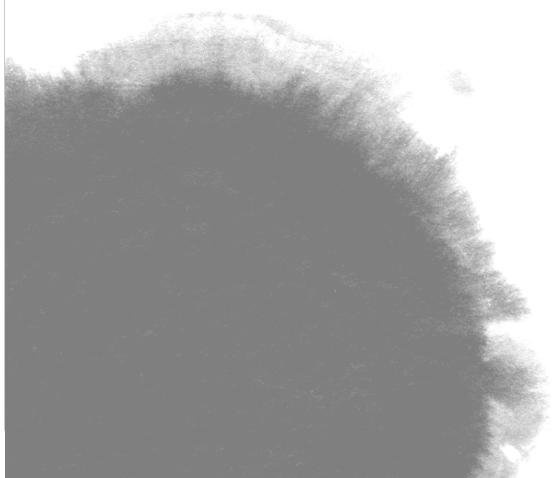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Baltes, P. B., Reese, H. W. & Nesselroade, J. R. (1977).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Monterey,

CA: Brooks/Cole.

- Bengtson, V. L. & Cutler, N. E. (1976).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R. H. 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 130-159). New York: D. Van Nostrand
- Ensrud KE, Ewing SK, Taylor BC, et al. (2007). *Frailty and risk of falls, fracture, and mortality in older women: the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62:744-51..
- Glenn, N. D. (1977). *Cohort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Hampton, J. K., Jr. (1991). *The biology of human aging*. Dubuque, IA: William C. Brown Publishers.
- Hooyman, N. & Kiyak, H. A. (2008). *Social gerontology* (8th ed.). Boston: Pearsons Education.
- Lehr, U. (2001). Longitudinal studies: Europe. In G. L. Maddox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3rd. ed.) (pp. 624-626). New York: Springer Publication. co.
- Logie, H., Hogan, R. & Peut, A. (2004). *Longitudinal studies of ageing: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 Maddox, G. L. & Wiley, J. (1976). Scope, concept and methods in the study of aging.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 3-34). New York: D. Van Nostrand.
- Neuman, (2003).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5th ed.). Boston: Allyn & Bacon.
- Posner BM, Jette AM, Smith KW, Miller DR (1993). *Nutrition and health risks in the elderly: the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3: 972-978.

- Rockwood K, Andrew M, Mitnitski A. (2007).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to measuring frailty in elderly people*.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62:738-43.
- Santos-Eggimann B, Cuénoud P, Spagnoli J, Junod J. (2009). *Prevalence of frailty in middle-aged and older community-dwelling Europeans living in 10 countries*.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64A:675-81.
- Strehler, B. L. (1977). *Time, cells and aging* (2nd. ed,) New York: Academic Pres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 日本 總務廳(2011). 高齢社會白書, 平成 23年版 總務廳

# 부록







## 부록

**부록 1. 2008년도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비교**

**부록 2. 부표: 일반특성별 분석표**

**부록 3. 부표: 시·도별 분석표**

**부록 4. 조사표**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인포시트
3.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전화조사 조사표
  - 3-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전화조사
  - 3-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전화조사
  - 3-3.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관리를 위한 전화조사

**부록 5. 자문위원단 명단**

## 부록 1. 2008년도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비교

## 가. 가구조사표

## ■ (가A) 가구원 → I. 가구원 사항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여부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1 이름	이름	O	I1	이름	
2, 2-1 동거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여부, 비동거 이유	X			
3 성별	성별	O	I3	성별	
4 양/음, 생년월일	양/음, 생년월일	△	I4-1, 문 I4-2, 양/음, 생년월	양/음, 생년월	생일자 빠짐
		+	I4-3 만연령	만연령	
5 교육수준	교육수준	△	I6-1	교육수준	보기문항 수정
5-1, 5-2 이수여부, 초등학교 재학년수	이수여부, 초등학교 재학년수	△	I6-2	교육연수	이수여부 삭제, 초등학교 재학년수는 교육연수로 수정
6 현재 경제활동 여부	현재 경제활동 여부	△	I7	취업여부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지만, 경제활동 여부에서 취업여부로 바뀜
7 혼인상태	혼인상태	△	I5	혼인상태	보기문항 수정
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	I8	노인과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노인과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수정
		+	I9	노인조사 대상자 확인	
		+		조사원 확인사항	

■ (기B) 주거형태 → II. 가구 경제상태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여부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9-1	자가/전세/월세 여부	O	II3	자가/전세/월세 여부	
9-2	주택의 종류	X			
		+	II3-1	거주지 이외의 소유한 집의 여부	
9-3	시가/보증금/보증금과 월세	O			

■ 가구소득 → II. 가구지출 및 소득

□ (기C) 소득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여부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기C10	10. 소득				
		+	II2-1	총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	II2-2, 문II2-3	근로소득, 사업소득	두 개로 나누어서 질문함
	금융소득	X			
	부동산소득	△	II2-4	채산소득	물어보는 내용이 바뀜
	시적 이전소득	O	II2-5	시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O	II2-6	공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O	II2-7	기타소득	

□ (가D) 가계지출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가E11 가계지출	월평균 지출액	+	II1	월평균 소비지출액	총 소비지출액을 묻는 문항은 없었는데, 새로 문항이 생김
	(1)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2) 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학원, 과외비 등)	△	II-1	생활비 목록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되는 것	지출항목들 각각의 월평균 지출액을 묻는 것에서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고르는 것으로 수정 (보기문항도 수정됨)
	(3)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4) 주거비(월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의 주택관리비)				
	(5) 경조사비				
	(6)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포함)				
	(7) 교양오락비				
	(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야가 등에 들어가는 돈)				
	(8)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비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10) 부모님 용돈				
	(11) 자녀 용돈				
	(12) 그 외 가구의 용돈(본인이나 배우자 등)				
	(13)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14) 현금 및 각종 기부금				
	(15) 국민연금				
	(16) 대중교통비				
	(17) 기타( )				
가E12	여유로운 생활유지 위한 생활비	X			
가E13	최소생계 유지위한 생활비	X			

□ (가) 자산과 부채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가14	부동산 가격	X			
가15	금융자산 총액	X			
가16	부채 총액	X			
가17	기초수급대상자 여부	X			

나. 노인개인조사표

■ 가족관계 및 부양의 교환(A~G) → A~C 영역으로 재구성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A	1.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A1, 1-1	생존자녀 유무, 생존자녀수	△	A1, A1-1	생존자녀 유무, 생존자녀 수	문는 방식이 수정됨
A2	자녀동거유형	△	자녀동거유형  A1-1_M, A1-1_W, A1-2_M, A1-2_W, A1-3_M, A1-3_W, A1-4_S, A1-4_MA, A1-5_S, A1-5_MA,		문는 방식이 세분화됨(성별, 기혼여부 파악)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A2-1, A2-2-1 ~3 B	단독거주 여부 및 기간	X			
B1, B1-1	2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기혼자녀 동거 유무 및 동거이유	△	A11	기혼자녀 동거이유	동거유무는 위에서 파악, 보기문항 수정
B2	1) 2) 동거자녀와의 정서적 지원(각정 상담) 제공, 수혜 3) 4) 도구적 지원(정소, 식사준비, 세탁) 5) 6) 신체적 지원(간병, 수발, 병원 동행)	△	C1, C1-1, C1-2, C1-3	동거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신체적 지원 교환	
B3, 3-1 B4 4-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제공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 수혜	△	C1-4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B5	동거자녀 관계만족도	X			
B6	비동거 자녀 유무 확인	X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C	3.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1	비동거자녀 및 자녀순위	X			
C2, 2-1	비동거자녀 중 기혼자녀 유무, 자녀순위	X			
C2-2	비동거 이유	△	A9, A10	노인부부 혹은 독거노인 가구 형태로 거주한 기간과 그 이유	
C3, C3-1, 3-2	연락이 가장 많은 비동거자녀와의 연락빈도, 거주지와의 거리	△	A3, A4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자녀(연락 및 왕래를 통합)와 그 자녀의 거주지와의 거리	
C4, C4-1	왕래가 가장 많은 비동거자녀와의 왕래빈도, 거주지와의 거리	△	A5-1, A6-1		
C3-3, C4-3	비동거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왕래빈도	O	A5-2, A6-2	비동거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왕래빈도	
C5	비동거자녀와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	△	C2, C2-1, C2-2, C2-3	비동거자녀와의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지원 교환	
C6, 6-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제공	△	C4	비동거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C7 7-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 수혜				
C8	비동거자녀 관계만족도	X			
D	4.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	A12	향후 원하는 거주형태	
D1, D2, D3	비동거손자녀 유무, 연락빈도, 왕래빈도	△	A2, A2-1, A2-2, A2-3, A5-3, A6-3	비동거손자녀 유무, 동거 손자녀 수, 비동거 손자녀 수, 총 손자녀 수, 비동거 손자녀와의 연락빈도 및 왕래빈도	
D4	손자녀와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	X			
D5 5-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제공	X			
D6 6-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 수혜				
D7~ D12	만 9세 이하 손자녀 정기적 양육 유무, 양육 손자녀수, 이유, 주당 평균시간, 대가유무, 월 평균 대가금액, 양육에 대한 인식	X			
D13	손자녀 관계만족도	X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E	5.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E1-3	부모 생존여부, 연령, 건강상태	O	B1-1, B2-1	부모 생존여부, 연령, 건강상태	
E4-6	비동거 부모 유무, 연락빈도, 왕래빈도	O	B3-1, B4-1	비동거 부모 연락 및 접촉 빈도	
E7-9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연령, 건강상태	O	B1-2, B2-2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연령, 건강상태	
E10-12	비동거 배우자 부모 유무, 연락빈도, 왕래빈도	O	B3-2, B4-2	배우자 비동거 부모 연락 및 접촉 빈도	
E13	배우자 부모와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	△	C3, C3-1, C3-2, C3-3	본인부모+배우자부모와의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지원 교환	
E14 14-1 E15 15-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제공·수혜	△	C3-4	본인부모+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E16	부모 관계만족도	X			
E17	배우자 부모 관계만족도	X			
F	6.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F1	배우자 동거기간	X			
F2	배우자 건강상태	O	A7	배우자 건강상태	
F3	배우자와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	△	C4, C4-1, C4-2, C4-3	배우자와의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지원 교환	
F4	배우자 관계만족도	X			
F5	배우자 별거이유 및 기간	X			
		+	A8	부부동반 외출 빈도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G	7.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G1, G2	형제 및 자매수, 비동거 형제 및 자매수, 가까운 친인척수			△	B5	생존해 있는 형제 및 자매수	
G3 G4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양래빈도			△	B6-1, B7-1, B8-1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의 수, 연락빈도 및 양래빈도	
G5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경제적 지원			X			
G6 6-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제공			X			
G7 7-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 수혜						
G8 G9 G10	가까운 친구·이웃수, 연락빈도, 양래빈도			△	B6-2, B7-2, B8-2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의 수, 연락빈도 및 양래빈도	
G11	친구·이웃과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 지원			X			
G12 12-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제공			X			
G13 13-1	경제적 지원(유무, 종류 및 총액) 수혜						
G14	형제·자매 및 친인척 관계만족도			X			
G15	친구·이웃 관계만족도			X			

■ 건강관련

□ (L~Q)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 D~G, N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L. 건강상태							
L1	평소의 건강상태			O	D1	평소의 건강상태	
L2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			O	D2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	
L3	건강상태의 만족도			X			
L4	의사로부터의 정예관정 유무			X			
L5	만성질환 유무			△	D3-1	만성질환 유무	
L5-1	- 이환년수			X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L5-2	- 의사진단여부	△	D3-2	- 의사진단여부	
L5-3	- 처방약 복용유무	X			
L6	현재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유무	X			
L6-1	치료기관 유형	X			
L7	통증부위	X			
L7-1	-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유무	X			
L8	건강식품 복용유무	X			
L8-1	- 복용의약품 유형	X			
		+	D4	3개월 이상 복용하는 의사 처방 약의 가지수	
		+	D5	2주간 의료기관을 간 횟수	
		+	D6	작년 한 해 월평균 보건의료비 액수	
		+	D7	1년간 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	
		+	D8, D8-1	1년 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장소	
L9	낙상				
L9-1	- 유무	O	D9	-유무	
L9-2	- 횟수	X			
		+	D9-1	-병원치료 유무	
L9-3	- 장소	O	D9-2	-장소	
L9-4	- 이유	O	D9-3	-이유	
		+	D9-4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	
L10	낙상의 두려움	O	D10	낙상의 두려움	
L11	일에 대한 힘든 상황유무	X			
L12	일의 수행 능력 상실유무	X			
L13	우울증상	O	D11	우울증상	

번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번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M1	M 건강행태	△		E 건강행태	
M1-1	평생흡연양	X			
M1-1	- 현재 흡연여부	△	E1	현재와 과거 흡연여부	질문형태: 과거도 함께 물어보는 것으로 수정
M1-2	- 1일 흡연량	O	E1-1	1일 흡연량	
M1-3	- 흡연 년수	X			
M2	음주횟수	△	E2	음주횟수	보기문항수정
M2-1	- 음주양	O	E2-1	음주량	
M3	영양관리 상태	△	E3	영양관리 상태	항목이10문항에서 7문항으로 줄었음
M4	신체활동				
M4-1	- 가벼운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경도)				
M4-1-1	- 가벼운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M4-2	- 중등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중강도)				
M4-2-1	- 중등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E4, E4-1 E4-2	운동수행여부, 정도 운동시, 1회당 수행시간	활동강도에 상관없이 '운동'으로 항목을 합침
M4-3	- 고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고강도)				
M4-3-1	- 고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M5	밤 수면시간	+	E4-3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	
M6	낮 수면시간	+	E4-4	주로 운동하는 장소	
M7	수면제 복용유무	△	E5	1일 평균 수면시간	밤 수면시간과 낮 수면시간을 1일 평균수면시간으로 합침
M8	숙면여부	X			
M9	독감예방접종 유무	X			
M10	건강검진 수진여부	O	E6	건강검진 수진여부	
M10-1	- 미수진 이유	O	E6-1	-미수진 이유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N. 의료서비스 이용				
N1	○ 의료기관 입원유무	X			
N1-1	- 입원횟수	X			
N2	○ 의료비지출유무	X			
N2-1	- 총액	X			
N2-2	- 의료비부담자	X			
N3	○ 의료서비스 만족도	X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G.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O1	ADL (7개 항목)	O	G1	ADL (7개 항목)	
O2	IADL (10개 항목)	O	G2	IADL (10개 항목)	
O3	간병수발유무	O	G3	간병수발여부	
O3-1	- 수발기간	X		수발자	
O3-2	- 주수발자	+	G3-1	주수발자 및 주수발자의 일주일 평균 수발시간	
	P. 인지기능	△	G3-2	N. 인지기능	
P1	기억력 존재유무	X			
P2	MMSE-KC	O	N1	MMSE-KC	
	Q. 신체기능			F. 신체기능	
Q1	허약성 판단지표	△	F6	허약성 판단지표	운동장 한바퀴 정도 걷기 문항 추가
Q2	시력보조기구 사용유무	O	F1-1	시력보조기구 사용유무	
Q3	시력상태	O	F1-2	시력상태	
Q4	시력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지장유무	X			
Q5	보청기 착용유무	O	F2-1	보청기 착용유무	
Q6	청력정도	O	F2-2	청력상태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Q7	청력장애로 인한 어려움 유무	X			
Q8	저작보조기구 착용 유무	O	F3-1	저작보조기 사용 유무	
Q9	저작상태	O	F3-2	저작상태	
Q10	음식물 삼킴능력 유무	X			
Q11	상체능력(악력정도)	X			
Q11-1	- 사용이 어려운 쪽의 손	X			
Q11-2	- 왼손잡이 or 오른손잡이 여부	X			
Q11-3	- 악력측정경험 유무	X			
Q11-4	- 악력측정값	△	F5	근력상태 파악	
Q11-5	- 악력 피측정자의 자세	X			
Q11-6	- 악력측정 불가 이유	X			
Q12	하체능력(도보능력)	X			
Q12-1	- 도보속도 측정 유무	X			
Q12-2	- 도보속도 측정값	X			
Q12-3	- 측정 불가 이유	X			
Q13	신장	O	F4-2	신장	
Q14	체중	O	F4-1	체중	

■ 경제상태 관련

□ (H) 소득: 영역 순서 변경, 내용 유지 → H~J를 경제상태로 통합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	HI	주관적 생활수준	
H1, 1-1	근로소득 여부 및 액수	△	H3, H3-1	근로소득,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H2, 2-1	사업소득 여부 및 액수	△	H4, H4-1		배우자 수입 추가
H3, 3-1	금융소득 여부 및 액수	X			
H4, 4-1	부동산소득 여부 및 액수	X			

H5, 5-1	사적이전소득, 원천별 액수	△	H6, H6-1	사적이전소득,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H6, 6-1	국민연금여 여부 및 액수	△	H7, H7-1	공적연금여,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H7, 7-1	특수직역연금 여부 및 액수	X			
H8, 8-1	개인연금 여부 및 액수	△	H11, H11-1	개인연금,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H9, 9-1	보훈금여 여부 및 액수	△	H8, H8-1	기타공적금여,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H10, 10-1	실업금여 여부 및 액수	X			
H11, 11-1	산재금여 여부 및 액수	X			
H12, 12-1	교통수당 여부 및 액수	X			
H13, 13-1	장애수당 여부 및 액수	△	H8, H8-1	기타공적금여에 포함	배우자 수입 추가
H14, 14-1	장애인동부양수당 여부 및 액수	X			
H15, 15-1	경로연금 여부 및 액수	X			
		+	H5, H5-1	재산소득,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	H9, H9-1	기초노령연금,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	H10, H10-1	국민기초생활보장금여,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	H12, H12-1	퇴직연금,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	H13, H13-1	주택연금/농지연금,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	H14, H14-1	기타소득, 액수	배우자 수입 추가
		+	H15, H15-1	총수입액(본인, 배우자 각각)	
			H16, H16-1	총수입액(본인+배우자)	

## □ (I) 생활비와 용돈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문1	생활비/용돈 부담자	O	H2	생활비/용돈 부담자	
문2	생활비이외의 지출	X			
문3	주요 지출 용도	X			

□ (I) 자산과 부채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J1, 1-1, 1-1-1	부동산 가격	△	H17, H17-1	부동산 현황	배우자 명의의 현황 추가
J2, 2-1, 2-1-1	금융자산 총액	△	H18, H18-1	금융자산 현황	배우자 명의의 현황 추가
J3, 3-1 3-1-1	부채 총액	△	H19, H19-1	부채 현황	배우자 명의의 부채 추가
J3-2	부채 이유	△	H20	부채 이유	보기 문항 수 감소
J4	주관적인 경제형편	X			
J4-1	정부지원 필요	X			
J5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X			
		+	H21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의료급여대상자 여부	
		+	H22	등록장애인 여부	

■ (K) 경제활동 → I 경제활동으로 영역명칭 변경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K1	현재 경제활동 여부	△	I1	현재 경제활동 여부	질문 내용 수정(지난 1주일간> 현재)
K2	현재 직업	O	I2	현재 직업	
K3	종사상의 지위	O	I2-1	현재 종사상 지위	
K4	현재 직업 종사 기간	O	I2-2	현재 직업 종사 기간	
K5	현재 직업의 소득	X			
K6	현 직업과 최장기 종사 직업의 일치여부	+	I2-1-1	현재 직업 근로시간	
K6-1	최장기 종사 직업	O	I2-6		
K6-2	최장기 종사 지위	O	I3	최장기 종사 직업	
K6-3	최장기 종사 직업 종사 기간	O	I3-1	최장기 종사 직업 지위	
K6-4	최장기 종사 직업의 월평균 소득	O	I3-2	최장기 종사 직업 종사 기간	
K6-5	최장기 종사 직업 그만둔 이유	X			
K7	현 직업 종사이유	O	I3-3	최장기 종사 직업 그만둔 이유	
		O	I2-3	현 직업 종사이유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K8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5점)	O	I2-4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5점)	
K9	현 직업 지속 희망 여부	O	I2-5	현 직업 지속 희망 여부	
K10	15세 이후 근로경험	X			
K11	최근 사직한 직업	X			
K12	최근 사직 종사상의 지위	X			
K13	최근 사직 기간	X			
K14	최근 사직한 직업의 월평균 소득	X			
K15	최근 사직 이유	X			
K16	최근 사직 직업과 최장기종사직업의 일치여부	X			
K17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O	I4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K18	향후 근로 희망 여부	O	I5	향후 근로 희망 여부	
K18-1	향후 근로 희망 이유	△	I5-1	향후 근로 희망 이유	보기 문항 수정
K18-2	향후 근로 희망 형태	△	I5-2	향후 근로 희망 형태	보기 문항 수정
K18-3	실제 하고 싶은 일	X			
K18-4	희망 소득	O	I5-4	희망 소득	
K18-5	구직시 우선 조건(중복응답)	O	I5-5	구직시 우선 조건(중복응답)	
		+	I5-3	구직시 희망 근로시간	
		+	I5-6	지난1년간 행한 구직노력(중복응답)	



■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R1	(1) 가장 즐거움을 느낀 활동(중복응답)	X			
		+	J1, J1-1	지난1개월 TV시청 여부 및 시청시간	
		+	J2, J2-1	지난 1년간 여행여부 및 횟수	
		+	J3, J3-1	여행계획의 기준 및 방법	
		+	J4	컴퓨터, 인터넷 사용능력	
		+	J5	핸드폰 소지 여부	
R2	단체활동 참여(가입) 여부 :친목단체/종교단체/문화활동단체/스포츠클러 단체/시민단체, 사회단체/이인단체, 정치단체/봉 사단체/학습단체	△	J7, J7-2, J8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활동여부, 참여경로, 향후 참여 의향	
R2-1	- 단체활동 참여 빈도	△	J7-1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 단체 참여 빈도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로 질문이 수정됨
R3	평생교육 참여 경험	△	J6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의향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로 질문이 수정됨
R3-1	평생교육 참여 기관	△	J6-2	평생교육 참여 기관	J6 질문에 현재와 미래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R4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	J6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의향	
		+	J6-1	평생교육 참여 빈도	
R4-1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J6-3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R4-2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미희망 이유	△	J6-4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미희망 이유	
R5	자원봉사 경험 여부	△	J9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미희망 이유	
		+	J9-1	자원봉사 경험 여부	보기문항 수정
		+	J9-2	자원봉사 빈도	
		+	J9-3	자원봉사 참여시작 시기	
		+	J9-4	자원봉사 연결 기관	
		+	J9-5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분야	
		+	J9-5	자원봉사활동 이유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	J9-6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J9-6-1	자원봉사활동 만족하지 않는 이유	
R6	향후 자원봉사 희망 여부	O	J10	향후 자원봉사 희망 여부	
R6-1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 영역	△	J10-1, J10-2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 영역	보기문항 수정
R6-2	자원봉사참여에 필요한 지원	+	J10-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R7	인터넷 이용 여부	△	J10-3-1	자원봉사참여에 필요한 지원	보기문항 수정
R7-1	인터넷 이용 내용	△	J4	인터넷 이용 여부	앞의 문항에서 내용이 포함됨
R8	종교	X			
R9	여기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	L13, L13-1	종교, 종교의 중요성	L파트로 이전
		O	J12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	J11	지난 1년간 TV시청, 여행, 컴퓨터, 평생교육, 운동 이외의 여가문화활동	
		+	J11-1	주된 여가문화활동	
		+	J11-2	주된 여가문화활동의 빈도	
		+	J11-3	여가문화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	J11-4	여가문화활동의 주 장소	
		+	J13	향후 여생에 대한 계획	

■ (S) 노인복지서비스→ K 복지서비스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S1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공립치매병원 등)	X			
	〈새가노인복지시설〉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X			
S2	〈노인주거복지시설〉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X			
S3	〈노인여가복지시설〉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 경로당(노인정),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노인 학교, 노인대학), 노인휴양소	△	K6, K6-1, K6-2, K6-3, K6-4, K6-5, K6-6, K7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여부, 이용빈도, 이용이유, 만족도, 만족하는 이유, 만족하지 않는 이유, 이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이용의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관한 질문 구체화
S4	〈타노인복지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X			
	○ 치매상담센터	X			
	○ 노인학대예방센터(노인보호전문기관)	△	K9-2	인지여부	인지여부만 질문
	○ 노인무료급식서비스(경로식당 등)	△	K10, K10-1	2주간 경로식당 이용여부, 이용이유	
	○ 도시락(식사)배달서비스	X			
	○ 보장구대여서비스	X			
S5	○ 독거노인생활관리서비스	X			
	○ 노인자원봉사지원서비스	X			
	〈기초노령연금〉				
	- 인지 여부	X			
	- 수령 여부	X			
	- 수령 금액(월 만원)	X			
S5-3	- 도움 여부	X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노인일자리사업〉				
S6	- 인지 여부	O	K1	- 인지여부	
S6-1	- 참여 경험 여부	O	K2, K2-1, K2-2-1,	-참여 경험 여부, 참여 개월 수 및 시간	
S6-2	- 만족 여부	+	K2-2	-참여 일자리 유형	
S6-3	- 미참여 이유	O	K2-3	-만족 여부	
		△	K2-4	-미참여 이유	보기문항 수정
		+	K3	-향후 참여 의향	
		+	K3-1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일자리 유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S7	- 인지 여부	O	K8	- 인지 여부	
S7-1	- 이용 여부	+	K8-1, K8-1-1	-등급신청 여부, 등급	
		O	K8-2	-이용 여부(경험)	
S7 -2	- 서비스 만족도	+	K8-2-1	-이용한 서비스(7항목)	
		O	K8-3	-서비스 만족도	
	〈노인돌보미배우처〉				
S8	- 인지 여부	O	K9-1	- 인지여부	
S8-1	- 카드 사용 여부	X			
S8-2	- 미사용 이유	X			
S9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인지 경로	X			
S10	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 2순위	O	K16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2순위	
		+	K4	주택연금/농지연금 제도 인지 여부	
		+	K5	주택연금/농지연금 제도 활용 의사	
		+	K5-1	활용 의사 없는 이유	
				정부사업 인지여부(노인돌보미배우처,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치매예방 및 인지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서비스)	
		+	K9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	K12	경로우대제도 이용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여부	
		+	K13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순위, 2순위	
		+	K14	현재의 걱정과 고민	
		+	K15	가장 필요한 노인용품: 1순위, 2순위	

■ (T) 노후 생활과 삶의 질 →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T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L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보기문항 삭제
T2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	O	L2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	
T3 3-1	노후 자녀동거, 자녀동거에 대한 인식	O	L3, 3-1	노후 자녀동거, 그리고 인식	
T4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	O	L4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	단어변경, 보기문항 수정
T5	노후희망동거자녀	X			
T6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X			
T7	현재 가구형태상의 가장 어려운 점	X			단어변경, 보기문항 수정
T8	선호 재산상속방식	△	L5	재산처리방식	
T9	노후준비 여부	X			
T10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X			항목 수정
T11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방법	X			
T12	삶의 만족도(25개 항목)	△	L6	삶의 만족도(4개 항목)	
T13	노인학대(5개 항목)	O	L9	노인학대(5개 항목)	보기문항 수정
T14, 14-1	선호 장애방법	+	L10	노인학대 대응방법	
T15	이성교체에 대한 생각	△	L12	선호 장애방법	
T16	성생활에 대한 응답 회망 여부 (응답률: 25%)	X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T17	성의 중요성	X			
T18	성관계 빈도	X			
T19	성생활만족도	O	L7	성생활 만족도	
		+	L8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여부	
T19-1	불만족 이유	X			
		+	L11	만60세 이후 자살생각여부	
		+	L11-1	자살생각이유	
		+	L11-2	만60세 이후 자살시도여부	
		+	L13, L13-1	종교 및 종교의 중요성	

■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변수명	2008년도 조사내용	변경내용	2011 변수명	2011 조사내용	비고
U1	현 거주지 거주기간	X			
U2, U3, U4	부역의 유형, 화장실 유형, 세면 및 목욕시설 은수 여부	X			
U5	화장실이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 여부	X			
U6	문턱으로 인한 이동시 불편함	△	M1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공간	문턱, 조명 뿐 아니라, 현관, 복도, 계단, 부엌 및 식당 등 다양한 공간 포함됨
U7	조명으로 인한 불편함				
U8	1년간 안전사고 경험 유무	O	M2	1년간 안전사고 경험유무	
U9	주거 편리함	X			
U10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O	M4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U11	외출시 불편한 점	O	M5	외출시 불편한 점	
U12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유무	△	M8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유무	보기문항 수정
U13, 13-1	운전 여부 및 경험, 그만둔 연령	△	M6, M6-1, M6-2, M6-3	운전 여부 및 운전 시 어려움, 운전을 그만둔 연령	
U14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	M3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여부(4항목)	
U15	전화, 핸드폰	X			
		+	M7-1	비영업용 차 소유여부 및 가격	

## 부록 2. 부표: 일반특성별 분석표

〈부표 II-1-1〉 노인(65세 이상)의 현취업상태·연가구소득(분위)·기능제한여부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명)

특성	현 취업상태		연가구소득					기능제한	
	취업	미취업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없음	있음
지역									
동부	47.1	78.5	59.9	61.5	63.6	72.7	82.3	67.3	68.1
읍·면부	52.9	21.5	40.1	38.5	36.4	27.3	17.7	32.7	31.9
성									
남자	54.6	37.4	25.5	43.3	50.3	48.6	48.0	32.8	44.9
여자	45.4	62.6	74.5	56.7	49.7	51.4	52.0	67.2	55.1
연령									
65~69세	40.3	24.5	16.0	24.3	31.1	38.9	38.6	14.5	32.5
70~74세	34.9	28.1	25.9	34.2	35.5	29.6	26.6	21.1	32.0
75~79세	17.9	25.0	28.7	27.4	21.0	17.6	18.4	24.9	22.2
80~84세	5.7	13.8	19.3	10.0	8.3	9.2	8.6	20.0	9.5
85세 이상	1.3	8.6	10.1	4.1	4.2	4.7	7.8	19.5	3.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8.9	61.7	32.9	74.0	82.0	76.7	71.6	52.8	70.0
배우자 없음	21.1	38.3	67.1	26.0	18.0	23.3	28.4	47.2	3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5.0	21.9	62.1	20.5	9.6	5.3	0.7	22.3	19.1
노인부부	59.6	42.9	31.1	66.3	68.3	50.7	25.9	35.9	50.7
자녀동거	20.9	30.5	5.0	8.1	15.3	38.9	69.3	36.9	25.6
기타	4.5	4.7	1.9	5.1	6.8	5.1	4.2	4.8	4.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2	11.8	22.9	10.7	6.6	7.7	6.8	23.6	8.7
무학(글자해독)	19.6	21.3	31.6	23.7	17.6	16.2	14.5	26.4	19.7
초등학교	40.2	33.1	29.7	41.9	42.4	33.7	29.5	31.7	36.1
중·고등학교	26.6	25.6	13.7	21.5	28.1	33.5	33.1	15.7	27.7
전문대학 이상	4.4	8.2	2.1	2.2	5.4	9.0	16.0	2.7	7.7
현 취업상태									
취업중	-	-	22.2	36.3	42.5	38.3	27.8	10.6	37.4
미취업	-	-	77.8	63.7	57.5	61.7	72.2	89.4	6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3	23.4	-	-	-	-	-	24.5	19.2
제2오분위	21.8	19.2	-	-	-	-	-	20.5	20.0
제3오분위	25.4	17.2	-	-	-	-	-	17.6	20.4
제4오분위	22.9	18.6	-	-	-	-	-	19.0	20.2
제5오분위	16.6	21.7	-	-	-	-	-	18.4	20.3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3	80.0	81.7	84.8	86.8	85.8	86.3	-	-
제한 있음	4.7	20.0	18.3	15.2	13.2	14.2	13.7	-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명) <sup>1)</sup>	(3,569)	(7,105)	(2,135)	(2,139)	(2,131)	(2,135)	(2,134)	(9,081)	(1,593)

주: 1) 전제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옷입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7.5	2.1	0.4	100.0 (10,674)
지역				
동부	97.3	2.2	0.5	100.0 ( 7,257)
읍·면부	97.9	1.9	0.2	100.0 ( 3,416)
성				
남자	96.9	2.8	0.4	100.0 ( 4,604)
여자	97.9	1.6	0.5	100.0 ( 6,069)
연령				
65~69세	97.8	1.7	0.5	100.0 ( 3,179)
70~74세	98.7	1.0	0.2	100.0 ( 3,240)
75~79세	97.2	2.5	0.2	100.0 ( 2,414)
80~84세	96.8	2.8	0.4	100.0 ( 1,183)
85세 이상	91.9	6.1	2.0	100.0 ( 65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7.2	2.3	0.5	100.0 ( 7,200)
배우자 없음	98.0	1.6	0.4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9.0	0.8	0.2	100.0 ( 2,094)
노인부부	97.4	2.3	0.3	100.0 ( 5,172)
자녀동거	96.5	2.5	0.9	100.0 ( 2,915)
기타	97.4	2.2	0.4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7.3	2.1	0.6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7.4	2.3	0.4	100.0 ( 2,213)
초등학교	97.4	1.9	0.7	100.0 ( 3,781)
중·고등학교	97.5	2.4	0.1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8.2	1.5	0.3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9	0.1	0.0	100.0 ( 3,569)
미취업	96.2	3.1	0.7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7.6	2.0	0.4	100.0 ( 2,134)
제2오분위	97.4	2.3	0.3	100.0 ( 2,138)
제3오분위	97.7	1.9	0.3	100.0 ( 2,132)
제4오분위	97.6	2.1	0.3	100.0 ( 2,135)
제5오분위	97.0	2.1	0.8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83.0	14.0	3.0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11-7-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6.5	2.8	0.7	100.0 (10,674)
지역				
동부	96.4	2.9	0.8	100.0 ( 7,257)
읍·면부	96.9	2.6	0.5	100.0 ( 3,418)
성				
남자	96.3	3.1	0.6	100.0 ( 4,605)
여자	96.7	2.6	0.7	100.0 ( 6,069)
연령				
65~69세	97.6	1.8	0.6	100.0 ( 3,179)
70~74세	98.1	1.5	0.5	100.0 ( 3,240)
75~79세	96.4	3.2	0.4	100.0 ( 2,414)
80~84세	93.8	5.2	0.9	100.0 ( 1,184)
85세 이상	89.1	8.4	2.6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6.6	2.7	0.7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6.5	3.0	0.5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8.2	1.7	0.1	100.0 ( 2,095)
노인부부	96.8	2.6	0.6	100.0 ( 5,172)
자녀동거	94.7	4.1	1.2	100.0 ( 2,916)
기타	97.4	1.8	0.8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5.5	3.8	0.7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96.1	3.4	0.5	100.0 ( 2,213)
초등학교	96.4	2.6	1.1	100.0 ( 3,783)
중·고등학교	97.1	2.5	0.4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8.4	1.4	0.3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0.0	0.0	0.0	100.0 ( 3,569)
미취업	94.8	4.2	1.0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6.7	2.9	0.4	100.0 ( 2,136)
제2오분위	96.8	2.6	0.6	100.0 ( 2,138)
제3오분위	96.8	2.5	0.7	100.0 ( 2,131)
제4오분위	96.2	3.2	0.6	100.0 ( 2,135)
제5오분위	96.2	2.8	1.0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76.8	18.7	4.5	100.0 ( 1,59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목록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4.6	4.0	1.3	100.0 (10,673)
지역				
동부	94.4	4.2	1.5	100.0 ( 7,255)
읍·면부	95.2	3.7	1.1	100.0 ( 3,417)
성				
남자	94.4	4.2	1.5	100.0 ( 4,603)
여자	94.8	3.9	1.3	100.0 ( 6,070)
연령				
65~69세	96.8	2.1	1.1	100.0 ( 3,179)
70~74세	97.0	2.3	0.7	100.0 ( 3,240)
75~79세	94.5	4.3	1.2	100.0 ( 2,412)
80~84세	90.8	7.0	2.2	100.0 ( 1,183)
85세 이상	79.5	15.8	4.7	100.0 ( 6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5.0	3.7	1.4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3.9	4.8	1.3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96.3	3.1	0.6	100.0 ( 2,094)
노인부부	95.2	3.7	1.1	100.0 ( 5,171)
자녀동거	92.1	5.7	2.2	100.0 ( 2,916)
기타	95.7	2.0	2.2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1.5	6.5	2.0	100.0 ( 1,170)
무학(글자해독)	93.5	5.4	1.1	100.0 ( 2,213)
초등학교	94.9	3.5	1.6	100.0 ( 3,781)
중·고등학교	95.6	3.1	1.2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7.2	2.2	0.7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9	0.1	0.0	100.0 ( 3,570)
미취업	92.0	6.0	2.0	100.0 ( 7,1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4.3	4.3	1.4	100.0 ( 2,136)
제2오분위	94.9	4.0	1.1	100.0 ( 2,138)
제3오분위	94.7	4.1	1.2	100.0 ( 2,131)
제4오분위	94.8	3.8	1.4	100.0 ( 2,135)
제5오분위	94.3	4.1	1.6	100.0 ( 2,1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63.9	27.1	9.0	100.0 ( 1,59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3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1명 제외함.

〈부표 II-7-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식사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8.6	1.0	0.4	100.0 (10,674)
지역				
동부	98.5	1.1	0.4	100.0 ( 7,256)
읍·면부	98.9	0.8	0.2	100.0 ( 3,417)
성				
남자	98.5	1.1	0.4	100.0 ( 4,605)
여자	98.7	0.9	0.4	100.0 ( 6,069)
연령				
65~69세	98.9	0.8	0.3	100.0 ( 3,180)
70~74세	99.3	0.6	0.2	100.0 ( 3,241)
75~79세	98.7	1.1	0.2	100.0 ( 2,414)
80~84세	98.1	1.1	0.8	100.0 ( 1,182)
85세 이상	94.4	4.3	1.4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8.5	1.1	0.4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8.8	0.9	0.3	100.0 ( 3,476)
가구형태				
노인독거	99.6	0.4	0.0	100.0 ( 2,094)
노인부부	98.7	1.0	0.3	100.0 ( 5,173)
자녀동거	97.7	1.5	0.8	100.0 ( 2,916)
기타	98.4	0.4	1.2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4	1.5	0.2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8.7	1.1	0.2	100.0 ( 2,213)
초등학교	98.2	1.0	0.7	100.0 ( 3,782)
중·고등학교	99.0	0.9	0.2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9.1	0.5	0.4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0.0	0.0	0.0	100.0 ( 3,569)
미취업	97.9	1.5	0.6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9	1.0	0.0	100.0 ( 2,134)
제2오분위	98.8	0.9	0.3	100.0 ( 2,139)
제3오분위	98.5	1.1	0.3	100.0 ( 2,132)
제4오분위	98.8	0.6	0.6	100.0 ( 2,135)
제5오분위	97.9	1.4	0.7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90.6	6.8	2.6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II-7-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누웠다가 일어나 방법으로 나가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8.3	1.2	0.4	100.0 (10,674)
지역				
동부	98.1	1.4	0.5	100.0 ( 7,256)
읍·면부	98.7	0.9	0.4	100.0 ( 3,418)
성				
남자	98.1	1.6	0.3	100.0 ( 4,605)
여자	98.5	1.0	0.5	100.0 ( 6,070)
연령				
65~69세	98.6	0.8	0.5	100.0 ( 3,180)
70~74세	99.0	0.7	0.3	100.0 ( 3,240)
75~79세	98.4	1.3	0.3	100.0 ( 2,414)
80~84세	98.0	1.7	0.3	100.0 ( 1,183)
85세 이상	94.1	4.6	1.4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8.2	1.3	0.5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8.6	1.1	0.3	100.0 ( 3,476)
가구형태				
노인독거	99.3	0.7	0.0	100.0 ( 2,095)
노인부부	98.3	1.3	0.4	100.0 ( 5,173)
자녀동거	97.6	1.6	0.8	100.0 ( 2,915)
기타	98.4	1.2	0.4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2	1.4	0.4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98.5	1.2	0.4	100.0 ( 2,213)
초등학교	98.3	1.0	0.7	100.0 ( 3,782)
중·고등학교	98.3	1.5	0.2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8.7	1.3	0.0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0.0	0.0	0.0	100.0 ( 3,569)
미취업	97.5	1.8	0.7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0	1.7	0.3	100.0 ( 2,136)
제2오분위	98.4	1.3	0.4	100.0 ( 2,139)
제3오분위	98.5	0.9	0.6	100.0 ( 2,131)
제4오분위	99.0	0.7	0.4	100.0 ( 2,136)
제5오분위	97.8	1.6	0.6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88.8	8.3	2.9	100.0 ( 1,59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화장실출입과 대소변 처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8.1	1.4	0.6	100.0 (10,674)
지역				
동부	97.9	1.5	0.6	100.0 ( 7,256)
읍·면부	98.4	1.1	0.5	100.0 ( 3,418)
성				
남자	97.9	1.6	0.5	100.0 ( 4,605)
여자	98.2	1.2	0.6	100.0 ( 6,070)
연령				
65~69세	98.4	1.1	0.5	100.0 ( 3,180)
70~74세	99.0	0.6	0.3	100.0 ( 3,240)
75~79세	98.1	1.5	0.4	100.0 ( 2,413)
80~84세	97.4	2.2	0.4	100.0 ( 1,182)
85세 이상	92.9	4.1	3.0	100.0 ( 6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7.9	1.6	0.6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8.5	0.9	0.6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9.3	0.6	0.0	100.0 ( 2,095)
노인부부	98.0	1.6	0.3	100.0 ( 5,173)
자녀동거	97.1	1.6	1.3	100.0 ( 2,917)
기타	98.4	0.6	1.0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8.0	1.4	0.6	100.0 ( 1,170)
무학(글자해독)	98.4	0.9	0.6	100.0 ( 2,212)
초등학교	97.8	1.3	0.9	100.0 ( 3,782)
중·고등학교	98.0	1.8	0.2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8.8	1.2	0.0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0.0	0.0	0.0	100.0 ( 3,569)
미취업	97.1	2.1	0.8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1	1.8	0.1	100.0 ( 2,135)
제2오분위	98.1	1.5	0.4	100.0 ( 2,138)
제3오분위	98.2	1.3	0.6	100.0 ( 2,132)
제4오분위	98.5	1.0	0.6	100.0 ( 2,134)
제5오분위	97.6	1.2	1.2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87.1	9.2	3.8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대소변조절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6.8	2.6	0.6	100.0 (10,674)
지역				
동부	96.6	2.8	0.6	100.0 ( 7,256)
읍·면부	97.2	2.3	0.5	100.0 ( 3,418)
성				
남자	97.8	1.8	0.4	100.0 ( 4,604)
여자	96.1	3.2	0.7	100.0 ( 6,068)
연령				
65~69세	97.9	1.7	0.4	100.0 ( 3,180)
70~74세	97.3	2.3	0.4	100.0 ( 3,239)
75~79세	97.3	2.3	0.4	100.0 ( 2,414)
80~84세	95.5	3.8	0.7	100.0 ( 1,182)
85세 이상	90.0	7.4	2.6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7.4	2.0	0.6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5.6	3.8	0.5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96.7	3.2	0.1	100.0 ( 2,094)
노인부부	97.5	2.0	0.4	100.0 ( 5,172)
자녀동거	95.6	3.2	1.2	100.0 ( 2,916)
기타	96.9	2.6	0.4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5.2	3.9	0.9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6.6	3.1	0.4	100.0 ( 2,212)
초등학교	96.3	2.7	1.0	100.0 ( 3,781)
중·고등학교	97.7	2.1	0.2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9.2	0.8	0.0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1	0.8	0.0	100.0 ( 3,569)
미취업	95.6	3.5	0.9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6.3	3.4	0.3	100.0 ( 2,134)
제2오분위	97.2	2.2	0.6	100.0 ( 2,139)
제3오분위	96.9	2.7	0.5	100.0 ( 2,132)
제4오분위	97.5	2.1	0.4	100.0 ( 2,135)
제5오분위	96.1	2.8	1.1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78.6	17.5	3.9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몸단장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6.0	3.2	0.9	100.0 (10,674)
지역				
동부	95.6	3.4	1.0	100.0 ( 7,257)
읍·면부	96.7	2.6	0.7	100.0 ( 3,418)
성				
남자	95.5	3.6	0.8	100.0 ( 4,604)
여자	96.3	2.9	0.9	100.0 ( 6,069)
연령				
65~69세	97.3	2.0	0.6	100.0 ( 3,179)
70~74세	98.0	1.6	0.5	100.0 ( 3,239)
75~79세	95.7	3.6	0.7	100.0 ( 2,414)
80~84세	93.3	5.7	0.9	100.0 ( 1,183)
85세 이상	85.0	10.6	4.4	100.0 ( 6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6.0	3.1	0.8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5.8	3.3	0.9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7.9	1.7	0.3	100.0 ( 2,094)
노인부부	96.3	3.0	0.7	100.0 ( 5,172)
자녀동거	93.9	4.7	1.4	100.0 ( 2,916)
기타	96.1	2.2	1.6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4.3	4.4	1.4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5.3	3.8	0.9	100.0 ( 2,214)
초등학교	96.2	3.0	0.9	100.0 ( 3,781)
중·고등학교	96.5	2.8	0.7	100.0 ( 2,769)
전문대학 이상	97.6	2.0	0.4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7	0.3	0.0	100.0 ( 3,569)
미취업	94.0	4.6	1.3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5.9	3.1	0.9	100.0 ( 2,135)
제2오분위	96.4	3.0	0.7	100.0 ( 2,138)
제3오분위	95.6	3.6	0.8	100.0 ( 2,132)
제4오분위	96.6	2.5	0.8	100.0 ( 2,135)
제5오분위	95.3	3.6	1.1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72.9	21.3	5.8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II-7-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집안일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1.1	6.5	2.4	100.0 (10,674)
지역				
동부	90.8	6.6	2.6	100.0 ( 7,257)
읍·면부	91.7	6.3	2.0	100.0 ( 3,417)
성				
남자	91.9	5.0	3.2	100.0 ( 4,605)
여자	90.4	7.7	1.8	100.0 ( 6,070)
연령				
65~69세	94.9	3.3	1.7	100.0 ( 3,180)
70~74세	94.9	3.8	1.3	100.0 ( 3,239)
75~79세	90.4	7.1	2.5	100.0 ( 2,414)
80~84세	83.6	12.4	4.0	100.0 ( 1,183)
85세 이상	69.3	22.6	8.1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2.2	5.3	2.6	100.0 ( 7,199)
배우자 없음	88.8	9.0	2.1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92.3	7.1	0.6	100.0 ( 2,093)
노인부부	92.8	4.6	2.7	100.0 ( 5,172)
자녀동거	87.4	9.2	3.3	100.0 ( 2,917)
기타	89.4	8.4	2.2	100.0 ( 49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5.7	11.3	3.0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88.9	8.8	2.3	100.0 ( 2,213)
초등학교	91.6	5.8	2.5	100.0 ( 3,782)
중·고등학교	93.0	4.6	2.4	100.0 ( 2,769)
전문대학 이상	95.8	2.8	1.4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9	1.0	0.1	100.0 ( 3,568)
미취업	87.1	9.3	3.6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6	7.0	2.4	100.0 ( 2,135)
제2오분위	91.0	6.4	2.6	100.0 ( 2,139)
제3오분위	91.8	6.1	2.2	100.0 ( 2,131)
제4오분위	91.3	6.6	2.2	100.0 ( 2,135)
제5오분위	90.6	6.6	2.8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40.1	43.7	16.2	100.0 ( 1,59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식사준비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2.1	5.4	2.5	100.0 (10,673)
지역				
동부	91.5	5.7	2.8	100.0 ( 7,256)
읍·면부	93.2	4.8	2.0	100.0 ( 3,417)
성				
남자	91.4	5.3	3.3	100.0 ( 4,605)
여자	92.5	5.5	1.9	100.0 ( 6,069)
연령				
65~69세	95.5	2.7	1.8	100.0 ( 3,180)
70~74세	95.7	2.9	1.4	100.0 ( 3,239)
75~79세	91.2	6.0	2.8	100.0 ( 2,414)
80~84세	85.7	11.3	3.0	100.0 ( 1,182)
85세 이상	71.9	18.4	9.7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2.7	4.7	2.6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0.8	6.9	2.3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94.8	4.4	0.8	100.0 ( 2,094)
노인부부	93.3	4.1	2.6	100.0 ( 5,173)
자녀동거	88.1	8.3	3.6	100.0 ( 2,916)
기타	91.0	6.3	2.6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7.9	8.9	3.2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0.4	7.0	2.6	100.0 ( 2,213)
초등학교	92.2	5.2	2.6	100.0 ( 3,781)
중·고등학교	94.1	3.6	2.3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5.1	3.2	1.6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2	0.6	0.2	100.0 ( 3,569)
미취업	88.5	7.8	3.7	100.0 ( 7,1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5	5.1	2.4	100.0 ( 2,135)
제2오분위	91.9	5.5	2.6	100.0 ( 2,138)
제3오분위	92.4	5.6	2.1	100.0 ( 2,131)
제4오분위	91.8	5.8	2.4	100.0 ( 2,134)
제5오분위	91.7	5.2	3.1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46.8	36.3	16.9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3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1명을 제외함.

〈부표 II-7-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빨래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2.3	5.2	2.6	100.0 (10,674)
지역				
동부	92.0	5.2	2.8	100.0 ( 7,256)
읍·면부	92.9	5.0	2.1	100.0 ( 3,417)
성				
남자	92.2	4.5	3.3	100.0 ( 4,604)
여자	92.3	5.7	2.0	100.0 ( 6,070)
연령				
65~69세	95.8	2.5	1.7	100.0 ( 3,178)
70~74세	95.9	2.7	1.5	100.0 ( 3,239)
75~79세	91.2	5.9	2.9	100.0 ( 2,414)
80~84세	86.3	10.1	3.6	100.0 ( 1,183)
85세 이상	72.0	19.1	8.8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3.0	4.4	2.6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0.8	6.8	2.4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4.3	4.9	0.8	100.0 ( 2,095)
노인부부	93.4	4.0	2.6	100.0 ( 5,171)
자녀동거	88.8	7.4	3.7	100.0 ( 2,915)
기타	92.5	5.3	2.2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8.3	8.0	3.7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90.2	7.3	2.5	100.0 ( 2,213)
초등학교	92.8	4.6	2.6	100.0 ( 3,781)
중·고등학교	93.9	3.8	2.3	100.0 ( 2,769)
전문대학 이상	96.4	2.4	1.2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1	0.8	0.2	100.0 ( 3,568)
미취업	88.8	7.4	3.8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2	5.2	2.6	100.0 ( 2,135)
제2오분위	92.6	4.9	2.6	100.0 ( 2,139)
제3오분위	92.8	5.1	2.1	100.0 ( 2,131)
제4오분위	92.0	5.2	2.8	100.0 ( 2,135)
제5오분위	91.8	5.4	2.8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48.1	34.7	17.2	100.0 ( 1,59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약챙겨먹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7.3	2.0	0.7	100.0 (10,674)
지역				
동부	97.1	2.1	0.8	100.0 ( 7,257)
읍·면부	97.7	1.8	0.5	100.0 ( 3,418)
성				
남자	97.0	2.5	0.6	100.0 ( 4,604)
여자	97.5	1.7	0.8	100.0 ( 6,069)
연령				
65~69세	98.2	1.3	0.5	100.0 ( 3,180)
70~74세	98.7	1.0	0.4	100.0 ( 3,239)
75~79세	97.6	1.9	0.5	100.0 ( 2,414)
80~84세	95.2	3.8	1.0	100.0 ( 1,183)
85세 이상	88.6	8.4	3.0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7.3	1.9	0.8	100.0 ( 7,199)
배우자 없음	97.2	2.2	0.6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8.9	1.1	0.0	100.0 ( 2,094)
노인부부	97.4	2.0	0.5	100.0 ( 5,173)
자녀동거	95.8	2.8	1.4	100.0 ( 2,915)
기타	97.6	1.6	0.8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5.6	3.4	1.0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7.2	2.1	0.7	100.0 ( 2,213)
초등학교	97.4	1.7	0.9	100.0 ( 3,783)
중·고등학교	97.5	2.0	0.5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8.4	1.3	0.3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9	0.1	0.0	100.0 ( 3,569)
미취업	96.0	3.0	1.0	100.0 ( 7,1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7.5	2.2	0.3	100.0 ( 2,135)
제2오분위	97.7	1.7	0.6	100.0 ( 2,138)
제3오분위	97.2	2.2	0.6	100.0 ( 2,132)
제4오분위	97.7	1.5	0.8	100.0 ( 2,135)
제5오분위	96.3	2.5	1.2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81.7	13.7	4.6	100.0 ( 1,59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금전관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3.5	4.8	1.7	100.0 (10,672)
지역				
동부	93.7	4.5	1.8	100.0 ( 7,255)
읍·면부	93.1	5.4	1.6	100.0 ( 3,417)
성				
남자	95.0	3.5	1.5	100.0 ( 4,604)
여자	92.3	5.8	1.9	100.0 ( 6,068)
연령				
65~69세	97.0	2.0	1.0	100.0 ( 3,179)
70~74세	96.2	2.8	1.0	100.0 ( 3,239)
75~79세	93.5	4.9	1.6	100.0 ( 2,412)
80~84세	88.2	8.8	3.0	100.0 ( 1,183)
85세 이상	72.5	20.0	7.4	100.0 (   6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4.9	3.5	1.6	100.0 ( 7,198)
배우자 없음	90.5	7.5	2.1	100.0 ( 3,473)
가구형태				
노인독거	94.3	5.0	0.7	100.0 ( 2,093)
노인부부	95.1	3.4	1.5	100.0 ( 5,172)
자녀동거	89.9	7.2	2.9	100.0 ( 2,915)
기타	94.5	3.9	1.6	100.0 (   49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5.2	11.4	3.4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1.1	6.6	2.3	100.0 ( 2,212)
초등학교	94.3	4.0	1.7	100.0 ( 3,781)
중·고등학교	96.7	2.3	1.0	100.0 ( 2,768)
전문대학 이상	97.6	2.0	0.4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5	1.4	0.1	100.0 ( 3,569)
미취업	91.0	6.5	2.6	100.0 ( 7,1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6	6.0	1.5	100.0 ( 2,134)
제2오분위	92.9	5.5	1.5	100.0 ( 2,139)
제3오분위	94.3	3.6	2.1	100.0 ( 2,131)
제4오분위	94.2	4.4	1.5	100.0 ( 2,135)
제5오분위	93.3	4.5	2.2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0)
제한 있음	56.3	32.0	11.7	100.0 ( 1,59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근거리 외출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5.1	3.5	1.5	100.0 (10,674)
지역				
동부	94.7	3.7	1.7	100.0 ( 7,256)
읍·면부	95.9	3.0	1.1	100.0 ( 3,418)
성				
남자	95.1	3.3	1.6	100.0 ( 4,605)
여자	95.1	3.6	1.4	100.0 ( 6,069)
연령				
65~69세	96.8	2.0	1.2	100.0 ( 3,180)
70~74세	97.4	1.6	1.0	100.0 ( 3,240)
75~79세	95.1	4.1	0.7	100.0 ( 2,414)
80~84세	90.6	6.7	2.7	100.0 ( 1,182)
85세 이상	82.8	11.2	5.9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5.3	3.3	1.5	100.0 ( 7,200)
배우자 없음	94.6	3.9	1.5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6.7	2.8	0.5	100.0 ( 2,095)
노인부부	95.6	3.1	1.4	100.0 ( 5,172)
자녀동거	93.0	4.6	2.4	100.0 ( 2,915)
기타	94.9	3.9	1.2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2.6	5.3	2.1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4.8	3.8	1.4	100.0 ( 2,213)
초등학교	94.9	3.4	1.6	100.0 ( 3,782)
중·고등학교	95.8	2.9	1.3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7.4	1.9	0.7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7	0.2	0.1	100.0 ( 3,569)
미취업	92.8	5.1	2.2	100.0 ( 7,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4.5	3.7	1.7	100.0 ( 2,136)
제2오분위	94.9	4.3	0.9	100.0 ( 2,139)
제3오분위	95.3	2.8	1.9	100.0 ( 2,131)
제4오분위	95.7	3.2	1.1	100.0 ( 2,135)
제5오분위	94.9	3.3	1.8	100.0 ( 2,1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66.9	23.2	9.9	100.0 ( 1,59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물건구매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5.6	2.6	1.3	0.6	100.0 (10,671)
지역					
동부	95.2	2.7	1.3	0.8	100.0 ( 7,255)
읍·면부	96.3	2.3	1.2	0.2	100.0 ( 3,416)
성					
남자	96.0	2.3	1.2	0.5	100.0 ( 4,604)
여자	95.2	2.8	1.3	0.6	100.0 ( 6,068)
연령					
65~69세	97.6	1.3	0.7	0.3	100.0 ( 3,179)
70~74세	97.9	1.2	0.6	0.2	100.0 ( 3,240)
75~79세	95.5	2.4	1.2	0.9	100.0 ( 2,410)
80~84세	92.4	4.6	2.0	0.9	100.0 ( 1,183)
85세 이상	80.2	12.0	6.1	1.7	100.0 ( 65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6.2	2.2	1.0	0.7	100.0 ( 7,198)
배우자 없음	94.3	3.4	1.9	0.4	100.0 ( 3,473)
가구형태					
노인독거	97.1	2.1	0.8	0.0	100.0 ( 2,093)
노인부부	96.6	1.9	0.9	0.6	100.0 ( 5,171)
자녀동거	92.7	4.1	2.3	0.9	100.0 ( 2,915)
기타	95.3	2.9	1.2	0.6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1.2	5.4	2.5	0.9	100.0 ( 1,168)
무학(글자해독)	94.8	3.3	1.4	0.5	100.0 ( 2,213)
초등학교	95.6	2.6	1.0	0.8	100.0 ( 3,782)
중·고등학교	97.2	1.3	1.2	0.4	100.0 ( 2,768)
전문대학 이상	98.2	0.8	0.7	0.3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7	0.2	0.0	0.0	100.0 ( 3,569)
미취업	93.5	3.8	1.9	0.9	100.0 ( 7,1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4.8	3.7	1.3	0.2	100.0 ( 2,135)
제2오분위	95.8	2.1	1.3	0.8	100.0 ( 2,137)
제3오분위	96.2	2.2	1.2	0.4	100.0 ( 2,131)
제4오분위	96.1	2.2	1.1	0.7	100.0 ( 2,135)
제5오분위	94.9	2.9	1.5	0.8	100.0 ( 2,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0.0	100.0 ( 9,078)
제한 있음	70.2	17.3	8.5	4.0	100.0 ( 1,59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전화이용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4.5	3.9	1.2	0.3	100.0 (10,674)
지역					
동부	94.9	3.3	1.4	0.4	100.0 ( 7,256)
읍·면부	93.7	5.2	0.8	0.2	100.0 ( 3,418)
성					
남자	95.8	2.9	1.0	0.3	100.0 ( 4,605)
여자	93.5	4.7	1.4	0.3	100.0 ( 6,069)
연령					
65~69세	98.0	1.5	0.2	0.3	100.0 ( 3,180)
70~74세	96.9	2.4	0.5	0.2	100.0 ( 3,240)
75~79세	94.0	4.6	1.2	0.2	100.0 ( 2,414)
80~84세	89.5	7.3	2.7	0.5	100.0 ( 1,183)
85세 이상	76.9	14.7	7.3	1.1	100.0 ( 6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6.1	2.6	0.9	0.4	100.0 ( 7,200)
배우자 없음	91.2	6.8	1.8	0.2	100.0 (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94.6	4.5	0.8	0.0	100.0 ( 2,093)
노인부부	96.4	2.5	0.8	0.3	100.0 ( 5,173)
자녀동거	91.2	6.0	2.2	0.5	100.0 ( 2,916)
기타	93.9	4.9	1.0	0.2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2.0	14.4	3.3	0.3	100.0 ( 1,169)
무학(글자해독)	93.8	4.5	1.4	0.3	100.0 ( 2,212)
초등학교	96.0	2.6	1.0	0.3	100.0 ( 3,781)
중·고등학교	97.3	1.7	0.7	0.2	100.0 ( 2,769)
전문대학 이상	98.6	0.7	0.1	0.5	100.0 (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0	1.8	0.2	0.1	100.0 ( 3,570)
미취업	92.8	5.0	1.8	0.5	100.0 ( 7,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7	5.8	1.3	0.1	100.0 ( 2,135)
제2오분위	94.6	3.7	1.4	0.3	100.0 ( 2,139)
제3오분위	95.2	3.5	1.1	0.2	100.0 ( 2,131)
제4오분위	95.4	3.3	0.9	0.4	100.0 ( 2,134)
제5오분위	94.8	3.3	1.4	0.5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0.0	100.0 ( 9,081)
제한 있음	63.2	26.4	8.2	2.1	100.0 ( 1,59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교통수단 이용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체 <sup>1)</sup>	91.2	5.2	3.2	0.4	100.0 (10,672)
지역					
동부	90.7	5.3	3.5	0.5	100.0 ( 7,257)
읍·면부	92.2	4.9	2.6	0.2	100.0 ( 3,416)
성					
남자	92.5	4.0	3.3	0.3	100.0 ( 4,604)
여자	90.2	6.1	3.2	0.5	100.0 ( 6,068)
연령					
65~69세	95.8	2.2	1.7	0.3	100.0 ( 3,180)
70~74세	95.5	2.5	1.8	0.2	100.0 ( 3,240)
75~79세	90.3	5.7	3.1	0.9	100.0 ( 2,414)
80~84세	84.1	10.1	5.4	0.4	100.0 ( 1,182)
85세 이상	63.9	21.6	14.0	0.5	100.0 ( 65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2.9	3.9	2.7	0.5	100.0 ( 7,199)
배우자 없음	87.5	7.7	4.4	0.3	100.0 ( 3,474)
가구형태					
노인독거	91.5	6.1	2.0	0.4	100.0 ( 2,092)
노인부부	93.3	3.6	2.7	0.4	100.0 ( 5,172)
자녀동거	87.2	6.9	5.2	0.6	100.0 ( 2,916)
기타	91.0	6.9	1.6	0.4	100.0 ( 4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3.5	10.5	5.3	0.8	100.0 ( 1,167)
무학(글자해독)	88.8	7.3	3.6	0.2	100.0 ( 2,213)
초등학교	91.8	4.6	2.9	0.7	100.0 ( 3,783)
중·고등학교	93.9	3.0	2.9	0.1	100.0 ( 2,770)
전문대학 이상	96.5	1.5	1.8	0.3	100.0 (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1	0.6	0.3	0.0	100.0 ( 3,569)
미취업	87.2	7.4	4.7	0.6	100.0 ( 7,1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9.7	6.6	3.4	0.3	100.0 ( 2,133)
제2오분위	91.3	5.1	2.8	0.7	100.0 ( 2,138)
제3오분위	91.9	4.8	3.0	0.3	100.0 ( 2,132)
제4오분위	91.7	5.3	2.7	0.3	100.0 ( 2,136)
제5오분위	91.3	4.0	4.2	0.5	100.0 (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0	0.0	0.0	0.0	100.0 ( 9,080)
제한 있음	40.8	34.7	21.6	2.9	100.0 ( 1,59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일약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않음	경제적 부담 및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5.4	7.7	15.4	53.8	7.7	100.0 (26)
지역						
동부	14.3	4.8	9.5	61.9	9.5	100.0 (21)
읍·면부	20.0	20.0	40.0	20.0	0.0	100.0 ( 5) <sup>2)</sup>
성						
남자	30.8	7.7	15.4	46.2	0.0	100.0 (13)
여자	0.0	0.0	9.1	72.7	18.2	100.0 (11)
연령						
65~69세	20.0	20.0	0.0	60.0	0.0	100.0 ( 5) <sup>2)</sup>
70~74세	11.1	0.0	0.0	88.9	0.0	100.0 ( 9) <sup>2)</sup>
75~79세	0.0	14.3	14.3	42.9	28.6	100.0 ( 7) <sup>2)</sup>
80~84세	0.0	0.0	100.0	0.0	0.0	100.0 ( 2) <sup>2)</sup>
85세 이상	100.0	0.0	0.0	0.0	0.0	100.0 ( 2) <sup>2)</sup>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8	7.7	15.4	46.2	0.0	100.0 (13)
배우자 없음	0.0	7.7	15.4	61.5	15.4	100.0 (13)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0.0	22.2	55.6	22.2	100.0 ( 9) <sup>2)</sup>
노인부부	36.4	9.1	9.1	45.5	0.0	100.0 (11)
자녀동거	0.0	25.0	0.0	75.0	0.0	100.0 ( 4) <sup>2)</sup>
기타	0.0	0.0	100.0	0.0	0.0	100.0 ( 1) <sup>2)</sup>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33.3	66.7	0.0	100.0 ( 3) <sup>2)</sup>
무학(글자해독)	0.0	25.0	25.0	0.0	50.0	100.0 ( 4) <sup>2)</sup>
초등학교	20.0	0.0	20.0	60.0	0.0	100.0 ( 5) <sup>2)</sup>
중·고등학교	25.0	0.0	0.0	75.0	0.0	100.0 ( 4) <sup>2)</sup>
전문대학 이상	22.2	11.1	0.0	66.7	0.0	100.0 ( 9) <sup>2)</sup>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0	0.0	50.0	0.0	0.0	100.0 ( 4) <sup>2)</sup>
미취업	9.5	4.8	9.5	66.7	9.5	100.0 (21)
가구소득제5오분위						
제1오분위	0.0	0.0	0.0	33.3	66.7	100.0 ( 3) <sup>2)</sup>
제2오분위	25.0	0.0	25.0	50.0	0.0	100.0 ( 4) <sup>2)</sup>
제3오분위	20.0	10.0	10.0	60.0	0.0	100.0 (10)
제4오분위	0.0	0.0	25.0	75.0	0.0	100.0 ( 4) <sup>2)</sup>
제5오분위	33.3	0.0	0.0	66.7	0.0	100.0 ( 3) <sup>2)</sup>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2	5.6	11.1	50.0	11.1	100.0 (18)
제한 있음	0.0	14.3	14.3	71.4	0.0	100.0 ( 7)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27명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sup>1)</sup>	15.6	64.6	10.5	8.9	0.4	100.0 (237)
지역						
동부	15.1	67.3	11.3	5.7	0.6	100.0 (159)
읍·면부	16.7	59.0	9.0	15.4	0.0	100.0 ( 78)
성						
남자	17.1	62.2	12.2	8.5	0.0	100.0 ( 82)
여자	14.5	67.1	9.2	8.6	0.7	100.0 (152)
연령						
65~69세	27.3	40.9	18.2	13.6	0.0	100.0 ( 44)
70~74세	5.7	68.6	8.6	17.1	0.0	100.0 ( 35)
75~79세	9.2	66.2	15.4	7.7	1.5	100.0 ( 65)
80~84세	21.4	64.3	4.8	9.5	0.0	100.0 ( 42)
85세 이상	14.6	83.3	2.1	0.0	0.0	100.0 (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4	59.0	11.2	12.7	0.7	100.0 (134)
배우자 없음	13.9	73.3	8.9	4.0	0.0	100.0 (101)
가구형태						
노인독거	19.6	67.9	8.9	3.6	0.0	100.0 ( 56)
노인부부	15.8	58.9	7.4	16.8	1.1	100.0 ( 95)
자녀동거	5.8	72.5	18.8	2.9	0.0	100.0 ( 69)
기타	35.3	58.8	5.9	0.0	0.0	100.0 ( 1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4	63.9	16.7	0.0	0.0	100.0 ( 36)
무학(글자해독)	15.5	72.4	6.9	5.2	0.0	100.0 ( 58)
초등학교	13.1	73.8	6.0	6.0	1.2	100.0 ( 84)
중·고등학교	18.4	40.8	16.3	24.5	0.0	100.0 ( 49)
전문대학 이상	0.0	85.7	14.3	0.0	0.0	100.0 ( 7) <sup>2)</sup>
현 취업상태						
취업중	71.4	14.3	0.0	14.3	0.0	100.0 ( 7) <sup>2)</sup>
미취업	13.5	66.4	10.9	8.7	0.4	100.0 (229)
가구소득제5오분위						
제1오분위	22.2	58.7	6.3	11.1	1.6	100.0 ( 63)
제2오분위	16.7	61.7	8.3	13.3	0.0	100.0 ( 60)
제3오분위	10.3	82.1	7.7	0.0	0.0	100.0 ( 39)
제4오분위	6.3	62.5	15.6	15.6	0.0	100.0 ( 32)
제5오분위	14.6	65.9	19.5	0.0	0.0	100.0 ( 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0	67.4	9.5	8.6	0.5	100.0 (221)
제한 있음	33.3	26.7	26.7	13.3	0.0	100.0 ( 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경험자 235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2순위)

(단위: %, 명)

특성	소득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생활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활동 지원	노후주거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sup>1)</sup>	10.2	20.4	10.7	35.7	10.3	8.0	4.7	100.0 (10,246)
지역								
동부	10.2	19.3	11.0	35.2	11.1	8.1	5.1	100.0 ( 6,989)
읍·면부	10.2	22.7	10.2	36.8	8.4	8.0	3.7	100.0 ( 3,257)
성								
남자	11.0	17.3	11.5	33.8	14.6	6.4	5.5	100.0 ( 4,432)
여자	9.6	22.7	10.2	37.1	7.0	9.3	4.1	100.0 ( 5,818)
연령								
65~69세	10.3	16.3	11.6	34.1	14.0	6.8	6.8	100.0 ( 3,085)
70~74세	12.2	20.5	10.9	33.2	11.4	7.6	4.2	100.0 ( 3,137)
75~79세	10.1	23.2	10.4	36.1	8.4	8.8	2.9	100.0 ( 2,317)
80~84세	6.7	22.2	10.4	40.3	5.5	10.9	3.9	100.0 ( 1,124)
85세 이상	5.5	26.6	7.5	45.9	1.5	8.4	4.6	100.0 ( 58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9	18.6	11.6	34.7	11.9	7.1	5.1	100.0 ( 6,935)
배우자 없음	8.7	24.2	8.9	37.6	6.9	10.0	3.7	100.0 ( 3,312)
가구형태								
노인독거	9.3	25.2	8.6	36.4	7.5	10.4	2.5	100.0 ( 2,026)
노인부부	10.5	18.9	11.8	35.2	11.7	6.7	5.1	100.0 ( 4,976)
자녀동거	10.1	19.2	11.1	36.2	9.4	8.1	5.8	100.0 ( 2,774)
기타	10.8	22.1	7.2	33.5	12.3	11.3	2.7	100.0 ( 47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5	27.0	7.3	38.6	4.4	10.7	3.5	100.0 ( 1,100)
무학(글자해독)	10.8	24.3	9.2	35.1	9.5	8.3	2.8	100.0 ( 2,119)
초등학교	10.3	20.3	9.7	38.3	9.4	7.8	4.1	100.0 ( 3,644)
중·고등학교	11.0	16.4	13.3	33.2	13.1	7.0	6.0	100.0 ( 2,667)
전문대학 이상	7.1	14.0	16.6	28.5	15.6	8.1	10.2	100.0 ( 71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6	17.7	11.0	34.7	13.8	6.9	4.4	100.0 ( 3,454)
미취업	9.4	21.8	10.6	36.2	8.5	8.6	4.9	100.0 ( 6,7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5	25.2	6.3	38.4	9.0	9.1	2.6	100.0 ( 2,047)
제2오분위	11.1	21.4	10.1	36.2	9.2	8.3	3.7	100.0 ( 2,069)
제3오분위	10.4	19.4	10.6	36.6	11.0	7.4	4.5	100.0 ( 2,048)
제4오분위	9.5	19.2	12.8	34.4	12.1	7.1	4.9	100.0 ( 2,054)
제5오분위	10.3	16.8	13.9	32.7	10.1	8.3	7.8	100.0 ( 2,03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5	19.2	11.4	34.7	11.2	7.9	5.1	100.0 ( 8,829)
제한 있음	8.1	28.0	6.4	41.7	4.2	9.1	2.5	100.0 ( 1,41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순위를 정할 수 없어 '0'으로 응답한 247명과 무응답자 48명을 제외함.

〈부표 II-11-4〉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14.3	13.8	15.4	17.8	11.6
노인용 의약품	12.6	12.2	13.2	12.6	12.5
노화방지 화장품	2.8	2.6	3.2	1.4	3.8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30.3	29.8	31.3	28.8	31.4
노인 건강 용품	12.8	13.4	11.5	16.4	10.0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7.3	6.9	8.1	6.9	7.6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8.4	9.0	7.0	4.2	11.6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11.6	12.2	10.3	11.7	11.5
기타	0.1	0.1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04)	( 7,119)	( 3,385)	( 4,529)	( 5,97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0명을 제외함.

〈부표 II-11-5〉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14.3	15.8	13.8	13.5	13.2	13.5
노인용 의약품	12.6	10.7	13.7	12.8	12.4	15.5
노화방지 화장품	2.8	3.5	3.2	2.0	1.9	1.8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30.3	26.9	29.6	32.2	35.4	34.0
노인 건강 용품	12.8	14.1	12.6	13.0	11.4	8.6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7.3	5.8	7.1	7.7	8.7	11.8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8.4	10.1	7.8	8.4	6.9	5.1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11.6	13.1	12.1	10.2	10.1	9.5
기타	0.1	0.0	0.0	0.2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04)	( 3,144)	( 3,213)	( 2,382)	( 1,156)	( 60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0명을 제외함.

〈부표 II-11-6〉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14.3	15.5	11.6	12.0	16.7	12.4	9.9
노인용 의약품	12.6	12.1	13.6	14.4	12.1	11.6	14.4
노화방지 화장품	2.8	2.6	3.2	3.4	2.5	2.2	6.0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30.3	28.7	33.5	32.6	28.3	32.1	30.5
노인 건강 용품	12.8	14.2	9.8	8.9	13.8	13.4	14.6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7.3	7.1	7.7	8.2	7.2	6.7	8.0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8.4	8.1	9.0	10.0	8.0	7.7	9.0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11.6	11.7	11.5	10.3	11.2	13.9	8.0
기타	0.1	0.1	0.1	0.1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04)	( 7,095)	( 3,409)	( 2,080)	( 5,110)	( 2,829)	( 48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0명을 제외함.

〈부표 II-11-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취업중	미취업
없음	14.3	13.0	11.3	12.4	16.8	25.5	16.4	13.2
노인용 의약품	12.6	13.9	13.3	12.1	12.6	10.8	13.0	12.3
노화방지 화장품	2.8	3.0	3.3	3.0	2.1	2.6	3.6	2.4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30.3	34.0	32.8	30.5	29.2	19.7	27.6	31.6
노인 건강 용품	12.8	7.7	11.8	13.5	13.6	17.1	14.1	12.1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7.3	8.7	7.6	8.0	6.2	4.9	6.4	7.8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8.4	8.4	9.3	9.3	7.0	6.3	7.2	9.0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11.6	11.2	10.7	11.3	12.6	13.0	11.6	11.6
기타	0.1	0.2	0.0	0.1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04)	( 1,139)	( 2,177)	( 3,730)	( 2,728)	( 730)	( 3,559)	( 6,94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0명을 제외함.

## 〈부표 II-11-8〉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가구소득					기능상태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없음	14.3	12.5	11.7	14.0	16.4	16.7	14.9	10.3
노인용 의약품	12.6	15.3	12.0	12.4	11.4	11.6	12.5	13.2
노화방지 화장품	2.8	2.1	2.7	3.4	3.0	2.7	2.9	2.1
맛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30.3	32.8	31.7	29.4	30.8	26.5	29.2	36.9
노인 건강 용품	12.8	10.1	12.6	13.1	13.9	14.3	13.2	10.1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	7.3	8.5	8.9	7.6	6.5	5.1	6.4	12.9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8.4	8.4	9.8	8.1	7.5	8.3	8.9	5.5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11.6	10.2	10.4	12.0	10.5	14.9	12.1	8.6
기타	0.1	0.1	0.2	0.0	0.0	0.0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04)	( 2,106)	( 2,116)	( 2,095)	( 2,105)	( 2,082)	( 9,042)	( 1,46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0명을 제외함.

## 〈부표 II-11-9〉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없음	18.6	17.4	21.2	20.5	17.2
건강관리 서비스	14.2	15.0	12.5	14.5	13.9
문화여가 서비스	6.7	7.3	5.4	6.0	7.2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9.8	10.5	8.3	12.5	7.8
장요환경 및 장례서비스	3.4	3.9	2.5	3.2	3.5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3.0	12.5	13.8	9.5	15.6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19.6	18.8	21.2	18.3	20.5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7.5	7.4	7.8	7.6	7.5
정보컨텐츠서비스	2.0	2.4	1.3	2.6	1.6
영농지원서비스	2.2	2.1	2.5	3.7	1.1
미용서비스	3.0	2.8	3.5	1.5	4.2
기타	0.0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96)	( 7,116)	( 3,383)	( 4,528)	( 5,96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부표 II-11-1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없음	18.6	20.5	17.1	19.7	16.5	16.2
건강관리 서비스	14.2	12.5	15.7	13.7	13.4	18.0
문화여가 서비스	6.7	8.4	7.0	5.2	5.7	3.8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9.8	12.7	11.2	7.5	6.1	3.5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3.4	2.8	2.8	3.4	5.7	5.6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3.0	8.8	12.6	16.2	15.7	18.7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19.6	17.6	19.3	20.4	22.9	21.7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7.5	7.3	6.8	8.1	8.7	8.3
정보컨텐츠서비스	2.0	2.7	2.2	1.4	1.6	1.0
영농지원서비스	2.2	3.7	2.0	1.7	0.9	0.0
미용서비스	3.0	3.1	3.3	2.6	2.6	3.3
기타	0.0	0.0	0.1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96)	( 3,143)	( 3,213)	( 2,382)	( 1,157)	( 60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부표 II-11-11〉 노인(65세 이상)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18.6	18.9	17.9	18.1	20.3	16.7	14.8
건강관리 서비스	14.2	14.3	13.9	14.2	14.0	14.0	16.9
문화여가 서비스	6.7	7.3	5.3	4.6	7.5	7.1	4.7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9.8	11.2	7.0	6.8	10.1	11.0	12.6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3.4	2.7	4.9	4.6	2.5	4.3	2.5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3.0	11.3	16.5	18.1	11.8	11.5	11.5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19.6	19.2	20.2	19.1	19.0	21.0	18.9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7.5	7.4	7.8	7.9	7.5	6.7	10.3
정보컨텐츠서비스	2.0	2.3	1.6	1.5	2.1	2.3	2.1
영농지원서비스	2.2	2.9	0.8	1.1	2.8	2.0	2.5
미용서비스	3.0	2.5	4.1	3.9	2.4	3.4	3.3
기타	0.0	0.1	0.0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96)	( 7,093)	( 3,404)	( 2,079)	( 5,101)	( 2,831)	( 48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 〈부표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교육수준					취업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취업중	미취업
없음	18.6	18.7	18.5	17.9	19.5	19.2	21.5	17.1
건강관리 서비스	14.2	14.9	15.0	13.1	14.3	15.8	13.5	14.5
문화여가 서비스	6.7	4.2	4.3	6.8	7.8	12.8	5.4	7.3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9.8	5.6	7.7	9.5	13.2	11.8	12.6	8.4
장요환경 및 정례서비스	3.4	4.3	3.7	3.2	3.6	1.5	2.6	3.8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3.0	19.4	14.5	13.8	10.0	5.1	9.3	14.8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19.6	18.7	22.2	20.2	17.4	17.8	18.4	20.2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7.5	7.9	6.9	8.2	6.8	8.2	7.9	7.4
정보컨텐츠서비스	2.0	0.5	1.2	1.7	3.1	4.7	2.1	2.0
영농지원서비스	2.2	1.0	1.4	2.6	2.8	2.7	3.3	1.6
미용서비스	3.0	4.8	4.6	3.0	1.6	0.4	3.4	2.8
기타	0.0	0.0	0.1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96)	( 1,134)	( 2,173)	( 3,735)	( 2,726)	( 729)	( 3,558)	( 6,938)

주: 1)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 〈부표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기능상태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sup>1)</sup>	가구소득					기능상태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없음	18.6	20.5	16.2	17.1	20.1	19.0	19.5	12.7
건강관리 서비스	14.2	13.8	15.0	14.2	13.6	14.3	14.0	15.2
문화여가 서비스	6.7	3.9	4.9	6.4	8.4	9.7	7.3	2.9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9.8	6.6	8.0	10.9	10.8	12.8	10.5	5.8
장요환경 및 정례서비스	3.4	3.9	3.8	3.1	2.8	3.5	3.3	4.0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13.0	18.6	13.9	12.3	11.3	8.7	11.8	20.1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19.6	18.5	23.0	19.7	19.0	17.5	18.5	26.2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서비스	7.5	8.4	8.7	8.4	6.2	5.9	7.5	7.8
정보컨텐츠서비스	2.0	0.7	1.4	2.0	2.9	3.2	2.3	0.6
영농지원서비스	2.2	1.0	2.2	2.8	2.2	2.9	2.5	0.5
미용서비스	3.0	4.0	2.9	3.0	2.7	2.3	2.8	4.2
기타	0.0	0.0	0.0	0.1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96)	( 2,105)	( 2,113)	( 2,084)	( 2,111)	( 2,080)	( 9,036)	( 1,4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 부록 3. 부표: 시·도별 분석표<sup>6)</sup>

#### 제1 장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실태

〈부표 시·도별 1-3-3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대리응답 이유 (대리응답자에 한함)

(단위: %, 명)

특성	와병상태	정신심리상 태의 불안정	청각장애	언어장애	노쇠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23.0	49.2	12.3	4.1	9.0	2.5	100.0 (125)
서울	9.7	74.2	0.0	0.0	9.7	6.5	100.0 ( 31)
부산	33.3	44.4	11.1	0.0	11.1	0.0	100.0 ( 9) <sup>2)</sup>
대구	0.0	50.0	0.0	0.0	50.0	0.0	100.0 ( 2) <sup>2)</sup>
인천	81.3	18.8	0.0	0.0	0.0	0.0	100.0 (16)
광주	0.0	66.7	0.0	33.3	0.0	0.0	100.0 ( 3) <sup>2)</sup>
대전	50.0	50.0	0.0	0.0	0.0	0.0	100.0 ( 2) <sup>2)</sup>
울산	0.0	0.0	0.0	0.0	0.0	0.0	100.0 ( 0) <sup>2)</sup>
경기	10.7	53.6	17.9	3.6	10.7	3.6	100.0 (28)
강원	0.0	0.0	100.0	0.0	0.0	0.0	100.0 ( 2) <sup>2)</sup>
충북	0.0	100.0	0.0	0.0	0.0	0.0	100.0 ( 1) <sup>2)</sup>
충남	11.1	44.4	22.2	22.2	0.0	0.0	100.0 ( 9) <sup>2)</sup>
전북	42.9	14.3	14.3	0.0	28.6	0.0	100.0 ( 7) <sup>2)</sup>
전남	0.0	0.0	0.0	100.0	0.0	0.0	100.0 ( 1) <sup>2)</sup>
경북	0.0	37.5	50.0	0.0	12.5	0.0	100.0 ( 8) <sup>2)</sup>
경남	33.3	66.7	0.0	0.0	0.0	0.0	100.0 ( 3) <sup>2)</sup>
제주	-	-	-	-	-	-	- -

주: 1) 대리응답을 받은 125명만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6) 본문의 표 번호와 동일하게 부여하였음. 단 알파벳으로 정리된 표는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표로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임.

〈부표 시·도별 II-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역·성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지역		성		계 (명)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전국 <sup>1)</sup>	68.0	32.0	43.1	56.9	100.0 (10,674)
서울	100.0	0.0	45.2	54.8	100.0 ( 1,939)
부산	96.7	3.3	42.7	57.3	100.0 ( 837)
대구	89.9	10.1	43.4	56.6	100.0 ( 534)
인천	86.3	13.7	44.0	56.0	100.0 ( 495)
광주	100.0	0.0	44.8	55.2	100.0 ( 281)
대전	100.0	0.0	44.2	55.8	100.0 ( 285)
울산	67.0	33.0	45.6	54.4	100.0 ( 182)
경기	72.9	27.1	43.7	56.3	100.0 ( 2,057)
강원	45.9	54.1	43.1	56.9	100.0 ( 418)
충북	40.2	59.8	42.6	57.4	100.0 ( 373)
충남	23.1	76.9	43.3	56.7	100.0 ( 594)
전북	48.6	51.4	41.5	58.5	100.0 ( 533)
전남	23.8	76.2	40.5	59.5	100.0 ( 652)
경북	28.2	71.8	42.3	57.7	100.0 ( 813)
경남	39.6	60.4	38.1	61.9	100.0 ( 543)
제주	55.8	44.2	41.3	58.7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령·결혼상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연령					결혼상태		계 (명)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국 <sup>1)</sup>	29.8	30.3	22.6	11.1	6.2	67.4	32.6	100.0 (10,674)
서울	32.5	29.8	20.9	10.7	6.1	67.8	32.2	100.0 ( 1,939)
부산	33.7	29.8	20.3	10.5	5.6	63.9	36.1	100.0 ( 837)
대구	28.3	31.0	23.5	11.4	5.8	70.8	29.2	100.0 ( 534)
인천	34.5	28.7	17.0	11.5	8.3	71.5	28.5	100.0 ( 495)
광주	29.8	29.8	22.0	13.5	5.0	67.7	32.3	100.0 ( 281)
대전	28.1	30.5	22.8	12.6	6.0	70.2	29.8	100.0 ( 285)
울산	35.7	28.6	22.5	8.2	4.9	67.6	32.4	100.0 ( 182)
경기	30.1	31.8	22.2	10.0	5.9	67.6	32.4	100.0 ( 2,057)
강원	28.0	29.7	24.6	11.0	6.7	68.4	31.6	100.0 ( 418)
충북	27.9	31.6	26.3	9.1	5.1	71.8	28.2	100.0 ( 373)
충남	29.0	29.0	24.8	11.0	6.2	72.3	27.7	100.0 ( 594)
전북	30.2	26.1	23.3	13.3	7.1	67.3	32.7	100.0 ( 533)
전남	23.9	32.9	25.4	11.5	6.3	63.3	36.7	100.0 ( 652)
경북	23.4	31.3	26.8	11.9	6.5	67.4	32.6	100.0 ( 813)
경남	28.7	30.4	21.7	13.4	5.7	58.1	41.9	100.0 ( 543)
제주	31.2	29.7	21.7	9.4	8.0	68.8	31.2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Ⅱ-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형태·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특성	가구형태				교육수준					계 (명)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무학(해독 못함)	무학(글씨 해독)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전문대 이상	
전국 <sup>1)</sup>	19.6	48.5	27.3	4.6	10.9	20.7	35.4	25.9	6.9	100.0 (10,674)
서울	16.9	40.8	38.3	4.0	4.6	18.4	30.5	36.2	10.3	100.0 ( 1,939)
부산	21.5	49.4	24.6	4.4	8.4	16.5	37.0	30.7	7.4	100.0 ( 837)
대구	17.4	53.9	21.3	7.3	9.6	20.1	33.8	28.5	8.1	100.0 ( 534)
인천	13.5	44.8	38.7	3.0	8.9	18.3	41.9	26.2	4.6	100.0 ( 495)
광주	21.3	51.4	23.4	3.9	9.9	19.4	30.4	29.0	11.3	100.0 ( 281)
대전	16.1	50.5	28.8	4.6	8.1	17.5	39.3	30.2	4.9	100.0 ( 285)
울산	19.9	52.5	23.8	3.9	9.9	21.4	38.5	27.5	2.7	100.0 ( 182)
경기	14.9	43.3	36.2	5.6	7.6	18.7	33.7	28.5	11.5	100.0 ( 2,057)
강원	19.4	52.8	22.5	5.3	14.1	24.6	36.8	20.3	4.1	100.0 ( 418)
충북	19.8	54.7	20.6	4.8	13.7	24.7	38.9	19.6	3.2	100.0 ( 373)
충남	18.9	55.2	21.0	4.9	13.8	20.4	46.4	15.2	4.2	100.0 ( 594)
전북	24.4	53.3	17.8	4.5	18.4	21.6	35.2	20.3	4.5	100.0 ( 533)
전남	30.2	55.4	10.6	3.8	17.8	30.4	37.1	13.7	1.1	100.0 ( 652)
경북	24.8	57.7	13.9	3.6	19.6	25.6	35.6	17.2	2.0	100.0 ( 813)
경남	28.4	46.0	21.7	3.9	19.0	22.8	35.9	18.6	3.7	100.0 ( 543)
제주	21.0	47.8	23.9	7.2	13.9	23.4	31.4	28.5	2.9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Ⅱ-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	건강한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 (명)
전국 <sup>1)</sup>	1.7	31.3	19.2	40.5	7.1	100.0 (7,139)
서울	2.2	35.3	18.4	36.3	7.8	100.0 (1,297)
부산	2.2	25.5	19.5	43.3	9.5	100.0 ( 527)
대구	2.1	34.9	23.5	32.5	6.9	100.0 ( 377)
인천	0.6	26.8	21.5	42.0	9.1	100.0 ( 347)
광주	1.0	29.3	17.8	45.5	6.3	100.0 ( 190)
대전	1.0	29.0	19.5	43.0	7.5	100.0 ( 198)
울산	1.6	25.2	17.1	49.6	6.5	100.0 ( 123)
경기	2.2	38.4	18.2	34.3	6.8	100.0 (1,381)
강원	1.0	31.1	22.7	40.6	4.5	100.0 ( 285)
충북	3.7	31.0	16.0	42.5	6.7	100.0 ( 267)
충남	2.3	30.3	13.3	48.3	5.8	100.0 ( 423)
전북	0.8	26.7	20.6	42.1	9.7	100.0 ( 357)
전남	0.2	28.6	17.2	49.8	4.1	100.0 ( 412)
경북	0.9	26.1	23.7	44.5	4.7	100.0 ( 544)
경남	0.9	21.8	21.1	47.9	8.2	100.0 ( 316)
제주	0.0	31.6	18.9	41.1	8.4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411명을 제외함.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II-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거주주택의 소유 실태

(단위: %, 명)

특성	주택 종류				현재 집 이외 소유여부		계 (명)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예	아니오	
전국 <sup>1)</sup>	74.2	6.7	8.4	10.7	8.7	91.3	100.0 (10,674)
서울	64.6	16.3	13.5	5.6	12.8	87.2	100.0 ( 1,939)
부산	71.7	8.2	11.1	9.0	7.4	92.6	100.0 ( 837)
대구	72.8	7.1	12.7	7.3	9.7	90.3	100.0 ( 534)
인천	77.6	7.9	5.9	8.7	6.3	93.7	100.0 ( 495)
광주	73.4	2.1	9.9	14.5	9.3	90.7	100.0 ( 281)
대전	78.6	3.9	9.5	8.1	10.8	89.2	100.0 ( 285)
울산	73.6	3.8	10.4	12.1	5.5	94.5	100.0 ( 182)
경기	73.3	8.0	9.7	8.9	9.7	90.3	100.0 ( 2,057)
강원	78.9	1.4	6.0	13.7	6.7	93.3	100.0 ( 418)
충북	78.3	2.1	4.8	14.7	11.5	88.5	100.0 ( 373)
충남	83.8	1.2	3.2	11.8	8.8	91.2	100.0 ( 594)
전북	79.7	1.3	4.9	14.1	4.1	95.9	100.0 ( 533)
전남	80.3	2.2	1.4	16.1	4.0	96.0	100.0 ( 652)
경북	78.2	1.1	4.6	16.1	5.9	94.1	100.0 ( 813)
경남	77.0	2.0	4.1	16.9	5.5	94.5	100.0 ( 543)
제주	71.9	0.7	8.6	18.7	12.3	87.7	100.0 ( 138)

주: 1)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의 시가(자산)

(단위: 만원, 명)

특성	자가 시가 <sup>1)</sup>	전세보증금 <sup>2)</sup>	보증금		월세	
			월세 <sup>3)</sup>	기타 <sup>4)</sup>	월세 <sup>5)</sup>	기타 <sup>6)</sup>
전국	21308.5	8911.6	868.0	23.1	2.5	0.0
서울	49889.0	11864.2	1117.4	19.4	0.0	0.0
부산	16393.1	3488.0	842.1	14.1	27.3	0.2
대구	16625.4	3928.2	252.8	13.1	0.0	0.0
인천	19388.7	6215.4	392.8	14.7	0.0	0.0
광주	10726.9	3196.4	565.8	10.9	0.0	0.0
대전	19506.5	3420.1	1004.4	253.3	36.8	0.2
울산	18973.6	2483.2	584.0	15.9	0.0	0.0
경기	30450.1	10287.2	1243.5	17.9	0.0	0.0
강원	8595.4	3273.2	504.2	15.0	0.0	0.0
충북	9084.3	3354.6	360.7	8.3	0.0	0.0
충남	9889.9	2468.8	285.2	17.3	0.0	0.0
전북	6937.4	2796.2	603.4	9.8	0.0	0.0
전남	4099.2	2844.0	261.2	8.1	0.0	0.0
경북	7139.8	3262.6	243.8	10.4	0.0	0.0
경남	9990.0	4091.4	898.2	12.9	0.0	0.1
제주	9592.8	3702.2	199.7	12.2	0.0	0.0

주: 1)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자가주택에 살고 있거나 기타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고 응답한 8,211명 중 무응답 73명을 제외함.

2)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전세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716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3)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월세에 살고 있는 892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함.

4)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기타에 살고 있는 1,144명 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함.

5)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월세에 살고 있는 892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6) 전세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기타에 살고 있는 1,144명 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단독가구 거주 기간

(단위: %, 년,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기간	계 (명)
전국 <sup>1)</sup>	19.1	17.0	38.0	18.4	7.4	14.2	100.0 (7,180)
서울	27.9	19.7	35.4	11.0	6.0	12.0	100.0 (1,096)
부산	21.7	18.3	36.7	16.5	6.8	13.6	100.0 ( 583)
대구	14.2	21.4	39.3	19.5	5.5	14.2	100.0 ( 379)
인천	20.8	18.0	40.8	12.8	7.6	13.5	100.0 ( 277)
광주	16.7	17.6	43.1	17.2	5.4	13.4	100.0 ( 204)
대전	20.6	21.7	41.3	11.1	5.3	12.1	100.0 ( 189)
울산	23.3	19.4	38.0	17.1	2.3	12.0	100.0 ( 130)
경기	23.7	18.7	37.7	13.3	7.6	13.2	100.0 (1,178)
강원	19.3	10.3	37.5	17.6	15.3	17.7	100.0 ( 302)
충북	16.2	13.7	37.9	24.5	7.6	14.8	100.0 ( 277)
충남	14.4	16.0	41.3	20.3	8.0	14.6	100.0 ( 436)
전북	13.4	15.3	37.5	24.6	9.2	16.1	100.0 ( 408)
전남	11.5	13.1	39.6	27.7	8.1	16.3	100.0 ( 557)
경북	12.2	15.0	36.6	28.5	7.7	16.2	100.0 ( 667)
경남	19.4	13.4	40.4	20.8	6.0	14.2	100.0 ( 402)
제주	14.6	17.7	29.2	26.0	12.5	17.9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1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시·도별 II-1-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단독가구 거주 이유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능력	건강	개인 (부부) 생활 향유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자녀 가사 지원· 손자녀 양육 부담	자녀의 결혼	자녀의 별거 희망	자녀가 타지역 있어서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자녀가 모두 딸이 어서	자녀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6.2	7.0	14.9	10.9	0.5	31.8	7.8	14.7	3.3	0.6	1.7	0.5	100.0 (7,206)
서울	6.5	10.4	13.0	3.4	1.4	36.2	13.6	9.2	3.4	0.6	1.5	0.8	100.0 (1,109)
부산	6.0	13.7	14.9	5.3	0.0	32.0	6.9	12.2	4.3	0.7	3.3	0.7	100.0 ( 582)
대구	8.9	7.4	27.4	11.6	1.8	12.9	12.6	5.0	7.1	1.8	3.2	0.3	100.0 ( 380)
인천	2.1	3.8	9.2	4.8	0.0	50.3	9.9	12.7	3.1	0.3	1.4	2.4	100.0 ( 280)
광주	1.5	1.5	35.1	4.5	0.0	27.2	10.4	16.8	2.0	0.0	1.0	0.0	100.0 ( 202)
대전	3.2	1.1	3.7	3.2	0.5	62.6	10.7	11.8	2.1	0.0	1.1	0.0	100.0 ( 186)
울산	6.9	6.9	36.9	8.5	0.0	13.8	7.7	10.8	6.9	0.8	0.0	0.8	100.0 ( 130)
경기	5.8	5.4	12.1	5.0	0.6	43.0	8.5	13.5	2.3	0.5	2.8	0.5	100.0 (1,180)
강원	4.3	6.3	9.5	14.8	0.3	27.3	8.9	22.0	3.0	1.6	2.0	0.0	100.0 ( 304)
충북	10.8	12.3	15.9	18.8	0.0	15.9	9.0	12.3	2.9	0.7	1.4	0.0	100.0 ( 277)
충남	12.2	6.8	13.3	13.8	0.9	27.8	3.8	17.6	1.6	0.9	0.9	0.2	100.0 ( 442)
전북	3.7	2.4	10.5	16.6	0.2	34.5	2.0	25.9	2.2	0.2	1.7	0.0	100.0 ( 409)
전남	2.0	4.7	20.8	19.0	0.0	24.3	2.3	22.4	3.6	0.5	0.5	0.0	100.0 ( 559)
경북	9.3	8.4	12.3	25.6	0.1	21.1	4.5	12.7	4.5	0.3	1.2	0.0	100.0 ( 668)
경남	4.7	4.0	16.9	14.2	0.0	29.9	4.2	21.6	2.5	0.0	0.7	1.2	100.0 ( 402)
제주	13.5	1.0	7.3	14.6	0.0	28.1	5.2	21.9	5.2	1.0	2.1	0.0	100.0 ( 9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329명,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2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부표 시·도별 II-1-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혼자녀와 동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단독가구 외로워서	가사노동 부담	본인/ 배우자 수발 필요	자녀에게 가사지원 · 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장애· 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경제적 능력부족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28.2	3.8	1.7	8.0	21.6	2.4	20.8	12.8	0.6	100.0 (1,547)
서울	24.6	3.0	2.4	9.3	25.2	0.6	18.3	15.3	1.2	100.0 ( 325)
부산	27.0	0.0	0.0	13.0	22.0	1.0	29.0	8.0	0.0	100.0 ( 100)
대구	43.7	5.6	0.0	2.8	22.5	7.0	11.3	7.0	0.0	100.0 ( 71)
인천	21.6	9.0	3.6	11.7	15.3	1.8	27.0	9.0	0.9	100.0 ( 107)
광주	18.5	0.0	0.0	14.8	29.6	7.4	18.5	11.1	0.0	100.0 ( 27)
대전	10.4	4.2	6.3	10.4	22.9	4.2	18.8	22.9	0.0	100.0 ( 48)
울산	50.0	0.0	0.0	0.0	20.0	0.0	20.0	10.0	0.0	100.0 ( 20)
경기	27.3	3.0	1.6	5.4	23.3	1.9	24.0	13.3	0.2	100.0 ( 429)
강원	45.5	3.6	0.0	7.3	16.4	1.8	16.4	9.1	0.0	100.0 ( 55)
충북	50.0	10.4	0.0	2.1	12.5	8.3	6.3	10.4	0.0	100.0 ( 48)
충남	31.6	7.6	1.3	7.6	21.5	1.3	16.5	12.7	0.0	100.0 ( 79)
전북	22.2	4.4	4.4	8.9	24.4	2.2	20.0	13.3	0.0	100.0 ( 45)
전남	27.1	2.1	0.0	12.5	20.8	4.2	16.7	10.4	6.3	100.0 ( 48)
경북	38.7	6.5	0.0	16.1	9.7	4.8	17.7	6.5	0.0	100.0 ( 62)
경남	22.1	1.5	1.5	4.4	19.1	4.4	27.9	19.1	0.0	100.0 ( 68)
제주	20.0	0.0	6.7	0.0	13.3	6.7	26.7	26.7	0.0	100.0 ( 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비혜당 8,986명, 무응답 2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희망 거주형태

(단위: %, 명)

특성	일반주택· 아파트	자녀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	그룹홈	일반주택· 아파트 +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74.2	18.4	0.8	0.9	0.5	5.1	0.1	100.0 (10,535)
서울	68.5	20.4	2.3	2.2	1.3	5.0	0.3	100.0 ( 1,905)
부산	78.9	12.7	0.0	1.1	0.1	7.2	0.0	100.0 ( 821)
대구	78.2	18.4	0.2	0.0	0.0	3.2	0.0	100.0 ( 532)
인천	69.1	26.5	0.8	0.6	0.2	2.7	0.0	100.0 ( 479)
광주	78.4	13.3	1.1	0.0	0.4	6.8	0.0	100.0 ( 278)
대전	77.0	22.0	0.4	0.0	0.4	0.4	0.0	100.0 ( 282)
울산	74.3	15.3	0.5	0.5	0.5	8.7	0.0	100.0 ( 183)
경기	69.2	21.2	1.1	1.3	0.7	6.2	0.3	100.0 ( 2,027)
강원	67.5	22.9	0.2	1.0	0.0	8.4	0.0	100.0 ( 415)
충북	81.8	14.5	0.5	1.1	0.3	1.9	0.0	100.0 ( 373)
충남	72.6	23.8	0.3	0.2	0.2	2.9	0.0	100.0 ( 584)
전북	77.6	13.7	0.6	0.2	0.6	7.4	0.0	100.0 ( 526)
전남	81.2	12.9	0.2	0.2	0.3	5.2	0.0	100.0 ( 650)
경북	82.8	13.7	0.0	0.2	0.0	3.2	0.0	100.0 ( 804)
경남	78.7	16.0	0.2	0.7	0.2	4.3	0.0	100.0 ( 539)
제주	75.9	16.1	0.0	0.0	0.0	8.0	0.0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a〉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취업상태·연가구소득(분위)·가능제한여부 분포

(단위: %, 명)

특성	현 취업상태		연가구소득					가능제한		계 (명)
	취업	미취업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있음	없음	
전국 <sup>1)</sup>	33.4	66.6	20.0	20.0	20.0	20.0	20.0	14.9	85.1	100.0 (10,674)
서울	21.6	78.4	12.8	15.5	18.5	22.7	30.5	15.5	84.5	100.0 ( 1,939)
부산	20.1	79.9	24.4	26.1	17.0	20.1	12.3	11.8	88.2	100.0 ( 837)
대구	22.7	77.3	20.2	17.2	24.7	18.5	19.3	11.8	88.2	100.0 ( 534)
인천	28.5	71.5	20.6	21.0	16.6	17.8	24.0	16.0	84.0	100.0 ( 495)
광주	22.4	77.6	22.7	23.4	15.2	24.5	14.2	20.6	79.4	100.0 ( 281)
대전	20.7	79.3	19.6	19.3	18.9	23.2	18.9	10.9	89.1	100.0 ( 285)
울산	32.4	67.6	18.2	24.9	21.5	21.0	14.4	12.1	87.9	100.0 ( 182)
경기	29.1	70.9	13.3	15.1	19.1	22.2	30.3	16.5	83.5	100.0 ( 2,057)
강원	38.3	61.7	15.9	20.7	23.3	22.4	17.8	17.2	82.8	100.0 ( 418)
충북	45.2	54.8	20.6	23.1	22.8	16.1	17.4	11.0	89.0	100.0 ( 373)
충남	57.6	42.4	18.5	20.7	23.8	20.7	16.2	11.6	88.4	100.0 ( 594)
전북	43.2	56.8	26.6	25.0	19.1	18.0	11.3	20.5	79.5	100.0 ( 533)
전남	52.6	47.4	36.0	25.0	20.7	11.7	6.6	16.3	83.7	100.0 ( 652)
경북	48.6	51.4	26.9	23.7	25.6	16.7	7.0	13.9	86.1	100.0 ( 813)
경남	42.0	58.0	30.9	25.7	15.8	18.2	9.4	12.9	87.1	100.0 ( 543)
제주	51.4	48.6	20.1	16.5	24.5	18.7	20.1	13.0	87.0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1-b〉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

(단위: %, 명)

특성	가구주와의 관계							계 (명)
	가구주 본인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	가구주의 조부모	가구주의 형제자매	기타	
전국 <sup>1)</sup>	61.2	26.6	0.0	0.0	0.1	0.0	0.0	100.0 (10,674)
서울	60.4	23.7	0.0	0.0	0.2	0.0	0.1	100.0 ( 1,939)
부산	64.5	25.7	0.0	0.0	0.1	0.0	0.0	100.0 ( 837)
대구	62.8	28.8	0.0	0.0	0.4	0.2	0.0	100.0 ( 534)
인천	54.9	27.7	0.0	0.0	0.0	0.0	0.0	100.0 ( 495)
광주	66.5	24.6	0.0	0.0	0.0	0.7	0.0	100.0 ( 281)
대전	58.5	29.6	0.4	0.0	0.0	0.0	0.0	100.0 ( 285)
울산	63.5	24.3	0.0	0.0	0.0	0.0	0.0	100.0 ( 182)
경기	55.8	25.8	0.2	0.0	0.2	0.0	0.0	100.0 ( 2,057)
강원	61.7	29.2	0.0	0.0	0.0	0.0	0.0	100.0 ( 418)
충북	59.6	31.8	0.0	0.0	0.0	0.0	0.0	100.0 ( 373)
충남	58.0	31.2	0.0	0.0	0.2	0.0	0.0	100.0 ( 594)
전북	63.0	28.0	0.0	0.0	0.2	0.0	0.0	100.0 ( 533)
전남	68.1	26.5	0.0	0.0	0.2	0.0	0.0	100.0 ( 652)
경북	66.9	28.5	0.0	0.0	0.0	0.0	0.0	100.0 ( 813)
경남	68.1	22.5	0.0	0.0	0.0	0.0	0.0	100.0 ( 543)
제주	61.6	30.4	0.0	0.0	0.0	0.0	0.0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1-c〉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원수·신규기존여부 분포

(단위: %, 명)

특성	가구원수						신규기존		계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신규	기존	
전국 <sup>1)</sup>	19.6	53.1	13.0	5.3	4.9	4.1	8.1	92.0	100.0 (10,674)
서울	16.9	47.2	16.2	6.1	7.7	5.9	2.5	97.4	100.0 ( 1,939)
부산	21.5	56.0	11.2	4.5	4.8	1.9	7.9	92.1	100.0 ( 837)
대구	17.4	57.1	15.0	4.5	3.7	2.2	20.1	79.9	100.0 ( 534)
인천	13.6	48.4	16.6	8.7	8.3	4.4	13.5	86.5	100.0 ( 495)
광주	21.4	56.9	13.5	4.3	1.4	2.5	28.5	71.5	100.0 ( 281)
대전	16.1	55.8	11.6	7.0	5.3	4.2	30.9	69.2	100.0 ( 285)
울산	19.8	56.6	9.3	6.6	4.9	2.7	31.9	68.1	100.0 ( 182)
경기	14.9	48.5	16.3	6.5	6.9	6.9	6.2	93.7	100.0 ( 2,057)
강원	19.4	56.6	10.8	7.7	3.4	2.1	4.5	95.5	100.0 ( 418)
충북	19.7	56.3	11.2	6.7	2.7	3.4	2.1	97.9	100.0 ( 373)
충남	18.9	57.7	11.3	4.9	3.5	3.8	1.9	98.2	100.0 ( 594)
전북	24.4	56.0	9.2	5.1	2.6	2.6	2.1	97.9	100.0 ( 533)
전남	30.2	57.7	6.6	2.0	1.8	1.7	9.0	91.0	100.0 ( 652)
경북	24.8	62.4	8.1	1.8	1.5	1.3	11.0	89.0	100.0 ( 813)
경남	28.4	51.9	10.5	2.4	2.8	4.1	2.2	97.8	100.0 ( 543)
제주	21.0	52.2	13.8	7.2	2.2	3.6	6.5	93.5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 제2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부표 시·도별 II-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율)

(단위: %)

특성	생존자녀	생존 손자녀	생존 부모	생존 배우자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이웃
전국 <sup>1)</sup>	99.0	95.3	5.0	7.3	82.4	54.6	75.9
서울	98.7	93.3	5.7	8.9	83.8	51.1	75.7
부산	98.3	91.7	5.7	5.9	80.6	65.7	82.6
대구	99.2	94.7	4.7	4.8	81.2	52.1	74.7
인천	99.6	97.1	3.3	6.5	82.8	48.2	75.7
광주	99.3	98.2	3.9	7.4	86.4	54.1	70.6
대전	98.9	98.2	3.9	10.1	81.6	44.0	78.0
울산	99.4	96.7	4.9	6.6	82.4	61.0	80.2
경기	98.6	94.2	5.7	10.1	82.3	53.7	73.6
강원	99.8	96.4	5.5	4.6	77.2	42.7	78.1
충북	99.5	97.0	4.6	4.5	81.7	55.1	75.8
충남	99.7	96.8	5.5	6.6	83.4	62.2	71.8
전북	99.2	95.1	6.8	9.3	83.7	57.6	74.0
전남	99.8	98.5	3.1	5.1	81.4	57.8	75.6
경북	99.7	97.3	3.2	4.1	83.0	56.2	77.6
경남	98.9	97.2	3.7	4.8	83.9	64.3	80.2
제주	97.8	95.7	7.3	9.4	74.6	27.5	69.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Ⅱ-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단위: %)

특성	생존자녀	동거자녀	생존 손자녀	동거 손자녀	생존(배우 자)부모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이웃
전국 <sup>1)</sup>	3.77	0.31	6.32	0.25	0.14	3.17	1.34	2.56
서울	3.28	0.44	4.91	0.34	0.17	3.27	1.26	2.54
부산	3.26	0.27	5.00	0.20	0.14	3.20	1.52	2.45
대구	3.54	0.24	6.02	0.21	0.10	3.25	1.18	2.43
인천	3.56	0.44	5.72	0.30	0.12	3.02	1.15	2.19
광주	4.12	0.25	7.17	0.14	0.12	3.18	1.16	2.37
대전	3.81	0.32	6.67	0.30	0.16	3.30	1.02	2.50
울산	3.58	0.27	6.09	0.26	0.12	3.29	1.47	2.34
경기	3.51	0.43	5.64	0.36	0.19	3.20	1.34	2.61
강원	4.26	0.26	7.25	0.17	0.11	2.68	1.12	2.96
충북	4.16	0.23	7.30	0.18	0.12	3.42	1.21	3.59
충남	4.29	0.22	7.78	0.19	0.14	3.17	1.61	2.62
전북	4.35	0.20	7.60	0.16	0.16	3.19	1.57	2.50
전남	4.70	0.11	8.54	0.10	0.09	3.20	1.66	2.26
경북	4.08	0.14	7.44	0.09	0.09	2.97	1.15	2.68
경남	4.12	0.24	7.30	0.21	0.10	3.14	1.59	2.43
제주	3.93	0.27	7.40	0.21	0.19	2.95	0.86	2.4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Ⅱ-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주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 1,2회	년 1,2회	없음	계 (명)
전국 <sup>1)</sup>	4.2	9.2	13.4	22.3	14.3	24.2	12.5	100.0 (7,118)
서울	5.7	8.1	16.4	20.2	11.8	27.0	10.8	100.0 (1,293)
부산	3.4	8.0	9.8	23.0	19.9	28.7	7.1	100.0 ( 522)
대구	5.1	8.2	13.0	19.4	15.4	18.9	19.9	100.0 ( 376)
인천	2.0	9.6	15.2	23.3	13.4	27.4	9.0	100.0 ( 343)
광주	4.2	13.7	10.5	25.8	10.0	21.6	14.2	100.0 ( 190)
대전	6.5	15.6	15.1	26.1	14.1	15.1	7.5	100.0 ( 199)
울산	2.4	6.5	7.3	26.0	31.7	21.1	4.9	100.0 ( 123)
경기	4.9	13.6	16.4	19.1	9.9	23.3	12.8	100.0 (1,379)
강원	4.9	4.9	9.5	17.2	13.7	25.3	24.6	100.0 ( 285)
충북	3.4	10.9	13.5	20.6	17.2	25.5	9.0	100.0 ( 267)
충남	2.1	11.1	17.7	30.7	17.0	13.9	7.5	100.0 ( 424)
전북	4.8	4.2	14.3	27.8	12.4	17.4	19.1	100.0 ( 356)
전남	1.5	3.4	7.8	22.6	10.5	32.6	21.7	100.0 ( 411)
경북	3.9	7.9	10.5	25.9	16.5	23.1	12.2	100.0 ( 541)
경남	3.2	8.3	5.7	19.4	23.9	30.6	8.9	100.0 ( 314)
제주	4.2	5.3	8.4	27.4	25.3	22.1	7.4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429명을 제외함. 무응답 없음.

## 〈부표 시·도별 II-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9.4	14.6	24.3	31.8	14.7	4.2	1.0	100.0 (10,156)
서울	13.5	18.7	23.8	26.8	10.7	4.9	1.7	100.0 ( 1,792)
부산	8.5	10.5	30.2	28.1	16.5	5.7	0.4	100.0 ( 787)
대구	9.1	11.3	27.0	34.5	14.3	3.6	0.2	100.0 ( 504)
인천	8.2	15.1	22.0	33.3	13.8	5.6	1.9	100.0 ( 463)
광주	7.4	11.4	23.9	32.7	18.0	6.6	0.0	100.0 ( 272)
대전	8.3	17.0	21.3	37.2	14.1	1.4	0.7	100.0 ( 277)
울산	9.7	21.6	29.0	25.0	11.4	2.8	0.6	100.0 ( 176)
경기	11.3	16.1	23.6	31.2	11.8	3.8	2.2	100.0 ( 1,935)
강원	11.5	14.2	27.4	28.7	13.7	4.5	0.0	100.0 ( 401)
충북	7.7	12.9	25.0	33.8	18.4	1.9	0.3	100.0 ( 364)
충남	6.2	10.9	27.0	37.7	16.3	1.6	0.3	100.0 ( 578)
전북	5.6	12.0	16.3	39.5	21.3	5.2	0.0	100.0 ( 516)
전남	3.4	8.8	20.6	34.6	26.0	6.2	0.5	100.0 ( 647)
경북	6.6	15.7	22.1	34.7	17.6	2.7	0.6	100.0 ( 789)
경남	6.5	16.3	31.0	32.7	10.5	2.7	0.4	100.0 ( 523)
제주	26.5	13.6	17.4	22.7	9.1	9.8	0.8	100.0 ( 1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포함

## 〈부표 시·도별 II-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3.9	34.1	25.5	12.4	2.5	0.9	0.7	100.0 (10,151)
서울	27.3	35.9	19.4	11.1	3.6	1.2	1.5	100.0 ( 1,792)
부산	20.6	32.2	29.4	15.1	1.4	1.0	0.3	100.0 ( 788)
대구	25.6	32.9	24.0	11.5	4.0	0.8	1.2	100.0 ( 504)
인천	16.6	36.9	24.0	18.6	1.1	1.9	0.9	100.0 ( 463)
광주	17.7	36.2	28.8	14.0	2.6	0.4	0.4	100.0 ( 271)
대전	21.0	27.9	33.7	13.8	3.3	0.4	0.0	100.0 ( 276)
울산	29.1	37.1	22.9	8.0	1.7	0.6	0.6	100.0 ( 175)
경기	23.0	32.8	25.3	14.1	3.6	0.5	0.7	100.0 ( 1,934)
강원	24.0	43.3	21.5	8.5	2.0	0.5	0.3	100.0 ( 400)
충북	30.4	36.4	19.7	9.3	1.9	0.8	1.4	100.0 ( 365)
충남	24.8	29.8	30.7	11.6	1.4	1.2	0.5	100.0 ( 577)
전북	22.5	31.4	31.8	11.4	1.6	1.2	0.2	100.0 ( 516)
전남	22.6	26.4	33.4	15.6	1.5	0.5	0.0	100.0 ( 647)
경북	28.2	36.6	24.4	7.9	1.3	0.9	0.6	100.0 ( 786)
경남	18.5	40.8	28.1	10.3	1.7	0.6	0.0	100.0 ( 524)
제주	28.6	31.6	18.8	15.0	2.3	2.3	1.5	100.0 ( 1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포함

〈부표 시·도별 Ⅱ-2-6〉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단위: %, 명)

특성	장남	차남	삼남이상	장녀	차녀	삼녀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33.3	14.8	6.8	27.7	10.7	6.7	100.0 (10,128)
서울	31.9	10.4	5.4	33.4	11.2	7.8	100.0 ( 1,777)
부산	33.5	12.1	3.7	35.7	9.9	5.1	100.0 ( 787)
대구	38.6	14.1	6.2	23.5	11.0	6.6	100.0 ( 502)
인천	30.7	18.2	4.3	31.6	8.7	6.5	100.0 ( 462)
광주	28.3	16.9	8.1	26.8	11.8	8.1	100.0 ( 272)
대전	34.8	15.9	8.0	23.6	10.5	7.2	100.0 ( 276)
울산	41.1	15.4	5.1	25.7	5.7	6.9	100.0 ( 175)
경기	30.6	14.0	5.0	34.4	11.9	4.1	100.0 ( 1,929)
강원	28.3	16.8	8.3	25.0	11.3	10.5	100.0 ( 400)
충북	30.0	18.2	7.2	23.4	14.9	6.3	100.0 ( 363)
충남	35.5	16.8	12.3	17.5	8.5	9.4	100.0 ( 577)
전북	37.1	17.5	8.7	18.8	10.9	7.0	100.0 ( 515)
전남	29.2	18.2	10.5	24.0	9.3	8.8	100.0 ( 647)
경북	42.4	15.1	8.1	18.7	8.6	7.1	100.0 ( 788)
경남	33.3	19.8	7.6	21.9	11.4	5.9	100.0 ( 525)
제주	45.9	12.8	7.5	18.8	10.5	4.5	100.0 ( 1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360명, 무응답 55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2-a〉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까지의 소요시간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10분 이내	걸어서 10분 ~ 30분 이내	자동차로 30분 이내	자동차로 30분 ~1시간 이내	자동차로 1시간~ 2시간 정도	자동차로 2시간~ 3시간 정도	자동차로 3시간 이상	해외 거주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7.7	11.4	24.1	20.5	18.1	8.0	8.6	1.4	100.0 (10,121)
서울	15.3	13.9	18.8	19.1	22.4	4.7	2.9	2.9	100.0 ( 1,772)
부산	8.3	10.0	25.0	29.4	14.2	2.7	9.3	1.1	100.0 ( 787)
대구	6.2	11.8	34.9	18.7	12.9	4.4	11.0	0.2	100.0 ( 502)
인천	9.3	14.5	22.1	18.8	23.6	7.4	2.2	2.2	100.0 ( 462)
광주	5.5	8.5	30.9	23.9	11.0	5.5	14.3	0.4	100.0 ( 272)
대전	7.2	11.2	38.8	20.3	8.7	10.1	2.9	0.7	100.0 ( 276)
울산	8.0	10.3	27.6	35.1	8.6	1.7	8.6	0.0	100.0 ( 174)
경기	7.9	13.5	24.8	23.8	18.9	5.7	2.5	3.0	100.0 ( 1,928)
강원	6.0	17.8	25.3	13.5	11.8	9.0	16.3	0.3	100.0 ( 399)
충북	5.5	11.6	17.4	22.3	18.7	18.2	6.3	0.0	100.0 ( 363)
충남	3.3	7.6	28.0	12.5	20.7	25.2	1.9	0.9	100.0 ( 576)
전북	3.9	10.9	25.8	16.5	13.8	8.3	20.6	0.2	100.0 ( 515)
전남	1.9	7.0	19.0	22.6	16.5	5.9	27.2	0.0	100.0 ( 647)
경북	3.7	6.7	25.9	15.0	18.8	14.8	14.6	0.6	100.0 ( 789)
경남	4.0	7.6	20.0	21.5	25.3	9.3	12.2	0.0	100.0 ( 525)
제주	20.1	12.7	21.6	11.2	20.1	1.5	11.9	0.7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부표 시·도별 11-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7.8	7.9	20.1	32.9	22.2	7.9	1.1	100.0 (10,154)
서울	11.7	9.4	23.4	28.8	17.2	7.4	2.1	100.0 ( 1,791)
부산	7.2	7.2	21.4	33.7	19.5	10.3	0.6	100.0 ( 789)
대구	6.7	6.2	20.4	37.7	22.2	6.3	0.4	100.0 ( 504)
인천	7.1	10.4	15.8	36.8	20.6	7.4	1.9	100.0 ( 462)
광주	6.6	8.1	24.4	32.8	14.4	13.7	0.0	100.0 ( 271)
대전	7.6	9.1	18.8	40.9	18.1	4.7	0.7	100.0 ( 276)
울산	4.6	6.9	25.1	37.7	17.7	7.4	0.6	100.0 ( 175)
경기	9.6	8.6	18.3	34.6	20.5	6.0	2.4	100.0 ( 1,936)
강원	9.7	8.5	18.7	31.7	23.7	7.7	0.0	100.0 ( 401)
충북	6.3	5.2	23.9	35.2	23.6	5.5	0.3	100.0 ( 364)
충남	4.3	6.2	21.7	34.7	27.4	5.2	0.5	100.0 ( 577)
전북	4.8	8.1	14.1	34.9	28.5	9.5	0.0	100.0 ( 516)
전남	3.2	5.4	14.8	30.4	29.4	16.2	0.5	100.0 ( 647)
경북	5.0	6.2	21.5	28.5	31.6	6.6	0.6	100.0 ( 787)
경남	4.4	7.8	21.9	32.0	25.1	8.4	0.4	100.0 ( 525)
제주	25.6	9.8	18.0	25.6	9.0	10.5	1.5	100.0 ( 1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부표 시·도별 11-2-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14.8	24.9	32.1	21.9	4.0	1.3	1.1	100.0 (10,154)
서울	18.4	29.9	26.3	16.7	4.9	1.7	2.2	100.0 ( 1,791)
부산	13.6	26.5	28.3	27.9	2.0	1.1	0.5	100.0 ( 788)
대구	13.9	22.0	32.7	23.0	3.8	1.6	3.0	100.0 ( 504)
인천	11.7	27.9	32.3	22.1	3.0	1.9	1.1	100.0 ( 462)
광주	13.6	28.7	32.7	19.9	4.0	0.4	0.7	100.0 ( 272)
대전	15.2	14.1	38.8	26.1	5.1	0.7	0.0	100.0 ( 276)
울산	13.6	21.6	38.6	20.5	3.4	1.7	0.6	100.0 ( 176)
경기	14.3	24.4	28.9	24.1	6.5	0.8	1.0	100.0 ( 1,936)
강원	15.0	26.8	37.5	16.0	3.8	0.8	0.3	100.0 ( 400)
충북	16.7	29.6	29.3	18.9	1.9	1.6	1.9	100.0 ( 365)
충남	12.8	23.5	37.4	21.8	2.6	1.4	0.5	100.0 ( 578)
전북	14.4	25.9	37.0	18.7	2.5	1.4	0.2	100.0 ( 514)
전남	15.3	19.1	33.3	28.7	2.6	0.6	0.3	100.0 ( 648)
경북	13.7	20.7	38.4	21.9	2.2	1.8	1.4	100.0 ( 787)
경남	11.1	22.7	38.2	22.7	4.2	1.0	0.2	100.0 ( 524)
제주	22.6	17.3	33.1	20.3	2.3	2.3	2.3	100.0 ( 1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355명, 무응답 36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부표 시·도별 II-2-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4.0	3.6	7.2	18.6	32.4	31.4	2.7	100.0 (9,879)
서울	7.0	5.4	6.7	20.5	27.8	28.8	3.8	100.0 (1,704)
부산	2.5	2.9	6.8	14.9	33.5	38.1	1.2	100.0 ( 750)
대구	4.2	2.8	10.2	15.9	39.4	25.5	2.0	100.0 ( 498)
인천	2.2	3.1	5.0	18.6	30.6	35.9	4.6	100.0 ( 457)
광주	4.1	1.9	6.3	15.2	25.6	43.7	3.3	100.0 ( 270)
대전	5.1	4.4	12.8	26.3	34.7	15.3	1.5	100.0 ( 274)
울산	3.4	2.3	8.0	20.6	30.3	34.9	0.6	100.0 ( 175)
경기	5.3	4.9	7.0	21.9	32.7	24.1	4.1	100.0 (1,873)
강원	5.6	3.6	6.9	18.6	38.4	25.2	1.8	100.0 ( 393)
충북	2.5	0.8	8.1	19.6	39.4	26.8	2.8	100.0 ( 358)
충남	2.0	1.8	9.8	19.5	36.3	30.3	0.4	100.0 ( 564)
전북	2.8	2.2	5.8	13.9	34.9	38.3	2.0	100.0 ( 496)
전남	0.8	0.6	5.0	12.3	31.5	45.1	4.7	100.0 ( 641)
경북	1.2	6.2	9.3	18.3	32.3	31.1	1.6	100.0 ( 774)
경남	1.1	0.4	3.6	16.3	32.6	45.2	0.8	100.0 ( 522)
제주	12.3	3.8	11.5	20.0	18.5	31.5	2.3	100.0 ( 13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641명, 무응답 28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부표 시·도별 II-2-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8	4.5	7.6	18.2	21.5	25.6	19.7	100.0 (9,875)
서울	3.6	5.6	6.6	18.3	21.1	23.7	21.1	100.0 (1,704)
부산	3.2	5.6	5.5	10.8	20.0	34.6	20.3	100.0 ( 749)
대구	3.8	3.8	9.7	18.7	22.9	24.3	16.7	100.0 ( 497)
인천	2.4	3.5	6.8	19.9	16.4	26.2	24.9	100.0 ( 458)
광주	1.5	3.0	8.2	15.2	20.4	27.5	24.2	100.0 ( 269)
대전	2.2	2.2	10.9	25.2	29.9	16.4	13.1	100.0 ( 274)
울산	2.9	2.9	9.1	23.4	20.6	23.4	17.7	100.0 ( 175)
경기	2.8	4.6	9.0	18.8	21.3	23.2	20.2	100.0 (1,873)
강원	2.8	1.8	4.9	11.3	22.8	39.6	16.9	100.0 ( 391)
충북	2.5	3.3	6.7	24.2	22.0	25.3	15.9	100.0 ( 359)
충남	1.2	3.4	9.8	20.4	21.3	23.6	20.4	100.0 ( 564)
전북	1.6	1.8	5.7	19.2	26.3	21.1	24.3	100.0 ( 494)
전남	1.9	3.1	5.8	20.2	21.1	23.6	24.4	100.0 ( 640)
경북	4.9	10.8	11.5	17.6	16.2	22.7	16.3	100.0 ( 777)
경남	0.8	2.7	4.0	13.0	27.8	38.5	13.2	100.0 ( 522)
제주	4.7	3.1	7.8	29.5	25.6	16.3	13.2	100.0 ( 12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641명, 무응답 28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부표 시·도별 11-2-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실태 및 연령

(단위: %, 명, 세)

특성	부모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두분 모두 사망	계 (명)	연령	
						부 <sup>3)</sup> (세)	모 <sup>5)</sup> (세)
본인의 부모 <sup>1)</sup>							
전국	0.3	0.3	4.5	95.0	100.0 (10,544)	89.54	89.45
서울	0.4	0.5	4.9	94.3	100.0 ( 1,908)	90.10	89.08
부산	0.0	0.0	5.7	94.3	100.0 ( 822)	-	89.41
대구	0.0	0.6	4.3	95.1	100.0 ( 533)	90.65	88.47
인천	0.2	0.0	3.3	96.5	100.0 ( 479)	92.00	87.34
광주	0.0	0.0	3.9	96.1	100.0 ( 279)	90.00	88.97
대전	1.1	0.7	2.5	95.8	100.0 ( 283)	92.31	89.31
울산	0.0	0.5	4.4	95.1	100.0 ( 182)	86.00	89.25
경기	0.4	0.2	5.1	94.3	100.0 ( 2,029)	88.56	89.58
강원	0.0	0.7	4.8	94.5	100.0 ( 417)	86.70	88.23
충북	1.6	0.3	2.7	95.4	100.0 ( 372)	87.99	88.56
충남	0.0	0.0	5.5	94.5	100.0 ( 585)	84.00	91.47
전북	0.0	0.6	6.1	93.3	100.0 ( 525)	93.24	90.10
전남	0.3	0.2	2.6	96.9	100.0 ( 651)	89.68	90.90
경북	0.0	0.1	3.1	96.8	100.0 ( 804)	92.00	89.21
경남	0.0	0.2	3.5	96.3	100.0 ( 540)	87.00	89.37
제주	0.0	0.7	6.6	92.7	100.0 ( 137)	92.18	90.88
배우자의 부모 <sup>2)</sup>							
전국	0.3	0.4	6.6	92.7	100.0 (7,101)	89.06	87.73
서울	0.0	0.8	8.1	91.1	100.0 (1,292)	87.84	86.38
부산	0.0	0.0	5.9	94.1	100.0 ( 522)	-	85.43
대구	0.0	0.5	4.2	95.2	100.0 ( 378)	89.65	88.69
인천	0.9	0.9	4.7	93.5	100.0 ( 338)	90.06	88.51
광주	0.0	0.0	7.4	92.6	100.0 ( 188)	86.96	88.77
대전	2.0	1.5	7.0	89.4	100.0 ( 199)	89.86	88.00
울산	0.8	0.0	5.7	93.4	100.0 ( 122)	87.00	88.61
경기	0.7	0.2	9.2	89.9	100.0 (1,369)	88.99	88.78
강원	0.0	0.4	3.9	95.8	100.0 ( 284)	83.82	87.17
충북	0.0	0.4	4.1	95.5	100.0 ( 267)	97.00	87.87
충남	0.2	0.0	6.4	93.4	100.0 ( 423)	93.00	90.45
전북	0.0	0.8	8.5	90.7	100.0 ( 355)	90.86	85.41
전남	0.2	0.0	4.9	94.9	100.0 ( 412)	86.00	88.45
경북	0.0	0.2	3.9	95.9	100.0 ( 543)	91.23	87.84
경남	0.6	0.0	4.1	95.2	100.0 ( 314)	85.00	86.38
제주	0.0	1.1	7.4	91.6	100.0 ( 95)	90.77	88.9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있는 7,101명을 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 10,544명중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4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5) 본인응답자 10,544명중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50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6)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4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2-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본인의 아버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sup>1)</sup>	2.0	49.0	30.6	18.4	100.0 (48)
서울	0.0	50.0	50.0	0.0	100.0 (14)
부산	0.0	0.0	0.0	0.0	100.0 ( 0) <sup>3)</sup>
대구	0.0	33.3	33.3	33.3	100.0 ( 3) <sup>3)</sup>
인천	100.0	0.0	0.0	0.0	100.0 ( 1) <sup>3)</sup>
광주	0.0	0.0	0.0	0.0	100.0 ( 0) <sup>3)</sup>
대전	0.0	0.0	33.3	66.7	100.0 ( 3) <sup>3)</sup>
울산	0.0	100.0	0.0	0.0	100.0 ( 1) <sup>3)</sup>
경기	0.0	75.0	16.7	8.3	100.0 (12)
강원	0.0	33.3	0.0	66.7	100.0 ( 3) <sup>3)</sup>
충북	0.0	40.0	60.0	0.0	100.0 ( 5) <sup>3)</sup>
충남	0.0	0.0	0.0	0.0	100.0 ( 0) <sup>3)</sup>
전북	0.0	0.0	50.0	50.0	100.0 ( 2) <sup>3)</sup>
전남	0.0	66.7	0.0	33.3	100.0 ( 3) <sup>3)</sup>
경북	0.0	100.0	0.0	0.0	100.0 ( 1) <sup>3)</sup>
경남	0.0	0.0	0.0	100.0	100.0 ( 1) <sup>3)</sup>
제주	0.0	0.0	0.0	0.0	100.0 ( 0) <sup>3)</sup>
본인의 어머니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sup>2)</sup>	1.8	41.9	31.7	24.6	100.0 (498)
서울	0.0	48.0	33.0	19.0	100.0 (100)
부산	0.0	21.3	29.8	48.9	100.0 ( 47)
대구	0.0	47.8	13.0	39.1	100.0 ( 23)
인천	0.0	35.3	47.1	17.6	100.0 ( 17)
광주	0.0	30.0	60.0	10.0	100.0 ( 10)
대전	0.0	20.0	40.0	40.0	100.0 ( 10)
울산	11.1	33.3	22.2	33.3	100.0 ( 9) <sup>3)</sup>
경기	2.7	55.4	29.5	12.5	100.0 (112)
강원	0.0	45.0	35.0	20.0	100.0 ( 20)
충북	0.0	37.5	18.8	43.8	100.0 ( 16)
충남	0.0	45.2	38.7	16.1	100.0 ( 31)
전북	3.1	37.5	18.8	40.6	100.0 ( 32)
전남	0.0	36.8	31.6	31.6	100.0 ( 19)
경북	16.0	16.0	60.0	8.0	100.0 ( 25)
경남	0.0	40.0	25.0	35.0	100.0 ( 20)
제주	0.0	50.0	20.0	30.0	100.0 ( 1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4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49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11-2-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배우자의 아버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sup>1)</sup>	2.0	47.1	33.3	17.6	100.0 (48)
서울	0.0	30.0	70.0	0.0	100.0 (10)
부산	0.0	0.0	0.0	0.0	100.0 ( 2) <sup>3)</sup>
대구	0.0	0.0	50.0	50.0	100.0 ( 6) <sup>3)</sup>
인천	16.7	83.3	0.0	0.0	100.0 ( 0) <sup>3)</sup>
광주	0.0	0.0	0.0	0.0	100.0 ( 6) <sup>3)</sup>
대전	0.0	16.7	33.3	50.0	100.0 ( 1) <sup>3)</sup>
울산	0.0	100.0	0.0	0.0	100.0 (12)
경기	0.0	58.3	41.7	0.0	100.0 ( 2) <sup>3)</sup>
강원	0.0	50.0	50.0	0.0	100.0 ( 1) <sup>3)</sup>
충북	0.0	0.0	0.0	100.0	100.0 ( 1) <sup>3)</sup>
충남	0.0	100.0	0.0	0.0	100.0 ( 4)
전북	0.0	0.0	25.0	75.0	100.0 ( 1) <sup>3)</sup>
전남	0.0	100.0	0.0	0.0	100.0 ( 1) <sup>3)</sup>
경북	0.0	100.0	0.0	0.0	100.0 ( 2) <sup>3)</sup>
경남	0.0	100.0	0.0	0.0	100.0 ( 2) <sup>3)</sup>
제주	0.0	50.0	0.0	50.0	100.0 ( 0) <sup>3)</sup>
배우자의 어머니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sup>2)</sup>	0.4	36.5	40.2	22.9	100.0 (491)
서울	0.0	31.4	50.5	18.1	100.0 (105)
부산	0.0	34.4	40.6	25.0	100.0 ( 32)
대구	0.0	13.3	13.3	73.3	100.0 ( 15)
인천	0.0	21.1	47.4	31.6	100.0 ( 19)
광주	0.0	28.6	64.3	7.1	100.0 ( 14)
대전	0.0	27.8	50.0	22.2	100.0 ( 18)
울산	11.1	33.3	22.2	33.3	100.0 ( 9) <sup>3)</sup>
경기	0.0	41.5	33.3	25.2	100.0 (135)
강원	0.0	45.5	45.5	9.1	100.0 ( 11)
충북	8.3	50.0	25.0	16.7	100.0 ( 12)
충남	0.0	53.6	28.6	17.9	100.0 ( 28)
전북	0.0	46.7	36.7	16.7	100.0 ( 30)
전남	0.0	45.0	45.0	10.0	100.0 ( 20)
경북	0.0	19.0	76.2	4.8	100.0 ( 21)
경남	0.0	35.7	7.1	57.1	100.0 ( 14)
제주	0.0	42.9	28.6	28.6	100.0 ( 7)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49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부표 시·도별 Ⅱ-2-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5.0	3.9	5.5	26.8	16.3	34.5	7.9	100.0 (378)
서울	0.0	7.5	6.3	32.5	8.8	30.0	15.0	100.0 ( 80)
부산	8.3	0.0	0.0	44.4	8.3	27.8	11.1	100.0 ( 36)
대구	0.0	6.3	6.3	6.3	50.0	31.3	0.0	100.0 ( 16)
인천	9.1	0.0	9.1	27.3	27.3	27.3	0.0	100.0 ( 11)
광주	11.1	0.0	11.1	0.0	11.1	55.6	11.1	100.0 ( 9) <sup>3)</sup>
대전	11.1	0.0	0.0	55.6	11.1	22.2	0.0	100.0 ( 9) <sup>3)</sup>
울산	0.0	12.5	12.5	12.5	25.0	25.0	12.5	100.0 ( 8) <sup>3)</sup>
경기	4.4	1.1	5.5	23.1	19.8	39.6	6.6	100.0 ( 91)
강원	8.3	0.0	8.3	8.3	25.0	33.3	16.7	100.0 ( 12)
충북	0.0	10.0	0.0	30.0	20.0	20.0	20.0	100.0 ( 10)
충남	4.5	4.5	4.5	18.2	22.7	45.5	0.0	100.0 ( 22)
전북	3.8	3.8	11.5	34.6	7.7	34.6	3.8	100.0 ( 26)
전남	0.0	14.3	0.0	28.6	14.3	42.9	0.0	100.0 ( 14)
경북	40.0	0.0	0.0	20.0	6.7	33.3	0.0	100.0 ( 15)
경남	0.0	0.0	7.7	23.1	15.4	46.2	7.7	100.0 ( 13)
제주	0.0	12.5	12.5	25.0	25.0	25.0	0.0	100.0 ( 8)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386명 중 무응답 8명 제외한 37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Ⅱ-2-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7.6	9.4	18.6	29.1	13.1	8.1	14.1	100.0 (382)
서울	11.3	8.8	26.3	13.8	8.8	18.8	12.5	100.0 ( 80)
부산	8.3	27.8	5.6	30.6	22.2	0.0	5.6	100.0 ( 36)
대구	5.9	11.8	5.9	17.6	41.2	11.8	5.9	100.0 ( 17)
인천	9.1	18.2	18.2	18.2	9.1	9.1	18.2	100.0 ( 11)
광주	10.0	10.0	30.0	20.0	10.0	10.0	10.0	100.0 ( 10)
대전	0.0	11.1	22.2	22.2	0.0	0.0	44.4	100.0 ( 9) <sup>3)</sup>
울산	0.0	11.1	22.2	22.2	22.2	0.0	22.2	100.0 ( 9) <sup>3)</sup>
경기	5.5	5.5	15.4	44.0	11.0	4.4	14.3	100.0 ( 91)
강원	0.0	9.1	0.0	54.5	0.0	27.3	9.1	100.0 ( 11)
충북	0.0	9.1	18.2	27.3	9.1	0.0	36.4	100.0 ( 11)
충남	9.5	0.0	14.3	52.4	14.3	9.5	0.0	100.0 ( 21)
전북	3.8	7.7	38.5	15.4	7.7	7.7	19.2	100.0 ( 26)
전남	7.1	0.0	14.3	35.7	7.1	0.0	35.7	100.0 ( 14)
경북	25.0	18.8	12.5	25.0	18.8	0.0	0.0	100.0 ( 16)
경남	0.0	0.0	33.3	33.3	25.0	8.3	0.0	100.0 ( 12)
제주	12.5	0.0	12.5	12.5	12.5	0.0	50.0	100.0 ( 8)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386명 중 무응답 8명 제외한 37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2-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 부모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2	2.0	5.7	16.8	21.6	43.1	8.7	100.0 (456)
서울	0.0	3.6	0.0	7.3	13.6	56.4	19.1	100.0 (110)
부산	0.0	0.0	8.7	34.8	26.1	30.4	0.0	100.0 ( 23)
대구	0.0	0.0	0.0	7.1	7.1	78.6	7.1	100.0 ( 14)
인천	0.0	0.0	5.0	20.0	45.0	25.0	5.0	100.0 ( 20)
광주	6.7	6.7	6.7	13.3	40.0	26.7	0.0	100.0 ( 15)
대전	11.1	0.0	0.0	33.3	22.2	33.3	0.0	100.0 ( 18)
울산	0.0	0.0	14.3	14.3	42.9	28.6	0.0	100.0 ( 7) <sup>3)</sup>
경기	1.6	0.0	10.3	15.9	19.8	46.8	5.6	100.0 (126)
강원	0.0	10.0	10.0	20.0	10.0	30.0	20.0	100.0 ( 10)
충북	0.0	9.1	9.1	0.0	27.3	36.4	18.2	100.0 ( 11)
충남	4.5	0.0	0.0	22.7	22.7	40.9	9.1	100.0 ( 22)
전북	0.0	0.0	11.5	34.6	34.6	19.2	0.0	100.0 ( 26)
전남	7.1	7.1	0.0	7.1	14.3	57.1	7.1	100.0 ( 14)
경북	10.5	0.0	0.0	26.3	42.1	21.1	0.0	100.0 ( 19)
경남	0.0	0.0	12.5	18.8	12.5	37.5	18.8	100.0 ( 16)
제주	12.5	12.5	12.5	25.0	0.0	37.5	0.0	100.0 ( 8)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의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460명 중 무응답 4명 제외한 4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2-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2	5.3	10.7	33.0	11.8	15.4	21.6	100.0 (456)
서울	0.0	0.0	11.8	27.3	15.5	32.7	12.7	100.0 (110)
부산	0.0	22.7	0.0	40.9	13.6	9.1	13.6	100.0 ( 22)
대구	0.0	0.0	0.0	7.1	28.6	21.4	42.9	100.0 ( 14)
인천	5.3	15.8	5.3	36.8	5.3	5.3	26.3	100.0 ( 19)
광주	15.4	0.0	15.4	38.5	7.7	7.7	15.4	100.0 ( 13)
대전	10.5	5.3	10.5	31.6	10.5	0.0	31.6	100.0 ( 19)
울산	0.0	0.0	22.2	22.2	11.1	0.0	44.4	100.0 ( 9) <sup>3)</sup>
경기	1.6	7.9	13.5	35.7	4.8	11.9	24.6	100.0 (126)
강원	0.0	25.0	12.5	37.5	0.0	12.5	12.5	100.0 ( 8) <sup>3)</sup>
충북	0.0	0.0	0.0	30.0	20.0	20.0	30.0	100.0 ( 10)
충남	0.0	10.0	10.0	40.0	25.0	10.0	5.0	100.0 ( 20)
전북	0.0	3.8	11.5	53.8	11.5	0.0	19.2	100.0 ( 26)
전남	7.7	0.0	0.0	38.5	15.4	15.4	23.1	100.0 ( 13)
경북	10.5	0.0	10.5	21.1	15.8	10.5	31.6	100.0 ( 19)
경남	0.0	0.0	13.3	26.7	13.3	13.3	33.3	100.0 ( 15)
제주	0.0	0.0	16.7	33.3	16.7	0.0	33.3	100.0 ( 6)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의 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해있는 460명 중 무응답 4명 제외한 4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Ⅱ-2-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3.7	2.3	3.2	10.7	22.8	42.5	14.8	100.0 (10,503)
서울	1.0	1.2	3.4	10.6	23.1	41.0	19.7	100.0 ( 1,900)
부산	1.3	1.2	1.8	9.4	23.6	51.4	11.2	100.0 ( 819)
대구	1.9	1.1	2.6	13.4	26.0	41.2	13.7	100.0 ( 531)
인천	0.6	0.4	1.5	6.1	20.8	48.8	21.7	100.0 ( 475)
광주	2.5	3.2	3.2	10.8	23.4	46.8	10.1	100.0 ( 278)
대전	0.7	2.2	2.9	12.2	26.6	43.2	12.2	100.0 ( 278)
울산	2.7	2.7	3.3	11.5	24.2	46.2	9.3	100.0 ( 182)
경기	2.2	2.4	2.7	10.4	23.9	43.5	14.8	100.0 ( 2,018)
강원	3.1	2.6	3.4	10.8	18.5	36.1	25.5	100.0 ( 416)
충북	3.8	3.0	5.1	15.3	25.5	33.9	13.4	100.0 ( 372)
충남	9.6	3.6	5.7	12.9	22.2	37.7	8.3	100.0 ( 581)
전북	8.8	2.9	3.6	10.9	21.9	37.1	14.9	100.0 ( 525)
전남	10.2	4.2	1.9	10.0	18.1	43.2	12.5	100.0 ( 648)
경북	7.0	2.7	3.1	11.3	23.3	40.6	12.0	100.0 ( 803)
경남	2.6	3.7	5.0	8.1	23.0	48.9	8.7	100.0 ( 540)
제주	13.1	6.6	4.4	10.9	13.9	28.5	22.6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11명, 무응답 28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부표 시·도별 Ⅱ-2-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0	4.4	9.3	29.9	24.5	18.5	11.2	100.0 (10,513)
서울	2.2	3.8	8.8	32.5	19.7	19.8	13.1	100.0 ( 1,900)
부산	1.2	2.2	6.7	24.0	38.2	18.8	8.9	100.0 ( 821)
대구	1.1	2.8	9.6	30.1	29.3	15.8	11.3	100.0 ( 532)
인천	0.6	2.3	6.1	25.6	24.2	25.6	15.5	100.0 ( 476)
광주	1.8	5.7	9.0	34.4	20.4	16.1	12.5	100.0 ( 279)
대전	1.8	1.8	7.2	38.0	30.1	10.8	10.4	100.0 ( 279)
울산	2.7	3.3	9.9	25.8	35.7	13.7	8.8	100.0 ( 182)
경기	2.3	4.2	8.8	29.0	23.5	21.3	11.0	100.0 ( 2,023)
강원	1.9	5.3	7.7	24.3	25.0	21.9	13.9	100.0 ( 416)
충북	1.3	5.1	13.4	30.1	20.7	16.1	13.2	100.0 ( 372)
충남	2.9	7.4	13.4	34.5	21.4	15.0	5.3	100.0 ( 580)
전북	2.9	8.0	10.5	35.6	18.5	13.3	11.2	100.0 ( 525)
전남	3.9	6.3	11.6	32.4	18.5	16.0	11.3	100.0 ( 648)
경북	1.5	3.7	11.2	30.8	26.6	14.8	11.3	100.0 ( 804)
경남	1.3	5.6	7.4	22.1	33.4	24.3	5.9	100.0 ( 539)
제주	3.6	6.6	10.9	28.5	13.9	14.6	21.9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비해당 11명, 무응답 20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부표 시·도별 11-2-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접촉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43.3	19.4	13.6	13.2	3.2	2.5	4.7	100.0 (10,526)
서울	25.9	21.0	15.5	22.0	5.1	2.9	7.6	100.0 ( 1,903)
부산	20.5	25.9	22.4	22.0	2.8	3.0	3.3	100.0 ( 821)
대구	43.3	17.9	12.2	14.7	2.8	1.7	7.3	100.0 ( 531)
인천	35.8	23.2	14.6	9.2	2.5	3.1	11.5	100.0 ( 478)
광주	43.2	16.9	14.0	14.7	4.7	4.3	2.2	100.0 ( 278)
대전	53.2	17.4	11.7	10.3	1.8	0.4	5.3	100.0 ( 282)
울산	49.2	15.3	15.8	13.7	1.6	2.2	2.2	100.0 ( 183)
경기	32.2	23.7	14.0	14.0	4.9	5.2	6.0	100.0 ( 2,020)
강원	48.2	16.9	19.0	10.1	1.9	1.2	2.7	100.0 ( 415)
충북	71.8	12.4	5.9	5.4	1.9	0.5	2.2	100.0 ( 372)
충남	54.5	19.7	12.2	8.9	2.6	1.0	1.0	100.0 ( 583)
전북	65.5	10.7	11.0	6.9	0.8	1.0	4.2	100.0 ( 525)
전남	71.6	11.8	7.8	5.2	1.5	0.9	1.1	100.0 ( 651)
경북	68.1	14.3	7.6	5.6	1.2	0.9	2.4	100.0 ( 805)
경남	45.9	22.6	15.4	10.4	2.4	1.3	2.0	100.0 ( 540)
제주	69.8	15.1	5.8	5.8	1.4	0.7	1.4	100.0 ( 13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4명, 무응답 19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부표 시·도별 11-2-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연락 없음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14.8	17.9	22.1	23.0	5.0	3.5	13.6	100.0 (10,525)
서울	12.0	20.1	19.6	25.9	4.8	4.0	13.6	100.0 ( 1,905)
부산	8.9	18.0	31.8	26.4	3.8	1.9	9.2	100.0 ( 823)
대구	11.9	17.4	19.8	27.2	3.6	1.7	18.5	100.0 ( 530)
인천	12.1	19.4	15.2	24.8	5.0	2.5	20.9	100.0 ( 479)
광주	13.9	16.8	20.0	18.2	5.7	3.9	21.4	100.0 ( 280)
대전	12.4	13.1	25.5	30.5	5.0	2.5	11.0	100.0 ( 282)
울산	31.9	15.4	22.0	15.9	2.7	2.7	9.3	100.0 ( 182)
경기	11.7	19.3	23.7	20.7	7.0	4.1	13.4	100.0 ( 2,017)
강원	14.7	25.4	25.8	19.1	3.1	3.1	8.7	100.0 ( 414)
충북	17.7	11.5	19.8	22.5	5.9	6.7	15.8	100.0 ( 373)
충남	12.5	19.6	23.0	28.0	5.8	5.5	5.5	100.0 ( 582)
전북	22.2	14.3	18.1	20.0	5.5	3.6	16.3	100.0 ( 526)
전남	30.3	15.7	15.4	16.2	3.5	2.8	16.2	100.0 ( 650)
경북	15.9	13.2	26.9	21.5	4.0	2.7	15.8	100.0 ( 804)
경남	19.1	18.1	19.8	23.0	5.6	3.9	10.6	100.0 ( 540)
제주	15.2	16.7	25.4	25.4	2.9	1.4	13.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해당 4명, 무응답 19명을 제외함.

2) 기타 포함

## 제3장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 〈부표 시·도별 11-3-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1.9	53.0	26.4	8.7	100.0 (2,903)
서울	10.5	40.2	34.4	14.8	100.0 ( 721)
부산	9.0	61.9	27.1	1.9	100.0 ( 210)
대구	24.6	38.5	27.0	9.8	100.0 ( 122)
인천	10.5	60.7	22.5	6.3	100.0 ( 191)
광주	6.2	66.2	16.9	10.8	100.0 ( 65)
대전	2.5	81.5	14.8	1.2	100.0 ( 81)
울산	11.4	70.5	18.2	0.0	100.0 ( 44)
경기	14.6	48.9	29.4	7.2	100.0 ( 741)
강원	13.8	58.5	25.5	2.1	100.0 ( 94)
충북	12.7	46.8	26.6	13.9	100.0 ( 79)
충남	2.5	71.3	22.1	4.1	100.0 ( 122)
전북	10.2	61.2	9.2	19.4	100.0 ( 98)
전남	7.0	71.8	9.9	11.3	100.0 ( 71)
경북	22.0	56.9	17.4	3.7	100.0 ( 109)
경남	7.4	71.1	19.0	2.5	100.0 ( 121)
제주	23.5	44.1	20.6	11.8	100.0 ( 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723

### 〈부표 시·도별 11-3-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9.0	50.7	31.3	9.0	100.0 (2,903)
서울	8.5	42.3	36.1	13.2	100.0 ( 721)
부산	7.7	58.4	32.1	1.9	100.0 ( 209)
대구	28.3	40.0	23.3	8.3	100.0 ( 120)
인천	7.3	43.5	41.9	7.3	100.0 ( 191)
광주	6.1	66.7	18.2	9.1	100.0 ( 66)
대전	3.7	78.0	17.1	1.2	100.0 ( 82)
울산	14.0	58.1	27.9	0.0	100.0 ( 43)
경기	8.5	48.4	34.7	8.4	100.0 ( 741)
강원	14.7	53.7	28.4	3.2	100.0 ( 95)
충북	5.1	54.4	29.1	11.4	100.0 ( 79)
충남	0.8	63.1	28.7	7.4	100.0 ( 122)
전북	9.1	55.6	15.2	20.2	100.0 ( 99)
전남	5.7	62.9	20.0	11.4	100.0 ( 70)
경북	18.2	52.7	21.8	7.3	100.0 ( 110)
경남	0.8	64.5	27.3	7.4	100.0 ( 121)
제주	23.5	44.1	23.5	8.8	100.0 ( 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3-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6.3	42.9	29.7	11.2	100.0 (2,903)
서울	11.5	35.9	38.0	14.6	100.0 ( 721)
부산	6.7	50.7	34.0	8.6	100.0 ( 209)
대구	26.7	29.2	30.8	13.3	100.0 ( 120)
인천	18.3	47.6	29.3	4.7	100.0 ( 191)
광주	7.8	57.8	28.1	6.3	100.0 ( 64)
대전	7.3	69.5	22.0	1.2	100.0 ( 82)
울산	9.3	46.5	30.2	14.0	100.0 ( 43)
경기	18.0	40.4	31.2	10.4	100.0 ( 740)
강원	28.1	41.7	20.8	9.4	100.0 ( 96)
충북	25.0	41.3	16.3	17.5	100.0 ( 80)
충남	15.6	55.7	18.9	9.8	100.0 ( 122)
전북	21.2	49.5	16.2	13.1	100.0 ( 99)
전남	23.9	57.7	15.5	2.8	100.0 ( 71)
경북	29.4	31.2	25.7	13.8	100.0 ( 109)
경남	16.4	46.7	21.3	15.6	100.0 ( 122)
제주	11.8	52.9	17.6	17.6	100.0 ( 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3-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21.1	40.7	25.1	13.2	100.0 (2,897)
서울	27.8	33.3	27.2	11.7	100.0 ( 720)
부산	18.6	47.1	27.6	6.7	100.0 ( 210)
대구	31.7	26.7	17.5	24.2	100.0 ( 120)
인천	13.2	43.7	32.6	10.5	100.0 ( 190)
광주	9.1	59.1	19.7	12.1	100.0 ( 66)
대전	7.4	55.6	27.2	9.9	100.0 ( 81)
울산	25.6	46.5	16.3	11.6	100.0 ( 43)
경기	21.8	41.9	23.8	12.6	100.0 ( 740)
강원	24.5	35.1	25.5	14.9	100.0 ( 94)
충북	20.3	46.8	17.7	15.2	100.0 ( 79)
충남	5.0	47.1	28.1	19.8	100.0 ( 121)
전북	20.0	46.0	21.0	13.0	100.0 ( 100)
전남	14.3	52.9	18.6	14.3	100.0 ( 70)
경북	24.5	29.1	20.9	25.5	100.0 ( 110)
경남	12.5	47.5	27.5	12.5	100.0 ( 120)
제주	21.2	36.4	27.3	15.2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3-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4.9	47.4	24.9	12.9	100.0 (2,902)
서울	12.6	38.0	31.2	18.2	100.0 ( 721)
부산	5.7	60.3	26.3	7.7	100.0 ( 209)
대구	23.0	27.9	29.5	19.7	100.0 ( 122)
인천	18.3	55.0	22.0	4.7	100.0 ( 191)
광주	7.6	47.0	33.3	12.1	100.0 ( 66)
대전	7.4	80.2	9.9	2.5	100.0 ( 81)
울산	7.0	51.2	23.3	18.6	100.0 ( 43)
경기	15.8	44.7	27.0	12.4	100.0 ( 740)
강원	22.1	56.8	13.7	7.4	100.0 ( 95)
충북	25.0	33.8	23.8	17.5	100.0 ( 80)
충남	12.4	62.8	19.8	5.0	100.0 ( 121)
전북	21.0	56.0	9.0	14.0	100.0 ( 100)
전남	11.4	67.1	17.1	4.3	100.0 ( 70)
경북	29.4	41.3	13.8	15.6	100.0 ( 109)
경남	9.9	56.2	20.7	13.2	100.0 ( 121)
제주	15.2	45.5	21.2	18.2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3-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6.0	21.8	34.8	37.4	100.0 (2,903)
서울	5.7	18.0	35.0	41.3	100.0 ( 721)
부산	4.8	28.2	30.1	36.8	100.0 ( 209)
대구	11.6	14.0	25.6	48.8	100.0 ( 121)
인천	2.6	23.2	46.3	27.9	100.0 ( 190)
광주	6.1	24.2	42.4	27.3	100.0 ( 66)
대전	3.7	42.7	41.5	12.2	100.0 ( 82)
울산	4.7	23.3	37.2	34.9	100.0 ( 43)
경기	6.6	20.4	37.7	35.4	100.0 ( 741)
강원	8.4	40.0	32.6	18.9	100.0 ( 95)
충북	2.5	11.4	32.9	53.2	100.0 ( 79)
충남	4.9	18.0	28.7	48.4	100.0 ( 122)
전북	19.0	25.0	23.0	33.0	100.0 ( 100)
전남	4.3	30.0	28.6	37.1	100.0 ( 70)
경북	4.6	17.4	24.8	53.2	100.0 ( 109)
경남	0.8	23.8	37.7	37.7	100.0 ( 122)
제주	9.1	27.3	30.3	33.3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계 (명)
전국 <sup>1)</sup>	40.8	74.6	76.5	100.0 (2,904)	4.6	27.0	45.5	100.0 (2,920)
서울	46.7	70.9	71.6	100.0 ( 722)	8.6	30.2	42.6	100.0 ( 721)
부산	47.4	82.3	83.3	100.0 ( 209)	5.2	14.3	46.7	100.0 ( 210)
대구	33.9	67.8	79.3	100.0 ( 121)	5.0	29.8	45.5	100.0 ( 121)
인천	41.4	73.3	86.2	100.0 ( 189)	0.5	26.7	42.1	100.0 ( 191)
광주	44.6	69.2	65.2	100.0 ( 66)	12.3	31.8	54.5	100.0 ( 66)
대전	43.2	86.4	82.9	100.0 ( 82)	1.2	23.2	39.5	100.0 ( 82)
울산	40.9	86.0	83.7	100.0 ( 43)	2.2	9.1	45.5	100.0 ( 44)
경기	40.9	75.4	72.0	100.0 ( 744)	1.9	29.5	42.5	100.0 ( 753)
강원	34.7	63.2	83.2	100.0 ( 95)	5.2	18.8	40.6	100.0 ( 96)
충북	28.8	75.9	75.9	100.0 ( 79)	2.5	43.8	57.5	100.0 ( 80)
충남	34.2	75.0	86.7	100.0 ( 120)	4.2	33.9	57.9	100.0 ( 121)
전북	41.4	68.4	74.7	100.0 ( 99)	7.1	16.2	46.0	100.0 ( 99)
전남	38.6	74.3	77.5	100.0 ( 71)	4.3	18.3	45.1	100.0 ( 71)
경북	18.2	80.9	79.8	100.0 ( 109)	4.6	36.4	59.6	100.0 ( 110)
경남	38.0	86.8	86.0	100.0 ( 121)	0.8	10.7	50.0	100.0 ( 122)
제주	36.4	72.7	79.4	100.0 ( 34)	3.0	30.3	61.8	100.0 ( 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거 자녀가 있는 2,91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1.4	58.8	22.3	7.6	100.0 (10,167)
서울	11.7	42.8	32.9	12.6	100.0 ( 1,796)
부산	12.5	67.7	16.0	3.8	100.0 ( 789)
대구	23.2	56.2	11.9	8.7	100.0 ( 505)
인천	11.7	53.4	26.7	8.2	100.0 ( 461)
광주	7.7	62.7	20.7	8.9	100.0 ( 271)
대전	4.3	84.9	10.1	0.7	100.0 ( 278)
울산	12.0	72.0	14.3	1.7	100.0 ( 175)
경기	10.8	52.6	28.1	8.6	100.0 ( 1,935)
강원	17.1	60.0	16.9	6.0	100.0 ( 403)
충북	11.0	52.6	31.2	5.2	100.0 ( 365)
충남	2.8	67.1	28.2	1.9	100.0 ( 578)
전북	5.0	71.1	9.3	14.6	100.0 ( 515)
전남	3.9	75.0	11.3	9.9	100.0 ( 647)
경북	22.0	55.9	19.4	2.7	100.0 ( 790)
경남	5.9	78.5	13.7	1.9	100.0 ( 525)
제주	23.1	50.7	16.4	9.7	100.0 ( 134)



〈부표 시·도별 II-3-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7.8	53.6	29.1	9.5	100.0 (10,164)
서울	7.5	41.7	37.5	13.3	100.0 ( 1,795)
부산	6.9	55.8	31.5	5.8	100.0 ( 788)
대구	17.3	53.6	17.9	11.3	100.0 ( 504)
인천	6.9	39.9	43.0	10.2	100.0 ( 461)
광주	7.4	62.6	21.1	8.9	100.0 ( 270)
대전	4.3	78.4	15.8	1.4	100.0 ( 278)
울산	10.2	60.2	26.1	3.4	100.0 ( 176)
경기	6.8	51.6	32.0	9.6	100.0 ( 1,933)
강원	14.9	58.2	21.0	5.9	100.0 ( 404)
충북	4.1	45.9	38.5	11.5	100.0 ( 364)
충남	2.4	63.7	28.5	5.4	100.0 ( 578)
전북	3.7	61.6	16.9	17.8	100.0 ( 516)
전남	2.9	70.8	13.3	13.0	100.0 ( 647)
경북	18.4	53.0	22.7	5.9	100.0 ( 790)
경남	1.3	54.0	40.1	4.6	100.0 ( 526)
제주	22.4	46.3	19.4	11.9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3-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5.6	40.5	38.2	15.8	100.0 (10,165)
서울	3.2	24.4	43.5	28.9	100.0 ( 1,796)
부산	3.7	39.4	40.4	16.5	100.0 ( 789)
대구	12.1	57.9	18.7	11.3	100.0 ( 504)
인천	3.3	37.8	45.7	13.3	100.0 ( 460)
광주	6.7	34.4	48.5	10.4	100.0 ( 270)
대전	2.5	72.3	20.5	4.7	100.0 ( 278)
울산	5.7	34.3	49.1	10.9	100.0 ( 175)
경기	4.0	28.9	48.8	18.3	100.0 ( 1,932)
강원	8.6	58.5	20.7	12.1	100.0 ( 405)
충북	6.8	52.1	31.8	9.3	100.0 ( 365)
충남	2.8	52.5	40.9	3.8	100.0 ( 577)
전북	6.6	51.1	28.4	13.9	100.0 ( 517)
전남	3.2	44.5	37.7	14.5	100.0 ( 647)
경북	17.3	52.0	22.4	8.2	100.0 ( 790)
경남	3.0	44.5	41.8	10.6	100.0 ( 526)
제주	6.0	47.0	23.9	23.1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3	10.0	38.8	49.9	100.0 (10,165)
서울	2.4	10.4	35.9	51.2	100.0 ( 1,796)
부산	0.9	13.8	55.6	29.7	100.0 ( 788)
대구	1.8	4.8	21.6	71.8	100.0 ( 504)
인천	0.7	10.8	55.3	33.2	100.0 ( 461)
광주	2.2	5.2	29.9	62.7	100.0 ( 271)
대전	0.0	15.9	49.8	34.3	100.0 ( 277)
울산	1.1	12.5	48.9	37.5	100.0 ( 176)
경기	1.0	9.1	45.0	44.9	100.0 ( 1,934)
강원	1.7	11.4	40.9	45.9	100.0 ( 403)
충북	2.2	7.1	27.1	63.6	100.0 ( 365)
충남	0.2	12.6	33.0	54.2	100.0 ( 578)
전북	1.7	14.0	28.3	55.9	100.0 ( 515)
전남	1.5	13.4	31.7	53.3	100.0 ( 647)
경북	0.8	4.1	19.5	75.7	100.0 ( 790)
경남	0.0	8.9	59.9	31.2	100.0 ( 526)
제주	0.7	7.5	32.1	59.7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7.4	41.8	32.1	18.7	100.0 (10,168)
서울	5.6	30.2	36.7	27.5	100.0 ( 1,797)
부산	3.8	46.0	36.1	14.1	100.0 ( 789)
대구	11.1	39.3	22.2	27.4	100.0 ( 504)
인천	5.6	45.1	34.9	14.3	100.0 ( 461)
광주	8.1	34.3	44.6	12.9	100.0 ( 271)
대전	4.7	76.8	15.9	2.5	100.0 ( 276)
울산	4.5	46.0	33.5	15.9	100.0 ( 176)
경기	6.2	34.9	38.5	20.5	100.0 ( 1,932)
강원	10.1	61.4	18.1	10.4	100.0 ( 404)
충북	14.2	35.2	26.5	24.0	100.0 ( 366)
충남	3.8	60.3	31.6	4.3	100.0 ( 579)
전북	9.1	48.4	24.2	18.2	100.0 ( 516)
전남	5.3	46.7	34.2	13.9	100.0 ( 647)
경북	18.1	36.0	23.4	22.5	100.0 ( 791)
경남	5.0	48.0	31.8	15.2	100.0 ( 525)
제주	9.7	50.0	20.1	20.1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3-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0.7	7.0	37.7	54.6	100.0 (10,165)
서울	0.6	5.0	35.4	59.1	100.0 ( 1,795)
부산	1.0	10.5	49.1	39.3	100.0 ( 788)
대구	0.2	4.2	22.4	73.2	100.0 ( 504)
인천	1.3	4.8	56.7	37.2	100.0 ( 462)
광주	3.3	2.2	29.9	64.6	100.0 ( 271)
대전	0.0	14.1	58.1	27.8	100.0 ( 277)
울산	0.6	9.1	42.3	48.0	100.0 ( 175)
경기	0.2	8.2	44.0	47.6	100.0 ( 1,934)
강원	1.2	13.4	44.3	41.1	100.0 ( 404)
충북	0.5	1.9	19.9	77.6	100.0 ( 366)
충남	0.0	7.4	34.8	57.8	100.0 ( 578)
전북	3.1	10.9	27.9	58.1	100.0 ( 516)
전남	0.5	12.5	34.3	52.7	100.0 ( 647)
경북	0.6	1.5	13.7	84.2	100.0 ( 790)
경남	0.0	3.6	56.2	40.2	100.0 ( 525)
제주	0.0	4.5	36.1	59.4	100.0 ( 1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3-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 지원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계 (명)
전국 <sup>1)</sup>	37.0	93.0	90.6	100.0 (10,167)	0.9	23.7	58.5	100.0 (10,162)
서울	38.0	88.3	84.4	100.0 ( 1,796)	1.9	25.9	45.7	100.0 ( 1,795)
부산	43.0	93.1	94.6	100.0 ( 789)	0.5	11.8	59.1	100.0 ( 789)
대구	43.8	94.3	96.8	100.0 ( 504)	0.8	24.4	37.1	100.0 ( 504)
인천	34.9	91.8	87.4	100.0 ( 460)	0.0	15.6	51.1	100.0 ( 460)
광주	50.9	96.3	95.9	100.0 ( 271)	1.1	17.3	61.6	100.0 ( 271)
대전	48.4	97.5	94.9	100.0 ( 276)	0.4	25.4	50.0	100.0 ( 276)
울산	31.4	98.9	96.6	100.0 ( 176)	0.6	14.8	60.6	100.0 ( 175)
경기	32.3	90.9	82.6	100.0 ( 1,934)	1.2	32.8	54.5	100.0 ( 1,931)
강원	35.4	88.9	89.9	100.0 ( 405)	1.5	10.9	57.9	100.0 ( 404)
충북	33.4	97.8	95.6	100.0 ( 365)	1.6	33.9	74.0	100.0 ( 366)
충남	28.9	93.3	97.8	100.0 ( 579)	0.2	25.6	83.2	100.0 ( 577)
전북	42.8	95.2	92.2	100.0 ( 516)	0.4	17.2	62.0	100.0 ( 516)
전남	39.1	97.1	94.6	100.0 ( 647)	0.2	12.5	69.6	100.0 ( 647)
경북	38.1	96.2	97.0	100.0 ( 790)	1.1	36.3	72.6	100.0 ( 791)
경남	31.6	98.9	96.8	100.0 ( 526)	0.0	12.4	67.5	100.0 ( 526)
제주	23.1	91.8	97.0	100.0 ( 133)	0.0	29.3	64.2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비동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0,1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5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3.1	20.1	39.3	37.6	100.0 (945)
서울	3.8	10.8	30.3	55.1	100.0 (185)
부산	0.0	19.4	58.3	22.2	100.0 ( 72)
대구	11.4	4.5	25.0	59.1	100.0 ( 44)
인천	2.9	14.7	52.9	29.4	100.0 ( 34)
광주	4.2	16.7	58.3	20.8	100.0 ( 24)
대전	0.0	12.9	48.4	38.7	100.0 ( 31)
울산	0.0	14.3	35.7	50.0	100.0 ( 14)
경기	1.7	28.8	40.0	29.6	100.0 (240)
강원	11.4	17.1	42.9	28.6	100.0 ( 35)
충북	0.0	3.8	53.8	42.3	100.0 ( 26)
충남	0.0	27.6	50.0	22.4	100.0 ( 58)
전북	10.0	15.0	26.7	48.3	100.0 ( 60)
전남	0.0	48.7	20.5	30.8	100.0 ( 39)
경북	2.7	40.5	13.5	43.2	100.0 ( 37)
경남	0.0	10.0	66.7	23.3	100.0 ( 30)
제주	0.0	6.3	43.8	50.0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6.3	31.0	35.5	27.3	100.0 (942)
서울	8.1	21.1	31.9	38.9	100.0 (185)
부산	8.5	38.0	33.8	19.7	100.0 ( 71)
대구	13.6	15.9	25.0	45.5	100.0 ( 44)
인천	0.0	23.5	50.0	26.5	100.0 ( 34)
광주	4.5	31.8	45.5	18.2	100.0 ( 22)
대전	0.0	25.8	41.9	32.3	100.0 ( 31)
울산	0.0	20.0	40.0	40.0	100.0 ( 15)
경기	5.0	29.7	39.3	25.9	100.0 (239)
강원	20.0	42.9	22.9	14.3	100.0 ( 35)
충북	0.0	26.9	38.5	34.6	100.0 ( 26)
충남	0.0	34.5	46.6	19.0	100.0 ( 58)
전북	11.9	39.0	27.1	22.0	100.0 ( 59)
전남	0.0	41.0	38.5	20.5	100.0 ( 39)
경북	10.5	68.4	10.5	10.5	100.0 ( 38)
경남	0.0	30.0	53.3	16.7	100.0 ( 30)
제주	6.3	37.5	25.0	31.3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3-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0.3	5.8	25.0	68.9	100.0 (944)
서울	0.0	8.1	11.9	80.0	100.0 (185)
부산	0.0	0.0	53.5	46.5	100.0 ( 71)
대구	0.0	11.9	7.1	81.0	100.0 ( 42)
인천	0.0	2.9	28.6	68.6	100.0 ( 35)
광주	0.0	0.0	60.9	39.1	100.0 ( 23)
대전	0.0	6.5	12.9	80.6	100.0 ( 31)
울산	0.0	0.0	26.7	73.3	100.0 ( 15)
경기	0.4	5.0	25.1	69.5	100.0 (239)
강원	2.9	8.6	20.0	68.6	100.0 ( 35)
충북	3.7	0.0	18.5	77.8	100.0 ( 27)
충남	0.0	7.0	24.6	68.4	100.0 ( 57)
전북	0.0	6.7	23.3	70.0	100.0 ( 60)
전남	0.0	7.7	48.7	43.6	100.0 ( 39)
경북	0.0	2.6	10.5	86.8	100.0 ( 38)
경남	0.0	9.7	54.8	35.5	100.0 ( 31)
제주	0.0	12.5	6.3	81.3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3-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8.3	23.7	22.9	45.0	100.0 (939)
서울	8.2	14.7	17.9	59.2	100.0 (184)
부산	9.9	33.8	38.0	18.3	100.0 ( 71)
대구	9.8	24.4	14.6	51.2	100.0 ( 41)
인천	8.8	32.4	20.6	38.2	100.0 ( 34)
광주	4.2	16.7	58.3	20.8	100.0 ( 24)
대전	9.7	22.6	22.6	45.2	100.0 ( 31)
울산	7.1	14.3	21.4	57.1	100.0 ( 14)
경기	10.0	13.4	23.8	52.7	100.0 (239)
강원	11.4	34.3	20.0	34.3	100.0 ( 35)
충북	11.5	34.6	11.5	42.3	100.0 ( 26)
충남	0.0	43.1	17.2	39.7	100.0 ( 58)
전북	8.3	31.7	15.0	45.0	100.0 ( 60)
전남	5.1	48.7	15.4	30.8	100.0 ( 39)
경북	7.9	23.7	28.9	39.5	100.0 ( 38)
경남	0.0	26.7	46.7	26.7	100.0 ( 30)
제주	20.0	33.3	6.7	40.0	100.0 ( 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0.2	3.2	25.6	71.0	100.0 (941)
서울	0.0	0.0	15.2	84.8	100.0 (184)
부산	0.0	0.0	53.5	46.5	100.0 ( 71)
대구	0.0	2.4	9.5	88.1	100.0 ( 42)
인천	0.0	2.9	32.4	64.7	100.0 ( 34)
광주	4.2	0.0	62.5	33.3	100.0 ( 24)
대전	0.0	3.3	16.7	80.0	100.0 ( 30)
울산	0.0	0.0	26.7	73.3	100.0 ( 15)
경기	0.4	2.1	28.6	68.9	100.0 (238)
강원	0.0	14.3	25.7	60.0	100.0 ( 35)
충북	0.0	0.0	14.8	85.2	100.0 ( 27)
충남	0.0	12.1	13.8	74.1	100.0 ( 58)
전북	0.0	6.7	20.0	73.3	100.0 ( 60)
전남	0.0	2.6	53.8	43.6	100.0 ( 39)
경북	0.0	0.0	5.3	94.7	100.0 ( 38)
경남	0.0	13.3	30.0	56.7	100.0 ( 30)
제주	0.0	6.3	18.8	75.0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3-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2.3	30.8	24.5	32.4	100.0 (942)
서울	8.1	28.6	16.2	47.0	100.0 (185)
부산	8.3	41.7	36.1	13.9	100.0 ( 72)
대구	25.0	17.5	7.5	50.0	100.0 ( 40)
인천	17.1	42.9	17.1	22.9	100.0 ( 35)
광주	8.3	16.7	58.3	16.7	100.0 ( 24)
대전	9.7	41.9	19.4	29.0	100.0 ( 31)
울산	6.7	13.3	33.3	46.7	100.0 ( 15)
경기	11.7	23.0	30.5	34.7	100.0 (239)
강원	20.0	25.7	28.6	25.7	100.0 ( 35)
충북	26.9	26.9	7.7	38.5	100.0 ( 26)
충남	7.0	29.8	33.3	29.8	100.0 ( 57)
전북	18.0	39.3	21.3	21.3	100.0 ( 61)
전남	5.1	61.5	15.4	17.9	100.0 ( 39)
경북	28.9	31.6	10.5	28.9	100.0 ( 38)
경남	0.0	36.7	43.3	20.0	100.0 ( 30)
제주	20.0	46.7	6.7	26.7	100.0 ( 1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3-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계 (명)
전국 <sup>1)</sup>	0.3	4.8	7.0	100.0 (929)	10.8	65.1	75.0	100.0 (936)
서울	0.0	3.9	5.1	100.0 (178)	21.3	63.7	67.4	100.0 (179)
부산	0.0	8.5	8.5	100.0 ( 71)	6.9	69.4	80.6	100.0 ( 72)
대구	0.0	4.8	4.9	100.0 ( 41)	9.5	53.7	70.7	100.0 ( 41)
인천	0.0	0.0	14.7	100.0 ( 35)	0.0	77.1	71.4	100.0 ( 35)
광주	0.0	8.7	8.7	100.0 ( 23)	0.0	60.9	75.0	100.0 ( 23)
대전	0.0	3.4	3.4	100.0 ( 29)	3.4	53.3	72.4	100.0 ( 30)
울산	0.0	0.0	6.7	100.0 ( 14)	0.0	71.4	78.6	100.0 ( 14)
경기	0.9	4.3	6.0	100.0 (235)	10.5	66.1	71.8	100.0 (239)
강원	2.9	5.9	8.6	100.0 ( 35)	14.3	60.0	77.1	100.0 ( 35)
충북	0.0	3.8	11.1	100.0 ( 27)	7.4	85.2	70.4	100.0 ( 27)
충남	0.0	0.0	8.8	100.0 ( 58)	8.6	53.4	91.2	100.0 ( 58)
전북	0.0	6.6	5.0	100.0 ( 60)	20.0	59.0	73.3	100.0 ( 61)
전남	0.0	10.0	7.7	100.0 ( 39)	0.0	66.7	82.1	100.0 ( 39)
경북	0.0	13.5	13.2	100.0 ( 38)	8.1	83.8	81.6	100.0 ( 37)
경남	0.0	0.0	6.5	100.0 ( 30)	0.0	60.0	90.0	100.0 ( 30)
제주	0.0	6.7	6.3	100.0 ( 16)	6.7	75.0	93.3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9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3-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9.8	66.4	10.5	3.3	100.0 (7,111)
서울	21.6	55.2	17.6	5.7	100.0 (1,290)
부산	21.2	71.9	6.0	1.0	100.0 ( 520)
대구	26.0	60.2	10.3	3.4	100.0 ( 377)
인천	19.1	61.2	16.2	3.5	100.0 ( 340)
광주	9.5	80.5	7.9	2.1	100.0 ( 190)
대전	7.6	85.3	6.1	1.0	100.0 ( 197)
울산	18.9	73.0	6.6	1.6	100.0 ( 122)
경기	23.9	62.0	10.5	3.6	100.0 (1,378)
강원	25.3	64.9	8.1	1.8	100.0 ( 285)
충북	18.0	67.8	11.6	2.6	100.0 ( 267)
충남	4.2	79.3	14.9	1.6	100.0 ( 430)
전북	17.8	67.2	7.9	7.1	100.0 ( 354)
전남	10.0	81.6	6.6	1.9	100.0 ( 412)
경북	28.8	64.6	3.9	2.8	100.0 ( 542)
경남	14.4	79.9	5.1	0.6	100.0 ( 313)
제주	34.0	57.4	5.3	3.2	100.0 ( 9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 〈부표 시·도별 11-3-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9.4	67.2	10.8	2.6	100.0 (7,108)
서울	23.4	53.7	18.5	4.4	100.0 (1,291)
부산	22.9	70.2	6.5	0.4	100.0 ( 520)
대구	26.3	65.2	6.9	1.6	100.0 ( 376)
인천	17.4	61.2	18.2	3.2	100.0 ( 340)
광주	9.5	81.1	7.4	2.1	100.0 ( 190)
대전	7.1	87.8	4.6	0.5	100.0 ( 197)
울산	18.9	72.1	8.2	0.8	100.0 ( 122)
경기	21.1	63.9	11.7	3.3	100.0 (1,378)
강원	24.6	68.1	6.7	0.7	100.0 ( 285)
충북	17.7	67.3	11.7	3.4	100.0 ( 266)
충남	3.3	81.4	14.0	1.4	100.0 ( 430)
전북	18.1	68.1	7.9	5.9	100.0 ( 354)
전남	9.3	83.2	6.6	1.0	100.0 ( 410)
경북	26.6	66.5	4.6	2.2	100.0 ( 541)
경남	13.1	79.9	6.4	0.6	100.0 ( 313)
제주	34.7	57.9	4.2	3.2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1명 제외함.

## 〈부표 시·도별 11-3-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34.9	39.6	16.1	9.4	100.0 (7,114)
서울	41.5	32.4	14.6	11.5	100.0 (1,291)
부산	31.3	46.2	15.4	7.1	100.0 ( 520)
대구	50.4	25.2	10.1	14.3	100.0 ( 377)
인천	30.6	35.9	26.2	7.4	100.0 ( 340)
광주	16.4	64.0	12.7	6.9	100.0 ( 189)
대전	16.2	65.2	13.6	5.1	100.0 ( 198)
울산	32.3	42.7	17.7	7.3	100.0 ( 124)
경기	37.4	33.1	20.0	9.5	100.0 (1,378)
강원	44.2	28.1	17.2	10.5	100.0 ( 285)
충북	40.4	37.8	13.5	8.2	100.0 ( 267)
충남	10.7	63.6	19.6	6.1	100.0 ( 429)
전북	34.1	43.7	11.5	10.7	100.0 ( 355)
전남	29.0	51.6	9.2	10.2	100.0 ( 411)
경북	44.1	33.2	12.9	9.8	100.0 ( 542)
경남	28.8	41.9	22.7	6.7	100.0 ( 313)
제주	26.3	56.8	9.5	7.4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11-3-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26.6	42.4	22.3	8.7	100.0 (7,112)
서울	29.1	36.0	27.5	7.3	100.0 (1,290)
부산	20.6	44.0	29.4	6.0	100.0 ( 520)
대구	40.8	26.3	14.6	18.3	100.0 ( 377)
인천	24.1	38.5	31.5	5.9	100.0 ( 340)
광주	13.7	61.6	17.4	7.4	100.0 ( 190)
대전	12.6	66.7	15.7	5.1	100.0 ( 198)
울산	25.2	35.8	29.3	9.8	100.0 ( 123)
경기	26.4	39.6	26.1	7.9	100.0 (1,377)
강원	33.7	31.9	23.5	10.9	100.0 ( 285)
충북	35.3	45.1	12.8	6.8	100.0 ( 266)
충남	9.1	64.4	20.2	6.3	100.0 ( 430)
전북	28.5	45.1	16.3	10.1	100.0 ( 355)
전남	23.6	53.8	10.7	11.9	100.0 ( 411)
경북	36.9	36.0	14.4	12.7	100.0 ( 542)
경남	23.0	44.1	24.6	8.3	100.0 ( 313)
제주	27.4	55.8	11.6	5.3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11-3-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9.8	50.3	19.4	10.5	100.0 (7,110)
서울	22.9	38.5	24.5	14.1	100.0 (1,290)
부산	18.7	51.9	18.7	10.8	100.0 ( 520)
대구	28.9	41.6	16.7	12.7	100.0 ( 377)
인천	15.9	61.5	16.2	6.5	100.0 ( 340)
광주	12.6	58.9	19.5	8.9	100.0 ( 190)
대전	14.1	69.7	10.6	5.6	100.0 ( 198)
울산	17.2	53.3	20.5	9.0	100.0 ( 122)
경기	16.7	50.1	22.1	11.1	100.0 (1,378)
강원	29.8	43.5	17.5	9.1	100.0 ( 285)
충북	22.1	47.9	16.9	13.1	100.0 ( 267)
충남	6.5	55.9	31.0	6.5	100.0 ( 429)
전북	22.8	58.0	9.3	9.9	100.0 ( 355)
전남	14.1	69.1	11.4	5.4	100.0 ( 411)
경북	29.6	43.3	16.1	11.1	100.0 ( 541)
경남	16.7	55.1	17.6	10.6	100.0 ( 312)
제주	28.4	50.5	11.6	9.5	100.0 ( 9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 〈부표 시·도별 II-3-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18.7	52.2	20.2	8.9	100.0 (7,111)
서울	20.1	40.8	26.3	12.8	100.0 (1,291)
부산	16.2	54.4	20.0	9.4	100.0 ( 520)
대구	27.9	42.4	18.6	11.1	100.0 ( 377)
인천	17.6	59.4	17.1	5.9	100.0 ( 340)
광주	12.6	62.1	21.6	3.7	100.0 ( 190)
대전	13.1	75.8	9.1	2.0	100.0 ( 198)
울산	14.8	52.5	22.1	10.7	100.0 ( 122)
경기	17.3	51.6	21.7	9.4	100.0 (1,378)
강원	26.8	46.5	17.6	9.2	100.0 ( 284)
충북	22.5	50.9	16.1	10.5	100.0 ( 267)
충남	7.5	59.9	27.5	5.1	100.0 ( 429)
전북	21.5	60.5	11.3	6.8	100.0 ( 354)
전남	15.6	69.1	11.4	3.9	100.0 ( 411)
경북	26.6	45.3	19.0	9.1	100.0 ( 541)
경남	12.1	57.8	19.8	10.2	100.0 ( 313)
제주	29.2	47.9	13.5	9.4	100.0 ( 9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7,1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없음.

## 제4장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부표 시·도별 II-4-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시도별	60세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0.0	3.4	12.9	59.1	11.3	13.3	100.0 (10,533)
서울	0.0	3.5	13.2	53.7	12.0	17.6	100.0 ( 1,907)
부산	0.0	0.7	13.6	66.5	12.8	6.3	100.0 ( 819)
대구	0.0	2.3	9.9	60.2	14.1	13.5	100.0 ( 533)
인천	0.0	3.6	13.2	58.2	13.8	11.3	100.0 ( 478)
광주	0.0	3.6	14.4	62.6	7.6	11.9	100.0 ( 278)
대전	0.0	3.2	10.3	55.3	12.1	19.1	100.0 ( 282)
울산	0.0	2.2	13.2	54.4	17.0	13.2	100.0 ( 182)
경기	0.0	4.7	12.8	58.6	12.1	11.7	100.0 ( 2,028)
강원	0.0	2.2	13.7	60.8	8.9	14.4	100.0 ( 416)
충북	0.0	4.9	7.8	58.5	11.6	17.3	100.0 ( 371)
충남	0.0	4.8	15.8	60.9	6.5	12.0	100.0 ( 583)
전북	0.0	4.4	14.9	59.7	8.6	12.6	100.0 ( 524)
전남	0.0	4.0	11.4	60.2	11.4	13.1	100.0 ( 650)
경북	0.0	3.0	11.2	62.2	8.0	15.5	100.0 ( 805)
경남	0.0	2.0	14.3	59.9	12.6	11.1	100.0 ( 539)
제주	0.0	2.2	21.0	58.7	10.1	8.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55.0	14.2	30.6	0.3	100.0 (10,523)
서울	53.6	11.4	34.7	0.3	100.0 ( 1,907)
부산	57.4	16.5	25.8	0.4	100.0 ( 814)
대구	57.8	19.9	22.1	0.2	100.0 ( 533)
인천	57.5	14.6	27.8	0.0	100.0 ( 478)
광주	41.7	14.0	44.2	0.0	100.0 ( 278)
대전	48.8	9.6	41.6	0.0	100.0 ( 281)
울산	72.4	16.0	11.6	0.0	100.0 ( 181)
경기	50.6	12.5	36.2	0.7	100.0 ( 2,028)
강원	52.6	15.6	31.0	0.7	100.0 ( 416)
충북	66.1	14.0	19.9	0.0	100.0 ( 372)
충남	52.9	12.7	34.4	0.0	100.0 ( 582)
전북	50.9	13.3	35.8	0.0	100.0 ( 525)
전남	50.7	16.0	33.2	0.2	100.0 ( 651)
경북	62.4	17.6	19.9	0.1	100.0 ( 803)
경남	65.0	18.1	16.9	0.0	100.0 ( 537)
제주	59.1	8.8	32.1	0.0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단위: %, 명)

특성	자녀동거 희망률 <sup>1)</sup>	노후 동거 희망 자녀 <sup>2)</sup>							기타	계 (명)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전국 <sup>1)</sup>	31.8	57.5	11.5	0.9	2.3	14.1	13.6	0.1	100.0 (2,910)	
서울	20.4	51.9	10.2	0.7	4.3	12.2	20.3	0.5	100.0 ( 607)	
부산	22.7	55.7	13.2	0.6	0.0	16.2	14.4	0.0	100.0 ( 167)	
대구	37.2	70.5	6.6	2.5	3.3	10.7	6.6	0.0	100.0 ( 122)	
인천	25.4	58.2	2.8	0.6	4.5	21.5	12.4	0.0	100.0 ( 177)	
광주	35.8	43.1	20.8	1.4	2.8	13.9	18.1	0.0	100.0 ( 72)	
대전	19.2	50.0	15.7	2.0	2.0	14.7	15.7	0.0	100.0 ( 102)	
울산	27.8	65.7	14.3	0.0	0.0	5.7	14.3	0.0	100.0 ( 35)	
경기	29.1	54.1	9.6	0.2	2.1	17.5	16.4	0.0	100.0 ( 560)	
강원	28.5	62.8	16.5	0.8	2.5	10.7	6.6	0.0	100.0 ( 121)	
충북	33.6	67.0	15.1	0.9	0.0	6.6	10.4	0.0	100.0 ( 106)	
충남	27.8	61.7	13.8	1.5	4.1	15.3	3.6	0.0	100.0 ( 196)	
전북	24.6	49.7	10.2	1.4	0.0	19.7	19.0	0.0	100.0 ( 147)	
전남	23.5	65.0	15.0	1.3	1.3	10.0	7.5	0.0	100.0 ( 160)	
경북	20.2	70.4	13.2	1.6	0.0	10.1	4.8	0.0	100.0 ( 189)	
경남	29.7	63.0	10.2	0.0	0.0	13.0	13.9	0.0	100.0 ( 108)	
제주	27.6	53.7	24.4	2.4	2.4	9.8	7.3	0.0	100.0 ( 4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2) 동거희망자 2,914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

(단위: %, 명)

특성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	가까이에 사는 것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	서로 도와주기	자주연락·방문	정서적 유대관계	비슷한 가치관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1.8	15.7	10.0	1.8	45.7	12.6	2.3	0.0	100.0 (10,530)
서울	6.3	17.5	16.8	2.9	32.8	19.3	4.5	0.0	100.0 ( 1,906)
부산	9.5	15.9	12.9	2.2	41.2	12.3	5.7	0.2	100.0 ( 822)
대구	10.5	8.5	5.6	2.4	56.6	14.1	2.3	0.0	100.0 ( 532)
인천	14.2	14.0	8.6	1.9	45.9	13.8	1.7	0.0	100.0 ( 479)
광주	12.9	17.6	9.7	1.4	50.9	7.2	0.4	0.0	100.0 ( 279)
대전	14.5	25.2	4.6	0.7	51.8	2.8	0.4	0.0	100.0 ( 282)
울산	7.7	10.4	12.1	2.2	54.9	9.3	3.3	0.0	100.0 ( 182)
경기	12.9	16.3	9.8	2.4	41.9	14.1	2.4	0.1	100.0 ( 2,022)
강원	10.8	17.8	9.6	0.2	48.2	11.1	2.2	0.0	100.0 ( 415)
충북	14.0	11.0	9.1	1.9	46.8	16.1	1.1	0.0	100.0 ( 372)
충남	25.6	19.9	4.3	0.9	41.1	8.1	0.2	0.0	100.0 ( 582)
전북	8.9	18.2	4.6	0.4	58.3	9.5	0.2	0.0	100.0 ( 527)
전남	12.5	16.5	4.6	0.9	60.6	4.6	0.3	0.0	100.0 ( 650)
경북	17.3	13.3	3.6	0.9	51.5	12.7	0.7	0.0	100.0 ( 804)
경남	8.3	6.3	17.6	0.6	56.2	8.9	2.0	0.0	100.0 ( 539)
제주	10.2	27.7	13.1	0.7	41.6	5.8	0.7	0.0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1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특성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장남에게 더 많이	장남에게만	딸제외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적사정이 나쁜자녀에게	사회환원/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	자신(배우자)을 위해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50.9	16.0	7.3	1.1	3.8	9.1	2.6	9.0	0.2	100.0 (10,525)
서울	48.6	9.5	5.5	0.5	7.1	15.3	2.8	10.5	0.3	100.0 ( 1,907)
부산	57.1	12.5	8.6	0.9	1.9	8.0	1.5	9.4	0.0	100.0 ( 821)
대구	37.0	20.9	9.2	0.8	3.2	9.4	2.4	17.1	0.0	100.0 ( 532)
인천	56.1	11.1	4.4	0.0	4.2	8.4	4.2	11.5	0.2	100.0 ( 478)
광주	62.7	12.9	5.7	1.1	2.9	6.5	3.6	3.6	1.1	100.0 ( 279)
대전	57.3	19.2	5.0	0.4	2.5	8.9	0.7	6.0	0.0	100.0 ( 281)
울산	55.8	22.1	6.6	1.7	1.7	5.5	0.6	5.5	0.6	100.0 ( 181)
경기	54.5	13.3	6.0	0.4	4.4	9.2	3.4	8.6	0.1	100.0 ( 2,025)
강원	49.5	22.4	9.4	1.7	2.9	5.5	1.9	6.5	0.2	100.0 ( 416)
충북	36.8	26.8	8.9	2.7	2.4	8.6	1.6	11.9	0.3	100.0 ( 370)
충남	54.6	17.4	8.4	0.5	3.1	9.1	0.5	6.2	0.2	100.0 ( 581)
전북	49.6	19.4	4.9	1.5	3.6	9.9	5.9	5.1	0.0	100.0 ( 526)
전남	53.1	18.1	6.8	3.7	3.2	5.8	5.2	3.8	0.2	100.0 ( 651)
경북	42.4	23.3	10.3	2.6	1.4	4.5	1.0	14.3	0.1	100.0 ( 802)
경남	48.9	19.1	14.9	1.5	3.0	5.8	0.9	5.8	0.2	100.0 ( 538)
제주	60.6	21.2	5.1	2.9	1.5	1.5	0.0	7.3	0.0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12명을 제외함.

2) 2008년도 설문문항에는 ‘상속할 재산이 없음’이라는 보기가 없었음

〈부표 시·도별 11-4-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특성	화장	매장	아직생각해보지 않았다	시신기증	계 (명)
전국 <sup>1)</sup>	60.3	25.6	13.1	1.0	100.0 (10,539)
서울	67.5	19.5	12.5	0.5	100.0 ( 1,909)
부산	77.7	12.4	8.9	1.0	100.0 ( 821)
대구	61.4	29.1	7.3	2.3	100.0 ( 533)
인천	71.0	19.4	9.4	0.2	100.0 ( 479)
광주	60.6	24.7	12.9	1.8	100.0 ( 279)
대전	57.8	26.6	14.9	0.7	100.0 ( 282)
울산	72.4	18.8	8.3	0.6	100.0 ( 181)
경기	63.2	20.5	14.3	2.0	100.0 ( 2,028)
강원	49.5	35.1	14.9	0.5	100.0 ( 416)
충북	50.5	39.8	9.7	0.0	100.0 ( 372)
충남	38.5	37.2	23.1	1.2	100.0 ( 584)
전북	54.1	30.9	13.3	1.7	100.0 ( 527)
전남	50.7	35.3	13.7	0.3	100.0 ( 651)
경북	49.3	35.6	14.8	0.4	100.0 ( 804)
경남	60.2	26.9	12.2	0.7	100.0 ( 540)
제주	43.5	34.1	21.7	0.7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4-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교 현황

(단위: %, 명)

특성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없음	계 (명)
전국 <sup>1)</sup>	31.3	21.8	9.7	1.8	0.2	0.5	34.7	100.0 (10,544)
서울	21.3	29.7	14.0	1.5	0.1	0.1	33.3	100.0 ( 1,907)
부산	48.3	11.8	6.9	1.6	0.2	0.5	30.7	100.0 ( 822)
대구	43.0	12.2	12.6	0.9	0.0	1.5	29.7	100.0 ( 532)
인천	18.8	31.7	13.8	2.7	0.0	0.6	32.4	100.0 ( 479)
광주	20.5	24.5	14.0	2.2	1.1	0.4	37.4	100.0 ( 278)
대전	32.9	24.0	7.8	1.8	0.0	0.7	32.9	100.0 ( 283)
울산	55.5	10.4	4.4	0.5	0.0	1.1	28.0	100.0 ( 182)
경기	24.6	26.3	14.4	1.2	0.1	0.4	32.9	100.0 ( 2,029)
강원	34.8	17.5	6.0	1.0	0.0	0.2	40.5	100.0 ( 417)
충북	37.0	13.4	6.4	2.1	0.0	0.3	40.8	100.0 ( 373)
충남	28.9	19.0	4.8	3.6	0.0	0.5	43.2	100.0 ( 585)
전북	19.4	32.1	6.5	1.0	1.7	1.1	38.2	100.0 ( 526)
전남	23.6	24.0	6.0	4.0	0.3	0.5	41.7	100.0 ( 653)
경북	43.0	13.2	3.5	1.9	0.0	0.5	37.9	100.0 ( 804)
경남	56.2	9.5	3.0	3.0	0.0	1.5	26.9	100.0 ( 539)
제주	48.6	6.5	5.1	2.9	0.0	0.0	37.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 〈부표 시·도별 II-4-8〉 노인의 시·도별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종교의 중요도					계 (명)
	매우 중요	중요한 편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국 <sup>1)</sup>	21.6	49.6	26.4	2.2	0.2	100.0 (6,864)
서울	31.1	43.4	23.1	2.0	0.4	100.0 (1,272)
부산	17.0	51.4	30.6	1.1	0.0	100.0 ( 566)
대구	22.1	47.9	26.9	3.2	0.0	100.0 ( 376)
인천	22.2	51.9	23.5	2.2	0.3	100.0 ( 324)
광주	20.6	57.1	21.1	1.1	0.0	100.0 ( 175)
대전	21.2	55.0	22.2	1.6	0.0	100.0 ( 189)
울산	14.8	50.0	34.4	0.8	0.0	100.0 ( 128)
경기	27.8	45.5	23.9	2.5	0.2	100.0 (1,358)
강원	17.9	46.3	32.1	3.7	0.0	100.0 ( 246)
충북	25.6	42.5	24.7	6.8	0.5	100.0 ( 219)
충남	9.7	53.8	35.0	1.5	0.0	100.0 ( 331)
전북	19.4	58.5	21.5	0.6	0.0	100.0 ( 325)
전남	10.3	58.5	29.9	1.3	0.0	100.0 ( 378)
경북	17.8	56.8	22.4	2.8	0.2	100.0 ( 500)
경남	7.9	53.8	36.3	2.0	0.0	100.0 ( 394)
제주	12.6	40.2	42.5	3.4	1.1	100.0 ( 87)

주: 1) 종교를 가지고 있는 6,681명 중 무응답 16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4-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국 <sup>1)</sup>	3.0	31.0	21.3	36.0	8.7	100.0 (10,540)
서울	6.9	32.5	20.5	31.9	8.2	100.0 ( 1,907)
부산	1.7	22.3	23.2	40.9	11.9	100.0 ( 822)
대구	2.8	37.4	26.1	29.3	4.3	100.0 ( 532)
인천	1.3	27.8	23.0	40.4	7.5	100.0 ( 478)
광주	0.0	32.0	27.0	36.3	4.7	100.0 ( 278)
대전	0.7	33.3	24.1	35.8	6.0	100.0 ( 282)
울산	2.2	25.8	19.8	42.3	9.9	100.0 ( 182)
경기	3.1	35.6	20.3	32.0	9.2	100.0 ( 2,028)
강원	1.9	30.5	27.9	32.9	6.7	100.0 ( 416)
충북	5.4	39.1	18.6	30.7	6.2	100.0 ( 371)
충남	1.4	32.9	18.5	39.8	7.4	100.0 ( 583)
전북	1.1	23.7	20.7	42.3	12.1	100.0 ( 527)
전남	3.5	23.7	20.3	45.5	7.1	100.0 ( 651)
경북	1.0	33.1	18.6	39.2	8.1	100.0 ( 803)
경남	0.6	23.9	21.0	40.1	14.5	100.0 ( 539)
제주	2.2	31.9	21.0	31.9	13.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상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국 <sup>1)</sup>	1.0	16.9	37.2	35.8	9.1	100.0 (10,539)
서울	1.3	17.9	36.3	33.2	11.3	100.0 ( 1,907)
부산	0.9	12.0	38.1	39.9	9.1	100.0 ( 822)
대구	1.7	22.7	34.9	34.1	6.6	100.0 ( 533)
인천	0.0	14.6	34.5	38.1	12.8	100.0 ( 478)
광주	0.0	17.2	37.6	39.4	5.7	100.0 ( 279)
대전	0.0	22.3	34.8	37.6	5.3	100.0 ( 282)
울산	0.5	22.0	31.3	40.1	6.0	100.0 ( 182)
경기	1.9	17.0	38.0	32.2	10.9	100.0 ( 2,028)
강원	0.0	16.3	41.1	34.9	7.7	100.0 ( 416)
충북	2.7	25.0	32.3	34.4	5.6	100.0 ( 372)
충남	0.0	12.7	45.8	37.0	4.5	100.0 ( 583)
전북	0.2	14.3	31.7	40.7	13.1	100.0 ( 526)
전남	0.3	12.5	34.3	44.9	8.0	100.0 ( 650)
경북	0.4	19.0	40.3	33.8	6.5	100.0 ( 804)
경남	0.2	15.4	40.6	35.8	8.0	100.0 ( 539)
제주	2.9	18.8	34.1	34.8	9.4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국 <sup>1)</sup>	6.9	61.4	24.5	6.3	1.0	100.0 (7,116)
서울	9.0	62.8	20.2	6.0	2.0	100.0 (1,294)
부산	3.4	58.4	32.4	4.4	1.3	100.0 ( 524)
대구	10.1	53.7	27.0	9.0	0.3	100.0 ( 378)
인천	3.6	56.2	32.2	6.2	1.8	100.0 ( 338)
광주	3.2	70.4	18.0	6.9	1.6	100.0 ( 189)
대전	2.5	61.1	29.8	6.1	0.5	100.0 ( 198)
울산	4.9	62.6	26.8	5.7	0.0	100.0 ( 123)
경기	8.2	61.6	23.6	6.3	0.3	100.0 (1,378)
강원	4.5	67.9	22.3	4.5	0.7	100.0 ( 287)
충북	8.6	66.3	15.7	7.5	1.9	100.0 ( 267)
충남	5.5	67.8	20.6	5.5	0.7	100.0 ( 422)
전북	5.9	55.1	28.5	9.0	1.4	100.0 ( 354)
전남	3.6	61.4	27.4	7.3	0.2	100.0 ( 412)
경북	12.1	58.8	23.0	5.5	0.6	100.0 ( 544)
경남	1.6	60.1	32.6	4.8	1.0	100.0 ( 313)
제주	9.4	64.6	14.6	10.4	1.0	100.0 ( 9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배우자가 있는 7,122명중 무응답자 7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국 <sup>1)</sup>	6.4	67.0	20.0	5.3	1.2	100.0 (10,346)
서울	8.0	58.4	25.1	7.0	1.7	100.0 ( 1,868)
부산	3.6	66.9	24.2	4.3	1.0	100.0 ( 797)
대구	8.8	66.0	18.9	5.4	1.0	100.0 ( 514)
인천	3.8	72.6	18.8	4.0	0.8	100.0 ( 474)
광주	1.5	78.5	15.3	3.6	1.1	100.0 ( 274)
대전	2.5	77.4	16.5	2.9	0.7	100.0 ( 279)
울산	2.2	73.3	19.4	3.9	1.1	100.0 ( 180)
경기	6.8	64.8	21.0	5.5	1.8	100.0 ( 1,982)
강원	7.4	70.1	17.2	4.2	1.2	100.0 ( 408)
충북	8.7	70.3	12.3	6.8	1.9	100.0 ( 367)
충남	4.7	75.8	14.7	4.5	0.3	100.0 ( 579)
전북	4.4	63.1	25.0	6.0	1.5	100.0 ( 520)
전남	2.9	74.3	16.6	5.9	0.3	100.0 ( 649)
경북	15.7	66.3	13.5	3.7	0.9	100.0 ( 792)
경남	2.1	70.6	22.0	4.9	0.4	100.0 ( 531)
제주	6.7	66.4	14.9	8.2	3.7	100.0 ( 13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자녀가 있는 10,360명을 대상으로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4-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성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안함	계 (명)
전국 <sup>1)</sup>	1.3	28.8	43.6	17.1	9.2	100.0 (10,428)
서울	1.8	25.9	43.1	17.5	11.7	100.0 ( 1,900)
부산	0.5	22.2	55.9	19.2	2.1	100.0 ( 769)
대구	2.2	42.9	28.8	18.0	8.1	100.0 ( 534)
인천	1.3	28.5	43.6	16.4	10.3	100.0 ( 477)
광주	0.0	25.9	51.8	12.6	9.7	100.0 ( 278)
대전	1.1	38.3	35.1	16.0	9.6	100.0 ( 282)
울산	1.2	37.4	43.3	15.8	2.3	100.0 ( 171)
경기	1.2	24.1	44.9	18.3	11.5	100.0 ( 2,010)
강원	0.7	29.0	40.5	19.7	10.1	100.0 ( 417)
충북	1.4	43.0	28.6	18.4	8.6	100.0 ( 370)
충남	0.2	33.1	47.9	12.3	6.5	100.0 ( 583)
전북	0.6	24.9	38.7	17.8	18.0	100.0 ( 527)
전남	0.2	19.4	53.4	17.5	9.5	100.0 ( 650)
경북	3.6	39.4	37.4	15.6	4.1	100.0 ( 803)
경남	1.7	29.7	47.4	16.4	4.8	100.0 ( 519)
제주	0.0	30.9	45.3	12.2	11.5	100.0 ( 13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17명을 제외함.

2) 2008년도 조사에서는 본 질문항목에 응답하겠다고 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부표 시·도별 Ⅱ-4-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그렇다	그런편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0.4	5.1	11.3	38.9	44.3	100.0 (10,484)
서울	0.4	7.5	12.9	32.3	46.8	100.0 ( 1,904)
부산	0.3	2.5	8.9	50.3	38.0	100.0 ( 797)
대구	0.0	2.8	6.4	45.7	45.1	100.0 ( 534)
인천	0.2	3.5	12.9	42.6	40.7	100.0 ( 479)
광주	0.7	2.2	7.9	51.4	37.8	100.0 ( 278)
대전	0.7	7.1	13.1	40.6	38.5	100.0 ( 283)
울산	0.6	3.3	10.6	45.6	40.0	100.0 ( 180)
경기	0.2	4.7	11.9	34.6	48.6	100.0 ( 2,017)
강원	0.2	9.1	25.2	32.0	33.4	100.0 ( 416)
충북	0.0	3.2	8.6	46.4	41.8	100.0 ( 371)
충남	0.0	4.8	12.7	34.2	48.3	100.0 ( 584)
전북	0.8	10.5	10.1	35.6	43.2	100.0 ( 526)
전남	1.8	7.1	8.0	46.1	37.0	100.0 ( 651)
경북	0.1	1.9	7.0	42.9	48.1	100.0 ( 801)
경남	0.2	2.6	11.3	42.3	43.5	100.0 ( 529)
제주	0.7	3.6	13.8	16.7	65.2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0명을 제외함.

## 제5장 노인의 경제상태

〈부표 시·도별 Ⅱ-5-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 명)

특성	식비	교육비	주거 관련비	보건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2.0	6.5	43.0	24.7	8.3	5.5	100.0 (10,674)
서울	21.0	8.5	37.1	20.6	7.9	5.0	100.0 ( 1,939)
부산	10.1	6.3	38.7	33.7	6.5	4.7	100.0 ( 836)
대구	10.5	4.9	46.4	21.5	9.7	6.9	100.0 ( 534)
인천	13.0	7.7	41.9	26.1	4.9	6.4	100.0 ( 495)
광주	13.8	2.8	31.6	37.9	10.6	3.2	100.0 ( 282)
대전	7.7	7.0	56.7	22.9	4.6	1.1	100.0 ( 285)
울산	6.0	6.6	44.0	25.8	12.6	4.9	100.0 ( 182)
경기	15.2	10.5	38.7	20.9	7.1	7.7	100.0 ( 2,057)
강원	9.4	5.3	52.5	17.3	10.6	4.8	100.0 ( 417)
충북	4.3	3.8	56.6	23.1	6.7	5.7	100.0 ( 374)
충남	7.4	4.9	45.1	24.7	11.3	6.6	100.0 ( 593)
전북	10.3	3.4	48.2	27.4	5.8	5.0	100.0 ( 533)
전남	5.1	2.3	50.6	28.5	10.1	3.5	100.0 ( 652)
경북	3.8	2.8	50.4	27.9	10.3	4.8	100.0 ( 814)
경남	9.4	5.0	42.0	30.2	9.6	4.0	100.0 ( 544)
제주	13.9	5.8	32.1	27.0	18.2	2.9	100.0 ( 137)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5-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생활비 주부담자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sup>1)</sup>	계 (명)
전국 <sup>2)</sup>	34.7	17.5	39.5	7.7	0.5	100.0 (10,674)
서울	33.3	17.3	39.7	8.6	1.2	100.0 ( 1,939)
부산	32.0	12.7	46.0	9.2	0.1	100.0 ( 836)
대구	28.6	19.6	36.1	14.6	1.2	100.0 ( 535)
인천	31.9	15.3	45.9	5.8	1.0	100.0 ( 495)
광주	33.1	14.2	46.3	6.0	0.4	100.0 ( 282)
대전	27.8	17.3	48.6	5.3	1.1	100.0 ( 284)
울산	39.2	17.7	38.2	5.0	0.0	100.0 ( 182)
경기	32.9	16.4	43.0	7.2	0.4	100.0 ( 2,058)
강원	36.1	18.2	37.5	6.9	1.2	100.0 ( 418)
충북	38.2	23.0	30.7	7.5	0.5	100.0 ( 374)
충남	45.0	21.9	28.2	4.4	0.5	100.0 ( 594)
전북	33.0	20.6	38.9	7.5	0.0	100.0 ( 533)
전남	38.0	19.2	36.8	6.0	0.0	100.0 ( 652)
경북	37.4	19.8	34.7	7.9	0.1	100.0 ( 812)
경남	38.3	14.2	40.0	7.6	0.0	100.0 ( 543)
제주	48.2	18.2	26.3	7.3	0.0	100.0 ( 137)

주: 1) 기타의 경우 설문문항 보기 중 (5) 자녀 이외의 함께사는 형제자매, 친척 친지, (6) 자녀이외의 따로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8) 기타 를 합쳤음.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11-5-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용돈 주부담자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sup>1)</sup>	계 (명)
전국 <sup>2)</sup>	31.6	6.2	34.2	27.6	0.5	100.0 (10,674)
서울	37.5	7.3	34.9	20.1	0.3	100.0 ( 1,938)
부산	30.5	2.6	32.3	34.3	0.4	100.0 ( 837)
대구	31.0	4.7	35.7	28.7	0.0	100.0 ( 533)
인천	26.6	4.2	39.7	28.4	1.0	100.0 ( 495)
광주	37.0	6.4	30.9	25.3	0.4	100.0 ( 281)
대전	33.7	7.0	34.4	24.2	0.7	100.0 ( 285)
울산	36.8	6.6	28.5	28.0	0.0	100.0 ( 183)
경기	34.9	8.6	32.8	22.7	1.0	100.0 ( 2,057)
강원	34.9	5.7	27.8	30.6	1.0	100.0 ( 418)
충북	30.6	5.9	40.5	22.8	0.3	100.0 ( 374)
충남	28.0	7.1	43.0	21.8	0.2	100.0 ( 593)
전북	26.3	6.0	33.2	34.0	0.6	100.0 ( 533)
전남	22.7	4.6	28.3	44.3	0.2	100.0 ( 653)
경북	21.6	4.2	37.6	36.1	0.6	100.0 ( 812)
경남	29.0	5.0	33.1	32.9	0.0	100.0 ( 544)
제주	43.9	9.4	22.3	24.5	0.0	100.0 ( 138)

주: 1) 기타의 경우 설문문항 보기 중 (5) 자녀 이외의 함께사는 형제자매, 친척 친지, (6) 자녀이외의 따로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8) 기타 를 합쳤음.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11-5-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단위: %, 명)

특성	등록장애인 <sup>1)</sup>		기초생활보호대상 <sup>2)</sup>			계 (명)
	예	아니오	국민기초생활보 호대상자	의료급여만	그 외	
전국 <sup>1)</sup>	13.6	86.4	6.2	1.0	92.8	100.0 (10,676)
서울	12.3	87.7	7.8	0.5	91.8	100.0 ( 1,939)
부산	12.2	87.8	7.4	1.0	91.6	100.0 ( 836)
대구	13.9	86.1	9.0	0.2	90.8	100.0 ( 534)
인천	17.8	82.2	5.9	0.6	93.5	100.0 ( 495)
광주	13.5	86.5	6.5	1.1	92.5	100.0 ( 282)
대전	17.9	82.1	4.2	0.7	95.1	100.0 ( 285)
울산	15.4	84.6	3.3	1.6	95.1	100.0 ( 182)
경기	11.9	88.1	6.2	0.6	93.2	100.0 ( 2,058)
강원	13.4	86.6	5.5	3.4	91.1	100.0 ( 418)
충북	11.8	88.2	6.2	0.8	93.0	100.0 ( 374)
충남	15.7	84.3	2.9	0.9	96.2	100.0 ( 593)
전북	17.1	82.9	6.8	0.8	92.4	100.0 ( 533)
전남	12.9	87.1	4.3	2.5	93.2	100.0 ( 652)
경북	14.9	85.1	6.8	1.2	91.9	100.0 ( 813)
경남	15.1	84.9	3.1	1.1	95.7	100.0 ( 544)
제주	14.4	85.6	5.8	1.4	92.8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110명을 제외한 10,56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5-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 명)

특성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계 (명)
전국 <sup>1)</sup>	10.5	36.2	47.3	5.7	0.2	100.0 (10,564)
서울	11.6	32.1	48.7	7.4	0.2	100.0 ( 1,907)
부산	9.7	45.6	43.2	1.3	0.1	100.0 ( 822)
대구	14.4	30.6	46.2	8.6	0.2	100.0 ( 533)
인천	9.8	39.8	46.3	3.7	0.4	100.0 ( 490)
광주	6.8	43.4	45.5	4.3	0.0	100.0 ( 279)
대전	7.0	42.6	46.5	3.9	0.0	100.0 ( 284)
울산	5.5	45.9	44.8	3.8	0.0	100.0 ( 183)
경기	11.4	30.7	49.2	8.0	0.6	100.0 ( 2,030)
강원	10.8	34.7	49.8	4.8	0.0	100.0 ( 418)
충북	11.8	30.0	42.9	14.2	1.1	100.0 ( 373)
충남	5.3	38.1	51.5	5.0	0.2	100.0 ( 583)
전북	13.4	38.4	45.3	2.8	0.0	100.0 ( 528)
전남	8.1	48.3	40.3	3.2	0.0	100.0 ( 652)
경북	11.3	34.0	49.6	5.1	0.0	100.0 ( 804)
경남	7.9	40.7	49.7	1.7	0.0	100.0 ( 541)
제주	17.5	29.2	46.0	6.6	0.7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함.

## 제6장 노인의 보건 의료 실태

## 〈부표 시·도별 II-6-2〉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sup>1)</sup>	3.5	35.7	25.8	29.7	5.3	100.0 (10,540)
서울	6.9	39.5	26.5	23.2	3.9	100.0 ( 1,908)
부산	2.1	24.8	29.6	36.8	6.7	100.0 ( 822)
대구	2.6	37.5	30.0	26.6	3.4	100.0 ( 533)
인천	1.9	34.7	30.5	26.7	6.3	100.0 ( 479)
광주	0.7	40.5	20.4	33.0	5.4	100.0 ( 279)
대전	0.7	30.5	28.4	36.2	4.3	100.0 ( 282)
울산	1.6	31.3	27.5	34.1	5.5	100.0 ( 182)
경기	4.3	40.1	25.5	24.7	5.5	100.0 ( 2,028)
강원	3.1	32.6	30.0	29.3	5.0	100.0 ( 416)
충북	4.8	41.7	26.6	22.0	4.8	100.0 ( 372)
충남	3.4	32.9	21.4	37.3	5.0	100.0 ( 584)
전북	2.1	36.0	18.9	35.8	7.2	100.0 ( 524)
전남	2.5	33.3	23.8	36.2	4.3	100.0 ( 651)
경북	1.2	36.4	23.3	33.5	5.6	100.0 ( 804)
경남	1.3	25.9	27.0	36.8	9.1	100.0 ( 540)
제주	2.9	34.8	21.0	34.1	7.2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6-3〉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9.8	18.5	23.4	48.3	100.0 (10,544)
서울	12.0	19.1	20.9	48.0	100.0 ( 1,908)
부산	8.3	13.4	22.5	55.8	100.0 ( 822)
대구	11.5	21.2	24.8	42.5	100.0 ( 533)
인천	10.1	19.3	22.2	48.4	100.0 ( 479)
광주	5.8	16.2	19.5	58.5	100.0 ( 279)
대전	7.8	23.8	21.6	46.8	100.0 ( 282)
울산	8.8	17.7	20.4	53.0	100.0 ( 182)
경기	8.6	18.3	24.0	49.1	100.0 ( 2,029)
강원	9.6	20.9	22.5	47.0	100.0 ( 416)
충북	14.2	28.2	28.8	28.8	100.0 ( 372)
충남	10.8	21.0	22.5	45.7	100.0 ( 585)
전북	6.8	14.4	23.4	55.3	100.0 ( 526)
전남	8.0	13.4	24.6	54.1	100.0 ( 651)
경북	10.2	22.6	29.6	37.6	100.0 ( 804)
경남	11.1	13.3	20.4	55.2	100.0 ( 540)
제주	8.0	18.8	29.0	44.2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II-6-10〉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낙상경험

(단위: %, 명)

특성	낙상 경험 있음	낙상 경험 없음	계	(명)
전국 <sup>1)</sup>	21.0	79.0	100.0	(10,544)
서울	20.8	79.2	100.0	( 1,908)
부산	19.1	80.9	100.0	( 822)
대구	15.2	84.8	100.0	( 533)
인천	25.7	74.3	100.0	( 479)
광주	22.2	77.9	100.0	( 279)
대전	21.6	78.4	100.0	( 282)
울산	21.5	78.4	100.0	( 182)
경기	21.0	79.0	100.0	( 2,029)
강원	19.2	80.8	100.0	( 416)
충북	18.8	81.2	100.0	( 372)
충남	25.0	75.1	100.0	( 585)
전북	24.9	75.1	100.0	( 526)
전남	22.9	77.1	100.0	( 651)
경북	18.7	81.3	100.0	( 804)
경남	21.3	78.7	100.0	( 540)
제주	18.8	81.2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II-6-14〉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우울증상

(단위: %, 명)

특성	우울증상 없음	우울증상 있음	계	(명)
전국 <sup>1)</sup>	70.8	29.2	100.0	(10,540)
서울	71.9	28.1	100.0	( 1,908)
부산	70.5	29.5	100.0	( 822)
대구	70.5	29.5	100.0	( 533)
인천	73.5	26.5	100.0	( 479)
광주	71.5	28.6	100.0	( 279)
대전	76.4	23.6	100.0	( 282)
울산	69.7	30.3	100.0	( 182)
경기	73.6	26.4	100.0	( 2,028)
강원	75.9	24.1	100.0	( 416)
충북	71.3	28.7	100.0	( 372)
충남	70.2	29.8	100.0	( 583)
전북	64.0	36.0	100.0	( 526)
전남	64.9	35.1	100.0	( 651)
경북	69.1	31.0	100.0	( 804)
경남	65.2	34.8	100.0	( 539)
제주	71.7	28.3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6-15〉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흡연상태

(단위: %, 명)

특성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계 (명)
전국 <sup>1)</sup>	12.6	25.9	61.5	100.0 (10,544)
서울	11.7	27.9	60.4	100.0 ( 1,908)
부산	10.1	26.3	63.7	100.0 ( 822)
대구	15.0	27.6	57.5	100.0 ( 533)
인천	13.6	23.4	63.0	100.0 ( 479)
광주	10.4	26.7	62.9	100.0 ( 279)
대전	14.5	30.4	55.1	100.0 ( 282)
울산	16.5	25.8	57.7	100.0 ( 182)
경기	12.6	24.8	62.6	100.0 ( 2,029)
강원	13.5	21.9	64.6	100.0 ( 416)
충북	13.2	23.3	63.5	100.0 ( 372)
충남	13.7	28.5	57.8	100.0 ( 585)
전북	12.5	23.2	64.3	100.0 ( 526)
전남	10.4	24.0	65.6	100.0 ( 651)
경북	13.4	26.8	59.8	100.0 ( 804)
경남	14.1	27.0	58.9	100.0 ( 540)
제주	11.7	24.8	63.5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 〈부표 시·도별 II-6-16〉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음주상태

(단위: %, 명)

특성	연간음주 경험 있음	연간음주 경험 없음	계 (명)
전국 <sup>1)</sup>	33.8	66.2	100.0 (10,543)
서울	37.0	63.0	100.0 ( 1,908)
부산	29.1	70.9	100.0 ( 822)
대구	34.7	65.3	100.0 ( 533)
인천	27.8	72.2	100.0 ( 479)
광주	34.4	65.6	100.0 ( 279)
대전	29.8	70.2	100.0 ( 282)
울산	34.6	65.4	100.0 ( 182)
경기	34.8	65.2	100.0 ( 2,029)
강원	33.7	66.3	100.0 ( 416)
충북	32.5	67.5	100.0 ( 372)
충남	33.3	66.7	100.0 ( 585)
전북	32.6	67.4	100.0 ( 525)
전남	34.4	65.6	100.0 ( 651)
경북	37.6	62.4	100.0 ( 804)
경남	30.4	69.6	100.0 ( 540)
제주	26.6	73.4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부표 시·도별 II-6-21〉 시·도별 노인(65세 이상)의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 명)

특성	건강검진 경험 있음	건강검진 경험 없음	계 (명)
전국 <sup>1)</sup>	81.9	18.1	100.0 (10,544)
서울	75.5	24.5	100.0 ( 1,908)
부산	89.3	10.7	100.0 ( 822)
대구	83.7	16.3	100.0 ( 533)
인천	74.3	25.7	100.0 ( 479)
광주	87.8	12.2	100.0 ( 279)
대전	83.0	17.0	100.0 ( 282)
울산	85.2	14.8	100.0 ( 182)
경기	79.1	20.9	100.0 ( 2,029)
강원	87.5	12.5	100.0 ( 416)
충북	82.5	17.5	100.0 ( 372)
충남	83.4	16.6	100.0 ( 585)
전북	85.0	15.0	100.0 ( 526)
전남	88.3	11.7	100.0 ( 651)
경북	85.4	14.6	100.0 ( 804)
경남	81.9	18.1	100.0 ( 540)
제주	77.5	22.5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부표 시·도별 II-7-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특성	보조기사용률	시력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전국 <sup>1)</sup>	58.7	3.5	67.1	27.1	2.3	100.0 (10,674)
서울	60.7	6.0	64.1	27.3	2.6	100.0 ( 1,939)
부산	65.1	2.6	62.0	33.3	2.2	100.0 ( 836)
대구	56.0	0.9	71.7	25.5	1.9	100.0 ( 534)
인천	61.0	3.8	69.7	21.6	4.8	100.0 ( 495)
광주	62.3	0.7	71.2	26.0	2.1	100.0 ( 281)
대전	56.5	0.7	65.6	31.6	2.1	100.0 ( 285)
울산	61.0	2.2	63.2	33.0	1.6	100.0 ( 182)
경기	61.7	5.1	63.0	29.3	2.6	100.0 ( 2,058)
강원	42.6	2.1	79.2	17.7	1.0	100.0 ( 418)
충북	59.8	4.5	68.7	24.9	1.9	100.0 ( 373)
충남	56.7	1.7	69.6	27.3	1.3	100.0 ( 593)
전북	62.1	3.8	71.8	21.2	3.2	100.0 ( 533)
전남	56.5	2.5	73.0	23.3	1.2	100.0 ( 653)
경북	54.9	1.4	74.1	22.8	1.7	100.0 ( 812)
경남	50.6	2.8	57.5	37.0	2.8	100.0 ( 544)
제주	46.4	1.4	68.1	28.3	2.2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7-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특성	보조기사용률	청력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전국 <sup>1)</sup>	3.9	4.2	75.2	18.7	1.9	100.0 (10,675)
서울	3.8	7.0	75.6	15.5	1.9	100.0 ( 1,939)
부산	2.6	1.7	75.9	20.3	2.2	100.0 ( 837)
대구	3.6	1.5	75.9	22.1	0.6	100.0 ( 534)
인천	3.4	4.6	76.4	17.2	1.8	100.0 ( 495)
광주	3.2	1.4	81.5	15.3	1.8	100.0 ( 281)
대전	4.9	1.4	82.1	14.4	2.1	100.0 ( 285)
울산	3.8	0.5	69.9	27.3	2.2	100.0 ( 182)
경기	4.0	7.1	72.5	18.2	2.1	100.0 ( 2,057)
강원	4.1	4.5	76.3	17.9	1.2	100.0 ( 418)
충북	3.7	5.1	75.3	17.4	2.1	100.0 ( 374)
충남	3.5	2.5	80.4	15.3	1.7	100.0 ( 594)
전북	4.7	3.0	73.8	21.1	2.1	100.0 ( 533)
전남	3.4	2.9	76.8	19.1	1.2	100.0 ( 652)
경북	5.0	2.6	73.8	21.8	1.8	100.0 ( 813)
경남	4.2	0.7	70.2	26.5	2.2	100.0 ( 543)
제주	3.6	1.5	78.1	17.5	2.9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7-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씹기능력 및 보조기 사용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특성	보조기사용률	씹기 상태				계 (명)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전국 <sup>1)</sup>	52.9	1.8	44.1	46.7	7.4	100.0 (10,675)
서울	45.0	2.8	50.9	37.8	8.6	100.0 ( 1,939)
부산	55.3	1.3	39.4	50.8	8.5	100.0 ( 837)
대구	53.9	0.4	51.9	44.6	3.2	100.0 ( 534)
인천	47.3	1.2	44.8	42.3	11.7	100.0 ( 495)
광주	43.3	0.4	48.0	46.3	5.3	100.0 ( 282)
대전	62.1	0.4	34.6	58.0	7.1	100.0 ( 285)
울산	54.4	1.6	38.5	52.2	7.7	100.0 ( 182)
경기	49.1	3.2	44.0	45.2	7.7	100.0 ( 2,058)
강원	50.2	0.5	44.5	50.5	4.5	100.0 ( 418)
충북	62.5	1.3	46.4	45.8	6.4	100.0 ( 373)
충남	56.7	1.3	44.1	49.2	5.4	100.0 ( 594)
전북	51.4	1.5	38.2	49.8	10.5	100.0 ( 533)
전남	59.4	1.7	38.2	54.1	6.0	100.0 ( 652)
경북	65.1	0.7	46.7	48.4	4.2	100.0 ( 813)
경남	61.9	0.7	32.4	56.9	9.9	100.0 ( 543)
제주	55.5	1.4	39.9	48.6	10.1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Ⅱ-7-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만도 수준

(단위: kg, cm, %, 명)

특성	평균		BMI (몸무게)3					계 <sup>4)</sup> (명)
	몸무게 <sup>1)</sup>	키 <sup>2)</sup>	저체중	정상18.5	과체중23	경도비만25	중증도비만30	
전국 <sup>1)</sup>	58.0	157.5	33.4	27.1	11.1	17.0	11.4	100.0 (10,675)
서울	59.4	158.5	27.1	27.9	12.3	17.8	14.9	100.0 ( 1,939)
부산	59.2	158.0	29.2	25.1	15.4	17.6	12.7	100.0 ( 837)
대구	58.2	158.5	32.3	30.2	10.3	18.0	9.2	100.0 ( 534)
인천	58.5	158.2	35.2	22.1	11.5	18.2	13.0	100.0 ( 495)
광주	58.0	158.1	33.9	28.6	8.2	19.3	10.0	100.0 ( 282)
대전	57.9	157.4	32.3	26.3	15.8	16.8	8.8	100.0 ( 285)
울산	59.3	158.9	27.9	26.8	10.6	24.6	10.1	100.0 ( 182)
경기	58.9	157.9	29.7	27.1	11.2	19.0	13.0	100.0 ( 2,058)
강원	58.3	156.0	32.5	23.5	11.4	20.6	11.9	100.0 ( 418)
충북	57.0	156.6	39.0	25.3	10.8	15.3	9.7	100.0 ( 373)
충남	56.5	156.2	39.8	29.9	9.1	11.3	9.9	100.0 ( 594)
전북	56.3	156.0	38.7	26.7	10.2	15.6	8.8	100.0 ( 533)
전남	56.1	156.0	41.0	28.6	7.0	14.7	8.6	100.0 ( 652)
경북	55.9	156.7	42.8	27.7	8.0	13.3	8.1	100.0 ( 813)
경남	56.5	156.9	37.9	29.0	11.6	13.6	8.0	100.0 ( 543)
제주	57.8	157.8	35.8	21.6	11.9	19.4	11.2	100.0 ( 137)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10,60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10,6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키 또는 몸무게에서 무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10,58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6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7-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하지 근력상태

(단위: %, 명)

특성	수행함	수행하지 못함	계 (명)
전국 <sup>1)</sup>	76.1	23.9	100.0 (10,667)
서울	77.9	22.1	100.0 ( 1,939)
부산	77.8	22.2	100.0 ( 835)
대구	84.3	15.7	100.0 ( 534)
인천	81.6	18.4	100.0 ( 495)
광주	81.5	18.5	100.0 ( 281)
대전	69.5	30.5	100.0 ( 285)
울산	70.9	29.1	100.0 ( 182)
경기	74.1	25.9	100.0 ( 2,056)
강원	71.5	28.5	100.0 ( 418)
충북	86.9	13.1	100.0 ( 373)
충남	69.0	31.0	100.0 ( 593)
전북	76.2	23.8	100.0 ( 533)
전남	78.8	21.2	100.0 ( 652)
경북	73.2	26.8	100.0 ( 812)
경남	70.5	29.5	100.0 ( 542)
제주	68.6	31.4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부표 시·도별 II-7-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

(단위: %, 명)

특성	운동장 뛰기	운동장 걷기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 쭈그러 앉기	머리 위 물건 닿기	8KG물건 옮기기	(명)
전국 <sup>1)</sup>	2.2	3.4	3.2	3.2	3.8	3.5	(10,667)
서울	2.3	3.4	3.2	3.2	3.8	3.5	( 1,939)
부산	2.1	3.3	3.2	3.3	3.7	3.4	( 835)
대구	2.4	3.7	3.5	3.4	3.9	3.7	( 534)
인천	2.2	3.3	3.1	3.2	3.7	3.3	( 495)
광주	2.3	3.5	3.2	3.3	3.8	3.5	( 281)
대전	2.2	3.4	3.2	3.1	3.9	3.7	( 285)
울산	2.0	3.3	3.2	3.3	3.6	3.5	( 182)
경기	2.2	3.4	3.3	3.2	3.7	3.5	( 2,056)
강원	2.2	3.6	3.4	3.4	3.9	3.7	( 418)
충북	2.2	3.5	3.3	3.2	3.8	3.7	( 373)
충남	2.1	3.3	3.2	3.1	3.8	3.5	( 593)
전북	2.1	3.2	3.1	3.1	3.7	3.5	( 533)
전남	2.4	3.5	3.3	3.3	3.8	3.5	( 652)
경북	2.2	3.4	3.2	3.1	3.8	3.5	( 812)
경남	2.1	3.2	3.1	3.2	3.6	3.4	( 542)
제주	2.2	3.2	3.2	3.3	3.7	3.4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부표 시·도별 II-7-7a〉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옷입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7.5	2.1	0.4	100.0 (10,675)
서울	96.8	2.7	0.5	100.0 ( 1,939)
부산	98.0	1.4	0.6	100.0 ( 837)
대구	97.2	2.4	0.4	100.0 ( 534)
인천	95.6	3.4	1.0	100.0 ( 496)
광주	99.3	0.7	0.0	100.0 ( 281)
대전	98.6	0.4	1.1	100.0 ( 285)
울산	99.5	0.5	0.0	100.0 ( 182)
경기	96.8	2.5	0.7	100.0 ( 2,058)
강원	97.1	2.9	0.0	100.0 ( 418)
충북	97.1	2.9	0.0	100.0 ( 373)
충남	98.8	1.0	0.2	100.0 ( 593)
전북	96.4	2.8	0.8	100.0 ( 533)
전남	99.5	0.5	0.0	100.0 ( 652)
경북	97.4	2.3	0.2	100.0 ( 813)
경남	98.7	1.1	0.2	100.0 ( 543)
제주	98.6	1.4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7-7b〉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6.5	2.8	0.7	100.0 (10,675)
서울	96.4	2.7	0.8	100.0 ( 1,939)
부산	95.8	3.5	0.7	100.0 ( 836)
대구	98.3	1.3	0.4	100.0 ( 534)
인천	92.3	6.7	1.0	100.0 ( 496)
광주	97.5	2.5	0.0	100.0 ( 282)
대전	97.5	1.4	1.1	100.0 ( 285)
울산	98.9	1.1	0.0	100.0 ( 182)
경기	96.5	2.3	1.2	100.0 ( 2,057)
강원	96.9	2.9	0.2	100.0 ( 418)
충북	96.8	2.9	0.3	100.0 ( 374)
충남	96.6	2.7	0.7	100.0 ( 594)
전북	95.9	3.2	0.9	100.0 ( 533)
전남	98.0	1.8	0.2	100.0 ( 652)
경북	96.1	3.4	0.5	100.0 ( 813)
경남	96.5	3.3	0.2	100.0 ( 543)
제주	97.8	2.2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65 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7-7c〉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목욕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4.6	4.0	1.3	100.0 (10,672)
서울	95.1	3.7	1.2	100.0 ( 1,938)
부산	95.0	4.2	0.8	100.0 ( 834)
대구	94.4	4.5	1.1	100.0 ( 534)
인천	91.1	5.1	3.8	100.0 ( 495)
광주	95.7	3.9	0.4	100.0 ( 281)
대전	94.7	3.9	1.4	100.0 ( 285)
울산	97.8	1.6	0.5	100.0 ( 182)
경기	94.2	3.8	1.9	100.0 ( 2,057)
강원	93.8	5.0	1.2	100.0 ( 418)
충북	95.5	3.2	1.3	100.0 ( 374)
충남	94.1	4.7	1.2	100.0 ( 594)
전북	94.2	4.3	1.5	100.0 ( 533)
전남	96.8	2.8	0.5	100.0 ( 653)
경북	94.2	5.2	0.6	100.0 ( 812)
경남	94.1	4.6	1.3	100.0 ( 543)
제주	96.4	2.2	1.4	100.0 ( 139)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7-7d〉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식사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8.6	1.0	0.4	100.0 (10,675)
서울	98.3	1.0	0.7	100.0 ( 1,939)
부산	98.2	1.3	0.5	100.0 ( 837)
대구	98.5	1.3	0.2	100.0 ( 534)
인천	98.2	1.0	0.8	100.0 ( 495)
광주	99.3	0.7	0.0	100.0 ( 282)
대전	98.6	0.4	1.1	100.0 ( 285)
울산	99.5	0.5	0.0	100.0 ( 182)
경기	97.9	1.6	0.6	100.0 ( 2,058)
강원	99.8	0.2	0.0	100.0 ( 418)
충북	98.1	1.9	0.0	100.0 ( 374)
충남	99.2	0.8	0.0	100.0 ( 594)
전북	98.1	1.7	0.2	100.0 ( 533)
전남	99.5	0.5	0.0	100.0 ( 652)
경북	99.4	0.5	0.1	100.0 ( 812)
경남	98.9	0.7	0.4	100.0 ( 544)
제주	100.0	0.0	0.0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부표 시·도별 II-7-7e〉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누웠다가 일어나 방법으로 나가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8.4	1.2	0.4	100.0 (10,671)
서울	98.4	1.1	0.5	100.0 ( 1,939)
부산	97.7	1.3	1.0	100.0 ( 836)
대구	98.7	0.9	0.4	100.0 ( 534)
인천	96.0	3.6	0.4	100.0 ( 495)
광주	99.3	0.7	0.0	100.0 ( 281)
대전	98.6	0.4	1.1	100.0 ( 285)
울산	99.5	0.5	0.0	100.0 ( 182)
경기	98.1	1.4	0.5	100.0 ( 2,057)
강원	98.3	1.7	0.0	100.0 ( 418)
충북	98.9	1.1	0.0	100.0 ( 373)
충남	98.5	1.2	0.3	100.0 ( 593)
전북	98.1	1.1	0.8	100.0 ( 532)
전남	99.4	0.6	0.0	100.0 ( 652)
경북	98.9	0.7	0.4	100.0 ( 812)
경남	98.5	1.3	0.2	100.0 ( 544)
제주	99.3	0.7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7-7f〉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화장실출입과 대소변 처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8.1	1.4	0.6	100.0 (10,675)
서울	97.8	1.5	0.7	100.0 ( 1,939)
부산	97.5	1.7	0.8	100.0 ( 837)
대구	98.3	1.3	0.4	100.0 ( 534)
인천	94.4	4.4	1.2	100.0 ( 496)
광주	99.3	0.4	0.4	100.0 ( 282)
대전	98.6	0.4	1.1	100.0 ( 285)
울산	99.5	0.5	0.0	100.0 ( 182)
경기	97.9	1.4	0.8	100.0 ( 2,058)
강원	99.0	0.7	0.2	100.0 ( 419)
충북	98.7	1.1	0.3	100.0 ( 373)
충남	98.1	1.3	0.5	100.0 ( 593)
전북	97.0	2.6	0.4	100.0 ( 533)
전남	99.5	0.5	0.0	100.0 ( 652)
경북	98.8	0.7	0.5	100.0 ( 812)
경남	98.9	0.9	0.2	100.0 ( 543)
제주	99.3	0.7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7-7g〉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대소변조절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6.8	2.6	0.6	100.0 (10,675)
서울	96.3	3.0	0.6	100.0 ( 1,938)
부산	98.2	1.0	0.8	100.0 ( 836)
대구	98.1	1.1	0.7	100.0 ( 534)
인천	95.4	3.4	1.2	100.0 ( 496)
광주	95.4	4.3	0.4	100.0 ( 282)
대전	98.6	0.4	1.1	100.0 ( 285)
울산	99.5	0.5	0.0	100.0 ( 182)
경기	94.8	4.6	0.6	100.0 ( 2,058)
강원	97.8	1.9	0.2	100.0 ( 418)
충북	98.9	0.8	0.3	100.0 ( 373)
충남	96.8	2.7	0.5	100.0 ( 594)
전북	96.1	3.0	0.9	100.0 ( 532)
전남	96.0	4.0	0.0	100.0 ( 652)
경북	98.4	1.0	0.6	100.0 ( 813)
경남	98.9	0.9	0.2	100.0 ( 544)
제주	99.3	0.7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Ⅱ-7-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 도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평균 점수	계 (명)
전국 <sup>1)</sup>	92.8	3.1	1.3	0.7	0.5	0.3	0.5	0.7	7.2	100.0 (10,666)
서울	92.6	3.0	1.5	1.0	0.2	0.4	0.5	0.9	7.3	100.0 ( 1,939)
부산	94.7	0.8	1.1	0.8	1.1	0.2	0.1	1.1	7.2	100.0 ( 836)
대구	93.3	3.6	0.9	0.9	0.2	0.4	0.2	0.6	7.2	100.0 ( 534)
인천	90.5	2.0	1.6	1.4	0.2	0.2	3.2	0.8	7.5	100.0 ( 495)
광주	91.8	5.3	1.4	1.1	0.0	0.0	0.0	0.4	7.2	100.0 ( 281)
대전	94.7	2.8	1.1	0.0	0.0	0.0	0.4	1.1	7.2	100.0 ( 285)
울산	98.3	1.1	0.0	0.6	0.0	0.0	0.0	0.0	7.1	100.0 ( 180)
경기	91.1	4.6	1.3	0.4	0.6	0.4	0.6	1.1	7.3	100.0 ( 2,058)
강원	92.1	3.8	1.2	1.0	1.4	0.2	0.2	0.0	7.2	100.0 ( 418)
충북	94.4	1.6	1.3	0.8	0.5	0.3	0.8	0.3	7.2	100.0 ( 374)
충남	92.4	4.0	1.3	0.5	0.5	0.3	0.2	0.7	7.2	100.0 ( 593)
전북	93.0	2.8	0.6	0.0	0.9	0.8	0.8	1.1	7.3	100.0 ( 531)
전남	93.2	4.8	1.4	0.2	0.0	0.2	0.2	0.2	7.1	100.0 ( 651)
경북	93.8	1.8	1.8	0.7	1.0	0.1	0.1	0.5	7.2	100.0 ( 811)
경남	93.9	2.2	2.0	0.7	0.6	0.0	0.0	0.6	7.2	100.0 ( 543)
제주	97.1	1.5	0.7	0.0	0.0	0.0	0.7	0.0	7.1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66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Ⅱ-7-9a〉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몸단장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6.0	3.2	0.9	100.0 (10,671)
서울	95.7	3.5	0.8	100.0 ( 1,939)
부산	95.8	3.0	1.2	100.0 ( 836)
대구	95.7	3.7	0.6	100.0 ( 534)
인천	93.3	5.7	1.0	100.0 ( 495)
광주	97.9	2.1	0.0	100.0 ( 281)
대전	96.8	2.1	1.1	100.0 ( 285)
울산	98.9	0.5	0.5	100.0 ( 182)
경기	95.3	3.2	1.5	100.0 ( 2,057)
강원	96.4	3.4	0.2	100.0 ( 417)
충북	95.4	2.9	1.6	100.0 ( 373)
충남	96.0	3.7	0.3	100.0 ( 594)
전북	95.5	3.8	0.8	100.0 ( 533)
전남	98.6	1.2	0.2	100.0 ( 652)
경북	95.7	3.8	0.5	100.0 ( 813)
경남	97.1	2.2	0.7	100.0 ( 543)
제주	97.8	2.2	0.0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7-9b〉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집안일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1.1	6.5	2.4	100.0 (10,673)
서울	90.9	6.9	2.3	100.0 ( 1,938)
부산	92.2	4.2	3.6	100.0 ( 837)
대구	92.1	6.0	1.9	100.0 ( 534)
인천	88.1	7.3	4.6	100.0 ( 495)
광주	88.6	10.7	0.7	100.0 ( 281)
대전	91.9	7.0	1.1	100.0 ( 285)
울산	90.2	8.7	1.1	100.0 ( 183)
경기	91.3	5.3	3.4	100.0 ( 2,058)
강원	87.3	11.0	1.7	100.0 ( 418)
충북	95.2	3.5	1.3	100.0 ( 373)
충남	92.4	5.7	1.9	100.0 ( 594)
전북	89.1	8.1	2.8	100.0 ( 533)
전남	91.4	7.8	0.8	100.0 ( 651)
경북	92.4	6.7	1.0	100.0 ( 812)
경남	90.1	6.4	3.5	100.0 ( 543)
제주	93.5	5.1	1.4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7-9c〉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식사준비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2.1	5.4	2.5	100.0 (10,673)
서울	90.9	6.7	2.4	100.0 ( 1,938)
부산	93.0	3.3	3.7	100.0 ( 837)
대구	92.7	5.2	2.1	100.0 ( 534)
인천	88.9	6.3	4.8	100.0 ( 495)
광주	92.2	7.1	0.7	100.0 ( 281)
대전	93.0	5.6	1.4	100.0 ( 284)
울산	94.0	4.9	1.1	100.0 ( 182)
경기	92.0	4.5	3.5	100.0 ( 2,057)
강원	88.0	10.3	1.7	100.0 ( 418)
충북	95.2	3.2	1.6	100.0 ( 374)
충남	93.6	4.5	1.9	100.0 ( 594)
전북	92.5	4.3	3.2	100.0 ( 533)
전남	93.9	5.1	1.1	100.0 ( 652)
경북	93.1	6.2	0.7	100.0 ( 812)
경남	90.8	5.5	3.7	100.0 ( 544)
제주	94.2	4.3	1.4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 〈부표 시·도별 11-7-9d〉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빨래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2.3	5.2	2.6	100.0 (10,670)
서울	91.7	5.8	2.5	100.0 ( 1,938)
부산	93.1	3.2	3.7	100.0 ( 836)
대구	92.9	5.1	2.1	100.0 ( 534)
인천	89.1	5.9	5.1	100.0 ( 495)
광주	90.0	8.9	1.1	100.0 ( 281)
대전	93.3	5.3	1.4	100.0 ( 285)
울산	93.4	5.5	1.1	100.0 ( 182)
경기	92.6	4.0	3.4	100.0 ( 2,057)
강원	89.4	8.6	1.9	100.0 ( 417)
충북	94.9	3.2	1.9	100.0 ( 373)
충남	92.9	5.1	2.0	100.0 ( 594)
전북	91.4	5.6	3.0	100.0 ( 533)
전남	93.4	5.5	1.1	100.0 ( 652)
경북	92.7	6.2	1.1	100.0 ( 813)
경남	91.9	4.8	3.3	100.0 ( 543)
제주	96.4	2.2	1.5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 〈부표 시·도별 11-7-9e〉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약챙겨먹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7.3	2.0	0.7	100.0 (10,674)
서울	97.1	1.9	1.0	100.0 ( 1,939)
부산	97.0	2.3	0.7	100.0 ( 836)
대구	98.3	1.1	0.6	100.0 ( 534)
인천	94.1	4.4	1.4	100.0 ( 495)
광주	98.2	1.4	0.4	100.0 ( 281)
대전	97.9	1.1	1.1	100.0 ( 285)
울산	98.9	0.5	0.5	100.0 ( 182)
경기	96.4	2.8	0.8	100.0 ( 2,058)
강원	98.8	1.2	0.0	100.0 ( 418)
충북	98.1	1.6	0.3	100.0 ( 373)
충남	97.1	2.7	0.2	100.0 ( 594)
전북	96.6	2.4	0.9	100.0 ( 532)
전남	98.9	1.1	0.0	100.0 ( 652)
경북	97.8	1.7	0.5	100.0 ( 813)
경남	98.0	1.1	0.9	100.0 ( 544)
제주	98.6	0.7	0.7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7-9f〉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금전관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3.5	4.8	1.7	100.0 (10,670)
서울	93.7	4.2	2.1	100.0 ( 1,939)
부산	94.1	4.2	1.7	100.0 ( 836)
대구	97.0	2.8	0.2	100.0 ( 533)
인천	91.7	5.9	2.4	100.0 ( 494)
광주	90.8	8.5	0.7	100.0 ( 282)
대전	95.1	2.8	2.1	100.0 ( 285)
울산	95.6	3.8	0.5	100.0 ( 183)
경기	93.0	4.6	2.5	100.0 ( 2,057)
강원	93.1	5.3	1.7	100.0 ( 418)
충북	97.1	2.7	0.3	100.0 ( 373)
충남	93.4	4.0	2.5	100.0 ( 593)
전북	87.6	9.6	2.8	100.0 ( 532)
전남	92.8	6.7	0.5	100.0 ( 652)
경북	96.1	3.1	0.9	100.0 ( 812)
경남	92.6	5.9	1.5	100.0 ( 543)
제주	92.0	6.5	1.4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7-9g〉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근거리 외출하기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5.1	3.5	1.5	100.0 (10,670)
서울	94.6	3.9	1.5	100.0 ( 1,939)
부산	94.5	3.6	1.9	100.0 ( 836)
대구	95.3	4.1	0.6	100.0 ( 534)
인천	92.3	3.4	4.2	100.0 ( 495)
광주	95.0	4.6	0.4	100.0 ( 281)
대전	96.5	1.8	1.8	100.0 ( 284)
울산	98.3	1.1	0.6	100.0 ( 181)
경기	94.8	3.4	1.8	100.0 ( 2,058)
강원	93.8	4.5	1.7	100.0 ( 418)
충북	96.5	2.9	0.5	100.0 ( 373)
충남	94.1	4.7	1.2	100.0 ( 594)
전북	95.9	2.3	1.9	100.0 ( 532)
전남	97.5	2.3	0.2	100.0 ( 652)
경북	96.3	3.1	0.6	100.0 ( 812)
경남	94.3	3.9	1.8	100.0 ( 544)
제주	97.8	1.5	0.7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7-9h〉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물건구매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5.6	2.6	1.3	0.6	100.0 (10,670)
서울	95.2	2.7	0.7	1.4	100.0 ( 1,939)
부산	94.5	2.5	2.2	0.8	100.0 ( 836)
대구	97.0	2.6	0.2	0.2	100.0 ( 535)
인천	92.7	5.1	1.6	0.6	100.0 ( 494)
광주	96.4	2.8	0.7	0.0	100.0 ( 281)
대전	96.1	1.8	1.1	1.1	100.0 ( 284)
울산	98.9	0.6	0.6	0.0	100.0 ( 181)
경기	95.0	2.0	2.3	0.7	100.0 ( 2,059)
강원	94.7	3.6	1.7	0.0	100.0 ( 418)
충북	98.4	1.1	0.3	0.3	100.0 ( 373)
충남	95.1	3.5	1.3	0.0	100.0 ( 593)
전북	95.7	3.0	1.3	0.0	100.0 ( 532)
전남	97.5	1.8	0.3	0.3	100.0 ( 651)
경북	96.8	1.8	1.2	0.1	100.0 ( 812)
경남	94.3	4.0	1.1	0.6	100.0 ( 544)
제주	97.1	2.2	0.7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7-9i〉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전화이용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4.5	3.9	1.2	0.3	100.0 (10,676)
서울	94.3	3.2	1.8	0.7	100.0 ( 1,940)
부산	96.1	2.7	1.0	0.2	100.0 ( 837)
대구	95.7	3.9	0.2	0.2	100.0 ( 535)
인천	92.9	4.6	2.0	0.4	100.0 ( 495)
광주	95.0	3.9	1.1	0.0	100.0 ( 282)
대전	96.8	0.7	1.8	0.7	100.0 ( 285)
울산	97.8	2.2	0.0	0.0	100.0 ( 182)
경기	93.7	4.6	1.4	0.3	100.0 ( 2,058)
강원	94.5	3.6	1.9	0.0	100.0 ( 418)
충북	93.0	5.9	0.8	0.3	100.0 ( 373)
충남	94.6	4.0	1.2	0.2	100.0 ( 593)
전북	93.6	4.1	1.9	0.4	100.0 ( 533)
전남	95.9	3.2	0.5	0.5	100.0 ( 652)
경북	92.5	6.9	0.5	0.1	100.0 ( 813)
경남	95.6	3.3	0.9	0.2	100.0 ( 543)
제주	97.8	2.2	0.0	0.0	100.0 ( 137)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7-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교통수단 이용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명)
전국 <sup>1)</sup>	91.2	5.2	3.2	0.4	100.0 (10,674)
서울	91.0	4.9	3.5	0.7	100.0 ( 1,939)
부산	90.7	3.9	4.8	0.6	100.0 ( 836)
대구	92.7	4.1	3.0	0.2	100.0 ( 534)
인천	87.7	6.7	5.3	0.4	100.0 ( 495)
광주	89.3	9.6	1.1	0.0	100.0 ( 281)
대전	90.6	5.6	2.4	1.4	100.0 ( 286)
울산	95.1	3.3	1.1	0.5	100.0 ( 182)
경기	91.0	4.9	3.6	0.5	100.0 ( 2,058)
강원	88.8	8.4	2.6	0.2	100.0 ( 418)
충북	94.1	3.2	2.7	0.0	100.0 ( 373)
충남	91.4	5.1	3.2	0.3	100.0 ( 594)
전북	87.8	8.1	3.6	0.6	100.0 ( 533)
전남	93.2	5.7	0.9	0.2	100.0 ( 651)
경북	93.7	3.8	2.2	0.2	100.0 ( 813)
경남	91.3	4.2	4.4	0.0	100.0 ( 543)
제주	92.8	5.8	1.4	0.0	100.0 ( 138)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7-10〉 노인(65세 이상)의 수단적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계 (명)	평균 점수
전국 <sup>1)</sup>	86.2	4.9	2.9	2.6	1.2	2.3	100.0 (10,674)	0.4
서울	85.8	5.2	2.2	3.4	1.1	2.4	100.0 ( 1,940)	0.4
부산	88.3	3.5	2.6	2.2	0.5	3.0	100.0 ( 836)	0.4
대구	88.4	3.4	3.4	1.5	2.1	1.3	100.0 ( 535)	0.4
인천	84.4	3.2	3.2	2.8	1.0	5.3	100.0 ( 495)	0.6
광주	81.2	6.7	7.4	2.5	1.1	1.1	100.0 ( 282)	0.5
대전	88.8	3.1	2.8	1.7	1.7	1.7	100.0 ( 286)	0.4
울산	88.4	5.5	3.9	1.1	1.1	0.0	100.0 ( 181)	0.3
경기	85.8	5.3	2.8	2.3	0.8	3.1	100.0 ( 2,058)	0.4
강원	83.5	3.8	5.5	3.8	1.7	1.7	100.0 ( 418)	0.5
충북	88.8	5.3	1.6	1.6	1.1	1.6	100.0 ( 375)	0.3
충남	89.7	1.5	1.0	4.4	1.7	1.7	100.0 ( 593)	0.4
전북	80.0	9.9	3.2	2.8	1.9	2.2	100.0 ( 534)	0.5
전남	86.0	6.9	3.1	2.5	0.8	0.8	100.0 ( 651)	0.3
경북	86.4	5.9	2.8	2.2	0.7	1.9	100.0 ( 810)	0.4
경남	87.3	2.9	3.1	2.2	2.6	1.8	100.0 ( 543)	0.5
제주	87.6	5.1	4.4	0.7	1.5	0.7	100.0 ( 137)	0.3

주: 1)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7-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MMSE-KC

(단위: 점, %, 명)

특성	평균점수	인지저하자비율	계 (명)
전국 <sup>1)</sup>	24.2	28.5	100.0 ( 8,851)
서울	25.5	19.7	100.0 ( 1,667)
부산	24.4	25.2	100.0 ( 713)
대구	24.2	27.9	100.0 ( 420)
인천	23.9	28.9	100.0 ( 406)
광주	24.9	24.6	100.0 ( 244)
대전	24.1	29.1	100.0 ( 254)
울산	24.3	28.9	100.0 ( 149)
경기	24.7	24.5	100.0 ( 1,732)
강원	22.8	44.1	100.0 ( 329)
충북	23.9	28.8	100.0 ( 281)
충남	23.4	32.4	100.0 ( 478)
전북	23.3	35.7	100.0 ( 476)
전남	22.6	37.5	100.0 ( 547)
경북	23.3	36.6	100.0 ( 587)
경남	23.0	35.9	100.0 ( 460)
제주	23.1	37.3	100.0 ( 11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1,694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7-12〉 노인(65세 이상)의 수발여부 및 도움 제공자

(단위: %, 명)

특성	수발받음	수발받지않음	가족원	외부서비스	가족+외부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76.3	23.7	71.8	11.4	13.2	3.6	100.0 (1,214)
서울	77.5	22.5	73.5	7.3	15.4	3.8	100.0 ( 234)
부산	85.9	14.1	68.2	7.1	18.8	4.8	100.0 ( 84)
대구	77.4	22.6	62.5	8.3	25.0	4.2	100.0 ( 48)
인천	93.8	6.3	58.7	17.3	21.3	2.7	100.0 ( 75)
광주	75.9	24.1	75.0	15.9	9.1	0.0	100.0 ( 44)
대전	87.5	12.5	74.1	22.2	3.7	0.0	100.0 ( 27)
울산	82.6	17.4	84.2	10.5	5.3	0.0	100.0 ( 19)
경기	67.9	32.1	74.6	13.4	7.8	4.4	100.0 ( 231)
강원	90.4	9.6	79.1	10.4	3.0	7.5	100.0 ( 66)
충북	68.3	31.7	53.6	10.7	28.6	7.1	100.0 ( 28)
충남	85.5	14.5	76.3	13.6	10.2	0.0	100.0 ( 59)
전북	67.9	32.1	72.0	8.0	18.7	1.3	100.0 ( 75)
전남	63.2	36.8	80.9	8.8	5.9	4.4	100.0 ( 67)
경북	67.5	32.5	55.3	18.4	22.4	3.9	100.0 ( 76)
경남	91.4	8.6	79.7	10.9	7.8	1.6	100.0 ( 64)
제주	100.0	0.0	82.4	11.8	5.9	0.0	100.0 ( 17)

주: 1) 수발여부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6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발여부 및 도움제공자는 수발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받음.

〈부표 시·도별 II-7-13〉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이하	차남이하 배우자	딸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53.0	8.2	12.4	6.7	3.8	10.3	5.7	100.0 (1,037)
서울	55.0	8.5	5.2	4.7	4.3	14.2	8.1	100.0 ( 211)
부산	57.3	4.0	12.0	6.7	1.3	2.7	16.0	100.0 ( 75)
대구	78.0	2.4	9.8	4.9	0.0	2.4	2.4	100.0 ( 41)
인천	45.8	8.5	15.3	5.1	1.7	18.6	5.1	100.0 ( 59)
광주	45.9	8.1	2.7	8.1	2.7	18.9	13.5	100.0 ( 37)
대전	61.9	0.0	19.0	4.8	4.8	4.8	4.8	100.0 ( 21)
울산	56.3	12.5	12.5	0.0	6.3	6.3	6.3	100.0 ( 16)
경기	45.3	12.0	19.3	8.3	4.2	8.9	2.1	100.0 ( 192)
강원	49.1	3.8	22.6	3.8	1.9	7.5	11.3	100.0 ( 53)
충북	73.9	4.3	4.3	8.7	0.0	8.7	0.0	100.0 ( 23)
충남	47.1	5.9	19.6	5.9	13.7	3.9	3.9	100.0 ( 51)
전북	62.1	4.5	6.1	10.6	4.5	9.1	3.0	100.0 ( 66)
전남	51.7	3.4	15.5	12.1	3.4	10.3	3.4	100.0 ( 58)
경북	56.7	16.7	10.0	3.3	3.3	10.0	0.0	100.0 ( 60)
경남	50.9	5.3	14.0	10.5	3.5	10.5	5.3	100.0 ( 57)
제주	42.9	28.6	7.1	7.1	0.0	14.3	0.0	100.0 ( 14)

주: 1) 가족으로부터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7-1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1주일 평균 수발 제공시간

(단위: %, 명, 시간)

특성	10시간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시간이상	계 (명)	평균 시간
전국 <sup>1)</sup>	36.7	22.2	19.4	7.5	3.5	2.1	8.6	100.0 (1,030)	20.3
서울	34.1	14.6	19.0	11.7	0.0	2.4	18.0	100.0 ( 205)	26.7
부산	26.0	12.3	26.0	9.6	4.1	4.1	17.8	100.0 ( 73)	28.5
대구	32.6	20.9	23.3	4.7	9.3	0.0	9.3	100.0 ( 43)	21.4
인천	26.2	27.9	13.1	6.6	0.0	3.3	23.0	100.0 ( 61)	26.5
광주	68.6	17.1	8.6	2.9	0.0	0.0	2.9	100.0 ( 35)	11.5
대전	30.0	25.0	30.0	5.0	5.0	5.0	0.0	100.0 ( 20)	18.3
울산	41.2	29.4	23.5	0.0	5.9	0.0	0.0	100.0 ( 17)	14.4
경기	33.3	28.0	22.8	5.3	5.8	1.1	3.7	100.0 ( 189)	17.8
강원	43.6	23.6	20.0	3.6	0.0	5.5	3.6	100.0 ( 55)	16.9
충북	37.5	20.8	4.2	12.5	8.3	4.2	12.5	100.0 ( 24)	25.1
충남	30.8	42.3	19.2	3.8	1.9	1.9	0.0	100.0 ( 52)	14.2
전북	47.1	8.8	22.1	11.8	2.9	0.0	7.4	100.0 ( 68)	19.2
전남	45.0	28.3	16.7	3.3	0.0	1.7	5.0	100.0 ( 60)	13.8
경북	33.9	30.5	15.3	13.6	6.8	0.0	0.0	100.0 ( 59)	15.8
경남	36.8	24.6	17.5	3.5	14.0	3.5	0.0	100.0 ( 57)	17.7
제주	73.3	6.7	13.3	6.7	0.0	0.0	0.0	100.0 ( 15)	9.1

주: 1) 가족으로부터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 제8장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 〈부표 시·도별 11-8-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특성	하고 있다	한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국 <sup>1)</sup>	34.0	56.7	9.3	100.0 (10,671)
서울	22.5	65.9	11.5	100.0 ( 1,939)
부산	20.8	65.7	13.5	100.0 ( 836)
대구	23.3	64.8	11.8	100.0 ( 533)
인천	29.4	58.5	12.1	100.0 ( 495)
광주	22.7	64.7	12.6	100.0 ( 281)
대전	21.4	65.5	13.2	100.0 ( 284)
울산	32.4	59.3	8.2	100.0 ( 182)
경기	29.8	58.1	12.2	100.0 ( 2,058)
강원	38.0	53.8	8.2	100.0 ( 418)
충북	45.8	47.7	6.4	100.0 ( 374)
충남	58.6	36.8	4.6	100.0 ( 593)
전북	43.4	51.4	5.1	100.0 ( 532)
전남	52.5	44.1	3.4	100.0 ( 652)
경북	48.9	48.1	3.0	100.0 ( 812)
경남	41.9	52.8	5.4	100.0 ( 544)
제주	51.4	44.9	3.6	100.0 ( 138)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11-8-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사직종 분류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 사자	농림어업숙 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 (명)
전국 <sup>1)</sup>	0.9	2.0	0.3	4.3	7.4	52.9	3.2	2.8	26.1	100.0 (3,585)
서울	3.0	3.5	0.0	5.3	13.3	0.7	6.0	10.2	57.9	100.0 ( 430)
부산	4.7	1.2	0.0	14.0	18.1	8.8	2.9	3.5	46.8	100.0 ( 171)
대구	0.0	3.3	0.8	5.7	17.1	26.0	11.4	10.6	25.2	100.0 ( 123)
인천	0.7	2.9	0.0	4.3	8.6	32.1	2.9	0.7	47.9	100.0 ( 140)
광주	0.0	4.8	1.6	0.0	19.4	38.7	4.8	0.0	30.6	100.0 ( 62)
대전	1.6	1.6	0.0	4.8	12.9	25.8	1.6	4.8	46.8	100.0 ( 62)
울산	0.0	1.7	0.0	6.9	3.4	51.7	5.2	1.7	29.3	100.0 ( 58)
경기	1.2	5.0	0.5	4.6	5.6	42.9	5.0	2.0	33.3	100.0 ( 604)
강원	0.6	0.0	0.0	7.0	6.3	56.0	3.8	0.6	25.8	100.0 ( 159)
충북	0.0	1.2	1.2	2.9	4.7	76.0	0.0	4.1	9.9	100.0 ( 171)
충남	0.0	0.6	0.3	2.9	2.9	81.0	2.0	0.6	9.6	100.0 ( 343)
전북	0.9	0.4	0.4	3.1	4.8	75.0	1.3	0.9	13.2	100.0 ( 228)
전남	0.0	0.6	0.0	2.0	3.8	81.6	0.3	0.6	11.1	100.0 ( 343)
경북	0.0	0.8	0.0	3.3	5.6	77.7	1.5	1.0	10.2	100.0 ( 394)
경남	0.0	1.3	0.4	1.8	4.4	77.0	1.8	0.4	12.8	100.0 ( 226)
제주	1.4	0.0	0.0	2.8	5.6	66.2	1.4	1.4	21.1	100.0 ( 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8-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폐휴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3.5	47.0	1.2	19.5	3.3	8.4	10.3	6.6	100.0 (3,582)
서울	5.3	23.2	2.1	4.2	7.9	32.3	10.4	14.6	100.0 ( 431)
부산	10.5	32.0	4.1	9.3	5.8	9.3	16.9	12.2	100.0 ( 172)
대구	7.3	38.7	0.8	19.4	4.0	7.3	14.5	8.1	100.0 ( 124)
인천	9.2	28.4	0.7	15.6	2.1	11.3	14.2	18.4	100.0 ( 141)
광주	6.5	46.8	0.0	11.3	1.6	1.6	16.1	16.1	100.0 ( 62)
대전	13.1	37.7	0.0	8.2	0.0	13.1	11.5	16.4	100.0 ( 61)
울산	5.2	50.0	0.0	17.2	5.2	6.9	8.6	6.9	100.0 ( 58)
경기	4.5	39.7	3.8	16.2	6.5	10.6	12.9	5.8	100.0 ( 604)
강원	0.0	49.1	0.6	21.4	0.6	3.8	18.2	6.3	100.0 ( 159)
충북	1.2	58.2	0.0	25.3	3.5	2.9	5.3	3.5	100.0 ( 170)
충남	0.9	61.1	0.0	24.9	0.0	4.1	5.6	3.5	100.0 ( 342)
전북	2.2	57.0	0.4	27.2	0.4	2.6	6.6	3.5	100.0 ( 228)
전남	0.6	59.4	0.0	29.5	0.9	1.2	6.1	2.3	100.0 ( 342)
경북	1.3	57.0	0.3	28.0	1.3	1.5	8.9	1.8	100.0 ( 393)
경남	2.2	61.8	0.0	21.3	3.1	0.9	7.6	3.1	100.0 ( 225)
제주	0.0	52.9	0.0	25.7	0.0	2.9	17.1	1.4	100.0 ( 7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8-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직종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24.7	9.0	8.3	7.9	50.1	100.0 (3,575)
서울	55.8	12.1	10.2	12.6	9.3	100.0 ( 430)
부산	47.1	12.4	12.9	13.5	14.1	100.0 ( 170)
대구	34.4	11.2	11.2	8.0	35.2	100.0 ( 125)
인천	46.8	9.9	6.4	6.4	30.5	100.0 ( 141)
광주	30.6	17.7	6.5	8.1	37.1	100.0 ( 62)
대전	39.3	11.5	14.8	4.9	29.5	100.0 ( 61)
울산	29.3	10.3	5.2	10.3	44.8	100.0 ( 58)
경기	30.3	13.8	10.6	7.7	37.6	100.0 ( 601)
강원	20.1	5.7	10.7	8.8	54.7	100.0 ( 159)
충북	12.4	3.5	4.7	10.0	69.4	100.0 ( 170)
충남	11.3	7.3	6.4	7.6	67.4	100.0 ( 344)
전북	9.6	4.4	9.6	4.8	71.6	100.0 ( 229)
전남	8.6	4.7	3.3	4.7	78.7	100.0 ( 338)
경북	8.4	7.4	5.6	6.4	72.2	100.0 ( 392)
경남	11.2	7.1	9.4	4.5	67.9	100.0 ( 224)
제주	14.1	4.2	7.0	11.3	63.4	100.0 ( 71)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3,5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8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8-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 마련	용돈	건강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79.4	6.8	5.6	0.2	4.3	1.3	1.5	1.0	100.0 (3,566)
서울	76.1	8.1	4.4	0.0	2.8	2.8	0.7	5.1	100.0 ( 430)
부산	72.4	11.0	4.3	0.0	5.5	0.0	1.8	4.9	100.0 ( 163)
대구	79.8	7.3	1.6	0.8	6.5	3.2	0.8	0.0	100.0 ( 124)
인천	83.6	9.3	4.3	0.7	2.1	0.0	0.0	0.0	100.0 ( 140)
광주	71.0	14.5	6.5	0.0	3.2	0.0	4.8	0.0	100.0 ( 62)
대전	81.7	8.3	8.3	0.0	1.7	0.0	0.0	0.0	100.0 ( 60)
울산	76.3	6.8	10.2	0.0	1.7	0.0	0.0	5.1	100.0 ( 59)
경기	73.0	8.3	5.8	0.0	5.8	2.3	4.5	0.2	100.0 ( 600)
강원	80.9	7.6	7.6	0.6	2.5	0.0	0.6	0.0	100.0 ( 157)
충북	84.6	4.1	5.3	0.6	4.1	0.6	0.6	0.0	100.0 ( 169)
충남	81.0	3.8	7.3	0.0	5.0	0.9	2.0	0.0	100.0 ( 343)
전북	84.7	3.1	5.2	0.0	4.8	0.9	1.3	0.0	100.0 ( 229)
전남	88.0	4.4	4.4	0.3	1.8	0.9	0.3	0.0	100.0 ( 341)
경북	77.4	6.9	7.1	0.0	7.4	1.0	0.3	0.0	100.0 ( 393)
경남	83.1	6.2	4.9	0.4	3.1	0.9	1.3	0.0	100.0 ( 225)
제주	84.5	7.0	4.2	0.0	2.8	0.0	1.4	0.0	100.0 ( 71)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3,5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8-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국 <sup>1)</sup>	9.5	42.4	27.4	17.7	3.0	100.0 (3,565)
서울	12.8	54.2	21.4	7.4	4.2	100.0 ( 430)
부산	5.5	34.8	44.5	15.2	0.0	100.0 ( 164)
대구	9.7	41.1	28.2	18.5	2.4	100.0 ( 124)
인천	7.1	43.6	29.3	16.4	3.6	100.0 ( 140)
광주	7.9	49.2	17.5	22.2	3.2	100.0 ( 63)
대전	10.0	40.0	28.3	21.7	0.0	100.0 ( 60)
울산	8.6	56.9	15.5	19.0	0.0	100.0 ( 58)
경기	12.4	40.7	31.1	14.2	1.7	100.0 ( 599)
강원	11.3	50.3	29.6	7.5	1.3	100.0 ( 159)
충북	14.8	41.4	22.5	17.8	3.6	100.0 ( 169)
충남	6.1	36.3	31.6	24.0	2.0	100.0 ( 342)
전북	5.7	34.2	27.2	25.0	7.9	100.0 ( 228)
전남	11.1	36.0	22.2	28.7	2.0	100.0 ( 342)
경북	9.2	44.4	23.5	15.8	7.1	100.0 ( 392)
경남	3.6	42.9	29.9	23.2	0.4	100.0 ( 224)
제주	2.8	43.7	33.8	18.3	1.4	100.0 ( 71)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3,58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8-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특성 <sup>2)</sup>	1	2	3	4	5	6	7	8	9	10	11	계 (명)
전국 <sup>1)</sup>	5.3	29.0	32.8	5.7	1.9	4.3	18.4	1.7	0.7	0.0	0.1	100.0 (6,959)
서울	7.2	20.1	31.2	8.7	1.6	5.4	22.9	1.2	1.4	0.0	0.3	100.0 (1,473)
부산	1.1	28.7	40.5	4.0	2.9	3.1	18.0	1.6	0.2	0.0	0.0	100.0 ( 648)
대구	7.1	48.3	14.0	2.7	0.7	5.1	15.4	5.9	0.7	0.0	0.0	100.0 ( 408)
인천	3.6	21.9	37.9	8.6	3.6	6.2	17.5	0.3	0.6	0.0	0.0	100.0 ( 351)
광주	0.9	23.1	29.6	4.6	1.9	6.0	28.7	5.1	0.0	0.0	0.0	100.0 ( 216)
대전	5.5	46.4	26.8	3.6	0.9	3.2	13.2	0.0	0.5	0.0	0.0	100.0 ( 221)
울산	3.3	31.7	30.9	4.9	2.4	3.3	23.6	0.0	0.0	0.0	0.0	100.0 ( 123)
경기	9.0	22.2	30.6	7.6	1.3	5.3	21.7	1.5	0.6	0.1	0.0	100.0 (1,426)
강원	1.6	48.8	25.2	3.5	1.6	4.7	11.2	2.3	1.2	0.0	0.0	100.0 ( 258)
충북	9.0	50.7	17.4	5.0	0.5	3.0	10.4	3.5	0.5	0.0	0.0	100.0 ( 201)
충남	5.8	22.1	48.8	3.3	3.3	2.9	13.3	0.4	0.0	0.0	0.0	100.0 ( 240)
전북	2.7	23.4	47.5	4.1	3.4	1.4	16.9	0.0	0.7	0.0	0.0	100.0 ( 295)
전남	2.3	19.5	56.0	1.3	4.2	3.6	11.7	1.3	0.0	0.0	0.0	100.0 ( 307)
경북	2.7	41.0	29.6	4.4	1.0	1.9	14.1	4.1	1.2	0.0	0.0	100.0 ( 412)
경남	1.6	42.0	36.3	3.2	2.9	1.3	12.7	0.0	0.0	0.0	0.0	100.0 ( 314)
제주	4.5	65.2	13.6	3.0	0.0	4.5	7.6	1.5	0.0	0.0	0.0	100.0 ( 6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6,9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2명을 제외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2)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3)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4)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5)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6)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7)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8) 일자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9) 내가 원하는 임금(보수)을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10)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지 몰라서, (11) 기타

〈부표 시·도별 II-8-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활동 지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계속 일할 생각임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계 (명)
전국 <sup>1)</sup>	88.4	2.0	9.6	100.0 (3,569)
서울	88.4	4.2	7.4	100.0 ( 430)
부산	93.3	3.0	3.7	100.0 ( 164)
대구	95.2	0.8	4.0	100.0 ( 124)
인천	87.1	5.7	7.1	100.0 ( 140)
광주	82.5	1.6	15.9	100.0 ( 63)
대전	78.3	1.7	20.0	100.0 ( 60)
울산	96.6	0.0	3.4	100.0 ( 59)
경기	90.0	2.2	7.8	100.0 ( 599)
강원	96.2	1.3	2.5	100.0 ( 158)
충북	88.8	1.2	10.0	100.0 ( 170)
충남	86.3	2.6	11.1	100.0 ( 342)
전북	79.9	0.9	19.2	100.0 ( 229)
전남	81.3	0.3	18.4	100.0 ( 342)
경북	93.9	0.3	5.9	100.0 ( 393)
경남	87.6	2.7	9.8	100.0 ( 225)
제주	87.3	1.4	11.3	100.0 ( 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8-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국 <sup>1)</sup>	13.0	87.0	100.0 (6,960)
서울	22.2	77.8	100.0 (1,475)
부산	8.7	91.3	100.0 ( 645)
대구	11.8	88.2	100.0 ( 407)
인천	11.4	88.6	100.0 ( 354)
광주	22.3	77.7	100.0 ( 215)
대전	12.2	87.9	100.0 ( 223)
울산	8.2	91.8	100.0 ( 122)
경기	11.2	88.8	100.0 (1,425)
강원	8.1	91.9	100.0 ( 258)
충북	9.0	91.0	100.0 ( 201)
충남	7.9	92.1	100.0 ( 239)
전북	11.1	88.9	100.0 ( 298)
전남	9.1	90.9	100.0 ( 307)
경북	8.3	91.7	100.0 ( 411)
경남	6.4	93.6	100.0 ( 313)
제주	16.4	83.6	100.0 ( 6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5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8-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일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 (명)
전국 <sup>1)</sup>	53.8	20.0	10.7	1.8	6.0	7.7	100.0 (898)
서울	51.2	14.3	13.4	2.1	7.9	11.0	100.0 (328)
부산	66.1	17.9	1.8	0.0	10.7	3.6	100.0 ( 56)
대구	64.6	18.8	6.3	6.3	0.0	4.2	100.0 ( 48)
인천	48.7	33.3	7.7	5.1	2.6	2.6	100.0 ( 39)
광주	53.2	27.7	12.8	2.1	2.1	2.1	100.0 ( 47)
대전	37.0	25.9	18.5	3.7	3.7	11.1	100.0 ( 27)
울산	87.5	0.0	0.0	0.0	0.0	12.5	100.0 ( 8) <sup>2)</sup>
경기	55.6	20.6	8.8	0.0	5.0	10.0	100.0 (160)
강원	40.9	36.4	9.1	0.0	9.1	4.5	100.0 ( 22)
충북	55.6	22.2	11.1	0.0	0.0	11.1	100.0 ( 18)
충남	26.3	26.3	36.8	0.0	5.3	5.3	100.0 ( 19)
전북	64.7	11.8	11.8	5.9	2.9	2.9	100.0 ( 34)
전남	70.4	22.2	7.4	0.0	0.0	0.0	100.0 ( 27)
경북	38.2	50.0	5.9	0.0	2.9	2.9	100.0 ( 34)
경남	60.0	10.0	0.0	0.0	30.0	0.0	100.0 ( 20)
제주	63.6	18.2	9.1	0.0	0.0	9.1	100.0 ( 11)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8-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특성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에 취업	창업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참여	취미생활을 통한 부수입 (여가형 직종)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41.7	10.4	0.9	33.9	12.3	0.8	100.0 (901)
서울	47.4	10.0	0.6	29.2	12.8	0.0	100.0 (329)
부산	53.6	0.0	0.0	33.9	8.9	3.6	100.0 ( 56)
대구	27.7	12.8	0.0	59.6	0.0	0.0	100.0 ( 47)
인천	28.2	20.5	5.1	23.1	23.1	0.0	100.0 ( 39)
광주	16.3	8.2	0.0	59.2	16.3	0.0	100.0 ( 49)
대전	26.9	3.8	0.0	30.8	38.5	0.0	100.0 ( 26)
울산	50.0	0.0	0.0	10.0	30.0	10.0	100.0 ( 10)
경기	45.3	14.9	1.2	28.6	8.1	1.9	100.0 (161)
강원	63.6	4.5	0.0	27.3	4.5	0.0	100.0 ( 22)
충북	47.4	5.3	0.0	31.6	15.8	0.0	100.0 ( 19)
충남	33.3	0.0	5.6	27.8	33.3	0.0	100.0 ( 18)
전북	18.2	21.2	3.0	42.4	15.2	0.0	100.0 ( 33)
전남	33.3	18.5	0.0	48.1	0.0	0.0	100.0 ( 27)
경북	29.4	5.9	0.0	55.9	8.8	0.0	100.0 ( 34)
경남	80.0	0.0	0.0	10.0	5.0	5.0	100.0 ( 20)
제주	27.3	18.2	0.0	36.4	18.2	0.0	100.0 ( 11)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8-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하는 근로 시간

(단위: %, 명)

특성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32.0	27.5	15.6	24.9	100.0 (900)
서울	31.5	27.9	14.5	26.1	100.0 (328)
부산	19.6	21.4	26.8	32.1	100.0 ( 55)
대구	38.3	31.9	10.6	19.1	100.0 ( 49)
인천	17.9	35.9	20.5	25.6	100.0 ( 39)
광주	37.0	39.1	4.3	19.6	100.0 ( 49)
대전	48.0	20.0	16.0	16.0	100.0 ( 26)
울산	0.0	12.5	50.0	37.5	100.0 ( 10)
경기	28.1	24.4	16.3	31.3	100.0 (161)
강원	33.3	23.8	4.8	38.1	100.0 ( 21)
충북	11.1	61.1	5.6	22.2	100.0 ( 18)
충남	70.6	17.6	5.9	5.9	100.0 ( 19)
전북	37.5	21.9	21.9	18.8	100.0 ( 33)
전남	44.4	25.9	18.5	11.1	100.0 ( 27)
경북	51.5	27.3	15.2	6.1	100.0 ( 33)
경남	22.7	22.7	27.3	27.3	100.0 ( 21)
제주	40.0	20.0	10.0	30.0	100.0 ( 11)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8-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희망하는 월소득

(단위: %, 명)

특성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0.4	30.9	35.8	29.8	6.8	100.0 (896)
서울	0.0	24.6	38.8	29.8	10.5	100.0 (327)
부산	0.0	24.6	35.1	19.1	2.1	100.0 ( 57)
대구	0.0	55.3	23.4	32.5	0.0	100.0 ( 48)
인천	0.0	35.0	32.5	27.7	2.1	100.0 ( 39)
광주	0.0	31.9	38.3	16.0	0.0	100.0 ( 48)
대전	0.0	56.0	28.0	33.3	0.0	100.0 ( 26)
울산	0.0	11.1	55.6	36.5	1.3	100.0 ( 9) <sup>1)</sup>
경기	1.3	23.3	37.7	47.6	0.0	100.0 (160)
강원	0.0	38.1	14.3	15.8	0.0	100.0 ( 21)
충북	5.3	26.3	52.6	44.4	0.0	100.0 ( 18)
충남	0.0	33.3	22.2	18.8	0.0	100.0 ( 19)
전북	0.0	37.5	43.8	11.1	0.0	100.0 ( 33)
전남	3.7	59.3	25.9	6.1	0.0	100.0 ( 27)
경북	0.0	54.5	39.4	42.9	9.5	100.0 ( 33)
경남	0.0	23.8	23.8	30.0	0.0	100.0 ( 21)
제주	0.0	40.0	30.0	29.0	3.8	100.0 ( 10)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8-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시 우선조건 1순위

(단위: %, 명)

특성 <sup>2)</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명)
전국 <sup>1)</sup>	1.3	25.2	8.7	9.8	7.6	15.5	9.5	20.0	0.4	1.0	0.3	0.7	100.0 (898)
서울	3.0	22.6	10.4	7.0	8.2	16.8	9.8	18.3	0.6	2.1	0.6	0.6	100.0 (328)
부산	0.0	16.7	16.7	22.2	5.6	0.0	24.1	13.0	0.0	1.9	0.0	0.0	100.0 ( 54)
대구	0.0	50.0	8.3	6.3	4.2	2.1	8.3	18.8	0.0	0.0	2.1	0.0	100.0 ( 48)
인천	2.5	30.0	7.5	5.0	12.5	7.5	12.5	22.5	0.0	0.0	0.0	0.0	100.0 ( 40)
광주	0.0	12.5	8.3	14.6	6.3	25.0	6.3	25.0	2.1	0.0	0.0	0.0	100.0 ( 48)
대전	0.0	12.0	4.0	0.0	8.0	20.0	8.0	44.0	0.0	0.0	0.0	4.0	100.0 ( 25)
울산	0.0	20.0	10.0	20.0	10.0	0.0	30.0	10.0	0.0	0.0	0.0	0.0	100.0 ( 10)
경기	0.0	30.6	5.6	11.3	6.3	19.4	3.8	23.1	0.0	0.0	0.0	0.0	100.0 (160)
강원	0.0	19.0	9.5	14.3	4.8	9.5	9.5	23.8	0.0	0.0	0.0	9.5	100.0 ( 21)
충북	0.0	26.3	0.0	0.0	21.1	10.5	10.5	31.6	0.0	0.0	0.0	0.0	100.0 ( 19)
충남	0.0	10.5	5.3	42.1	5.3	5.3	0.0	26.3	0.0	0.0	0.0	5.3	100.0 ( 19)
전북	2.9	14.3	5.7	5.7	5.7	34.3	20.0	5.7	2.9	2.9	0.0	0.0	100.0 ( 35)
전남	0.0	32.1	7.1	7.1	0.0	28.6	3.6	21.4	0.0	0.0	0.0	0.0	100.0 ( 28)
경북	0.0	55.9	5.9	5.9	5.9	11.8	8.8	5.9	0.0	0.0	0.0	0.0	100.0 ( 34)
경남	0.0	10.0	10.0	20.0	20.0	10.0	5.0	25.0	0.0	0.0	0.0	0.0	100.0 ( 20)
제주	0.0	11.1	22.2	0.0	11.1	11.1	11.1	33.3	0.0	0.0	0.0	0.0	100.0 ( 9)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없음, (2) 나를 받아주는 곳이든 어디든 좋다, (3)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4)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5)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6)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7)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8)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9)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10) 직장 내에 도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11)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12)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Ⅱ-8-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경제활동자의 구직활동 1순위

(단위: %, 명)

특성 <sup>2)</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명)
전국 <sup>1)</sup>	32.3	8.1	30.4	1.5	1.6	1.0	0.7	0.2	1.2	21.1	1.5	0.5	100.0	(888)
서울	28.5	10.2	27.6	2.5	0.0	2.2	0.9	0.0	1.9	23.5	2.8	0.0	100.0	(323)
부산	43.6	7.3	30.9	0.0	12.7	0.0	0.0	0.0	0.0	5.5	0.0	0.0	100.0	( 55)
대구	18.8	2.1	54.2	2.1	4.2	0.0	4.2	0.0	0.0	14.6	0.0	0.0	100.0	( 48)
인천	28.2	15.4	23.1	0.0	0.0	0.0	0.0	2.6	0.0	30.8	0.0	0.0	100.0	( 39)
광주	39.6	6.3	37.5	0.0	0.0	0.0	2.1	0.0	0.0	14.6	0.0	0.0	100.0	( 48)
대전	51.9	7.4	29.6	0.0	0.0	0.0	0.0	0.0	0.0	11.1	0.0	0.0	100.0	( 27)
울산	11.1	11.1	33.3	0.0	0.0	0.0	0.0	0.0	0.0	44.4	0.0	0.0	100.0	( 9) <sup>3)</sup>
경기	34.4	5.6	27.5	1.9	1.3	0.6	0.0	0.0	3.1	23.1	0.6	1.9	100.0	(160)
강원	40.0	5.0	20.0	0.0	0.0	0.0	0.0	0.0	0.0	25.0	10.0	0.0	100.0	( 20)
충북	70.6	0.0	23.5	0.0	0.0	5.9	0.0	0.0	0.0	0.0	0.0	0.0	100.0	( 17)
충남	33.3	0.0	16.7	0.0	0.0	0.0	0.0	0.0	0.0	44.4	5.6	0.0	100.0	( 18)
전북	30.3	18.2	27.3	0.0	0.0	0.0	0.0	0.0	0.0	21.2	0.0	3.0	100.0	( 33)
전남	22.2	11.1	40.7	0.0	11.1	0.0	0.0	0.0	0.0	14.8	0.0	0.0	100.0	( 27)
경북	27.3	0.0	54.5	3.0	0.0	0.0	0.0	0.0	0.0	15.2	0.0	0.0	100.0	( 33)
경남	33.3	4.8	19.0	0.0	0.0	0.0	0.0	4.8	0.0	38.1	0.0	0.0	100.0	( 21)
제주	40.0	20.0	3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100.0	( 10)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9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없음, (2) 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 의뢰, (3)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의뢰, (4)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의뢰,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의뢰, (6) 시니어클럽 의뢰, (7) 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의뢰, (8) 지자체(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인천시노인취업정보센터) 의뢰, (9) 사설 직업 안내소 의뢰, (10) 개인적 인맥을 통해, (11)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Ⅱ-8-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현재 일의 최장기 종사직종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국 <sup>1)</sup>	67.7	32.3	100.0 (3,589)
서울	39.5	60.5	100.0 ( 430)
부산	48.5	51.5	100.0 ( 171)
대구	57.3	42.7	100.0 ( 124)
인천	56.7	43.3	100.0 ( 141)
광주	54.0	46.0	100.0 ( 63)
대전	49.2	50.8	100.0 ( 61)
울산	66.1	33.9	100.0 ( 59)
경기	60.6	39.4	100.0 ( 604)
강원	70.9	29.1	100.0 ( 159)
충북	83.5	16.5	100.0 ( 170)
충남	79.0	21.0	100.0 ( 344)
전북	84.3	15.7	100.0 ( 229)
전남	85.1	14.9	100.0 ( 343)
경북	80.7	19.3	100.0 ( 394)
경남	76.5	23.5	100.0 ( 226)
제주	77.5	22.5	100.0 ( 7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8-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직종의 대분류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군인	계 (명)
전국 <sup>1)</sup>	3.4	3.8	4.8	6.1	12.0	38.2	9.5	4.2	17.4	0.7	100.0 ( 9,551)
서울	6.1	4.1	8.8	9.2	19.0	7.0	14.9	8.1	21.6	1.2	100.0 ( 1,687)
부산	5.6	2.4	4.1	8.4	21.6	10.7	12.9	5.8	27.8	0.7	100.0 ( 712)
대구	3.4	5.5	3.8	9.6	16.6	23.7	11.9	7.5	17.1	0.9	100.0 ( 469)
인천	2.4	4.5	1.7	5.5	15.3	23.0	12.9	5.0	28.7	1.0	100.0 ( 418)
광주	2.9	12.7	7.0	7.4	11.1	28.3	9.4	2.5	17.6	1.2	100.0 ( 244)
대전	4.5	5.3	4.9	7.4	14.3	20.1	14.8	4.5	23.4	0.8	100.0 ( 244)
울산	2.4	2.4	2.4	8.4	9.0	35.9	12.0	8.4	18.6	0.6	100.0 ( 167)
경기	4.6	5.4	7.0	7.2	11.7	29.4	10.9	3.7	19.2	0.9	100.0 ( 1,777)
강원	1.0	4.5	3.9	3.1	8.4	45.8	9.4	3.9	18.6	1.3	100.0 ( 382)
충북	1.7	2.6	2.9	5.2	6.3	61.7	4.0	2.0	13.5	0.0	100.0 ( 347)
충남	1.4	1.8	3.4	3.6	3.6	73.8	4.7	0.9	6.5	0.4	100.0 ( 557)
전북	1.8	2.2	3.6	2.2	7.6	61.4	4.4	1.4	14.9	0.4	100.0 ( 498)
전남	0.5	1.6	1.3	1.8	4.8	78.8	2.1	0.8	8.5	0.0	100.0 ( 627)
경북	1.3	1.5	1.7	3.6	6.7	71.1	4.0	2.1	8.1	0.0	100.0 ( 779)
경남	1.4	2.9	1.8	4.1	6.8	59.7	7.8	2.2	13.1	0.2	100.0 ( 511)
제주	0.8	3.0	1.5	3.8	9.1	64.4	3.0	2.3	11.4	0.8	100.0 ( 1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9,566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8-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 직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폐휴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0.5	34.9	3.5	21.3	21.5	5.3	12.6	0.4	100.0 (9,565)
서울	0.9	26.6	7.2	9.3	31.5	9.1	15.2	0.2	100.0 (1,687)
부산	0.7	28.1	3.4	11.1	30.9	4.8	20.2	0.8	100.0 ( 709)
대구	0.2	33.9	3.6	18.6	27.3	6.6	9.6	0.2	100.0 ( 469)
인천	1.4	25.7	2.6	16.9	28.7	7.1	16.6	1.0	100.0 ( 421)
광주	0.0	34.6	2.5	14.8	29.6	2.9	15.2	0.4	100.0 ( 243)
대전	0.8	32.0	4.9	13.5	23.0	8.6	16.0	1.2	100.0 ( 244)
울산	0.0	33.3	1.2	19.6	23.2	6.5	15.5	0.6	100.0 ( 168)
경기	0.6	29.3	4.9	17.8	26.2	7.4	13.2	0.6	100.0 (1,783)
강원	0.0	35.2	1.0	25.2	17.8	2.6	17.8	0.3	100.0 ( 381)
충북	0.0	42.5	2.6	29.0	14.1	1.7	10.1	0.0	100.0 ( 348)
충남	0.0	47.3	0.9	34.2	9.5	2.7	5.0	0.4	100.0 ( 558)
전북	0.4	42.6	1.8	29.0	10.6	2.4	12.4	0.8	100.0 ( 500)
전남	0.2	50.3	1.1	35.2	5.2	2.2	5.7	0.0	100.0 ( 630)
경북	0.0	43.8	1.2	36.4	9.1	1.9	7.6	0.0	100.0 ( 780)
경남	0.4	40.5	1.0	29.2	15.7	2.9	10.2	0.2	100.0 ( 511)
제주	0.0	45.9	1.5	29.3	9.0	2.3	12.0	0.0	100.0 ( 13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9,566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8-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직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3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6.5	10.4	19.9	20.1	43.1	100.0 (9,558)
서울	12.6	15.0	28.4	24.8	19.2	100.0 (1,687)
부산	8.0	15.9	26.9	29.7	19.4	100.0 ( 710)
대구	7.0	11.5	23.6	21.5	36.4	100.0 ( 470)
인천	12.1	16.4	25.7	17.8	28.0	100.0 ( 421)
광주	6.6	11.5	27.6	17.3	37.0	100.0 ( 243)
대전	7.3	15.5	24.1	19.2	33.9	100.0 ( 245)
울산	7.8	8.4	25.7	22.2	35.9	100.0 ( 167)
경기	7.7	13.2	22.0	24.0	33.1	100.0 (1,781)
강원	3.9	3.7	17.8	19.1	55.5	100.0 ( 382)
충북	2.3	7.2	12.6	18.6	59.3	100.0 ( 349)
충남	1.1	4.3	9.9	13.3	71.5	100.0 ( 557)
전북	4.8	6.4	13.7	12.7	62.4	100.0 ( 498)
전남	1.3	4.2	7.0	11.8	75.7	100.0 ( 626)
경북	1.3	3.5	10.4	14.9	70.0	100.0 ( 779)
경남	2.2	7.2	15.1	14.5	61.1	100.0 ( 511)
제주	3.0	4.5	12.1	16.7	63.6	100.0 ( 1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9,566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Ⅱ-8-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장기 종사직종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특성 <sup>1)</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명)
전국 <sup>1)</sup>	13.8	4.3	0.6	6.7	8.1	6.0	3.6	1.1	39.5	8.0	1.4	1.7	2.9	1.1	1.3	100.0 (7,120)
서울	14.2	5.4	0.5	10.4	10.2	8.0	2.0	1.4	26.9	10.4	2.0	2.4	3.4	1.5	1.3	100.0 (1,516)
부산	18.2	6.1	0.5	6.6	9.8	1.9	2.1	0.8	42.9	7.5	0.3	1.4	0.3	0.6	1.0	100.0 ( 628)
대구	15.9	4.6	0.5	5.1	12.7	3.5	5.3	3.0	32.7	6.3	2.8	2.0	4.1	0.3	1.3	100.0 ( 395)
인천	16.8	3.5	1.2	7.1	7.4	7.7	3.5	1.5	36.9	8.3	0.3	0.9	2.7	1.5	0.9	100.0 ( 356)
광주	20.6	5.3	1.0	5.3	10.5	7.7	1.9	0.5	29.2	8.6	1.0	0.0	6.7	1.4	0.5	100.0 ( 209)
대전	17.3	4.7	0.5	10.7	5.6	10.3	0.9	0.5	34.1	9.3	0.5	1.4	2.3	0.9	0.9	100.0 ( 216)
울산	19.2	4.0	2.4	2.4	8.0	6.4	1.6	0.8	37.6	9.6	0.8	1.6	3.2	0.8	1.6	100.0 ( 125)
경기	14.4	5.4	0.5	6.0	8.9	5.0	3.2	1.1	36.7	8.6	1.1	2.1	4.3	1.1	1.6	100.0 (1,413)
강원	14.5	3.3	0.4	5.2	5.9	5.9	7.1	0.0	40.5	5.9	5.6	0.4	2.6	1.1	1.5	100.0 ( 269)
충북	10.3	2.9	1.0	2.5	8.8	2.5	4.4	2.0	43.6	11.8	1.5	2.9	2.9	1.5	1.5	100.0 ( 205)
충남	13.1	1.8	0.4	8.2	3.2	7.1	8.5	0.0	47.9	4.3	0.7	2.1	0.7	0.7	1.4	100.0 ( 282)
전북	9.7	2.0	2.0	4.0	5.0	4.3	4.0	0.3	54.8	5.7	0.3	0.7	3.7	1.3	2.0	100.0 ( 300)
전남	4.5	1.8	0.3	3.0	5.0	8.0	5.0	0.9	58.5	4.5	0.9	0.6	2.1	1.8	3.3	100.0 ( 337)
경북	7.2	2.2		5.2	3.3	5.2	7.0	1.3	56.3	6.1	1.1	1.7	2.4	0.7	0.2	100.0 ( 458)
경남	11.4	2.7	0.6	3.6	6.6	6.3	3.0	0.3	56.0	6.3	0.6	0.9	0.0	0.6	1.2	100.0 ( 335)
제주	9.2	1.3	0.0	11.8	5.3	15.8	1.3	0.0	47.4	2.6	1.3	1.3	2.6	0.0	0.0	100.0 ( 7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최장기 종사직업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8명을 제외함.  
 2)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정년퇴직, (2)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3) 계약이 끝나서, (4)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5)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6) 근로여건 및 환경이 나빠서, (7) 소득(보수)이 적어서, (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9)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11) 여가를 즐기려고, (12) 생활의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14)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15) 기타

## 제9장 노인의 여가·사회활동 실태 및 욕구

## 〈부표 시·도별 II-9-1〉 시·도별 지난 1년간 TV 시청률 및 시청 시간

(단위: %, 명, 시간)

특성	TV시청률 <sup>1)</sup>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sup>2)</sup>				계 (명)	평균 시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전국	99.0	30.8	39.3	20.4	9.4	100.0 (10,437)	3.8
서울	98.7	28.7	36.1	22.3	12.9	100.0 ( 1,877)	4.1
부산	99.9	32.6	38.4	17.9	11.1	100.0 ( 821)	3.9
대구	99.4	31.5	40.9	19.8	7.9	100.0 ( 531)	3.7
인천	99.2	28.0	45.7	17.1	9.3	100.0 ( 475)	3.8
광주	98.2	31.1	32.6	22.3	13.9	100.0 ( 273)	4.0
대전	98.6	30.9	36.7	25.9	6.5	100.0 ( 278)	3.7
울산	99.5	23.8	40.3	27.1	8.8	100.0 ( 181)	4.1
경기	99.3	25.6	41.0	23.6	9.8	100.0 ( 2,015)	4.0
강원	99.8	26.3	39.5	26.5	7.7	100.0 ( 415)	3.9
충북	99.5	33.9	33.1	24.4	8.7	100.0 ( 369)	3.8
충남	99.5	35.6	43.7	15.8	4.8	100.0 ( 581)	3.3
전북	99.2	38.3	36.0	17.6	8.0	100.0 ( 522)	3.5
전남	98.2	40.1	39.6	14.6	5.8	100.0 ( 639)	3.3
경북	98.5	34.6	39.4	17.0	9.0	100.0 ( 792)	3.7
경남	98.5	33.6	44.0	16.0	6.4	100.0 ( 532)	3.5
제주	98.6	22.1	43.4	19.9	14.7	100.0 ( 136)	4.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10,442명이 분석대상이고,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9-2〉 시·도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횟수

(단위: %, 명)

특성	여행 경험률 <sup>1)</sup>	국내외 여행 횟수 <sup>2)</sup>				계 (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국	33.7	51.8	26.1	8.6	13.5	100.0 (3,545)
서울	28.9	50.5	24.0	10.2	15.4	100.0 ( 551)
부산	20.2	43.9	26.2	2.4	27.4	100.0 ( 164)
대구	31.1	39.2	32.5	10.2	18.1	100.0 ( 166)
인천	25.3	62.5	20.8	7.5	9.2	100.0 ( 120)
광주	30.5	44.0	20.2	15.5	20.2	100.0 ( 84)
대전	41.5	40.5	27.6	11.2	20.7	100.0 ( 116)
울산	35.7	50.8	29.2	9.2	10.8	100.0 ( 65)
경기	32.8	47.3	26.4	11.0	15.4	100.0 ( 664)
강원	40.0	64.1	24.0	4.2	7.8	100.0 ( 167)
충북	42.2	47.8	24.2	7.6	20.4	100.0 ( 157)
충남	51.6	53.6	31.8	4.3	10.3	100.0 ( 302)
전북	30.8	59.3	23.5	6.2	11.1	100.0 ( 162)
전남	35.0	63.2	26.3	5.3	5.3	100.0 ( 228)
경북	46.0	51.2	27.4	10.6	10.8	100.0 ( 369)
경남	34.4	63.6	22.8	9.8	3.8	100.0 ( 184)
제주	31.4	59.1	31.8	4.5	4.5	100.0 ( 4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중 여행경험이 있는 3,5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9-3〉 시·도별 여행 계획시 중요한 기준

(단위: %, 명)

특성	비용 적절성	볼거리 다양성	자연환경 수려함	교통 편의성	주변시설 편리성	지명도	전문가 언론보도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4.1	41.3	26.1	5.0	2.8	8.9	1.5	0.2	100.0 (3,547)
서울	32.7	21.8	22.4	7.1	3.5	9.5	2.2	0.9	100.0 ( 550)
부산	10.4	31.7	34.8	6.1	3.0	12.2	1.2	0.6	100.0 ( 164)
대구	4.2	51.8	31.3	0.6	0.6	11.4	0.0	0.0	100.0 ( 166)
인천	20.7	29.8	24.8	5.8	6.6	12.4	0.0	0.0	100.0 ( 121)
광주	7.1	35.7	46.4	2.4	3.6	0.0	4.8	0.0	100.0 ( 84)
대전	3.4	39.5	36.1	2.5	5.0	12.6	0.8	0.0	100.0 ( 119)
울산	3.1	58.5	20.0	12.3	0.0	6.2	0.0	0.0	100.0 ( 65)
경기	17.0	44.3	17.5	7.7	5.0	6.6	1.7	0.3	100.0 ( 664)
강원	7.3	51.5	26.7	3.6	1.2	8.5	1.2	0.0	100.0 ( 165)
충북	12.2	55.1	14.7	3.8	1.9	9.6	2.6	0.0	100.0 ( 156)
충남	7.3	36.0	41.3	1.0	2.0	12.3	0.0	0.0	100.0 ( 300)
전북	10.5	46.3	22.2	4.3	1.9	9.9	4.9	0.0	100.0 ( 162)
전남	2.2	48.2	28.1	3.5	1.3	13.6	3.1	0.0	100.0 ( 228)
경북	9.2	52.2	27.0	2.7	0.8	7.3	0.8	0.0	100.0 ( 370)
경남	17.6	43.9	25.1	7.5	2.7	3.2	0.0	0.0	100.0 ( 187)
제주	9.3	48.8	34.9	2.3	2.3	2.3	0.0	0.0	100.0 ( 4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여행 경험이 있는 3,5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9-4〉 시·도별 국내외 여행 방법

(단위: %, 명)

특성	개별 여행	소속 단체 회원들과 여행	여행패키지 이용 개별 여행	상품 이용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31.0	61.1	4.7		3.2	0.1	100.0 (3,545)
서울	38.9	43.8	10.7		6.5	0.0	100.0 ( 552)
부산	41.2	57.6	1.2		0.0	0.0	100.0 ( 165)
대구	28.9	64.5	3.0		3.6	0.0	100.0 ( 166)
인천	39.5	54.6	0.8		5.0	0.0	100.0 ( 119)
광주	22.4	69.4	4.7		3.5	0.0	100.0 ( 85)
대전	33.1	64.4	1.7		0.8	0.0	100.0 ( 118)
울산	36.4	57.6	4.5		1.5	0.0	100.0 ( 66)
경기	37.4	52.6	5.9		3.6	0.5	100.0 ( 663)
강원	17.7	71.3	3.7		7.3	0.0	100.0 ( 164)
충북	26.1	70.7	1.3		1.3	0.6	100.0 ( 157)
충남	26.5	70.5	3.0		0.0	0.0	100.0 ( 302)
전북	34.6	54.3	8.6		2.5	0.0	100.0 ( 162)
전남	28.9	63.2	4.4		3.5	0.0	100.0 ( 228)
경북	21.4	77.3	1.4		0.0	0.0	100.0 ( 370)
경남	19.4	73.7	2.2		4.8	0.0	100.0 ( 186)
제주	11.6	88.4	0.0		0.0	0.0	100.0 ( 4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여행 경험이 있는 3,5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9-5〉 시·도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능숙하게 사용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기능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어려움	전혀 사용 불가능	계 (명)
전국 <sup>1)</sup>	1.5	5.0	6.3	87.2	100.0 (10,498)
서울	2.4	8.4	9.5	79.7	100.0 ( 1,889)
부산	1.6	3.6	5.9	89.0	100.0 ( 815)
대구	1.9	3.9	7.5	86.7	100.0 ( 533)
인천	0.2	4.6	6.1	89.1	100.0 ( 476)
광주	0.7	9.6	7.1	82.5	100.0 ( 280)
대전	0.7	2.8	11.0	85.5	100.0 ( 282)
울산	1.1	2.8	3.9	92.3	100.0 ( 181)
경기	2.5	7.9	8.3	81.4	100.0 ( 2,019)
강원	1.0	3.1	5.3	90.6	100.0 ( 416)
충북	1.3	3.0	5.1	90.6	100.0 ( 372)
충남	1.2	3.3	3.8	91.8	100.0 ( 582)
전북	1.3	3.6	3.2	91.8	100.0 ( 525)
전남	0.2	1.2	2.3	96.3	100.0 ( 651)
경북	0.6	1.5	2.4	95.5	100.0 ( 803)
경남	0.6	2.2	3.4	93.9	100.0 ( 537)
제주	0.0	2.9	5.8	91.2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7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9-6〉 시·도별 핸드폰 소유 여부

(단위: %, 명)

특성	스마트폰 소유	일반 핸드폰 소유	갖고 있지 않음	계 (명)
전국 <sup>1)</sup>	0.4	71.3	28.3	100.0 (10,544)
서울	0.5	74.5	25.0	100.0 ( 1,908)
부산	0.1	72.9	27.0	100.0 ( 822)
대구	0.8	73.4	25.9	100.0 ( 533)
인천	0.2	68.1	31.7	100.0 ( 479)
광주	0.0	74.6	25.4	100.0 ( 279)
대전	0.4	73.8	25.9	100.0 ( 282)
울산	0.5	75.8	23.6	100.0 ( 182)
경기	0.8	75.4	23.8	100.0 ( 2,030)
강원	0.2	69.7	30.0	100.0 ( 416)
충북	0.0	69.0	31.0	100.0 ( 371)
충남	0.2	67.9	32.0	100.0 ( 585)
전북	0.2	67.9	31.9	100.0 ( 526)
전남	0.2	65.9	33.9	100.0 ( 651)
경북	0.2	67.7	32.1	100.0 ( 804)
경남	0.2	64.0	35.9	100.0 ( 541)
제주	0.0	60.1	39.9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9-7〉 시·도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참여율 <sup>1)</sup>	교육 참여 빈도 <sup>2)</sup>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국	6.7	13.6	45.0	36.9	2.1	2.1	0.3	100.0 (705)
서울	8.1	14.8	46.5	37.4	0.0	1.3	0.0	100.0 (155)
부산	5.5	4.4	44.4	51.1	0.0	0.0	0.0	100.0 ( 45)
대구	9.4	24.0	40.0	36.0	0.0	0.0	0.0	100.0 ( 50)
인천	4.6	9.1	50.0	40.9	0.0	0.0	0.0	100.0 ( 22)
광주	7.9	18.2	50.0	31.8	0.0	0.0	0.0	100.0 ( 22)
대전	6.4	16.7	33.3	50.0	0.0	0.0	0.0	100.0 ( 18)
울산	6.6	15.4	53.8	30.8	0.0	0.0	0.0	100.0 ( 13)
경기	8.3	14.4	55.1	23.4	2.4	4.2	0.6	100.0 (167)
강원	5.8	16.0	24.0	56.0	4.0	0.0	0.0	100.0 ( 25)
충북	7.5	10.3	37.9	44.8	3.4	3.4	0.0	100.0 ( 29)
충남	5.5	9.1	48.5	39.4	3.0	0.0	0.0	100.0 ( 33)
전북	7.4	12.8	38.5	41.0	5.1	2.6	0.0	100.0 ( 39)
전남	4.0	7.7	50.0	38.5	3.8	0.0	0.0	100.0 ( 26)
경북	5.3	9.3	32.6	39.5	9.3	9.3	0.0	100.0 ( 43)
경남	2.6	21.4	21.4	50.0	0.0	0.0	7.1	100.0 ( 14)
제주	4.3	0.0	16.7	66.7	16.7	0.0	0.0	100.0 ( 6)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고 응답한 705명이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9-8〉 시·도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교) 부설	시·군·구/ 동·읍·면	문화예술 회관 등	사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45.8	2.3	15.6	2.8	17.7	3.1	5.0	7.6	100.0 (705)
서울	49.0	0.6	15.3	8.3	14.6	1.3	3.8	7.0	100.0 (156)
부산	42.2	0.0	20.0	0.0	11.1	2.2	13.3	11.1	100.0 ( 45)
대구	32.0	0.0	12.0	2.0	26.0	0.0	4.0	24.0	100.0 ( 50)
인천	47.6	4.8	19.0	0.0	23.8	0.0	4.8	0.0	100.0 ( 21)
광주	22.7	9.1	9.1	4.5	4.5	9.1	27.3	13.6	100.0 ( 22)
대전	47.1	0.0	17.6	0.0	17.6	5.9	5.9	5.9	100.0 ( 17)
울산	75.0	0.0	16.7	0.0	0.0	0.0	0.0	8.3	100.0 ( 12)
경기	46.1	1.2	16.2	1.2	23.4	2.4	2.4	7.2	100.0 (167)
강원	47.8	0.0	17.4	0.0	17.4	13.0	4.3	0.0	100.0 ( 23)
충북	67.9	0.0	7.1	0.0	10.7	3.6	10.7	0.0	100.0 ( 28)
충남	36.4	15.2	6.1	3.0	15.2	12.1	6.1	6.1	100.0 ( 33)
전북	48.7	2.6	15.4	0.0	30.8	0.0	0.0	2.6	100.0 ( 39)
전남	42.9	3.7	28.6	3.6	3.6	7.1	7.2	3.6	100.0 ( 27)
경북	39.5	4.7	20.9	2.3	23.3	2.3	0.0	7.0	100.0 ( 43)
경남	64.3	7.1	7.1	0.0	0.0	7.1	0.0	14.3	100.0 ( 14)
제주	50.0	0.0	16.7	0.0	16.7	0.0	16.7	0.0	100.0 ( 6)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고 응답한 7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로당이 포함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9-9〉 시·도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0.1	43.4	20.3	13.1	3.1	100.0 (705)
서울	16.2	31.8	26.6	20.1	5.2	100.0 (154)
부산	26.7	42.2	17.8	8.9	4.4	100.0 ( 45)
대구	18.0	52.0	16.0	14.0	0.0	100.0 ( 50)
인천	14.3	52.4	9.5	14.3	9.5	100.0 ( 21)
광주	36.4	22.7	27.3	13.6	0.0	100.0 ( 22)
대전	11.8	58.8	23.5	0.0	5.9	100.0 ( 17)
울산	33.3	33.3	16.7	16.7	0.0	100.0 ( 12)
경기	14.9	47.6	19.6	14.3	3.6	100.0 (168)
강원	30.4	43.5	21.7	4.3	0.0	100.0 ( 24)
충북	13.8	72.4	3.4	10.3	0.0	100.0 ( 29)
충남	25.0	46.9	18.8	9.4	0.0	100.0 ( 32)
전북	25.6	41.0	23.1	10.3	0.0	100.0 ( 39)
전남	32.0	40.0	12.0	12.0	4.0	100.0 ( 25)
경북	22.7	45.5	27.3	4.5	0.0	100.0 ( 44)
경남	26.7	33.3	20.0	6.7	13.3	100.0 ( 15)
제주	28.6	57.1	0.0	14.3	0.0	100.0 ( 7)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고 응답한 7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원봉사자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778

〈부표 시·도별 II-9-10〉 시·도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필요성 못느껴	참가 비용 부담	심리적 부담감	교육 장소 멀어서	교육 장소 몰라서	적당한 프로그램 없어서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7.4	20.1	33.4	20.3	2.8	2.0	1.4	0.6	1.9	0.1	100.0 (9,825)
서울	22.6	19.2	33.8	12.9	4.5	1.7	0.5	0.9	3.7	0.2	100.0 (1,748)
부산	9.9	17.8	28.5	36.3	4.0	1.8	0.0	1.3	0.1	0.3	100.0 ( 776)
대구	14.6	16.6	38.9	17.7	3.1	6.0	1.0	0.6	1.5	0.0	100.0 ( 481)
인천	17.8	19.6	34.3	20.0	2.4	2.9	1.8	0.2	1.1	0.0	100.0 ( 455)
광주	10.2	22.4	46.7	12.2	3.5	3.1	0.4	0.8	0.8	0.0	100.0 ( 255)
대전	18.3	20.2	50.0	8.4	1.1	0.8	0.0	0.0	1.1	0.0	100.0 ( 262)
울산	10.6	15.9	27.6	38.2	1.8	3.5	0.6	0.6	0.6	0.6	100.0 ( 170)
경기	15.4	19.8	31.1	23.3	3.6	1.6	1.8	0.3	2.8	0.2	100.0 (1,854)
강원	18.6	19.6	30.6	20.4	1.8	1.0	3.3	1.5	3.1	0.0	100.0 ( 392)
충북	13.1	15.4	36.0	24.4	0.9	3.5	3.2	1.2	2.3	0.0	100.0 ( 344)
충남	28.8	23.3	33.7	8.9	0.5	1.6	1.1	0.5	1.5	0.0	100.0 ( 549)
전북	20.9	32.0	33.0	7.6	1.2	1.4	2.3	0.4	1.0	0.2	100.0 ( 488)
전남	18.8	23.6	40.7	9.9	1.8	1.4	2.6	0.6	0.5	0.0	100.0 ( 626)
경북	14.1	20.6	32.9	24.3	1.6	2.6	2.1	0.5	1.3	0.0	100.0 ( 761)
경남	13.5	15.9	23.3	42.5	1.9	0.6	0.9	0.2	1.1	0.0	100.0 ( 527)
제주	22.0	18.2	27.3	28.0	2.3	0.8	0.8	0.0	0.8	0.0	100.0 ( 13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82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9-11〉 시·도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률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sup>1)</sup> 참여희망률	향후 평생 교육 참여 빈도 <sup>2)</sup>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국	14.7	12.6	53.2	30.3	1.5	2.0	0.4	100.0 (1,544)
서울	21.0	12.0	57.3	27.8	0.8	1.3	1.0	100.0 ( 400)
부산	9.9	8.6	34.6	51.9	2.5	2.5	0.0	100.0 ( 81)
대구	17.1	19.8	51.6	27.5	1.1	0.0	0.0	100.0 ( 91)
인천	9.8	6.3	60.4	31.3	0.0	2.1	0.0	100.0 ( 48)
광주	21.1	18.3	61.7	20.0	0.0	0.0	0.0	100.0 ( 60)
대전	12.4	8.6	60.0	28.6	2.9	0.0	0.0	100.0 ( 35)
울산	9.4	11.8	41.2	47.1	0.0	0.0	0.0	100.0 ( 17)
경기	16.7	13.3	51.8	29.0	1.8	3.6	0.6	100.0 ( 338)
강원	8.4	5.7	42.9	48.6	2.9	0.0	0.0	100.0 ( 35)
충북	16.9	12.7	61.9	19.0	1.6	4.8	0.0	100.0 ( 63)
충남	17.7	14.4	55.8	27.9	1.0	1.0	0.0	100.0 ( 104)
전북	17.5	12.1	61.5	26.4	0.0	0.0	0.0	100.0 ( 91)
전남	11.2	11.0	46.6	42.5	0.0	0.0	0.0	100.0 ( 73)
경북	9.7	12.8	50.0	24.4	6.4	6.4	0.0	100.0 ( 78)
경남	3.7	20.0	25.0	50.0	5.0	0.0	0.0	100.0 ( 20)
제주	9.4	0.0	25.0	50.0	8.3	16.7	0.0	100.0 ( 1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9-12〉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고) 부설	시·군·구/ 동·읍·면	문화예술 기관 등	시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47.4	2.7	8.4	3.2	27.5	2.5	4.4	4.0	100.0 (1,544)
서울	49.1	1.2	9.5	5.5	25.9	2.0	3.0	3.7	100.0 ( 401)
부산	45.7	1.2	12.3	4.9	19.8	1.2	8.6	6.2	100.0 ( 81)
대구	39.6	1.1	4.4	1.1	35.2	0.0	6.6	12.1	100.0 ( 91)
인천	53.2	2.1	10.6	0.0	29.8	2.1	2.1	0.0	100.0 ( 47)
광주	61.7	3.3	5.0	0.0	11.7	3.3	13.7	3.3	100.0 ( 59)
대전	50.0	0.0	14.7	0.0	29.4	0.0	2.9	2.9	100.0 ( 34)
울산	64.7	0.0	11.8	5.9	11.8	0.0	0.0	5.9	100.0 ( 17)
경기	40.4	2.7	8.6	3.6	33.8	3.3	3.0	4.7	100.0 ( 337)
강원	55.9	8.8	8.8	0.0	14.7	8.8	2.9	0.0	100.0 ( 34)
충북	43.5	4.8	4.8	3.2	27.4	4.8	8.1	3.2	100.0 ( 62)
충남	42.2	5.9	2.0	2.0	41.2	3.9	2.9	0.0	100.0 ( 102)
전북	62.4	1.1	7.5	1.1	23.7	1.1	1.1	2.2	100.0 ( 93)
전남	51.4	2.8	11.1	1.4	25.0	1.4	7.0	0.0	100.0 ( 73)
경북	42.9	3.9	10.4	2.6	26.0	2.6	7.8	3.9	100.0 ( 77)
경남	61.9	4.8	4.8	4.8	4.8	4.8	4.8	9.5	100.0 ( 21)
제주	35.7	21.4	14.3	0.0	7.1	7.1	7.1	7.1	100.0 ( 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로당이 포함됨.

## 〈부표 시·도별 II-9-13〉 시·도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20.0	39.2	18.2	17.6	4.9	100.0 (1,544)
서울	23.5	31.8	17.8	18.8	8.3	100.0 ( 400)
부산	18.5	38.3	21.0	14.8	7.4	100.0 ( 81)
대구	22.0	48.4	11.0	13.2	5.5	100.0 ( 90)
인천	17.0	46.8	8.5	23.4	4.3	100.0 ( 48)
광주	19.0	39.7	20.7	19.0	1.7	100.0 ( 59)
대전	14.7	52.9	8.8	23.5	0.0	100.0 ( 35)
울산	23.5	41.2	11.8	23.5	0.0	100.0 ( 18)
경기	16.2	43.4	18.0	16.5	5.9	100.0 ( 338)
강원	27.3	51.5	18.2	3.0	0.0	100.0 ( 34)
충북	9.7	45.2	21.0	22.6	1.6	100.0 ( 63)
충남	10.7	36.9	17.5	32.0	2.9	100.0 ( 103)
전북	25.3	37.4	22.0	14.3	1.1	100.0 ( 91)
전남	33.8	33.8	15.5	14.1	2.8	100.0 ( 72)
경북	22.1	33.8	33.8	9.1	1.3	100.0 ( 77)
경남	19.0	42.9	19.0	14.3	4.8	100.0 ( 21)
제주	16.7	66.7	8.3	8.3	0.0	100.0 ( 1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원봉사자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 〈부표 시·도별 II-9-14〉 시·도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필요성 못느껴	참가 비용 부담	심리적 부담감	교육 장소 멀어서	교육 장소 몰라서	적당한 프로그램 없어서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8.3	17.2	40.9	25.5	2.5	2.0	1.6	0.3	1.7	0.1	100.0 (8,972)
서울	10.6	19.4	41.3	18.3	3.7	2.1	0.3	0.0	4.2	0.0	100.0 (1,502)
부산	6.6	15.4	33.2	39.1	3.1	1.1	0.1	0.5	0.3	0.5	100.0 ( 740)
대구	5.4	11.1	47.2	22.3	3.6	6.3	1.4	1.1	1.6	0.0	100.0 ( 443)
인천	10.2	19.3	39.4	25.5	2.1	1.9	1.4	0.0	0.2	0.0	100.0 ( 431)
광주	2.7	12.7	56.8	21.4	2.3	2.3	0.0	0.5	1.4	0.0	100.0 ( 220)
대전	10.2	19.9	56.5	9.3	1.2	1.6	0.0	0.0	1.2	0.0	100.0 ( 246)
울산	7.4	11.0	27.6	48.5	2.5	1.2	0.6	0.6	0.6	0.0	100.0 ( 163)
경기	7.5	16.2	38.5	28.0	4.0	1.6	1.8	0.2	2.2	0.1	100.0 (1,677)
강원	9.2	16.2	36.9	23.6	1.8	2.1	5.5	1.0	3.7	0.0	100.0 ( 382)
충북	3.6	12.0	44.7	33.0	0.0	1.9	2.9	0.3	1.6	0.0	100.0 ( 309)
충남	17.4	23.3	41.3	13.8	0.4	2.5	0.8	0.2	0.2	0.0	100.0 ( 477)
전북	9.0	26.2	44.8	12.0	0.9	2.3	4.1	0.2	0.5	0.0	100.0 ( 435)
전남	8.7	20.4	49.3	15.1	1.4	1.4	3.5	0.0	0.3	0.0	100.0 ( 578)
경북	6.1	16.6	45.0	25.6	1.2	2.1	1.9	0.4	1.1	0.0	100.0 ( 727)
경남	4.6	11.6	28.3	50.9	1.7	1.0	0.8	0.0	1.2	0.0	100.0 ( 519)
제주	8.8	15.2	36.0	36.8	0.8	0.8	0.8	0.0	0.8	0.0	100.0 ( 12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8,9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9-15〉 시·도별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및 향후 참여희망률

(단위: %, 명)

특성	현재 참여율 <sup>1)</sup>			향후 참여 희망률 <sup>2)</sup>			(명)
	동호회 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동호회 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전국	3.8	37.4	0.7	4.3	37.5	0.8	(10,544)
서울	5.1	37.4	1.2	6.7	38.1	1.5	( 1,907)
부산	0.6	37.7	0.5	0.6	37.9	0.5	( 822)
대구	3.8	46.3	0.4	3.8	45.8	0.4	( 533)
인천	2.5	24.6	0.4	2.9	24.5	0.4	( 478)
광주	4.7	49.6	1.4	5.4	48.7	1.8	( 278)
대전	6.4	46.5	0.0	6.4	45.4	0.0	( 282)
울산	2.2	37.9	0.5	2.2	37.4	0.5	( 182)
경기	5.1	34.9	0.6	5.6	35.1	0.9	( 2,030)
강원	5.3	40.1	0.2	5.8	40.3	0.5	( 416)
충북	4.3	36.3	0.3	4.9	35.8	0.8	( 372)
충남	2.4	40.2	0.0	2.2	40.8	0.0	( 585)
전북	2.7	38.2	0.2	3.0	38.8	0.4	( 526)
전남	2.6	34.4	1.2	2.6	34.4	0.9	( 651)
경북	2.7	41.8	1.1	2.7	41.8	1.1	( 804)
경남	1.9	30.2	0.4	2.0	28.9	0.4	( 540)
제주	8.0	34.1	0.0	8.0	34.8	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동호회 21명, 친목단체 7명, 정치사회단체 44명)를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9-16〉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b>동호회 클럽<sup>1)</sup></b>							
전국	17.0	17.2	18.5	8.7	26.2	12.5	100.0 (396)
서울	20.4	14.3	24.5	2.0	19.4	19.4	100.0 ( 98)
부산	0.0	0.0	0.0	0.0	60.0	40.0	100.0 ( 5) <sup>4)</sup>
대구	14.3	14.3	14.3	4.8	52.4	0.0	100.0 ( 21)
인천	7.7	23.1	7.7	23.1	38.5	0.0	100.0 ( 13)
광주	23.1	0.0	7.7	0.0	61.5	7.7	100.0 ( 13)
대전	41.2	11.8	5.9	23.5	11.8	5.9	100.0 ( 17)
울산	0.0	25.0	25.0	25.0	25.0	0.0	100.0 ( 4) <sup>4)</sup>
경기	8.8	26.5	17.6	9.8	20.6	16.7	100.0 (102)
강원	20.8	12.5	37.5	12.5	12.5	4.2	100.0 ( 24)
충북	26.7	20.0	6.7	6.7	33.3	6.7	100.0 ( 15)
충남	13.3	6.7	20.0	6.7	40.0	13.3	100.0 ( 15)
전북	35.7	21.4	7.1	7.1	28.6	0.0	100.0 ( 14)
전남	16.7	27.8	22.2	5.6	5.6	22.2	100.0 ( 18)
경북	9.1	4.5	9.1	27.3	50.0	0.0	100.0 ( 22)
경남	22.2	11.1	22.2	0.0	33.3	11.1	100.0 ( 9) <sup>4)</sup>
제주	18.2	18.2	27.3	9.1	18.2	9.1	100.0 ( 11)
<b>친목단체<sup>2)</sup></b>							
전국	2.5	2.4	5.6	9.6	57.6	22.2	100.0 (3,933)
서울	2.8	2.8	2.8	9.7	64.4	17.5	100.0 ( 714)
부산	3.5	4.5	10.6	11.9	58.7	10.6	100.0 ( 310)
대구	0.0	3.2	8.5	13.4	70.9	4.0	100.0 ( 247)
인천	0.8	8.4	6.7	13.4	49.6	21.0	100.0 ( 119)
광주	0.0	1.5	15.3	10.9	64.2	8.0	100.0 ( 137)
대전	3.8	3.1	10.8	21.5	53.8	6.9	100.0 ( 130)
울산	5.8	2.9	5.8	15.9	49.3	20.3	100.0 ( 69)
경기	2.7	1.7	4.8	5.7	62.4	22.7	100.0 ( 705)
강원	2.4	1.2	3.0	7.2	68.7	17.5	100.0 ( 166)
충북	2.9	1.5	3.7	7.4	54.4	30.1	100.0 ( 136)
충남	2.1	1.3	9.9	15.0	42.1	29.6	100.0 ( 233)
전북	4.5	2.5	4.0	10.4	57.7	20.9	100.0 ( 201)
전남	1.8	0.4	0.9	4.0	55.2	37.7	100.0 ( 223)
경북	0.6	2.4	3.6	7.7	41.1	44.6	100.0 ( 336)
경남	6.1	0.0	6.1	8.6	42.9	36.2	100.0 ( 163)
제주	0.0	0.0	4.3	6.4	59.6	29.8	100.0 ( 47)



〈부표 시·도별 II-9-16〉 계속

특성	주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정치사회단체 <sup>9)</sup>							
전국	4.4	2.9	2.9	0.0	29.4	60.3	100.0 (70)
서울	0.0	0.0	4.8	0.0	33.3	61.9	100.0 (21)
부산	50.0	50.0	0.0	0.0	0.0	0.0	100.0 ( 4) <sup>4)</sup>
대구	0.0	0.0	0.0	0.0	100.0	0.0	100.0 ( 2) <sup>4)</sup>
인천	0.0	0.0	0.0	0.0	50.0	50.0	100.0 ( 2) <sup>4)</sup>
광주	0.0	0.0	25.0	0.0	75.0	0.0	100.0 ( 4) <sup>4)</sup>
대전	-	-	-	-	-	-	100.0 ( 0) <sup>4)</sup>
울산	0.0	0.0	0.0	0.0	100.0	0.0	100.0 ( 1) <sup>4)</sup>
경기	0.0	0.0	0.0	0.0	25.0	75.0	100.0 (12)
강원	0.0	0.0	0.0	0.0	0.0	100.0	100.0 ( 1) <sup>4)</sup>
충북	0.0	0.0	0.0	0.0	100.0	0.0	100.0 ( 1) <sup>4)</sup>
충남	-	-	-	-	-	-	- ( 0) <sup>4)</sup>
전북	0.0	0.0	0.0	0.0	0.0	100.0	100.0 ( 1) <sup>4)</sup>
전남	12.5	0.0	0.0	0.0	0.0	87.5	100.0 ( 8) <sup>4)</sup>
경북	0.0	0.0	0.0	0.0	11.1	88.9	100.0 ( 9) <sup>4)</sup>
경남	0.0	0.0	0.0	0.0	50.0	50.0	100.0 ( 2) <sup>4)</sup>
제주	-	-	-	-	-	-	- ( 0) <sup>4)</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동호회(클럽)에 가입한 3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친목단체에 가입한 3,9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함.  
 3)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한 7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9-17〉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하게 된 경로

(단위: %, 명)

특성	동호회 클럽 <sup>1)</sup>					정치사회단체 <sup>2)</sup>				
	스스로	주변인 권유	대중 매체	기타	계 (명)	스스로	주변인 권유	대중 매체	기타	계 (명)
전국	69.8	29.7	0.5	0.0	100.0 (396)	49.3	47.8	0.0	2.9	100.0 (70)
서울	69.4	30.6	0.0	0.0	100.0 ( 98)	71.4	28.6	0.0	0.0	100.0 (21)
부산	100.0	0.0	0.0	0.0	100.0 ( 5) <sup>3)</sup>	50.0	50.0	0.0	0.0	100.0 ( 4) <sup>3)</sup>
대구	75.0	25.0	0.0	0.0	100.0 ( 20)	50.0	50.0	0.0	0.0	100.0 ( 2) <sup>3)</sup>
인천	75.0	25.0	0.0	0.0	100.0 ( 12)	50.0	50.0	0.0	0.0	100.0 ( 2) <sup>3)</sup>
광주	53.8	46.2	0.0	0.0	100.0 ( 13)	66.7	33.3	0.0	0.0	100.0 ( 3) <sup>3)</sup>
대전	61.1	38.9	0.0	.	100.0 ( 18)	.	.	.	.	100.0 ( 0) <sup>3)</sup>
울산	100.0	0.0	0.0	0.0	100.0 ( 4) <sup>3)</sup>	100.0	0.0	0.0	0.0	100.0 ( 1) <sup>3)</sup>
경기	64.7	35.3	0.0	0.0	100.0 (102)	23.1	61.5	0.0	15.4	100.0 (13)
강원	81.8	18.2	0.0	0.0	100.0 ( 22)	0.0	100.0	0.0	0.0	100.0 ( 1) <sup>3)</sup>
충북	50.0	43.8	6.3	0.0	100.0 ( 16)	0.0	100.0	0.0	0.0	100.0 ( 1) <sup>3)</sup>
충남	61.5	38.5	0.0	-	100.0 ( 13)	-	-	-	-	100.0 -
전북	84.6	15.4	0.0	0.0	100.0 ( 13)	100.0	0.0	0.0	0.0	100.0 ( 1) <sup>3)</sup>
전남	76.5	17.6	5.9	0.0	100.0 ( 17)	37.5	62.5	0.0	0.0	100.0 ( 8) <sup>3)</sup>
경북	81.0	19.0	0.0	0.0	100.0 ( 21)	30.0	70.0	0.0	0.0	100.0 (10)
경남	66.7	33.3	0.0	0.0	100.0 ( 9) <sup>3)</sup>	100.0	0.0	0.0	0.0	100.0 ( 2) <sup>3)</sup>
제주	81.8	18.2	0.0	-	100.0 ( 11)	-	-	-	-	100.0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동호회클럽에 참석한 38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정치사회단체에 참석하는 7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II-9-18〉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이 없음	계 (명)
전국 <sup>1)</sup>	3.8	9.2	86.9	100.0 (10,544)
서울	5.8	13.5	80.8	100.0 ( 1,907)
부산	1.9	6.0	92.1	100.0 ( 822)
대구	3.6	7.0	89.5	100.0 ( 532)
인천	4.2	9.2	86.6	100.0 ( 478)
광주	5.8	11.5	82.7	100.0 ( 278)
대전	7.4	10.3	82.3	100.0 ( 282)
울산	5.5	7.1	87.4	100.0 ( 182)
경기	4.5	9.6	85.9	100.0 ( 2,028)
강원	4.3	5.0	90.6	100.0 ( 416)
충북	1.9	8.3	89.8	100.0 ( 372)
충남	2.7	12.8	84.4	100.0 ( 585)
전북	3.0	7.2	89.7	100.0 ( 526)
전남	1.1	6.9	92.0	100.0 ( 651)
경북	2.5	8.3	89.2	100.0 ( 804)
경남	2.0	6.1	91.8	100.0 ( 539)
제주	5.1	5.1	89.8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9-19〉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회0참	주2-3회	주1회	2주1회	월1회	월1회미만	계 (명)
전국 <sup>1)</sup>	12.5	18.6	24.0	6.8	23.5	14.7	100.0 (407)
서울	14.4	23.4	27.9	6.3	18.9	9.0	100.0 (111)
부산	13.3	13.3	33.3	0.0	13.3	26.7	100.0 ( 15)
대구	5.3	21.1	10.5	15.8	10.5	36.8	100.0 ( 19)
인천	25.0	25.0	35.0	0.0	10.0	5.0	100.0 ( 20)
광주	18.8	6.3	25.0	6.3	25.0	18.8	100.0 ( 16)
대전	14.3	14.3	42.9	4.8	19.0	4.8	100.0 ( 21)
울산	20.0	10.0	20.0	30.0	10.0	10.0	100.0 ( 10)
경기	9.8	19.6	27.2	3.3	32.6	7.6	100.0 ( 92)
강원	16.7	16.7	5.6	0.0	38.9	22.2	100.0 ( 18)
충북	25.0	0.0	12.5	0.0	25.0	37.5	100.0 ( 8) <sup>2)</sup>
충남	18.8	18.8	6.3	6.3	37.5	12.5	100.0 ( 16)
전북	6.7	26.7	6.7	13.3	20.0	26.7	100.0 ( 15)
전남	0.0	14.3	28.6	28.6	14.3	14.3	100.0 ( 7) <sup>2)</sup>
경북	4.8	9.5	14.3	9.5	19.0	42.9	100.0 ( 21)
경남	0.0	16.7	25.0	16.7	25.0	16.7	100.0 ( 12)
제주	0.0	12.5	12.5	12.5	50.0	12.5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11-9-20〉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년~9년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계 (명)
전국 <sup>1)</sup>	36.5	20.3	23.8	11.5	8.0	100.0 (402)
서울	40.4	13.8	22.9	13.8	9.2	100.0 (109)
부산	33.3	13.3	20.0	0.0	33.3	100.0 ( 15)
대구	47.4	5.3	36.8	10.5	0.0	100.0 ( 19)
인천	21.1	26.3	31.6	10.5	10.5	100.0 ( 19)
광주	42.9	7.1	42.9	7.1	0.0	100.0 ( 14)
대전	71.4	4.8	14.3	9.5	0.0	100.0 ( 21)
울산	66.7	22.2	11.1	0.0	0.0	100.0 ( 9) <sup>2)</sup>
경기	35.2	33.0	15.4	13.2	3.3	100.0 ( 91)
강원	35.3	5.9	29.4	11.8	17.6	100.0 ( 17)
충북	28.6	0.0	42.9	0.0	28.6	100.0 ( 7) <sup>2)</sup>
충남	37.5	25.0	18.8	18.8	0.0	100.0 ( 16)
전북	18.8	25.0	37.5	6.3	12.5	100.0 ( 16)
전남	25.0	37.5	25.0	12.5	0.0	100.0 ( 8) <sup>2)</sup>
경북	15.8	26.3	31.6	5.3	21.1	100.0 ( 19)
경남	18.2	36.4	27.3	18.2	0.0	100.0 ( 11)
제주	12.5	12.5	37.5	12.5	25.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11-9-21〉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특성	개인적으로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0.1	30.7	12.8	16.2	16.7	11.8	1.7	100.0 (407)
서울	10.0	44.5	5.5	16.4	17.3	6.4	0.0	100.0 (110)
부산	0.0	60.0	0.0	6.7	33.3	0.0	0.0	100.0 ( 15)
대구	10.5	10.5	21.1	26.3	10.5	21.1	0.0	100.0 ( 19)
인천	5.3	52.6	21.1	10.5	10.5	0.0	0.0	100.0 ( 19)
광주	11.8	5.9	23.5	17.6	17.6	0.0	23.5	100.0 ( 17)
대전	5.0	30.0	25.0	15.0	15.0	10.0	0.0	100.0 ( 20)
울산	9.1	9.1	36.4	18.2	9.1	9.1	9.1	100.0 ( 11)
경기	12.1	28.6	15.4	26.4	11.0	6.6	0.0	100.0 ( 91)
강원	5.3	10.5	21.1	5.3	31.6	26.3	0.0	100.0 ( 19)
충북	0.0	28.6	14.3	14.3	14.3	28.6	0.0	100.0 ( 7) <sup>2)</sup>
충남	23.5	17.6	5.9	5.9	17.6	29.4	0.0	100.0 ( 17)
전북	20.0	26.7	0.0	6.7	33.3	6.7	6.7	100.0 ( 15)
전남	14.3	14.3	0.0	14.3	28.6	28.6	0.0	100.0 ( 7) <sup>2)</sup>
경북	14.3	14.3	9.5	0.0	23.8	33.3	4.8	100.0 ( 21)
경남	0.0	36.4	18.2	27.3	0.0	18.2	0.0	100.0 ( 11)
제주	0.0	25.0	12.5	0.0	12.5	50.0	0.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II-9-22〉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sup>2)</sup>	사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질서	환경보 호	보건 의 료	공공기 관	재난 구조	교육활 동	시민 단체	소비자 보호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50.1	5.0	6.0	22.2	5.7	2.7	0.7	3.7	0.0	1.2	2.5	100.0 (407)
서울	65.5	1.8	6.4	6.4	6.4	5.5	0.0	3.6	0.0	4.5	0.0	100.0 (110)
부산	66.7	0.0	6.7	13.3	13.3	0.0	0.0	0.0	0.0	0.0	0.0	100.0 ( 15)
대구	45.0	0.0	10.0	30.0	5.0	0.0	0.0	0.0	0.0	0.0	10.0	100.0 ( 20)
인천	42.9	0.0	19.0	9.5	14.3	0.0	0.0	14.3	0.0	0.0	0.0	100.0 ( 21)
광주	25.0	6.3	6.3	43.8	12.5	0.0	0.0	6.3	0.0	0.0	0.0	100.0 ( 16)
대전	23.8	9.5	4.8	42.9	0.0	9.5	4.8	4.8	0.0	0.0	0.0	100.0 ( 21)
울산	33.3	0.0	0.0	44.4	0.0	0.0	0.0	22.2	0.0	0.0	0.0	100.0 ( 9) <sup>3)</sup>
경기	49.5	6.6	5.5	23.1	8.8	1.1	0.0	1.1	0.0	0.0	4.4	100.0 ( 91)
강원	33.3	22.2	0.0	38.9	0.0	0.0	0.0	5.6	0.0	0.0	0.0	100.0 ( 18)
충북	66.7	0.0	0.0	33.3	0.0	0.0	0.0	0.0	0.0	0.0	0.0	100.0 ( 6) <sup>3)</sup>
충남	37.5	18.8	0.0	12.5	0.0	0.0	6.3	6.3	0.0	0.0	18.8	100.0 ( 16)
전북	42.9	7.1	7.1	14.3	0.0	14.3	0.0	7.1	0.0	0.0	7.1	100.0 ( 14)
전남	71.4	14.3	0.0	14.3	0.0	0.0	0.0	0.0	0.0	0.0	0.0	100.0 ( 7) <sup>3)</sup>
경북	30.0	0.0	5.0	65.0	0.0	0.0	0.0	0.0	0.0	0.0	0.0	100.0 ( 20)
경남	70.0	0.0	10.0	2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10)
제주	57.1	0.0	0.0	28.6	0.0	0.0	14.3	0.0	0.0	0.0	0.0	100.0 ( 7)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국제관계 및 시민단체 활동 분야는 보기에는 있었으나 국제관계는 응답자가 전혀 없고, 시민단체는 1명만 응답하였으므로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II-9-23〉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이유

(단위: %, 명)

특성 <sup>2)</sup>	자신의 성취	사회 환원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시간 보내기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70.9	24.2	2.2	2.4	0.2	100.0 (407)
서울	64.0	28.8	0.0	7.2	0.0	100.0 (111)
부산	93.8	6.3	0.0	0.0	0.0	100.0 ( 16)
대구	78.9	21.1	0.0	0.0	0.0	100.0 ( 19)
인천	80.0	20.0	0.0	0.0	0.0	100.0 ( 20)
광주	37.5	50.0	6.3	6.3	0.0	100.0 ( 16)
대전	86.4	9.1	4.5	0.0	0.0	100.0 ( 22)
울산	60.0	40.0	0.0	0.0	0.0	100.0 ( 10)
경기	72.8	22.8	3.3	1.1	0.0	100.0 ( 92)
강원	72.2	27.8	0.0	0.0	0.0	100.0 ( 18)
충북	85.7	14.3	0.0	0.0	0.0	100.0 ( 7) <sup>3)</sup>
충남	93.8	6.3	0.0	0.0	0.0	100.0 ( 16)
전북	62.5	31.3	0.0	0.0	6.3	100.0 ( 16)
전남	57.1	28.6	14.3	0.0	0.0	100.0 ( 7) <sup>3)</sup>
경북	80.0	20.0	0.0	0.0	0.0	100.0 ( 20)
경남	50.0	33.3	16.7	0.0	0.0	100.0 ( 12)
제주	71.4	14.3	14.3	0.0	0.0	100.0 ( 7) <sup>3)</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새로운 기술 습득이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제외하고 제시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11-9-24〉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만족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44.8	51.2	3.5	0.0	0.5	100.0 (407)
서울	56.4	36.4	6.4	0.0	0.9	100.0 (110)
부산	80.0	20.0	0.0	0.0	0.0	100.0 ( 15)
대구	42.1	57.9	0.0	0.0	0.0	100.0 ( 19)
인천	55.0	30.0	15.0	0.0	0.0	100.0 ( 20)
광주	43.8	56.3	0.0	0.0	0.0	100.0 ( 16)
대전	19.0	81.0	0.0	0.0	0.0	100.0 ( 21)
울산	33.3	66.7	0.0	0.0	0.0	100.0 ( 9) <sup>2)</sup>
경기	41.8	58.2	0.0	0.0	0.0	100.0 ( 91)
강원	33.3	66.7	0.0	0.0	0.0	100.0 ( 18)
충북	57.1	42.9	0.0	0.0	0.0	100.0 ( 7) <sup>2)</sup>
충남	50.0	50.0	0.0	0.0	0.0	100.0 ( 16)
전북	37.5	50.0	12.5	0.0	0.0	100.0 ( 16)
전남	28.6	57.1	0.0	0.0	14.3	100.0 ( 7) <sup>2)</sup>
경북	25.0	70.0	5.0	0.0	0.0	100.0 ( 20)
경남	25.0	66.7	8.3	0.0	0.0	100.0 ( 12)
제주	28.6	71.4	0.0	0.0	0.0	100.0 ( 7)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11-9-25〉 시·도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률 및 활동 종류

(단위: %, 명)

특성	향후 참여희망률 <sup>1)</sup>	향후 참여 자원봉사활동 종류 <sup>2)</sup>			계 (명)
		단순노동형	전문기술 활용형	활동종류 무관	
전국	9.9	45.8	14.1	40.1	100.0 (1,042)
서울	17.6	38.5	15.5	46.0	100.0 ( 335)
부산	7.5	41.9	27.4	30.6	100.0 ( 62)
대구	6.8	68.6	11.4	20.0	100.0 ( 35)
인천	10.6	60.8	9.8	29.4	100.0 ( 51)
광주	13.3	35.1	24.3	40.5	100.0 ( 37)
대전	10.3	69.0	13.8	17.2	100.0 ( 29)
울산	7.7	60.0	13.3	26.7	100.0 ( 15)
경기	10.3	49.5	7.7	42.8	100.0 ( 208)
강원	7.4	48.4	12.9	38.7	100.0 ( 31)
충북	7.0	61.5	3.8	34.6	100.0 ( 26)
충남	8.2	10.6	19.1	70.2	100.0 ( 47)
전북	8.6	52.3	20.5	27.3	100.0 ( 44)
전남	6.6	61.9	14.3	23.8	100.0 ( 42)
경북	5.7	52.3	9.1	38.6	100.0 ( 44)
경남	3.7	35.0	15.0	50.0	100.0 ( 20)
제주	11.6	47.1	11.8	41.2	100.0 ( 1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5명을 제외함

2)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1,04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9-26〉 시·도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사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질서	환경 보호	보건 의료	국제 관계	공공 기관	재난 구조	교육 활동	시민 단체	소비자 보호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48.7	4.6	11.4	14.4	5.3	0.8	3.9	1.6	6.4	0.1	1.4	1.3	100.0 (1,042)
서울	53.4	3.9	13.4	6.0	5.7	0.9	5.7	0.6	7.2	0.3	2.4	0.6	100.0 ( 335)
부산	46.8	9.7	14.5	4.8	14.5	0.0	3.2	0.0	3.2	0.0	0.0	3.2	100.0 ( 62)
대구	59.5	0.0	8.1	21.6	2.7	0.0	2.7	2.7	2.7	0.0	0.0	0.0	100.0 ( 37)
인천	42.0	6.0	20.0	8.0	10.0	0.0	2.0	2.0	10.0	0.0	0.0	0.0	100.0 ( 50)
광주	30.6	8.3	13.9	16.7	5.6	0.0	0.0	0.0	13.9	0.0	0.0	11.1	100.0 ( 36)
대전	33.3	7.4	3.7	40.7	0.0	0.0	7.4	3.7	3.7	0.0	0.0	0.0	100.0 ( 27)
울산	57.1	7.1	7.1	28.6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14)
경기	53.1	3.8	9.6	14.8	6.7	1.9	0.5	2.4	5.7	0.0	1.4	0.0	100.0 ( 209)
강원	40.0	13.3	3.3	26.7	0.0	0.0	6.7	0.0	10.0	0.0	0.0	0.0	100.0 ( 30)
충북	50.0	0.0	7.7	19.2	15.4	0.0	0.0	7.7	0.0	0.0	0.0	0.0	100.0 ( 26)
충남	36.2	6.4	0.0	21.3	0.0	0.0	17.0	4.3	4.3	0.0	0.0	10.6	100.0 ( 47)
전북	45.5	4.5	13.6	11.4	2.3	0.0	2.3	0.0	11.4	0.0	6.8	2.3	100.0 ( 44)
전남	31.0	2.4	19.0	33.3	0.0	0.0	2.4	4.8	4.8	0.0	2.4	0.0	100.0 ( 42)
경북	44.4	2.2	11.1	28.9	0.0	2.2	6.7	0.0	4.4	0.0	0.0	0.0	100.0 ( 45)
경남	68.4	0.0	5.3	21.1	0.0	0.0	0.0	0.0	5.3	0.0	0.0	0.0	100.0 ( 19)
제주	50.0	6.3	6.3	25.0	0.0	0.0	0.0	6.3	6.3	0.0	0.0	0.0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1,04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9-27〉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법

(단위: %, 명)

특성	자원봉사 활동 홍보	장소 정보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 확대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47.0	25.3	18.9	8.7	0.1	100.0 (10,348)
서울	35.3	23.4	27.3	14.0	0.0	100.0 ( 1,903)
부산	41.5	31.8	21.0	5.7	0.0	100.0 ( 809)
대구	53.9	23.1	17.1	6.0	0.0	100.0 ( 516)
인천	37.3	38.3	16.6	7.8	0.0	100.0 ( 475)
광주	45.3	22.3	19.2	13.2	0.0	100.0 ( 265)
대전	57.3	31.7	5.7	5.3	0.0	100.0 ( 281)
울산	55.1	21.6	15.9	7.4	0.0	100.0 ( 176)
경기	45.0	21.6	24.1	8.7	0.6	100.0 ( 1,998)
강원	47.2	28.2	14.7	9.9	0.0	100.0 ( 394)
충북	49.3	24.5	22.3	3.9	0.0	100.0 ( 359)
충남	56.0	33.9	3.3	6.9	0.0	100.0 ( 579)
전북	58.4	22.8	8.9	9.7	0.2	100.0 ( 526)
전남	53.2	22.8	15.2	8.8	0.0	100.0 ( 637)
경북	52.7	22.6	16.8	7.9	0.0	100.0 ( 774)
경남	58.6	24.9	13.1	3.4	0.0	100.0 ( 526)
제주	56.9	23.1	14.6	5.4	0.0	100.0 ( 13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9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9-28〉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단위: %, 명)

특성	교통비와 식비 제공	교육	사고 대비 보험 가입	포상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67.9	14.0	6.4	11.6	0.0	100.0 (903)
서울	68.4	16.5	6.0	9.0	0.0	100.0 (266)
부산	52.2	10.9	6.5	30.4	0.0	100.0 ( 46)
대구	59.4	9.4	9.4	21.9	0.0	100.0 ( 32)
인천	67.6	10.8	10.8	10.8	0.0	100.0 ( 37)
광주	58.3	13.9	11.1	16.7	0.0	100.0 ( 36)
대전	73.3	0.0	20.0	6.7	0.0	100.0 ( 15)
울산	53.8	15.4	15.4	15.4	0.0	100.0 ( 13)
경기	69.4	16.8	5.2	8.7	0.0	100.0 (173)
강원	57.9	18.4	10.5	13.2	0.0	100.0 ( 38)
충북	61.5	15.4	0.0	23.1	0.0	100.0 ( 13)
충남	75.0	2.5	5.0	17.5	0.0	100.0 ( 40)
전북	84.3	9.8	3.9	2.0	0.0	100.0 ( 51)
전남	82.5	8.8	1.8	7.0	0.0	100.0 ( 57)
경북	67.2	16.4	4.9	11.5	0.0	100.0 ( 61)
경남	50.0	22.2	5.6	22.2	0.0	100.0 ( 18)
제주	62.5	12.5	12.5	12.5	0.0	100.0 ( 8)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9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11-9-29〉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sup>1)</sup>	28.2	24.2	28.5	29.1	16.5	45.3	27.3	33.5
주된 여가활동 <sup>2)</sup>								
책읽기	9.8	17.3	9.2	11.6	13.9	15.7	6.2	5.2
글쓰기	0.6	0.4	0.4	0.7	-	0.8	-	1.7
산책	7.1	17.1	11.0	-	8.9	3.3	3.1	5.2
등산	10.5	13.6	10.5	13.6	7.6	10.7	27.7	13.8
낚시	2.2	0.7	3.5	4.1	3.8	5.0	0.0	1.7
스포츠 관람	0.2	0.7	-	-	-	0.0	-	-
컴퓨터 및 인터넷	0.4	0.9	0.4	3.4	-	-	-	-
게임	0.1	-	-	-	-	-	0.0	-
바둑, 장기, 체스	7.4	7.1	7.0	2.7	11.4	4.1	7.7	12.1
화투, 카드	27.1	10.2	7.0	30.6	13.9	15.7	23.1	25.9
웃놀이	1.2	-	-	1.4	-	-	-	-
문학행사와 참여	0.0	-	-	-	-	0.8	-	-
연극(뮤지컬)공연 관람	0.1	-	-	1.4	-	0.0	-	-
영화보기/영화감상	0.4	2.0	-	-	-	-	0.0	-
전통문화재 감상	0.1	-	-	-	-	-	-	-
문예창작/독서토론	0.1	-	-	0.7	-	-	-	-
그림그리기/조각/도예	0.3	-	0.4	2.7	-	0.8	1.5	-
악기연주	0.9	2.4	-	1.4	1.3	0.8	3.1	1.7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1	12.0	8.3	7.5	19.0	7.4	12.3	8.6
음악듣기	1.5	0.2	0.9	2.7	-	3.3	-	-
전통예술(사물놀이 등) 배우기	0.3	-	0.9	-	1.3	0.8	-	0.0
춤추기	1.9	2.7	2.6	0.7	1.3	0.0	3.1	-
무용(발레, 방송댄스 등) 배우기	0.4	0.7	0.4	-	0.0	0.0	0.0	1.7
사진찍기	0.5	0.4	4.8	-	-	0.8	-	-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0.7	1.1	2.2	-	1.3	0.8	3.1	0.0
서예	2.1	2.2	1.3	4.1	-	3.3	3.1	3.4
다도/요리하기	0.2	-	-	-	-	-	-	-
화초가꾸기	10.5	5.6	16.2	10.9	11.4	11.6	4.6	12.1
기타	5.3	2.7	12.7	-	5.1	14.0	1.5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72)	( 450)	( 228)	( 147)	( 79)	( 121)	( 65)	( 5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11-9-29〉 계속

(단위: %, 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24.0	24.0	40.6	36.9	26.4	28.0	45.5	13.7	44.9
주된 여가활동									
책읽기	9.7	10.6	4.7	5.2	9.4	6.9	6.0	1.4	10.2
글쓰기	0.2	1.1	-	0.5	3.9	0.6	0.3	0.0	1.7
산책	10.8	3.2	3.4	5.6	1.6	2.3	0.8	5.8	1.7
등산	14.4	8.5	10.1	7.0	11.0	1.7	3.6	21.7	1.7
낚시	1.5	3.2	1.3	2.8	2.4	5.7	1.1	0.0	1.7
스포츠 관람	-	-	2.0	-	-	-	-	-	-
컴퓨터 및 인터넷	0.0	-	-	0.5	-	0.0	0.3	0.0	-
게임	0.4	-	-	-	-	-	-	1.4	-
바둑, 장기, 체스	9.3	8.5	10.1	6.6	8.7	5.2	6.8	7.2	6.8
화투, 카드	20.7	24.5	55.0	30.5	26.0	30.5	63.3	17.4	20.3
윷놀이	-	1.1	1.3	8.0	-	-	3.3	1.4	0.0
문학행사 참여	-	-	-	-	-	-	-	-	-
연극(뮤지컬)공연 관람	-	-	-	-	-	-	-	-	0.0
영화보기/영화감상	-	1.1	-	-	0.8	-	-	-	-
전통문화재 감상	-	-	0.7	0.5	-	0.6	-	-	-
문예창작/독서토론	0.4	1.1	-	-	-	-	-	-	-
그림그리기/조각/도예	0.4	-	0.0	0.5	-	-	-	-	-
악기연주	0.6	0.0	-	-	0.0	-	0.8	2.9	0.0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8	7.4	4.7	8.0	5.5	8.6	1.6	11.6	6.8
음악듣기	2.8	2.1	2.0	1.4	0.8	5.7	0.0	-	1.7
전통예술(사물놀이 등) 배우기	0.9	-	-	-	-	0.6	-	1.4	0.0
춤추기	3.2	6.4	0.7	0.5	0.8	1.1	0.3	2.9	3.4
무용(발레, 방송댄스 등) 배우기	0.2	-	-	0.5	2.4	0.6	-	0.0	-
사진찍기	-	-	-	-	-	-	-	-	-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0.2	2.1	-	0.5	-	0.0	0.3	1.4	0.0
서예	1.7	3.2	0.0	1.9	1.6	3.4	0.8	7.2	1.7
다도/요리하기	0.6	-	-	-	1.6	-	0.3	-	-
화초가꾸기	10.6	9.6	4.0	17.4	15.7	11.5	9.0	5.8	18.6
기타	2.4	6.4	0.0	2.3	7.9	14.9	1.4	10.1	2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464)	( 94)	( 149)	( 213)	( 127)	( 174)	( 365)	( 69)	( 59)

## 〈부표 시·도별 II-9-31〉 시·도별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4회이상	주2-3회	주1회	2주1회	월1회	월1회미만	계 (명)
전국 <sup>1)</sup>	39.4	32.4	15.9	4.5	4.9	2.8	100.0 (2,872)
서울	42.8	24.3	20.8	5.0	3.9	3.1	100.0 ( 453)
부산	33.0	34.8	18.1	3.1	7.9	3.1	100.0 ( 227)
대구	47.0	22.8	13.4	6.7	6.0	4.0	100.0 ( 149)
인천	30.4	40.5	21.5	1.3	2.5	3.8	100.0 ( 79)
광주	40.8	34.2	10.8	4.2	5.8	4.2	100.0 ( 120)
대전	32.4	35.3	17.6	4.4	10.3	0.0	100.0 ( 68)
울산	32.2	37.3	13.6	1.7	11.9	3.4	100.0 ( 59)
경기	42.1	34.8	12.0	3.6	3.4	4.1	100.0 ( 466)
강원	38.0	34.8	13.0	8.7	4.3	1.1	100.0 ( 92)
충북	41.1	30.5	12.6	9.9	4.0	2.0	100.0 ( 151)
충남	40.6	36.8	15.1	2.8	3.8	0.9	100.0 ( 213)
전북	35.9	28.1	24.2	1.6	10.2	0.0	100.0 ( 128)
전남	32.6	33.1	18.9	2.9	6.3	6.3	100.0 ( 175)
경북	46.0	34.2	9.9	6.0	2.7	1.1	100.0 ( 365)
경남	19.4	41.7	27.8	2.8	4.2	4.2	100.0 ( 72)
제주	26.7	40.0	23.3	5.0	3.3	1.7	100.0 ( 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2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9-32〉 시·도별 여가문화활동시 동반자

(단위: %, 명)

특성	혼자서	배우자	가족 (배우자 외)	친구	동호회 회원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35.7	7.4	0.8	50.7	5.0	0.3	100.0 (2,871)
서울	40.4	11.7	2.4	35.8	7.5	2.2	100.0 ( 451)
부산	56.8	1.3	0.0	41.0	0.9	0.0	100.0 ( 227)
대구	37.8	6.1	0.7	52.7	2.7	0.0	100.0 ( 148)
인천	38.0	5.1	0.0	54.4	2.5	0.0	100.0 ( 79)
광주	45.5	9.9	0.8	38.8	5.0	0.0	100.0 ( 121)
대전	29.4	4.4	0.0	52.9	13.2	0.0	100.0 ( 68)
울산	29.3	5.2	0.0	58.6	6.9	0.0	100.0 ( 58)
경기	34.9	12.6	0.9	42.4	9.2	0.0	100.0 ( 467)
강원	30.4	13.0	0.0	50.0	6.5	0.0	100.0 ( 92)
충북	17.3	5.3	0.0	75.3	2.0	0.0	100.0 ( 150)
충남	32.5	8.0	0.5	54.7	4.2	0.0	100.0 ( 212)
전북	40.6	7.8	0.0	49.2	2.3	0.0	100.0 ( 128)
전남	44.8	1.1	1.7	50.6	1.7	0.0	100.0 ( 174)
경북	21.3	1.9	0.3	75.4	1.1	0.0	100.0 ( 366)
경남	23.2	4.3	0.0	63.8	8.7	0.0	100.0 ( 69)
제주	43.3	13.3	1.7	33.3	8.3	0.0	100.0 ( 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9-33〉 시·도별 여가문화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	전국 <sup>1)</sup>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집	33.4	32.5	41.6	41.6	33.8	43.0	25.0	27.9
경로당	27.3	8.6	4.4	24.8	12.5	13.2	20.6	24.6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7.3	9.7	7.5	9.4	20.0	5.0	17.6	8.2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노인교실	0.5	0.4	0.4	0.0	1.3	0.0	0.0	1.6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2.1	5.3	3.1	0.0	0.0	0.8	1.5	3.3
대학부설 평생교육관·사회문화교실	0.1	0.0	0.0	0.7	0.0	0.0	0.0	0.0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자치센터	1.5	2.9	0.9	0.0	0.0	1.7	1.5	1.6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 회관	0.5	0.0	0.4	0.0	0.0	1.7	0.0	0.0
도서관, 박물관	0.2	0.0	0.0	0.7	1.3	0.8	0.0	0.0
시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학원	1.0	0.0	0.9	2.0	2.5	5.0	1.5	0.0
근린공원, 산, 바다 등	18.5	30.3	23.0	16.8	21.3	18.2	29.4	19.7
동호회 사무실 등	1.1	1.8	0.4	0.0	2.5	1.7	1.5	3.3
기타	6.6	8.8	17.3	4.0	5.0	9.1	1.5	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72)	( 453)	( 226)	( 149)	( 80)	( 120)	( 68)	( 6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집	27.6	35.5	22.8	33.6	47.2	40.8	26.6	18.1	61.7
경로당	21.6	24.7	55.7	41.2	26.8	32.8	63.2	27.8	18.3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9.9	8.6	2.0	5.2	4.7	5.2	1.1	8.3	3.3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노인교실	0.0	1.1	0.0	0.9	0.0	0.0	0.5	4.2	0.0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3.2	5.4	0.0	0.5	1.6	0.6	0.0	0.0	0.0
대학부설 평생교육관·사회문화교실	0.0	0.0	0.0	0.0	0.0	0.0	0.0	2.8	0.0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자치센터	2.4	2.2	0.0	0.9	0.8	1.7	0.8	1.4	1.7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 년회관	0.0	0.0	0.0	0.9	0.0	3.4	0.0	4.2	0.0
도서관, 박물관	0.2	0.0	0.7	0.0	0.0	0.0	0.0	0.0	0.0
시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학원	2.4	0.0	0.0	0.5	0.0	0.0	0.0	0.0	3.3
근린공원, 산, 바다 등	25.4	11.8	14.8	11.8	15.7	3.4	6.3	26.4	1.7
동호회 사무실 등	1.9	3.2	0.7	0.0	0.0	0.0	0.3	0.0	1.7
기타	5.4	7.5	3.4	4.3	3.1	12.1	1.1	6.9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464)	( 93)	( 149)	( 212)	( 127)	( 174)	( 364)	( 72)	( 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2,8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11-9-35〉 시·도별 여가문화활동 만족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국 <sup>1)</sup>	4.4	33.6	31.9	22.8	7.2	100.0 (10,525)
서울	4.7	30.8	32.2	22.8	9.5	100.0 ( 1,900)
부산	0.7	32.7	41.2	18.0	7.3	100.0 ( 822)
대구	8.1	38.2	27.1	22.2	4.5	100.0 ( 532)
인천	2.7	25.8	40.3	21.4	9.7	100.0 ( 476)
광주	4.7	50.7	25.2	19.4	0.0	100.0 ( 278)
대전	1.8	45.9	31.1	19.4	1.8	100.0 ( 283)
울산	1.1	33.5	35.2	25.3	4.9	100.0 ( 182)
경기	4.3	31.9	31.3	23.9	8.6	100.0 ( 2,021)
강원	2.9	42.7	31.4	19.9	3.1	100.0 ( 417)
충북	11.0	45.2	21.8	18.0	4.0	100.0 ( 372)
충남	3.9	36.2	29.3	24.0	6.5	100.0 ( 583)
전북	2.1	30.2	25.6	33.0	9.1	100.0 ( 527)
전남	1.5	29.0	29.6	30.3	9.5	100.0 ( 651)
경북	11.8	36.5	27.0	19.7	5.0	100.0 ( 803)
경남	1.3	24.8	45.0	20.7	8.1	100.0 ( 540)
제주	7.2	36.2	32.6	21.0	2.9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2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11-9-37〉 시·도별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단위: %, 명)

특성	취미 활동	자아 개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소득 창출	건강 유지	편히 쉰다	계 (명)
전국 <sup>1)</sup>	4.1	1.1	2.5	5.8	19.6	52.3	14.6	100.0 (10,533)
서울	5.1	2.3	5.1	10.1	15.3	49.0	13.0	100.0 ( 1,909)
부산	1.9	0.2	1.5	3.2	13.5	65.1	14.6	100.0 ( 823)
대구	4.5	0.8	2.4	6.6	18.0	47.1	20.6	100.0 ( 533)
인천	5.2	0.6	2.3	11.3	17.6	50.0	13.0	100.0 ( 478)
광주	7.2	0.4	2.5	5.7	18.6	54.5	11.1	100.0 ( 279)
대전	3.5	0.4	1.8	5.0	15.2	68.4	5.7	100.0 ( 282)
울산	3.3	1.1	1.1	2.8	18.2	60.8	12.7	100.0 ( 181)
경기	4.4	1.8	3.5	7.0	17.7	50.5	15.2	100.0 ( 2,025)
강원	4.8	1.4	1.4	3.1	26.1	42.8	20.3	100.0 ( 414)
충북	5.1	0.5	2.2	2.4	24.2	46.2	19.4	100.0 ( 372)
충남	6.2	0.3	1.7	4.8	30.5	43.4	13.1	100.0 ( 581)
전북	3.2	1.0	1.0	7.6	18.8	57.2	11.2	100.0 ( 526)
전남	2.5	0.5	0.9	0.8	22.6	56.8	16.0	100.0 ( 650)
경북	2.9	0.4	0.6	1.7	26.0	53.5	14.9	100.0 ( 804)
경남	1.3	0.4	0.4	2.4	23.6	57.1	14.8	100.0 ( 539)
제주	3.6	1.5	2.2	3.6	25.5	48.2	15.3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함.

## 제10장 노인의 생활환경

### 〈부표 시·도별 II-10-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종류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상가주택	오피스텔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55.7	26.3	3.8	11.5	2.4	0.0	0.2	100.0 (10,674)
서울	35.6	33.5	6.1	19.8	4.7	0.1	0.3	100.0 ( 1,939)
부산	42.3	31.5	3.7	20.3	2.2	0.0	0.0	100.0 (   837)
대구	34.3	34.8	0.0	27.9	3.0	0.0	0.0	100.0 (   534)
인천	44.4	35.1	5.4	14.1	0.8	0.0	0.2	100.0 (   495)
광주	49.1	40.6	0.7	6.8	2.8	0.0	0.0	100.0 (   281)
대전	46.1	37.7	11.3	2.8	2.1	0.0	0.0	100.0 (   285)
울산	51.4	21.0	3.9	21.5	2.2	0.0	0.0	100.0 (   182)
경기	38.0	40.2	6.6	12.8	1.7	0.1	0.6	100.0 ( 2,057)
강원	74.9	15.8	0.5	5.0	2.9	0.0	1.0	100.0 (   418)
충북	72.1	16.4	1.9	5.6	3.8	0.3	0.0	100.0 (   373)
충남	87.2	7.6	2.0	2.2	0.8	0.0	0.2	100.0 (   594)
전북	78.4	16.4	2.1	0.9	2.3	0.0	0.0	100.0 (   533)
전남	91.1	5.7	0.2	0.9	2.1	0.0	0.0	100.0 (   652)
경북	86.3	8.2	0.0	4.1	1.2	0.0	0.1	100.0 (   813)
경남	78.1	14.2	2.6	4.4	0.6	0.2	0.0	100.0 (   543)
제주	82.0	7.9	2.9	2.9	4.3	0.0	0.0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0-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위치

(단위: %, 명)

특성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계 (명)
전국 <sup>1)</sup>	0.4	2.1	97.4	0.1	100.0 (10,674)
서울	0.7	6.3	92.7	0.3	100.0 ( 1,939)
부산	0.4	0.8	98.8	0.0	100.0 (   837)
대구	0.0	1.1	98.9	0.0	100.0 (   534)
인천	0.2	3.6	96.2	0.0	100.0 (   495)
광주	0.0	0.4	99.6	0.0	100.0 (   281)
대전	0.4	0.7	98.9	0.0	100.0 (   285)
울산	0.0	0.5	99.5	0.0	100.0 (   182)
경기	1.1	3.1	95.8	0.0	100.0 ( 2,057)
강원	0.5	0.5	99.0	0.0	100.0 (   418)
충북	0.0	0.0	100.0	0.0	100.0 (   373)
충남	0.2	0.0	99.8	0.0	100.0 (   594)
전북	0.0	0.6	99.4	0.0	100.0 (   533)
전남	0.0	0.2	99.8	0.0	100.0 (   652)
경북	0.0	0.1	99.9	0.0	100.0 (   813)
경남	0.0	0.0	100.0	0.0	100.0 (   543)
제주	0.0	0.0	100.0	0.0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0-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지도원 의견)

(단위: %, 명)

특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전국 <sup>1)</sup>	18.8	78.5	2.7	100.0 (10,671)
서울	18.4	78.5	3.0	100.0 ( 1,939)
부산	17.3	78.9	3.7	100.0 ( 837)
대구	17.6	81.8	0.6	100.0 ( 534)
인천	9.7	86.9	3.4	100.0 ( 495)
광주	17.1	80.8	2.1	100.0 ( 281)
대전	13.3	86.0	0.7	100.0 ( 285)
울산	21.9	73.2	4.9	100.0 ( 182)
경기	11.6	83.6	4.8	100.0 ( 2,057)
강원	21.5	77.8	0.7	100.0 ( 418)
충북	19.6	77.5	2.9	100.0 ( 373)
충남	27.6	70.9	1.5	100.0 ( 594)
전북	16.3	82.2	1.5	100.0 ( 533)
전남	28.1	71.3	0.6	100.0 ( 652)
경북	29.3	69.3	1.4	100.0 ( 813)
경남	21.2	76.1	2.8	100.0 ( 543)
제주	33.1	65.5	1.4	100.0 ( 138)

주: 1) 전체응답자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0-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특성	불편한 공간														계 (명)
	없음	현관	복도	계단	부엌 및 식당	화장실	욕실	침실	거실	베란다	조명	문턱	환기	기타	
전국 <sup>1)</sup>	56.7	1.2	0.1	15.2	3.3	10.9	2.1	0.7	0.9	0.7	1.0	4.5	1.6	0.8	100.0 (10,541)
서울	47.6	1.0	0.3	25.3	5.0	6.7	2.8	0.7	1.6	0.9	1.5	2.3	3.7	0.7	100.0 ( 1,907)
부산	60.0	1.6	0.1	18.0	1.3	9.2	3.9	0.7	0.7	0.0	0.2	2.7	0.9	0.6	100.0 ( 822)
대구	70.2	0.0	0.2	9.4	2.1	11.4	1.3	1.5	0.2	0.7	0.6	2.1	0.4	0.0	100.0 ( 534)
인천	54.9	2.3	0.0	23.5	3.1	9.2	1.0	0.2	1.5	0.8	0.6	2.1	0.6	0.0	100.0 ( 477)
광주	55.8	1.4	0.0	14.7	1.4	14.0	1.1	0.0	0.4	1.1	0.0	5.8	1.4	2.9	100.0 ( 279)
대전	66.7	1.1	0.0	17.7	1.4	3.9	0.7	0.0	1.1	1.1	0.0	2.8	3.2	0.4	100.0 ( 280)
울산	70.2	0.6	0.0	10.5	1.7	11.0	2.8	0.0	0.6	0.0	0.0	2.2	0.0	0.6	100.0 ( 182)
경기	61.7	0.9	0.1	16.6	3.0	5.9	2.2	0.6	0.9	1.1	1.6	2.4	2.1	0.8	100.0 ( 2,030)
강원	61.2	2.2	0.0	8.6	4.5	13.9	2.4	0.7	0.5	0.0	0.7	5.0	0.2	0.0	100.0 ( 416)
충북	71.2	0.8	0.0	8.1	3.5	9.7	0.5	0.3	0.8	0.5	0.0	4.3	0.3	0.0	100.0 ( 372)
충남	49.5	1.7	0.2	15.4	3.9	8.9	1.0	0.7	1.4	1.5	3.6	8.4	2.6	1.2	100.0 ( 582)
전북	51.3	1.9	0.0	10.3	3.4	15.2	2.3	1.3	1.0	0.4	1.0	8.0	1.3	2.7	100.0 ( 528)
전남	43.2	1.2	0.2	9.4	5.4	21.8	2.8	1.2	0.9	0.5	0.0	11.1	0.3	2.0	100.0 ( 650)
경북	54.8	0.7	0.1	6.6	2.7	19.5	1.0	0.7	0.2	0.4	1.0	11.4	0.1	0.6	100.0 ( 806)
경남	62.1	1.9	0.0	6.9	1.1	17.7	3.0	0.9	0.9	0.4	0.6	3.9	0.7	0.0	100.0 ( 538)
제주	62.1	0.0	0.0	5.0	2.9	23.6	0.7	0.7	1.4	0.0	0.7	1.4	1.4	0.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0-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특성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계 (명)
	없음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휠체어	경운기	기타	
전국 <sup>1)</sup>	0.5	48.9	19.3	6.7	18.4	2.0	3.1	0.4	0.1	0.6	100.0 (10,543)
서울	1.0	22.2	55.5	7.7	12.1	0.9	0.0	0.3	0.0	0.3	100.0 ( 1,907)
부산	0.0	49.0	31.7	8.0	8.7	0.4	0.4	0.4	0.0	1.5	100.0 ( 822)
대구	0.0	42.7	23.7	9.2	16.5	4.3	1.5	1.3	0.0	0.8	100.0 ( 534)
인천	0.0	50.5	23.1	3.1	20.3	1.5	1.0	0.0	0.0	0.4	100.0 ( 480)
광주	0.0	55.0	9.4	11.5	19.8	3.6	0.7	0.0	0.0	0.0	100.0 ( 279)
대전	0.7	51.9	18.0	6.4	17.3	3.9	1.1	0.7	0.0	0.0	100.0 ( 280)
울산	0.0	70.7	0.0	7.7	16.6	2.2	1.7	0.6	0.0	0.6	100.0 ( 182)
경기	0.8	45.7	19.4	4.3	23.9	2.2	2.7	0.2	0.1	0.6	100.0 ( 2,030)
강원	0.2	55.2	0.7	7.2	28.8	1.0	3.8	1.7	0.2	1.2	100.0 ( 416)
충북	0.0	61.5	0.0	6.5	24.5	3.2	4.0	0.3	0.0	0.0	100.0 ( 372)
충남	0.3	59.9	0.9	2.7	21.1	5.0	9.1	0.3	0.2	0.5	100.0 ( 582)
전북	0.6	59.0	0.2	7.8	21.0	3.4	6.7	0.4	0.2	0.8	100.0 ( 528)
전남	0.8	69.1	0.0	7.7	13.5	1.1	6.6	0.0	0.0	1.2	100.0 ( 650)
경북	0.0	58.8	0.2	7.7	21.9	2.7	7.1	0.2	1.0	0.2	100.0 ( 806)
경남	0.2	71.2	0.4	7.8	15.7	0.4	3.5	0.2	0.2	0.6	100.0 ( 538)
제주	0.0	60.1	0.0	5.8	27.5	0.7	5.1	0.7	0.0	0.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0-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로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특성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계 (명)
	불편함이 없음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고르지 못한 인도	짧은 횡단 보도 신호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글씨가 작아 노선 표시가 안보임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함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들	교통수단이 부족함	기타	
전국 <sup>1)</sup>	41.0	12.3	26.9	2.4	1.1	1.5	1.2	2.8	2.9	1.2	6.6	0.2	100.0 (10,538)
서울	38.5	4.5	38.1	3.0	1.9	4.1	1.9	2.6	2.3	1.2	1.5	0.3	100.0 ( 1,907)
부산	45.0	14.1	32.4	1.3	0.6	0.5	0.7	1.5	1.1	0.5	1.8	0.5	100.0 ( 822)
대구	42.1	11.2	30.0	3.9	1.7	1.1	0.7	2.2	2.1	2.1	2.8	0.0	100.0 ( 534)
인천	45.2	10.6	27.9	2.5	0.8	1.7	2.3	2.1	2.3	1.9	2.5	0.2	100.0 ( 480)
광주	34.1	10.0	32.6	1.8	0.7	2.5	1.1	11.5	2.9	0.4	2.5	0.0	100.0 ( 279)
대전	57.5	8.6	24.3	1.1	0.0	1.4	1.1	0.4	2.5	1.1	2.1	0.0	100.0 ( 280)
울산	57.1	19.8	9.9	2.7	0.5	0.0	0.5	0.5	3.8	0.5	4.4	0.0	100.0 ( 182)
경기	45.5	9.0	26.4	2.8	1.3	1.2	0.9	1.7	4.6	1.3	5.3	0.0	100.0 ( 2,030)
강원	42.8	12.7	21.4	3.1	1.7	0.7	1.0	2.6	1.9	1.4	10.3	0.2	100.0 ( 416)
충북	44.4	16.1	15.6	1.3	1.1	1.6	2.7	2.4	3.5	2.4	8.9	0.0	100.0 ( 372)
충남	45.5	8.6	20.8	1.2	0.5	0.0	0.7	7.0	5.8	0.7	8.8	0.3	100.0 ( 582)
전북	22.2	17.4	28.0	4.0	1.1	0.9	0.9	6.8	2.7	1.3	14.2	0.4	100.0 ( 528)
전남	29.2	21.1	24.6	1.4	0.2	0.5	0.9	2.8	2.5	0.5	16.5	0.0	100.0 ( 650)
경북	36.0	19.7	20.5	1.9	0.2	0.1	0.7	2.1	2.5	2.0	14.3	0.0	100.0 ( 806)
경남	41.8	27.1	12.5	1.7	0.6	0.2	0.7	2.0	2.4	0.2	10.8	0.0	100.0 ( 538)
제주	43.5	10.1	23.9	2.9	3.6	2.2	1.4	1.4	2.2	0.7	8.0	0.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0-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단위: %, 명)

특성	평생 한 적 없음	현재 하고있음	한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있지 않음	그만둔나이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8.4	12.2	79.4	57.7	100.0 (10,544)
서울	14.8	10.8	74.4	55.8	100.0 ( 1,907)
부산	8.9	9.1	82.0	60.9	100.0 ( 822)
대구	9.9	14.4	75.7	62.2	100.0 ( 534)
인천	8.6	8.8	82.6	59.4	100.0 ( 480)
광주	7.9	14.4	77.7	57.4	100.0 ( 279)
대전	9.6	14.2	76.2	56.4	100.0 ( 280)
울산	7.1	14.3	78.6	59.1	100.0 ( 182)
경기	10.6	15.7	73.7	60.3	100.0 ( 2,030)
강원	5.5	16.8	77.6	54.6	100.0 ( 416)
충북	5.1	14.2	80.6	53.3	100.0 ( 372)
충남	3.9	11.1	85.0	55.9	100.0 ( 582)
전북	4.4	9.1	86.5	57.7	100.0 ( 528)
전남	2.2	8.4	89.4	48.0	100.0 ( 650)
경북	3.9	11.1	85.1	53.8	100.0 ( 806)
경남	3.5	11.3	85.2	56.1	100.0 ( 538)
제주	4.3	18.0	77.7	50.4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0~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0.8	20.6	12.7	36.2	29.7	100.0 (1,288)
서울	0.0	18.8	12.1	33.8	35.3	100.0 ( 207)
부산	2.7	9.3	13.3	58.7	16.0	100.0 ( 75)
대구	1.3	22.1	7.8	20.8	48.1	100.0 ( 77)
인천	0.0	22.0	26.8	39.0	12.2	100.0 ( 41)
광주	0.0	34.1	9.8	22.0	34.1	100.0 ( 41)
대전	2.5	17.5	12.5	42.5	25.0	100.0 ( 40)
울산	0.0	20.0	24.0	36.0	20.0	100.0 ( 25)
경기	0.3	14.2	14.8	37.4	33.3	100.0 ( 318)
강원	0.0	22.9	5.7	50.0	21.4	100.0 ( 70)
충북	1.9	18.9	1.9	43.4	34.0	100.0 ( 53)
충남	3.1	21.5	13.8	35.4	26.2	100.0 ( 65)
전북	0.0	29.2	25.0	27.1	18.8	100.0 ( 48)
전남	0.0	35.8	13.2	32.1	18.9	100.0 ( 53)
경북	1.1	32.2	10.0	17.8	38.9	100.0 ( 90)
경남	0.0	24.6	11.5	45.9	18.0	100.0 ( 61)
제주	4.0	20.0	4.0	48.0	24.0	100.0 ( 25)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운전을 하지 않는 9,255명과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0-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시아확보	표지판이 잘 안보임	신호속도가 빠름	야간운전	빗길운전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25.4	4.3	4.3	52.5	12.0	1.4	100.0 (276)
서울	39.5	0.0	7.0	25.6	27.9	0.0	100.0 ( 43)
부산	33.3	0.0	0.0	44.4	0.0	22.2	100.0 ( 9) <sup>2)</sup>
대구	17.6	0.0	0.0	58.8	23.5	0.0	100.0 ( 17)
인천	10.0	30.0	0.0	40.0	20.0	0.0	100.0 ( 10)
광주	0.0	0.0	0.0	92.3	7.7	0.0	100.0 ( 13)
대전	11.1	11.1	0.0	66.7	11.1	0.0	100.0 ( 9) <sup>2)</sup>
울산	20.0	20.0	20.0	40.0	0.0	0.0	100.0 ( 5) <sup>2)</sup>
경기	10.9	4.3	2.2	71.7	10.9	0.0	100.0 ( 46)
강원	31.3	0.0	0.0	62.5	6.3	0.0	100.0 ( 16)
충북	45.5	18.2	9.1	27.3	0.0	0.0	100.0 ( 11)
충남	33.3	0.0	0.0	60.0	6.7	0.0	100.0 ( 15)
전북	21.4	7.1	7.1	57.1	7.1	0.0	100.0 ( 14)
전남	47.4	5.3	0.0	31.6	10.5	5.3	100.0 ( 19)
경북	3.6	3.6	7.1	78.6	7.1	0.0	100.0 ( 28)
경남	66.7	0.0	20.0	6.7	0.0	6.7	100.0 ( 15)
제주	16.7	0.0	0.0	66.7	16.7	0.0	100.0 ( 6) <sup>2)</sup>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운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 27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무응답 1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10-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영업 자동차 소유 여부

(단위: %, 명)

특성	차가 없다	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차 소유	다른 동거가구원 차 소유	예상하는 차 판매가 <sup>2)</sup>		계 (명)
전국 <sup>1)</sup>	69.4	12.1	18.5	753.5	100.0 (10,544)	
서울	70.4	16.9	12.7	875.7	100.0 ( 1,907)	
부산	76.3	12.8	10.9	718.3	100.0 ( 822)	
대구	69.0	21.4	9.6	780.8	100.0 ( 534)	
인천	65.5	14.2	20.3	865.3	100.0 ( 480)	
광주	70.3	23.7	6.1	662.4	100.0 ( 279)	
대전	59.1	25.6	15.3	654.9	100.0 ( 280)	
울산	64.3	22.5	13.2	809.1	100.0 ( 182)	
경기	59.2	22.9	17.9	825.5	100.0 ( 2,030)	
강원	63.0	25.0	12.0	621.0	100.0 ( 416)	
충북	68.5	20.7	10.8	722.2	100.0 ( 372)	
충남	70.3	16.2	13.5	744.6	100.0 ( 582)	
전북	74.5	18.3	7.2	585.2	100.0 ( 528)	
전남	83.9	11.5	4.6	610.3	100.0 ( 650)	
경북	78.4	15.3	6.3	496.7	100.0 ( 806)	
경남	74.3	16.5	9.3	672.8	100.0 ( 538)	
제주	66.7	25.4	8.0	560.1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3,2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42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0-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단위: %, 명)

특성	교통사고 경험없음	교통사고 낸 경험	교통사고 당한 경험	교통사고 낸 경험, 당한 경험	계 (명)
전국 <sup>1)</sup>	97.2	0.8	1.7	0.3	100.0 (10,544)
서울	96.2	0.8	2.4	0.6	100.0 ( 1,907)
부산	98.7	0.2	1.1	0.0	100.0 ( 822)
대구	96.1	1.5	1.9	0.6	100.0 ( 534)
인천	97.3	0.8	1.7	0.2	100.0 ( 480)
광주	97.1	1.4	1.1	0.4	100.0 ( 279)
대전	96.5	1.4	2.1	0.0	100.0 ( 280)
울산	96.7	0.0	2.7	0.5	100.0 ( 182)
경기	97.5	1.2	1.3	0.0	100.0 ( 2,030)
강원	97.1	1.7	1.2	0.0	100.0 ( 416)
충북	95.7	0.8	3.5	0.0	100.0 ( 372)
충남	97.4	0.3	1.7	0.5	100.0 ( 582)
전북	96.8	0.8	2.5	0.0	100.0 ( 528)
전남	98.0	0.9	0.8	0.3	100.0 ( 650)
경북	97.1	0.5	1.6	0.7	100.0 ( 806)
경남	98.7	0.0	1.3	0.0	100.0 ( 538)
제주	97.8	0.7	1.4	0.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 〈부표 시·도별 II-10-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안전사고 <sup>1)</sup> (화재, 가스, 누수 등)	범죄피해 <sup>2)</sup>				계 (명)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물건구 매	보이스피싱	
전국	4.9	1.2	0.1	1.2	0.3	100.0 (10,540)
서울	3.1	2.3	0.0	1.9	0.4	100.0 ( 1,907)
부산	2.8	1.1	0.4	0.2	0.0	100.0 ( 821)
대구	3.9	0.6	0.0	0.4	0.2	100.0 ( 533)
인천	3.3	0.0	0.0	1.0	0.4	100.0 ( 479)
광주	7.5	0.7	0.0	0.0	0.0	100.0 ( 279)
대전	5.0	1.1	0.0	0.4	0.4	100.0 ( 282)
울산	4.4	0.5	0.0	2.7	0.0	100.0 ( 182)
경기	3.7	1.0	0.1	1.8	0.5	100.0 ( 2,029)
강원	4.1	0.2	0.0	0.7	0.0	100.0 ( 416)
충북	3.5	0.8	0.0	0.3	0.3	100.0 ( 372)
충남	15.4	1.4	0.0	2.4	0.0	100.0 ( 585)
전북	4.9	1.7	0.0	1.0	1.1	100.0 ( 526)
전남	4.3	1.4	0.0	0.2	0.2	100.0 ( 651)
경북	10.3	0.7	0.2	1.0	0.4	100.0 ( 805)
경남	3.5	1.1	0.0	0.9	0.0	100.0 ( 538)
제주	0.7	0.7	0.0	0.0	0.0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0-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학대경험

(단위: %, 명)

특성	학대 유형					계 (명)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의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국 <sup>1)</sup>	0.5	9.4	1.4	1.4	2.5	100.0 (10,544)
서울	1.0	14.7	2.2	3.0	4.3	100.0 ( 1,908)
부산	0.5	41	1.5	0.9	0.9	100.0 ( 822)
대구	0.0	5.0	0.2	0.8	1.7	100.0 ( 533)
인천	0.2	15	2.1	1.0	1.9	100.0 ( 479)
광주	0.0	2.8	0.0	0.4	1.4	100.0 ( 279)
대전	0.7	44	2.5	0.7	1.1	100.0 ( 282)
울산	0.0	9.2	0.0	0.5	1.1	100.0 ( 182)
경기	0.7	16	1.7	0.9	2.4	100.0 ( 2,028)
강원	0.2	5.8	0.0	3.6	5.0	100.0 ( 416)
충북	0.5	11	0.3	1.3	2.7	100.0 ( 372)
충남	0.2	3.9	1.9	0.5	1.2	100.0 ( 583)
전북	0.2	11	2.7	1.7	3.8	100.0 ( 526)
전남	0.3	6.0	1.7	0.8	2.2	100.0 ( 652)
경북	0.1	229	0.2	0.7	1.4	100.0 ( 804)
경남	0.4	11.3	1.3	0.4	0.7	100.0 ( 540)
제주	0.7	21	0.0	3.6	7.2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시·도별 II-10-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학대 경험시 대응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노인학대경험시대응				계 (명)
	전문기관, 경찰, 주민센터등에신 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	참는다	기타	
전국 <sup>1)</sup>	40.7	22.5	36.3	0.6	100.0 (10,533)
서울	47.2	20.5	31.9	0.4	100.0 ( 1,908)
부산	35.9	20.2	43.4	0.5	100.0 ( 822)
대구	42.2	26.6	31.1	0.0	100.0 ( 533)
인천	34.0	20.9	45.1	0.0	100.0 ( 479)
광주	66.3	19.0	14.7	0.0	100.0 ( 279)
대전	47.0	24.7	27.9	0.4	100.0 ( 283)
울산	34.4	17.8	46.7	1.1	100.0 ( 180)
경기	42.7	23.7	32.7	0.9	100.0 ( 2,026)
강원	40.3	29.5	30.0	0.2	100.0 ( 417)
충북	23.7	27.5	48.2	0.5	100.0 ( 371)
충남	42.7	32.1	24.4	0.9	100.0 ( 583)
전북	41.4	18.2	39.3	1.1	100.0 ( 527)
전남	36.7	17.3	46.0	0.0	100.0 ( 648)
경북	36.3	24.5	38.9	0.2	100.0 ( 804)
경남	25.3	17.7	55.5	1.5	100.0 ( 537)
제주	46.4	15.2	34.1	4.3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2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11-10-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율

(단위: %, 명)

특성	자살 생각률 <sup>1)</sup>	자살 시도율 <sup>2)</sup>	자살생각 이유 <sup>3)</sup>							계 (명)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 (배우자 가족,친구)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	배우자 가족 건강	기타	
전국	11.2	11.1	32.6	30.8	10.2	3.6	15.8	4.2	2.8	100.0 (1,178)
서울	15.5	11.6	30.7	41.6	13.2	3.0	7.1	1.7	2.7	100.0 ( 295)
부산	7.2	23.7	28.8	39.0	6.8	3.4	20.3	0.0	1.7	100.0 ( 58)
대구	8.3	11.6	27.9	25.6	14.0	0.0	20.9	7.0	4.7	100.0 ( 42)
인천	7.3	8.6	22.9	54.3	0.0	0.0	14.3	0.0	8.6	100.0 ( 35)
광주	8.0	9.1	31.8	27.3	9.1	0.0	22.7	9.1	0.0	100.0 ( 21)
대전	11.3	15.6	58.1	22.6	3.2	6.5	9.7	0.0	0.0	100.0 ( 31)
울산	11.6	19.0	28.6	33.3	4.8	4.8	28.6	0.0	0.0	100.0 ( 20)
경기	11.8	10.5	30.1	23.4	14.6	4.6	17.6	5.0	4.6	100.0 ( 238)
강원	7.0	17.2	35.7	32.1	3.6	0.0	25.0	3.6	0.0	100.0 ( 27)
충북	11.6	18.6	25.0	22.7	13.6	2.3	27.3	6.8	2.3	100.0 ( 44)
충남	13.4	3.8	41.6	13.0	7.8	6.5	19.5	6.5	5.2	100.0 ( 78)
전북	14.3	8.0	33.8	31.2	7.8	6.5	10.4	9.1	1.3	100.0 ( 77)
전남	10.4	11.8	35.3	27.9	4.4	4.4	17.6	10.3	0.0	100.0 ( 68)
경북	11.3	5.4	39.1	26.1	6.5	2.2	21.7	4.3	0.0	100.0 ( 92)
경남	5.9	6.3	36.4	33.3	9.1	0.0	18.2	0.0	3.0	100.0 ( 32)
제주	11.6	12.5	20.0	33.3	6.7	13.3	20.0	6.7	0.0	100.0 ( 1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 7명 제외.

2) 3) 자살생각을 한 1,181명을 대상으로 무응답2명 제외

## 제11장 노인의 복지서비스 관련 인식 및 욕구

〈부표 시·도별 II-1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 실태

(단위: %, 명)

특성	인지도 <sup>1)</sup>	참여실태 <sup>2)</sup>					비신청	계(명)
		현재 참여중	참여 경험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있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전국	68.8	4.1	6.8	7.9	81.2	100.0(7,248)		
서울	66.6	5.4	6.1	13.4	75.0	100.0(1,270)		
부산	67.8	4.7	5.4	7.4	82.6	100.0( 557)		
대구	85.6	2.0	6.1	9.6	82.2	100.0( 456)		
인천	66.3	7.6	8.2	8.2	76.0	100.0( 317)		
광주	87.1	4.5	9.5	12.4	73.6	100.0( 242)		
대전	82.6	4.3	6.9	7.7	81.1	100.0( 233)		
울산	68.1	4.9	8.9	6.5	79.7	100.0( 123)		
경기	57.6	4.0	2.8	7.4	85.8	100.0(1,169)		
강원	75.5	6.1	11.2	4.5	78.3	100.0( 313)		
충북	76.6	3.5	2.8	5.3	88.4	100.0( 284)		
충남	66.3	3.9	6.2	4.9	85.1	100.0( 388)		
전북	72.4	3.4	9.7	7.6	79.2	100.0( 380)		
전남	70.8	3.3	14.3	4.3	78.1	100.0( 461)		
경북	78.9	1.4	8.0	5.4	85.2	100.0( 635)		
경남	57.6	3.5	6.5	3.5	86.5	100.0( 310)		
제주	79.0	1.8	9.1	4.5	84.5	100.0( 11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2)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2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개월, 시간, 명)

특성	참여기간 <sup>1)</sup>					계(명)	평균 주당 근로시간 <sup>2)</sup>
	7개월 이하	8~14 개월 이하	15~21개월 이하	22개월 이상	평균 (명)		
전국	52.9	27.4	9.3	10.4	11.2 (792)	100.0(791)	12.7
서울	55.1	21.8	8.2	15.0	10.9 (147)	100.0(147)	14.4
부산	55.4	23.2	7.1	14.3	11.8 ( 56)	100.0( 56)	13.5
대구	42.1	47.4	5.3	5.3	11.5 ( 38)	100.0( 38)	11.8
인천	52.0	30.0	10.0	8.0	11.4 ( 50)	100.0( 50)	14.4
광주	54.3	25.7	11.4	8.6	11.4 ( 35)	100.0( 35)	10.4
대전	46.2	30.8	7.7	15.4	13.3 ( 26)	100.0( 26)	12.1
울산	50.0	27.8	5.6	16.7	13.5 ( 18)	100.0( 17)	13.4
경기	33.8	43.8	13.8	8.8	11.8 ( 80)	100.0( 80)	13.8
강원	55.8	28.8	7.7	7.7	10.6 ( 52)	100.0( 53)	11.3
충북	50.0	27.8	16.7	5.6	10.2 ( 18)	100.0( 18)	15.3
충남	53.8	23.1	12.8	10.3	11.6 ( 39)	100.0( 39)	10.7
전북	53.1	22.4	18.4	6.1	11.7 ( 49)	100.0( 51)	11.6
전남	60.5	24.7	6.2	8.6	9.8 ( 81)	100.0( 80)	10.6
경북	66.1	22.0	6.8	5.1	9.5 ( 59)	100.0( 59)	11.9
경남	53.1	18.8	9.4	18.8	13.4 ( 32)	100.0( 31)	14.0
제주	66.7	25.0	0.0	8.3	9.4 ( 12)	100.0( 11)	12.6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4명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4명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 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계 (명)
전국 <sup>1)</sup>	81.9	2.6	7.7	1.0	6.8	100.0 (790)
서울	76.2	0.7	8.2	2.7	12.2	100.0 (147)
부산	67.3	0.0	9.1	5.5	18.2	100.0 ( 55)
대구	76.9	5.1	15.4	0.0	2.6	100.0 ( 39)
인천	84.0	0.0	10.0	0.0	6.0	100.0 ( 50)
광주	88.6	5.7	2.9	0.0	2.9	100.0 ( 35)
대전	80.8	7.7	11.5	0.0	0.0	100.0 ( 26)
울산	81.3	0.0	6.3	0.0	12.5	100.0 ( 16)
경기	81.5	6.2	3.7	0.0	8.6	100.0 ( 81)
강원	90.9	0.0	5.5	0.0	3.6	100.0 ( 55)
충북	88.9	0.0	5.6	0.0	5.6	100.0 ( 18)
충남	76.3	5.3	15.8	2.6	0.0	100.0 ( 38)
전북	88.2	2.0	3.9	0.0	5.9	100.0 ( 51)
전남	86.3	2.5	11.3	0.0	0.0	100.0 ( 80)
경북	88.3	1.7	3.3	0.0	6.7	100.0 ( 60)
경남	81.3	9.4	3.1	0.0	6.3	100.0 ( 32)
제주	90.9	0.0	9.1	0.0	0.0	100.0 ( 1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4명중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국 <sup>1)</sup>	12.9	61.9	15.5	9.0	0.6	100.0 (791)
서울	15.1	54.8	17.1	13.0	0.0	100.0 (146)
부산	3.6	60.0	20.0	16.4	0.0	100.0 ( 55)
대구	21.1	47.4	21.1	5.3	5.3	100.0 ( 38)
인천	10.0	68.0	18.0	4.0	0.0	100.0 ( 50)
광주	5.9	85.3	2.9	5.9	0.0	100.0 ( 34)
대전	7.7	80.8	3.8	7.7	0.0	100.0 ( 26)
울산	11.1	72.2	11.1	5.6	0.0	100.0 ( 18)
경기	13.8	56.3	23.8	6.3	0.0	100.0 ( 80)
강원	13.0	61.1	16.7	9.3	0.0	100.0 ( 54)
충북	27.8	38.9	16.7	11.1	5.6	100.0 ( 18)
충남	7.7	69.2	15.4	7.7	0.0	100.0 ( 39)
전북	11.8	60.8	9.8	13.7	3.9	100.0 ( 51)
전남	16.3	65.0	10.0	8.8	0.0	100.0 ( 80)
경북	18.6	64.4	10.2	6.8	0.0	100.0 ( 59)
경남	6.3	65.6	25.0	3.1	0.0	100.0 ( 32)
제주	9.1	72.7	18.2	0.0	0.0	100.0 ( 11)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794명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5〉 노인의 지역·성별 시도별 사업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특성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계 (명)
	선정조검 미부합	참여필요 성 느끼지 못함	참여방 법 모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보수가 너무 적어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기타	
전국 <sup>1)</sup>	14.7	39.5	2.5	25.6	0.7	1.9	4.2	2.6	6.4	1.8	0.1	100.0 (5,816)
서울	16.2	34.5	3.0	26.4	0.0	1.6	7.0	2.8	6.9	1.5	0.0	100.0 ( 954)
부산	11.1	38.6	1.2	35.1	0.7	3.5	2.3	2.5	2.5	2.5	0.0	100.0 ( 433)
대구	20.9	43.6	3.2	20.6	0.0	1.6	4.0	2.9	2.1	1.1	0.0	100.0 ( 374)
인천	7.5	39.2	0.8	32.1	0.0	2.5	4.6	2.9	9.2	1.3	0.0	100.0 ( 240)
광주	17.6	42.0	3.4	22.2	0.0	5.1	2.3	2.8	4.0	0.6	0.0	100.0 ( 176)
대전	17.6	43.9	1.1	26.7	0.5	1.1	1.1	1.6	4.8	1.6	0.0	100.0 ( 187)
울산	18.1	35.1	3.2	27.7	0.0	2.1	4.3	3.2	3.2	3.2	0.0	100.0 ( 94)
경기	10.7	40.1	3.2	24.7	0.3	2.7	6.3	2.1	7.0	2.4	0.4	100.0 ( 995)
강원	16.3	37.0	2.4	21.5	1.6	3.3	5.3	5.3	5.3	2.0	0.0	100.0 ( 246)
충북	4.4	63.6	2.4	18.4	0.4	0.0	3.2	4.0	2.8	0.8	0.0	100.0 ( 250)
충남	24.3	35.5	1.2	17.4	0.9	1.2	4.4	3.1	10.6	1.2	0.0	100.0 ( 321)
전북	13.6	29.8	3.6	31.5	3.0	1.0	4.3	2.0	8.3	2.6	0.3	100.0 ( 301)
전남	12.3	31.6	3.4	29.1	2.5	1.7	1.4	2.0	14.5	1.7	0.0	100.0 ( 358)
경북	15.2	45.2	1.9	24.6	1.1	0.6	2.0	2.8	4.6	2.0	0.0	100.0 ( 540)
경남	17.6	41.0	2.0	28.1	1.2	1.6	0.8	1.2	5.9	0.8	0.0	100.0 ( 255)
제주	28.3	46.7	2.2	15.2	0.0	0.0	2.2	1.1	3.3	1.1	0.0	100.0 ( 92)

주: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않은 5,88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72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욕구

(단위: %, 명)

특성	향후 참여욕구 <sup>1)</sup>	희망 일자리사업 유형 <sup>2)</sup>					계 (명)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전국	18.0	77.8	4.7	10.2	1.4	5.9	100.0 (1,894)
서울	28.8	65.3	6.9	15.9	3.5	8.4	100.0 ( 548)
부산	15.5	78.7	3.9	6.3	0.0	11.0	100.0 ( 127)
대구	15.6	85.7	0.0	14.3	0.0	0.0	100.0 ( 84)
인천	20.5	78.1	6.3	11.5	0.0	4.2	100.0 ( 96)
광주	30.1	85.5	4.8	4.8	0.0	4.8	100.0 ( 83)
대전	18.4	84.6	5.8	7.7	0.0	1.9	100.0 ( 52)
울산	17.6	80.6	3.2	3.2	0.0	12.9	100.0 ( 31)
경기	14.6	77.4	4.1	11.1	0.0	7.4	100.0 ( 296)
강원	17.1	91.5	1.4	5.6	0.0	1.4	100.0 ( 71)
충북	9.7	88.6	0.0	11.4	0.0	0.0	100.0 ( 35)
충남	12.5	83.1	5.6	7.0	1.4	2.8	100.0 ( 71)
전북	18.6	83.7	4.1	6.1	2.0	4.1	100.0 ( 98)
전남	20.1	88.5	4.6	6.1	0.0	0.8	100.0 ( 131)
경북	11.8	89.4	2.1	4.3	0.0	4.3	100.0 ( 94)
경남	10.2	76.4	5.5	3.6	7.3	7.3	100.0 ( 55)
제주	16.7	91.3	4.3	4.3	0.0	0.0	100.0 ( 23)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2) 향후 참여욕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무응답9 제외

## 〈부표 시·도별 II-11-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단위: %)

특성	인지도 <sup>1)</sup>	활용의사 <sup>2)</sup>					계 (명)
		활용중	향후 의사 있음	활용의사 없음	생각한적 없음	활용할 주택 없음	
전국	52.4	0.2	5.7	31.4	30.3	32.4	100.0 (10,521)
서울	61.9	0.4	9.5	32.4	21.2	36.4	100.0 ( 1,906)
부산	47.3	0.0	4.8	23.3	39.9	32.1	100.0 ( 820)
대구	62.2	0.2	3.0	43.2	20.1	33.6	100.0 ( 533)
인천	52.1	0.4	4.4	23.1	34.9	37.2	100.0 ( 476)
광주	59.5	0.0	6.8	27.7	38.8	26.6	100.0 ( 278)
대전	64.2	0.0	2.9	31.8	38.9	26.4	100.0 ( 280)
울산	46.2	0.0	1.7	30.9	32.6	34.8	100.0 ( 181)
경기	55.5	0.7	8.1	25.6	28.4	37.2	100.0 ( 2,022)
강원	50.5	0.0	2.6	37.5	26.2	33.7	100.0 ( 416)
충북	54.0	0.0	2.2	35.6	30.7	31.5	100.0 ( 371)
충남	43.5	0.0	5.3	30.9	39.0	24.7	100.0 ( 582)
전북	42.8	0.0	5.1	42.1	28.2	24.6	100.0 ( 525)
전남	39.3	0.0	3.5	37.9	36.5	22.1	100.0 ( 652)
경북	45.8	0.0	3.5	38.8	25.3	32.5	100.0 ( 800)
경남	43.8	0.0	1.7	25.3	44.8	28.3	100.0 ( 538)
제주	47.8	0.0	5.1	25.4	36.2	33.3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23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녀상속	자녀반대	제도 잘모름	제도 불신	크게 도움 안됨	소득충분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37.3	1.9	3.4	4.0	35.6	17.4	0.4	100.0 (3,295)
서울	30.8	1.8	4.5	5.7	30.3	26.1	0.8	100.0 ( 617)
부산	25.1	1.0	5.8	3.1	46.6	16.8	1.6	100.0 ( 191)
대구	31.6	1.3	4.4	3.5	46.5	12.3	0.4	100.0 ( 228)
인천	47.3	5.5	3.6	4.5	30.0	9.1	0.0	100.0 ( 110)
광주	16.9	2.6	5.2	5.2	50.6	18.2	1.3	100.0 ( 77)
대전	28.7	2.3	0.0	0.0	39.1	29.9	0.0	100.0 ( 87)
울산	31.5	0.0	3.7	7.4	37.0	20.4	0.0	100.0 ( 54)
경기	37.5	3.1	2.3	5.4	31.1	20.3	0.4	100.0 ( 518)
강원	34.4	1.9	3.9	5.8	37.7	16.2	0.0	100.0 ( 154)
충북	42.7	0.0	3.1	2.3	35.9	16.0	0.0	100.0 ( 131)
충남	51.1	0.6	3.9	3.9	23.6	16.9	0.0	100.0 ( 178)
전북	41.0	1.4	4.1	2.3	38.7	12.6	0.0	100.0 ( 222)
전남	44.1	2.9	4.1	1.2	40.0	7.8	0.0	100.0 ( 245)
경북	45.3	1.3	1.3	3.9	35.9	12.3	0.0	100.0 ( 309)
경남	49.3	0.7	1.5	2.2	33.6	11.9	0.7	100.0 ( 134)
제주	29.4	0.0	0.0	2.9	44.1	23.5	0.0	100.0 ( 34)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중 주택이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3,308명중 무응답 13명 제외.



〈부표 시·도별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농지연금 인지도 및 활용 의사

(단위: %, 명)

특성	인지도 <sup>1)</sup>	활용의사 <sup>2)</sup>					계 (명)
		활용중	향후 의사 있음	활용의사 없음	생각한적 없음	활용할 농지 없음	
전국	41.0	0.1	1.4	11.1	10.1	77.3	100.0 (10,527)
서울	39.0	0.1	0.3	1.4	2.7	95.5	100.0 ( 1,908)
부산	38.6	0.0	0.6	1.5	2.9	95.0	100.0 ( 822)
대구	48.4	0.0	0.2	6.2	1.9	91.7	100.0 ( 532)
인천	31.5	0.0	1.3	2.9	7.4	88.4	100.0 ( 476)
광주	53.2	0.0	2.5	7.5	11.5	78.5	100.0 ( 279)
대전	59.2	0.0	0.7	5.0	7.8	86.5	100.0 ( 281)
울산	37.9	0.0	0.6	7.7	7.2	84.5	100.0 ( 181)
경기	39.5	0.0	1.5	6.4	7.0	85.0	100.0 ( 2,021)
강원	37.5	0.0	1.2	17.8	9.9	71.2	100.0 ( 416)
충북	52.7	0.0	2.7	26.1	11.0	60.2	100.0 ( 372)
충남	40.9	0.5	1.9	22.5	28.3	46.8	100.0 ( 583)
전북	41.3	0.2	2.9	25.7	13.5	57.8	100.0 ( 526)
전남	37.2	0.2	3.1	22.7	22.6	51.5	100.0 ( 651)
경북	43.3	0.1	2.2	27.1	14.2	56.3	100.0 ( 803)
경남	38.2	0.0	0.9	14.4	23.3	61.3	100.0 ( 540)
제주	47.1	0.0	2.2	18.8	18.1	60.9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4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농지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녀상속	자녀반대	제도 잘모름	제도 불신	크게 도움 안됨	소득충분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47.0	1.2	3.3	2.8	28.9	16.6	0.3	100.0 (1,170)
서울	19.2	7.7	11.5	0.0	15.4	46.2	0.0	100.0 ( 26)
부산	18.2	0.0	0.0	0.0	45.5	36.4	0.0	100.0 ( 11)
대구	54.5	0.0	3.0	9.1	9.1	18.2	6.1	100.0 ( 33)
인천	50.0	0.0	7.1	0.0	35.7	7.1	0.0	100.0 ( 14)
광주	10.0	0.0	5.0	5.0	50.0	30.0	0.0	100.0 ( 20)
대전	35.7	0.0	0.0	0.0	14.3	50.0	0.0	100.0 ( 14)
울산	40.0	0.0	6.7	6.7	13.3	33.3	0.0	100.0 ( 15)
경기	55.3	3.8	0.8	3.8	21.2	15.2	0.0	100.0 ( 132)
강원	43.8	4.1	5.5	2.7	27.4	15.1	1.4	100.0 ( 73)
충북	48.5	0.0	1.0	0.0	36.1	14.4	0.0	100.0 ( 97)
충남	51.9	0.8	6.1	3.1	18.3	19.8	0.0	100.0 ( 131)
전북	43.7	0.0	3.0	3.7	32.6	17.0	0.0	100.0 ( 135)
전남	45.9	0.7	6.1	1.4	36.5	9.5	0.0	100.0 ( 148)
경북	48.6	0.5	1.8	3.2	33.0	12.8	0.0	100.0 ( 218)
경남	55.7	1.3	1.3	2.5	25.3	13.9	0.0	100.0 ( 79)
제주	32.0	0.0	0.0	4.0	40.0	24.0	0.0	100.0 ( 25)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중 농지가 있지만 농지연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1,177명중 무응답자 6명 제외.

## 〈부표 시·도별 II-11-14〉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실태

(단위: %, 일, 명)

특성	현재 이용률 <sup>1)</sup>	향후(계속) 이용률 <sup>2)</sup>	1주간 평균 이용주 <sup>3)</sup>	이용만족도 <sup>4)</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전국 <sup>1)</sup>	34.1	47.8	3.8	10.4	63.5	22.6	3.1	0.4	100.0 (3,600)
서울	10.6	26.7	4.3	26.1	44.3	22.2	6.4	1.0	100.0 ( 203)
부산	15.7	33.9	3.4	13.8	53.8	30.0	2.3	0.0	100.0 ( 130)
대구	22.9	32.3	4.1	9.8	64.2	25.2	0.8	0.0	100.0 ( 123)
인천	25.3	37.2	3.8	9.1	62.8	23.1	4.1	0.8	100.0 ( 121)
광주	22.7	50.0	4.3	1.6	77.8	17.5	3.2	0.0	100.0 ( 63)
대전	29.1	40.4	4.0	3.7	81.7	14.6	0.0	0.0	100.0 ( 82)
울산	32.4	51.6	4.6	3.4	62.1	24.1	8.6	1.7	100.0 ( 58)
경기	29.5	42.9	3.7	13.9	59.4	24.0	1.7	1.0	100.0 ( 599)
강원	47.6	60.0	3.6	5.6	74.7	17.7	2.0	0.0	100.0 ( 198)
충북	58.6	69.6	4.9	19.3	66.1	11.5	3.2	0.0	100.0 ( 218)
충남	58.3	65.2	3.8	3.5	68.8	24.1	3.5	0.0	100.0 ( 340)
전북	48.1	66.5	3.7	7.1	74.0	15.0	3.5	0.4	100.0 ( 254)
전남	58.4	71.3	3.3	6.6	72.6	20.0	0.3	0.5	100.0 ( 380)
경북	62.2	69.5	3.9	13.6	56.4	26.4	3.6	0.0	100.0 ( 500)
경남	50.6	61.5	3.8	4.7	55.1	33.6	6.6	0.0	100.0 ( 274)
제주	42.8	67.2	2.8	5.0	70.0	20.0	5.0	0.0	100.0 ( 6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4명을 제외함.  
 3)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3,601명을 대상으로 함.  
 4)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3,601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15〉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일자리사 업 참여	건강 관리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3.6	0.8	0.7	1.2	3.7	89.8	0.3	100.0 (3,601)
서울	4.0	3.0	4.5	1.5	8.9	77.2	1.0	202 ( 202)
부산	8.5	0.0	2.3	0.0	3.1	86.0	0.0	129 ( 129)
대구	0.8	0.8	0.0	4.1	3.3	91.0	0.0	122 ( 122)
인천	4.1	2.5	1.6	0.0	2.5	88.5	0.8	122 ( 122)
광주	0.0	1.6	0.0	0.0	4.8	93.5	0.0	62 ( 62)
대전	1.3	2.5	2.5	0.0	8.8	85.0	0.0	80 ( 80)
울산	3.4	0.0	0.0	0.0	3.4	93.1	0.0	58 ( 58)
경기	5.2	1.2	0.7	2.7	5.9	84.3	0.2	598 ( 598)
강원	3.0	1.0	1.0	2.0	4.0	88.9	0.0	198 ( 198)
충북	1.4	0.0	0.0	0.5	1.8	96.3	0.0	217 ( 217)
충남	4.1	0.3	0.3	0.3	1.2	93.8	0.0	341 ( 341)
전북	2.8	0.0	0.4	0.4	3.9	92.1	0.4	254 ( 254)
전남	1.0	0.3	0.0	0.3	0.8	97.1	0.5	381 ( 381)
경북	3.8	0.0	0.0	0.2	2.4	93.2	0.4	500 ( 500)
경남	3.3	0.7	0.0	1.1	2.9	91.9	0.0	273 ( 273)
제주	13.6	1.7	0.0	13.6	11.9	59.3	0.0	59 ( 59)

주: 1)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3601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16〉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프로그램	거리 교통 편리	비슷한 노인 만남	적은 경제적 부담	익미 있는 시간	계 (명)
전국 <sup>1)</sup>	4.3	1.8	9.0	74.4	1.6	8.9	100.0 (2,656)
서울	7.7	2.8	12.6	58.7	2.8	15.4	100.0 ( 143)
부산	15.9	3.4	5.7	63.6	3.4	8.0	100.0 ( 88)
대구	6.7	1.1	12.2	74.4	0.0	5.6	100.0 ( 90)
인천	1.1	1.1	12.6	74.7	1.1	9.2	100.0 ( 87)
광주	10.2	0.0	0.0	77.6	0.0	12.2	100.0 ( 49)
대전	0.0	2.9	5.7	75.7	2.9	12.9	100.0 ( 70)
울산	2.6	2.6	7.7	66.7	2.6	17.9	100.0 ( 39)
경기	3.4	1.8	14.6	69.2	1.1	9.8	100.0 ( 438)
강원	5.7	1.9	18.2	68.6	1.9	3.8	100.0 ( 159)
충북	4.3	0.0	17.1	71.7	3.7	3.2	100.0 ( 187)
충남	0.8	4.1	4.6	71.4	1.2	17.8	100.0 ( 241)
전북	2.4	1.0	5.8	83.5	1.5	5.8	100.0 ( 206)
전남	5.0	0.0	0.3	86.7	0.7	7.3	100.0 ( 300)
경북	2.9	1.7	9.1	76.6	1.7	8.0	100.0 ( 350)
경남	5.5	0.6	3.1	84.7	0.6	5.5	100.0 ( 163)
제주	9.1	13.6	2.3	65.9	2.3	6.8	100.0 ( 44)

주: 1)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2,663명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17〉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단위: %)

특성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않음	경제적 부담 및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3.3	8.3	9.2	65.8	3.3	100.0 (123)
서울	28.6	0.0	0.0	64.3	7.1	100.0 ( 14)
부산	0.0	0.0	0.0	100.0	0.0	100.0 ( 3) <sup>2)</sup>
대구	0.0	0.0	0.0	100.0	0.0	100.0 ( 1) <sup>2)</sup>
인천	0.0	16.7	0.0	66.7	16.7	100.0 ( 6) <sup>2)</sup>
광주	0.0	0.0	0.0	0.0	100.0	100.0 ( 1) <sup>2)</sup>
대전	-	-	-	-	-	100.0 -
울산	0.0	0.0	33.3	66.7	0.0	100.0 ( 6) <sup>2)</sup>
경기	0.0	31.3	18.8	43.8	6.3	100.0 ( 16)
강원	0.0	0.0	0.0	100.0	0.0	100.0 ( 4) <sup>2)</sup>
충북	50.0	16.7	33.3	0.0	0.0	100.0 ( 6) <sup>2)</sup>
충남	15.4	7.7	23.1	53.8	0.0	100.0 ( 13)
전북	11.1	22.2	0.0	66.7	0.0	100.0 ( 9) <sup>2)</sup>
전남	0.0	0.0	0.0	100.0	0.0	100.0 ( 3) <sup>2)</sup>
경북	21.1	0.0	5.3	73.7	0.0	100.0 ( 19)
경남	11.8	0.0	0.0	88.2	0.0	100.0 ( 17)
제주	0.0	0.0	0.0	100.0	0.0	100.0 ( 2) <sup>2)</sup>

주: 1)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124명을 대상으로 무응답 1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II-11-18〉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미비	표로 그 표 없음	거리 불편	이용 노 인 및 가족 이용 불편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몸 불편	연령 기준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9	2.7	3.2	34.6	3.5	17.6	16.6	19.5	0.5	100.0 (6,927)
서울	2.3	4.8	1.6	31.7	4.1	20.8	14.8	19.3	0.6	100.0 (1,704)
부산	1.0	0.7	1.4	34.0	6.5	16.2	18.8	20.5	0.9	100.0 ( 692)
대구	1.5	3.7	2.0	36.3	5.9	13.4	12.0	25.4	0.0	100.0 ( 410)
인천	1.4	1.1	1.4	35.8	4.2	19.0	21.2	15.9	0.0	100.0 ( 358)
광주	2.3	5.6	3.7	40.5	3.3	16.7	11.6	16.3	0.0	100.0 ( 215)
대전	3.5	2.0	3.0	40.0	2.5	19.0	15.5	14.5	0.0	100.0 ( 200)
울산	0.8	0.0	3.3	35.2	3.3	11.5	12.3	31.1	2.5	100.0 ( 122)
경기	0.7	2.3	4.0	36.3	2.5	17.2	14.1	22.4	0.5	100.0 (1,421)
강원	3.2	1.8	2.3	39.4	2.3	13.8	20.2	17.0	0.0	100.0 ( 218)
충북	0.7	4.6	3.9	40.5	0.0	11.8	20.9	17.6	0.0	100.0 ( 153)
충남	1.2	1.6	7.8	25.8	1.6	25.4	20.1	15.6	0.8	100.0 ( 244)
전북	1.5	1.8	6.6	37.1	2.6	15.4	18.4	16.2	0.4	100.0 ( 272)
전남	3.0	1.5	9.6	30.7	2.6	20.4	19.6	12.2	0.4	100.0 ( 270)
경북	5.3	1.3	3.6	34.3	2.6	13.5	23.8	15.5	0.0	100.0 ( 303)
경남	4.9	0.4	3.4	37.7	3.0	12.8	21.1	15.5	1.1	100.0 ( 265)
제주	0.0	2.5	2.5	21.5	1.3	19.0	17.7	34.2	1.3	100.0 ( 79)

주: 1)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6,943명중 무응답 16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19〉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일, 명)

특성	현재 이용률 <sup>1)</sup>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sup>2)</sup>	1주간 평균 이용 일수 <sup>3)</sup>	이용만족도 <sup>4)</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전국 <sup>1)</sup>	8.8	24.4	2.5	18.9	63.7	14.6	2.3	0.5	100.0 (926)
서울	11.5	31.9	2.9	22.3	52.7	20.9	2.7	1.4	100.0 (220)
부산	9.1	27.7	2.4	18.7	53.3	25.3	2.7	0.0	100.0 ( 75)
대구	5.8	16.9	3.1	16.1	74.2	6.5	3.2	0.0	100.0 ( 31)
인천	7.7	21.9	2.3	16.2	62.2	18.9	2.7	0.0	100.0 ( 37)
광주	13.3	43.9	2.8	10.8	75.7	13.5	0.0	0.0	100.0 ( 37)
대전	10.6	24.5	3.0	12.9	80.6	6.5	0.0	0.0	100.0 ( 31)
울산	12.6	34.1	3.0	13.6	81.8	4.5	0.0	0.0	100.0 ( 22)
경기	9.4	23.2	2.8	24.9	62.4	10.1	2.6	0.0	100.0 (189)
강원	5.5	17.5	2.6	4.3	82.6	4.3	8.7	0.0	100.0 ( 23)
충북	9.1	32.0	2.3	24.2	75.8	0.0	0.0	0.0	100.0 ( 33)
충남	8.5	17.5	1.8	10.0	62.0	24.0	4.0	0.0	100.0 ( 50)
전북	10.8	32.1	1.7	10.2	69.5	18.6	1.7	0.0	100.0 ( 59)
전남	8.0	21.8	1.7	19.2	69.2	7.7	0.0	3.8	100.0 ( 52)
경북	4.6	12.2	1.9	27.0	64.9	8.1	0.0	0.0	100.0 ( 37)
경남	4.3	14.5	2.7	8.7	78.3	8.7	4.3	0.0	100.0 ( 23)
제주	5.1	24.1	1.9	14.3	71.4	14.3	0.0	0.0	100.0 ( 7) <sup>5)</sup>

주: 1) 이용률: 이용 여부는 비해당. 무응답 없음. 본인응답자 1,0544명 대상임.

2) 계속 이용희망률: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3) 평균 이용 일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27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4) 이용 만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27명중 무응답 1명 제외함.

5)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11-20〉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이유

(단위: %, 명)

특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 활용	일자리사업 참여	건강 관리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58.0	2.6	1.8	5.3	12.9	16.8	2.6	100.0 (925)
서울	58.2	5.0	1.4	2.7	18.2	11.4	3.2	100.0 (220)
부산	58.7	0.0	2.7	9.3	13.3	13.3	2.7	100.0 ( 75)
대구	77.4	3.2	3.2	0.0	6.5	9.7	0.0	100.0 ( 31)
인천	64.9	5.4	5.4	5.4	8.1	8.1	2.7	100.0 ( 37)
광주	45.9	2.7	5.4	8.1	16.2	8.1	13.5	100.0 ( 37)
대전	70.0	3.3	3.3	0.0	10.0	13.3	0.0	100.0 ( 30)
울산	63.6	0.0	0.0	4.5	13.6	18.2	0.0	100.0 ( 22)
경기	57.7	2.6	2.6	6.9	11.6	18.5	0.0	100.0 (189)
강원	72.7	0.0	0.0	0.0	9.1	18.2	0.0	100.0 ( 22)
충북	80.0	0.0	0.0	2.9	11.4	5.7	0.0	100.0 ( 35)
충남	59.2	0.0	0.0	4.1	4.1	32.7	0.0	100.0 ( 49)
전북	47.4	1.8	0.0	8.8	17.5	24.6	0.0	100.0 ( 57)
전남	44.2	3.8	0.0	3.8	11.5	26.9	9.6	100.0 ( 52)
경북	45.9	0.0	0.0	13.5	8.1	27.0	5.4	100.0 ( 37)
경남	43.5	0.0	4.3	4.3	8.7	30.4	8.7	100.0 ( 23)
제주	57.1	0.0	0.0	14.3	14.3	14.3	0.0	100.0 ( 7) <sup>2)</sup>

주: 1)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27명을 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11-21〉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프로그램	거리 불편	비슷한 노인 만남	적은 경제적 부담	의미 있는 시간	계 (명)
전국 <sup>1)</sup>	9.7	38.8	2.6	14.5	12.1	22.2	100.0 (758)
서울	3.0	41.0	4.2	12.0	16.9	22.9	100.0 (166)
부산	5.8	38.5	5.8	23.1	15.4	11.5	100.0 ( 52)
대구	3.4	31.0	0.0	20.7	13.8	31.0	100.0 ( 29)
인천	6.9	31.0	0.0	27.6	6.9	27.6	100.0 ( 29)
광주	15.6	46.9	3.1	9.4	18.8	6.3	100.0 ( 32)
대전	3.6	57.1	0.0	14.3	7.1	17.9	100.0 ( 28)
울산	13.6	36.4	0.0	9.1	13.6	27.3	100.0 ( 22)
경기	12.7	29.1	1.8	12.7	13.3	30.3	100.0 (163)
강원	10.0	45.0	5.0	15.0	5.0	20.0	100.0 ( 20)
충북	6.1	66.7	3.0	6.1	0.0	18.2	100.0 ( 33)
충남	14.7	44.1	2.9	17.6	2.9	17.6	100.0 ( 34)
전북	15.2	34.8	2.2	19.6	4.3	23.9	100.0 ( 46)
전남	8.9	33.3	0.0	15.6	17.8	24.4	100.0 ( 45)
경북	26.5	44.1	2.9	5.9	8.8	11.8	100.0 ( 34)
경남	21.1	31.6	5.3	21.1	10.5	10.5	100.0 ( 19)
제주	0.0	66.7	0.0	16.7	0.0	16.7	100.0 ( 6) <sup>2)</sup>

주: 1)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767명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II-11-a〉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및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4.3	7.1	14.3	57.1	7.1	100.0 ( 26)
서울	0.0	0.0	12.5	87.5	0.0	100.0 ( 8) <sup>2)</sup>
부산	0.0	0.0	20.0	40.0	40.0	100.0 ( 2) <sup>2)</sup>
대구	100.0	0.0	0.0	0.0	0.0	100.0 ( 1) <sup>2)</sup>
인천	0.0	0.0	0.0	100.0	0.0	100.0 ( 1) <sup>2)</sup>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경기	40.0	0.0	0.0	60.0	0.0	100.0 ( 5) <sup>2)</sup>
강원	0.0	0.0	0.0	100.0	0.0	100.0 ( 2) <sup>2)</sup>
충북	-	-	-	-	-	--
충남	0.0	50.0	0.0	50.0	0.0	100.0 ( 2) <sup>2)</sup>
전북	0.0	100.0	0.0	0.0	0.0	100.0 ( 1) <sup>2)</sup>
전남	50.0	0.0	50.0	0.0	0.0	100.0 ( 2) <sup>2)</sup>
경북	-	-	-	-	-	--
경남	0.0	0.0	100.0	0.0	0.0	100.0 ( 1) <sup>2)</sup>
제주	-	-	-	-	-	--

주: 1)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22명을 대상으로함. 무응답 없음.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시·도별 II-11-22〉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 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몸 불편	연령기 준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3	3.1	31.0	18.7	4.0	16.5	15.5	9.4	0.5	100.0 (9,600)
서울	0.8	0.8	5.9	8.9	24.2	5.3	23.2	16.3	15.1	0.4 (1,679)
부산	0.4	0.4	1.6	17.5	21.6	8.5	18.1	21.0	9.9	1.3 ( 744)
대구	0.6	0.6	6.0	25.0	23.8	5.8	13.4	14.4	11.0	0.2 ( 501)
인천	0.7	0.7	1.6	20.0	21.3	6.8	20.6	18.8	10.2	0.0 ( 441)
광주	0.4	0.8	7.5	19.1	24.5	5.0	16.6	15.8	10.8	0.0 ( 241)
대전	2.0	2.0	3.2	22.7	28.3	1.6	18.3	13.9	10.0	0.0 ( 251)
울산	0.0	1.3	2.5	26.4	15.7	5.7	20.8	14.5	10.7	2.5 ( 159)
경기	0.4	0.4	2.7	29.2	22.4	3.0	16.1	13.8	11.9	0.4 (1,837)
강원	0.3	0.3	3.3	43.5	15.8	4.3	11.2	12.7	8.9	0.0 ( 393)
충북	0.6	0.6	3.8	52.1	12.7	0.9	10.7	13.6	5.3	0.3 ( 339)
충남	0.2	0.2	1.7	52.6	12.6	0.8	16.0	14.1	1.9	0.2 ( 532)
전북	0.0	0.2	1.7	50.0	12.4	3.0	13.0	14.5	4.5	0.6 ( 468)
전남	0.2	0.2	1.8	47.3	10.0	3.2	17.6	15.6	3.8	0.5 ( 599)
경북	0.1	10.0	1.3	49.3	9.4	2.2	9.2	13.5	3.8	1.2 ( 768)
경남	0.4	0.6	0.8	46.9	12.5	2.3	12.5	17.6	5.6	1.2 ( 517)
제주	0.8	0.8	3.1	25.2	16.0	2.3	16.8	17.6	18.3	0.0 ( 131)

주: 1)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9,617명중 무응답 19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23〉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율, 신청률 및 등급

(단위: %, 명)

특성	인지율 <sup>1)</sup>	등급 신청률 <sup>2)</sup>	전체 (명)	등급 <sup>3)</sup>				계 신청자(명)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전국	62.8	4.2	10,539	4.8	15.9	62.6	16.7	100.0 (271)
서울	66.0	3.6	1,908	4.4	8.9	68.9	17.8	100.0 ( 45)
부산	63.0	5.0	822	3.8	15.4	73.1	7.7	100.0 ( 26)
대구	82.5	2.1	532	0.0	40.0	60.0	0.0	100.0 ( 10)
인천	53.6	7.0	478	11.8	23.5	52.9	11.8	100.0 ( 17)
광주	83.5	4.7	278	0.0	0.0	66.7	33.3	100.0 ( 9) <sup>4)</sup>
대전	71.3	5.5	282	18.2	9.1	45.5	27.3	100.0 ( 11)
울산	56.9	2.9	181	0.0	33.3	33.3	33.3	100.0 ( 3) <sup>4)</sup>
경기	53.5	4.5	2,028	8.7	17.4	54.3	19.5	100.0 ( 47)
강원	54.8	4.8	416	0.0	36.4	36.4	27.3	100.0 ( 11)
충북	73.4	3.3	372	10.0	20.0	60.0	10.0	100.0 ( 10)
충남	58.0	3.8	583	0.0	16.7	83.3	0.0	100.0 ( 12)
전북	53.8	6.7	526	5.6	16.7	77.8	0.0	100.0 ( 18)
전남	53.2	2.6	652	0.0	25.0	62.5	12.5	100.0 ( 8) <sup>4)</sup>
경북	83.6	4.0	804	0.0	11.5	65.4	23.1	100.0 ( 26)
경남	57.0	5.5	539	0.0	6.3	56.3	37.5	100.0 ( 16)
제주	54.3	4.0	138	0.0	0.0	100.0	0.0	100.0 ( 2) <sup>4)</sup>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자 6,617명을 대상으로함. 무응답 없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 280명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함.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11-b〉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경험률 <sup>1)</sup>		서비스 이용률 <sup>2)</sup>				계 (명)
	전체 노인중	등급 신청자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보장구 대여	
전국	2.2	84.6	91.9	35.4	23.4	26.7	100.0 (234)
서울	1.9	78.3	100.0	16.7	8.3	16.7	100.0 ( 36)
부산	2.9	92.3	75.0	25.0	12.5	41.7	100.0 ( 24)
대구	1.7	90.0	87.5	33.3	25.0	44.4	100.0 ( 9) <sup>4)</sup>
인천	3.5	94.4	94.1	41.2	41.2	12.5	100.0 ( 16)
광주	2.9	72.7	100.0	50.0	25.0	0.0	100.0 ( 7) <sup>4)</sup>
대전	3.2	81.8	100.0	11.1	0.0	25.0	100.0 ( 8) <sup>4)</sup>
울산	1.1	66.7	100.0	50.0	50.0	0.0	100.0 ( 2) <sup>4)</sup>
경기	1.8	75.5	91.9	27.0	25.0	19.4	100.0 ( 36)
강원	1.9	72.7	75.0	87.5	66.7	12.5	100.0 ( 8) <sup>4)</sup>
충북	2.2	88.9	66.7	25.0	25.0	50.0	100.0 ( 8) <sup>4)</sup>
충남	2.2	100.0	92.3	61.5	8.3	38.5	100.0 ( 13)
전북	3.4	100.0	100.0	50.0	38.9	44.4	100.0 ( 18)
전남	1.2	88.9	100.0	42.9	42.9	62.5	100.0 ( 8) <sup>4)</sup>
경북	3.0	92.3	100.0	40.0	16.0	24.0	100.0 ( 25)
경남	2.4	76.5	91.7	38.5	30.8	16.7	100.0 ( 12)
제주	2.2	100.0	66.7	66.7	33.3	0.0	100.0 ( 2) <sup>4)</sup>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 279명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만 분석하였음. 요양시설이용자 3명, 주야간보호 이용자 8명, 단기보호 이용자 1명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경험자 234명을 대상으로함 무응답 없음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11-c〉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sup>1)</sup>	15.6	64.6	10.5	8.9	0.4	100.0 (235)
서울	8.3	69.4	8.3	13.9	0.0	100.0 ( 36)
부산	0.0	79.2	12.5	8.3	0.0	100.0 ( 24)
대구	22.2	44.4	22.2	11.1	0.0	100.0 ( 9) <sup>2)</sup>
인천	0.0	76.5	23.5	0.0	0.0	100.0 ( 16)
광주	12.5	87.5	0.0	0.0	0.0	100.0 ( 8) <sup>2)</sup>
대전	25.0	75.0	0.0	0.0	0.0	100.0 ( 8) <sup>2)</sup>
울산	0.0	100.0	0.0	0.0	0.0	100.0 ( 2) <sup>2)</sup>
경기	5.4	83.8	10.8	0.0	0.0	100.0 ( 37)
강원	37.5	37.5	12.5	12.5	0.0	100.0 ( 8) <sup>2)</sup>
충북	37.5	37.5	25.0	0.0	0.0	100.0 ( 8) <sup>2)</sup>
충남	15.4	46.2	15.4	23.1	0.0	100.0 ( 13)
전북	57.9	21.1	10.5	10.5	0.0	100.0 ( 18)
전남	11.1	55.6	11.1	11.1	11.1	100.0 ( 9) <sup>2)</sup>
경북	16.7	66.7	0.0	16.7	0.0	100.0 ( 24)
경남	15.4	61.5	7.7	15.4	0.0	100.0 ( 13)
제주	50.0	50.0	0.0	0.0	0.0	100.0 ( 2) <sup>2)</sup>

주: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경험자 235명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시·도별 II-11-24〉 노인의 시도별 정부사업 인지율

(단위: %, 명)

특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sup>1)</sup>	노인보호전문 기관 <sup>2)</sup>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sup>3)</sup>	치매 예방 프로그램 <sup>4)</sup>	치매치료관리비지원 <sup>5)</sup>	계 (명)
전국	41.8	22.7	41.3	22.3	18.1	100.0 (10,532)
서울	43.6	32.2	55.7	36.0	31.7	100.0 ( 1,908)
부산	29.9	22.3	37.1	19.5	16.3	100.0 ( 822)
대구	56.2	17.8	31.5	14.6	10.0	100.0 ( 532)
인천	31.7	17.2	52.1	17.3	17.4	100.0 ( 479)
광주	69.1	26.3	40.6	25.1	18.6	100.0 ( 278)
대전	52.1	39.0	45.4	26.2	19.1	100.0 ( 282)
울산	24.3	19.3	35.2	16.0	6.6	100.0 ( 181)
경기	44.6	25.7	42.4	24.8	19.6	100.0 ( 2,029)
강원	47.8	10.8	22.4	10.1	7.2	100.0 ( 416)
충북	33.4	15.9	31.5	14.2	11.6	100.0 ( 371)
충남	38.4	18.2	38.3	18.4	21.6	100.0 ( 585)
전북	42.3	21.3	43.2	28.7	19.8	100.0 ( 526)
전남	38.5	17.4	31.8	20.0	14.5	100.0 ( 652)
경북	49.9	14.0	36.9	11.4	7.6	100.0 ( 804)
경남	21.9	17.1	35.6	9.6	6.1	100.0 ( 540)
제주	33.3	27.5	37.0	29.7	18.1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3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함.

3)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3명을 제외함.

4)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함.

5)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3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25〉 노인의 시도별 경로식당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매일	주 3~4회	주 1~2회	2주 1회	미이용	계 (명)
전국 <sup>1)</sup>	1.1	1.7	2.5	1.1	93.6	100.0 (10,544)
서울	1.6	1.8	2.7	1.1	92.8	100.0 ( 1,907)
부산	1.1	2.4	1.7	1.5	93.3	100.0 ( 822)
대구	0.6	0.6	2.3	1.3	95.3	100.0 ( 533)
인천	0.0	1.3	2.7	0.8	95.2	100.0 ( 480)
광주	2.2	2.2	2.5	0.7	92.5	100.0 ( 279)
대전	2.1	2.8	3.2	1.1	90.8	100.0 ( 282)
울산	3.3	3.3	3.8	0.5	89.1	100.0 ( 183)
경기	1.7	2.4	3.1	1.6	91.3	100.0 ( 2,030)
강원	2.6	2.6	2.4	1.0	91.3	100.0 ( 416)
충북	0.3	1.6	4.0	1.1	93.0	100.0 ( 371)
충남	0.0	1.2	1.5	1.0	96.2	100.0 ( 585)
전북	0.2	1.0	3.4	0.4	95.1	100.0 ( 526)
전남	0.3	0.9	1.8	0.5	96.5	100.0 ( 651)
경북	0.1	0.0	1.0	0.6	98.3	100.0 ( 804)
경남	0.9	1.1	1.3	0.7	95.9	100.0 ( 540)
제주	0.7	2.9	5.1	5.1	86.2	100.0 ( 138)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없음

〈부표 시·도별 II-11-26〉 노인의 시도별 경로식당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식사준비 귀찮음	친구들과 함께 식사	가족눈치 (결과없음)	저렴해서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3.9	63.0	-	20.1	3.0	100.0 (662)
서울	19.4	54.7	-	22.3	3.6	100.0 (139)
부산	15.7	60.8	-	21.6	2.0	100.0 ( 51)
대구	7.7	50.0	-	34.6	7.7	100.0 ( 26)
인천	4.5	77.3	-	13.6	4.5	100.0 ( 22)
광주	0.0	60.0	-	40.0	0.0	100.0 ( 20)
대전	8.0	80.0	-	8.0	4.0	100.0 ( 25)
울산	21.1	36.8	-	36.8	5.3	100.0 ( 19)
경기	16.6	63.4	-	17.7	2.3	100.0 (175)
강원	18.9	62.2	-	10.8	8.1	100.0 ( 37)
충북	3.8	73.1	-	19.2	3.8	100.0 ( 26)
충남	14.3	52.4	-	33.3	0.0	100.0 ( 21)
전북	4.0	76.0	-	20.0	0.0	100.0 ( 25)
전남	0.0	82.6	-	13.0	4.3	100.0 ( 23)
경북	14.3	85.7	-	0.0	0.0	100.0 ( 14)
경남	14.3	52.4	-	33.3	0.0	100.0 ( 21)
제주	11.1	88.9	-	0.0	0.0	100.0 ( 18)

주: 1) 경로식당을 이용한 적이 있는 670명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27〉 노인의 시도별 유료맞춤식서비스 이용의사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거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sup>1)</sup>	2.2	10.5	7.0	32.4	47.9	100.0 (10,540)
서울	3.3	10.5	7.4	23.8	55.0	100.0 ( 1,909)
부산	0.0	5.6	2.7	39.8	51.9	100.0 ( 821)
대구	2.1	6.8	5.3	31.9	54.0	100.0 ( 533)
인천	2.5	12.3	12.8	37.9	34.5	100.0 ( 478)
광주	0.7	12.2	1.4	46.2	39.4	100.0 ( 279)
대전	2.5	26.5	5.7	25.8	39.6	100.0 ( 283)
울산	0.0	5.5	3.9	29.8	60.8	100.0 ( 181)
경기	3.9	14.6	10.1	25.0	46.4	100.0 ( 2,029)
강원	1.4	5.3	6.5	24.9	61.9	100.0 ( 417)
충북	1.3	9.9	4.8	38.2	45.7	100.0 ( 372)
충남	0.9	14.6	6.4	35.6	42.6	100.0 ( 582)
전북	1.1	8.0	9.5	39.9	41.4	100.0 ( 526)
전남	0.8	7.5	5.4	50.5	35.8	100.0 ( 651)
경북	2.0	7.6	6.2	39.9	44.3	100.0 ( 805)
경남	0.4	7.8	4.6	33.0	54.3	100.0 ( 540)
제주	5.0	11.5	7.9	21.6	54.0	100.0 ( 13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 〈부표 시·도별 II-11-28〉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지하철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국 <sup>1)</sup>	70.8	49.6	44.7	5.8	83.9	100.0 (10,405)
서울	93.3	55.6	39.5	4.9	93.4	100.0 ( 1,883)
부산	93.8	55.4	37.0	7.7	91.1	100.0 ( 810)
대구	79.2	47.1	48.1	4.8	84.8	100.0 ( 529)
인천	85.9	39.1	56.0	4.9	88.6	100.0 ( 475)
광주	73.1	70.1	25.5	4.4	88.8	100.0 ( 279)
대전	80.7	48.2	48.7	3.1	88.9	100.0 ( 280)
울산	62.6	57.1	39.3	3.6	83.2	100.0 ( 179)
경기	84.8	54.8	39.9	5.4	89.3	100.0 ( 2,008)
강원	31.2	28.3	56.7	15.0	59.8	100.0 ( 410)
충북	45.2	37.1	54.5	8.4	76.0	100.0 ( 372)
충남	55.9	28.8	65.2	6.1	84.5	100.0 ( 560)
전북	41.6	43.3	50.2	6.4	88.3	100.0 ( 524)
전남	45.8	49.7	45.6	4.7	81.4	100.0 ( 646)
경북	48.0	32.6	58.2	9.2	64.3	100.0 ( 792)
경남	47.1	33.3	61.0	5.7	67.7	100.0 ( 527)
제주	20.9	39.3	57.1	3.6	54.8	100.0 ( 134)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544명중 136명의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부표 시·도별 II-11-29〉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  
철도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국	35.1	34.9	58.7	6.4	76.6	100.0 (10,409)
서울	32.6	29.6	63.2	7.2	82.0	100.0 ( 1,883)
부산	45.3	51.2	40.6	8.2	82.0	100.0 ( 811)
대구	40.0	40.5	55.7	3.8	73.2	100.0 ( 528)
인천	34.1	21.7	71.4	6.8	63.3	100.0 ( 475)
광주	30.2	58.8	34.1	7.1	81.7	100.0 ( 278)
대전	52.7	52.4	46.3	1.4	83.9	100.0 ( 279)
울산	28.3	60.8	35.3	3.9	76.0	100.0 ( 180)
경기	31.5	33.5	57.8	8.7	78.8	100.0 ( 2,009)
강원	20.0	25.9	64.2	9.9	64.9	100.0 ( 410)
충북	28.2	23.8	74.3	1.9	72.7	100.0 ( 372)
충남	45.1	23.8	71.0	5.2	84.1	100.0 ( 561)
전북	37.4	30.6	62.2	7.1	88.9	100.0 ( 524)
전남	41.0	41.1	54.0	4.9	82.5	100.0 ( 646)
경북	42.4	26.7	68.8	4.5	65.9	100.0 ( 792)
경남	25.0	34.4	55.7	9.9	57.5	100.0 ( 527)
제주	11.2	20.0	80.0	0.0	45.9	100.0 ( 134)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407명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부표 시·도별 II-11-30〉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국	16.7	26.6	66.5	6.9	65.2	100.0 (10,404)
서울	12.9	31.3	58.4	10.3	69.0	100.0 ( 1,880)
부산	10.5	49.4	35.3	15.3	66.4	100.0 ( 810)
대구	15.3	32.1	66.7	1.2	55.0	100.0 ( 528)
인천	15.8	11.8	73.7	14.5	45.4	100.0 ( 474)
광주	17.6	39.6	54.2	6.3	77.3	100.0 ( 279)
대전	12.9	27.0	70.3	2.7	67.7	100.0 ( 279)
울산	13.9	62.5	33.3	4.2	65.4	100.0 ( 180)
경기	17.0	24.0	70.8	5.3	67.4	100.0 ( 2,009)
강원	8.3	33.3	66.7	0.0	43.8	100.0 ( 410)
충북	17.5	21.5	73.8	4.6	66.2	100.0 ( 372)
충남	34.5	10.4	84.5	5.2	78.9	100.0 ( 560)
전북	21.4	17.7	64.6	17.7	83.5	100.0 ( 523)
전남	19.0	45.5	52.0	2.4	77.2	100.0 ( 646)
경북	24.3	22.4	76.6	1.0	54.0	100.0 ( 793)
경남	8.4	20.9	65.1	14.0	47.5	100.0 ( 526)
제주	27.8	27.0	64.9	8.1	63.7	100.0 ( 133)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40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 1,738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부표 시·도별 II-11-31〉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고궁, 능원, 국·공립공원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국 <sup>1)</sup>	40.2	36.8	55.6	7.6	71.1	100.0 (10,403)
서울	35.8	35.7	54.4	9.9	74.5	100.0 ( 1,882)
부산	27.4	45.9	39.2	14.9	65.7	100.0 ( 810)
대구	39.8	42.7	54.0	3.3	67.7	100.0 ( 528)
인천	33.8	24.2	62.1	13.6	56.8	100.0 ( 474)
광주	42.1	65.8	29.9	4.3	80.2	100.0 ( 278)
대전	40.5	31.0	68.1	0.9	71.7	100.0 ( 279)
울산	49.4	56.2	29.2	14.6	75.6	100.0 ( 180)
경기	40.8	41.8	52.1	6.1	71.6	100.0 ( 2,008)
강원	30.2	33.3	64.2	2.4	65.4	100.0 ( 410)
충북	48.1	31.5	62.4	6.2	69.2	100.0 ( 372)
충남	37.7	18.5	78.2	3.3	73.7	100.0 ( 560)
전북	52.7	26.4	60.9	12.7	85.4	100.0 ( 524)
전남	46.6	38.3	57.0	4.7	77.8	100.0 ( 646)
경북	56.4	39.0	57.4	3.6	70.5	100.0 ( 792)
경남	35.0	27.7	54.9	17.4	57.4	100.0 ( 526)
제주	44.0	25.4	72.9	1.7	64.4	100.0 ( 134)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40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4183명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함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818

〈부표 시·도별 II-11-32〉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단위: %)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3)</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국 <sup>1)</sup>	25.2	39.5	54.5	6.0	61.7	100.0 (10,404)
서울	18.7	50.4	41.4	8.2	65.4	100.0 ( 1,883)
부산	10.7	66.7	25.3	8.0	55.9	100.0 ( 810)
대구	29.5	50.3	49.7	0.0	54.5	100.0 ( 528)
인천	16.7	26.6	54.4	19.0	37.7	100.0 ( 474)
광주	33.1	66.3	29.3	4.3	78.5	100.0 ( 278)
대전	27.5	26.3	72.4	1.3	60.9	100.0 ( 280)
울산	26.1	74.5	21.3	4.3	63.7	100.0 ( 180)
경기	23.8	45.2	49.4	5.4	62.9	100.0 ( 2,008)
강원	22.7	34.0	61.7	4.3	44.0	100.0 ( 409)
충북	27.5	20.4	71.8	7.8	62.8	100.0 ( 371)
충남	33.9	17.5	79.4	3.2	72.2	100.0 ( 560)
전북	34.7	22.0	65.9	12.0	82.1	100.0 ( 524)
전남	39.8	36.6	58.8	4.7	76.6	100.0 ( 646)
경북	40.9	38.1	56.7	5.3	58.8	100.0 ( 792)
경남	10.8	26.8	67.9	5.4	39.6	100.0 ( 527)
제주	38.3	21.6	76.5	2.0	60.7	100.0 ( 133)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40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2,6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무응답2명을 제외함

3) 향후 이용희망률: 10,544명중 무응답 177명 제외

〈부표 시·도별 II-11-d〉 노인의 시도별 경로우대 제도 이용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기타

(단위: %, 명)

특성	이용경험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향후 이용희망률 <sup>3)</sup>	계 (명)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외		
전국	0.3	51.5	42.4	6.0	50.5	100.0 (10,406)
서울	0.4	0.0	100.0	0.0	60.9	100.0 ( 1,883)
부산	0.2	50.0	50.0	0.0	31.3	100.0 ( 810)
대구	0.0	-	-	-	50.0	100.0 ( 528)
인천	0.0	-	-	-	100.0	100.0 ( 475)
광주	1.1	33.3	33.3	33.3	75.0	100.0 ( 278)
대전	0.0	-	-	-	0.0	100.0 ( 279)
울산	1.7	100.0	0.0	0.0	60.0	100.0 ( 179)
경기	0.2	66.7	33.3	0.0	58.8	100.0 ( 2,009)
강원	0.0	-	-	-	0.0	100.0 ( 409)
충북	0.0	-	-	-	100.0	100.0 ( 371)
충남	0.0	-	-	-	27.3	100.0 ( 562)
전북	0.2	0.0	100.0	0.0	50.0	100.0 ( 523)
전남	1.1	75.0	25.0	0.0	88.9	100.0 ( 646)
경북	0.0	-	-	-	0.0	100.0 ( 792)
경남	0.9	80.0	0.0	20.0	62.5	100.0 ( 528)
제주	0.0	-	-	-	-	- ( 134)

주: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140명을 제외함(제특성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2) 이용경험자 2,6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제특성별, 경로우대제도별 무응답자 비율은 다소 상이함) 무응답2명을 제외함

3) 향후 이용희망률: 10,544명중 무응답 177명 제외

〈부표 시·도별 II-11-33〉 노인의 시도별 현재의 걱정·고민사항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자녀	친구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주거 문제	소외 및 고독감	무로 함	기타	배우자의	자녀의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 결혼	계 (명)
	없음	와의 관계	와의 관계	와의 관계	건강 및 기능 악화	건강 및 기능 악화						건강 및 기능 악화				
전국 <sup>1)</sup>	11.9	1.3	4.5	0.2	51.3	18.1	1.1	2.6	1.8	1.6	1.6	0.7	0.7	2.7	100.0 (10,503)	
서울	6.8	1.3	5.1	0.5	48.6	22.8	2.4	2.2	3.1	1.5	1.2	0.7	0.8	3.1	100.0 ( 1,907)	
부산	12.4	1.1	3.2	0.2	53.0	18.2	1.6	1.7	1.1	2.2	1.9	0.9	0.4	2.1	100.0 ( 820)	
대구	19.3	0.6	1.3	0.0	42.6	15.8	0.8	2.8	2.3	2.8	5.1	1.1	1.9	3.8	100.0 ( 531)	
인천	5.2	1.0	3.8	0.0	60.3	22.1	0.4	2.3	3.3	0.6	0.4	0.0	0.0	0.4	100.0 ( 479)	
광주	15.8	1.8	4.0	0.0	47.1	22.7	1.4	1.4	1.8	2.2	0.0	0.4	0.0	1.4	100.0 ( 278)	
대전	13.2	2.1	7.1	0.0	56.8	13.9	0.0	1.4	0.7	0.0	1.1	0.4	1.1	2.1	100.0 ( 280)	
울산	20.4	0.6	2.2	0.0	50.8	13.3	0.0	2.2	1.1	2.8	1.7	0.6	0.6	3.9	100.0 ( 181)	
경기	11.2	1.0	4.6	0.1	47.3	21.3	1.0	3.7	2.2	2.3	1.4	0.7	0.3	2.7	100.0 ( 2,016)	
강원	18.2	1.7	2.2	0.0	47.5	16.3	0.7	3.4	1.7	1.9	1.4	1.0	0.2	3.8	100.0 ( 415)	
충북	19.1	1.1	5.7	0.0	45.0	11.1	0.3	3.5	2.2	2.4	2.4	1.6	1.1	4.6	100.0 ( 368)	
충남	9.6	2.4	9.4	0.2	45.4	23.8	1.0	1.9	1.4	0.5	1.7	0.2	1.2	1.4	100.0 ( 583)	
전북	5.1	1.7	5.9	0.2	66.7	12.4	0.8	2.9	0.8	1.0	1.0	0.4	0.2	1.1	100.0 ( 525)	
전남	7.2	2.1	5.1	0.0	60.6	14.9	0.5	3.1	0.5	0.9	0.6	0.8	0.5	3.4	100.0 ( 651)	
경북	21.7	1.5	2.2	0.4	55.5	6.8	0.1	2.4	0.7	1.0	2.1	1.0	1.4	3.1	100.0 ( 791)	
경남	14.5	0.4	5.2	0.2	55.4	14.1	0.6	2.4	0.7	0.6	1.7	0.4	0.7	3.2	100.0 ( 538)	
제주	12.9	1.4	2.9	0.0	50.0	20.0	0.7	2.9	0.7	1.4	1.4	1.4	0.7	3.6	100.0 ( 14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5명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38〉 노인의 시도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1순위)

(단위: %, 명)

특성	소득보장	수발서비스	여가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경제활동지원	노후주거지원	기타 <sup>1)</sup>	계 (명)
전국 <sup>2)</sup>	31.8	18.7	9.0	26.0	9.4	3.8	1.1	100.0 (10,496)
서울	29.6	16.0	9.8	22.7	14.9	5.5	1.5	( 1,907)
부산	35.0	20.2	11.3	23.0	7.2	2.8	0.4	100.0 ( 820)
대구	29.3	22.9	9.2	24.6	9.8	2.4	1.7	100.0 ( 532)
인천	33.2	17.5	11.1	25.9	8.6	3.1	0.6	( 479)
광주	47.5	13.7	4.0	22.7	7.2	2.5	2.5	100.0 ( 278)
대전	24.6	20.3	6.8	26.0	18.5	3.6	0.4	100.0 ( 281)
울산	35.0	27.8	11.1	16.1	5.6	2.8	1.1	( 180)
경기	32.8	17.0	11.1	22.9	10.4	4.2	1.2	100.0 ( 2,016)
강원	33.5	17.6	8.2	26.0	8.9	3.4	1.9	100.0 ( 415)
충북	24.6	19.1	10.1	38.0	4.6	3.0	0.5	100.0 ( 366)
충남	25.4	27.0	8.6	26.1	7.9	4.1	0.7	100.0 ( 582)
전북	42.6	12.6	6.3	29.2	5.2	3.6	0.4	100.0 ( 524)
전남	45.9	10.9	3.2	27.9	6.6	3.9	1.5	( 649)
경북	18.1	25.0	6.6	38.1	6.3	4.7	1.1	100.0 ( 792)
경남	29.2	26.0	10.4	26.8	5.6	1.7	0.2	100.0 ( 538)
제주	35.8	14.6	2.9	35.8	9.5	1.5	0.0	( 137)

주: 1) 기타에는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순위를 정할 수 없어 '0'으로 응답한 23명과 무응답43명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38a〉 노인의 시도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2순위)

(단위: %, 명)

특성	소득보장	수발서비스	여가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경제활동지원	노후주거지원	기타 <sup>1)</sup>	계 (명)
전국 <sup>2)</sup>	10.2	20.4	10.8	35.7	10.3	8.0	4.70	100.0 (10,248)
서울	12.8	17.4	11.2	31.0	11.4	9.5	6.60	100.0 ( 1,899)
부산	9.5	16.3	8.3	47.3	6.7	8.0	4.00	100.0 ( 810)
대구	8.2	20.9	9.0	38.0	13.1	4.5	6.40	100.0 ( 513)
인천	8.8	21.4	12.0	39.7	8.1	6.4	3.60	100.0 ( 468)
광주	7.7	31.4	7.7	30.3	17.3	3.0	2.60	100.0 ( 271)
대전	11.1	24.8	7.8	33.0	13.0	8.5	1.90	100.0 ( 270)
울산	3.9	20.2	11.2	44.4	10.1	5.6	4.50	100.0 ( 178)
경기	8.9	18.3	13.4	33.3	12.4	9.5	4.30	100.0 ( 1,959)
강원	9.2	28.2	12.4	29.5	7.9	9.4	3.50	100.0 ( 404)
충북	4.7	12.9	19.4	34.7	14.4	7.9	5.90	100.0 ( 340)
충남	16.5	16.9	7.4	38.2	10.8	8.4	1.80	100.0 ( 557)
전북	14.8	25.4	7.1	33.5	8.8	7.7	2.70	100.0 ( 520)
전남	11.0	26.6	5.6	34.6	10.7	8.0	3.50	100.0 ( 627)
경북	8.7	22.1	13.3	36.4	5.7	5.5	8.30	100.0 ( 769)
경남	7.0	20.9	9.8	43.8	5.3	9.2	4.00	100.0 ( 530)
제주	9.0	33.1	9.8	34.6	7.5	3.8	2.30	100.0 ( 133)

주: 1) 기타에는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48명을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39〉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노인용품(1순위)

(단위: %, 명)

특성	없음	노인용 의약품	노화방지 화장품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노인 건강 용품	주택개조 를 위한 주거설비 용품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6.3	43.0	2.4	25.6	11.3	4.7	2.9	3.8	0.1	100.0 (10,474)
서울	4.7	40.4	2.8	29.2	11.8	4.2	2.5	4.1	0.2	100.0 ( 1,908)
부산	5.2	46.5	2.6	24.9	8.2	4.5	1.7	6.4	0.0	100.0 ( 820)
대구	5.8	41.7	1.6	22.5	16.9	6.6	2.9	2.1	0.0	100.0 ( 515)
인천	5.0	41.9	3.5	29.0	7.1	7.3	4.0	2.3	0.0	100.0 ( 480)
광주	19.4	37.8	1.4	20.9	10.1	4.3	2.9	3.2	0.0	100.0 ( 277)
대전	9.6	27.8	1.4	39.5	14.6	2.1	2.1	2.8	0.0	100.0 ( 281)
울산	5.6	51.9	2.8	21.0	11.0	2.8	2.2	2.8	0.0	100.0 ( 180)
경기	6.4	41.5	2.2	26.5	10.4	3.5	3.7	5.6	0.1	100.0 ( 2,014)
강원	9.4	23.3	0.2	26.9	20.6	8.2	6.0	5.5	0.0	100.0 ( 415)
충북	9.2	49.6	2.2	24.3	6.7	4.3	1.9	1.9	0.0	100.0 ( 367)
충남	2.6	46.1	3.8	22.8	13.3	4.8	3.1	3.5	0.0	100.0 ( 579)
전북	1.7	45.4	2.7	25.4	15.6	2.1	3.8	3.2	0.2	100.0 ( 526)
전남	9.1	45.8	2.5	23.7	9.9	4.0	2.3	2.8	0.0	100.0 ( 648)
경북	6.0	51.4	2.5	20.2	8.0	9.0	2.1	0.9	0.0	100.0 ( 792)
경남	4.7	54.1	1.5	20.7	10.6	4.3	1.9	2.1	0.2	100.0 ( 535)
제주	14.6	35.8	2.9	24.8	13.1	2.2	2.9	3.6	0.0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34명 제외함

〈부표 시·도별 II-11-39a〉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노인용품(2순위)

(단위: %, 명)

특성	없음	노인용 의약품	노화방지 화장품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노인 건강 용품	주택개조 를 위한 주거설비 용품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	노인에 적합한 일상 용품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4.3	12.5	2.8	30.3	12.8	7.3	8.4	11.6	0.1	100.0 (10,469)
서울	8.2	14.2	2.5	31.7	15.4	7.2	8.9	12.1	0.0	100.0 ( 1,908)
부산	12.5	9.4	2.6	26.8	9.5	8.0	14.6	16.1	0.5	100.0 ( 819)
대구	12.3	10.8	2.2	38.6	12.1	6.1	9.2	8.8	0.0	100.0 ( 509)
인천	13.6	11.3	4.6	32.6	7.9	8.8	8.8	12.3	0.0	100.0 ( 478)
광주	29.0	6.5	1.4	31.9	12.2	10.4	2.2	6.1	0.4	100.0 ( 278)
대전	28.9	13.9	1.8	25.7	11.4	5.0	3.2	10.0	0.0	100.0 ( 280)
울산	14.9	7.2	2.2	38.1	10.5	5.5	13.3	8.3	0.0	100.0 ( 181)
경기	14.4	12.3	1.5	28.6	15.6	5.5	9.2	12.9	0.0	100.0 ( 2,014)
강원	21.8	15.1	3.6	17.7	8.4	7.2	13.7	12.5	0.0	100.0 ( 416)
충북	21.8	8.6	6.7	26.6	9.1	6.5	7.3	13.4	0.0	100.0 ( 368)
충남	16.4	14.1	5.3	28.3	16.7	9.3	2.4	7.4	0.0	100.0 ( 580)
전북	8.0	16.9	2.9	36.9	12.2	6.7	6.1	10.3	0.2	100.0 ( 525)
전남	18.9	11.8	2.2	26.8	10.6	9.4	5.7	14.5	0.2	100.0 ( 648)
경북	10.9	17.9	2.8	36.3	9.4	8.1	6.4	8.4	0.0	100.0 ( 791)
경남	12.6	8.2	3.5	30.5	15.6	8.9	9.7	11.0	0.0	100.0 ( 537)
제주	33.6	8.8	2.9	26.3	9.5	5.1	5.1	8.8	0.0	100.0 ( 137)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 40명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44〉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특성	없음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장묘환경 및 장례 서비스	일상활동도우미 서비스	병(의)원 및 노인 장기요양시설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 서비스	정보컨텐츠 서비스	영농지원 서비스	미용서비스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4.4	56.6	2.9	6.8	2.1	11.5	7.7	4.5	1.4	1.0	0.8	0.2	100.0 (10,496)
서울	3.5	48.2	2.8	12.3	3.6	12.9	6.9	4.7	3.2	1.8	0.0	0.3	100.0 ( 1,909)
부산	1.3	59.2	1.6	3.9	4.3	11.8	11.0	2.6	0.0	1.2	2.8	0.4	100.0 ( 820)
대구	10.3	61.6	4.6	2.1	0.8	9.6	2.7	4.2	1.1	0.2	2.9	0.0	100.0 ( 507)
인천	2.1	57.6	5.2	8.4	2.1	14.4	5.0	2.1	1.7	0.2	1.3	0.0	100.0 ( 478)
광주	6.8	58.9	3.2	12.9	0.7	7.5	3.9	4.6	1.1	0.4	0.0	0.0	100.0 ( 278)
대전	5.0	66.2	2.1	5.0	0.0	14.9	3.9	2.8	0.0	0.0	0.0	0.0	100.0 ( 282)
울산	3.3	56.6	4.9	2.7	1.1	13.7	9.9	2.2	0.5	1.1	2.2	1.6	100.0 ( 179)
경기	5.1	54.9	3.5	8.8	2.8	9.6	5.9	5.2	2.1	1.2	0.5	0.3	100.0 ( 2,016)
강원	4.8	54.8	6.0	4.6	0.2	9.4	6.7	8.9	1.4	2.4	0.7	0.0	100.0 ( 415)
충북	10.0	67.8	1.9	4.1	1.1	8.1	4.1	1.9	0.5	0.3	0.3	0.0	100.0 ( 369)
충남	2.6	48.2	2.2	6.7	0.2	19.4	16.2	4.1	0.0	0.2	0.2	0.0	100.0 ( 581)
전북	1.0	69.0	1.5	7.6	0.4	10.6	5.7	3.0	0.8	0.4	0.0	0.0	100.0 ( 525)
전남	4.1	64.0	1.8	4.3	1.8	9.2	6.4	6.7	0.9	0.5	0.2	0.0	100.0 ( 651)
경북	7.0	56.6	1.6	1.6	0.6	11.9	12.4	6.6	0.5	0.6	0.5	0.0	100.0 ( 788)
경남	1.7	56.3	3.0	2.4	2.8	11.7	15.4	3.7	0.2	1.3	1.5	0.0	100.0 ( 539)
제주	9.5	69.3	2.9	1.5	0.0	8.0	2.2	0.7	2.2	1.5	2.2	0.0	100.0 ( 13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 〈부표 시·도별 II-11-44a〉 노인의 시도별 필요한 서비스(2순위)

(단위: %, 명)

특성	없음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장묘환경 및 장례 서비스	일상활동도우미 서비스	병(의)원 및 노인 장기요양시설	주택건설 및 주택개조 서비스	정보컨텐츠 서비스	영농지원 서비스	미용서비스	기타	계 (명)
전국 <sup>1)</sup>	18.6	14.2	6.7	9.8	3.4	12.9	19.5	7.5	2.0	2.2	3.0	0.0	100.0 (10,496)
서울	12.6	19.7	6.0	10.9	6.2	12.0	19.5	6.7	3.9	1.4	1.0	0.0	100.0 ( 1,909)
부산	10.5	13.4	6.3	10.2	0.7	14.0	29.4	9.1	0.1	1.2	5.0	0.0	100.0 ( 820)
대구	37.0	8.9	9.4	4.3	2.2	13.2	9.3	5.9	2.0	1.2	6.7	0.0	100.0 ( 507)
인천	11.3	15.1	9.2	12.6	7.9	13.0	16.1	7.5	1.5	2.5	3.1	0.2	100.0 ( 478)
광주	34.9	10.4	10.4	6.8	0.7	10.4	10.8	6.8	1.4	2.9	4.3	0.0	100.0 ( 278)
대전	36.9	11.0	5.3	6.0	0.7	10.3	20.9	8.5	0.0	0.4	0.0	0.0	100.0 ( 282)
울산	12.3	8.9	3.4	7.8	2.2	16.2	33.5	7.3	0.6	2.8	5.0	0.0	100.0 ( 179)
경기	14.5	14.7	6.7	12.9	3.7	12.4	17.7	8.3	3.3	3.5	2.4	0.1	100.0 ( 2,016)
강원	33.0	15.4	9.4	4.3	1.2	10.1	9.2	8.7	2.7	2.9	3.1	0.0	100.0 ( 415)
충북	33.4	5.7	12.7	5.1	2.4	10.2	14.3	5.7	1.1	3.2	6.2	0.0	100.0 ( 369)
충남	17.2	16.2	2.4	9.1	1.4	13.3	28.6	7.4	1.9	1.7	0.9	0.0	100.0 ( 581)
전북	9.9	12.7	7.0	17.3	3.8	19.4	14.1	8.0	1.0	2.9	4.0	0.0	100.0 ( 525)
전남	20.2	9.8	3.4	13.7	3.4	12.6	19.9	9.5	0.9	3.1	3.5	0.0	100.0 ( 651)
경북	25.4	16.4	8.3	3.3	3.9	13.5	19.0	4.3	1.1	1.3	3.5	0.0	100.0 ( 788)
경남	10.0	11.5	4.5	7.8	1.5	15.8	34.0	10.4	0.2	1.9	2.6	0.0	100.0 ( 539)
제주	46.8	7.2	5.8	5.0	0.7	10.8	8.6	2.9	2.2	2.2	7.9	0.0	100.0 ( 13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27명을 제외함.



## 부록 4. 조사표

###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승인번호  
제 11771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개인 생성차수	(노인) 개인 ID	생성차수	가구 패널 ID	가구분리번호	가구내 원로노인 번호
기준: 1 신규: 2	* 인포시트 상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음	1차 가 구: 1 2차 신규가구: 2	* 인포시트 상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음	-원 가구 : 0 -첫 번째 분리가구: 1 -두 번째 분리가구: 2 -세 번째 분리가구: 3	

주소지	시군구 번호	시군구 내 원로노인 일련번호
	상세 주소	_____사도 _____구사군 _____동읍면 _____동리 _____번지 _____호 (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 _____ )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 방문 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미완사유 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 출타 ④ 부재중(원인 미파악) ⑤ 일부 문항 미완 ⑥ 조사거부 ⑦ 이사(주소 추적불가) ⑧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멸 ⑨ 기타 추적불가사유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재):	

답례품 수령	(인)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 기재)	지도원	(인)
-----------	-----	-----------	--	-----------	--------------	------------------	-----	-----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53, 8312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08년에 응답해주신 전국 15,14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조사로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하

가구원수	조사원료·노인수		노인가구 형태
	2008년	2011년	

# I. 가구일반사항

(\*조사일: 본 조사는 2011. 8. 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입	문11. 이름 ※ 가구원 이름	문12.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조관식으로 기입 후 [가구주와의 관계]를 참고하여 기입하십시오.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권 계없이 그 가구를 실제로 대표하고 생활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	문13. 성별	문14. 연령		문15. 혼인상태	문16. 교육수준		문17. 취업여부 ※ 지난 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것은 배우자(생일이 동일하는 사람) 에서 1주일 동안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경우	문18. 노인과의 관계 ※ 노인과의 관계는 주관식으로 기입한 후 [노인과의 관계]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노인과의 관계 노인과의 관계 코드	문19. 노인조사 대상자 확인 ① 2008년 조사 완료자 로 조사완료 ② 2008년 조사 완료자 이나 조사 미완료 ③ 2011년 신규조사 완료 ④ 삭제가구원	조사원 확인사항 ① 기존가구원 ② 신규가구원 ③ 분리가구원 ④ 삭제가구원					
				문14-1. 생년 (호위)	문14-2. 생월 (호위)		문16-1. 교육수준	문16-2. 교육연수									
01			① 남자 ② 여자	① 인형 ② 음력	① 인형 ② 음력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기혼-사별 ④ 기혼-재혼 (생존 배우자 이름 기재 포함) ⑤ 기혼-배우자 없음 ⑥ 사망 ⑦ 비확정 (만 14세 이하) ※ 혼인 상태는 실제 확인으로 작성	① 문해(문자모를 읽을 수 있음) ② 문해(문자모를 읽을 수 없음)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이상	① 노인 ② 노인 ③ 노인 ④ 노인 ⑤ 노인 ⑥ 노인 ⑦ 노인 ⑧ 노인 ⑨ 노인 ⑩ 노인 ⑪ 노인 ⑫ 노인 ⑬ 노인 ⑭ 노인 ⑮ 노인 ⑯ 노인 ⑰ 노인 ⑱ 노인 ⑲ 노인 ⑳ 노인 ㉑ 노인 ㉒ 노인 ㉓ 노인 ㉔ 노인 ㉕ 노인 ㉖ 노인 ㉗ 노인 ㉘ 노인 ㉙ 노인 ㉚ 노인 ㉛ 노인 ㉜ 노인 ㉝ 노인 ㉞ 노인 ㉟ 노인 ㊱ 노인 ㊲ 노인 ㊳ 노인 ㊴ 노인 ㊵ 노인 ㊶ 노인 ㊷ 노인 ㊸ 노인 ㊹ 노인 ㊺ 노인 ㊻ 노인 ㊼ 노인 ㊽ 노인 ㊾ 노인 ㊿ 노인	① 노인과의 관계는 주관식으로 기입한 후 [노인과의 관계]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① 2008년 조사 완료자 로 조사완료 ② 2008년 조사 완료자 이나 조사 미완료 ③ 2011년 신규조사 완료 ④ 삭제가구원	① 기존가구원 ② 신규가구원 ③ 분리가구원 ④ 삭제가구원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주민등록 기본 세대원 월

## II. 가구 경제상태

■ 문 II 1. 귀댁의 작년 한 해(2010.1.1.~2010.12.31.)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II 1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 문 II 1-1.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II 1-1 

--	--

-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 교육비 (3) 주거 관련비(주택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수도비 등)  
 (4)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5) 가구·집가사 용품 (6)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7) 교양오락비 (8) 교통비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10) 경조사비 (11) 부채상환 (12) 기타(무엇:\_\_\_\_\_)

■ 문 II 2. 귀댁의 작년 한 해(2010.1.1.~2010.12.31.)의 연 총소득과 소득항목별 소득 유무 및 소득 금액(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한 해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살다가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에게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II 2-1) 총소득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소득의 종류	소득 유무 (1) 있음 (2) 없음	소득 금액					
문 II 2-2. 근로소득	<div></div>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문 II 2-3. 사업소득	<div></div>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문 II 2-4. 재산소득	<div></div>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소득의 종류	소득 유무 (1) 있음 (2) 없음	소득 금액					
문 II 2-5. 사적이전소득	<div></div>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문 II 2-6. 공적이전소득	<div></div>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문 II 2-7. 기타소득	<div></div>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 문 II 3. 귀댁은 자가입니까? 전 · 월세입니까?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타

II 3 

--

□ 문 II 3-1. 귀댁에는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II 3-1 

--

□ 문 II 3-2.

(1) (거주+소유 주택) 집의 시가는 얼마입니까? 자가\_\_\_\_\_만원

II 3-2(1)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2) (전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전세\_\_\_\_\_만원

II 3-2(2)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3) (월세/기타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보증금:\_\_\_\_\_만원, 월세: 월\_\_\_\_\_만원

II 3-2(3)보증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II 3-2(3)월세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 III. 노인개인특성

응답 유형	응답유형 <input type="checkbox"/>
(0) 본인 응답 (1) 동거인 대리 응답 (노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 (2) 비동거인 대리 응답(노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	

※ 조사원: 개인용 설문지 문항 중 <★문>처럼 문항 번호 앞에 ★마크가 있는 문항은 대리응답 불가

#### A.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 귀하의 (손)자녀 및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손)자녀도 포함하여 질문하십시오.(행방불명은 제외).

■ 문A1.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생존자녀**가 있습니까?(결혼한 자녀와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1) 있다 → (남자:  명, 여자:  명 / 미혼:  명, 기혼:  명 / 계:  명)

(2) 없다 → (문A2로)

A1

A1-(1)

계  명

※ 조사원: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과 <문A1>을 참조하여 총 자녀 수를 기록하십시오.

자녀수	남자	여자	자녀 수	미혼	기혼
1) 동거 자녀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4) 동거 자녀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2) 비동거 자녀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5) 비동거 자녀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3) 자녀수(소계)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6) 자녀수(소계)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 문A2. 귀하께서는 **따로 사는 (친/외) 손자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 ( 명)

(2) 없다

A2

A2-(1)

계  명

※ 조사원: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과 <문A2>를 참조하여 총 손자손녀 수를 기록하십시오

(1) 동거 손자손녀 수  명 (2) 비동거 손자손녀 수  명 (3) 총 손자손녀 수  명

※ 다음은 현재부터 1년 전까지 귀하께서는 따로 사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방문, 전화, 휴대폰문자, 이메일, 편지 포함)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따로 사는 자녀가 없는 경우 <문A5>로 가시오.

■ 문A3. 그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조사원: [노인과의 관계] 코드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_\_\_\_\_

A3

■ 문A4. 그 자녀가 사는 곳까지 가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1) 걸어서 10분 이내 (2) 걸어서 10분 이상 30분 이내  
 (3) 자동차로 30분 이내 (4) 자동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5) 자동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6) 자동차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7) 자동차로 3시간 이상 (8) 해외 거주 (9) 기타 (무엇: \_\_\_\_\_)

A4

※ 조사원: 비동거 자녀, 손자손녀와의 왕래·연락 빈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자가 없을 경우,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시오

질문 내용 (※ 조사원: 아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참조하여 기록하시오)	1) 따로 사는 자녀 중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자녀	2) 비동거 자녀 전체	3) 비동거 손자손녀 전체
■ 문A5. 귀하께서 <b>지난 1년간</b> _____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A6. 귀하께서 <b>지난 1년간</b> _____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폰문자,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왕래 및 연락 빈도】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번 정도 (4)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6)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8) 기타(무엇:\_\_\_\_\_)

※ 조사원: 질문 <문A7~문A8>은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문A9>로 가시오.

■ 문A7. 배우자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건강하지 않다

A7

■ 문A8.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 동반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번 정도  
 (4)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6)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7) 없음

A8

※ 조사원: 가구형태를 확인하여 노인부부가구 또는 독거노인인 경우에만 <문A9>와 <문A10>을 질문하시오.

■ 문A9. 노인부부의 경우는 언제부터 두분끼리만, 독거노인의 경우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습니까?

A9 년 월

■ ★문A10. 귀하께서 두 분 또는 한 분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2)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3) 개인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4)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떠나기 싫어서  
 (5) 자녀에 대한 가사지원 및 손자손녀 양육이 부담스러워서 (6)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7)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하어서 (8) 자녀가 직장(학업) 관계로 타 지역에 있어서  
 (9)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10) 모두 말이기 때문에  
 (11) 자녀가 없어서 (12) 기타(무엇:\_\_\_\_\_)

A10

※ 조사원: 기혼자녀가 있으며 현재 노인과 동거 중(기혼 자녀 동거 가족)인 가족인 경우만 <문A11>을 질문하시오. 그 외의 경우는 <문A12>로 가시오.

■ ★문A11. 귀하께서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2)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3) 혼자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서 (4) 나 또는 배우자의 장애나 질병으로 돌봐 줄 사람이 필요  
 (5) 자녀의 가사 또는 손자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6)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7)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8)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9) 기타(무엇:\_\_\_\_\_)

A11

■ ★문A12. 귀하께서는 향후 어떤 거주형태로 살고 싶으십니까?

A12 ☐

- (1) 일반주택·아파트에서 부부(또는 혼자)만 살면서 필요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2) 자녀와 (계속) 함께 살고 싶다 (3) 고령자전용 주거단지에 살고 싶다  
 (4) 몇몇 노인끼리 한 주택에 모여 사는 그룹홈에 살고 싶다  
 (5) 일반주택·아파트에서 부부(또는 혼자)만 살면서 필요할 때만 경로당 등에서 숙식을 하고 싶다  
 (6)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싶다 (7) 기타(무엇: \_\_\_\_\_)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 조사원: (문B1~문B4)는 노인 응답자가 미혼 및 무배우자(이혼, 별거 또는 사별)인 경우에는 본인 부모에 대한 질문만 하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시오.

질문 내용	1) 노인 자신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 문B1. (배우자)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부모님의 연세(만나이는)는 몇이십니까? (1) 부모 모두 생존 (2) 아버지만 생존 (3) 어머니만 생존 (4) 두 분 모두 사망 → <b>▶(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질문으로 가시오)</b>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table border="1"> <tr> <td>생존 여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모</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생존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r> <td>생존 여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모</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생존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생존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생존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B2. 현재 (배우자)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이 나쁜 편이다 (4) 건강이 매우 나쁘다	<table border="1"> <tr> <td>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d>모</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r> <td>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d>모</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B3. <b>지난 1년간</b> 따로 살고 있는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4쪽의 【왕래 및 연락빈도】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번호를 기록하시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B4. <b>지난 1년간</b>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휴대폰문자,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4쪽의 【왕래 및 연락빈도】 보기를 참조하여 기록하시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B5. 생존해있는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B5 ☐

- (1) 있다 → (\_\_\_\_명) (2) 없다 → **▶(문B6로)**

B5-(1)

※ 조사원: 해당자가 없을 경우,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시오.

질문 내용	1) 친인척	2) 친구·이웃
■ 문B6. 귀하께서 가깝게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 친구·이웃은 각각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단, 형제·자매는 제외)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 문B7. <b>지난 1년간</b> 귀하는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이웃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단, 친척은 자녀나 손자손녀는 제외) 4쪽의 【왕래 및 연락빈도】 보기를 참조하여 기록하시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B8. <b>지난 1년간</b> 귀하의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이웃은 얼마나 자주 연락(휴대폰문자,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4쪽의 【왕래 및 연락빈도】 보기를 참조하여 기록하시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 조사원: **지난 1년간** 귀하께서 각 해당하는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하십시오. 해당자가 없을 경우 다음 대상자로 넘어가시오.

【보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보기】 (1) 있다 (2) 없다

조사원 확인 사항			1) 고된 상담 (정서적 도움)		2) 청소·식사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3)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4) 경제적 도움							
문항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1) 있음 (2) 없음(비해당)	(1) 받음		(2) 줌		(1) 받음		(2) 줌		받음			줌(제공)		
			(1) 받음	(2) 줌	(1) 받음	(2) 줌	(1) 받음	(2) 줌	(1) 정기 현금지원	(2) 비정기 현금지원	(3) 현물 지원	(1) 정기 현금지원	(2) 비정기 현금지원	(3) 현물 지원		
C1.	동거 자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2.	비동거 자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3.	본인 부모 + 배우자 부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4.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D. 건강상태

■★문D1.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D1 ☐

■★문D2.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D2 ☐

■문D3. 현재 귀하께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병명 (질병 각각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1) 만성질병 여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입니까?	2) 의사진단 여부 이것은 의사로부터 진단 을 받은 질병입니까?		질병명 (질병 각각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1) 만성질병 여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입니까?	2) 의사진단 여부 이것은 의사로부터 진단 을 받은 질병입니까?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순환기	D3-1.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분 비계	D3-6. 갑상선 질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 뇌졸중(중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골 격계	D3-7. 골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input type="checkbox"/>
	D3-3. 고지혈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8. 골다공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4. 협심증, 심근경색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9. 요통, 좌골신경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분 비계	D3-5.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계	D3-10.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병명 (질병 각각에 대해 질문하시오.)	1) 만성질환 여부	2) 의사진단 여부		질병명 (질병 각각에 대해 질문하시오.)	1) 만성질환 여부	2) 의사진단 여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입니까? (1) 예 (2) 아니요	이것은 의사로부터 진단 을 받은 질병입니까? (1) 예 (2) 아니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입니까? (1) 예 (2) 아니요	이것은 의사로부터 진단 을 받은 질병입니까? (1) 예 (2) 아니요
호흡 기계	D3-11. 천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D3-23. 위산역류장애, 위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12. 폐결핵, 결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4. 간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각기	D3-13. 백내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요생 식기	D3-25. 간경변	<input type="checkbox"/>
	D3-14. 녹내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6.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15. 만성중이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7. 전립선비대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암	D3-16. 위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D3-28. 요실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17. 간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9. 상해·매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18. 대장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30. 빈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19. 폐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31. 피부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0. 유방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32.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1. 자궁경부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33.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22. 기타 암 (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3-34. 질병명: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응답자가 갖고 있는 총 만성질환 수(의사진단 기준)를 확인하여 기록하십시오.

D3-35) 총수 ☐

■ 문D4. 귀하께서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 약은 몇 종류입니까? \_\_\_\_\_종류

D4) ☐ 종류

■ 문D5. 귀하께서는 **지난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몇 회 가셨습니까? \_\_\_\_\_회

D5) ☐ 회

■ 문D6. 귀하께서는 **작년 한 해(2010.1.1.~2010.12.31.)** 월평균 보건의료비로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

D6)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문D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보건소, 병원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방문서비스 제외)

D7) ☐

(1) 예 → (1년 평균 방문 횟수: \_\_\_\_\_회) (2) 아니요

D7-(1)  회

■ 문D8. **지난 1년간** 보건(지)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D8) ☐

(1) 있다

(2) 없다 → (문D9로)

□ 문D8-1. 어느 곳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D8-1) ☐

(1) 보건(지)소 (2) 경로당 (3)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4) 병원 (5) 기타(무엇: \_\_\_\_\_)

■ 문D9.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음)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D9-4로)

D9 ☐

□ 문D9-1.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음)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D9-4로)

D9-1 ☐

□ 문D9-2. 귀하께서 낙상 사고를 당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화장실/욕실 (2) 방 (3) 부엌 (4) 거실/마루 (5) 계단  
(6) 도로 또는 공원 등 실외 (7) 상가 등 외부 시설물 (8) 기타(장소: \_\_\_\_\_)

D9-2 ☐

□ 문D9-3. 귀하께서 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바닥이 미끄러워서 (2)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3)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 (4) 경사가 급해서  
(5) 조명이 어두워서 (6)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서)  
(7) 갑자기 어지러워서 (8)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  
(9) 기타(무엇: \_\_\_\_\_)

D9-3 ☐

□ 문D9-4. 귀하께서는 **현재**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 (1) 경험하고 있다 → (구체적인 원인과 증상: \_\_\_\_\_) (2) 없다

D9-4 ☐

■ ★ 문D10. 귀하께서는 평소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1) 많이 두려워한다 (2) 약간 두려워한다 (3)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D10 ☐

■ ★ 문D11. **지난 1주일간**의 귀하의 생활이 아래 내용과 같으면 (1) 예, 그렇지 않으면 (2) 아니요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 내용	(1) 예 (2) 아니요	질문 내용	(1) 예 (2) 아니요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input type="checkbox"/>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input type="checkbox"/>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2) 지금의 내 자식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4) 지금 자신의 처자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 E. 건강 행태

■ 문E1. 현재 귀하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또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 (1) 현재 피움 (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문E2로)  
 (3) 피운 적 없음 → (문E2로) (4) 전자담배를 피움 → (문E2로)

E1 ☐

□ 문E1-1. 귀하께서는 하루에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 담배 1갑은 20개비입니다.) \_\_\_\_\_ 개비

E1-1  개비

■ 문E2. 귀하는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문E3으로) (2) 한 달에 1회 미만  
 (3) 한 달에 1회 정도 (4) 한 달에 2~4회 정도  
 (5) 일주일에 2~3회 정도 (6) 일주일에 4~6번 이상  
 (7) 매일

E2 ☐

□ 문E2-1.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 몇 잔정도 마십니까? 평균 \_\_\_\_\_ 잔 (아래 보기 참고)

E2-1  잔

【보기】 잔에 대한 정의: 캔맥주 1개는 1.6잔, 맥주 1병(500cc)은 2잔, 막걸리 1병은 7잔,  
 소주 1병은 6.5잔, 와인 1병은 8잔, 양주는 병마다 잔 수가 다릅니다.

■ 문E3. 다음은 귀하의 지난 6개월간의 영양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1) 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아니요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 내용	(1) 예 (2) 아니요	질문 내용	(1) 예 (2) 아니요
1) 질병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 하루에 식사를 2번이나 한 번 정도 한다	<input type="checkbox"/>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4) 치아가 약하여 음식을 씹는 것이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5) 돈이 부족하여 필요한 음식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nput type="checkbox"/>	6)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input type="checkbox"/>
7) 지난 6개월 사이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이상 줄거나 늘었다 (1) 줄었음 (2) 늘었음 (3) 아니요 (4) 모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4. 귀하께서는 운동을 하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문E5로)

E4 ☐

□ 문E4-1. 한 달에 며칠 운동을 하십니까? 월 \_\_\_\_\_ 일

E4-1  일

□ 문E4-2. 한번 운동하실 때 몇 분 정도 하십니까? 1회 \_\_\_\_\_ 분

E4-2  분

□ 문E4-3.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조사원: [운동종목]을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운동명: \_\_\_\_\_

E4-3

□ 문E4-4. 귀하께서 주로 운동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공원, 공원의 운동시설, 학교운동장, 약수터, 공터, 산  
 (2) 사설 운동시설(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  
 (3) 각종 복지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4) 경로당 (5) 보건(지)소  
 (6) 공설 운동시설(주민센터, 구립체육센터 등) (7) 민간 비영리시설(YMCA, YWCA, 교회 등)  
 (8) 집 근처 (9) 기타(무엇: \_\_\_\_\_) (10) 집에서

E4-4 ☐

■ 문E5. 귀하의 **지난 1주일간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낮잠 포함) \_\_\_\_\_ 시간

E5  시간

■ 문E6.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본인 부담 종합건강검진,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차 건강검진, 정부의 노인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E6

(1) 있다 →(「F영역」으로)

(2) 없다

□ ★문E6-1. 귀하께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거동이 불편해서 (2) 시간이 없어서 (3) 돈이 없어서

(4)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서 (5) 건강검진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6) 과거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7)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 기타(무엇: \_\_\_\_\_)

E6-1

## F. 신체 기능

※ 다음은 시력, 청력, 씹기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보조기 사용 여부	상태(보조기 착용자는 보조기 착용 후)
	(1) 예(사용) (2) 아니요(미사용)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나쁜 편이다 (4) 매우 나쁘다
■ 문F1. 시력(TV시청, 신문 읽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F2. 청력(전화통화, 옆사람과의 대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F3. 씹기(고기나 딱딱한 것을 씹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보조기- 시력: 시력보조기(안경, 렌즈, 돋보기 등), 청력: 보청기, 씹기: 틀니(의치)

■ 문F4. 귀하의 몸무게와 키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몸무게 : \_\_\_\_\_ kg 1-1. 체중측정여부: (0) 미측정 (1) 측정

F4-1) 몸무게  kg

F4-1)-1

2) 키 : \_\_\_\_\_ cm 2-1. 신장측정여부: (0) 미측정 (1) 측정

F4-2) 키  cm

F4-2)-1

■ 문F5. 다음은 귀하의 근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자 또는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해 주세요. (양손을 앞으로 모아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를 5번 시행)

(1) 수행함

(2) 수행하지 못함

F5

■ 문F6. 귀하는 다음 동작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질문 내용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약간 어렵다	(3) 매우 어렵다	(4) 전혀 할 수 없다	(5) 모르겠다
1)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뛰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걷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몸을 구부리거나, 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6-1)

F6-2)

F6-3)

F6-4)

F6-5)

F6-6)

## G.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 문G1. **지난 1주일간**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셨습니다?  
(※ 조사원: 자세한 설명은 지침서 참조)

【보기】 자립정도 :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 옷 입기	<input type="checkbox"/>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input type="checkbox"/>
3) 목욕 또는 샤워하기	<input type="checkbox"/>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input type="checkbox"/>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input type="checkbox"/>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input type="checkbox"/>
7) 대소변 조절하기	<input type="checkbox"/>	X	

- 문G2. **지난 1주일간**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침서 참조)

【보기】 자립정도 :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input type="checkbox"/>	2) 집안일(살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	<input type="checkbox"/>
3) 식사준비(음식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input type="checkbox"/>	4) 빨래(손 혹은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input type="checkbox"/>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input type="checkbox"/>	6) 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input type="checkbox"/>
7) 근거리 외출하기(걸어서)	<input type="checkbox"/>	X	
【보기】 자립정도 : (1) 완전자립 (2) 적은 부분 도움 (3) 많은 부분 도움 (4) 전혀 할 수 없음			
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input type="checkbox"/>	9) 전화 걸고 받기	<input type="checkbox"/>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차)	<input type="checkbox"/>	X	

- 문G3.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 또는 가족 이외에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 (「H영역」 으로)

G3

- 문G3-1.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1) 가족원(동거, 비동거)으로부터 도움을 받음  
 (2) 외부서비스(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기타 간병서비스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음 → (「H영역」 으로)  
 (3) 가족원과 외부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 있음  
 (4) 기타(무엇: \_\_\_\_\_) → (「H영역」 으로)  
 (5) 아웃 (6) 가사도우미

G3-1

- 문G3-2.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가족원 중 **지난 3개월간**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누구이며, 일주일 평균 도움 시간은 얼마입니까?

⇒ (1)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 \_\_\_\_\_ (2) 일주일 평균 도움 시간: \_\_\_\_\_시간

(1) 도움주는 사람 (2) 시간  
G3-2

--	--

※ 조사원: [노인과의 관계]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 H. 경제 상태

■ ★ 문H1.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H1

■ 문H2. 귀댁의 생활비와 귀하의 용돈은 주로 누가 부담하니까? 생활비는 한 달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을 의미합니다.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생활비: \_\_\_\_\_, 용돈: \_\_\_\_\_

(1) 본인 스스로

(2) 배우자

H2-(1) 생활비

(3)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4)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H2-(2) 용돈

(5) 자녀이외의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6) 자녀이외의 따로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7) 정부 및 사회단체

(8) 기타(무엇: \_\_\_\_\_)

■ 문H3-문H16은 귀하(배우자)의 **작년 한 해(2010년)** 동안 수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지난 1년간의 본인 혹은 배우자의 수입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소득**을 의미합니다.

문항	구분	1) 본인의 연수입							2) 배우자의 연수입									
		수입유무 (1) 있음 (2) 없음	액수						단위	수입유무 (1) 있음 (2) 없음	액수						단위	
H3.	근로소득(세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4.	사업소득(세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5.	재산소득(세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6.	사적 이전소득(세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7.	공적 이전 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8.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9.		기초노령연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1.	기타 수입	개인연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2.		퇴직연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3.		주택연금, 농지연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4.	기타 소득	(무엇:_____)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5.	총수입액(본인, 배우자 각각)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H16.	총수입액(본인+배우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 문H17~19. **조사 당일 현재** 귀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구분 (설명은 별첨 참고)	1) 본인							2) 배우자						
		수입유무 (1) 있음 (2) 없음	액수						수입유무 (1) 있음 (2) 없음	액수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H17.	부동산														
H18.	금융자산														
H19.	부채														

■ 문H20. 귀하와 배우자께서 주요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	(1)예	(2)아니요	이유	(1)예	(2)아니요	이유	(1)예	(2)아니요
1) 생활비 부족	<input type="checkbox"/>		2) 사업자금 마련	<input type="checkbox"/>		3) 주택마련	<input type="checkbox"/>	
4) 의료비 마련	<input type="checkbox"/>		5) 교육비 마련	<input type="checkbox"/>		6) 기타(무엇:_____)	<input type="checkbox"/>	

■★문H2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대상자 (3) 그 외

H21 ☐

■ 문H22. 귀하는 **현재** 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 포함)이십니까?

- (1) 예 (2) 아니요 (3) 현재 신청 중

H22 ☐

## I. 경제 활동

■ 문1.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1) 현재 일하고 있다 → **〈문12로〉**  
 (2) 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 → **〈문13으로〉**  
 (3)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 **〈문14로〉**

11 ☐

■ 문12. 현재 귀하께서 하시는 일(또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종사상의 지위, 종사기간, 종사이유(그만둔 이유), 만족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십시오.

구분	■ 문12. 현재 직업	■ 문13. 최장기 종사 직업
직업 분류	⇒ 하시는 일: _____ ⇒ 직업 중분류: <input type="text"/>	⇒ 하셨던 일: _____ ⇒ 직업 중분류: <input type="text"/>
	(※ 조사원: [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종사상 지위 【보기】 참조	■ 문12-1. 현재 종사상 지위 <input type="checkbox"/>	■ 문13-1.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input type="checkbox"/>
근로 시간	■ 문12-1-1. 현재 직업의 평균 근로시간: 주 <input type="text"/> 시간	

구분	■ 문2. 현재 직업	■ 문3. 최장기 종사 직업
종사 기간	■ 문2-2. 현재 직업의 일한 기간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 문3-2. 최장기 직업의 일한 기간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종사 이유 (혹은 그만 둔 이유)	■ ★문2-3. 현재 일을 하는 이유 <input type="text"/> (1) 생계비를 마련 (2) 용돈이 필요해서 (3) 건강유지를 위해 (4)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5) 시간을 보내기 위해 (6)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7)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8) 기타(무엇: <input type="text"/> )	■ ★문3-3. 일을 그만둔 이유 <input type="text"/> (1) 정년퇴직 (2)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3) 계약이 끝나서 (4)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5) 영업이 잘되지 않아서 (6) 근로여건 및 환경이 나빠서 (7) 소득(보수)이 적어서 (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9)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11) 여가를 즐기고 (12) 생활의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14)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15) 기타(무엇: <input type="text"/> )
일자리 만족도	■ ★문2-4. 현재 일자리의 만족도 <input type="text"/>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일 지속 의향	■ ★문2-5. 현재 일에 대한 지속 의향 <input type="text"/> (1) 계속 일할 생각임 (2)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3)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최장기 직업 여부	■ 문26. 현재 일이 최장기 직업입니까? <input type="text"/> (1) 예 → (문1로) (2) 아니요 → (문13으로)	→ (문11의 (1)에서 온 경우 문1로 이동, 문11의 (2)에서 온 경우 문14로 이동)

## ■ ★문4. 귀하께서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2)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3)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4)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5)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6)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7)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8) 일자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9) 내가 원하는 임금(보수)을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10)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지 몰라서  
 (11) 기타(무엇: )

14 

## ■ ★문5.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 (문1로)

15 

## □ ★문5-1. 귀하께서 일을 하고 싶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2) 용돈이 필요해서  
 (3) 건강유지를 위해서 (4)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5)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6)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7) 기타(무엇: )

15-1



□ ★문5-2. 귀하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1)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
- (2)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에 취업
- (3) 창업
- (4)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참여
- (5) 취미생활을 통한 부수입(여가형 직종)
- (6) 기타(무엇: \_\_\_\_\_)

15-2 

--

□ ★문5-3.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주 \_\_\_\_\_ 시간

15-3 

--	--

 시간

□ ★문5-4. 귀하께서 일하시면서 희망하시는 월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 월 \_\_\_\_\_ 만원

15-4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만원

□ ★문5-5. 일자리를 구할 때 귀하께서 우선시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 (2)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 (3)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 (4)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5)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 (6)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 (7)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 (8)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 (9) 직장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10)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 (11)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12) 기타(무엇: \_\_\_\_\_)

15-5 1순위 

--	--

  
2순위 

--	--

□ ★문5-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

되는 것을 주요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노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관 의뢰
- (2)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의뢰
- (3)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의뢰
-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의뢰
- (5) 시니어클럽 의뢰
- (6) 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의뢰
- (7) 지자체(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인천시 노인취업정보센터/경기도 경기실버인력뱅크/전북 노인일자리추진본부/경남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 의뢰
- (8) 사설 직업 안내소 의뢰
- (9) 개인적 인맥을 통해
- (10)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 (11) 기타(무엇: \_\_\_\_\_)

15-6 1순위 

--	--

  
2순위 

--	--

## J. 여가 및 사회활동

■ 문J1.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간** TV를 시청하십니까?

(1) 시청했다

(2) 시청하지 않았다 → (문J2로)

J1 ☐

□ 문J1-1.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십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J1-1 ☐

■ 문J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J4로)

J2 ☐

□ 문J2-1. **지난 1년간** 여행을 몇 번 하십니까?

J2-1-(1) 국내

☐

회

☐

J2-1-(2) 해외 회

■ ★문J3. 여행을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1) 비용의 적절성 (2) 볼거리의 다양성 (3) 주변 자연환경의 수려함

(4) 교통의 편의성 (5) 주변시설의 편리성 (6) 지명도

(7) 전문가의 의견, 언론보도 등 (8) 기타(무엇: \_\_\_\_\_)

J3 ☐

□ ★문J3-1. 국내나 해외를 여행하신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1) 개별여행

(2) 소속 단체 회원들과 여행

(3)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개별여행

(4) 여행패키지 상품이용

(5) 기타(무엇: \_\_\_\_\_)

J3-1 ☐

■ ★문J4. 귀하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1)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

(2)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3)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J4 ☐

■ 문J5. 귀하는 핸드폰을 갖고 계십니까?

(1)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2) 일반 핸드폰을 갖고 있다

(3) 갖고 있지 않다

J5 ☐

※ 다음은 평생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참여상태와 향후 참여욕구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십시오.

질문 내용	현재	향후
■ 문J6. 귀하께서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향후 받고 싶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예(참여) (2) 아니요 → (문J6-4로)		
□ 문J6-1. 이 교육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1회 미만		
□ 문J6-2.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십니까(★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노인복지관의 노인대학, 노인교실(학교) (2)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 노인교실(학교)		
(3) 종교기관의 노인대학, 노인교실(학교) (4)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5)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6) 문화예술화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화관/여성화관		
(7)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8) TV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9) 기타(무엇: _____) (14) 보건소		
(15) 학원 (16) 경로당		

질문 내용	현재	향후
□문J6-3. 주로 어떤 영역의 교육에 참가하십니까(★하시겠습니까)? (1)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2)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3) 일반교양 교육 (4) 정보화 교육 (5) 자원봉사 교육 (6) 취업 및 직업 교육 (7) 노후준비 교육 (8) 노후경제 교육 (9)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10)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J6-4. 교육에 참여하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간이 없어서 (2) 건강이 안 좋아서 (3)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4)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6)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7) 교육 장소가 멀어서 (8) 교육 장소를 몰라서 (9)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10)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여부, 빈도,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 내용	동호회 (클럽)	친목 단체	정치 사회 단체
■ 문J7. 귀하는 동호회(클럽활동)(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단체소속활동만) (1) 참여 (2) 비참여 → (문J8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J7-1. 이 단체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J7-2. 이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1) 스스로 (2) 주변의 권유 (3) 대중매체 및 홍보 (4)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J8. 귀하께서는 향후에 동호회(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J9.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현재 하고 있음 J9 ☐

(2)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 (문J10으로)

(3) 평생 한 적이 없음 → (문J10으로)

□ 문J9-1.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J9-1 ☐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1회 미만

□ 문J9-2. 자원봉사활동에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다? J9-2  년  월부터

□ 문J9-3.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J9-3 ☐

(1) 개인적으로 (2) 종교기관 (3) 경로당(대한노인회 포함)  
 (4) 각종 복지관 등 복지기관 (5) 지방자치단체 (6) 민간단체, NGO  
 (7) 기타(무엇: \_\_\_\_\_)

□ 문J9-4.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보기】 참조)

J9-4 ☐

【보기】 문J9-4, 문J10-2 관련 보기

- |                                    |                                  |
|------------------------------------|----------------------------------|
| (1) 사회복지 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       | (2) 문화, 체육 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
| (3) 교통질서(안전 지킴이, 기초 질서 캠페인 등)      | (4) 환경보호(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
| (5) 보건, 의료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 (6) 국제 관계(통역 및 번역, 입양기관 등)       |
| (7) 공공기관(행정 보조, 주민자치활동지원 등)        | (8) 재난, 재해 구호 분야(예방활동 및 복구 지원 등) |
| (9) 교육활동(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 (10) 시민단체                        |
| (11) 소비자 보호(피해 소비자 상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 (12) 기타(무엇:_____)                |

□ ★문J9-5.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나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 즐거움을 위해 | (2)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 돌려주기 위해 |
| (3)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 (4)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
| (5)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 (6) 기타(무엇:_____)           |

J9-5 ☐

□ ★문J9-6.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                        |                           |            |
|------------------------|---------------------------|------------|
| (1) 매우 그렇다             | (2) 그런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4) 그렇지 않다 →(문J9-6-1로) |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J9-6-1로) |            |

J9-6 ☐

● ★문J9-6-1.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1) 돈이 들어서      | (2) 건강에 부담이 되어서  | (3) 활동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
| (4)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 (5) 기관이 맘에 안 들어서 | (6) 의의(보람)가 없어서     |
| (7) 필요성을 못 느끼서  | (8) 기타(무엇:_____) |                     |

J9-6-1 ☐

■ ★문J10. 귀하께서는 앞으로(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 (2) 없다 →(문J10-3으로) |
|--------|--------------------|

J10 ☐

□ ★문J10-1. 귀하는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 |                 |                   |             |
|-----------------|-------------------|-------------|
| (1) 단순 노동형 자원봉사 | (2) 전문기술 활용형 자원봉사 | (3) 활동종류 무관 |
|-----------------|-------------------|-------------|

J10-1 ☐

□ ★문J10-2. 귀하는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18쪽 위의 【보기】 참조)

J10-2 ☐

□ ★문J10-3. 귀하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문J11로)                               |
| (2)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문J11로)                 |
| (3)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J11로)                       |
| (4)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체계적인 관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등) →(문J10-3-1로) |
| (5) 기타(무엇:_____)   |

J10-3 ☐

● ★문J10-3-1.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교통비와 식비 제공              | (2)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
|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 (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마일리지 적립 등) |
| (5) 기타(무엇:_____)            |                              |

J10-3-1 ☐

※ 다음은 **지난 1년간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J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J11 ☐

- (1) 했다 (2) 하지 않았다 → (문J12로)

□ 문J11-1. 가장 주된 여가문화활동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여가활동 목록]을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된 여가문화 활동: \_\_\_\_\_

J11-1 ☐

□ 문J11-2. 귀하께서는 해당 여가문화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1회 미만

J11-2 ☐

□ 문J11-3.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문화활동을 하십니까?

- (1) 혼자서 (2) 배우자 (3) 가족(배우자 제외)  
(4) 친구 (5) 동호회 회원 (6) 기타(무엇:\_\_\_\_\_)

J11-3 ☐

□ 문J11-4. 귀하께서는 주로 어디에서 여가문화활동을 하십니까?

- (1) 집 (2) 경로당 (3)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4)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노인교실 (5)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6) 대학부설 평생교육관/사회문화교실 (7)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자치센터  
(8)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 (9) 도서관, 박물관  
(10)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11) 근린공원, 산, 바다 등  
(12) 동호회 사무실 등 (13) 기타(무엇:\_\_\_\_\_)  
(14) 보건소 (15) 학원

J11-4 ☐

■★문J12. 귀하께서는 현재의 여가문화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J12 ☐

■★문J13. 본인의 노후를(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 (1)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2)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  
(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6)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  
(7) 편안히 쉬면서 보내고 싶다  
(8) 기타(무엇:\_\_\_\_\_)

J13 ☐

## K. 노인복지서비스

※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K1.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 (문K3으로)

K1 ☐

■ 문K2.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현재 참여하고 있다 (2) 참여한 적이 있다 K2 ☐  
 (3)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 → (문K3으로) (4) 신청한 적이 없다 → (문K2-4로)

□ 문K2-1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몇 개월 참여하셨습니다? 총  개월

- 문K2-2-1. 귀하께서는 평균적으로 주 몇시간 참여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시오. 주  시간

□ 문K2-2 귀하께서 참여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 (1) 공익형 (2) 교육형 (3) 복지형 (4) 시장형 (5) 인력파견형 K2-2 ☐

□ ★문K2-3. 귀하께서는 참여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응답 후 문K3으로)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K2-3 ☐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문K2-4. 귀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2)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 참여방법을 몰라서 (4) 건강이 좋지않아서  
 (5) 거리가 너무 멀어서 (6)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7) 보수가 너무 적어서 (8)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9) 시간이 없어서 (10) 기회가 없어서  
 (11) 기타(무엇: ) K2-4 ☐

■ ★문K3.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문K4로) K3 ☐

□ ★문K3-1.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 (1) 공익형 (2) 교육형 (3) 복지형 (4) 시장형 (5) 인력파견형 K3-1 ☐

※ 다음은 주택연금 제도와 농지연금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주택연금	농지연금
<p>■ ★문K4.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p> <p>(1) 알고 있다 (2) 모른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문K5. 귀하께서는 주택연금 제도(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p> <p>(1) 이미 활용하고 있다 → (문K6으로) (2) 향후 활용할 의사가 있다 → (문K6으로)          (3) (활용할 주택이나 농지는 있지만) 활용의사가 없다 → (문K5-1로)          (4) 생각해 본 적 없다 → (문K6으로) (5) 활용할 주택이나 농지가 없다 → (문K6으로)</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문K5-1 활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2) 자녀가 반대할 것 같아서          (3) 제도를 잘 몰라서 (4) 제도를 믿을 수 없어서          (5)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6) 소득이 충분하므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          (7) 기타(무엇: <input type="text"/>)</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b>■ 문K6. 귀하께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십니까?</b> (1) 이용한다 (2) 이용하지 않는다 → (문K6-6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K6-1. 1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하십니까? 주 _____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K6-2.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 (2) 자원봉사활동 참여 (3) 일자리사업 참여 (4) 주간보호 등 건강관련 서비스 이용 (5) 식사서비스 이용 (6) 친목도모 (7)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K6-3.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문K6-4로) (2) 만족한다→(문K6-4로) (3) 그저 그렇다→(문K7로) (4) 만족하지 않는다→(문K6-5로)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문K6-5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K6-4.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 후 문K7로) (1) 시설이 좋아서(공간, 구조, 설비 등) (2) 프로그램이 좋아서 (3)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하여 (4)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5)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6)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7)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K6-5.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 후 문K7로) (1) 시설이 좋지 않아서(공간, 구조, 설비, 위생문제 등) (2)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3)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4)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5) 가입비 또는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6)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K6-6. 귀하께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설이 좋지 않아서(공간, 구조, 설비, 위생문제 등) (2)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3)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4)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5) 가입비 또는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6) 시간이 없어서 (7) 몸이 불편해서 (8) 연령이 안되어서(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9) 기타(무엇: _____) (10) 시설이 없거나 유지되지 않아서 (11) 부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문K7. 귀하께서는 향후(계속)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겠습니까?</b> (1) 이용한다(이용하겠다) (2) 이용하지 않는다(이용하지 않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K8. 귀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 (문K9로)

K8 ☐

□ ★문K8-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급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K9로) (3) 신청중 → (문K9로)

K8-1 ☐

● ★문K8-1-1.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몇 등급입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기준)

-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등급외 A (5) 등급외 B (6) 등급외 C

K8-1-1 ☐

□ ★문K8-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K9로)

K8-2 ☐

● 문K8-2-1.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	(1) 이용 (2) 미이용	질문 내용	(1) 이용 (2) 미이용
1) 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2) 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3) 방문목욕	<input type="checkbox"/>	4)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5)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6) 단기보호	<input type="checkbox"/>
7) 장기요양 보장구 구매 및 대여	<input type="checkbox"/>		

□ ★문K8-3. 귀하께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K8-3 ☐

■ ★문K9.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각각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내용	(1) 알고 있다 (2) 모른다	질문 내용	(1) 알고 있다 (2) 모른다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바우처)	<input type="checkbox"/>	2) 노인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3) 치매조기검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4) 치매예방 및 인지건강(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5) 치매치료관리비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K10. **지난 2주간** 경로식당(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매일(휴일 제외) 이용한다 (2) 1주일에 3~4회 이용했다 (3) 1주일에 1~2회 이용했다  
(4) 2주일에 1회 이용했다 (5)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 (문K11로)

K10 ☐

□ ★문K10-1. 경로식당(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식사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2)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3) 가족에게 눈치가 보여서  
(4) 저렴해서 (5) 기타(무엇: \_\_\_\_\_)

K10-1 ☐

■ ★문K11. 귀하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식사서비스(배달, 음식점, 식당 등)가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K11 ☐



※ 다음은 **경로우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K12. 다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우대제도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및 만족도를 대답해주시시오.

질문 내용	K12-1. 이용 경험	★K12-2. 만족도	★K12-3. 향후 (계속) 이용 희망여부
	(1) 이용경험 있음 (2) 이용경험 없음 → (문K12-3으로)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있다 (2) 없다
1) 지하철(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무료 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철도 할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K13.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귀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2가지**를 골라주시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노후소득보장 (2) 노후장기요양 등 수발서비스 (3)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4)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 지원 (5) 노후경제활동 기회 제공  
(6) 노후주거지원(실버주택, 주택개조지원 등) (7) 노인의 자원봉사 기회 제공  
(8)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9) 기타(무엇:\_\_\_\_\_)

K13-

1순위

2순위

■★문K14. 귀하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친구와의 관계  
(4) 건강 및 기능 악화 (5) 경제적 어려움 (6) 주거 문제  
(7) 소외 및 고독감 (8) 무료함(소일거리 없음) (9) 기타(무엇:\_\_\_\_\_)  
(0) 없음

K14

■★문K15. 귀하께 **현재** 가장 필요한 노인용품을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 (\_\_\_\_)

- (1) 노인용 의약품 (2) 노화방지 화장품  
(3) 노인을 위해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4) 노인 건강 용품(헬스기구, 전동침대, 치매환자 위치확인 등)  
(5)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설비용품(안전손잡이, 가구높이 조절장치 등)  
(6) 노인을 배려한 가사용품(주방, 청소용품 등)  
(7) 노인에게 적합한 일상 용품(의류, 신발 등)  
(8) 기타(무엇:\_\_\_\_\_)

K15-

1순위

2순위

■★문K16. 귀하께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건강상담·진단 등 건강관리 서비스 (2) 공연·예술 등 문화여가 서비스  
 (3)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4) 죽음에 대비한 장묘환경 및 장례서비스  
 (5) 간병·가사지원·식사배달 등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6) 노인을 위한 병(의)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7) 노인을 위한 주택건설(실버타운) 및 주택개조서비스  
 (8) 노인용 휴대폰이나 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보컨텐츠서비스  
 (9) 은퇴농장 등 노인을 위한 영농지원서비스 (10) 미용서비스  
 (11) 기타(무엇:\_\_\_\_\_)

K16-

1순위

2순위

##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문L1. 귀하께서는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세 이상

L1 



 세

■★문L2. 귀하께서는 노후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2) 자녀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4) 기타(무엇:\_\_\_\_\_)

L2

■★문L3. 귀하께서는 노후에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문L4로)

L3

□★문L3-1. 귀하께서는 자녀 중 누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장남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2) 아들 중 누군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 장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4) 딸 중 누군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5) 딸·아들 상관없이 형편이 되는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6) 딸·아들 상관없이 마음이 맞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7) 기타(무엇:\_\_\_\_\_)

L3-1

■★문L4. 귀하께서는 노후에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 (2) 가까이에 사는 것  
 (3)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것 (4) 집안일, 장보기, 자녀 양육 등을 서로 도와주는 것  
 (5)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 (6) 정서적 유대 관계(관심과 사랑)를 가지는 것  
 (7)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 (8) 기타(무엇:\_\_\_\_\_)

L4

■★문L5. 귀하께서는 재산 처리 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3) 장남에게만 상속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  
 (5)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6)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상속  
 (7) 사회에 환원 (8) 가족과 사회에 나누어 상속 및 환원  
 (9) 나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 (10) 기타(무엇:\_\_\_\_\_)

L5

■★문L6.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보기】 (1) 매우 만족 (2)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음 (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자신의 건강상태	<input type="text"/>
2) 자신의 경제상태	<input type="text"/>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input type="text"/>
4) 자녀와의 관계(생존자녀가 있는 경우만)	<input type="text"/>

■★문L7. 귀하께서는 현재의 성생활 전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L7

■★문L8. 귀하께서는 성생활과 관련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L8

■★문L9.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경우, 행위자는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 내용	경험유무	(경험자만) 노인과의 관계
	(1) 예 (2) 아니요	※ 조사원 [노인과의 관계]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1)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대화 거절, 의견 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평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타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수입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건강하지 않을 때)를 돌봐주지 않았다 (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을 주지 않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문L10. 귀하께서는 노인이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주민복지센터 등에 신고한다  
(2)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3) 그냥 참는다 (4) 기타 (무엇:\_\_\_\_\_)

L10

■★문L11. 귀하께서는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L12로)

L11

□★문L11-1. 귀하께서 자살을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건강문제 (2) 경제적 어려움 (3) 외로움  
(4) 소일거리 없음 (5) 배우자 사망 (6) 가족 구성원의 사망  
(7) 친한 친구의 사망 (8) 부부간 큰 갈등, 단절 및 이혼 (9) 자녀와 큰 갈등, 단절  
(10) 친구와 큰 갈등, 단절 (11) 배우자의 건강문제 (12) 가족 성원의 건강문제  
(13) 거처를 옮김 (14) 화재, 교통사고, 사기 등 사건 (15) 기타(무엇:\_\_\_\_\_)

L11-1

□★문L11-2. 귀하께서는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_\_\_\_회) (2) 없다

L11-2  L11-2(1)  회

■★문L12. 귀하께서는 본인의 장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 (1) 화장 (2) 매장 (3)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4) 시신 기증

L12 ☐

■ 문L1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불교 (2) 개신교(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기타(무엇: \_\_\_\_\_) (7) 없음 → (문M1로)

L13 ☐

□★문L13-1. 귀하께서는 이 종교(종교활동)가 귀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L13-1 ☐

## M. 생활환경

■★문M1. 귀하께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된 공간은 어디인지 한 곳만 골라주십시오.

- (0) 없음 (1) 현관 (2) 복도 (3) 계단 (4) 부엌 및 식당  
(5) 화장실 (6) 욕실 (7) 침실 (8) 거실 (9) 베란다  
(10) 조명 (11) 문턱 (12) 환기 (13) 기타(무엇: \_\_\_\_\_)

M1 ☐

■ 문M2. 지난 1년간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요

M2 ☐

■★문M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범죄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입하십시오.

질문 내용	(1)예 (2)아니요
1) 재산범죄 (강도, 절도, 장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input type="checkbox"/>
2) 폭력 및 강력범죄 (폭력행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손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input type="checkbox"/>
3)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	<input type="checkbox"/>
4) 보이스피싱(사기전화) 피해경험	<input type="checkbox"/>

■ 문M4. 귀하께서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1) 버스 (2) 지하철 (3) 택시 (4) 자가용 (5) 자전거  
(6) 오토바이 (7) 전동휠체어 (8) 경운기 (9) 기타(무엇: \_\_\_\_\_)

M4 ☐

■★문M5. 귀하께서 평소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 (0) 불편함이 없다  
(1)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2)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3) 고르지 못한 인도 (4) 짧은 횡단보도 신호  
(5)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6) 글씨가 작아 노선표시가 안보임  
(7) 차량이 많아 다니기에 위험함 (8)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멀다  
(9) 이동수단 이용하기에 힘이 많이 들(전동휠체어, 경운기, 자전거 등 이용 시)  
(10) 교통수단이 부족함 (11) 기타(무엇: \_\_\_\_\_)

M5 ☐

■ 문M6. 귀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하십니까?

- (1) 현재 하고 있다 →(문M6-1로)  
 (2)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문M6-3으로)  
 (3) 평생 한 적이 없다 →(문M7로)

M6

□ ★문M6-1. 귀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문M7로)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문M7로)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M7로)

M6-1

□ ★문M6-2. 귀하께서 운전 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응답 후 문M7로)

- (1) 시야확보 (2) 표지판이 잘 안보임 (3) 신호 속도가 빠름  
 (4) 야간운전 (5) 빗길운전 (6) 기타(무엇: \_\_\_\_\_)

M6-2

□ 문M6-3. 귀하께서는 운전을 그만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M6-3

■ 문M7. 귀하께서는 비영업용 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1) 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를 갖고 있다 →(문M7-1로)  
 (2) 다른 동거가구원 소유의 차는 있다 →(문M7-1로)  
 (3) 우리 가구에는 차가 없다 →(문M8로)

M7

□ 문M7-1. 지금 그 차를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M7-1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M8. 귀하는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이 있습니까?

- (1) 교통사고 경험 없음 (2) 교통사고를 낸 경험만 있음  
 (3)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만 있음 (4) 교통사고를 낸 경험, 당한 경험 모두 있음

M7-1M8

## N. 인지기능

※ 조사원: <문N1>은 응답자가 문항을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 ★문N1. 지금부터 귀하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몇 가지는 쉽지만 몇 가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배점		
1)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_____년	(1)맞음	(2)틀림	N1-1) <input type="text"/>
2)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답을 못할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지요?”라고 재질문할 수 있습니다)	_____절	(1)맞음	(2)틀림	N1-2) <input type="text"/>
3) 오늘은 며칠입니까? (그믐(그달의 마지막 날) 등은 정답으로 합니다)	_____일	(1)맞음	(2)틀림	N1-3) <input type="text"/>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무엇입니까?”로 재질문 가능, 반공일(토요일)은 정답으로 합니다)	_____요일	(1)맞음	(2)틀림	N1-4) <input type="text"/>
5) 지금은 몇 월입니까? (응답자가 음력을 사용하면 음력으로 묻는다.) (동짓달(11월), 신달(12월) 등은 정답으로 합니다)	_____월	(1)맞음	(2)틀림	N1-5) <input type="text"/>
6)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특별시/광역시입니까? (정답이 되는 도를 제외한 “충청북도, 전라북도 같은 것 말이에요”라고 예시를 줄 수 있습니다. 남도와 북도까지 맞추어야 정답으로 채점합니다)	_____도/시	(1)맞음	(2)틀림	N1-6) <input type="text"/>
7)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_____구/시/군	(1)맞음	(2)틀림	N1-7) <input type="text"/>
8) 여기는 무슨 읍/면/동입니까?	_____읍/면/동	(1)맞음	(2)틀림	N1-8) <input type="text"/>

9)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_____층	(1)맞음	(2)틀림	N1-9)	
10)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정집, 우리집, 우리 아들집, ○○아파트 등은 정답)	_____	(1)맞음	(2)틀림	N1-10)	
<p>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b>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p> <p>이제 _____님께서 방금 들으신 3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p> <p>(응답자가 세 단어 모두 말하지 못하면,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더 따라 말하게 합니다. 세 번째에도 실패하면 그냥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채점은 <b>반드시 첫 번째 시도에 성공적으로 따라 말한 단어의 수</b>로 채점해야 합니다.)</p>					
11) 나무	_____	(1)맞음	(2)틀림	N1-11)	
12) 자동차	_____	(1)맞음	(2)틀림	N1-12)	
13) 모자	_____	(1)맞음	(2)틀림	N1-13)	
<p>14) 지금부터 제가 000님께 다섯 글자로 된 단어 하나를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p> <p>‘삼 천 리 강 산’ / 잘하셨습니다. (면접원은 응답자가 ‘삼천리강산’을 성공적으로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 5회까지 반복해 줄 수 있습니다.)</p> <p>이번에는 이 단어를 맨 뒤 글자부터 거꾸로 말해 보십시오.</p> <p>(응답자가 ‘거꾸로 말한다.’라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가방’을 거꾸로 말하면 ‘방가’가 됩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p> <p>※ 면접원은 응답자가 말한 대로 적어주세요. _____ (※점수 0~5점)</p>					
<p>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 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p> <p>(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응답자가 대답하는 단어의 순서는 상관없이 채점합니다)</p>					
15) 나무	_____	(1)맞음	(2)틀림	N1-15)	
16) 자동차	_____	(1)맞음	(2)틀림	N1-16)	
17) 모자	_____	(1)맞음	(2)틀림	N1-17)	
18) [열쇠를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_____	(1)맞음	(2)틀림	N1-18)	
19) [도장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_____	(1)맞음	(2)틀림	N1-19)	
<p>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듣고 따라 하십시오. (듣지 못했다고 해도 한번만 불러주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린 것으로 채점합니다.)</p> <p>20) “간 장 공 장 공 장 장”</p>					
<p>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b>한 번만</b>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응답자에게는 ‘왼손’으로 바꿔 지시합니다. 듣지 못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시를 반복해주면 안 됩니다. 지시가 다 끝난 다음에 종이를 건네줍니다.)</p>					
21) 오른손으로 받는다.		(1)맞음	(2)틀림	N1-21)	
22) 반으로 접는다.		(1)맞음	(2)틀림	N1-22)	
23) 무릎 위에 놓는다.		(1)맞음	(2)틀림	N1-23)	
<p>24) [접힌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 보세요. (다섯 개의 각이 있는 <b>오각형이 두 개</b>가 있어야 하며 겹쳐진 부위의 크기나 위치는 관계없이 두 오각형이 <b>겹친 부위가 사각형</b>을 이루면 됩니다.)</p>					
<p>25)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_____</p> <p>(‘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입으려고’ 등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내용은 정답으로 채점, ‘예쁘게 보이려고’ 등은 오답으로 처리)</p>					
<p>2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_____</p> <p>(‘우체국’, ‘우편함’, ‘우체국’, ‘집배원’ 등만 정답으로 인정)</p>					
					총점

■ 조사원 확인사항

1)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다가구 주택)  
(5) 상가주택      (6) 오피스텔      (7) 기타(무엇:\_\_\_\_\_)

조사원확인 1) ☐

2) 주거위치는 어디입니까?

- (1) 지하      (2) 반지하      (3) 지상      (4) 옥탑

조사원확인 2) ☐

3) 조사원께서는 노인의 주택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느끼십니까?

- (1)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이다  
(2)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  
(3) 노인을 배려한 설비(예: 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를 갖추고 있다  
(4) 기타(무엇:\_\_\_\_\_)

조사원확인 3) ☐

■ 대리응답인 경우, 어떠한 이유로 대리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 (1) 와병 상태      (2)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치매 등)      (3) 청각 장애  
(4) 언어 장애      (5) 노쇠하여서      (6) 기타(무엇:\_\_\_\_\_)

대리응답이유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011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사망·입원·장기요양자 체크리스트

개인ID				가구 생성자수		가구패널ID				가구 관리 일련번호
이름				응답유형						
				(0) 본인응답						
				(1) 동거인 대리 응답 (노인과의 관계 <input type="text"/> )						
				(2) 비동거인 대리응답(노인과의 관계 <input type="text"/> )						

- 문1. 응답자의 어르신과의 관계를 기입하십시오. (【노인과의 관계】코드를 참조하십시오.)

1

- 문2. 사망, 입원, 장기요양시설 입소시점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2     년   월

## 사망한 경우

- 문3. 사망하신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자연사(노화)  
 (2) 병사(질환명: \_\_\_\_\_)  
 (3) 사고사(교통사고 등) (사고내용: \_\_\_\_\_)  
 (4) 자살  
 (5) 기타(무엇: \_\_\_\_\_)

3

## 입원한 경우

- 문4. 입원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 (1) 요양병원 (2) 병원

4

- 문5. 입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만성질환 (2) 일반질환 (3) 낙상 (4) 교통사고 (5) 기타사고 (6) 기타(무엇: \_\_\_\_\_)

5

## 장기요양시설 입소한 경우

- 문6. 어르신은 몇 등급이십니까?

-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등급외 (5) 비등급자

6

- 문6-1. 어르신이 입소하신 시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1) 기존 거주지와 동일 시도 (2) 기존 거주지와 다른 시도

6-1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인포시트

[illegible]

### 3.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전화조사

#### 3-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전화조사

#####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11년도 노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8~10월경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여주어 보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르신께 연락을 드리는 것은 지난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혹시 그동안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및 가지만 간단하게 여주어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 담당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 380 - 8153) 박보미

- 전화조사 공통지침
  - 핸드폰 번호로 먼저 연락 후, 안될 시 집전화로 연락하십시오.      - 주소,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모두 확인하십시오.
  - 비동거인의 경우에는 응답을 받지 마십시오                              - 응답거부는 8로 코딩하시고, 비해당인 경우는 9로 코딩하십시오.
- 문제1번 현상태 파악 코딩 지침
  - ① 기존주소 본인 거주 확인                      ② 이사                      ③ 장기요양시설입소                      ④ 입원                      ⑤ 사망(응답종결)
  - ⑥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모두 결번(응답종결)                      ⑦ 핸드폰 집전화 모두 받지 않음(응답종결)                      ⑧ 조사거절

스티커 부착란 (조사표번호, 패널리아이디, 이름,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 <전화조사 문항>

문항	1. 현상태파악 (지침참조)	2. 대리응답 유형	3. 핸드폰 번호 확인 (스티커에 제시된 번호 확인)	4. 집전화번호 확인 (스티커에 제시된 번호 확인)	5. 주소 확인 (스티커에 제시된 주소 확인)
보 기		① 본인 ② 동거인 대리응답	⑥ 변경없음 ① 변경 기입: _____	⑥ 변경없음 ① 변경 기입: _____	⑥ 변경없음 ① 변경 기입: _____

##### <조사원 확인 사항>

- 최종 접촉 성공 수단 (회수는 모두 적어주시고, 최종 성공한 수단에 √해 주세요)
  - ① 핸드폰 (접속회수                      회)
  - ② 집전화 (접속회수                      회)
- 조사원번호 \_\_\_\_\_

## 3-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전화조사

###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전화조사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11년도 노인실태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8~11월경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여쭙어 보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르신께 연락을 드리는 것은 지난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혹시 그동안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 담당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 380 - 8153) 박보미

#### \* 전화조사 공통지침

- 핸드폰 번호로 먼저 연락 후, 안될 시 집전화로 연락하십시오.
- 주소,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모두 확인하십시오.
- 응답거부는 8로 코딩하시고, 비 해당인 경우는 9로 코딩하십시오.
- 2011년 4월 28일~5월 4일에 전화조사를 받은 대상자들은,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기준을 2011년 전화조사 이후 시점으로 하시오.

#### \* 종결멘트

- "8~11월쯤 방문조사 드릴 때 꼭 뵙겠습니다."

개인패널ID											
1. 응답자 노인실태 관련(대상)		2. 현 상태 (하단참조)		3. 핸드폰 번호 확인		4. 집 전화번호 확인		5. 주소 확인		6. 향후 이사 계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div>		⑥ 변경없음 ① 변경 기입: _____ ② 핸드폰 없음		⑥ 변경없음 ① 변경 기입: _____ ② 집전화 없음		⑥ 변경없음 ① 변경이나 정정 기입: _____ ② 추가기입: _____		⑥ 계획없음 ① 예정 이사예정날짜: _____년 _____월 주소: _____ (응답 종결)	
<현상태 코드번호> ① 기존주소 본인 거주 확인 ② 이사 ③ 장기요양시설입소 ④ 입원 ⑤ 사망 ⑥ 핸드폰, 집전화 모두 결번 (응답종결) ⑦ 핸드폰 집전화 모두 안받음 (응답종결) ⑧ 조사거절(종결멘트) ⑨ 전화, 주소 모두 다른사람 (응답종결) ⑩ 연로하셔서 못 알아들음 (응답종결)		9. 사망시 1) 사망날짜: _____년 _____월 2) 사망원인: _____ ① 자연사(노화) ② 병사 ③ 사고사 ④ 자살 ⑤ 기타: _____		7. 장기요양시설 입소시 ① 입소 날짜: _____년 _____월 ② 퇴소예정날짜: _____년 _____월 (응답 종결)		8. 병원 입원시 ① 입원 날짜: _____년 _____월 ② 퇴원예정날짜: _____년 _____월 (응답 종결)					

※ 조사원 확인 사항 (접속회수는 모두 적어주시고, 최종 성공한 수단에 √해 주세요)

□ ① 핸드폰 (접속회수 \_\_\_\_\_ 회) □ ② 집전화 (접속회수 \_\_\_\_\_ 회)

※ 특이사항: 가구분리, 거부정도 등등, 직접 기입: \_\_\_\_\_

\* 조사원번호 \_\_\_\_\_

##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사후 전화조사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8~11월에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여쭙어 보고자 방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어르신께 연락을 드리는 것은 지난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혹시 그동안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담당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 380 - 8153, 8368)

### \* 전화조사 공통지침

- 주소,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모두 확인하십시오.
- 응답거부는 9로 코딩하시고, 비해당인 경우는 8로 코딩하십시오.
- 2011년 조사를 받은 대상자들은,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기준을 2011년 조사 이후 시점으로 하시오.

### \* 종결멘트

- 올해 추석경에 다시 안부 전화드리겠습니다.

- 주 1) 1번 설문지 응답대상자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응답한 11,542명(08기준+11신규+08추가)을 대상으로 함.  
 2) 2번 모니터링용 설문지 응답대상자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응답한 11,542명 중 랜덤샘플링을 통하여, 각 조사지도원 2개, 조사원 20개씩 전체 응답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1,036명임  
 3) 3번 체크리스트 임원장기요양자용 설문지 응답대상자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 또는 병원 입소로 인해 응답을 받지 못한 256명을 대상으로 함.

## I. 설문지 응답자용

개인패널ID

1. 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뒷장 노인과의 관계 참조)

--	--

(참고: 결번 88, 알아듣지못함 99)

2. 핸드폰 번호 확인

① 변경없음

② 변경

기입: \_\_\_\_\_

③ 핸드폰 없음

3. 집 전화번호 확인

① 변경없음

② 변경

기입: \_\_\_\_\_

③ 집전화 없음

4. 주소 확인

① 변경없음

② 변경이나 정정(동 단위 까지 기입)

기입: \_\_\_\_\_

③ 추가기입 \_\_\_\_\_

※ 조사원 확인 사항 (접촉회수는 모두 적어주시고, 최종 성공한 수단에 v해 주세요)

☐ ① 핸드폰 (접촉회수 \_\_\_\_\_ 회)

☐ ② 집전화 (접촉회수 \_\_\_\_\_ 회)

\* 조사원번호 \_\_\_\_\_

## [별첨1] 노인과의 관계

- 01 노인 본인
- 02 노인의 배우자
  
- 11 노인의 장남(외동 포함)
- 12 노인 장남(외동 포함)의 배우자 (첫째 며느리)
- 13 노인의 차남
- 14 노인 차남의 배우자 (둘째 며느리)
- 15 노인의 삼남 이상
- 16 노인 삼남 이상의 배우자 (세째 이상 며느리)
- 17 노인의 장녀(외동딸 포함)
- 18 노인 장녀의 남편(첫째 사위)
- 19 노인의 차녀
- 20 노인 차녀의 남편(둘째 사위)
- 21 노인의 삼녀 이상
- 22 노인 삼녀 이상의 남편(세째 이상 사위)
  
- 31 노인의 친손자
- 32 노인의 친손자의 배우자(손자며느리)
- 33 노인의 친손녀
- 34 노인의 친손녀의 배우자(손녀사위)
- 35 노인의 외손자
- 36 노인의 외손자의 배우자(손자며느리)
- 37 노인의 외손녀
- 38 노인의 외손녀의 배우자(손녀사위)
  
- 41 노인의 증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배우자
  
- 51 노인의 아버지
- 52 노인의 어머니
- 53 노인 배우자의 아버지(장인, 시부)
- 54 노인 배우자의 어머니(장모, 시모)
  
- 61 노인의 할아버지
- 62 노인의 할머니
- 63 노인 배우자의 할아버지
- 64 노인 배우자의 할머니
  
- 71 노인의 남자형제
- 72 노인의 남자형제의 배우자
- 73 노인의 여자형제
- 74 노인의 여자형제의 배우자
- 75 노인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배우자
- 76 노인 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아주머니, 배우자남, 시누이, 배우자형, 배우자제)
- 77 노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 78 노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배우자
  
- 81 노인의 기타혈연
- 82 노인 배우자의 기타혈연
  
- 91 비혈연 동거인
  
- 92 친구 및 이웃
- 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94 기타

## II . Monitoring용

개인패널ID							
--------	--	--	--	--	--	--	--

### 0. 모니터링용 설문지 조사미완시 그 이유 (응답종결)

- ① 조사한 기억이 없음
- ② 다른사람이 응답함
- ③ 대상자가 입원중이라 알 수 없음
- ④ 기타

### 1. 조사당시시 조사원은 친절하였습니까?

- ① 친절했다
- ② 그저 그랬다
- ③ 친절하지 않았다

### 2. 답례품(파스)은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음 —▶ (문2-1로)
- ② 받지 않았음

#### 2-1. 답례품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 ① 마음에 들었다
- ② 그저 그랬다
- ③ 마음에 들지 않았다

### 3. 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 졌습니까?

- ① 집 (내)방
- ② 집 거실
- ③ 이웃집
- ④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 ⑤ 기타(\_\_\_\_\_)

### 4. 조사는 응답하시기가 어떠하셨습니까?

- ① 수월하였다
- ② 보통이었다(그저그렇다)
- ③ 어려웠다 —▶ (문4-1로)

#### 4-1.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설문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 ② 설문내용에 응답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었다
- ③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원의 설명이 부족하였다
- ④ 조사 시간이 길었다
- ⑤ 기타 (구체적으로:\_\_\_\_\_)

### Ⅲ. Checklist 입원·장기요양자용

개인패널ID

1. 병원입원/장기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 하였습니다습니까?

① 예 —▶ (문1-1로)

② 아니오

③ 사망

1) 사망원인: ① 자연사(노화)      ② 병의 악화      ③ 사고사      ④ 자살      ⑤ 기타

2) 사망날짜: \_\_\_\_\_년\_\_\_\_\_월

1-1. (병원/장기요양시설을 퇴원·퇴소한 경우)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건강이 나쁜 편이다

⑤ 건강이 매우 나쁘다



## 부록 5.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문위원 명단

(가나다순)

성명	소속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김수영	경성대학교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김정석	동국대학교
김진	통계청
김찬우	카톨릭대학교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박명화	계명대학교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박종선	한국리서치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윤종률	한림대학교
이규태	한국리서치
이기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장희숙	한국리서치
조애저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경혜	서울대학교
현영남	보건복지부
홍백의	서울대학교
황승현	보건복지부
황호숙	통계청